조선문학작품편람

1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0(2011)

《조선문학작품편람》(해방후)을 내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방후 우리 문학예술분야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작가, 예술가들은 빛나는 업적을 쌓았습니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아래 선군혁명문학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줄기차게 발전하여온 주체문학의 눈부신 발전로정을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회깊이 돌이켜본다.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체문학의 발전로정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문학예술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속에서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온 력사인 동시에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천만군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명작들로 자기의 보물고를 끊임없이 풍부화하여온 자랑스러운 력사이다.

이 자랑스러운 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충정, 그리움에 불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와 창조와 건설로 들끓는 현실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한 수많은 작품들이 주옥같이 새겨져있다.

특히 선군의 철리를 힘있게 구현함으로써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고 강성대국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의 력사적현실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 감화력이 큰 문학작품들이 많이 창작된것은 주체문학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이 모든 성과들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될뿐아니라 선군혁명문학의 보다 새로운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로 된다.

《조선문학작품편람》〔주체34(1945)년 8월－주체97(2008)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지난 60여년간 우리 작가들과 인민들이 창작하여 내놓은 수많은 시와 소설, 가사, 영화 및 극문학, 아동문학작품들가운데서 비교적 높은 사상예술성과 문학적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작품 3 500여편을 선정하여 올림말로 올리였다.

올림말항목에 대한 주석은 해당 작품의 내용과 사상예술적특성을 간단히 소개하여주는 원칙에서 주었다.

《조선문학작품편람》은 작품선정의 폭을 더 넓히지 못한것을 비롯하여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해방후 주체문학의 발전면모를 종합적으로 폭넓게 보여주는데 이바지하리라고 믿으면서 그대로 내놓는다.

일 러 두 기

1. 올림말은 조선어자모순으로 배렬하였다.
   그러나 백두산3대장군께서 몸소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과 영생불멸의 혁명송가들은 해당권의 맨 앞부분에 편집하였다.

   조선말자모와 받침의 배렬차례는 다음과 같다.
   자모의 차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ㅒ ㅔ ㅖ ㅚ ㅟ ㅢ ㅘ ㅝ ㅙ ㅞ

   받침의 차례:
   ㄱ ㄳ ㄴ ㄵ ㄶ ㄷ ㄹ ㄺ ㄻ ㄼ ㄽ ㄾ ㅀ
   ㅁ ㅂ ㅄ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ㅆ

2. ㄱ부터 ㅁ까지는 1권에, ㅂ부터 ㅈ까지는 2권에, ㅊ부터 ㅞ까지는 3권에 묶었다.

3. 올림말이 같은 경우에는 창작년도에 따라 배렬하였다.

   례: 《갈매기》 서정시. 주체43(1954)년
   《갈매기》 단편소설. 주체51(1962)년
   《갈매기》 단편소설. 주체52(1963)년
   《갈매기》 단편소설. 주체69(1980)년

4. 작품이 소설, 영화, 연극 등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로 옮겨졌을 때에는 올림말의 규정을 먼저 창작된 문학예술형태로 주고 마지막에 해당 작품이 언제 어떤 문학예술형태로 옮겨졌는가를 밝혔다.

차 례

ㄴ

ㄷ

ㄹ

ㅁ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가사. 주체35(1946)년 리찬 창작.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우러러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경건한 정서로 높이 찬양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이다. 송가의 1절과 2절에서는 일찌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백두의 줄기줄기와 압록강의 굽이굽이에 피어린 자욱을 남기시며 력사에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인민에게 조국을 찾아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숭고한 시적화폭으로 웅심깊게 보여주고있다. 송가는 3절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조국과 민족해방의 은인이실뿐아니라 새 조선 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는 태양이시라는것을 강조하면서 그이의 현명한 령도따라 부강하고 번영하는 새 조선을 일떠세울 우리 인민의 충천한 혁명적기개를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후렴에서는 우리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해방된 조국땅에 높이 우러러모시게 된 전체 조선인민의 열화와 같은 감격과 환희,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감정을 집약적으로 깊이있게 표현하고있다. 가사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절대적인 신뢰의 사상감정을 폭넓고 깊이있는 시적형상으로 훌륭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해방후 주체적인 송가문학의 빛나는 본보기로 되였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우리 인민이 가장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심장의 노래로,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에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조선노래대전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김정일**장군의 노래》 가사. 주체86(1997)년 신운호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으시여 우리 조국과 인민을 세계의 상상봉우에 올려세워주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빛나는 혁명업적과 위대한 풍모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의 감정을 노래한 불멸의 혁명송가이다. 송가의 1절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의 수위에 높이 받들어모신 인민들의 끝없는 기쁨과 환희를 노래하면서 위대한 태양의 위업을 빛내이신 인민의 자애로운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송가의 2절에서는 인간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과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모두를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며 이 땅우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주체의 락원을 가꾸어주신 위대한 행복의 창조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어버이사랑과 불멸의 업적을 열렬한 칭송의 감정으로 노래하고있다. 송가의 3절에서는 강철의 의지와 담력으로 우리 혁명무력을 불패의 대오로 다지시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켜내시였으며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정의의 수호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업적과 풍모를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송가는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된 시적표현과 숭엄한 정서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 흠모의 감정을 웅심깊게 노래하고있다. 송가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오늘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위대한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조선노래대전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불후의 고전적명작

《**광명성찬가**》 송시. 주체81(1992)년 2월 16일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지으신 송시이다. 만민의 축원속에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실 성스러운 력사적사명을 지니시고 혁명의 성지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 그이를 우러르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뜨거운 칭송의 마음과 조선혁명의 양양한 전도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숭고한 높이에서 노래한 작품이다. 송시에서는 먼저 백두밀영고향집이 자리잡은 유서깊은 성지의 정경묘사를 통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이 가지는 민족사적의의를 웅심깊은 시형상으로 부각하고있다.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 흐르누나

혁명의 성산 백두산마루에 솟아 빛나는 정일봉과 그 숭엄한 메부리들을 감돌아흐르는 소백수의 용용한 흐름이 가장 훌륭한 조화를 이룬 이 자연의 화폭들은 거기에 깃든 위대한 력사와 그것을 우러르는 인민들의 환희와 감격을 아름답고 숭고한 경지에서 펼치고있다. 송시는 우리 혁명의 성산인 백두산마루에 정일봉이 솟아있다는 시적형상을 통하여 백두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뛰여난 상징수법으로 칭송하고있다. 또한 송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자취가 어려있는 백두산의 소백수 푸른 물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우리 혁명의 대가 끗끗이 이어져 주체혁명위업이 계승완성되여나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송시는 다음 부분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반세기에 걸치는 빛나는 생애를 깊은 감회속에서 회고하면서 그이의 위대한 풍모와 자질,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한 열렬한 칭송의 감정을 웅심깊게 반영하고있다.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쉰돐인가
문무충효 겸비하니 모두다 우러르네

경애하는 장군님의 50성상은 세상에서 가장 걸출한 위인의 력사이며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신 자랑찬 력사이다. 송시에서는 그이의 영광찬란한 50성상과 쌓으신 업적을 뛰여난 자질과 고매한 풍모와의 깊은 련관속에서 노래하고있다. 바로 《**문무충효 겸비하니 모두다 우러르네**》라는 구절에는 비범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치가, 탁월한 군사전략가로서의 자질과 혁명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등 혁명의 령도자로서 지녀야 할 품격을 완벽하게 지니신데 대한 칭송이 담겨져있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

송시의 이 구절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그이를 우러르는 세계인민들의 흠모의 정이 격조높이 노래되여있다. 송시는 그에 반영된 위대한 사상을 완벽한 예술적형상에 담아 노래함으로써 최상의 사상예술적경지를 보여주고있다. 숭엄한 감정의 폭넓은 전개, 백두산과 정일봉, 소백수가 한폭의 그림처럼

선명히 부각된 조형적인 화폭, 뜻이 깊은 시적표현들과 상징적인 시형상 등은 송시로 하여금 인류시가의 상상봉에서 빛나는 불후의 고전적명작으로 되게 하고있다. 참으로 송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주체시대의 위대한 송가이며 혁명적시가문학의 참다운 본보기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친작송시는 필체가 힘있고 활달하며 살아움직이는 것 같아 위인의 기상과 존엄, 풍모를 력력히 느낄수 있게 한다. 진정 우리 인민과 전인류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은 불멸의 송시는 민족의 송가, 인류의 송가로서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만년재보로 된다.

《묘향산 가을날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8(1979)년 10월 15일 묘향산국제친선전람관을 찾으시여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인민들이 보내온 귀중한 선물들을 돌아보신 다음 6층 로대에서 묘향산의 아름다운 가을풍경을 바라보시며 이 시를 읊으시였다. 명작에는 로동당시대에 지닌 민족의 존엄과 긍지, 인민의 락원으로 꽃펴난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례찬과 이 땅우에 일어난 위대한 전변과 번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가리라는 심오한 사상이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반영되여있다. 명작은 국제친선전람관이 일떠섬으로 하여 더더욱 절경을 이룬 묘향산의 수려한 가을풍치에 대한 부감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인민이 누리에 떨치고있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존엄과 영예를 고도로 앙양되고 정화된 생활감정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승화시켜 노래하고있다.

로대우에 올라서니 천하절승 예로구나
묘향산절경이야 태고부터 있는것을
전람관 여기 솟아 푸른 추녀 나래펴니
민족의 존엄 빛나 비로봉 더욱 높네

명작에서 노래되고있는바와 같이 천하절승 묘향산의 아름다움과 웅장한 절경은 태고적부터 있었다. 그러나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무참히 짓밟히던 지난날 묘향산은 조선의 산이면서도 착취자들과 억압자들의 유흥과 환락의 독점물로 되였으며 따라서 묘향산의 자연풍치는 참다운 의미에서 빛을 뿌리지 못하였다. 력대로 큰 나라를 섬기기만 하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때문에 인민들의 가치있는 창조물들은 물론 아름다운 자연마저 빛을 낼수 없었던 우리 나라가 오늘 로동당시대에 와서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 세계에 이름떨치며 세계 진보적인류의 희망과 동경의 대상으로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높으신 권위때문이다. 명작에서는 예로부터 아름다운 절경인 묘향산이 국제친선전람관으로 하여 더욱 찬연히 빛난다고 함으로써 로동당시대에 와서 지니게 된 우리 인민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끝없는 영예와 자랑을 웅심깊게 노래하고있다. 명작에서는 또한 국제친선전람관으로 하여 누리에 빛나는 민족의 존엄과 묘향산의 아름다움을 력사적견지에서 노래하면서 그 숭고한 시대적감정을 로동당시대의 위대한 전변의 새 력사에 대한 뜨거운 감정으로 승화시키고있다.

만산에 붉은 단풍 가을마다 붉었으리
로동당 새시대에 해빛도 찬란하니
단풍도 고와라 더욱 붉게 물들면서
산천에 수놓누나 이 나라 새 력사를

우리 시대의 찬란한 해빛,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이며 은혜로운 사랑의 정화이다. 위대한 사랑의 빛발과 현명한 령도로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그 어디 가나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져 우리 인민은 만복을 누리며 부럼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있다. 때문에 해마다 가을철이면 의례히 붉어지는 단풍이지만 류달리 더 붉게 보일뿐아니라 그리도 정겹고 살뜰하게 느껴지는것이다. 명작에서 가

을마다 붉었던 만산의 단풍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찬란한 해빛아래 더 붉게 물들면서 산천을 수놓는다고 노래한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위대한 전변의 새 력사에 대한 참으로 심오하고도 생동한 형상적인 구가이다. 명작의 형상전반에서는 또한 로동당시대에 와서 처음으로 일어난 세기적변혁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대를 이어 자랑하고 빛내여가리라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웅심깊게 울려나오고있다.

사대로 망국으로 수난도 많던 땅에
온 세계 친선사절 구름같이 찾아든다
5천년력사국에 처음 꽃핀 이 자랑을
금수강산 더불어 후손만대 물려주리

5천년의 유구한 민족사를 더듬어보면 실로 지난날에는 사대와 망국으로 이 땅우에 수난의 피눈물이 가실 날이 없었으며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여 찾아오는 사람 또한 드물었다. 그러나 오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국땅으로 구름같이 찾아드는것인가. 그것은 결코 이 땅의 아름다운 경치때문만이 아닌것이다. 아름다운 자연경치는 예로부터 있었지만 사대와 망국의 지난날에는 그것을 탐내는 통치배들과 침략자는 많았어도 그것을 빛내여주는 참다운 애국자, 위인은 없었다. 치욕의 력사로 얼룩졌던 수난많던 이 땅에 자주정신이 나래치고 민족번영의 활력이 솟구치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자주의 궤도우에 올려세운 그때부터이다. 오늘 대륙과 대양을 넘어 이 땅에 수많이 찾아드는 친선의 사절들, 그들은 이 땅의 수려한 자연풍치가 그리워서만이 아니라 바로 로동당시대를 꽃피운 우리 수령이 위대하고 우리 당이 위대하고 우리 조국과 민족이 위대하여 끝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찾아오는것이다. 이것은 5천년의 유구한 력사의 흐름속에서 로동당시대에 와서 처음으로 꽃핀 우리 인민의 자랑이며 영예이다. 명작은 이러한 자랑을 금수강산 더불어 후손만대 물려주리라는 보다 심원한 뜻과 웅심깊은 사랑을 담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오늘의 행복뿐아니라 후손만대의 번영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게 실현되리라는 우리 혁명의 미래에 대한 례찬이다.

명작에 일관된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세계에 떨치는 민족적자존심과 영예, 로동당시대에 대한 열렬한 례찬의 감정과 금수강산 이 조선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은 심오하고 풍만한 시형상을 통하여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훌륭히 노래되고있다. 력사와 시대를 안은 넓은 안목으로 현시대를 부감하여 풍만하고 심오한 사색의 나래를 펼친 웅건한 사상, 묘향산의 아름다운 자연풍치를 한폭의 그림같이 선명한 형상적화폭으로 창조하면서 그것을 과거와 오늘을 통한 우리 조국과 인민의 새로운 변천을 구가하는 시대정신의 높이에로 승화시킨 웅심깊은 시적일반화, 심원한 느낌과 시대적감정을 민족적정서로 밝고 아름답게 랑만적열정으로 꽃피운 풍부한 서정성 그리고 평이하고 통속적이면서도 깊은 뜻을 담은 언어표현, 이것은 명작의 극치를 이룬 예술적형상의 완벽한 경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묘향산 가을날에》**는 그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혁명적시가문학의 참다운 본보기, 시대와 더불어 영원할 로동당시대에 대한 불멸의 찬가로 되고있다. 〔《조선노래대전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나의 어머니》 가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49(1960)년 7월에 부르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이다. 명작은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을 절절히 그리며 어머님의 고결한 뜻을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누리에 찬란히 빛내여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적의지와 신념을 뜨겁게 반영하고있다. 3개의 절과 맺음구로 되여있는 명작의 1절과 2절에서는 항일혈전의 간고한 나날과 새 조국건설의 어려운 시기 모진 눈보라와 비바람을 맞으시면서도 조국의 미래를 뜨거운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순간을 살아도 빛나게 살라고 손잡아 이끌어주시던 어머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하여서와 은혜로운 그 품을 못 잊어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절절한 마음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명작의 3절에서는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면서 그이께서 바라시던 숭고한 념원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세월의 끝까지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념의 맹세를 숭엄하게 보여주고있다. 명작은 마감부분에서 어머님의 한없는 사랑이 못견디게 그리워 어머님을 부르고 또 불러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마음을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뜨거운 그 사랑 내 크며 알았네》**라는 결속구에 담아 다시한번 강조해줌으로써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김정숙녀사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사랑의 감정이 지울수 없는 강한 여운으로 깊이 새겨지게 하고있다. 명작은 구절구절마다에 위대한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넘쳐흐르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정의 열정이 용암처럼 솟구치는 시대의 걸작으로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한 사랑의 노래로 길이 남아있다. 〔작품집 《조선아 너를 빛내리》,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4(2005)년판〕

《대동강의 해맞이》 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49(1960)년 7월에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이다. 명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가시는 길에서 그 어떤 폭풍도 맞받아헤쳐나가는 전위투사로 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열정과 굳센 의지를 대동강의 해돋이에 비유하여 형상적으로 노래하고있다. 1절과 2절에서는 대동강의 장엄한 해돋이와 같은 불타는 청춘의 희망과 열정을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충정의 한길에 남김없이 바쳐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엄하고도 뜨거운 마음이 웅건한 시적정서로 깊이있게 노래되고있다. 명작의 3절에서는 1절과 2절에서 노래된 사상감정이 더욱 고조되면서 오늘은 대동강의 해돋이를 맞지만 래일에는 공산주의해돋이를 남먼저 맞이하고 이 세상 끝까지 주체의 붉은 노을을 펼쳐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드높은 혁명적포부와 철의 의지가 힘차게 울리고있다. 명작에서는 대동강의 해돋이를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현상으로가 아니라 청춘의 희망과 열정, 주체의 붉은 노을로 상징하여 조국을 빛내이시고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오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펼쳐보이고있다. 명작은 고상한 사상적내용을 풍만한 정서와 적중한 시적비유, 장쾌한 률조로 훌륭히 노래한것으로 하여 가장 높은 사상예술적경지를 보여주고있으며 혁명적시가문학의 불멸의 본보기로 주체문학예술의 년대기우에 찬연히 빛나고있다. 〔작품집 《조선아 너를 빛내리》,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4(2005)년판〕

《공화국기발》 동요. 주체39(1950)년 6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공화국기발을 가지게 된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랑, 공화국기발을 지켜갈 굳은 결의를 노래한 작품이다. 동요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나라 기발, 공화국기발을 가지게 된 우리 인민의 긍지와 함께 가는 곳마다 우리 인민의 기상인양 펄펄 날리는 공화국기발을 바라보며 아름답고 부강한 내 조국을 더욱 빛내여갈 굳은 결의와 애국적열정을 한껏 터치고있다. 공화국기발에 대한 우리 어린이들의 소박한 심정을 생동한 동심적언어형상과 운률을 통하여 감동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작품집 《조선아 너를 빛내리》,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4(2005)년판〕

ㄱ

《가림천》 가사. 주체49(1960)년 현창성 창작. 영광의 땅 보천보를 감돌아흐르는 가림천의 정다운 모습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아래 꽃펴나는 보천마을과 그를 감돌아흐르는 가림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시적으로 펼쳐보이면서 가림천물결우에 원한소리가 높던 보천보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진군의 총소리를 높이 울리신 그밤부터 인민의 가슴속에 불멸의 모습으로 아로새겨졌다고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며 정답게 흐르는 가림천의 물결소리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결의를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아름다운 시어와 깊은 서정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길이 빛내여 가려는 인민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깊이 있게 노래하고있다. 〔《조선음악전집》 1,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가마마차 달린다》 가사. 주체49(1960)년 김정춘 창작. 전술훈련에 나가는 대오의 뒤를 따라 가마마차를 타고가며 화식전투를 벌리는 취사병들의 생기발랄한 모습을 통하여 인민군군인들의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긍지, 락천적인 생활기풍을 노래한 작품이다. 2개의 절로 되여있다. 가사는 먼저 1절에서 풍성한 남새와 고기를 가마마차에 가득 싣고 중대와 함께 전술훈련을 떠나는 취사병들의 즐겁고도 흥분된 심정을 노래한 다음 대오를 따라가며 날랜 솜씨로 전우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취사병들의 흥겨운 화식전투모습을 생동하게 펼쳐보여주고 있다. 가사의 2절에서는 훈련을 끝마치고 선들바람이 불어오는 강가에서 휴식하고있는 전우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푸짐한 식사를 대접하는 취사원들의 기쁨과 긍지에 넘친 모습, 전술훈련을 성과적으로 마친 끝없는 기쁨을 안고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며 병영으로 돌아오는 전사들과 취사병들의 유쾌하고 락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회주의 높은 언덕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달려나갈 그들의 드높은 열의와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서정성과 서사성을 잘 결합시키고 전형적인 세부를 통하여 인민군군인들의 씩씩하고 락천적인 생활과 훈련모습을 생동하면서도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가사는 《덜렁덜렁》, 《달랑달랑》 등과 같이 음악성이 강한 시어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이 정서적으로 잘 안겨오게 하였다. 〔《조선노래대전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가실 때에는》 서정시. 주체65(1976)년 조성관 창작.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도천리를 혁명화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오실 때에는 손잡아 맞아주는 사람 하나 없더니 가실 때에는 어찌하여 온 마을이 부여잡고 놓지를 못하는것인가 라고 하면서 김정숙동지께서 마을사람들의 배웅속에 대오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있다. 마을사람들은 김정숙동지께서 마을의 딸이 되시고 언니가 되시여 살뜰히 보살펴주시고 혁명의 씨앗을 심어주시며 장군님의 해발로 피워가꾼 혁명의 꽃들이였다. 그래서 시에서는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온 마을이 김정숙동지와 장군님의 뜻으로 얽혀 대오를 짓고 따라선다고 노래하고있다.

오실 때에는
홀몸으로 마을길에 들어서시더니
가실 때에는 떠나가실 때에는
장군님의 전사로 키우신
온 마을을 혁명의 대오로 뒤따라
세우시며
김정숙어머님 장군님의 품으로 돌아
가시네

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마을사람들이 헤여지는 장면에 시적형상의 초점을 돌리고 서정적일반화를 깊이있게 추구하였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가자, 우리 식으로》 서정시. 주체77(1988)년 계훈 창작. 어떤 일이 있어도 당이 이끄는 주체의 한길로만 억세게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굳은 신념과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세상에는 길이 많아
사람마다 나라마다 걷는 길 달라도
더없이 좋더라
언제나 우리 길
우리 식 걸음새가 제일 좋더라

시에서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이 길이 당을 따르는 하나의 신념을 안고가는 길이며 진펄을 헤치고 험한 산을 넘어도 오직 당의 구령에 발맞추어가는 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시에서는 우리 당이 밝혀준 자주의 눈으로 세계를 내다보며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 식으로만 살아온 지난날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항일의 혁명전통을 초석으로 삼고 주저도 타협도 없이 전진 또 전진하는것이 우리 식, 우리의 좌우명이라고, 우리 당을 따라 걷는 주체의 길이 제일 좋다고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다. 시는 정론적인 격조로써 시상을 기백있게 펼치고있으며 행진곡과도 같은 류창하고 박력있는 운률을 조성하고있다. 〔《1980년대시선》, 문예출판사, 주체79(1990)년판〕

《가자, 우리의 집으로》 단편소설. 주체58(1969)년 강준 창작.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품, 유격근거지를 찾아가는 어린이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ㅅ거리에 련락갔던 아동단원 분이가 일제특무놈을 만난 위기일발의 순간 놈의 눈에 고추가루를 뿌리고 빠져나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이야기, 오는 도중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올 열망을 안고 근거지를 찾아오는 어린 호철이를 만나 같이 오다가 겪게 되는 적의 추격, 놈들을 대담하게 유인하여 위험의 고비를 넘기는 분이의 대담한 행동 등 아슬아슬한 이야기들로 엮어지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근거지를 자기의 집으로 여기고 찾아가는 분이와 호철이를 통하여 장군님의 품이야말로 불쌍한 어린이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따뜻한 어버이품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으며 장군님을 우러러모시고 따르는 어린이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혁명적지향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또한 소설은 긴박한 극적정황을 조성하고 이에 맞는 기민하고 대담한 동심적인 행동묘사를 집중적으로 줌으로써 어린이들의 심리정서에 맞는 흥미진진한 작품으로 되고있다. 〔세계아동문학선집56 《꼬마대장》, 문예출판사, 주체77(1988)년판〕

《가장 귀중한것》 단편소설. 주체68(1979)년 소영호 창작. 작품은 총련조직에 의하여 파산의 운명에서 벗어난 한 재일조선인기업가가 잘못 살아온 지난날을 뉘우치고 참된 삶의 길에 들어서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일본에서 돈을 벌어 잘살자면 아예 조선사람의 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 조봉우는 한사람의 조선동포라도 더 찾아내여 총련에 묶어세우려고 매일과 같이 찾아오는 분회장 창수를 랭대하여 돌려보내군 한다. 그러던 어느날 한 건축회사가 벌려놓

은 규모가 큰 건설장에서 전기공사를 맡게 되여 많은 량의 전기자재를 사들였던 봉우는 조선사람이라는 리유로 일본인기업가한테 밀리우게 된다. 이것을 알게 된 창수와 총련조직은 모든 힘을 다하여 원래 계약대로 전기공사를 봉우가 맡게 함으로써 파산의 지경에 이른 그를 구원해낸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숨기고 떳떳치 못하게 살아온 자신의 지난날을 깊이 뉘우치고 총련의 애국사업을 위해 거액의 자금을 희사하며 자기 집 문에 달았던 일본이름을 쓴 문패를 떼고 조봉우라는 조선이름을 쓴 문패를 내붙인다. 소설은 봉우의 형상을 통하여 사람에게는 돈보다도 조국이 더 귀중하며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이 값있게 사는 길이라는것을 밝히고 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8(1979)년 6호〕

《가장 귀중한것은…》 단편소설. 주체78(1989)년 한웅빈 창작. 로동당시대의 새 건축물을 창조하는 사업에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가는 연공로동자들의 생활을 보여준 작품이다. 철수가 일하는 연공소대에 16t짜리 트라스를 50m높이에 들어올리는 긴급한 문제가 제기되였다.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이 문제는 종전과 같이 대형기중기를 끌어오거나 트라스를 세 토막으로 잘라 드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제 기일을 보장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철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회에서 현재 있는 두대의 7t짜리 기중기로 트라스를 단번에 들자고 제기하였으나 기중기팔을 자유롭게 돌리기 힘들다는 의견을 듣고는 동요한다. 그러나 트라스공사를 제 기일에 무조건 끝내자면 그 방법밖에는 없다면서 절대로 물러서지 말라는 소대장의 말을 듣고서야 철수는 나약했던 자신을 뉘우치고 소대장과 함께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방법으로 트라스를 들고야말 새로운 결심을 다진다. 소설은 간단한 생활소재에 기초하여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해내고야만다는 확고한 신심과 담력을 가지고 높은 창발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건설자들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광복거리건설문예작품집4 《다시 200일》,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8(1989)년판〕

《가장 소중한것》 단편소설. 주체82(1993)년 리희룡 창작. 청춘시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북부철길공사에 참가한 한 처녀돌격대원의 생활을 통하여 보여준 작품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북부철길건설장에 탄원하였던 명희는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여 도중에 휴가를 받고 집으로 간다. 명희와 함께 탄원한 향옥은 명희가 떠난 후 모진 추위와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고 철길을 50리나 더 놓았다고 하면서 빨리 돌아오라고 한다.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부모들은 물론 동무들과 이웃들이 모여와 자기를 보고 북부철길건설장의 영웅이 왔다고 기뻐하며 축하해주자 떳떳치 못한 자신의 행동으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다. 어느날 명희의 집을 찾은 향옥의 아버지는 자기의 딸 향옥이는 전우가 부탁하고 간 딸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가 자기에게 더없이 귀중하지만 화분의 꽃이 아니라 들판의 꽃으로 키우기 위해 건설장으로 떠나보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위험한것은 내가 맡고 부족하고 어려운것은 너희들이 만들어내고 맡아나서야 하며 바로 그런 정신으로 살며 일해야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명희는 향옥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청춘시절의 첫시작을 어떻게 떼야 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된다. 인생을 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삶의 순간순간을 가책이 없이 살아갈수 있음을 깨달은 명희는 다시 건설장으로 떠난다. 소설은 삶의 순간순간은 당을 받드는 길에서 빛나야 한다는것을 주인공 명희의 형상을 통하여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82(1993)년 3호〕

《가족회의》 단편소설. 주체47(1958)년 강효순 창작. 후대교양에서 가정교양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보여준 작품이다. 생산부장인 정창수는 거리에서 동무들과 싸우다 내무서에 단속된 아들 남이를 데려온 다음 그를 옳은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 가족회의를 열기로 한다. 그리하여 담임교원 박효식과 다른 교원 등의 참가밑에 가족회의가 진행된다. 모임에서 창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국놈들의 폭격으로 어머니를 잃은 남이가 계모인 순희에게 곁을 주지 않고 할머니의 무원칙한 사랑을 받으면서 점차 성적과 품행이 락후한 말썽군으로 되여버린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제때에 교양하지 못한 자신을 깊이 반성하며 할머니와 순희도 각기 자기들의 잘못을 비판한다. 다음날 이른아침 창수는 체육과 그림그리기를 즐겨하는 남이의 취미를 살려주기 위해 앞뜨락에 철봉대를 세우고 책방과 백화점에서 그림종이와 수채화도구들을 사다준다. 그는 또한 담임교원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생활련락부를 만들고 거기에 남이 자신만이 알고있는 생활자료들까지 솔직하게 빠짐없이 적어넣도록 한다. 그리고 남이가 담임선생으로부터 5개년계획의 전망도표를 그려올데 대한 과업을 받고 그것을 수행하는데 열중할 때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도록 고무해준다. 그리고 도표가 완성된 다음에는 5개년계획의 전망지표들을 구체적인 생활과 결부시켜 수자적으로 설명하면서 그의 속셈능력을 계발시켜주기도 한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남이는 장난만 하던 버릇을 완전히 버리고 실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모범소년단원으로 자라나며 분단열성자들의 모임에서 벽보위원으로까지 선거되게 된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후대들을 옳게 교육교양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함께 가정교양에 큰 힘을 넣고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밀접히 결합시켜나가야 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47(1958)년 9호〕

《가풍》 단편소설. 주체97(2008)년 량정수 창작. 사회와 집단,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시대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가정륜리, 가풍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밝힌 작품이다. 도당에서는 제3차 전국어머니대회 대표로 한종순녀성을 내정하고 맏아들인 과장 성준에게 년로한 그의 건강상태를 알아볼데 대한 과업을 준다. 한편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주겠다고 논벌에 흘러드는 물길을 돌려 나무모밭에 관수를 하여 농사에 지장을 준 생양리관리위원장 달성(막내)도 자기비판을 하려고 도당에 올라왔다가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축하해주기 위해 집으로 달려온다. 그의 머리속에는 산불을 놓은 자기때문에 어머니가 자진하여 처벌을 받던 어린시절의 추억이 떠오른다. 어머니 한종순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으로 떠나면서 한 남편의 당부를 잊지 않고 농사일과 전선원호사업에 앞장섰으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는 전재고아들을 말아안았다. 그는 뜻밖에 만나뵈온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감사의 인사와 함께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되여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받아안고 그이의 믿음에 보답할 일념으로 일곱남매를 정성껏 키웠으며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치마저고리와 금반지까지 선물로 받아안았다. 그는 편직물공장 당비서로 사업하다가 집에 들어온 후에도 로인들로 산림리용반 나무모분조를 뭇고 조국의 푸른 숲을 가꾸어갔다. 그는 아들에게서 또다시 어머니대회에 참가하게 되였다는 소식을 전해듣자 해놓은 일도 없이 평가만 받을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한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의 유산인 내 나라, 내 조국을 지키고 부강하게 하시려 쉬임없이 전선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푸른 숲을 가꿔가는 애국의 한길에 자신을 다 바쳐가며 자식들도 그 길을 변함없이 걷도록 이끌어준다. 소설은 주인공의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가풍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받드는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삶의 목

표로, 신조로 삼고 온 가정이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나가는것이라는것을 감명깊게 밝히고있다. 소설은 시대의 요구에 맞는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깊이있게 해명하고있으며 인물들의 성격도 뚜렷하게 부각시키고있다.〔《조선문학》잡지, 주체97(2008)년 8호〕

《가꾸는 마음》 단편소설. 주체71(1982)년 김명회 창작. 우리 사회에서 자식을 둔 부모의 공민적의무에 대하여 보여준 작품이다. 농장작업반장 지응섭은 탄광에서 농촌에 파견되여온 어린 처녀인 엄창숙이 매일 자기 계획을 2배이상 넘쳐수행하는데 대해 대견하게 생각한다. 그의 혁신이 도일보에 소개되였을 때는 똑똑한 자식을 둔 그의 부모들을 부러워하기까지 한다. 이때 창숙의 아버지 엄학진이 딸의 소식을 신문에서 읽고 이곳을 찾아온다. 엄학진은 딸의 혁신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딸이 어릴적에 있은 한가지 사실을 이야기한다. 학교때 창숙이가 혼자 최우등을 하지 못해 그의 학급이 최우등학급의 영예를 쟁취하지 못하였다는것이다. 그때 학진은 교원들과 짜고들어서 그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애썼다고 한다. 하여 창숙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최우등을 양보한적이 없었다. 그날 밤 혼자서 부식토를 생산하고있는 딸을 찾아가 만난 학진은 그가 아직도 집단과 함께 숨쉬고 생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저혼자 혁신자가 될것이 아니라 집단전체가 혁신하도록 해야 한다고 일깨워준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응섭은 자신을 돌이켜본다. 돌격대에 나간 아들이 제구실을 못하고있는데도 자신은 그가 스스로 잘되기를 바라면서 관심을 돌리지 않았던것이다. 소설은 부모들은 자식들이 나라의 훌륭한 일군으로 자라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끌어주어야 하며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지녀야 할 공민적의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조선문학》잡지, 주체71(1982)년 11호〕

《가을》 단편소설. 주체81(1992)년 리태윤 창작. 풍요한 가을을 맞이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행복한 모습과 환희로운 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쉬는 날 아침 가을걷이를 끝내느라 관심하지 못했던 집안일들을 봉창할 심정으로 마당도 쓸고 두엄도 쳐내리라 마음먹었던 구읍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최규벽은 비료를 실어다 배정한다는 로동부원의 전화를 받고 급히 역으로 달려나간다. 결혼식준비로 들끓는 마을청년들과 파수원에 침범하였다가 쫓겨달아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풍년든 가을의 흥취를 한껏 느끼며 역에 도착한 규벽은 역장의 시까스름도 달게 받으며 그의 자리를 타고앉아 역의 사령전화로 비료하차와 운반조직, 털어낸 낟알들을 역에 실어내오기 위한 사업과 후방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조직한다. 그리고 비료하차와 낟알운반작업을 끝마친 후 역장과 자재공급소장, 화물원들까지 모두 초청하여 풍성한 가을을 마련한 기쁨을 함께 나눈다. 그는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몸이지만 새로운 힘과 열정에 넘쳐 새해농사차비를 위한 물길공사전투에로 농장원들을 불러일으킨다. 소설은 하루동안에 벌어지는 한 농촌마을사람들의 생활을 통하여 약동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아름다운 가을풍경을 진실하게 그려내고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자랑과 긍지, 기쁨을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단편소설집 《신념의 대오》, 문예출판사, 주체81(1992)년판〕

《가을날의 생각》 서정시. 주체46(1957)년 리맥 창작. 아름답고 풍요한 가을날에 느끼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우러르면 마음도 비칠듯 한 가을하늘과 무겁게 드리운 과일들이며 땅에 닿을듯 고개숙인 벼이삭들, 그 모든것은 서정적주인공에게 끝없는 행복과 기쁨을 속삭여주고 아름다움과 슬기로움, 로동의 영예를 가슴벅차도록 느끼게 한다. 여기서 시인은 단순히 아름

답고 풍요한 가을의 풍치만이 아니라 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절절히 노래하고있다.

가을이여 아름다운 조선이여
세상사람들 무어라 해도
내가 사는 하늘이
내가 사는 땅이 그만이구려

이러한 사상적지향을 핵으로 하여 시는 조국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을것이라는것을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평범한 가을날에 느끼는 체험세계에 대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조국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있게 표현함으로써 시적일반화의 높은 경지를 보여준 이 시는 가을하늘처럼 서정이 맑고 참신하고 진실하며 비유적수법을 능숙하게 리용하여 사상감정을 심오하게 드러낸 특성을 가지고있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가을바람》 단편소설. 주체67(1978)년 엄성영 창작. 작품은 농산작업을 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새 기술혁신안도입에 낯을 안 돌리던 농장일군이 자기 결함을 깨닫고 고쳐나가는 과정을 그리고있다. 농산1작업반장 현운칠은 벼단꺼들이기가 시작되였을 때 군에서 뜨락또르를 더 해결받아 자기네 반이 농장에서 꼭 1등을 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래서 그는 처녀뜨락또르운전수인 귀옥이가 낟알의 허실을 막고 운반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새형의 이동식탈곡기를 만들데 대한 창안을 내놓은데 대하여 기특하게 여기면서도 그것을 실현하는데 관심을 돌리지 않고 뜨락또르를 해결받기 위해 뛰여다닌다. 귀옥은 운반도중 벼알이 떨어지는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운칠의 태도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루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밤늦도록 농장청년들과 지혜를 모아 이동식탈곡기의 부분품들을 만들어낸다. 새형의 이동식탈곡기의 성공을 믿지 않고 군만 쳐다보던 운칠은 군에서 뜨락또르를 딴데로 돌렸음을 알고 락심해하다가 귀옥이네가 탈곡기를 만들어 성과적으로 시운전하는것을 보고서야 등수만 생각하면서 뜨락또르를 해결받으려고 뛰여다니던 자신을 깊이 뉘우치며 새 탈곡기로 탈곡을 하는 귀옥의 일손을 도와나선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일군들은 언제나 새 기술과 선진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일을 실속있게 하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사회주의건설에 더 잘 이바지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67(1978)년 1호〕

《가을밤》 단편소설. 주체52(1963)년 김영근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고향땅에 기여든 원쑤놈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운 한 로인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전선원호물자운반에 나섰다가 적기의 폭격으로 부상당하여 후퇴하지 못하게 된 김동필로인은 마을의 열성당원이며 군대의원인 봉호로부터 적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그 동태를 탐지하여 알려줄데 대한 임무를 받는다. 그런데 뜻밖에도 김로인의 5촌조카인 경식이가 《국군》 소대장이 되여 소대를 데리고 쳐들어와 그의 집에 들게 된다. 15살에 전염병으로 량부모를 잃고 4촌형과 경식의 꾀임에 넘어가 30여년간을 그 집에서 죽도록 일해주고도 마지막에는 쫓겨나지 않으면 안되였던 김로인은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경식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된다. 의원의 집으로 치료받으러 다닌다는 구실을 대고 마을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적정을 살피던 김로인은 어느날 밤 유격대에서 내려온 봉호에게 비밀을 넘겨준다. 다음날 유격대가 적의 증원부대를 족친 후 봉호가 추격해오는 적들을 유인하다가 체포되여 김로인의 고간에 갇힌다. 자기에게 땅을 주고 새삶을 안겨준 당과 인민정권에 대한 고마움을 가슴깊이 간직한 김로인은 보초와 경식을 처단하고 봉호를 구원하며 함께 산으로 오른다. 작품은 김로인의 형상을 통

하여 사람은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지조를 지켜 끝까지 싸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2(1963)년 12호〕

《간삼봉에 울린 아리랑》 가사. 주체90(2001)년 신운호 창작.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에서는 보천보전투승리로 조선인민의 기상을 힘있게 시위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충천한 모습을 아리랑의 노래소리가 간삼봉의 싸움터에 뢰성타고 울려퍼지는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가사의 2절에서는 도천리에서의 지하공작의 나날 인민들의 가슴속에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며 조용조용 울리던 어머님의 아리랑노래소리가 간삼봉의 산발을 쩡쩡 울리며 메아리로 퍼진다고 하면서 백발백중의 명중탄으로 일제침략자들에게 불벼락을 안기며 언제나 사령부의 안녕을 지켜싸우신 어머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아리랑의 노래소리높이 일제에게 무리죽음을 안기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통쾌한 전투모습을 펼쳐보이면서 아름다운 우리 조국강산을 피바다에 잠근 섬오랑캐놈들을 기어이 몰아내고 조국해방의 새날을 맞이하려는 불같은 결의를 잘 보여주고있다. 가사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닌 필승의 신념과 의지, 혁명적락관을 민족적정서가 짙은 아리랑의 노래소리와 결부하여 잘 반영하고있으며 기백이 있으면서도 용기가 넘쳐나는 시어들을 잘 골라씀으로써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뚜렷이 부각하고있다. 〔《조선노래대전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각성》 단편소설. 주체48(1959)년 한희배 창작. 개인리기주의에 사로잡혀 조합일에 투신하지 않던 한 조합원이 자기의 낡은 사상관점을 고쳐나가는 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읍에 있는 장마당에 드나들며 돈을 버는데 재미가 붙은 박로인은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로력공수를 많이 받기 위해 축사에 보내달라고 제기한다. 사철 눈코뜰새없이 볶이워야 하는 농산반에 있는것보다 일감이 적고 조용한 축사에 들어앉아 로력공수나 쉽게 받는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 온종일 허리펼 사이없이 소여물을 끓여주고 시간을 맞추어 소젖을 짜고 거름을 많이 내기 위해 소자리를 자주 갈아주며 게다가 초중을 갓 졸업한 창식으로부터 집일이 너무 잦다는 충고를 듣는데 질색을 느낀 그는 관리위원회에 찾아가 바쁜 영농철을 운운하면서 다시 농산반으로 옮겨달라고 한다. 그후 농산반으로 넘어와 두엄나르는 작업에 동원된 박로인은 운반회수를 높여야 공수를 많이 받을수 있다는 타산밑에 거름을 적당히 싣고 소가 힘들어하건 달구지가 마사지건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 몰아대며 이것을 본 목수로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비판도 접수하지 않는다. 어느날 부러져나간 달구지채에 맞아 허리와 다리를 상하고 진료소에 업히여간 박로인은 같은 년장자인 목수로인이 리기심에 눈이 어두운 자기와는 달리 오로지 조합일만을 생각하고 조합살림에 보탬을 주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있다는 감동적인 사실에 접하면서 비로소 깊은 자책의 눈물을 흘린다. 소설은 농민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극복하는데서 나서는 의의있고 절실한 문제를 제기하고 주인공 박로인의 형상을 통하여 인상깊게 밝히고있다. 〔근로자단편집 《젊은 대오》,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9(1960)년판〕

《간석지시초》 시초. 주체70(1981)년 집체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을 위한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과 아름다운 사상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백의선), 《우등불》(황승명), 《탄생》(로승모), 《해당화》(한원희), 《우리는 가

리라, 새 기슭으로》(한기운)의 5편의 서정시로 구성되여있다.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에서는 간석지개간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께 하루빨리 간석지의 새봄, 풍년가을을 보여드리고싶은 우리 인민의 절절한 충정의 마음을 감명깊게 시화하고있다. 《우등불》에서는 별들이 내려앉는 밤 우등불가에 모여앉아 느끼는 로동의 보람, 꿈과 미래, 새날의 전투에 대한 청년들의 랑만적열정을 노래하고있다. 《탄생》에서는 사나운 파도와 억수로 퍼붓는 비줄기를 이겨내고 기어이 제방을 쌓아 아득한 새땅을 펼쳐놓은 청년건설자들의 긍지와 자랑, 빛나는 위훈을 간석지에 새생활이 꽃펴날 미래의 탄생을 뜨겁게 갈망하는 청년들의 아름다운 내면세계와 결부시켜 노래하고있다. 《해당화》에서는 간석지개간의 보람찬 로동속에서 맺어지고 꽃펴난 청년들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것이 해당화처럼 붉게 피여나고 새땅에 억세게 뿌리내리리라는것을 시적으로 잘 형상하고있다. 《우리는 가리라, 새 기슭으로》는 당의 령도따라 30만정보 간석지개간의 웅대한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고야말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와 충정의 맹세를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이와 같이 시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치신 간석지건설의 새 력사와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주체시대 청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자랑차게 구가하고있다. 〔《로동신문》, 주체70(1981)년 8월 9일〕

《간석지의 봄》 단편소설. 주체79(1990)년 최윤의 창작. 간석지건설장에서 한생을 바쳐 묵묵히 일해가는 한 로동계급의 형상을 보여준 작품이다. 간석지의 생활을 취재하러 온 작가에게 주인공 한성보가 지나온 나날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있다. 전쟁시기 부모를 잃고 학원에서 자란 성보는 졸업후에 남다른 희망과 포부를 안고 간석지로 달려왔으나 사나운 바람이 몰아치고 감탕밖에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의 어려운 생활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릴 생각을 가지고 뭍으로 나온다. 이때 건설장에서 쓸 굴착기를 가져오던 송창호는 성보가 자기를 마중오는줄 알고 못내 반가와하며 그로 하여 성보는 차마 떠난다는 말을 못하고 건설장으로 돌아온다. 부모없이 자란 성보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며 그가 자기 일터에서 안착된 마음을 가지고 일해가도록 이끌어주던 창호는 갑자기 밀려드는 태풍으로 위험에 처한 굴착기를 구원하고 희생된다. 성보는 창호가 바라던대로 간석지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나가는 길에 한생을 바친다. 소설은 한성보의 형상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성실한 땀과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길에 인생의 참다운 행복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9(1990)년 9호〕

《간이역에서》 단편소설. 주체73(1984)년 오광호 창작.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흠모의 마음을 반영한 작품이다. 사진기자 리형우는 어느 한 농장의 처녀 분조장과 그 분조원들에 대한 취재를 끝내고 ㅎ시까지 가기 위하여 간이역으로 온다. 형우가 여러명의 려객들과 함께 통근차시간을 기다리고있는데 마침 역 TV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외국방문소식을 전하였다. TV화면에서 외국인들의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고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뵈옵게 된 형우와 려객들이 온통 환희와 기쁨에 넘쳐있는 가운데 통근렬차가 지나가버린다. 통근렬차를 놓치였으나 사람들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목적지인 ㅎ시까지 걸어갈것을 결심하고 기세충천하여 역을 떠난다. 형우는 려객들과 함께 걸으면서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얼마나 깨끗하고 열렬하며 그이께서 외국방문에서 큰 성과를 거두시고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심정이 얼마나 절절한가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낀다. 소설은 한 간이역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사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절대적으로 따르며 천세만세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이 시대의 거창한 대하를 이루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3(1984)년 11호〕

《갈매기》 서정시. 주체43(1954)년 김철 창작. 아침바다우에 자유롭게 날아예는 어린 갈매기에 의탁하여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주의를 노래한 작품이다. 시는 물안개 걷히는 아침바다우에 잠을 깬 어린 갈매기 한마리가 자유롭게 날으는 인상깊은 시적형상을 펼치면서 어린시절의 꿈을 싣고 날던 《사랑스런 나의 새, 희망의 갈매기》는 원쑤들의 포성에 노래가 찢기고 바위가 부서질 때 노호하는 우리의 포대우를 감돌며 애타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고 토로하고있다. 서정적주인공은 일어서는 거리와 방긋 웃는 창문마다 붉게 피는 노을을 고향을 지켜싸운 전우들의 선혈이 물든것으로, 끊임없이 설레이는 바다물결을 그들의 숨결로 느끼면서 드높은 격정을 터치고있다.

갈매기! 너는 이 바다의 청춘을
한없이 깊고 넓은 이 바다의 가슴을
그리고 이 바다 영웅들의 전설을
노래하는
정열의 가수, 동해의 딸!

시는 이제 다시는 갈매기의 날음을 막지 못하리라는 서정적주인공의 힘있는 주정을 통하여 피로써 지켜싸운 조국을 수호하며 새 생활을 꾸려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형상적으로 천명하고있다. 시는 형상적비유와 짙은 서정으로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세로 부강조국을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의 높은 열정과 숭고한 정신세계를 노래하고있다. 〔김철시집 《어머니》, 문예출판사, 주체78(1989)년판〕

《갈매기》 단편소설. 주체51(1962)년 고병삼 창작. 수산물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는 어로일군들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선장자격시험에 합격되여 《민청》호 선장으로 임명된 김해남은 예망에 의한 새 방법으로 물고기잡이량을 늘이려 한다. 하지만 전쟁시기 희생된 아버지의 친구이며 8살에 고아가 된 해남이를 데려다 친자식처럼 키우면서 이끌어주고 오늘은 선장이 된 그의 첫 출항을 방조해주는 강선장은 그것을 달가와하지 않는다. 그는 546해구에는 물고기가 적다는 해남의 말을 듣고도 경험만을 고집하면서 믿지 않는다. 그러다가 원망스레 바라보는 해남의 눈길에 부딪쳐 마지못해 배를 돌리게 한다. 해남이가 탐색을 끝내고 새 다계단예망을 진행하려는데 사업소에서 파도가 높아질것이 예견되니 먼바다에 나간 배는 모두 입항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 높은 파도속에서 일하는것은 모험이라고 하면서 돌아가자고 하던 강선장은 해남이가 다계단예망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고 안개속에서도 과학적인 방위판정으로 정확히 항로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기꺼이 배의 조타를 맡긴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시대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낡은 경험에만 매달리면 새 세대들의 전진과 투쟁을 가로막는 짐이 될수 있으며 래일의 바다는 과학과 기술로 무장하고 힘차게 달리려는 청춘들에 의하여 정복되리라는것을 천명하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51(1962)년 8호〕

《갈매기》 단편소설. 주체52(1963)년 박태민 창작. 당의 수산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앞장서나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어느 한 수산사업소의 《녀성》호 기관장 옥녀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애쓴다. 그는 전광어로에 필요한 발전기를 해결받기 위하여 기술지도원에게 찾아가 제기하나 해결받지 못하고 돌아온다. 이에 락심하지 않고 옥녀는 오래전에 페기해버린 낡은 뜨락또르의 기관을 뜯어

다 발전기로 개조한다. 림시로 선장일을 보는 박아바이를 비롯한 사람들이 머리를 기웃거리며 안된다고 만류하나 옥녀는 며칠밤을 새워 발전기로 개조한다. 기쁜 마음으로 첫 전광어로작업을 진행했으나 갑자기 발전기가 멎고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빈 그물만 끌어올린다. 박아바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아 일이 생겼다고 질책하고 동무들도 실망의 눈길을 보내지만 옥녀는 주저앉지 않고 전마선을 저어 파도길을 헤치고 섬에 올라 필요한 부속을 해결해온다. 그리하여 다음번 작업에서 전광어로는 성공하며 더 많은 물고기를 끌어올릴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하여 소설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청년들의 투쟁의 길에 못해낼 일이란 없으며 그 길에는 바다의 활무대에서 나래치는 갈매기와 같은 기상이 간직되여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2(1963)년 제31호〕

《갈매기》 단편소설. 주체69(1980)년 황영도 창작. 직포경기에서 자기 혼자 앞서려는 생각보다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더 많은 천을 짜내도록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한 방직공처녀의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공장에서 손꼽히는 다기대명수로서 서북지구의 여러 방직공장들에서 뽑혀온 우수한 직포기능공들의 생산경기에 참가하게 된 량선희는 먼저 삼포방직공장에서 온 직포공 강진옥에게 자기의 경험들을 알려주어 그 경험이 직포경기에 참가한 직포공들속에 일반화되게 함으로써 그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높아지게 한다. 또한 그는 자기가 경기에서 1등을 하도록 은근히 윈심을 쓰며 멎어버린 자기의 직기를 먼저 수리해주려고 달려온 운전공 최광호를 나무라며 그가 다른 직포공들의 기대를 먼저 수리하도록 하고 자기 기대는 자기가 직접 고장을 퇴치한다. 하여 그는 직포경기에서 1등을 못하게 되였지만 자기 개인의 명예보다먼저 천을 더 많이 짜내게 된데서 만족을 느낀다. 소설은 선희의 형상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릴 충정의 한마음을 안고 깨끗한 마음으로 천을 짜는 방직공처녀의 아름다운 성격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9(1980)년 2호〕

《갈매기근위대》 중편소설. 주체68(1979)년 신종봉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후에서 소년근위대를 뭇고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놈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소년들의 영웅적투쟁과 정신세계를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은 주인공 강호가 고향땅에 기여든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놈들의 귀축같은 만행을 보고 치솟는 격분을 누를길 없어 동무인 덕수와 함께 싸움의 길에 나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웃음과 기쁨만이 흘러넘치던 고향땅이 놈들에게 강점당하자 학교가 마사지고 귀여운 누이동생인 옥이가 놈들에게 잡혀가며 학교목수아바이가 피살된다. 원쑤에 대한 증오심을 품은 강호는 덕수와 함께 《갈매기근위대》라는 이름으로 삐라를 뿌리기도 하고 미군통신병놈들에게 수류탄벼락을 안기기도 한다. 한편 산에 있는 인민무장대에서는 거리에서 활동하는 갈매기근위대를 찾게 되며 드디여 강호는 인민무장대 대장을 만나고 그의 지도를 받게 된다. 인민무장대의 지도밑에 강호네는 거리의 소년들을 하나하나 묶어세워 적들의 허위선전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벌린다. 그는 고장난 라지오를 수리하여 아이들에게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듣게 하며 이에 고무된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갈매기근위대에 입대한다. 이날밤부터 온 거리에 최고사령부의 보도내용을 전하는 삐라들이 계속 나붙어 인민들을 기쁨에 설레이게 한다. 이에 당황한 적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미쳐날뛴다. 그는 놈들의 만행에 대처하여 새로운 투쟁을 조직한다. 라지오에 증폭장치를 하여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놈들의 확성기로 내보내자는것이였다. 이때 원쑤놈들이 인민군대의 호된 불벼락을 맞고 쫓겨가면서 인민들을 모래불

에 끌어내다가 무슨 연설놀음을 벌리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인민무장대에서는 이 기회에 공격을 들이대여 놈들이 총알받이로 끌어가려는 인민들을 구원하고 거리를 해방할 작전을 세운다. 갈매기근위대는 놈들의 연설이 있기 전에 온 거리에 확성기로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내보내여 인민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킨다. 소설은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소년단원들이 발휘한 불굴의 투지와 용감성,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쑤에 대한 증오심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 주체68(1979)년판〕

《갈매기나는 마을》 중편소설. 주체53(1964)년 리진화 창작. 바다가에 있는 유호마을과 솔섬마을 어린이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하며 소년단조직을 튼튼히 꾸려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로 준비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인공 순학소년이 고향인 유호마을로 돌아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에게 부모를 잃고 어려서 고향을 떠나 외삼촌집에서 살던 순학은 이곳 수산사업소에서 일하게 된 형님을 따라 고향으로 온다. 아름다운 고향산천,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지난날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로써 지켜낸 고향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고향땅을 잘 꾸리기 위하여 학습과 조직생활에 열성껏 참가하리라 굳게 다짐한다. 그는 반원들과 함께 축산연구소조와 수산연구소조를 운영해나감으로써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 힘쓴다. 이 과정에 순학, 송익 등은 자기 힘이 센것만 믿고 자유주의를 부리면서 엇서나가기 좋아하는 해암의 결함을 고쳐주기도 하며 전쟁때 미국놈들의 폭격으로 불구가 된 자문의 다리를 고쳐주기 위하여 반원들의 이름으로 병원에 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소설은 분단위원장 상록, 반장 순학, 해암, 자문, 송익, 송희 등의 형상을 통하여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시대 소년단원들의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와 성격적미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아동도서출판사, 주체53(1964)년판〕

《갈매기는 먼바다로》 중편소설. 주체67(1978)년 한경 창작. 설계가들과 로동자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 대담하고 통이 큰 간석지건설설계를 완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시대 지식인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지향과 열정에 대한 문제를 해명한 작품이다. 학계에서 권위있는 설계가로 인정을 받고있는 박창일의 자루목설계가 현장로동계급의 반대에 부딪쳐 공사가 중단되게 되자 간석지설계사업소에서는 그 조사를 위해 설계집단을 파견한다. 그중의 한 성원인 설계가 오현이는 현장에서의 자료작업과 현실연구 그리고 간석지건설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빈틈이 없는것으로 생각하였던 아저씨 박창일의 설계가 수평선을 지평선으로 만들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바다를 멀리 내밀려고 떨쳐나선 로동계급의 불같은 충정의 열정과 지향에 따라서지 못한것이라는것을 깨닫는다. 현이는 책임기사 림성학과 현장로동자들의 방조속에 로동계급의 지향에 맞는 새 설계를 완성할 결심을 안고 그 연구에 달라붙는다. 고심끝에 완성한 설계안을 사업소적인 과학토론회에 제출한 현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으로 비행기를 타고 항공관측을 하게 되며 그 결과 바다 한가운데 있는 알섬과 무지개섬을 륙지와 련결하여 바다를 직선으로 막을 대담한 착상을 하게 된다. 설계연구소 전체 집단이 현이의 설계를 지지하고 도와나서며 박창일도 자신을 깊이 뉘우치고 여기에 발벗고나서서 언제막이에서 제일 걸린 난문제를 해결한다. 드디여 두해후에는 바다가 륙지로 전변되고 수천정보의 새땅이 생겨나는 기적이 창조된다. 작품에서는 주인공 오현이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 지식인들이 거창한 시대의 맥박을 안고 참다운 지향과 열정으로 가슴을 불태울 때 세기를 놀래우는 위대한 기

적도 창조되고 여기에 창조의 보람이 있다는 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갈매기에 대한 인상적인 세부묘사와 바다와 관련된 생동한 심리묘사로 특징적이다. 〔문예출판사, 주체67(1978)년판〕

《갈매기호 청년들》 영화문학. 한상운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바다에 진출한 청년들의 랑만적이고 보람찬 생활과 지향을 보여준 작품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어로공이 될것을 희망했던 주인공 용진은 기대와는 어긋나게 《갈매기》호 취사원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취사원을 하면서 자기들의 배를 여러가지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수 있는 만능선으로 만드는데 앞장선다. 그러나 경험에만 매달리면서 물고기를 투기적으로 잡는데 버릇된 어로장은 건착선《갈매기》호에 저예망을 설치하자는 용진이를 비롯한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용진이와 함께 바다에 진출한 경팔은 파도사나운 바다에 익숙하지 못한데다가 한두번의 실패로 마음이 약해져서 일시적이나마 배에서 내린다. 바다경험이 많은 박아바이는 청년들의 지향을 지지하면서도 어로장의 눈치를 보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한편 어로장은 자기 경험만 고집하면서 바위가 많은 곳에 그물을 치게 하여 그물을 못쓰게 만들고 숱한 고기를 놓쳐버리는 사고를 저지른다. 또한 그는 청년들을 훌륭한 어로공으로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경험있는 기능공만 보내달라고 사람타발을 한다. 하지만 용진이를 비롯한 청년들은 부닥치는 난관앞에 물러서지 않고 훌치개를 도입하여 한번에 수많은 물고기를 걸어올림으로써 만능선의 위력과 청년들의 지향의 정당성을 실증한다. 그들은 대형건착선을 타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또다시 바다로 나간다. 작품은 수산부문에서 경험주의, 보수주의를 극복하고 물고기잡이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계속전진하기 위하여서는 청년들이 바다에 진출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형상적으로 확증하여주고있다. 작품은 용진이를 비롯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사상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일하며 투쟁하는 청년어로공들의 형상과 경험주의, 보수주의, 소극성에 사로잡혀 전진하지 못하는 어로장의 대조적인 형상을 통하여 천리마진군의 거창한 흐름속에서 낡고 뒤떨어진것이 어떻게 극복되여나가는가 하는것도 잘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50(1961)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갈매벌처녀》 단편소설. 주체53(1964)년 리태렬 창작. 농촌의 참된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농촌기술혁명수행에 앞장서나가는 한 처녀를 형상한 작품이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뜨락또르운전수가 되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려는 결심을 품고 농촌으로 자원해나온 애숙은 봄갈이에 나온 석진의 뜨락또르경심조절수로 일한다. 첫날작업에서 깊이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자책감을 안고 그는 책임성을 높여 일해나가며 짬시간을 리용하여《뜨락또르운전수편람》도 학습한다. 그러나 석진은 경심조절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뜨락또르를 배우려 하는 애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뜨락또르운전기술을 배우려는 그를 잘 도와주지 않는다. 애숙은 석진에게 새 장갑도 마련해주고 먼지가 많은 밭을 갈 때에는 마스크를 준비했다 주기도 하는가 하면 작업이 끝나면 교대운전수를 통하여 열심히 운전기술을 배우기도 한다. 그는 거름더미가 있다고 하여 갈이규정을 어기려는 석진을 제지시키고 자기가 거름을 골고루 뿌리는가 하면 석진의 경쟁대상이며 자기의 애인인 형근이와의 호상검열시에는 그 어떤 사심도 없이 그의 결함을 지적한다. 애숙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석진은 지금까지 주인다운 립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경쟁에만 몰두하던 자기의 일본새와 애숙에 대하여 오해하고있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된다. 석진은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애숙에게 뜨락또르

운전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워주며 부속품이 떨어져 안타까와하는 형근에게 자기도 써야 할 부속품을 아낌없이 넘겨준다. 작품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농촌기술혁명수행에 앞장서나가는 새 세대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53(1964)년 5호〕

《갈밭속의 총성》 단편소설. 주체46(1957)년 권정룡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적강점지역에서 원쑤들에게 굴하지 않고 싸운 한 농민을 형상한 작품이다. 주인공 윤치삼은 마을에 기여든 적들에게 소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른새벽 소를 끌고 강변의 갈밭속으로 나온다. 우묵진 곳에 소를 숨기고 돌아서던 그는 인민군대를 만나 적정정찰을 위한 길안내를 서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날이 밝아올무렵 집으로 돌아온 윤치삼은 집에 찾아온 동서인 리인민위원회 서기장에게 피신처를 마련해주고나서 소를 바치지 않았다고 집으로 달려드는 적들을 피해 강가로 내닫는다. 그러다가 소와 인민군대가 생각난 윤치삼은 되돌아서 추격해오는 적들을 맞받아나간다. 적들의 총탄에 그가 쓰러지자 갈밭속에 숨어있던 인민군전사는 놈들을 쏘아눕히며 그에게 달려간다. 윤치삼은 그 전사에게 자기 집에 리인민위원회 서기장이 숨어있다는것을 알려주고 숨을 거둔다. 그로부터 6년후 마을에 단 한마리밖에 남지 않았던 윤치삼의 암소는 해마다 송아지를 낳으며 협동농장의 달구지를 끌고 인민군대의 길안내를 해준 동서는 조합의 관리위원장으로 일한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나라와 인민을 위해 바친 삶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영원히 남아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46(1957)년 3호〕

《갈꽃질 때》 단편소설. 주체73(1984)년 림길명 창작. 새땅을 찾기 위한 새 세대 청년들의 투쟁과 그속에서 꽃펴나는 청춘남녀들의 참된 사랑을 보여준 작품이다. 어느 한 군안의 진펄을 농경지로 만들기 위한 전투를 책임진 처녀기사 순영이 진펄개간을 다 끝냈다는 기쁨으로 만족해하고있을 때 애인인 천수리뜨락또르중대장 영석의 녀동생 옥진이가 찾아온다. 그는 순영에게 무등개진펄을 개간면적에서 빼놓은데 대하여 매우 섭섭해한다. 사실 이 고장 사람들의 원한이 서린 무등개진펄은 너무 깊고 험하여 도저히 개간할수 없는 땅으로 간주되여왔으며 《물귀신진펄》로 불리우고있었다. 그래서 순영은 개간면적에서 빼버리였고 무등개진펄을 개간하려는 옥진의 생각을 한갖 꿈으로 여겼다. 그러나 옥진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펄개간을 위한 시험을 하며 여기에 모든 정열을 다 바친다. 옥진의 헌신적인 노력에서 충격을 받은 순영은 무등개진펄을 개간하면 만시름이 놓일것 같다는 이 고장 로인들의 말을 되새겨보면서 자신을 깊이 뉘우치며 스스로 측량기를 메고 진펄에 들어간다. 소설은 옥진이와 순영의 형상을 통하여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보람찬 투쟁속에 삶의 참된 보람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3(1984)년 8호〕

《감격의 이날》 서정시. 주체66(1977)년 정화흠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재일조선동포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수령님을 만나뵈온 그들의 크나큰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게 된 날을 《참으로 기다린 날》, 《철부지 그때로부터 하루같이 기다린 밤》이라고 하면서 이역땅의 고달픈 생활속에서도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심을 깊이 간직하고있던 아버지,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까지 다 안고 조국을 방문한 서정적주인공이 마침내 수령님을 만나뵈옵게 되였음을 보여주고있다. 꿈같은 그 자리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려서는 땅만 허비고 철이 들어서는 남의 땅에 끌려가 눈물만 훔치던 자기 손을 잡아주실 때 서정적주인공의 가슴에는 끝없는 감격이 소용돌이친다.

아버지몫도 잡아주십니다
어머니몫도 잡아주십니다
자식의 몫도 잡아주십니다
대대의 소원이 다 풀리도록

계속하여 시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덕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하며 통일된 강산에 수령님을 모실 그날을 위해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를 토로하고있다. 시는 높은 시적격정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감격과 환희의 감정을 일반화하고있다. 〔시집 《감격의 이날》, 문예출판사, 주체69(1980)년판〕

《감자현물세》 서정시. 주체36(1947)년 김광섭 창작. 토지개혁법령으로 새로운 전변을 이룩한 농촌의 발전면모와 농민들이 누리고있는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시적으로 보여주면서 분여받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알알이 골라 현물세로 바치는 농민들의 기쁨을 풍만한 정서로 노래한 작품이다. 《우리의 새 주권》의 혜택으로 영원한 땅의 주인이 된 농민들—서정적주인공은 그때부터 《거치른 땅》도 힘을 다하여 가꾸었으며 그 보람이 커 잘 여문 감자알을 싣고 현물세를 바치러 간다. 시는 《그늘을 찾아드는 병아리떼》와 《네굽을 치는 송아지》, 《높이 앉은 성인학교》와 《뿔이 덩실한 기와집》 등 새롭게 변모된 마을의 정경을 바라보며 느끼는 서정적주인공의 벅찬 심정을 통하여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새생활을 꽃피우는 농민들의 크나큰 행복과 기쁨을 노래하고있다. 그러면서 이 모든것을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농민들의 열렬한 감사와 흠모의 정을 깊이있게 구가하였다. 시는 농촌의 정서를 풍부히 담고있으며 흙냄새가 풍기는 소박하고 구수하면서도 뜻이 깊은 시어들로 씌여졌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갑오농민전쟁》(1—3부) 장편소설. 주체66—75(1977—1986)년 박태원 창작. 우리 나라에서 19세기말 봉건적압제를 반대하고 국권을 지켜싸운 인민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소설의 제1부(주체66년)는 1892년 겨울 량반토호 리진사와 관가놈들의 가혹한 수탈로 인하여 콩잎, 팥잎으로 연명해오던 주인공 오상민이가 갑신정변에 참가하였다가 죽었다는 아버지 오수동의 8년제사를 준비하던중 아버지가 살아있으며 새로운 싸움준비를 갖추고있다는 소식을 전달받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때 민비에게 7만냥을 주고 고부군수자리를 산 조병갑이 부임하여 가혹한 수탈행위를 일삼는것을 계기로 농민들의 분노가 커가는 가운데 충청도 보은에서 동학도들의 모임이 열린다. 이 모임에서 전봉준은 교주 최시형을 비롯한 대두령들의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투항주의적 립장에 반감을 가지고 동학의 척왜척양, 보국안민의 교리를 오상민과 같은 농민들의 투쟁정신과 결부시켜 반침략반봉건투쟁구호로 내세우며 서울에 올라가 일심계의 책임자 오수동과 활빈당 행수 정한순을 만나 함께 싸울것을 약속한다. 오상민은 서울에 갔다온 전봉준으로부터 아버지의 소식과 왜놈, 양놈들의 판으로 변해가는 그곳 형편, 할아버지를 비롯한 익산민란참가자들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온 나라 사람들이 들고일어나 싸운다면 왜적을 몰아내고 백성들이 잘살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무술닦기에 힘쓴다. 그해 가을 조병갑의 가혹한 수탈행위는 농민들의 원한과 분노를 자아낸다. 상민은 마을사람들을 묶어세워 관가놈들의 수탈책동을 파탄시킨것으로 하여 추격을 받게 되자 몸을 피해 전봉준을 찾아가며 싸움을 준비하라는 그의 련락을 가지고 여러 고을을 다닌다. 그해 12월말 상민은 고부백성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청원서를 가지고 전주감영으로 올라가는 농민대표들을 따라갔다가 장두로 나섰던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로인이 악형을 받고 세상을 떠나는것을 보게 된다. 여기에 격분을 금치 못한 상민은 아버지의 최후를 듣고 분노하는 전봉준에게 들고일

어나 싸울것을 권고한다. 때가 왔음을 느낀 전봉준은 마침내 봉건통치배들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로 농민군을 조직하기 위하여 격문을 발표한다. 소설의 제2부(주체69년)는 1893년 12월말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하는 농민군이 조직되여 활동을 개시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농민군 총포대장이 된 상민은 전봉준의 지휘밑에 고부관청과 리진사네 집을 습격하여 토지문서를 불사르고 악질관료들과 토호들을 처단할뿐아니라 창고를 열어 쌀과 천을 꺼내여 농민들을 구제하며 무기고를 까부시고 무장을 갖춘다. 그러나 고부봉기를 신호로 하여 동시에 일어나기로 약속했던 고을들과 오수동, 정한순한테서 소식이 없는데다가 조정에서 파견한 안핵사가 내려온다는것을 알게 된 전봉준은 대오를 해산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는 상민이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총포대와 창검대만 남겨둔채 농민군을 일시 해산시킨다. 농민군이 고부고을을 내준 후 왕의 명을 받고 안핵사로 파견되여온 리용태에 의하여 치떨리는 살륙만행이 벌어지게 되자 전봉준은 자신을 후회하며 해산했던 농민군을 다시 모이게 한 다음 호남창의소의 명의로 된 창의문과 격문을 발표한다. 오상민은 전봉준의 지휘하에 총포대를 데리고 창검대와 함께 태인관문으로 쳐들어가 군수를 비롯한 악질관료들을 처단하며 무기고를 열고 총을 나누어가진 다음 옥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무렵 오수동이가 마차에 무기를 싣고 도착하여 대오에 합세한다. 나라와 백성들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외세를 끌어들여 정권을 유지하며 부패타락한 생활로 날을 보내던 민비일당은 농민봉기에 당황하여 량호초토사 홍계훈을 시켜 농민군을 포위공격하도록 한다. 오상민은 적들의 기도를 미리 간파하고 전술을 세우는 전봉준을 도와주어 백산, 황토현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한 후 장성에서 관군을 격파하고 전주성에 보무당당히 입성한다. 소설의 제3부(주체75년 박태원, 권영희)는 농민군의 대규모적인 진출에 겁을 먹은 봉건왕조와 민비일파가 청나라의 군사를 끌어들여 이들의 기세를 꺾어보려고 모략을 꾸미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전봉준은 봉건정부의 외세의존정책으로 하여 왜적이 우리 나라에 부당한 구실을 내걸고 쳐들어올 기미가 보이자 이번에도 곧추 서울로 올려밀자고 하는 상민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주에서 봉건정부의 요구대로 화의를 한다. 전주화의후 그는 농민들의 자치기관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실시한다. 이럴 때 정한순으로부터 왜놈들이 자기 나라의 거류민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봉건정부의 승낙도 받지 않고 군사를 파견한다는 련락을 받은 전봉준은 위기에 처한 국권을 바로잡기 위해 농민군을 다시 집결시키고 서울로 공격할 준비를 갖춘다. 그러나 농민군은 공주의 리인역말, 우금치, 로령등지에서 용감히 싸웠으나 오수동을 비롯한 수많은 희생자를 낸채 관군과 일제놈들에게 격파당하며 전봉준은 변절자의 밀고로 체포되여 사형당한다. 싸움이 실패한 후 오상민은 전봉준의 실책에서 교훈을 찾고 새로운 투쟁의 길을 모색하며 금화산으로 들어간다. 작품은 오상민을 비롯한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봉건통치배들과 외래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어지러운 정사를 바로잡는 길만이 살길이고 나라를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전봉준의 형상을 통하여 인민대중은 봉건통치배들에 대하여 추호의 환상도 가지지 말고 옳은 전략전술을 가지고 끝까지 싸울 때만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력사의 교훈을 밝히고있다. 작품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진실하게 그려낸것으로 하여 이 시기 력사소설의 대표작으로 되였다. 〔문예출판사, 주체66—75(1977—1986)년판〕

《강》 단편소설. 주체41(1952)년 리갑기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면밀한 작전과 이신작칙의 행동으로 부대가 받은 어려운 전투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내는 인민군지휘관의

형상을 감명깊게 그려낸 작품이다. 대대장 권수도는 금강계선에 이른지 사흘째 되는 날 련대로부터 대안에 있는 적들을 소멸하고 주력의 도하를 보장할데 대한 명령을 받게 된다. 그는 대대의 인원으로 적의 화점과 포들을 까부시기 어렵다는것을 간파하고 부대를 3개 조로 나누어 강을 도하하게 한 다음 적들을 족치도록 한다. 그러나 도하과정에 적 항공기의 습격과 포사격이 심해지자 대대장은 대원들속에 뛰여들어 용맹한 꼬마전사와 함께 물이 깊은 곳으로 대오를 이끌어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며 계획대로 부대가 적의 종심에 들어가 화점과 포를 까부시도록 한다. 그러나 적들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채 발각되게 되자 그는 《병돌》이라고 불리우는 아바이전사를 비롯한 대원들과 함께 사생결단으로 맞다드는 미국놈들을 무리로 쓸어눕힌다. 그는 강을 도하하고 육박전을 벌리면서 사랑하는 꼬마전사와 《병돌》아바이를 비롯한 전사들을 잃고 자신도 다리와 어깨에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원쑤격멸에로 대원들을 불러일으켜 적의 화점과 포들을 까부시고 주력부대가 무사히 강을 건느도록 한다. 작품은 주력부대의 금강도하를 성과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대대장의 모습을 통하여 인민군지휘관들의 명령수행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문학예술》잡지, 주체41(1952)년 4호〕

《강길수일가》 단편소설. 주체50(1961)년 리영규 창작.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유격대의 활동을 적극 뒤받침해준 한 일가의 뜨거운 애국심과 혁명정신을 보여준 작품이다. 나흘째 내리는 장마비로 하여 물이 불어나자 조국광복회 지회장 강길수로인은 조국광복회 회원인 경삼을 유격대에 련락을 보내는 한편 안해 문씨와 이웃집 로왕댁을 보내여 적정을 살피게 한다. 한주일전에 강로인은 둘째아들이 있는 부대의 련락원을 만나 이곳의 적들을 들이치기 위해 물이 불면 련락하기로 했던것이다. 문씨의 이야기를 통하여 적정을 확인하고난 강로인은 나물을 캐여 판 돈으로 셋째에게 줄 고무신을 사온 문씨에게 유격대에 보내줄 지하족을 사올걸 그랬다고 엄하게 질책한다. 그는 유격대에서 돌아온 경삼으로부터 둘째아들이 간삼봉전투에서 희생되였음을 알게 되였지만 다리폭파에서 실패한 경삼이 대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셋째아들을 떠나보내고 유격대원들을 안내하기 위하여 약속된 지점으로 간다. 한편 둘째아들이 희생된 소식을 듣고 셋째아들만은 어떻게 하나 데리고 있으려고 생각했던 문씨는 혁명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 남편의 높은 정신세계에 감동되여 다리를 폭파하고 유격대의 습격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한 셋째아들이 유격대에 가겠다고 하자 주저없이 떠나보낸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항일유격대와 인민들의 혈연적련계의 불패성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50(1961)년 6호〕

《강계정신》 장편소설. 주체91(2002)년 리신현 창작. 총서 《불멸의 향도》중의 한권이다. 소설은 우리 혁명앞에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중첩되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인 1990년대 후반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자강도일군들과 인민들을 불러일으켜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 강계정신을 창조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활동과 업적을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주체86(1997)년 여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선동부의 최전연군부대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큰물피해지역에 파견하였던 당중앙위원회 일군으로부터 큰물피해수습정형을 료해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집무실에 들리시여 문건들을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강도당에서 올라온 문건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장의 보배라고 아껴주시고 내세워주시던 희천공작기계공장의 오랜 기능공이 굶어죽었

다는 내용을 읽으시고 너무나 가슴아프시여 즉시 그곳으로 떠나신다. 공장의 일군들로부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도 받으시고 생산이 거의 멎어선 실태와 어려운 로동자들의 생활형편도 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동자들의 생활을 개선할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밤으로 바람사나운 초상령을 넘어 귀로에 오르신다. 로상에서 한 로동자의 집에 들리시여 인민들의 생활형편에 대하여 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책동과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하여 계속되는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할 방도를 무르익히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추켜세우는 돌파구를 전력문제해결에서 찾으시고 중소형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자강도에서 시범을 창조할것을 결심하시고 그 과업을 자강도당책임비서 강태혁에게 맡겨주신다. 전국적으로 형편이 가장 어려운 자강도에서 중소형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고난의 행군의 돌파구를 열도록 하기 위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먼저 태혁을 단장으로 하는 강력한 기술대표단을 무어 스위스에 파견하시여 중소형발전소건설에 필요한 경험을 배워오도록 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과 믿음을 받아안은 자강도당책임비서 강태혁은 스위스에 갔다오는 즉시로 도안의 책임일군들과 기술자들로 중소형발전소건설지휘부를 내오고 그 첫 사업으로 29개의 발전소들을 건설정비하여 장군님의 의도대로 고난의 행군의 돌파구를 열어제낄수 있도록 높은 전투목표를 세우게 되며 그것을 설계도안과 함께 장군님께 올린다. 자강도에서 올라온 전투목표와 설계도안들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것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도당책임비서 태혁에게 건설전투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태혁을 비롯한 자강도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은 모든것이 부족한 최악의 조건에서 수많은 애로와 난관을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과감히 이겨내며 중소형발전소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다. 그 과정에 대용량발전기를 비롯한 많은 발전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내고 혹심한 식량난을 대용식품으로 극복하며 중소형발전소건설과 효능높은 미생물비료인 《리미액》연구사업도 적극 다그친다. 하지만 대용식품만으로는 부족되는 식량을 도저히 충당할수 없었고 도안의 책임일군들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였지만 적중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귀중한 식량을 보내주어 자강도의 식량문제를 풀어주시고 군부대 수송차를 동원하여 자강도에까지 실어다주도록 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고무된 도당책임비서 강태혁, 장강군당책임비서 김충도, 연구사 림성실을 비롯한 도안의 책임일군들과 인민들은 엄혹한 추위와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고 마침내 반년동안에 29개의 중소형발전소들을 자체의 힘으로 완공하며 미생물비료인 《리미액》연구사업에서도 성공하여 도안의 전반적인 경제를 추켜세울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는다. 이렇게 되여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성과적으로 결속할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된다. 주체88(1999)년 새해 정초 대한을 앞둔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력사적인 자강도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인민들이 피땀으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들과 살림집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투쟁성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발휘된 그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강계정신이라고 명명해주시고 전국이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내세워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지펴주신다. 작품은 그해 6월 또다시 자강도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력사의 땅 고산진을 찾으시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버이수령님께서 재진격의 길을 열어나가신것처럼 오늘의 재진격의 길에 다시 오르시여 이 땅우에 반드시 강성대국을 건설할 강철의 의지를 다지시는 장면으로 끝난다. 장편소설은 우리 조국과 혁명앞에 헤아릴수 없는 시련과 난관이 겹쌓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불굴의 투쟁정신의 산 모범을 창조하시여 준엄한 난국을 이겨내고 승리의 한길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빛나게 령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력과 숭고한 덕성을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작품에서는 그처럼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강성대국건설의 빛나는 앞길을 열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걸출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위대성, 탁월한 정치가, 전략가, 령도의 예술가로서의 위대성,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위대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하는 우리 인민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투쟁모습을 개성적인 인물형상을 통하여 생동하게 밝히고있다. 이밖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내면심리세계에 대한 깊이있는 묘사와 감명깊은 세부형상, 정론적인 문체 등으로써 작품의 예술성을 세련된 경지에서 보여주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1(2002)년판〕

《강물은 한곬으로》 중편소설. 주체67(1978)년 주유훈 창작. 한 기술일군이 가정생활에 대한 낡은 사상관점과 태도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형상한 작품이다. 타빈설계기사인 주인공 연희는 손로동을 없앨수 있는 기계손과 대형마치제작문제와 관련하여 보수주의적으로 대하는 기사장인 남편 리창민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기계손과 대형마치제작은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물단조직장에 아직 남아있는 손로동을 보시고 근심하시면서 기술혁명을 다그쳐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신 교시를 관철하는 과정에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이 합심해서 발기한 기술혁신안이였다. 그런데 리창민은 공장의 실정과 기술이 약하다는것을 구실로 이 일을 적극 밀고나가지 않는다.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그는 마지못해 하자고 하며 가정에 들어와서는 안해에게 유압식기계손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안팎이 다른 남편의 그릇된 처사에 대하여 안해가 일깨워주자 남편의 일에 참견한다고 시끄럽게 생각하며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연희는 가정은 사회의 한 세포라는 자각을 가지고 남편이 사회와 가정의 제동기로 되지 않도록 그를 적극 도와나선다. 안해의 성실한 노력과 방조에 의하여 기술신비주의, 보신주의, 남존녀비사상에 물젖었던 리창민도, 사랑과 결혼, 가정에 대한 옳은 관점에 서지 못하고 허영에 들떴던 시누이 영단이 그리고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가풍이 몸에 푹 배인 시어머니도 사회와 가정은 하나의 숨결로 고동쳐야 한다는 관점과 새 륜리로 교양된다. 소설은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가정을 혁명화할데 대한 당의 요구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소설에서는 또한 남편의 잘못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일깨워주고 남편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연희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부부간의 사랑, 가정의 참다운 행복이란 무엇이며 가정륜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옳은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67(1978)년판〕

《강물은 흐른다》 영화문학. 유정혁 창작. 작품은 어질고 순박하기만 하던 한 머슴군처녀가 어떻게 유격대에 입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자라나는가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인공 성녀가 자기를 왜놈들에게 팔아넘기려는 정미소주인 양가의 손에서 도망쳐 강물에 몸을 던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

다. 위기일발의 순간 지하조직원 금선이와 그의 시아버지 민호로인에 의하여 구원된 성녀는 그들의 일깨움으로 지하조직에 들게 되며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된다. 금선의 영향밑에 계급적으로 눈을 뜬 그는 유격대에 보낼 쌀을 찧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삐라살포, 련락임무수행 등을 통하여 점차 혁명적으로 단련되여나간다. 성녀는 금선이가 지하혁명조직을 구원하고 영웅적으로 희생된 후에는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재봉대원으로 일하며 지하공작임무를 맡고 마을에 내려가 군중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고 유격대를 도와 적극 투쟁하도록 군중정치사업을 능숙하게 진행한다. 마을에서 군중지하공작임무를 수행하던 어느날 양가놈의 정미소 쌀을 실은 수송차들이 문성쪽으로 가게 된다는 통보를 받은 성녀는 곧 이 사실을 유격대에 전한다. 그러나 놈들이 식량수송방향을 전혀 반대쪽으로 바꾼것으로 하여 유격대전투활동에 혼란이 조성되게 되자 성녀는 직접 정미소에 나타나 양가놈을 협박하여 식량수송차를 문성쪽으로 끌고감으로써 일제《토벌》대놈들에게 쌀을 실어보내려는 적들의 책동을 파탄시킨다. 양가와 일제《토벌》대장놈은 성녀에 의하여 처단되며 쌀은 유격대가 로획한다. 작품은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한 성녀가 유격대원들과 감격적으로 상봉하는데서 끝난다. 작품은 금선과 성녀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상을 힘있게 밝혀내고있다. 작품은 한 순박한 머슴군처녀가 위대한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이란 그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것이 아니라는것, 압박받고 천대받는 평범한 사람들도 결심하고 떨쳐나서면 혁명가로 될수 있다는 진리를 생활적으로 뚜렷이 밝혀내고있다. 작품은 주체57(1968)년 영화로 제작되였다.

《강바람》 단편소설. 주체72(1983)년 조동서 창작. 청년들의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떠밀어주는 오랜 로동계급을 형상한 작품이다. 주인공 박덕삼로인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수천대나 되는 자전거들을 자기 공장에 보내주신 은정이 너무도 고마와 자전거관리를 맡아 성실한 노력을 바친다. 그런데 정화직장 김명남의 자전거는 언제 보나 흙투성이였다. 그래서 박로인은 명남이를 나무람하였으나 둘째손녀 선옥으로부터 명남이가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념려하시는 폐기가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이 따로없이 먼길을 달리면서 자료를 확인하고 연구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명남의 자전거는 그래서 늘 말밥에 올랐던것이다. 박로인은 이 나라의 맑은 공기에 0.01%의 유해물질이 섞일세라 하늘로 날아나는 폐기가스를 액화하기 위한 명남의 연구사업을 적극 도와주어 마침내 성공하게 한다. 작품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근심하시는 문제해결에 자신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는것은 우리 로동계급의 본분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72(1983)년 11호〕

《강변의 버드나무》 단편소설. 주체80(1991)년 손광영 창작. 작가인 나가 본 한쌍의 젊은이들의 사랑의 우여곡절을 통하여 청춘들의 사랑과 리상은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참답게 꽃피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는 작품이다. 나는 자주 대동강유보도를 산책하는 과정에 일생을 약속한 자동화종합공장에서 일하는 희철과 시악기공장 설계원으로 일하는 류경을 알게 된다. 어느 가을날 나는 고민에 빠진 희철을 만나 그가 자원진출했던 탄광을 6년만에 버리고 평양에 온것으로 하여 그들사이에 금이 가게 되였다는것을 알게 된다. 사실 중학교때부터 전자공학전문가가 될 꿈을 가지고있었던 희철은 학급전원이 탄광에 진출하게 되여 탄광에 갔으나 자기의 리상은 전자공학에 있다고 하면서 채취공업위원회에

있는 형님의 도움을 받아 평양으로 올라왔던 것이다. 류경은 희철의 과거를 알게 되자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사는 수도 평양에는 마음이 어지럽거나 량심에 빚을 진 사람은 살수 없다고 하면서 희철을 타이르나 희철은 탄광에서 그만큼 일했으면 됐다고 자신의 정당성을 운운한다. 류경은 자기를 잊어달라는 말을 남기고 당의 호소를 받들고 대흥청년광업종합기업소로 탄원해간다. 그제서야 자신의 사랑과 리상에 대한 견해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희철은 류경을 따라 대흥땅으로 탄원해갈 결심을 내린다. 화창한 봄날 대흥땅의 로동계급이 된 희철과 류경이 결혼을 한 후 잊지 않고 나를 찾아온다. 나는 강변의 버드나무밀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수많은 청춘남녀들을 보며 그들도 희철과 류경이처럼 우리 시대 청춘의 사랑과 리상을 활짝 꽃피우리라는것을 확신한다. 소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떠난 개인의 참다운 사랑과 행복이란 있을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0(1991)년 7호〕

《강성부흥아리랑》 가사. 주체90(2001)년 윤두근 창작.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긍지높이 노래한 작품이다. 《무릉도원 꽃펴가니 흥이로다 아리랑》으로 시작되는 노래의 1절 가사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천지개벽을 이룬 우리 조국의 현실을 펼쳐보이면서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오직 자기의 힘으로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헤친 자랑찬 투쟁력사를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2절과 3절에서는 일심단결과 총대의 위력으로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쳐가는 우리 조국의 래일을 밝고 희망찬 정서속에 장엄한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가사에는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오늘의 벅찬 숨결을 그대로 담으면서도 강성대국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해가는 우리 인민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미래에 대한 락관이 아름답고 세련된 시형상속에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구현되여있다. 가사는 표현수법과 수단, 그 정서적색갈에서 특색이 있고 인민성과 통속성이 잘 구현된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선군시대 성과작으로 되고있다. 〔《조선노래대전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강철기둥》 단편소설. 주체63(1974)년 주동섭 창작. 작품은 강철로조립을 앞당기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을 바쳐가는 처녀로동안전기사와 청년작업반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있다. 혁신자로 소문난 청년작업반장 유복은 강철로의 동체를 땅에서 조립해서 통채로 들어올릴 창안을 내놓는다. 그것은 새 강철직장 조업을 한달이나 앞당길수 있게 하는 대담한 발기였다. 그런데 로동안전기사 애심은 그 창안에 선뜻 동의할수 없었다. 로동안전문제가 담보되지 않았기때문이다. 이로 하여 중학교동창생들인 둘사이에 틈이 생긴다. 애심은 결함을 자신에게서 찾고 모든 힘을 다하여 그 창안을 꼭 성공시키리라 마음먹는다. 그는 고심끝에 로의 동체를 안전하게 들어올릴수 있는 기발한 설계도면을 내놓는다. 강철기둥이 얼마만 한 짐을 받들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아찔하게 높은 강철기둥꼭대기까지 올라간다. 그들의 뜨거운 마음이 합쳐져 드디여 강철로가 조립된다. 소설은 애심이와 유복이의 형상을 통하여 새 세대 청년건설자들의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를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젊은 세대》, 문예출판사, 주체63(1974)년판〕

《강철로는 무엇을 끓이는가》 시초. 주체85(1996)년 전승일 창작.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쇠물로 받

들려는 용해공의 뜨거운 열정과 기백을 노래한 작품이다. 4편의 서정시로 구성되여있다. 서정시 《강철로는 무엇을 끓이는가》에서는 《불덩어리 강철로》를 바라보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많은 쇠물을 끓여 사회주의를 지켜가는 로동계급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노래하고있다. 새해 첫아침 당의 부름을 받아안았을 때에는 《목숨보다 귀중한 맹세가 펄펄 끓었》고 한해 쇠물량을 다 끓여놓은 저녁에는 《맹세보다 값높은 행복이 한껏 일렁이는것만 같》은 강철로, 《가식과 거짓을 모르고 오직 순결한 쇠물 하나만을 위해 지동치며 끓어번지는》 강철로는 정녕 《용해공의 불덩어리심장》이며 《사회주의 붉은 피를 끓여내고있》는 용해공의 심장의 강철로이다.

그렇더라
지구의 조종간을 틀어잡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이
영원한 청춘의 박동으로 높이 뛰라고
우리의 붉은기를 더 높이 펄럭이라고
오 나의 심장 강철로는
뜨거운 사회주의 붉은 피를 끓여내고
 있다

시는 강철로에 대한 시적형상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지켜가는 로동계급의 높은 책임감과 영예에 대한 심오한 사상을 천명하고있다. 서정시 《다만 한줄뿐》에서는 용해일지에 끓여낸 쇠물수자를 적는 용해공의 사상감정을 통하여 《나의 사상이 비끼고 나의 넋이 끓여지고 나의 땀이 함께 불탄》 쇠물톤수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려는 로동계급의 깨끗한 량심과 의리를 서정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서정시 《쇠장대보다 무겁습니다》에서는 쇠장대를 잡았던 손에 꽃손잡이 조작변을 쥐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용해공의 드높은 결의를 노래하고있으며 서정시 《나의 보안경》에서는 언제나 보안경을 벗지 않고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쇠물을 끓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가려는 서정적주인공—용해공의 심정을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다. 시초는 현실에 대한 깊은 체험에 기초하여 쇠물로 당을 받들고 사회주의를 지켜가려는 용해공의 긍지와 자부심을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5(1996)년 6호〕

《강철청년부대》 장편서사시. 주체40(1951)년 김람인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1차 남진으로부터 재진공에 이르기까지의 가장 격동적인 시기를 배경으로 강철청년부대의 영웅적인 위훈에 대한 사실주의적묘사를 통하여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을 폭넓게 일반화한 작품이다. 장편종군기형식으로 된 서사시는 머리시를 대신한 《찬가》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여있다. 《찬가》에서는 강철청년부대의 빛나는 전투위훈에 축하를 드리면서 그 승리의 기록, 영웅들의 이야기를 노래하려는 사상적지향을 보여주고있다. 서사시는 서정적주인공—강철청년부대의 전투행로에 따라 줄거리를 엮어나가고있다. 1장에서는 전국적판도에서 청춘들이 전선으로 떠나가는 력사적인 환경을 랑만적으로 제시하고 제2민청훈련소의 한 부대인 강철청년부대가 서울, 수원, 대전을 지나 락동강계선으로 원쑤를 족치며 남진의 길에 오른데 대하여 노래하였다. 2장에서는 부대가 대전해방의 길에 들어선데 대하여서와 3장에서는 락동강을 중심으로 한 적아간의 치렬한 공방전과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오른 부대의 눈부신 적후활동에 이어 재진격의 환희와 격정을 노래하였다. 4, 5장에서는 재진격의 명령을 받은 부대가 적의 종심에서 여러 전투들을 치른데 이어 또다시 38도선을 넘어 남으로 멀고먼 길을 행군하면서 도처에서 원쑤들을 치며 혁혁한 전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노래하였으며 6, 7장에서는 노도와 같이 진격하여 다시 팔공산일대를 차지하였던 부대가 김화군 점방리로 돌아오기까지의 시련과 위훈에 찬 전

투활동을 노래하였다. 이 작품에는 특정된 주인공이 따로 없고 강철청년부대와 그의 영웅전사들이 주인공으로 설정되여있으며 시적언어표현에서 수식과 가식이 없고 소박하고 간결하면서도 작품전반에 정론적예리성과 랑만적열정이 풍만하게 흐르고있다. 서사시는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로서의 인민군대의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작품전반에 걸쳐 심오하게 구현한 작품중의 하나일뿐아니라 시인이 직접 최전선부대와 운명을 같이하면서 그들의 불멸의 위훈을 세상에 소리높이 노래한 작품인것으로 하여 문학사적의의가 크다. 〔문예출판사, 주체78(1989)년판〕

《강철의 음향》 시초. 주체81(1992)년 김석천 창작. 천리마의 기상을 안고 대를 이어 강철로 당을 받들고 사회주의를 지켜가는 강선로동계급의 충정의 열정, 그들의 보람찬 생활을 형상한 작품이다. 시초는 《강철지구》, 《성장의 나날에》, 《용해공의 축배》, 《노을속의 처녀들》, 《기쁨》, 《강철과 삶》, 《강선의 메아리》의 7편으로 이루어져있다. 시초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사연깊은 고장, 강철지구에서 사는 로동계급의 긍지와 자부심을 생활적인 감정으로 구체화하여 노래하고있으며 한 로장의 성장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강철기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을 받드는 강철전사로 억세게 자라난 용해공들의 믿음직한 모습을 강선의 력사와 결부시켜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시초는 용광로앞에서 새해 첫 아침을 맞이하는 용해공들의 랑만과 희열의 감정, 하루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오른 철의 도시 처녀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례찬의 감정을 풍만한 서정속에 펼치면서 조국에 바치는 로동과 창조야말로 강선사람들의 삶의 보람이고 긍지라는것을 노래하고있다.

시대에, 우리 시대에 숨결을 부어주며
멈출줄 몰랐던 강선의 메아리여
공간에 떠다니는 온갖 잡귀신들을
쇠장대로 후려쳐 로속에 처박으며
무쇠로 당을 받든 강선!
여기서 시작된 신념의 메아리로
어려운 때마다 조국은 큰 숨을 내쉬
였다

시초는 강철지구 하늘가에 울리는 메아리는 당앞에 거짓맹세를 모르는 용해공의 심장의 노래이며 강철로 당을 옹위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받드는 강선로동계급의 신념의 메아리라는것을 깊이있게 일반화하고있다. 〔시집《궤도를 따라》, 문예출판사, 주체81(1992)년판〕

《강한 바람》 단편소설. 주체70(1981)년 김삼복 창작. 비바람피해로부터 랭상모판을 구원하는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을 통하여 생활의 참된 보람과 행복에 대하여 보여준 작품이다. 3대혁명소조생활을 하다가 첫 휴가를 받고 집에 온 유영은 가족과 한자리에 앉아 즐거운 분위기에 잠긴다. 이때 전반적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것이라는 날씨예보가 전해진다. 유영은 자기가 맡은 룡호리농장의 랭상모판과 특히 비바람피해방지대책을 잘 세우지 않은 한 분조의 모판이 마음에 걸려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밤중으로 기차에 올라 현지에 돌아온다. 비바람을 맞으며 먼저 2작업반의 모판을 돌아보고난 그는 마음에 걸렸던 3작업반 4분조의 모판을 찾아간다. 위험에 처했던 모판은 유영과 농장원들이 달려와 간고분투하여 나래를 덮음으로써 구원된다. 유영은 온몸이 얼어들었으나 비바람에 뒤이어 오는 랭해를 이겨내기 위한 전투준비에 착수한다. 소설에서는 평온한 생활이 아니라 격류하는 투쟁속에 생활의 참된 보람과 행복이 있다는 사상을 밝히면서 자기가 맡은 혁명임무를 높은 책임감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수행해나가는 3대혁명전위의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

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70(1981)년 2호〕

《강화도》(5막 6장) 희곡. 송영 창작. 1870—1871년 강화도 침입사건을 소재로 하여 미제의 조선침략정책을 폭로하고 나라를 지켜나선 인민들의 애국적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베이징주재 미국공사 로우와 함장 슈벨리트를 비롯한 미국놈들은 조선을 침략할 모의끝에 제놈의 앞잡이인 종교신자 남익상에게 《통상》을 요구하는 편지를 써서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한편 우리 나라에 기여들어와 마음대로 땅을 재는 등 침략행위를 감행한다. 그러나 놈들은 애국심이 높은 장천쇠를 비롯한 강화도인민들의 반격에 부딪쳐 쫓겨가며 남익상은 장천쇠네 일가를 모해하려다가 실패하고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 남익상을 통하여 조선을 침입하려는 미국놈들의 흉계를 알게 된 강화도인민들은 놈들을 물리칠 준비를 갖추고 장천쇠의 아들인 장대성의 지휘밑에 놈들과 용감히 싸운다. 작품은 강화도를 지켜싸우는 우리 인민의 애국적투쟁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애국주의정신과 민족적기개를 감명깊게 보여주었으며 미국놈들의 침략적본성과 강도적행위를 날카롭게 폭로하였다. 작품은 장천쇠일가와 농민청년 송덕산, 대장쟁이 태장춘 등 여러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외래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용감성을 발휘하는 조선인민의 슬기와 용맹, 애국심을 그려내였으며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는 언제나 인민대중이 앞장에 서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각이한 계급과 계층에 속한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복잡한 사건들을 취급하고있으나 극구성을 잘 짜고 인물성격을 생동하게 형상함으로써 주제사상을 뚜렷이 부각시키고있다. 작품은 주체43(1954)년에 연극으로 창조되였다.

《강의한 사람》 단편소설. 주체43(1954)년 리윤영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의 발악적인 공격으로부터 고지를 사수하기 위한 싸움에서 발휘한 인민군전사의 강의성을 보여준 작품이다. 주인공 리찬영은 미제침략자들에게 안해와 아버지를 잃고 의용군에 입대한 사람이다. 소설은 그가 속한 분대가 중대로부터 870고지를 사수할데 대한 명령을 받고 하루에도 15차례나 달려드는 적들과 힘겨운 전투를 벌리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리찬영은 날이 갈수록 가렬해지는 전투속에서 부상자와 희생자가 나오자 인원을 보충해주겠다고 하는 중대장에게 자신이 두사람의 몫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며 이튿날부터 적을 코앞에까지 접근시켜놓고 소멸하면서 다른 동무들의 방어구역까지 맡아나선다. 분대앞에 고지로 기여오르는 2대의 적땅크를 까부셔야 할 임무가 제기되자 그는 자진하여 적땅크를 맞받아나간다. 그는 한팔에 부상을 당했지만 수류탄을 던져 한대의 땅크를 박산내고 또다시 어깨와 다리에 부상을 당한다. 또한 적들에게 잡힐수 있는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며 부상으로 수류탄을 던질수 없게 되자 바위짬에 매놓고 줄을 당겨 터지게 함으로써 적땅크 한대를 마저 까부신다. 이렇게 그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수십일간이나 고지를 지켜내여 분대가 명령을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원쑤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오를 때 죽음도 이겨내는 강한 사람이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희망의 언덕》,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3(1954)년판〕

《갖저고리》 단편소설. 주체50(1961)년 리영규 창작. 날로 유족해지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어느 한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통하여 보여준 작품이다. 림시사택에서 살다가 아빠트로 이사와 별로 할일이 없게 된 봉수의 어머니는 양복점에 맡기면 쉽게 해올 며느리의 갖저고리를 제 손으로 지어주고싶어 바느질을 한다. 그 모습을 보며 봉수가 삯바느질을 해온 어머니의 지난날을 생각하

는데 어느새 들어온 안해는 다 지은 옷을 입고 기뻐서 어쩔줄 모른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물건값이 내리고 생활비가 올라간데 대하여 이야기해준다. 어머니는 생활에 불편이 있을세라 보살펴주는 나라의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눈시울을 적신다. 그날 밤 용수는 해방후 처음으로 해준 갖저고리를 미국놈들의 폭격에 잃고 서운해하던 어머니에게 생일날에 모시적삼을 해드리자고 안해와 토론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식들이 타온 생활비로 손자애의 외투감을 사다가 양복점에 맡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봉수와 그의 안해는 어머니를 나무라며 생일날에 값진 갖저고리를 지어드린다. 작품은 이들의 형상을 통하여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꽃펴나는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잘 보여주고있다. 〔리영규단편집《새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50(1961)년판〕

《거대한 날개》 단편소설. 주체82(1993)년 양의선 창작. 과학탐구의 길에 한생을 바치려는 청년을 진심으로 리해하고 일생을 함께 할 결심을 하는 처녀의 내면세계를 그린 작품이다. 가을에 있을 결혼식을 앞두고 달콤한 공상에 잠기군 하던 인민대학습당 열람실 대출원 보옥은 북부지구 어느 한 중요전자기구공장에 출장가다 들린 애인 철우가 며칠 쉬지도 않고 떠나는데 몹시 불만을 가진다. 철우는 조립중에 있는 수자조종종합선반기에 대한 생각으로 역에까지 따라나온 보옥에게 나의 과학, 나의 미래의 영원한 길동무, 방조자가 되여달라는 말만 남기고 떠나가버린다. 자기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떠나간것으로 오해한 보옥은 그가 출장간 공장에 찾아간다. 철우가 바빠서 그러니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자 보옥은 그의 행동을 두고 자기의 의심을 더욱 확신하며 글쪽지를 남기고 떠나간다. 마침 철우의 방에 들렸던 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쪽지를 보고 역전으로 뒤쫓아가 보옥을 데려오며 철우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관철을 위해 얼마나 훌륭한 발명을 하고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해준다. 보옥은 자신의 옹졸한 생각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철우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드디여 수자조종종합선반을 성공시킨 철우는 그 기쁨을 안고 보옥이 있는 곳으로 달려와 뜨겁게 포옹한다. 보옥은 철우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높으며 그와 일생을 함께 하자면 얼마나 자신을 수양해야 하겠는가를 깊이 깨닫는다. 소설은 과학탐구의 길에서 영원한 길동무가 되여 혁명의 꽃을 피우려는 우리 시대 청춘들의 지향과 참다운 사랑의 감정을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2(1993)년 1호〕

《거센 바람》 단편소설. 주체65(1976)년 리택수 창작.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킬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구상을 관철해나가는 길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는 3대혁명소조원의 영웅적소행을 보여준 작품이다. 전기기계공장의 한 작업공정은 의연히 유해로동으로 남아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영기기사는 오래동안의 연구끝에 한차례의 시험을 해보았으나 실패하고 오작품만 내놓게 된다. 소조원 상민은 분석실험을 통해 실패의 원인이 연구한 새 원료에 있는것이 아니라 건조로에 있다는것을 발견하고 로를 개조할것을 제기한다. 그러나 직장장 동식은 로개조가 생산계획수행에 지장이 된다면서 반대하며 영기도 그 문제는 우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자기가 참여할바가 아니라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 상민은 공장적인 로개조도안현상모집을 조직하고 밤잠을 잊어가며 현장에서 분투한다. 실패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자면 가열된 로안에 들어가야만 한다는것을 간파한 상민은 유독성가스가 가득찬 로속으로 뛰여들어 끝내 원인을 찾아낸다. 작품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으로 사람들의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기술을 혁신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을 확증하고있다. 〔단편소설집《혁명전위》, 문예출판사, 주체65(1976)년판〕

《거센 흐름》 장편소설. 주체53(1964)년 윤시철 창작. 천리마대고조시기 발전소건설장에서 위훈을 떨친 청년들의 자랑찬 투쟁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설데 대한 당의 부름을 가슴깊이 새기고 장진강청년발전소 건설장에 달려간 서창주는 지방자재를 리용하여 세멘트를 현지에서 생산하여 쓸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연구를 진행한다. 대학 등교수업에 올라간 그는 자기가 실험한 세멘트시편을 해당 연구기관에 가져갔으나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발전소건설장에 돌아온 그는 실험실사업을 새로 부임한 강은희기사에게 인계하고 검사조책임자로 임명되지만 이미 하던 연구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 과정에 그는 콩크리트붕락사고를 일으켜 비판을 받고 기술부장 리윤서를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의 압력으로 지하수로작업장에 착암수로 조동된다. 그러나 그는 맥을 놓지 않고 간고분투의 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지하수로를 관통시키는 작업에 선진작업방법을 받아들여 새로운 혁신을 일으킨다. 보수주의자들의 방해로 일시 중단되였던 세멘트현지생산문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토의되며 그후 수로공사를 기한전에 끝내고 돌아온 그는 당위원장 김택진과 민청위원장을 비롯한 청년들의 지지와 고무를 받으며 실험을 계속하여 마침내 세멘트생산에 성공한다. 당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청춘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는 서창주와 강은희를 비롯한 청년들은 나라의 방방곡곡에 새로운 발전소를 더 많이 일떠세울 벅찬 희망에 가슴을 불태운다. 소설은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불사르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해가는 청년발전소건설자들의 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적과 혁신의 나래를 펼친 천리마시대 청년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주체54(1965)년판〕

《거창한 흐름》 단편소설. 주체73(1984)년 리장후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뛰여난 전략전술과 비범한 군사적예지로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이다. 최무혁사단은 최고사령부의 작전적방침에 따라 청암산을 단숨에 점령하고 남진강계선에 진출하여 강행도하를 준비한다. 바로 이러한 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최전선에 나오시여 사단의 강행도하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다. 적폭격기들이 나타나기 전에 한시바삐 최전방을 떠나셨으면 하는 사단장의 간절한 소청도 마다하시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싸우는 전사들을 만나보시고 적정도 살피시면서 적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시여 강행도하를 성과적으로 단행할수 있는 위력한 전술을 가르쳐주신다. 사단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정해주신 습격경로를 따라 남진강도하를 진행하여 적들이 《난공불락》이라고 하던 요새를 단숨에 점령한다. 작품은 적들의 기도를 미리 간파하시고 놈들의 기본집단을 남진강남안에서 포위섬멸해버릴 구상을 하시며 적의 《철퇴의 방어선》을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 뒤통수를 후려치도록 하시는 장면 등을 통하여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군사적 예지를 잘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73(1984)년 4호〕

《거울》 단편소설. 주체48(1959)년 고동온 창작. 인민의 참된 봉사자로 성실하게 일하지 못하던 판매원처녀가 량심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보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비조합상점의 첫 점장이였던 모리간상배인 상규의 부정적영향을 받은 판매원 성옥은 판매액상계획만 넘쳐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손쉬운 방법으로 물건을 많이 파는데 더 관심을 둔다. 이로부터 그는 물건을 제마음에 드는것으로 골라 사가고싶어하는 손님들의 요구를 시끄럽게 여기며 새로 온 점장 계숙이가 농사일에 바쁜 농장원들을 위해

이동판매를 조직하고 자체로 부식물을 가공하여 식료품의 품종을 늘이자고 하는데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여긴다. 또한 번화한 도시에서 편안히 살것을 꿈꾸고있는 그는 계숙의 시동생이며 자기의 애인인 제대군인 인호가 농촌축산반에 자원진출한데 대하여 고깝게 생각한다. 어느날 그는 고포천을 수매하러 온 할머니를 바쁜 일이 제기되였다고 돌려보낸것으로 하여 평양방직공장에 있는 외삼촌의 소개를 받아 자기를 만나보기 위해 상점에 들렸던 만수라는 청년으로부터 상업일군의 자격이 없다는 신소편지를 받게 된다. 이에 충격을 받은 성옥은 벽에 걸린 거울에 얼굴을 비쳐볼줄은 알았어도 손님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려는 성실한 마음은 비추어보지 못하고 살아온 자신을 심각히 뉘우치며 인호와 함께 농촌에 뿌리내리고 농민들의 생활을 돌보는 봉사일군으로서 일생을 바쳐갈 결심을 다진다. 소설은 성옥의 교훈적인 생활체험을 통하여 사람은 시대의 거울에 자신을 늘 비추어보며 끊임없이 수양하고 단련하여야 진실로 인민을 위해 일하는 참된 일군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48(1959)년 1호〕

《건국의 첫 기슭에서》 단편소설. 주체94(2005)년 조창근 창작. 력사적인 보통강개수공사의 나날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인민들에게 돌려주신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있는 작품이다. 어머님께서는 평양인민들이 겪고있는 토성랑의 물란리를 두고 그토록 념려하여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뜻을 받드시고 매일과 같이 공사장에 나가시여 인민들과 함께 일하시며 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벌리신다. 그때 공사장에 나온 삼흥중학교 교원 허란주는 애국의 열의가 높은 처녀였으나 어떻게 건국에 이바지해야 할지 몰라한다. 그러는 그에게 어머님께서는 학생연예대를 뭇고 연예활동을 벌리도록 하시며 그가 해방의 열기, 건국의 기상이 차넘치는 현실을 반영한 노래가 없어 애를 태울 때는 자신이 몸소 리용하시던 혁명가요수첩을 주시여 온 공사장에 혁명가요의 노래소리가 차넘치게 하신다. 어머님께서는 매일같이 늘어나는 공사지원자들의 작업도구문제를 위해 적골동의 야장간로인을 만나시고 공사에 필요한 삽과 곡괭이를 함께 벼리시며 그 공구들이 공사에서 큰 은을 내도록 하신다. 그리고 야장간로인을 찾아가시던 길에 만나신 앞 못 보는 청년의 불행을 가셔주시기 위해 그 고장의 이름있는 의사를 찾아가신다. 어머님께서는 그 의사를 만나시여 해방된 이 땅에서 인민을 위해 일하는것이 의사들의 본분이라 하시며 토성랑의 물란리로 수혈병을 얻어 소경이 된 그 청년의 눈을 띄워주는 일에 그가 발벗고나서도록 하신다. 어머님께서는 인민들이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며 올린 사향도 청년의 눈을 고치는데 쓰도록 하시여 곡절을 겪던 허란주와 그 청년의 사랑을 되찾아주신다. 인민에 대한 이러한 사랑의 전설은 삽시에 온 공사장에 퍼져 사람들을 무한히 감동시킨다. 소설은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인민들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사랑의 전설을 수놓아오신 한없이 자애로운분이심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94(2005)년 12호〕

《건설장의 밤》 단편소설. 주체53(1964)년 김북향 창작. 소환장을 받고도 자기가 맡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장을 떠나지 않고 밤을 새워 일해가는 한 청년을 형상한 작품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온 룡택은 몸도 약하고 일솜씨도 서툴러서 직장장 국범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된다. 그렇게 되자 그는 남에게 뒤질바에야 여기서 일해서 무엇하겠는가 하면서 짐을 싸가지고 떠난다. 국범은 로동속에서 자신을 단련하려면 난관을 참고 견디여내야 한다고 타일러주며 그를 되돌려세운다. 룡택은 로동계

급속에 깊이 뿌리내릴 굳은 결심을 가지고 국범의 꾸준한 교양과 방조를 받으며 억세게 자라난다. 그는 휴가기일이 채 끝나지 않았지만 건설장으로 달려나와 비물에 잠긴 굴에 들어가 펌프와 전동기를 희생적으로 구원한다. 어느날 밤작업에 나왔던 룡택은 직장장으로부터 상급의 조치로 소환되게 되였으니 들어가 떠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자기가 맡은 과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착암기를 굳게 틀어잡고 밤을 밝혀 일해간다. 작품은 로동속에서 억세게 자라나는 새 세대 로동계급의 성장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문학신문》, 주체53(1964)년 제35호〕

《건설장의 새아침》 단편소설. 주체65(1976)년 강복례 창작. 새 세대 청년건설자들의 진취적인 투쟁모습을 보며 자기의 보수주의적이고 실무주의적인 사업태도를 고쳐나가는 한 건설일군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이다. 건설사업소의 부재직장에서는 골재운반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부재생산에서 애를 먹고있었다. 인수를 비롯한 진취적이고 랑만적인 청년로동자들이 부재를 실으러 온 자동차운전사들을 선동하여 수송문제를 일시 해결하자 직장장 강용선은 이를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미 자기가 제기했던 삭도문제마저 스스로 포기해버린다. 한편 문화오락사업으로 로동자들의 사기를 돋구고 생산실적을 올리는데 기여한 인수는 삭도를 세우는데서 애로조건으로 나섰던 토량처리방법을 착상하여 청년들을 동원시킨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혁신자로 소문났던 직장장의 그릇된 사업태도와 관점을 비판하기도 한다. 삽과 곡괭이를 들고 떨쳐나선 청년들의 모습에 감동된 직장장은 지난날의 자기와 오늘날의 자기를 대조하여보며 보신주의적인 사업태도를 고쳐나간다. 작품은 새 세대 청년들의 진취성과 전투성, 랑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군들은 지난날에 세운 공로에 만족할것이 아니라 영원히 청춘시절의 정열과 기백으로 살며 일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고 있다. 〔단편소설집《혁명전위》, 문예출판사, 주체65(1976)년판〕

《건설장의 지배인》 단편소설. 주체52(1963)년 황영도 창작.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대하여 보여준 작품이다. 장진강발전소건설장 지배인 리영빈은 기계설비만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만나는 직장장들에게도 기계설비상태에 대해서만 물어본다. 건설장에 례년에 보기 드문 홍수가 밀려오자 영빈은 그 피해로부터 설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뛰여다닌다. 그는 물에 잠긴 압축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바줄도 매지 않고 사품치는 물속에 뛰여들자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며 자기도 함께 뛰여들고 물에 잠길 위험이 있는 줄사다리로 처녀기사를 건너보내면서도 설비에 대해서만 주의를 돌린다. 이때 홍수가 밀려든 건설장이 념려되시여 전화를 걸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그는 설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올린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설장의 피해는 얼마든지 회복할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다고 하시며 청년건설자들을 잘 돌볼데 대하여 말씀하신다.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고 리영빈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곧 모든 건설장들에서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한다. 소설은 사람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떠받들려 이 땅우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설수 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52(1963)년 12호〕

《건설의 나날》 서정시. 주체48(1959)년 전초민 창작. 사회주의건설이 장엄하게 벌어지는 천리마시대현실을 미래와 결부시켜 노래한 작품이다. 서정적주인공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회주의건설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설것

을 열렬히 호소하면서 오늘의 창조와 헌신이 없이 래일의 보람이 있을수 없다는 뜻깊은 생활의 진리를 노래하고있다. 시는 영원히 젊고 영원히 웃는 기적이 오늘에 있으매, 벽돌 한장, 흙 한짐이 귀하여라라는 인상적인 결구로써 여운을 주고있다. 시는 현실긍정의 열정과 강렬한 호소성으로 특징적이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걸어서 가자》 서정시. 주체77(1988)년 오재신 창작. 북부철길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청년전위들의 위훈을 소리높이 구가한 작품이다. 혜산에서 만포로 가는 렬차의 기적소리가 역구내를 흔들어도 서정적주인공이 렬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가려는 것은 바로 이제 만나게 될 위훈의 창조자—청년들이 얼핏 내려서 만나보면 안되는 소중한 사람들이기때문이다.

렬차여 어서 떠나가라
나는 걸어서 가련다
시련의 언덕은 어떻게 넘었고
고난의 굽이굽이는 어떻게 헤쳐왔는지
걸음걸음 그들의 위훈담에 가슴설레며
자욱자욱 그들의 걸음새 따라배우며

서정적주인공은 렬차의 폭신한 좌석에 앉아서는 청년돌격대원들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놓은 북방의 새 경치를 마음편히 바라볼수 없고 거기에 비낀 심오한 의미도 알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 당을 받드는 길에서 그들이 간직한 신념과 의지에 《내 심장의 박동을 합치》며 이 길을 걸어서 가리라고 토로하고있다. 시는 《걸어서 가자》라는 형상적인 시구로써 서정의 폭과 깊이를 자유분방하고 웅심깊게 보장하였으며 시적정황과 주정토로를 적절히 배합하고있다. 〔《1980년대시선》, 문예출판사, 주체79(1990)년판〕

《검덕시초》 시초. 주체75(1986)년 집체창작. 검덕로동계급의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보여준 작품이다. 시초는 《당중앙은 함께 있어라》(오영재), 《검덕의 불빛》(구희철), 《금골에 온 처녀》(홍기풍), 《멀리 떠나왔어도》(박미성), 《검덕은 나아간다》(차영도)의 5편의 서정시로 묶어졌다. 시초에서는 검덕의 로동계급이 1980년대의 장엄한 행군길에 비약의 큰 걸음을 내디디며 오늘도 당을 따라 변함없이 기적과 혁신의 억센 자욱을 찍어가고있는 힘의 원천은 검덕사람들에 대한 당중앙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있다는것을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또한 검덕으로 달리는 시대의 숨결, 온 나라의 마음을 일반화하고있으며 예술인들을 보내주어 탄부들을 충정과 위훈에로 고무해주는 당중앙의 사랑을 감명깊게 펼쳐보여주고있다. 각이한 소재와 양상의 서정시들로 이루어진 시초는 시적격정이 높고 강렬하며 당과 수령께 바치는 검덕로동계급의 충정의 열정과 불타는 결의를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로동신문》, 주체75(1986)년 4월 21일〕

《검덕의 행진곡》 서정시. 주체80(1991)년 김철 창작. 순간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달리고 또 달리는 검덕의 투쟁기풍, 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련속천공, 련속발파로 마천령산발을 흔들며 90년대속도를 창조해나가는 검덕의 광부들의 힘찬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노래하면서 당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해나갈 불타는 열정과 기백을 토로하고있다.

당이 바란다면
용암 이글거리는 지구중심까지도
수직갱을 누르며 내려갈 검덕의 광부
당이 요구한다면
번쩍이는 쇠돌산을 통채로 업고서라도
무한대의 창공을 나래칠 검덕

시는 로동계급의 혁명정신과 투쟁의 힘

찬 기백속에 주체시대의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검덕의 숨결을 생동하고 박력있는 시어로써 감명깊게 구가하였다. 〔《문학신문》, 주체80(1991)년 제10호〕

《검산령초소》 단편소설. 주체66(1977)년 허여극 창작. 외진 산속에서 그 누가 알아주건말건 자기가 맡은 초소를 묵묵히 지켜 성실하게 일하는 한 통신선로감시공의 생활을 그리고있다. 주인공 유충렬은 검산령에 있는 통신선로감시소에서 20년동안 일해온 선로감시공이다. 대학동창생이며 약초재배연구사인 한상빈은 마을과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서 외롭게 지내는 충렬이를 생각해서 자기와 함께 연구사업을 하자고 권고하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검산령초소를 변함없이 지켰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선로감시를 진행하고 통신선로감시소를 알뜰하게 꾸린다. 그러던 어느날 무더기비로 인하여 절단된 중요전화선을 빨리 복구할데 대한 긴급지령을 받은 그는 쏟아지는 폭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담당한 구간을 끝까지 돌아볼뿐아니라 다른 구간의 끊어진 통신선까지 이어놓음으로써 통신을 제때에 보장한다. 그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되여 한상빈은 그를 고무해주는 편지를 보내온다. 소설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라지 않고 오직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혁명임무수행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6(1977)년 9호〕

《검산지기》 단편소설. 주체80(1991)년 강일모 창작.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고향마을의 자연부원을 지켜싸운 인민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마천령기슭의 올족동마을에 있는 검산에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왜놈들을 몰살시킨 올족동 젊은이 주충의 애국충정을 길이 전하려고 세운 비가 있다. 이 마을사람들은 대대로 이 비를 보존하여오면서 해마다 추석이면 동네가 모두 검산에 올라 주충의 령혼을 불러 재를 올리고 충정비를 지키는 사람을 천거한다. 천거를 받은 금석령감은 여러해를 내려오면서 검산의 돌을 왜놈들에게 팔아먹으려는 량반놈들과 감사놈을 반대하여 마을사람들과 함께 견결히 싸운다. 며칠후에 왜놈과 함께 나타난 감사놈은 라졸들을 시켜 금석을 구타한다. 놈들은 바위짬에 화약을 장진하고 금석에게 불을 붙이라고 한다. 금석이 폭약심지에 불을 달아가지고 놈들에게 달려들자 겁에 질린 왜놈이 단포를 쏜다. 금석은 단포에 맞아 숨을 거둔다. 세월이 흘러 검산을 강점한 왜놈들은 검산의 우국충정비를 형체없이 까부시고 금돌을 마구 빼앗아간다. 하지만 100년이 흐른 뒤 오늘에 와서 그 후손들은 자주와 창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떠서 세인을 놀래우는 거창한 기념비를 세웠으니 그것이 바로 굴지의 제3선광장이다. 소설은 예로부터 나라를 사랑하고 고향땅을 지켜 애국심을 발휘한 선조들의 투쟁모습을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80(1991)년 1호〕

《검정보자기》 단편소설. 주체46(1957)년 김형교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착취제도를 되살리려고 미쳐날뛰던 계급적원쑤들의 추악성과 부패상을 예리하게 폭로한 풍자소설이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괴뢰군놈들을 따라 북청에 들어온 이전 지주 방기풍은 땅속에 묻어두었던 토지문서와 빚문서를 파내여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5년동안의 소작료와 채무를 계산한다. 방기풍은 검정보자기에 빚문서를 싸들고 소작료를 받으러 다니다가 해방전에 머슴을 살던 리갑산에게서 된매를 맞고 기절한다. 마을농민들의 항거에 악에 받친 방기풍이 법관이 강제처분하는데 지장없도록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쓰고있을 때 서울에서 판사노릇을 하는 장만수가 찾아온다.

장만수는 방기풍이와 오랜 흥정끝에 법정 소송비용이라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만든 다음 강제처분을 시작한다. 그러나 또다시 마을농민들의 항거에 부닥친 놈들은 괴뢰군을 동원하여 농민들을 체포한다. 방기풍은 밀린 소작료와 빚값으로 2억 8천여만원을 손쉽게 걷어들이기 위하여 리갑산을 비롯한 핵심농민들을 총살해달라고 괴뢰군 장교놈을 부추긴다. 이날 밤 술판이 벌어진 기회에 마을청년 동석이가 장만수를 처단하고 체포된 농민들을 구원한다. 이어 유격대의 안내로 인민군대의 공격이 시작되며 동석은 방기풍의 문서보따리를 불태워버린다. 작품은 방기풍의 풍자적형상을 통하여 계급적원쑤들의 악랄한 본성을 예리하게 폭로하였으며 착취자들의 멸망은 불가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46(1957)년 1호〕

《검은금》 단편소설. 주체74(1985)년 허인수 창작. 로탄부가 청년탄부에게 들려주는 회상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어느날 오랜 탄부 현진국은 사위감인 젊은 탄부 최영식이 탄부의 직업을 부끄럽게 생각하고있다는것을 알고 그를 만나 자기의 지나간 청춘시절이야기를 들려준다. 옥천탄광에 제대배낭을 풀고 소대장으로 일하게 된 현진국은 숱한 제대군인들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있는 문제로 하여 마음을 썩인다. 강건너에 있는 옥천견방직공장에는 처녀들이 많았으나 탄부들의 직업을 꺼려 그들에게 시집오려고 하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나 공장민청위원장 김은옥이가 현진국과 결혼한 후로는 이 문제가 풀려 수많은 제대군인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몇해가 지난 어느해 여름 탄광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견방직공장 당비서와 탄광병원 원장, 중학교 교장의 남편들이 다 평범한 탄부이라는것을 아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며 이것은 로동당시대에 와서 우리 탄부들의 사회적지위가 높아졌다는것을 의미한다고, 그들이 캐내는 석탄은 단순히 탄이 아니라 나라의 재부를 늘이는 검은금이라고 하시면서 탄부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다. 현진국의 지나간 청춘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최영식은 탄부의 긍지와 영예를 떨쳐갈것을 결심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소설은 우리 사회에서 검은금인 탄을 캐는 탄부는 당에서 가장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4(1985)년 9호〕

《검은 장미》 영화문학. 김찬직 창작. 특수선박설계의 비밀을 탐지하기 위하여 미쳐날뛰는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이 파견한 해군첩보대 간첩놈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사회안전원들의 슬기롭고 용감한 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주인공인 녀성사회안전원 홍송희는 특수선박설계의 비밀을 탐지하려는 적간첩들의 음모책동을 짓부셔버릴 임무를 받고 동해선박설계연구소 책임기사 춘식의 애인으로 가장하고 해안도시에 나타난다. 간첩들은 춘식기사의 애인인 홍송희가 저들의 상전이 파견한 민소영이라고 단정하고 저마다 그를 자기 망에서 리용하려고 한다. 미군고문관 스미스놈을 중심으로 하여 전쟁시기 민중지의 딸 민소영을 일본에 데려다 훈련시켜 공화국북반부에 침투시킨 가마하라 그리고 자기 딸이 일본에 가서 훈련을 받았으나 결코 제 애비를 몰라보지는 않을것이라고 믿고있는 괴뢰해군첩보대 파견대장 민중지놈은 《검은 장미》 민소영을 통하여 특수선박설계의 비밀을 먼저 알아내려고 서로 시기질투한다. 공화국북반부에 침투하려다가 이미 체포된 《검은 장미》 민소영으로 가장한 홍송희는 적들의 이러한 내부적알륵과 모순, 갈등을 능숙하게 리용하여 《늙은 박쥐》, 《거머리》, 《구미여우》 등 간첩악당들의 정체를 낱낱이 발가놓는다. 주인공 송희는 자기가 교신시간 18분을 어긴것으로 하여 스미스놈이 의심하고있으며 이 의혹을 풀기 위하여 피스톤을 파견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능숙하게 리용함으로써 적들

의 내부를 혼란에 빠뜨리며 적간첩본부에 있는 해군첩보대 파견대장이며 자기 부모를 학살한 철천지원쑤인 민중지놈을 유인하여 체포한다. 작품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녀성사회안전원의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불굴의 투쟁정신, 림기응변의 지략과 결단성 등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또한 미군고문관 스미스와 미제를 등에 업고 재침의 야망을 실현할 꿈을 꾸는 가마하라 그리고 놈들에게 아부굴종하는 괴뢰놈인 민중지 등 적들의 형상을 통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원쑤들의 침략적본성과 악랄성, 교활성, 음흉성, 취약성 등을 예리하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비약과 함축, 회상의 수법 등 여러가지 형상수법들을 솜씨있게 활용하여 이야기줄거리를 흥미있게 끌고나가면서 인물들의 성격을 생동하게 개성화하였다. 작품은 주체62(1973)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겨울밤의 이야기》 단편소설. 주체44(1955)년 변희근 창작.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제도의 우월성을 오랜 로동자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보여준 작품이다. 주인공 박아바이는 생일을 축하하러온 직장사람들에게 원한많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해방전 카바이드공장건설장에서 마소와 같이 혹사당하던 그의 아버지는 어느날 발판우에서 떨어져 기초콩크리트혼합물속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기계를 세우러 갔던 박아바이는 사람보다 공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본감독놈한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며 그의 아버지는 콩크리트혼합물속에서 나오지 못한채 생매장을 당한다. 박아바이는 자기 아버지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나서 이번에는 1947년도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하던 때에 있었던 일로 화제를 돌린다. 어느날 박아바이는 2층으로 올라가다가 부러진 발판에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며칠후 퇴원하여 자기때문에 직장장이 행정적제재를 받았다는것을 알게 된 박아바이는 당위원회에 찾아간다. 당위원장은 그에게 생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보다 더 귀중한 보배가 없다고 하면서 발판을 수리하지 못한 직장장을 처벌하는것은 응당하다고 말해준다. 소설은 이야기를 마친 박아바이가 사람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나니 젊어지고싶다고, 그 젊어지는 약이 로동이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전기로에서 일할수 있다고 장담하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세상에서 사람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44(1955)년 5호〕

《겨울딸기》 단편소설. 주체61(1972)년 장수근 창작. 휴양생활기간에도 나라와 인민을 위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한 평범한 로인의 형상을 통하여 사람은 일생을 식을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살며 일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겨울철 농민휴양의 마지막기의 퇴소날 아침 승인없이 사라진 한 휴양생을 찾아 온 휴양소가 떨쳐나선다. 휴양소에서 사라진 로인으로 말하면 소장의 창조물이며 자랑인 얼음분수를 보고도 시답지 않아하며 특식상에 오른 사과를 보고는 휴양소에서 가꾼 사과인가고 묻기도 하고 뒤산기슭의 사과나무를 보고는 나이에 비해 어리다고 말하여 림학규소장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 사람이였다. 그런데 휴양생들이 퇴소한지 얼마 안되여 그 로인이 딸기모와 석비레를 가지고 나타난다. 사연인즉 분수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것은 좋지만 온천물을 리용하여 겨울에도 딸기를 심으면 휴양객들에게 딸기를 대접할수 있을것 같기에 딸기모와 온실을 짓는데 필요한 석비레를 구하러 갔다오는 길이라는것이다. 로인은 휴양소에서 온천물을 리용하여 사철 남새를 키우고 사과나무를 심어 휴양생들에게 한알의 파일이라도 더 차례지게 해야 휴양소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할수 있다고 간

곡히 말한다. 로인의 말을 들으며 소장은 이때까지 그에 대하여 가졌던 오해를 풀고 작은 성과에 만족하여 모든 문제를 실무적으로 대하여온 자신을 심각히 돌이켜보며 자기에게 새로운 투지와 열정을 안겨준 로인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소설은 단편의 특성에 맞게 겨울딸기에 이야기를 집중시키고 얼음분수에 대한 이야기, 사과나무에 대한 이야기 등을 흥미있게 교차시켜 보여줌으로써 구성의 립체성을 보장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1(1972)년 8—9호〕

《격랑》 단편소설. 주체45(1956)년 김영석 창작.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망국단선을 반대하여 싸운 서울동양인쇄공장 로동자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리운영은 인쇄공장이 《대한로청》에 넘어가는것을 반대하여 시위를 일으킨것을 계기로 경찰놈들에게 체포되였다가 석방되여 나왔지만 공장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는 투쟁을 계속하려면 공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기와 같이 해고당한 로동자들과 함께 공장 관리인놈에게 찾아갔다가 달려든 경찰놈들에게 부상을 입는다. 그러나 리운영은 자기들의 투쟁을 지지해주는 공화국이 있는 한 꼭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원쑤들과 끝까지 싸울 결의를 다진다. 그는 공장 투쟁분회 성원들과 함께 놈들의 반동출판물인쇄를 파탄시키는 한편 공장이 미국놈들의 손에 넘어가는것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그후 리운영은 《유엔조선위원단》이라는 간판밑에 남조선에 기여드는 미국놈들을 《환영》하는 연도에 나오라고 하는 괴뢰도당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한편 로동자들의 총파업에 합세할 준비를 갖춘다. 각지에서 시위가 시작되자 운영은 《〈유엔조선위원단〉 반대》, 《미군은 남조선에서 나가라》, 《망국단선을 반대한다》 등의 삐라를 뿌리고 연설을 하며 공장로동자들과 함께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싸운다. 이때 그는 1 000여명의 청년들과 함께 체포된다. 감옥에서 그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발표하시였다는 소식을 듣고 신심에 넘쳐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결의를 다진다. 작품은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 그날을 위해 싸우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하여 해방후 남조선로동계급의 투쟁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김영석소설집 《격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5(1956)년판〕

《결승선》 장편실화소설. 주체90(2001)년 김덕철, 한웅빈 창작. 세계륙상선수권대회 녀자마라손경기에서 1등을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큰 기쁨을 드린 정성옥영웅을 그린 작품이다. 1999년 8월 29일 오전 9시 에스빠냐의 남부도시 쎄빌랴에서 제7차 세계륙상선수권대회의 마지막종목으로 녀자마라손경기가 진행된다. 772번을 단 키가 작은 정성옥선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라손강자들과 키 큰 유럽선수들속에 끼워 조용히 출발선에 나선다. 경기가 시작되자 수많은 관중들이 알고있는 강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열성적으로 응원한다. 그러나 정성옥은 단 몇명뿐인 우리 선수단 성원들의 기대어린 눈길을 받으며 조용히 출발한다. 그는 우리 선수들이 세계무대에 나가 1등을 할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생각하며 승리의 보고를 드릴 굳은 결심을 안고 힘있게 주로를 달린다. 작품에서는 그의 경기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여러 인물들의 회상을 통하여 정성옥의 성장과정을 이야기하고있다. 소학교운동회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준 정성옥은 그후 해주체육학원과 압록강체육단, 국가종합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하였다. 그 나날에 그는 감독들의 지도와 사랑속에서 자기도 미처 알지 못했던 마라손의 재능을 꽃피우게 되였고 공화국선수권대회와 국제경기들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게 되였다. 체육선수로서의 성장과정에는 성공과 실패와 좌절도 있었지만 그는 이악하게 훈련하여 훌

륭한 마라손선수로 준비해간다. 특히 마라손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받아안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는 고향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꼭 우승의 영예를 지니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고무하리라 굳게 마음다지였다. 이렇게 성장한 정성옥이 오늘은 세계마라손강자들과의 대결에 나선것이다. 그는 폭양이 쏟아지는 105리의 마라손주로에서 치렬한 결전을 벌려 세계강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단연 1등의 영예를 지닌다. 20세기를 장식하는 마지막마라손경기에서 누가 1등을 할것인가를 주시하던 세계는 이름없던 조선의 선수가 우승하자 크게 경탄하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정성옥은 승리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마음속에 그려보며 달렸다고, 그것이 자신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고 소리높이 웨친다. 정성옥선수의 승리의 소식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한다. 정성옥은 조국에 돌아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100만명 군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 작품은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무궁무진한 힘을 낳고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한다는것을 밝히였다. 작품은 째인 구성속에서 주인공의 성장과정과 경기과정, 그의 경기를 지켜보는 각이한 사람들의 감정변화과정을 립체적으로, 구체적이며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90(2001)년판〕

《결전의 길로》 가사. 주체40(1951)년 석광희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전사들이 발휘한 백절불굴의 투지와 대중적영웅주의를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안고 적진을 향해 용감히 돌진해가는 인민군용사들의 불굴의 투지와 영웅적기개를 피어린 격전이 치렬하게 벌어지는 첨예한 극적정황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피어린 결전으로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이 길이 그리운 고향을 지키고 위대한 수령님께 다진 맹세를 실천해가는 성스러운 길임을 힘있게 강조하면서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 인민군용사들의 멸적의 투지와 필승의 신념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무게있으면서도 호소성이 강한 시적언어와 격동적인 운률, 반복법의 적절한 구사 등 다양한 형상수법을 적중하게 리용하여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고있다. 〔《조선음악전집》 1,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결정체》 단편소설. 주체85(1996)년 조은철 창작. 소금생산을 더 늘이기 위한 립체식증발시설공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 새 세대들의 순결한 량심과 충정의 열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제염사업소적으로 한명뿐인 처녀작업반장 지향은 두번째로 새로운 형의 립체식증발시설을 설계한다. 그것은 첫번째것보다 생산효과성에서나 자재절약면에서 훨씬 우월한것이였다. 하지만 그가 설계를 완성해놓고도 선뜻 내놓지 못하고 망설인것은 단지 이미 제출된 설계대로 립체식증발시설이 거의다 세워졌고 완공단계에 이른 그때문만이 아니였다. 그보다는 지금 돌격대장이 되여 이 공사를 추진시켜온 그의 애인인 기사 진명이가 이 공사만 끝나면 다른 제염소 책임기사로 조동되여가게 되여있고 또 진명의 아버지인 지배인도 년로하여 이것이 마지막공로로 될것이라는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이였다. 이런 심리적고충으로 모대기던 지향은 지배인과 진명기사를 생각하여 새 설계를 포기할 생각까지 한다. 지향의 말과 행동에서 귀중한 자재를 절약할수 있는 새 방법이 있다는것을 알아낸 진명은 당장 공사를 중지시키고 새 도면대로 할것을 주장한다. 진명의 절절한 깨우침에서 지향은

사사로운 감정때문에 귀중한 하루를 지체시킨 자신을 뉘우치며 진명과 로세대의 량심과 의리앞에 머리를 숙인다. 마침내 새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된다. 작품은 소금은 단순히 화학적결정체가 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해나가는 로동계급의 충정의 결정체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85(1996)년 6호〕

《결혼문제》 단편소설. 주체69(1980)년 박종상 창작. 가정보다도 사회적의무를 먼저 생각하면서 후대교육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총련의 한 교육자를 형상한 작품이다. 총련학교 고급부 3학년 5반 담임교원인 리명희는 시집갈 나이가 지났으나 결혼보다 자기가 맡은 학생들을 잘 키우는데만 전심한다. 그는 정애학생이 갑자기 뇌빈혈로 입원하자 식당일로 바쁜 정애의 부모들을 대신하여 밤새워 간호해주며 퇴원후에는 가정에서 자녀교양에 주의를 못 돌리는 사실을 알고 정애의 일상생활부터 세심히 돌봐주면서 공부를 잘하도록 이끌어준다. 자기가 맡은 학생을 친부모처럼 보살피는 명희교원의 지성에 감동된 정애의 외삼촌 정규는 그에 대한 사랑을 품게 되고 그들은 후에 결혼을 약속한다. 그러나 결혼날자가 되기 전에 정규가 자기 집사정으로 명희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결혼을 앞당기자는 의견을 제기하자 명희는 교육자로서의 사회적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절절히 이야기한다. 그의 말에 정규도 사회보다 자기 한가정만을 먼저 생각했던 자신을 뉘우치고 명희의 립장에 공감한다. 소설은 명희의 형상을 통하여 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민족교육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총련교육일군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일반화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9(1980)년 6호〕

《결혼식날에》 단편소설. 주체48(1959)년 리석형 창작. 쇠물생산에 바치는 로세대용해공의 성실하고 웅심깊은 마음에 대한 새 세대 용해공의 체험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전쟁때 같이 싸운 상철의 결혼식준비를 돕는것이 전우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 청년용해공 정호는 작업반장 만수아바이에게 대휴를 줄것을 제기한다. 그러나 만수는 쇠물을 뽑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의 제기를 수락하지 않으며 이로 하여 정호는 해방전에 부모를 잃은 상철을 키워준 아바이의 사랑을 의심하며 인정이 없다고 고깝게 여긴다. 다음날 상철이의 결혼식에 대한 생각에 옴해있던 나머지 출선구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사고를 낼번 한 정호는 만수아바이로부터 용해공의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개운치 못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공장을 나선다. 한편 바삐 막은 출선구가 터질가봐 념려되여 혼자 남아 자리를 뜨지 못하고있던 만수는 잠시후에 자기를 찾아 공장으로 되돌아온 정호에게 미리 준비해두었던 상철이의 결혼식옷을 꺼내준다. 이때에야 정호는 상철이를 끔찍하게 생각하면서도 더 많은 쇠물을 생산하기 위한데로 모든것을 지향시키는 아바이의 뜨겁고 속깊은 마음을 알게 된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새 세대 로동자들을 쇠소리나게 키워나가려는 로세대로동계급의 주인다운 태도와 뜨거운 심정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48(1959)년 제48호〕

《경각성》 단편소설. 주체44(1955)년 김재규 창작. 덤비기 잘하는 자기의 성격적 약점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적간첩을 잡아내는 한 경무원의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허성산하사는 《덤벵이》로 불리우는 사람이다. 전쟁시기에도 어느 한 고지방어전투시 불의에 당한 적의 공격에 당황하여 헤덤비다가 부상을 당해 후방경무부에 옮겨오게 된 그는 비상소집훈련때에 장구류준비를 갖추지 못한데다가 모자까지 쓰지 않아서 비판을 받게 된다. 그후 그는 자기의 결함을 극복하고 침착성을 키워가기 위해 노력

한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뻐스정류소에 나갔다가 한 처녀한테서 이상한것을 발견한다. 눈치가 이상한데다가 화려한 옷차림에 어울리지 않게 운동화를 신은것이다. 허성산하사는 조국해방 5주년때 중대예술공연을 준비하면서 한 전사에게 처녀역을 준비시키다가 애를 먹던 일을 생각하며 처녀를 깐깐히 살핀다. 그러다가 대담하게 접근하여 말을 거는 과정에 남자라는것을 알고 단속함으로써 화학공장을 폭파하기 위하여 처녀로 가장하고 기여든 간첩놈을 체포한다. 소설의 주인공 허성산하사의 경각성높은 행동은 하루이틀사이에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소설은 행동에서 심중성을 키워가는 주인공의 꾸준한 노력을 전쟁시기의 생활과 결부시켜 굴곡있게 그리였다. 작품은 군사행동에서 침착성을 소유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낸것으로 하여 군인들의 생활에 경험과 교훈을 주고있다. 〔소설집《아들은 전선에 있다》,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4(1955)년판〕

《경기 전날에》 단편소설. 주체54(1965)년 김재규 창작. 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지닌 한 항일혁명투사—인민군장령을 형상한 작품이다. 전쟁승리를 경축하여 진행되는 련합부대 대항축구결승전을 앞두고 사단축구주장인 김철만에게 커다란 기대를 걸고있던 사단장 최진은 그가 밤에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보고를 받고 경기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군의소에 입원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아들을 면회온 철만이 어머니를 근심시키지 않기 위하여 근무상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서 기다리게 한다. 철만의 일때문에 근심하던 최진은 다음날 그가 이번 대전팀에 전쟁전부터 한공장에서 선수생활을 같이하여온 선수가 있는데 경기과정에 나타나군 하는 그의 개인영웅주의적병집을 고쳐주기 위하여 밤길을 걷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는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철만의 정신적높이를 본 최진은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면 능히 이길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전쟁시기 적땅크습격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사단의 무명고지방어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한 일을 회상하게 된다. 기쁜 마음으로 군의소를 찾은 최진은 철만에게 어머니가 자기 집에 와있다는것을 알려준다. 한편 철만은 사단장의 그 믿음에 경기성과로 보답할것을 결심하고 퇴원하면서 어머니를 만나러 오는것이 아니라 훈련장으로 간다. 경기장에서 어머니와 만나는 철만의 의젓한 모습에서 최진은 경기의 승리를 확신하게 된다. 작품은 경기전날에 있은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을 믿고 사랑할 때만이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4(1965)년 제11호〕

《경례를 받으시라》 가사. 주체81(1992)년 황진영 창작.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여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다함없는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뜨거운 사상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당을 일심단결의 위력을 떨치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공화국을 인민들의 존엄과 행복을 지켜주는 영광스러운 조국으로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숭엄한 감정으로 칭송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우리의 혁명무력을 이 세상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업적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매절의 첫 두 행에서 힘차게 휘날리는 당기와 국기, 군기의 형상을 각각 제시하고 그에 의탁하여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집약적으로 일반화하여 보여주고있다. 가사에서는 또한 매절의 맨

마지막부분에 《경례를 받으시라》의 구절을 반복하여줌으로써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뚜렷이 강조하고있다. 〔《조선가요 20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경자년군악대》 단편소설. 주체81(1992)년 리평 창작.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 민족의 얼을 지켜 용감히 싸운 애국적인 음악가의 영웅적행동을 형상한 작품이다. 갑진년(1904년) 초가을 어느날 조선군악대 지휘자 황순명은 일본군헌병장관을 맞이하라는 조정의 지시로 군악대를 이끌고 남대문으로 가면서 군악대를 꾸리던 지난 일들을 돌이켜본다. 어려서부터 음악에 조예가 깊고 애국일념에 차넘쳐있던 순명은 어느 해인가 조선사람은 노래도 모르고 력사도 모르는 투버족과 같다고 한 왜놈을 때려눕히고 서울로 올라가 고학을 하면서 음악을 배운다. 몇해후에 유능한 작곡가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순명은 동료들과 함께 왕궁에 몰려가 우리 군악대를 창설해줄것을 청원하나 통치배들은 말을 듣지 않다가 1년후인 경자년(1900년) 12월 19일에야 고종의 지시로 군악대설치를 세상에 공포한다. 그때 군악대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우리의 무기인 나팔을 가지고 왜놈들과 맞서자고 결의다진다. 그러던 군악대가 오늘은 왜놈장관을 맞으면서 왜놈군가를 부르게 되였다는것을 알고 악단성원들은 물론 인민들도 치를 떨며 격분을 금치 못해한다. 왜놈장관이 도착할 시각에 순명은 지휘봉을 높이 들어 왜놈을 치자는 노래인 《군바바》를 연주할것을 지시하고 열정적으로 지휘한다. 인민들은 《군바바》 곡조에 힘을 얻어 왜놈들에게 돌벼락을 안기며 순명은 왜놈의 총에 맞아 어깨에 부상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다. 소설은 그 어떤 불의에도 굽히지 않는 열혈애국청년의 기상을 섬세하고 예리한 필치로 묘사하면서 애국일념에 불타는 재사들도 진정한 조국이 있어야 재능을 마음껏 떨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81(1992)년 1호〕

《경쟁》 단편소설. 주체48(1959)년 석윤기 창작. 철길건설에서 발휘된 청년들의 집단주의정신을 보여준 작품이다. 지하리—평산간 철길로반공사에서 중요한 난문제로 제기된 12만산대발파준비와 관련하여 열띤 경쟁이 벌어지고있던 때에 남쪽수직갱굴착작업을 다 끝낸 김창결영웅돌격대 대장 주호는 암반으로 하여 북쪽수직갱굴착작업에서 애를 먹고있는 기철이네 분대를 도울 결심을 한다. 그러나 민청분조장 영수는 이미 지난번 경쟁에서 본위주의적경향을 발로시킨 기철분대장을 도와주면 그들을 어루만지는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선뜻 응하지 않는다. 이때 주호는 기철분대장에게 비록 결함이 있지만 강추위속에서 밤늦게까지 연장작업을 하고있는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되며 혁명동지를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힘껏 도와주자고 절절하게 이야기한다. 그리하여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난 영수를 비롯한 돌격대원들과 함께 작업장에 이른 주호는 휴식할것을 명령한 정치부대대장에게 등을 떠밀리워 합숙으로 내려간 기철이네 분대를 대신하여 지하수가 흘러내려 얼음기둥을 만들어놓은 차디찬 물속에 들어가 날이 밝을 때까지 굴착작업을 끝낸다. 주호의 뜨거운 동지애와 사심없는 협조정신에 대하여 나중에야 알게 된 기철은 12만산을 날려보내는 시각에 그의 손을 잡고 대발파와 함께 자기의 공명심도 날아가버렸다고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한다. 소설은 주인공 주호를 비롯한 철길건설자들의 형상을 통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주의건설에 청춘의 열정을 다 바쳐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보여주었으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쟁의 참다운 우월성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48(1959)년 4호〕

《경쟁자》 단편소설. 주체48(1959)년 리

만설 창작. 서로 돕고 이끌며 혁신을 이룩해가는 청년들의 고상한 기풍을 보여준 작품이다. 부러진 축때문에 기계가 멎어 일을 못하고있는 합성직장을 위해 한시바삐 축을 벼리려는 생각으로 초조해난 단야직장의 단야공 원칠은 소재우에 가마니를 씌우고 달쿠면 시간을 단축할수 있다고 타산하면서도 그렇게 되면 연기가 피여올라 천정에서 탕크를 설치하는 제관반사람들의 작업에 지장을 줄것이 우려되여 망설인다. 이것을 알게 된 제대군인 윤수를 비롯한 제관공청년들은 연기가 좀 피여오른다고 일을 못하겠는가고 하면서 어서 가마니를 씌워 소재를 달쿠라고 안심시킨다. 그리하여 원칠은 불을 지피고 천정으로 올라가 제관반사람들의 작업을 도와나선다. 이윽고 탕크조립을 예상보다 빨리 끝낸 제관작업반은 월계획을 25일현재로 완수하게 되며 같은 경쟁대상자인 단야직장도 소재달쿠는 시간을 절반이나 단축하게 된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네일내일이 따로 없이 서로 힘을 합쳐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천리마시대 청년들의 집단주의정신과 사회주의경쟁의 참다운 우월성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잡지, 주체48(1959)년 5호〕

《경축대회》(2막) 희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경축대회》**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77(1988)년에 《성황당》식연극으로 창조한 작품이다. 작품은 경축대회장면을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대중적영웅주의와 혁명적락관주의정신, 그들의 정치도덕적우월성을 보여주었으며 일제침략군의 부패상, 멸망의 불가피성을 신랄하게 폭로규탄하고있다. 작품은 1막과 2막을 서로 대조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있다. 작품의 첫부분에서는 일제침략자들의 병영을 보여주고있다. 일제놈들은 유격대《토벌》에서 승리했다고 허장성세하면서 경축연을 벌려놓고 서로 제 자랑을 한다. 일본군 장교놈은 자기가 잘했기때문에 이번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우쭐렁거리면서 한번만 더 《토벌》에 나선다면 큰 공을 세워 금치훈장을 탈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바로 이때 놈들은 유격대의 불의의 습격을 받는다. 그리하여 놈들의 경축연은 죽음의 경축연으로 되고만다. 2막은 1막과는 대조적으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전투승리를 경축하는 밀영의 경축대회장면을 보여주고있다. 우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초막앞에서 일제군경놈들을 통쾌하게 격멸소탕하고 개선한 유격대원들을 축하하는 경축대회가 열린다. 승리의 기쁨을 안고 유격대원들은 자기들의 충실성과 더 큰 승리를 이룩할 투쟁결의를 노래와 춤으로 표현한다. 작식대원, 재봉대원을 비롯한 대원들이 한사람씩 나서서 락천적이고도 힘찬 선률로 노래하고 춤추면서 자기들의 결의를 표현한다. 전체 대원들의 우렁찬 합창시로 충정의 결의가 울리는 가운데 막이 내린다. 작품은 풍자희극에 긍정인물들을 집단적으로 등장시키고있으며 그들의 영웅적형상과 혁명적생활기풍을 형상적으로 부각시킨 새로운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시가를 다양하게 도입하여 극성과 서정성의 대조와 조화속에서 일제놈들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통쾌하게 확인하고 항일무장투쟁승리의 필연성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내용의 심오성과 표현형식의 예리성, 명료성, 평이성 등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주체문학의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서정시. 주체41(1952)년 김우철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쟁의 불비속을 뚫고 한 영예군인학교를 찾아주신 감동적인 사실을 소재로 하여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풍모와 덕성을 노래한 작품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어머니의 정으로》영예군인학교를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당과 침실에도 들리시고 얼굴에 상처를 입은 한 영예군인처녀

를 보시고는 매우 가슴아파하시며 뜨거운 어버이심정으로 위로해주신다. 시는 계속하여 학교뜰안의 배나무밑에서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한몸 가득히 느끼며 서있는 영예군인들의 끝없는 행복에 대하여 절절하게 노래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그토록 뵈옵고싶어하던 소원을 풀게 된 영예군인들의 격동된 심정과 환희의 감정을 열정적으로 표현하였다. 시는 회화적인 묘사와 대화체의 수법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그것을 감정발전의 일정한 계기에서 표현되는 시인—서정적주인공의 주정토로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과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과 행복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문학예술》잡지, 주체41(1952)년 8호〕

《고구려사신》 단편소설. 주체69(1980)년 강학태 창작. 고구려가 강대국으로 이름떨치던 7세기 초엽을 배경으로 하여 고구려사람들의 높은 민족적존엄과 기상을 보여준 력사소설이다. 수나라에서 굴종을 강요하는 편지를 보내오자 고구려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북부대형(고위벼슬이름) 고두루를 이웃에 있는 돌궐족에 사신으로 파견한다.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 두 나라사이에 끼여있는 돌궐이 중립을 지키도록 할데 대한 무거운 사명을 지닌 고두루일행은 비록 셋밖에 안되였지만 사신기발을 날리면서 위풍당당히 돌궐땅에 들어선다. 이때 싸움을 앞두고 돌궐을 자기편에 끌기 위하여 수양제(수나라 황제)가 사절단을 이끌고 여기에 도착한다. 돌궐추장의 장막안에서 벌어진 대결에서 고두루는 오랜 력사와 강대성, 문명으로 이름높은 고구려의 존엄으로 대국의 황제라고 호통치는 수양제를 눌러버린다. 그리고 죽을지언정 절대로 꺾이지 않는 강의한 기개로 그들의 침략기도를 단죄하며 그날 밤에는 돌궐복장을 하고 기여들던 수나라의 자객을 사로잡아 돌궐을 침략실현의 희생물로 써먹으려는 그들의 속심을 폭로한다. 돌궐추장은 고구려사람들의 높은 기상에 고무되여 수양제일행을 쫓아버리고 고구려와 손을 굳게 잡는다. 소설에서는 다른 나라에 억눌려살기를 원치 않으며 굴종을 강요하는자들과는 끝까지 맞서 싸워이기는것이 고구려사람들의 존엄높은 모습이고 강의한 기상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조선문학》잡지, 주체69(1980)년 11호〕

《고구려화공》 단편소설. 주체72(1983)년 정은섭 창작. 애국의 뜻으로 가슴 불태우며 오랑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희망도 사랑도 꽃피우는 고구려의 젊은 화공(미술가)을 형상한 작품이다. 어려서부터 뛰여난 재능을 가지고있던 가무리는 궁실수리에 모자라는 화공을 징집하여 보내라는 임금의 엄령을 받고 375년에 고구려의 수도로 끌려온다. 이때 그의 련인인 아량도 공주의 시녀로 수도에 오게 된다. 가무리는 밤마다 사랑하는 아량과 함께 고향에 돌아갈 그날을 애타게 그린다. 이무렵 휘수(백제의 근구수왕)는 왜놈들까지 끌어들여 고구려를 침입하려고 기세를 올린다. 여기에 겁을 먹은 간신들과 역적들은 가무리에게 휘수의 사신이 오면 줄 아름다운 녀인의 그림을 그리라고 강요하며 그길이 아량과 함께 고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유혹한다. 가무리는 사랑하는 아량과 함께 고향으로 가는 길이 소중했으나 오랑캐에게 만족을 줄수 없어 고구려의 힘찬 기상을 보여주는 그림을 그려 내놓는다. 가무리의 불굴의 의지와 고구려의 기상이 맥박치는 그림앞에서 사신놈은 기겁하여 꽁무니를 사리고 달아난다. 작품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나라를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가슴을 불태워야 한폭의 그림을 그려도 애국의 기백이 차넘치는 그림을 그릴수 있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도 떨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조선문학》잡지, 주체72(1983)년 12호〕

《고기떼는 강으로 나간다》 단편소설. 주

체52(1963)년 진재환 창작. 칠색송어의 자연양어를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자연부원을 더 풍부히 하고 인민들의 식생활을 풍족하게 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꽃피워나가는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헌신적인 투쟁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칠색송어를 기르는 양어장의 양어공 대성과 그 양어장의 기사이며 생산지도원인 계준하가 휴가기간에 대동강의 수역을 조사하기 위하여 길을 떠난다. 이 과정에 대성은 자연양어의 가능성을 찾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계준하는 자연양어의 불가능성을 그에게 확인시키려 한다. 절반 남짓한 수역을 밟아보는 과정에 자연양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준하는 도중에 양어장으로 되돌아가며 대성은 나머지 500여리 강수역을 혼자 조사해나간다. 그 길에서 대성은 공장의 유독성물질이 강에 스며들지 않게 물곬을 째는 사람들을 만나며 산과 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을 보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대성은 우리 나라에서는 칠색송어의 양어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자연양어의 가능성을 확인한 대성은 그후 완강한 투쟁을 벌려 자연못에 칠색송어새끼를 놓아주며 그 성과에 기초하여 10만마리의 고기떼를 이끌고 강으로 나간다. 준하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대성의 자연양어를 적극 도와나선다. 작품은 주인공 대성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집행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조국의 풍요한 자연부원에 대한 무한한 애착과 래일에 대한 아름다운 지향과 헌신적인 투쟁정신을 훌륭히 일반화하였다. 작품은 대동강수역의 편답과정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 나라의 자연풍경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여주고 대성과 준하의 개성적특성을 뚜렷이 밝혀낸 형상적특징을 가지고있다. 〔《조선단편집》 3, 문예출판사, 주체67(1978)년판〕

《고개마루》 단편소설. 주체65(1976)년 김룡락 창작. 외진 산골마을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춘을 바쳐가는 참된 의료일군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이다.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외진 창골마을에 배치받은 김형옥은 실뚱한 마음을 안고 배치지로 내려온다. 창골병원에는 그의 고중동창이며 이전에 같이 일한적이 있는 은순이가 일하고있었다. 형옥은 이곳에서 자기와는 대비도 되지 않을 정도의 정신적높이에 있는 은순이를 보게 된다. 은순은 이 고장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하여 깊은 밤에 험한 고개길을 넘나들기도 하고 범고개로 불리우는 고개마루에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전등을 설치할것을 발기하기도 한다. 형옥이와 상봉한 그날 밤에도 그는 한 어린애의 병치료를 위해 고개너머마을에서 온밤 밝힌다. 그가 이 고장을 떠나 도에 올라간다는 소문을 들은 마을사람들은 저저마다 달려와 섭섭함을 금치 못해한다. 그러나 사실 은순은 이 고장보다 더 외진 하늘아래 첫 동네로 불리우는 운상리에 새로 생긴 병원에 옮겨갈 결심이였다. 그의 모습에 자기의 모습을 비쳐보고 자기가 갈길을 찾은 형옥은 이 고장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은순을 대신하여 자기가 운상리에 가서 그처럼 일할것을 결심한다. 소설은 가장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당과 조국을 받들고 빛내이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애국자라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단편소설집 《혁명전위》, 문예출판사, 주체65(1976)년판〕

《고귀한것》 단편소설. 주체69(1980)년 백철수 창작. 한 로동자의 당에 대한 충실성과 깨끗한 량심을 끝까지 믿고 적극 내세워주는 당일군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고급기능공인 나의 시점에서 씌여졌다. 나가 일하는 수력발전소에서는 발전기 점검을 한 결과 발전소의 심장부인 타빈날개에 공동현상(전기화학적현상에 의하여 날개바퀴의 금속표면이 침식되여 구멍이 뚫

어지는 현상)이 생기고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때 고급용접기능공인 나는 몇해전에 랭강고강도용접으로 자동차의 크랑크축을 수리한 경험으로 발전기날개를 고칠수 있지 않겠는가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제압기사고때 사고협의를 받았던 일을 생각하면서 선뜻 나서지 못한다. 일신의 안전만을 먼저 생각하며 주저하던 나는 초급당비서인 김명석이 찾아와 당의 요구라면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깨끗한 량심을 지녀야 한다고 일깨워주어서야 새로운 신심을 가지고 달라붙어 발전기날개를 랭강용접으로 살려낸다. 유해가스도 무릅쓰고 기술혁신에서 성공하도록 이끌어준 초급당비서가 그후 나의 조수가 되여 나라에 큰 도움을 줄수 있게 적극 떠밀어줄 때 나는 자신에 대하여 깊이 돌이켜본다. 소설은 나를 믿어주고 이끌어주는 김명석의 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을 끝까지 믿고 그들이 언제나 당의 숨결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당일군의 품성을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9(1980)년 10호〕

《고귀한 순간》 단편소설. 주체56(1967)년 한익훈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한 처녀가 사람의 한생에서 고귀한 순간이란 어떤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전선에서 싸우고있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자기가 누구보다 떳떳하게 싸워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인옥은 다리목초소근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초소장 한철의 지시대로 다리목항공감시근무를 선다. 적기의 기습을 알리는 공습경보가 울리는 가운데 초소인계를 하던 은옥은 공습경보가 나면 누구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다리목초소의 규률을 어기고 사단장아바이를 데리러 간다는 차를 통과시킨다. 이것으로 하여 그는 한철로부터 추궁을 받는다. 한철은 원쑤의 소이탄에 불붙고있는 한쪽다리목에서 옷을 벗어 휘둘러 불을 끄면서 인옥에게 사람은 평생에 많은 일을 할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 조국은 한순간에 그 모든 일을 요구할수 있다고 한다. 그 말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던 인옥은 적기들의 야수적인 폭격으로 다리란간이 무너져내리자 서슴없이 바줄퉁구리를 메고 물속에 뛰여들어 여기저기로 흘러내리는 목재를 하나하나 얽어매놓는다. 그러다가 급류를 타고 내려오던 목재에 맞아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다. 그러나 그 목재마저 바줄로 얽어매놓고 그는 의식을 잃는다. 동무들의 품에 안겨 의식을 회복한 은옥은 한철이가 아버지한테서 보내온 편지를 손에 쥐여주자 자기도 이제는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회답할수 있게 되였다고 생각하면서 기쁨의 미소를 짓는다. 소설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순간은 조국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내대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56(1967)년 1호〕

《고귀한 심정》 단편소설. 주체63(1974)년 김원복 창작. 인민을 위하여 바치는 조선인민혁명군 한 군의일군의 뜨거운 인간애를 보여준 작품이다. 리봉갑군의와 함께 시정마을부근의 산간오지에서 중환자를 치료하던 위생병 강춘보는 환자가 거처할 귀틀초막을 짓는데 필요한 도구를 얻기 위하여 마을에 내려간다. 날이 저물어서야 톱을 얻어가지고 돌아온 춘보는 봉갑에게 자기가 들렸던 한 로인의 집에 원쑤놈들의 매질로 심하게 앓는 애가 있었다는데 대하여 보고한다. 이때 어머니를 잃고 지하조직의 도움으로 외갈령병원에 와있던 봉갑의 아들 치룡이가 특무놈의 총에 맞아 중상을 당했다는 련락이 온다. 치룡이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을 조이며 밀영으로 걸음을 다그치던 춘보는 시정마을로 돌아가자는 봉갑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더우기 그 원인이 춘보가 무심히 보고했던 그 어린이를 치료해주는데 있다는것을 알게 되자 그는 큰 충격을 받는다. 어둠을 리용하여 시정마을 로인의 집에 내려간 봉갑은 밤을 꼬박 밝히며 위급한 아이를 구

원해낸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혁명전사들인 이들의 소행에 감격하여 로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는 그들을 바래운다. 작품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심장에 새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63(1974)년 1호〕

《고귀한 칭호》 단편소설. 주체65(1976)년 김삼복 창작. 해방직후부터 금촌리의 한 평범한 농민을 따뜻이 품어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정깊은 사랑과 고매한 덕성을 보여준 작품이다. 주체37(1948)년 가을 서해안의 한 구분대를 현지지도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금촌리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25년이나 머슴살이를 했다는 강석재의 집에 들리시여 그들부부가 인민주권의 기치아래 건국사업에 앞장서도록 따뜻이 고무하신다. 주체43(1954)년 여름 또다시 금촌리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석재의 집에서 하루밤 묵으시면서 전쟁에서 당한 그의 불행을 위로해주시고 협동화를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일깨워주신다.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아래 그는 능력있고 공로있는 관리위원장으로 성장하며 금촌리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된다. 그러던 석재가 어느덧 나이가 들어 관리위원장사업을 인계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금촌리에 다시 나오시여 그가 명예관리위원장으로 사업하도록 하신다. 소설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랜 일군들에게 돌려주시는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크나큰 믿음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혁명전위》, 문예출판사, 주체65(1976)년판〕

《고귀한 품성》 단편소설. 주체49(1960)년 로용득 창작.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청춘의 희열과 랑만을 느끼는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대옥이와 약혼식을 하게 된 날 그의 집으로 가려고 합숙을 나선 영세는 공장울타리옆으로 흐르는 도랑의 물이 지속되는 장마에 불어나 뚝을 넘어 양어장으로 흘러들어가는것을 보게 된다. 양어장의 물이 넘어나면 애써 기르는 고기들을 몽땅 잃어버리게 되고 공장구내에까지 물이 침습할수 있다는 생각이 든 영세는 급한 걸음으로 호실에 뛰여들어간다. 그는 자기를 기다리고있을 대옥이에게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연을 적은 편지를 남겨놓고 지체없이 삽을 찾아쥐고 물도랑쪽으로 달려간다. 영세는 굵은 비방울이 계속 떨어지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호를 비롯한 동무들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급격히 불어나는 깊은 물속에 들어가 뚝우에 떼장을 쌓아나간다. 한편 약속된 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영세가 오지 않는데 초조해난 대옥은 공장합숙 그의 호실에 찾아갔다가 책꽂이에 끼여있는 편지를 통하여 사연을 알게 된다. 그는 곧 작업장으로 달려와 모두가 만류하는것을 마다하고 함께 일손을 다그친다. 날이 개이고 일이 끝났을 때 이들은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는 긍지를 한껏 느끼면서 오늘의 약혼식은 인상깊은 추억을 남길것이라고 자부한다. 소설은 영세와 대옥이를 비롯한 청년들이 발휘한 아름다운 소행을 통하여 자기자신보다 먼저 집단을 위한 일에 투신하는 아름다운 미풍이 활짝 꽃펴나고있던 천리마시대의 자랑찬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근로자작품집 《젊은 대오》,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9(1960)년판〕

《고귀한 의리》 단편소설. 주체69(1980)년 김수범 창작. 이미 세상을 떠난 혁명전사들의 가족들을 잊지 않으시고 친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적의리를 형상한 작품이다. 어느 이른새벽 한 농장을 찾으시여 90이 넘은 건장한 세 로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길녀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어머니의 집으로 차를 몰도록 하신다. 장길녀어머니의

집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네아이들이 흐트러놓은 줄당콩을 손질하고있는 어머니를 보시고 안정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며 후에라도 어머니가 손질하지 않도록 부관과 함께 줄당콩을 바로잡아놓으신다. 어머니의 혈압이 높은것을 념려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니를 겨우 설복하여 녀의사를 곁에 두도록 하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신다. 그후 수령님께서는 전국어머니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여 장길녀어머니를 높은 연단에 내세워주시면서 전체 참가자들에게 자식들을 영웅으로 키워 혁명에 바쳤으며 자신이 또한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고있는 어머니를 영웅으로 소개하신다. 소설은 장길녀어머니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을 통하여 혁명가유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적의리와 풍모를 감명깊게 그려냈으며 수령님의 품속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영예와 긍지를 힘있게 구가하였다. 작품은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선을 기본으로 하여 줄거리를 엮으면서 사색적이며 정서적인 문체로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의리를 감동깊게 펼쳐나가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9(1980)년 10호〕

《고난의 력사》 (제1부) 장편소설. 주체52(1963)년 천세봉 창작. 1920년대 우리 나라 농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그들이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하였으며 농민운동의 불길속에서 어떻게 성장하였는가를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의 중심에는 송하면 월하리의 현대진일가가 서있다. 한평생 야장쟁이로 살아온 현대진로인의 손자 현무림은 수업료를 내지 못하여 일본교원에게 매를 맞고 부자집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자 학교에서 뛰쳐나온다. 그는 야학에 다니는 다섯째삼촌 재현을 따라 신당리 야학에 갔다가 일제와 지주를 때려부시고 농민들이 땅을 가져야 한다는 야학선생 최선도의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는다. 최선도는 로씨야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으로 농민운동이 급속히 강화되자 《조선일보》 지국장 한희균과 함께 장날을 계기로 소작인대회를 열며 그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소작인조합을 무으려고 계획한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대회는 강제해산되며 최선도는 감옥에서 받은 고문의 후과로 세상을 떠난다. 선각자를 잃고 인생의 옳은 길을 찾아 닥치는대로 책을 읽던 무림은 동무인 대복을 통하여 무저항주의자이며 천도교인인 그의 형 김대하를 알게 되고 그의 영향을 받는다. 한편 최선도의 뒤를 이어 맑스주의소조를 운영하기 위해 애쓰던 재현은 마을사람들과 집안의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면장 서상학의 신임을 얻어 합법적인 야학을 여는데 성공한다. 재현은 밤마다 핵심청년들로 맑스주의소조를 운영하며 월하리에 소작인조합을 결성한다. 그는 그들의 힘을 발동하여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을 위한 토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금사강보뚝공사 반대투쟁을 벌린다. 이렇게 되자 서상학은 재현을 붙잡기 위해 날뛰면서 무림이네가 피땀으로 개간한 금사강변의 자그마한 밭을 강제로 빼앗다못해 그들부자까지 머슴으로 끌어가려 한다. 재현이가 피신한 후 월하리의 야학과 맑스주의소조를 계속 운영해가던 김창국과 서경수, 전치옥 등은 적들의 기습을 받아 모두 체포되고 창국이만 간신히 빠져나온다. 점점 더 심각해지기만 하는 사회현실앞에서 무림은 갈길 몰라 모대기던중 집을 뛰쳐나와 《동아일보》 지국장 오홍도를 찾아간다. 무정부주의자인 오홍도는 일전에 서상학의 강도적행위를 폭로하기 위하여 그의 집에 찾아왔다가 무림이에게 문학공부를 하겠으면 찾아오라고 하였던것이다. 오홍도의 소개로 운송점에 들어가 일하던 무림은 광산에서 또다시 폭동을 일으킨 삼촌 현재현을 잡으러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하여 가족과 함께 체포된다. 놈들의 가혹한 고문으로 할아버지는 끝내 감옥에서 사망한다. 얼마후 감옥에서 나온 무림은 일제의 주구로 전락된 김대하가 력

설하던 타애의 사상이란 어떤것인가를 깨닫고 허황한 세계를 방황해온 어제날과 단호히 결별한다. 그리고 최선도와 삼촌이 걸어간 길만이 민족해방의 리상을 실현할 길임을 깨닫고 새로운 출발을 결심한다. 소설은 1920년대의 우리 나라 농촌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맑스주의사상의 전파보급시기의 고난의 력사를 폭넓고 진실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은 각계층 인물들의 성격을 개성화하고 당대의 사회상이 드러나도록 인물관계와 극적갈등, 이야기줄거리를 특색있게 조직하여 구성의 깊이와 립체성을 보장하였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주체53(1964)년판〕

《고난의 행군》 장편소설. 주체65(1976)년 석윤기 창작. 총서《불멸의 력사》중의 한권이다. 주체27(1938)년말부터 주체28(1939)년 봄까지의 고난의 행군과정을 서사시적화폭에 담은 작품이다. 4개의 편으로 구성되여있다. 소설은 력사적인 난파이쯔(남패자)회의 소집전야의 긴장한 정황을 보여주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일제의 관동군사령부는 수만명의 대병력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이 집결한 난파이쯔(남패자)일대를 겹겹이 포위하고 제놈들의 주구 리령학놈을 그 무슨 교섭의 미명하에 들여보낸다. 적들의 잔꾀를 간파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구놈을 잡아두고 시간을 얻도록 하신 다음 난파이쯔(남패자)회의를 여유있게 진행하신다. 회의가 성과적으로 끝나고 조선인민혁명군이 포위를 벗어났을 때에야 적들은 속았다는것을 알고 추격해온다. 사방에서 진드기처럼 달려드는 적들을 물리치면서 키를 넘는 생눈길과 사나운 눈보라를 헤쳐야 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앞길에는 수많은 난관이 가로놓인다. 게다가 식량과 소금마저 떨어져 행군은 갈수록 간고해진다. 이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사령관동지께서는 탁월한 령군술과 유격전술로 언제나 대원들을 승리에로 이끄시며 그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신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절박한 소금문제를 풀기 위하여 기관총수 한태혁과 비서처의 정지성을 적통치구역에 보내신다. 부대가 치다오거우(7도구)치기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소금을 구해가지고오며 이를 먹고 일부 대원들이 중독되여 쓰러지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이 소금을 지고온 로인의 죄가 아니라 소금에 독약을 친 일제의 교묘한 술책이라는것을 꿰뚫어보시고 이 위급한 틈을 타서 악착스럽게 덤벼드는 적들의 공격을 좌절시키신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시기 위해 부대를 3개 방향으로 분산하여 활동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7련대와 8련대는 적의 기본력량을 달고 포위를 빠져나가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부상자와 허약자들을 책임지시고 청봉밀영으로 떠나가신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경위중대와 기관총소대를 이끄시고 령활한 유격전술로써 창바이(장백)－린쟝(림강)일대의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신다. 사령관동지께서 조국진군의 길을 진두에서 개척해나가시던 이 간고한 시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옹호하여 배신자 엄광호놈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시며 오중흡, 박덕산, 오백룡 등 지휘관들은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면서 난파이쯔(남패자)회의결정을 철저히 관철해나간다. 또다시 조국땅에 투쟁의 홰불을 올리기 위해 혈로를 헤쳐온 영광의 대오앞에 승리의 새봄이 온다. 주체28(1939)년 4월 베이다딩쯔(북대정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간부회의를 소집하신 사령관동지께서는 고난의 행군의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시고 춘기대반격을 벌려나갈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신다. 소설은 다시 대부대로 편성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사령관동지의 지휘밑에 국경연안의 수많은 적군사요충지들을 들이치고 압록강을 건너 그립던 조국땅에 들어서는것으로 끝난다. 소설은 원쑤들의 발악적인 공세를 짓부시고 류례없이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할수있은 힘의 원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혁명대오의 강철같은 통일단결과 자기 힘을 믿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주체적신념에 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가장 준엄하고 간고한 행군이였던 고난의 행군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과 탁월한 전략전술,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이와 함께 그 어떤 준엄한 시련이 닥쳐와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는 한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소설은 그 사상적내용의 심오성과 예술적형상의 풍부성으로 하여 혁명적대작으로서의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80(1991)년판〕

《고달부》 단편소설. 주체81(1992)년 김종석 창작. 임진조국전쟁시기 나라를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인민들의 애국심을 형상한 작품이다. 주인공 고달부는 아버지에게서 백정의 신분을 물려받아 짐승을 도살하며 살아간다. 왜놈들이 평양성을 강점하였을 때 놈들에게 붙들려간 그는 짐승을 잡아바치며 굴욕속에 살아간다. 마을사람들과 어린애들은 달부를 왜놈의 앞잡이라고 하면서 그의 집에다 돌을 던지고 딸애까지 때려준다. 적장 소서비놈에게 붙들려간 달부는 마을사람들을 죽이고 귀를 잘라 소금에 절이는 놈들의 만행과 왜놈들에게 짐승을 잡아주다가 놈들의 총에 맞아 운명하는 아버지를 목격하게 된다. 드디여 평양성사람들과 아버지의 원쑤를 갚고 나도 죽자는 생각으로 적장놈을 찾아가던 고달부는 계월향을 만나며 김응서에게 전해달라는 병영배치도를 받게 된다. 월향의 부탁을 가지고 적진을 넘어 평양성군사들이 있는 곳에 이르자 모두가 고달부를 환영한다. 그러나 권력에 눈이 어두운 량반놈들은 백정이 나라요, 뭐요 한다고 하면서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고달부는 지금껏 짐승을 잡던 칼로 자기 배를 갈라 자결하면서 자기 말을 믿으라고 호소한다. 이에 격동된 김응서는 그의 말을 믿고 평양성으로 들어가 왜놈의 목을 벤다. 소설은 비록 천한 신분의 백정이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량반부자놈들에 비길수 없다는것을 고달부의 형상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1(1992)년 5호〕

《고동소리》 단편소설. 주체58(1969)년 리신현 창작. 로동계급의 본분을 잊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새 세대 청년들을 이끌어주는 한 작업반장을 형상한 작품이다. 주조직장 작업반장 학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60t급유조차를 하루빨리 제작하기 위해 거기에 쓰일 경판지구를 닷새나 앞당겨만들수 있는 창안을 한 남수를 적극 도와나선다. 그 창안대로 나온 재질을 시험한 결과 조형품에 심한 수축현상이 생겼고 그것을 없애자면 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수 있는 주형바닥이 있어야 하였다. 이때 남수가 제품의 질을 념려하며 자기의 창안을 모험이라고 동요하자 학준반장은 전쟁때 기관차를 만들다가 희생된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창안에서 걸린 받침형장비도 미리 해결하며 새로운 주입방법도 찾아낸다. 그런 학준반장을 보며 남수는 로동계급의 참된 본분을 깊이 깨닫게 된다. 소설은 학준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높은 충실성을 지니고 자신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8(1969)년 11호〕

《고동이 울린다》 단편소설. 주체43(1954)년 리택진 창작. 전후복구건설시기 자체의 힘으로 바이트를 만들어 공장앞에 제기된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한 한 선반공의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김훈은 외국에서 수입한 바이트가 도입되였지만 그 량이 적은데다가 공장의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다는것을 알고 새로운 바이트창안에 달라붙는다. 그는 작업반장을 비롯한 일부 사

람들이 반대해나서지만 선반공인 보비의 도움을 받아 짬짬이 연구사업을 해나간다. 공장당위원회에서는 김훈을 적극 밀어주며 동무들도 그를 도와 생산과제를 자신들이 맡아나선다. 김훈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화선에서 싸우던 정신으로 새 바이트를 창안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한다. 보비를 비롯한 작업반원들의 진심어린 방조밑에 그는 끝내 성공하여 공장적으로 광차축생산을 한달이나 앞당겨 수행해낸다. 이 나날에 당면한 생산만 생각하면서 기술혁신을 홀시하던 작업반장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관점을 뉘우치게 되며 김훈이와 보비의 진실한 사랑도 꽃펴나게 된다. 작품은 김훈이가 지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작업반원들과 기술자들의 합심에 의해 발현되는것으로 그려냄으로써 집단주의가 발휘된 복구건설의 현실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희망의 언덕》,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3(1954)년판〕

《고려청자기》 단편소설. 주체75(1986)년 정연진 창작. 해방전에 한 고고학자가 왜놈들에게 빼앗겼던 고려청자기를 다시 찾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가루베라는 왜놈은 조선에 건너와서 몇해동안 살 때 학봉의 집에 있는 고려청자기를 보고 그것을 빼앗을 음모를 꾸민다. 그 음모에 의하여 학봉이네 집에 있던 청자기는 어떤 일본인이 《잃어버린것》이라는것이 《판명》되여 학봉이네는 조상대대로 물려오던 가보를 억울하게 빼앗긴다. 그후 얼마 안 있어 학봉의 아버지는 가족을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청자기도면을 학봉에게 주면서 실물을 꼭 찾으라는 유언을 남긴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학봉은 가루베가 관장으로 있는 교또의 민예관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하여도 학봉은 가루베를 자기 아버지와 친교가 있던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 그러던 학봉은 가루베가 조선에 있을 때 발굴했다는 청자기가 아버지가 준 도면의것과 꼭같은 사실을 비롯하여 가루베를 음모가로 확인할수 있는 여러가지 물질적 증거들이 나타나자 그를 찾아가 그것들을 내보이면서 그자가 학자의 너울을 쓴 략탈자라는데 대하여 까밝힌다. 그리고는 고려청자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학봉은 그 일때문에 유물략취죄로 체포되였다가 세상을 떠나며 조선이 해방된 다음 그의 안해가 고려청자기를 가지고 귀국한다. 소설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 일제는 지난날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보들을 악랄하게 빼앗아간 철천지원쑤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5(1986)년 12호〕

《고마운 처녀》 영화문학. 장광남, 김무국 창작. 부모잃은 오누이를 자기의 친아들딸로 키우는 한 방송원처녀의 아름다운 소행을 보여준 작품이다. 처녀방송원 영심은 아버지가 평양에 소환되여 온 가족이 이사를 간 후 자기 사업을 인계하고 가려고 한동안 합숙에 남아있게 된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합숙관리원어머니에게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병원에 입원하여 합숙에서 돌보고있는 오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영심은 오누이의 아버지가 퇴원할 때까지 애들을 맡아키울것을 결심하고 그들을 자기 방에 데려다가 돌보아준다. 그런데 그 애들의 아버지마저 불치의 병으로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영심은 부모잃은 아이들때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될것을 결심하고 아이들을 위해 온갖 지성을 다 기울인다. 그는 기순이의 음악적소질을 꽃피워주려고 손풍금도 마련하며 기용이의 성장을 위하여 칼시움가루를 얻으려 먼길을 걷기도 하고 기용이가 갑자기 급성위장염으로 앓을 때에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를 친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다. 기순이는 아지미를 고생시켜서는 안된다는 갸륵한 심정에서 동생을 데리고 영심의 합숙방에서 나와 합숙관리원의 집으로 가며 또

동생의 빨래도 제 손으로 한다. 영심은 응석과 어리광을 부리며 근심걱정없이 마음껏 웃으면서 자라기를 바라는 자기의 진정을 아이들이 몰라주는 안타까움으로 하여 몸부림친다. 한편 주위사람들은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려는 영심의 진심을 리해하지 못하고 그를 시집보내려는 생각밑에 아이들을 영심에게서 떼여내려고 한다. 하지만 당조직의 진심어린 방조와 제대군인총각 성국이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영심은 기순, 기용이의 친어머니가 된다. 작품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되여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있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시대 인간의 참된 행복은 자기 개인의 안락보다 남의 아픔을 덜어주는데 있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작품은 주체83(1994)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고발》 단편소설. 주체53(1964)년 조진용 창작.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성과 교활성을 폭로한 작품이다. 챠므스라는 미군장교놈은 제놈의 군견을 부추겨 창수소년을 죽이려다가 실패하게 되자 그의 아버지를 총으로 쏘아 강물에 떨어지게 한다. 놈은 이 사건을 은페시키기 위하여 제놈의 군견을 쏘아죽이고 창수소년을 《보건소》에 입원시킨다. 때마침 허울좋은 남조선미국《친선월간》의 특종기사감을 취재하기 위하여 온 채병호라는 신문기자를 만나게 된 챠므스놈은 소년을 물려고 하는 자기의 군견을 죽이고 소년을 구원하여《보건소》에 입원시켰다고 사실을 날조한다.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나갔던 채병호는 총에 맞아 거의 죽게 된 한 농민을 발견하고 그를 《보건소》로 업어온다. 정신을 차린 창수가 중태에 빠진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자 챠므스놈은 달아나며 병호는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다. 이 사건을 통하여 미제의 야수성과 잔인성을 더 깊이 알게 된 병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글을 쓸것이 아니라 부정의에 항거하는 기사를 쓰는 기자로 될것을 결심한다. 작품은 남조선인민들이 숭미사상에서 벗어나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문예문고 《불타는 념원》,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53(1964)년판〕

《고성처녀》 단편소설. 주체50(1961)년 김한윤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를 적극 도와나선 후방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그린 작품이다. 고성계선방어전투에 참가하여 대대장의 련락임무를 받은 나는 늦가을 장마비로 한껏 불어난 남강을 헤염쳐 건느려다가 뜻밖에 나타난 애어린 단발머리처녀가 모는 배를 타고 건너간다. 다음날 또다시 그 배를 타고 련락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나는 그 처녀와 구면이 되여 해방전에 어로공이던 아버지를 잃고 오빠와 단둘이 살던 그가 정찰조장으로 적구에 들어갔다가 소식이 없는 오빠를 기다리고있으며 문득 후퇴길에 오른 오빠를 만날것만 같아 나루터를 지키기 시작한것이 이제는 아주 남강의 배사공이 되였음을 알게 된다. 보름후 적들의 새로운 공격에 대처한 대대의 중요한 련락임무를 맡아나선 나는 기총탄에 부상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도와준 고성처녀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임무를 제때에 수행하며 대대는 적들의 공격을 성과적으로 좌절시킨다. 소설은 인민군대를 친혈육처럼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는 불비속도 서슴없이 뛰여드는 후방인민들의 헌신적노력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조국은 전쟁의 가혹한 시련을 용감히 이겨낼수 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50(1961)년 6호〕

《고지의 영웅들》 단편소설. 주체42(1953)년 리춘진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802고지를 사수할데 대한 사단의 명령을 끝까지 관철한 어느 한 중대군인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8개의 소제목들로 구성된 소설은 안민철중대장이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이동과 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802고지를

지켜낼데 대한 명령을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부대로 돌아와 정치부중대장과 함께 적들의 공격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춘 중대장은 첫날 달려드는 미국놈들을 두차례나 물리쳤으나 다음날에는 완전포위에 들게 된다. 이날 중대는 적들의 포위를 헤치기 위한 전투에서 여러명의 부상자와 희생자를 내지만 끝내 포위를 뚫고나온다. 그러나 중대는 하루에도 몇차례씩 무리로 덤벼드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식량과 탄약이 떨어져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때 정치부중대장은 꼬마시인으로 불리우는 김종길, 경기사수 강봉호를 비롯한 몇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적후에 들어가 식량과 탄약을 해결해온다. 몇십배의 력량으로 땅크까지 앞세우고 달려드는 적들에게 중대는 고지에서 은폐지로 리용하던 동굴을 내주게 된다. 이렇게 되자 중대장과 정치부중대장을 선두로 한 중대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고지를 지켜낼 일념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쓰고나서 결사전을 준비한다. 이 전투에서 중대는 남은 17명의 대원들로 적들의 손에서 동굴을 탈환하며 희생적인 투쟁으로써 고지를 사수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작품은 이들의 형상을 통하여 802고지를 사수하기 위한 전투에서 발휘한 인민군군인들의 대중적영웅주의와 용감성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문학예술》 잡지, 주체42(1953)년 9호〕

《고지의 용사들》 단편소설. 주체44(1955)년 한희만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고지를 끝까지 지켜싸운 인민군전사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1301고지를 사수하기 위한 한주일간의 전투에서 소대에는 4명의 전사만이 남게 된다. 낮에도 한차례 적들의 공격을 물리친 그들은 비관하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앉아 고향자랑, 평양이야기를 한다. 철준이는 성진제강소에서 모범로동자가 되고 당원이 되여 민청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던 이야기를 하며 당원증속에 모시고 다니던 초상화를 꺼낸다. 전사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끝까지 싸워 고지를 지켜낼 맹세를 다진다. 그날 밤 돌아오지 않는 련락병을 찾아 중대에 간 철준은 수류탄배낭을 메고오다가 적탄에 맞아 중상을 입는다. 한편 고지에 남은 3명의 전사는 멀리에서 땅크를 앞세우고 공격해오는 적들이 보이자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결사전을 준비한다. 전우들의 노래소리에 정신을 차린 철준은 마지막힘을 다하여 고지로 돌아와 수류탄을 넘겨주고나서 잘 싸워달라는 부탁과 함께 당원증을 당중앙위원회에 바쳐달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는다. 그날 전투에서 눈에 부상을 입었던 한 전사는 자기의 한몸을 바쳐 수류탄으로 적땅크를 까부시고 전사하며 두 전사는 결사전을 벌려 한개 중대가량의 적을 소멸하고 고지를 지켜낸다. 작품은 인민군전사들의 형상을 통하여 불굴의 희생정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닐 때 높이 발현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44(1955)년 10호〕

《고향》 단편소설. 주체75(1986)년 김유권 창작. 고향에 대한 사랑을 안고 과학연구사업에 전심하여 큰 성과를 이룩한 뒤 고향땅을 찾아 뜨거운 정을 나누는 한 연구사를 형상한 작품이다. 어릴 때 정수와 한마을에서 자란 축산반 사양공인 현이는 어느날 평양에서 열린 예술축전에 참가했다가 과학연구기관에서 정수와 함께 연구사로 일한다는 청년을 만나게 된다. 현이는 그 청년에게서 정수는 고향에 대한 애착이 없으며 고향을 잊은 그런 사람에게서는 뜨거운 심장도 기대할수 없다는 말을 듣고 정수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수는 고향마을에서 60리나 떨어져있는 휴양소에 자기를 만나러 찾아온 현이를 10년만인데도 연구사업이 바쁘다면서 잠간밖에 만나주지 않는다. 그리하여 현이는 정수가 과학에만 몰두한 나머지 자기와 고향을 잊은것

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 다음해에 현이는 나라의 기초과학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마을을 찾은 정수를 만나는데 그때 정수는 지금껏 자기가 고향을 잊지 않았다는 한마디의 말도 편지에 써보내지 않은것은 고향을 위해 이렇다하게 해놓은 일이 없었기때문이였다고 말한다. 소설은 정수의 형상을 통하여 사람은 고향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지로 고향과 조국을 위해 의의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5(1986)년 5호〕

《고향길》 단편소설. 주체72(1983)년 김병훈 창작. 백두산지구의 혁명전적지들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갈 크나큰 뜻을 펼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 김선화와 함께 여러 수행일군들을 데리시고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님의 항일혁명투쟁사적이 깃들어있으며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백두산지구에로 현지답사길을 떠나신다. 렬차안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밤깊도록 예술영화 《피바다》의 대본을 보아주시면서 김선화에게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창작공연된 명작들을 모두 되살려 문학예술분야에서 혁명전통의 대를 굳건히 이으시려는 자신의 뜻을 피력하신다. 현지에 도착하여 여러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백두산에로 도보행군을 시작하신다. 로상에서 구운 감자로 끼니를 에우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항일의 혈전만리길을 직접 체험해보신 그이께서는 앞으로 새 세대 청년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주체의 혁명위업이 어떻게 마련된것인가를 깊이 깨닫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신다. 눈보라를 헤치고 백두산정에 오르신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대전의 총소리를 높이 울리신 안투(안도)와 나이터우(내도)산 일대를 바라보시면서 백두산에 뿌리박은 주체의 혈통이 있어 조선민족의 오늘이 있고 래일이 있으며 백두산은 민족의 생명선을 간직한 혁명의 성지라고 말씀하신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앞으로 이 지구를 잘 꾸려 천년후에도 만년후에도 후대들이 자기의 혈통을 똑바로 알도록 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의 대를 순결하게, 굳건히 이어갈 확고한 결심을 다지신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혁명이 백두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은 주체의 혁명위업으로 빛나게 계승발전될수 있었다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조선의 행복》, 문예출판사, 주체72(1983)년판〕

《고향길》 중편소설. 주체76(1987)년 김명진 창작. 나서자란 고향을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나갈 큰 포부와 리상을 안고 성실한 노력을 바쳐가는 산간마을 농촌청년들을 형상한 작품이다. 제대되여 고향으로 돌아와 축산반 반장으로 임명된 강준일은 사람못살 고장으로 버림받던 이 고장을 몸소 찾으시여 산과 등판을 리용하면 잘살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깊이 새기고 현지교시 15돐이 되는 다음해까지 양마리수와 털생산을 1.5배로 늘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자체의 힘으로 해내려고 고심한다. 그는 양들의 먹이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관리공 영희의 제기를 적극 찬성해주며 영희와 함께 새로운 풀판을 더 많이 조성하고 험한 산길을 극복하며 양지덕풀판을 개척하는 공사를 힘있게 내민다. 준일의 이런 노력을 실현되기 어려운것이라고 보며 현재의 생산수준에 만족하고있던 축산지도원 병구는 례년보다 높아진 계획조절에 신경을 쓰며 그곳에서 진행될 군축산일군회의준비에만 급급한다. 그러던중 양지덕공사로 하여 뜻하지 않은 큰물이 밀려들어 일부 풀판들이 피해를 입자 병구는 양지덕공사를 더욱 반대하며 증산과제계획을 줄이려고 군으로 떠난다. 하지만 준일은 부닥

치는 난관앞에 주저앉지 않고 공사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인 뱀골을 나무다리로 극복할 효과적인 방도를 내놓고 사람들을 불러일으켜 공사를 완공한다. 그 과정에 준일은 그 무슨 큰일만 하려 하며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청년 인표가 고향에 대한 참된 사랑을 안고살도록 일깨워주며 통신대학공부도 하게 한다. 또한 먹이풀인 단풀을 이 고장에 순응시키는것을 도우려 도시에서 내려왔던 동창생처녀 은실이가 자기 고향이 아직 외진 산골이라 하여 다시 도시로 가버렸으나 실망하지 않고 고향을 더 잘 꾸려나갈 결심을 굳게 한다. 군에 갔다가 실망하여 돌아온 병구는 양 한마리를 찾다가 부상까지 입은 준일의 모습과 완공된 양지덕공사장을 돌아보면서 이미 이룩된 성과에 자만도취하여 계속 앞으로 나가려 하지 않은 자신을 깊이 뉘우친다. 소설은 준일의 형상을 통하여 자기 고향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고 더 잘 꾸려나가기 위하여 주인답게 일해가는 농촌청년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6(1987)년판〕

《고향길》 단편소설. 주체79(1990)년 림병순 창작. 해외생활 40년만에 고향을 찾아온 해외공민이 조국통일의 절박성을 더욱 사무치게 절감하고 통일을 위한 길에 결연히 떨쳐나서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1인칭형식으로 씌여졌다. 미국놈들때문에 고향을 떠나 해외에서 외롭게 살다가 머리에 흰서리가 내려서야 고향땅을 다시 찾아온 나는 그처럼 그립던 안해와 아들 그리고 고향마을 사람들과 감격적으로 상봉한다. 아버지로서 너무도 한 일이 없이 오히려 걱정만을 안겨준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차려준 70돐상을 받으면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고향사람들의 모습을 대하면서 나는 한생을 깊은 자책속에 돌이켜본다. 소설은 마을의 수로공사장에 있는 굴착기에도 《통일》호라는 이름을 달고 조국을 갈라놓은 장벽을 허물기 위해 애쓰는 고향사람들의 일본새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아안게 된 주인공이 조국통일위업에 한몸바쳐 싸우며 통일의 그날 고향에 와서 남은 여생을 보람있게 살 결심을 품는것으로 끝난다. 소설은 한 해외공민의 형상을 통하여 7천만 조선동포가 안겨살 품은 사회주의 내 조국의 따사로운 품이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한몸바쳐 싸워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79(1990)년 제24호〕

《고향사람들》 단편소설. 주체49(1960)년 조진용 창작. 고향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린 미제원쑤놈들을 반대하여 투쟁의 길에 나서는 남조선괴뢰군 사병을 형상한 작품이다. 강제징집에 걸려 괴뢰군에 끌려나온후 겨우 휴가가 차례진 최영식일등병은 부모님이 있는 락동강연안의 메지벌로 찾아갔으나 그곳은 이미 미군비행장으로 변하고 고향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길 없었다. 속에서 불이 이는것을 느끼며 통행금지구역안으로 들어가던 영식은 보초놈에게 걸려 반죽음이 되도록 매를 맞고 미군에게 반항하였다는 죄명을 쓰고 그 이튿날에 부대로 압송되여온다. 저녁무렵 대대영창에서 풀려나온 영식은 사단고문인 허버트놈의 개인농장을 꾸리려는 대대장의 지령에 따라 막비골농민들을 철거시키는 일에 동원되게 된다. 보금자리를 잃고 끌려가는 이곳 사람들속에서 뜻밖에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찾아본 영식은 지금껏 보아온 미제원쑤놈들을 모조리 쓸어눕히는 심정으로 허버트놈을 향해 총을 겨눈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침략자들을 하루빨리 내쫓고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49(1960)년 제96호〕

《고향사람들》 장편소설. 주체62(1973)년 김승권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고향땅을 강점한 미제침략군과 괴뢰군놈들을 쳐물리치기 위하여 용감

히 싸운 달뫼산유격대 운계동지대 빨찌산들의 투쟁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남쪽에서 들려오는 포소리를 들으며 달뫼산으로 들어가는 외암갱 갱장 광일을 비롯한 광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광일은 달뫼산유격대지휘부에 가서 정치위원(군당위원장)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을 전달받고 운계동유격대지대를 조직할것과 지대장으로 활동할데 대한 임무를 받는다. 구체적인 유격활동구역까지 맡아가지고온 광일은 당원들의 회의를 소집하고 유격대를 조직하는 문제와 인민들을 위한 집과 식량문제 그리고 당면한 무기구입문제 등을 토의하고 결정서를 채택한다. 그는 집을 짓고 가을걷이를 하여 식량을 해결하는 한편 대원들을 데리고 불개미령에 나가 놈들의 자동차를 습격하여 12자루의 총을 로획한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대원 석재는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제때에 철수하지 않아 책벌을 받는다. 여기에서 교훈을 찾은 광일은 새로 조직한 유격대원들의 훈련을 다그치는 한편 지하조직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광산녀맹위원장인 안해 봉옥에게 이 사업을 맡기고 급히 폭약을 구해보낼데 대한 과업을 준다. 한편 고향땅에 기여든 ㅊ지구 미제침략군 경비사령관 시몬과 군수 강치백, 그의 조카 강충경은 옛 시절을 꿈꾸면서 광산도 다시 경영하고 유격대에 대한 《토벌》과 지하조직망을 일망타진할 흉계를 꾸민다. 봉옥은 신병준로인을 설복하여 폭약을 얻어오게 하며 림창수를 비롯한 민청원들을 발동하여 적정을 탐지한다. 광일은 봉옥이가 보내준 자료에 기초하여 적군수렬차가 지나가는 철교를 폭파한다. 이러한 투쟁과정에 석재도 책벌을 벗고 용감한 전투원으로 자라며 수남이와 영철중대장 등 유격대원들이 름름한 싸움군으로 성장한다. 소설은 원쑤놈의 총탄에 쓰러지는 아들을 보면서도 련락장소로 떠나는 봉옥과 아들 일룡의 소식을 듣고 천백배의 복수를 하자고 고무격려하는 광일의 강의한 의지와 억센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또한 소설은 지난날 떳떳하게 살지 못한 덕만이가 10만원의 소비조합돈을 가지고 찾아온 사실과 주인공이 그를 믿고 정미기계를 구입할데 대한 임무를 주는 이야기, 뚜렷한 신념을 가지지 못하고 동요하는 기사 장인식에게 영향을 주는 등 복잡한 계층의 사람들과의 사업도 생활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유격대오의 확대성장과정을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소설은 다음부분에서 광일지대장의 지휘밑에 적극적인 전투를 벌리는 통쾌한 장면들을 보여준다. 유격대원들은 적의 포진지와 지휘소를 습격하고 무선기를 탈취하는가 하면 유격구역에 달려드는 놈들을 견제하여 달뫼산유격대가 적 한개 련대를 포위소멸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반공격으로 넘어갈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방침에 따라 쌍포선두창고폭파를 승리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그들은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축하문을 받는 영광을 지닌다. 놈들의 경계가 심한 속에서도 적의 경비사령부습격에 필요한 자료를 탐지하여 보내려던 봉옥은 놈들에게 그만 체포된다. 그는 감옥에서도 사람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며 독감방에 갇힌 조건에서도 수단을 다하여 적정자료를 산으로 보낸다. 이에 근거하여 유격대는 제2전선부대들과 련합하여 고향마을을 해방하고 봉옥이도 구원한다. 소설은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로동계급의 본분을 지켜 용감히 싸운 빨찌산들의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함으로써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유격대활동을 적극 벌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예술적으로 뚜렷이 확증하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떨쳐나서면 그 어떤 원쑤도 능히 쳐물리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62(1973)년판〕

《고향손님》 단편소설. 주체63(1974)년 소영호 창작. 소설은 일본에 사는 아들을 찾아왔던 한 남조선로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참된 조국의 품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일본에 있는 아들 경

철의 집에 온 강로인은 조선사람이면서도 조선말을 모르는 며느리와 손자들로 하여 깊은 시름에 잠긴다. 어느날 길가에서 로인은 조선옷차림을 한 권옥순이라는 어린 소녀애를 만나게 된다. 소녀와 이야기하는 과정에 로인은 옥순이가 아들이 이곳에 없다던 조선학교의 학생이라는것과 더우기 옥순이의 아버지 권상도가 자기와 한고향사람이라는것을 알게 된다. 호기심과 놀라움속에 조선학교로 찾아간 로인은 총련교육회 부회장 권상도와 함께 잘 꾸려진 학교를 돌아보면서 큰 감동을 받아안는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들 경철에게 조선학교에서 자기가 보고들은 사실들과 경호(경철이 형)의 가족이 어떻게 미국놈들의 손에 죽었는가를 이야기해준다. 지금껏 권상도를 비롯한 총련사람들을 외면해왔던 경철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책을 금치 못한다. 이튿날 강로인은 여생을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바칠것을 마음다지며 고향으로 떠나간다. 이를 통하여 작품은 어버이수령님의 품이야말로 우리 민족모두가 안겨살 참된 조국의 품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63(1974)년 6호〕

《고향집》 단편소설. 주체74(1985)년 리병수 창작. 조국에 개선하시여 인민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신 후에야 고향 만경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형상한 작품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일가분들을 비롯한 만경대사람들과 그이의 어린시절 동창생인 박창훈은 조국에 개선하신 수령님께서 고향에 오실 날을 이제나저제나 손꼽아 기다린다. 그러던 어느날 창훈은 당을 창건하신 수령님께서 며칠전에 고향을 지척에 두시고도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먼저 찾으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듣는다. 며칠후 그는 수령님께서 개선연설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공설운동장으로 달려간다. 연단에 높이 서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을 뵈옵고 그이께서 하신 개선연설을 받아안은 창훈은 감격에 목메여 울고 웃으며 만세를 부르고 또 부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조국인민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신 후에야 비로소 언제나 잊으신적 없는 만경대의 조부모님들을 만나시며 박창훈과도 뜻깊은 회포를 나누신다. 소설은 해방직후의 력사적인 나날들에 있었던 실재한 이야기를 통하여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은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심을 감명깊이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영원한 사랑》, 문예출판사, 주체75(1986)년판〕

《고향집》 서정시. 주체78(1989)년 리정술 창작.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놓은 백두밀영고향집을 노래한 작품이다.

여기서는
하늘이 가장 가깝게 보인다
구름우에 숲이 있고
숲우에 산이 솟아
따뜻이 감싸주는 고향집

시에서는 《우리모두 태여난 고향집은 저 멀리 들에 마을에 있건만 백두밀영의 고향집은 하늘아래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하면서 백두산야를 뜨락으로 삼고 푸른 숲의 바다를 울바자로 두른 백두밀영의 고향집은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놓은 집임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시에서는 백두밀영의 고향집의《의지와 빛》을 받아 조선의 하늘이 높고 조선의 정신이 높으며 우리 인민의 기개가 높다고 토로하고나서 이 고향집은 세기의 상상봉에 높이 서있는 조선의 고향집, 혁명의 고향집이라고 격정을 터치고있다. 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백두밀영의 고향집의 숭엄한 모습을 상징적형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1980년대시선》, 문예출판사, 주체79(1990)년판〕

《고향땅》 단편소설. 주체70(1981)년 윤원삼 창작. 자기가 사는 고향마을을 더 잘 꾸리기 위해 한생을 바쳐가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군대에서 제대된 후 도시에 배치받은 라경호는 앞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 꿈을 안고 고향농촌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작업반장인 어머니는 아들을 따라 도시로 갈 생각을 하는것이 아니라 양수기가 고장나면 양수장으로 달려가고 다락밭 관개용우물을 파는데도 참가하며 날씨가 차지면 논밭을 돌아보러 나가면서 몸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 어머니는 땅이 없어 선대들의 피눈물이 흘렀던 이 땅에 행복의 락원을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을 가슴깊이 새기고 고향땅을 잘 가꾸는것으로써 그 은덕에 보답하려고 노력하는것이다. 어머니는 고향땅을 가꾸는 일에 온넋과 정력을 쏟아부으며 하루하루 변모되는 고향의 모습에서 더없는 기쁨과 행복을 찾는다. 경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고향에 내려와 어머니가 찾는 그 행복속에서 새 생활의 참된 행복을 꽃피워갈 결심을 다진다. 소설에서는 자기 고향, 자기 마을을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잘 꾸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려는 농촌사람들의 열렬한 지향을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참다운 행복은 안락한 생활에서가 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는 투쟁속에서 꽃펴난다는 사상을 의의있게 밝혀내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70(1981)년 3호〕

《고향으로 가는 길》 장편소설. 주체81(1992)년 신진순 창작. 남조선에서 거지로, 쓰리군으로 생활하다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되는 한 소년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서울과 인천사이에 있는 부평읍 교외에는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모여사는 실향민촌이 있다. 공화국북반부를 동경하였다고 하여 괴뢰군놈들에게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으며 전쟁의 혼잡속에서 누이까지 잃은 영호는 어머니와 함께 이 마을에서 산다. 이 마을의 첫 학생으로서 학교에 가게 된 영호는 학교에서 거지라고 업수이 여기는 부자집 애들과 다투고 다시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한다. 이러한 영호에게 어머니는 자기들을 고향에서 내쫓고 거지신세로 만든 미국놈들과 괴뢰들이 원쑤라고 일깨워주면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여 원쑤를 갚고 누이를 찾아 꼭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마저 병으로 돌아가자 영호는 졸지에 고아가 된다. 이때부터 그는 거지 《문둥이》, 쓰리군 《껭까도리》로 되여 밥을 빌어먹고 쓰리패의 대장노릇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 과정에 그는 고향을 잃고 부모형제와 헤여진 아이가 자기뿐이 아니며 수많은 사람들이 파쑈독재하에서 짓눌리우며 고통속에 살아가고있다는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던 어느날 영호네 쓰리패는 형이 브라질《이민》으로 떠나는 봉수일가와 인천으로 파업투쟁을 벌리기 위해 가던 돌삼아저씨의 돈을 본의아니게 털게 된다. 그 돈에 깃든 사연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자기 민족을 외국자본의 노예로 서슴없이 팔아먹는 괴뢰도당의 반인민적정체를 더 잘 알게 되며 그를 반대하여 일떠선 로동자들과 대학생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그들은 민중이 다 잘산다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리로 가보자고 떠나기도 했으나 38도선이 가로막혀 되돌아온다. 여기서 그들은 인민이 잘사는 북반부와 같은 사회에서 행복을 누리자면 불합리한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것을 깨닫게 된다. 이들은 자기들이 쓰리로《번》돈을 바쳐 로동자, 대학생들의 투쟁을 도와나선다. 그후 영호네는 정직하게 일을 해서 살아가려고 비누공장과 보석상점에 들어가 땀흘려 일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누공장이 외국재벌기업의 검은 마수에 의해 파산당하고 보석상점이 미제병정놈들에게 대낮에 털리우는것을 직접 보면서 불행의 근원은 조국의 절반을 타고앉아

강도행위를 일삼고있는 미국놈들에게 있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는다. 이무렵 남조선에서는 파쑈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4.19항쟁의 거세찬 불길에 의해 리승만독재정권은 무너지고만다. 영호와 그의 동무들은 비록 독재정권은 무너졌으나 미제가 남아있는 한 고향으로 가는 길, 참된 인민의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그 길이 열릴수 없다는것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낼 그날까지 계속 싸울 결의를 다진다. 소설은 미제가 강점하고 반인민적인 독재정권이 판을 치는 남조선사회하에서는 결코 행복을 찾을수 없으며 오직 미제를 내몰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싸울 때만이 자유와 행복을 찾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 주체81(1992)년판〕

《고향으로 가는 길》 단편소설. 주체96(2007)년 정기종 창작. 조국과 혁명을 위해 한몸바쳐 싸우는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주체42(1953)년 초봄 내가 속한 보병대대는 천계령계선에서 철수하여 철도역을 끼고있는 산간마을에 자리를 잡는다. 소대장은 대대장의 요구라며 나를 대대장련락병으로 보낸다. 나의 대대장은 항일투사로서 고향은 황해도 앞바다 오석도라는 섬마을이였다. 그래서인지 그는 흥남앞바다 화도가 고향인 나를 고향친구처럼 무척 사랑하였고 자기 련락병으로까지 데려온것이다. 상급참모부에서는 대대장을 려단장으로 소환하기로 하였는데 그는 마지막으로 정든 대대와 함께 서해상의 섬들을 해방하는 전투를 하게 해줄것을 상급에 제기하여 승낙받는다. 거기에는 그의 고향도 있었다. 해방전 일제의 추격을 피해 방금 해산을 앞둔 안해를 두고 고향을 떠나던 대대장은 자기 팔을 잡고 매여달리는 안해에게 고려 김렬장수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울면 이다음 그 장수처럼 수염이 비자루처럼 자란 후에 돌아오겠다고 한다. 사랑하는 부모처자와 헤여진 그는 산에서 싸울 때나 오늘이나 한시도 고향의 처자를 잊지 않고 늘 그려보군 한다. 어느해 군정학습시간에 그는 꿈에서 본 목선을 타고 고기잡이 가는 아들에 대하여 글짓기를 하게 된다. 그가 쓴 작문을 보아주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왜 목선을 타고가겠는가, 큰 기계배를 태우라고 하시며 자식의 앞날까지 축복해주신다. 해방이 되였으나 미제의 강점으로 고향으로 갈수 없었던 그였다. 전투를 앞두고 대대장은 리인민위원회 일군과 섬에 들어가기 위한 작전을 토의한다. 수로안내가 없이는 섬에 들어갈수 없어 면당위원장은 그 지형에 밝은 섬처녀 순금을 안내자로 보낸다. 나는 배우에서 순금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가 17년전에 해산을 앞둔 어머니에게 장수수염이야기를 남기고 떠난 후 소식을 알길 없고 어머니마저 자기를 낳고 5년후에 세상을 하직하였다는것을 알게 된다. 대대장도 그것을 알고 자기 딸임을 짐작한다. 이때 성에장들이 떠내려와 배밑창에 끼운다. 순간 순금은 배전너머의 성에장으로 건너뛰여 배를 떠밀고는 파도속에 휘말려 다시 나오지 못한다. 그토록 잊지 못해하던 딸을 순간에 잃은 대대장은 너무 비통하여 딸을 부르고 또 부른다. 대대는 순금이 열어놓은 배길로 섬에 올라 원쑤들에게 불벼락을 안긴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주체57(1968)년 여름 나는 출장길에서 뜻밖에 전화의 나날 그때 그 모습으로 여전히 혁명의 군복을 입고 변함없이 고향으로 가는 길을 열어가고있는 조선인민군 상장 바로 나의 옛상관을 만나게 된다. 소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원쑤에 대한 증오로 바꾸어 우리 혁명의 승리적진군길을 앞장에서 열어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일반화하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96(2007)년 1호〕

《고향으로 온 련대장》 영화문학. 김필진 창작. 작품은 고향으로 제대되여 돌아온 철민이 군건설대 대장으로 일하면서 변함없

이 충정의 꽃을 피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철민은 제대되여 휴양소 소장으로 배치되였으나 그것을 마다하고 자원하여 어렵고 힘든 건설부문사업을 맡아나선다. 그는 건설부문사업이 처음 해보는 어렵고 생소한 일이였지만 하나하나 배우면서 제대군인들의 주택건설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나간다. 주택건설이 빨리 진척되는데 따라 세멘트가 미처 보장되지 못하게 되자 그는 우에다 손을 내밀지 않고 세멘트를 군자체의 힘으로 생산하여 쓸 결심을 한다. 그런데 이 일을 적극 도와주어야 할 부위원장 경준은 조건타발만 앞세우면서 그것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철민은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의 결심을 굽히지 않는다. 그는 군에서 1년반이나 애쓰며 건설하다가 끝내 완공하지 못한 세멘트공장을 어떻게 하나 완공할 결심을 가지고 멀리 다른 지방에까지 찾아가서 회전분쇄기를 구해다가 설치하여 끝내 세멘트를 생산해내고야만다. 이 과정에 철민은 일시적이나마 난관앞에 주저앉아 저수지관리원이나 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려고 한 공병출신제대군관 태현이로 하여금 조국땅을 꽃피우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제대군관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도록 따뜻이 이끌어준다. 온갖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짧은 기간에 수백세대의 살림집을 보란듯이 일떠세운 철민은 고향땅을 더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리기 위하여 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앙양을 일으켜나간다. 작품은 주인공 철민의 형상을 통하여 비록 초소는 달라져도 당앞에 다진 맹세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충정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나가는 여기에 혁명가의 영예와 보람, 빛나는 삶과 행복이 있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75(1986)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고향에서》 단편소설. 주체53(1964)년 리영규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자기 직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투쟁한 한 선로원의 영웅적위훈을 형상한 작품이다. 해방전에 철도부문에서 일하다가 해방후에는 선로반 반장으로 일하게 된 용찬은 나라의 주인된 높은 자각과 맡은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 그는 해방전에 철도보수를 하지 않아 침목이 썩은것을 보고는 집에 있던 재목을 실어내오기도 하고 반원들의 앞장에 서서 자기 반이 맡은 구간의 침목을 자체로 해결하기도 한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는 단신으로 적의 군용렬차를 박산내기도 하고 놈들이 쫓겨간 다음에는 혼자서 수십개나 되는 시한탄을 제거해버리기도 한다. 그는 적기의 폭격으로 탄약을 실은 차량에 불이 달리게 되자 위험을 무릅쓰고 그속으로 뛰여들어 불붙는 차량을 떼여놓고 장렬하게 희생된다. 작품은 전쟁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한 선로원의 투쟁을 통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이 발휘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자기희생정신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3(1964)년 제4호〕

《고향의 가을날에》 단편소설. 주체87(1998)년 박춘섭 창작. 작품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혁명적수령관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보여주고있다. 어느해 가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지의 고향 회령을 찾으신다. 백살구락엽이 깔린 포석길을 걸으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깊은 사색에 잠기시여 주체38(1949)년 가을을 가슴아프게 회상하신다. 어느날 어머님을 잃은 슬픔을 안고 운전사는 조용히 저택으로 차를 몬다. 오열을 참고있는 운전사에게 수령님께서는 어서 경적을 울리라고 정숙동무가 기다린다고 하신다. 어머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아무리 늦어오시여도 운전사에게 경적을 세번 울려 신호하게 하시고 그 경적소리가 울리면 문을 열고 마중나오시군 하시였던것이다. 40여

년전 그날의 경적소리가 지금도 들려오시는듯 수령님께서는 회령고향집을 바라보시며 고향에 함께 오자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채 너무도 일찌 곁을 떠나신 김정숙동지를 생각하신다. 그 어디를 보아도 가난의 자취가 비껴있는 초가집을 돌아보시던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추억하신다. 주체25(1936)년 봄 만강밀영의 우등불가에서 어머님께서는 수령님께서 부르시는 **《사향가》**를 들으시며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실 결심을 굳히신다. 어느해 겨울 어머님께서는 련 이틀째 계속되는 행군과 적들의 끈질긴 추격으로 끼니를 제대로 에우지 못하여 맥이 빠져있는 대원들을 위하여 세찬 눈보라속에서도 불을 피워 밀가루떡을 구워 그들의 손에 쥐여주신다. 어머님의 얼어서 갈라터진 손이며 불에 그슬린 머리카락을 보며 대원들은 끝내 눈물을 쏟고야만다. 추억에서 깨여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온 회령시내가 백살구꽃속에 묻힌다는 강사의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홍치하(홍기하)전투와 다사하(대사하)치기전투에서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수령결사옹위정신에 대하여 이야기하신다. 작품은 어버이수령님의 귀전에 자신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수령님의 친위전사, 제1호위병이라고 말씀드리는 김정숙동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것으로 마감짓고있다. 작품은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적동지애, 뜨거운 인정미로 일관된 어머님의 숭고한 한생을 실재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하여 깊이있게 그려보이면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영원히 어버이수령님의 추억속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위대한 혁명가의 모습으로 영생하고 계신다는것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7(1998)년 3호〕

《고향의 노래》 단편소설. 주체51(1962)년 황주엽 창작. 잊을수 없는 고향의 노래를 가슴에 안고 통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해가는 녀성조합원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모내기협조대로 동원되여 큰골협동조합에 나온 기계공장 작업반장 광섭은 남녘의 고향땅에서 모를 심을 때 부르던 《미나리》노래를 부르다가 뜻밖에도 한고향사람인 녀성조합원 분이를 만난다. 남편이 미국놈들에게 잡혀가자 소리없이 마을을 떠났던 분이는 공화국북반부를 찾아왔던것이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인민정권을 따라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오게 된 광섭은 분이의 그간 생활을 알고싶어 관리위원회에 찾아간다. 광섭은 어제날의 세포위원장이였던 관리위원장으로부터 분이가 남편을 빼앗아간 원쑤들을 복수할 오직 하나의 일념으로 부락일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조합이 조직되자 선참으로 들어가 녀성보잡이로 이름을 날리고 자기가 키운 돼지를 밑천으로 축산반을 꾸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시련과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며 억센 투사로 자라났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날 저녁 분이의 집에 간 광섭은 축산반을 확대하여 목장으로 전변시키며 모든 작업을 기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리운 고향에서 미국놈들과 억세게 싸우고있을 남편과 함께 고향의 노래를 부르며 행복하게 살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 소설은 모든 일을 미국놈들과의 싸움으로 간주하고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나가며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분투하는 분이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1(1962)년 11호〕

《고향의 노래》 장편소설. 주체81(1992)년 김도원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침략자들에게 강점된 고향마을을 되찾기 위해 소년근위대를 뭇고 용감히 싸운 소년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금의 매장지로 알려진 금곡광산마을은 적들에게 강점된다. 마을 소년 황준수는 원쑤놈들과 싸울것을 결심하고 격전장에서 무기를 얻으려다 적의 총탄에 맞아 쓰러진 광

산 탐측과장으로부터 탐측도를 숨겨둔 위치를 적어넣은 수첩을 넘겨받는다. 적들은 금광의 생명으로 되는 탐측도를 찾기 위해 날뛰면서 그 위치를 넘겨받은 소년을 알아내려 한다. 이때 인호, 지갑청 등 그의 동무들은 황준수가 수사그물에 걸려들지 않도록 도와주며 강익찬, 인호, 류건재는 《치안대》 건물에서 적의 기발을 떼내는 대담한 행동도 벌린다. 황준수는 자기대로 총을 뺏으려 《치안대》건물에 뛰여들었다가 실패하고 산속을 헤맨다. 황준수와 함께 다니던 류건재는 체포되여 모진 고문을 받으나 탐측도의 비밀을 지키고 《치안대》의 심부름군으로 된 양음전의 도움밑에 탈출한다. 이렇게 제갈래로 행동하던 그들은 인민유격대에서 파견되여온 소년단지도원 라화숙선생으로부터 고향을 지키려면 조직을 무어 뭉친 힘으로 싸워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황준수를 대장으로 하고 인호를 참모장으로 하는 금곡소년근위대를 조직하며 학교소년단 기발앞에서 고향을 지켜 원쑤들과 끝까지 싸울것을 맹세한다. 그들은 광산사람들을 원쑤들과 싸우도록 선동하는 삐라살포로부터 첫 전투를 시작한다. 전투는 성공하였으나 단서가 잡혀 근위대원들은 산으로 들어가고 가족들은 무참히 학살된다. 슬픔을 복수의 맹세로 가다듬은 소년근위대는 적의 수송대를 습격하고 탐측도를 찾으러 온 미군공병소대를 유인전술로 폐갱속에 끌어들여 모조리 섬멸하며 인민유격대와 함께 적의 증원부대를 매복습격하여 전멸시킨다. 이 나날에 대오는 확대강화된다. 그들은 탐측도를 숨겨둔 위치를 표시한 수학문제도 적들보다 먼저 풀어 그 문건을 구해내며 근위대를 유인하여 포위소멸하려는 적들의 흉계도 두차례나 짓부셔버린다. 이 과정에 적들속에 들어가 근위대의 눈과 귀가 되여주던 양음전이가 희생되고 련락원으로 활동하던 지갑청과 인실이도 중요련락임무를 수행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대장 황준수는 근위대원들을 구원해준 로동자들이 체포되여 학살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한몸을 내대고 그들을 구원한다. 인민군대의 재진격이 시작되는것과 함께 미제원쑤들은 퇴각에 앞서 수많은 애국자들을 폐갱속에 묻어버리려 한다. 이때 소년근위대는 인민유격대의 공작원들과 합심하여 맞굴을 뚫어 그들을 구원하며 유격대의 공격에 합세하여 마을해방전투를 벌린다. 해방된 마을에서 황준수와 근위대원들은 자기들이 지은 《고향의 노래》를 부르면서 희생된 동무들을 추억하고 승리의 기쁨을 터친다. 소설에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소년단원들은 단순히 나어린 소년들인것이 아니라 조국과 고향을 끝없이 사랑하고 원쑤의 침해로부터 조국을 지켜 한목숨바쳐 싸운 소년애국자들이였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다. 〔금성청년출판사, 주체81(1992)년판〕

《고향의 모습》 단편소설. 주체78(1989)년 로정법 창작. 나서자란 고향인 수도 평양과 사회주의조국을 더 아름답게 꽃피워나가는데 깨끗한 마음을 다 바쳐가며 그 과정에 참다운 사랑을 맺게 되는 교통안전원의 생활을 보여준 작품이다. 교통안전원인 선희는 어느날 수도의 거리를 어지럽히면서도 단속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는 차를 보고 뒤에 오는 차를 잡아타고 쫓아간다. 그러나 뒤차 운전사인 박두남이 앞차가 자기와 가까운 친구의 차임을 알고는 따라잡으려 하지 않자 선희는 교통안전원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수도시민으로서 거리를 어지럽히는 앞차를 따라잡자고 부탁한다. 그의 말에 감동된 두남은 기꺼이 친구의 차를 잡아준다. 그 일을 계기로 선희와 가까와지게 된 두남은 그에게 사랑의 감정을 품게 되지만 선희는 두남의 서뿌른 사랑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후 우연히 모란봉에서 두남을 다시 만나게 된 선희는 길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치우는 그의 모습에서 새로운 인간됨을 발견하고 다시 그와 가까와진다. 그들은 밤마다 수도의 대기념비적건축물을 일떠세우는 건설장에서 자신들의 진정과 구슬땀을 바쳐가며 그

과정에 그들의 사랑은 깊어간다. 그러던 어느날 당의 구상따라 일떠서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장으로 가려는 두남의 결심을 알게 된 선희는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준다. 소설은 대건설장으로 달려나간 두남과 평양에 있는 선희가 조국을 위해 일을 더 잘하자는 편지를 주고받는데서 끝난다. 소설은 선희와 두남의 형상을 통하여 자기가 나서자란 수도와 조국땅을 더 아름답게 꾸려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애정륜리를 참신하고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꽃피는 계절》,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8(1989)년판〕

《고향의 물소리》 단편소설. 주체78(1989)년 김주현 창작. 농촌의 새 세대들이 어제날 로세대가 걸은것처럼 땅을 잘 가꾸고 성실하게 일하여 집단의 인정을 받게 될 때 참다운 농촌의 주인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분조장 엄달재령감에 의하여 논물관리공이 된 나는 만사람의 찬양을 받던 기계운전공시절을 생각하며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온종일 삽자루나 메고 벌판을 돌아다니는 논물관리공일이나 해가지고서는 고향사람들과 농장책임일군들로부터 농장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받고 떳떳이 대학에 가려던 꿈을 실현할수 없다고 여겼기때문이였다. 그러던 나는 논물관리를 그만두고 다시 기계운전공일을 하게 되였을 때, 특히 논물관리공으로 일하면서 센 농약을 두렁허리구멍에 쓸어넣고 굴포의 찬물을 논에 대여 피해를 입은 병든 벼포기들을 보게 되였을 때 자신을 심각히 돌이켜보며 수십년세월이 벌과 고향과 조국을 성실히 받들어온 달재령감처럼 살며 일할것을 굳게 결심한다. 그후 나는 고향땅을 더 잘 꽃피우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엄달재령감의 권고를 받고 대학공부를 하게 되며 기사장으로까지 자라게 된다. 소설은 나의 시점에 비낀 달재령감의 형상을 통하여 이 땅을 가꾸며 한생을 바쳐가는 로세대들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78(1989)년 7호〕

《고향의 아들》 단편소설. 주체40(1951)년 천세봉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고향땅을 해방하기 위한 전투에서 용감히 싸운 한 인민군전사의 투쟁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분대원들과 함께 전선동부의 어느 한 고지에서 이틀째나 달려드는 적들과 싸우던 박동구는 다리에 부상을 입는다. 하지만 그는 매봉고지전투를 보장하기 위해 고지 후면 파운동쪽으로 습격조를 파견하게 되자 자진하여 나선다. 분대를 이끌고 은밀히 파운동으로 들어간 박동구는 재더미로 변한 마을을 보며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가슴을 불태운다. 그날 밤 그는 분대원들과 함께 적지휘부를 습격한다. 이때 파운동안에 집결해있던 적들이 땅크와 자동차를 타고 달려든다. 위급한 정황속에서 그는 적땅크를 까부시고 화상을 입는다. 얼마후 부대와 협동전투를 한 그는 고향사람들에게 부축되여 해방된 마을에 들어선다. 작품은 박동구의 형상을 통하여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위해 피흘린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앞에 떳떳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집《화선》, 국립도서출판사, 주체42(1953)년판〕

《고아》 단편소설. 주체48(1959)년 강형구 창작. 한 고아의 설음많은 생활과 소박한 꿈을 통하여 남조선사회의 암흑상을 폭로하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동경심을 보여준 작품이다. 미제침략자들의 만행으로 일가식솔을 다 잃은 달보는 지주 백대결의 집에서 참을수 없는 고역에 시달리면서도 가슴속에는 인민정권에 대한 신뢰의 정을 고이 간직하고 남조선사회를 저주하며 근근히 살아간다. 어느날 달보는 먹을것을 찾아 헤매는 의지가지할데 없는 불쌍한 소년 문상을 통해 서울에서 미국놈들을 내쫓기 위한 싸움이 벌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을 이기지 못한다. 이날 지주놈은 불쌍한 소년을 동정

하였다고 달보에게 생트집을 걸며 저녁에는 제놈의 집 사과를 따먹었다고 생억지를 쓰면서 문상을 사정없이 때린다. 달보는 문상의 부풀어오른 매자국을 어루만지며 미제와 그 주구 백대걸이와 같은 놈들에게 보복을 안길 결심을 한다. 이날 밤 문상소년은 공화국북반부의 품에 안겨 훌륭한 소년단원으로 된 행복한 꿈을 꾼다. 소설은 계급의식이 미약한 순박한 머슴군이였던 달보가 쓰라린 생활체험을 통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점차 계급적으로 각성되여가는 과정과 의지가지할데 없는 고아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소년 문상의 눈물겨운 처지를 통하여 미제강점하의 남조선사회의 암흑상을 폭로하고 날을 따라 증대되여가는 인민들의 분노와 적개심을 진실하게 그려내였다. 이와 함께 소설은 달보와 문상소년의 억울하고 원한서린 생활체험을 펼쳐보이면서 남조선인민들이 모진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시고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인하였다. 〔《조선단편집》 2, 문예출판사, 주체67(1978)년판〕

《고압선》 영화문학. 설주용 창작. 작품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시련속에서 한 지식인이 혁명적으로 성장하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주인공 철민은 해방전에 대학을 나온 전기기사로서 일본놈이 경영하는 전기회사에서 일하였다. 해방을 맞이하자 그의 기쁨과 감격은 컸으나 지나온 경력으로 하여 남들처럼 새 조국건설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식인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신임과 믿음으로 하여 그는 새생활창조에 자신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간다.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 오랜 지식인에 대한 송배전소 소장의 편협한 처사로 하여 그는 후퇴대렬에서 떨어져 적강점지역에 남게 된다. 적들은 적후에 홀로 남은 그를 저들의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하여 획책하였으나 그는 원쑤들의 온갖 위협과 공갈에도 굴하지 않고 끝끝내 적들의 손에서 탈출하여 소개지로 찾아온다. 철민이가 대오를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지식인들을 높이 평가하시여 변전소를 복구할데 대한 어렵고도 책임적인 과업을 그에게 맡기도록 하시였으며 그의 신변을 념려하시여 권총까지 보내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철민기사의 가족이 후퇴해오지 못하였다는것을 아시고 가족을 구원해오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다함없는 은정에 끝없이 감동된 철민은 생사를 판가리하는 간고한 전투정황속에서 변전소를 복구하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하며 달려드는 적들과 전투를 벌리면서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낸다. 작품은 떳떳치 못한 과거를 두고 모대기던 주인공이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참된 삶의 길을 찾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통하여 지식인들의 성장과정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특히 작품은 송배전소 소장의 편협한 처사로 하여 적강점지역에 홀로 떨어진 정황에서도 변함없이 대오를 따라오는 주인공의 모습과 변전소복구사업에 자신의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는 모습 등을 통하여 일편단심 당을 믿고 따르는 우리 지식인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그리하여 작품은 우리 당 인테리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작품은 주체64(1975)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고요》 단편소설. 주체72(1983)년 리종렬 창작.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고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충정심을 보여준 작품이다. 이름없는 한 산골역인 만곡역은 림산기지가 옮겨지는데 따라 경제적효과성이 적어진것으로 하여 철도국으로부터 폐쇄령을 받는다. 어느날 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타신 특별렬차가 이 역구내에 들어선다.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몹시 피로하신 어버이수령님께 잠시나마 휴식을 마련해드리시려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일 조용한 이곳으로 찾아오신것이다. 그이께서는 잠에 드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깨여나실가 저어하시면서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역구내에 고요를 보장하게 하신다. 그리고 자신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의 차창가에서 밤을 새우신다. 역장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천상수라는 이 나이많은 철도일군이 바로 주체37(1948)년에 어머님과 함께 이 역을 지나가다가 인상깊이 만나보았던 어제날의 그 청년이라는것을 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인민을 위해 한생 성실히 복무해온데 대해 높은 평가를 주신다. 그러시면서 그의 건강과 생활에 대해 관심해주시고 앞으로 이 역이 없어지면 인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도 들으신다. 고요속에 시간이 흘러 어느덧 출발시간이 되였을 때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 잠시나마 휴식을 보장해드렸다고 못내 기뻐하신다. 그리고 길을 떠나실 때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드리자면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곳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만곡역을 없애지 않도록 해주신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높은 충실성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72(1983)년 10호〕

《고요한 바다》 장편서사시. 주체78(1989)년 동기춘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서해갑문을 일떠세운 인민군군인들과 과학자, 로동자들의 영웅적투쟁과 로력적위훈을 서사시적화폭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서사시는 머리시《바다와의 대화》, 맺음시《바다의 고백》과 7개의 장으로 구성되여있다. 머리시는 바다와 시인의 대화로서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조선인민이 횡포한 바다를 길들이고 세기적창조물을 일떠세우게 되리라는 확신을 긍지높이 토로하고있다. 제1장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갑문건설현장에 나오시여 려단장 박철우를 비롯한 건설지휘관들에게 건설전망을 두고 1%의 동요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용기와 신심을 북돋아주시는 이야기를 시화하고있다. 제2장에서는 갑자기 들이닥친 추위로 모든것이 얼어붙은 조건에서 갑문건설을 계속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철우와 강파, 오철남 등 전사들의 투쟁과 봄이 오기를 기다리자는 과학자 정진하의 심중을 펼쳐보이고있다. 제3장에서는 먼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느 한 기계공장에서 갑문대상설비제작을 미루고있은 사실을 료해하시고 협의회를 소집하시여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이야기를 전하고있다. 제4장과 5장, 6장에서는 봄을 맞이한 건설자들이 가물막이구간을 좁히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대사리의 공사를 한달 앞당겨 4월에 하기 위한 투쟁을 보여주고있다. 마감막이 전투때에 부재가 기울어지자 오철남과 해연이 바다물에 뛰여들어 폭발선을 이어줌으로써 공사가 성공하게 된다. 7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서해갑문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는 건설자들의 환희와 감격을 노래하고있다. 맺음시에서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조선인민의 거대한 힘앞에 머리를 숙이고 미래는 조선의것으로 되리라는 바다의 고백을 보여주고있다. 시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거대한 담력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로, 친근한 어버이로 높이 우러러 칭송하고있다. 서사시는 세상사람들이 경탄을 금치 못하는 웅장한 서해갑문에 깃든 위대한 사랑과 숭고한 뜻,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서사적화폭으로 노래한 작품으로서 의의를 가

진다. 〔문예출판사, 주체78(1989)년판〕

《고요한 전방》 영화문학. 리인철 창작. 평화시기에 순간도 해이됨이 없이 늘 긴장하게 사는것을 군인으로서의 좌우명으로 삼고 부대의 전투준비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가는 한 인민군련대장을 형상한 작품이다. 최전연초소에서 대대장으로 사업하던 주인공 리명은 조국의 최북단 한끝 후방에 있는 부대의 련대장으로 조동되여온다. 그는 여기에서 16년전 병사시절때 자기의 중대장이였던 부련대장 학근을 만나게 되며 그가 여러해동안 품들여 꾸려놓은 철무령 4중대병실이 전투진지와 너무 떨어져있어 군인들이 진지를 차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다는것을 포착하게 된다. 부련대장 학근이가 철무령 4중대의 생활조건을 풀어주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면서도 이러한 결함에 대하여 찾아보지 못한것은 오래동안 후방에서 군사복무를 하는 과정에 사상정신적으로 해이되여 긴장성을 늦추고 싸움준비를 홀시한데 있었다. 그는 자기 련대는 전연과 멀리 떨어진 고요한 후방부대라고 생각하면서 련대군관들을 자기 사업에서 뚝 떼서 축구조에 망라시키고있었으며 그만하면 싸움준비가 다 된 련대라고 생각하고있었다. 리명은 철무령 4중대병실을 고지우에 옮기는것이 자기의 옛 지휘관이였던 부련대장 학근의 사업성과를 무시하는것으로 된다는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그것을 외면할수 없었다. 리명은 깊이 생각하던 끝에 련대정치위원과 토론하고 병실을 옮기는 문제를 우에 제기한 다음 작업에 착수한다. 그는 군인에게 있어서 평화로운 나날에도 긴장하게 사는것이 적의 화구를 막는것만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좌우명으로 삼고 과감하게 일해나간다. 련대의 싸움준비완성을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는 리명의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은 학근은 괴롭지만 그를 찾아와 사상정신적으로 해이되여있은 자신의 지난날에 대하여 반성하고 중대병실을 짓는 작업에 뛰여든다. 총잡은 군인은 마음의 탕개가 풀려서는 안되며 군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자나깨나 오직 싸움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한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이들의 노력에 의하여 철무령 4중대병실은 짧은 기간에 완성되고 련대는 군단방식상학을 성과적으로 보장한다. 작품은 비록 군사지리학적개념에서는 전선과 후방이 따로 있을수 있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길에서는 전선과 후방이 따로 있을수 없으며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들이 서야 할 참호는 오직 혁명의 제1선에만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작품은 주체86(1997)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고요한 하늘》 단편소설. 주체74(1985)년 김영길 창작. 어버이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시험비행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끝없는 충실성을 형상한 작품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느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다닐 새 비행기의 시험비행을 보시기 위하여 비행장에 나오신다. 그날따라 날씨는 안개가 자욱하고 약간의 비까지 내려 책임비행사 최선일은 시험비행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있었다. 이러한 심정을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몸소 비행기에 오르시여 우리 함께 시험비행을 해보자고 하신다. 이에 깜짝 놀란 선일은 일기조건이 나쁜데다가 시험비행을 해야 하는것만큼 그이를 비행기에 모실수 없다고 하면서 내려주실것을 절절히 간청한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시험비행은 있을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예견하여야 하며 어버이수령님을 모시는데서는 우리모두가 근위병이라고 간곡히 말씀하신다. 그러시고는 비행사와 함께 높이 날으시면서 비행기의 상태와 비행과정을 일일이 살피시고 어버이수령님을 언제 어떤 조건에서도 최상의 안정상태에서 모실수 있도록 가르쳐주신다. 소설은 책임비행사의 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신분이시라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봄빛》, 문예출판사, 주체74(1985)년판〕

《고요한 행성》 장편소설. 주체89(2000)년 박윤 창작. 이 땅의 평화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담력과 의지, 위대한 인간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있음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판문점사건이 일어난 1970년대 중엽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새 전쟁의 구실을 마련하려는 적들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하여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준엄한 정세가 조성된 시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안에서 높은 타격력, 빠른 기동, 군사장비의 현대화를 다그쳐 주체전법을 실현할수 있는 준비를 튼튼히 갖추게 하시는 한편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를 현시기 인민군대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구호로 제시하신다. 놈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총참모부 일군들이 준비한 서부지구방어략도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서부지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지대에서의 화강석광산개발을 중지시켜 그곳이 서부지역방어에서 의의가 큰 지탱점으로 되게 해주신다. 대련합부대 방어지대편성에서 제기되는 미흡한 점을 바로잡아주시면서 공격형의 방어라는 새로운 군사원리를 반영한 완벽한 방어작전도에 수표하시기에 앞서 그우에 련합부대군관자녀들의 통근차길을 그려넣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세계를 안으시고 해병들의 해상훈련을 지도하신다. 그로부터 얼마후에 열린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총참모부 부참모장 유창민이 전연지대의 작전적방안연구에서 가장 난점으로 여기던 놈들이 노리는 지역, 적들의 주타격방향을 명철하게 지적해주시고 여기에 대처할수 있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다. 허담외교부장과 함께 올해 유엔에서의 활동방향을 토의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장군님께서는 혁명가극 《밝은 태양아래서》를 보아주신다. 혁명가극에 대한 지도를 마치신 후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총참모부에서 작성한 대응전술안을 보아주시고 자신께서는 처음에도 그러한것처럼 공격적인 방어를 주장한다고 하시며 적들이 훈련을 시작하는것과 동시에 대련합부대기동훈련을 공개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최종결심을 내리신다. 예상을 뒤집는 대담한 이 작전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련합부대들이 공개적인 기동훈련에 들어간다. 훈련의 나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전사들속에 계시면서 우회로를 탔던 서부기계화부대가 다시 마천령을 돌파하도록 이끄시였고 수륙량용장갑차에 오르시여 대부대의 강행도하를 성과적으로 끝내도록 진두에서 지휘하신다. 적들이 노리는 주타격방향을 향하여 노도처럼 나가는 조선인민군 련합부대들의 공개적인 기동훈련앞에서 적들의 훈련비상은 즉시 전투비상으로 바뀌고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흐지부지되고만다. 그러자 놈들은 도끼를 들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안에 달려들어 이른바 판문점사건을 일으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무를 찍고 신경이 곤두서서 방대한 무력을 내모는 대통령 포드의 그 만화적행동에 조소를 보내신다. 결국 놈들은 40만의 미제침략군을 전쟁대기상태에 내몰았다가 나무 한 그루를 찍어가지고 돌아가는 력사의 비극을 연출하고말았다.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이 엄숙한 대결전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놈들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시며 조국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대참화에서 구원하시였다. 소설은 군령도에 바쳐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군사적지략과 신묘한 령군술에 초점을 두면서도 장군님의 그 모든 사색과 활동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위인의 인생관과 미학관, 인간세계를 여러 각도로 형상함으로써 장군님의 철학세계, 인간세계를 풍만하게 펼쳐보이고있다. 또한 총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가는 유창민, 전세호, 한

철산 등 장령들과 유진수, 조금철군관들을 비롯한 각이한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을 개성적으로 섬세하게 보여주고있다. 이밖에도 포드부부와 키신져, 스틸웰, 캐스타임, 로베르 등의 각이한 인물을 우리의 인민군군인들이 지닌 정신세계와의 대비속에서 치밀하게 분석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돈과 명예, 동물적요구에 포로된 부르죠아세계의 진면모를 적라라하게 폭로하고있다. 작품은 하나하나의 사건, 일화, 세부묘사에서 그리고 한마디한마디의 대사와 주정토로에서 섬세하고 심오한 철학적분석을 주고있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9(2000)년판〕

《고임돌》 단편소설. 주체73(1984)년 김용원 창작. 조국과 혁명의 요구에 개인의 리상과 희망을 복종시킬줄 아는 우리 지식인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대학의 부교수이며 건축공학강좌장인 황우민은 대학에서 새로 내올 강좌의 교수를 위한 건축사자료를 정리체계화하기 위한 사업에 림시로 동원되여 이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부학장으로부터 대학에 새로 내온 건축사강좌를 책임지고 사업할데 대한 제기를 받게 된다. 20년동안이나 건축공학을 전문해온 우민에게 있어서 이것은 청천벽력이였다. 우민은 부학장의 제기가 전공까지 무시하는 무리한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에 응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다가 당비서로부터 지금 왜놈들이 우리 나라 건축사를 심히 외곡하고있으며 남조선의 건축학자들은 또 그것을 주체가 없이 받아들여 수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민족의 유구한 건축유산과 후대들을 생각하는 교육자라면 응당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것을 깨닫고 자기를 건축사강좌에 보내줄것을 제기한다. 작품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시대 교육자, 지식인들은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절실한 문제들을 민감하게 받아물고 그것을 과학과 지식으로 풀어나가는 고임돌이 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3(1984)년 2호〕

《고임돌》 장편소설. 주체94(2005)년 박찬은, 리동섭 창작.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조국통일위업을 받드는 주추돌—고임돌로 한생을 살기 위해 신념과 지조를 끝까지 지켜싸운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해방전 가난한 농사군의 아들로 태여나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 흥남의 어느 한 화학공장에서 고역에 시달리던 주인공 황윤수는 해방을 맞아서야 비로소 참다운 생활을 누리게 된다. 특히 룡성기계제작소에서 초급일군으로 일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만나뵈온 그는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손에 총을 잡고 전선으로 나간다. 전투마다에서 용맹을 떨치며 남으로 진격하던 그는 부상으로 적후에 남아 지리산빨찌산에 들어가 싸우게 된다. 전후에도 그는 땜쟁이 직업을 가지고 남조선의 곳곳을 편답하며 남조선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을 깊이 심어주고 통일애국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린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지리산빨찌산시절에 같이 싸운 변절자의 밀고로 적들에게 체포되여 무기형을 받고 대구형무소로 끌려간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성업을 받들어나가자고 투쟁의 길에 나섰다가 령어의 몸이 된 그는 분하고 안타까운 나머지 교도관들과 매일 싸운다. 그의 이러한 개인복수식대결은 도리여 그에게 더 큰 탄압의 구실만을 줄뿐이였다. 중심감방의 비밀조직책임자 유상인(전쟁전 나라의 전력부문에서 부국장으로 사업한 그는 남에 있는 동창생들을 수령님의 품으로 데려가려고 왔다가 길이 막혀 태백산에 들어가 싸우다가 부상으로 체포되였다.)의 동지적충고를 받고 자기를 돌이켜본 주인공은 점차 감방에서의 투쟁방식을 하나하나 익혀나간다. 한편 교무과장 리요천은 동향인이라는 허울밑에 나이가 그중 젊은 주인공 윤수를 꾀

여내기 위하여 갖은 감언리설과 회유를 다하다못해 미인계까지 쓴다. 우직스러운것으로 하여 메돼지라는 별명까지 붙은 서두칠이라는 놈은 그를 마대에 넣어 술한 교도관들이 다니는 휴계실문앞에 깔아놓아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주며 모욕한다. 그때마다 윤수는 수령님께서 계시는 평양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군 하였고 미국놈들에게 학살된 어머니와 북에 사는 안해와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며 신념을 더욱 굳혀나간다. 그는 공화국의 품으로 가려다가 붙잡혀들어온 한 청년에게 혁명적영향을 주어 참답게 살아나가도록 하며 한중대에서 싸운 의용군출신의 한 동지가 위병으로 신고할때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병보석으로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는 또한 좌익수들의 운동시간보장을 위한 집단투쟁을 이끌면서 좌익수들을 대상으로 인체실험을 감행하려는 개인촉탁의사의 비인간성을 발가놓고 적들의 죄행을 폭로하는 투쟁에 앞장선다. 이 시기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진다. 여기에 어버이수령님의 서거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져 교도소안의 전체 좌익수들의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겨놓는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조국의 앞날은 휘황하다는것을 굳게 확신한 윤수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의 심장속에 계신다는 신념을 안고 조국통일성업을 위한 투쟁의 길을 끝까지 가리라 맹세다진다. 적들의 모진 전향강요를 이겨내고 37년만에 형집행정지처분을 받고 감옥에서 나온 윤수는 양로원을 거쳐 서울에 있는 한백의 집으로 온다. 여기서 그는 유상인, 유선초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며 평양에서 살고있는 아들 영호와의 전화대화를 통해 가정에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육친적사랑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그후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보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불사약을 받아안고 그이의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를 더욱 뜨겁게 절감한 그는 조국통일성업과 반미항전을 위한 운동을 더 힘있게 벌려나가며 마침내 조국의 품에 안긴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조국통일위업을 받들어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삶을 빛내이며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꿋꿋이 지켜싸운 비전향장기수들의 투쟁을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이고 우리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살 품은 오직 위대한 장군님품밖에 없다는 진리를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4(2005)년판〕

《고원의 여름》 단편소설. 주체52(1963)년 리병수 창작. 환자를 위하여 무더운 여름날 얼음덩이를 구해오는 한 렬차원처녀의 뜨거운 인간애를 보여준 작품이다. 려객렬차의 안내원인 태옥은 길주에 있는 딸네 집으로 간다는 한 할머니가 멀미를 하는것을 보고 자기의 고통처럼 여긴다. 시원하게 머리찜질을 해주면 좀 낫겠는데 이 무더위속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근심하는 길손들의 말을 들은 태옥은 렬차가 백암역에 도착하자 하늘아래 첫 동네의 찬물을 길어다가 할머니의 얼굴도 닦아주고 젖은 수건을 그의 이마우에 얹어주며 정성을 다한다. 할머니때문에 마음을 쓰던 태옥은 렬차가 고향인 남계역에 가까와오자 해발 2 000m도 넘는 두릅산의 음달쪽 깊은 계곡에 있는 얼음에 생각이 미친다. 그는 렬차가 멎자 동굴속으로 달려가서 얼음을 가져온다. 할머니를 비롯한 차안의 손님들에게 얼음을 나누어준 태옥은 이 무더운 여름철에 얼음덩이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길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끝없는 행복과 긍지를 느낀다. 작품은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2(1963)년 제68호〕

《곡절많은 운명》(1—4부) 영화문학. 1, 2부 리춘구, 3, 4부 리춘구, 리주민 창작.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오랜 지

식인들이 어떻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닌 참된 혁명가로 자라났으며 우리 나라에서 지식인문제가 어떻게 빛나게 해결되였는가를 형상적으로 확인한 작품이다. 해방전에 인천 고무공장 경영주의 가정에서 태여난 주인공 송명수는 민족산업을 건설할 꿈을 안고 일본과 려순에서 야금공학기술을 배운다. 8.15해방을 맞은 어느날 송명수는 신문을 통하여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자기의 민족산업을 가지지 않고서는 민족적존엄을 지닐수 없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접하게 된다. 조선의 산업은 철저히 민족산업이 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은 송명수는 친구 최경식과 함께 서울을 떠나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온다. 어느 한 제강소에 들어간 송명수는 일제가 파괴해놓은 제강소복구건설에서 한몫한다. 그후 제강소에는 특수강생산문제가 제기되는데 송명수는 그에 대한 파악이 별로 없었다. 송명수는 그 특수강을 만들어내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임을 알고 동창생인 열공학기사 최경식과 함께 그에 대한 시험생산에 달라붙었으나 도중에 전기로가 폭파되는 사고를 내게 된다. 제강소에 잠입한 암해분자와 계급적각성이 무딘 지배인 엄원길은 이 사고를 계기로 송명수와 최경식을 쫓아버리려고 획책한다. 계급적립장과 신념이 철저하지 못한 최경식은 압력에 굴복하여 제강소를 떠나가며 송명수는 간첩혐의까지 받고 체포된다. 송명수는 홀로 번민과 고통속에 헤매인다. 그의 정신적고통은 일본류학시 기숙하고있던 집 딸인 림소연(일명 마사꼬)과의 관계로 하여 더 커진다. 뜻있는 조선청년 송명수에 대한 애정을 품고있던 림소연이 그를 찾아 려순과 서울을 거쳐 제강소에 찾아왔던것이다. 송명수는 소연을 일본녀자로 오인하고 그의 순정을 거절한다. 게다가 반동들은 송명수를 남조선으로 끌어가려고 한다. 고통스러운 나날 곽세범과 방두일을 비롯한 제강소로동자들은 송명수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항일혁명투사인 산업국부국장은 우리 당마크에 마치와 낫과 함께 붓을 새겨넣도록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전하여준다. 이 운명의 곡절속에서 주인공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사상을 실현해갈 일념을 안고 끝내 특수강생산에서 성공한다. 이 나날 주인공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제강소 기사장으로 자라나며 림소연과 가정을 이룬다. 그로부터 10년후 전후복구건설시기 주인공 송명수는 중공업성 금속관리국 국장으로 배치된다. 그곳에서는 10년전 제강소 지배인으로 있던 엄원길이 기사장으로 일하고있었다. 엄원길은 그전날의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종파분자 오부상에게 아부굴종하면서 국장자리를 넘겨다보고있었는데 송명수가 배치되여오자 시기심에 사로잡혀 그를 여러모로 헐뜯는다. 주인공에 대한 엄원길과 오부상의 모해는 용광로송풍기수입문제를 둘러싸고 더해진다. 송명수는 우리 당이 제시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공장로동자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낡은 송풍기를 자체의 힘으로 개조하려고 한다. 이에 맞서 오부상과 엄원길은 송풍기수입문제를 내각에까지 제기한다. 송명수는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내각에 그 문제를 취소할것을 제기하고 생산현장에서 로동자들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송풍기개조사업을 적극 밀고나간다. 이에 질겁한 오부상과 엄원길은 림소연의 가정래력을 들추어내면서 송명수를 위협해나선다. 림소연은 이자들의 책동으로 남편의 신상에 미칠 후과를 생각하여 집을 뛰쳐나간다. 이것은 송명수에게 큰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한편 최경식은 계급을 떠난 순수한 과학만을 추구하면서 과학원과 성의 의견 그리고 송명수의 권고를 무시하고 중간공장실험단계를 거치지 않은채 생산에 직접 들어갔다가 로폭발사고를 일으킨다. 이를 계기로 오부상과 엄원길은 송명수의 친우인 최경식을 매장해버리려고 정면으로 책동한다. 송명수는 모든 심리적고충을 완강히 이겨내고 송풍기개조에서 성공하며 최경식도 로동계급의 참다운

기술자로 교양개조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송명수의 사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헤아리시고 림소연을 집으로 빨리 데려오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며 그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신다. 그후 송명수는 주체59(1970)년초부터 중공업상의 직책을 지니고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한다. 그무렵 최경식은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ㅍ—54》강에 대한 연구를 완성하여 시험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ㅍ—54》강시험에서 성과를 거둔 최경식을 축하해주고난 송명수는 곧 시험생산보장을 위해 성남제강소로 내려온다. 현지에 내려온 그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강생산대책을 토의하는 한편 로동자들의 생활형편도 료해한다. 이때 제강소의 한 야금기사로부터 《ㅍ—54》강에 대한 비난과《병진1》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최경식으로부터 성남제강소 기사 엄철민이 연구한 《병진1》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송명수는 상으로서가 아니라 야금기사의 립장에서 그와 마주앉는다. 이 과정에 그는 《병진1》호에 내포되여있는 기발하고 대담한 착상에 감탄하게 되며 제강소문턱을 넘나들면서도 로동자들의 마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자신을 아프게 질책하게 된다. 그후 제강소 지배인 방두일의 잘못으로 하여《병진1》호의 시험생산과정에 로가 폭발한다. 송명수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이 질것을 결심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른 그를 꾸짖을 대신 오히려 그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휴양을 보내도록 하신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속에 금강산휴양소에서 휴양생활을 보낸 주인공 송명수는 《병진1》호의 2차시험생산에 달라붙는다. 최경식은 2차시험생산을 앞두고 자기가 오랜기간 연구해온 귀중한 자료들을 철민에게 넘겨줌으로써 시험생산을 성공시키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한편 엄철민은 자기의 애인 현이가 송명수의 딸이라는것을 알게 된다. 지난날 공명과 출세욕에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가 송명수와 그의 가족에게 들씌운 고통을 생각한 철민은 현이와의 사랑을 끊기 위해 연구사업마저 포기하고 사직서를 낸다. 이것을 안 송명수는 혁명가에게는 사직이란 있을수 없다면서 엄원길을 찾아간다. 마침내 철민과 그 연구집단은《병진1》호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구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젊은 기사가 큰 일을 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엄원길에게도 은정깊은 믿음을 주신다. 이러한 따사로운 보살피심속에서 곡절많은 운명의 길을 걸어온 지식인들모두는 보람차고 행복한 새생활을 꽃피운다. 작품은 곡절많은 운명의 길을 걸어오다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인간의 참된 삶을 누려가는 주인공을 비롯한 지식인들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안겨살 품은 오직 하나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품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믿고 당의 로선과 방침을 받들어나가는 그 길에 조국과 인민을 위한 참된 길이 있고 삶의 보람과 값높은 영예가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혀주고있다. 작품은 주체78(1989)년—주체84(1995)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곧바로 가는 길》 단편소설. 주체62(1973)년 박청풍 창작. 더 많은 통나무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자신의 낡은 일본새와 사업태도를 버리고 혁명적으로 일해나가는 한 일군의 혁명화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림지조건이 험한 곰골의 3작업반을 그대로 두고서는 년간통나무생산계획을 당창건기념일까지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ㅊ림산작업소 소장 김영철은 3작업반의 작업장을 곽지봉으로 옮기려 한다. 그런데 3작업반장인 아버지 김성두가 그것을 반대한다. 멀리 에돌아간 뜨락또르길대신 잉클라인을 놓으면 중간나르기시간을 훨씬 단축하여 통나무생산계획을 보장할수 있다는것이다. 운전수들속에서 통나무를 한탕 더 끌어내기

운동을 벌릴것을 호소하는 등 떨어지는 생산실적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영철은 온 작업소의 지원밑에 아버지가 밤마다 전투를 벌려 공사를 거의 끝내자 자기의 생각이 부당한것이 아닌가고 돌이켜본다. 그러나 뜻하지 않던 암반으로 난관이 제기되자 영철은 아버지에게 림지조건이 좋은 곽지봉으로 옮겨갈것을 또다시 요구한다. 헐한 림지만 골라다니며 생산계획이나 수행하려는 아들의 요령주의적사업태도에서 낡은 처서판습성이 살아나고있음을 알게 된 김성두는 아들을 준절히 꾸짖는다. 그제서야 해방전 생활을 더듬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영철은 아버지를 따라 곱끌공사장으로 올라간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오직 곧바로 걷는 길만이 어버이수령님께 충정다하는 길임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단편소설집 《생활의 길》, 문예출판사, 주체62(1973)년판〕

《곧은길》 중편소설. 주체59(1970)년 김보행 창작. 천리마대고조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제1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광산로동계급의 힘찬 투쟁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소설은 주인공 김현우를 비롯한 굴진소대원들이 전차굴건설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전투를 벌려나가는 과정을 기본줄거리로 하고있다. 광산에서는 내금지구에 파묻힌 수백만t의 쇠돌을 캐내기 위해 전차굴공사를 벌린다. 2 000m의 굴을 뚫어야 하는 이 공사는 처음부터 어려운 난관에 부닥친다. 방대한 량의 모래층과 지하수를 극복해야 했던것이다. 만일 이것을 고려하여 에돌아가면 3 000m의 굴을 뚫어야 했으며 공사기일은 1년 3개월로부터 1년 8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바로 이러한 때 굴진소대장 김현우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쇠돌은 착암기가 캐는것이 아니라 로동계급의 사상이 캔다고 하신 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소대원들에게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에돌지 말고 곧은길을 내자고 뜨겁게 호소한다. 그는 전차굴공사를 그저 단순한 굴뚫기공사로만 여기지 않는다. 현우는 이 공사를 로동계급이 당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로 생각한다. 그래서 공사에 가로놓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던 현우는 소대원들과 합심하여 종합굴진기계를 창안함으로써 굴진속도를 1.5배나 높일수 있게 한다. 단번에 여러개의 구멍을 뚫을수 있는 새 종합굴진기를 만들어낸 소대원들은 공사를 앞당겨 6달동안에 끝낼것을 결의해나선다. 그들은 뜻밖의 붕락과 버럭사태, 홍수의 위협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당앞에 결의한 공사기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희생적인 전투를 벌려 마침내 6달반동안에 2 000m의 굴을 성과적으로 관통시킨다. 이 과정에 현우는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기술신비주의에 빠져 소대원들의 힘을 믿지 않던 갱건설부장 최윤삼과 굴진공 정하수를 기술에 앞서 인간을 먼저 볼줄 아는 참된 일군이 되도록 이끌어준다. 소설은 이처럼 당을 받드는 주인공의 깨끗한 량심과 의리, 성실한 노력을 통하여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떨쳐나 빛나는 위훈을 세운 천리마시대 로동계급의 힘찬 투쟁모습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작품은 주인공 김현우, 광산당비서 김학빈과 최윤삼, 정하수 등의 대조적인 인물형상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우리모두가 삶의 궤도로 정해야 할 곧은길이며 끝까지 가야 할 혁명의 길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59(1970)년판〕

《공격》 단편소설. 주체82(1993)년 박윤 창작.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무력침공에 대처하여 인민군대를 반공격에로 이끄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비범한 령군술을 보여준 작품이다. 미제가 전쟁을 도발하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실에서는 미제침략군의 불의의 공격에 대처할 작전회의가 소집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침공한 미제를 미친개에게 비유하시고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눕혀야 한다고 하시면서 방어가 아니라 전전선에서 즉

시 일제히 반공격에로 넘어갈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의 정신은 오직 공격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이 정신으로 싸워 오늘의 전쟁을 남녘땅을 해방하는 통일전쟁으로 전환시키실 웅대한 전략적구상을 힘있게 표명하신다. 그리하여 류경수땅크련합부대는 그이의 공격명령을 관철하기 위한 주타격방향에서 진군하게 된다. 류경수땅크부대의 드세찬 공격으로 하여 짧은 시간내에 전선에서는 인민군련합부대들이 적들의 공격을 기본적으로 좌절시키고 일제히 반공격에로 이전하기 시작한다. 남으로 질주하는 땅크중대앞에 우리나라 중부의 전형적인 산협길이 막아나선다. 류경수장령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무어주시고 위대한 주체전법을 창시하시여 우리 땅크병집단을 억센 철의 대오로 키워주신 뜻깊은 나날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직접 땅크의 조종간을 힘있게 틀어쥐고 공격로를 열어나간다. 반공격의 길에 오른 인민군부대들이 적들을 38도선 남쪽으로 몰아내면서 공격성과를 급속히 확대해나가자 당황망조한 적들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포천북쪽과 만세다리계선에 물샐틈없는 방어진을 구축한다. 이 긴박한 정황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선참모장 강건에게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보병부대의 진입에 앞서 땅크부대를 대담하게 이 계선으로 진입시킬데 대한 작전적방안을 제시하신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은 류경수장령과 땅크병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였으며 그들을 명령관철을 위한 싸움에로 불러일으킨다. 그리하여 련합부대는 적들의 방어를 뚫고 또다시 진격의 길에 오른다. 소설은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하여 세계의 그 어떤 강적도 단호한 공격정신으로 단매에 무찌르시는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령군술을 잘 형상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94(2005)년 7호〕

《공민증》 서정시. 주체37(1948)년 김춘희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심으로써 처음으로 공민증을 받아안고 공화국공민의 영예를 지니게 된 우리 인민의 무한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드높은 투쟁결의를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의 진정한 공민이 되고 참다운 헌법을 가지게 된 감격과 기쁨을 긍지높이 토로하면서 《인류의 오랜 념원이 이룩되여있는 빛나는 새날속에서》처음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며 공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나가고있음을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증
그것은 새생명의 원천
또 그것은 영원한 청춘의 불씨

시에는 공화국의 공민된 높은 영예와 자랑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충정의 감정으로 표현된다는것이 시적으로 심오하게 일반화되여있다. 시는 전반에 걸쳐 정론적이며 랑만적인 격조로 관통되여있는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공산주의자》 서정시. 주체48(1959)년 김우철 창작. 항일혁명투사 리제순동지의 백절불굴의 투지와 혁명적지조를 격조높이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혜산경찰서 스산한 취조실에서 밀영지에 가닿았을 대원들을 생각하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정으로 가슴불태우는 서정적주인공의 내면세계를 펼쳐보이고있다.

숫눈길 헤치고 밀영지에 찾아가면
송진내 향기로운 우등불가에
아, 오매에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님께서
두손으로 이끌어 얼싸안으시리

시는 리제순동지의 백절불굴의 투지와 높

은 혁명가적풍모를 힘있게 구가하면서 그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전률한 원쑤들이 비록 그의 두눈에 흙을 덮기는 하였으나 반년도 못되여 멸망하였으며 그의 피가 스민 이 땅우에는 그토록 념원하던 해방의 노래가 힘있게 울리였음을 강조하고있다. 시는 함축과 비약의 수법을 옳게 리용하고 일정한 사건에 기초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서정적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여러모로 깊이있게 노래하였으며 형상전반을 높은 정론성과 전투성, 풍부한 서정성으로 일관시킨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공산주의자》(5막 7장) 희곡. 남궁만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하였던 리제순동지를 원형으로 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작품은 일제와 그 주구놈들을 반대하여 싸울 각오는 높으나 옳바른 투쟁의 길을 찾지 못하여 모대기던 리제순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는 과정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마을의 십가장의 일을 맡아보고있던 리제순은 농민들을 선동하여 3.7제투쟁을 벌리나 지주 전가놈에 의하여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유격대가 마을의 경찰놈들을 처단하고 지주로 하여금 3.7제를 받아들이게 한다. 유격대를 따라 밀림속에 들어간 리제순은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간직한 주인공 리제순은 마을에 돌아와 반일혁명조직들을 꾸리고 유격대원호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간다. 리제순은 창바이(장백현)의 여러 마을 조직책임자들의 모임을 가지고 원군사업과 참군사업실태를 료해하고 조직사업을 진행하며 청년들을 전취하는 사업도 활발히 벌려나간다. 작품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유격대를 찾아가는 50여명의 귀중한 동지들을 엄호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된 주인공이 사형언도를 받게 되는 장면에서 끝난다. 작품은 옳바른 투쟁의 길을 찾지 못하여 모대기던 주인공이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에 발휘한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49(1960)년에 연극으로 창조되였다.

《공작지에서》 단편소설. 주체59(1970)년 김보행 창작. 앞으로 창건될 유격대의 무장을 갖추기 위해 공작임무를 수행하는 반제청년동맹원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오성만은 강남촌 촌장인 마지주놈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다. 그는 지주집을 뛰쳐나가 친구인 용수와 함께 야학선생을 따라 구위수(고유수)에 가서 학교에 입학하고서야 비로소 세상리치를 깨닫고 혁명의 뜻을 품게 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품에 안긴 오성만은 열심히 배웠으며 드디여 조선혁명군대원으로 자란다. 그러나 홀로 남겨두고 온 어머니 생각으로 그의 시름은 깊어만 갔다. 아무리 수소문해야 아들을 찾아 정처없이 떠났다는 어머니소식을 알수 없었다. 하루는 지휘부에서 주인공에게 용수네가 구해놓은 수류탄과 탄알들을 운반해올데 대한 공작임무를 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이 과업을 오성만에게 맡기도록 말씀하시였다는것이다. 주인공은 마차부로 가장하여 이 임무를 수행하는 어려운 정황속에서 뜻밖에도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 성만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과정에 어머니도 혁명의 길에 나섰다는것을 알게 된다. 소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넓고 뜨거운 사랑의 품이 있기에 오성만일가와 같은 피압박인민들이 혁명의 리치를 깨닫고 어엿한 혁명가로 자랄수 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59(1970)년 10호〕

《공장길》 단편소설. 주체50(1961)년 권정웅 창작. 어느 한 기계공장의 직장장이 사

업과정에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공장적으로 소형뜨락또르 시제품생산과제를 기한전에 끝내기 위한 전투가 마지막단계에 들어서던 어느날 직장장 전영수는 며칠째나 뜨락또르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기판본체에 대한 주물오작사고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자 당위원장을 찾아가 완성날자를 미루어달라고 한다. 당위원장은 그에게 로동자들자신이 결의한 날자인것만큼 그들속에 들어가 방도를 찾으라고 한다. 무거운 마음으로 직장에 내려와 작업반들을 돌아보던 그는 졸고있는 명숙이를 보자 작업반장을 불러 추궁한다. 그날 저녁 강에 나가 주물사를 씻어보면서 모래가 나쁜데 사고의 원인이 있다는것을 알아낸 영수는 급히 대책을 세우려고 돌아서다가 웃쪽에서 강바닥의 모래를 파내고있는 명숙이와 작업반장을 보게 된다. 작업반장으로부터 명숙이가 가대기를 끌며 농사를 짓던 부모들에게 뜨락또르를 보내주기 위해 누구보다도 애쓰는 처녀라는것을 알게 된 영수는 사람을 계산과 측정의 방법으로 평가하려고 했던 자신의 사업방법이 얼마나 뒤떨어졌던가를 느끼게 된다. 그날 새벽까지 그들과 함께 주물사를 파낸 영수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속에 들어가라던 당위원장의 말을 다시금 심장속에 되새긴다. 작품은 주인공이 찾게 되는 교훈을 통하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새날의 창조자들》,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50(1961)년판〕

《공중무대》 영화문학. 김세륜 창작. 남새온실에서 일하던 한 처녀가 교예배우가 되여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는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현대적인 남새온실에서 성실하게 일하고있는 금주는 학생때 축전에서 자기의 예술적재능을 보여준 일이 있었다. 교예극장에서는 금주의 남다른 재능을 보고 그를 교예배우로 키우려고 하나 그의 어머니와 온실작업반장은 그것을 달가와하지 않는다. 그들은 온실에 찾아온 공중교예배우인 강명호가 금주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쓴다. 교예극장에 처음으로 간 금주 어머니와 온실작업반장은 여기저기 헤매다가 그만 공연중인 무대에 우연히 뛰여들어 교예를 보게 된다. 여기서 그들은 교예도 훌륭한 예술이라는것을 비로소 알게 되며 금주의 아버지와 작업반장의 안해인 분조장의 깨우침에 의하여 금주를 교예극장으로 보내는데 찬성한다. 이리하여 금주는 공중교예배우로 되여 자기의 희망과 예술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운다. 작품은 경희극적인 양상을 잘 살리면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새 세대 청년인 금주의 청신하고도 생기발랄하며 귀엽성스러운 성격적특질과 함께 금주가 교예배우로 되는것을 찬성하는 긍정인물인 금주의 아버지와 분조장의 성격, 교예예술을 자본주의사회의 곡마단처럼 생각하며 금주가 교예배우로 되는것을 반대하는 금주의 어머니와 작업반장의 성격을 작품의 종자와 양상에 맞게 생동하게 잘 그리였다. 작품은 락천적인 웃음속에서 긍정에 의하여 부정이 감화되고 교양개조되는 과정을 생활적으로 잘 그린 특성을 가진다. 작품은 주체61(1972)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공청원의 노래》 영화문학. 작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높이 받들고 혁명투쟁에 떨쳐나선 청년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어느 공장 지배인으로 일하고있는 공청원출신인 항일혁명투사 삼선이가 민청 제5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으로 오면서 렬차에서 항일무장투쟁시기 공청원들의 투쟁을 감회깊이 회상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일제놈들에게 아버지를 잃고 울분과 복수심에 못이겨 분별없이

행동하던 삼선은 공청조직의 지도를 받으면서 혁명적으로 각성되기 시작한다. 일제의 수비대병영폭파사건으로 하여 공청원들과 함께 체포된 삼선은 류치장안에서 항일유격대원인 최만상을 알게 되며 그를 통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일제놈들을 때려부셔야 조국을 해방하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삼선은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되여가는 도중 렬차안에서 탈출하여 항일유격대에 입대한다. 어느날 정찰임무를 받고 마을로 내려간 삼선은 일제경찰놈들에게 끌려가는 어머니와 동생을 보면서도 혁명임무를 위하여 참고 자기에게 맡겨진 정찰임무를 훌륭히 수행한다. 그후 삼선은 어머니와 녀동생, 공청원들이 갇혀있는 성시를 해방하는 전투에서와 사령부를 지키는 싸움에서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한다. 특히 삼선과 창구, 순희 등 공청원들은 고지에서 적들과의 마지막육박전을 앞두고 세대는 바뀌고 세월은 흘러가도 조국은 자기의 아들딸들을 잊지 않을것이며 후대들은 우리의 투쟁을 이을것이라고 하면서 싸움터로 달려나간다. 작품은 회상에서 깨여난 삼선이가 인민군장령인 옛 전우 창구와 함께 평양역에 도착하여 마중나온 안해 순희와 함께 평양학생소년궁전으로 향하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했던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주인공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잘 구현하였다. 작품은 주체53(1964)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공화국사람》 장편소설. 주체94(2005)년 석남진 창작.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새삶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끝까지 지켜낸 한 비전향장기수를 형상한 작품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가 주체45(1956)년 10월 적들에게 체포된 류정기는 해방전에 이미 옥살이를 한 체험을 가지고있다. 중국 동북지방의 펑티엔(봉천)권투구락부에서 조선사람의 넋을 지켜 살려고 한것이 죄로 되여 왜놈감옥에 갇혀있던 그는 해방과 함께 저주로운 옥살이를 끝장내고 보안서원으로, 공화국의 검사로 성장한다. 당시 신의주에 있던 정기는 반동들의 사촉밑에 일어난 신의주학생사건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이곳에 오시여 란동을 부린 학생들을 모두 용서해주도록 하신 감동적인 사실을 대하면서 우리 조국은 어버이수령님의 인덕정치가 꽃펴나는 인민의 새세상이며 우리 주권의 법은 수령님의 인덕정치를 법적으로 담보하고 받들어야 할 참다운 인민의 법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한다. 해방전 온갖 민족적천대와 멸시를 받아온 고모사촌누이가 신의주방직공장의 평범한 로동자로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최상의 영광을 지닌것도 정기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소중한 추억들은 정기로 하여금 교도소장 한성구, 보안과장 서병국, 괴뢰중앙정보부 국장 리문석등과의 첨예한 대결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되게 한 중요한 정신적원천이였다. 해방전 중국 펑티엔(봉천)권투구락부에서 정기와 함께 지낸바 있는 한성구놈은 소위 옛정을 떠벌이며 그에게 여러가지 특별환대를 베푼다. 놈은 특히 월북미수죄로 감옥에 잡혀온 서울대학교 학생 김명환의 어머니 리미선녀성을 통해 주인공의 마음을 돌려세우려고 어리석게 피한다. 한성구놈의 검은 속심을 꿰뚫어본 정기는 리미선과의 특별면회때 놈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를 각성시키며 반공교육의 후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있는 명환을 교양개조한다. 그는 전쟁시기 적후정찰을 나왔다가 체포된 허봉래가 놈들의 악착한 고문으로 사경에 처하자 감옥안의 좌익수들을 합성투쟁에로 불러일으켜 그의 병치료를 요구해나선다. 이에 악이 받친 한성구놈은 위선과 가면을 벗어던지고 서병국 등 졸개들을 시켜 정기에게 모진 고문을 들이댄다. 그뿐아니라 제놈의 모략으로 연출된 어느 호텔

의 식사에서 정기가 복막염으로 의식을 잃자 마지못해 수술을 받게 하고 그가 혼수상태에 있는 기회를 리용하여 가짜전향서를 날조하려고 한다. 그러나 놈의 책동은 정기에 의하여 파탄된다. 다시금 감방에 끌려간 정기는 지리산빨찌산출신의 정호식, **김일성**종합대학 철학교원이였던 박성우 등과 함께 김명환이 들여보낸 위대한 수령님의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보고내용을 학습하고 그 내용을 다른 감방들에도 알려준다. 한편 옥중투쟁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교도소안에 지하조직을 내올것을 발기하고 그 조직책임자로 선출된 그는 조직을 강화하고 성원들을 의식화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린다. 어느날 주인공은 감방벽에 《통일조국의 법전 제1조 통일조선의 최고령수는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시다》라는 글자를 새긴것이 발각되여 대포수정을 찬채로 련 사흘째 살인적인 비행기고문을 당한다. 이것을 알게 된 비전향장기수들은 정기를 구원하기 위한 집단단식투쟁을 힘있게 벌려 놈들을 전률시킨다. 드디여 한성구놈은 파면되고 수십년의 기나긴 옥살이를 이겨낸 주인공은 오매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으로 돌아온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비전향장기수들이 적들의 모진 악형과 고문에 굴함없이 사상과 신념을 지켜싸울수 있은 요인을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그것은 주인공뿐아니라 다른 비전향장기수들의 추억을 통해서도 여러모로 밝혀지고있다. 즉 허봉래는 해방전 야금기사로 일한것이 문제가 되여 해방후 친일파로 몰려 몹시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있을 때에 함경북도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몸소 그의 집에까지 찾아오시여 하루빨리 쇠물을 뽑아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고무해주며 믿어주고 내세워주신 꿈같은 사연을 간직하고있었다. 또한 정호식은 신의주학생사건 당시 도당청사를 지키던 류정기의 얼굴에 잉크병을 던지고 법적처벌을 받게 된 상태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빛발을 받아안고 재생의 길을 걸은 학생들중의 한사람이였으며 박성우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출중하신 풍모와 비범한 예지, 해박한 식견을 직접 체험한 행운아였다. 소설은 인생의 참맛을 알고 행복의 절정에 올랐던 가지가지의 추억들이 있어 비전향장기수들이 공화국의 품을 지켜 끝까지 싸워 이길수 있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소설은 주인공을 비롯한 긍부정인물들의 호상관계를 극적으로 깊이있게 맞물리고 극성이 강한 인상적인 생활장면들과 세부들을 펼침으로써 극적견인력을 높이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4(2005)년판〕

《공화국의 재부》 단편소설. 주체76(1987)년 리영준 창작. 자그마한 피나무궤짝에 담겨진 사연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은 오직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서만 참다운 공화국의 재부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일군인 권오혁은 청사앞에서 보안서원들에게 둘러싸여 부는 한 소년의 귀익은 피리소리를 듣고 회상에 잠긴다. 권오혁이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국내공작임무를 받고 조국광복회 부산지구조직에서 일하고있을 때 그곳 가대기군들속에 최의범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는 청동투구며 서화를 비롯한 몇점의 력사유물이 든 피나무궤짝이 있었는데 어느날 죽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때식을 장만하군 하던 아들 영선이가 주림을 참다못해 청동투구를 왜놈 골동품가게에 판다. 격분하여 아들의 뺨을 친 최의범이 그달음으로 왜놈주인을 쳐갈기고 청동투구를 찾아왔으나 그날 저녁으로 경찰에 체포되며 권오혁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달려가 피나무궤짝을 안고 뒤산에서 헤매는 영선을 구원한다. 회상에서 깨여난 권오혁은 보안서원들에게 둘러싸여있는 소년이 영선임을 알아보며 그에게서 그후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해방이 되여 풀려나온 최의범은 민족문화재를 짓밟는 미군정의 만행에 가슴을 치다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국보보호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시였다는 보도기사에 접하고 피나무궤짝을 안고 공화국북반부로 향한다. 그러나 사상범체포소동이 벌어지자 달리는 기차에서 뛰여내리다가 부상을 입은 그는 아들 영선에게 피나무궤짝을 꼭 평양으로 가져가달라는 마지막말을 남긴채 운명한다. 소설은 피나무궤짝을 둘러싼 사건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내 나라도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도 존재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76(1987)년 11호〕

《곶감》 단편소설. 주체55(1966)년 류도희 창작. 행군도중 대원들사이에 주고받은 곶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혁명적동지애로 굳게 결합된 항일유격대원들의 숭고한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생눈길을 헤치며 수림속을 행군해가던 어느날 대렬 맨뒤에서 걷고있던 나어린 대원인 금석이가 철수에게 다가와 곶감 한개를 내밀었다. 순간 철수는 너무도 기특하고 대견하여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번 행군길은 너무도 간고하여 이미 유격대생활을 몇해씩 해온 대원들도 힘겨워하는데 아침에도 눈녹인 물만 마시고 떠난 어린 대원 금석이가 얼마나 지치고 배고프랴 하고 생각하고있었는데 그런 금석이가 자기에게 곶감을 가져온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금석은 철수에게 또 한개의 곶감을 가져온다. 한달전 왜놈수비대창고를 칠 때 얻은 그 곶감을 금석은 한개도 먹지 않고 배낭속에 고이 간수했다가 간고한 행군길에서 동무들에게 나누어주고있었던것이다. 며칠후 불의에 나타난 적들과의 조우전에서 부상당한 금석이가 후송되였을 때 철수는 그의 배낭에 아직 두개의 곶감이 남아있는것을 보게 된다. 그것이 지휘관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남겨놓은것임을 알게 된 철수는 이미 받아두었던 곶감 2개를 도로 금석의 배낭에 넣어준다. 소설은 곶감에 깃든 세부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항일유격대에 세차게 굽이치는 뜨거운 관병일치, 혁명적동지애를 인상깊게 보여주면서 이처럼 숭고한 의리로 뭉친 대오는 필승불패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5(1966)년 제83호〕

《교두보에서》 단편소설. 주체67(1978)년 정기종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우들의 방조를 받으며 용감한 군인으로 성장하는 나어린 인민군전사의 성격발전을 그린 작품이다. 분대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수범은 락동강도하전투때 물에 빠뜨릴번 한 중기를 구해내여 전우들의 칭찬을 받게 되는데 특히 전투때마다 수범이를 도와주는 《참모》로 불리우는 상등병은 그가 훌륭한 전사로 될수 있다고 기뻐한다. 그후 부상당한 사수를 대신하여 중기를 맡은 《참모》는 전투때마다 자기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수범이가 원쑤들을 정확히 쏘아맞히도록 관심을 돌리며 용감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고무해준다. 적들이 차지한 주먹릉선을 점령하기 위한 전투를 하루 앞둔 날 중기부사수로 임명된 수범은《참모》가 부상당한것을 알면서도 그의 완강한 요구에 의해 끝내 중대장에게 말하지 못한다. 전투가 끝난 후 중기압철을 누른채로 숨진《참모》를 보면서 수범은 조국을 위해 희생적으로 싸운 그의 위훈을 본받아 더욱 억세게 싸우리라 마음다진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미제를 격멸하고 조국을 수호한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67(1978)년 6호〕

《교수의 시간표》 단편소설. 주체79(1990)년 방하일 창작. 과학자의 시간은 자기 개인의것이 아니라 조국의 시간이고 당과 수령의 의도를 실현하는 시간이라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주인공 신구림교수는 사람은 단순한 물리적시간으로가 아니라 조국에 복무한 시간만큼 산다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한시간에 두시간을 살고싶어하는 백발의 과

학자이다. 그는 이미 60이 되였고 건강이 좋지 않아 연구소에서는 교재집필이나 하라고 권고하였지만 우리 식의 새로운 제철법을 완성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연구소와 대학교단을 떠나 제철소로 내려간다. 제철소에 내려온 그는 ㅈ제철법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날자별, 시간별 시간표를 짜놓고 몇년세월을 하루한시도 드팀이 없이 연구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마침내 성공하게 된다. 소설은 자신뿐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엄격한 요구를 제기하고 과학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하도록 추동하는 신구림의 형상을 통하여 모든 과학자들은 주체조국의 과학자라는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는것을 예술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소설은 신구림의 시간에 대한 관념을 그의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립장과 태도와의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보여줌으로써 물리적인 시간을 과학자의 운명적이고 사활적인 시간으로 승화시켰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9(1990)년 1호〕

《교장과 녀교원》 단편소설. 주체51(1962)년 리정수 창작. 학생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신임녀교원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천리마시대의 한 교육일군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사범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공화국의 이름난 모범학교에 배치된 긍지를 지닌 순희는 로력영웅인 교장처럼 훌륭한 교원이 될 결심을 품고 자기가 담임한 학급을 모범학급으로 꾸리기 위해 애쓴다. 그는 지각생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수업시간이 5분 지나면 교실에 들어설수 없다는 규률을 세우고 그것을 엄격히 집행해나간다. 신임녀교원의 강한 요구성에 의하여 물이 불어난 개울을 건느다가 넘어진 영란학생은 젖은 옷을 입은채 복도에서 두시간동안 떨게 되며 련이어 이틀을 지각하던 룡길학생은 속보판에 비판기사까지 나붙자 결석을 한다. 그러나 교장은 따뜻한 애정으로 영란이의 옷을 말리워주고 그의 잘못을 따뜻이 일깨워주며 출장길에서 돌아온 그날밤으로 룡길이의 집을 찾아가 전쟁시기 부모를 다 잃은 그가 출장간 형님을 대신하여 집안일을 도맡아하느라 지각했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제서야 순희는 학생들에게 강한 요구성만 제기하고 그들을 뜨겁게 대해주지 못한 자신을 뉘우친다. 소설은 교장과 신임녀교원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하여 학생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가는 교원들에게는 어머니다운 애정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51(1962)년 4호〕

《구국투쟁가》 가사. 주체37(1948)년 리원우 창작.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반미구국투쟁에 전체 인민이 떨쳐나설것을 힘있게 호소한 작품이다. 가사는 매절의 첫 두행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괴뢰도당의 반인민적책동으로 말미암아 피로 물들고 암흑천지로 화한 남조선사회의 현실과 미제와 괴뢰정권의 억압을 짓부시기 위하여 목숨걸고 일떠선 남녘인민들의 불굴의 투쟁기세를 노래하고있으며 나머지 두행들에서는 북과 남의 전체 조선인민이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구국항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격조높이 호소하고있다. 가사는 억세고 절절하면서도 호소성이 강한 시적표현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시대적지향을 힘있게 구현함으로써 조국통일주제의 성과작으로 되였다. 〔《조선음악전집》 1,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구대원과 신대원》 단편소설. 주체41(1952)년 윤세중 창작. 준엄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인민군전사들사이에 오가는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와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한 미풍을 구대원과 신대원사이의 관계를 통하

여 보여준 작품이다. 주인공 부분대장 장수철은 소대에 새로 배치되여온 신입대원들의 환영모임을 한 후 신입대원 박성구에 대한 지도를 맡게 된다. 이튿날부터 수철은 자기의 전투경험을 성구에게 이야기해주면서 그를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키우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그러던 어느날 장수철은 박성구와 함께 고지 돌출부로 잠복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떠난다. 두 전사는 고지 돌출부를 끝까지 지키며 달려드는 원쑤들을 무리로 쓸어눕힌다. 치렬한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류탄과 탄알이 떨어지자 수철은 혼자서 놈들과 결사전을 벌릴 각오를 하고 박성구를 중대에 보낸다. 중대에 갔던 성구는 비발치는 탄우속을 뚫고 수류탄과 탄알을 가지고 잠복초소로 온다. 전호가에 쓰러진 수철을 본 성구는 단신으로 적진속에 뛰여들어 수십명을 쓸어눕히며 도망치는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긴다. 부상당한 장수철은 용감한 전투원으로 자란 박성구에게 자기의 잠복초소를 인계해주고 후송되여 병원으로 간다. 작품은 전쟁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혁명적동지애를 발휘하여 서로 도와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며 단련되는가 하는것을 보여주었으며 아무리 전쟁이 가렬하고 원쑤들의 발악이 극심해도 우리 인민군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히고있다. 〔《조선단편집》 2, 문예출판사, 주체67(1978)년판〕

《구름속으로 사라진 마차》 가사. 주체52(1963)년 림종근 창작. 평활하고 대담한 전술로 일제《토벌》대놈들을 통쾌하게 쳐부신 항일유격대원들의 빛나는 투쟁모습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에서는 일제《토벌》대의 군용마차를 빼앗아타고 감쪽같이 사라졌다가는 불의에 나타나 놈들을 기습소탕하면서 궁지에 몰아넣는 항일유격대원들의 통쾌한 전투장면을 생동한 형상적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가사는 이러한 형상적화폭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유격전법의 거대한 생활력과 항일유격대원들의 멸적의 전투기상 그리고 그들이 지니고있는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궁지에 빠져 허둥지둥 헤매는 일제놈들의 가련한 몰골과의 대조속에서 보여주고있다. 가사는 소재와 사상주제적내용의 특성에 맞게 극적줄거리를 재치있게 엮고 적들의 몰골을 풍자적으로 형상함으로써 개성이 뚜렷한 형상적화폭을 창조하였다. 가사는 또한《덜렁덜렁》, 《데굴데굴》, 《와하하하》 등과 같이 대상의 특성에 맞고 음률적효과성이 높은 시어들을 적극 찾아 활용함으로써 노래가사로서의 음악적특성도 뚜렷이 살리였다. 〔《조선음악전집》 1,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구름우의 락원》 서정시. 주체65(1976)년 강현세 창작. 개마고원의 눈부신 전변을 노래한 작품이다.

> 개마고원, 개마고원
> 조선의 지붕이여!
> 너의 강과 산은 굼실대는 바다처럼 정겨웁고
> 너의 언덕들은 어머니 젖가슴처럼 부드럽다

시에서는 옛날에는 애달픈 화전농의 얼굴처럼 빛갈조차 거멓던 개마고원의 강산이 언제부터 이렇듯 빛나게 되였느냐고 하면서 사납던 바람도 수림속에 깃들고 양떼가 흘러가고 천리밀밭이 설레이며 감자꽃이 하얗게 덮여 향기풍기는 개마고원의 아름다운 전경을 노래하고있다. 시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화전농의 오랜 습성을 주체농법의 보습날로 갈아엎고 과학농사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그때로부터 개마고원에 전변의 새 력사가 펼쳐졌음을 힘있게 강조해주고나서 구름우의 락원인 개마고원을 해종일 걸어보고싶다고 토로하고있다. 시는 개마고원의 전변을 함축되고 정제된 시적형상으로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해방후

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구름우의 해빛》 장편소설. 주체94(2005)년 송상원 창작. 소설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여 40년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지켜 굴함없이 싸운 비전향장기수의 투쟁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조국해방전쟁이 우리 인민의 승리로 끝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주체43(1954)년 7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계속 유격투쟁을 벌리던 항미련대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많은 동지들을 잃고 대장이하 세명의 대원들만이 남는다. 심한 부상을 당한 부대장 오영진은 남은 대원들에게 4년간의 전투행로와 800명 성원들의 명단이 들어있는 레포(매 대원들의 전사한 날자, 시신을 묻어준 지명, 그들에 대한 표창내신서가 들어있는 통)를 평양에 전달할것을 위임하고 달려드는 적들앞에서 수류탄을 안고 자폭한다. 대장의 련락병이였던 주인공 김형택은 두명의 대원과 함께 레포를 평양에 전달하기 위해 간고한 시련을 헤치며 북으로의 길에 올랐으나 적들의 끈질긴 추격속에서 다른 대원들은 다 희생되고 홀로 적들의 포위에 들게 된다. 김형택은 레포를 바위짬에 숨겨놓고 적들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여 체포된다. 적들은 그가 받은 임무가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고문을 들이댄다. 그러나 그가 굴복하지 않자 형택을 재판에 넘기고 그에게 처음에는 사형을, 그후에는 무기징역을 언도한다. 형택이 감옥생활을 하는 기간 적들은 그에게 사상전향을 강요하면서 악착한 고문을 가하고 남쪽에 있는 그의 어린 딸이 불쌍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통일애국의 리념을 가슴에 새기고 투쟁에 나선 형택은 그 리념이 옳다는 확신을 더 굳게 다지고 그것을 저버리는것은 희생된 수백명 항미련대전우들의 넋을 배반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적들과 맞서 굴함없이 싸운다. 그는 함께 감옥생활을 하는 동지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희생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고성기를 가지고 자체로 만든 라지오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투쟁 소식을 듣고 동지들에게 전해준다. 그리고 통일애국투사들에 대한 원쑤들의 가혹한 탄압과 학대행위를 반대하여 집단적인 단식투쟁을 벌린다. 6.15공동선언이 채택되고 비전향장기수들의 조국에로의 귀환이 결정되였을 때 형택은 40년만에 감옥에서 나와 옛 전투장으로 가서 숨겨놓았던 레포를 찾아낸다. 그는 남쪽땅에 지금껏 아버지를 그리며 홀로 사는 딸의 가긍한 처지가 마음에 걸렸으나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는것이 통일의 날을 앞당기는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전우들의 위훈이 적힌 레포를 안고 북으로 가는 뻐스에 오른다. 조국의 품에 안긴 후 형택은 오영진의 딸을 만나 그의 아버지가 되여주며 오영진의 고향사람들앞에서 자신이 40년간의 감옥생활속에서도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지킬수 있은것은 먹구름을 헤치고 자기를 구원해줄 해빛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이 가슴속에 간직되여 있었기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소설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굳은 확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충정은 평범한 전사도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로 키운 거대한 사상정신적힘이였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소설은 주인공의 시점에서 1인칭형식으로 씌여진 작품으로서 인물의 내면세계를 섬세하게 드러내고 통일애국투사로서의 주인공의 성장과정을 인상깊게 보여주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4(2005)년판〕

《구슬땀》 단편소설. 주체84(1995)년 강성일 창작. 어느 광산에 지원나온 대학생들의 생활의 일단을 그리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에서 진정한 대학생으로서의 자세와 자각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다. 방학기간을 리용하여 북부지구 금덕광산에 로력지원나가던 나는 렬차칸에서 역시 같은 목적으로 그곳에 가는 바다가양식공처녀 남희와 대학생처녀

은희를 알게 된다. 광산에 도착한 뒤 갱막장에 들어가 착암작업을 하던 나는 갱밖의 선광장쪽에서 실험복을 입고다니는 은희를 좋지 않게 생각하며 광부들의 땀과 수고에 대하여 알려거든 갱에 들어가보라고 충고한다.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던 나는 며칠후에야 그동안 은희가 수십년 쌓인 미광에서 수천t의 희유금속을 얻어낼수 있는 방도를 연구해냈다는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는다. 그제서야 나는 광부들의 땀에 대하여 아는것보다 그 땀방울을 보석으로 빛내이는것이 더 중요하며 광부들이 대학생인 나에게서 진실로 바라는것은 은희처럼 채굴공학전문가로서의 진짜 땀을 바치는것임을 깨닫는다. 소설은 대학생들이 학습과 과학연구성과로써 나라의 부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집《전사의 의리》,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4(1995)년판〕

《구월포의 노래》 단편소설. 주체47(1958)년 백철수 창작.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을 안고 정열적으로 일하며 로동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는 구월포사람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새로운 교향곡을 구상해오던 작곡가는 작품창작을 위해 구월포작업반에 모내기지원자로 간다. 농장원들과 함께 모를 내던 작곡가는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마음으로 살며 일하도록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고무해주는 작업반장 순덕에게서 강한 정신적충격을 받으며 생활과 유리된 자신의 창작세계를 돌이켜본다. 모내기를 말끔히 끝낸 어느날 밤 작업반원들은 철을 놓치지 않고 미역을 따기 위해 순덕의 뒤를 따라 홰불을 들고 앞바다로 나간다. 밤이 깊어 농장원들이 지쳐있을 때 순덕은 로동속의 희열을 담은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을 고무한다. 생활이 낳은 예술로 사람들을 보람찬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순덕의 희망과 열정에 찬 강한 의지력앞에서 작곡가는 자기의 허공에 뜬 창작세계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며 로동하는 인간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그들의 줄기찬 생활감정을 담은 새로운 교향곡을 창작할 결의를 다진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시대앞에 지닌 의무를 자각하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힘과 지혜를 다 바쳐 투쟁하는 천리마기수들의 고상한 풍모를 감명깊게 보여주었으며 시대의 숨결이 힘있게 맥박치는 훌륭한 예술을 창조하려면 들끓는 현실에 들어가야 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인하였다. 〔《조선단편집》2, 문예출판사, 주체67(1978)년판〕

《국기훈장》 단편소설. 주체43(1954)년 리기순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비행기를 쏘아떨구고 훈장을 탄 한 비행기사냥군조원의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철민은 군대에 입대한지 얼마 안되여 신문에 훈장수여자들의 이름이 날 때마다 남편이 없는가 살펴본다고 하며 전승의 날 훈장과 메달을 가슴가득 달고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써보낸 안해의 편지를 받는다. 철민은 그날부터 조국을 위한 길에서 안해앞에 떳떳이 나서기 위하여 훈련과 상학, 취침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에서 다른 동무들의 앞장에 서는 한편 적비행기를 잡는 저격무기에 대한 상학에도 열성스럽게 참가한다. 조준수가 된 철민은 짬시간이 생겨도 조준훈련을 하며 적비행기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린다. 어느날 그는 적비행기가 달려들자 우박치듯 쏟아지는 기총탄속에서도 침착하게 조준하여 한대의 적기를 쏘아떨구고나서 또 한대를 겨냥하다가 중상을 입고 쓰러진다. 철민은 달려와 일으키는 동무에게 자기는 걱정말고 빨리 쏘라고 떠밀어 또 한대의 적비행기를 명중시키게 한다. 철민은 첫 전투에서 세운 공로로 하여 국기훈장을 받는다. 작품은 안해의 편지를 조국의 부탁으로 생각하고 부끄럽지 않게 싸우기 위하여 애쓰는 주인공의 성격을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또한 작품은 앞가슴에 훈장을 단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고무해준 이 나라 녀인들을 찬양하면서 훈장은 당과 수령을 받드는 길에서 새겨진 위훈

의 표시라는것을 뚜렷이 강조하고있다. 〔군무자단편집《전호속에서》,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3(1954)년판〕

《군공메달》 단편소설. 주체75(1986)년 김정민 창작. 지금은 어느 한 려관의 책임자로 일하고있는 주인공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대취사원의 임무를 수행하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출장길에 올랐던 나—영수는 려관에 들렸다가 옛 전우를 알아보고 그에 대하여 회상한다. 영수의 전우인 황보창곤은 전쟁시기 중대의 취사원이였는데 그는 식당일도 전투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는데 대하여 조금도 아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후방일이나 하는 그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어느날 그와 같이 식당일을 하게 된 나는 그가 습격전투에 나간 동무들의 밥이 식지 않게 하고 입맛을 돋구려고 밥에 기름을 치는 등 정성을 기울이며 또 적들이 달려들었을 때에는 목숨을 내대고 놈들을 쳐물리치고 군의소로 후송되는것을 보게 된다. 나는 황보창곤의 그런 희생정신은 적어도 전사영예훈장1급에 해당될것이라고 간주하고있었는데 그에게 군공메달이 수여되자 평가에서 잘못된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조국이 무엇을 주던 고맙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하면서 조국이 주는 은공을 두고 이러쿵저러쿵하는자들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소설은 황보창곤의 생활과 정신세계를 통해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맡겨진 일을 책임적으로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해놓은 일에 대하여 보수를 먼저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문학통보》, 주체75(1986)년 제14호〕

《군관신분증》 단편소설. 주체87(1998)년 전인광 창작. 대를 이어 총을 틀어쥐고 군사복무의 길을 이어가는 한 가정의 생활을 통하여 총대의 귀중함을 보여준 작품이다. 1907년 정미사변때 조선군대해산에 항거해 떨쳐나선 군사들중의 한사람이였던 첫째의 아버지는 《토벌》대 중위 야스께 미노루놈을 절름발이로 만들어놓고 도망친다. 그후 룡천제염소에서 배사공으로 일하던 그는 《동척》리사가 된 야스께놈에 의하여 잔인하게 살해된다. 마을의 덕삼아바이에게서 자기 아버지의 래력에 대해 알게 된 첫째는 제염소분소장 박지렬놈의 집에서 머슴으로 있던 자기 애인 분이를 유린하려던 야스께놈에게 달려들었다가 그만 태평양의 어느 한 섬에 끌려가 징용살이를 강요당한다. 그후 정신대로 끌려가던 도중 자살하려고 렬차에서 뛰여내린 분이는 어느 고마운 로인내외에 의하여 구원되며 해방후 고향으로 돌아와 첫째를 기다린다. 한편 징용에서 돌아온 첫째는 총을 가지고 수상경비대 대장에게 찾아가 입대를 청원한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항일투사는 입대를 승인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을 지키는 강철기둥이 되라고 그의 이름을 강철국으로 지어주고 그를 새로 설립된 수상보안간부학교로 떠나보낸다. 철국은 학교를 졸업하고 경비정장이 되여 고향을 찾아온다. 마을사람들의 축복속에 가정을 이룬 철국과 분이는 서해의 한 군항에서 새살림을 꾸린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철국은 항입구에서 기뢰부설임무를 수행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남편의 최후소식을 듣고 분이는 덕삼아바이에게 아들 철해를 맡기고 야전군의소 간호장이 되여 전선으로 떠난다. 소설은 전쟁이 끝난지 20여년이 되는 어느해 가을 해군대학을 졸업하고 해군정장으로 배치된 아들 철해가 인민군병원에서 사업하는 어머니를 찾아와 군관신분증을 내보이는데서 끝난다. 작품은 해방전 군력이 약한탓에 나라를 잃고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겪어야 했던 주인공들이 해방후 총대를 틀어쥐고 조국과 행복한 삶을 지켜낸 이야기를 군관신분증이라는 평범한 세부를 통해 인상깊게 보여주면서 총대가 있어야 조국도 있고 행복한 삶과 미래도 있다는것을 철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

《군관의 안해들》 영화문학. 김용철 창작.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남편들과 어깨나란히 살며 투쟁해나가는 군관의 안해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준 작품이다. 려단장의 안해이며 군관가족소대장인 주인공 순임은 병사들을 위한 날을 정해놓고 병사들의 육체적상태와 식성에 맞는 음식들을 마련하느라 온갖 지성을 다한다. 가족소대원인 옥분이도 남편이 전사한지 오래지만 소대를 뜨지 않고 병사들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바친다. 그러나 갓 결혼한 대대장의 안해인 혜경은 이들의 가슴속에 깃든 뜨거운 사연을 알수 없었기에 군인들이 노래를 요청할 때도 남들앞이라고 달아나며 새끼물고기를 얻으러 갔다가도 애써 노력하지 않고 남편을 위한 음식감만 가지고 돌아온다. 이러한 혜경에게 순임은 군관의 안해들은 자기 남편과 자식들만을 위해 살것이 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병사들의 친어머니, 친누이로 살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자기의 체험과 옥분의 소행을 례들어 일깨워준다. 려단이 오중흡7련대칭호쟁취를 위한 판정을 받던 날 2차수술을 앞둔 아들을 찾아 평양으로 떠나던 순임은 부대의 강행도하지점이 불의에 달라졌다는것을 알고 차에서 내려 억수로 퍼붓는 비발속을 헤치며 가족소대가 식사준비를 하는 곳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끓는 가마를 이고 소대와 함께 도하지점을 향해 앞장서 달린다. 군관의 안해들은 혜경의 선창에 맞추어 도하하는 군인들을 향해 신념의 노래, 고무의 노래를 높이 부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사들의 친어머니, 친누이가 되여 그들의 생활을 물심량면으로 돌봐주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오중흡7련대칭호쟁취를 위한 판정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가족소대원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은정깊은 사랑을 돌려주신다. 작품은 주인공 순임을 비롯한 가족소대원들의 형상을 통하여 군관의 안해들은 단순히 남편과 아들딸, 손자손녀들의 시중이나 들어주는 가정주부가 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드는 최고사령부의 작식대원이라는 사상을 강조하고있다. 작품은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을 다양하고 개성적으로 그리면서 그것을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해명에로 지향시킴으로써 군관의 안해들이야말로 남편들과 함께 한전호에 서있는 병사이며 장군님식솔의 맏며느리라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89(2000)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군당책임비서》 영화문학. 리춘구 창작. 작품은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한 군당책임비서의 형상을 통하여 당일군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일하고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인공인 군당책임비서 차석빈의 방에서 전기생산문제와 관련한 군당집행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회의에 참가한 일군들은 전력생산이 잘되지 않는 원인을 서로 남에게서 찾는다. 옥천강발전소 기사장 박우필은 발전소가 25만㎾의 전력을 내지 못하는 원인을 룡산탄광에서 석탄을 제대로 보내주지 않은데서 찾으며 탄광지배인 엄광준은 탄광이 2천t의 석탄을 생산보장하지 못하는것은 탄광을 실속있게 도와주지 않기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일군들이 당의 방침을 무조건 관철할 방도를 찾지 않고 조건타발만 하면서 옥신각신할 때 차석빈은 우선 발전소에 나가서 중유문제부터 풀고 석탄문제도 탄부들과 의논해서 풀자는 군당위원회의 결심을 알린다. 그리고 자신이 앞장에 서서 화력발전소에 내려가 오랜 열관리공인 최판배로인과 공무동력직장 로동자인 태성묵을 만나 료해하는 과정에 태성묵에게 100가지 혁신안을 적어둔 수첩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며 그속에서 미분탄화실 착화제로 중유를 쓰지 않고 국내산 갈탄으로 대용할수 있다는 좋은 안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충분히 타산한 다음 기사장 박우필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창안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도와주며 추진시킨다. 그러나 기사장 박우필은 중유를 국내산 갈탄으로 대용한 례가 없다고 하면서 룡산탄광에서 받게 된 탄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여 명동탄광과 교섭하여 석탄을 거기서 받으려고 한다. 차석빈은 박우필의 교만하고 무규률적인 행동을 호되게 비판하는 한편 룡산탄광에 내려가 한숨만 쉬고있는 지배인에게 힘을 내도록 고무해주면서 막장의 탄부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80년대속도창조운동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다. 차석빈은 또한 탄광마을에 교원이 부족하다는것을 알고는 자기의 외동딸을 교양하여 탄광마을 분교교원으로 보내며 읍에서 교원생활을 하는 군안전부장, 군검찰소장, 군인민병원 원장의 딸들도 그곳으로 조동시켜 보내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탄광에 필요한 소공구를 비롯하여 탄부들이 제기한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줌으로써 그들의 생산의욕을 부쩍 높여준다. 한편 박우필은 모든 일이 다 제 마음대로 잘되지 않는것이 최관배로인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해임시켜 년로보장에 넘기며 중유추가신청서를 부에 제기하려고 한다. 차석빈은 박우필의 이러한 주관적이고 관료주의적이며 독단적인 행동에 대하여 원칙적이고도 날카로운 비판을 들이대며 최관배로인을 발전소 열직장고문으로 사업하게 한다. 드디여 룡산탄광에서 석탄을 가득 실은 화차가 발전소에 도착하고 태성묵의 점화로창안이 성공하여 온 발전소가 환희로 들끓는다. 작품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옹호관철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주인공 차석빈의 형상을 통하여 이에 심오한 사상예술적해명을 주고있다. 작품은 주체72(1983)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군대성격》 단편소설. 주체65(1976)년 김수범 창작. 어느 한 림산사업소 기사장과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을 통하여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다. 기사장 최원갑은 사업소적으로 년한이 제일 오랜 사람으로서 만성적이고 보신주의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있다. 작업현장에서는 추위를 막는다고 하면서 쓸만 한 통나무들을 마구 불때고있었다. 소조원 윤석진은 막대한 량의 목재를 화목으로 랑비하는데 대해 안타까와하며 기사장을 비판한다. 그러나 최원갑은 추운 산판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면서 접수하지 않는다. 윤석진은 오랜 목탄공아바이의 도움으로 통나무를 때지 않고도 현장의 추위를 막을수 있는 이동식목탄가마를 설계한다. 윤석진의 꾸준한 노력과 설복으로 완고하던 기사장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른데로 빼돌리려던 막내아들을 농림대학 원목생산학부로 보낸다. 사람들은 이러한 소조원을 두고 군대성격이라고들 한다. 작품은 우리 일군들이 언제나 당이 걱정하는 문제를 하나라도 풀어드리겠다는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창발적으로 사업해야 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단편소설집 《혁명전위》, 문예출판사, 주체65(1976)년판〕

《군민아리랑》 가사. 주체90(2001)년 최준경 창작.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나날이 꽃펴나는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과 그 생활력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에는 위대한 령장을 모신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행복과 선군정치, 선군혁명령도로 끝없이 번영해나가는 우리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가 집약되여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서 군대와 인민들사이에 오가는 친혈육의 정과 군민일치가 꽃피는 온 나라 대가정을 한마음한뜻으로 굳건히 다져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불굴의 투쟁기풍을 노래하고있다. 계속하여 2절에서는 천만군민이 하나로 뭉친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으며 위대한 령장을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백전백승만

을 떨쳐갈것이라는 철의 신념과 의지를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에서는 통속적인 시어들과 조흥구를 절별내용에 맞게 생활론리적으로 특색있게 구사하고있다. 특히 3절에서 군민이 뭉친 힘은 온 사회 밑뿌리되여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승리로 받들어나간다고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다. 또한 매절의 마지막에 반복되는 《군민》이라는 표현에 《아리랑》의 조흥구를 특색있게 결합하고 반복강조함으로써 선군시대에 태여난 《군민아리랑》으로서의 특색과 민족적향취를 돋구어주고있다. 〔《조선노래대전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군바바》 장편소설. 주체94(2005)년 김혜성 창작. 1907년에 일어난 조선군대해산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려는 일제의 악랄하고 교활한 책동과 그에 항거하여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애국적인 투쟁정신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주인공 남상덕이 륙군연성학교를 최우수로 졸업하고 서울시위대 1련대 1대대 참위로 배속되여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려서부터 우국지사 리병선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난 그는 조선군대의 군관이 된 남다른 긍지를 안고 군력을 키워 나라를 지켜갈 굳은 열의로 충만되여있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열의는 군대에 배속된 첫날부터 여지없이 깨여지고만다. 조선군대는 명색뿐이고 일본고문과 조교들의 손탁에서 놀아나고있었으며 하는 일이란 을사오적으로 지목된 매국역적들의 신변을 보호해주는것뿐이였다. 여기서 커다란 실망을 느낀 남상덕은 군력을 키울 방도를 모색하던중 신식군대무력강화를 위해 제나름대로의 고심을 기울여오던 참모국장 량성찬, 1대대장 박성환과 련계를 맺게 되며 그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군력을 다지는 일에 자신심을 가지고 달라붙는다. 그때 일제군부고문 노즈의 비밀첩보기지인 사꾸라다방의 주인 요시꼬는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기 위해 남상덕과 함께 군관으로 제발된 친구 권기홍의 누이가 운영하는 청계선술집을 가로타고앉으려고 한다. 남상덕은 이것을 막아나섰다가 일본인의 권리를 침해한 죄를 들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여기서 그는 강계진위대 군량관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군량미를 횡령한 죄로 5년동안 옥살이를 하고있는 김태진을 알게 된다. 그 시각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화하는데서 장애물로 되고있는 조선군대를 해체시킬 흉계를 꾸미고 그 시발로 군부내에서 배일감정이 높은 인물들을 축출하고 저들의 앞잡이들을 박아넣음으로써 조선군대를 하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장악하려고 한다. 일제의 이와 같은 계책에 의하여 출옥후 김태진은 일본군부고문 노즈의 첩자로 흡수되여 시위대의 대대장으로 임명되며 그후에는 을사오적들을 습격처단하기 위해 조직된 150명의 테로단의 일부 성원들을 체포한 공로로 련대장으로까지 승진한다. 그러나 김태진의 본색을 알수 없었던 남상덕은 출옥후 그를 크게 믿고 군력을 키우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한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일본조교들인 오오따니 신지로, 나가따 유지 등과 같은 일본놈들의 횡포한 간섭과 무서운 음모에 의하여 걸음마다 파탄되며 그에 따라 친일매국노인 군부대신 권중현과 김태진의 본색이 여지없이 폭로된다. 이 과정에 남상덕은 사랑하는 애인인 죽송이가 150명테로단에 들어가 역적들을 처단하려다가 놈들에게 체포되여 꽃다운 청춘을 바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국권회복을 위한 국채보상운동을 군대에서도 벌리자고 선동한 죄로 6달분의 봉급삭감처분을 받는다. 남상덕은 옛날 우리 병정들이 부르던 《군바바》의 노래가락에 맞추어 밤새껏 춤을 춘 죄아닌 죄로 신임군부대신 리병국의 추궁을 받고 일본조교들앞에서 종일 《군바바》춤을 추도록 강요당하며 마사원 박좌수를 구타하는 일본조교의 폭행을 저지시킨것으로 하여 진거름을 나르는 처벌과 함께 일본조교들의 집단폭행을 받는다. 남상덕은 식민지군대의 민족적멸시와 모멸감

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허울좋은 왕만을 믿고 군대를 신식무력으로 꾸려보려고 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것이였는가를 가슴아프게 절감한다. 바로 이때에 헤그밀사사건을 구실로 일제에 의한 강압적인 고종황제 양위식이 거행된다. 이에 따라 군대안에서의 배일감정이 높아지자 일제는 조선군대해산을 노린 정리사업을 진행하며 시위혼성려단 려단장은 조선군대해산을 반대하다가 일제놈들에게 살해당하고 대대장 박성환은 피눈물을 쏟으며 자결한다. 하여 그는 일제놈들과 싸울것을 호소하며 손에 총을 들고 일제놈들과 매국역적들을 쳐부시는 싸움에 나선다. 작품은 남상덕을 비롯한 조선군대 군사들과 인민들이 《군바바》의 노래소리 높이 울리며 신식무장을 한 일본놈들과 맞서 피어린 싸움을 벌리는 장면으로 끝을 맺으면서 《군바바》의 노래속에 살아 태동하는 조선민족의 넋과 기상은 그 어떤 폭압으로도 말살할수 없으며 그 넋은 그대로 삼천리강산에 노래와 함께 울려퍼져 일제를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을 불러오고야말리라는것을 힘있게 확신하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 주체94(2005)년판〕

《군자마을사람들》 장편서사시. 주체77(1988)년 김정길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군수생산을 보장한 군자마을사람들의 투쟁을 노래한 작품이다. 작품은 머리시와 맺음시, 9개의 장으로 되여있다. 제1장《그가 가는 길》에서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장진의 친정집에 가있던 주인공 윤심이가 남편의 전사통지서를 받고 남편이 일하던 군자마을로 떠나오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제2장《크나큰 신념》에서는 어린 아들 병기를 데리고 밤에 아호비령을 넘던 윤심이가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감격적인 장면을 펼쳐보인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남편이 잡았던 선반기를 대신 돌리려고 군자골로 간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참 좋은 동무를 만났다고 기뻐하신다. 이어 남편의 이름을 물으신 그이께서는 무기공장에서 만났던 최봉국을 그려보시며 그의 아들 병기를 품에 안아주신다. 윤심은 남편의 전사소식을 차마 말씀드리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차에 태워 군자마을로 데려다주도록 하신다. 제3장《제집 몽둥이로 도적을 잡자》, 제4장《부탁》, 제5장《너는 원쑤를 도와주었다》, 제6장《회답》에서는 제집 몽둥이로 도적을 잡자는 진혁반장의 호소에 호응하여 700문의 박격포생산에 떨쳐나선 작업반원들의 투쟁, 오작을 낸 종호를 준절히 깨우쳐주는 윤심의 모습 등을 보여주고있다. 제7장《우리가 이겨야 한다》, 제8장《홰불이 탄다》에서는 놈들의 폭격으로 수송도중 강물에 빠진 소재를 건져내기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 이 전투에서 진혁반장의 희생, 앓는 아이를 집에 남겨놓고 정전된 공장으로 달려나와 손으로 피대를 돌려 선반기를 움직이게 하는 윤심의 헌신적인 투쟁을 보여준다. 제9장《영광은 빛나라》, 맺음시에서는 공장을 찾아오시여 로동자들의 로력적성과를 치하해주시고 예술공연도 보아주시며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와 군자마을의 자랑을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려는 시인의 강렬한 열정을 토로하고있다. 시는 인물들 호상간의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고 개성을 뚜렷이 살려내고있으며 뜨거운 격정의 정서적흐름으로 일관시키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7(1988)년판〕

《군인선서》 영화문학. 김홍기 창작.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대가 되고 폭탄이 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충정의 맹세를 시대의 선서로 부각한 작품이다. 작품은 주인공 근혁이가 갓 입대한 병사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송남을 비롯한 신입병사들은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할 맹세를 안고 인민군대에 입대한 새 세대 청년들이

다. 련대장 근혁은 그들모두를 만능병사로 키울 결심을 안고 철갑중대장과 함께 신입병사들을 위한 교육을 자진하여 맡는다. 어느날 중대장은 송남전사가 군사임무수행도중 규률을 위반하고 자유주의적인 행동을 하여 시간을 어긴 현상을 두고 호되게 꾸짖는다. 근혁은 누구보다도 영웅심이 많고 훈련열의가 높은 송남이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겠는가를 심중히 생각해보며 그의 집을 찾아간다. 송남의 아버지는 전쟁시기 당한 부상으로 심하게 앓으면서도 스스로 도로관리원의 일을 맡아하며 운신하기 어렵게 되자 딸이 자기 뒤를 잇게 한 참된 전쟁로병이며 영예군인이였다.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선서를 한 군인의 맹세를 잊지 말아야겠기에 외아들 송남이도 제결이 아니라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보냈다는 이야기며 병사들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지휘관들의 손에 달렸다고 하면서 송남이를 훌륭한 병사로 키워줄것을 간절히 부탁하는 송남 아버지의 말은 근혁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준다. 련대장에게서 송남이의 이야기를 듣게 된 철갑중대장은 자신을 깊이 뉘우치며 근혁련대장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군기앞에서 다진 군인선서를 지켜 참되게 살것을 다짐한다. 그는 전술훈련시 많은 병사들을 목숨걸고 구원해낸다. 그의 중대는 실탄사격에서도 강한 우를 맞는다. 작품은 우리 시대 군인들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한생을 언제나 군인선서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해야 한다는것을 심오하게 밝혀주고있다. 작품은 주체83(1994)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굴착기운전공》 단편소설. 주체65(1976)년 최상순 창작. 누가 보건말건 묵묵히 혁명임무수행에 한몸바쳐가는 굴착기운전공의 성실성과 책임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10리물길굴공사에서 버럭을 치우는 일을 하며 혁신하던 21호굴착기에는 굴을 멀리 떠나 외진 곳으로 가야 할 새로운 과업이 떨어진다. 화목하던 21호에서는 이 문제로 하여 일시 의견상이가 생긴다. 자존심이 강하고 책임성이 높은 서경석책임운전공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교대공들에게 요구성을 높인다. 그러나 보조공 창수는 사람들속에서 떠받들리며 일하던 자기가 인적없는 외진 곳에 와서 일하게 된데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거칠게 한다. 21호성원들은 낮에 밤을 이어 자갈을 선별하여 물길공사현장에 보내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서경석의 이신작칙의 헌신적인 노력은 다른 굴착기로 가려던 창수의 마음을 점차 돌려세운다. 기본공사현장에 갔던 창수는 현장속보판에 자기 이름이 크게 나붙은것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남모르게 수고하는 21호운전공이라고 떠받들어주는것을 목격하고 자신을 뉘우치며 경석을 고맙게 여긴다. 작품은 누가 알아주건말건, 남들이 보건말건 변함없이 바쳐가는 성실성과 책임성이야말로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녀야 할 품성이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단편소설집《혁명전위》, 문예출판사, 주체65(1976)년판〕

《굴포의 처녀》 단편소설. 주체69(1980)년 정은섭 창작.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적과 우리 선조들의 유구한 력사가 깃들어있는 자기 고향을 끝없이 사랑하고 더 아름답게 꾸려가는 한 농촌처녀를 형상한 작품이다. 작품은 권위있는 고고학자인 최학문교수가 굴포리의 리오복이라는 처녀에게서 작업도중 력사유적을 발견하였다는 편지를 받고 찾아가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미 10년전에 그곳에 가본적 있는 교수는 그때 만났던 한 로인과 그의 손녀를 회상한다. 해방전에 옛 무덤을 도굴하려던 왜놈들을 요정냈다는 로인의 이야기와 그 로인이 고향에 대한 사랑을 담아 부는 피리소리는 교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현지에 도착한 그는 10년전 그 로인의 손녀이며 청년분조장인 리오복과 감격적으로 상봉한다. 그의 이야기에서 교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러차례 현지

지도하신 자기 고향을 더 잘 꽃피우기 위해 아글타글 애써온 그의 뜨거운 마음을 알게 된다. 그 과정에 새땅찾기현장에서 원시시기의 것으로 인정되는 유물을 발견한 오복은 리당비서의 도움으로 귀중한 유물을 보호하고 최학문교수에게 편지를 보내였던것이다. 소설은 오복의 형상을 통하여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에 대한 새 세대 청년들의 열렬한 사랑과 긍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9(1980)년 4호〕

《그가 가는 길》 장편소설. 주체94(2005)년 조인영 창작. 수십년간 차디찬 감방속에서 적들의 모진 고문과 유혹에도 흔들림없이 자기의 신념과 의지를 끝까지 지켜싸운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의 투쟁과 생활을 형상한 작품이다.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하던중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김구로부터 **김일성**장군님의 전설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은 주인공 한혁준은 수령님의 민족자주독립국가건설로선을 지지하여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간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의 출판물을 보급하는 사업을 맡아 수행하던 그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안암사의 중으로 위장하고 계속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다가 적들에게 체포된다. 놈들은 그에게 전쟁시기 보급하던 적색출판물들을 내놓으라고 온갖 위협공갈을 다한다. 특히 형정국 차장 김종구는 혼자 사는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전향을 하고 《참국민》이 되여 효자로 살라고 하면서 유혹의 검은 마수를 뻗친다. 그러나 혁준은 그 어떤 위협공갈과 유혹에도 끄떡없이 공화국을 따르는 자기의 신념을 끝까지 고수한다. 적들은 그에게 상상도 하지 못할 야수적고문을 들이대며 마지막에는 그의 오른쪽다리를 꺾어놓아 불구가 되게 한다. 어느날 혁준은 감방에서 김근수와 뜻밖의 상봉을 하게 된다. 인민군정찰군관이였던 김근수는 적후활동시 부상당하여 림시 빨찌산부대에서 당선전부출판소를 책임지고 일하였었다. 그에게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출판물보급선전활동을 벌리던것처럼 학습강사가 되여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을 해설선전할데 대한 권고를 받은 혁준은 장군님사상의 영원한 선전자, 전파자로 살것을 맹세하며 기꺼이 그 일을 맡아 수행한다. 이 과정에 우리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불량한짓을 하며 앞날에 대한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잡범 풍길을 교양개조하여 옳은 길로 이끌어주며 어릴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인 강석규가 민심을 대변하는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자각하고 미제의 죄행을 폭로단죄하는 글을 쓰도록 고무해주기도 한다. 놈들의 악착한 고문과 육체의 쇠약으로 하여 병마에 시달리던 혁준은 김근수를 비롯한 감옥안의 동지들의 투쟁에 의하여 병보석으로 가석방된다. 그는 비록 다리를 잘리우고 앓는 몸이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고 불량한짓을 하며 떠돌아다니는 풍길이의 두 자식을 찾아 그들이 참답게 살아나가도록 이끌어주며 자기의 병치료에 쓸 돈으로 령치품을 마련하여 감방안의 동지들에게 보낸다. 그리고 감방에서 병마에 시달릴 때 자기의 피까지 넣어주어 생명을 구원해준 리채련을 만나 그와 가정을 이룬다. 이러한 때 남조선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리승만괴뢰정권이 거꾸러지고 박정희의 5.16군사정변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또다시 감옥으로 끌려간 혁준은 전향을 강요하는 적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김근수를 비롯한 동지들과 함께 단식투쟁으로 맞받아싸운다. 이 투쟁에서 혁준은 김근수를 잃게 되지만 그의 희생을 계기로 일반잡범들까지도 단식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함으로써 적들을 끝내 굴복시킨다. 그리고 앓는 몸으로 감옥에 찾아와 자기를 리해하고 지지해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몸이 찢기고 가루가 된다 해도 통일성업의 그 길을 끝까지 갈것을 맹세다진다. 그후 여러 장의단체들의 노력에 의하여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가하였던 혁준은 병약한 몸으로 하여 쓰러진다. 형무소 소장을 비롯한 교형리들은 이를 계기

로 그를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모략을 꾸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혁준은 앓는 몸이지만 스스로 쌍지팽이를 짚고 형무소를 찾아가 놈들의 너절한 모략을 짓부신다. 그는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새로운 파쑈악법인《사회안전법》과 《보안관찰법》에 의하여 서른해가 넘는 감옥살이를 강요당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보다 뜨거운 동지애, 인간애에 의하여 마침내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로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된다. 작품은 가혹한 사상전향과 무서운 악행으로 이어진 수십년간의 감옥생활속에서도 끝까지 신념을 지켜싸운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겨레모두가 가야 할 길은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의 조국통일위업을 받들어나가는 길뿐이라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4(2005)년판〕

《그가 갈길》 단편소설. 주체45(1956)년 김승권 창작. 전후시기 갓 조직된 생산협동조합에서 어제날의 개인수공업자들이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구두를 만들어 팔거나 수리해주던 개인수공업자인 광수는 당의 방침을 받들고 피혁생산협동조합에 들어갔지만 지난날의 낡은 근성을 버리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는 가죽을 조금씩 떼내여 구두를 만들어 팔아 제 리속을 채운다. 광수의 리기적인 행동을 알고 가슴아파하며 제일먼저 충고를 주는것은 그의 안해와 오랜 친구인 춘삼이다. 한편 개인업을 하는 한 양복쟁이는 광수에게 계속 구두를 만들어줄것을 부탁하면서 그의 리기주의를 조장시킨다. 양복쟁이의 말대로 또다시 지난 시기로 돌아가 자유로동을 할것인가 아니면 안정된 일터에서 일할것인가 하는 두 갈래의 길에서 망설이던 그는 국가의 재산을 애호절약할데 대한 조합원총회에 참가하고나서 잘못을 뉘우치고 양복쟁이와 결별한다. 소설은 광수가 팔아먹으려던 구두를 조합에 가져다 바치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개인수공업자들은 협동화의 길에서만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45(1956)년 10호〕

《그가 걷는 길》 중편소설. 주체71(1982)년 리철모 창작.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어려운 연구과제를 스스로 맡아 끝까지 해낸 어느 한 공장 기사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안학규기사의 알탄점결제연구결과를 심의하는 공장기술협의회가 진행되였을 때 주인공 서원석기사는 연구실장 염상훈을 비롯한 실험기사들이 카바이드개방식로를 밀폐로로 개조하려면 알탄점결제를 생산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지만 그들과 의견을 달리한다. 한것은 그 점결제가 몇해후에는 없어질지도 모를 어느 한 공장에서 나온 폐산물을 주원료로 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희귀한 첨가제를 섞어 만들어낸것으로서 생산의 안정성을 기대할수 없기때문이였다. 그는 공장 시험소 기사들과 과학원 분원의 과학자들이 이미 연구하다가 실패한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나라의 무진장한 원료에 의거하여 생산공정도 간단히 꾸릴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ㅍ－03》점결제를 연구할것을 주장한다. 이때 염상훈은 자기네 시험소에서도 무엇을 하나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아보자는 공명심에 사로잡혀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안학규기사가 연구한 알탄점결제를 심의에서 통과시키자고 고집한다. 견해의 차이로 하여 기술협의회는 중단되지만 공장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서원석기사가 제기한 《ㅍ－03》점결제를 연구하기로 한다. 서원석기사는 자신의 명예보다도 어버이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려는 충정의 한마음을 안고 성공이 눈앞에 바라보이는 ㅂ촉매연구과제를 뒤로 미루고 《ㅍ－03》점결제연구과제를 스스로 맡아나선다. 그의 연구사업은 염상훈의 이러저러한 방해로 하여 여러가지 난관에 부닥치지만 그는 당조직과 과학원 분원에서 온 서원석의

안해 혜영 등 연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방조하에 중간장치시험을 진행해나간다. 그는 뜻하지 않게 눈을 다쳐 입원도 하고 새로운 조작방법으로 실험하던 중 반응탑이 폭파되기도 하지만 주저앉지 않고 연구를 계속해나감으로써 끝내 《ㅍ—03》점결제실험을 성공시킨다. 소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명예와 보수도 바라지 않고 어려운 연구사업을 자진하여 맡아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가장 순결한 량심을 다 바쳐 어버이수령님께 충정다해가는 과학자들의 아름다운 지향, 불타는 열정을 감동적으로 일반화하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그가 그린 그림》 단편소설. 주체54(1965)년 김영식 창작. 전투장에서 그린 한 인민군전사의 그림을 통하여 영웅적조선인민군전사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보여준 작품이다. 귀여운 어린이들을 위하여 10여년을 하루같이 교편을 잡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직접 손에 총을 잡고 전선으로 달려나온 윤구분대장은 어느날 원쑤들의 폭격에 3명의 어린이들이 희생되였다는 가슴아픈 사연이 씌여있는 학생들의 편지를 받게 된다. 그때부터 그는 전투의 짬시간마다 하던 그림그리는 일도 그만두고 오직 원쑤와의 싸움에 자기의 정력을 다 바친다. 가렬한 전투의 어느날 윤구분대장은 전우들이 피로써 지켜낸 고지를 끝까지 사수하기 위하여 적들을 자기에게로 유인하며 놈들과 치렬한 육박전을 벌리다가 쓰러진다. 후송되여 군의소에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한 윤구분대장은 원쑤에게는 공포를 주고 후대들에게는 힘을 주는 영웅의 형상, 원쑤와의 판가리싸움에 떨쳐나선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인 투쟁을 담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이것을 통해 소설은 윤구분대장이 자기의 그림을 통하여 후대들에게 전하려 한것은 바로 귀여운 후대들의 웃음을 위해서라면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그 어떤 대적도 맞받아싸우는 인민군전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며 미래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임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4(1965)년 2호〕

《그가 바라는것》 단편소설. 주체70(1981)년 장흥섭 창작. 남편이 진정한 혁신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안해의 형상을 통하여 참다운 기쁨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준 작품이다. 한 광산에서 검량소대장으로 일하는 진주는 남편 엄대석이 채광소대장으로서 혁신자로 이름 날리는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그러던 그는 남편의 소대에서 큰돌이 많이 나오는것으로 하여 그 후처리를 맡은 아바이가 곱절 수고하는것을 보게 된 후부터 기쁨보다 괴로움을 더 느낀다. 처음에 그는 암질이 굳어 큰돌이 많이 나온다는 남편의 말을 곧이듣고 자기가 직접 메를 들고 대활공아바이를 도와나선다. 그러나 점차 생산량만 생각하면서 남의 수고는 아랑곳하지 않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는 남편이 안해에게만 기쁨을 주는 혁신자가 아니라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혁신자가 될것을 바라면서 남편이 큰돌을 없애기 위해 애쓰도록 동지적으로 충고한다. 이와 함께 새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큰돌을 없애고 성과도 높이도록 남편을 도와준다. 소설에서는 참다운 기쁨은 저 하나의 만족이 아니라 집단을 위한 일에서 꽃펴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0(1981)년 9호〕

《그가 부른 노래》 단편소설. 주체44(1955)년 리영규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들의 식량수탈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적후에 들어가 용감하게 싸운 한 빨찌산부대 처녀공작원의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후퇴할 명령을 받은 박정옥은 적들의 알곡수탈을 파탄시키기 위한 적후공작대가 파견된다는것을 알고 빨찌산대장인 군당위원장을 찾아간다. 갓 중학교를 졸업하여 나이가 어리지만 이미부터 정옥을 잘 알

고있던 군당위원장은 그의 청원을 들어주며 그가 농근맹위원장인 방원석이와 함께 행동하도록 지시한다. 마을에 내려가 원석이와 두 부락씩 맡기로 토의하고 헤여진 정옥은 밤에 삐라공작을 하여 농민들이 적들의 요구대로 탈곡에 나가지 않도록 한다. 그날 다른 마을에 갔다가 중요한 정찰자료를 얻어가지고온 원석이가 부대로 련락을 가게 되자 혼자서 놈들이 지켜선 창고에 들어가 모아둔 탈곡기를 못쓰게 만들어놓은 정옥은 농민들에게서 빼앗은 식량을 싣고가는 렬차를 폭파할데 대한 임무를 받고 돌아온 원석이와 함께 사업에 착수한다. 어둠을 리용하여 철교에 접근하다가 놈들에게 발각된 정옥은 원석이를 구원하고 체포된다. 그는 해방전 지주의 아들로서 쌀수송을 말아하는 《국군》 련대장놈을 비롯한《치안대》놈들이 빨찌산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갖은 고문을 들이대지만 입을 열지 않는다. 이때 철교를 폭파하여 쌀실은 렬차를 강바닥에 처박고 체포된 원석이를 총살한 놈들은 정옥이도 사형장에 끌어낸다.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긍지를 안고 사형장에 나선 정옥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웨치고나서 자신이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며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자기 일에 대한 정당성과 미래에 대한 락관을 지닐 때 목숨까지 바칠수 있는 희생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잡지, 주체45(1956)년 8호〕

《그가 찾은 처녀》 단편소설. 주체82(1993)년 윤상근 창작. 군사복무시절에 동무들을 구원하고 영예군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가는 처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청년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통일거리건설장에서 일하는 한 돌격대의 소대장인 제대군인 정훈은 자기들이 맡은 살림집골조조립을 앞당기기 위한 생각에 골몰하며 걷다가 마주오던 처녀의 신음소리를 듣고 멈추어선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오던 처녀가 얼음우에 미끄러져 넘어졌던것이다. 정훈이가 달려가 처녀를 부축해 일으켜세우나 발목을 다쳤는지 잘 걷지 못한다. 처녀는 정훈이가 통일거리건설장에서 일한다는것을 알자 그에게 가지고오던 큼직한 장갑퉁구리를 맡기고 그냥 간다. 그후 같은 소대에서 일하는 고수머리청년으로부터 아직 배치를 받지 못했다는 그 처녀가 한다리에 의족을 한 영예군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정훈은 영예군인을 제때에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양력설날 그의 집에 찾아간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오자 옥희(영예군인)는 들끓는 건설장에서 려단정치부 속보원으로 배치되여 일한다. 골조조립이 끝나던 어느날 정훈은 고수머리로부터 옥희가 영예군인이라는것으로 하여 혼담이 파탄되였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는 격분을 느낀다. 려단정치부장에게서 옥희가 군사복무중 굴러내리는 돌을 몸으로 막아 동무들을 구원하고 다리를 잃었다는것을 알게 된 정훈은 옥희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겠다고 심장의 호소를 터친다. 소설은 우리 시대 청춘들의 사랑은 어떻게 맺어져야 하는가를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을 지닌 두 청춘남녀의 형상을 통하여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잡지, 주체82(1993)년 9호〕

《그가 쓴 생활기》 단편소설. 주체45(1956)년 박승만 창작. 신입병사가 자기의 분대장을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신병훈련을 마치고 중대로 배치되여온 주인공 용순은 아침검사때 분대장으로부터 지적받은 발싸개를 꼭 빨아 신을데 대한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용순은 날씨가 차다고 집행하지 않는다. 분대장은 그에게 잠자기 전까지 꼭 발싸개를 빨데 대하여 다시 지시한다. 어두운 밤에 개울에 나가 손을 불며 분대장을 고깝게 생각하며 발싸개를 빨던 용순은 다음순간 자신이 군인으로서 분대장의 지시를 조국과 인민이 주는 명령으로 접수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깨

닫게 된다. 그날 밤 직일을 서던 분대장은 잠든 대원들을 돌아보다가 그의 앞에 이르러 터갈린 손에 고약을 발라준다. 낮에 있은 일로 하여 잠들지 못하고있던 용순은 마침내 벌떡 일어나 분대장의 품에 안긴다. 소설은 용순이가 이튿날 떳떳이 아침검사를 받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은 우리 인민군지휘관들은 전사들의 친부모이고 친형제이며 동지적사랑으로 굳게 단결된 인민군대는 필승불패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45(1956)년 2호〕

《그 길은 기어이 가야 한다》 단편소설. 주체58(1969)년 김북향 창작.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을 안고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 바치는 한 인민교원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출장길에 오른 교학 오승권은 한렬차칸에 탄 손님들로부터 문광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간다. 전쟁때 원쑤놈들의 폭격에 다리를 상한 학생을 3년동안 왕복 20리길을 업고다니며 병원치료도 받게 하고 공부도 시킨다는 그 문광섭은 알고보니 전쟁때 정치공작원으로 나갔던 오승권이 돌봐준 소년이였다. 그때 승권은 지주집 종으로서 갖은 천대를 다 받으며 급성륵막염과 복막염에 걸려 심하게 앓는 광섭을 병원에 데려다 치료받게 하였는데 그후 광섭은 완쾌되여 인민군대를 따라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왔고 그처럼 훌륭한 교원으로까지 자라났던것이다. 광섭을 만난 승권은 지난 전쟁때의 이야기를 감회깊이 들려주면서 언제나 남녘땅을 잊지 말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에서 일을 더 잘하자고 한다. 소설은 시공간적으로 폭이 넓은 이야기를 째인 구성과 세련된 필치로 길지 않은 단편형식에 반영하여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과 정신도덕적풍모를 심도있게 개방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8(1969)년 6호〕

《그 길에 노을이 비낀다》 단편소설. 주체55(1966)년 오선학 창작. 반역과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참다운 정의의 길에 들어서는 《국군》병사들의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미군고문 펠톤놈은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박형국중대에 나타나 비상소집을 일으킨다. 중대가 모이자 펠톤놈은 휴가기간에 일하여 번 삯돈으로 안해에게 주려고 마련했던 천꾸레미를 훈련도중에 잃게 되자 그것을 찾으러 갔던 화기소대 일등병 최병석에게 탈주병이라느니, 옷을 도적질했다느니 하면서 그를 헌병대에 넘겨 영창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국민학교 동창생으로서 오래전부터 그를 잘 알고있던 형국은 그를 불러다가 서로 헤여진 후의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 들으면서 불의에 맞서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개탄한다. 다음날 그는 펠톤놈이 환자가 많은 자기 중대에 홍수가 진 강을 건늘것을 명령하자 거절한다. 그후 형국은 자기의 은가락지를 주어 집에 보냈던 최병석이 안해가 미국놈들에게 살해되였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자 격분하며 학생들의 투쟁을 진압하는데 동원되라는 명령을 또다시 거절한다. 그리고 병사들과 함께 정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청년학생들의 편으로 중대를 이끈다. 작품은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길에 《국군》병사들의 참다운 삶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5(1966)년 2호〕

《그 나날에》 단편소설. 주체78(1989)년 한웅빈 창작. 후대들의 가슴에 조국에 대한 사랑을 깊이 심어주어 그들이 앞으로 조국을 떠받드는 훌륭한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준 한 교육자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의 이야기는 나—광록의 시점에서 30여년전의 옛 스승에 대하여 추억하는 형식으로 펼쳐지고있다. 전후 광록의 중학교 담임교원 최문성은 학생들이 조국을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교양한다. 그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더 잘 알도록 하며 식물이름을 5가지이상 알

아울데 대한 숙제를 내주었을 때 다른 나라의 식물이름을 써온 명철이보다 우리 나라에 흔한 식물이름을 써가지고온 광록을 더 칭찬한다. 어느날 우리 나라에서 첫 뜨락또르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밭에 서있는 뜨락또르를 향해 달려갔던 광록은 그것이 다른 나라의것임을 알고 실망하여 돌아온다. 이로하여 지각까지 하였지만 최문성은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기특히 여기며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집에까지 찾아와 고무해준다. 후날 건설영웅으로 자라난 광록은 자신의 인생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이 움트고 자라난 그 나날과 그 싹을 키워준 최문성교원에 대해 못 잊어 추억한다. 소설은 이를 통하여 후대들이 조국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도록 교양하는것이 바로 참된 교육자의 본분이며 그 정신을 키워주는 나날에 조국의 미래가 훌륭히 가꾸어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8(1989)년 1호〕

《그날 밤의 이야기》 단편소설. 주체48(1959)년 김병훈 창작. 운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연극에 마지막까지 출연하여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한 공청원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연극《아버지의 유언》의 주인공역을 맡은 공청원 성남은 어느날 밤 수많은 근거지사람들앞에서 공연을 하던중 왜놈들이 불의에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싸움터로 달려나갔다가 왼팔을 부상당하게 된다. 출혈을 많이 한것으로 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지만 그는 예술은 총알과 같이 원쑤의 가슴팍을 꿰뚫는 힘있는 무기라고 하신 **김일성**장군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공연장소에 도착한다. 그는 만류하는 당서기아바이에게 숨이 붙어있고 팔다리가 있는 한 어떻게 전투장을 떠나겠는가고 하면서 무대우에 올라 왜놈들에게 희생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투쟁에 일떠서는 주인공역을 마지막까지 수행하고 그 자리에 쓰러진다. 그의 불굴의 의지에 감동된 군중들은 《모든것을 혁명에 바쳐 싸우자!》, 《철천지 원쑤 일제를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높이 부르며 유격구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다. 소설은 공청원 성남의 형상을 통하여 혁명적 예술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불패성을 확증하였으며 혁명의 길에서 변함없이 싸워갈 굳은 신념을 안고 투쟁한 투사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감명깊게 일반화하였다. 〔소설집 《항일전구》,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8(1959)년판〕

《그날은 오리라》 단편소설. 주체77(1988)년 김원복 창작. 조국통일에 대한 남녘인민의 절절한 지향과 념원을 보여준 작품이다. 평양에서 태여난 박달우는 해방을 한달 앞두고 삼촌을 따라 서울에 왔다가 38도선이 막히는 바람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한 달우는 어느날 아들인 정호가 그린 조선지도를 보게 된다. 그런데 정호가 그린 지도는 조선땅의 절반인 남쪽만이였다. 산후탈로 안해를 잃은 후 애지중지 키워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였지만 달우는 조국의 절반땅만을 그린데 격분하여 정호를 꾸짖으며 매까지 든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배운대로 지도를 그렸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는 당국자들의 반통일적인 시책에 더욱 치솟는 격분을 느끼며 철없는 아들에게 매를 든 자신을 후회한다. 한편 엄한 꾸짖음과 매질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본 정호는 하나로 된 완전한 조선지도를 다시 그린다. 다시 그린 조선지도를 들여다보던 달우는 정호에게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오며 그날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절절히 이야기한다. 소설은 달우부자의 형상을 통하여 조선은 하나이며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77(1988)년 제12호〕

《그날은 오리라》(1, 2부) TV극문학. 윤광연 창작. 북남통일축구경기를 위하여 평양

에 왔던 한 남조선체육역원이 40여년만에 북에 있는 동생과 만나는 과정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 작품이다. 이미 석달전 타이왕컵축구경기때 우리 선수들에게 북에 있는 녀동생을 찾아줄것을 부탁하였던 남조선체육역원 리현덕이 북남통일축구경기로 평양에 온다. 그는 아직 동생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동생과 이름과 나이도 같고 북에 들어온 경로도 꼭같지만 이미 오빠를 찾았다는 그 녀성을 만나게 해줄것을 요청한다. 리현덕은 어느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으로 일하는 리금숙을 만나는 순간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틀림없는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던 현덕은 금숙이가 오빠인 금철과 만나는 사진과 기사가 실린 15년전의 신문을 보고서야 자기를 진정하게 된다. 한편 남조선체육역원이 자기를 보는 순간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더라는 금숙의 말을 들은 금철은 현덕을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 금숙이가 현덕의 누이동생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는 곧 현덕에게 15년전 남에 두고온 녀동생을 찾던 자신이 금숙이와 서로 만나 형제로 되게 된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하여 40여년만에 현덕과 금숙은 서로 만나게 된다. 현덕은 금숙이와 이야기하는 과정에 부모도 없이 혈혈단신인 동생이 학원과 대학을 걸쳐 협동농장관리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끝없는 행복을 누리고있다는것을 알게 되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인 공화국북반부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된다. 현덕은 판문점을 넘어가면서 민족분렬의 고통과 불행을 없애기 위하여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것을 굳게 결심한다. 작품은 국토의 량단으로 조선인민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보여주면서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불같은 열망을 절절하게 그리고있다. 작품은 주체80(1991)년에 TV극으로 창조되였다.

《그날을 위하여》 단편소설. 주체47(1958)년 현희균 창작. 미제에 의해 강요되고있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가시기 위해 떨쳐나선 신해방지구인민들의 투쟁의 일단을 보여준 작품이다. 정전된 이듬해 이른봄날 신문기자인 나는 렬차안에서 연안에 고향을 두고있는 의용군출신의 제대군인 오창호로부터 전쟁시기에 그의 가정이 겪은 비극에 대하여 듣게 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친정집에 잠시 다녀오기 위해 젖먹이아들을 업고 강화도에 건너갔던 안해는 38도선이 가로막히는 통에 돌아오지 못하였고 아버지는 적기의 폭격에 희생되였으며 의지가지할데 없게 된 어머니는 세살잡이 손녀를 데리고 산간지대의 친척집을 찾아 떠나갔었다. 제대되여 고향으로 돌아와 온 가족이 흩어져버린 사실을 알게 된 오창호는 우리 인민들에게 모진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미제원쑤놈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강화도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고향땅을 하루빨리 행복한 고장으로 꾸리려는 결심밑에 성천에 있는 외가에 가서 어머니와 딸을 데리고 연안으로 돌아온다는것이였다. 그후 신해방지구의 여러곳을 돌아보고 오창호네가 살고있는 곳으로 찾아간 나는 그들이 불타버린 집터에 새집을 일떠세우고있는것을 보면서 민족분렬의 고통을 가시고 그리운 혈육을 만나려는 이들의 념원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것을 확신한다. 소설은 오창호가정이 겪는 눈물나는 이야기를 통하여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미룰수 없는 민족의 절박한 숙원이며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전쟁으로 하여 페허로 된 땅에 행복한 새생활을 억세게 창조하여야 한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인하였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47(1958)년 1호〕

《그날의 념원》 단편소설. 주체62(1973)년 김재규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남녘해방의 성스러운 싸움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인민군전사들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ㅅ시로 가는 중간소도시 ㅂ시를 해방하였을 때 땅크부대 련대장 최림은 구

성갑전사가 철수명령을 받고도 도망치는 적들을 계속 추격함으로써 전반적인 군사행동에 지장을 주었다는 보고를 받게 된다. 구성갑으로 말하면 얼마전에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한 전우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락동강구포벌의 노래를 불러 강한 인상을 남겼던 전사였다. 그때 노래를 들으면서 그가 전우의 아들이 아닌가고 생각했던 최림은 남녘땅을 해방하는 전투에서 누구보다 용맹하리라고 믿었다. 최림은 그에게 경고처벌을 주도록 한다. 이러한 때 무선전화로 최림을 찾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념원과 온 민족의 숙원을 앞당기기 위해 남으로 총진격하자고 하시며 그에게 ㅅ시상공에 공화국기를 휘날릴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주신다. 련대장으로부터 락동강가에 고향을 둔 항일투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무규률적행동을 뉘우친 구성갑은 ㅅ시의 마지막지탱점인 ××분지전투에서 돌파구를 열 임무를 희생적으로 수행하며 부상당한 몸으로 ㅅ시의 상공에 공화국기발을 높이 날린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통일된 조국땅에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행복하게 살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는 굳은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2(1973)년 6호〕

《그날의 모습》 단편소설. 주체79(1990)년 리기창 창작. 한때 경험주의와 로쇠병에 빠져있던 어느 한 공장의 직장장이 청춘의 활력을 되찾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소설의 이야기는 기자 방형민이 경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섬유생산에서 대단한 예비를 찾아낸 어느 한 섬유공장을 취재하는 형식으로 엮어져있다. 이번 취재길에 딸 옥이도 만나달라는 편집부장의 부탁을 받고 공장에 온 방형민은 먼저 섬유직장장 강덕규를 만난다. 직장장은 기자에게 자기가 아니라 품질감독원 옥이를 꼭 만나야 할걸 그랬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증산과 절약투쟁을 벌릴데 대한 당의 호소에 접한 나—강덕규가 예비를 짜내보자고 애쓰다가 찾지 못하고 방사에서 넘어오는 일부 섬유를 장섬유로 뽑아 처리하도록 하였을 때 옥이가 달려와 건조기능력을 높일 예비를 찾아야지 그렇게 장섬유를 뽑으면 어떻게 하는가고 들이댄다. 그때 나는 제품이나 검사할게지 중뿔나게 무슨 참견인가고 욕을 한다. 그런데 옥이는 지난날 자기들에게 기술기능을 습득하기 전에 로동계급의 깨끗하고 뜨거운 마음부터 배워야 한다고 절절히 가르치던 직장장이 어쩌면 그렇게도 변하였을가, 그것은 당정책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 없고 경험주의에 매달려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후 옥이는 나의 그릇된 일본새를 고쳐주려고 밤새워 섬유를 말리우며 어머니가 앓는다는 전보를 받고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길에서 만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당시)의 기사동무를 통하여 건조기도면과 부속품까지 구해가지고 온다. 그런 옥이의 모습에서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아안은 나는 자신의 그릇된 일본새를 뉘우친다. 소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당의 의도를 가슴깊이 새기고 언제나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신념으로 심장을 불태울 때 깨끗한 량심과 청춘의 활력을 지니고 한생을 보람있게 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79(1990)년 제23호〕

《그날의 병사답게》 단막희곡. 주체74(1985)년 김하천 창작. 자체의 힘으로 고기생산을 늘이기 위한 축산로동자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전쟁참가자인 로병 윤석은 제대되여 목장지배인으로 배치된 후 바위산을 호박산으로 만들고 강뚝에 호박굴이 뻗게 하는 등 자체사료기지를 꾸려놓은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공업적방법으로 단백질먹이를 생산할 대담한 작전을 벌린다. 그는 관리공 동식을 내세워주고 배관원천을 탐구하며 진펄에서까지 먹이풀을 심을 자리를 찾아낸다. 그러나 지배인의 오랜 전우인 기사장 경수는 로력, 자재타발만 하면

서 도에 있는 동식의 외삼촌을 내세워 우에서 보충사료를 받아올 생각만 한다. 이러한 그에게 지배인 윤석은 떼목우에 중기를 올려놓고 노가 없어 보병삽으로 물을 저으며 강을 건넜던 동무가 언제부터 전우들의 피가 흐르던 락동강의 물결소리를 잊었는가고 말한다. 경수는 윤석의 비판을 받고 모대긴다. 이때 아래에 내려와 배우면서 도와주려고 사료분쇄기까지 메고온 동식의 외삼촌 형준이가 지배인 윤석은 사실 제대될 때 부상당한 다리때문에 로동능력상실의 진단을 받은 사람이지만 당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투쟁하고있다고 말한다. 기사장 경수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자기도 윤석이처럼 싸움의 그날 락동강을 건느던 병사답게 살것을 굳게 다짐하며 배판앞채를 메고 공사장에 뛰여든다. 작품은 일군들이 어렵다고 주저앉거나 우만 쳐다보면서 우는소리를 할것이 아니라 간고했던 전화의 그날처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투쟁하며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기수가 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예술》 잡지, 주체74(1985)년 9호〕

《그날의 항로》 단편소설. 주체74(1985)년 최창학 창작. 북방의 외진 산골중계소의 한 기계공처녀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사랑의 직승기까지 띄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매한 풍모를 형상한 작품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고 중환자치료를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은 대학병원 의사 윤현석은 환자가 큰 간부일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뜻밖에도 그가 중계소의 평범한 기계공처녀라는것을 알고 놀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은심이라고 부르는 그 처녀가 바람이 사납게 부는 이른새벽 중계탑을 돌아보러 나갔다가 눈사태에 절벽밑으로 떨어져 심한 중상을 입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사랑의 직승기까지 띄워주시였던것이다. 환자를 진찰하던 윤현석은 상태가 너무 절망적이여서 신심을 가지지 못한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환자를 평양의 큰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뜻을 받들고 누가 알아주건말건 성실히 일해온 은심이를 꼭 살려내자고 윤현석에게 뜨겁게 말씀하신다.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현대의학으로써는 도저히 살릴수 없다던 은심이가 완쾌된다. 이를 통하여 작품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인민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국해방 40돐 기념작품집 《승리의 아침》, 문예출판사, 주체74(1985)년판〕

《그 념원 총대로 빛내리》 가사. 주체92(2003)년 신운호 창작.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념원을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영원히 총대로 지키고 빛내여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격조높이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에서는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는 길에서 언제나 총대와 함께 계신 어머님께서 해방된 강산에 새봄이 꽃필 때 백두의 넋이 어린 사연깊은 권총을 위대한 장군님께 안겨주시는 시적화폭을 통하여 총대의 귀중함을 깨우쳐주고있다. 가사의 2절에서는 혁명의 가보로 물려받으신 백두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고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념원이 비껴있는 혁명의 성스런 붉은기를 굳건히 지켜오신 불멸의 업적을 시화하고있으며 3절에서는 간고하고 시련에 찬 머나먼 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말없는 동지, 길동무가 되여준 백두의 권총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의지와 드팀없는 신념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가사에서는 매절의 후렴구에서 《아 장군님 따라서 어머님 그 념원 총대로 빛내리》라는 시적표현을 반복하여줌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따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념원을 총대로 빛내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

지를 잘 표현하고있다. 가사는 총대가 없이는 혁명의 개척도 계승완성도 없다는 혁명의 진리와 혁명의 총대를 높이 들고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념원대로 이 땅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철한 신념을 사상성이 높고 철학적깊이가 있는 세련된 시어들로 뚜렷이 부각하고있다. 〔《조선노래대전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그는 대좌였다》 영화문학. 렴양필 창작. 어느 한 전연부대에서 부사단장으로 사업하던 한 인민군군관이 40여년간의 군사복무를 마치고 고향인 평양으로 가게 되였으나 부대의 싸움준비완성과 군인들의 생활조건보장에 기여할 결심밑에 주둔지대에 남아 발전소건설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제대명령을 받고 고향인 평양으로 떠나기 위해 이사짐을 꾸리고있던 어느날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부대의 싸움준비와 군인들의 생활을 더한층 추켜세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주인공 창혁은 부사단장으로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놓지 못한것을 두고 심한 자책감을 느낀다. 영진강발전소건설로 말하면 부대의 싸움준비와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지만 공사량이 엄청난것으로 하여 자체로 발전소를 건설할 용단을 내리지 못하던것이다. 비록 몸은 제대되였으나 부대앞에 제기된 새로운 전투과업을 두고 고심하던 창혁은 발전소건설에 자기의 적은 힘이나마 보탤것을 결심한다. 하여 그는 평양으로 떠나기 위해 준비했던 이사짐을 풀고 평범한 돌격대원이 되여 발전소언제건설장에서 일을 한다.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마음속의 군복만은 벗지 않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나날에 그는 철없는 딸의 오해도 사게 된다. 평양으로 가게 되였다고 기뻐하던 딸은 아버지가 병사들속에서 아바이로 불리우며 그들과 같이 일하는것을 보고 자식들의 장래와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투정질한다. 그런가하면 건설장의 병사, 지휘관들은 군복을 벗은 그를 어제날의 부사단장으로 대하여 창혁을 당황하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관철에 인생의 기준점을 둔 그는 사사로운 감정들을 이겨내며 언제건설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다. 그는 언제건설이 끝나자 평양으로 떠나라는 지휘관들의 권고도 마다하고 발전소종업원으로 한생을 바칠것을 결심한다. 어느날 완공된 영진강발전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진강에 세운 발전소를 보는것도 기쁘지만 선군시대 인간전형을 알게 된것이 더 기쁘다고 하시면서 창혁의 소행을 높이 치하해주신다. 작품은 직급이 높은 제대군관의 시점에서 혁명적군인정신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총대를 잡고 군사복무를 할 때는 물론 제대된 후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관철에 인생의 기준점을 정하고 변함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우리 시대 참된 인간의 전형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작품은 주체93(2004)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그는 대학생이였다》 영화문학. 손광수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해방된 서울에 나가 정치공작원으로 활동하다가 영웅적인 최후를 마친 **김일성**종합대학 한 녀대학생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주인공 진순금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억울하게 부모를 잃고 가난과 천대속에 살아온 자기를 민족간부로 키워주시기 위하여 대학에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삶의 은인으로, 친어버이로 믿고 따르며 그 은덕을 가슴속깊이 안고 생활한다. 그는 삼복의 무더위도 무릅쓰고 대학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을 뵈옵고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며 그이께서 오셨을 때 시원한 샘물을 드리지 못한 자책감을 안고 애써 샘줄기를 찾아내기도 한다. 그는 또한 한고향에서 대학에 온 투석이가 고서점에 학생증을 맡겨놓고 책을 빌려온 사실

을 알고 격분을 터뜨리며 우리의 학생증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져있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을 내여 끝끝내 학생증을 찾아온다. 전화의 나날 정치공작대로 서울에 파견되여나간 진순금은 학생청년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여 수많은 학생청년들이 의용군에 입대하도록 하며 대학생들속에서 인기가 있는 윤빈과 윤정 오누이를 꾸준히 교양한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들이 다시 서울로 기여들게 되자 윤정은 대오와 함께 평양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윤빈은 일부 학생들과 함께 적첩보대의 밀정인 림학의 꼬임에 빠져 외진 섬으로 피신한다. 진순금은 섬으로 피신하는 그들을 돌려세우기 위하여 단신으로 섬으로 들어가 림학의 정체를 발가놓고 학생들을 돌려세우지만 적첩보대놈들에게 체포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위급한 순간 진순금은 자기는 천백번 죽어도 달리는 될수 없는 어버이장군님의 딸,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이라고 웨치며 영웅적으로 최후를 마친다. 작품은 오늘의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금수산기념궁전앞에서 전쟁시기 대학생정치공작대원들이 영웅적으로 활동을 벌린것처럼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울 굳은 맹세를 다지는 장면에서 끝난다. 작품은 진순금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수령님의 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혀주고있다. 작품은 주체85(1996)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그는 봄을 가지러 간다》 단편소설. 주체54(1965)년 김수범 창작. 이 땅에서 자연의 봄마저 악착하게 앗아가려는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에 나선 한 투사의 어린시절을 보여준 작품이다. 돈이 없어 학교에는 못가지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온것이 너무 좋아 명준은 엄마에게 봄은 누가 가져오는가고 묻는다. 강남갔던 제비가 가져온다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명준은 그때부터 아름다운 꾀꼴새를 새조롱속에 넣고 애지중지 키워간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집에 달려든 왜놈순사가 그토록 애지중지 키우던 꾀꼴새를 쏘아죽이자 명준은 새들도 마음대로 놀지 못하게 자연의 봄마저 악착스레 빼앗으려드는 강도 일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금치 못해하며 뭇새들도 자유롭게 깃을 치며 날아옐 참다운 봄을 가져오기 위하여 투쟁에 나선다. 소설은 간악한 강도 일제의 야수적탄압속에서 자연의 봄마저 빼앗긴 이 땅에 기어이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아오려면 모두가 혁명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4(1965)년 제73호〕

《그는 아홉살이였다》 중편소설. 주체70(1981)년 박현 창작.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라나 9살 어린 나이에 영웅적최후를 마친 아동단원 금순의 투쟁을 보여준 작품이다. 금순이는 아버지가 유격대에 보낼 폭약과 도화선때문에 먼길을 다녀왔다는것을 모르고 사과를 사다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동생과 함께 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린다. 그날 밤 금순이 아버지는 불의에 달려든 놈들과 싸우다가 체포된다. 다음날 적《토벌》에 의하여 마을이 불타고 숱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속에서 어머니, 동생과 헤여진 금순이는 부모를 잃은 이웃집 철민이와 함께 유격구를 찾아가 아버지장군님의 품에 안겨 어린 투사로 자라난다. 그후 그는 연예대원이 되여 총포탄이 우박치는 고지에서와 반일부대들에서 연설을 잘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어머니와 동생이 살아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마을로 내려갔던 금순이는 어머니가 조직의 련락임무수행중 장렬하게 전사하였다는것을 알게 되며 어머니가 못다한 임무를 스스로 맡아 수행하고 오던 길에 뜻밖에도 놈들에게 체포되여 9살 어린 나이에 영웅적인 최후를 마친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하였던 아

동단원 금순이의 투쟁실기를 소재로 하여 짧은 한생을 혁명을 위하여 바친 어린 투사의 형상을 감명깊게 보여줌으로써 사람이 어떻게 사는것이 참답고 값있게 사는것인가 하는것을 훌륭히 밝혀내였다.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0(1981)년판〕

《그네》 서정시. 주체36(1947)년 조기천 창작. 지난날 천대받고 압박받던 근로인민의 자녀들에게 배움의 길이 활짝 열린 해방후의 새로운 현실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5월의 푸른 강변에서》 그네를 뛰며 그리운 이가 공부하는 평양성의 《**김일성**대학》을 넘어다보는 처녀의 모습을 통하여 해방후 우리 인민이 누리는 새생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시는 그네뛰는 처녀들의 모습을 기본으로 노래하면서도 마지막시련에서 머슴살이하던 총각이 대학에서 배우고있다는것을 간결하면서도 함축성있게 토로함으로써 해방을 맞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는 인민들의 감격을 깊이있게 천명하고있다. 〔《조기천선집》(하), 문화전선사, 주체41(1952)년판〕

《그네뛰는 처녀》 가사. 주체45(1956)년 최로사 창작. 로동의 희열과 기쁨을 안고 5월단오를 즐기는 처녀들의 랑만적인 생활감정을 노래한 민요풍의 작품이다. 2개의 절로 되여있다. 가사의 1절에서는 머리단장, 옷단장을 곱게 한 처녀들이 능수버들 휘늘어지고 실바람이 훈훈하게 불어오는 뒤동산 그네터에서 쌍그네로 창공높이 날으며 단오를 즐기는 모습을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2절에서는 그네뛰는 처녀의 시점을 통하여 새로 옮긴 랭상모가 푸르러가고 앞내가 모래터에서는 사람들이 씨름경기로 흥성거리는 농장마을의 약동하는 모습을 랑만적으로 노래함으로써 로동에서나 생활에서 언제나 근면하고 성실하며 열정적인 우리 인민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가사는 민속놀이를 취급한 소재의 특성에 맞게 민족적인 색채가 짙은 생활세부와 시어들을 잘 탐구하였을뿐아니라 조흥구《에헤야》와 반복구《즐거워라》, 《구름밖을 날아보자》 등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전통적인 4, 4조의 운률조성법을 잘 살려씀으로써 밝고 락천적인 우리 인민들의 생활감정을 원만하게 표현하고있다. 가사는 우리 인민들의 민족적인 생활모습을 새로운 시대적미감에 맞게 훌륭하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창작되자마자 인민들의 각별한 사랑속에 널리 불리워졌다. 〔《조선음악전집》1,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그들은 굴하지 않았다》 단편소설. 주체44(1955)년 리근영 창작. 농토를 훈련장으로 만들려는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의 책동을 반대하여 일떠선 남조선농민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지주놈의 소작살이를 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주인공 만술은 어느날 놈들이 논밭에 훈련장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격분한 만술은 마을사람들과 농토를 지켜 싸울것을 결심한다. 한편 지주놈은 이 기회를 리용하여 훈련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한다면서 농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낸다. 당장 먹고 살아가기 어려운 만술이도 지주놈한테 찾아가 운동을 지지한다는 도장을 찍으면 장리쌀이라도 얻을수 있었으나 그 속심이 뻔해 그만둔다. 그런데 안해가 도장을 찍고 쌀을 꾸어온다. 만술은 안해를 꾸짖고나서 지주놈을 찾아가 도장찍은것을 취소하라고 들이댄다. 며칠후 그는 표말을 박으러 나온 미군장교놈과 괴뢰군놈들을 반대하여 마을사람들과 함께 싸운다. 만술은 놈들의 총탄에 맞아 사람들이 쓰러지고 자신도 부상당했지만 물러서지 않는다. 농민들은 비록 놈들에게 땅을 빼앗겼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결의를 다진다. 작품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그 어떤 강권으로도 정의를 위해 일떠선 인민들의 투쟁을 멈춰세울수 없다는것을 보여주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이야말로 조국통일을 방해하고 온 민족에게 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장본인이라는것을 확증하였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44(1955)년 8호〕

《그들은 바다에서 자랐다》 중편소설. 주체67(1978)년 리철모 창작.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층뜨랄을 받아들이라고 하신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헤치며 승리를 마련해가는 먼바다어로공들의 투쟁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먼바다로 가는 주인공인 갑판장 용민이가 《청년》호에서 진행하고있는 중층뜨랄시험을 하루빨리 성공시킬 불같은 결의에 차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한달나마 등교수업을 하고 다시 먼바다에 나온 그는 뜻밖에도 《청년》호가 시험작업을 중단하고 당면한 생산에만 몰두하고있는것을 보게 된다. 기대하던바와는 너무도 판이한 사실앞에서 격해지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던 용민은 완강한 투쟁으로 시험작업을 다시 계속하도록 한다. 그러나 일은 갈수록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며 윤봉선장은 당장 시험작업을 중단할것을 요구해나선다. 중층뜨랄을 성공시켜 훌륭한 졸업론문을 쓰리라고 결심했던 태호마저 뭍으로 돌아간다. 이때 무전수인 순임은 용민의 진실한 동무가 되여 그를 적극 도와나선다. 한편 사업소로 돌아온 태호는 떳떳하지 못한 자신을 뉘우치고 다시 먼바다로 나간다. 《청년》호선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험작업은 계속된다. 그러던중 《청년》호가 뜻하지 않은 풍랑으로 조난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모선으로부터 온 구원선도 파도와 암초, 광풍으로 하여 접근하지 못한다. 배와 선원들의 운명을 걱정하던 나머지 윤봉선장은 시험그물을 찍어버리려고 하지만 용민은 허리에 바줄을 감고 물속에 뛰여들어 구원선에 당도한다. 하여 위험에 처했던 배는 구원된다. 이것은 시험작업을 동요와 의혹을 가지고 대하던 윤봉선장의 사상적개변에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이러한 때 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원들의 영웅적소행을 치하하시였다는 무전을 받은 선원들은 목메이는 격정을 누를길 없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를 소리높이 부른다. 드디여 그들은 시험작업에서 성공하여 지금까지 미개척지로 있던 바다의 중층을 개발하는 거대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소설은 우리 시대 청년들은 높은 투쟁목표와 아름다운 리상을 가지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많이 하여야 하며 그속에서 삶의 보람과 희열을 느낄줄 알아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67(1978)년판〕

《그들은 함께 싸웠다》 장편소설. 주체59(1970)년 정순봉, 최학수 창작. 락동강계선에서 련대의 일시적인 전략적후퇴를 보장하다가 부대와 떨어진 세명의 인민군군인들이 적강점지역에서 그곳 인민들과 함께 유격투쟁을 벌리는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 작품이다. 주인공인 소대장 정창해와 부분대장인 독고철, 나어린 전사 박태남은 부대의 후퇴를 엄호하고 철수하다가 불의의 정황으로 적후에 떨어지게 된다. 련대를 찾아 북으로 가던 세 군인은 박태남의 고향인 현동면 긴골마을을 지나가다가 적들의 추격을 받는 달춘이네 일행을 구원하고 그들의 안내로 백설산유격근거지에 들어가게 된다. 현동인민유격대 대장 최순철은 인민군군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사실상 유격대가 조직되기는 하였지만 면당위원장이였던 대장자신이 아무런 군사경험도 없는 사람이였다. 정창해소대장은 최순철에게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10월11일방송연설을 전달받고 적강점지역에서 유격대를 도와 싸우기로 결심한다. 군인들이 백설산에 남게 된 다음 유격대는 다시 편성되여 정창해는 참모장, 독고철은 새로 내온 정찰소대장으로 임명되며 부상을 입은 박태남은 근거지에서 치료를 받는다. 유격대는 근거지를 튼튼히 꾸려 겨울나이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한편 규률을 세우고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대오의 면모를 일신한다. 무엇보다도 급선무는 식량을 확보하는 문

제였다. 유격대는 정창해를 통하여 률림리 장수환로인의 아들 병손이가 목숨으로 지켜낸 쌀저장장소를 알아내고 식량운반을 조직한다. 또한 적의 보급로를 차단시켜야 한다고 하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현동—첨성간 대도로를 끼고있는 협곡에서 적수송대습격전투를 벌린다. 이러한 전투과정을 통하여 초기에는 적을 두려워하고 피하던 사람들이 원쑤들을 족칠줄 아는 당당한 유격대원으로 성장한다. 유격대는 적의 후방교란작전을 맹렬하게 벌리며 밤나무골에 대한 기습전을 진행하여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려던 수색대장 레이몬드와 주구 오생원을 비롯한 놈들을 쳐부신다. 또한 린접에서 활동하는 련합부대와 련계를 맺고 인민군대의 재진격이 개시되자 련합작전을 벌려 현동거리를 해방한다. 소설은 정창해와 독고철, 박태남 등 유격대와 함께 싸운 군인들이 자기 련대와 만나 남진의 길에 다시 오르는것으로 끝맺고있다. 소설은 그 어떤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보위를 위한 성전에 한몸바쳐 싸운 인민군대와 후방인민들의 높은 충실성과 열렬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 대중적영웅주의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군대와 인민은 한마음한뜻이며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이야말로 인민군대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전쟁승리의 중요한 요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59(1970)년판〕

《그들이 가는 길》 단편소설. 주체65(1976)년 김원복 창작. 박정희군사파쑈독재에 항거하여 투쟁에 떨쳐나서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홀어머니를 모시고있는 리기찬과 어린 누이동생 순희를 함바집급사로 보낸 백형기는 막역한 사이의 대학생청년들이다. 어느날 파쑈독재에 항거하여 자결한 김상진의 추모회가 있은 후 형기는 적들의 탄압에 겁을 먹고 싸움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기찬에게 침을 뱉는다. 기찬은 언젠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수 있다는 한가닥 희망을 안고 학비를 벌기 위해 뼈빠지게 일한다. 그러나 현실은 기찬의 이 희망마저 사정없이 짓뭉개버린다. 군사파쑈도당의 탄압으로 대학은 페쇄당하며 기찬의 손달구지마저 경찰차에 치워 박살이 난다. 괴로움에 모대기던 기찬은 형기에게 비록 버림을 받았지만 의리만은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순희를 데리러 떠났으나 순희마저 밥값때문에 주인년에게 모진 매를 맞고 누워있는 형편이였다. 그때에야 비로소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에서는 효도도 의리도 희망도 꽃피울수 없음을 절감한 기찬은 형기의 뒤를 따라 투쟁에 나선다. 작품은 기찬의 형상을 통하여 군사파쑈독재가 살판치는 남조선사회에서 인간답게 사는 길은 오직 투쟁의 길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강물은 바다로》, 금성청년출판사, 주체65(1976)년판〕

《그들이 가는 길》 단편소설. 주체69(1980)년 안선옥 창작. 경제적효과성이 큰 나무를 얻어내는 연구사업에 전심하는 처녀과학자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원림연구소 분원에 들렸다가 밤길을 걸어 돌아가는 처녀연구사 진연희는 깊은 산속에서 세찬 비를 만나 길을 잃고 헤매다가 도에 회의갔다오던 순녀라는 처녀과학자를 만나게 된다. 비도 그을겸 함께 순녀의 집에 간 연희는 그가 자기 오빠의 대학동창이며 중요한 연구사업때문에 여기에 와있음을 알게 된다. 더우기 순녀가 추곡의 산을 가꾸는 아바이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없어졌다고 하던 한 경제식물을 찾고 학위론문을 같이 완성하자는 오빠의 권고도 물리치고 이 깊은 산속에서 그 식물을 연구하고있음을 알게 된 연희는 크게 감동된다. 그런 순녀와 자기를 대비해보며 연희는 조국에 바치는 진정한 과학자의 량심과 행복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자기도 순녀와 함께 연구사업을 하기로 결심한다. 소설은 순녀와 연희의 형상을 통

하여 참다운 과학자의 행복은 티없이 깨끗한 마음을 조국에 바치는데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9(1980)년 1호〕

《그들이 택한 길》 단편소설. 주체61(1972)년 김홍무 창작.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유격대원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보여준 작품이다. 지하조직의 통보를 가지고 올 명령을 받은 준호와 윤필은 련대를 떠나 닷새만에 련락장소에 도착한다. 그들은 지칠대로 지친 몸이였으나 사령부의 안전을 걱정하여 하루밤 쉬지도 못한채 돌아서 오던중 불의에 적들과 조우하여 준호는 허벅다리에 심한 부상을 당하고 식량배낭까지 잃어버린다. 그러나 상처의 아픔이나 굶주림보다도 사령부에 닥쳐올 위험에 더 마음을 쓰는 준호는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신입대원 윤필이를 이끌고 행군을 계속한다. 온갖 고생끝에 밀영에 도착하였지만 사령부를 만나지 못한 그들은 또다시 100리나 되는 제2호밀영으로 발길을 돌린다. 준호와 윤필은 부상당하고 지친 몸이였으나 사령부의 안전을 위해 200리가 넘는 험한 산길로 에돌며 그 길에서 사령관동지께서 파견하신 전령병들을 만난다. 소설은 두 유격대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벌어진 이야기를 통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닌 끝없는 충실성과 고귀한 사상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1(1972)년 6호〕

《그들이 왔다》 단편소설. 주체47(1958)년 황건 창작.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를 진두에서 조직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에 대한 한 류벌공의 체험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구시물동에 있는 합숙에서 잠을 자고있던 류벌공 형근은 떼목으로 압록강을 건느도록 도와줄것을 부탁하는 인삼장사군으로 변장한 유격대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두 동무와 함께 강변으로 나간다. 거기서 그는 자기들의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며 조국해방을 위한 큰일에 나섰다고 고무해주시는 젊으신 지휘관의 빛나는 안광을 대하면서 보통분이 아니실것이라고 짐작한다. 잠시후에 소리없이 떼목다리가 놓여지고 숲속에 대기하고있던 전체 부대가 다리를 건너 곤장덕에 오른다. 그 젊으신 지휘관은 보천보거리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에 작전지도를 펴놓으시고 작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신다. 정렬한 대렬앞에 나서신 그이께서는 오늘밤에 보천보를 들이침으로써 조선인민은 결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아니라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고통속에 신음하는 동포들에게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자고 힘있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전투명령을 하달하신다.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조국해방의 억센 의지가 뜨겁게 맥박치는 그이의 연설을 들으며 흥분된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던 형근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는 유격대원들을 통하여 그분이 오매에도 그리던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것을 알게 된다. 날이 저물자 유격대원들을 도와 적들의 전화선을 끊어버리는 일을 순식간에 끝낸 형근은 시가지쪽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요란한 총소리와 뒤이어 캄캄하던 거리를 환히 밝히며 세차게 타오르는 거대한 불길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기에 반드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이 이룩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 소설은 류벌로동자인 형근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보천보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와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게 펼쳐보였으며 그이를 민족의 태양으로 열렬히 흠모하고 높이 받들어모시는 우리 인민들의 감정세계를 진실하게 일반화하였다. 〔《문학신문》, 주체47(1958)년 제23호〕

《그들의 교훈》 단편소설. 주체70(1981)년 리화 창작. 젊은 일군과 로세대일군이 서로 사업방법에서 교훈을 찾는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남동제염소 생산과 지도원 리영택은 일을 제낄줄 아는 젊은 일군이지만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믿고 지나치게 행동하는 일이 있어 자주 말밥에 오른다. 탁아소에 석탄을 대주는 문제를 두고 직접 제기까지 하였으나 직장장이 바쁘다고 실행하지 않자 그는 사람들앞에서 나이많은 직장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그는 아무리 자기가 정당해도 사업방법이 졸렬하면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 로세대일군들의 충고를 듣고 그들처럼 보다 원숙하고 수양있는 사업방법을 체득하려고 애쓴다. 그러던 어느날 소금야적기가 고장나자 그는 승인없이는 출고할수 없는 쇠바줄을 자의대로 꺼내여 야적기를 살린다. 여기서 그는 또다시 자기의 정당성만 믿고 자재출고질서를 어기는 결함을 범하지만 소금생산의 걸린 고리를 풀고 육체적로동의 힘든 요소를 퇴치한다. 영택의 일본새를 놓고 조만수직장장등 로세대일군들은 걸린 고리를 풀려고 노력하지 않은 자신들의 그릇된 사업태도를 돌이켜보며 그의 헌신적인 일본새를 적극 따라나선다. 소설은 이들의 형상을 통하여 일군들이 서로의 우점은 본받고 빈구석은 보충하면서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0(1981)년 1호〕

《그들의 마음》 단편소설. 주체85(1996)년 리태렬 창작. 쌀로써 당을 받들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보여준 작품이다. 도시의 상업부문에서 일하다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꽃피울 결심을 안고 농촌으로 내려간 막내손녀 정애가 외진 곳에 가서 일을 제대로 하고있는지 걱정스러워하던 조순녀할머니는 그가 일을 잘할 때까지 당분간 함께 있으려고 농촌으로 내려간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했던 손녀가 농사일을 깐지게 잘하고있었다. 땅에 바쳐가는 그의 진심이 비낀 일기장을 보면서 그리고 생일날에조차도 애써 가꾼 포전이 비바람피해를 받을가봐 밤깊도록 논두렁에서 쪽잠을 자며 포전을 지켜선 손녀의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농사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는것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드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손녀가 있는 농촌에 아주 남는다. 소설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나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세계를 깊은 정서적여운속에 그리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5(1996)년 3호〕

《그들의 모습》 단편소설. 주체71(1982)년 김길 창작. 오랜 로동계급의 깨끗한 충실성과 성실한 일본새를 본받는 새 세대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조선소 제관직장의 통계원 한옥심과 제관공 오성묵은 전문학교를 갓 졸업하고 현장에 나온 청년들이다. 오성묵은 제관에서 손꼽히는 정석호아바이의 견습공으로서 그의 모범을 따라 혁신자가 되려고 애쓰며 옥심은 이러한 성묵을 고무격려해준다. 어느날 정석호가 다른 일에 잠시 동원되여 성묵은 그가 하던 일을 혼자서 맡아하게 된다. 이때 성묵은 지금까지 배운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일을 배로 해제끼며 추가적으로 제기된 제관작업도 해준다. 옥심은 이 성과를 두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속보에 내고 공장신문에도 소개하려 한다. 그러한 성묵이가 대견하여 작업현장에 찾아왔던 정석호는 오성묵이 자기 일은 솜씨있게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제기된 남의 일은 철판을 마구 랑비하면서 성의없이 거칠게 해치운것을 알게 된다. 정석호아바이와 함께 왔다가 이것을 안 옥심은 성묵을 찾아가 평가되는 일에만 힘을 넣어 실적을 올린 그의 깨끗치 못한 량심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한다. 성묵이가 거칠게 해놓은 제관작업을 수정하고있던 정석호는 옥심이와 함께 찾아온 그에게 크고 빛나는 일이 따로 없으며 무슨 일이나 로동계급의 깨끗한 량심을 바쳐 할 때만이 빛나게 된다는 귀중한 이야기를 해준다. 옥심과 성묵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바이의 말투나 손짓, 몸짓을 본따기 전

에 오랜 로동계급의 깨끗한 충실성과 성실한 일본새를 먼저 따라배우리라 마음다진다. 소설에서는 로세대들을 본받아 혁명의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는 새 세대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1(1982)년 5—6호〕

《그들의 모습에서》 영화문학. 오혜영 창작.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남조선에서 《반공》사상에 물젖었던 한 녀성화가가 인민군대의 참된 모습에서 진정한 조국의 모습을 보고 공화국의 품에 안겨 새삶을 누리는 이야기를 보여준 작품이다. 부산에서 서울에 사는 아버지를 찾아 떠난 주인공 서진아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오른 인민군군인들을 만나게 된다. 서진아는 처음에 공포에 질리나 긴급한 정황에서 어쩔수없이 그들과 동행하게 된다. 행군로정에서 서진아는 인민군소대장인 김훈과 나어린 전사 용일, 간호원처녀와 부상병들속에서 발휘되는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새로운 인간세계를 발견하고 깊이 감동된다. 일행이 서울남쪽교외에 이르렀을 때 적들과 조우하자 김훈은 전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적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간다. 여기서 일행과 헤여진 서진아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내려간다. 서진아의 아버지 서정현은 량심적인 학자이다. 그는 미국놈들에게 나라의 귀중한 문화유물을 섬겨바치는 괴뢰군장교 서기철이 부산의 문화유물창고에 불을 지른 비밀을 알고있는것으로 하여 놈들에게 체포되여 학살당하게 된다. 이때 김훈이 서교수의 학살현장에 도착한다. 그는 서교수와 그가 일생동안 연구한 귀중한 저서를 구원하기 위하여 싸우지만 서교수는 놈들의 총탄에 숨진다. 미국놈들과 그의 졸개들은 서교수의 사살사건을 인민군대에 의한것으로 날조하여 모략선전을 꾸민다. 서진아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무서운 현실앞에서 리성을 잃고 몸부림친다. 그러나 김훈에 의하여 모든 진상이 똑바로 밝혀진다. 서진아는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인민군대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피흘려 싸우는 참된 사람들이라는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 참된 사람들을 키워내는 품,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품이야말로 진정한 조국임을 알게 된 서진아는 결연히 새삶의 길에 오른다. 작품은 인민군군인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돈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짓도 마다하지 않는 괴뢰군장교 서기철과의 대조속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주면서 더없이 아름답고 고결한 인간들을 키워낸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품은 우리 인민모두가 안겨살 참다운 조국의 품이라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74(1985)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그들의 문제》 단편소설. 주체55(1966)년 변희근 창작. 새 세대를 억세게 키워가는 한 일군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군당전원회의에 참가하고 한주일만에 돌아온 미덕갱 갱장 김봉삼은 오랜 광부의 아들 경태네 소대가 굴진속도를 높여 속보판에 크게 소개된것을 보고 몹시 기뻐한다. 그러나 얼마후 그것이 굴진하기 힘든 굳은 막장으로부터 무른 막장으로 옮겼기때문이라는것을 알게 된 봉삼은 경태네를 그렇게 옮겨준 사람이 부갱장 한성칠임을 알게 되자 실망을 느낀다. 친구의 아들인 경태를 실지 힘든 작업을 통해서 단련시키려는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그가 아직 어리다는 구실을 내세우며 되도록 쉬운 일터에서 큰 성과를 내게 하는것으로 친구의 의리를 지키려는 성칠의 태도가 못마땅했던것이다. 봉삼은 한성칠에게 우리의 대를 물려줄 새 세대들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된다고 일깨워준다. 그는 또한 경태에게 일제의 총에 맞아 희생되면서 아들을 부탁하고 간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땀을 적게 흘리고 더 큰 평가를 받으려는 옳지 못한 사상을 준절히 깨우쳐준다. 그 말을 들으며 경태는 뜨거운 눈물속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며 성칠이도 눈먼 사랑

으로 경태를 키우려 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 소설은 혁명의 대를 이어갈 로동계급의 새 세대들을 부단한 혁명실천속에서 굳센 의지와 신념을 지닌 혁명가로 키우는것이 참다운 로동계급의 의리를 지키는 길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5(1966)년 3호〕

《그들의 문제》 단편소설. 주체77(1988)년 로성렬 창작. 어느 한 광산지배인의 형상을 통하여 일군들의 립장과 자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다. 석천광산 지배인 주광진은 자재인수원 리우철이가 독학으로 검정시험을 치고 화학기사자격을 받은 후 전공분야로 보내줄것을 여러번 제기하였으나 매번 거절한다. 주광진은 자재구입에 수완이 있는 그를 놓아주고싶지 않았다. 도에 올라가는 출장길에서 남면화학공장 지배인을 만난 주광진은 재능있는 화학기사인 우철이를 자기네 공장에 보내달라는 그의 요구를 딱 잘라맨다. 광진은 도소재지에 올라갔던 길에 거기서 혼자 살고있는 어머니에게 들린다. 초등학교에서 교원으로 있다가 얼마전에 부재공장으로 조동되여 합숙관리원으로 일하고있는 그의 어머니는 자기가 졸업시킨 한 제자의 직업문제로 하여 골머리를 앓고있었다. 건설대학을 나온 그 제자가 비전공분야인 상업관리소 부원으로 배치받았기때문이다. 어머니는 그의 장래를 끝까지 책임지는 립장에서 그가 전공분야에서 일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애를 쓰지만 상업관리소 소장은 일 잘하는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 광진은 때늦게나마 우철이와 상업관리소 부원을 대비해보면서 자기를 깊이 뉘우친다. 작품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 하는 문제는 그들 당사자들의 문제이기 전에 그들의 운명을 책임진 일군들의 사상관점에 관한 문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7(1988)년 5호〕

《그들의 상봉》 단편소설. 주체78(1989)년 김천성 창작. 인민들이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밤낮없이 뛰여다니는 한 당일군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10년나마 녕진군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한적이 있는 황병익은 출장길에 옥림역에서 3년간 함께 일한 이전 군당책임비서 주성빈과 상봉한다. 그간의 회포도 나눌 사이 없이 기차를 기다리는 짬시간마저 그곳 일용품공장을 찾아가는 성빈을 보며 병익은 녕진군에 있을 때의 일들을 회상한다. 그때 군당책임비서였던 성빈은 주민들이 재털이와 도배지색갈때문에 불편을 느낀다는것을 알고는 지방에 흔한 원료를 찾아 뛰고 또 뛰여 군내인민들에게 나무재털이와 문양고운 도배지를 넉넉히 생산공급한다. 그러한 성빈을 또다시 만난 녕진군사람들이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났어도 잊지 않고 진정을 가지고 대하는것을 보자 병익은 인민들을 위해 바치는 그의 높은 헌신성과 책임성에 자신을 심각히 비추어본다. 소설은 주성빈의 형상을 통하여 일군들이 진정한 인민의 충복이 되자면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뜨거운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일해야 하며 그런 일군만이 언제나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깊이있게 밝혀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78(1989)년 제32호〕

《그들의 하루》 영화문학. 안준보 창작.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하루를 일년맞잡이로 세월을 주름잡아 내달리는 5월1일경기장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주인공인 련대장 정훈을 비롯한 건설자들은 당의 웅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시간을 쪼개가며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경기장건설을 다그쳐간다. 어느날 건설장에는 어머니도 없이 할머니손에서 자란 정훈의 하나밖에 없는 딸 정혜가 상급학교 진학문제와 관련하여 그의 지도교원 송주선생과 함께 오게 된다는

련락이 온다. 사랑하는 딸과 그를 재간있는 손풍금수로 키워준 송주선생을 마중하려 역전으로 나갔던 정훈은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도착한 대형트라스를 보자 딸마중도 아랑곳하지 않고 건설장으로 달려와 즉시로 비상전투를 조직한다. 한편 대대장 조진구는 자기의 료양길도 마다하고 정혜와 송주선생을 데리고 건설장으로 되돌아오며 조립공 용진과 그의 애인 애순은 결혼식마저 미루고 청춘의 구슬땀을 건설장에 쏟아붓는다. 정훈은 모든 작업장들에 그날 해야 할 전투과제를 이미 하달하였지만 대형트라스가 도착하자 그것을 그날과제에 물려 해제끼려 한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난문제가 제기된다. 정훈은 운전사들속에 들어가 사상동원사업을 진행하여 운반대책을 세운다. 또한 지하망공사장에 달려가 로력과 건설기계수단 등 걸린 고리를 풀어주며 건설자들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대형트라스가 예정기일보다 하루 앞당겨 제정된 시간내에 통과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한다. 그리고 대형트라스를 실은 대형운반차가 가설다리우를 힘겹게 통과할 때에는 진창속에 뛰여들어 침목밑에 어깨를 들이밀며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나간다. 그리하여 대형트라스는 건설현장에까지 무사히 운반된다. 그런데 대형트라스를 직접 들어올려야 할 45t급기중기 운전공 오현오는 지난날 작업도중 뜻하지 않은 사고를 낸 좋지 못한 일로 하여 트라스작업에 대해 시답지 않게 생각한다. 정훈은 그를 만나 마음속의 옥맺힘을 풀어주며 그의 안해가 병원에 입원하고있다는것을 알고는 장거리전화를 걸어 해산결과를 알려준다. 정훈의 이러한 노력에 감동된 현오는 대담하게 대형트라스를 들어올린다. 그날 저녁 정훈을 비롯한 건설자들은 전투현장에서 용진과 애순의 결혼식을 축하하면서 후날에 가서도 후회되지 않도록 순간순간을 값있게 살것을 굳게 결의다진다. 작품은 주인공 정훈을 비롯한 건설자들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당이 안겨준 억센 담력으로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하루를 값있고 보람있게, 일생이 비끼게 살아야 한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혀주고있다. 작품은 주체77(1988)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그들의 앞일은》 단편소설. 주체50(1961)년 김춘국 창작. 서로 돕고 이끌어주며 혁신의 창조자로 되기 위해 노력하는 어느 한 기계공장 청년들의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외아들인 용덕이가 휴가를 받으면 고향에 데리고가서 색시감을 골라보려고 날을 기다리던 김씨는 어느날 그가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자 밥을 싸들고 공장으로 나온다. 직장에 가서 아들을 만나지 못한채 돌아선 김씨는 선반직장앞을 지나다가 선반공처녀와 이야기를 나누고있는 아들을 보게 된다. 집에 돌아와서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고있던 김씨는 아들이 어떤 처녀와 친하지 않았는가 하여 그의 사진첩을 꺼내들다가 일기장을 보게 된다. 일기에서 김씨는 용덕이가 창안하고있는 농기계를 모내기때 시험해보려고 휴가를 바치고있다는것과 영실이라는 선반공처녀가 부속품가공까지 제 손으로 하려고 선반을 배우는 아들을 위해 아낌없는 시간을 바친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때부터 영실이가 남같지 않은 생각이 든 김씨는 어느 일요일 그의 집을 찾아간다. 공장에 나갔다가 들어온 영실이는 김씨를 보자 용덕이의 창의고안이 성공했다는것을 알려주면서 고향처녀와 약혼하게 된것을 축하한다고까지 말한다. 영실이가 마음에 든 김씨는 아들에게 부질없이 한마디 하였다고 했지만 처녀한테서 용덕이를 사랑하고 마음에 있어하는 눈치를 보지 못한다. 김씨는 아들과 영실이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가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워 돌아온다. 작품은 김씨의 시점을 통하여 청춘의 참다운 사랑과 우정은 어버이수령님과 당을 받드는 보람찬 투쟁속에서 꽃펴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근로자작품집 《빛나는 앞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50(1961)년판〕

《그들의 운명》 중편소설. 주체73(1984)년 현희균 창작. 일제통치밑에서 우리 인민이 겪은 수난과 고통을 한 녀성의 운명을 통하여 보여준 작품이다. 제주도의 해녀였던 성례는 지주 김진사의 부엌데기로 갖은 고역에 시달리다가 그놈의 집에서 함께 도망쳐나온 유호림과 가정을 이루었으나 어지러운 세파는 젊은 부부의 앞길을 무자비하게 짓밟는다. 남편 유호림이 집세를 물기 위해 왜놈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가혹한 연장로동을 하다가 다리를 상하자 할수없이 녀성의 몸으로 고기배에 몸을 싣고 바다에 나갔던 성례는 갑자기 들이닥친 사나운 풍랑으로 하여 이름모를 섬에 표류된다. 겨우 생명을 건져 몇달만에 집으로 돌아왔으나 남편과 아들의 행방을 알길이 없었다. 그는 잃어버린 식구를 찾아 온 조선땅을 메주밟듯 하면서 별의별 고생을 다한다. 남의 집 식모살이, 행상, 공사판의 자갈추기 그리고 인신매매를 하는 나쁜 놈들에게 걸려들어 만저우에까지 끌려갔다가 빠져나온 성례는 어느날 해빛 한점 없는 탄광지하막장에서 마소처럼 일하고있는 남편과 뜻하지 않은 상봉을 하게 된다. 그러나 상봉의 기쁨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막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연기에 질식되였다가 겨우 살아난 성례는 억울하게 방화범의 감투를 쓰고 경찰에 체포되여간다. 쇠고랑에 묶이워가는 마지막순간 그는 일제강점하에서 악을 피해 살아보려던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깨닫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제놈들과 착취자들을 반대하여 싸울 때만이 자신의 존엄도 가정도 지킬수 있다는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준다. 소설은 주인공의 피타는 절규에 호응하여 일떠선 사람들이 주먹을 부르쥐고 의로운 행동에 궐기하는데서 끝난다. 소설은 주인공의 피눈물나는 생활을 통하여 일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착취적본성과 잔인성, 포악성을 폭로하고 놈들과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으며 이 땅우에서 놈들을 쓸어버리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3(1984)년판〕

《그대 말없이 서있어도》 서정시. 주체51(1962)년 정문향 창작. 혁명의 총대를 잡고 조국보위초소에 서있는 인민군초병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사상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는 명령을 지켜 순간의 해이도 없이 초소에 굳건히 서있는 초병의 모습을 그를 둘러싼 자연환경, 생활환경과의 대조속에서 인상깊게 노래하고 있다. 시는 서정적주인공—병사의 내면세계, 체험세계를 심화시켜 인민이 주인으로 된 더없이 행복한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려는 높은 각오를 웅심깊게 드러내면서 초병은 조국이 생명이고 행복이며 미래임을 신념으로 새겼기에 초소에 산악같이, 드팀없이 서있다는 것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시는 생활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서정적화폭으로 초병의 드팀없는 자세를 부각하고있다.

그대에게 봄과 여름이 따로 없고
그대에게 낮과 밤도 따로 없다
그대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사회주의조국을 지킨다

련을 따로 나누지 않고 씌여진 시는 《그대》라는 시어를 시행머리에서 반복하면서 감정선의 발전과 절정을 정서적으로, 운률적으로 담보하는 예술적기교를 보여주고있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그를 알기까지》 단편소설. 주체70(1981)년 김봉철 창작. 한 탐사대 지질기사의 깨끗하고 량심적인 행동을 통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탐사대 진료소 내과의사인 혜심은 지질기사 은석의 병력서를 놓고 의혹에 잠긴다. 그는 벌써 11달전부터 건강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매달 정상적으로 찾아와 위투시와 위액검사를 하는것이다. 혜심의 관심과 의혹은 은석기사가 자기를 남모르게 사랑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후부터 더욱 깊어진

다. 의혹끝에 혜심은 은석기사가 자기 몸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속물적인 사람이라고 단정한다. 그리하여 혜심은 은석이 가 진료소에 찾아왔을 때 병이 없다고 따끔하게 이야기해준다. 그러자 그는 기뻐하면서 병력서를 가지고 돌아간다. 며칠후 백룡산지질조사총화회의에 참가한 혜심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다. 은석은 1년전에 찾아낸 ㅍ토의 실제적가치를 그때 이미 인정받았으나 약재의 원료로 될 ㅍ토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 몸에 매일 50g씩 섭취하여 실험을 했으며 11번의 위검진을 통하여 결과를 확인한 조건에서 세상에 공개한것이다. 은석기사의 그 높은 정신세계를 알게 된 혜심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인간에 대한 사랑의 불길이 피여난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에 높은 책임감과 헌신성을 발휘하고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것이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녀성적인 부드러운 색채로 형상을 일관시키면서 절정에서 사건을 굴절시켜 이야기를 재치있게 끝맺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70(1981)년 2호, 《조선단편집》4, 문예출판사, 주체76(1987)년판〕

《그리운 조국산천》 장편소설. 주체74(1985)년 박유학 창작.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에 속하는 작품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압록강을 넘나드시며 신파지구를 혁명화하고 조직망을 확대하시는 빛나는 모습을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김정숙동지께서 떼목촌의 《형제계》유사 주창범, 신파의 예수교 장로인, 민족주의세력의 거두 정지천, 신파지구 공산주의자위원회 책임자인 한성욱 등을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으로 교양하고 묶어세우시는 이야기를 기본으로 하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구상대로 신파지구를 포함한 량림일대에 국내혁명의 강력한 기지를 꾸리며 박두한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을 지하에서 든든히 뒤받침할 결심을 품으시고 신파 떼목촌의 합숙식모로 들어가신다. 김정숙동지께서 신파에 오시였을 때 한성욱은 폭동준비를 하고있었고 주창범은 상호부조운동을 벌리면서 서로 대립되여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한 로동자의 어머니의 병구완을 위하여 온갖 지성을 다 바치시면서 주창범과의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신다. 한성욱은 편벌장 로동자들에 대한 영림서의 가혹한 착취행위와 감독들의 비인도주의적처사에 격분한 로동자들을 부추겨 끝내 무모한 폭동을 일으킨다. 한성욱이 일으킨 좌경적인 폭동의 후과는 너무나 컸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전해듣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 합세하려던 읍내의 많은 유지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의혹을 품고 물러서거나 주저하게 되였으며 편벌장의 로동자들은 이전보다 더한 학대와 착취를 받게 되였다. 신파지구에 조성된 엄혹한 정세하에서 서로 반목질시하는 국내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을 다같이 포섭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였다. 모두 옳은 투쟁방향을 몰라 안타까와하고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로 반목질시하고있는 국내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을 한데 묶어세워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관철해나간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로동자들의 폭동을 진압한것으로 하여 오만해진 적의 약점을 리용하여 대중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나갈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파지구에서 일시 주저앉은 혁명열의를 다시 불러일으키자면 편벌장의 로동계급을 투쟁에 궐기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편벌장의 로동자들이 일치단결하여 일어나 영림서를 굴복시키고 밀린 품삯과 떼를 타다 죽은 사람들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난관에 처한 신파지구의 혁명정세를 역전시켜야 한다고, 이 투쟁에 신파공산주의자들을 망라시켜 그들의 그릇된 사상관점을 깨우

쳐주고 우리의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지지하게 만들며 읍내 민족주의자들에게도 우리 혁명가들이 일제 총독부산하기관인 영림서를 반대하여 싸우는것이지 자산가배척운동을 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신파지구의 조직을 발동하여 로동자핵심을 묶어세우고 떼목촌 《형제계》를 이 투쟁에 망라시켜 강력한 투쟁대오를 편성한다면 능히 적을 타승할수 있다고 확신하시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신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한성욱이 일으킨 무모한 폭동의 후과를 수습하시면서 주창범을 포섭하고 파업투쟁을 용의주도하게 벌려 승리에로 이끄신다. 김정숙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마침내 신파지구에 첫 당소조가 결성되며 곡절많은 인생길을 걸어온 한성욱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보천보전투에서 얻어맞은 적들이 급기야 출동했을 때 제때에 정보를 전하여 간삼봉전투승리에도 크게 기여하신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끝내 정지천도 감복시키시며 조국광복회조직을 멀리 함흥에까지 넓혀나가신다. 하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놈들에게 체포되시여 태오장의 객주집에 억류되시며 조직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직의 안전을 위해 최후를 결심하시고 돈 2원을 조직의 자금으로 써달라는 숭고한 혁명정신이 담긴 편지를 보내오신다. 조직과 인민들의 투쟁으로 김정숙동지께서는 석방되시여 새로운 혁명의 길로 떠나신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끝까지 관철해나가시는 김정숙동지의 헌신적인 투쟁모습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4(1985)년판〕

《그리움의 대하》 가사. 주체86(1997)년 황진영 창작.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맹세를 노래한 작품이다. 커다란 상실의 아픔을 당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더욱더 커만 가는 그리움의 감정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와 쌓으신 불멸의 업적, 따뜻한 어버이사랑에 대한 뜨거운 추억의 감정과 밀착되면서 폭이 크고 절절한 서정흐름을 이루고있다. 《수령님 그리는 인민들의 뜨거움은 바다도 끓게 하고 강철도 녹이리》라는 주정화된 서정은 가사의 사상정서적지향을 뚜렷이 강조해주고있다. 이 가사에서 노래된 그리움의 서정은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에 대한 감정,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따르려는 천만군민의 맹세의 감정으로 승화되고있다. 가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세계를 훌륭히 구가하고있다. 〔《조선노래대전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그리워》 가사. 주체79(1990)년 황진영 창작. 모든 운명을 맡기고 언제나 스스럼없이 안기고싶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3개의 절과 결속구로 되여있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어둠을 밝혀주듯이 다정한 손길로 안아주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을 언제 어디서나 마음속에 그리며 그이에 대한 흠모의 감정으로 가슴설레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과 결속구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은 잠시라도 헤여지면 만나고싶어지고 만나면 스스럼없이 안기고싶은 위대한 어버이품이라고 노래하면서 장군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사는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소박하면서도 절절한 감정이 차넘치는 시어들과 반복의 수법을 리용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의 감정을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조선가요 20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그립던 곳에서》(5막 6장) 희곡. 류기홍 창작.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영웅적위훈을 떨치고 제강소로 돌아온 청년들이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반대하고 자기 힘으로 로복구를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는 과정을 형상한 작품이다. 주인공 박갑철은 포화에 그슬린 배낭을 메고 전호속에서 그처럼 그리던 제강소로 돌아온다. 갑철은 자재도 로력도 기술도 부족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전기로복구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킨다. 그는 공명심과 보수성에 사로잡힌 기사장대리 안용삼과 공무직장장 김순업이 주장하는 돌격식 복구계획을 반대하고 전기로복구의 기한을 단축하고 질을 보장할것을 주장한다. 그는 로동에서 얻은 산 경험에 기초하여 홀다개조문제를 대담하게 제기하고 개조설계안을 작성한다. 안용삼은 리론적해명이 부족하다는 구실로 갑철의 설계안을 반대하고 로동자들의 창발적인 제기를 받아들이라고 한 지배인의 충고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갑철을 공명주의자로, 개인영웅주의자로 몰아붙인다. 그러나 갑철은 안용삼의 방해를 물리치고 대중의 지지밑에 홀다를 개조하고 시운전을 진행한다. 첫 시운전이 실패하자 안용삼과 공무직장장이 그를 공격해나선다. 갑철은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에서 밤을 새운다. 이때 당위원장이 실패의 원인은 기술부족이 아니라 시공을 잘못한데 있다고 하면서 그를 고무격려해준다. 갑철은 당위원회의 고무와 젊은 최기사와 로동자들의 집단적인 방조에 의하여 끝내 홀다를 개조하는데 성공하고 미제원쑤들의 폭격으로 파괴된 로에서 첫 쇠물을 뽑으며 출강시간을 종전보다 7시간이나 단축하는 혁신을 일으킨다. 작품의 주인공 갑철은 일시적인 성과에 도취되거나 자그마한 성과를 위하여 조급히 서둘지 않으며 부정과는 타협하지 않고 새것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전형이다. 작품은 박갑철의 발기를 적극 지지하며 힘있게 떠밀어주는 당위원장의 형상을 통하여 전후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생활력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43(1954)년에 연극으로 창조되였다.

《그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네!》 서정시. 주체66(1977)년 남시우 창작. 재일동포들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재일동포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된 환희와 감격을 노래하면서 조국의 해발아래 활개를 펴고 행복과 영광속에 생을 누리니, 피눈물자욱 스민 이 땅에 오각별 우리 기발 파도처럼 설레이니 이 노래, 이 춤, 이 행복을 주신분이 과연 어느분이신가고 토로하고있다.

진정 세상이 쳐다보는
우리 조국이라네!
세상사람들이 우러러받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네!

시에서는 인민들의 기쁨의 노래, 감격의 환호성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끓어넘치는 충정의 맹세라고 강조하고있다. 시는 앙양된 정서적느낌을 힘있고 격조높은 표현들로써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그 전날 밤》 단편소설. 주체37(1948)년 리동규 창작. 주체37(1948)년 5월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조작된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소설은 일본과 남조선사이의 《합작》농기구제작소 사장 신태화가 로동자들앞에서 자기에게 찬성투표해달라는 연설을 하고 많은 돈을 내여 로동자들을 매수하려고 책동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주인공 영보는 로동자들과 함께 《단독선거》의 내막을 폭로하여《매국배족의 립후보자를 타도하자!》라는 삐라를 뿌리면서 투쟁을 벌린다. 그러자 사장놈은 공

장장에게 로동자들을 탄압하며 영보를 비롯한 로동자들을 잡아가두도록 한다. 영보는 공장장놈이 체포하려고 할 때 그놈을 때려눕히고 울타리를 넘어서 피신한다. 그날밤 놈들의 감시를 피하여 담벽을 타고 공장에 들어온 영보와 그의 동료들은 삐라를 뿌리며 로동자들을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힘차게 고무추동한다. 소설은 《단독선거》가 있기 전날밤 영보를 선두로 한 로동자들이 동료들이 갇혀있는 공장창고를 들이치고 동무들을 구원한 후 공장장과 사장 신태화를 처단하며 선거사무소, 경찰지서 등 적통치기관들을 습격하여 매국적인 《단독선거》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은 놈들의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진실하게 그려내였으며 《단독선거》는 야수적인 테로속에서 협잡의 방법으로 진행된 허위적이고 비법적인《선거》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단편집》2, 문예출판사, 주체67(1978)년판〕

《그 직무를 사랑하라》 단편소설. 주체48(1959)년 리일복 창작. 자기 일에 애착을 가지지 못하고 들떠있던 한 청년이 자기의 그릇된 관점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용광로앞에서 쇠물을 짱짱 뽑아내는 소문난 혁신자 용해공이 되려는 포부를 안고 고중을 졸업한 철우는 무연탄에 의한 제철법을 연구하는 연료연구직장 로체공으로 배치받게 되자 남들의 눈에 띄우지 않는 일을 하게 되였다고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 어느날 이름있는 용해공이 되려는 생각에만 골똘해있던 그는 1단계 마지막시험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랭각수장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녹아내려 굳어진 쇠덩어리와 내화벽돌을 까내고 로를 다시 쌓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사고를 저지른다. 이로 하여 철우는 민청회의에서 주인다운 태도가 없이 들뜬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며 그 과정에 자기의 과오를 심각하게 뉘우치게 된다. 새로운 결심을 다진 철우는 다시 진행된 시험도중에 로의 용접부분이 터지고 그곳으로 시퍼런 불길이 뿜어져나오는 다급한 순간에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은 리수복영웅을 생각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비호같이 날쌘 동작으로 나무토막들을 련이어 틀어막음으로써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한다. 소설은 철우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로동의 참된 보람과 영예는 그 어느 초소에서든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일해나가는데 있다는것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청년문학》잡지, 주체48(1959)년 3호〕

《그 처녀가 부른 노래》 단편소설. 주체57(1968)년 조태호 창작. 미제침략자들과의 싸움에 용감하게 떨쳐나선 한 처녀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유격대원인 나는 어느 한 습격전투에서 위기일발의 순간에 자기를 구원해준 처녀가 바로 부대에서 《도끼처녀》로 불리우는 최송희임을 알게 된다. 최송희는 적들에게 학살당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산으로 오르던 길에 미국놈과 맞다들리게 되자 도끼로 그놈을 찍어넘기고 카빙총을 빼앗아메고 온 처녀였다. 그는 그때부터 《도끼처녀》로 불리운다. 이 사연을 알게 된 나는 그 처녀에 대한 신뢰의 감정을 더욱 두터이 가지게 된다. 며칠후 최송희는 나를 비롯한 정찰조원들을 책임진 조장으로 되여 ㅊ시가에 대한 정찰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적정을 탐지하고 애국자들의 감금장소와 무기배치정형들을 장악하고 돌아오던 길에 그들은 적들이 나어린 소년을 끌고다니며 매질하는 만행을 목격한다. 증오의 치를 떨며 대원들이 소년을 당장 구원하자고 하였을 때 최송희는 그들을 제지시키고 맡겨진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부대로 돌아온다. 정찰조원들은 그 일이 가슴에 맺혀 잘 내려가지 않은채로 재진격의 길에 오른다. 어느날 숨이 겨우 붙어있는 소년을 가슴에 안고 안타깝게 부르는 송희를 본 정찰조원들은 비로소 소년이 그의 동생임을 알게 된다. 유격대원들은 《유

격대행진곡》의 선창을 떼는 처녀의 노래를 합창으로 이어부르며 원쑤격멸의 길에 힘차게 나선다. 소설은 원쑤 미제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안고 조국보위성전에 떨쳐나선 주인공 최송희의 불굴의 영웅성과 용감성, 맡겨진 전투임무수행에서의 높은 책임성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57(1968)년 6호〕

《그 품 떠나 못살아》 가사. 주체78(1989)년 신운호 창작. 어버이사랑으로 혁명전사모두를 따뜻이 안아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을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뜨거운 사상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혁명전사 한사람, 한사람을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에 안겨살아온 행복한 나날을 돌이켜보며 한없는 고마움에 젖어있는 서정적주인공의 심리세계를 펼쳐보이면서 그처럼 자애롭고 따뜻한 어버이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사상감정을 격정에 넘쳐 토로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친어버이로 모시고 그이께 충정을 다해갈 다함없는 마음을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매절의 첫 구절에서 먼저《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면》, 《추억의 노래를 부를 때면》, 《축원의 노래를 부를 때면》 등과 같이 서정을 펴나가는 방법으로 시의 구조를 조직함으로써 작품의 주제사상을 집약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고있으며 후렴구에서 《그 품을 떠나선 못살아》라는 서정토로를 반복하여줌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사상감정을 형상적으로 부각시키고있다. 〔《조선가요 20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그해 가을》 중편소설. 주체73(1984)년 로정법 창작. 소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국가물자를 지켜내기 위한 어느 한 마을인민들의 투쟁모습을 통하여 인간의 량심과 삶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해명하고있다. 소비조합창고장 강주활은 면당으로부터 창고에 있는 피복과 식량을 비롯한 물자들을 소개시킬데 대한 과업을 받는다. 그런데 소들은 폭격에 죽고 다리마저 끊어져 자동차도 쓸수 없게 된다. 긴박한 정황속에서 주활은 마을사람들의 량심을 믿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물자들을 산으로 소개할것을 결심한다. 칠성로인과 주활의 애인인 장인옥을 비롯한 마을사람들, 더우기 안해가 해산했다고 그 복새통에 물건을 얻으러 다녀 사람들의 눈총을 받던 건국수매소 수매원 라오섭이까지 소개사업을 도와나선다. 그런데 소개를 마치고 유격대로 떠나려던 주활은 마을에 기여든 놈들이 후방물자소개장소를 대라고 라오섭을 위협한다는 소식을 받게 된다. 주활이가 라오섭과 그의 가족들을 피신시키려고 내려갔을 때는 이미 라오섭이 놈들에게 끌려간 뒤였고 적들의 매복에 걸려 그마저 체포된다. 놈들은 강주활과 라오섭을 비롯하여 소개사업에 동원되였던 사람들을 악착하게 고문하면서 산모와 아이를 죽이겠다고 오섭을 위협한다. 강주활은 해방전 온갖 모욕과 천대를 받아오던 오섭을 사람답게 내세워준 조국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에게 힘을 준다. 그러나 오섭은 미처 소개하지 못하고 자기 집에 숨겨든 콩가마니를 내놓으면 산에 있는 물자도, 처자들도, 주활이도 살릴수 있지 않겠는가고 생각하면서 콩을 내놓고 석방된다. 집에 돌아온 라오섭에게 마을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안해마저 친정으로 떠나간다. 괴로움에 모대기던 오섭은 지하조직의 방조밑에 《치안대》에 들어가 적정을 탐지하여 유격대에 련락한다. 마침내 마을은 유격대에 의해 해방되며 강주활과 마을사람들도 구원된다. 작품은 이를 통하여 조국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깨끗한 마음속에 바로 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가 있

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3(1984)년판〕

《그해 봄》 단편소설. 주체73(1984)년 리복은 창작. 나라의 기술발전과 생산실천이 제기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탐구에 한몸 바치는 한 기술자의 깨끗한 량심과 성실성을 형상한 작품이다. 어느 한 공장의 유능한 설계가이며 기계기사인 마성호는 자신이 착상한 반자동화된 기계의 설계와 그에 기초한 론문의 집필을 중단하고 갑자기 로동현장으로 일터를 옮긴다. 이 일을 두고 그의 안해 박순덕은 남편이 무슨 과오를 범한것이 아닐가 생각하며 속을 썩인다. 그러나 마성호가 현장에 내려간것은 주물직장의 한 로동자로부터 보다 합리적인 방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신의 설계의 약점과 그 원인이 바로 당의 의도대로 생산자들과 깊은 련계밑에 현실속에서 착상되지 못한데 있다는것을 깊이 깨달았기때문이였다. 마성호는 보다 쓸모있는 기계를 만들기 위하여 로동현장에서 로동자들의 도움밑에 탐구에 탐구를 이어나간다. 후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덕은 남편의 깊고도 깨끗한 마음에 감동되며 그를 더 잘 도와주리라 결심한다. 소설은 마성호의 형상을 통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은 로동자들과 힘을 합치고 현실에 튼튼히 의거하여 착상하고 탐구할 때 생산실천과정에 제기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제때에 훌륭히 해결할수 있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도 이바지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3(1984)년 7호〕

《그해 여름과 겨울》 장편소설. 주체97(2008)년 림종상 창작.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난 주체39(1950)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신입병사들로 편성된 중대가 적후방에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맡겨진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이야기를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38경비대 소대장 홍성표가 5.1절 경축체육대회에 참가하고 휴가차로 고향에 가서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결혼식상을 차려놓은채 부대로 돌아온 홍성표는 주체39(1950)년 6월 26일 어버이수령님의 방송연설에 접하여 군대에 탄원한 신입병사들로 무어진 한개 대대를 이끌고 련대로 간다. 련대에 도착하여 홍성표는 신입병사들로 무어진 1중대 중대장으로 임명받는다. 그리고 전쟁전에 당시 보안간부학교 부교장으로 있던 항일혁명투사 김형후련대장으로부터 신입병사들을 쇠소리나는 싸움군으로 키울데 대한 과업을 받는다. 홍성표는 곧 사업에 착수하여 신입병사들을 정신육체적으로 단련시키는 한편 앞으로 있게 될 싸움에 대처하여 군사적으로 교육교양한다. 그후 홍성표중대는 비행기로 삐라까지 뿌리며 집요하게 반돌격해오는 적 한개 대대와 조우하여 힘겨운 싸움을 벌리는 과정에 련대와의 련계를 잃게 된다. 홍성표는 곧 오정민과 허길수를 보내서 련대를 찾도록 하는 한편 단독으로 적의 식량수송대를 들이쳐 많은 후방물자를 로획한다. 하지만 홍성표는 중대가 로출된 상태에서 제멋대로 전투를 조직한것으로 하여 련대장으로부터 무전으로 경고처벌을 받는다. 그후 중대는 설악산에서 련대를 만나며 거기서 서울시민들의 겨울용땔감을 보장할데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자진하여 맡아안는다. 그리고 즉시로 수많은 나무를 베여 떼를 무어 소양강으로 떠내려보내여 임무를 수행한다. 이어 중대는 적들이 도사리고있는 합강정밀 나루터탈환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원통방향으로 행군하여 적 한개 소대를 소멸하는 전과를 이룩한다. 이 과정에 중대장 홍성표는 군의로 입대한 약혼녀 김정임을 만나며 오정민은 인민유격대원이 된 고향친우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한다. 더욱 사기충천하여진 홍성표중대는 이어 련대와 인민유격대가 합동하여 진행하는 읍지구해방작전에 참가하여 적들에게서 로획한 81미리박격포탄을 아군의 82미리 박격포에 장진하여 적들의 소굴을 들부심

으로써 련대의 작전승리에 결정적기여를 한다. 계속하여 련대는 강원도와 황해도, 평안남도의 적강점지역에 진출하여 미제침략군의 보급기지와 유생력량을 소멸하는 등 맹활약을 하여 많은 전과를 이룩한다. 이와 같은 싸움과정에 분대장 오정민과 곽명훈은 화선입당을 하게 되며 신입병사들모두가 당당한 싸움군으로 자라나게 된다. 소설은 백배로 다져진 련대가 패주하는 미제침략군 제9군단의 기계화집단기동무력을 소멸하고 남진의 길에 보무당당히 오르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우리 인민군용사들은 불굴의 용사로 자라나고 그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게 된다는 철리를 예술적으로 해명하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7(2008)년판〕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있는가》 가사. 주체79(1990)년 리정술 창작. 가렬처절했던 전화의 나날과 전후 어려운 시기에 발휘했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당을 받들어 변함없이 한생을 살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젊은 시절의 추억이 깃들어있는 사진첩을 펼치고 흘러간 지난날을 회고하는 생활적계기를 통하여 락동강을 넘으며 더운 피를 뿌리던 전화의 나날과 빈터우에서 허리띠를 조이며 복구건설의 첫삽을 뜨던 청춘시절의 그때처럼 살며 일하고있는가를 심각히 반성해보는 서정적주인공의 숭고한 체험세계를 펼쳐보이고있다. 가사는 3절에서 세월은 흘러 젊은 시절의 그 모습은 변했어도 가장 어려웠던 그 나날에 당과 조국을 위하여 청춘을 아낌없이 바쳤던것처럼 변함없이 당을 받들어 한생을 빛나게 살려는 굳은 결의를 천명하고있다. 가사에서는 전화의 그날처럼 우리가 살고있는가라는 심각한 물음을 제기하고 깊이있는 예술적일반화를 통하여 해명함으로써 락동강을 건느던 그 정신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우리 당의 계속혁명사상을 힘있게 구현하고있다. 가사는 시적계기가 참신하고 정서적여운이 강한 수사학적표현들을 리용하여 시구절을 특색있게 꾸미고있는 등 높은 예술적형상수준을 보여주고있다. 〔《조선가요 20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그 아버지에 그 아들》 단편소설. 주체47(1958)년 천청송 창작.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여 장렬하게 희생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위훈을 떨치는 한 인민군분대장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기자로 활동한 내가 주체40(1951)년 4월 하순경에 최훈사단장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돌이켜보는 형식으로 씌여지고있다. 한달전에 있은 480고지방어전투에서 11번째로 달려드는 적의 공격을 단신으로 물리쳤으며 며칠전에는 분대를 이끌고 적의 련대를 대담하게 기습하여 사단의 작전을 승리적으로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리룡호분대장에 대한 기사를 읽어내려가던 최훈사단장은 그 분대장이 해방후 그렇게도 안타깝게 찾던 옛 전우인 리철준의 아들이라는것을 알고 깜짝 놀란다. 최훈과 같이 유격대에 입대한 리철준은 반년도 못되여 대담무쌍하고 민첩한 대원으로 알려지며 위만군병영을 들이치는 주력부대의 활동을 엄호하는 방차대에 속하여 놈들과 싸우다 최훈을 구원하고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리철준과 함께 싸우던 옛시절을 감회깊이 추억하며 그의 아들을 드디여 만나게 되였다는 기쁨에 잠겨있던 최훈은 아버지의 얼굴생김새를 그대로 닮은 룡호분대장으로부터 그가 유복자로 태여난지 며칠 안되여 어머니마저 잃고 서울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서 지내다가 괴뢰군징집을 기피하고 빨찌산에 들어가 싸우던 일, 그후 인민군대에 의해 서울이 해방된 다음 의용군에 입대하고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도중 적구에 남은 최훈사단의 어느 한 부대에 편입되여 배

후교란작전에 참가한 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아버지처럼 손에 총을 잡고 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룡호분대장을 포옹한채 감개무량하여 샘솟듯 하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고있던 최훈은 마침 사단지휘부를 찾아간 나에게 그들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흥분된 어조로 들려주는것이다. 소설은 리철준과 그의 아들 룡호의 형상을 통하여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무비의 영웅성과 숭고한 애국심이 위대한 수령님을 진두에 모시고 싸워온 항일혁명투사들의 고귀한 혁명정신에 바탕을 두고있음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단편소설집《전사들》,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7(1958)년판〕

《그이는 나의 삶의 별》 시초. 주체74(1985)년 백하 창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충정의 한길을 가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초는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어》, 《그리움》, 《꿈속에서 그이를 뵈옵고》, 《시간은 나의것이 아니다》의 4편으로 이루어져있다.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어》에서는 가슴속에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드릴 소중한 꿈과 열망을 안고사는 서정적주인공의 심정을 토로하고있다. 《그리움》, 《꿈속에서 그이를 뵈옵고》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로만 달리는 간절한 그리움, 언제나 그 품속에 살기를 바라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소망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시간은 나의것이 아니다》에서는 흘러가는 세월의 흐름은 서정적주인공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을 꽃피울 시대의 의무가 놓여있는 시간임을 깨우쳐주면서 분과 초를 아껴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실현해나갈 드높은 충정의 열정을 무게있게 펼쳐보이고있다.

시간은 나의것이 아니다
나는 오늘도 서둘러 길을 걷는다
열흘길을 하루에!
십년세월을 한해에!
잃어버린 그 모든 시간을 되찾아
그 소중한 분과 초가 오직
친애하는 그이의 뜻으로 흐르게 하
　리라!

시초는 서정이 진실하고 절절하며 간절한 그리움의 감정으로부터 충정의 열정에로 승화되여 깊은 감명을 준다. 〔《조선문학》잡지, 주체74(1985)년 2호〕

《그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서정시. 주체90(2001)년 최준경 창작. 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노래한 작품이다. 시는 백두의 정기를 안고 빨찌산의 아들로 태여나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대경사임을 노래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 한해 하늘, 땅, 바다 초소를 찾아 우리 병사들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안아주시는 장군님의 뜨거운 인정미와 다심한 사랑의 세계를 서정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친어버이 최고사령관》, 《강인담대한 최고사령관》, 《령활무쌍한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감정을 더욱 승화시키고있다. 시는 더 나아가서 선군정치를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총대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며 온갖 원쑤들의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을 《장군중의 으뜸가는 절세의 장군》, 《위인중의 제일가는 희세의 위인》으로 높이 격찬하면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는 신심에 넘쳐 강성대국의 대통로를 열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있음을 뚜렷이 강조

하고있다. 작품은 천하제일명장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였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온 세상에 보란듯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고있으며 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사상감정을 정론적 격조가 높은 시형상으로 힘있게 노래하고 있다. 〔《문학신문》, 주체90(2001)년 제30호〕

《그 이듬해》 중편소설. 주체72(1983)년 김동렬 창작. 어버이수령님께서 관심하시는 발전소건설에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헌신하는 한 청년기술자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수리대학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있던 박창훈은 대동강에 건설되는 발전소건설장으로 자진하여 내려온다. 그것은 그가 연구한 새 시공법이 다른 곳에서는 성공했지만 이 건설장에서만은 실패했기때문이였다. 창훈은 그 공법을 연구한것으로 하여 학위까지 받을수 있었지만 자기의 연구성과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관심하시는 이 발전소건설에서 은을 내지 못하고있는것이 가슴에 걸려 스스로 학위론문집필을 미루고 여기로 달려온것이다. 그의 애인이였던 오숙경은 자기본위의 리기심으로부터 이러한 창훈을 배반한다. 그러나 창훈은 추호의 동요없이 이 건설장에 발붙이고 시공기사로 일하면서 실패한 시공과정에 대해 료해한다. 이 과정에 그는 균렬이 간 3번층 암층에 몰탈을 충진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난관을 겪고있으며 자기의 시공법을 포함한 여러 시공법이 다 실패하여 국가자재만 랑비했다는것을 알게 된다. 이로부터 실패의 원인이 기술적문제에 있는것이 아니라 암층에 있다는것을 포착한 창훈은 암층에 착정기로 구멍을 뚫고 직접 눈으로 관찰해볼것을 제기한다. 그러나 시공과장 등은 암층에 대한 낡은 기술문건에만 의존하면서 창훈의 창조적인 제의에 대해 기술자답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창훈은 당조직과 로동계급의 지지와 방조밑에 끝내 착정기로 암층에 구멍을 뚫으며 거기서 터져나온 거대한 분수를 막고 자신이 그 구멍으로 직접 들어가 변화된 암층의 비밀을 밝혀낸다. 이러한 그를 3번층 담당실험공처녀인 순남이가 적극 도와주며 이들사이에는 발전소건설을 더욱 다그치려는 공통된 불같은 지향속에 진실한 사랑이 움튼다. 암층의 비밀이 밝혀진 후 암층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창훈의 시공법이 제기되지만 많은 자재가 드는것으로 하여 일군들은 주저한다. 이때 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훈을 만나주시고 그의 헌신적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시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그가 앞으로 신심과 배짱을 안고 더 큰일을 할데 대하여 교시하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크게 고무된 창훈과 로동자들은 끝내 암층을 극복하며 건설장에 홍수가 밀려들었을 때 한몸을 내대고 언제와 건설장을 구원한다. 창훈이가 건설장으로 왔던 때로부터 한해가 지난 그 이듬해에 창훈은 대동강을 갑문화하는데 한몫하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순남과 함께 갑문건설장으로 떠난다. 소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탐구하고 한몸바치는 그 길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삶의 보람과 행복이 꽃펴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2(1983)년판〕

《그 이름 빛나라, 김정숙장군!》 서사시. 주체96(2007)년 신병강 창작.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결한 풍모를 칭송한 작품이다. 시는 머리시와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있다. 1장에서는 김정숙동지께서 수령결사옹위의 총성을 높이 울리시며 백두산호위장군으로서의 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신데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회령의 오산덕마루에 군복차림으로 서계시는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러르며 어머님께서 헤쳐오신 무수한 격전장들을 그려본다. 그 과정에 시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것은 어머님이시야말로 수령결사옹위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

하신 귀감이시며 군사에 정통하신 희세의 녀장군이시라는 절대적인 확신이였다.

백두의 만년장설우에서 자고 일며
인간이 겪을수 있는 고생이란 고생
위험천만한 고비와 고비를 다 넘
으신분
한몸 성벽이 되여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고
수령결사옹위의 만년전통을 마련
하시여
백두의 호위장군으로 빛나시는분
우리의 김정숙장군!

시에서는 우리의 명중사격술을 단순한 군사적의무로만이 아니라 가장 숭고한 총대사명의 철리로 가르쳐주신 어머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면서 그 업적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머님께서 남기신 권총을 자주 꺼내보시며 추억하시는 장면에 대한 감명깊은 시적묘사를 통하여 뜻깊게 부각시키고있다. 작품에서는 김정숙어머님께서 해방직후 외국의 한 군사고문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무장투쟁경험을 들려주신 이야기와 삼일포와 염분진을 비롯한 현지지도길에서 백발백중의 명사격술을 보여주신 사실들을 형상하면서 김정숙어머님은 백두산악을 교탁으로, 백두전장을 군사강당으로 삼고 백두총대를 지시봉으로 추켜들고 **김일성**항일전쟁사를 강의한 백두산빨찌산대학의 단 한분의 녀류교수이시였고 박사이시였으며 비범한 군사적천품을 지니신 녀장군이시였다고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서사시의 2장에서는 김정숙어머님은 뜨거운 인정미와 한없이 고결한 동지적의리를 지니신 조선의 녀장군이시라는것을 노래하였다. 작품에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인민들로부터 《아동단 우리 누나》, 《우리 옥순이》, 《무산집 우리 새애기》로 정답게 불리워오신 김정숙어머님께서 해방후에도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면서 인민을 위하여 생활해오시였다고 노래하였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해방후 항일대전에서 희생된 전우들의 자식들의 이름을 적은 수첩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하여 커다란 고심과 노력을 기울이신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시에서는 《어머님은 장군이시기 전에 인간사랑의 화신》이시였고 《이 땅우에 〈동지애의 탑〉을 세우신 동지애의 화신》이시라는것을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서사시의 3장에서는 이 땅우에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의 대하가 세차게 굽이치고있음을 노래하면서 어머님의 념원을 받들어 수령결사옹위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선군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아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맹세를 힘있게 일반화하고있다. 시는 송축서사시로서 시인의 앙양된 감정정서적체험과 자유분방한 시적환상을 펼치면서도 극적인 사건과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설정형상함으로써 극성이 강한 형상적특성을 보여주고있다.
〔《로동신문》, 주체96(2007)년 12월 22일부, 12월 23일부〕

《그이를 우리의 태양이라 노래함은》 서정시. 주체36(1947)년 백인준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리의 위대한 태양이라 노래하는것은 《그이의 가르치심이 언제나 우리의 가슴속에서 우러나 다시 우리들 인민의 혈관으로 뻗쳐오르기때문》이며《조국을 지켜 20여성상 민족의 피줄을 이어오셨고 인민의 홰불을 밝혀오셨기때문》이며 《3천만의 앞길을 밝히시고 이 나라를 온 세계에 빛내이시기때문》이라고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다.

오늘 세계는 조선민족속에
절세의 애국자 계시옴을 아오니
조선민족과 더불어 떨친 그 이름
오, 그이는 우리의 태양
김일성장군

시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수령님을 높이 모신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 흘러넘치고있으며 한없이 경건하고 뜨거운 칭송의 마음이 굽이치고있다. 〔시집《인민의 노래》, 조선로동당출판사, 주체36(1947)년판〕

《그 이튿날 있은 일》 단편소설. 주체48(1959)년 윤세중 창작. 왜놈들에게 붙잡혀가던 한 녀인이 유격대원들에 의해 구원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심심산속에서 화전을 일쿠며 살아오던 박봉녀는 항일유격대와 련계를 맺고 지하조직원으로 활동하던 남편이 왜놈들에게 체포되여 희생된 후 놈들의 마수를 피해 벼랑밑으로 집을 옮긴다. 어느날 감자밭김을 매던 봉녀는 집위치를 알아내고 달려들어 집단부락으로 내려갈것을 강요하는 산림간수, 경관놈과 당당하게 맞서싸우며 이로 하여 유격대와 내통하고있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서로 끌려가게 된다. 이때 국내공작을 나가던 사복차림의 두 유격대원이 아름드리나무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놈들을 순식간에 제껴버리고 결박당한 봉녀의 팔을 풀어주면서 빨리 몸을 피하라고 한다. 그리하여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봉녀는 분이 아버지 춘태로부터 항일유격대가 국경을 넘나들며 왜놈들을 족치고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 천돌을 주저없이 유격대로 떠밀어보내며 조국해방의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억세게 살아갈 결심을 다진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눈부신 활동에서 민족재생의 그날을 내다보며 시련에 찬 가시덤불길을 꿋꿋이 헤쳐온 인민들의 모습을 생동하게 일반화하였다. 〔소설집《항일전구》,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8(1959)년판〕

《그이께서 건강하십니까》 가사. 주체81(1992)년 윤두근 창작. 우리 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위대한 향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을 바라는 세계인민들의 뜨거운 축원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는 우리 나라와 이국땅에서 외국의 벗들을 만날 때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을 진정으로 바라는 뜨거운 인사말을 받군 하는 생활적체험에 기초하여 날을 따라 높아가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시적으로 일반화하고있다. 가사에서는 우리 나라에 직접 찾아오거나 해외에서 만나는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언제나 그리운 부모님이나 고마운 스승의 안부를 묻듯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부부터 묻군 하는데 대하여 노래하면서 이것은 그이께 자기들의 운명과 미래를 다 맡긴 온 세상사람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임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후렴부분에 《친애하는 그이께서 건강하십니까》라는 대사를 줌으로써 작품의 주제사상을 보다 명백히 그리고 생활적으로 인상깊이 안겨오게 하고있다. 〔《조선가요 20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그이의 하루길, 강행군 2천리여》 시초. 주체96(2007)년 류동호, 문용철, 한광춘 창작. 어버이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꽃피우시려 초강도강행군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동깊게 노래한 작품이다. 시초는 《불타는 해돋이》, 《크나큰 바다》, 《그날 오후 4시》, 《우리 가정수첩》, 《장자강반의 환호성》, 《자강도사람》, 《가을날의 봄노래》, 《혈맥》, 《하루길 2천리》의 9편의 서정시로 이루어져있다. 시 《불타는 해돋이》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환하신 영상을 뵈옵고 부강번영의 새날을 안고 솟아오르는 강성대국해돋이를 보는것 같다고 앙양된 감정정서체험을 토로하고있으며 시 《크나큰 바다》에서는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의 바다를 안고 여기에 쇠물바다로 보답해나갈 용해공들의 철석의 맹세를 힘있게 펼쳐보이고있다.

시 《그날 오후 4시》에서는 때식도 잊으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적사랑의 세계를 노래하면서 바로 이런 시간들이 모여 장군님의 강행군길이 끝없이 이어지고있음을 강조하고있다. 시 《우리 가정수첩》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백두산위인들의 이민위천의 한평생을 극히 평범한 《우리 가정수첩》속에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으며 시 《혈맥》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강도를 찾으실 때마다 오고가시는 바로 그 길이 장군님과 자강도인민을 이으며 뜨거운 마음과 정이 흐르는 그리움의 혈맥이라고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시초의 마감작품인 《하루길 2천리》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강행군2천리를 눈물속에 되새겨가는 시인의 사상감정을 펼쳐보이고있다.

오, 하루길 2천리
강성대국의 새 세기와 새 세월을
줄기차게 이끌어가신
위대한 인간, 위대한 령장
태양의 하루길이여

작품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행군길을 따라 2천리, 2만리로 뻗어간 강성대국의 드넓은 대통로로 선군의 대하가 노도치고있음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시초는 매 시마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태양의 력사, 인민사랑의 위대한 력사를 다양한 사건과 감명깊은 일화로써 의의깊게 하고있다. 〔《문학신문》, 주체96(2007)년 제30호〕

《그이의 한생》 가사. 주체82(1993)년 리정술 창작. 한생을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고스란히 바쳐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숭고한 풍모를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에서는 언제나 인민을 위한 사색으로 낮과 밤을 이으시고 인민을 위한 걸음으로 날과 날을 보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한생을 숭엄한 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이민위천의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믿음과 사랑의 정치로 온 나라 대가정을 보살피시며 세상일을 다 헤아리시는 그이의 위대한 한생이 있기에 우리 인민의 행복한 오늘과 찬란한 래일이 있다는 사상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가사는 3, 4, 5조의 규칙적인 음수률조직과 소박한 언어로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한생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칭송의 감정을 숭엄하고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조선가요 20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그의 교향곡》 중편소설. 주체90(2001)년 최영학 창작. 우리 민족이 낳은 재능있는 녀류작곡가의 운명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범민족통일음악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우리 음악인의 밤》에 참가한 여러 연고자들이 주인공의 한생에 대하여 회상하는 형식으로 씌여지고있다. 해방을 맞이한 기쁨을 안고 피아노독주회를 준비하던 라경은은 뜻하지 않은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여 식민지망국인이라 깔보는 일본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이리라 결심하고 일본에서도 첫손가락에 꼽히는 무사시노국립음악학교에 들어가 1등 피아노연주가가 된것이 리유가 되여 친일분자라는 오명을 쓰게 된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보살피심속에서 독주회도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락선되였던 류학의 길에도 오르게 된 라경은은 일생 수령님께 충직하리라 굳은 결심을 다진다. 그는 1년동안의 과도기기간에 5편의 작품을 훌륭히 창작하여 녀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레닌그라드음악대학 작곡학부에 입학하며 7년간의 류학생활기간에 큰 형식의 작품들을 련속 창작하여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쏘련음악계를 뒤흔들어놓는다. 쏘련(당시)에 떨어지라는 그들의 권고도 마다하고 조국으로 돌아온 라경은은 준엄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낸 조국인민

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고 피타는 창작활동을 벌려 수많은 작품들을 내놓는다. 그러나 계속되는 성공에 현혹된 그는 점차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기호보다 세계적 추세만을 생각하며 결과 그의 작품들은 인민들로부터 멀어지고 그의 창작활동은 일시 침체기에 빠진다. 이러한 때 문학예술부문을 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의 창작활동을 료해하시고 세계무대에 나가더라도 우리의것을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현대음악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그가 지난 시기 자기 작품들에서 개성을 찾고 새 출발을 하도록 개인작품발표회까지 마련해주신다. 그 사랑과 믿음속에서 라경은은 국제콩클에 나갈 출전곡을 훌륭히 완성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이 훌륭히 결합된 우수한 작품을 창작하여 생의 마감을 빛나게 장식한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뜻한 품이 있어 평범한 음악가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칠수 있었음을 깊이있게 확증하였다. 소설은 독특한 회상식구성형식과 지성적인 문체, 주인공의 성격에 대한 깊이있는 추구 등으로 작품의 품격을 높이였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90(2001)년판〕

《그의 소원》 중편소설. 주체83(1994)년 김덕철 창작. 공화국의 품에 안겨 자기 아들을 세계적인 권투선수로 키우려던 소원을 푼 한 재일귀국공민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소설은 도체육위원회 지도원으로 일하던 주인공 리수천이 아들이 다니는 권투구락부 지도원으로 부임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일본에서 갖은 민족적멸시와 천대속에서 살면서도 드센 주먹으로나마 민족의 얼을 지켜보려는 소박한 꿈을 품고 권투계에 나서 점차 직업선수로까지 된 리수천은 조선사람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세계패권을 잡아보려던 뜻을 실현할수 없어 고심하던중 부상당하여 더는 권투를 할수 없게 된다. 권투계에서 물러나 철공소에 들어간 그는 자기 아들이라도 성공시켜보려고 5살때부터 권투를 배워준다. 그러던 그는 귀국한 동포들이 세계체육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조국으로 돌아가 아들 철민이를 세계적인 권투강자로 키우려는 결심을 품고 귀국선에 오른다. 사실 그가 도체육위원회에 있다가 권투구락부 지도원으로 내려온것도 아들을 훌륭한 권투선수로 키우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권투구락부에는 철민이와 나이도 같고 몸무게급도 같은 왼손타격이 강하고 육체적준비가 좋은 구영호가 있었다. 자기 아들이 그와의 경쟁에서 이길수 있겠는가고 의심하던 수천은 철민이가 어렸을 때 심하게 앓은 소화불량증이 다시 도져 훈련부담을 견디여내지 못하게 되자 고민에 잠기게 된다. 이때 구역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창석과 중학교 체육교원인 한인국 등은 철민이를 병원에 데려가 종합검사도 시켜주고 의사협의회에서 그의 건강회복을 위한 집중적인 대책도 세워주며 특히 전망이 좋은 구영호는 철민의 훈련대상으로 자기를 희생한다. 리수천은 자기의 마음속 념원을 풀어주기 위해 기술과 지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창석, 한인국 등 공화국의 품속에서 살며 자라난 인간들의 숭고한 동지애와 집단주의정신에 커다란 감동을 받는다. 리수천은 개인주의에 젖어있던 자신을 타매하며 아들 철민이를 구영호의 훈련대상자로 그 위치를 바꿀것을 결심한다. 그러나 김창석은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면서 철민이의 발전을 위해 모든 대책을 취해주며 구영호는 같은 키로급몸무게를 피하기 위해 자기의 몸무게를 4㎏ 더 불구어 57㎏급선수로 출전함으로써 철민이를 자기 몸무게급에서 최강자로 되게 한다. 리수천과 김창석 등의 꾸준한 지도와 집단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구영호와 리철민은 올림픽경기에 참가하여 각각 자기 몸무게급에서 단연 1등을 하여 금메달을 받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적인 강자들을 키워낸 리수천의 삶을 빛내여주신다.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그는

공훈체육인으로 자라난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친어버이로 모시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조국에서 체육인들이 지닌 고상한 륜리도덕적 풍모를 보여주면서 만사람의 재능을 다같이 귀중히 여기고 꽃피워주는것이 우리 당의 품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그의 생활》 중편소설. 주체79(1990)년 김문화 창작.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의 학정밑에서 해방된 한 녀성로동자의 생활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인민정권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아주는 진정한 삶의 품이며 행복의 요람이라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서울의 어느 한 피복공장에서 재단공으로 일하던 박명실은 지하투쟁을 하던 남편이 체포된것을 계기로 공장에서 쫓겨나 삯빨래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다가 서울이 해방되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다. 다리복구장에서 전선원호사업에 떨쳐나선 사람들의 벅찬 숨결을 목격한 명실은 남편을 찾아 대구감옥으로 가려던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공장에 나와 군복생산에 참가한다. 공장에 잠입한 계급적원쑤들은 헛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을 리간시키는 한편 기계를 파괴하고 지배인 서현을 살해하는 등 갖은 책동을 다한다. 그러나 명실을 비롯한 공장의 로동자들은 자기들에게 참다운 삶과 행복을 안겨준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정치공작원 리정임의 지도밑에 자체로 공장을 지키면서 군복생산을 힘있게 다그친다. 이 과정에 명실은 개인의 슬픔을 의지의 힘으로 이겨낼줄 아는 불굴의 인간으로 자라나며 공장을 책임진 지배인으로 된다. 소설은 서울해방을 계기로 명실의 생활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새생활은 버림받던 사람들의 인생을 구원해주었을뿐아니라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되게 한 위대한 변혁이였음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또한 소설은 명실을 비롯한 피복공장 로동자들의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흠모하고 따르며 충정을 다하려는 남녘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였다. 〔문예출판사, 주체79(1990)년판〕

《그의 집 대문》 단편소설. 주체81(1992)년 윤승상 창작. 한 가정에서 14명의 뜨락또르운전수가 나온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제대되여 농촌에 진출한 용석은 뜨락또르운전수 현순에게 반한다. 날이 흐를수록 용석의 마음은 처녀에게 기울어졌고 드디여 현순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하지만 현순은 제대되여온 용석에게 꽃다발을 준 값을 사랑으로 치르겠는가고 하면서 뜨락또르운전수가 되기 전에는 자기 집 문턱을 넘을수 없다고 한다. 현순이의 충고로 뜨락또르양성소를 졸업하고 면허증을 받아안은 용석은 이제야 현순이의 집대문을 넘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면허증 한가지만으로는 부모들이 승인하지 않을것이라는 현순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쉰다. 용석은 현순의 아버지 박진구의 교대운전수로 일하는 과정에 회전식써레를 창안해낸다. 박진구는 열성이 높고 탐구심이 강한 용석에게 농업대학에 입학하여 현순이와 함께 공부하라고 권고한다. 용석은 그후 현순이와 함께 뜨락또르 교대운전수로 일하면서 박진구에게서 더 많은것을 배우게 된다. 그 과정에 드디여 훌륭한 뜨락또르운전수가 되여 그렇게 넘어서기 힘들던 현순의 집대문을 넘어서게 된다. 그때로부터 3년후 14명의 뜨락또르운전수를 배출한 현순이의 집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가지고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찾아온다. 소설은 실재한 사실을 가지고 청춘남녀의 사랑을 일관하게 끌고나가면서 14명의 뜨락또르운전수가정으로 자라난 이야기를 재치있게 엮어나갔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1(1992)년 3호〕

《그의 휴가》 단편소설. 주체71(1982)년 김문창 창작. 한 당비서의 휴가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집행에서 일군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작품이다. 한 탄광기계공장의 초급당비서 한영인은 다른 곳으로 소환되면서 오래간만에 휴가를 받는다. 그는 자기 사업을 총화하면서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월봉탄광에 박층채탄기를 만들어 보내줄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제대로 집행했는가 하는것을 확인해본다. 지배인은 그에게 자기가 직접 기계를 탄광에 싣고가 시운전을 해보고 돌아왔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에 탄광에 가서 기계에서 제기되는것이 없는가 료해한다. 이 과정에 채탄률을 70%로 올릴수 있게 잔주절삭부를 더 만들어 설치하면 좋겠다는 탄광측의 의견이 제기되자 그는 곧 돌아와 이 사업을 조직한다. 그는 공장의 생산형편이 긴장하지만 당원들과 대중을 발동시켜 열흘동안에 잔주절삭부를 만들어낸다. 그는 여기에 휴가기간을 다 바치며 로동자들과 함께 밤을 새운다. 그리고 그 시운전이 성과적으로 되였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야 소환된 곳으로 떠난다. 소설에서는 일군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사소한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려는 책임적인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1(1982)년 10호〕

《그의 행군로》 단편소설. 주체54(1965)년 엄단웅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부대에 탄원하여나온 한 교육자의 내면세계를 그린 작품이다. 수십년세월 교원생활을 하여온 지성은 전쟁과 함께 정든 고향을 떠나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본인의 적극적인 지망에 따라 정찰중대에 배치된다. 나이많은 병사가 바로 다름아닌 옛 스승임을 알게 된 중대장 현철은 여러가지로 생각하던 끝에 그에게 중대선동원의 임무를 맡긴다. 어느날 중대장 현철을 찾아간 지성은 자기에게도 중요한 전투임무를 맡겨주던가 아니면 선동원임무를 그만두게 해달라고 제기한다. 나이도 제일 많고 학창시절의 스승인 자기에게 생사를 가늠할수 없는 어렵고 복잡한 정찰임무를 맡기기 난처해하는 중대장에게 지성은 교육자의 량심을 지켜 살아온 자신의 생활경로를 이야기하면서 이 전쟁에서도 교육자로서 제자들앞에 떳떳이 나설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 해방전 10여년간 그는 학생들에게 조국의 넋을 심어주고 정의와 진리를 가르쳐준것으로 하여 모진 구박과 멸시를 당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놈들의 눈을 피해 무려 일곱번씩 집을 옮기면서도 민족적지조와 교육자의 량심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나라없던 시기 온갖 슬픔과 고통을 겪어온 지성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비로소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책임진 교육자의 긍지와 기쁨을 체험하였다. 그후 그는 조국이 시련을 겪고있는 때에 적탄에 피흘리며 쓰러지는 제자들을 보고만 있다면 그것이 어찌 교육자의 량심이겠는가고 하면서 제자들을 도와 한놈의 적이라도 더 잡을 결심을 안고 전선에 탄원해나온것이다. 소설은 주인공 지성의 형상을 통하여 후대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진정한 애국자로 키우며 그 길에서 제자들과 생사를 같이하려는 참된 교육자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펼쳐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4(1965)년 6월 제45, 46호〕

《근거지의 봄》 장편소설. 주체70(1981)년 리종렬 창작. 총서 《불멸의 력사》 중의 한권이다. 주체22(1933)년초부터 이듬해 봄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유격근거지에서의 인민혁명정부수립과 여러가지 민주주의적 개혁의 실시, 유격구보위를 위한 투쟁 등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의 첫 부분에서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좌경적인 쏘베트로선으로 인하여 동요와 혼란이 생긴 근거지창설초기의 복잡한 환경과 정세를 보여주고있다. 유격대입대자들을 현지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에 온 현당서기 권일균은 조혼했다는 리유로 김창억을 부결해버렸으며 근거지에 학교를 세우려는 계획도 반대하고 토지의 공동소유와 공동경작을 내려먹이는 등 좌경적인 쏘베트로선을 강요한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을에 오시여 근거지일을 바로잡아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거지형편을 료해하신데 기초하여 쏘베트로선의 부당성을 낱낱이 발가놓으시고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시였으며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신다. 그리하여 유격대입대를 그처럼 바라던 김창억은 자기 소원을 성취하고 그의 아버지 김진세로인도 토지개혁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된다. 유격근거지가 점차 강화되자 일제놈들의 발악이 더욱 심해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두만강국경일대에 반유격구를 창설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몸소 부대를 거느리시고 온성지구에 진출하신다. 그이께서는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과 정치공작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온성일대를 반유격구로 꾸릴데 대하여서와 이를 위하여 유격대가 국경연안일대에서 전투활동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며 국내혁명조직들이 광범한 군중을 결속하고 혁명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신다. 왕재산회의이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경연안일대에서 활동을 강화하시는 한편 토지개혁준비사업을 지도하신다. 이러한 때에 종파분자들로부터 유격근거지를 시비중상한 통보자료를 받은 국제당파견원 류현민이가 유격근거지로 온다. 류현민은 보름이상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지내면서 유격근거지의 현실을 목격하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의 정당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을 깊이 인식하며 근거지에서 받은 인상들을 적은 보고문을 작성한다. 국제당에 무기명편지를 보낸자들은 제놈들의 음흉한 속심이 드러나게 되자 류현민을 살해한다. 이를 계기로 유격근거지에 숨어있던 종파분자들은 청산되며 근거지에서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근거지들에 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되고 민주주의적개혁들이 성과적으로 실시된것을 축하하여 체육대회를 열도록 하신다. 그후 뤄쯔거우(라자구)의 구국군부대에서 공작하던 리광중대장을 비롯한 10명의 유격대원들이 구국군들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구국군부대와의 항일련합전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뤄쯔거우(라자구)의 우이청(오의성)부대를 찾으시여 담판하시며 구국군부대와 련합하여 둥닝(동녕)현성진공전투를 승리적으로 벌리도록 하신다. 당황한 적들이 샤오왕칭(소왕청)근거지에 대한《토벌》을 시도하였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적의 기도는 좌절되고 근거지는 굳건히 방위된다. 소설은 이듬해 봄에 봄철농사를 돕기 위하여 몸소 들판에 나오시여 씨뿌리기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엄한 모습을 감명깊게 그리면서 피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근거지의 봄을 안고 조국으로 가리라는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의 투쟁결의로 끝맺고있다. 소설은 유격근거지에서의 생활과 유격근거지방위를 위한 투쟁에 대한 서사시적화폭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예술적화폭으로 깊이있게 확증하고있다. 소설은 또한 인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유격근거지에 혁명의 새봄을 안아오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8(1989)년판〕

《근위병》 단편소설. 주체62(1973)년 채동욱 창작. 기능이 어린 굴착기운전공이 짧은 시일안에 고급기능공을 따라잡고 혁신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소설은 간석지개간공사장에 취재온 기자에게 방송원처녀가 주인공의 위훈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씌여졌다. 기능이 어린 굴착기운전

공 국훈은 공사의 기간단축과 관련하여 유능한 운전공과 교체되게 된다. 그러나 군복은 벗었어도 위대한 수령님의 근위병이라는 자각을 안고있는 국훈은 열흘동안에 고급기능공이 될 결심을 안고 기어이 방파제공사를 말아나선다. 그는 이악하게 노력하여 1주일만에 유능한 운전공을 따라잡고 모든 굴착기운전공들에게 사회주의경쟁을 호소한다. 그리고 굴착기바가지를 개조하여 굴착량을 종전의 몇십배로 늘인다. 또한 수송능력이 딸려 공사를 더 진척시킬수 없게 되자 국훈은 아카시아나무로 발을 엮어 갈밭속으로 직선도로를 뽑아 자동차주행구간을 훨씬 단축할 새로운 방안을 내놓는다. 그리하여 공사장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혁신이 창조된다. 그렇지만 국훈은 만족을 모르며 2000㎥돌파운동을 발기하고 계속 전진해간다. 소설은 주인공 국훈의 형상을 통하여 혁명적대진군의 밑바탕에는 대중적영웅주의가 깔려있다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잡지, 주체62(1973)년 2호〕

《근위병의 아들들》(전, 후편) 영화문학. 량정무 창작. 옛 근위병의 아들들답게 성스러운 조국보위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조선인민군 8형제군관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8형제의 맏이인 일국은 적들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으로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준엄한 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자기들의 맹세를 담은 편지를 올리자는 동생들의 제의에 선뜻 응하지 못한다. 당과 수령께 올리는 전사의 맹세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며 편지를 올려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근위병들처럼 진짜 맹세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최전연초소에 내려갈것을 상급참모부에 제기한다. 초소에 내려온 일국은 적들과의 격전에서 총폭탄이 되여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중대장 태준의 희생을 목격한다. 중대장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생들은 포연속을 걸어가는 그 길이야말로 경애하는 장군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전연으로 떠나는 아들들에게 8형제의 아버지는 마지막수류탄을 쥐고 최후의 결전장으로 달려나간 근위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드디여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교원으로 배치받았던 막내 기명이도 최전연초소의 중대장으로 자원해온다.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려는 불타는 의지와 신념을 담아 8형제군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편지를 올린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사들이 올린 편지를 받아보시고 친히 회답서한을 보내주신다. 작품은 이러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그 어떤 천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두려울것이 없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든든한 배심을 보여주며 전사들의 참된 삶은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자기의 심장을 바치는 길우에서 빛난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혀내고있다. 작품은 주체85(1996)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금강산시초》 시초. 주체47(1958)년 박세영 창작. 천하절승 금강산의 수려함과 그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초는《비로봉에서》, 《자애로운 어머니품》, 《만폭동계곡》, 《옥류동에 들어서며》, 《비사문》, 《해만물상》의 6편의 서정시로 이루어져있다. 시초는 비로봉, 만폭동, 비사문, 해금강 등 금강산의 주요명승지들을 따라가며 봉우리는 봉우리대로, 폭포는 폭포대로, 계곡은 계곡대로, 물은 물대로 아름답고 기이한 절경을 펼친 명산의 황홀한 모습을 노래하고있다. 서정적주인공은 봉우리며 계곡을 흐르는 물이며 조약돌 하나를 통하여 세상에 비길데없이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와 극치를 이룬 금강산의 절승을 한없는 자랑을 담아 노래하고있다. 시초는 이곳 휴양생들과 등산객들에 대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세상에서 제일가는 금강산의 주인

이 다름아닌 바로 우리 인민들이라는것을 긍지높이 자랑하고있다. 그러면서 자애로운 어머니 우리 당의 사랑과 은정속에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더욱 빛을 뿌리고 인민들이 천하절승의 주인으로 즐거움과 희열, 랑만에 넘치게 되였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시초의 감정정서는 경쾌하고 다감하며 진실하다. 시초는 어휘의 생동성과 표현의 풍부성 등으로 아름다운 금강산 절승경개의 모습을 눈앞에 보듯이 방불하게 펼쳐보이고있다. 〔《박세영시선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8(1959)년판〕

《금강의 돌》 단편소설. 주체79(1990)년 조인영 창작. 금강산의 돌 하나도 무심히 대하지 않으시고 조국의 한 부분으로 여기시며 알뜰히 거두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조국애를 보여준 작품이다. 야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오이김치단지를 이고 옥류동으로 가던 금강의 샘마을녀맹위원장 정녀는 금로수샘터에서 낯선 녀인이 정갈하게 샘터를 꾸려놓고 점심준비를 하는것을 보고 이고가던 오이김치를 꺼내여 드린다. 그러자 평양에서 오셨다는 그 녀인은 매우 반가와하시며 그에게 고추장 한보시기를 떠주신다. 정녀는 잠간이라도 손님들의 점심차비를 도와드릴 생각으로 아궁돌로 쓰려고 했던 잘 생긴 깨바위돌 몇개를 들어다드린다. 그러나 평양녀인은 정녀와는 달리 남들이 불을 때서 까맣게 그을은 돌들만을 모아놓는다. 한순간 정녀는 의혹이 갔지만 오래 생각해볼 사이도 없이 김치단지를 이고 일어선다. 얼마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김정숙녀사께서도 함께 금강산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정녀는 장보시기도 드릴겸 그 평양녀인을 찾아가 김정숙녀사에 대한 그리움을 터쳐놓다가 뜻밖에도 그 평양녀인이 바로 김정숙녀사이심을 알게 된다. 더우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이김치를 드시며 그 솜씨를 치하해주시였다는 말을 전해들었을 때 그는 너무나 꿈만 같은 일에 접하여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녀사께서 내가의 기슭에서 수세미로 말끔히 씻고계시는것이 그을음이 올랐던 아궁돌이라는것을 알고 눈시울을 적신다. 소리도 없고 향기도 없고 움직일줄도 모르는 평범한 금강의 돌, 그것은 바로 김정숙동지께서 항일의 혈전만리 마음속에 품고오신 이 강산의 한 부분이였던것이다. 소설은 조국을 위해 한생을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 있고 그이의 뜻을 받들어 조국을 가꿔가시는 김정숙녀사의 고결한 헌신과 정성이 있어 하나의 돌도 살붙이와 같이 정을 나눌 대상으로 되고 명산의 미를 돋구는 소중한것으로 되였음을 밝혀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79(1990)년 제51호〕

《금강의 메아리》 단편소설. 주체74(1985)년 림왕성 창작. 금강산절벽에 글을 새겨넣어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대대손손 전하려고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예술대학 벽화과를 졸업하고 고향 금강군에 배치받은 현강준은 어느날 금강산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금강산을 돌아보던 강준은 아버지가 금강산절벽에 위대한 수령님을 흠모하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마음을 담은 글발을 쪼아새기겠다고 그이께 편지를 올렸다는것을 알게 되며 그이께서 벽화전문가인 자기를 부르신 까닭도 깨닫게 된다. 강준과 함께 구룡폭포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머지않아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해금강의 삼일포로부터 내금강의 진주담에 이르는 금강산의 명승자연바위들에 수령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글을 새겨 금강산을 찾는 탐승객들에게 자연의 향기뿐아니라 수령님에 대한 흠모와 충정의 마음을 심어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받아안은 강준은 이 거창한 사업에 자신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칠것을 결심한다. 소설은 금강산 자연바위들에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글발을 새겨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먼 후날까

지 전하시기 위하여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수령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분이시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해명하고있다. 〔단편소설집 《남산의 노을》,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4(1985)년판〕

《금거부기》 장편소설. 주체94(2005)년 김대성 창작.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원쑤들의 모진 고문과 회유기만에도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비전향장기수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남녘땅 호남벌의 한 고장에서 태여난 주인공 신준영은 마을에 있는 거부기모양의 바위를 바라보며 아들이 그 누구보다도 오래 행복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과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싸우던 외할아버지의 영향속에서 자란다. 청주에서의 사립상업학교시절에 해방을 맞이한 그는 서울과 군산 등지에서 공부를 하면서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미군정실시를 반대하는 2.7구국투쟁, 《5.10단선》반대투쟁 등에 참가하여 싸우며 북남총선거의 실시를 지지하여 밤낮으로 뛰여다니면서 련판장에 수천명의 수표를 받기도 한다. 그는 통일과 민주화투쟁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에 항거하여 려수폭동에 참가하며 그후 지리산에 들어가 빨찌산투쟁에도 참가한다. 지리산빨찌산 변산지대장 송중석의 련락병으로 임명된 그는 싸움마당에 내보내주지 않는다고 의견을 부리기도 하고 자기를 대신할 련락병을 찾는다고 하면서 자유주의도 한다. 그러나 그는 송중석의 교양으로 개인이 아니라 조국통일투쟁에 나선 전투원이라는 자각을 가지게 되며 그 과정에 책상물림의 신대원으로부터 당당한 빨찌산대원으로 성장한다. 대대가 놈들의 겹겹한 포위속에서 피로써 열어준 길을 걸어 공화국의 품에 안긴 준영은 농업대학에 입학하여 배움의 나날을 보내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고향땅을 해방하기 위하여, 전우들의 념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펜을 총으로 바꾸어쥐고 견결히 싸운다. 전후 그는 조국통일의 념원을 안고 열두삼천리벌에 달려나가 고향의 호남벌을 갈아엎는 심정으로, 통일의 날을 앞당기려는 일념으로 뜨락또르를 몰아간다. 우리 당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을 어머니심정으로 잘 돌봐주고 내세워주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기둥이 되게 해야 한다는 어버이수령님의 뜻에 따라 준영은 전쟁으로 중단되였던 대학공부를 마치고 농업기사로 되여 다시 열두삼천리벌에서 일하면서 가정까지 이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린다. 농민휴양소에서 그는 뜻밖에도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게 되며 남녘땅에 고향을 둔 동무들을 당은 보배처럼 여긴다고, 앞으로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가서 고향사람들을 이끌어 새생활을 창조해야 한다시며 그의 노래에 답례하여 노래까지 불러주시는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는다. 그후 준영은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위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 각오를 안고 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섰다가 원쑤들에게 체포된다. 놈들은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들씌우고 그의 신념과 의지를 꺾어보려고 별의별 악착한짓을 다 감행한다. 교도소장 김태식과 교무과장 려창근을 비롯한 교형리들은 그에게 상상도 할수 없는 모진 고문을 들이대기도 하고 아들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와 어릴적 동무인 교회신부 리송림을 내세워 전향을 《권고》하기도 하며 동생 준섭에게 생활적고통을 들씌워 준영의 의지를 꺾고 전향서를 받아내려고 한다. 그러나 준영은 감옥에서 만난 옛 지리산빨찌산 지대장이였던 송중석을 비롯한 동지들의 고무와 격려속에 놈들의 야수적만행에 맞서 견결히 투쟁하며 감옥에 들어온 대학생청년인 오승재를 어엿한 통일투사로 키우기도 한다. 아들의 의기에 힘을 얻은 어머니 고분임은 놈들의 요구를 단호히 물리치고 거북바위가 아니라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아들이 무사하기를 바란다. 형의 투쟁에 고무를 얻은 동생 준섭도 남조선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참가

하여 과감히 싸운다. 그 어떤 회유와 모진 고문으로써도 준영을 돌려세울수 없었던 놈들은 그가 고문끝에 골수암이라는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에도 내놓지 않고 전향을 강요하다가 다 죽게 된 그를 할수없이 출소시킨다. 령어생활 32년만에야 준영은 뼈만 남은 페인이 되여 감옥에서 나온다. 어머니도 동지들도 그의 병을 두고 어찌할바를 모르고 락심해있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남쪽에서 오랜 감옥살이를 하고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옥살이로 얻은 병때문에 고생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귀한 약들을 보내주신다. 그 사랑이 있어 다시 생명을 받아안게 된 준영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동지애와 혁명적의리에 의하여 실현된 비전향장기수들의 귀환조치에 의하여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된다. 준영을 떠나보내면서 어머니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아들을 위해 한생을 두고 모아둔 돈으로 마련한 금거부기조각상을 장군님께 선물로 올려줄것을 간절히 부탁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과 남녘인민들이 올린 선물들을 보아주시면서 준영이 어머니가 올린 금거부기에 대한 사연을 들으시고는 고분임은 아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 떠나보내고 기나긴 세월 옥바라지를 해야 하는 그 고생속에서도 아들의 뜻을 장하게 여기여 지조와 절개를 굽히지 않도록 힘을 준 훌륭한 어머니라고 하시며 그의 병에 특효가 있다는 보약을 지어보내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신다. 작품은 주인공 신준영의 불굴의 투쟁모습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 바친 한생이야말로 가장 참된 삶임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었다. 또한 남녘인민들과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남녘인민들모두가 장군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겨레가 바라는 통일로 된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4(2005)년판〕

《금고사진》 단편소설. 주체86(1997)년 강학태 창작. 어버이수령님께서 자신께서 애용하시던 금고속에 김책동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관해두고계신 이야기를 통하여 혁명동지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혁명적의리와 무한한 동지애의 세계를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은 앞으로 있게 될 북남최고위급회담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앞길에 전환적인 국면이 열리던 시기, 어버이수령님의 생애의 마지막시기를 배경으로 하고있다.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서울에 나가실 결심을 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서울인민들앞에서 하실 연설문집필을 끝내시고 우리 혁명앞에 어려운 난관이 제기되거나 자신께서 중대한 결심을 내리셔야 할 때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다시금 애용하시는 금고속에서 한장의 사진을 꺼내보신다. 그 사진은 주체37(1948)년 12월의 마지막밤을 보내시며 김책동지와 함께 찍으신 사진이였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미더운 혁명전우를 한생토록 자신의 가까이에 있게 하고싶으시여 자신께서 애용하시는 금고속에 소중히 보관해두시고 그리울 때마다 꺼내보시군 하셨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뛰여들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한 김책동지에 대한 추억을 더듬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일군들도 모두 김책형의 참된 혁명가가 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일편단심 받들어나가기를 바라시며 경제부문 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집무실을 나서시는데서 소설은 끝난다. 소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애용하시는 금고속에 김책동지와 함께 찍으신 사진을 보관해두고계신 뜻깊은 사적자료에 기초하여 혁명동지를 귀중히 여기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 혁명적의리의 세계를 감명깊은 형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청년문학》잡지, 주체86(1997)년 4호〕

《금곡천의 마지막사람》 단편소설. 주체95(2006)년 주종선 창작. 세대를 이어가

며 나라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어린 탐구의 길을 걷는 한 지질연구사가정의 애국심을 보여주고있다. 해방전 금곡천이 흐르는 지대에 왜놈탐사대가 와서 귀한 광물을 찾기 위해 돌아친다. 어느날 이 탐사대에 있던 조선인기술자는 찾아낸 그 광물시료를 가지고 탐사대를 뛰쳐나와 이곳에서 살고있던 한명산에게 맡기고 어디론가 떠난다. 그 시료를 소중히 건사하였던 한명산은 해방후 이곳을 찾아온 산업국 전권대표인 항일투사와 그 기사로부터 이 돌이 조국의 국방공업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광물이라는것을 알게 된다. 항일투사는 그 광물에 《푸른 돌》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한명산은 그 개발사업의 첫 탐사대책임자로 된다. 그러나 그는 탐사자료를 찾으러 남조선으로 갔다가 그만 희생된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에서 싸우다가 류학을 가게 된 한명산의 아들 한성욱은 그 돌에 바쳐진 아버지의 넋과 전권대표였던 련대장이 최후를 앞두고 푸른 돌을 찾아야 한다고 남긴 간곡한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한생을 푸른 돌개발사업에 바칠것을 결심한다. 전쟁이 끝난 후 한성욱은 단란한 가정의 보금자리를 떠나 금곡천의 산발들을 훑는다. 아무리 찾아도 푸른 돌이 나타나지 않자 모두가 손맥이 풀려 이 사업에서 손을 떼자고 한다. 그러나 한성욱은 푸른 돌을 찾기만 하면 조국은 탐사집단이 소비한것보다 더 큰 리익을 얻게 된다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 탐사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간다. 그후에는 지질기사로 자라난 그의 아들 한석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애국의 길을 걷도록 떠밀어주는 어머니와 주변사람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사랑속에서 금곡천선발대로 파견되며 당에서 보내준 최첨단탐측기재로 푸른 돌을 기어이 찾아내고야만다. 소설은 대를 이어가며 푸른 돌탐사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 할아버지 한명산, 아버지 한성욱, 아들 한석의 형상을 통하여 애국은 조국을 위해 생의 귀중한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숭고한 공민적자각이고 열렬한 헌신이라는것을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95(2006)년 9호〕

《금골처녀》 서정시. 주체73(1984)년 최정용 창작. 더 많은 쇠돌을 캐여 당과 수령의 크나큰 믿음과 은덕에 보답하려는 하나의 마음을 안고사는 금골처녀의 아름다운 사상정신적풍모를 노래한 작품이다. 서정적주인공—시인은 웃으며 바래워주는 금골처녀와 쉽게 작별하고 헤여질수 없는 감정을 토로하면서 금골처녀가 어떤 처녀인가를 보여주고있다.

이제는 돌에 피는 꽃보다
은빛쇠돌이 더 고와보인다는
향기로운 들바람보다
발파연기가 더 그립더라는 처녀

서정적주인공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쇠돌을 사랑하는 총각만을 마음에 두리라는 속깊은 처녀이기에 이 땅우에 아름다운 처녀들이 많고많아도 금골처녀보다 더 아름다운 처녀를 모른다고 토로하고있다. 시는 생활적인 시형상으로 우리 시대 처녀들의 아름다운 사상정신적풍모를 인상깊게 밝혀내고있으며 짧은 형식에 생동한 시어들을 쓰고있다. 〔《1980년대시선》, 문예출판사, 주체79(1990)년판〕

《금녀에 대한 이야기》(1, 2부) 영화문학. 김주명 창작. 작품의 제1부는 일제통치하에서 온갖 천대와 멸시, 불행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온 한 녀인의 기구한 운명과 생활을 보여주고있으며 제2부에서는 그 녀인이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어떻게 나라의 어엿한 주인이 되여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9살난 금녀는 빚값으로 지주 배중구의 집에 팔려가 종살이를 하게 된다. 어느날 아버지를 찾아떠났던 금녀의 어머니와 동생이 되돌아왔으나 모진 가난과 굶주림으로 어머니는 어린 동생 정길을 남겨두고

끝내 숨지고만다. 금녀는 배중구의 머슴인 태복에게 동생 정길을 맡기고 배사공의 아들 윤덕이와도 리별한다. 생사조차 알길없는 아버지를 찾아떠난 금녀는 모진 세파에 부대끼며 류랑하다가 거간군놈의 협잡에 걸려들어 화학공장에 끌려간다. 지옥과 같은 공장생활에서 벗어나려고 동료들을 추동한 금녀는 왜놈들에게 붙잡혀 반죽음이 되도록 고문을 당한다. 잔인하고 악착한 놈들은 고문에 실신당한 금녀를 하수도에 던진다. 금녀는 정신을 잃은채로 하수도로 해서 바다에 흘러나간다. 마음씨 착한 배사공로인에 의하여 구원된 금녀는 어떤 포구의 배우에서 윤덕이를 만나게 되며 그와 결혼하게 된다. 그들에게는 왜놈회사의 배가 집이였고 일터였다. 어느날 윤덕은 그전날 고향에서 배중구에 대한 원한으로 그놈의 집에 불을 지르고 떠난것이 죄가 되여 일제경찰에 체포되여간다. 금녀는 어린 자식과 함께 힘들게 살아가다가 해방을 맞게 된다. 나라가 해방되자 윤덕이가 돌아온다. 그러나 38도선이 가로막혀 그들은 고향으로 가지 못한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유격대에 들어간 금녀는 시내에 내려와 정찰임무도 수행하고 인민군대에 보낼 피복을 만드는 일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미제침략군과 계급적원쑤들을 격멸소탕하는 전투에도 참가하여 영용하게 싸운다. 윤덕은 원쑤들을 격멸하기 위한 전투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다. 전쟁이 승리로 끝나자 금녀는 분계선이 지척에 보이는 고향마을에 돌아와 처음에는 농장원으로, 다음에는 축산작업반장으로 언제나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서 일한다. 이 과정에 그는 계급적원쑤들과 반혁명분자들을 적발소탕하는 투쟁도 잘하고 각계층 군중과의 사업도 잘하여 그들을 우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운다. 도당대표자회의는 그의 헌신적인 노력과 애국적열성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 대표로 선출한다. 그리하여 그는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수령님의 교시를 받는 영광을 지닌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충정으로 보답할 결의를 안고 농장으로 돌아온다. 그는 농장에 돌아와 20여년동안이나 헤여져 소식을 모르고있던 정길이를 만나게 된다. 작품은 지난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던 우리 인민이 해방후 세상에서 가장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는 인민으로 될수 있은것은 어버이수령님을 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였기때문이라는것을 생활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58(1969)－주체59(1970)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금당벌우에 쓰는 편지》 시초. 주체86(1997)년 전영식 창작.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협동농장으로 진출해나간 한 처녀의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시초는 《금당벌우에 쓰는 편지》, 《나는 울었습니다》, 《오래도록 비내리는 들길우에 서있는데…》, 《밤의 단상(1)》, 《밤의 단상(2)》로 구성되여있다. 《금당벌우에 쓰는 편지》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욱이 새겨져있는 금당협동농장으로 탄원한 서정적주인공이 온 한해 들판에서 이삭을 가꾸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기뻐하실 풍년가을을 마련해가는 절절한 심정을 토로하고있다. 《나는 울었습니다》에서는 금당벌로 떠나는 그날 딸의 례장감이라시며 뜨락또르에 태워보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에 목메여 울었던 서정적주인공이 농사일에 한몸 다 바쳐갈 결의를 담고있으며 《오래도록 비내리는 들길우에 서있는데…》에서는 전선길을 가시는 장군님의 그 자욱을 마음속에 새기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리워하는 농장원들의 심정을 노래하였다. 《밤의 단상》(1), 《밤의 단상》(2)에서는 쌀로써 장군님을 받들고 장군님을 따르며 승리의 래일을 향하여 고난의 행군, 강행군길을 억세게 다그쳐가는 충정의 열정과 신심,

투지를 펼쳐보이고있다.

장군님! 너무 근심마십시오
농사군의 허리띠는 조여매도
군량미를 축가게 해서야
어찌 장군님의 딸이라 하겠습니까!

시초는 일기식구성형식에 의거하여 서정적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시적정서속에서 펼쳐보이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86(1997)년 8호〕

《금룡강은 굽이친다》 단편소설. 주체62(1973)년 김창수 창작. 해방후 인민이 주인으로 된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형상한 작품이다. 해방전 한뙈기의 땅때문에 징역살이를 한 박석진로인은 난생처음 제땅에서 농사를 짓게 해주시고 학비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났던 아들을 새로 창립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게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감격을 금치 못해한다. 그리하여 그는 첫 민주선거를 앞두고 면립후보자를 선출하는 모임에서 누구보다먼저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모시자고 제의한다. 제의서를 제출할 리인민대표로 선출되여 평양에 간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국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인민들의 요청을 수락하시여 중요한 회의마저 뒤로 미루시고 금룡리를 찾아오신다. 그리고 주권기관에는 나라의 주인인 인민을 먼저 보내야 한다고 하시며 박석진로인을 군인민위원립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시며 마을을 더 잘 꾸리기 위한 방도를 가르쳐주신다. 소설은 우리 나라를 인민이 주인이 된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려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감명깊게 보여주고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려는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진실하게 그리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2(1973)년 1호〕

《금룡이》 단편소설. 주체52(1963)년 리덕윤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고향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원쑤에 대한 적개심을 안고 미제원쑤들과 용감하게 싸운 한 소년의 애국심과 투쟁을 보여준 작품이다. 전쟁시기 금룡은 고향마을을 강점한 미제의 대학살만행으로 아버지를 잃게 된다. 바람이 너무 심하여 농사가 잘 안되는 물구지벌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가꾸어오던 방풍림에 아버지를 묻으면서 금룡은 기어이 원쑤를 복수하고 방풍림을 더 푸르게 가꾸리라 맹세다진다. 때마침 정찰나갔다 돌아오는 인민군대를 만나 부대에 들어간 그는 오소리를 잡아 대원들의 총기름을 보장해주기도 하고 골짜기안에 산개해있는 련대지휘부의 련락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조세프놈을 죽이려고 단신으로 적후에 들어갔던 금룡은 그놈을 이미 사로잡아왔다는것을 알고는 복수의 일념으로 가슴 불태운다. 그는 심문을 받고 비칠거리면서 나오던 조세프놈이 더러운 구두발로 애어린 소나무를 꺾어놓는것을 보고는 아버지의 땀이 스민 방풍림을 짓밟는 그놈을 처단해버린다. 그후 금룡은 훌륭한 정찰병으로 자라난다. 작품은 금룡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이 그처럼 영웅적으로 싸울수 있었던것은 고향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고향땅을 짓밟은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이 있었기때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2(1963)년 제60호〕

《금반지》 단편소설. 주체71(1982)년 김병훈 창작. 한생을 조국과 혁명, 동지를 위해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생애에 대하여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작가인 내가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되여있는 김정숙동지의 사적물앞에서 항일혁명투사 장철구어머니의 회고담을 듣는 형식으로 씌여졌다. 항일혁명투쟁시기 김정숙동지께서는 철구어머니가 《민생단》혐의를 벗고 사령부에 배치되여왔을 때 억울

하게 모해를 당해 상처입은 그의 마음을 따뜻이 위로해주신다. 그이께서는 소기름을 구해다가 얼어터진 그의 손등에 발라주시면서 앞으로 **김일성**장군님만 믿고 싸우자고 고무해주신다. 어느해 겨울 한 유격대밀영에 있던 6명의 녀대원들은 갑자기 습격해온 적의《토벌》대와 맞서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전우들의 복수를 다짐하고 일어나 맹훈련을 벌려 백발백중의 명사격술을 키우신다. 그후 김정숙동지께서는 싸움마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보위하고 적들을 쓸어눕히시면서 녀장군으로 이름을 날리신다. 하여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금반지를 표창으로 받으신다. 어느해 여름 철구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운신을 못하고 대오에서 떨어지게 되였을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산중에 홀로 남아 뜨거운 정성을 기울여 그를 끝내 구원해내신다. 2년후 철구어머니가 병이 도져 다른 나라 병원으로 가게 되였을 때에는 떨어지기 아쉬워하는 그에게 자신의 금반지를 주시면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자고 하신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러 철구어머니는 조국이 해방되고 김정숙동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야 조국에 돌아온다. 그를 따뜻이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지께서 병이 위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령님의 현지지도차비를 해드리시고 자신께 근심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 애쓰신데 대해 회고하신다. 그러시면서 김정숙동무는 한생을 고스란히 혁명을 위하여, 동지를 위하여 바친 사람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철구어머니는 그후 사람들이 김정숙동지의 혁명적생애를 잘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이의 소중한 유물인 금반지를 조선혁명박물관에 가져온다. 소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한생을 오직 조국과 혁명, 동지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의 빛나는 귀감이시라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불멸의 영상》,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금산군수》(1막) 희곡. 송영 창작. 해방직후 남조선사회의 부패상과 타락상, 반동관료배들의 추악한 사기협잡행위를 풍자적으로 폭로한 작품이다. 작품에서는 민주국민당이《임명》한 백군수와 리승만역도가 직접《추천》한 리군수가 금산군에 내려와 서로 군수자리를 차지하려고 개싸움을 벌리는 희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고있다. 리가는 리승만매국역적에게, 백가는 내무장관놈에게 뢰물을 찔러바치고 금산군수로《임명》받았다. 백가와 리가는 한방에 앉아서 서로 자기가 진짜 군수라고 우기면서 상대방의 더러운 경력과 추악한 정체, 무능력에 대하여《론증》한다. 두 군수가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우겨대고 자기《자랑》을 늘어놓을수록 놈들의 더러운 정체가 더욱더 드러난다. 두 놈은 농민들앞에서 위엄을 부리며 서로 자기가 진짜 군수라고 우겨대다가 유격대가 습격해온다는 소리를 듣자 돌변하여 서로 자기는 군수가 아니라고 하면서 내뺀다. 작품은 이러한 풍자적형상을 통하여 남조선반동관료배들의 부패상을 신랄하게 파헤치고 놈들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예술적으로 확인하였다. 작품에서는 두 희극적인물의 성격에 어울리는 정황제시로 극을 전개하는 독특한 극작법과 개성적인 대사조직 등 우수한 형상수법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38(1949)년에 연극으로 창조되였다.

《금수강산》 단편소설. 주체77(1988)년 김련화 창작. 이 땅을 제일 사랑하시고 금수강산으로 가꾸시는분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 사상을 보여준 작품이다. 처녀화가 차수금은 묘향산의 경치를 화판에 담으려고《묘향산주인》인 박로인의 집에 있으면서 그림을 그린다. 어느날 탐사대원 3명이 금광개발을 위한 현지측정을 나왔다가 쫓겨가는 사건이 발생한다. 며칠후 탐사대원들과 함께 묘향산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차수금과 박로인을 만나주신다. 묘향산을 돌아보시며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 박로인은 누구보다 묘향산을 사랑하고 잘 안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뉘우치며 광산개발을 막아나섰던 주책없는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말씀올린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히려 이 산을 가꾸어온 박로인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시며 금을 캘것이 아니라 경치좋은 이곳에 인민의 휴양소를 짓자고 말씀하신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차수금에게 화폭에 생명을 부어넣자면 이 땅을 지켜 피흘려 싸운 선렬들과 박로인 같은 분들의 고결한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자연을 대해야 한다고 뜻깊은 말씀도 해주신다. 작품은 조국의 자연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한없이 넓고 깊은 숭고한 사랑이라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위대한 스승》, 문예출판사, 주체77(1988)년판〕

《금수강산을 수놓는 처녀》 단편소설. 주체64(1975)년 한웅빈 창작. 고향땅을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리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농장원처녀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작품에는 한 미술가가 11년전에 만났던 소녀를 다시 만나 그를 깊이 알게 되는 과정이 그려져있다. 11년전 고산지대 농촌의 풍경화를 그리러 갔다가 돌아오던 미술가는 기특한 소녀를 만난 일이 있었다. 어린시절부터 할머니에게서 비단에 수놓아진 강산이라고 하여 우리 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난 그 소녀—순이는 자기 마을은 지대가 높아 벼가 자라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큰 불행으로 여기며 이웃마을에서 벼모를 가져다 샘터에 심어놓고 자라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이가 어엿한 농장원으로, 혁신자로 자라났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성실한 노력으로 고산지대에서 벼수확량을 훨씬 높였을뿐아니라 농장전망계획관철에 앞장서 자기 마을을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꾸려놓았다. 미술가는 이런 처녀가 바로 금수강산의 주인공이라는것을 느끼면서 《금수강산을 수놓는 처녀》라는 제명의 그림을 완성한다. 소설은 순이의 형상을 통하여 크나큰 포부와 불타는 열정을 안고 조국을 빛내여가는 새 세대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4(1975)년 12호〕

《금수평의 새 력사》 단편소설. 주체60(1971)년 김창수 창작.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근거지인민들의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토지분여명세를 작성하며 밤을 새운 유격근거지의 잠복초소장인 덕명은 아버지가 지난밤에 적구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날을 더듬어본다. 정든 바다가고향을 떠나 이국땅에 와서까지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던 그들은 인민혁명정부의 품에 안겨서야 사람다운 생활을 누리게 된다. 그때 난생처음 땅을 분여받은 병억로인은 적구에 남은 맏아들의 가족을 데려오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맏아들과 며느리는 왜놈들의 《토벌》에 희생되고 손녀는 지주집에 끌려가 머슴을 산다. 하나밖에 없는 형을 빼앗긴 덕명은 복수심만을 앞세우면서 무분별하게 행동하다가 구정부회장 철준의 진정어린 비판속에서 자신을 뉘우치고 점차 혁명가로 자란다. 병억로인은 그때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손녀애를 데려오기 위하여 혼자서 적구로 갔던것이다. 범골에 간 병억로인은 적들에게 체포되여 갖은 고문을 받지만 끝까지 근거지의 비밀을 지킨다. 한편 범골지하조직으로부터 놈들의 《토벌》기도를 입수한 유격근거지에서는 습격전투를 진행하여 근거지를 보위하고 병억로인과 그의 손녀를 구원해온다. 소설은 근거지의 진정한 주인들로 자라는 병억로인과 덕명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인민혁명정부—유격근거지는 새형의 인간들을 키워내는 혁명의 품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0(1971)년 2호〕

《금잔화》 단편소설. 주체81(1992)년 김혜종 창작. 첫서리가 내려도 시들지 않는 금

잔화처럼 뜨거운 열정과 굳센 의지를 안고 과학탐구의 길에서 성공을 이룩하는 로동자출신 과학자부부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6월4일차량공장출신의 과학자인 리택우와 강희순은 함께 공장대학에서 공부한 로동자들이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나오고 공장대학이 설립되자 택우는 입학시험에서 성적이 높은 희순과 한학급에서 나란히 앉아 공부한다. 희순은 뛰여난 실력과 아름다운 외모, 깨끗한 옷차림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부모없이 자라난 택우는 옷차림은 물론 실력도 낮았다. 택우는 화려한 옷차림을 한 희순을 부르죠아냄새가 난다고 경계하고 희순은 실력이 낮은 택우를 경원시한다. 둘의 사이는 점차 멀어져 자리도 옮겨앉는다. 어느날 택우는 학교에 나오지 않고 용선로에 산소취입법을 도입하기 위한 실험을 하다가 눈에 심한 부상을 입고 후송된다. 이 소식을 듣고 직장에 달려간 희순과 학급동무들은 그가 얼마나 직장을 위하여 애썼으며 많은 일을 했는가를 알게 된다. 희순과 학급동무들은 병원으로 달려가 저마다 택우를 위하여 자기들의 눈을 바치겠다고 한다. 병원의료집단은 로동계급의 뜨거운 동지애에 감동되여 집단의 힘을 모아 택우의 눈을 고쳐준다. 그후 택우는 희순과 결혼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수많은 가치있는 창안을 함으로써 전도양양한 과학자부부로 떠받들리운다. 소설은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 경제건설에서뿐아니라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도 거대한 전변이 일어나고있던 때를 배경으로 등장인물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밝혀내였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81(1992)년 10호〕

《금준아바이》 단편소설. 주체50(1961)년 김보행 창작.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어느 한 광산 로당원의 풍모를 그린 작품이다. 며칠전 분광제거사별기제작을 위해 열린 당회의에 참가했던 선광자재취급원 금준아바이는 자신앞에 제기된 분공을 두고 생각할수록 나이가 많다고 젊은 당원들속에서 밀려나는것만 같아 당분조장을 찾아간다. 다른 당원들에게는 본신임무외에 일들이 분공되였는데 자신이 분공받은 자재인수사업은 자재취급원으로서 응당한 본신임무이기때문이다. 그러나 당분조장을 만나서도 다른 분공을 더 받지 못하게 된 금준아바이는 다음부터 제일 어려운 분공을 주겠다는 대답을 듣고서야 돌아선다. 한편 도면이 완성되자 자재를 타다가 밤중으로 작업에 착수하려고 금준아바이를 찾아다니던 신입당원 영만이는 그가 퇴근했다는 소리를 듣고 집에 찾아갔으나 이전 선광장자리로 갔다고 하여 만나지 못한다. 그 시각 금준아바이는 선광장자리에서 전쟁시기 폭격에 파묻혔던 사별기를 고심끝에 찾아낸다. 뒤따라온 영만이는 금준아바이를 보고 그가 늙었다고만 여겨오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뉘우친다. 작품은 금준아바이의 형상을 통하여 당생활을 청춘의 기백을 가지고 해나가는 당원에게는 로쇠가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50(1961)년 5호〕

《금천강》 장편소설. 주체67(1978)년 김영근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에 후방과 적강점지역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3편으로 구성되여있다. 제1편 《다섯번째 봄》에서는 해방후 5년간 금천마을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여주고있다. 해방전에 지주 황보윤의 등쌀에 지지리 못살던 강태봉일가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으로 땅을 분여받고 송아지도 사매며 고래등같은 기와집까지 짓고 행복하게 살아왔다.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강태봉로인과 그의 아들 강명철은 마을에서 선참으로 선진영농법을 받아들이며 알곡증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다. 민청위원장으로서 청년들을 새 조국건설과 마을보위에 적극 불러일으키던 강명철은 서북면의 금선

이와 결혼하며 전쟁이 일어나자 현물세낟가리에 불을 지르려는 반동놈과 싸우다 부상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된다. 제2편 《사랑과 증오》에서는 주인공 강명철을 비롯한 금천마을사람들이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인민군대의 후퇴를 적극 도우며 군당위원장의 지도밑에 유격대를 조직하는 과정을 형상하고있다. 민청원들을 동원하여 인민군대의 후퇴를 보장하던 강명철이 적들이 마을에 기여들자 산에 올라 유격대에 입대하는 이야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복잡한 시기에 미처 후퇴하지 못하고 놈들에게 체포된 전두성교장이 사형장에 끌려가다가 구원되는 이야기, 해방후 남조선 춘천에서 경찰노릇을 한다고 소문났던 강명철의 누이 이쁜이의 남편 윤재필이 어엿한 인민군대가 되여 돌아오는 이야기, 유격대가 첫 전투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며 보다 큰 승리를 위해 명철이와 윤재필이 금천리로 적후공작을 떠나는 이야기 등 여러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펼쳐지고있다. 제3편 《우리 사람들》에서는 주인공 명철이가 유격대련대장인 한형민의 지도밑에 사람들을 편견적으로 대하던 결함을 극복하고 송경삼을 비롯하여 진도수 등 놈들에게 리용당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교양하여 혁명의 편에 묶어세우고 고향마을을 해방하는 전투를 승리적으로 진행하는 투쟁과정을 그리고있다. 소설은 적의 침해로부터 고향마을을 지키기 위한 금천리 농민들의 영웅적투쟁에 대한 서사시적화폭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인민민주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있게 밝혀내였다. 〔문예출판사, 주체67(1978)년판〕

《금희와 은희의 운명》 영화문학. 백인준 창작. 해방직후 북과 남으로 갈라져 서로 다른 운명의 길을 걷고있는 쌍둥이형제의 생활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금희가 어느 한 미술상점에서 자기의 춤추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사가는 한창식을 만나는데로부터 시작된다. 금희는 창식이가 그림을 사가면서 자기 누이동생을 그린것이라는 말에 의혹을 품고 아버지 옥현산에게 자기가 친딸이 아닌가고 묻는다. 옥현산은 해방직후 **김일성**장군님의 품을 찾아 평양으로 오다가 길가에서 숨진 박몽규의 품에서 한병호와 함께 쌍둥이형제인 금희와 은희를 갈라안고 북과 남으로 갈라지던 때를 회상한다. 그러나 옥현산은 이 가슴아픈 사연을 금희에게 이야기할수 없었다. 그후 화가인 옥현산은 현지창작의 길에서 수산사업소의 작업반장으로 일하는 한병호와 그의 두 아들을 만나 은희의 그후 소식을 알게 된다. 한편 먼바다어로선단으로 순회공연을 나갔다가 한병호일가를 알게 된 금희는 그들이 자기에게 무엇인가 말 못할 사연을 안고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집으로 돌아온 금희는 한창식이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 자기의 동생 은희가 남조선에서 이리저리 팔려다니다가 마지막에는 미국놈찦차에 깔려 한다리를 잃고 비참하게 살아가고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작품은 이처럼 북과 남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고있는 쌍둥이형제의 생활과 운명을 통하여 민족의 분렬과 국토의 량단으로 인한 우리 인민이 겪는 민족적수난과 고통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것인가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공화국북반부에 안겨 이름있는 무용가로 자라나 자기의 재능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며 먼바다어로선단과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장에 나가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며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살아가는 금희의 행복한 모습과 유능한 화가로 자라난 옥현산, 가족들과 생리별을 하고 두 아들과 함께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와 먼바다어로선단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는 한병호와 그의 아들들의 형상을 통하여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또한 금희의 행복한 생활과의 대조속에서 동생 은희의 비극적인 운명과 비참한 생활모습을 통

하여 미제강점하의 남조선에서 우리 인민이 당하는 민족적수난과 고통, 천추에 용서할수 없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죄행을 구체적인 생활로써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빚값으로 술집에 팔려가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다가 한다리를 잃고 불구의 몸이 된 은희의 기구한 운명과 고역속에서 헤여나지 못한채 골병이 들어 누워있는 한병호의 안해와 오물통을 뒤지며 살아가는 그의 두 어린것들의 형상을 통하여 남조선사회의 반동성과 부패성을 예리하게 폭로하였다. 이처럼 작품은 쌍둥이형제인 금희와 은희의 운명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남조선사회제도의 반동성을 대조적으로 뚜렷이 보여주면서 민족분렬로 인한 우리 인민의 불행과 고통을 끝장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천명하고있다. 작품은 주체63(1974)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금씨앗》 단편소설. 주체64(1975)년 인숭 창작. 농사문제를 두고 마음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한 농장원처녀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올해 21살난 금옥은 분조장 금례를 친언니처럼 따르고 존경한다. 그런데 금례에 대한 금옥의 이러한 마음은 작업반적인 강냉이창자를 짓는 문제를 놓고 점차 허물어진다. 금례는 이 문제가 작업반적으로 하는 일이기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면서 당장 바쁜 김매기를 구실로 늙은 아바이만을 이 사업에 동원시킨다. 그리고 김을 다 맨 다음에도 장정로력을 보내라는 반장의 지시에 아직 김매기가 며칠 더 걸려야 한다고 거짓말한다. 금옥은 금례의 이러한 본위주의와 공명심을 비판하면서 분조청년들과 함께 아카시아나무를 베여다 밤깊도록 강냉이창자를 엮는다. 작품은 금옥의 형상을 통하여 오직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간절한 념원으로 심장이 뜨겁게 고동칠 때에만 진정으로 집단을 위해 일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64(1975)년 3호〕

《금은화 피는 땅》 단편소설. 주체79(1990)년 동희 창작. 소박하나 향기짙은 금은화처럼 강한 지향과 꾸준한 노력으로 고향땅을 성실히 가꾸어가는 한 녀성관리위원장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관리위원장 남순은 대학연구원에서 오래동안 연구해오던 다수확품종을 완성한 남편 영석이가 그 재배시험을 위하여 고향으로 내려오자 해마다 서리피해로 하여 수확이 적은 서리골에서도 다수확을 낼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기뻐한다. 그런데 남순의 기대와는 달리 남편은 다수확품종을 좋은 땅에서 심어가꾸면 서리골 같은 건 봉창하고도 남는다고 하면서 농장의 노란자위라고 할수 있는 상등포전에서 시험할것을 주장한다. 서리골을 그대로 내버릴수 없었던 남순은 그 땅에서 다수확을 내기 위해 이미전부터 해오던 종자시험을 심화시킨다. 한편 영석의 새 종자를 시험재배한 어느 한 농장에서 그것은 늦종이여서 기후풍토에 맞지 않는다는 편지가 온다. 영석은 결국 일부 지역에서만 은을 내는것으로 명예를 떨치는데 치중하였지 서리골 같은 지대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것이다. 이를 계기로 자신을 뉘우친 영석은 남순의 연구에 같이 달라붙어 그 종자시험에서 성공하게 된다. 소설은 남순의 고향과 향토에 대한 사랑을 작고 소박하나 생활력이 강하고 향기짙은 금은화에 상징적으로 비유하여 부각시킴으로써 작품의 사상적의미를 돋구어주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9(1990)년 12호〕

《긍지》 단편소설. 주체51(1962)년 김병훈 창작. 사람과의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한 당일군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3천HP양수기 10대를 4월말까지 만들데 대한 추가지시를 받은 지배인 영석은 매우 난감해하지만 그 지시를 전달하는 박철수부상이나 공장당위원장 강용세는 그것을

공장의 경사라고 하면서 긍지에 넘쳐있다. 당위원장 용세는 즉시 공장예술소조원들에게 양수기생산의 중요성을 가지고 경제선동을 하도록 하며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벌리면서 그들과 생산예비를 탐구한다. 그리고 전쟁시기 공장설비를 구원하고 희생된 렬사들의 영웅적투쟁에 대한 이야기로 종업원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며 로동자들을 양수기생산에로 추동함으로써 추가로 맡겨진 생산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영석은 그러한 당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로동자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수자상의 계산으로나 계획수행에 대하여 생각하던 자신을 뉘우친다. 소설은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여도 사람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킬 때 능히 수행할수 있으며 거기에 삶의 보람과 긍지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1(1962)년 3호〕

《기관사》 단편소설. 주체40(1951)년 최명익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들을 실은 군수렬차를 강바닥에 처박고 영웅적으로 전사한 한 기관사의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서 적들에게 체포된 주인공 현준은 감옥으로 끌려간다. 놈들은 현준이가 기관사라는것을 알고 저들의 편에서 일할것을 강요한다. 현준은 순간이나마 로동당원의 량심을 더럽히는것이 죄스러웠으나 앞일을 위하여 놈들의 요구에 응한다. 며칠간 자기의 손때묻은 기관차를 정비하고난 현준은 어느날 빨찌산《토벌》에 동원될 적들을 실으러 가게 된다. 기다리던 순간을 맞이하게 된 현준은 목적지에 가서 수천명의 적들을 싣고 돌아선다. 그는 미국놈과 괴뢰헌병놈과 격투를 벌리는 과정에 부상을 당하지만 계속 속도를 유지함으로써 철교에서 렬차를 강바닥에 처박아버린다. 이날 그는 렬차에 탔던 놈들을 무리로 전멸시키고 전사한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조선로동당원이란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며 필요할 때에는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혁명가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집《기관사》, 문예총출판사, 주체40(1951)년판〕

《기관사》 장편소설. 주체84(1995)년 림재성 창작. 해방직후 자체의 힘으로 기관차를 복구하여 운행하는 정주기관구 로동자들의 투쟁을 통하여 나라의 참다운 주인으로 자라나는 우리 로동계급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일제가 패망하면서 파괴한 기관차를 수리할 부속품을 얻으려고 평양에 온 정주기관구 기술주임 김창석은 허탕을 치게 되자 실망한다. 이때 평양철도공장에 나오시여 교통국장에게 쌀을 내라고 들이대는 로동자들을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그는 우에다 손을 내밀려고 평양에 왔던 자신의 처사를 뼈아프게 뉘우친다. 돌아오면서 곽창세기관사의 자유주의적인 행동을 목격한 창석은 기관구산하 일군들의 회의를 열고 그에게 책벌을 주며 자체로 부속품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하여 대담하게 일본놈밑에서 기사로 일해온 황룡식을 데려다가 용선로공사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그는 기관사와 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술학습도 조직한다. 한편 반동분자인 주오복의 꾀임에 넘어간 철도사무소장 변봉서는 창석이에게 못쓰게 된 기관차를 팔아 부속품을 사다가 기관차를 복구할것을 강요한다. 때를 같이하여 편협한 군당위원장은 일본놈밑에서 기관차기술을 배운데다가 일본녀성과 살고있는 황룡식기사까지 공장에 나오도록 한 창석이를 친일분자로 보면서 입당청원도 받아주지 않는다. 다음날 세포비서인 리종근으로부터 충고를 듣고 도에 파견원으로 내려와있는 김일을 찾아간 김창석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운전용탄도 국내산으로 해결할 결심을 다진다. 그후 그는 친동생처럼 여기던 천봉식이가 엄중한 과오를 범한것과 운전

용탄의 혼합비률을 변경시켜 렬차운행에 지장을 주었다는것으로 하여 해임된다. 이때 그를 찾아온 친구 안무학이 남조선으로 나갈것을 권고하지만 단호히 거부하고 자기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은덕에 보답할 일념으로 운전용탄을 마련하기 위해 돌격대를 무어가지고 탄광으로 간다. 그리고 반동놈들의 꾀임수에 넘어가 그놈들에게 탄광설비를 실어다주었던 천봉식은 그것을 도로 싣고오던중 반동분자 주오복과 그들의 편에 넘어간 곽창세에 의하여 희생된다. 그가 목숨바쳐 지켜낸 탄광설비를 받은 김창석은 복수심에 불타있는 돌격대원들과 함께 짧은 기일안에 수백t의 석탄을 캐낸다. 이무렵 김일파견원으로부터 정주기관구의 실태를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창석이를 입당시켜 철도국장의 사업을 맡도록 하시는 한편 조선을 떠나려던 황룡식기사의 안해를 데려다가 기사와 함께 살도록 해주신다. 김창석은 그후 운전용탄의 100%를 국내산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리면서 자신이 직접 승무에 나간다. 다음해부터 실시할 계획경제문제를 놓고 사흘째나 산업국을 비롯한 경제부서 책임자들과 협의회를 진행하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발전시킬수 없다고 하시며 교통국장에게 운전용탄을 우리 나라의것으로 할수 없겠는가고 물으신다. 교통국장이 망설이고있을 때 김창석이가 자기들이 양성한 어린 기관사와 함께 신의주로부터 500리나 되는 긴 구간을 수입탄이 없이 운전하여 평양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화로 수고했다고 하시며 일군들에게 수화기를 통해 울려나오는 기적소리를 들려주신다. 소설은 후기의 이야기를 펼치고 80고령이 된 김창석이와 남조선에 나가서 철도국장을 하다가 반동통치에 환멸을 느끼고 망명한 그의 친구의 인생길을 서로 비추어보이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해방직후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아래서 우리 나라 철도가 걸어온 력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수령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참다운 인생이 있다는 철리를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4(1995)년판〕

《기관사의 아들》 영화문학. 윤선묵 창작.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나어린 학생들이 소년빨찌산을 뭇고 미제침략자들과 용감히 싸운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공화국북반부에 기여든 미제침략자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살인과 략탈, 방화 등 온갖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창호를 비롯한 그의 동무들은 고향땅에 기여들어 학교를 불사르고 사람들을 마구 학살하며 기관차를 빼앗으려는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적개심으로 가슴 불태운다. 그들은 기관차를 수리해내라고 위협공갈하는 적들에게 견결히 항거해나서는 기관사인 창호 아버지의 불굴의 투쟁모습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는다. 그들은 아버지 **김일성**장군님의 참된 아들딸답게 이 땅에 기여든 미제침략자들과 용감히 싸울 굳은 결의를 다지고 소년근위대를 뭇는다. 그들의 활동은 미제침략자들의 군견들을 낚시로 낚아 없애버림으로써 기관구를 폭파하려는 유격대아저씨들의 작전을 돕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전투에서 그들은 유격대원이 된 학교의 소년단지도원선생님을 만나게 되며 그를 통하여 유격대와 련계를 가지고 조직적인 지도를 받게 된다. 이리하여 그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아동단원들처럼 삐라공작과 통신련락임무 등을 수행한다. 또한 그들은 기관차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단합된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미군장교 잭슨놈을 통쾌하게 잡아치우고 적군용렬차를 전복시키는 등 슬기롭고 용감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기관차소년근위대칭호까지 받게 된다. 작품은 일시적으로 후퇴했던 인민군부대들의 총반격에 당황한 미제침략자들이 기관차 《미가하6》

을 몰고 도망치려 한다는것을 알게 된 소년근위대원들이 남으로 달리는 기관차우에 뛰여올라 창호 아버지와 함께 적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기관차를 다시 북으로, 고향으로 몰고오는 통쾌한 장면에서 끝난다. 작품은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학생소년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불타는 충실성,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적개심, 그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용감성 등을 어린이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잘 그려내였다. 작품은 주체60(1971)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기관사와 그의 조사》 단편소설. 주체49(1960)년 리석형 창작. 생활을 락천적으로 진행할 때 혁명과업수행에서 위훈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용광로에서 용선남비를 끌어내는 구내기관차의 기관사 김상수는 조사로 새로 배치되여온 박동필이 항상 노래를 부르고 남들과 어울려 웃음판을 벌리군 하는것을 두고 속대가 여물지 못한 사람이라고 탐탁치 않게 여긴다. 이러한 그에게 동필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웃을줄 아는 사람만이 소극적인 위구에 사로잡히지 않고 제기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어느날 그칠줄 모르고 내리는 비방울들이 쇠물을 가득 실은 용선남비에 떨어지면서 삽시간에 불길이 일어나는것을 발견한 상수는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200t의 쇠물이 남비채로 레루에 녹아 붙어버리게 될뿐아니라 그것을 까내자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는것을 알면서도 기관차에 불이 달릴것부터 걱정하면서 용선남비를 끌어낼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때 동필은 한시바삐 용선남비를 끌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작정 기관차를 몰고들어가며 련결기가 닫겼다는것을 알게 되자 불꽃들이 사방으로 튀여나는 위험한 속으로 주저없이 뛰여들어 그것을 잡아제끼고 남비를 끝내 련결시켜 밖으로 끌어내고야만다. 동필의 희생적인 행동앞에 상수는 비로소 용해공들이 해야 할 일을 외면했다고 하여 시비걸 사람은 없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비겁하게 처신한 자신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생활을 락천적으로 활기있게 진행하는 사람만이 불리한 정황속에서도 위구심을 가지지 않고 한목숨 서슴없이 내댈수 있다는것을 깨닫게 된다. 소설은 동필에 대한 상수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생활을 문화정서적으로, 락천적으로 하는것이야말로 혁명임무수행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하는 중요한 담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단편집《야금기수의 탄생》,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9(1960)년판〕

《기관총》 단편소설. 주체57(1968)년 강효순 창작. 일제《토벌》대놈들과 용감히 맞서싸운 아동단원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소년선봉대책임자 경호를 비롯한 9명의 소년선봉대원들은 조직적으로 근거지로 가다가 갑자기 적《토벌》대를 만나 위급한 정황에 놓이게 된다. 유격대본부가 어디에 있는가 대라는 놈들의 강박에 응해나서지 않자 놈들은 아이들을 모두 기관총구앞에 세우고 쏘려고 한다. 위기일발의 순간 경호는 놈들의 요구에 응하는척 꾀를 쓰다가 비호같이 달려들어 기관총을 빼앗아 놈들을 요정내고 동무들과 함께 유격근거지로 무사히 돌아온다. 소설은 놈들의 총구앞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내는 아동단원들의 강한 조직력과 강의한 의지, 용맹한 투쟁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긴박한 정황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의 기민한 행동과 슬기를 특색있게 그리고있다. 〔강효순작품집《기관총》,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4(1985)년판〕

《기념비》 장편소설. 주체81(1992)년 김삼복 창작. 광복거리를 현대적인 공법으로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건설한 종합주택건설사업소 지배인과 건설자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종합주택건설사업소 지배인인 장건호는 미끄럼식으로 하는 2개 호

동을 내놓고 나머지 살림집건설을 대형완성부재로 진행하려고 한다. 살림집건설에서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가 원만히 닦아지지 못한것으로 하여 장건호는 처음부터 어려운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 온수관을 넣어야 하는 우리 식의 대형층막의 경량화가 걸려서 애를 먹고있었고 게다가 재래식이든 무엇이든 안전하고 손에 익은 방법으로 건설하려는 광복거리건설총국 최성만의 그릇된 견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아나선다. 장건호는 살림집건설의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이 당면한 광복거리건설을 질적으로 수행하는 가장 옳은 방도이고 현대적인 광복거리는 건축설계도 건설시공도 다 현대적으로 해야 한다는것을 자각하고 어렵지만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선다. 그러나 최성만은 기중기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장을 찾아와 장건호에게 민철균기사가 연구하는 대형층막의 경량화를 믿고있다가는 일이 기울어질수 있다고 하면서 총국의 기술처장을 책임자로 하는 료해성원들을 기어이 경량골재직장에 있는 기술혁신조에 보낸다. 장건호가 종합주택3호동설계를 대형부재로 변경하는 문제를 실현시키려고 설계를 하고있을 때 총국현장지휘부에서는 중형부재로 원래대로 하도록 하며 종합주택에도 그렇게 지시한다. 3호동을 현대화된 부재로 하느냐 마느냐 하는것이 광복거리를 어떻게 질적으로 빨리 건설하는가 하는 문제임을 간파한 장건호는 절대로 현대화문제를 외면할수 없다는 립장을 표명하면서 락후한 방법에 매달려 돌격식의 인해전술로 한해 또 한해 넘기면서 급한 대목을 막는 식으로 일할것이 아니라 이번에 맡은 살림집들을 다 대형부재로 조립하며 4호동과 7호동을 새로운 선진공법인 대형휘틀에 의한 일체식공법으로 시공하자고 건설자들에게 뜨겁게 호소한다. 날이 갈수록 그는 전후에 조립식건설을 받아들여 위훈을 떨쳤던 최성만이 현대화의 길에서 짐이 되고있는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밤새워 경량골재시험생산을 하는 민철균기사의 연구사업을 적극 도와나선다. 드디여 민철균이 연구한 경량골재가 성공하여 대형부재의 조립이 가능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건호지배인의 사업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신다. 그 소식을 들으며 최성만은 깊은 자책에 잠기여 자기를 뉘우친다. 드디여 장건호와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종합주택건설사업소는 살림집건설에서 높은 조립속도를 창조하여 1년 남짓한 기간에 1만여세대를 조립하였으며 오늘은 물론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건축형식과 내용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한 살림집들을 건설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드린다. 소설은 주인공 장건호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덕이 기념비로 솟아오르도록 하려는 우리 건설자들의 깨끗한 충정, 철석같은 신념에 의하여 현대적인 광복거리가 일떠서게 되였고 로동당시대와 우리 조국, 당의 존엄이 빛나고있음을 확증해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81(1992)년판〕

《**기다려다오**》 영화문학. 리춘구, 전창준 창작.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바다오거우 푸옌(팔도구 부암)동에서와 창차이(장재)촌유격구에서 벌리신 혁명활동을 형상한 작품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모진 가난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시며 아동단책임자로서 아동단원들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키워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신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일제놈들의 야만적인 살륙만행으로 어머니와 오레미를 잃게 되셨을 때에도 원쑤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시며 분연히 일떠서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공청조직의 규률을 생명처럼 여기시고 조직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해나가시였으며 오빠로부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며 혁명적신념을 더욱 굳게 다져나가신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을 위하여 사랑하는 젖먹이조카를 남의 집

에 맡기시고 창차이(장재)촌유격구를 찾아 떠나신다. 유격구에 계시면서 김정숙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지하활동으로 적통치구역의 파괴된 공청조직들을 복구하시며 유격근거지의 식량공작을 위한 큰 싸움도 주동적으로 발기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신다. 이 과정에 지하투쟁을 하시던 오빠가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여 희생되며 유격구를 보위하는 싸움에서 사랑하는 동생이 나팔로 놈들을 유인하다가 장렬하게 희생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영결식때 동생의 시신우에 붉은기를 덮어주시며 끝까지 혁명을 하려는 굳은 결심을 다지신다. 유격구가 해산되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싼다오만(삼도만)으로 떠나신다. 작품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통하여 참된 혁명승리의 길은 어디에 있으며 피압박인민의 성스러운 사명을 위하여 투쟁에 나선 사람들의 혁명적신념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76(1987)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기다렸습니다》 가사. 주체81(1992)년 리정술 창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친어버이로 언제나 몸가까이 모시고싶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흠모의 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4개의 절로 되여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잠시 집을 떠난 부모를 기다리는 자식의 심정으로 매일과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주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있으며 2절에서는 꿈결에도 못 잊어 그리던 경애하는 그이께서 찾아주시는 그날에 노래속에, 기쁨속에 춤바다를 펼쳐 만족을 드리고싶어하는 우리 인민들의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이 나라 천만아들딸모두를 어엿한 혁명가로 키워 내세워주시고도 다심한 어머니처럼 날이 갈수록 뜨거운 사랑만을 베풀어주시는 자애로운 장군님의 그 모습을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을 노래하고있으며 4절에서는 언제나 마음속 깊이 흠모하여마지않던 경애하는 그이를 만나뵙는 영광의 그 순간을 위해 한생을 변함없이 충정의 한길에 바쳐가려는 인민들의 고결하고 깨끗한 정신세계를 펼쳐보이고있다. 가사의 후렴에서는 그처럼 기다리고기다리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서 만나뵙는 격동적인 그 순간에 느끼게 되는 끝없는 기쁨과 환희를 토로함으로써 그이께서 반드시 자기들을 찾아주시리라는 기대와 확신, 믿음을 랑만적으로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마지막에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어버이 **김정일**동지》라는 구절을 다시한번 강조해줌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을 뵙고싶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흠모의 마음을 보다 두드러지게 강조해주고있다. 〔《조선가요 20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기다리는 계절》 단편소설. 주체85(1996)년 한웅빈 창작. 농사를 더 잘 지어 어버이수령님께 못다한 농민의 본분을 다해가려는 농장원들의 충정의 마음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의 중심에는 일생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줄창 농사를 했지 하는 한마디밖에 모르는 수수하고 평범한 농민 박령감의 성격이 그려져있다. 60이 지났지만 그는 손에서 농사일을 놓을수 없어 논벌을 떠나지 않는다. 작년에 농장에서 로인분조를 조직하고 분조장을 시켰으나 박령감은 그냥 농장원으로 일하겠다고 하면서 어려운 물관리를 자진해 맡는다. 물관리란 원래 논두렁관리라고 하면서 박령감은 논두렁을 잘 보호하기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한다. 소설은 평생 농사를 지었어도 농사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고 하는 그의 대사와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새롭게 각성하고 분발해서 더 기름지게 땅을 걸구기 위해 애쓰는 박령감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의 충정의 세계와 정신적풍모를 감동깊이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일명 《쑥쑥새》라고 하는 외쏙독이의

울음소리와 결부된 동화적형상으로써 어린 곡식들이 어서 빨리 쑥쑥 자라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어버이수령님을 풍요한 가을에 모시고싶은 강렬한 그리움을 방불한 농촌정경과 밀착시켜 인상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85(1996)년 7호〕

《기다리는 어머니》 단편소설. 주체82(1993)년 로정법 창작. 떠나간 어린 아들을 기다리며 한생을 꿋꿋이 살아온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해방을 맞아 행복한 새살림을 폈던 춘길의 아버지는 안해를 잃자 새 안해를 맞이한다. 아직 어린 춘길은 새 엄마를 데려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리해하지 못하며 친어머니를 잊지 못해 눈물을 흘린다. 1년이 지나 아버지와 새 엄마에게서 귀여운 딸애 춘심이가 태여나고 생활은 더없이 행복하여진다. 춘길의 아버지는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하여 라지오를 타오며 온 가족은 푸른 제방으로 봄맞이를 나가 일생의 추억으로 남을 들놀이를 한다. 미제침략자들이 전쟁의 불을 지르자 춘길의 아버지는 전선으로 나가서 바다에 기뢰를 부설하다가 희생되고 나어린 춘심은 폭격에 잘못된다. 남편과 딸을 잃은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늙어버리며 온갖 사랑을 춘길이에게 쏟아붓는다. 어머니의 요구성을 리해 못한 춘길은 외할머니를 찾아 집을 뛰쳐나간다. 1년을 여기저기로 방황하던 춘길은 애육원을 거쳐 외국으로 떠나며 16살에 귀국하여 대학과정을 마치고 큰 배의 선장이 된다. 조국의 고마움에 눈물짓던 그 무수한 밤들에 춘길은 어머니를 그린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TV화면을 통하여 수많은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거느린 어머니를 찾게 된다. 40년만에 찾은 어머니를 모시고 춘길은 아버지와 함께 들놀이를 나갔던 장소로 나간다. 춘길의 집으로 옮겨온 어머니는 돼지를 기르고 지원장갑도 뜨면서 늘 바다에 나가사는 아들 춘길이를 기다린다. 어머니는 자기가 데려다키른 하나같이 끌끌한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을 대할 때마다 자신의 젊음을 되찾아주시고 한생을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한다. 소설은 제가 낳은 자식뿐아니라 남의 자식들도 친자식처럼 사랑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한생을 아들을 기다리며 살아온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82(1993)년 10호〕

《기다리던 날》 중편소설. 주체41(1952)년 리원우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선천애육원소년근위대원들의 투쟁을 보여준 작품이다. 선천땅에 기여든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선천애육원 원아들의 행복한 생활이 깨여진다. 일찌기 부모를 잃고 해방전에 정처없이 거리를 떠돌아다니던 불쌍한 고아들을 한품에 안아키워주던 원아들의 보금자리가 놈들에 의해 하루아침에 짓밟히자 최영길, 박철관, 김행선 등 원아들은 놈들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해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최선생의 지도밑에 놈들과 싸울 굳은 결의를 안고 소년근위대를 뭇는다. 대장으로 최영길, 부대장으로 오정숙이 선출된다. 그들은 구체적인 투쟁목표와 투쟁방법을 토의하고 곧 적들과 싸움을 벌린다. 그들은 적들이 욱실대는 선천으로 들어가 삐라도 붙이고 적정도 탐지하며 무기고를 폭파하기도 하며 구류된 료하세포위원장을 구출하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선천주둔 적사령부에 대한 유격대의 습격전투를 도우며 놈들이 패주하면서 수도물에 독약을 친 사실을 제때에 알아냄으로써 사람들을 위험속에서 구원한다. 인민군대에 의하여 선천이 해방되던 날 근위대원들은 최선생님과 동무들, 인민군대아저씨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한다. 소설은 선천애육원 원아들의 영웅적투쟁을 통하여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원아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불굴의 투지와 혁명적락관주의,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깊이있게 형상하고

있다. 작품은 서로 다른 성격과 취미를 가진 어린이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개성적특징을 뚜렷이 밝히고있으며 최선생과 거북선할아버지 등 어른들의 형상도 진실하게 창조하였다. 소설은 지난날과 해방후의 행복한 생활에 대한 뚜렷한 대조를 통하여 근위대원들의 애국적투쟁의 생활적기초를 뚜렷이 밝히고있으며 전쟁의 준엄한 현실에 맞게 긴박한 정황을 조성하고 첨예한 갈등을 설정하는 등 일련의 형상적특성을 보여주고있다. 〔민주청년사, 주체45(1956)년판〕

《기둥》 장편소설. 주체86(2007)년 최영조 창작.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키는 믿음직한 총대기둥으로 억세게 준비해가는 인민군군인들의 보람차고 영웅적인 투쟁과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에 의하여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하고 30대의 젊은 나이에 려단장의 중책을 맡은 주인공 최주성이가 처음으로 부대에 왔을 때에는 지휘부와 병실들이 규모있게 꾸려져있고 자체로 발전소를 건설하여 필요한 전기를 보장하고있었으며 머지않아 오중흡7련대칭호쟁취를 위한 예비판정을 받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일부 지휘관들이 훈련계획집행 그자체만으로 부대의 싸움준비완성을 기대한다는것을 느낀 최주성은 훈련내용을 현대전의 요구와 각이한 전투정황에 맞게 부단히 갱신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힌다. 그는 병영이나 번듯하게 꾸리고 고정격식화된 훈련계획이나 집행하며 동작의 기계적인 일치성보장으로만 만족해하는 현상들은 실지 싸움을 구체적으로 예견하지 못한데로부터 오는 형식주의만성화에 기인된다는것을 꿰뚫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 사업으로서 부대가 건설한 발전소언제의 물을 다른데로 빼돌릴수 있는 물길굴을 뚫는 공사에 착수할 결심을 한다. 최주성은 유사시 적들의 폭격에 의해 언제가 파괴되면 채워져있던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언제의 아래에 위치한 중요군사시설물과 기동로의 안전을 담보할수 없게 되리라는것을 간파하고 이미 들인 자재와 로력, 시간이 많지만 방임할수가 없다고, 인민군대의 실리는 오직 적과 싸워이길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절절히 말한다. 오중흡7련대칭호쟁취를 위한 판정날자가 박두한 상태에서 새로운 공사를 벌린다는 것은 힘에 부친 일이기에 일부 사람들은 선뜻 응하지 못하고 또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최주성의 결심은 단호하였다. 그는 부대의 실지 싸움준비와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부대안의 모든 군인들을 항일의 7련대 대원들처럼 투철한 수령관을 지닌 펄펄나는 싸움군으로 원만히 준비시키는데 이 운동의 본질이 있다는 관점에서 끝내 려단을 불러일으켜 훈련과 공사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내민다. 판정을 앞두고 기계화부대를 움직일 유능한 운전수들만이라도 군단에 제기하여 해결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자 최주성은 우리가 경애하는 장군님께 겉으로 도금이나 칠한 기둥을 보여드릴수는 없다고 하면서 병사들을 믿자고, 혁명군대의 위력은 군인들의 높은 사상적각오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품들여 키운 전사들을 대담하게 내세우며 림기응변의 작전전술적방안으로 어려운 정황들을 모두 극복하여 려단이 받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부대가 거둔 훈련판정성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총정치국에서 이미 이 부대의 실태를 료해하였으면 판정에서 합격한것으로 보고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하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말씀하신다. 그러시면서 우리 병사들과 같은 동지들이 있기에 오늘의 시련이 아무리 어렵고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아무리 사나와도 마음 굳건히 어버이수령님의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지켜가는것이 아니겠는가고, 자신께서는 진짜 총대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소설은 이

러한 형상을 통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강적도 쳐부실수 있는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튼튼히 준비해나갈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믿고 내세워주시는 선군혁명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다는 사상을 밝히고 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86(2007)년판〕

《기러기떼 날으네》 가사. 주체81(1992)년 최준경 창작.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그 품에 안기려는 해외동포들의 열렬한 갈망을 서정적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봄노을 피는 하늘가에 줄지어 날아가는 기러기떼를 바라보며 두고온 아름다운 고향산천과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그리는 서정적주인공의 심리정서세계에 대한 생동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안고사는 해외동포들의 남다른 생활체험을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3절에서 진정한 삶과 행복의 요람인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기어이 안기려는 서정적주인공의 굳은 의지와 간절한 열망을 한층 고조된 정서로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이러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꽃피워주시는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민족의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이며 그 품을 떠나서는 참다운 행복을 누릴수 없다는 사상, 조국과 개인의 운명은 절대로 분리될수 없다는 심오한 사상을 깊이있게 천명하고있다. 가사의 심오한 사상적내용은 기러기가 아무리 멀리 날아갔다가도 봄이 오면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자기가 나서자란 보금자리로 어김없이 찾아가는 자연현상에 대한 문학적 탐구와 이국땅에서 조국을 그리는 해외동포들의 절절한 생활감정에 대한 진지한 시적체험에 기초하여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표현되고있다. 특히 가사에서 《서로 다정히 찾고 부르며 나의 마음도 싣고서 가네》라는 구절과 《끼르륵 끼르륵 가네》라는 구절은 타향만리에 외기러기마냥 홀로 떨어져 있는 서정적주인공의 애절한 모습을 눈앞에 보는듯이 방불하게 그려보게 하며 작품의 사상정서적내용이 강한 여운을 가지고 인상적으로 안겨오도록 하고있다. 〔《조선가요 20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기름통》 단편소설. 주체49(1960)년 김혜종 창작. 연유를 절약하기 위해 애쓰는 한 녀성공급원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공구실에서 기계기름을 내주는 일을 하고있는 병녀는 구멍이 난 통을 들고와 빨리 기름을 담아달라고 독촉하는 절단공 홍택에게 안된다고 잡아뗀다. 그러자 홍택은 기름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고 못마땅해하면서 돌아간다. 그가 놓고간 기름통을 어떻게 수리할것인가를 생각하던 병녀는 골탄칠을 하면 인차 녹을수 있기때문에 납땜하는것이 좋으리라 타산한다. 그는 아이한테 젖을 먹여야 하는 점심시간에 서투른 솜씨로 구멍난 곳을 납땜하느라고 작업복을 땀으로 적신다. 한편 같은 시간에 새 기름통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기대곁으로 간 홍택은 뜻밖에도 공구실에 내버린 낡은 기름통이 손질되여있는것을 보고 놀란다. 함께 일하는 룡훈을 통해 사연을 알게 된 홍택은 기름 귀한 줄 모르고 아껴쓰지 않던 자신을 깊이 자책하면서 병녀에게로 달려간다. 소설은 주인공 병녀의 형상을 통하여 나라의 살림살이를 깐지게 하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고있는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풍모를 보여주고 있다. 〔《문학신문》, 주체49(1960)년 제52호〕

《기뢰부설조원들》 중편소설. 주체69(1980)년 정충호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기뢰공격전으로 적함을 까부신 인민군해병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적구상에 따라 적들의 《하기공세》를 짓부시기 위한 대책이 취해지고있던 어느날 기뢰부설조의 조장 라경은 기뢰부설을 앞당길데 대한 명령을 받는다. 그는 지체없이 조원들과 함께 밤에 바다

로 은밀히 나가 기뢰를 부설한다. 이 전투에서 한 신대원이 실수하여 안전핀이 뽑혀지지 않은채로 기뢰가 부설될번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라경은 구대원들이 신대원들을 실속있게 도와주도록 한다. 이때 적함선집단의 기함인《기린》호를 까부실데 대한 새로운 명령이 하달된다. 라경과 그의 조원들은 포사격과 기뢰그물에 좀처럼 걸려들지 않는 이배를 까부시기 위해 기뢰를 안고 맞받아나갈 대담한 결심을 다진다. 피할데도 없는 바다가운데서 발견만 되면 전멸될수 있는 위험한 길이였지만 그들은 기어이 명령을 수행할 각오밑에 적의 시선을 유도할 위장목선을 여러척 만들어가지고 밤에 바다로 나간다. 적함선들이 집결되여있는 곳으로 은밀히 접근한 그들은《기린》호가 기동하는 길목에 기뢰를 부설한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발견되여 치렬한 전투를 벌린다. 이 싸움에서 라경과 그의 조원들은 위험이 조성되자 한몸바쳐 유인하고 적함에 육탄으로 돌입하여 용감히 싸운다. 전투에서 많은 희생이 나지만 그들은 새벽에 작전을 지휘하며 기동하던 《기린》호를 기뢰로 까부시는데 성공한다. 라경과 그의 조원들은 기관선도 침몰되고 한척 남았던 목선마저 풍랑에 뒤집혀 바다에 표류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부상당하고 지친 몸들이지만 뜨거운 동지애를 발휘하고 서로 고무하면서 파도를 헤쳐나간다. 그들의 전투소식을 들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구조선을 보내주신다. 하여 그들은 구조선을 타고 기지에 도착한다. 소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위해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인민군대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영웅적위훈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69(1980)년판〕

《기발》 단편소설. 주체45(1956)년 송정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부상을 당하여 적후에 떨어졌지만 피신하지 않고 적들을 찾아가 족치는 인민군정찰병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창호는 상수와 함께 아군의 작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후정찰을 끝내고 돌아오다가 미국놈들과 맞다들게 된다.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창호는 정찰자료를 제시간에 대대에 보고하기 위해 상수를 보내고나서 마지막까지 싸울 결심을 안고 적진을 향해 기여간다. 그러다가 상처에서 흐른 피에 붉게 물든 백포를 보고 공화국의 기발아래 행복하게 살던 지난날을 그려본다. 그 생각이 원쑤에 대한 적개심으로 번져진 창호는 백포를 기발처럼 보이도록 한 다음 적의 포진지까지 접근한다. 아군의 포사격에 얻어맞아 갈팡질팡하던 놈들은 사격이 멎자 포를 쏘려고 준비한다. 이것을 본 창호는 자기가 만든 기발을 옆에 꽂고 자동총으로 놈들을 사정없이 족친다. 기발을 본 놈들은 고지가 점령된 줄 알고 황급히 도망친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마음속에 붉은기를 안고사는 전사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으며 싸워서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잡지, 주체45(1956)년 4호〕

《기발》 단편소설. 주체75(1986)년 송병준 창작. 남조선의 어느 섬마을 교원이 학생들의 가슴속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동경심과 통일의지를 심어주는 내용을 그린 작품이다. 어느날 학생들을 데리고 바다가에 나간 섬마을 교원인 해옥은 섬에서 지척인 공화국북반부의 조구나루를 향해서 가는 배를 그린다. 그 그림을 보고 북녘땅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해옥은 공화국북반부아이들처럼 근심걱정없이 살수 있는 날은 미국놈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자주와 민주의 새 제도를 세우는 날이라고 말해준다. 같은 학교교원인 송희는 해옥이에게 지금 하는 일이 《안기부》요원놈에게 알려지면 큰 해를 입는다고 하면서 그런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고 설복하지만 그는 지조를 굽히지 않는다. 그리하여 송희는 해옥이와 다투고 섬마을을 떠

난다. 그후 해옥은 학생들이 공화국북반부에 쓴 편지가 《안기부》요원놈에게 발각되자 자기가 시킨 일이라고 학생들을 막아나서며 체포되여 물으로 호송된다. 해옥은 비관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남긴다. 소설은 재미교포로서 조국을 방문한 송희의 회상을 통해 이런 내용을 전개하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동경심과 통일의지는 그 무엇으로써도 막아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5(1986)년 11호〕

《기수》 단편소설. 주체70(1981)년 박효준 창작. 청년대학생들의 뒤를 따라 남조선파쑈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는 한 의사부부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4.19인민봉기 당시 청년대학생으로서 리승만독재정권타도에 나섰던 송성호와 그의 안해 진옥은 그후 병원을 차려놓고 편안히 지낸다. 그런데 오늘에는 그들의 아들과 딸이 열혈대학생으로서 전두환독재타도를 부르짖으며 거리에 달려나가 싸운다. 그들을 보면서 성호는 어제날 싸우지 못한 자신을 두고 량심상가책을 받는데 그치며 진옥은 그때 당한 희생을 두려워하면서 자식들이 투쟁에 나서는것을 막아나선다. 성호부부는 청년대학생들이 투쟁에 시민들이 합류해나설것을 바랄 때에도 선뜻 나서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날 아들이 기발을 날리면서 투쟁을 이끌다가 총탄에 맞아 희생된다. 그제서야 성호와 진옥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피를 흘려야 하며 이 비극을 가시기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하고 전체 인민이 떨쳐나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것을 절감한다. 하여 그들은 아들이 들었던 기발을 틀어잡고 바리케트우에 올라 어제날의 4.19인민봉기와 6.3시위의 참가자들인 시민들을 항쟁에로 불러일으킨다. 소설에서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어제날의 항쟁투사들이 기수가 되고 전체 인민이 뭉쳐 싸워 반드시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0(1981)년 9호〕

《기슭》 단편소설. 주체81(1992)년 박윤 창작. 무장장비보다 사람을 더욱 중시하시며 높으신 덕망과 뜨거운 인간애로 인민군전사들을 한품에 안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풍모를 보여준 작품이다. 리성림은 바다가 외진 섬초소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싸우다 희생된 아버지처럼 최고사령부를 보위하는 부대로 가려고 한다. 때문에 그는 자기를 찾아왔던 안해도 다시 평양으로 올려보낸다. 이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그가 선 초소를 찾아주신다. 그이께서는 현대적인 무장장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것을 다루는 전사들의 사상정신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며 그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료해하신다. 그이께서는 리성림에 대해 보고받으시고 평양을 지키는 친위병이 되겠다는 각오는 좋지만 이 초소는 평양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초소라고 하시며 우리 인민군용사들이 자기가 맡은 하늘, 땅, 바다의 모든 초소를 목숨으로 지킬 때 조국은 금성철벽으로 될것이라는 가르치심을 주신다. 자기의 편협한 생각을 뉘우친 성림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별, 당중앙의 친위병이 되여 바다가초소를 끝까지 지킬 맹세를 다진다. 소설은 조국을 지키는 초소에는 기슭이 있어도 전사들의 심장속에는 기슭이 없다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81(1992)년 제17호〕

《기적소리》 단편소설. 주체53(1964)년 리호인 창작. 지난날 나라없는탓으로 이국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던 우리 인민의 민족적설음과 비참한 운명을 보여준 작품이다. 사회주의조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시나가와역을 떠나는 렬차에 몸을 실은 필권은 지난날 이 시나가와역에서부터 시작된 피눈물나는 이국생활을 더듬어본다. 일제와 지주놈

의 2중, 3중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으로 살래야 살수가 없어 고향을 떠나 일본의 시나가와역에 내린 필권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돌아다니다가 어느 철도부설공사장에 겨우 들어가게 된다. 필권은 한가닥 희망을 안고 안해와 함께 등뼈가 휘도록 일을 하였으나 조선사람이라는것으로 하여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고 소와 같이 혹사당하면서도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더우기 이국땅에서 고향을 그리며 무참하게 희생되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필권은 죽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다. 이러한 때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자 일제놈들은 마치도 조선사람들에 의하여 재난이 일어난것처럼 떠들어대며 숱한 조선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한다. 필권이도 이 란리판에 사랑하는 안해와 딸을 잃는다. 살길을 찾아 이국땅에 왔다가 안해와 딸을 잃게 된 그는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일제놈들과 싸울 결심을 가지게 된다. 작품은 해방전 일본땅에서 겪은 조선사람들의 불행과 고통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생동하게 보여주면서 인간의 참된 삶은 오직 조국의 품에서만 꽃펴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53(1964)년 7호〕

《기적소리》 단편소설. 주체54(1965)년 한경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철길대에 혼자 남아 목숨바쳐 임무를 수행하는 한 탄수부의 영웅적인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후퇴명령을 받게 된 주인공 달수는 가족을 먼저 후퇴시키고 홀로 철길대에 남는다. 자기 직무에 충실한 그는 아들이 몰다가 희생된 185호 마지막기관차를 통과시키고 적들이 탄 철길차가 철길에 다가오는 순간 전철기를 폭파하여 놈들을 하늘로 날려보낸다. 자기의 지나온 생활과 정다웁게 련결된 급수탑까지 폭파한 그는 적들에게 한 방울의 물도 주지 않기 위해 수문을 열어 물원천마저 없애버리려다가 원쑤들의 흉탄에 맞아 쓰러진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속에서도 그는 백암령쪽에서 울려오는 우리 기차의 기적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소설은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철길을 지켜싸운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시수송을 보장하기 위해 떨쳐나선 철도로동계급의 영웅적위훈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4(1965)년 8호〕

《기적소리》 단편소설. 주체55(1966)년 림재성 창작.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을 지니고 규정대로 수송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 화물원을 그린 작품이다. 렬차가 금방 떠나려 하는 역구내에서 자재인수원과 화물원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진다. 자재인수원이 실으려 하는 짐이 제대로 포장되여있지 않은것을 보고 화물원은 렬차에 그 짐을 실을수 없다고 딱 잡아떼며 자재인수원은 분기공장계획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부속들이라 하면서 이번만은 눈을 감아달라고 사정한다. 그래도 소용이 없게 되자 역장한테로 간다. 역장 역시 포장을 다시 하지 않으면 짐을 실을수 없다고 해설하는 사이에 기차는 떠나려고 기적소리를 울린다. 급해맞은 자재인수원이 화물역구내로 달려가보니 기차는 떠나고 짐도 화물원도 없었다. 그때 한 처녀역원이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짐을 그대로 보낼수 없어 화물원이 직접 렬차를 타고갔다고 알려준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재인수원은 철도규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화물원을 고깝게 생각한 자신의 그릇된 사고와 행동에 대하여 돌이켜보며 커다란 자책감에 휩싸인다. 소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규정과 규범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자기 맡은 일을 착실하고 주인답게 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5(1966)년 제39호〕

《기적소리》 단편소설. 주체71(1982)년 강복례 창작. 렬차길에서 만난 한 소녀를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풍모를 형상한 작품이다. 조국이 해방된 해 12월 화물렬차를 타시고 청진에서 평양으로 오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느날 차창밖으로 얼음구멍에서 빨래를 하며 울고있는 한 소녀를 보게 되신다. 차에서 내려 그를 만나보신 그이께서는 금복이라는 그 소녀가 고향에서 이곳으로 팔려와 지주집에서 종살이를 하고있다는것을 아신다. 어머님께서는 그의 빨래도 해주시고 그를 렬차에 태워 고향으로 데리고 가신다. 차안에서 녀대원들이 입던 옷가지들을 뜯어 새 치마저고리를 만드신 어머님께서는 렬차가 그의 고향에 멎어서자 금복이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고 함께 내리신다. 하여 금복은 그립던 어머니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며 모여든 사람들은 김정숙어머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으면서 감격해한다. 소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불멸의 영상》,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기적소리》 중편소설. 주체73(1984)년 김길환 창작.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기관차의 견인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철도운수부문 일군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주인공 창국은 전기기관차의 견인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동공회전방지기를 만들려고 기관사 장병도, 애인인 무선기수리공 정심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투쟁한다. 처음에는 그들의 창안이 성공할것 같았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공명심에 사로잡힌 장병도는 난관앞에 무릎을 꿇고 달천기관차대로 떠나간다. 정심이도 실패가 련속되자 동요하면서 자동공회전방지기창안을 포기하고 다른것을 창안할것을 권고한다. 그러던 어느날 창국은 뜻밖에도 달천기관차대로 조동되게 된다. 그는 그곳에 가서도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책임기관사 채성운의 방조를 받아가며 창안을 계속한다. 그러나 공명심에 들뜬 장병도와 눈앞의 수송문제만 생각하는 정심의 아버지인 운전사령지휘원은 그의 창안에 대하여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게다가 정심이까지 창국이를 리해하지 못하고 창안에서 물러서며 이것으로 하여 그들의 애정관계에는 금이 간다. 창국에게 있어서 이 모든것은 참기 어려운 시련이였으나 그는 이것을 강의한 의지로 이겨내면서 밤낮으로 투쟁하여 실패의 원인을 끝내 찾아내고야만다. 그러던 어느날 정심은 창국이가 뜻밖에도 손에 화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천으로 간다. 그는 아버지와 채성운의 말을 통하여 창국이가 어떻게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고 창안에 성공하였는가를 알게 되며 창국이처럼 주체시대의 청년답게 살지 못한 자신을 심각히 뉘우치게 된다. 그는 자신을 현실속에서 더욱 단련하기 위하여 북부철길건설장으로 달려나가 청년돌격대원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리창국은 창안에만 몰두하면서 정심이의 사랑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을 깊이 돌이켜보게 된다. 그들의 사랑은 그후 당의 방침을 관철해나가는 성스러운 길에서 다시금 활짝 피여나게 된다. 장병도 역시 당에 대한 창국의 성실성앞에 깊이 감동되여 자신의 공명심을 버리고 참된 삶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소설은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갈 때 우리 시대 참다운 인간으로 될수 있으며 청춘의 희망도 꽃피우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도 찾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3(1984)년판〕

《기적소리는 사라졌다》 단편소설. 주체73(1984)년 김명회 창작. 쇠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로동계급의 건강이 념려되시여 료양소를 더 잘 꾸리고 그 관리운영을 잘해나가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육친적사랑을 형상한 작품이다. 삼지연대기념비공사전반을 돌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렴홍진이 지

배인으로 일하는 은곡광산의 생산실태도 료해하시고 이곳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신다. 그이께서는 광산로동계급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고 렴홍진의 건강이 념려되시여 그가 금곡온천에 가서 휴식하도록 은정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신다. 그러시고는 생산이 지금보다 떨어지면 료양소에 가있는 지배인이 밥을 먹어도 내려가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광산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금곡온천을 찾으시여 렴홍진의 건강상태를 알아보시면서 렬차의 소란한 기적소리가 료양소의 안정을 깨뜨리니 철길을 다른쪽으로 돌리도록 사랑어린 조치도 취해주신다. 작품에서는 로동계급의 건강과 생활조건을 위하여 뜨거운 사랑을 베푸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간사랑의 세계가 렴홍진의 내면세계와 체험세계에 대한 묘사와 밀접히 결부되여 깊이있게 그려지고있다. 〔단편소설집《향도의 태양》, 문예출판사, 주체73(1984)년판〕

《기적은 울린다》 단편소설. 주체43(1954)년 리태하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렬차수송을 보장하기 위한 선로원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선로반장 김영호는 보선구로부터 적기의 폭격에 파괴된 로반을 급히 복구하여 군수렬차를 통과시킬데 대한 임무를 받는다. 선원들을 데리고 현장에 도착한 그는 당원인 한길이와 함께 로반우에 떨어진 시한탄을 해체하고나서 작업에 착수한다. 이때 또다시 적기가 달려들자 반원들과 함께 은폐호에 대피한 영호는 고지에서 싸우는 인민군전사들을 생각하며 돌격대를 무어 일할것을 제기한다. 영호의 호소에 따라 반원들이 비발치는 탄우속에서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해안으로 기여든 적함에서 쏘는 포탄까지 날아온다. 적들은 인민군해안포병들에 의하여 함선이 침몰당하자 소해정을 침입시킨다. 소해정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작업을 계속할수 없다는것을 간파한 영호는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물속에 뛰여들어가 수류탄으로 배에 있는 놈들을 소멸한다.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고 돌아온 영호는 한길을 비롯한 작업반원들이 좀 쉬라고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고 작업을 지휘하여 끝내 렬차를 통과시킨다. 작품은 희생적인 투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주인공과 반원들의 형상을 통하여 전쟁승리에는 철도로동계급의 빛나는 위훈도 깃들어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43(1954)년 1호〕

《기차는 정시로 간다》 단편소설. 주체83(1994)년 정기종 창작. 영예군인으로서 한생을 철길관리에 바친 전쟁로병에게 돌려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감동깊게 보여준 작품이다. 철길관리원 차일문은 건강도 나쁘고 나이도 많아 철길관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허전함을 금치 못해한다. 전쟁시기 입은 중상으로 갓 스물을 넘긴 나이에 제대되여 철길관리원이 된 차일문은 어느날 운봉역구내에서 철길수리를 하던중 뜻밖에도 이곳을 현지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닌다. 그이께서는 차일문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후 전쟁시기에는 전시수송을 보장하였고 오늘은 또 나라의 동맥을 지켜가고있다고 높이 평가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평가의 말씀을 받아안은 그는 맡은 철길관리를 더 잘해가리라 결의다진다. 그는 철길관리를 하면서 주변에 기름가마까지 걸어놓고 수많은 침목을 자체로 해결한다. 차일문에게 나이가 많다고 년로보장수속을 하게 한 철도관리국 부국장과 운봉역장은 그가 마련한 침목감을 모두 실어간다. 이 소식을 들은 차일문은 관리국으로 올라가며 그곳에서 교통운수부문 협의회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또다시 만나뵙게 된다. 그이께서는 20여년전에 만나보셨던 그의 이름까지 기억해주신다. 그이께서는 침목만드는 일만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그의 청을 들으시고

자신께서는 오늘 한생 변함없이 당을 받들어 온 그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난다고 하시며 큰 고무를 받았다고 말씀하신다. 그이께서는 부국장에게 이 세상 재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저 훌륭한 당원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로병들을 존경하고 아낄줄 알아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신다. 전승 40돐을 맞으며 차일문이 삼가 올린 편지를 받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다시금 회고하시면서 전국로병대회를 열어 로병들을 다 참가시킬데 대하여 가르치시고 친히 차일문에게 감사를 보내주신다. 소설은 전쟁로병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며 그들이 변함없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고매한 덕성을 숭고한 높이에서 형상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3(1994)년 6호〕

《기총맞은 난로》 동요. 주체40(1951)년 김신복 창작.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학교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한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 만행을 폭로단죄한 작품이다. 동요는 서정적주인공인 어린 학생들이 따스한 난로가 그리워 불타버린 학교에 가보았더니 돌무더기 사이에 딩구는 난로에 기총탄구멍이 다섯방이나 뚫어졌다고 하면서 기총맞은 난로를 두고 느끼는 적에 대한 불타는 증오를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있다.

학습하고 돌아온 우리들은요
기총맞은 난로를 종이에 그려
원쑤들을 이렇게 복수하라고
싸우는 형님들께 편지했어요

동요는 불타버린 학교와 놈들의 기총사격으로 파괴된 난로에 시적계기를 집중시키면서 놈들을 족칠 불타는 지향을 격조높이 시화하고있다. 어린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소박하고 동심적인 편지형식을 통해 그들의 내면심리세계를 개방한 작품은 기발한 착상과 동심적소재선택으로 이채를 띤다. 〔조선아동문학문고6 《해바라기》,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0(1981)년판〕

《기타를 들고온 청년》 단편소설. 주체73(1984)년 김동호 창작. 서해갑문건설에서 발휘한 우리 시대 청년들의 영웅적인 삶과 위훈을 보여준 작품이다. 대상설계과업을 받고 서해갑문건설장에서 부재설계에 전념하던 북부지구 ㄷ설계사업소 처녀설계가 강봄은 저녁마다 울려오는 서툰 기타소리를 들으며 이 거창한 대건설장에는 기타소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기타를 타는 사람은 들떠있는 청년일것이라고 단정해버린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는 김주먹이라는 제대군인 청년건설자로서 봄이가 여기로 오던 날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였다. ㅂ형부재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있는 주먹은 현장에 나가 설계를 더 합리적으로 완성하도록 강봄을 진심으로 도와준다. 그는 또한 대상설계를 끝내고 연구소로 돌아가는 봄이에게 갑문건설에 청춘의 열정을 다 바칠 자기의 결의를 터놓는다. 여기서 큰 충격을 받은 강봄은 건설장으로 되돌아온다. 그후 가물막이공사에 필요한 대형철배를 ㅍ항에서 수십리 떨어진 끝살부리에 끌어가는 전투가 벌어졌을 때 주먹은 기타로 《결전의 길로》를 타면서 전투원들을 고무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대형끌배를 뭍에 고정시킨다. 지칠줄 모르는 투지와 랑만에 넘친 주먹의 장한 모습은 강봄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소설은 주먹의 형상을 통하여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헌신적인 투쟁속에 청춘의 값높은 위훈이 있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3(1984)년 7호〕

《기뻐하노라》 서정시. 주체43(1954)년 김철 창작. 전후 농촌에서 새 생명의 탄생을 기쁨에 넘쳐 맞이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생활감정을 협동화의 한길로 내닫는 사회주의농촌의 밝은 미래에 대한 례찬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이른봄날 일차비를 서두르는

농촌마을에 아침대기를 흔들며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울리며 이어《아들을 낳았다.》라는 기쁨에 찬 웨침이 들려온다. 서정적주인공은 농촌마을의 경사에 넘치는 기쁨을 토로하면서 그것을 사회주의농촌의 빛나는 미래를 약속하는 뜻깊은 사연으로 감수한다. 시는 사회주의농촌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례찬의 열정을 생활적인것과 정서적인것, 랑만적인것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품위있게 개방하였으며 송축적인 음조와 류창한 운률로 감명깊게 표현하고있다. 〔김철시집 《어머니》, 문예출판사, 주체78(1989)년판〕

《기쁨》 단편소설. 주체50(1961)년 리동섭 창작.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나날에 몰라보게 성장한 동무를 보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한 선반공의 풍모를 그린 작품이다. 소설은 주인공 림춘화가 다른 작업반과 한날한시에 천리마작업반을 궐기하여 함께 타게 되자 자기와 경쟁을 하던 그 작업반의 황장우에 대하여 회상하는 형식으로 씌여져있다. 춘화는 천리마작업반을 궐기했을 때 황장우가 속한 작업반은 물론 그와도 경쟁자가 된다. 어느날 춘화는 황장우가 일하는 곳에 갔다가 로동시간에 잡담하고있는것을 보고와서 이미 그가 락후하다는 소리를 들었던지라 그런 사람과 경쟁을 하도록 한 작업반장을 고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뒤미처 다같이 천리마기수가 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를 도와주리라 마음먹는다. 이튿날부터 춘화는 황장우가 모르게 바이트를 선반우에 놓아주고 기대청소도 해주며 가정에서 제기되는 일도 도와준다. 그때부터 황장우는 열성껏 일하여 천리마작업반을 수여받게 될 즈음에 와서는 경쟁에서 춘화를 이긴다. 그날 춘화는 기뻐서 눈물을 흘린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천리마기수들이 느끼게 되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생동하게 일반화함으로써 동지적협조와 단결이 강화되던 천리마시대의 현실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0(1961)년 제7호〕

《기쁨》 단편소설. 주체65(1976)년 정성훈 창작. 언제나 우리 농민들을 위해 마음쓰시는 어버이수령님께 한생 충정다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는 한 처녀3대혁명소조원을 형상한 작품이다. 처녀소조원 김은희가 월봉협동농장에 파견되여온지는 2년밖에 되지 않으나 많은 일을 하고 전국농업대회에까지 참가한다. 주인공이 농업대회에 참가하기까지에는 남모르는 고충을 겪어야 하였다. 그는 농장에 파견되여온 첫해에 새 벼품종인 ㄹ—ㅂ종을 심는 문제와 모내는기계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농장의 기사장인 윤명섭과 의견이 대립된다. 소조원은 당의 요구대로 새로 만든 기계로 모를 내며 새 벼품종인 ㄹ—ㅂ종을 심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기사장은 반신반의하면서 종전대로 손으로 모를 내며 수확고는 높지 않으나 파악이 있는 ㄹ—ㅅ종을 심어야 한다고 고집한다. 소조원은 이러한 기사장에게 2년전 농업과학원의 한 실습포전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왔던 감격적인 일을 이야기해준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ㄹ—ㅂ종시험포전에서 자래운 벼를 보아주시고 생육조건과 결실이 좋은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모내는기계로 농사를 지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소조원의 말은 기사장으로 하여금 자기가 걸어온 생활을 비판적으로 돌이켜보게 한다. 작품은 소조원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 농민들, 농촌청년들의 기쁨은 어버이수령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5(1976)년 3호〕

《기쁨》 단편소설. 주체73(1984)년 전홍식 창작. 산골학교의 한 녀교원을 만나시여 학생들을 향토애와 조국애를 지닌 훌륭한 역군으로 키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끝까지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매한 풍모를 그린 작품이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깊은 밤에 로상에서 만난 풍덕

마을의 은실교원을 차에 태워주신다. 이 고마운분이 누구이신지 아직 알수 없었던 은실은 아무리 애써도 학생들이 공부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고있는 안타까움을 실토하며 이 밤도 외삼촌네 집에 가있는 효동학생을 데리러 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한다. 그를 집에까지 태워다 주신 그이께서는 그길로 한 일군을 보내시여 효동이를 데려오도록 하신다. 이때에야 비로소 은실은 그 고마우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는것을 알고 감격을 금치 못해한다. 그후 어느날 풍덕마을의 학교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은실이가 만들고 가꾼 교편물과 교재림을 보아주시면서 학생들이 자기 고향을 잘 알아야 향토애를 가질수 있고 나아가서 조국을 사랑할수 있다는것을 강조하시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에서 기본은 여기에 두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신다. 그제서야 눈앞이 탁 트인 은실은 그이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은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해 혁명의 미래를 가꾸어나가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스승이시라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봄빛》, 문예출판사, 주체74(1985)년판〕

《기쁨》 단편소설. 주체74(1985)년 김수범 창작. 혁명투쟁에 자식들모두를 바친 한 어머니에게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매한 덕성을 그린 작품이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전국림업부문 열성자회의에서 한 마동희천리마작업반장의 토론내용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길로 장길부어머니를 찾아가시여 마동희동지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위험에 처한 림철기관차를 살려낸 천리마작업반장의 투쟁이야기를 들려주신다. 그러시고는 비록 마동희동지를 비롯한 자식들이 혁명투쟁에서 다 희생되였지만 그들의 혁명정신은 오늘도 살아있으며 그것을 본받아 혁명적으로 일해나가는 마동희천리마작업반의 모든 성원들이 다 어머니의 자식들이라고 하시면서 한번 시간을 내여 그들을 만나보도록 하신다. 그이의 간곡한 말씀을 받아안고 마동희천리마작업반을 찾아간 장길부어머니는 한달동안 작업반에 있으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웅심깊은 사랑과 은덕을 절감하며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해한다. 그후 10년세월이 지난 어느날 혁명렬사릉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마동희동지와 그의 어머니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이들 모자를 함께 안치하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우리는 그들의 념원을 꽃피우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신다. 소설은 어버이수령님을 따라 조국해방을 위한 성전에 나섰다가 희생된 혁명전사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삶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과 은정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전환》, 문예출판사, 주체74(1985)년판〕

《기쁨》 단편소설. 주체82(1993)년 탁숙본 창작.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생산을 한계단 높이 올려세워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드릴것을 결심하시고 사색도 지혜도 열정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고매한 덕성을 형상한 작품이다.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을 두만강역에서 바래워드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현정묵에게 한평생 휴식을 모르시는 수령님께서 어떻게 쉬시겠는가고 하시며 이번에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생산을 한계단 높이 올려세워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수령님께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드릴것을 결심했다고 말씀하신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철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김철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고 하시며 김철로 떠나신다. 그이께서는 김철과 화력발전소, 무산광산, 룡성기계공장에 들리시여 정

력적인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걸린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신다. 현지지도를 마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현정묵을 부르시여 어버이수령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잘 해결하여 그이께 최대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것이 자신의 평생의 의무이고 우리 당의 최대의 념원이라는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체류하시는 나라에 가서 경제성과를 보고드리라고 그를 떠나보내신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받드는 일군들의 자세와 립장에 대하여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2(1993)년 10호〕

《기쁨많은 시절》 단편소설. 주체80(1991)년 김수범 창작. 어버이수령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광산로동계급을 위해 참된 복무정신을 안고살며 투쟁하는 한 판매원처녀의 행복과 긍지, 기쁨과 랑만을 보여준 작품이다. 23살난 판매원 영화는 사람들에게 상품만이 아니라 기쁨과 웃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상점을 찾는 로동자들을 기쁘게 대할뿐아니라 40리가 넘는 탐사대마을로 이동봉사를 나가군 한다. 영화는 어슬녘 탐사대마을로 가는 길에 무서움을 무릅쓰고 망일령을 넘게 된다. 이때 한 제대군인 총각이 나타나 그를 도와준다. 박동석이라고 부르는 제대군인착암공은 영화의 고운 마음씨와 정열에 반하여 그에게 마음을 둔다. 영화 역시 광산막장으로 이동봉사를 갈 때마다 동석의 위훈에 대하여 쓴 속보를 보고 그 청년의 일솜씨에 감탄한다. 광산에서 선참으로 년간계획을 180%로 넘쳐수행하고 당중앙위원회의 감사를 받던 날 박동석은 영화네 집에 찾아가 청혼을 한다. 소설은 고마운 우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민을 위한 삶과 투쟁은 곧 기쁨과 노래,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되여있음을 생활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0(1991)년 8호〕

《기쁨의 노래안고 함께 가리라》 가사. 주체67(1978)년 전동우 창작. 조선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에서 나오는 노래이다. 적후의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혁명동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자기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조국이 준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는 녀주인공의 고결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거치른 들길우에 피여나 남모르게 향기를 풍기는 꽃송이와도 같이 걸음마다 위험이 뒤따르는 어려운 적후투쟁의 길에서 청춘도 사랑도 묵묵히 조국을 위해 바쳐가는 이름없는 전사의 고결한 모습과 숭고한 내면세계를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승리의 그날 사랑하는 전우와 함께 기쁨의 노래를 안고 그리운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녀주인공의 아름다운 꿈과 필승의 신념을 절절히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적절한 형상적비유와 깊이있는 서정으로 준엄한 적후투쟁에서 발휘한 이름없는 영웅전사들의 고결하고 희생적인 투쟁정신을 감동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영화노래 11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2(1993)년판〕

《기쁨의 담시》 담시. 주체50(1961)년 최승칠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낚시터에서 한 로인을 만나시여 그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감동적인 화폭을 통하여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형상한 작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아침처럼 봄처럼 환하게 미소하시며》낚시터에 오시여 로인에게 고기가 많은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다정히 물으시고 로인이 학교리발사라고 말씀드리자 장한 일을 말았다고 치하해주신다. 지금까지 자기의 직업을 천하게 생각하던 로인은 《세상엔 오만가지 직업이 있어 사람마다 제일을 자랑하지만 어림없어, 리발사가 상 으뜸이지!》라고 자랑높이 웨친다. 시는 담시의 특성을 살려 평범하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극적으로 심화시키고 의의

있는 대화와 깊은 뜻이 담겨진 결구를 옳게 배합함으로써 사상적내용을 형상적으로 뚜렷이 부각시키는데서 새로운 탐구를 보여주고있다. 〔최승칠시집《빛나는 모습들》, 문예출판사, 주체60(1971)년판〕

《기약》 단편소설. 주체51(1962)년 김북향 창작.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자신을 부단히 단련해나가며 한 당원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당일군의 헌신적노력을 보여준 작품이다. 당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천리마기수로 성장한 한 대표의 토론을 듣고 그를 통하여 자기 공장에서 자주 결함을 범하고있는 최경환이가 전쟁시기 그와 함께 한소대에서 싸웠으며 그들은 소대전원이 화선입당을 한 후 언제나 당원답게 살며 일하여 부끄럽지 않게 만나기로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ㅊ세멘트공장 당위원장 형일은 너무도 차이나는 두 전우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사업을 심각히 돌이켜본다. 공장으로 돌아온 그는 경환이를 만나 전우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당원의 영예를 빛내가는 그의 옛 전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공장당위원회를 소집하여 주관적지향대로만 행동하면서 일터를 자주 옮기는 경환의 참을성없는 행동을 심중히 검토하고 옳은 길로 이끌어주기 위한 구체적대책을 세운다. 당위원회의 뜨거운 진정과 따뜻한 충고속에서 경환은 자신을 뉘우치고 화선에서 다진 전우들과의 맹세를 지켜 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우에 기어이 승리의 기발을 날릴것을 결심한다. 소설은 한 당원, 한 인간의 생활과 성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시대와 함께 전진해가도록 따뜻이 이끌어주는 천리마시대 당일군의 숭고한 정신적풍모를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1(1962)년 1호〕

《긴급수송이 끝난 뒤》 단편소설. 주체76(1987)년 정해경 창작. 시대의 벅찬 숨결을 안은 사랑의 힘은 아무리 어려운 곤난도 극복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탄광기계공장의 기술부기사장 최관준은 새해를 며칠 앞두고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 쌍원통식종합채탄기에 필요한 대형전동기를 싣고 떠난 먼거리수송사업소 차가 600리밖에서 고장났다는 전보를 보내온것이다. 마지막조립을 보장하자면 자동차가 고속으로 와도 긴장하였다. 이때 91호대형화물자동차운전사 서영선이 자진해나선다. 그는 사람들속에서 봄바람에 붕 떠다니는 사람으로 불리우며 또 사고까지 낸적이 있었으나 관준은 그를 믿고 함께 떠난다. 관준은 도중식사며 령길에서 미끄러질 때 필요되는 석탄재며 고입목등을 착실히 준비하고 아슬아슬한 고비를 겪을 때마다 능숙하게 차를 모는 영선을 보며 그에 대한 인식을 달리한다. 거기에는 1 000여리를 무사히 다녀올수 있도록 도와준 영선의 애인 호심의 고심어린 노력과 영선의 새로운 각오가 안받침되여있었던것이다. 소설은 최관준의 시점을 통하여 기술적타산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다던 긴급수송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은것은 서영선과 강호심의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과 뜨거운 동지적사랑에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6(1987)년 4호〕

《긴등벌》 단편소설. 주체77(1988)년 김삼복 창작. 긴등벌의 한 뜨락또르운전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주체53(1964)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전국모범뜨락또르운전수대회에 참가한 주인공 최동익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영광의 자리에서 토론을 하게 된다. 4년전 뜨락또르운전수양성소를 졸업한 동익은 현동에 배치받아 긴등벌에서 첫날부터 성실히 일하는 한편 뜨락또르로 수렁논을 갈고 토지를 정리할 대담한 계획을 세운다. 그는 관리위원장과 교대운전수인 창원의 반대로 애로와 난관을 겪지만 주저앉지 않는다. 동익은 뜨락또르의 물바퀴를 개조하여 끝내 수렁논의 거름살포와 논갈이를 보장하며 토지를 정리하여 수확고를 높

인다. 그후 동익은 꾸준한 교양으로 낡은 사상에 물젖어있던 창원을 개조하며 영원히 긴등벌에 뿌리를 내리고 더 많은 땅을 개간하는데 앞장선다. 최동익의 토론을 주의깊게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사상혁명가, 토지혁명가, 기술혁명가라는 높은 평가를 주신다. 소설은 농촌기계화를 실현해가던 전후의 어려운 시기 당의 뜻을 받들고 긴등벌에 나가 성실한 땀을 바쳐가는 주인공의 높은 정신세계와 투쟁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작품집 《보금자리》, 문예출판사, 주체77(1988)년판〕

《길》 단편소설. 주체51(1962)년 장석환 창작. 천리마기수란 어떤 사람이며 그의 성격적특질은 어데 있는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준 작품이다. 우편통신원 임만수아바이는 매일 한길로 자전거를 타고다니며 우편물을 나른다. 그는 우편통신원은 단순히 신문과 편지를 운반하고 배달하는 직무가 아니라는 자각을 가지고 10년을 하루같이 우편물을 나른다. 전쟁시기에 그는 전선에 나가 싸우던 경철이와 그의 안해가 서로 주소를 잃고 편지련락이 끊어졌을 때 경철의 우편대호를 찾기 위하여 밤잠도 잊고 수십통의 편지를 써서 여러 부대들에 보낸다. 그리하여 그들부부는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게 된다. 전후 천리마운동이 한창 벌어질 때 그는 경철의 작업반원들을 고무하기 위하여 자전거에 농장의 매 작업반별실적과 군의 매 농장의 실적을 표시한 경쟁도표와 모내기를 다그칠데 대한 구호를 달고다니며 농장원들의 경쟁심을 불러일으켜 경철의 작업반이 농장적으로, 군적으로 모내기에서 제일 앞서고 천리마작업반칭호를 수여받는데 큰 도움을 준다. 소설은 천리마기수인 임만수아바이의 형상을 통하여 천리마기수는 맡겨진 일을 직심스레 하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사람들을 이끄는 능숙한 인간교양자이고 시대를 앞서나가는 선구자－창조자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51(1962)년 11호〕

《길》 단편소설. 주체57(1968)년 현희균 창작.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제때에 대중속에 알리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데 집단적혁신의 참된 길이 있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발전소건설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현지에 내려오신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온 직장장 리남철은 몇해전 전국생산혁신자대회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던 그날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본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문제를 전국에 호소한 남철을 불러주시고 혁신자대렬을 더욱더 늘여나갈 방도를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후 새로운 동력기지창설을 지도하시기 위해 현지에 나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적없는 산골짜기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하시며 남철을 또다시 불러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간곡한 말씀을 받아안은 남철은 그 내용을 로동자들에게 지체없이 알리려고 전화로 현장을 찾는다. 전화줄이 끊어져 통화가 되지 않자 남철은 자동차를 타고 밤새워 달려 현장에 도착한다. 그런데 현장로동자들은 이미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무한한 감격속에 받아안고 떨쳐일어나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있던 남철은 로동자들로부터 어제 밤 출장소 소장이 끊어진 전화선을 복구하고 수령님의 교시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을 통하여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서도 행복한 길인가를 보여주면서 일군들은 사람들을 이 길로 이끌어 그들모두가 참된 삶을 빛내이도록 해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7(1968)년 5호〕

《길》 단편소설. 주체61(1972)년 강학태 창작. 자신의 로고는 생각지 않으시고 인민을 위해서는 궂은 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보여준 작품이다. 비료를 실으러 관리위원회에 갔던 박신명로인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밤 잠들지 못한다. 그는 재작년 가을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깊은 골안에 자리잡은 자기네 마을을 찾아오셨던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 떠올라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위대한 수령님을 온전한 마을길에 모시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온 마을이 새벽부터 떨쳐나 닦고있는 마을앞 큰길이 아니라 농장의 방목지들을 돌아보시며 가파롭고 험한 오솔길로 걸어오신다. 농장이 나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발을 벗고 일하는 한 농장원을 보시고 물속에서 일하는 농장원들에게 장화를 생산공급하게 하시였으며 징검다리가 놓인 곳에 이르시여서는 곧 든든한 세멘트다리를 놓기 위한 공사를 벌리도록 하신다. 소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으신 길은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가신 사랑의 길이였음을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61(1972년) 11호〕

《길》 영화문학. 리희찬 창작. 자동차와 함께 곡절많은 인생길을 헤쳐온 한 녀성의 운명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한생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따사로운 우리 당의 품을 형상한 작품이다. 일제시기 정미업을 하던 가정에서 자라난 주인공 윤실은 집안이 파산당하고 남편까지 징병에 끌려간 후 갖은 고생을 겪는다. 이러한 그에게 해방후 당에서는 빼앗겼던 집과 자동차를 찾아주어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도록 보살펴준다. 자동차운전사가 되여 보람찬 새 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윤실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생각이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윤실의 남편 정길은 징병에서 도망치다가 온 가정이 전염병으로 잘못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오래전에 재취했던것이다. 다시는 결합될수 없는 자기들의 처지를 놓고 아연해진 윤실은 아들 인호만을 믿고 그에게 의지하여 살아간다. 당의 품속에서 설계가로 자란 인호는 자기를 키워준 당과 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칠줄 아는 미더운 청년이였기에 애인과 산보하던중 물에 빠진 어린아이들을 생명을 바쳐 구원한다. 이렇게 되여 윤실은 다시 혼자몸이 된다. 그러나 그는 외롭지 않았다. 당에서는 해방후부터 운전사로 일해온 윤실에게 공훈운전사의 높은 칭호를 안겨주었으며 말 못하는 피로움도, 가슴속에 맺힌 모진 마음의 상처도 헤아려 걸음마다 따뜻이 보살펴주었던것이다. 작품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당의 품은 곡절많은 인생길을 걸어온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어머니의 품, 사랑의 품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작품은 주체73(1984)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길》 서정시. 주체76(1987)년 김재윤 창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열어놓으신 백두산혁명전적지에로의 답사행군로를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백두산으로 뻗어오른 답사행군길을 보며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것은 그 길을 열어간 발자국을 생각하게 되기때문이라고 노래하면서 성스러운 항일혁명의 력사를 세월의 락엽속에 묻어버리려는 혁명의 배신자들이 날뛸 때 사람들의 가슴에 《백두의 숨결을 이어주며 힘있게 찍어간 그 자욱》이 과연 어느분의 거룩하신 자욱이였는가를 정서적으로 밝혀내고있다. 시에서는 청봉의 구호나무도 불멸의 혁명력사를 전하고 하나의 숯덩이도 다시금 타올라 뜨거운 불길을 지펴주는 이 길, 당을 따라 천만대오가 굽이쳐흐르는 이 길은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크나큰 심장에 이어준 《뜨거운 피줄기》, 《우리 혁명의 생명선》이라고 격조높이 터치고있다. 시는 높은 격조와 정론성, 진실성을 보장하고있다. 〔《1980년대시선》, 문예출판사, 주체79(1990)년판〕

《길》 단편소설. 주체76(1987)년 김관일 창작. 인생의 길에서는 우연이란 있을수 없으며 설사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조국을 위한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작곡가인 나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일생에서 자랑할수 없는 어차피 해야 할 이야기를 하게 된다. 전쟁전 서울 국도극장에서 바이올린을 켰던 나는 패주하는 괴뢰군놈들의 눈먼 총에 맞아 인민군 야전군의소에 입원한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나는 바이올린이나 켜는 사람으로서 정치에 무관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함께 입원하였던 라진사람은 나를 호되게 꾸짖어 결국 후퇴길에 함께 오른다. 산길을 타다가 미국놈들에게 잡혔을 때 나는 놈들이 사민인 자기야 어쩌겠는가고 생각했으나 총살당할 경각에 이른다. 라진사람과 나는 야밤을 리용하여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탈출에 성공하나 라진사람은 치명상을 당하여 운명하게 된다. 그는 자기가 종군기자였다는것, 지금 재간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바치고있다는것을 나에게 깨우쳐주고 숨진다. 소설은 나의 회상을 통하여 인간은 정치적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그것을 지켜갈 때 조국의 참된 아들로 될수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6(1987)년 1호〕

《길가에서 만난 소녀》 단편소설. 주체49(1960)년 김룡익 창작. 나라의 재산을 귀중히 여기는 한 소녀의 기특한 소행을 그린 작품이다. 소설은 운전사인 내가 길가에서 만난 한 소녀의 아름다운 행동을 보고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씌여졌다. 군소재지에서 세멘트와 목재를 싣고 조합으로 차를 몰고가던 나는 길가에서 발을 상해 절룩거리는 한 소녀애를 만나 태워주게 된다. 방학기간에 할머니네 집에 놀러 왔다가 가는 길인데 기차시간이 늦어 급히 가는 애였다. 차를 몰고가던 나는 방열기가 달아오르자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물을 길러 마을로 달려가게 되며 그사이 소나기가 한바탕 퍼붓는다. 차에 실은 세멘트가 걱정이 되여 달려와보니 세멘트우에는 널판자가 씌워져있고 근심말라는 편지를 남긴채 소녀애는 이름조차 알리지 않고 떠나갔다. 그리하여 소녀의 기특한 소행에 감동된 나는 바로 이런 훌륭한 행동을 한 소녀가 누구이며 어디에 사는가 하는것을 알려달라는것을 호소하게 된것이다. 소설은 내가 목격한 하나의 자그마한 사실을 통하여 천리마시대 어린이들속에서 싹트고 자라나는 귀중한 애국심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으며 이런 훌륭한 어린이들을 수많이 키워낸 천리마현실에 대한 긍정적열정으로 일관되였다. 소설은 이 시기 어린이들속에서 발현된 미담에 기초하여 운전사인 나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꾸미고 전개함으로써 독특한 구성미를 가진 작품으로 되고있다. 〔《아동문학》 잡지, 주체49(1960)년 10호〕

《길가의 집》 단편소설. 주체81(1992)년 양의선 창작.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과 지성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군대로 될수 있었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려단장 리상철대좌는 낯익은 산천과 행군대오를 바라보며 추억에 잠긴다. 주체39(1950)년 겨울 진격의 길에서 꼬마전사였던 리상철은 이곳을 지나게 되였다. 추위와 행군으로 지쳐있던 부대의 전사들은 나지막한 언덕에 서있는 흰옷입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고향의 어머니를 생각한다. 어머니는 길가의 대추나무가 선 집을 가리키며 며느리가 밥이며 뜨끈한 모두부를 앗고있으니 들고가라고 한다. 그런데 어머니는 패주하는 적의 총탄에 치명상을 입은 몸이였다. 전사들은 어머니를 후송시키고 길가집을 찾는다. 후날 전사들은 후송도중 그 어머니가 잘못되였다는것을 알게 된다. 오늘도 길가의 집에서는 그때의 며느리가 여전히 군인들을 위해 집을 뜨지 않고 온갖 지성을 다 바치고있는것이다. 출발때 리상철대좌는 행군종대를 길가집을 향해 돌려세우고 녀인을 향해 경

의를 표한다. 소설은 길가집과 녀인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군민일치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81(1992)년 제26호〕

《길동무들》 단편소설. 주체49(1960)년 김병훈 창작. 산간지대농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고향마을에 양어장을 꾸리려고 정력적으로 투쟁하는 농촌처녀의 고상한 혁명적풍모를 보여준 작품이다. 어느 산간군의 군당위원장인 나는 도당전원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오던 길에 렬차안에서 잉어새끼를 구해가지고 고향마을로 돌아가는 천개리협동농장 양어공 오명숙을 알게 된다. 잉어새끼가 든 초롱을 들고 가까스로 렬차에 오른 명숙은 온도계로 초롱속의 물온도를 재여보기도 하고 역에 기차가 멎어설 때마다 뛰여내려 물을 길어다 초롱에 새 물을 갈아넣기도 한다. 처녀는 호기심을 가지고 눈여겨보는 승객들에게 우리 나라 곳곳에 있는 저수지와 논판, 늪에서 잉어를 얼마든지 기를수 있다고 신심에 넘쳐 이야기한다. 기차가 어느 역에 멎었을 때 물길러 갔다가 차를 놓치게 된 명숙은 내처 25리길을 달려와 잉어새끼가 든 물초롱을 들고 다음역에 내려 기다리는 군당위원장을 만난다. 그는 자기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군당위원장에게 중학교를 졸업한 후 자진하여 협동농장에 진출한 일, 농장에 양어장을 꾸리는 사업이 보수주의와 소극성에 사로잡힌 관리위원장의 반대로 잘 진척되지 않던 일, 리당과 민청조직의 지지밑에 자기 계획대로 담수양어장을 꾸려나간 일 등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이야기한다. 명숙이의 말을 들으며 고향땅을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리려는 그 정성과 열정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군당위원장인 나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심각히 돌이켜보면서 군안의 담수양어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나갈 대책을 세우리라 결심한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담수양어를 잘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고 해방전에는 생선꼬리 한번 구경하지 못하던 고향사람들에게 아침저녁 생선국이 차례지도록 하기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해가는 천리마시대 청년들의 고상한 풍모를 감동깊이 그리였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사회주의건설위업에 대한 공통된 사상적지향으로 하여 우리 근로자들은 동지적으로 굳게 결합된 참된 길동무들로 되고있음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소설은 천리마기수들을 형상한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다. 〔《조선단편집》 2, 문예출판사, 주체67(1978)년판〕

《길목》 단편소설. 주체74(1985)년 리량호 창작. 총련산하 청년학교 처녀강사의 열렬한 조국애와 보람찬 생활을 보여준 작품이다. 주인공 김인숙은 한사람의 동포청년이라도 더 찾아내여 그들이 주체조선의 넋을 안고 인생의 첫걸음을 잘 떼도록 깨우치고 이끌어주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고마운 은덕과 총련조직의 믿음에 보답하는 길임을 자각하고 맡은 임무수행에 진심을 바쳐간다. 그리하여 청년학교는 활발하게 운영되지만 인숙은 약속을 해놓고도 나오지 않는 준일이 때문에 속을 썩인다. 일본불량배들속에 끼여있는 준일이가 동포청년임을 알게 된 인숙은 그를 간곡히 타일러 청년학교에 나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나 그는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간이식당에서 준일을 만난 인숙은 그에게 일본사람행색을 하다가 앞길을 망칠번 한 오빠의 교훈을 이야기해주며 조국을 알아야 민족적긍지를 가질수 있다는것을 깨우쳐준다. 이튿날 다시 준일을 찾아간 인숙은 일본불량배들로부터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는 준일을 발견하고 그를 구원한다. 이 일을 계기로 준일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청년학교에 나온다. 소설은 인숙의 형상을 통하여 세

대교체가 이루어지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일본땅에 사는 새 세대 동포청년들이 내 나라, 내 조국을 알고 조선민족의 존엄을 대를 이어 지켜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총련조직의 애국애족활동과 지향을 잘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4(1985)년 5호〕

《길잡이》 단편소설. 주체62(1973)년 박경빈 창작.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사회주의협동벌을 지켜가는 미더운 농촌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3년전에 군대에서 제대되여 농촌에 탄원한 뜨락또르운전수 병우는 농산작업반 부반장으로 임명되여 새해농사차비를 한다. 그는 정보당 수확고보다는 현금수입이나 농장적인 평균수확고만 높이려고 생각하는 작업반장과 달리 기술지도원 오상금과 함께 그가 키워낸 새 품종의 벼를 생산에 도입하기 위해 애쓴다. 그는 상금이의 방조밑에 포전별특성에 따르는 구체적인 략도를 만들어가지고 논갈이와 거름운반을 과학기술적으로 조직하는 한편 오래동안 구상해온 거름살포기를 완성한다. 그리고 지대가 낮고 메마른 수렁논을 어떻게 하나 옥답으로 전환시키려는 5분조농장원들의 뜨거운 지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하고 도와줌으로써 조건타발을 하고 경험만 내세우면서 반원들의 힘을 믿지 않던 반장의 그릇된 사업태도를 고쳐준다. 소설은 째인 이야기줄거리와 립체적인 구성, 인상깊은 세부묘사로 사회주의문화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는 새 세대 농촌청년들의 미더운 모습과 높은 정신세계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2(1973)년 11호〕

《길우에서》 단편소설. 주체60(1971)년 리택수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시련과 난관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어느 한 화학공장 로동계급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건전지작업반원들과 함께 안전지대로 옮겨가 닷새동안에 3 000개의 건전지를 생산보장할데 대한 공장당위원회의 과업을 받은 전극직장 현장지도원 윤재극은 작업반장 순금이가 달구지를 몰고오자 깜짝 놀란다. 아름찬 과제를 수행하자면 목적지에 하루빨리 도착해야 하겠는데 달구지를 끌고서는 지름길로 갈수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것은 행군길에서도 건전지를 생산하자는 순금의 제의였다. 재극은 처음 반대했으나 전해액가마는 달구지우에 올려놓고 나머지 작업은 생산공정에 따라 한가지씩 끝내여 다음사람에게 넘겨주면 된다는 순금의 설명을 듣고 이동식흐름생산이 전혀 불가능한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마을에서 달구지 한대를 더 얻어가지고 행군하면서 건전지생산전투를 벌려 2 300개의 건전지를 만들어낸다. 도중에 적항공대와 맞다든 그들은 전해액원료인 농마를 모두 잃어버리고 소까지 죽었지만 락심하지 않고 쌀가루를 볶아 농마를 대신하고 달구지를 인력으로 끌면서 기어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3 000개의 건전지를 만들어낸다. 소설은 길우에서 벌어지는 비상한 극적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의 정신력을 발동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해명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0(1971)년 5호〕

《길우에서》 단편소설. 주체73(1984)년 장수근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곡절많은 인생풍파를 헤쳐온 한 과학자에게 참된 삶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매한 풍모를 형상한 작품이다. 승용차를 타고 전선사령부로 향하시던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후퇴의 길에 오른 미생물학자 류승민을 만나신다. 류승민은 해방전에는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해방후에는 미제의 학정밑에서 과학의 푸른 꿈을 무참히 짓밟혀온 불우한 과학자였다. 전쟁이 일어나 서울이 해방되자 인생의 새봄을 맞이하여 환희에 찬 나날을 보내다가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가 시작되자 공화국을 따라 후퇴의 길에 오른 류승민이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작전토의가 기다리는 바쁘신 속에서도 공화국을 따르는 류승민의 드놀지 않는 신념에 대하여 뜨겁게 치하하시면서 헤여진 가족을 찾고 연구조건을 잘 보장해주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다. 작품은 전선사령부로 가시던 그처럼 바쁘신 길에서도 평범한 과학자의 운명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통하여 그이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적풍모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천리마》 잡지, 주체73(1984)년 5호〕

《길이 빛나라 강행군의 6천리여》 서사시. 주체87(1998)년 차승수 창작. 력사에 류례없는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자강도로동계급을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한 작품이다. 서사시에서는 먼저 새해의 첫 아침에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길로 자강도를 향해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는 장면을 시화하고있다. 자강도로 가는 길목에 있는 높고 험한 명문령을 넘으실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큰뜻을 품으시고 이 령을 넘으신데 대하여 생각하시며 우리 인민을 불러일으켜 혁명앞에 겹쌓인 시련과 난관을 기어이 타개해나가실 결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으신다. 시에서는 《인민의 운명을 무겁게 싣고가야 할 먼길을 등대처럼 밝히며 주체의 궤도를 달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렬차를 따라 지구가 돌고 력사가 흐른다고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눈보라길 6천리를 달려 자강땅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 자그마한 발전소에 들리시여 자기 힘, 자기 손으로 발전소를 일떠세운 로동계급과 일군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도 해주시고 양지바른 산기슭에 오붓하게 들어앉은 문화주택마을을 찾으시여서는 집집마다 전기화의 덕을 크게 보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신다. 겹쌓이는 난관을 박차고 제힘으로 일떠서 행복을 가꾸어가는 자강도사람들의 일본새를 높이 치하하시며 그들에게 TV수상기와 전기용품도 더 많이 보내주자고 하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밤이 깊었는데 또다시 북변의 고장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떠나신 소식을 들은 ㅈ공장의 일군들은 자신들이 일을 잘하지 못하여 장군님을 공장에 모시지 못한 자책감과 서운함에 휩싸여 가슴을 친다. 북방의 엄혹한 대한추위속으로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렬차를 되돌려세워 강계로 다시 가자고 하신다. 일은 비록 잘하지 못하였지만 ㅈ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을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떠나오신것이 마음에 걸리시였던것이다. 천만뜻밖에도 자기들의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온 ㅈ공장의 일군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어쩔줄을 몰라하며 장군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오신 사연을 알고는 오열을 쏟으며 장군님의 현지지도말씀을 기어이 관철할 불같은 맹세를 다진다. 시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숭고한 사랑과 믿음이 자강도인민들과 로동계급을 불사신처럼 일떠서게 한 거대한 힘의 원천이였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시에서는 장군님만 따르면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반드시 이어갈수 있다는 철리를 실천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자강도사람들이고 그들을 결사관철의 투사들로 키운 품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이라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강계정신이 창조된 력사적사실을 서사성과 서정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형상을 통하여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7(1998)년 8호〕

《김정숙어머님 우리 어머님》 가사. 주체67(1978)년 윤석범 창작.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 우러러따르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감명깊게 노래

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에서는 이 땅에 행복이 넘쳐날수록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으로 가슴설레이는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사상감정을 뜨겁게 펼쳐보이면서 간고한 항일전의 나날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고 그이께 일편단심 충정다해오신 친위전사의 불멸의 업적을 숭엄한 칭송의 감정으로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조선의 미래를 안아키우신 어머님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인민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어머님께서 바라시던 크나큰 념원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강산에 활짝 꽃펴나고있음을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우리들모두가 언제나 마음속깊이 간절히 그리며 친위전사의 귀감으로 높이 우러러따르는 위대한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인민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조선음악전집》 2, 문예출판사, 주체72(1983)년판〕

《김정호》 장편력사소설. 주체76(1987)년 강학태 창작. 우리 나라의 첫 지도인 《대동여지도》를 제작완성하기 위한 지리학자 김정호의 애국적투쟁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주인공 김정호가 우리 나라의 정확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10년나마 여러 지방을 답사하며 고생하던 어느날 평양 모란봉에 올라갔다가 벼랑에서 떨어지는데서부터 시작된다. 김정호를 구원하고 정성껏 간호해주며 선화는 그가 걸어온 지난 일들을 감회깊이 듣는다. 그때 선화는 부모의 병을 고치려고 본의아닌 기생노릇을 하다가 의로운 한 사나이를 만나 기생생활에서 벗어났으나 얼마후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근근히 살아가고있었다. 김정호를 만나게 된 선화는 그가 지리학에 온 생애를 바치고있는것을 알자 매우 감복해마지 않으며 성심성의로 도와나선다. 김정호는 민간치료법으로 선화의 아들 금돌의 병을 고쳐주며 선화의 극진한 치료로 완쾌된 후 다시 답사의 길에 오른다. 그길에서 잠간 고향집을 찾은 김정호는 안해가 자기와 함께 길을 떠났던 사촌동생 덕호로부터 자기가 대성산에서 호랑이를 만나 잘못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상심해하다가 앓아죽었다는 불행한 소식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는 비관하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난다. 그때로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는 백두산에 4차례나 올라 천지의 깊이도 재고 마을과 마을사이 거리, 지방의 특성과 기후풍토 등 구체적인 자료들을 수집한다. 이러한 고심끝에 김정호는 드디여 《대동여지도》의 견본을 완성하며 그것을 인쇄하기 위해 딸과 함께 판각을 만드는 일에 착수한다. 그러나 《대동여지도》제작을 처음부터 달가와하지 않던 봉건관료배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김정호가 천신만고하여 판각한 《대동여지도》는 불타버리고 그는 옥에 갇혀 갖은 악형끝에 죽는다. 장편소설은 첫 조선지도를 완성하기 위한 김정호의 간고한 투쟁과정을 통해 우리 인민의 높은 애국심과 완강한 의지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봉건제도와 통치배들의 부패무능을 신랄하게 폭로비판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우리 인민들의 고유한 풍습을 보여주는 생동한 사건들과 인상적인 세부묘사를 통하여 력사소설로서의 특성을 잘 살리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6(1987)년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합니다》 가사. 주체65(1976)년 백인준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이어가실 찬란한 해발로 높이 솟아오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뜨거운 축원의 인사와 흠모의 감정을 절절하게 노래한 송가이다. 가사에서는 인민을 따사로운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매한 풍모를 노래하면서 그이께 자기들의 모든 운명과 조국의 미래를 영원히 맡기고 따르려는 철석같은 신념을 표현하고있다. 또한 가사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며 온 세상에 인류의 아름다운 새봄을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령도풍모를 노래하면서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이라면 산과 바다도 넘고넘으며 충정의 대를 이어 나아가려는 불굴의 혁명적의지를 표현하고있다. 가사는 마지막결속구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을 길이길이 축원함으로써 사상을 더욱 뚜렷이 부각하고있다. 가사는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실것을 바라는 우리 인민들과 진보적인류의 절절한 념원을 진실하고 감명깊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조선노래대전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김정일장군님 위하여 〈항상준비〉》 가사. 주체82(1993)년 집체 창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나어린 근위대로 억세게 싸워나갈 소년단원들의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태여나 그이의 사랑속에 자라는 소년단원들의 끝없는 행복과 긍지, 희망찬 래일에 대한 랑만을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의 품속에서 지덕체로 튼튼히 준비하여 주체조국의 미래를 빛내여가려는 소년단원들의 지향과 결의를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후렴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나어린 근위대로 항상 준비해나갈 소년단원들의 불타는 맹세를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다. 가사는 아이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는 알기 쉬운 시어들을 리용하고있으며 소년단의식이나 대렬행진때 부를수 있도록 문장과 운률을 간단하면서도 박력있게 구사하고있다. 〔《새노래》3,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4(1995)년판〕

《김정일장군께 드리는 송가》 장시. 주체92(2003)년 김만영 창작. 장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이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끊임없는 사색과 로고를 바치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다함없는 고마움과 칭송의 마음을 격조높이 노래한 작품이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제일 먼저 찾고 부르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의 주정토로로 시작한 시에서는 《눈보라치는 백두산을 내리시여 순간도 쉬임없이》, 《세월을 넘어 끊임없이 찍어가신》 장군님의 발자욱, 그것은 오직 《앞으로 앞으로만 찍혀진 크고 억센 발자욱》이라고 노래하고있다. 시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발자욱을 통하여 그이의 강인담대한 공격정신에 대해 격조높이 례찬하면서 장군님의 공격의 화살표는 《그 어떤 핵폭탄으로도 멈추어세우지》못했다고 강렬하게 주장하고있다. 또한 우리 조국을 선군의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시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선길을 걸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헌신의 세계를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애와 생활관에 대한 의미깊은 시적형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시는 위대한 선군령장을 혁명의 진두에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 장군님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야말 철석의 신념과 맹세를 토로하고있다. 장시는 위대한 장군님은 곧 선군승리의 상징이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라는 숭고한 사상감정을 정론적분석과 호소적인 기백으로 일관된 심오한 시형상으로 노래하고있다. 〔《문학신문》, 주체92(2003)년 제5호〕

《김정일화》 가사. 주체77(1988)년 박미성 창작. 불멸의 꽃 **김정일**화에 깃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열화같은 흠모와 축원의 마음을 노래한 송가형식의 작품이다. 가사의 1절에서는 한없이 자애롭고 인자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나깨나 그리며 따르는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흠모의 마

음을 이 강산에 붉게 피여난 **김정일**화의 아름다운 꽃송이에 의탁하여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2절에서는 끝없는 사색과 정력적인 령도로 이 땅우에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해가시는 열정의 인간, 예지의 인간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위인상을 열정의 불꽃인양 붉게 타는 **김정일**화의 꽃잎과 억센 기상이 안겨오는 푸르른 잎새에 비유하여 형상적으로 노래하면서 그이를 모신 끝없는 긍지와 영예를 가슴에 안고 영원히 충정을 다해가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와 신념을 토로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을 바라는 우리 인민들과 온 세상사람들의 간절한 축원의 마음을 내 나라 강산에 무궁토록 만발한 **김정일**화에 비겨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우리 인민들과 온 세상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반영하여 태여난 **김정일**화의 이름을 그대로 제목화함으로써 위인찬가로서의 품격을 부각시키고있으며 《그리워 달려가는》, 《송이송이 어려있네》와 같이 어감이 부드럽고 유순하면서도 뜻이 명백히 안겨오는 시어들을 잘 살려씀으로써 위인의 고결한 풍모를 매혹적으로 느낄수 있게 하고있다.〔《조선가요 20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김일성대원수님 만세》 가사. 주체63(1974)년 집체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숭고한 풍모를 다함없는 칭송의 감정으로 노래한 송가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우리 인민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였으며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조선을 온 세계에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위대한 태양으로, 절세의 애국자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3절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온 세상 사람들의 자주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희망의 등대, 세계혁명의 탁월한 수령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우리 인민의 무한한 민족적긍지와 행복, 그이에 대한 뜨거운 흠모의 정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평범하면서도 뜻이 깊은 시어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에 대한 전인민적인 감정을 깊이있게 일반화하였다.〔《조선노래대전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김일성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리》 가사. 주체66(1977)년 백하 창작. 조국과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그이를 영원히 높이 모셔가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민족의 찬란한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여 세월의 험산준령을 넘으시며 이 땅우에 주체의 락원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가지고 높이 찬양하면서 가장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긍지와 행복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대를 이어 영원히 모시고 받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혁명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가려는 인민들의 드팀없는 의지와 신념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절대적인 신뢰의 감정,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높이 모시고 받들어갈 혁명적의지를 숭엄하면서도 절절한 시적정서로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조선노래대전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가사. 주체81(1992)년 황진영, 리종오 창작. 조국과 혁명앞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대원수로 높이 우러러모시게 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 다함없는 칭송의 마음을 노래한 송가형식의 작품이다. 가사는 매 절의 전렴에

서 항일의 혈전만리와 전화의 불길속을 헤쳐 강도 일제와 미제를 쳐부시고 이 땅우에 자위의 강국을 일떠세우시여 반제투쟁의 한길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으며 후렴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대원수로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영광과 긍지, 다함없는 칭송의 마음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항일의 혈전만리》, 《전화의 불길헤쳐》와 같이 우리 인민이 일상생활에서 친숙해진 통속적이면서도 정서성이 강한 시적표현들을 잘 살려썼으며 정교한 운률조직과 전렴에서 환기된 사상감정을 후렴에서 격동적으로 승화시켜준 형상적특성을 보여주고있다. 가사는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이 땅우에 반제투쟁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대원수로 높이 받들어모신 우리 인민의 끝없는 격정과 감격을 간결한 절가형식에 담아 깊이있게 일반화한것으로 하여 우리 식 송가작품의 본보기의 하나로 되고있다. 〔《조선가요 20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김일성장군께》 서정시. 주체41(1952)년 김영철 창작.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숭엄하게 노래한 작품이다. 작품은 《땅도 하늘도 강변의 조약돌마저 불타는 곳》, 《눈보라 하늘에 닿아 앞길을 막는》격전장 그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싸우는 전사들과 함께 계신다는것을 노래하였다. 하기에 한 자동총수는 가슴에 흉탄을 맞고 쓰러지면서도 마지막탄환을 남김없이 원쑤에게 퍼부었고 한 나어린 빨찌산소녀는 놈들의 야수적고문에 쓰러지면서도 위대한 수령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는것이라고 강조하고있다. 시에서는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을 생각하며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해하는 서정적주인공—전사들의 절절한 생활감정을 구체적인 시적계기를 통하여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시집《수령은 부른다》, 문예총출판사, 주체42(1953)년판〕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 가사. 주체60(1971)년 백인준 창작. 가극 《해빛을 안고》의 주제가로서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여 3천리조국강토에 민족재생의 밝은 빛을 뿌려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충정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에서는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그이의 밝은 해빛아래 조국해방의 새봄이 반드시 오고야말리라는 굳은 확신을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2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보살피심속에서 혁명가로 자라난 주인공 녀투사의 끝없는 행복을 노래하면서 수령님께 충정다하려는 혁명적결의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한없는 영예와 민족적긍지, 그이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따르려는 절대적인 신뢰와 충정의 마음을 폭넓게 일반화하고있다. 가사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아래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난 항일혁명녀투사의 숭고한 풍모와 정신세계를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조선인민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조선노래대전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김일성장군찬가》 서정시. 주체35(1946)년 리찬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풍모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격조높이 노래한 작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신 주체35(1946)년 4월에 수령님을 모신 연회석상에서 시인이 읊은 즉흥시이다. 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끝없이 겸허하시고 소박하시며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수령님의 고결한 인품과 풍모를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시는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하면서 《장군의 백광》은 《얼어붙었던 굴뚝마다 칠연》을 솟구치게 하며 방방곡곡에 새봄을 꽃피운다고 자랑높이 구가하고있다.

장군은 바쁘다 바빠야 한다
기억하자, 장군은 우리만의 장군이
아니요

장군은 남조선도 비칠, 남조선도 비
쳐야 할
아아, 삼천리 전강토의 위대한 태양

시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미래를 찬란히 꽃피우실 위대한 수령이시라는것을 힘있게 강조하였다. 작품은 매시어와 시줄, 시련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칭송의 감정으로 일관되여있으며 수령님에 대한 시인의 열렬한 흠모와 신뢰, 찬양의 감정이 깊이있게 구현되여있다. 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수령님께 삼가 올린 송가이다. 〔리찬시집 《태양의 노래》,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김일성원수님은 우리의 최고사령관》 가사. 주체57(1968)년 리범수 창작.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주체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한 풍모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과 그이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끝없는 민족적긍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간고하고도 피어린 항일혁명투쟁과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언제나 병사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용맹의 나래를 펼쳐주시는 그이가 계시여 우리 인민군대는 일당백의 영웅으로 위훈떨치고있다는것을 감동깊이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인류력사에 쌓으신 빛나는 업적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은 만민의 심장속에 깊이 아로새겨져있으며 그이의 위대한 군사사상과 반제반미투쟁전략에 의하여 제국주의의 운명은 기어이 끝장나고야말것이라는 필승의 신념을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칭송의 감정을 소박한 시적형상으로 훌륭히 형상하고있다. 〔《조선음악전집》1,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가사. 주체45(1956)년 원종소 창작.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충실성을 노래한 송가이다. 가사의 1절에서는 백두밀림에서 피어린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이 땅우에 밝은 새아침을 열어주시고 억눌렸던 이 나라 인민들을 투사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다함없는 칭송의 감정으로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2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노래를 부르며 자라난 우리 인민이 그 노래를 부르며 미제를 쳐물리치는 조국해방전쟁에서도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음을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3절에서 오늘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음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이러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

의 상징이시라는 사상을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가사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다함없는 칭송의 감정을 자그마한 과장도 없이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송가가사의 대표작의 하나로 되고있다. 〔《조선음악전집》1,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깊은 강》 장편소설. 주체93(2004)년 김청남 창작. 남녘의 철창속에서 수십년간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지켜 굴함없이 싸운 비전향장기수의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리정우가 속한 정찰조는 적진에 대한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다가 적들과 조우한다. 이때 리정우는 적을 유인하여 정찰조와 정찰보고가 무사히 부대에 가닿도록 한다. 그러나 자신은 부상을 당하고 적들에게 체포된다. 그날은 정우가 사단지휘부에 가서 당원증을 수여받게 된 날이였다. 적들은 그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낼수 없게 되자 악착한 고문을 가하고 군사재판에 넘겨 사형을 언도한다. 이때 어릴적의 친한 동무인 변호사 문영세가 나서서 그의 사형판결을 무기형으로 감형시킨다. 이때부터 정우는 옥중생활을 하게 된다. 처음에 치욕스럽게 살기보다 죽는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기도했던 리정우는 한감방에 있는 사형수 박선봉으로부터 살아서 조국통일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일깨움을 받는다. 박선봉이 희생된 후 리정우는 먼저 간 동지의 뜻을 이어 조국통일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결의를 가다듬고 옥중고초를 이겨낸다. 1960년대와 1970년대가 흐르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감방에는 진보적인 활동을 벌리던 청년대학생들이 체포되여 들어온다. 정우는 그들이 정의와 진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도록 교양하고 옥중살이로 병을 만나 고생하는 동지들을 위해 측백나무열매로 약을 만들어 나누어준다. 동지들은 이 약을 정우환이라고 부른다. 그는 남조선괴뢰들이 벌려놓은 일대 전향테로앞에서도 끄떡없이 혁명적신념을 지켜내며 자신의 모범으로 남조선대학생들도 지조를 지켜내도록 힘을 준다. 그가 42년째 옥중투쟁을 벌리던 해의 2월 16일, 정우는 철창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느해 설달그믐날 밤에 일군들에게 남조선에서 고생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신상을 두고 근심하시며 그들을 모두 데려다 금방석에 앉히고싶다고, 철창속에서 또 한해를 보내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며 《동지애의 노래》를 부르자고 하셨다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전해들은 정우는 장군님을 우러러 축원의 인사를 올리고 《동지애의 노래》를 부르며 영원히 장군님의 순결한 동지로, 통일애국투사로 살며 싸워나갈것을 맹세다진다. 그의 노래소리는 철창속에 있는 동지들에게 큰 힘을 준다. 리정우는 43년의 옥중생활을 마치고 출옥한 후에도 문영세의 딸을 비롯한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이끌어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비전향장기수들의 귀환문제를 실현시켜주시여 드디여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였을 때 정우는 절대로 굽히지 않은 조선로동당원, 영원한 병사의 보고를 조국앞에 떳떳이 드릴수 있는 자신의 한생에 대하여 긍지높이 생각한다. 그때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온 문영세는 정우의 한생은 바다로 흘러가는 넓고 깊은 강과도 같은 보람있는 생이고 자기의 한생은 흐르지 못하는 감탕늪과 같은 생이였다고 통탄한다. 소설은 정우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을 위하여 산 인간의 생은 바다로 흘러가는 넓고 깊은 강처럼 보람있고 값높은 삶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깊은 곳에서》 단편소설. 주체66(1977)년 민별 창작. 자기가 만든 제품에서 나타난 결함을 스스로 고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한 녀기사를 형상한 작품이다. 광산 안전기사 은혜는 1호내리굴을 뚫는 광부들이 자기가 창안한 흡진기를 쓰지 않고 규정을 어

기며 먼지속에서 일하다가 로동안전과장 장형우에게서 작업중지처벌까지 받았다는것을 알고 실태를 료해하기 위해 막장으로 들어간다. 현장에서 그는 작업을 하지 못해 안타까와하는 광부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 자기가 만든 흡진기가 무겁기때문에 다루기 힘들어서 리용하지 않고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는 내리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누운 굴에서와 같이 흡진기의 견고성만 생각하면서 무겁게 만든것이 광부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였다는것을 깨닫고 막장에서 광부들의 일손을 도와주면서 로동안전과장과 지혜를 합쳐 흡진기를 쓰기 편리하게 개조한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현실속에 들어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으며 쓸모있는 기계도 만들어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잡지, 주체66(1977)년 1호〕

《깊은 산속에서》 중편소설. 주체68(1979)년 김문창 창작.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초원지대에서만 가능한것으로 여겨오던 양방목을 깊은 산속에서 실현해나가는 한 축산일군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풍덕협동조합 축산작업반장 태창국은 양을 끌고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52마리나 죽여 심각한 비판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백번 쓰러져도 숲속방목을 실현하여 골짜기마다 양떼가 득실거리게 할 굳은 결의를 안고 딸들인 봄순이와 철순이, 양사양공인 박병률과 함께 150마리의 양을 끌고 다시 산속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겁에 질린 양들이 깊은 산속으로 잘 들어가려 하지 않고 풀도 뜯어먹던 곳에서만 먹으려는데로부터 순환식방목이 어렵게 되며 이 과정에 범에게 양들이 물려죽는 등 난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창국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이악하게 투쟁을 벌림으로써 끝내 숲속방목에 성공한다. 작품은 숲속에서 양방목을 실현해나가는 태창국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정치사상적풍모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과 함께 그를 도와나선 안해 최정애, 딸들인 봄순과 철순 등의 형상을 통하여 당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우리 시대 참된 가정의 새로운 혁명적륜리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깊은 수림에 대한 정경묘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 나라의 자연풍경을 감동적으로 펼쳐보이고있으며 양의 생태적특성 및 방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통하여 양사육에 대한 일정한 지식도 주고있다. 또한 소설은 인물들의 내면심리세계를 자연묘사와 밀접히 결부시켜 묘사함으로써 정서적색채를 짙게 하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깊은 산속에서》 단편소설. 주체80(1991)년 한인준 창작. 아무런 조건도 구비되여있지 못한 인적없는 림산사업소의 어느 한 작업소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훌륭하게 꾸려놓은 3대혁명소조원의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림산사업소 소장 마택진은 아들 일훈이가 한개 소대를 데리고 두해째 나무를 베여내고있는 룡골산지 합숙을 찾아떠난다. 룡골산에 도착한 택진은 아들을 통하여 그동안 변모된 룡골산림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산림지에 들어온 소조원 전영호는 청년들에게 내내 이렇게 불도 없는 곳에서 지냈는가고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휴식날 합숙마당을 넓혀 운동장도 만들고 탁구판, 평행봉, 나무봉도 세운다. 다음날부터 배구, 탁구도 하면서 생활에 활기를 주는 한편 남새온실도 짓고 염소와 돼지도 기를수 있게 한다. TV가 있으면서도 전기가 없어 보지 못한다는것을 안 소조원은 택진에게 전기조작기구들을 해결해줄것을 제기하고 산중탐사를 진행하여 물곬을 찾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 소형발전소를 세울수 있게 한다. 사업소와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에서 되는대로 생활하던 사람들은 전기의 혜택을 입고 다양

한 문화정서생활을 하게 되자 나무베기실적을 부쩍 높인다. 소설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할것이 아니라 사업을 연구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3대혁명소조원 전영호의 형상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80(1991)년 6호〕

《개가》 단편소설. 주체43(1954)년 김근오 창작. 전후복구건설시기 전동기생산에 필요한 절연물을 자체로 만들어낸 대안전기공장 로동자들의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절연물분공장 책임자인 주인공 황순옥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절연물을 자체로 만들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해방전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공부한 절연물과 과장인 준철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 수입할것을 주장한다. 순옥은 그에게 전후복구건설에로 부르신 어버이수령님의 호소를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자체로 만들수 있다고 하면서 새로 찾아낸 방법으로 시험을 계속한다. 한편 준철은 절연물연구는 안중에도 없이 돈에만 눈이 어두워 공장에 있는 되거리군에게 붙어다니다가 그가 간첩으로 체포되자 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뉘우친다. 이런 속에서 순옥은 당위원장의 방조밑에 새로 온 기사장과 합심하여 우리 나라의 원료를 가지고 질좋은 절연물을 만드는데 성공한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려는 뜨거운 심장을 지닐 때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희망의 언덕》,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3(1954)년판〕

《개간지시초》 시초. 주체50(1961)년 김희종 창작.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새땅을 개간해나가는 간석지건설자들의 보람찬 투쟁과 위훈을 생동한 시적화폭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시초는 《농장의 달밤》, 《바다가의 작은 집》, 《소나기 퍼부을 때》, 《산과 땅의 대화》, 《무지개》의 5편의 서정시로 이루어져있다. 시초에서는 로동당의 아들딸답게 사나운 자연을 정복해나가는 간석지건설자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시적화폭으로 펼치고있다. 밀물이 집채를 삼킬듯 밀려오고 사나운 바람이 모든것을 꺾어버릴듯 날칠 때에도 굴착기는 더 거센 바람을 일쿠며 맞받아나갔고 급작스레 퍼붓는 소나기속에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울며 세찬 바람과 함께 밀물이 밀려올 때에도 바다를 막아나간다. 시초에서는 후대들에게 수만정보의 새땅을 넘겨줄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간석지건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간석지건설자들의 위훈이 창조되고있다는것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또한 시초에서는 산과 땅과의 대화라는 특이한 형식을 취하여 지난날 불을 토하듯 내려쪼이는 뙤약볕에 흰 소금이 거품뿜듯 내돋치던 불모의 땅이 오늘은 풍년벌로 전변된 현실을 긍지높이 일반화하고있다. 시초는 구성도 특색있게 하고있다. 즉 휘영청 달밝은 보름날 웃음으로 흥성이는 간석지마을의 탈곡장을 먼저 제시하고 다음 이 풍년벌의 웃음을 마련하기 위하여 애쓰는 투쟁모습을 펼쳤으며 이어 간석지마을의 휘황한 미래에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0(1961)년 11호〕

《개나리의 노래》 서정시. 리인모 창작. 개나리에 의탁하여 조국통일에 대한 열렬한 갈망과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서정적주인공—리인모의 통일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시는 날새조차 얼씬하지 않는 절벽같은 담밑에 노랗게 피여난 개나리를 시적계기로 하여 서정을 펴나가고있다. 세개의 련으로 된 시는 첫련에서 엄동설한을 이겨내고 노란 꽃을 피우기까지의 개나리에 대한 구체적인 시형상을 주고 둘째 련에서는 개나리의 노란빛을 독감방에서 노랗게 떠버린 리인모자신의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개나리에 담아 노래

하고있다. 셋째 련에서는 활짝 피여 노랑나비를 부르는 개나리를 노래하면서 분렬의 장벽을 헤치고 북쪽으로 달려가고싶은 간절한 마음, 통일에 대한 피타는 갈망과 굳은 확신을 천명하고있다. 시는 구체적인 시적계기와 정황속에서 구체화된 사상감정으로 조국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굳은 신념, 의지를 일반화하고있다. 시는 개나리에 대한 구체적인 시적묘사와 거기에서 환기되는 정서적감정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제사상적 내용을 솜씨있게 천명하고있다. 특히 시는 형상적비유를 능란하게 구사하고 감정정서가 매우 섬세한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0(1991)년 12호〕

《개마고원》 장편소설. 주체45(1956)년 황건 창작.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의 영웅적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우리 나라 농촌에서 벌어진 치렬한 계급투쟁과 새생활창조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폭넓게 형상한 작품이다. 삼수, 갑산의 두메산골에서 태여나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지침으로 삼고 활동하는 남재한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온 김경석은 징병에 끌려가던 도중에 도망쳐 집에 숨어있다가 해방을 맞이한다. 해방후 김경석은 남재한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권성팔, 안계숙 등과 함께 고향마을을 살기 좋은 락원으로 꽃피우려는 한마음으로 개마고원지대의 농업과 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앞장서며 십리벌의 축산방목지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간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경석은 면당위원장으로서 반동들의 악랄한 준동을 물리치면서 인민들의 후퇴를 보장하고 한마리의 양도 손실없이 제때에 소개시키며 유격대를 조직하여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한다. 적후투쟁을 벌리던 도중 적들에게 체포된 경석은 감방안에서도 신심을 잃지 않고 투쟁하다가 마침내 탈출에 성공하며 류치장에 갇혀있던 애국자들을 구원해낸다. 마을에 돌아온 경석은 파괴된 경제시설을 복구하고 전시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억세게 싸워나간다. 소설은 비교적 긴 력사적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우리 인민이 진행한 준엄한 계급투쟁을 다양한 인물형상을 통하여 폭넓게 그려내였다. 소설에서 주인공 김경석은 해방후 당의 품속에서 새롭게 자라난 새 세대 농촌청년으로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싸우는 혁명전사의 전형으로, 남재한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투쟁강령을 지침으로 삼고 해방직후의 그 복잡한 환경속에서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당일군의 전형으로 그려졌다. 이밖에도 정순희, 안계숙, 어덩쇠 그리고 부정인물인 정태기 등 각이한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해방직후의 사회계급적관계를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소설은 인물들의 심리세계에 대한 섬세하고도 깊이있는 묘사를 지향하고있는 작가의 창작적개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특히 애정관계에 있는 경석이와 순희와의 호상관계를 그리면서 그들의 사회계급적처지와 립장을 명확히 밝힌데 기초하여 내면세계에서 발현되는 미묘한 움직임까지 깊이있게 추구함으로써 심각한 계급투쟁속에서 성장해가는 주인공의 성격을 생동한 형상적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북방의 산간지대 농민들의 생활풍습, 세태풍속을 선명하게 그려내고 이 지대의 특유한 자연풍경과 기후풍토를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5(1956)년판〕

《개벽》 단편소설. 주체35(1946)년 리기영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농민들이 땅의 진정한 주인, 새생활창조의 주인으로 자라는 과정을 형상한 작품이다.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된지 며칠 지난 어느날 주인공 원첨지는 안해와 딸을 데리고 읍내 수천명의 농민들과 함께 《우리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신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벌린다. 그러나 이날 원첨지는 황지주가 찾아와 세상이 또 한번 뒤집힌다고 하자 그 말을 곧이듣는다. 이때 마을농민위원장이 찾아와 그에게 지주놈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빚을 더는 물지 않아도 된다고 일깨워준다. 자기로서는 꿈결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 현실로 펼쳐진다는것을 확신한 원첨지는 《개벽이야!…이것이야말로 천지개벽이야!》라고 기쁨에 넘쳐 환성을 올린다. 소설은 그후 농민위원회 위원으로 된 원첨지가 마을농민들과 함께 토지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나서며 농민들을 악착하게 착취하던 황지주의 온 가족이 남조선으로 도망치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은 주인공 원첨지의 생활을 통하여 해방의 기쁨과 함께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흠모와 감사의 정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또한 작품은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토지개혁과 같은 거창한 사변을 시대적배경으로 하면서 그것을 둘러싸고 맺어지는 인간관계속에서 형성되는 새 인간들의 성격적특징을 진실하게 묘사함으로써 토지개혁의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형상적으로 뚜렷하게 밝혀내였다. 작품은 해방후 민주개혁을 주제로 한 첫 소설작품이다. 〔《조선단편집》 2, 문예출판사, 주체67(1978)년판〕

《개선》 단편소설. 주체37(1948)년 한설야 창작.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4(1945)년 10월 14일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하신 사실을 소재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풍모와 수령님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감격을 보여준 작품이다. 만경대의 숙모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뒤늦게야 알고 인산인해를 이룬 평양공설운동장으로 달려온다. 일군들의 안내를 받아 주석단뒤에 이른 숙모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왜놈들을 무찌르며 용감히 싸우신다는 소식을 듣고 일가가 기뻐하던 일과 경관놈들이 달려들어 가택수색을 하던 일 그리고 놈들이 조작해낸 헛소문이 돌던 일과 김원주동지께서 조국해방단을 무어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과 련락을 맺으려 하다가 탄로되여 놈들에게 체포되여가시던 일들을 회상하신다. 이때 확성기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이 울려퍼진다. 연설을 끝내시고 주석단을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숙모님을 보시고 오늘은 작은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의 대리라고 하시면서 함께 차에 오르신다. 소설은 만경대로 달리는 차안에서 조국산천을 굽어보시며 부강한 새 조국을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풍모를 끝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그리면서 14살 되시던 해에 압록강을 건느시며 다지신 맹세를 기어이 실현하시고 돌아오시였다는것을 강조하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은 부강한 새 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풍모를 감동깊게 그리면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모신 조선인민의 끝없는 행복과 감격,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깊이있게 그려내였다. 작품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하는데 바쳐진 첫 단편소설로서 문학사적의의를 가진다. 〔단편소설집 《개선》,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4(1955)년판〕

《개선》 장편소설. 주체91(2002)년 최학수 창작.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한권이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제가 항복한 후 이전 쏘련 원동지방의 하바롭스크훈련기지를 떠나 조국에 돌아오시여 당창건위업을 실현하시고 력사적인 조국개선연설을 하시는 내용을 그린 작품이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쏘련군과의 대일련합작전의 2단계작전을 위해 조선인민혁명군 장병들을 이끄시고 출전하시던 도중 일제의 항복에 대한 소식을 받으시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에 어떤 정치체제와 기구, 형태를 가

진 국가를 세우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론의를 벌리는 조선인민혁명군 장병들에게 해방된 조국땅에서 건국사업에 앞서 진행해야 할 중대사는 바로 당창건위업을 결속하는것이라고 밝혀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해방된 조국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에 도착하시여 자신의 본명을 밝히지 않으시고 김영환정치위원으로 조국인민들을 만나신다.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의 기둥으로 믿고계시던 황해도공산당위원회 조직부장 민덕원과 평안남도공산당위원회 책임비서 현준혁이 정체모를 자들에 의하여 피살되였다는 가슴아픈 사실과 일제의 패망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서 형형색색의 행정자치단체들과 사회정치조직들이 산발적으로 생겨나는 실태에 대하여 아시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모든 단체, 조직들을 통솔하는 상급기관이 없다는것을 꿰뚫어보시고 류경수, 안길, 김책을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을 북부 여러 지역에 파견하시며 그들에게 해방전에 활동하던 지하혁명조직성원들을 찾아내고 파견지에서 우리 당의 핵심골간이 될 동지들을 획득하도록 하신다. 또한 원산공산당부책임자 리주하를 만나시여 해방된 조국땅에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세워야 하며 그러자면 민주주의기발을 들어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주시고 그를 통하여 해방직후 서울에서 진행된 공산당재건운동정형과 엠엘파의 장안당, 박헌영의 재건당이 생겨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료해하신다. 다음날 평양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완전마비상태나 다름없는 철도를 시급히 복구할 과업을 오백룡에게 주시고 평안남도공산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용범을 만나시여 도안의 당조직들의 실태와 각파의 동향에 대하여 파악하시면서 다른 계렬의 공산당조직들을 배척하는 그릇된 견해를 바로잡아주시고 도당보를 시급히 발간하여 조선의 각지에 보내줄 대책을 취하게 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 조만식의 동향도 알아보시고 서울에서 올라온 장안당대표들을 만나주시는 한편 평양곡산공장을 찾으시여 기계설비를 복구하고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방도도 가르쳐주신다. 고유한 조선식의 례법을 지켜 조만식을 찾아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창립선언과 강령을 알려주시며 도정치를 옳바르게 해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며 박헌영의 재건당대표들이 찾아왔을 때에는 북과 남의 정치정세를 분석하시고 공산당의 중앙지도기관을 평양에 내와야 할 리유에 대하여 깨우쳐주신다. 한편 평양으로 올라온 파견원들을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개편하는 방법으로 당중앙지도기관을 내올것을 주장하는 그들에게 혁명의 근본리익에 기초하여 당창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시며 평안남도공산당을 발기자로 하여 북부조선 5도당 대표자 및 열성자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신다. 이와 함께 조만식이 민족주의력량을 망라하는 민주당을 조직하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김책이 사업을 도와주도록 하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하여 각지에 당조직들이 태여나고 10월 5일 당창건을 위한 예비회의가 진행되며 드디여 주체34(1945)년 10월 10일 창당대회에서 북조선공산당중앙조직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당창건위업이 빛나게 실현된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조국개선연설을 하시기 위하여 군중대회장으로 나가시는 장면으로 끝난다. 소설은 조국으로 돌아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리세계를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묘사하고 복잡한 정치정세를 뛰여난 통찰력으로 꿰뚫어보시며 당을 창건하시는 위인적품격을 폼위있게 형상하였으며 특히 한없이 겸허하시고 소박하신 수령님의 인민적풍모를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가장 주체적이며 통일적인 지도기관인 북조선공산당중앙조직위

원회를 결성하심으로써 당창건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는 과정을 당시의 현실과 결부시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이밖에도 리주하, 김용범, 리순금 등 국내정치인들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는 인민들의 열렬한 흠모심과 뜨거운 지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1(2002)년판〕

《개선문》 단편소설. 주체85(1996)년 강철 창작.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신 후 한 청년이 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이 깃든 농장으로 자원해가는 이야기를 펼쳐보인 작품이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비애와 절통함에 몸부림치던 그해 7월 어느날 개선문을 그리기 위해 현지에 나갔던 미술가 나는 열댓살 나보이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되며 그가 자기가 살던 북쪽 어느 지방의 삼골막바지에서 떠온 목란꽃을 개선문곁에 심고 가꾸고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여러차례 소녀와 만나는 과정에 나는 연희라는 이 소녀가 새 농작물품종을 연구하던 아버지를 따라 삼골막바지에 가서 살았으며 7년동안이나 실패를 거듭하던 그의 아버지 림준기가 이곳 농장을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고무에 힘을 얻고 3년후 새 강냉이품종을 성공하고 다시 평양에 올라오게 된 사연을 듣게 된다. 림연희가 개선문주변에 가꾸는 목란꽃은 바로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 오셨던 시험포전 밭머리에 심었던것을 여기에 옮겨온것이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보석공예사로 일하던 연희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의 참뜻을 새기며 아버지가 연구사업을 하던 삼골농장으로 진출한다. 나는 우리 시대에 꽃펴난 새 세대 인간들, 청년들의 불타는 투쟁모습을 화폭에 담으려 삼골농장을 찾아갈 결심을 한다. 소설은 청년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걸어온 길은 행복의 길로 끝날것이 아니라 충정과 보답, 투쟁과 위훈의 길로 이어갈데 대한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5(1996)년 7호〕

《개척자들》(1, 2부) 영화문학. 조현동 창작. 작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북부고원지대를 개발하여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켜나가는 개척자들의 영웅적인 투쟁과 생활을 보여주고있다. 제1부 《시련》은 전선에서 싸우다가 중상을 입고 제대된 주인공 정민이가 당의 부름을 받들고 백두고원으로 오는데로부터 시작된다. 새로 개척되는 분장에서 분장장으로 일하게 된 주인공의 앞길에는 수많은 애로와 난관이 중중첩첩 겹쌓인다. 미제침략자들과 판가리싸움을 하는 어려운 시기여서 변변한 농기구 하나 없었으며 모든것이 부족하였다. 여러 지방에서 모여온 사람들은 생활이 안착되지 않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었으며 수천년동안 인적없이 버림받아온 북부고원의 대자연은 엄혹하고 변덕스러웠다. 하지만 정민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농장개간을 다그칠 결심을 안고 일에 달라붙는다. 그런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물젖은 농장지배인 한종만은 백두고원에는 대규모농장을 꾸릴수 없다고 하면서 농장페기신청서를 내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 정민은 기어이 백두농장을 건설하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농장을 페기하려는 지배인과 맞서싸운다. 이러한 시련의 시기에 농장건설을 파괴하려고 미쳐날뛰는 계급적원쑤들의 암해책동으로 꿈많던 창일이가 희생되고 농장마을이 불타버리게 된다. 당조직에서는 이 가슴아픈 실태를 당중앙에 보고할것을 정민에게 위임한다. 정민은 평양으로 가던 도중 영광스럽게도 이곳을 현지지도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고 귀중한 교시를 받아안게 된다. 정민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은 농장사람들은 크나큰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 백두고원에 기어이 대규모농장을 건설할 결의를 다지며 한결같이 떨쳐나선다. 제2부 《백두고원에 봄이 온다》는 주인공 정민이가 백두고원의 넓은 대지에 밀풍년이 들게 하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밀농사준비를 다그치는데로부터 시작된다. 정민은 여러해에 걸치는 간고한 시험끝에 성공한 밀종자를 새로 개간한 땅에 대대적으로 심을것을 결심한다. 그는 계절을 앞당기기 위하여 언땅을 갈아엎으며 파종준비를 다그쳐나간다. 이때 농장에 새로 배치되여온 농산부장은 언땅을 갈아엎는데 기계를 혹사하면 씨붙임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농사를 짓겠는가고 하면서 언땅을 갈아엎는것을 반대해나서며 국영농장이 잘되는것을 바라지 않는 반당반혁명분자인 송부상은 백두고원에 파악이 없는 밀을 심을수 없다고 하면서 밀파종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그러나 정민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사람들을 발동하여 가대기를 끌면서 포전작업을 계속해나간다. 정민의 투철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앞에 불안을 느낀 반당반혁명분자들은 그를 연구소로 소환하려 하며 정민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영심이를 본장으로 소환한다. 한편 병기와 결탁한 간첩암해분자들은 진삼이가 구해오던 농기계들을 습격파괴하고 종곡마저 불태워버린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장에 수많은 농기계와 종곡을 보내주신다. 정민은 감격에 목메여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이 땅에 위대한 개척의 력사를 펼쳐주신분도, 새봄을 안아오신분도 위대한 수령님이시라고 절절하게 웨친다. 작품은 오랜 세월 사람못살 불모의 땅으로 버림받던 백두고원이 어버이수령님의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새삶이 약동하는 풍년지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은 조국해방의 은인이실뿐아니라 백두고원에 새봄을 안아오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라는것을 형상적으로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작품은 주체73(1984)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개화의 려명을 불러》 장편력사소설. 주체78(1989)년 박태민 창작. 갑신정변의 력사적사실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소설은 우리 나라에서 개화사상이 이미 성숙되고 김옥균이 정계에 등장함으로써 개화파가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자라나던 1883년 초봄부터 1884년 10월 17일 갑신정변까지 약 1년남짓한 생활을 담고있다. 몰락한 량반명문가의 출신인 김옥균은 여러해동안 리률곡의 서원에서 학문의 기초를 쌓은 후 실학파들의 저서들을 탐독하는 과정에 실사구시의 정신을 깊이 체득한다. 열혈청년 김옥균은 쓰라린 시련의 체험과 함께 락후한 봉건적질곡으로 하여 억압당하며 기를 펴지 못하는 상공인들의 불우한 처지를 목격하게 된다. 이와 함께 김옥균은 임오군란후 청일 량국군대의 주둔과 렬강들의 침략책동으로 나라가 위기에 직면하고있다는것을 절감하게 된다. 그는 개화를 필생의 사명으로 삼고 정치적지반을 닦는것과 함께 무력적지반을 갖추기 위해 광주에 신식군대양성기지로 특별영신설을 발기하며 재정적뒤바라지를 위해 옥답을 팔아 자금도 마련한다. 한편 유망한 청년들을 뽑아 외국에 류학을 보낸다. 그리하여 1 000명이나 되는 광주특별영군사들에게 사관학교출신의 우리 나라 교관들로써 신식교련을 줄수 있게 된다. 개화파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던 민비일당은 그 세력이 점차 커지자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민다. 조선에서의 부르죠아개혁을 원치 않았던 일본은 김옥균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을뿐아니라 미국과 프랑스의 공사들과 한 차관교섭까지도 파탄시킨다. 민비는 척신들의 책동으로 국채교섭이 파탄된것을 알면서도 빈손으로 돌아온 김옥균을 공박하며 책임을 추궁한다. 사태가 점점 험악하게 번져지자 김옥균은 당분간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정국을 관망하기로 결심한다. 이러한 때 청프전쟁이 일어나 국내의 정세는 급변한다. 질겁한 민비일당은 광주특별영의 신식군대 1 000명을 재정난의 구실밑에 국왕을 얼려넘겨 서울친군영에 통합시키는 령을 내리게 한다. 이것은 수구파의 실권자를 숙청하고 정권을 잡기로 결심했던 김옥균에게 있어서 치명적타격으로 되였다. 김옥균

은 몸부림치며 통합령을 취소하고 신식군대양성사업을 계속해줄것을 국왕에게 여러번 건의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는 지방에 파견하였던 류학생출신의 청년들을 불러들여 행동대를 조직하고 정변거사를 위한 국왕과의 사업을 적극화한다. 그리고 거사에 쓸 폭약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금광에 사람을 띄우며 무기교섭을 위하여 일본에 리봉현을 파견한다. 한편 김옥균은 국채교섭을 실패하게 한 일본공사에게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그가 정변거사에 일본주둔군을 출동시켜주겠다고 스스로 나서도록 한다. 우정국개설연회를 리용하여 정변거사를 단행한 김옥균의 개화파는 민비일당의 주요실권자들을 숙청하고 개화정부를 수립하는것과 함께 부르죠아혁명의 서막을 선포하는 정강을 발표하였으나 민비일당의 청병요청을 받고 궁성으로 쳐들어온 청군의 무장간섭과 일본공사의 배신적인 철군으로 인하여 진압되고만다. 정변거사가 실패하게 되자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한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그를 꺼려하던 나머지 어느 한 무인도에 보낸다. 김옥균은 그후에 상하이에 가서 자객에 의하여 피살된다. 그의 시체가 든 관이 도착하자 민비일당은 관에서 그의 시체를 꺼내여 릉지처참하는 만행을 감행한다. 그리하여 부르죠아혁명의 서막을 열고 나라를 문명과 부강에로 이끌려던 김옥균의 청운의 꿈은 실현되지 못한다. 장편소설은 우리 나라 근대력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첫 부르죠아개혁으로서의 갑신정변의 력사적본질과 그 교훈을 주체사관의 견지에서 예술적으로 천명하였으며 사대매국노들을 철저히 숙청함이 없이는 나라의 진보를 이룩할수 없다는 력사의 진리를 예술적으로 일반화하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8(1989)년판〕

《개이지 않는 하늘》 장편소설. 주체83(1994)년 김병훈 창작. 남조선에 류학을 갔다가 간첩으로 몰려 체포되여 감옥생활을 하는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서일순녀성은 두 아들을 남조선에 류학을 보냈다.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고향에 돌아가 살려고 생각해오던 서일순은 주체60(1971)년 4월 어느날 아들들이 《학원침투〈간첩단사건〉》의 주모자로 체포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며칠후 서울에 건너온 그는 두 아들인 김준과 김진을 만나려 《보안사》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놈들에게 잡혀들어가 당장 일본으로 돌아가라는 강박을 받게 된다. 이튿날 량심적인 변호사 리상철로부터 사건이 박정희 3선《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작날조된것임을 알게 된 서일순은 그에게 아들의 문제를 부탁하고 일본으로 돌아온다. 한편 남조선 안전기획부놈들은 두 형제에게 간첩의 루명을 씌우기 위하여 모진 고문을 들이대며 맏이인 김준이가 화상당하게 되자 자살을 기도했다는 조서를 꾸미고 법의감정서까지 만들어놓는다. 그후 놈들은 서일순이가 수차례나 찾아와 돈을 찔러주어서야 진이를 만나게 해주고는 맏이인 준이에 대하여 지껄이면서 자식들을 잘 구슬려 죄를 인정하게 하면 감옥에서 내보내주겠다고 꾀한다. 놈들의 음흉한 속심을 알게 된 그는 자식들을 옹호해주던 리상철변호사까지 체포되여가자 어지러운 사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며 돌아온다. 그후 또다시 서울에 가서 놈들이 벌려놓은 재판에 참가하여 모습을 알아볼수 없게 된 준이와 고문에 시달린 진이를 만난 어머니는 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형과 7년형이 들씌워지자 까무라치며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쓰러졌다가 일어나지 못한채 숨을 거둔다. 그로부터 7년세월 서일순은 민주와 통일을 위해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우는 자식들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사기와 협잡, 파쑈가 살판치는 남조선사회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게 되며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국통일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것을 절감하게 된다. 하기에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이대는 남조선괴뢰당국자들의 전향공세를 이겨내며 자식들에게 힘

을 준다. 《로동신문》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신문과 방송이 두 형제의 석방운동으로 내외여론에 큰 충격을 주고있을 때 둘째아들 진이가 석방되여 나올 날을 맞아 남조선에 간 서일순은 당국자들이 또다시 전향을 강요하지만 단호히 거부한다. 놈들은 진이도 자기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옥을 보류시키고 광주교도소로 옮겨버린다. 광주교도소에 가서 진이를 만나고 대전에 와서 준이를 만난 서일순은 죄없는 자식들을 계속 감옥에 가두고있는 놈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느끼며 집으로 돌아온다. 그날부터 불치의 병에 걸려 자리에 누운 서일순은 얼마후 신문에서 박정희의 저격사건과 함께 광주에서 벌린 놈들의 치떨리는 살륙만행을 보게 된다. 이튿날 그는 찾아온 기자들에게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들을 규탄하면서 자기의 념원은 자식들이 석방되는것이지만 더 큰것은 조국통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온 겨레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안겨야 잘살수 있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는것을 이야기한다. 소설은 서일순이가 10년동안 수십차례나 남조선에 다녀왔으나 아들의 출옥을 보지 못한채 눈을 감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파쑈가 살판치는 남조선에서는 자식들의 꿈도, 가정의 행복도 바랄수 없으며 오직 조국을 통일하는 길만이 우리 겨레가 행복하게 살 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작품은 남조선당국자들과 그 하수인들의 형상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을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으며 조국통일을 반대하는 기본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뚜렷이 밝혀내고있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갱도》 단편소설. 주체52(1963)년 김보행 창작.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로동계급의 정신도덕적풍모를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 로광부를 형상한 작품이다. 부갱장 경삼은 광업학교를 졸업하고 착암기를 단독으로 맡은지 얼마 안되는 병수가 수직갱뚫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것을 보고 만족해한다. 그러나 차근차근하지 못한 성미인 병수는 일만 일이라고 하면서 착암기도 정히 다루지 않고 로동안전규률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경삼은 그에게 기계를 잘 다루도록 충고를 주는 한편 그가 스파나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자기의것을 주고 못쓰게 된 방수화를 구갱에 버렸다는것을 알고는 새 방수화를 타다주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날 경삼은 동년배인 공급원으로부터 병수의 물자소비량이 많다는것과 일군으로서 아래사람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라는 충고를 받고 지금까지 병수를 어루만지면서 원칙적으로 교양하지 못한 자신을 심각하게 돌이켜본다. 경삼은 계획이 바쁘다고 안전모도 쓰지 않은채 입갱하는 병수에게 계획도 로동안전규률을 잘 지키면서 수행할 때 의의있는것이라고 일깨워주기도 하고 고장난 그의 착암기를 함께 수리해주면서 방수화는커녕 짚신도 없어서 맨발로 갱도를 다니면서 질통으로 광석을 져내야 했던 광부들의 지난날의 처지와 우리 광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당의 고마운 은덕에 대하여 이야기해준다. 경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병수는 자기가 버렸던 방수화도 찾아오며 훌륭한 광부로 자라날 굳은 결의를 다진다. 작품은 집단의 믿음과 사랑속에서 로동계급의 대를 굳건히 이어갈 믿음직한 세대로 자라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52(1963)년 6호〕

《계명산천은 밝아오느냐》 장편력사소설. 제1부 주체54(1965)년, 제2부 주체55(1966)년 박태원 창작. 우리 나라 근대력사에서 가장 파란많던 리조봉건사회 말기의 와해과정을 서사적화폭에 담아 불합리한 사회제도는 반드시 무너지고 인민대중이 잘살게 될 사회가 도래한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제1부는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기 수십년전인 1860년대의 시대상을 배경으로 하고있다. 1861년 3월 1일 충청도의 속리산밑

말천내가에서는 한 실성한 늙은 선비가 임진조국전쟁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의지사들의 피흔적이 남아있는 조약돌을 줏고있다. 실성한 선비는 향교말 리생원이였다. 실성은 하였지만 나라를 근심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임금에게 제세안민의 방책을 올리겠다던 리생원은 후날 철종왕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그의 행차에 늘 지니고다니던 조약돌을 던진다. 그는 서울 룡산 삼개에 살았다는 조만준의 이름을 쓰고 붙잡혀죽는다. 한편 너더리 주막주인 박첨지는 자기 주막에서 묵어간 리생원의 호패를 보고 그가 전라도 강진으로 귀양을 간 리명식의 아버지라는것을 알게 되자 그의 시체를 감쪽같이 훔쳐다가 안장한다. 주인공 오수동은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이다. 익산민란에 참가하였던 그의 아버지 오덕순은 효수당할 때 어디에 피신해있는줄도 모르는 아들 수동이에게 자기의 원쑤를 갚아줄것을 부탁한다. 후에 아버지의 피맺힌 원한과 유언을 명심한 수동은 캄캄한 밤에 형장에 새여들어가 《꾸다령감》이라는 별명을 가진 최첨지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시체를 무사히 빼내여 안장한다. 삼종조할아버지인 수월당의 말대로 충청도로 피신해가던 오수동은 포도청군사들의 기찰에 걸려 붙잡힐번 하였으나 때마침 나타난 함창민란의 수창자 정한순에 의하여 구원된다. 제2부는 수동이가 고산 배도사로 된 정한순을 따라 충청도땅에 들어선 후의 3개월 남짓한 기간의 생활을 그리고있다. 충청도에 들어선 오수동은 충주 소일 정참판네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있는 음전이를 만나러 갔다가 불행하게도 정참판네 하인들에게 붙잡혀 죽도록 매만 맞는다. 그리하여 거의 시체가 되여 길가의 풀숲에 버려진 그는 강주부와 조만준의 구원을 받아 비선골 강주부의 집에서 몇달동안 치료를 받는다. 몸이 완쾌된 수동은 본래의 목적지인 속리산 법주사를 버리고 강주부가 가르쳐준 신창 살구나무골의 장선다집으로 찾아간다. 소설은 앞으로 도래하게 될 갑오농민전쟁을 주도적으로 끌고나갈 주인공의 어린시절 생활과 그의 성격장성을 보여주는 기구한 운명선을 펼쳐보이면서 주인공 오수동과 오덕순, 정한순 등의 인물형상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와 맞서싸운 우리 인민의 빛나는 애국투쟁을 보여주고 갑오농민전쟁의 도래를 암시하였다. 그리하여 인민은 다시는 지배계급에게 속히울수 없으며 자기들의 힘으로 이 땅에 찬란한 아침을 가져오고야말것이라는 힘찬 예언을 안겨주었다. 소설은 력사적사변들과 수많은 인물들의 호상관계로 하여 구성이 복잡하지만 인물들의 성격이 생동하게 개성화되여있으며 풍물묘사와 세태묘사, 풍부한 언어구사로 이야기를 구수하게 엮어나가고있는 형상적특징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제1부 주체54(1965)년판, 제2부 주체55(1966)년판〕

《계승》 단편소설. 주체80(1991)년 장수근 창작. 인생의 참다운 의미는 혁명을 위해 바친 전세대의 념원과 지향을 이어받아 후대에게 떳떳이 물려줄수 있게 사는것이라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편집부장인 나는 출장길에 올라 인상이 좋지 못한 신창빈박사와 함께 가게 된다. 그는 늘 원칙만 내세우는 매몰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의 참의미를 깨닫게 되는것이다. 전쟁시기 신창빈박사는 시인이 되기를 열렬히 지망하던 꼬마병사였고 같은 소대의 아바이병사로 불리우던 최장호는 지질학자가 될것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신창빈은 최장호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달리한다. 지질학에 뜻을 두게 된 그의 파란많은 곡절과 높은 애국심, 향학열은 신창빈으로 하여금 최장호의 화선지질학의 조수가 되게 한다. 그후 최장호는 푸른 꿈을 안은채 무명고지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다. 그의 넋을 이어 신창빈은 교수, 박사로 자라났고 지금은 자기 아들에게 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애쓰는것이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바로 최장호, 신창빈과 같은 뜨거운 심

장을 지닌 유명, 무명의 혁명의 전세대들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며 계승되고있다는것을 절감하게 된다. 소설은 신창빈교수의 회상담을 통하여 우리 혁명의 계승문제의 중요성과 의의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조선문학》잡지, 주체80(1991)년 7호〕

《계승자》 장편소설. 주체91(2002)년 백남룡 창작. 총서 《불멸의 향도》중의 한권이다. 소설은 1970년대초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청년문제를 당과 혁명,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새 세대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억세게 키워나가시는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은 항구기계공장 사로청(당시)위원장이였던 림원국이 지방지도사업으로 내려왔던 중앙사로청위원장 장주천에게 정당한 요구를 제기했다가 그의 비위를 크게 거슬린것으로 하여 애매하게 해임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중앙과 지방의 사로청일군들이 구태의연한 사업방법과 작풍에 매달려 사업을 당의 요구와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바로하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로청사업, 청년사업은 힘있게 전진하지 못하고있었다. 청년문제에 언제나 깊은 주의를 돌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시면서 이러한 실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료해하게 되신다. 한창 바쁜 농사철에 농장청년들을 불러일으키는 실속있는 사업을 벌리지 못하고 문건놀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어느 한 리사로청위원장,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관리위원장이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향의 주인으로 되려 하는것이 아니라 도시로 빠져나가려 하는 한 농장청년을 만나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은 무거워지신다. 또한 공장일은 안중에 없이 불량행위에 말려드는 아들 순봉을 교양하기 위해 그에게 짚신을 신겨 밤길을 걷게 하는 전쟁로병인 채혁, 불량행위를 하다가 엄중한 법적제재까지 받게 된 아들 창범을 로동교양소에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도안전국장 한경택, 일시 잘못된 생각으로 뜻하지 않게 과오를 범한 양부모를 타매하며 결별을 선언했다가 그후 그들이 회복된 후 자기를 뉘우치고 돌아온 양아들 재영을 집에서 쫓아낸 시행정위원장 서정환 등의 자식문제들을 통해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각급 당조직들과 사로청조직들이 청년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하였음을 다시금 느끼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로청사업, 청년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러저러한 편향을 시급히 극복할 방도에 대해 모색하시면서 청년사업을 맡은 당중앙위원회일군 차성규, 새로 임명되여 사업하는 도당책임비서 석태진 등 일군들에게 청년문제가 가지는 중요성도 알려주시고 청년사업방향과 방법도 하나하나 일깨워주신다. 그리고 자식문제로 고심하는 시행정위원장 서정환, 도안전국장 한경택, 전쟁로병 채혁에게 자녀교양을 잘하여 바른 길로 자식들을 이끌어주도록 세심한 가르치심과 뜨거운 믿음을 안겨주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로청사업에 남아있는 관료주의, 형식주의와 같은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을 마스고 청년사업을 청년다운 맛이 나게 참신하고 생기발랄하게 벌려나가도록 하시기 위해 젊은 청년일군들로 사로청간부대렬을 꾸릴 결심을 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처사로 해임되였던 항구기계공장 사로청위원장이였던 림원국은 중앙사로청위원장으로 성장하게 되며 각급 사로청지도일군들도 젊고 패기있는 청년들로 꾸려져 사로청사업이 참신하고 활기있게 진행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당조직과 청년조직의 방조속에서 어제날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전쟁로병의 아들 채순봉은 새 탄광개발공사에 참가하여 자신의 성실한 땀을 바쳐간다. 양아버지에게서 배척받고 집에서 쫓겨났던 서

재영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관철을 위해 진행되는 보이라개조에 성실히 참가하면서 아버지와의 오해도 풀고 참된 인생의 길에 들어선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깊이 료해하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새 세대는 선대의 피줄을 이어받지만 사상과 신념은 결코 저절로 유전되지 않으며 오직 선대가 지닌 혁명사상으로 꾸준히 교양하고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킬 때만이 청년들이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다는 진리를 밝혀주신다. 장군님께서는 사로청사업에 정연한 교양체계를 세워주시고 속도전청년돌격대를 무어주신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로청사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 청년운동이 참신하고 생기발랄하게 전개되며 청년들의 사상정신적면모와 생활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난다. 소설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결정을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장으로 용약 떨쳐나선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이 장엄한 홰불시위를 진행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작품은 이채로운 인물성격들과 생활사건들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진실하게 펼쳐보임으로써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의 꽃,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끝없이 믿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모두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친근한 스승이시라는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각이한 청년들의 심각한 인간문제를 깊이 파고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고있으며 사건선을 흥미있게 펼치고있다. 이밖에도 청년들의 다양한 생활을 보여줄수 있는 폭넓은 인간관계의 조직, 매 인물의 복잡한 심리정서세계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 등 예술적형상화에서도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1(2002)년판〕

《귀결》 단편소설. 주체73(1984)년 김병훈 창작.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지도일군들이 가져야 할 사상관점과 사업태도에 대한 문제를 취급한 작품이다. 도경제지도위원회 부위원장 한경수는 원흥광산확장건설을 책임지고 현지에서 지도하던 어느날 이곳에 내려와 일하고있는 군인민위원회 공업담당지도원이였던 윤광순을 알게 된다. 그는 지난해에 숱한 기름작물을 썩인 사고의 책임을 지고 강직된 사람이였다. 경수는 그에 대하여 료해하던 과정에 그 사고의 장본인이 건조장을 만부하로 돌리는데 필요한 석탄과 전력을 보장해주지 못한 자기자신이라는것을 알고 자책감을 느끼게 된다. 경수는 광순이가 아무 내색없이 건조장을 잘 꾸려 광산뿐아니라 군의 기름수요를 해결하며 건조장의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기 위해 소형발전소를 건설하려고 애쓰고있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는다. 그는 이제라도 광순이를 도와주리라 결심하고 그를 소형발전소건설책임자로 내세우고 그와 힘을 합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해결한다. 소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당정책관철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당을 받드는 일군들의 깨끗한 충실성과 높은 책임성에 있으며 상하가 서로 합심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일해나갈 때 실제적인 사업성과로써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3(1984)년 6호〕

《귀국선 뜨는 날은 날이 개이네》 서정시. 주체49(1960)년 남시우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어주신 귀국의 배길을 따라 귀국선이 뜨게 된 뜻깊은 날을 맞는 재일조선동포들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귀국선 뜨는 날은 날이 개인다는데 형상의 초점을 두고 비와 구름이 걷힐새 없는 니이가다항구의 자연환경과 귀국선이 뜨는 날의 기쁨과 감격을 대조시켜 노래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해빛을 받아안은 재일동포들의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행복과 자랑을 시적으로 깊이있게 일반화하고있다.

항구에 새 전설이 돌았네
어른들도 반가와라 이야기하였네
아이들도 즐거워라 노래불렀네
－귀국선 뜨는 날은 날이 개인다－고

시는 정서적흐름에서 감정표현의 진실성과 소박성을 보장하면서 그 바탕에 뜨거운 열정을 안받침하고있는것이 특징이다.〔《해방후 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귀국일가》 단편소설. 주체58(1969)년 리호인 창작. 조국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받아안은 재일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저주로운 일본땅에서 마소같이 고역에 시달리다가 로사고로 억울하게 한눈을 잃은 립철은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에 안겨 ㄱ제철소에서 일하면서 비로소 참된 삶을 받아안게 된다. 어느해 제철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만나뵙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담긴 말씀까지 받아안은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수령님께 충정다할 불타는 결의를 다졌고 자신뿐아니라 자기 가정모두가 강철생산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한다. 나이가 많아 집에 들어온 그는 어느날 모범용해공으로 알려진 큰아들 창수가 강철전선은 1211고지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제철소가 들끓고있을 때 휴양갔다는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꾸짖으며 아들을 대신하여 그가 일하는 용해장에 나간다. 용해공들과 함께 땀흘리며 일하다가 휴식하던 그는 문득 휴양간줄 알았던 아들 창수가 되돌아와 함께 일하고있음을 알고 못내 기뻐한다. 작품은 간결한 오해선과 째인 사건조직, 인상깊은 생활세부들을 통하여 귀국동포들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는 귀국일가의 생활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조선문학》 잡지, 주체58(1969)년 1호〕

《귀향》 단편소설. 주체77(1988)년 정창도 창작. 고향을 방문하여 진정한 조국과 행복의 진가를 알게 되는 한 해외동포를 형상한 작품이다. 카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금융계의 중견으로 인정받고있는 리상훈은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를 모셔가기 위해 조국을 방문한다. 상훈은 고향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과정에 침수된 갱속에 들어가 동지들을 구원하고 희생된 소꼽친구 정손의 소행과 해방전 깍쟁이로 소문났던 국수집어머니가 새땅을 일쿠어 거둔 알곡을 애국미로 바친 사실 그리고 자기를 대신하여 상제가 되여주고 아버지의 봉분을 돌보아준 고향사람들에 대하여 알게 된다. 고향사람들이 발휘하는 인정과 의리의 아름다운 세계는 자기가 살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전혀 찾아볼수 없는 현상이였다. 특히 세쌍둥이를 낳고 사경에 처한 국수집어머니의 딸을 위해 비행기가 날으는 현실앞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상훈은 내 조국, 내 고향이 얼마나 귀중하며 행복한 땅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때에야 비로소 어머니를 모셔가려던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였음을 느낀 상훈은 조국을 잊을번 했던 자신을 깊이 뉘우친다. 소설은 우리 조국이야말로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참다운 삶의 품이며 그 품속에서 누리는 행복이 값높은 행복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조선문학》 잡지, 주체77(1988)년 11－12호〕

《과수원》 단편소설. 주체44(1955)년 한경 창작.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는 인민군군인들의 고상한 풍모를 그린 작품이다. 목포시를 해방하기 위한 전투에 참가하기 위하여 행군을 다그쳐가던 김병호대대는 종점인 앵두마루고개를 얼마 앞두고 멈춰서게 된다. 우측은 진펄이고 좌측은 벼랑이여서 앞에 있는 과수원을

통과해야 시간을 보장할수 있게 된 대대장은 주인을 찾으러 갔던 대원마저 그냥 돌아오게 되자 난감해한다. 다음순간 그는 대원들에게 과수원을 통과할 때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이야기하고나서 행군명령을 내린다. 한편 인민군대에 대한 반동선전에 넘어가 숨어있던 주인로인은 인민군대가 지나간 뒤에야 움막에서 나온다. 로인은 간작으로 심은 농작물을 피해 한사람이 지나간것처럼 발자국이 나있는데다가 익은 사과 한알 다치지 않았을뿐아니라 끊어놓았던 가시철조망까지 이어놓고가는 인민군군인들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란다. 가을이면 꼬리를 물고 달려들어 난탕치던 미국놈들이나 괴뢰군놈들, 경찰놈들과는 너무나 다른것이였다. 그제야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였다는것을 안 로인은 달구지에 과일을 싣고 대대장을 찾아와 한생에 이런 군대는 처음 보았다고 감탄한다. 대대장은 로인이 소와 과일을 내놓자 그의 성의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소는 돌려보낸다. 작품은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인민속에서 나온 인민을 위한 군대라… 백성을 위한 백성의 군대가 아니구서야 이렇게 정답구 간곡하구 용감할수 없지.》하고 중얼거리는 로인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키우신 인민군대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군대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44(1955)년 6호〕

《과원에 꽃필무렵》 단편소설. 주체60(1971)년 장수근 창작.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한 6개년계획의 첫 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농촌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100일전투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중간총화모임에 참가한 선봉협동농장 과수3분조장 권형도는 원예기수 손철수의 말에 깜짝 놀란다. 고등농업기술학교를 졸업하고 3분조에 배속된 그가 과수반의 기술소조책임자로서 과학적인 과수농사를 주장하면서 약치기를 미루고 뜨락또르길을 새로 닦는 한편 뜨락또르의 동력분무기와 수동식분무기를 배합한 시비체계를 세울것을 제기한것이다. 그러나 형도는 틀에 박힌 경험에 매달려 그것을 못미더워한다. 그는 철수에게 한구역만 떼맡겨 시험삼아 해보게 하려고 하지만 철수는 농촌기술혁명에 관한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린다. 철수는 늦서리를 막기 위한 연기풍김을 제때에 조직하고 수동식분무기의 약물젓개를 반자동식으로 개조하며 새 과원을 조성하고있는 백새골과 느릅골의 험한 산턱에 길을 번듯하게 낸다. 그리고 약물뿌리기를 꽃피기 직전에 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높인다. 소설은 과학적인 영농방법으로 과원을 훌륭히 꾸려나가는 주인공과 경험만 내세우며 어방치기로 일하는 분조장의 대조적인 형상을 통하여 이 땅의 주인으로 억세게 자라는 청년들의 슬기로운 모습을 소박하면서도 담담한 필체로 묘사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0(1971)년 10호〕

《과원의 새아침》 단편소설. 주체58(1969)년 김창수 창작. 과수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북청회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자기 힘으로 과원을 더 잘 가꾸어나가는 과수농장 농장원들의 투쟁을 보여준 작품이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과수농장에 기사로 배치받은 명식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으로 마련된 풍요한 과수원을 더 잘 꾸려나갈 결심을 다지고 밤늦도록 작업반청년들의 기술학습도 지도해주고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 농장청년들과 함께 일도 한다. 그러던 어느날 농장관리위원회 회의에 참가했던 명식기사와 원집작업반장은 왕가물이 예견된다는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된다. 명식은 사과나무들에 대한 인공수정을 조직하는 한편 도농촌경리위원회에 있는 아버지에게서도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그것을 알게 된 원집은 우에서 도움을 받는것이 죄스럽다고 하면서 우물을 파고 지하수를 얻어 자체의 힘으로 가

물을 이겨내자고 한다. 명식은 원집의 충고를 듣고 성실하게 일하는 농장원들에게 자신을 비추어보며 심각히 뉘우치게 된다. 소설은 우리 인민들에게 풍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충실하게 받들어나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신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면서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과수업발전의 빛나는 력사를 감동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8(1969)년 3호〕

《곽령감》 단편소설. 주체71(1982)년 구경서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정권을 지켜 한목숨 바쳐나선 해방지역 한 배사공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조선서해안의 한 등대섬은 전쟁전까지 미제의 강점하에 있다가 전쟁이 시작되면서 인민군대에 의해 해방된 곳이다. 그런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면서 이 마을에 적들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 섬에서 성미가 괴벽하기로 소문난 배사공 곽령감은 처음 오돌석이가 달려와 배를 쓰자고 할 때 반갑지 않게 대한다. 곽령감은 오돌석이와 크게 싸운 일이 있어 그를 늘 쏜외보듯 대해왔던것이다. 그러나 리인민위원회에서 등대의 발동기를 소개하고 부상자들을 후송한다는것을 알게 되자 그를 도와나선다. 원쑤들이 섬에 들어와 발동기를 숨겨둔 곳을 알아내려고 날뛸 때 곽령감은 인민학교 교장실에서 심문을 받는다. 그 방에서 곽령감은 등대섬에 학교가 생겨 손자가 학생이 되였고 자신은 새로 분여받은 제땅에서 흥에 겨워 농사하게 되였으며 발동기가 들어와 전기불이 비치는 밝은 세상에서 살게 되였던 행복한 나날에 대하여 회상한다. 곽령감은 발동기가 섬에 없다고 하면서 원쑤들을 배에 태우고 바다로 나간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는 배를 침몰시켜 원쑤들을 모조리 수장해버린다. 소설은 인민정권이야말로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된 생활을 마련해주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며 이것을 심장으로 깨달을 때 인민의 정권을 지켜 한목숨 바쳐싸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1(1982)년 12호〕

《관리위원장의 딸》 단편소설. 주체83(1994)년 김상현 창작. 새 세대 지식인으로서의 시대적의무를 자각하고 고향마을을 꽃피워나가는 우리 시대 지식인들의 참다운 풍모를 보여준 작품이다. 아름답고 깨끗한 외모와 비단결같은 마음씨로 하여 뭇총각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있는 라은미는 농업대학통신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온다. 고향에 돌아와 새 농기계를 창안하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는 은미에게 군에서 대상자가 제기된다. 은미의 어머니는 군에 있는 총각에게 딸을 시집보내려고 하나 말을 듣지 않는다. 은미는 수리분조에서 함께 일하며 통신을 같이 다닌 혁찬이에 대한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있는것이다. 그들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마을을 꽃피워 농촌테제를 관철함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약속한다. 이 나날에 은미와 혁찬이사이에 사랑이 움튼다. 은미의 아버지 라범수관리위원장도 고향을 꽃피우려는 두 청춘남녀의 사랑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성한다. 세월은 흘러 라범수의 뒤를 이어 라은미가 관리위원장사업을 하게 되고 혁찬은 기사장이 된다. 소설은 그 어떤 직위나 명예를 바람이 없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고향마을을 꽃피우면서 참된 사랑을 맺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83(1994)년 3호〕

《관북의병장》 장편력사소설. 주체76(1987)년 리유근 창작. 임진조국전쟁시기 의병장 정문부를 중심으로 한 함경도인민들의 슬기로운 의병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소설은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던 주인공 정문부가 함경도 경성에 있는 북병영의 병마절도사를 보좌하는 병마사로 임명받고 내려오

는데서부터 시작된다. 봉건지배층내부에서는 파벌싸움이 치렬하게 벌어지고 왜놈들이 또한 우리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복잡한 정세를 통탄하던 정문부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하나 수습해보려고 애썼으나 오히려 봉건통치배들의 비난만 받고 따돌리우게 된다. 바로 이러한 때 일본침략자들의 불의의 침공으로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난다. 극도로 당황망조한 봉건통치배들은 나라와 백성이 어떻게 되든 제 한몸만 건지면 그만이라고 모두 도망쳐버린다. 정문부는 함경도 북단까지 기여든 왜놈들과 싸워도 보지 않고 달아날 궁리만 하는 북병사를 추동하여 길주성이남 해창에서 조선침략의 함경도 선봉장 가또 기요마사의 대군과 첫 전투를 벌리나 북병사의 도주로 싸움에서 패하고 자신은 심한 부상을 입는다. 리봉수와 배첨지를 비롯한 그곳 인민들과 군사들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는 은신처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된다. 그러나 그사이 적들은 벌써 함경도의 전지역을 거의다 강점하였고 게다가 변절자 국세필은 회령에 피난온 두 왕자를 사로잡아 왜놈에게 바치는 반역행위를 저지른다. 이 반역행위에 통탄을 금치 못한 정문부는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리봉수, 강문우 등을 거느리고 단신으로 경성에 들어가 반역자 국세필을 단호히 처단하고 반란군사들을 애국의 편으로 돌려세운다. 그러나 봉건충군사상과 백성천시사상에 물젖어있던 그는 의병대오를 광범한 대중속에 의거하여 꾸려야 한다는 리봉수의 주장을 물리치고 선비들과 6진관병들을 기본으로 꾸린다. 이렇게 꾸려진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정문부는 길주에서 왜놈주력부대의 하나인 나베시마부대와 맞다들어 관북의병대의 첫 싸움을 벌린다. 그러나 그가 그처럼 믿었던 리성길을 비롯한 량반지휘관들의 무능으로 싸움은 처음부터 수세에 빠져 의병대는 거의 붕괴직전에 처한다. 바로 이때 류현무가 지휘하는 농민폭동군인 박새골화적패들이 나타나 놈들을 통쾌하게 족치고 싸움을 승리에로 급전시킨다. 화적패들의 슬기로운 투쟁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던 농군 황득항의 장렬한 최후를 직접 목격한 정문부는 백성들을 홀시하던 지난날의 자기 견해를 심각히 돌이켜본다. 마침내 그는 류현무네와 손을 잡고 쌍포싸움에서 크게 승리하며 백성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하여 굳게 확신한다. 그러던 그는 교활한 왜놈들의 간계와 그의 공로를 시기하는 정현룡의 모해로 파직되여 류배살이를 한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의거하여 류배지의 반역자 국경인을 처단하고 시골사람들을 묶어세워 의로운 투쟁을 벌린다. 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로 의병장으로 복직된 정문부는 함경감사가 길주 독산전투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용약 달려나가 길주 백탑령에서 최후결전을 벌린다. 이 전투에서 리봉수가 장렬하게 전사한다. 작품은 의병대의 영용한 투쟁으로 길주성이 해방되는것으로 끝난다. 소설은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나라를 침략한 원쑤들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불타는 적개심과 반침략애국주의정신을 실감있게 형상함으로써 나라의 참다운 수호자는 인민대중이라는것을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6(1987)년판〕

《광명을 찾은 사람들》 장편소설. 주체69(1980)년 김원종 창작. 괴멸의 운명에 처했던 어느 한 독립군부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사로운 손길에 의하여 구원되여 혁명의 참된 길에 들어서는 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의 첫 부분에서는 점차 와해의 일로를 걷고있는 독립군부대의 생활을 보여주고있다. 독립군부대의 사령인 손무경이 일제의 마수에 걸려 희생된 후 부대는 전덕산이 사령직을 맡고 박승규가 참모장으로 되였으나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전덕산은 1중대와 2중대를 데리고 심산오지로 들어가고 박승규는 3중대를 데리고 압록강연안의 깊은

수림지대로 종적을 감춘다. 소설의 다음부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견하신 조선인민혁명군 련락대표 리병주와 장인권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고있다. 전덕산은 리병주를 통하여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을 받아안게 되며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소식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의 안부를 념려하시였다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듣고 조선인민혁명군에 합세하는데 호응해나선다. 이어 점골에 있는 박승규를 찾아 떠난 리병주는 그에게 백두산일대에서의 인민혁명군부대의 활동소식을 전하며 그의 말을 들은 박승규는 헛되이 살아온 자기 일생을 통탄하며 조용히 눈을 감는다. 박승규의 뒤를 이어 중대를 맡게 된 그의 사위 최봉국은 공산주의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부대에 나타난 리병주에 대하여 좋지 않게 대한다. 그러나 그의 꾸준한 설복과 교양, 인간됨에 감동되여 최봉국은 끝내 개변되여 부대를 이끌고 리병주와 함께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간다. 행군도중 중대는 무서운 식량난과 일제특무인 유경락의 모략에 의하여 적의 포위에 드는 등 위험한 고비를 여러번 겪는다. 그러나 병주의 희생적인 투쟁에 의하여 유경락의 정체는 밝혀지게 되며 중대는 전덕산부대와 감격적으로 상봉하여 끝내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가 있는 밀영에 이르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선을 헤치고 찾아온 독립군의 모든 병사, 지휘관들을 포옹해주시며 그들을 진정한 애국자, 혁명가라고 뜨겁게 불러주신다. 작품은 조선인민혁명군 공작원의 혁명적영향과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파멸의 운명에서 구원되여 조국해방의 성스런 투쟁대오에 들어서게 된 한 독립군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69(1980)년판〕

《광명의 별》 장편과학환상소설. 주체91(2002)년 박종렬 창작. 인류가 사는 지구에 무서운 화를 가져올 우주의 불가항력적인 힘을 최첨단우주과학성과로 물리치고 인류의 영원한 행복을 가져온 조선의 과학자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보여주고있는 작품이다. 서장과 3개의 편으로 구성되여있다. 소설의 첫 시작은 우리 나라에서 새로 개발한 새형의 우주수송선 《지원》호가 평화로운 우주개발을 위해 목성에로의 시험비행중 원인모르게 폭발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우주수송선에는 우리 나라의 우주개발성 우주수송국 로케트부장인 30살의 젊은 과학자 리정민이 타고있었다. 우주의 왕자라고 불리울수 있게 최신과학기술로 창안제작된 수송선에서 일어난 뜻밖의 사고로 하여 성에서는 구조대를 무어 목성공간에 대한 탐색을 3년동안이나 진행하였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였으며 그로 해서 리정민의 행처와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해명할수 없었다. 《지원》호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제일 가슴아파하고 슬퍼한것은 인공위성제작소에서 일하는 리정민의 애인인 녀기사 정일심이였다. 일심은 《지원》호가 폭발된 후 5년동안 위성제작에 대한 연구뿐아니라 로케트에 대한 연구까지 폭넓게 진행하여 《지원》호가 파괴된 원인을 해명하기 위한 피타는 탐구의 날을 보낸다. 이 과정에 일심은 인공지구위성제작력사상 기술수준이 최고에 이른 《광명성 216》호를 완성하며 《지원》호가 제작상결함이 없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한다. 우주개발성 허일부상은 《광명성 216》호를 화성지하탐사에 리용하려고 하지만 정일심은 그와 견해를 달리하여 응당 그 능력에 맞는 보다 더 어렵고 중대한 일에 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러한 때 국가과학원 평양천문대에서는 천체운동에 대한 자리길을 연구하던중 앞으로 36년후에 2056 Ⅶ혜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될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여 온 세상에 알린다. 평양천문대의 공보가 세상에 알려지자 세계의 모든 통신수단들은 소란스럽게 떠들면서 그 재난

을 막을수 있는 방도를 모색할것을 국제과학자련합에 제기한다. 그리하여 빠리에서는 지구에 닥쳐올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과학자들의 회의가 열린다. 닷새동안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우주의 재난을 막기 위한 방도로 혜성소멸론과 궤도변경론이 토의되였는데 여기서 소멸론이 현실적으로 제일 가능하고 승산있는것으로 인정되여 조선의 과학자들을 위주로 하여 혜성을 우주공간에서 소멸하기 위한 《111호작전》이 세워진다. 이 작전을 수행하는데서 제일 난문제로 제기된것은 운반로케트제작과 거대한 폭발력을 가진 반물질생산이였다. 정일심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주로케트로서 이미 전에 제작완성된 《지원》호를 지목하고있었지만 허일부상과 로케트부장인 박철은 아직 《지원》호의 폭발원인을 해명하지 못한 조건에서 그것은 두고보아야 할 일이라고 반대한다. 정일심은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여러가지 자료를 연구하는 과정에 이미 70년전에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과학자가 목성권내에 대한 시험연구를 하던중 《지원》호와 꼭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명을 잃었으며 그 원인을 밝힐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지구에 남겼다는것을 알게 된다. 일심은 세계 여러 나라 과학자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그것이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지난 시기 별세계전쟁을 꿈꾸면서 다른 나라의 선진우주과학기술을 탈취하고 자기의 경쟁자들을 없애버리기 위해 우주공간에 고도의 인공지능을 가진 무인인공천체를 설치함으로써 그것이 100여년동안이나 자동적으로 가동되여 다른 인공위성들을 기습파괴하거나 나포하였다는것을 밝히게 된다. 목성권내에 배회하면서 《승냥이》라는 자호를 달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들을 타격하던 무인인공천체에 대한 정체가 명백히 밝혀짐으로써 《111호작전》 수행에서는 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된다. 조선의 과학자들이 우주의 재난을 막기 위해 세계의 진보적인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어려운 과학탐구의 날을 보내고있을 때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다가올 무서운 재난앞에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절망에 사로잡혀 타락된 생활을 하고있었으며 극소수 보신주의자들은 저들만을 위한 허황한 《우주거주지》창설을 제창하고있었다. 정일심과 박철을 비롯한 조선의 과학자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는 전세계 인류앞에 《111호작전》에 대한 신심을 주기 위해 최도초를 비롯한 젊은 과학자들에 의하여 새로 제작된 만능탐지기로 장비된 《지원》호를 타고 목성에 대한 시험비행을 진행하여 《승냥이》호를 파괴하고 거의 7년동안 생사를 알수 없었던 리정민기사도 기적적으로 찾아내여 무사히 지구로 돌아온다. 《지원》호의 폭발위험이 완전히 가셔지자 일심은 2056 Ⅶ 혜성에 대한 관찰을 위해 우주수송선 《지원》호를 타고 또다시 우주에 올라 인공위성 《광명성 216》호로 혜성소멸작전에 필요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구에 보낸다. 그리하여 혜성소멸을 위한 《111호작전》은 초기에 계획하였던 20년후가 아니라 그 날자를 앞당겨 5년후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전세계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세계우주과학의 최첨단에 서서 인류의 과학발전에 이바지하는 조선의 과학자들의 슬기와 재능, 그 무궁무진한 힘과 위력을 보여주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 주체91(2002)년판〕

《광복의 길 찾는다》 가사. 주체54(1965)년 리호일 창작. 조선예술영화 《한지대장의 이야기》의 주제가. 일제침략자들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는 한마음으로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혁명의 길을 찾아 끗끗이 나아가는 녀주인공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불타는 지향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혁명의 길을 찾아 가도가도 끝이 없는 시련의 가시덤불길을 헤쳐

가는 서정적주인공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깊은 서정속에 감명깊게 펼쳐보여주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조국해방을 위하여 한번 다진 맹세를 변함없이 지켜가려는 주인공의 확고한 의지와 불타는 지향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조국해방을 위한 혁명의 길에 청춘을 값있게 바쳐싸운 혁명선렬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깊은 서정속에 감명깊이 형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커다란 사상정서적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영화노래 11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2(1993)년판〕

《광복의 해발》 장편소설. 주체71(1982)년 박유학 창작.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에 속하는 작품이다. 주체26(1937)년 봄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로부터 지하공작임무를 받으신 김정숙동지께서 도천리를 중심으로 한 창바이(장백)일대와 국내 신파지구에서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하시고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시는 모습을 형상하고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창바이(장백)에서 푸쑹(무송)지구로 행군하던 길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지하공작임무를 받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지께 도천리를 중심으로 한 하강구일대와 신갈파지구에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하고 혁명적 군중지반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국내에 백두산근거지와 같은 하나의 혁명기지를 마련하는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이 북부조선일대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백두산근거지를 랑림일대에로 확대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신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도천리일대에서의 지하공작이 가지는 의의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또 그 일대의 지하조직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있다는 통보를 받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임무수행을 잠시도 지체하실수가 없으시였다. 그리하여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제 고개 하나를 넘으면 큰골마을이 나지고 그러면 하루밤 동무들과 함께 언몸을 녹이고 떠나실수도 있었으나 공작지를 향해 눈보라치는 수백리 산길을 결연히 떠나신다. 구장 강성태의 사촌누이로 가장하여 도천리에 들어가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첫날부터 커다란 난관에 부닥치신다. 그것은 이곳을 《안민촌모범부락》으로 꾸리려는 일제와 그 주구놈들의 책동과 함께 농사철에 온 부락사람들을 산판목재소와 집단부락, 포대쌓기에 내몰아야 하는 구장의 누이라는것때문에 사람들의 배척을 받게 되신것이였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온갖 모욕을 참아가시면서 춘옥이네 장작도 패주시고 그 집 앓는 로인의 병도 구완해드리시며 쌍별이의 저고리도 지어주신다. 또한 백지주집에서 머슴을 살고있는 칠봉로인이 어느날 방목하던 돼지 한마리를 잃어 온밤 산속을 헤맬 때에는 끝내 돼지를 찾아주신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처럼 지성과 사랑을 다 바쳐 춘옥이와 쌍별이, 칠봉로인 등을 돌보아주시며 백지주놈이 춘옥이네 소를 빼앗아갔을 때에는 한몸을 내대고 사리를 밝혀 찾아주심으로써 마을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시였다. 하지만 그 일로 하여 놈들의 의심을 받게 되고 가와사끼와 아라가와, 백지주와 함석필 등의 2중, 3중의 감시속에 들게 된다. 강성태와 권용산은 김정숙동지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애타게 호소한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한시바삐 수행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시며 더욱 과감한 투쟁을 벌려나가신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경성고보에 다니다가 독서회사건으로 출학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정신적으로 방황하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있던 지식청년 지세경을 이끌어 야학을 운영하도록 하신다. 뿐만아니라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인 도천리지부 부녀조직

을 결성하시고 마을녀인들을 조직에 묶어세우신다. 처음 남편조차 어렵게 대하고 가정살림밖에 모르는 어리숙한 농촌녀인에 불과하였던 춘옥은 김정숙동지의 교양을 받으면서 점차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혁명적으로 단련됨으로써 마침내 부녀회장으로, 마을녀인들을 혁명의 길로 이끄는 녀성혁명가로 성장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산판의 목재소로동자들과 강건너 신파지구의 벌사촌과 읍거리에로 조직을 확대해나가시면서 정력적으로 활동하신다. 이 나날에 함석필놈의 밀고로 신파에 나갔던 권용산이 밀정의 추격을 받아 희생되는 참변이 벌어진다. 조직은 위기에 처하고 동지들은 또다시 피신할것을 권고하였으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추호의 동요도 없이 강성태를 시켜 백지주놈을 눌러놓게 하시는 한편 권용산대신 산판의 목재소로동자들속에 들어가시여 반일청년동맹을 결성하신다. 소설은 이처럼 광복의 해발이 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뜨거운 사랑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고 그들을 혁명에로 불러일으키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3(1984)년판〕

《광부》 단편소설. 주체55(1966)년 김보행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새로운 갱을 건설하여 시련을 겪는 조국을 떠받드는 고임돌이 된 광부들의 영웅적이며 애국적인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적들의 맹폭격속에서도 룡바우기슭에 새로운 갱이 건설되게 된 어느날 광산의 혁신자로 이름을 날리다가 전선에 나갔던 영예군인 김철우가 갱장으로 오게 된다. 그는 자기에게 일을 배워준 갱장 기범아바이가 지배인으로 되고 장사군이던 사람이 돌을 캐는 광부로 변했으며 잘사는 집의 딸이 갱에서 열성적으로 일하는것을 보면서 불과 2년밖에 안되는 사이에 많은것이 변모되였고 위대한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느끼게 된다. 한편 그는 혁신자로 함께 이름을 날리던 기능공 태수가 처가집으로 가버린 사실과 자기의 약혼녀였던 남숙이가 룡바우기슭에 압축기를 옮겨가던 날 밤 전동기를 몸으로 덮고 희생된 사실을 알고 전쟁으로 인한 시련을 가슴사무치게 체험한다. 갱구공사를 시작한지 한주일이 지날 동안 줄곧 현장에서 시간을 보낸 철우는 진척되지 않는 공사와 갱을 떠난 태수에 대한 불만과 노여움 그리고 월 100m씩 밀어제끼던 지난날의 자기와 무력해진 오늘의 자신을 대비해보면서 공사를 앞당겨 전쟁승리에 이바지할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진다. 부속품의 부족, 기술기능의 결핍 등으로 일에서 애로를 느낄 때마다 가버린 태수가 몹시 그리워진 철우는 그를 찾아가 그에게 광부의 량심을 지켜 살도록 일깨워주어 다시 갱으로 오게 한다. 그리고 갱공사를 더욱 앞당기기 위하여 착암기종합받침대를 만들어내며 갱구앞에 시한탄이 떨어졌을 때에는 갱기술지도원 최용녀와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제거하여 갱도굴진이 제 기일내에 시작되도록 한다. 소설은 준엄한 시련이 겹쌓일수록 광부들의 강의한 의지는 더욱 굳세고 정의로운것으로 되였으며 투쟁은 어렵지만 역시 뚫고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5(1966)년 5—6호〕

《광산후보지》 단편소설. 주체68(1979)년 장수근 창작. 풍부한 조국의 자연부원을 찾아낼 남다른 생각을 안고 지질탐사의 길에 나선 한 꼬마탐사대원을 키워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을 형상한 작품이다. 작품은 한 도시에 출장온 내가 같은 려관의 한호실에 든 지질탐사원소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여있다. 량강도의 어느 중학교학생인 철훈은 자기가 찾아낸 광물표본들과 탐사보고를 가지고 지질총국에 찾아갔었다. 그때 철훈을 만나본 총국장의 지시로 다른 지방으로 새 광산후보지 출장을 가게 되였던 총국지도원이 방학기간 소년과 함께 바로 그 도시에 오게 된것이다. 어

느날 려관에 든 철훈이가 밤중에 혼자 깨바위를 찾으러 나간 사실로 하여 려관 호실전체가 떨쳐나 그를 찾아다닌 일도 있었다. 철훈의 탐사결과 그 고장에 깨바위가 없다는것이 확증되자 총국장은 그의 지질탐사에 대한 귀중한 싹을 키워주기 위해 다시 그가 지도원과 함께 나머지 방학기간에 랑림지구의 탐사에 참가하도록 한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진짜 광산후보지는 조국의 자연부원을 찾아낼 큰 포부를 안고있는 후대들에게 있다는것을 밝히면서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데 진정을 기울이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8(1979)년 11호〕

《광장에서》 서정시. 주체42(1953)년 조벽암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인 승리를 경축하는 광장에서 느낀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후복구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야말 혁명적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전승광장에 높이 우러러모신 우리 인민의 끓어넘치는 감격과 환희를 토로하면서 승리의 광장에 넘치는 감격의 눈물과 웃음, 기쁨은 바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흠모와 존경, 충실성의 표시라는데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또한 시에서는 수령님께서 오늘 펼치신 전후복구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는 《우리의 찬란한 생활》이라고 하면서 《조국과 당과 수령님의 부름을 받들어》 또다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충정의 결의를 보여주고있다. 시는 승리의 광장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새로운 투쟁결의를 다지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혁명적랑만이 나래치는 깊은 서정으로 보여주고있다. 〔종합시집《수령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주체57(1968)년판〕

《광주가 부르는 소리》 시초. 주체81(1992)년 동기춘 창작. 조국통일을 위해 몸바친 광주의 애국렬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노래한 작품이다. 《5월이면》, 《하나》, 《광주의 눈》, 《불길》, 《광주가 부르는 소리》의 5편으로 구성되여있다. 시《5월이면》에서는 바람과 비, 벼락과 물새라는 자연정서에 의탁하여 광주의 애국렬사들에 대한 겨레의 비분의 감정과 통일을 가로막는 미제와 매국노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준렬한 규탄의 목소리를 시화하고있다. 《하나》에서는 조국통일, 이 하나의 열망을 안고 희생된 그들은 오직 조국통일로만 위로할수 있다는것을 토로하면서 광주의 원혼을 위로할것이란 통일된 조국을 그 영령앞에 놓는것이라는 결구로써 내용을 심화시키고있다. 《광주의 눈》에서는 생죽음을 당하여 감지 못하고 간 렬사의 눈은 죽은 눈이 아니라 통일을 보지 못하여 감지 못한채 두고간 눈이며 광주의 애국렬사들의 그 눈과 우리의 모든 눈을 합쳐 7천만겨레의 눈으로 미제와 매국노들을 심판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함으로써 광주의 원혼이 두고간 눈을 조용히 감겨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철학적주장을 펼치고있다. 《불길》에서는 미국성조기에 불을 단 광주의 첫 불길이 남녘의 온 천지에 타번져서 조국통일의 노을을 불러오고 그 노을속에 자주와 민주의 봄씨앗을 키워갈것을 열망하는 시인의 호소를 내용으로 하면서 독자들에게 통쾌하고 락관적인 정서를 안겨주고있다. 마지막시에서는 《광주가 부르는 소리》, 그것은 통일이며 이 통일은 불러서 오는것이 아니라 겨레의 피타는 투쟁으로 안아와야 할 민족의 과업이라는것을 노래하고있다. 시초는 예리한 감정과 정서적체험, 깊은 사색에 기초한 생동한 어휘표현과 기백있고 줄기차며 약동적이고 랑만적인 정서적흐름, 짧고 간명한 시문장조직 등 형상적특성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81(1992)년 제21호〕

《광주는 부른다》 영화문학. 주동인 창작. 력사적인 광주학생사건을 내용으로 한 작품이다. 광주의 어느 한 중학교학생인 정세운은 반일력사가라는 딱지가 붙어 일제에게 체포되였다가 돌아간 아버지가 집필하던 유고를 완성하는것을 자기가 지닌 의무로 생각한다. 어느날 세운은 광주의 유지이며 민족개량주의자인 문소연의 아버지 문익상으로부터 조선독립을 위하여서는 우리 민족이 월등민족으로 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실력배양이 급선무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러나 세운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문익상의 주장이 속되고 허무한것임을 깨닫게 된다. 조선사람에 대한 일제의 민족적모욕과 멸시가 로골화됨에 따라 반일감정은 더욱 격화되며 이것은 조선인학생들과 일본인학생들간의 야구경기를 통하여 더욱 높아진다. 그러던 어느날 광주－라주행 렬차칸에서 데라우찌를 비롯한 일본인학생들이 조선처녀를 모욕하며 조폭한 행동을 하는것을 본 세운과 조선학생들은 놈들에게 된매를 안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놈들은 조선사람을 마구 죽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일본인학생들을 부추긴다. 그리하여 데라우찌를 비롯한 일본인학생들은 백주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조선인학생들에게 이리떼처럼 달려들며 이 과정에 세운은 친구인 동수를 잃게 된다. 일제놈들의 만행에 더는 참을수 없게 된 세운을 비롯한 조선청년학생들은 투쟁에 일떠서며 문익상의 딸 문소연도 민족의 힘을 나약한것으로만 개탄하며 시대의 흐름에 외면하고 있는 가정의 문을 박차고 시위대오에 들어선다. 일제는 경찰과 군대까지 동원하여 탄압함으로써 광주땅은 애국적청년학생들의 피로 물든다. 광주학생시위는 실패했으나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것을 절감한 세운과 청년들은 지도자를 찾아 당시 반일투쟁의 중심지였던 지린(길림)으로 떠난다. 세운은 이 길에서 함께 가던 소연이를 잃게 되지만 새로운 투쟁의 신념을 다지며 지린(길림)으로 간다. 작품은 일제의 그 어떤 총칼도, 기만술책도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을 멈춰세울수 없으며 우리 인민은 력사적으로 민족적존엄과 기개를 지켜 굴함없이 싸워왔다는것을 보여주면서 혁명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면 옳은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것을 밝혀내고있다. 작품은 주체74(1985)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광주의 새벽》 단편소설. 주체69(1980)년 남대현 창작. 량심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파쑈독재를 반대하는 항쟁의 거리에 나서는 한 남조선시민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광주시에서 운송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유원일은 거리에서 전두환파쑈도당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그를 외면한다. 4.19인민봉기때 대학생으로서 항쟁의 거리에 나섰던 그였으나 투쟁의 결과가 매국노들에게 빼앗기는데 락심하고 주저앉아버린것이다. 이러한 그는 항쟁의 선두에서 계속 싸우다가 체포되여 15년째 감옥살이를 하고있는 대학동창생 진호와 그의 뜻을 이어 투쟁의 길을 걷고있는 진호의 안해 영옥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는다. 그러던 어느날 진호의 아들 인수는 시위대오에서 중요임무를 수행하다가 공수대의 총칼에 무참히 희생된다. 그러나 영옥은 슬픔을 누르고 억세게 일어나 학생들을 인수의 이름으로 불러일으키고 조직동원하면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간다.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원일은 불합리한 사회현실과 맞서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하면서 독재자들이 판을 치게 만든 자신과 같은 현실도피적인 인간들에 대한 혐오와 량심상가책을 느낀다. 그는 자신도 투쟁에 나설 새로운 각오를 굳게 다지고 항쟁의 거리에 나선다. 소설에서는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한몸바쳐나선 선각자들의 뒤를 따라 전체 남조선인민들이 파쑈독재를 반대하는 항쟁의 거리에 나서고있으며 이 전인민적인 투쟁에 의하여 암흑은 쫓기워가고 자유와 민주의 새벽은 반드시 밝아오리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9(1980)년 8호〕

《광차는 궤도우로》 단편소설. 주체49(1960)년 권정웅 창작. 로세대 선로공의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성실성을 보여준 작품이다. 탄광에서 40년을 일해오는 선로공아바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선로상태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해보는것과 함께 공무동력직장 수리공이나 뽐프수리공들이 해야 할 일까지 스스로 맡아한다. 그런데 기능공학교를 갓 졸업하고 선로수리공으로 배치된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있던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별로 띄우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애써 일해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텐데 괜한 수고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날 밤 선로상태를 점검하며 갱안의 구석구석까지 살피던 아바이는 위험개소를 발견하자 다가오는 8.15명절분위기에 들떠있는 나를 밖으로 내보낸 다음 잠시후에 터지는 물구멍을 가슴으로 막는다. 한편 뒤에서 갑자기 물소리가 요란하게 나는것을 듣고 다시 막장으로 뛰여들어간 나는 터지는 물구멍에 온몸을 내대고 의식을 잃은 아바이의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으며 그를 대신하여 자기 가슴으로 억세게 틀어막는다. 소설은 누가 보건말건 깨끗한 로동계급의 량심으로 탄광을 굳건히 지켜가는 아바이와 그의 말없는 영향속에 믿음직한 선로공으로 자라나는 나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라지 않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고 맡은 혁명초소에서 소문없이 위훈을 창조해가는 로동계급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일반화하였다. 〔《문학신문》, 주체49(1960)년 제98호〕

《광야의 별》 장편소설. 주체97(2008)년 최봉무 창작.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동지의 혁명활동의 일부를 형상한 작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던 시기에 샤오사하(소사하)에서 구공청비서로 사업하시던 김철주동지께서는 샤오사하(소사하)구유격근거지를 천연요새와 같은 지역으로 옮길데 대한 수령님의 지시에 따라 먼저 이 지대에서 세력이 강한 중국인대지주이며 악질친일분자놈의 기를 꺾고 근거지이동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신다. 구당비서 김정룡은 놈의 집에 삐라를 뿌리는 일을 조직하는데서 여러 정황을 면밀하게 타산하지 못하여 실패한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이 문제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수행에 대한 관점과 태도문제로 보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무조건 해내기 위해 자신께서 직접 그놈의 집 토담을 넘으시여 가병숙소와 안채출입문틈새, 뙤창짬사이, 지붕 등에 많은 삐라를 뿌리신다. 이 사건으로 하여 겁에 질린 놈은 가택주변에 깊은 물도랑을 파는 공사를 벌려놓고 제놈의 더러운 목숨을 부지하는데 급급한다. 결과 근거지를 옮기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근거지가 창설된 후 김철주동지께서는 유격근거지를 와해소탕하려는 적들의 기도를 간파하시고 초혁명적인 언사와 행동을 일삼는 변절자놈의 의심스러운 정체를 예리하게 꿰뚫어보시며 놈을 맹목적으로 두둔하는 현당 군사부 리억만의 그릇된 견해를 날카롭게 비판하신다. 한편 근거지방위에 필요한 유격대원선발을 공청에서 하는 문제, 병기창을 꾸려 작탄을 만드는 문제, 근거지병원과 아동단학교를 꾸리는 문제 등을 도맡아안으시고 정력적으로 투쟁하신다. 김철주동지께서는 김정룡이 뜻하지 않게 구국군에 잡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위기에서 구원해내시며 부상당한 두이순구국군사령의 장부관을 유격구로 데려다 완치시켜 돌려보내신다. 이와 함께 고아로서 강반석어머님의 인정깊은 사랑을 받은바 있는 지주놈의 가병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여 적들속에서 지하공작임무를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신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일제의 안투(안도)지구 《토벌》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엄혹한 정세하에서 유격근거지를 보

위하기 위한 반일인민유격대지휘부의 결정을 받들고 구공청회의를 소집하신 다음 유격대의 대렬을 확대하고 구국군과의 사업을 벌리기 위한 대책을 세우신다. 그이께서는 지주놈의 구국군련락소습격사건때에 억울한 루명을 쓴 구국군병사부자를 살려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저우(주)탄장부대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보증해주심으로써 구국군 상층부와 병사들속에 좋은 영향을 주신다. 이어 김철주동지께서는 아동단연예대를 이끄시고 설명절을 계기로 구국군부대에서의 공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시여 커다란 감명을 준다. 그러나 구국군이 유격대와 련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일본헌병대의 음모와 책동으로 조선혁명앞에는 의연히 난관이 가로놓인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이를 타개하시기 위해 구국군의 두이순사령을 만나 담판하시면서 예리한 분석과 사리정연한 론리로 그를 납득시켜 구국군과의 련합전선을 펴는데 성공함으로써 조중인민이 단결된 힘으로 일제놈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도록 하신다. 소설은 혁명투사 김철주동지의 형상을 통하여 혁명가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어떻게 충직하게 받들며 결사관철해야 하는가를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에 무한히 충실한 김철주동지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어떤 역경속에서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실현하고야마는 투철한 결사관철의 정신이다. 소설은 이와 함께 사물현상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과 모든 사업에서의 주도세밀성과 림기응변의 기지, 원쑤들과의 비타협적투쟁정신, 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뜨거운 인정미와 혁명적동지애 등 김철주동지께서 지니고 계시는 혁명가적풍모를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사상예술적감화력을 더욱 높이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7(2008)년판〕

《권로인》 단편소설. 주체46(1957)년 김상오 창작. 사람은 인생의 황혼기,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한 로인의 생활을 통하여 보여준 작품이다. 어느 한 국영농장 수리공장의 철공인 권로인은 언제나 사람들속에 있을뿐아니라 쇠를 다루는 일에서는 누구도 따르지 못하는 재간을 가진 사람이다. 국영농장이 세워진 다음 갖추어진 기계와 설비들은 그가 각지를 다니며 얻어다가 조립한것이다. 로인은 해놓은 일에 만족하지 않고 농장의 래일을 그리며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평양에서 중앙기관의 국장으로 일하는 아들이 부모들을 모셔가려고 집으로 온다. 그날 저녁에 로친은 너무 기뻐 밤새 짐꾸릴 궁냥을 하지만 권로인은 허전한 생각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인다. 이튿날 아침 리인민위원회를 찾아가 퇴거수속용지를 타가지고 오던 권로인은 저도 모르게 작업장으로 걸음을 옮긴다. 그리고 서운해하는 반원들과 함께 해오던 일을 계속한다. 이윽고 결심을 내린 권로인은 찾아온 아들에게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생의 말년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을 느낀 아들은 아버지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준다. 며칠후 권로인은 수리공장사람들과 함께 평양의 아들집으로 나들이를 가는 로친과 아들을 바래워준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생의 말년까지 로동을 떠나서는 아무러한 삶의 보람과 행복도 느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46(1957)년 10호〕

《궤도》 단편소설. 주체78(1989)년 강태정 창작. 우리 나라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길에 성실한 량심을 바쳐가는 한 농산기사의 숨은 노력을 보여준 작품이다. 전후 내각사무국의 한 부서에서 지도원으로 일하던 성구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북부지대의 한 농장에 자원진출하여 농산기사로 일하면서 농장의 밀수확고를 전국적으로 제일 높일뿐아니라 세계적수준에까지 이르게 한다. 그는 개인의 명예보다도 나라의 농업발전에 이

바지할 생각으로 오래동안 연구해오던 수확고가 높은 《백두1》호 감자품종에 대한 연구자료를 함께 일하는 영익기사에게 넘겨주어 완성하도록 하나 영익기사가 그 품종의 농마함유량을 제고하지 못한채 론문을 발표하고 학위를 받은것을 알고는 다시 그 품종에 대한 연구에 달라붙어 수십년간의 꾸준한 노력끝에 끝내 농마함유량이 높은 감자품종을 내놓게 된다. 북부고원지대에 큰 규모의 종합농장이 새로 생기고 그곳에서 경험있는 농산기사들을 요구한다는것을 알았을 때 성구는 자기가 연구한 감자품종을 그곳 기후풍토에 맞게 완성하여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결심을 안고 또다시 제일먼저 탄원하여 새 개간지로 떠난다. 작품은 당이 바라는 곳에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열매를 맺는 성구의 형상을 통하여 말없는 헌신성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어 드팀없는 삶의 궤도를 걸어온 시대의 공로자들의 투쟁으로 하여 우리 조국은 더욱 부강해지리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8(1989)년 5호〕

《궤도가 뻗어간 곳》 단편소설. 주체79(1990)년 김응일 창작. 수백수천만을 헤아리는 아들딸들을 크나큰 품에 안아 어엿한 혁명가로 키우는 어머니 우리 당의 위대성에 대하여 보여준 작품이다. 1인칭형식으로 된 작품은 나—정민이가 자기를 키운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것을 알고 엇드레질을 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중학교를 졸업한 정민이가 군대에 나가려 할 때 어머니는 자기가 초급당비서로 일하는 군인민병원의 열관리공으로 일하게 하며 얼마후 북부철길공사장에 탄원해나갈 때에는 적극 지지하며 떠나보낸다. 정민은 이 모든것이 친어머니가 아니기때문이라고 고깝게 생각하며 돌격대에 나와서도 집에 편지 한장 하지 않고 어머니가 지원물자를 가지고 공사장에 찾아왔을 때에도 만나지 않고 피한다. 북부철길공사의 나날 분대장, 소대장시절을 거쳐 어느덧 중대장의 임무를 맡고 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을 때 정치부장이 전해준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서야 어머니가 자기를 맡아키우게 된 사연과 이때까지 자기를 훌륭히 키우기 위해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인 어머니의 그 진정에 대하여 알게 된다. 정민은 지금껏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아는 투정을 하며 애를 먹인 자신을 뉘우치고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용서를 빈다. 북부철길공사가 완공된 그날 개통렬차를 타고 고향으로 간 정민은 마중나온 어머니와 감격적인 상봉을 한다. 소설은 남의 자식도 차별없이 훌륭히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과 그 사랑속에 어엿하게 성장하는 정민의 형상을 통하여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그 품은 바로 어머니도 자식들도 모두가 어머니라 부르는 위대한 우리 당의 따뜻한 사랑의 품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79(1990)년 11호〕

《궤도를 따라》 단편소설. 주체51(1962)년 최학수 창작. 어느 한 관개공사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형상을 통하여 어떻게 사는것이 보람찬 삶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준 작품이다. 압록강관개공사의 한 부분인 매봉저수지공사장에서 운전사로 일하는 철구는 모든 일에서 자신의 이름과 영예를 시위하기 위해 애쓴다. 휴가기간 고향의 농장일을 도와주고 감사장을 받아올 때에도, 물이 차오르는 작업장에서 찬물에 뛰여들어 설비를 꺼내고 속보에 날 때에도, 개인별 경쟁에서 1등을 하였을 때에도 그는 자기의 이름이 온 공사장에 알려지는것만 기뻐하였지 공사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돌리지 않는다. 그러던 그는 자기와 대조되는 주위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을 뉘우치게 된다. 휴가기간 공사장에 달려나와 진심을 바쳐 일하고 깊은 밤 남모르게 흙묻은 작업복들을 빨아 말리우는 처녀의 사심없는 행동 그리고 차장일을 보면서 짬짬이 운전기술을 배

우기 위해 애쓰며 차가 멈춰서있는 짧은 시간에도 상차작업을 도와주고 고열이 나는 불편한 몸으로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나가는 나어린 경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철구는 생산수자나 이름에만 더 관심을 돌려온 그릇된 행동을 뉘우친다. 이를 통하여 소설은 조국의 번영을 위한 투쟁의 길에 사심없는 깨끗한 량심을 바치며 두줄기 궤도처럼 곧바른 한길로 나아갈 때 청춘의 영예와 보람이 빛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1(1962)년 9호〕

《궤도우에서》 단편소설. 주체43(1954)년 리종민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성장해가는 한 녀성차장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차장인 주인공 인순은 승무차에서 내리면서 적기의 폭격에 파피당한 역구내와 부상당한 오빠를 보고 원쑤들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올라 집에도 들리지 않고 곧장 복구장으로 가려고 한다. 이때 한마을에서 나서자라 기관사로 일하고있는 애인인 송남이가 무사고로 도착하자 인순은 기쁘게 상봉하며 집에 다녀오려고 떠나는 그를 바래워준다. 며칠후 인순은 퇴원한 오빠와 함께 찾아온 어머니를 반갑게 만났지만 약속한 날자에 돌아오지 않는 송남이로 하여 무거워진 마음을 안고 승무에 나간다. 그는 수송길에서 적기의 폭격에 기관사가 부상당하게 되자 자신이 차를 몰아 대피시켜 끝내 수송임무를 수행한다. 돌아오는 길에 근심했던 송남이를 만난 인순은 기뻤으나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된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이상해진다. 그러나 송남이가 집으로 가는 길에 논밭과 철길을 구원하기 위해 강뚝에 떨어진 폭탄을 안아내다가 부상을 입었다는것을 알고 또 오빠로부터 사랑은 진실해야 한다는 충고를 받은 인순은 일시나마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던 자신을 뉘우친다. 그는 송남이를 더욱 사랑하게 되며 함께 군수물자수송을 해나간다. 작품은 두줄기의 철길과 더불어 성장한 인순이의 형상을 통하여 사람은 당과 조국, 동지들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영웅들의 이야기》,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4(1955)년판〕

《궤도우에서》 단편소설. 주체62(1973)년 림재성 창작.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하여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는 철도부문 로동계급의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늘어나는 화물수송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여 골머리를 앓던 평탄역 화물지도원 박경수는 해동역의 사업비결을 알아보기 위하여 길을 떠난다. 어느 한 화물렬차를 잡아탄 경수는 렬차차장 신수옥이 자그마한 수첩에 승무구간의 전로정과 매 화물역의 능력을 상세히 기록하고 신문에 소개된 혁신적성과들까지 적어넣으며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는다. 특히 그가 대기하차를 미리 조직하여 짧은 정차시간마저 효과있게 리용하며 렬차가 어기기 위하여 잠시 멎어선 작은 정거장에서조차 대상설비조립을 위해, 마감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애쓰는 한 자재인수원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그의 짐을 모두 차장차에 싣고가는 아름다운 소행을 목격하면서 자기에게는 그런 불같은 마음이 없었음을 깨닫는다. 소설은 날마다 늘어나는 수송량에서 자기 사업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며 두줄기 철길의 참된 주인으로 일해가는 신수옥의 형상을 통하여 당과 조국,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전형화하고 째인 극구성과 이야기줄거리로 인물들의 성격발전과정을 생동하게 그려내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2(1973)년 2호〕

ㄴ

《나는 군인의 딸이다》 시초. 주체79(1990)년 한금란 창작. 군인의 딸, 렬사의 딸인 서정적주인공이 자기의 아버지와 련결된 자신의 생활과 그속에서 체득한 열렬하고 투철한 애국의 감정, 불타는 조국애의 감정을 시화한 작품이다. 《추억》, 《아버지》, 《아, 사랑한다면…》, 《딸의 노래》, 《나는 군인의 딸이다》의 5편으로 묶어졌다. 시 《추억》에서 그저 군인의 딸인것이 아니라 전사한 렬사의 딸인 서정적주인공은 《몸은 가도 바친 삶으로 후대들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아버지처럼 살기 위해 《렬사의 딸은 렬사를 추억한다》고 비장하게 노래하고있다. 《아버지》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명절날에조차 늘 비여있던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이 슴배여있음을 절절하게 토로하면서 그에 대한 진실한 해명을 조국과 더불어 승화시키고있다. 《아, 사랑한다면…》에서는 렬사의 딸인 서정적주인공의 불타는 조국애에 기초한 숭고한 사랑의 세계에 대한 지향을 터쳐놓고있다. 시초의 핵을 이루는 시 《딸의 노래》는 흘러온 력사와 거세찬 혁명의 흐름을 폭넓게 걷어쥐고 감정을 펼치면서 혁명투쟁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위훈을 창조하는 녀성들에 대하여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력사를 폭넓게 펼치며 이 나라 딸들의 위훈을 구가한 시는

오, 그대 달아준 위훈의 금별은
사나이들 가슴에서만 빛나는것 아니다
그렇거니, 조국이여
그대 위해 바친 충신들의 심장엔
아들과 딸의 가치가 따로 없어라

라고 결구를 맺으며 무게있고 심오한 생활철학을 밝히고있다. 마감시 《나는 군인의 딸이다》에서는 아버지처럼 조국앞에 성실하고 목숨바쳐 충정다할 서정적주인공의 강렬한 조국애를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시초는 체험이 진실하고 절절하며 그러한 시적감정으로 사람들, 특히 녀성들에게 생활과 투쟁의 진리를 훌륭히 밝혀주고있다. 〔《청년문학》잡지, 주체79(1990)년 11호〕

《나는 다시 강을 건너간다》 중편소설. 주체47(1958)년 송영 창작.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견하신 지하공작원의 지도밑에 혁명의 새 세대가 어떻게 준비되였는가 하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압록강변 조선땅의 웃강구마을에 사는 주인공 영세소년은 가난한 농민인 김명석의 둘째아들로서 비록 9살이지만 키가 크고 힘이 세며 남에게 머리를 숙일줄 모르는 불같이 괄괄한 성미를 가진 소년이다. 영세는 친일주구인 산림간수놈이 미워 그놈의 오이덩굴과 순을 잘라놓으며 놈들이 신주모시듯 하는 일본신사의 가미다나(귀신이름을 쓴 종이쪼각을 넣어두는 함)에서 종이쪼각을 꺼내놓고 거기에 똥칠을 해놓는 등 대담한 행동을 한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반항의식은 아직 확고한것으로는 되지 못하였다. 그후 영세는 지하공작원인 야학선생 김명희의 영향과 야학에서의 토론을 통해 세상리치와 혁명에 대하여, 특히 손에 총을 잡고 왜놈들과 싸우시는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새로운 희망을 가진다. 한편 일제와 지주놈의 착취로 나날이 쪼들려가는 영세의 가정이 겪게 되는 비참한 생활은 그의 계급적각성에

큰 영향을 준다. 영세는 아동단에 들어 조직이 주는 분공을 성실히 수행하며 그 과정에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에 입대하게 된다. 새로운 투쟁의 길에 나서 다시 압록강을 건너갈 때 영세는 왜놈들을 내쫓고 승전고를 울리며 조국해방의 그날 다시 돌아올 굳은 결심을 다지며 《나는 다시 강을 건너간다》고 소리높이 웨친다. 소설은 나어린 주인공이 계급적으로 각성되여 투쟁의 길에 들어서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진실한 묘사를 통하여 혁명의 새 세대는 투쟁속에서 사상정신적으로 성장하며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믿음직한 후비대로 자라난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소설은 1930년대 항일혁명투쟁의 장엄한 현실을 폭넓게 재현하고있으며 이 거세찬 흐름속에서 주인공을 비롯한 그의 부모형제들, 마을사람들의 각이한 성격들을 진실하게 전형화하고있다. 또한 당시의 사회력사적현실과 시대적환경에 대한 진실한 반영, 소박하고 담담한 묘사로 형상의 생동성도 훌륭히 보장하고있다. 작품은 주체47(1958)년에 연극으로 각색되였다. 〔민청출판사, 주체47(1958)년판〕

《나는 당의 동행자》 서정시. 주체78(1989)년 오필천 창작. 당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여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려는 우리 인민의 굳은 맹세와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혁명의 길은 멀고 인생의 길도 먼데 평탄한 길을 함께 갈 사람은 많아도 어려운 길을 함께 갈 그런 사람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면서 험난한 길을 함께 가며 동행자라고 불러준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에 감사를 드리며 불타는 충정을 맹세하고있다.

오— 불러달라
당이여
그대에게 무르익힌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이 손으로 꽃피우게 해다오
그대에게 뚫고갈 돌파구가 있다면
그 앞장에 나를 세워다오

시에서 서정적주인공은 당을 따르는 그 길에서 한치라도 드틴다면 바람에 날려 흩어지지만 험난해도 그 길따라 끝까지 가면 인생은 영원하다고 노래하면서 《나는 당과 생사를 같이하는 운명의 동행자》라는 삶의 행복, 인생의 진리를 걸음마다 터친다고 뜨겁게 토로하고있다. 시는 강한 주정토로로 형상을 탄력있고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1980년대시선》, 문예출판사, 주체79(1990)년판〕

《나는 래일을 위해 오늘에 산다》 서정시. 주체85(1996)년 박호범 창작.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을 받아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끓어넘치는 환희와 격동의 사상감정과 그 뜻대로 삶을 빛내갈 신념을 격조높이 토로한 시이다. 잠들 때에도 깨여날 때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새겨보는 서정적주인공은 조국에 남긴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자신을 세워보면서 준엄한 오늘에 깨우쳐주신 그 삶의 진리를 온몸, 온넋으로 깊이 새겨안는다. 계속하여 시는 《그 짧은 한마디 말씀속에 백두의 붉은기를 휘날리며》 고귀한 피와 땀을 바쳐 미래에로의 길을 열어온 우리 혁명의 《승리의 장장 천만리가 비껴있고 조국의 천년미래가 숨쉬고있》다고 하면서 그 인생관을 삶의 좌우명으로 받아안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오늘의 하루로 **김정일**시대의 주추돌을 놓아가며》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 드높은 결의를 표명하고있다. 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인생관이야말로 참된 삶의 철학으로, 부강번영할 미래를 꽃피워가는 우리 인민의 투철한 인생관으로 되고있다는것을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문학신문》, 주체85(1996)년 제12호〕

《나는 생각해》 가사. 주체81(1992)년

김정훈 창작. 언제나 인민들에게 끝없는 행복만을 안겨주는 위대한 당의 품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불밝은 창가에 서서 행복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마련되는가를 생각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사색깊은 체험세계를 통하여 불면불휴의 사색과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끝없는 로고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참다운 행복이 마련되고있음을 감동깊이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3절에서 위대한 어버이의 품에서 시작된 인민의 행복은 그끝을 알수 없다고 노래하면서 한없이 고마운 그 품을 영원히 받들고 따르려는 숭엄한 사상감정을 토로하고있다. 가사는 매절의 첫 두행에서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어떻게 마련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다음 두행에서 《당중앙의 불빛》과 《향도의 자욱이 어린 농장길 막장길》을 생각하는 시인의 심리세계를 펼쳐보이는 방법으로 주제사상을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가사는 작가의 심오한 체험에 기초하여 작품의 사상감정을 사색적으로 끌고나감으로써 깊은 정서적여운이 풍기게 하고있다. 〔《조선가요 20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나는 조선사람이다》 장시. 주체81(1992)년 계훈 창작.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사는 조선인민의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나는 조선사람》이라는것을 강렬하게 주장하면서 무엇을 지녀 사람답게 사는가라는 수사학적질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알려거든 주체의 봉화를 보라고 하고있으며 《인간자주의 생명을 지니여 세상에 가장 자랑높은 인민임》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시는 쓰라린 과거와 자랑찬 오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조선사람의 긍지를 토로하고있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 계시여
위대한 우리 당이 있어
위대한 내 조국
위대한 우리 인민이 있나니
그중의 한사람
나는 조선사람이다!

시는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조선사람의 미래는 찬란하다는것을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시는 간결한 시적구성에 풍만한 사상정서적내용을 담고있으며 높은 기백과 정론성을 보장하고있다. 〔《문학신문》, 주체81(1992)년 제26호〕

《나는 7월의 병사다》 서정시. 주체84(1995)년 전동혁 창작.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반드시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야 말리라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 새 세대들의 드높은 각오와 사상정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그 념원을 풀어드리지 못한 죄스러움과 통절함에 가슴치던 서정적주인공은 이 나라의 청춘된 자각과 사명, 삶의 위치를 깨닫고 총잡은 병사가 될것을 결심한다. 군복입고 초소로 떠나는 그는 자기 가슴에 꽃송이도 달지 말고 축하란 말조차 하지 말라고 하면서 차라리 그《대신 우리 서로 목놓아 흘리고흘린 그 눈물에 불을 달아달라》고 당부하고있으며 어버이수령님의 령전앞에 다진 성스러운 맹세를 지켜 분렬의 력사우에 종지부를 찍고야말리라는 군센 의지를 화산처럼 강렬한 격정으로 터뜨리고있다.

통일의 훈장을 달고 돌아와
수령님앞에 떳떳이 큰절을 올릴
나는 7월의 병사다!
7월의 병사다!

서정적주인공—병사의 구체적인 체험세계에서 새 세대의 높은 의식성과 충만된 열정, 전투적인 기백으로 분출된 시의 서정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로고를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평생의 그 념원을 풀어드리기 위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통일의 그날까지 언제나 7월을 안고 숨쉬며 살리라는 불같은 맹세로 시의 사상적지향을 강조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4(1995)년 7호〕

《나는 협동벌사람이다》 시초. 주체91(2002)년 리진협 창작. 시초는 농민은 단순히 땅과 곡식만을 가꾸는것이 아니라 풍요한 가을로 이 땅의 웃음과 행복을 가꾸며 그것으로 하여 어디서나 농민임을 떳떳이 자랑하고 만사람의 찬탄을 받게 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초는 《포전길》, 《불이 났네》, 《쉴참의 속사》, 《나는 협동벌사람이다》의 4편의 서정시로 되여있다. 시 《포전길》에서는 《벌에 살면서 가을앞에 부끄러우면, 우린 오래오래 마주보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부부간의 정에 실어 농민의 진정과 량심을 잘 보여주고있으며 시 《불이 났네》에서는 《감자가을》에 잇대인 《모내는 봄》으로 드바쁜 두벌농사의 한창때를 웃음과 랑만이 비낀 서정으로 노래하고있다. 시 《쉴참의 속사》에서는 쉴참에 일 잘하는 처녀의 입에서 《시집갈 차비》라는 말이 새여나왔을 때 그를 두고 생각하는 분조원들에 대한 속사를 생동한 시적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기다렸다는듯
몰방으로 터진다
한차례 그 시까스름
누구는 분조농사 통채로 가져가라 하고
누구는 제 집 염소고삐 벌써 《끊어》주고

분조장도 그만 못 배겨
속구구 계산에 열손가락 모자란데
문득 정색해진 처녀의 목소리
핑! 활시위된 공간을 조용조용 흔드네

전 말이지요
이 땅이 통채로 쌀함박되여
동해 출렁 서해 출렁 쌀을 일 때
강성대국 큰집으로 시집간답니다 호호!

시 《나는 협동벌사람이다》에서는 눈비속에서도 풍요한 가을로 행복을 안아오고 이 땅 그 어느곳에 가도 긍지높이 말할수 있는 벌의 주인이 협동벌농민이라고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시초는 쌀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받들어나가는 우리 농민들의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생활적이면서도 생동한 시적형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91(2002)년 6호〕

《나는 알았네》 가사. 주체71(1982)년 전동우 창작. 조선예술영화 《월미도》의 주제가. 조국을 지켜 싸우는 불타는 전호가에서 어머니조국에 대한 참뜻을 피로써 체험하게 되는 인민군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가렬한 싸움이 계속되는 불타는 전호가에서도 고향산천의 풍요한 대지와 푸른 들, 한줌의 흙을 소중히 그려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그 모든것이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의 한 부분임을 뜨겁게 느끼는 인민군전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펼쳐보여주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원쑤의 총탄이 시시각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준엄한 싸움의 나날에 조국이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 진리를 체득하는 전사들의 숭고한 모습과 귀중한 그 품을 지켜 조국의 참된 아들딸로 영생하려는 그들의 불타는 의지와 신념을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생동하면서도 생활적인 시적언어와 인상깊은 생활화폭으로 조국이란 곧 수령님의 품이라는 작품의 기본사상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

혀내고있다. 가사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정서적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에게 어머니조국에 대한 참뜻과 숭고한 애국주의감정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영화노래 11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2(1993)년판〕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가사. 주체73(1984)년 전동우 창작. 조선예술영화《우리를 기다리지 말라》의 주제가. 조국해방전쟁시기 청춘의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 조국을 지켜 싸운 인민군용사들의 숭고한 조국애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조국을 한그루의 나무와 하나의 크나큰 심장으로, 인민군전사들을 그 나무아지에 피는 잎사귀와 심장에 뛰는 피방울에 비유하고 잎사귀가 세찬 바람이 불어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흙이 되여 뿌리를 덮어주며 심장에 뛰는 피가 마지막 한방울이 다할 때까지 심장의 고동을 더해주듯이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우려는 서정적주인공—인민군용사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서 나서자란 몸이 결코 일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수 없으며 비록 인생의 한순간만을 산다고 해도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꽃다운 청춘을 값있게 바쳐 조국의 아들로 영생하려는 인민군전사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일반화하고있다. 가사는 직선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생동한 비유적수법에 의거하여 인민군용사들이 지녔던 조국에 대한 숭고한 사상감정을 정서적으로 품위있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조국애를 노래한 가사작품들가운데서 우수한 성과작의 하나로 되고있다. 〔《영화노래 11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2(1993)년판〕

《나란히 선 두집》(1막 2장) 희곡. 송영 창작. 해방후 녀성들에 대한 낡은 봉건적인 관념이 극복되는 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어느 한 공장의 모범로동자이며 녀맹위원장인 오금옥의 집에서는 시어머니 김우순이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 공장에도 나가고 녀맹사업을 비롯하여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며느리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시아버지 윤성식은 그러한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와는 달리 오금옥과 한공장에서 모범로동자로 일하는 김고분의 집에서는 개인구두수리를 하는 시아버지 전삼룡이가 며느리에 대한 봉건적인 관념에 사로잡혀있는 반면에 시어머니 박삼례는 며느리가 공장일을 더 잘할수 있도록 적극 받들어주고 내세워준다. 녀성들에 대한 봉건적인 관념과 낡은 습성을 가지고있던 우순과 삼룡은 주위사람들의 적극적인 교양과 비약적으로 변천되는 현실을 체험하는 과정에 자기들의 그릇된 관념을 깨닫고 극복해나가게 된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으로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찾은 녀성들이 새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보람과 행복을 누려가는 모습과 해방후 거대한 사회적변혁속에서 새롭게 성장발전하여가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37(1948)년에 연극으로 창조되였다.

《나루가에서》 단편소설. 주체57(1968)년 김익철 창작. 산간마을 10여명의 아이들을 위해 분교를 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형상한 작품이다. 나루가의 사공인 봉칠로인은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네 외진 산골을 또다시 찾으시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여듣고 솟구쳐오르는 감격과 흥분으로 하여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듬해에도 산간벽지의 이곳을 찾으셨던 수령님이시였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리내인민들의 살림형편을 일일이 료해하시다가 해방전에는 돈이 없어 학교문전에도 못 가보았던 이곳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수 있도록 제일먼저 눈에 뜨이는 번듯한 곳에 학교

의 터전을 잡아주시였다. 그때로부터 이 근방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그 학교에 다니게 되였으며 봉칠로인의 셋째도 거기서 중학을 마치였고 지금은 손자애가 입학하여 공부를 하고있었다. 이 나라 아이들을 다 공부시켜주시고도 오늘 또다시 험한 길을 찾으셨다고 생각하면서 봉칠로인이 뜨거움에 목이 메여하던 그 시각 뜻밖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루가에까지 찾아오시여 그의 가정형편을 따뜻이 물어보신다. 그러시고는 몸소 나루배까지 타보시면서 배나무골 아이들이 산길을 걷고 또 나루배를 타고서야 학교에 다닌다는것을 아시고는 10여명의 아이들을 위해 분교를 따로 세우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다. 소설은 아직 지도우에서 그 존재조차 나타내지 못하고있는 배나무골의 몇명 안되는 농민들의 자식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다는것과 아이들이 누리는 행복, 그것은 위대한 어버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받는 인민들에게만 차례질수 있는 영광이라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조선단편집》 1, 문예출판사, 주체67(1978)년판〕

《나를 보고있소!》 단편소설. 주체82(1993)년 리웅수 창작. 매일 매 순간 병사들이 자기를 지켜보고있다고 생각하면서 중대를 전투력있는 대오로 꾸려나가는 인민군대 중대장의 책임성을 보여준 작품이다. 심한 타박상으로 빈사상태에 처한 중대장 주순민을 담가에 싣고 어느 한 산골진료소에 들어온 소대장 우성만은 중대장에 대하여 알고싶어하는 처녀의사에게 그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성만은 중대장이 자기보다 나이가 서너살 아래지만 자기에게 지휘관의 참된 품성을 배워준 진실한 벗이라고 하면서 그가 중대로 오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중대장으로 임명되여오던 날 중대가 린접 포병중대와의 축구경기에서 패하고 돌아왔다는것을 알게 된 주순민은 중대를 이끌고 포병중대에 찾아가 다시 경기를 진행하며 중대장자신은 종처가 심한 다리를 가지고 경기에 참가한다. 성만이 그의 상처를 보고 경기에 참가하지 말것을 권고하자 중대장은 병사들이 우리를 보고있다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리며 끝내는 경기에서 이겨 중대의 명예를 빛내고 병사들의 사기도 높인다. 말은 적게 하고 요구성이 강한 주순민은 훈련때 당에서 제시한 《훈련도 전투다!》라는 구호관철을 위하여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훈련을 집행한다. 《적》군사기지를 습격하는 훈련에서 굴러내리는 바위를 몸으로 막아 전사들을 구원하고 전신타박상을 입어 산골진료소에 실려온 주순민은 의식이 회복되자 떠날것을 만류하는 성만에게 전사들이 나를 보고있다고 하면서 끝내 중대로 떠난다. 그후 중대는 훈련에서 모범을 보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감사를 받는다. 소설은 언제나 병사들이 지켜보고있다는 자각을 안고 중대를 전투력있게 꾸리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지휘관들이 서야 할 위치를 밝히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2(1993)년 4호〕

《나리꽃》 단편소설. 주체86(1997)년 송혜경 창작. 숲을 가꾸는데 모든것을 다 바친 평범한 한 녀인의 애국적헌신성과 숨은 노력을 형상한 작품이다. 탄광 동발목을 보장할 과업을 받고 양덕림산사업소로 찾아간 나는 예상외로 쉽게 좋은 림지를 배정받게 되며 전후부터 묵묵히 푸른 숲을 가꾸어온 한 녀인이 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이 고장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내가 당시 산림설계원이였던 어머니와 녀동생을 잃은 곳이기도 하였다. 나의 어머니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서 만난 한 부상당한 인민군병사를 살려내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것이다. 그날 밤 나는 합숙에서 묵으면서 그때 적후공작을 하던 원녀라는 처녀가 나의 어머니가 목숨바쳐 구원해낸 영예군인병사와 가정을 이루고 불타버린 산들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겠다고 하던 어머니

의 유언을 지켜 벌거숭이산을 무성한 숲으로 가꾸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온 사연을 알게 된다. 소설은 전후시기부터 합숙관리원으로 일하면서 애써 가꿔온 푸른 숲을 탄광 동발목으로 쓰도록 내여주며 여기에서 한생의 보람을 느끼는 주인공 원녀의 형상을 수집은듯 수그리고도 온몸의 열정을 깡그리 다해 불타오르는 나리꽃에 대한 묘사와 결부시켜 그려보이면서 성실하게 진심을 다 바쳐 조국을 빛내이는 사람만이 참된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낄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밝히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6(1997)년 5호〕

《나비와 수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들려주신 이야기. 나비가 수닭과 싸워이긴 이야기를 통하여 적과의 싸움에서는 힘과 함께 지략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어느날 경치좋은 푸른 산기슭 나비네 마을에 키가 껑충한 수닭이 뛰여들어 동산을 마구 짓밟자 나비네들은 힘센 수닭을 당할수 없어 모두 맥을 놓고만다. 이때 작고 연약한 노랑나비가 높이 날지 못하는 그놈의 약점을 리용하여 수닭앞에서 팔랑거리며 벼랑쪽으로 유인하여 천길벼랑아래로 떨어뜨리고야만다. 이야기는 동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대담하게 나서서 묘한 수를 생각하면 반드시 승리하며 아무리 덩지가 크고 힘이 세도 남을 짓밟으려는 우둔한 략탈자는 기필코 멸망하고야만다는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고있다. 이 작품은 나비와 수닭의 생태적특성에 기초하여 의인화적형상을 창조하고 이야기를 시종일관 극적으로 긴장하게 끌고나감으로써 어린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이 이야기는 동화와 아동영화로 옮겨졌다. 〔동화집 《나비와 수닭》,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2(1983)년판〕

《나서자란 곳》 단편소설. 주체71(1982)년 강귀미 창작. 재일조선인자녀들의 고향문제를 놓고 진정한 고향은 어디인가를 밝힌 작품이다. 간또교원양성소를 졸업하고 고베시 다루미구 조선중고급학교에 배치된 처녀교원 리순분은 첫 수업시간에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아이들에게 작문을 씌운다. 이때 조선사람으로서 일본땅에서 태여난 아이들은 동심에도 자기의 고향이 과연 어디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며 철규라는 한 학생은 고향이 없다고 하면서 작문을 쓰지 않는다. 철규의 집에 가정방문을 갔던 순분은 남조선에서 살길이 막혀 현해탄을 건너온 그의 아버지가 다리밑에서 태여난 철규에게 고향이 없다고 말했다는것을 알게 된다. 아이들에게 고향에 대한 귀중한 넋을 키워주려 했던 순분은 고향떠나 이역땅에서 헤매이는 재일조선인들의 처지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어느날 그는 철규가 신문배달을 하면서도 일본사람에게 수모당하는 조선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모자에서 조선학교모표를 떼고 다닌다는것을 알게 된다. 순분은 민족의 존엄을 생각하는 그를 장하게 여기면서도 그 마음을 꽃피워줄수 없어 안타까와한다. 그런데 얼마후 재일조선동포자녀들을 위해 어버이수령님께서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는 소식이 이들에게 전해진다. 그때부터 철규는 더는 신문배달을 하지 않게 되며 순분과 아이들은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을 어머니의 품으로 가슴에 간직하고 일본땅에서 궁지높이 살아간다. 소설은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하여 진정한 고향은 단순히 나서자란 곳이 아니라 삶을 꽃피워주는 은혜로운 어머니조국의 품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1(1982)년 11호〕

《나팔소리》 단편소설. 주체65(1976)년 허창근 창작. 항일무장투쟁시기 탄생하신 날만이라도 편히 쉬실것을 간절히 바라는 대원들의 소원마저 뒤로 미루시고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신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형상한 작품이다. 주체26(1937)년 봄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조국으로 진군하던 도중

사령부 경위중대장 안석준은 사령관동지의 탄생일을 맞으며 단 하루만이라도 그이께서 모든 시름을 잊고 마음편히 쉬시기를 바라며 그 준비를 하고있었다. 그런데 사령관동지의 탄생일을 하루 앞두고 ㅈ마을에 파견되여 갔던 그는 돌아오던 길에 일제의 살벌한 《토벌》에 어머니를 잃고 홀로 울고있는 광복이를 업어온다. 이날 광복이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원한서린 목소리를 들으시고 일제의 발굽밑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을 생각하시며 조국진군에로의 출발을 알리는 나팔소리를 울리게 하신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날의 나팔소리가 조국을 빼앗긴 인민들에게 해방의 서광을 안겨주는 승리의 나팔소리로 울려퍼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강물은 바다로》, 금성청년출판사, 주체65(1976)년판〕

《나팔수》 서정시. 주체41(1952)년 박세영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원쑤를 무찌르는 돌격전에서 놈들의 총탄을 맞고도 끝까지 나팔을 불어 전투승리에 이바지한 한 나어린 나팔수의 영웅적위훈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먼저 행군할 때도 나팔을 번쩍이며 맨먼저 달려갔고 새벽에는 익숙해진 나팔소리로 전사들을 깨워 일으키군 하던 18살난 나팔수 문용기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시에서는 고지를 점령하는 전투에서 총탄을 맞고도 최후의 피 한방울이 다할 때까지 불고분 그의 나팔소리는 지금 어느 전선에서나 용맹을 불러일으키는 승리의 나팔소리로 되며 장차 후대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빛나리라는데 대하여 절절히 노래하고있다. 시는 일정한 사건성을 가진 비교적 긴 형식의 작품으로서 시인의 직접적인 체험세계의 주정토로로 나팔수의 영웅적모습을 노래하고있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나팔수의 공훈》 단편소설. 주체41(1952)년 윤시철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포위된 고향도시안에서 빠져나가려는 적들을 족치는 싸움에서 용감하게 싸운 한 나팔수를 형상한 작품이다. 패주하는 적들을 소멸하기 위한 전투에서 탄약이 떨어지자 중대장은 나팔수 기호를 대대에 보낸다. 고향을 해방하기 위한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안고 대대에 간 그는 공급소의 대원들과 함께 탄약을 가지고 돌아오던중 적땅크와 맞다들게 되였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적땅크에 다가가 수류탄을 묶어 까부신 후 부상을 입고 쓰러진다. 잠시후 탄약을 공급받은 중대원들이 도망치는 적들을 사정없이 족쳐댈 때 의식을 회복한 그는 돌격나팔을 분다. 나팔소리에 힘을 얻은 중대원들은 노도와 같이 달려나가 놈들을 모조리 족쳐버린다. 나팔을 꽉 껴안은 기호는 해방된 고향을 기쁨속에 바라본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나팔수는 부대의 전투원들을 위훈과 승리에로 불러일으키는 영예로운 전사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집 《화선》, 국립도서출판사, 주체42(1953)년판〕

《나이》 단편소설. 주체77(1988)년 장기성 창작. 깨끗한 공민적량심과 성실성을 지니고 시대와 더불어 나이를 고쳐사는 한 녀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있는 작품이다. 200일전투가 벌어지고있던 어느날 건재부문에서 국장으로 사업하고있는 박하준에게 김옥현이라는 녀성이 찾아온다. 하준은 자기에게 나이를 찾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옥현을 보면서 영문을 몰라한다. 전쟁이 일어나자 중학생이였던 옥현은 군대에 입대하려고 하였지만 나이가 한살 모자라는것으로 하여 부결을 맞는다. 그리하여 그는 삼촌네 집으로 가서 한달가량 살면서 나이를 불구어 입대한 후 녀성고사총수로 싸운다. 전쟁이 승리한 후 제대된 그는 복구건설을 비롯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였으며 그때로부터 40여년의 세월이 지나 년로보장을 받게 되였을 때에야 나이에 대해 상기

한다. 집안에 편안히 앉아 나라의 혜택만 받고있을수 없다고 생각한 옥현은 나이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던 끝에 삼촌네 집 동네에서 얼마간 함께 지낸 하준을 찾아왔던것이다. 모든 사연을 알고 확인용지에 수표를 해주려던 하준은 다시한번 놀란다. 확인용지에 적힌 나이는 본래나이보다 2살이나 더 적었던것이다. 그제서야 하준은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옥현녀성의 뜨거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된다. 소설은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성을 지닌 김옥현과 같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우리 조국은 끝없이 부강번영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77(1988)년 제17호〕

《나의 가정이야기》 단편소설. 주체88(1999)년 강귀미 창작. 아버지와 아들의 서로 다른 생활로 엮어진 한 과학자가정의 운명사를 통하여 사회주의 우리 조국이야말로 과학자들의 진정한 삶의 품이라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준 작품이다. 작품의 주인공인 나 진성의 어린시절은 자본주의일본땅에서 흘러갔다. 그때 나의 아버지는 집안에 작은 실험실을 꾸려놓고 풀과 나무에서 천연물감을 얻어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민족적멸시와 천대속에서 하는 연구사업에 애로와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변변치 않은 가산이 연구사업에 깡그리 바쳐지고 살림은 나날이 쪼들려만 갔다. 더이상 가정살림을 지탱할수 없게 된 나의 어머니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진성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버린다. 처자와 생리별을 당한 비극적수난자인 나의 아버지는 집까지 팔아 연구를 심화시키며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마침내 천연물감을 얻어낸다. 아버지는 천연물감생산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가지고 어느 한 방직회사를 찾아간다. 기술자료를 본 회사측에서는 그것이 현존생산품의 실현에 저해가 된다는것을 타산하고 음흉하게도 아버지의 운명이 걸려있는 기술문건을 없애버린다. 피눈물을 삼켜가며 한생을 바쳐 완성한 연구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진 그때에야 일본땅에서 《내 고향의 색갈》을 찾으려던 희망이 어리석은것이였음을 깨달은 아버지는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다가 숨을 거두고만다. 그후 어머니를 따라 조국의 품에 안긴 나는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에서 마음껏 배우고 과학탐구의 길에 나서서 불과 7년만에 천연물감을 추출해내는데 성공하며 30대에 박사가 된다. 그리고 조국은 나에게 과학자로서 누릴수 있는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준다. 작품은 과학탐구의 길에 나선 아버지와 아들의 운명을 통하여 조국과 민족을 떠난 과학연구사업은 뿌리없는 나무와 같은것이며 조국의 품에서만 과학자의 삶도 재능도 아름답게 꽃필수 있다는것을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소설은 조국을 떠난 순수 과학만을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모든것을 잃고 과학적성과를 이룩하고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과학을 하기 전에 조국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며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와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대비로써 우리 인민들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8(1999)년 10호〕

《나의 고백》 서정시. 주체75(1986)년 오영환 창작.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땀과 진정을 바친 사람만이 보람있는 삶을 누렸다고 말할수 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 서정적주인공은 먼저 《너 이 땅에 태여나서 밟은 땅 얼마이고 사귄 사람 얼마인가》를 자신에게 묻고있다. 그다음 넓은 땅을 밟았다고 많은 일을 한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사귀였다고 값있게 산것도 아니라고 토로하면서 피땀을 묻은 땅이 없다면 한생은 《하늘에 흘러간 구름같고 땅우에 스쳐간 바람》같으리라는것을 깨닫고 보람있게 살라고 호소하고있다.

살아라, 살아라 네 모습에
너를 낳은 어머니모색이 남아있듯이
어머니조국의 불멸할 모습속에
네 사랑 영원히 살아있도록!

시는 삶의 가치와 보람에 대한 문제를 의의있게 해명하고있으며 언어형상에서 높은 격조와 강렬한 호소성을 보장하고있다. 〔《1980년대시선》, 문예출판사, 주체79(1990)년판〕

《나의 고지》 서정시. 주체40(1951)년 조기천 창작. 조국의 고지를 피로써 지켜 싸운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위훈을 열렬히 찬양한 작품이다. 새벽안개낀 고지에 대한 서정적묘사로부터 시작된 시에서는 마지막폭탄을 안고 적진에 뛰여든 전사며 공화국만세를 웨치며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은 전사에 대하여 그리고 최후의 혈전을 앞두고 위대한 수령님께 충정의 맹세를 다지는 전사에 대하여 노래하면서 그들이 모두 조국의 고지를 지켜 그렇듯 영웅적이였다는것을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다. 전사들의 이러한 위훈에 대한 이야기는 철벽의 요새로 변함없이 솟아있는 나의 고지에 집중되고 통일되면서 결국 나의 고지는 영웅성의 상징으로, 불멸의 위훈의 탑으로 영원하리라는 사상을 천명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시는 여러가지 극적인 이야기를 펼치면서도 그것을 시인의 강렬한 내적열정으로 주정화하여 높은 시적기백으로 일관시켰으며 인민군전사들이 지켜선 나의 고지를 조국의 모든 고지들로 승화시켜 애국적열정을 격조높이 부각하고있다. 〔《조기천선집》 하,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2(1953)년판〕

《나의 공장》 시초. 주체48(1959)년 전동우 창작.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으로 된 로동계급의 보람차고 즐거운 창조적로동생활을 노래한 작품이다. 《나의 공장》, 《반장아바이》, 《물맞을 두고》의 3편으로 이루어졌다. 시 《나의 공장》은 앞에는 동해의 푸른 물결이 출렁이고 뒤에는 마천령의 아아한 메부리가 솟아있는 공장전경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울려오는 기대들의 음향소리를 장엄한 교향곡으로 느끼며 일터와 합숙, 기대와 동무들을 사랑하는 서정적주인공—로동계급의 무한한 창조적로동의 희열과 기쁨을 펼쳐보이고있다. 시 《반장아바이》, 《물맞을 두고》는 오랜 로동자의 당에 대한 충실성과 로동에 대한 성실성 그리고 진정한 로동의 진미에 대한 깊은 뜻을 생동하고 생활적인 계기속에서 보여주고있다. 시초는 다양한 계기속에서 로동계급의 생활을 보여주면서도 총체적으로는 창조적로동에 대한 그들의 생활감정과 애국심, 헌신성을 노래하는데로 형상을 지향시키고있다. 시초에는 밝고 랑만적이며 생활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애착의 정서가 흐르고있다. 〔《문학신문》, 주체48(1959)년 제28호〕

《나의 교단》 중편소설. 주체71(1982)년 최상순 창작.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한 녀교원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이다. 주인공 현인순은 소학반 교원으로서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어린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며 씩씩하게 자라는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여기고 누가 보건말건 언제나 그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한다. 그는 어린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면 그것을 자신의 큰 잘못으로 여기면서 마음속으로 고민하며 학과실력이 올라가면 그들과 함께 기뻐한다. 하기에 그는 언제나 어린이들속에 살며 어린이들을 조국의 미래를 끗끗이 떠메고나갈 참된 역군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있는 열정과 지성을 다 쏟아붓는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높은 책임성과 교육자적자질, 샘물처럼 깨끗한 량심을 가진 혁명가들만이 우리의 교단에 서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그와 선옥교원과의 관계, 교장과 선옥의 관계를 통하여 옳은 교수교양방법을 찾

아내여 교육사업에 적용할 때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의의있고 절실한 사회적문제를 밝혀내고있다. 또한 작품은 진지한 세부묘사의 탐구로 기정사실화되고 격식화될수 있는 교수활동과정을 생동하고 인상깊게 묘사하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나의 동무들》 중편소설. 주체71(1982)년 김봉철 창작.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진출한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보람찬 로동속에서 참된 로동계급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형상한 작품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세멘트공장 탑식기중기운전공으로 일하던 주인공 성옥은 도예술선전대에 소환되였다가 생산현장에서 자기의 리상을 꽃피울 결심을 안고 공장으로 돌아온다. 그는 소성로개건확장을 위한 가소탑건설장에서 아버지가 창안한 기중기의 운전공으로 일하게 된다. 어느날 공장으로 이동공연을 나온 선전대의 공연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며 후회하던 성옥은 당조직과 사로청조직의 따뜻한 지도방조밑에 점차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벅찬 건설장에 발을 붙이고 성실하게 일해나가게 된다. 또한 그는 로동생활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들떠있는 동창생들의 결함을 고쳐주며 서로 힘을 합쳐서 가소탑건설장에서 창조와 혁신을 일으킨다. 그후 건설장에서 화선입당을 하게 된 성옥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참된 로동계급이 될것을 결심하고 아버지의 당생활수첩을 받아안는다. 소설은 세멘트공장확장공사의 가소탑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간단한 이야기를 통하여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에서 청년들이 서야 할 위치는 어디인가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정다하는 길에 우리 시대 청년들의 긍지와 영예가 있다는것을 힘있게 천명하고있다. 이와 함께 작품은 형상에서 랑만적인 색채를 진하게 풍기고있으며 청년들의 성격을 개성적으로 뚜렷하게 부각한 좋은 측면을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나의 동지들》 장편소설. 주체94(2005)년 김정남 창작, 어두운 철창속에서 원쑤들의 가혹한 박해와 고문, 모진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만을 변함없이 믿고 따른 동지들의 고귀한 넋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굴함없는 옥중투쟁으로 혁명가의 삶을 빛내인 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로 꿈결에도 그리던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된 주인공 김영돈은 남조선땅에서 흘러보낸 반세기 가까운 지난날을 돌이켜본다. 전쟁이 끝난지 두해가 되던 해에 불행하게도 영돈은 적들에게 체포된다. 인생의 초엽인 22살의 애젊은 나이에 사형판결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끌려간 그는 비록 사형수감방에 갇힌 몸들이지만 인민군군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아침운동도 하고 항소투쟁도 견결히 벌리는 동지들의 모습에서 커다란 사상정신적충격을 받는다. 특히 영돈은 해방전에 목격한 **김일성**장군님의 항일유격대를 도와 적들의 기밀자료들을 알아내고 영웅적최후를 마친 한 조국광복회 특수회원처럼 놈들의 어리석은 흉계를 짓부시며 동지들을 위해 한몸 기꺼이 바친 전 조선인민군 정치부련대장이였으며 유격대의 지휘일군이였던 박우성의 불굴의 투쟁모습에서 장군님의 전사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똑똑히 깨닫게 된다. 줄기찬 항소투쟁으로 최종재판에서 장기형을 언도받고 ㄷ형무소로 옮겨간 그는 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혁명가들처럼 한생을 변함없이 빛내여갈 굳은 결심을 다진다. 그는 적들의 검질긴 유혹과 전향테로에 맞서 굴함없이 투쟁하는 한편 놈들의 고문만행으로 팔이 부러지고 운신조차 하기 힘들어하는 현파와 위병에 시달리는 임진구를 비롯한 동지들을 정성껏 돌봐주며 적들의 사촉을 받고 그들을 괴롭히는 깡패출신의 잡범 주수철에게 된타격을 안기기도 한다. 이 과정에 영돈은 감옥안의 비밀조직인 투쟁위원회 위원으로 자라나며 좌익수들에 대한 감옥당국의 처사를 반대하

는 단식투쟁에서 오래동안 고락을 같이해 온 현파를 잃기도 한다. 그후 ㅈ형무소에 이감되여 옥살이를 하던 영돈은 중년이 다 되여서야 15척 담장밖으로 나오게 된다. 출옥후 임진구와 함께 생활하던 영돈은 어느날 희생된 현파의 마지막부탁대로 그의 딸을 만나보기 위해 유성으로 내려간다.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 불러 가수가 되려하였던 현파의 딸 현선아는 《빨갱이》인 아버지로 인하여 음악적재능을 떨칠수 없게 되자 고모와 함께 양계장을 경영하다가 지금은 그 기업을 도맡아 운영하고있었다. 여기서 영돈은 주수철과 또다시 만나게 된다. 주수철은 그동안 살림까지 펴놓았었지만 안해가 싫다고 하여 집을 나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중 현파와 한때 한감방에 있었다는것을 구실로 양계장에 자리를 잡은 후 생산감독의 자리까지 타고앉게 되였던것이다. 영돈은 그가 개심하여 새 출발을 한것으로만 여기고 선아에게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준다. 그리고 선아의 부탁대로 양계장에 남아 일손을 도우면서 그가 아버지의 뜻을 옳게 이어나가도록 교양하고 깨우쳐주는 한편 앓고있는 임진구를 걱정하여 그에게 자주 찾아가본다. 영돈의 출현에 뒤가 켕긴 주수철은 담당형사 변두칠의 정부인 양계장경리원 홍란희를 사촉하여 그를 모해하려고 하며 변두칠도 출세욕과 공명에 사로잡혀 주인공을 전향시키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다못해 나중에는 부하들을 내몰아 그를 사경에 빠뜨린다. 이러한 때 대학생들의 모임에 참가하고 돌아오던 임진구가 끝내 통일의 날을 보지 못하고 희생된다. 그러나 영돈은 그 어떤 회유와 기만, 가슴아픈 희생에도 끄떡하지 않고 변함없이 신념을 고수해나간다. 주인공을 비롯한 비전향장기수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혁명적신념에서 큰 감명을 받은 현선아는 마침내 아버지가 간 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의 길에 떨쳐나서며 주수철도 자기의 지난날을 뉘우친다. 영돈은 현파의 제사날에 또다시 놈들에게 끌려가 악명높은 《반공법》과 《사회안전법》에 의하여 기약할수 없는 감옥살이를 강요당하게 되지만 주저없이 새 전구를 향해 나아간다. 소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절세위인들의 통일의지를 받들어 변함없이 신념을 지켜싸운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강의한 의지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4(2005)년판〕

《나의 벗들》 단편소설. 주체50(1961)년 김병훈 창작. 전변된 사회주의농촌을 취재하기 위하여 길을 떠난 기자가 취재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펼쳐보인 1인칭형식의 작품이다. 군소재지에서 150리나 떨어진 중산리를 찾아가던 기자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도상업량정국 녀성지도원이다. 염전지구 로동자들의 낡은 생활습성을 깨우쳐 천리마시대의 로동계급답게 생활을 문화적으로 윤택하게 하도록 이끌어주고 시대와 동무들로부터 멀리 뒤떨어진 한 청년을 교양개조하여 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게 한 그 녀인의 이야기를 들은 기자는 이어 군농기계작업소 당위원장을 만나 사회주의농촌의 전면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뜨락또르운전수 김남수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취재의 마지막길에서 이곳 사람들로부터 친정어머니로 불리우는 군병원 조산원 성심이의 아름다운 소행을 직접 보고 듣게 된다. 소설은 하루동안에 기자가 만난 훌륭한 벗들의 이야기, 시대와 혁명에 대한 높은 자각을 안고 당의 뜻을 꽃피우기 위하여 애쓰는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보람찬 삶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0(1961)년 9호〕

《나의 선생님》 단편소설. 주체71(1982)년 신용선 창작. 제자들이 나라의 참된 일군으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는 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평양강철공장 지배인

경훈은 자재를 받으러온 락원악기공장의 인수원을 통해 잊지 못할 스승의 소식을 알게 된다. 그 선생은 경훈의 고향인 산골마을에 첫 학교가 섰을 때 그 학교의 교장이였고 경훈의 담임선생이였다. 그는 아이들의 가슴속에 어서빨리 자라 나라의 역군으로 될 꿈을 심어주었고 경훈이가 자기 동무의 숙제를 대신해주었을 때에는 그의 잘못을 엄하게 깨우쳐준다. 풍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정서를 키워주던 선생은 그후 전쟁이 일어나 학교가 폭격에 불타버리자 군복을 입고 전선에 나갔다가 한팔을 잃은 영예군인이 되여 돌아온다. 한팔로 울리는 단조로운 풍금소리가 아이들의 밝은 얼굴에 그늘을 지우고있다는것을 깨달은 선생은 새로 온 녀선생에게 풍금을 배워주고 자기는 가슴아파도 아이들을 위해 교단을 떠난다. 인수원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옛 스승이 락원악기공장에서 지배인으로 사업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경훈은 다른 공장에 배당된 인발관을 공장에 먼저 보내도록 한다. 그런데 어느날 그 선생이 경훈을 찾아와 안면관계로 나라의 자재공급질서를 어긴데 대해 책망하면서 어제날의 그때처럼 그의 잘못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아이들이 철봉대를 세울 인발관을 얻으러 왔을 때에는 경훈으로 하여금 그 애들을 도와주도록 권고한다. 소설은 조국의 미래를 가꾼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후대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며 제자들이 나라의 일군으로 자란 후에도 그들이 조국을 억세게 받들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자의 뜨거운 마음과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1(1982)년 7호〕

《나의 수기》 단편소설. 주체66(1977)년 김성관 창작.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동무들을 위해 헌신할줄 모르던 한 청년이 조직과 집단의 방조밑에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나가는 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항해사가 될 포부를 안고 중학교를 졸업한 후 창포수산사업소에 온 리영호는 한달간의 기능전습을 마치고 원양뜨랄선 53호에 배치된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취사원일을 시킨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열성을 내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다. 그는 동무들을 식성에 따라 별명을 붙여 부르며 마구 대하는가 하면 바빠서 늦게 오는 무전수에게 찬 음식을 그대로 내주어 사로청모임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고 선장을 찾아가 자기를 교대시켜줄것을 제기했던 그는 동무들을 아낄줄도 사랑할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항해사가 될수 있겠는가고 진정으로 타이르는 선장의 말을 듣고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동무들의 식사보장을 책임적으로 하지 못한 잘못을 뉘우치며 일을 성실하게 하여 동무들을 기쁘게 해준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라야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참다운 일군이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6(1977)년 5호〕

《나의 자랑》 서정시. 주체38(1949)년 채경숙 창작.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우리 인민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힘있게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된 자랑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에 시적 초점을 집중시키고있다.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긍지높이 간직되여있는 자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계승자로 된 크나큰 영예이며 자랑이다. 때문에 서정적주인공은 이 자랑이 《영원한 자랑》, 《비길데 없는 자랑》이며 《숨길수 없는 자랑》이라고 긍지높이 말한다. 시에서는 이러한 자랑을 힘있게 노래하면서 혁명전통의 계승자로 된 자랑은 곧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살며 일하는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있다. 〔《조선문학작품선집》 23, 교육도서출판사, 주체72(1983)년판〕

《나의 조국》 서정시. 주체68(1979)년

김상오 창작. 조국에 대한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먼저 조국은 시인의 첫삶과 함께 조용히 자리잡았으며 언제나 심장에 가득차있어 모든 운명을 같이하는 더없이 소중한것이라는데 대하여 열정적으로 노래하면서 조국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다음부분에서 그에 대한 형상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서정적주인공에게 있어서 조국은 고향마을의 정든 집과 동구밖 오리나무숲의 정겨운 설레임소리이기도 하고 새벽녘 들가에 피는 녀인들의 웃음소리이기도 하며 송아지떼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줄대며 흐르는 여울물소리이기도 한것이다. 또한 조국은 고향의 어머니와 어릴적 동무이기도 하며 처녀의 그윽한 눈동자이기도 하다. 시에서는 이처럼 구체적인 사상감정으로 조국에 대한 표상을 준데 기초하여 조국이 왜 그리도 귀중한가를 지난날 조국을 잃고 헤매던 시기의 절통한 감정과 결부시켜 밝히였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조국이 더없이 소중한것이기에 혁명선렬들은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였다고 강조하고 마침내 조국에 대한 사상감정의 정수를 터친다.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긍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 품이여라!
조국이여 나의 조국이여

시는 깊은 사색과 절절한 체험세계를 통하여 조국의 품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시는 사상이 심오하고 형상이 개성적이고 참신하며 서정성이 풍부한것으로 하여 조국을 노래한 서정시의 대표작의 하나로 되고있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나의 직무》 단편소설. 주체75(1986)년 김명익 창작. 새로 건설되는 오리공장의 당비서로 임명된 주인공 내가 공장에 갓 배치된 처녀들을 훌륭한 사양공으로 키워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오리공장에 배치되여온 춘화는 자기는 원래 간호원이 되려고 했다면서 공장에 마음을 붙이지 못한다. 그는 밤경비를 책임적으로 서지 않아 건설에 쓰려고 빚어놓은 블로크들이 비에 맞아 죽탕이 되게 하는가 하면 중앙예술단의 공연을 보려고 승인도 받지 않고 자기 집이 있는 시내로 내려간다. 그를 찾으려고 떠난 나는 그의 어머니를 만나 춘화를 추궁할 대신 그가 앞으로 훌륭한 수의사가 될것이라고 말해준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청진기와 완구오리들을 사서는 합숙에 있는 처녀들에게 갖다주어 그들이 생활을 즐겁게 하고 일에 대한 의욕도 가질수 있게 한다. 또한 합숙길에 도드라져나온 돌들을 들춰내여 처녀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게 해주며 구미포오리공장에 대한 실습도 조직하여 그들의 시야를 넓혀준다. 이 과정에 모든 처녀들이 기능높은 사양공으로 되며 춘화는 으뜸가는 혁신자로 성장한다. 소설은 녀성일군인 나의 체험담을 통하여 일군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대하며 이끌어주어야 한다는것을 밝히고 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5(1986)년 9호〕

《나의 추억》 서정시. 주체74(1985)년 홍현양 창작. 불행했던 지난날에 대한 추억에 비추어 오늘의 행복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는 사상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서정적주인공은 가버린 시절을 불러주는 추억속에서 《토스레옷 한벌 입고 류랑의 길 떠나던 소년》인 자기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때없이 그 모습이 안겨오고 때로는 바라보는 두눈을 붉어지게 하는것인가를 절절하게 토로하고있다. 시에서는 눈물속에 자라난 어제날을 잊지 말라고 찾아오는 모습, 《가난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 가슴에 깨우쳐》주는 그것이 추억임을 강조

하고 언제나 그 추억을 안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할 굳은 자각과 열망을 보여주고있다.

아, 나의 추억이여
자주 찾아와 내 집 문을 두드리며
이 마음속에 깃들어
토스레옷 입은 그 소년이
나였음을 속삭여다오!

시는 어제와 오늘의 뜻깊은 대조를 이룬 서정적화폭속에서 시인의 체험세계를 깊이있고 진실하게 개방하고있다. 〔《1980년대시선》, 문예출판사, 주체79(1990)년판〕

《나의 추억, 40년》 장편소설. 주체91(2002)년 김삼복 창작. 비전향장기수 김석형을 원형으로 하여 신념을 지킨 인간의 고결함에 대하여 보여주고있는 작품이다. 소설은 대전교도소로 이감되는 수인들중의 한사람인 김현석에게 9살난 한 어린 소녀가 서울역에서 장미꽃송이를 주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낯모를 소녀에게서 꽃을 받은 현석은 민주와 통일을 주장하며 남북학생회담을 지지성원하는 5월시위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체포된 통일애국투사였다. 중앙정보부적으로 정치범들을 다루는데서 뛰여난 솜씨와 경험을 가지고있다는 수석형사 민태호를 비롯한 놈들에게서 갖은 취조와 고문을 당하였지만 그는 조국은 반드시 통일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 재판정에서도 현석은 피고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가라는 판사의 물음에 단호히 자기의 무죄를 선언하며 반북대결의식을 버릴데 대하여서와 전민족의 단합으로 통일을 할데 대한 론거를 당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재판관들을 전률케 한다. 이런 현석에게 《반국가적활동》을 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놈들은 해방직후 북에서의 내무원(당시)활동을 빗대고 법적근거를 그럴듯하게 꾸미여 사형못지 않는 극형인 무기징역을 언도한다. 이렇게 되여 대전교도소에로 이감된 현석은 사상범들이 갇히여있는 특별사동에서 4.19인민봉기의 선두에서 싸우다 체포된 라운성, 장기수 장영초 등과 함께 형언할수 없는 비인간적학대를 받으며 수인생활을 한다. 사상범들을 대전교도소에 모아놓고 전향을 강요하기 위해 놈들이 집중공세를 벌리는 기회에 많은 동지들을 알게 된 현석은 특별사동에 있는 지하조직의 지도밑에 통방과 개별접촉을 통한 학습이 진행되자 조선로동당사를 강의하는 사업을 맡아했을뿐아니라 산보시간을 늘이고 앓는 라운성이를 병동으로 옮겨줄것을 요구하는 등 여러가지 투쟁을 벌린다. 사상범들이 한데 뭉쳐서 못하는 일이 없다는것을 간파한 보안계놈들은 그들을 다시 갈라놓을 심산으로 감방들에 대한 검방을 불시에 들이댄다. 현석을 비롯한 사상범들은 검방시에 나진 한개의 바늘때문에 장영초를 실신상태에 빠뜨린 놈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단식투쟁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자 악에 받친 놈들에 의해 감행된 강제급식으로 인하여 라운성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며 이것은 감옥내의 동지들은 물론 감옥밖의 수많은 청년학생, 지식인들을 투쟁에로 부르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이러한 때 력사적인 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되여 온 겨레가 그토록 기다려온 통일의 서광이 비낀다. 그러나 이에 역행하여 놈들은 전향테로의 도수를 높이면서 참관, 음식대접, 녀자와의 접촉, 혈육에 대한 그리움,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주는 공작 등을 들이댄다. 적들의 전향공작에 넘어가 현석과 함께 옥살이를 같이해오며 고생도 많이 겪고 투쟁도 같이한 장영초가 가전향을 한다. 가전향이라 하지만 또 실지 그가 그렇게 마음먹고 통일을 위해 투쟁한다 하더라도 전향은 어디까지나 전향인것이다. 그러나 현석은 적들의 그 어떤 전향공작에도 추호의 동요없이 사상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떳떳이 들고 투쟁한다. 그는 사상범들과 함께 또 하나의 생지옥인 대구교도소로 이감되였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혁명은 승리하며 조국은 반드시 통일된다는 굳은 신념을 지니고 사상범들을 존경하는 담당간수를 교양하여 간수노릇을 그만두게 할뿐아니라 그의 장인까지도 **김일성**주석을 받들어 조국통일에 남은 생을 다 바칠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렇듯 30여년의 긴 세월 옥중에서 신념을 지켜낸 현석은 형언할수 없는 만가지 고초를 다 이겨내고 출옥하게 된다. 감옥문을 나선 현석은 어린시절에는 자기에게 장미꽃을 주었으며 오늘은 성장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선 민가협량심수후원회 회원 리순영과 반가운 상봉을 하며 드디여 다른 비전향장기수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 그러나 출옥후 이미 결의한대로 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섰어도 장영초는 자신이 썼던 전향서때문에 처자가 그토록 기다리는 조국땅에 돌아오지 못한다. 이러한 형상들을 통하여 소설은 인간이 자기를 지키고 사상을 고수할 때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를 보여주고있으며 신념을 지키는 인간에게는 행운이 차례지고 그것을 잃으면 비운이 차례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30년간의 감옥생활을 기본으로 하여 인간과 야수와의 사상정신적대결속에서 사상과 의지의 강자로서의 주인공의 성격을 훌륭히 형상하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1(2002)년판〕

《나의 평양》 서정시. 주체78(1989)년 계훈 창작. 세계 5대륙의 청년학생들이 모여드는 축전도시 평양에서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한 작품이다. 서정적주인공은 먼저 모란봉에 올라 대동강에 떠가는 흰돛을 보며 넓은 세상을 다 가보고싶었던 어린시절의 꿈을 표현하고나서 오늘은 그 세상이 다 여기에 모여오는 경사를 맞이하였다는것을 토로하고있다. 시에서는 이제 평양에서 세계 5대륙 청춘들이 큰 춤마당을 펼칠것이라고 하면서 평양이 오늘처럼 온 세계가 동경하며 찾아오는 자랑스러운 도시로 될수 있은것이 무엇때문인가를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

> 아, 평양!
> 너의 영광을 다 안아보며
> 너의 빛발에 휩싸여 감격에 젖으며
> 내 우러러 보노라
> 창공높이 휘날리는
> 당중앙의 저 붉은 기발을

시에서는 민족의 긍지와 영예를 빛내여준 우리 당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이 지구우에 우리 평양이 있다는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것인가고 절절하게 토로하고있다. 시는 평양에 대한 자랑으로 충만된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적체험세계를 진실하고 깊이있게 개방하고있으며 시형상전반을 통하여 수사학적감탄과 부름말들을 활용하여 사상정서적주장을 강하게 드러내고있다. 〔《1980년대시선》, 문예출판사, 주체79(1990)년판〕

《나의 행복》 영화문학. 오혜영 창작. 생활과 투쟁속에서 점차 참다운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고 집단과 동지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어느 한 녀성군의일군을 형상한 작품이다. 의학대학에서 공부하고있던 주인공 홍수정은 전쟁이 일어나자 동창생 지은이와 함께 군대에 입대하여 전선치료대로 나간다. 자기 사랑의 울타리안에서 기쁨과 행복만을 추구하던 수정은 힘겨운 전선길에서도 그리고 숙영의 한밤에도 언제나 싸움터로 남먼저 달려나간 사랑하는 애인 박영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그를 자기의 사랑과 행복의 전부로 간주한다. 어느날 40여명의 환자후송임무를 받고 서향골에 갔던 수정은 임무수행도중 박영이가 수리봉계선에서 치렬한 격전을 치르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자 자기가 받은 전투임무도 잊고 포연탄우를 헤치며 애인을 찾아 정신없이 달려간다. 이렇듯 개인적인 사랑만을 추구하던 수정은 시련과 죽음의 고비들

을 넘는 과정에 점차 개인의 사랑과 행복은 조국과 집단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깨닫게 된다. 특히 부상병들과 후송대의 안전을 위해 단신으로 바다에 뛰여들어 적함을 폭파시키고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간호장 영숙의 영웅적행동을 목격하면서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은 집단과 동지를 위해 자기를 바치는 투쟁속에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체득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박영의 생사를 가늠할수 없게 된 막막한 처지에서도 마음을 굳게 다잡고 부상병들의 치료에 전념하며 전쟁이 끝나고 함께 일하던 지은이마저 연구사업을 위해 대학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도 전우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갈 굳은 결심을 안고 군복을 벗지 않는다. 사랑하는 애인의 생사여부로 하여 남몰래 가슴을 태우던 수정은 병원 정치부원장의 노력에 의하여 뜻밖에도 박영을 만나게 되며 동지들의 축복속에 가정을 이루게 된다. 행복한 나날이 흘러 그들에게는 귀여운 딸애까지 생기게 된다. 이무렵 병원원장으로 사업하게 된 수정은 부대관리를 잘하여 규률있고 전투력있는 대오로 꾸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바쳐간다. 그러던 어느날 해군전대장으로 일하던 남편 박영이 우리 령해에 불법침입한 미제의 군함을 까부시는 싸움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접한 그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몸의 균형마저 지탱하기 어려웠으나 마음을 굳게 다잡고 분연히 일어나 자신이 직접 대오의 앞장에서 부대의 전투훈련을 지휘해나간다. 작품은 굳센 각오와 투지를 안고 부대를 일당백의 강철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온 수정이가 조국해방 40돐기념 열병식대오의 앞장에서 주석단을 향하여 충정의 보고를 올리며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가는 힘찬 모습을 보여주는데서 끝난다. 작품은 주인공 홍수정의 형상을 통하여 인간의 참된 사랑과 행복은 결코 개인의 울타리속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는 주체의 혁명적인생관, 참다운 행복관을 깊이있게 밝혀주고있다. 작품은 주체77(1988)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나의 따발총》 서정시. 주체39(1950)년 안룡만 창작. 따발총과 함께 원쑤에게 죽음만을 주며 남진하는 인민군용사들의 충천한 기세와 멸적의 투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승승장구 38도선을 넘어 벌써 아득한 천리길》을 달려온 그 길은 전사－서정적주인공이 원쑤를 무찌르는 통쾌한 섬멸전의 길이였으며 남녘해방의 성스러운 길이였다는것을 노래하면서 인민의 이름으로, 조국의 이름으로 그리고 영웅적최후를 마치고간 유격대원이였던 사랑하는 동지의 이름으로 원쑤를 향해 총탄을 퍼부으며 달리는 서정적주인공의 원쑤격멸의 투지와 필승의 신념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바라보면 저 해안선
눈앞에 다가서는
우리 나라 남쪽끝 수평선이여
나의 따바리! 가자!

시에서는 대구, 전주를 거쳐 려수, 목포, 부산으로 달려가 조국통일의 그날을 맞이하려는 인민군전사들의 굳은 결의를 랑만적으로 노래하고있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나의 아버지》 영화문학. 렴성국, 허일영 창작. 당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부모잃은 오누이의 형상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인덕정치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형상한 작품이다. 오누이인 효정과 은정은 일찌기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슬하에서 자라다가 아버지마저 잃게 된다. 오누이의 아버지가 일하던 철도부문의 당조직에서는 그들을 기관사로 성실히 일해온 아버지의 뒤를 잇도록 훌륭히 키울데 대하여 토론한다. 당비서 진국은 아버지를 잃은 다음 원산에 있는 고모네 집에 가있던 은

정이를 평양으로 데려오며 오누이가 함께 살도록 합숙방도 정해주고 11명의 어머니들이 그들을 돌봐주도록 한다. 또한 예술체조에 소질이 있는 은정이가 궁전소조에 다니도록 하며 밤마다 숙제검열도 해주고 좋은것이 생기면 그부터 생각하면서 친부모의 심정으로 그를 아끼고 사랑해준다. 그리하여 은정이는 날이 갈수록 진국에게 정이 들어 그를 아버지로 여기게 된다. 그런데 그처럼 살뜰하던 당비서가 학교로 가고 명규가 비서로 사업하게 되자 은정은 마음의 기둥을 잃은것처럼 허전해하며 새 비서에게 선뜻 정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후 생활과정에 명규비서가 남모르게 자기에게 기울이는 정을 알게 된 은정은 그를 친아버지로 따르게 된다. 어느덧 중학교를 졸업한 은정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당이 청춘들을 부르는 석탄전선으로 자진해가는 춘심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되여 자기가 열렬히 지망하던 체육대학입학을 단념하고 아버지가 섰던 수송전선에 설것을 결심한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은정의 결심은 기특하지만 예술체조에 대한 그의 재능을 꽃피워주며 생전에 그의 아버지가 바라던것을 생각해서라도 그를 체육대학에 보내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며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신다. 실로 꿈같은 이 행복앞에 오누이는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자기들의 친아버지이심을 절감하게 된다. 작품은 나어린 소녀 은정이의 시점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소유한 두 당비서에게서 꼭같이 분출하는 뜨거운 사랑의 열기를 절감하게 하여 위대한 어버이는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라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작품은 주체85(1996)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나의 일기》 가사. 주체87(1998)년 최준경 창작. 일기를 통하여 하루일을 돌이켜보면서 인생의 자욱자욱을 순결한 량심에서 우러나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심으로 수놓아가며 삶을 빛내여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숭고한 지향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에서는 노을이 불타는 창가에 앉아 하얀 종이를 량심의 거울로 삼아 보람찬 하루를 비추어보며 《장군님 모시는 전사의 신념》, 《장군님 따르는 충효의 마음》이 불처럼 뜨겁고 샘처럼 맑고 깨끗했는가를 돌이켜보는 서정적주인공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가사에서는 하루하루를 불타는 신념과 충정으로 새겨가지만 만족을 모르며 충정의 한길에서 삶을 빛내여갈 열정과 맹세로 하루를 보내고 새날을 설계하며 하루를 살아도 장군님을 위해 별처럼 살려는 우리 인민의 삶의 목적,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숭고한 높이에서 정서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조선노래대전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나의 위치》 중편소설. 주체89(2000)년 박찬은 창작. 우리 당의 경공업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기초식품의 하나인 기름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식료부문 일군들의 로력적위훈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3개장으로 구성되여있다. 제1장 《충복》에서는 우리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삶의 위치를 어디에 정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있다. 도지방공업총국 식료처 부원 손영은 우리 식으로 기름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총국의 기술지도안을 가지고 식료공장에 내려와서 사업하는 과정에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기름실수률을 훨씬 높일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름을 뽑기 위한 실험연구를 진행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공장기술일군들이 새로 진행하고있는 연구는 그가 달포전에 청룡식료공장에서 시도해보려고 시험생산을 진행하다가 실패하여 사고심의까지 받고 걷어치운 실험연구였다. 손영은 어제날의 쓰라린 교훈으로 하여 식료공장 일군들이 하는 일에 선뜻 찬성해나서지 못하였지만 인민

생활을 책임진 주부로서 일군들이 자기 위치를 바로 정해야 한다는 지배인 우병태의 충고를 듣고 다시 실험연구에 달라붙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식료처 처장 명로석을 비롯한 총국안의 일부 사람들은 손영에게 지난 시기의 교훈을 되풀이하지 말고 총국의 지시대로 고분고분 일하라고 거듭 권고하였지만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연구를 계속한다. 제2장 《애타는 가슴들》에서는 주인공 손영이 실험연구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앞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인민의 충복답게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있다. 먹는기름생산에서 미생물공업화를 실현하여 기름실수률을 높이기 위한 실험연구는 결코 헐한 일이 아니였다.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무균조작을 잘못하여 실패도 있었으며 그로 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소까지 받았다. 남편에 대한 좋지 못한 뒤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안해 설은란은 손영에게 집으로 돌아와서 세대주구실이라도 바로 해달라고 거듭 간청한다. 그러나 손영은 대학시절에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온 자리에서 다진 결의대로 반드시 기름연구를 완성시킬것을 굳게 마음다진다. 제3장 《첫눈 내리는 날》은 손영이 식료공장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밑에 실험에서 성공하여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기름생산을 늘이는데 적극 이바지한 내용을 보여주고있다. 손영의 실험연구가 거의 마감단계에 들어서고 그것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다그쳐질수록 그의 앞에는 어려운 과제들이 새롭게 제기된다.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첨가제가 부족되였으며 낡은 생산방식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기계제작사업도 따라세워야 하였다. 손영은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실험에서 끝내 성공하며 기계설비들도 개조하여 기름생산을 높임으로써 그후 총국적인 방식상학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손영의 피타는 노력으로 이룩된 성과를 보고 지난 시기 자리지킴이나 하면서 여생을 편안히 보낼수 있는 아늑한 보금자리만을 찾던 명로석처장과 한가정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남편의 속을 태우던 은란이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 작품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우리 일군들의 참된 삶의 위치는 인민의 충복으로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어렵고 힘든 과제를 남먼저 풀어나가는 길에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금성청년종합출판사, 주체89(2000)년판〕

《날개》 단편소설. 주체51(1962)년 김재규 창작. 휴가기간을 수도 평양의 천리마동상건설에 바친 두 인민군전사의 아름다운 소행을 통하여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얼마전에 있은 대렬검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중대특무장 오동순은 표창휴가를 받고 고향에 가던중 수도에서 진행되는 천리마동상건설에 참가할것을 결심한다. 건설장에서 그는 전사단적인 동기실탄사격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여 사단장의 감사를 받고 고향에 표창휴가를 간 중대의 꼬마전사 최영준이가 휴가 전기간을 천리마동상건설에 바쳤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때에야 비로소 고향소식을 물을 때면 어물쩍해넘기군 하던 영준의 석연치 못한 행동에 대해 리해하게 된 동순은 그의 고향까지 들려보라던 중대장의 임무도 잊고 일터에 뛰여든다. 천리마동상이 완공될무렵에 휴가를 끝마치고 부대에 돌아온 그는 표창휴가후 학습과 훈련에서 비약을 일으키는 영준의 아름다운 소행을 널리 소개하다가 결국 자신의 소행까지도 중대지휘관들이 짐작하게 한다. 그리하여 동순과 영준은 이튿날 저녁 사단장의 엄격한 명령에 따라 두번째 휴가를 받게 된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인민군전사들이 지닌 고귀한 정신세계야말로 천리마의 기상으로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조국의 억센 날개이라는것을 재치있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1(1962)년 3호〕

《날개》 단편소설. 주체57(1968)년 전기영 창작. 항일혁명투쟁시기 소년중대원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정과 사랑을 감명깊게 형상한 작품이다. 유격대에 입대한지 얼마 안되는 소년중대원 억손이는 규률을 어기고 밤에 신발을 벗고 자다가 갑자기 적들이 달려드는 바람에 신도 못 찾아신고 맨발로 뛰여나오게 된다. 전투후에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쏙새풀에 할퀴우고 돌에 부딪쳐 상한 그의 발을 보시며 유격대원의 발은 새의 날개와도 같다, 조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신발을 벗을 새없이 산과 들을 뛰여다니며 일본놈들과 싸워야 할 투사들이 유격대의 규률을 위반하면 안된다고 하시며 사무장 금순에게 무원칙한 사랑을 경계하고 혁명의 견지에서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시고는 경위중대원들을 파견하시여 억손이의 신발을 찾아오도록 하시고 그의 상처에 약까지 발라주신다. 부드러우면서도 엄하게 타이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억손은 그이께서 주신 날개를 펴고 저 끝없는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며 훌륭한 혁명가가 되리라 굳은 결의를 다진다. 소설은 유격대원의 발은 새의 날개와 같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모를 박고 이야기를 집중시키고 전개해나감으로써 소년중대원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세계를 넓은 폭과 깊이를 가지고 감명깊게 펼치고있으며 그이의 품속에서 혁명의 후비대로 자라나는 소년중대원들의 긍지와 영예를 독특한 정서적색갈로 특색있게 밝히고있다. 특히 억손이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결심을 다지기까지의 성격발전과정을 다양하고 특색있는 정황과 계기를 통하여 보여줌으로써 작품의 개성적특성을 잘 살리고있다. 〔작품집 《날개》,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7(1988)년판〕

《날개》 단편소설. 주체76(1987)년 리순화 창작. 안전바줄은 건설자들을 위한 사랑의 날개라는 사상을 보여준 작품이다. 광복다리건설장에서 일하는 청년연공 무현과 로동안전원 석근로인의 딸 옥실은 기한전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 아글타글 애쓴다. 한편 석근로인은 일욕심만 부리면서 안전바줄을 착용하지 않고 일하기가 일쑤인 무현을 3일동안 처벌도 주고 규정학습도 시킨다. 그러나 《안전바》라는 별명이 붙은 석근로인의 잔소리를 피해 무현은 야간에 옥실이와 함께 작업을 하며 이것을 본 석근로인은 그들에게 불을 피워주고나서 해방전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해준다. 나라없던 그 세월 석근은 어린 두 동생을 위해 토목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수시로 일어나는 사고로 인한 비참한 광경을 보고 제발 무사하기만을 바라군 하였다. 그러나 오늘은 로동자 한사람한사람의 안전을 위해 로동안전규정이 법으로 되여있고 로동안전원이 따라다니는것이다. 로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현은 건설자들을 위하는 당의 은정이 바로 하나하나의 안전바줄마다에 뜨겁게 어려있음을 깊이 느끼게 된다. 소설은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건설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어머니당과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뜨겁게 새기게 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6(1987)년 7호〕

《날개》 장편소설. 주체96(2007)년 조상호 창작. 해방전 모진 천대와 구박속에서 시달리고 짓눌려 살아온 평범한 산골처녀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세심한 사랑과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나라의 첫 녀성비행사로, 공화국영웅으로 자라나 값높은 삶을 누리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해방전 아이보개, 머슴군으로 천대와 멸시속에 살아오던 주인공 태선녀는 일제패잔병놈들의 마수에서 자기를 구원하고 희생된 항일혁명투사 리순절의 뜻을 이을 결심으로 혁명의 군복을 입는다. 보안간부훈련소에서 공부하던 그는 평양학원에 항공과가 새로 생긴 소식을 듣자 비

행사가 되려는 꿈을 안고 그곳으로 찾아간다. 그러나 항공과 부과장 리철과 부원장 라경준은 그가 소학교도 나오지 못한데다가 녀성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학원도서실에 배치한다. 하지만 그는 비행사가 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한다. 허나 육체적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항공과 학생들이 먼저 졸업한것으로 하여 그는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 어느날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숙동지께서 어리신 아드님과 함께 새로 조직된 비행련대를 찾아주신다. 수령님께서는 항공대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비행사들의 훈련모습도 보아주신다. 우리 녀성들속에도 비행사가 되고 싶어하는 동무가 있다는 김정숙동지의 말씀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선녀를 몸가까이 부르시여 그가 비행사가 될 결심을 하게 된 사연도 알아보시고 못내 대견해하시면서 그를 잘 키우라고 당부하신다. 그후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항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전쟁으로 하여 제대된 선녀는 김정숙동지의 뜻을 받들지 못한 심한 자책감으로 모대긴다. 이러한 때 항공사령부를 찾으시여 적의 항공우세를 짓부셔버릴 명안을 가르쳐주시던 수령님께서 선녀에 대해 알아보신다. 선녀에게서 새시대의 주인으로 떨쳐나선 조선녀성들의 모습을 보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전쟁이 아무리 엄혹해도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막을수 없다고 하시며 녀성의 체질에 맞게 훈련을 잘 시켜 그를 훌륭한 녀성비행사로 키우라고 말씀하신다.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제일 유능한 비행사의 지도밑에 선녀는 모진 난관을 이겨내고 마침내 우리 나라의 첫 녀성비행사로 자라난다. 그러나 보수적인 사고관점에 사로잡힌 일부 일군들은 선녀가 비행사로 된것을 기적으로, 자랑으로 여기면서도 그를 좀처럼 전투에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바쁘신 속에서도 선녀가 있는 비행구분대를 찾아주신다. 선녀의 비행모습을 보아주신 수령님께서는 체질에 맞는 비행기종류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속에 첫 전투에 참가한 선녀는 임무를 무조건 수행하겠다는 생각만 하던 나머지 규률을 위반한것으로 하여 엄한 비판과 처벌을 받는다. 리철과 항일혁명투사 박경심으로부터 병사들을 그토록 아끼시는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의 세계와 자기에 대한 수령님의 기대, 수령님의 집무실에 적비행기의 총탄이 날아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선녀는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하늘을 날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된다. 그후 선녀는 전투마다에서 높은 집단주의정신과 용감성을 발휘하여 수령님의 작전적 구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며 《하늘의 신》이라고 떠드는 미제침략군 비행기를 쏴떨군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선녀의 전투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여 그에게 공화국영웅칭호도 안겨주시고 설날에는 그를 부르시여 오찬과 기념촬영도 마련해주시고 기대와 믿음이 담긴 선물도 안겨주신다. 작품은 주인공 태선녀의 성장모습을 통하여 백두산위인들의 품이야말로 우리 인민모두의 참된 삶의 품이며 그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당당한 나라의 주인, 시대의 주인으로 자라날수 있었다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또한 작품은 선녀의 뒤를 따라 녀성비행사가 된 정은하와 리철, 라경준 등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사수의 제일선에 서는것이 이 땅에 사는 공민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로 된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6(2007)년판〕

《날개달린 룡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사람은 지혜와 용맹, 슬기를 겸비하여야 무슨 일에서나 성공할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고있다. 먼 옛날 어느 바다가의 북마을에 신기한 북바위와 북채가 있었는데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이 북채로 북바위를 치면 그 소리에 마을사람들은 장수힘이 생기고 원쑤놈들은 맥이 빠져 도망가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달려든 원쑤와의 싸움에

서 북채가 부러져 북을 칠수 없게 되자 북지기로인은 자기 아들들을 북채가 있다는 구룡산으로 보낸다. 그러나 첫째는 힘은 세나 지혜가 없고 둘째는 말은 잘 타나 담이 작아 룡마를 타고도 구룡산으로 가지 못한다. 하지만 셋째는 말도 잘 타고 지혜와 담도 있어 끝내 룡마를 타고 멀고 험한 구룡산으로 가서 신기한 새 북채를 얻어온다. 이야기에서는 첫째는 지혜가 없는 인물로, 둘째는 담이 작은 인물로, 셋째는 지혜와 용맹을 다 갖춘 인물로 설정하고 그들의 대비적인 형상속에서 모든것을 다 갖춘 셋째가 성공하는것으로 보여줌으로써 주제사상을 명백하고 뚜렷하게 밝히고있다. 이 이야기는 신기한 북채와 북바위, 날개가 돋는 룡마에 대한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현실세계와의 밀접한 결합속에서 흥미있게 펼쳐지고있으며 과장, 대조, 반복의 형상수법을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높은 형상성을 보장하고있다. 〔동화집 《나비와 수탉》,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2(1983)년판〕

《날개를 활짝 펼치라》 단편소설. 주체64(1975)년 박춘삼 창작. 새 세대들에게 조국의 미래를 안겨주시고 희망의 날개를 활짝 펼쳐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그린 작품이다. 림산사업소로 현지지도를 가시던 길에 어느 한 산골학교에 들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날다람쥐를 연구하여 사람들도 날개없이 날아다닐수 있게 하며 꿀벌을 연구하여 더 많은 꿀을 모을수 있도록 하는 등 숲속의 대자연속에서 꿈을 키우며 산지식을 배워나가고있는 영달이를 비롯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만나신다. 비록 엉뚱하기는 하나 고향의 숲을 아름답고 살기좋은 락원으로 꾸리려는 그들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숯굽는것을 배우는것을 최대의 희망으로 꼽던 한 소년을 회상하시며 희망의 날개를 활짝 펼치고 미래에로 거침없이 날아가는 우리 시대 아이들에게 나래를 활짝 펼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말씀하신다. 소설은 커다란 차이가 있는 두 희망에 대한 대비적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어린이의 시점에서 동심적으로 잘 형상하고있으며 수령님의 품속에서 날개를 활짝 펼쳐가는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을 랑만적 화폭속에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아동문학작품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날려보낸 화살》 단편소설. 주체70(1981)년 강학태 창작.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 원쑤와의 싸움에서 승리할수 있는 비밀을 알아낸 한 고구려군사의 모습을 보여준 력사소설이다. A.D.28년 가을 고구려의 위나암성은 한나라의 료동태수가 끌고온 수많은 적군의 포위에 들어 위험에 처한다. 치렬한 접전이 벌어지다가 문득 잠잠해진 때로부터 달포가 되면서 성안에는 물이 떨어져 더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른다. 이때 좌보 을두지는 적정을 탐지하여 승리의 결정적 대책을 세울것을 계획한다. 그것을 그의 양아들인 편장 아사달이 자진하여 맡아나선다. 적군군사로 가장하고 적진에 들어간 그는 적들이 식량이 떨어져 곤경에 처해있으며 성안에서 물이 떨어져 고통을 받다못해 스스로 항복해나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겨우 지탱하고있다는것을 알아낸다. 그는 한가지 계책을 생각해내여 적정과 함께 화살에 담아 성안에 날려보낸다. 을두지는 그 계책대로 성안에 물이 있음을 보여주는 산 잉어를 《선물》로 적에게 보내여 적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총퇴각을 하게 만든다. 아사달은 돌아오던중 적의 추격에 의해 희생되며 고구려군사들은 그의 복수를 다짐하면서 원쑤격멸의 길에 떨쳐나선다. 소설에서는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한목숨도 서슴없이 바쳐나서는것이 고구려사람들의 애국정신이며 바로 그것이 고구려가 외래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할수 있은 요인이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

체70(1981)년 7호〕

《날바다 한복판에 벼바람 분다》 서정시. 주체76(1987)년 정화흠 창작.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서해갑문이 일떠서고 간석지가 펼쳐진 자랑찬 전변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먼저 날바다 한복판에 벼바람이 분다고 하면서 서해갑문이 거창하게 일떠섬으로써 날바다 20리가 호수로 변하고 간석지벌에 벼풍작이 들게 된데 대한 감동을 토로하고있다.

아, 상상이나 하였으랴
바다물이 담수로 변할줄이야
날바다 20리에
벼바람이 불줄이야

시에서는 서해의 날바다우에 벼바람이 불게 된 눈부신 전변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라는것을 강조하고 훌륭한 작황을 안아오게 된 기쁨과 더불어 수령님과 당의 은덕을 길이 노래하자고 토로하고있다. 시는 바다바람과 벼바람의 대조에 의하여 시상을 특색있게 펼치고 평이하면서도 박력있는 시어들을 구사하고있다. 〔《1980년대시선》, 문예출판사, 주체79(1990)년판〕

《날바다우에서》 단편소설. 주체75(1986)년 주성준 창작.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던 시기에도 그에 구애되지 않으시고 서해갑문건설을 발기하시고 진두에서 이끌어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담력과 령도의 현명성을 보여준 작품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전쟁도발책동이 우심해지던 때에 전선지구의 련합부대지휘관인 우호음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양에 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서해갑문건설을 위한 해당 부문의 협의회에 참가시키신다. 지금까지 세계에 없던 거창한 규모의 건설이여서 전문가들과 일군들모두가 감히 엄두를 못내고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은 일제와 미제를 때려부신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자기 인민의 심장을 볼줄 모르면 막연한 생각부터 앞서는 법이라고, 우리 인민의 기본특질은 영웅적이라는데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호음을 건설총책임자로 임명하시고 현지에 나가시여서는 언제가 뻗어나갈 방향까지 잡아주신다. 또한 몇개의 련합부대를 전선에서 소환시켜 갑문건설에 참가하도록 조치를 취하신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해 서해갑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무비의 담력과 인민에 대한 크나큰 믿음,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일떠서게 되였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영원한 사랑》, 문예출판사, 주체75(1986)년판〕

《날이 밝는다》 서정시. 주체48(1959)년 정서촌 창작. 깊은 밤 밀영에서 조국진군작전을 구상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풍모를 노래한 작품이다. 울부짖던 눈보라도 뜸해지고 승냥이의 울음소리도 잠잠해져 태고연한 밀림속에 정적만이 흐르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깊은 사색에 잠기시여 조국의 지도앞에 서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밤도 일제놈들의 채찍밑에 쓰러지는 인민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조국진군작전을 무르익혀나가시는것이다. 시에서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으시고 조국에로의 진군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모습을 그리면서 그이께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지새우신 수많은 밤들이 있어 조국해방의 새아침이 밝아왔다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이렇게 깊어간 백두의 밤이
몇밤이나 되던가 몇천밤이나 되던가
등에 걸친 외투깃을 추켜올리시며
장군님께서 밀영의 창문을 여실 때

아, 밝이 밝는다
백두산밀림에서 조국의 태양이 솟는다!

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밀영의 귀틀집에서 조국진군작전을 구상하시는 장면을 시적계기로 하여 거기에서 발현되는 서정세계를 폭넓게 펼쳐보이면서 간결하고도 표현성이 풍부한 시어들을 효과적으로 살려씀으로써 형상성을 높이고있다. 〔종합시집 《수령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주체57(1968)년판〕

《남강마을녀성들》 영화문학. 김재호, 리종렬 창작.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와 함께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운 남강마을녀성들의 영웅적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어느 한 전선고지와 잇닿아있는 남강마을의 녀성들은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 폭격속에서도 다리를 복구하며 보탑을 잡고 밤을 새워가며 밭을 간다. 주인공인 마을의 세포위원장 봉순은 전선에 나간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슬픔에 잠겨 주저앉지 않고 원쑤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을 안고 인민군포부대들의 남강도하를 보장하기 위한 수중다리건설작업에 앞장선다. 온갖 애로와 난관을 과감하게 뚫고나가는 그의 불굴의 혁명정신과 강의한 투쟁모습은 전선에 나간 남편 생각으로 수심에 잠겨있던 금녀를 각성시킨다. 수중다리는 드디여 건설되고 원쑤들에게 멸적의 불벼락을 안길 인민군포부대는 강을 건너간다. 이때 적들이 들여보낸 간첩의 책동에 의하여 다리가 또 끊어진다. 그러나 봉순을 비롯한 남강마을의 녀성들은 적간첩놈을 적발처단하고 적탄이 우박치는 속에서도 주저없이 사나운 강물을 헤치고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운반하는 힘겨운 투쟁을 벌린다. 적들의 맹폭격으로 탄약을 나르던 쪽배마저 마사지자 녀성들은 자기 집 당반과 농짝 등으로 떼를 무어 싸우는 고지에 탄약과 식량을 날라다준다. 마을녀성들과 함께 인민군전사들을 도와 총탄과 수류탄으로 원쑤들에게 무리죽음을 주던 봉순은 승리한 고지에서 뜻밖에도 전사한줄로만 알았던 남편을 만난다. 작품은 남강마을녀성들의 용감한 투쟁모습을 통하여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 자라난 조선녀성들의 영웅적투쟁정신과 무궁무진한 힘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53(1964)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남강마을의 홰불》 장편서사시. 주체44(1955)년 리효운 창작. 전후 남조선의 남강마을사람들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노래한 작품이다. 4개장으로 구성되여있다. 제1장 《리종팔의 가족》에서는 부역에 끌려나가 고역을 치르다가 지주의 아들을 때리고 놈들에게 붙잡히는 달호와 그의 아버지 리종팔과 어머니 그리고 달호의 동생 수호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비참한 생활정형을 펼쳐보이고있다. 제2장 《가정과 학교》에서는 수호가 다니는 학교에서의 미군장교놈과 교장놈의 학생들에 대한 탄압과 강압적인 군사훈련에 대하여 폭로하고있다. 제3장 《남해에서 온 사람》에서는 부산에서 온 수호의 사촌형 민호(최인)와 철마선생과의 상봉, 그들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차회의 호소문의 전달과 적극적인 선전사업을 보여주고있다. 그들은 대렬안에 기여든 간첩 김백철을 처단하며 건강을 회복한 달호는 또다시 투쟁대오에 뛰여든다. 최인에 의하여 각성된 남강마을사람들은 놈들이 두 농민을 체포하여 처형하려고 할 때 들고일어나 완강히 맞서싸운다. 제4장 《항거의 불길》에서는 달호를 징병으로 끌어가는 놈을 도끼로 까눕히는 종팔의 용감한 행동과 그의 체포, 농업학교에서의 동맹휴학과 달호를 비롯한 소년들의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열렬한 동경, 조국통일에 대한 간절한 념원을 보여주고있다. 서사시는 생동한 시적형상으로 남조선인민들의 비참한 생활모습과 조국통일을 위한 그들의 적극적이고 의로

운 투쟁,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열렬한 동경을 일반화하고있다. 〔민주청년사, 주체44(1955)년판〕

《남녘마을아이들》 장편소설. 주체77(1988)년 신진순 창작.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는 남녘마을아이들의 영웅적투쟁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주체39(1950)년 여름 남조선의 룡소마을아이들이 미제침략자들의 전쟁준비책동을 반대하여 투쟁을 벌리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투쟁의 앞장에는 주인공 삼룡이가 서있다. 그는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태여나 어렸을 때부터 갖은 고생을 다하며 살아오는 불쌍하고 정직한 아이였다. 해방이 되자 그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자기 마을에도 찾아오시여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흥분된 나날을 보내나 그의 꿈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매일과 같이 전쟁연습에 미쳐날뛴다. 삼룡이네가 다니던 학교도 제놈들의 병실로 빼앗고 그의 딱친구인 돌쇠를 찦차로 깔아 무참하게 학살하며 얼마 되지 않는 삼룡이네 땅마저 미군비행장건설부지로 빼앗는다. 삼룡이의 어린 가슴에는 원쑤 미제에 대한 증오심이 세차게 타오른다. 그리하여 그는 마을아이들과 함께 미제를 반대하는 싸움의 길에 나선다. 덕성이, 형준이 그리고 경찰서에서 심부름을 하는 기택이 등 여러 소년들과 함께 첫 투쟁으로 군용비행장건설장의 휘발유탕크를 폭파시키며 이어서 괴뢰군 군용렬차를 전복시키고 공화국북반부를 침공하려는 적들의 기도를 알아내여 빨찌산부대에 알려준다. 소년들의 이러한 투쟁을 뒤받침해주고있는것은 려수항쟁시기 용감히 싸운 《약장사》아저씨였다. 《약장사》아저씨는 무질서하고 모험적인 소년들의 투쟁을 잘 조직해주며 투쟁방법과 방향도 가르쳐준다. 이러한 투쟁의 나날속에 그들은 미제침략자들에 의해 일어난 조국해방전쟁의 포소리도 듣게 되며 이어 남녘땅을 해방하면서 노도와 같이 진격해오는 인민군대아저씨들을 맞이하게 된다. 아이들은 마을이 해방되자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모든 힘을 다하여 인민군대를 원호한다. 소설은 해방후부터 조국해방전쟁시기까지의 남조선현실을 력사적배경으로 하면서 미제의 전쟁준비책동을 반대하여 일떠선 남녘땅어린이들의 생활과 투쟁을 동심에 맞는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화폭과 첨예한 갈등, 구체적이고도 생동한 묘사를 통하여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7(1988)년판〕

《남동마을의 새 전설》 단편소설. 주체60(1971)년 백철수 창작. 항일무장투쟁시기 모진 천대와 억압만을 받아오던 우리 녀성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어엿한 혁명가로 자라는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왜놈목재상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유격대에 의하여 구원된 정희는 남동마을 유격구에서 보람찬 새생활을 시작한다. 그는 유격구에서 난생처음 자기 땅을 가꾸고 행복을 지켜가는 크나큰 자랑과 기쁨을 느끼게 되였고 유격대의 식량을 마련하며 왜놈들의 《토벌》에 불타버린 근거지를 복구하는 등 여러 사업에 참가하여 점차 자신을 자각하게 된다. 이러한 때 둥닝(동녕)현성전투에 참가하고 돌아온 유격대중대장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학습장과 연필을 받아안은 정희는 동지들의 따뜻한 방조속에서 우리 글을 배우며 망원초소에서 보초를 서게 되였을 때에는 적들의 기도를 제때에 알아내여 련락함으로써 유격구를 보위하는데 이바지한다. 소설은 사람들앞에서 눈길조차 들기 저어하던 17살의 처녀 정희가 혁명전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하여 천대와 멸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길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억센 투사로 자라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천명하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60(1971)년 4호〕

《남철이네 반동무들》 중편소설. 주체61(1972)년 남응손 창작. 학교실습품전람회에 낼 선반을 만들기 위하여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는 남철이네 반동무들의 기특한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남철이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제힘으로 실험기구들을 만들어보는것이 좋으며 그래야 배운 지식을 쓸모있게 써먹을수 있고 근로정신과 집단주의정신도 키울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습품전람회를 조직한다. 학교 소년단위원회에서는 분단들에 누구나 할것없이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유익한 자그마한 기계나 실험기구 등 무엇이든 한가지씩 만들도록 결정한다. 본래 기계다루기를 좋아하고 무엇이든 만들기를 좋아하는 3학년 소년단반장인 남철이는 자기네 반에서 학교실습공장에 있는 부속들을 리용하여 선반기 한대를 조립하기로 하고 모자라는 부속들을 구하기 위해 애쓴다. 큰 기계공장지구에 사는 긍지를 가진 그들은 어른들이 3000t프레스를 만드는데 선반기 하나쯤 만들지 못하겠는가 하는 배심을 가지고 일에 달라붙는다. 20여가지나 모자라는 부속품을 구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았으나 기계공장에 다니는 부모들과 친척들,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남철이네 반동무들은 기어코 선반기를 조립하여 실습품전람회에 내놓으며 이 과정에 남철이, 명식이, 성찬이 등 반동무들은 실력도 높이고 근로정신과 집단주의정신도 키워나간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남철이네 반동무들의 기특한 모습을 통하여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새 세대들의 충실성을 깊이있게 그리고있다. 또한 작품은 선반기조립을 위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사건을 조직함으로써 학교와 가정, 사회와의 폭넓은 련관속에서 학생들의 생활을 깊이있게 형상한 특성도 보여주고있다. 〔사로청출판사, 주체61(1972)년판〕

《남편의 배낭》 단편소설. 주체80(1991)년 로선희 창작. 당과 수령을 무장으로 보위하던 병사시절의 그 정신으로 살며 일해나가는 제대군인청년의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하루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오른 영심은 대학을 졸업하는 남편을 기쁘게 해줄 마음으로 먼저 집에 돌아와 집안을 정리하다가 방구석에 놓인 책이 가득한 남편의 병사배낭을 발견한다. 그때 경민의 분대에서 마지막대원으로 있던 홍수남이 군대에서 제대되여 강동탄광으로 가던 길에 집에 들린다. 마침 퇴근하여 수남을 만난 경민은 반가움을 금치 못해하며 석탄공업대학에 입학하겠다는 그의 결의를 열렬히 지지한다. 경민은 대학졸업후 현장에 가지고가려고 병사배낭에 가득 넣었던 책들을 수남에게 주면서 배낭에 넣었던 책들을 꺼내보느라면 마음이 병사시절로 되돌아간다고, 조국을 지키던 그 시절이 그런 습관을 붙여주었다고 이야기한다. 경민은 조국은 우리 제대병사들이 새로운 초소에서 어떻게 복무하고있는가를 지켜본다고 하면서 병사시절의 그 정신으로 살것을 결의다지며 현장으로 나간다. 소설은 군사복무 전기간 언제나 함께 있는 병사의 배낭에는 그의 량심이 담겨있다는것을 보여주면서 그때의 그 정신으로 살며 일하려는 주인공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80(1991)년 7호〕

《남해가 앞에 있다》 서정시. 주체39(1950)년 김북원 창작. 남진하는 길에 락동강을 보게 된 서정적주인공—전사의 격동된 마음을 통하여 미제를 조국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려는 인민군전사들의 굳은 결의를 형상적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울부짖던 포화도 멎은 밤 산중턱에 올라 눈앞에 펼쳐진 락동강을 보게 된 서정적주인공은 환희에 넘쳐 《락동강이다》라고 웨치며 강물에 뛰여든다.

내 모든것 잊고 강물에 뛰여들어

그 맑은 물 맘껏 들이마시는데
심장을 때리는 타는 목소리
《전사여…
남해가 앞에 있다!》

4련으로 짧게 구성된 시는 매련에서 시의 사상감정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오자는 절절한 호소와 벅찬 감정세계를 박력있으면서도 고도로 함축된 시적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남아의 양》 단편소설. 주체38(1949)년 황건 창작. 조국의 해방과 함께 패망해가는 일제가 불을 지른 양우리에서 목숨바쳐 양을 구원하는 어린 방목공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왜놈이 경영하는 목장에서 고달픈 방목생활을 해오던 주인공 남아는 어느날 심술사나운 양에게 왜놈주인의 이름을 따서 붙인것으로 하여 구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왜놈들이 미워서 그랬던지라 그는 그 양을 끔찍이 사랑한다. 그때로부터 며칠후 방목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온 남아는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달려든 왜놈헌병들의 강요에 못이겨 짐을 싸들고 마을을 떠나게 된다. 끌려가던 도중 왜놈들이 패망했다는것을 알게 된 그는 놈들의 감시에서 몰래 벗어나 양우리로 돌아온다. 왜놈들이 불을 질러 타고있는 양우리를 본 남아는 지체없이 몸에 물을 끼얹고 불속에 뛰여든다. 2마리의 양을 안아낸 그는 불길이 더욱 기승을 부렸지만 이 양들이 해방된 나라를 위해 귀중한 밑천이 될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뛰여들어가 어미양을 구원하고 숨을 거둔다. 그날 그가 구원한 양은 이듬해부터 해마다 새끼를 낳아 국영목장을 더욱 흥성이게 한다. 작품은 남아의 형상을 통하여 해방과 함께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새롭게 자라나는 애국심을 깊이있게 일반화하고있다. 〔황건단편집 《목축기》,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8(1959)년판〕

《남연백에서 온 편지》 단편소설. 주체45(1956)년 리상현 창작. 자신의 실천적 모범으로 청년들을 공장을 떠메고나갈 기둥감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한 당원의 풍모를 그린 작품이다. 어느 한 석회비료공장 석회질소로에서 일하는 주인공 송국진아바이는 환갑을 눈앞에 바라보는 나이지만 자기를 당원으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운다. 그는 자신이 비료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며 질화공이 싫어 다른 곳으로 가서 기술을 배우겠다고 하는 기팔이에게 비료를 많이 생산해야 고향에서도 농사를 잘 지을수 있다고 하면서 당 제3차대회를 맞는 올해에 일을 더 잘하자고 일깨워준다. 이때 남연백에서 편지가 온다. 편지의 주인공은 정전직후 비료공장복구에 동원되였다가 제대되여 협동농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는 청년이다. 기팔은 편지를 통해 정전직후 아바이가 공장복구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해왔는가를 알게 되며 당 제3차대회를 맞는 올해에 훌륭한 작황을 이룩할테니 비료를 많이 생산해달라고 한 부탁도 듣게 된다. 소설은 기팔이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송국진아바이처럼 참된 로동계급이 되고 당원이 될 맹세를 다지며 자신이 그를 대신하여 회답편지를 쓰겠다고 나서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당원의 성실성과 선봉적역할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을뿐아니라 당 제3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떨쳐나선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시대정신의 높이에 맞게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45(1956)년 4호〕

《낫》 단편소설. 주체86(1997)년 임창학 창작. 낫을 억세게 틀어쥐고 쌀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가려는 농업근로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형상한 작품이다. 작품은 시점인물인 내가 땅을 가꾸며 성실히 일해온 부모들의 청춘시절과 자기의 성장과

정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씌여졌다. 나의 부모들은 해방후 마을에서 제일먼저 나라에 애국미를 바친 모범농민들이였다. 아버지는 우리 당마크에 마치와 붓과 함께 낫을 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쟁하다가 전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그후 당원인 남편의 간곡한 당부를 지켜 어머니는 가정일보다도 농사일에 더 마음을 쓰며 늘 논발에 나가 산다. 어느덧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장에 첫걸음을 내디딘 나는 낫의 주인된 자각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여 부모들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어머니에게 노여움을 끼쳐드리고 꾸지람을 듣기도 한다. 후날 내가 분조장으로 성장하고 분조를 농장적인 최고수확분조로, 군적인 다수확분조로 되게 할수 있은것은 항상 뒤에서 녹쓸지 않고 무디여지지 않게 낫을 벼리듯 진짜농사군이 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준 어머니의 크나큰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때문이였다. 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는 날 나는 철없던 시절 먹여주고 입혀주는것이 어머니가 베풀수 있는 사랑의 최고표현인줄로만 알았던 자기에게 《게으르면 무디여지고 잃으면 노예가 되는 그것》, 낫의 주인된 자각과 당원의 크나큰 세계를 알게 해준 어머니에게 진정어린 감사를 드린다. 소설은 대를 이어 고향땅을 지켜선 자각된 주인들이 낫을 억세게 틀어쥐고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농업전선은 굳건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6(1997)년 11호〕

《낯선 고장에도 정든 집이 있다》 중편소설. 주체78(1989)년 리림수 창작. 학습을 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킬 때 산지식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에는 평양에서 살고있는 한 소년이 비행사인 아버지를 따라 어느 바다가마을에 가서 가족휴양을 하는 기간에 있은 이야기가 그려져있다. 중학교 3학년생인 주인공 남혁이는 가족휴양을 떠나기 전에 자연과목시험에서 락후한 점수를 맞았다. 그것은 박새가 어떤 새인가 하는 문제에서 박새가 하루에 자기의 몸무게만큼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정도로만 알았지 박새의 특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있었기때문이였다. 선생님은 가족휴양을 떠나는 그에게 그곳에 가서 박새를 비롯한 동물들에 대하여 잘 관찰하고 돌아와 동무들앞에서 발표하라는 분공을 준다. 휴양소에 온 남혁이는 그곳에서 광태, 왕식이 등 새로운 동무들을 사귀게 된다. 그와 낯선 고장에서 사귄 동무들사이에는 날마다 재미나는 생활이 펼쳐지며 그 나날에 남혁이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속에서 더 공고히 할뿐아니라 보다 많은 지식을 쌓아나가게 된다. 소설은 학생들에게 실천과 결부된 학습을 할 때만이 조국에 이바지할수 있는 참된 지식을 소유할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한다. 또한 소설에서는 남혁이의 학습을 도와주는 휴양소마을아이들의 형상을 통해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우리 시대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잘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어린이들의 년령기에 흔히 볼수 있는 새것에 대한 지향과 갈망, 탐구와 모험심, 뜨거운 우정과 흥미있는 사건들로 이채를 띠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8(1989)년판〕

《낯선 대위》 장편소설. 주체69(1980)년 허종선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의 첩보기관에 침투하여 미제의 흉악한 파괴암해음모를 사전에 파탄시킨 인민군정찰일군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전쟁이 일어난지 얼마 안되여 인민군정찰일군들은 미제가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해치기 위하여 전쟁전에 조직한 《이흐뜨안뜨르》라는 첩보기관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상위 강성룡을 오래전에 체포된 《사꾸라》간첩망의 망책 안청무로 가장시켜 적들속으로 침투시킨다. 강성룡은 놈들의 겸질기고도 거듭되는 검토를 이겨내고 적의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 방첩과 대위로 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점차적으로 주요비밀을 모조리 장악하며 가장 위험한 적수인 1과장 고이와 그의 부하 라태우를 적들사이의 알륵관계를 리용하여 제거해버린다. 한

편 서도순, 옥금, 철호를 비롯한 적후공작조 성원들은 뒤에서 그의 활동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들에게 끌려온 의사 윤로빈과 그의 딸 희순 그리고 양명찬도 성룡을 도와 투쟁의 길에 나선다. 성룡은 항공륙전대의 출발시간을 알아내여 위험한 적파괴암해집단을 비행장습격으로 완전히 요정내도록 하며 그로 인한 놈들의 악랄한 재검토를 또다시 이겨낸다. 그는 더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 롯크라는 이름의 유령인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 기관의 책임자가 바로 의사의 탈을 쓴 니케라는 것을 알아내며 파장으로 승급한 후에는 적들의 간첩명단을 손에 넣음으로써 간첩단의 전모를 밝혀낸다. 한편 그의 정보자료에 기초하여 적후공작조는 대담한 습격전으로 적의 기본소굴과 아지트, 훈련소를 모조리 파괴하며 후방에서는 내무일군들이 깊숙이 잠복해있던 간첩놈들을 모조리 적발숙청한다. 드디여 적들의 새로운 첩보기관 《이흐뜨안뜨르》는 주체40(1951)년초에 종말을 고하고만다. 작품은 주인공 강성룡을 비롯한 적후공작원들의 형상을 통하여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승리의 그날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영웅들의 숨은 위훈에 대하여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천리마》 잡지, 주체75(1986)년 9호－주체78(1989)년 10호까지 련재됨〕

《낚시터의 불빛》 단편소설. 주체61(1972)년 최병환 창작. 생물연구소조원인 철진을 비롯한 우리 어린이들을 과학탐구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형상한 작품이다. 《숭어의 나이는 어떻게 알아내는가?》라는 제목으로 연구발표과업을 받은 철진은 모임을 하루 앞두고 동생 철구가 숭어를 꼬챙이질하여 죽여버림으로써 할수없이 그와 함께 대동강으로 나갔으나 날이 어둡도록 숭어를 잡지 못한다. 이때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던 수령님께서는 강가에서 서성거리는 두 아이를 알아보시고 승용차의 불빛을 비치게 하시고 여러마리의 숭어도 몸소 잡아주시며 숭어의 특성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하나하나 말씀해주신다. 그날 철진은 수령님의 말씀대로 숭어박사가 되여 대동강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모든 강과 호수, 저수지들에 숭어떼가 욱실거리게 할 크나큰 포부와 결심을 가지게 된다. 작품은 낚시터의 불빛과 같은 인상적인 세부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워주시기 위해 온갖 사랑을 다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웅심깊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유년기 어린이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특색있는 생활세부의 탐구와 개성적이고 발랄한 성격의 창조, 강한 동심으로 이채를 띠고있다. 〔단편소설집 《사랑의 품》, 문예출판사, 주체64(1975)년판〕

《너구리네 새집》 동화. 주체43(1954)년 강효순 창작. 일하기 싫어하고 제힘을 믿지 않아 집지을 생각을 하지 않던 너구리가 로동을 통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보여준 작품이다. 원래 게으르기도 하고 손발이 잘못생겨 땅을 팔수 없기에 집을 짓지 못한다고 생각해온 너구리들은 겨울이면 오소리네 집에 얹혀사는데 습관이 되였었다. 그러던 어느해 겨울 개구리들이 손과 발, 주둥이로 흙을 파서 집짓는것을 본 막동너구리는 저희들도 힘을 합쳐 일을 하면 집을 지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새집을 짓는데 착수하여 끝내 성공한다. 그 과정에 너구리들의 뭉툭한 손이 로동에 편리하게 크고 길어졌으며 그들은 제힘으로 얼마든지 훌륭한 집을 지을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된다. 동화는 너구리들의 의식이 발전하고 생활이 개변되며 육체적조건까지 변화되는것을 과장의 수법을 통하여 흥미있게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의 로동교양에 이바지한 의의있는 작품으로 되고있다. 〔조선아동문학문고4 동화집 《행복의 동산》,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0(1981)년판〕

《너구리의 호박농사》 우화. 주체65(1976)년 김문필 창작. 1년농사를 지어놓고도 제때에 거두어들이지 않아 랑패를 보는 너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모든 일은 제때에 해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는 작품이다. 호박농사를 잘 지은 배나무골 너구리는 바라만 보아도 배가 불러서 코노래를 부르며 가을걷이를 서두르지 않는다. 빨리 가을걷이를 하자고 찾아온 토끼에게 다 익은 호박이 설겠는가고 하면서 가을바람에 취해 가을걷이를 하루하루 미루던 너구리는 모진 서리에 호박을 죄다 얼구게 되였을 때에야 자기 잘못을 깨닫고 땅을 치며 통곡한다. 우화는 인간생활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내용을 동물에 비유하여 흥미있게 형상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생활의 교훈을 주고있다. 〔조선아동문학문고5 동화우화집 《결과 속》,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0(1981)년판〕

《너를 기다린다》 중편소설. 주체76(1987)년 박현 창작. 어린시절부터 옳바른 과학탐구정신을 키워야 한다는 내용을 보여준 작품이다. 동해안의 자그마한 어촌마을 소년인 창무는 과학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물리와 화학을 중시하면서 다른 과목들은 소홀히 한 결과 종합성적에서는 보통밖에 받지 못한다. 선장인 아버지로부터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한다는 충고를 받은 그는 자신을 깊이 뉘우치고 그후부터는 모든 학과목공부를 성실히 하여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다. 그는 방학기간에 열리는 솜씨전람회에 날아다니는 배를 내놓아 1등할 결심을 품고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 창무의 과학적 탐구심을 기특하게 여긴 담임선생과 오랜 어로공인 《직사포아바이》 그리고 선박공학박사는 그를 적극 도와준다. 한편 창무의 정열적인 탐구심에 감동되여 《글뒤주》로 불리우던 준성이와 들떠다니던 상교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공부를 더 알심있게 하여 조국을 위해 한몫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굳은 결의를 가다듬는다. 소설은 과학의 요새를 점령할 커다란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꾸준히 학습하는 창무를 비롯한 우리 어린이들의 기특한 모습을 통하여 과학탐구정신은 어릴 때부터 키워야 하며 바로 이러한 아이들을 조국은 기다린다는 심오한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탐구력이 강한 창무, 글뒤주 준성, 외국어만 하면서 들떠다니는 상교 등 개성이 뚜렷한 인물들의 성격을 창조하고 동심적인 생활세계를 탐구하였으며 생동한 언어묘사와 재치있는 구성조직으로 그 특색을 살리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6(1987)년판〕

《너를 보며 생각하네》 가사. 주체83(1994)년 정성환 창작. 엄혹한 겨울에도 푸르른 자기의 색갈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서있는 소나무의 모습을 통하여 주체의 붉은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모진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굴함없이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억센 기상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푸른 잎새우에 흰눈을 떠이고 끝없이 설레이며 무성할 수림의 앞날을 속삭여주는 소나무처럼 이 땅에 모진 광풍이 휘몰아쳐와도 주체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온 세계가 우러르는 희망의 등대로 꿋꿋이 서있는 우리 조국의 장한 모습을 크나큰 긍지를 가지고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소나무가 태양이 안겨준 푸른빛을 잃지 않듯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주체의 신념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가려는 드팀없는 의지를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숭엄하고 사색적인 정서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새 노래》 4,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너와 나》 단편소설. 주체87(1998)년

김정 창작. 주인공과 그의 친구의 생활경력을 통하여 당이 바라고 조국이 기억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1인칭소설이다. 작품은 4.26아동영화촬영소 미술가로 일하는 나 김영철이 휴가차로 모교를 찾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접수실에서 접수를 보던 처녀교원이 나를 며칠전에 로력영웅이 된 모교의 졸업생으로 잘못 알고 대하는데서 나는 큰 충격을 받는다. 사실 영웅이 된것은 나 김영철이 아니라 돌격대 대대장사업을 하고있는 동창생 김영철이였던것이다. 학창시절 나와 김영철은 둘도 없는 롱구짝패 《8번》과 《9번》이였으며 이름이 같은것으로 하여 우정도 남달랐다. 하지만 두 친구의 경력은 판이하였다. 나 김영철은 모범생표본이였다면 《9번》 김영철은 자유주의와 종합학습장으로 유명한 말썽꾸러기였다. 《9번》 김영철의 《반칙》이 나타날 때마다 나는 사심없는 조언을 주며 아픈 매까지 든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속도전청년돌격대에 입대한 나와 《9번》의 우정에는 변함이 없다. 돌격대기간 나는 중대장사업을 하면서 갱도에 범람하는 석수를 결굴을 뚫는 방법으로 다른데로 돌리고 공사기일을 절반으로 앞당겨 《로동신문》에까지 소개된다. 내가 미술대학으로 떠나간 다음 《9번》 김영철은 나의 충고를 항상 새기고 자신에 대한 채찍질을 멈추지 않고 로력영웅으로까지 성장한다. 영웅 김영철이 고마움의 인사를 적어보낸 편지를 받은 나는 남에게는 아픈 매를 들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요구성을 더 높이지 못하고 평범하게 흘러보낸 자신의 생활을 가슴아프게 돌이켜본다. 작품에서는 성과 이름이 꼭같은 두 친구 너와 나의 서로 다른 생활을 통하여 인생길에 자신에 대한 채찍질을 멈추지 말아야 당이 바라고 조국이 기억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밝히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7(1998)년 6호〕

《녀가수》 장편소설. 주체93(2004)년 정기종 창작.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0(1951)년 5월 남조선에서 들어온 한 녀가수를 만나주시고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은 하나의 소설감이라고 하신 교시에 기초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주인공 김은영은 해방전 13살 어린 나이에 남다른 음악적재능으로 전국녀자중학교 학생들의 성악콩클에서 1등을 하여 음악계를 놀래운다. 그후 돈이 없어 더 배울수 없었던 그는 여기저기로 떠돌다가 중국에서 음악교원, 순회극단가수로 생활하면서 식민지민족예술인의 설음을 뼈저리게 체험한다. 해방후 남조선에서 좌익계예술인들과 함께 많은 가극들에서 주역과 독창가수로 출연하던 그는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던 아버지와 남편, 동생을 원쑤들에게 잃은 후에는 노래를 무기로 삼고 적극적인 반미투쟁의 길에 나선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남먼저 전선지구 경비사령부협주단에 들어가 전선위문공연활동을 벌리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는 협주단음악조를 이끌고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공연하는 영광을 지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은영을 만나주시고 그의 곡절많은 인생길에 대해 다 들어주시며 앞으로 애국의 길에서 인민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되라고 뜨겁게 격려해주신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그는 헤여졌던 가족들과도 다시 만나며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시기 여러 가극의 주인공, 독창가수로 활동하면서 힘있는 예술활동을 벌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은영이 나쁜놈들의 작간으로 아무런 명예칭호도 없이 무대에서 내려 오랜 세월 신인육성과 로병예술활동을 해온 사연을 보고받으시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생일상을 보내주시고 80돐 독창회를 성대히 열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신다. 소설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믿음과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그에 보답하기 위해 변함없는 한생을 바쳐갈 때 조국과 인민의 사랑을 받는 가수, 예술가로서의 참된 삶을 빛내일수 있다는

것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또한 허영과 향락만을 추구하면서 벗들과 애인마저 버리고 달아나는 박수미의 형상을 통해 신념도 량심도 없는 저속한 《가수》에게는 비극적운명만이 차례진다는 심각한 교훈을 안겨주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녀공작원》 단편소설. 주체48(1959)년 박태민 창작. 적구공작임무수행도중 혁명조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한 녀성유격대원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노리거우림산마을에서 정치공작을 진행할데 대한 임무를 받고 부대를 떠난 유격대원 현희는 함바식모로 들어간 다음 벌목로동자들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대한 해설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 조국광복회를 비롯한 지하조직들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자위단원모집을 강요하는 적들의 기도를 파탄시킨다. 그러던 어느날 마부 최로인이 일본서기놈에게 맞아 억울하게 생죽음을 당한것을 계기로 로동자들의 반일기운이 한층 고조되는데 불안을 느낀 왜놈들은 산림경찰대와 자위단놈들로 함바를 포위하고 기관총사격을 가할 태세를 갖추면서 유격대와 련결된 지하조직을 들춰내려고 혈안이 되여 날뛴다. 수많은 지하조직성원들과 핵심들이 적들의 총구앞에 나서게 된 엄중한 사태앞에서 현희는 한몸을 내대여 조직을 구원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일본지도관놈앞으로 다가가 《네놈들이 찾는 공산주의자가 바로 나》라고 말한다. 이로하여 조직은 위기에서 구출되였으나 그는 적들의 총탄에 맞아 쓰러진다. 그는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에 사령관동지의 혁명전사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였다고 떳떳하게 자부하며 유격대원인 사랑하는 남편과 전우들이 자기가 못다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 소설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는데 한몸을 다 바친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불멸의 위훈을 감동깊이 보여주고있다. 〔소설집 《항일전구》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9(1960)년판〕

《녀당원》 장편소설. 주체71(1982)년 김보행 창작.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인 주체40(1951)년 봄부터 주체42(1953)년 정전직전까지의 기간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전시군수품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락원기계공장 주물직장 10명당원들의 투쟁과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소설은 연약하고 어진 한 녀성로동자가 엄혹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시증산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강의한 의지를 가진 훌륭한 로동당원으로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남편을 전선에 떠나보낸 다음 두 아이를 데리고 조형공으로 일하던 주인공 주용녀는 눈물이 헤프고 마음이 어질며 몸도 연약한 녀성이다. 하기에 그는 남편이 전사했다는 통지서를 받고 절망감에 잠겨 고민하던 혜선이가 직장을 그만두고 친정으로 내려갈 때에 잘 타일러 눌러앉힐 대신 마음속으로 동정하던 나머지 40리길까지 짐을 이고 따라가며 눈물로써 바래준다. 이러한 사실을 계기로 공장당위원장 김형운과 세포위원장 강태수는 몹시 근심한다. 어떻게 하면 용녀를 당원으로서의 제구실을 다하도록 그리고 의지가 강한 로동계급으로 키워낼것인가고 의논하던 끝에 그들은 용녀에게 조형작업반장의 임무를 맡긴다. 한것은 그 작업반이 다름아닌 그의 남편이 전선에 나갈 때까지 반장사업을 하던 곳이며 바로 거기에서 얼마전부터 수류탄을 생산하고있었기때문이다. 뜻밖에 무거운 과업을 받아안은 용녀는 자기의 입당보증인이며 마음속으로 늘 아버지처럼 생각하여온 강태수세포위원장에게 수류탄생산을 위해서라면 하루에 24시간이라도 일할수 있지만 작업반장만은 할수 없다고 사정한다. 세포위원장은 그러는 그를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차근차근 타이르면서

당원은 당이 맡겨주는 임무를 흥정해서는 안되며 오직 한마디 《하겠습니다.》라는 말밖에 몰라야 한다고 깨우쳐준다. 용녀는 점차 세포위원장이 한 말의 참뜻을 심장으로 느끼게 되며 작업반장의 임무를 맡아나서게 된다. 그러나 직장장 리성찬은 용녀가 반장으로 된것을 달가와하지 않으며 하나의 부담거리로 생각한다. 게다가 뒤에서는 반동분자들이 수류탄생산을 방해하는 책동까지 벌린다. 그리하여 5.1절날 새벽에 생산한 첫 수류탄들은 반동놈들의 작간에 의하여 거의 오작품으로 되고만다. 용녀는 불안과 안타까움에 사로잡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애쓰며 마침내 오작의 원인을 찾고 작업반원들과 함께 수류탄을 생산하여 전선으로 실어보낸다. 이무렵 공장으로 제대군인 정기남이 찾아온다. 그는 적과의 조우전에서 한쪽다리를 심하게 부상당하였으나 용녀의 남편의 희생적인 투쟁에 의하여 구원된 영예군인이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분대장의 옛 일터인 이곳 공장으로 찾아온것이다. 그에게서 남편이 전사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은 용녀는 한동안 손맥을 놓고 수심에 잠긴다. 그러나 세포위원장의 고무를 받아 또다시 힘과 용기를 얻은 그는 언젠가 친정으로 떠나가버린 혜선을 찾아가 공장으로 되돌아오게 하며 적들의 폭격에 의하여 용선로가 파괴되고 세포위원장마저 희생되였을 때에도 난관앞에 흔들리지 않고 동해안까지 가서 모진 고생을 겪으면서 끝내 내화벽돌을 구해온다. 이러한 용녀를 눈에든 가시처럼 여기던 반동놈들은 또다시 뒤에서 악랄하게 책동하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용녀의 딸을 살해한다. 용녀에게 또다시 가슴아픈 불행이 겹쳐들지만 그는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원쑤놈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슴을 불태운다. 그는 아이의 시체를 강태수세포위원장의 묘지옆에다 묻고 돌아오는 길로 기남이의 입당심의를 하는 세포회의에 참가한다. 그해 6월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공장을 찾으시고 세포회의에도 참석하시여 회의를 지도하신다. 용녀는 회의를 지도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전쟁이 승리하면 복구건설은 자기네가 할테니 념려하시지 말아달라고 청을 올린다. 전쟁으로 인하여 그토록 가슴아픈 상처를 입은 한 녀성당원에게서 그 어떤 난관에도 굴할줄 모르는 의지가 강한 우리 인민의 참다운 목소리를 듣게 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무야말로 훌륭한 녀성당원이라고 높이 치하하시고 이미 세상을 떠난 그의 남편과 강태수아바이에게도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당원의 고결한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일심단결의 모습과 필승불패의 위력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또한 소설은 엄혹한 전쟁환경에서 평범한 한 녀성당원이 사상정신적으로 단련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잘 맺어진 인간관계, 다양하게 펼쳐지는 생활과 밀착시켜 묘사함으로써 성격의 전형성, 진실성을 훌륭히 보장하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녀대원》(1, 2부) 영화문학. 신운호, 송봉렬, 김영식 창작. 작품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하여온 한 녀성혁명투사의 투쟁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제1부는 일제침략자들의 마차대습격전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주인공 성희가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색동저고리를 남편에게서 전달받고 감격에 휩싸인다. 하나밖에 없는 딸 순옥이를 한 로인에게 맡기고 남편의 뒤를 이어 투쟁의 길에 나선 성희는 이 귀중한 선물옷을 자기 손으로 딸에게 입혀줄 그날을 그리면서 혁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칠 충정의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진다. 그후 광산동 다리를 폭파할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돌

아온 그는 국내정찰에 나갔던 남편이 장렬하게 희생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한다. 그는 피눈물을 삼키며 일제원쑤놈들에 대한 천백배의 복수심을 안고 전투마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친다. 부대가 조국에 진출하여 고향마을을 해방하였을 때 성희는 꿈결에도 잊지 못하던 딸 순옥이가 이미 집을 떠나 그 생사여부조차 알수 없게 된것으로 하여 뼈저린 아픔을 체험하지만 그처럼 귀중히 간직했던 색동옷을 헐벗은 한 소녀에게 입혀준다. 작품의 제2부는 해방된 조국에서 한 혁명학원의 부원장으로 사업하는 성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로부터 시작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에 의하여 전국각지에서 오는 혁명렬사유자녀들가운데는 해방전 그가 색동옷을 입혀준 소녀도 있었으나 딸 순옥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제자들과 함께 전선에 탄원하였으나 당에서는 그에게 한 방직공장의 당사업을 맡긴다. 성희는 모든것이 파괴되고 재더미로 된 어려운 조건에서 로동자들을 불러일으켜 기관차를 복구하고 철길을 한치한치 이어 공장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보장한다. 그는 희생된 기관사를 대신하여 기관차를 몰아 목적지까지 도착한다. 그는 지하에 공장을 건설하고 로동자들을 발동하여 전시생산을 보장하며 이 과정에 동요하는 책임기사를 교양개조하고 간첩암해분자의 음모책동을 제때에 짓부신다. 조국해방전쟁이 우리 인민의 승리로 끝나자 그는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감을 마련하여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다. 이러한 나날속에서 성희는 녀성고사총중대의 중대장으로 성장한 딸과 감격적인 상봉을 한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속에서 항일혁명투쟁, 해방후 새 조국건설투쟁, 조국해방전쟁,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 등 우리 혁명의 간고하고 시련에 찬 력사와 함께 걸어온 한 녀성혁명가의 형상을 통하여 혁명이란 간고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일단 결심하고 나서면 누구나 다 할수 있으며 혁명가의 일생이야말로 가장 값높고 보람찬 삶이라는것을 감명깊이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제1부는 주체53(1964)년에, 제2부는 주체54(1965)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녀병사의 수기》 영화문학. 주체92(2003)년 김희옥 창작. 작품은 한 녀성신입병사의 생활을 보여주고있다. 주인공 지향순은 감나무중대의 녀성해안포병들처럼 온 나라가 다 아는 초소에서 소리치며 큰 위훈을 세울 포부를 안고 병사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가 간 곳은 몇명 안되는 단발머리녀병사들이 지키고 온종일 보이는것이라야 지나가는 렬차와 철길감시원 석호아바이뿐인 외진 산골 범산령의 자그마한 철다리초소였다. 초소에 배낭을 푼 첫날 밤 향순은 자기도 할아버지처럼 이 외진 곳에서 청춘시절을 덧없이 흘러보내게 되지 않을가 하는 남모르는 불만을 감추지 못한다. 자기를 여기로 데려온 분대장을 원망하며 초소생활을 시작한 향순은 순찰도중 철길레루못이 풀린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근무중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다. 후에 분대장으로부터 구대원 순복이 그날 수십리길을 에돌아 철길대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근무교대시간을 어겨 처벌을 받게 된 사연과 고난의 행군시기 텅빈 철길을 보고 너무도 가슴아파 더는 초소에 서있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순복의 추억담을 들으면서, 또 철길을 고이는 침목처럼 한생을 살아가는 석호아바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가 원망했던 할아버지 역시 누가 보지 않는 속에서도 원쑤의 폭탄을 한몸에 그러안고 철길을 지켜 목숨을 바친 애국자라는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을 깊이 돌이켜보게 된다. 특히 자기를 원망할줄 알면서도 선군시대에 군복을 입고 청춘을 빛내이겠다는 그 마음을 귀중히 여겨 때로는 엄격한 지휘관이 되고 때로는 친언니가 되여 향순을 끝까지 이끌어주는 분대장 창숙, 향

순이가 스쳐지난 레루못때문에 처벌까지 받았지만 그가 위축될가봐 마음속에 그 사연을 묻어두는 속깊은 구대원 순복, 신입병사시절의 자신을 생각하며 향순을 걸음걸음 이끌어주기 위해 왼심을 쓰는 경애 등 병사들의 동지적사랑속에 그는 새롭게 성장한다. 그는 철길에 굴러내린 바위돌을 혼자서 끝끝내 밀어내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속에 평양참관의 길에 오른 사람들을 태운 렬차를 무사히 통과시키면서 차창밖으로 손을 젓는 손님들을 향하여 거수경례를 한다. 작품은 한 신입병사의 평범한 생활을 통하여 선군시대에 조국을 안고 산다는것은 무엇이며 조국을 안고살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크고 심오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심오한 철학적해명을 주고있다. 작품은 주체92(2003)년 영화로 제작되였다.

《녀사의 소원》 단편소설. 주체78(1989)년 김명익 창작.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헤쳐갈 전위들로 키우시려는 소원을 안으시고 혁명가유자녀들을 한품에 안아키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뜨거운 사랑과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보여준 작품이다. 해방후 희생된 항일혁명투사들의 자녀들을 나라에서 키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신 어머님께서는 산지사방에 흩어져있는 유자녀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신다. 그이께서는 아이들을 찾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전국각지와 중국 동북지방의 여러곳에 파견된 일군들이 애들을 데려왔다는 보고를 받으실 때마다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수령님의 품에 안긴 유자녀들을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보살피신다. 어머님께서는 매일같이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여 원아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시며 그들이 부모들처럼 수령님께 충직한 아들딸로 자라도록 이끌어주신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을 날마다 만나뵙고싶어하는 그들의 소원을 헤아리시고 학원에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도록 하신다. 어머님께서는 산에서 싸우다 희생된 투사들과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사랑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잘 모셔야 한다시며 그 사업을 하나하나 이끌어주신다. 소설은 혁명의 대, 주체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놓으신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업적은 세월이 흘러가도 영원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78(1989)년 제52호〕

《녀성은 꽃이라네》 가사. 주체80(1991)년 김송남 창작. 우리 사회에서의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꽃에 비유하여 형상적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는 먼저 1절과 2절에서 한 가정의 살림을 맡아 알뜰히 꾸려나가며 자녀들을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는 녀성들의 가정적지위와 역할을 《생활의 꽃》, 《행복의 꽃》이라는 상징적비유의 수법을 리용하여 형상적으로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계속하여 3절에서 녀성들은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억세게 떠밀고나가는 《나라의 꽃》이라고 노래함으로써 사회생활에서 녀성들이 노는 역할을 형상적으로 강조하고있다. 가사는 매 절에서 《정다운 안해여 누나여 그대들 없다면》이라는 구절을 반복하여줌으로써 우리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녀성들의 중요한 위치를 정서적으로 더욱 부각시켜주고있다. 가사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행복의 꽃》, 《나라의 꽃》으로 활짝 피여나는 우리 녀성들의 사랑스럽고 자랑찬 모습을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련관속에서 집약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녀성들에게 자주적이며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준 우리 당의 고마운 은덕에 대한 전인민적칭송의 감정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일반화하고있다. 〔《조선노래대전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녀성의 노래》 가사. 주체36(1947)년 리원우 창작.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따

사로운 해빛아래 온갖 사회적압박과 구속에서 해방된 조선녀성들의 참된 삶의 기쁨과 새 조선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선 그들의 긍지와 혁명적열의를 노래한 작품이다. 2개의 절로 되여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인민주권의 혜택아래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 된 녀성들이 새 조국건설의 보람찬 투쟁에 직접 참가하게 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하면서 인민주권을 받들고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칠데 대하여 호소하고있다. 가사의 2절에서는 공장과 농촌마다에 뭉쳐진 녀성들의 힘이 새 조국건설을 위한 위력한 원동력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완전독립을 위한 투쟁에 모든 녀성들이 떨쳐나설것을 힘있게 호소하고있다. 가사는 강한 호소성과 기백이 차넘치는 시적표현으로 해방후 우리 나라 녀성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력사적인 전변과 그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다. 〔《조선음악전집》 1,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녀성의 노래》 장편소설. 주체97(2008)년 김영희 창작.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에 속하는 작품이다. 소설은 해방직후인 주체35(1946)년초부터 그해 11월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우리 녀성들을 새 조국건설의 역군으로 키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가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활동을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조국이 해방되여 맞은 첫해 설날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동지께서 만경대에 계시는 할아버님, 할머님께 설인사를 드리러 가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만경대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선민주녀성동맹이 결성된지 두달이 되여오지만 농촌지구들에 그 산하조직이 나오지 못했다는것을 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맹사업이 잘되지 않고있는데 대해 걱정하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실태를 더 구체적으로 료해하기 위해 평양곡산공장으로 나가신다. 그곳에서 김정숙동지께서는 공장들에도 녀맹조직이 무어지지 못했다는것을 아시며 녀성들과의 사업을 직맹의 남성지도원이 맡아하고있는 실태도 목격하신다. 녀맹사업이 잘되지 않고있는것은 당시 공산당에 들어앉은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책동과 녀맹중앙위원회가 역할을 바로하지 못하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었다. 반당반혁명분자들은 근로녀성들속에 녀맹조직을 내오는것은 혁명력량을 분산시키는것이라고 하면서 녀성운동의 독자성을 부인하고있었으며 한편 공산당계 녀성단체와 민주당계 녀성단체가 합동하여 나온 녀맹중앙위원회는 서로 엇갈린 주장속에 분렬되여 녀성운동을 바로 이끌어나가지 못하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위대한 수령님께 그대로 보고드리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힘있는 력량인 녀성들을 묶어세워야 새 조국건설을 성과적으로 해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조직을 통해 녀성들을 교양하고 배워주어 그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 새 조국건설의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시고 녀맹에서 공장과 농촌들에 하부조직을 광범하게 내오도록 하시고 녀성들을 묶어세우고 교양하는데서 녀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시며 《부녀들은 어떤 제도에서 행복할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회에 출연하시여 많은 녀성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지지하고 받들 때 자신들의 운명을 참답게 개척할수 있다는것을 깨닫도록 하신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각곳에 나온 녀맹조직들이 녀성들을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투쟁에 조직동원하도록 하시고 력사적인 토지개혁이 진행되던 당시에는 녀성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토지개혁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사업에 합류해나가도록 하시며 녀맹제1차회의를 계기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새 조

국건설로선에 맞게 녀맹강령을 바로세우고 투쟁해나가도록 하신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평양에서 보통강개수공사가 진행될 때 이 사업에 각계층의 광범한 녀성들을 불러일으키시여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힘을 보여주고 자기 힘에 대한 자신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신다. 보통강개수공사장에서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에 대한 노래를 짓겠다고 하는 시인과 작곡가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조국의 터전을 다져나가는 우리 녀성들의 자부심과 긍지에 대한 노래를 지어줄것을 부탁하신다. 녀성들을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시던 그 나날에 김정숙동지께서는 고달픈 시집살이에 청춘이 시들고 남편에게서 소박당한 후 죽을 결심까지 했던 함덕례를 따뜻한 정을 기울여 어엿한 녀맹일군으로 키워주시고 농촌에서 비참한 생활의 중하에 허덕이던 리보부도 진정한 땅의 주인이 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도록 보살펴주신다. 그해 7월 여름밤에 김정숙동지께서는 밤늦도록 남녀평등권법령초안을 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마음쓰시며 수령님과 함께 녀성해방에 관한 문제를 두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신다. 주체35(1946)년 7월 30일 드디여 남녀평등권법령이 세상에 발포되고 8월 1일 평양의 인민극장에서는 녀성들의 경축모임이 크게 진행된다. 이 모임에서 김정숙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의 요청으로 축하연설을 하시며 녀성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신다. 그후 김정숙동지께서는 함덕례가 남편과 다시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꽃피우도록 보살펴주시고 복잡한 가정환경으로 하여 녀맹일군대렬에서 제명된 후 갈길 몰라 방황하던 지식인처녀 윤혜은에게도 따뜻한 정을 기울이시여 그가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다. 그해 11월 김정숙동지의 손길아래 어엿한 녀맹일군으로 자라난 함덕례, 리보부를 비롯한 많은 녀성들이 첫 민주선거에서 도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여 나라의 정사를 토론하기 위해 평양으로 온다. 소설은 그때로부터 3년후 국제무대에서 조선녀성의 영예와 긍지를 시위하고 돌아온 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성원들이 김정숙동지의 묘소를 찾아와 녀사께서 서거하신 소식을 듣고 가슴치던 그날을 회고하면서 김정숙동지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그이께서 생전에 사랑하시던 《녀성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끝난다. 소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해방후 우리 나라 녀성운동을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옳바로 진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며 2중3중의 고역속에 시들던 우리 녀성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 새 조국건설의 역군으로 자라도록 보살펴주고 떠밀어주신 위대한 혁명가, 스승이시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소설은 다양한 생활화폭속에서 부드럽고 세심하며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풍모를 인상깊게 그리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7(2008)년판〕

《녀자뜨락또르운전수》 영화문학. 김주명, 홍진숙 창작. 농촌에 파견되여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한 처녀뜨락또르운전수의 생활을 통하여 농촌을 돕는 로동계급의 일본새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협동농장에 뜨락또르운전수로 파견되여온 주인공 금숙은 어느 한 작업반의 책임운전수로 일하게 된다. 듬직한 책임운전수를 보내줄것을 고대하던 분조장 춘삼이는 금숙이를 애숭이처녀로만 여기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금숙은 농촌에 파견된 로동계급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알뜰하게 해나간다. 작업반의 포전들이 정리되지 못한것을 보고 그것들을 모내기전으로 다 정리하자고 제기하는 그에게 분조장은 그 아름찬 일을 벌려놓았다가 끝내지 못하면 모내기

철을 놓칠수 있다고 걱정하면서 반대한다. 그러나 금숙은 리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포전정리작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마을청년들에게 뜨락또르운전기술도 배워주면서 그들이 사회주의농촌의 참된 주인으로서 더 억세고 보람차게 일하고 생활하도록 이끌어준다. 작업반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무슨 일이나 앞장에 서서 책임적으로 알뜰하게 해나가는 그의 일본새에 감화된 오씨는 로력공수만 따지면서 일해온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춘삼분조장도 금숙이의 일솜씨에 감동되여 그를 적극 도와나선다. 포전정리를 다 그쳐나가던 과정에 굳은 땅이 나타나 난관이 조성되자 금숙은 밤중으로 아버지와의 련계밑에 농기계작업소의 지원을 받아 포전정리를 모내기전으로 끝낸다. 작품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눈부신 전변을 생동하게 보여주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농촌테제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또한 로동계급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속에 농촌기술혁명의 담당자로 믿음직하게 준비해나가는 농업근로자들의 혁신적인 모습, 특히 농촌처녀들을 비롯한 새 세대들의 미더운 모습들을 인상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59(1970)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녀전사들》 중편소설. 주체71(1982)년 강복례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적후전선에서 맡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싸운 한 련대군의소 녀전사들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적방침에 따라 적후에 나가 전선을 형성한 인민군련합부대의 한 련대에는 군의소가 있지만 거기에는 4명의 녀전사들이 있을뿐이다. 이들중에 당원인 김기옥을 내놓고는 모두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전사들이다. 군의소장이 부상당하고 후송된 후 군의소를 맡은 군의 서은숙이도 의학대학을 다니다가 도중에 전선에 나온 어린 처녀이며 그 아래 두 간호원들도 16살의 고중졸업생과 산골에서 농사짓다가 전선에 나온 순박한 녀성들이다. 이렇게 구성된 군의소앞에는 련대가 적후에서 치렬한 전투를 벌리게 됨에 따라 담가대원들도 없이 환자후송과 치료를 다 맡아해야 할 무거운 임무가 나선다. 이러한 속에서 군의 서은숙은 대원들을 지휘하여 련대의 의료사업을 진행해나간다. 그가 기둥으로 믿고있는 김기옥은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서 현장치료와 환자후송을 도맡아해나가며 은숙은 간호원들과 함께 병동을 꾸리고 후송되여오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전투를 벌린다. 련대가 계속 이동하는 조건에서 그들은 부상병들을 데리고 힘겨운 행군을 벌리며 중상자들은 사단군의소에 후송하고 경상자들은 자체로 치료하여 대오에 세운다. 적기의 습격으로 병동이 불타고 약품을 잃게 되자 그들은 맥을 놓기도 한다. 이때 항일투사인 련대장은 산중에 환자와 함께 남았지만 뜨거운 동지애를 발휘하고 정성을 바쳐 그 환자를 회복시켜 대오에 세운 한 항일유격대 녀대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은숙은 그 녀대원처럼 살리라는 결심밑에 적후에 단신으로 들어가 약품을 구해온다. 간호원들은 그의 책임감과 동지애를 본받아 환자후송임무를 맡아수행하고 자기는 부상을 당하면서도 동지들을 구원한다. 또한 그들은 부상병들을 위해 피도 서슴없이 바치며 자체로 약을 만들어 치료를 보장한다. 그 나날에 애인들이 전사하고 중상을 당하여 불구가 되는 가슴아픔도 당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시련과 슬픔을 이겨내면서 련대가 적후활동을 벌리는 전기간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다. 드디여 련대가 3개월에 걸친 적후투쟁을 끝내고 돌아갈 때 그들은 조국과 동지들을 위해 그 어떤 임무라도 다 맡아수행할수 있는 억센 전사들로 자라난다. 소설은 평범하고 소박한 조선녀성들이 조국보위성전에 참가하여 승리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그 나날에 불굴의 정신과 강의한 의지를 지닌 녀투사들로 자라났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녀전사의 길》 단편소설. 주체85(1996)년 조근 창작.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대를 이어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새 세대 군인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반영한 작품이다. 주인공 강윤심이가 5살때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훈련모습을 보여드린 소대의 소대장이였던 그의 어머니는 뜻밖의 병으로 돌아가면서 어린 딸에게 커서 고사포병이 될것을 부탁한다. 후날 윤심은 바로 어머니가 섰던 그 초소의 소대장으로 임명된다. 새 부대에 배치된 윤심은 상급참모 명도철과의 첫 대면에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며 생활과정에 그를 처녀병사들의 심리를 잘 리해하지 못하고 지나친 주관과 요구성만 내세우는 랭혹하고 무정한 지휘관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열로 앓는 한 전사를 위해 눈보라 사나운 밤길을 헤치고 멀리까지 가서 사과를 구해오는 명도철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윤심은 점차 그를 리해하게 되고 그와 힘을 합쳐 소대를 더 잘 꾸리기 위하여 애쓴다. 기동훈련시에 윤심은 산고지를 오르다가 내리구르는 포를 위험에서 구원하고 하반신을 못쓰게 된다. 그가 제대되자 명도철은 100여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입원해있을 때보다 더 자주 그의 집에 찾아오며 사랑을 고백한다. 마침내 윤심은 정신적으로 일시 나약했던 자기를 뉘우치며 명도철의 도움을 받아 소대장시절처럼 포와 소대, 중대를 위해 모든것을 바칠것을 결심하고 초소로 찾아온다. 소설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초소를 잘 꾸리고 포와 함께 일생을 바쳐가는 한 녀전사의 형상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사들이 가는 길은 오직 충정의 한길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85(1996)년 3호〕

《녀준의》 단편소설. 주체49(1960)년 윤시철 창작. 산간지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하여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는 한 녀성보건일군의 고상한 풍모를 보여준 작품이다. 고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산골마을인 부윤리진료소 소장으로 일하고있던 서금주는 군에서 진행된 보건일군강습이 끝난 후에 애인인 상국을 만나기 위해 도소재지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역전으로 나가던 도중에 군병원에서 일하는 전문학교동창생 혜숙이를 만나며 그로부터 부윤리진료소에서 자기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댔다는 말을 듣게 된다. 불안한 심정을 누를길 없어 리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는 과정에 전날 진료소에 왕진을 청한 사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한 환자가 생겼다는것을 직감한 그는 상국에게로 달리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겨울의 맵짠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남자들도 대낮에 혼자 걷기를 꺼려한다는 무시무시한 90리 산속길을 밤중에 걸어 새벽 2시가 되여서야 진료소에 도착한다. 진료소에 남아있던 인순이로부터 림산마을 로동자의 안해가 당장 해산을 할 처지에 있다는 말을 들은 금주는 지체없이 왕진길을 떠나며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려 해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한다. 소설은 산간지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나가는 주인공 서금주의 형상을 통하여 천리마운동의 불패의 생활력과 우리 나라 보건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8.15해방 15주년기념소설집 《빛나는 새생활》,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9(1960)년판〕

《녀준의의 일기》 중편소설. 주체76(1987)년 리계심 창작.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뜨거운 인간애와 혁명적동지애를 지니고 부상병들을 치료한 전선동부의 어느 한 사단군의소 일군들의 생활을 보여준 작품이다. 기자가 되려는 꿈을 안고 대학을 다니던 강노을은 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남진하는 부대의 야전병원에서 간호원으로 싸우게 된다. 그러던 그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후에는 준의양성소를 거쳐 다시 전선에 있는 사단군의소 준의로 배치된다. 전우들을 위하여 온갖 사랑을 다 바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자각한 그는 중상을 당한 한 병사의 다리를 자르려는 신진희군의의 결심을 돌려세우고 여러 군의, 간호원들과 함께 지혜와 정성을 합쳐 불구가 될번 한 부상병들을 치료한다. 한편 1211고지전투가 치렬해지고 장마비로 인하여 전선에로의 보급로가 끊어져 식량과 약품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데다가 중상자들까지 늘어나게 되자 강노을은 간호원들을 불러일으켜 화선에 나가 구급치료대책을 세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환자들을 제때에 치료할수 없게 되자 그는 고지밑에 화선수술장을 내올것을 발기하고 신진희군의와 함께 일에 달라붙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중상자들을 즉시에 수술할수 있게 된다. 소설은 습격전투에서 돌아오지 못한 부상병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선을 넘어 적후에 들어갔던 강노을이 전우들을 구원하고 장렬하게 희생되는 이야기로 끝난다. 소설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혁명동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자기희생정신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6(1987)년판〕

《녀차장과 청년》 단편소설. 주체51(1962)년 박종모 창작. 렬차안에서 벌어진 길지 않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정거장을 출발한 렬차에 얼굴에는 온통 감탕흙이 게발리고 손에는 시꺼먼 흙물이 흘러내리는 샤쯔를 움켜쥔 한 청년이 급히 올라탄다. 청년은 이 렬차를 꼭 타야 평양에 가서 대학입학시험을 칠수 있다면서 자기를 단속한 렬차차장이 용서해주기를 바라나 녀차장은 규정을 어기고 차표도 없이 달리는 차에 매달린 그에게 다음역에서 내릴것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이때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중년남자가 다가와서 청년을 용서해주고 자기 차표를 가지고 가게 하자고 하며 그 청년이 늦게 온 사연을 이야기한다. 아까 역으로 오는 도중에 수로가 터진것을 청년이 혼자 막고있었는데 그옆을 지나던 중년남자는 도와달라는 그의 소리를 듣고도 차시간이 촉박하여 그냥 왔던것이다. 청년의 기특한 소행과 자기를 스스로 뉘우치는 중년남자의 꾸밈없는 행동에 감동된 차장은 렬차가 다음역에 닿았을 때 청년과 함께 내리여 흙묻은 얼굴을 씻도록 하며 그의 흙발린 샤쯔를 깨끗이 빨아준다. 소설은 등장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그 도덕적의무에 충실하는 새 세대 인간들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1962년문학작품년감》,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주체52(1963)년판〕

《녀인도》 서정시. 주체35(1946)년 백인준 창작. 남녀평등권법령의 실시로 봉건적인 억압과 질곡속에서 해방되여 새 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우리 녀성들의 크나큰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봉건적인 억압밑에서 《열두폭치마자락 눈물씻기에 다 썩》고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그 치마마저 빼앗기고 오랑캐의 통바지에 매워 이국땅으로 팔려가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녀성들이 조국해방과 함께 남녀평등권법령을 받아안은 크나큰 감격과 기쁨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도록 하심으로써 이 나라 딸들의 혈관속으로는 해방의 새로운 혈조가 분수처럼 솟구쳐오른다고 하면서 두팔을 벌려 창공을 안는 녀인의 모습을 자랑높이 구가하고있다. 시는 봉건적 질곡과 예속에서 해방된 녀성들의 감격과 기쁨을 지난날과의 대비속에서 생동한 시적형상으로 구현하고있다. 〔《조선문학작품선집》 23, 교육도서출판사, 주체72(1983)년판〕

《녀인의 손》 영화문학. 박창수, 김길하 창작. 제힘을 믿고 대담하게 달라붙어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이악하게 관철해가는 한 녀성일군을 형상한 작품이다. 영천식료공

장 지배인 수련은 모든것을 제 손으로 대담하게 창조할줄 아는 일욕심이 많고 요구성이 높은 일군이다. 군사복무시절 부대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항일의 녀대원들처럼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제것을 창조할줄 알아야 한다는 뜻깊은 교시를 받았던 그는 우에 손을 내밀지 않고 자체로 발전소를 건설할것을 결심한다. 그는 일시적인 난관앞에 주저앉아 지원로력에 기대를 걸던 혜옥기사와 우식을 비롯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끝끝내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낸다. 작품은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어떤 일이든지 못해낼것이 없다는 신념과 배짱을 가져야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고 당에 충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84(1995)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념원》 단편소설. 주체46(1957)년 김병훈 창작.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온넋을 불태운 한 인민군전사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주체41(1952)년 늦은봄 어느날 포탄차를 몰고가던 61호운전사 김락두는 갑자기 달려든 적기의 폭격으로 선두에서 달리던 차의 적재함에 불이 달리자 즉시 달려가 부상당한 운전사대신 조향륜을 틀어쥐고 그 차를 빼냄으로써 뒤에 몰켜선 다른 차들을 위험에서 구출한다. 폭발소리와 함께 심한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락두를 병원으로 후송한 동만아바이는 그의 차 운전대밑의 도구함에 예비부속품주머니와 함께 들어있는 돌주머니를 보고 의혹이 생겨 의식을 회복한 그에게 사연을 묻는다. 그러는 아바이에게 락두는 어린시절에 갱내가스폭발로 탄부인 아버지를 잃고 고된 로동에 시달리다가 해방을 맞아 기술학교와 광산전문학교 지질과를 다니면서 석탄뿐아니라 각종 금속들을 뽑아내는 광석을 채취하는 지질기사가 될것을 결심하고 험한 산발들과 광산들을 찾아다니며 광물표본들을 수집했고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는 수송도중 묵게 되는 곳마다에서 표본들을 하나하나 모은 사연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주머니에 들어있는 흰돌 하나만 가지고서도 세멘트와 카바이드를 구워내고 또 카바이드에서는 합성섬유와 염화비닐원료를 뽑아낼수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다시 25종이상의 제품을 만들수 있다고 열정적으로 설명한 다음 그렇게 될 날이 반드시 올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한다. 그후 나흘만에 락두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간 동만아바이는 군의로부터 그가 숨지는 마지막순간에 사랑하는 조국을 끝까지 지켜내고 부강하게 건설해줄것을 당부하면서 광석주머니를 모교에 전해줄것을 전우들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남겨놓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정전된 이듬해 그는 전사의 애국의 넋이 깃든 주머니와 광물표본들을 광산전문학교에 보내여 광물연구실 진렬장에 전시하도록 한다. 소설은 전쟁의 포화속에서 륭성번영할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안고 싸우다 전사한 락두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운 인민군전사들의 가슴에 불타고있는 숭고한 애국심을 진실하게 일반화하고있다. 〔김병훈단편집 《길동무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주체52(1963)년판〕

《념원》 단편소설. 주체61(1972)년 최종언 창작. 새 조국건설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을 바라는 우리 인민의 간절한 념원과 지향을 보여준 작품이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신 이듬해 여름 보운산기슭의 룡수골에 살고있는 춘삼로인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산삼포기들을 정히 손질한다. 그는 이튿날 무작정 따라서는 안해와 함께 산삼을 가꾸는 곳에 이르러 위대한 수령님께 산삼을 올리기 위하여 애쓴 남모르는 사연을 이야기한다. 해방전 벌방지대에서 더는 살수 없게 된 춘삼은 화전이라도 일굴 작정으로 300리가 넘는 룡수골 친척을 찾아 가족을 이끌고왔으나 그들은 이

미 살길을 찾아 떠나간 뒤였다. 룡수골에서 앓고있던 막내딸을 잃은 춘삼은 5년후에 보국대에 끌려간 두 아들중 맏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쓰러진 안해를 구완하기 위하여 보운산에서 캔 산삼 두 뿌리를 들고 거리에 팔러 나갔다가 도리여 경찰서에 끌려간다. 그곳에서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춘삼은 조국이 해방되는 날 위대한 수령님께 산삼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감방에서 나오자마자 보운산에 올라 산삼을 찾아 헤맨다. 그는 그렇게 찾은 산삼 4뿌리를 10여년세월 놈들의 눈을 피해 매일같이 키워왔던것이다. 그해 가을 오매에도 그리던 **김일성**장군님께서 이웃마을에 오신 소식을 들은 그는 고이 키운 산삼을 안고 찾아간다. 수령님께서는 춘삼의 거듭되는 간청과 지극한 성의를 고맙게 여기시며 그의 생활을 따뜻이 물어보시고 인민이 주인된 새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무병장수하여 행복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고 하시며 산을 잘 가꿀데 대하여 말씀하신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대로 보운산을 더 잘 가꾸리라 마음다지는 춘삼의 형상을 통하여 수령님의 건강을 바라는 길은 그이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몸바치는데 있다는것을 진실한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61(1972)년 2호〕

《념원》 단편소설. 주체73(1984)년 강복례 창작. 온 민족의 통일념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을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대오에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의 품을 형상한 작품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연상광산을 현지지도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옛 동창생인 김한수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주신다. 그이께서는 남조선에서 들어온 한수가 아직 조국이 통일되지 못하여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를 만나볼수 없게 된것을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열혈청년들이 피를 흘리고있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세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수의 아들 용철이를 몸가까이 부르시여 조국통일의 그날을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대학에 추천하도록 은정깊은 사랑을 돌려주신다. 작품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이야말로 우리모두의 운명을 책임지고 통일의 그날에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는 위대한 사랑의 품이라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향도의 태양》, 문예출판사, 주체73(1984)년판〕

《념원》 장편소설. 주체76(1987)년 백철수 창작.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방직공업부문에서 주체적립장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과학자들의 생활을 깊이있게 형상한 작품이다. 작품의 주인공인 방직공장 기술준비실 기사 강정수는 본래 음악에 뜻을 두고있었으나 비날론섬유에 의한 방직연구를 채 완성하지 못한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대를 이을 결심을 다지고 방직공학으로 자기의 전공을 바꾼다. 아버지가 채 못다한 연구과제를 기어이 완성하여 어버이수령님께 충정의 보고를 드릴 하나의 념원을 안고 그는 연구사업에 온 정력을 쏟아붓는다. 그러나 그의 연구사업은 기술준비실 실장 김병석을 비롯한 몇몇 일군들의 반대에 부딪치며 애인인 한숙의 몰리해로 하여 그는 심각한 번민속에 빠진다. 이때 당조직에서는 강정수에게 신심을 안겨준다. 초급당비서 류정임은 한숙을 찾아가 그가 정수의 연구사업에 힘을 주도록 일깨워주고 그들의 사랑을 더욱 참되게 꽃피워주기 위하여 애쓴다. 한편 공장당조직의 권고로 정수의 연구사업을 지금까지 외면해오던 방길현도 그의 탐구과정에 걸린 문제의 실머리를 찾아주면서 적극 도와준다. 완강한 탐구의 열정을 안고 마침내 연구를 완성한 그들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정의

보고를 올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공장을 찾으시여 아버지의 대를 이어 연구과제를 끝내 완성한 정수의 사업에 대해 높이 치하하시며 그와 한숙의 행복을 축복해주신다. 소설은 주인공 강정수의 형상을 통하여 대를 이어 당에 충실한 당원들이 있음으로 하여 주체의 혈통은 굳건히 이어지고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또한 신념이 없이 웃사람들에 대한 아부아첨과 처세술로 살아가는 김병석실장과 방직공장에 영원히 뿌리내리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두 처녀기능공의 흥미있고 실감있는 형상을 통해 당과 숨결을 같이하지 못할 때 당원의 량심에 대해 말할수 없으며 당의 방침과 의도를 관철하는 그 길에서만 진정한 삶이 꽃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6(1987)년판〕

《녕변의 비단처녀》 가사. 주체93(2004)년 김정철 창작.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영예를 안고 장군님의 높은 뜻을 비단으로 수놓아가는 녕변처녀의 충정의 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랑을 안고 평북의 절경 천주사의 밝은 달과 동대우의 진달래를 비단우에 수놓아가는 녕변처녀의 랑만에 넘치는 기쁨과 환희의 감정을 노래하고있으며 2절에서는 장군님 보아주신 기대에서 구룡강의 맑은 물도, 철옹성의 금잔디도 비단폭에 담아놓는 녕변처녀의 생동한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1절과 2절에서 펼쳐진 사상감정을 더욱 승화시켜 우리 인민들에게 곱고고운 비단옷을 해입히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한생을 비단처녀로 살려는 서정적주인공의 충정의 결의를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기대에 대한 사랑, 자기 일터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꾸밈없이 진실하게 형상하고있으며 생동한 시적표현으로 생활적이며 정서적인 감정을 더욱 높이고있다. 〔《새노래》 9,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노도의 거리》 단편소설. 주체68(1979)년 리은직 창작. 남조선괴뢰도당의 파쑈독재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에 떨쳐나선 한 애국적지식인의 성장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량심적인 잡지사에서 일하는 강철수는 30년동안 통 무소식이던 이모를 찾게 된다. 깊은 산골의 절간근처에서 자그마한 간이식당을 경영하는 이모를 찾아갔던 철수는 그의 아들인 박상태를 알게 되며 로동운동을 비롯한 여러 대중운동을 지도하는 과정에 썩어빠진 남조선사회를 뒤집어엎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나서게 된다. 철수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공장로동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고발한 글도 잡지에 내보내고 선전용삐라를 찍어낼 비밀인쇄소도 알선해주는 한편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도 깊이 연구한다. 그 과정에 그는 원고사건으로 체포되여 고문을 받으면서도 놈들과 굴함없이 맞서싸웠고 그후 남조선괴뢰도당을 규탄하는 시위투쟁에도 뛰여들어 투쟁의 희열과 긍지를 느끼게 된다. 소설은 주인공 철수의 형상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모습과 세계관발전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재일조선작가작품집 《조국은 언제나 마음속에》,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노래》 단편소설. 주체50(1961)년 허춘식 창작. 창조적로동의 희열속에서 진정한 노래를 찾게 되는 한 용접공처녀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군적인 노래경연에서 노래를 잘 불러 호평을 받은 제강소 설비직장 용접공 옥이는 자기 직업이 노래와 거리가 멀다고 하면서 중앙무대에 오를 생각만 한다. 그는 8.15전국예술축전참가를 위한 직장별 경연에 신경을 쓰면서 작업반에서 맡겨준 일을

책임적으로 하지 않는다. 우월감에 빠져버린 그는 팔방미인으로 불리우는 같은 직장의 조립공 달선이가 손풍금반주를 능란하게 하지 못하자 크게 실망해하며 도로포장작업때에는 노래를 청하는 운전수청년의 요구도 외면해버린다. 그후 직장별 예술소조공연에 출연하게 된 옥이는 공연이 시작되도록 오지 않는 달선이를 기다리다가 우뢰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며 황급히 작업장으로 달려간다. 그는 뜻밖에도 어둠속에서 자기가 거두지 않았던 용접선을 정리하고있는 달선이를 보고 자신을 뉘우친다. 그리고 그들의 공연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바쁜 길도 에돌아가며 제일처럼 걱정해주는 운전수청년과 비에 젖은 옷차림그대로 무대에 나서게 된 자기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는 공장사람들의 친근한 모습에서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된다. 소설은 자기 일터와 작업반성원들에 대한 끝없는 애착심을 간직하게 되는 과정에 진정한 노래를 찾는 옥이의 형상을 통하여 창조적로동속에서 부르는 노래야말로 로동계급이 사랑하는 참다운 노래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0(1961)년 7호〕

《노래속에 꽃피는 가정》 영화문학. 김승훈 창작. 사회주의제도에서 문화정서생활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어느 한 조선소 선체조립직장 직장장인 만호는 배진수날자가 가까와오자 초조해지는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그는 선체조립을 다그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당분간 나팔도 불지 말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흥겨운 노래소리는 어디서나 들린다. 일에만 관심을 돌리는 만호직장장은 이를 달가와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날 공장의 지도일군들은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 기업소의 로동자들을 참가시킬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한다. 이때 만호는 노래를 잘 부르는 선옥을 기술혁신에 달라붙은 정학이와 떼놓기 위해 노래경연에 참가시키자고 남먼저 추천한다. 그리고 선옥이의 노래반주를 정학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맡도록 하려고 여기저기 뛰여다닌다. 이무렵 만호의 친형이 나타나 온 가족이 노래경연에 참가하자고 제기한다. 고령에 가까운 만호의 형은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마음껏 노래부르고싶었던것이다. 그러나 바쁘다는 구실밑에 이것을 시답지 않게 여기던 만호는 이 핑게, 저 핑게를 대며 가족노래경연준비에 빠진다. 한편 선옥의 노래반주를 자기 사위가 하도록 했던 그는 시연회에서 망신만 당한다. 그후 그는 친형과 도장직장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진정어린 비판과 충고를 받고 자신의 그릇된 생각을 뉘우친다. 그리하여 만호는 선옥을 조카며느리로 맞을 결심을 하고 그를 가족노래경연에 인입시키며 자신도 이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한다. 청춘시절에 북잡이로 소문까지 냈던 만호는 그 시절의 솜씨로 북을 멋들어지게 쳐서 사람들을 놀래운다. 그후 만호직장장의 가족은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 참가하여 만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작품은 이러한 감동적인 화폭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나라의 참된 주인이 되여 생활을 문화정서적으로 하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웃음속에서 특색있게 그리고있다. 작품은 주체79(1990)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노래하노라, 인간의 아름다움을》 장시. 주체82(1993)년 김응하 창작.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넓고 따사로운 품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하나의 대가정으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터지는 수류탄을 한몸으로 막아 전우들을 구원한 인민군 영웅전사의 위훈이 깃든 어느 한 고지우에서 인간은 얼마나 아름다울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시인의 체험세계를 펼쳐보이고있다. 서정적주인공—시인은 부모잃은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된 방송원처녀와 영

예군인의 안해가 된 처녀들, 사품치는 물속에서 아이들을 구원하고 숨진 인민군전사 등 우리 사회에서 꽃펴나고있는 미풍들을 시화하면서 시각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태여나는 사회주의 내 나라를 긍지높이 자랑하고있다. 시에서는 이 인간미덕의 화원을 가꾸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풍모를 생활적으로 노래하면서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인간은 끝없이 아름다울수 있다》는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시는 다양한 인간적미덕에 대한 자유분방한 감정정서로부터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풍모에 대한 감사와 칭송의 감정에로 승화시켜나가면서 사상적내용을 뚜렷이 강조한 형상적특성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82(1993)년 제43호〕

《노래하라 만경대갈림길이여》 가사. 주체59(1970)년 리종성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 조국건설의 뜻깊은 자욱을 남기신 만경대갈림길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를 통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를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항일의 20성상 그 어느 하루도 잊으신적이 없는 만경대고향집을 지척에 바라보시면서도 새 조국건설의 불길을 지피시려고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먼저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를 감동깊이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만경대갈림길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를 길이 전하며 어버이수령님께 충정을 다해갈 우리 인민의 뜨거운 마음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사에 불멸의 사적으로 아로새겨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풍모를 격식이 없이 소박하면서도 격조높이 형상하고있다. 〔《조선음악전집》 1,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노래여 울려가라》 단편소설. 주체72(1983)년 한익훈 창작. 병으로 예술무대를 떠나게 된 한 성악가수를 품에 안아 보살펴주시고 예술가로서 끝까지 한생을 빛내이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뜨거운 사랑을 형상한 작품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찾아내시여 독창가수로 내세워주신 홍현아는 나이가 들면서 성대에 병이 생겨 더는 노래를 부를수 없게 된다. 수술을 두번이나 했으나 성과가 없어 그는 무대에 다시 설수 없는 가슴아픔을 안고 눈물을 흘린다. 이때 이미전부터 그의 건강과 수술경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를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면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홍현아와 꼭 같이 노래를 부르는 한 신인가수를 찾아내여 평양에 데려오신다. 그이께서는 고민끝에 예술계에서 스스로 물러날 결심까지 했던 홍현아를 그 신인가수의 성악지도원으로 임명해주시고 그가 비록 노래는 부르지 못해도 록음테프에 기록된 그의 노래와 당에 바치는 충정의 열정으로 신인들을 키워내면서 예술가로서 변함없이 한생을 빛내이도록 해주신다. 이와 함께 그 신인가수가 홍현아의 수준에 오르도록 이끌어주시여 무대우에서 사라질번 했던 그의 노래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신다. 그리하여 새해경축공연무대에서는 비록 신인가수가 부르지만 홍현아의 노래가 그대로 울리게 되며 그의 문제를 두고 걱정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게 된다. 소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 예술인들의 재능을 꽃피워주실뿐아니라 운명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이시고 자애로운 스승이시라는 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조선의 행복》, 문예출판사, 주체72(1983)년판〕

《노래에 대한 추억》 단편소설. 주체72(1983)년 류정옥 창작. 어린 학생들에게 애국의 넋을 심어주면서 생활의 노래를 안겨주고 그 노래를 지켜 목숨바친 처녀교원을 형상한 작품이다. 송이선생은 해방된 조국땅에

펼쳐진 새생활의 귀중함과 아름다운 노래가 지닌 힘을 학생들의 가슴마다에 심어주기 위해 교육자의 깨끗한 량심을 바친다. 그는 노래공부시간이면 허튼 정신에 빠져있는 어린 나에게 《발갈이노래》를 배워주면서 노래란 그저 흥이 날 때 부르는것이 아니라고 일깨워준다. 그는 나에게 총탄 한방은 원쑤 한놈의 심장을 뚫을수 있지만 노래는 총탄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천만사람의 심장을 울리는 훌륭한 무기라고 하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해설해준다. 이처럼 열정적이고 량심적이던 선생은 그후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놈들에게 체포되여 사형당한다. 선생을 체포한 놈들은 그에게 노래 한곡만 잘 부르면 살려준다고 했으나 송이선생은 귀중한 생활속에 간직된 노래를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것이다. 1인칭소설로 된 작품은 감명깊은 추억의 화폭속에서 신념의 노래를 지켜 목숨바친 처녀교원의 애국심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2(1983)년 12호〕

《노한 바다》 장편서사시. 주체43(1954)년 한명천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원쑤들의 침입으로부터 고향 앞바다와 포구를 지키면서 물고기잡이를 계속한 어느 한 수산사업소 어로공들의 투쟁을 노래한 작품이다. 3부로 되여있다. 제1부에서는 전쟁의 시작과 함께 고등어잡이에 나갔던 수산사업소의 배가 미군의 함포사격을 받아 파손되나 강의한 의지로 모두 돌아오는 어로공들의 투쟁을 보여주고있다. 시는 여기서 주인공 용민의 아버지 뚝장군이 바다를 감시하다가 고등어라고 웨치는 소리에 온 사업소가 떨쳐나 고기잡이준비를 하는 장면과 출항을 앞두고 리승만괴뢰역도가 군사분계선 전지역에서 불의의 침공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어로공들의 증오의 감정, 바다로 나가 고등어를 가득 싣고 귀항의 길에 오른 배가 미군군함의 포사격을 받게 되는 일, 뚝섬에 있던 용민이가 구조선에 의하여 구원되는 이야기 등 다양한 생활을 시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제2부에서는 인민군대에 나간 용민과 후방에 있는 그의 안해 봉녀의 투쟁을 보여주고있다. 뚝섬에서 전선으로 나갈것을 결심한 용민은 사업소로 돌아온 후 인민군대에 입대하며 그를 대신하여 봉녀가 배를 탄다. 시는 용민의 전투소식을 봉녀에게 보내온 3통의 편지를 통하여 노래하고있다. 시는 이 부분에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뚝섬에 진지를 굴설하고 놈들의 군함침입을 저지시키는 용민과 그의 중대원들의 투쟁, 그들을 도와주다가 희생되는 봉녀의 최후 등을 긴박한 시적정황속에서 형상하고있다. 제3부에서는 부상당한 몸을 치료받고 제대된 용민이가 놈들의 해안봉쇄선을 뚫고 희생적으로 물고기를 잡아오는 감동깊은 사연과 전승의 날을 맞이하여 크나큰 기쁨과 감격을 안고 물고기를 가득 싣고오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전쟁시기에 건조한 발동선을 끌고 선장이 되여 정어리잡이에 나가는 용민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포구에서 만나뵙던 감격의 그날이 선히 떠오른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 얼마 안되는 10월 18일 포구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주시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동무와 같은 사람들
전쟁시기나 지금이나 많이 있기때문에
평화와 승리를 가져올수 있었습니다

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안고 용민은 물고기잡이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킨다. 시는 전쟁시기와 전후시기에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투쟁한 어로공들에 대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나 평화적시기에나 위대한 수령님께 변함없이 충실하여온 로동계급의 투철한 혁명적립장과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43(1954)년 4호〕

《노을이 타는 수평선》 단편소설. 주체65(1976)년 김창옥 창작. 불모의 땅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해 청춘을 바쳐 투쟁하는 한 처녀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형상한 작품이다. 달미래벌 농산분조장인 윤성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자연개조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마을에서 15리 떨어진 간석지공사장에 나가 보람찬 구슬땀을 바치며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간석지에 논을 풀고 벼농사를 잘 짓기 위해 아글타글 애쓴다. 사람들은 갓 개간한 간석지에서는 벼모를 자래우기가 힘들며 설사 키워낸다 해도 열매를 맺을수 없다고 하였지만 그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시험모판에서 간석지에 적응한 벼모를 길러내며 찬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그것을 튼튼히 자래우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세찬 바람이 불어 벼모들이 상했을 때에는 매일 밤 모판에 남아 불을 피워 얼친것 같던 벼모에서 새 아지가 치게 함으로써 간석지에서 실한 벼모를 길러내는데 성공한다. 성희의 꾸준한 노력과 교양으로 간석지벼농사를 짓는데 대해서 신심을 가지지 못하고 동요하면서 다른 작업반에 가서 벼모를 자래우려고 생각했던 명주도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농사를 잘 지으리라 속다짐한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청년들의 보람과 긍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 청춘의 정열과 지혜를 다 바치는데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혁명전위》, 문예출판사, 주체65(1976)년판〕

《놀고먹던 꿀꿀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들려주신 이야기.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면 생일잔치때에 반찬감이 되는 돼지와 같이 보람없는 존재가 된다는것을 보여준 이야기이다. 옛날 어떤 집주인이 생일을 앞두고 자기 집에서 놀고먹는 짐승을 하나 잡아서 생일을 쇠려고 할 때 말, 소 등 짐승들은 다 일을 하니 잡을 필요가 없고 결국 일하지 않고 늘 먹고 놀기만 하는 돼지를 잡아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야기는 일하기를 즐기는 근로자들의 성품을 대변한 말이나 소와 같은 집짐승들과 반대로 일은 하지 않고 놀고먹기만 하는 돼지의 형상을 통하여 로동의 보람과 긍지, 참된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며 동시에 놀고먹던자들이 처하게 되는 가련한 운명을 보여주고있다. 이야기는 의인화의 수법으로 집짐승들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 생동한 동화적형상을 창조하고있으며 동화와 아동영화로 옮겨졌다. 〔동화집 《나비와 수탉》,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2(1983)년판〕

《농민 김제원》(7장) 희곡. 한태천 창작. 애국미헌납운동의 선구자이며 농민영웅인 김제원농민을 형상한 작품이다. 주체35(1946)년 가을 풍작을 이룩한 나무리벌은 기쁨으로 들끓는다.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난생처음 나라의 주인, 땅의 주인이 된 김제원농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첫해농사에서 거둔 쌀 30가마니를 애국미로 나라에 바친다. 그의 애국심을 본받아 농민들속에서 애국미헌납운동이 널리 벌어진다. 김제원은 또한 농민들을 꾀여 비료를 팔아먹으며 갈밭개간공사를 방해하려는 몽학이놈의 파괴암해책동을 분쇄하고 농민들이 공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준다. 알곡증산을 위한 투쟁과 애국미헌납운동에서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한 김제원농민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된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시식량증산운동에 앞장서나가던 그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마을에 남아 인민군대의 후퇴를 마지막까지 보장하며 한알의 쌀도 원쑤들에게 내여주지 말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관철하기 위하여 중상당한 몸으로 마

을에 내려가 창고의 쌀을 불태워버리고 영웅적으로 희생된다. 작품은 김제원농민을 비롯한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는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또한 지난날 천대와 멸시만을 받아오던 김제원농민이 영웅적위훈을 세울수 있은것은 그들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이 있었기때문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작품은 극의 양상적특성에 맞게 주인공의 생애를 대담한 비약과 함축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으며 해방전후의 생활들을 대조의 수법으로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주체49(1960)년에 연극으로 창조되였다.

《농민영웅》(전, 후편) 영화문학. 한복규 창작. 해방후 평범한 농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어떻게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났으며 그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일하고 투쟁하였는가를 보여준 작품이다. 작품은 주인공 원국의 옛 동지들인 군당책임비서 박정근과 관리위원장 유송칠이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맞으며 진행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으로 가면서 잊지 못할 옛 동지이며 전우인 원국의 생활과 투쟁을 회상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주체35(1946)년 봄 마을에서 제일먼저 입당한 원국은 공작원 운석으로부터 마을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이끌어나갈데 대한 과업을 받고 강지주의 집에서 머슴을 살던 정근이를 데려내와 가정을 꾸려주며 한마을에서 같이 자란 덕삼이를 당원으로 준비시키면서 건국사업에 앞장서나간다. 그후 전국농민대표자회의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수령님의 댁에서 식사까지 하게 되는 영광을 받아안고 마을에 돌아온 그는 쌀이 없이는 건국사업을 할수 없다는 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이께서 주신 땅에서 해방후 첫 해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마을에 전기를 끌어들이고 양수장을 꾸릴것을 발기한다. 자재도 자금도 로력도 없는 형편에서 전기를 끌어들인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원국은 이악하게 달라붙어 공사를 적극 떠밀어나가면서 이 공사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는 원쑤들의 기도를 짓부시고 놈들을 일망타진한다. 한편 도에 올라갔던 운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양수기와 전기공사용자재를 가득 싣고 마을로 돌아온다. 그리하여 시련을 겪던 전기공사는 완공되고 북중벌에 훌륭한 작황이 이루어진다. 원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땅에서 거둔 첫 곡식을 나라에 바칠 애국미헌납운동을 발기하고 남먼저 햇쌀을 가득 실은 2대의 소달구지를 몰고 평양으로 올라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애국적소행을 높이 치하해주시면서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속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된 원국은 국사를 의논하는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하는 분에 넘치는 영광도 지니며 마을에 첫 뜨락또르가 도착하여 들썩하던 날에는 딸 금순이가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했다는 기쁜 소식도 받는다. 원국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은 이 모든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덕을 가슴뜨겁게 느끼면서 그 사랑, 그 은정에 기어이 보답할 결의를 굳게 다진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들이 마을을 강점했을 때 원국은 한알의 쌀도 원쑤들에게 내여주지 말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중상당한 몸으로 마을에 내려가 서포창고의 쌀을 불태우고 창고에 달려든 적들과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작품은 실재한 인물과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해방직후 땅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원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서 평범한 농민들이 주체형의 혁명가, 조선로동당원으로, 투사로 자라났음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64(1975)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농산기수》 영화문학. 홍진숙 창작.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 짓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가는 한 농산기수의 생활과 투쟁을 보여주고있다.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농산기수로 배치되여온 주인공 창길은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 지어 좋은 작황을 이룩할 결심을 가지고 벼모기르는 일에 온갖 정력과 지혜를 쏟아붓는다. 그는 기술지표의 요구대로 모든 일을 알심있게 해나간다. 그런데 오랜 농사경험과 열성만 가지고 농사를 지어온 큰아버지 달호는 창길이의 일본새를 달가와하지 않는다. 그는 씨뿌리기와 벼모기르기에서 창길이의 기술적요구를 무시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면서 낡은 경험대로 일한다. 그러다나니 벼모가 시드는 원인도 모판에 뿌린 덧비료때문이라는것을 모를뿐아니라 덧비료를 중화시키기 위하여 창길이가 뿌려놓은 농약마저 물을 대서 흘러보낸다. 창길은 이 사실을 놓고 작업반회의에서 농산과학을 믿지 않고 낡은 경험과 방법만을 고집하여 벼모를 병들게 한 큰아버지를 비판한다. 숱한 사람들앞에서 자기를 비판하여 망신시킨 조카에 대한 달호의 노여움은 컸다. 그러나 그는 작업반장인 아들의 진정한 타이름과 새 세대들의 가슴속에서 타번지는 당에 대한 끝없는 충정심에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깊이 뉘우치게 되며 새 출발을 하게 된다. 작품은 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농장원들이 경험주의, 보수주의를 불살라버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훌륭한 작황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63(1974)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농장마을》 단편소설. 주체45(1956)년 엄흥섭 창작. 해방전 왜놈농장주와 그 주구들의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다못해 싸움에 나선 한 청년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다나까라는 일본놈의 개인농장에서 소작살이를 하고있는 주인공 북술은 어느날 땔나무를 하러 갔다가 학대를 받은 후부터 왜놈들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또다시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잡혀가는 마을처녀를 보게 된 그는 부역에 동원되여 길닦이를 하면서 마을의 주인노릇을 하는 왜놈들을 없애버릴 생각을 하게 된다. 그날 저녁 야학에 갔다가 선생님으로부터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은 북술은 이튿날 왜놈들의 집지을 재목을 찍으러 산에 가지 않도록 사람들을 선동한다. 이 소식을 듣고 마을에 나타난 다나까놈을 비롯한 경찰놈들은 마을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땔나무를 하면 소작주던 땅을 떼겠다고 을러메고나서 북술이네 닭까지 빼앗아다가 술추렴을 한다.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오른 북술은 며칠전 불온분자로 몰려 잡혀갔던 야학선생이 돌아오자 나라의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농민들을 따라 마을에서도 들고일어나자고 하면서 자신이 투쟁의 앞장에 설것을 다짐한다. 며칠후 마을사람들을 묶어세운 그는 다나까놈을 찾아가 소작료를 낮추고 산에서 땔나무를 할수 있게 하며 일본놈들의 주택을 짓는 일을 중지할데 대하여 요구한다. 바빠맞은 농장주인놈은 경찰을 불러 북술이와 야학선생을 비롯한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나 그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작품은 주인공의 의식성장과정과 당시 항일무장투쟁의 영향하에 각지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난 농민들의 투쟁의 일단을 보여주면서 투쟁만이 살길이라는것을 강조하고있다. 〔단편소설집 《려명》,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5(1956)년판〕

《농장의 딸》 영화문학. 김필진 창작. 작품은 어느 한 농장의 작업반에 파견된 3대혁

명소조원이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나가는 모습을 형상하고있다. 주인공 진옥은 자기들, 대학생들을 3대혁명의 전위로 내세워주시고 농촌에 파견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기대에 충정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가며 아글타글 애쓴다. 그는 작업반에 있는 다락밭들에서도 평지밭에서와 같이 높은 소출을 내도록 하기 위하여 다락밭에 물을 끌어올려 밭관수를 실현할것을 계획한다. 그러나 진옥이의 이러한 계획은 다락밭농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거기에 뼈심을 들이지 않고 일을 쉽게 해먹으려는 작업반장 용섭이의 요령주의적이고도 무책임한 사업태도로 하여 첫 걸음부터 난관에 부닥친다. 진옥은 작업반일이 잘되지 않고 일부 농장원들속에서 말썽이 일어나고있는것은 자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심장을 움직이지 못한데 있다고 뉘우치고 군중속에 더 깊이 들어간다. 그리하여 과격한 성미를 가진 순덕아주머니를 진심으로 도와주어 주체농법관철에서 앞장서도록 하며 개인리기주의사상과 건달사상에 물젖어 말썽을 부리던 농장원 영배를 인내성있게 교양하여 옳바른 길로 이끌어준다. 한편 진옥은 다락밭에 물을 끌어올릴 주철관이 걸리자 직접 공장에 찾아가서 로동자들에게 호소하여 그것을 해결해온다. 이처럼 진옥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끝내 다락밭에 물을 끌어올리는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다락밭에서도 평지밭에서와 같은 강냉이소출을 내게 한다. 작품은 진옥이의 형상을 통하여 3대혁명소조원은 현실에서 당의 의도를 어떻게 받들어나가며 그것을 어떻게 관철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 때만이 당과 수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정으로 보답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 73(1984)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농장의 아침》 단편소설. 주체63(1974)년 박사영 창작. 자기 일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해가는 한 농촌기계화초병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이다. 군적으로 소문난 처녀뜨락또르운전수 손명희는 가을갈이경쟁에서 1등한 기쁨을 안고 정기적인 중수리에 뜨락또르를 넘기기 위하여 군농기계작업소로 간다. 거기서 그는 직장장이 젊은 제대군인수리공 장철수에게 자기 뜨락또르수리를 맡기자 꽤 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위구심을 품는다. 며칠후 다시 작업소에 들린 명희는 철수가 자기 뜨락또르에 재생품부속들을 넣는것을 보고 새것을 넣어달라고 사정했으나 고장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한마디 대답만 듣게 된다. 그런데 해토무렵이 다가와 밤새워 논갈이를 하던 명희의 뜨락또르가 바로 철수가 넣어준 그 재생품부속이 부러져 멈춰서게 된다. 분한 마음을 안고 작업소로 달려가던 명희는 뜻밖에도 자기 차를 수리해주기 위해 달려오는 철수를 만난다. 얼마후 공구함속에 있는 그의 수첩을 본 명희는 그가 매 부속품들의 명칭과 재질, 수리날자와 수명에 이르기까지 세밀히 적어넣고 일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작품은 철수의 형상을 통하여 자기가 하는 일을 말없이 끝까지 책임지는것이 바로 참된 주인다운 립장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3(1974)년 2호〕

《농촌위원회의 밤》 서정시. 주체35(1946)년 김우철 창작. 력사적인 토지개혁에 대한 소식에 접한 농민들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해방전 지주놈의 등쌀에 못이겨 구름보다 높은 마을에 쫓겨와 비참하게 살아가던 화전민들이 토지개혁에 관한 꿈같은 소식을 접하고 그날 밤으로 농촌위원회에 모여앉아 설음많던 지난날을 회상하기도 하고 미래의 아름다운 생활을 설계하기도 하며 온밤을 지새우는 모습을 통하여

토지개혁과 함께 농민들의 생활과 사상정신세계에서 일어난 전변과 흥분된 감정을 심오하게 일반화하고있다. 시는 서사적요소와 강한 주정토로를 적절히 배합하여 인상깊은 생활로써 토지개혁의 력사적의의와 농민들의 새로운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시는 력사적사실에 대한 진실하고도 생동한 시적일반화를 실현하고 농촌의 정서를 랑만적으로 풍만하게 재현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높새바람》(상, 하) 장편소설. 주체72(1983)—주체79(1990)년 홍석중 창작. 삼포왜란으로 알려진 일본침략자들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사건과 그를 물리친 인민들의 애국적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16세기 초엽의 사회력사적환경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는 《높새바람》(상)은 그리 넉넉하지 못한 량반가정에서 태여난 리우증이 왜놈들한테 죽은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보기 위하여 서울에서 고향 김해로 내려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연산군의 폭정에 불만을 품고 음모를 꾸미는 류순정 등과 련계를 맺고있던 그는 고향으로 내려오던 길에 어느 한 역말에서 우연히 놉쇠를 만나게 된다. 여기서 우증은 놉쇠의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한날한시에 왜놈들에 의하여 살해되였다는것과 그가 아버지의 원쑤를 갚기 위한 싸움에 결연히 나섰다는것을 알게 된다. 놉쇠는 배군으로 일하던 김서방의 외아들로서 10여년전에 부모를 왜놈들에게 잃고 그 복수를 위한 기회를 노려오다가 왜놈들과 내통하여 돈벌이를 하던 임금의 처남을 죽이고 불섬이란 외딴섬에 피신하고있었다. 여기서 자기대신 다른 사람이 애매하게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관가에 스스로 찾아가던 놉쇠는 아버지의 묘가 있는 가덕섬에 들렸다가 폭풍을 만나 거의 죽게 된 리우증을 구원하고 그와 한동안 같이 지내며 그 과정에 그가 비록 량반이기는 하지만 정의감과 왜놈들에 대한 증오심이 강한 사람이라는것을 알게 된다. 리우증과 헤여져 관가에 찾아간 놉쇠는 옥에 갇히나 관가에서는 애매하게 잡아가둔 사람을 내놓지 않는다. 이때에야 놉쇠는 자기가 어리석었다는것을 깨닫게 된다. 놉쇠의 소식을 들은 리우증은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동방갑부》라는 별명을 가진 주롱갑을 찾아간다. 왜놈들과 내통하여 벼락부자가 된 수전노이고 놉쇠의 아버지와 리우증의 아버지를 밀고하여 죽게 한 배후조종자이기도 한 주롱갑은 반정세력의 주요인물의 하나인 리우증의 요구에 응해나서며 그로 하여 감옥에서 나온 놉쇠는 서울에 올라가 반정에 참가한다. 그러나 류순정을 비롯한 일부 인물들은 반정을 계기로 더 큰 세력을 자기 손에 넣으려고 한다. 한편 서울에 몰래 기여든 일본왕의 밀사 사몽고로는 자기의 첩자 평시라를 통하여 반정이 있으리라는것을 알고 주롱갑에게 무기를 넘겨주면서 삼포지구에 대한 저들의 침략을 강화할 흉계를 꾸민다. 이때 사몽고로의 부하 한놈이 놉쇠의 눈에 발견되여 그 정체가 드러나며 이를 계기로 반정의 주요인물의 하나인 류순정이 왜놈들과 밀약한 내용과 함께 왜놈들의 검은 속심이 폭로된다. 여기에서 놉쇠는 겉으로는 나라를 위하는체 하면서 뒤에서는 권세와 재부를 위해 반역을 서슴지 않는 간신들의 용납할수 없는 죄행을 알게 되며 놈들과 결별하고 자취를 감춘다. 《높새바람》(하)에는 반정이 있은 이후의 형편과 삼포에서 감행한 왜놈들의 침략행위와 죄행이 그려져있다. 반정을 일으켜 권세를 틀어쥔 류순정은 주롱갑을 통해 삼포의 왜놈들과 장사를 벌리면서 놈들을 은근히 싸고돈다. 우증은 놉쇠가 고향으로 떠나간 뒤 왜놈들과 남몰래 거래를 하는 주롱갑과 김세균, 류순정의 뒤를 캐려 하다가 도리여 그들의 음모에 걸려 사헌부장령벼슬에서 파직되여 종내 삼포의 하나인 가막개진영의 첨사로 내려간다. 이때 왜놈들은 삼포왜촌들과 이웃하고있는 마을들을 왜촌의 울타리안에 집어넣으려고 꾀하는데 그중에는

놉쇠가 사는 밤내말도 들어있었다. 그리하여 밤내말사람들은 왜놈들의 흉계를 짓부시기 위한 싸움에 일떠서며 이에 겁을 먹은 놈들은 서울에 있는 주룡갑을 삼포로 끌어내린다. 자기의 양딸을 미끼로 놉쇠를 낚으려다가 실패한 주룡갑은 놉쇠와 밤내말사람들을 화적패들과 공모했다는 죄로 판가에 잡아가두게 하며 우중이 몰래 가막개진영의 군사들을 밤내말을 토벌하는데 끌어낸다. 이 틈을 타서 왜놈들이 삼포에서 침략행위를 감행하자 우중은 군사들이 하나도 없는 텅빈 성안에서 왜놈들과 맞서싸우다가 화적패의 대장 날치군과 함께 최후를 마친다. 급해맞은 임금과 조정의 관리들은 옥에 갇힌 놉쇠와 밤내말사람들을 석방하며 그들은 진영의 군사들과 함께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 왜놈들을 격멸소탕한다. 소설은 우리 나라 중세력사에서 삼포왜란으로 알려진 왜구의 침략행위를 두고 누가 조국과 민족을 지켜싸운 참다운 애국자이며 누가 나라를 팔아먹는 민족의 반역자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놉쇠를 비롯한 주요등장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을 지켜 한몸바쳐 싸운 애국자는 착취받고 압박받던 인민대중이였으며 류순정, 주룡갑 등을 비롯한 간신들은 례외없이 치부와 영달을 위해 왜놈들과 내통한 천추에 용납 못할 반역자들이였음을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2(1983)년판, 주체79(1990)년판〕

《높은 곳에서》 단편소설. 주체60(1971)년 리기창 창작. 귀중한 자재를 아껴쓰며 나라의 재부를 늘이기 위하여 애쓰는 한 녀성로동자의 깨끗한 마음을 보여준 작품이다. 비날론생산을 훨씬 늘이며 정류탑을 개조하여 섬유의 원단위를 낮출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받들고 ㅂ공장에서는 돌격대를 조직한다. 기능공양성소를 갓 나온 용접공 경식이는 여기에 망라되여 보름째나 현장에서 지새다싶이한다. 계획을 넘쳐 수행할 결심밑에 혼자서 야간작업을 하던 그는 용접봉이 떨어졌으나 창고로 인차 달려가지 못하고 머밋거린다. 그는 작업대상을 직접 나와보고 자재를 필요한 량만 주는것으로 하여 저울추로 불리우는 돌격대의 취사원 겸 자재공급원인 보배아주머니를 좀스러운 녀자로 여기고 좋지 않게 대했던것이다. 특히 10일중간경쟁총화가 있은 다음날 1등한 자기의 작업장 여기저기에 《자재절약》이라는 나무패쪽을 붙여놓은것을 본 경식은 보배아주머니를 더욱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계획이 틸것 같은 조바심에 사로잡혀 창고로 달려간다. 그러나 창고는 이미 닫겨져있었다. 이때 작업장에서 갑자기 용접불꽃이 타오른다. 깜짝 놀라 달려온 경식은 뜻밖에도 꽁다리를 이어 약물먹인 용접봉으로 철판을 미끈하게 용접하고 있는 보배아주머니를 만나게 된다. 어제날의 처녀용접공이며 공장을 일떠세운 첫 건설자의 한사람인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식은 자재를 마구 랑비한 자신을 뉘우친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나라의 재부를 아낄줄 아는 마음을 키워야 비약의 나래를 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60(1971)년 11호〕

《높은 령마루에서》 단편소설. 주체74(1985)년 김창옥 창작. 나라의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애쓰는 한 림산작업소 책임기사의 깨끗한 마음을 그린 작품이다. 림산작업소 기술준비소 설계원인 꽃순이는 새로 온 책임기사가 박영국이라는것을 알고 몹시 놀라와한다. 그것은 4년전 이곳에 실습나왔던 그가 물에 빠져죽을번 했다가 꽃순이 아버지의 구원을 받았었는데 후에 작업소 지도원이 된 영국이가 베기 쉬운 산기슭의 나무만 벤 꽃순이 아버지를 비판했기때문이다. 그때부터 그를 의리없는 사람으로 락인한 꽃순은 그가 준 솔개봉 현지조사과업을 형식적으로 집행하고 휴가를 받아 은하봉의 벌목을 맡은 아버지를 도와줄 생각만 한다. 영국은 이러한 꽃순이에게 사업에서 개

인의 체면이나 작업소의 명예를 앞세워서는 안된다고 따끔히 일러준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험한 길을 오르내리며 솔개봉에 대한 현지조사도 다시 하고 밤에는 령을 넘어가 꽃순이 아버지를 도와 삭도공사를 완공하여 작업소가 지난해보다 생산계획을 훨씬 앞당겨끝내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꽃순은 영국이를 고깝게 생각했던 자신을 뉘우친다. 소설은 사사로운 인정이나 개인의 체면과 명예보다 부강번영할 조국을 위하여 진심을 바쳐가는 여기에 우리 시대 참된 인간이 지녀야 할 높은 정신세계가 있음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4(1985)년 6호〕

《높은 목표》 장편소설. 주체83(1994)년 박찬은 창작. 당에 대한 높은 충실성을 지니고 기술자, 생산자들과 힘을 합쳐 세계기계공업발전의 최첨단인 수자조종공작기계를 훌륭히 개발해낸 한 청년기사장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어느 한 기계공장의 설계연구소 부소장이였던 주인공 신석은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기사장으로 임명된다. 당면한 생산을 보장하면서 다음해 9.9절까지 수자조종공작기계공장을 조업할데 대한 과업을 받은 그에게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제기된다. 사업을 시작한 첫날부터 과학적인 방법론을 찾아 모대기던 신석은 지배인, 당비서와 토론하고 기술자들속에 특수부속품가공분담제를 내오며 수자조종반가공직장을 따로 꾸리는 조치를 취한다. 이날 참모회의에서 아버지의 친구이며 기술부기사장인 구만식은 기사장을 적극 지지해주며 특수부속품가공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맡아나선다. 며칠후 현장에 내려가 료해하는 과정에 정신애기사와 가열공 최준기가 오래전부터 새 공작기계개발의 중요한 요소인 초정밀바이트와 설비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 재질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사업을 해왔다는것을 알게 된 신석은 우리식의 새로운 수자조종공작기계를 만들 일념을 안고 이 모든것을 다같이 밀고나간다. 그런데 새 기술을 소유하지 못한 구만식은 특수부속품가공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자 가망이 없다고 하면서 특수부속품가공분담제를 줴버리는 한편 정신애와 최준기의 연구사업까지 방해하여나선다. 그러나 신석은 물러서지 않고 부속품담당가공제를 밀고나가면서 실패를 거듭하는 정신애를 도와 위험한 실험도 함께 한다. 그는 또한 최준기의 연구조건을 원만히 갖추어주는 동시에 허진파를 비롯한 일부 기술자들의 자질을 높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무렵 실험과정에 생기는 유해물질을 알콜로 중화시키며 실험을 계속하던 정신애가 쓰러진다. 신석은 그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낸 자료를 가지고 마지막실험을 다그쳐 끝내 초정밀바이트를 만들어내며 때를 같이하여 최준기의 분말야금법도 성공한다. 이때에야 비로소 구만식은 낡은 기술을 가지고서는 당에 충실할수 없다는것을 절실히 깨닫는다. 신석이와 집단의 방조를 받아 설비제작과 조립이 본격적인 단계에 오른 어느날 정신애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평양으로 데려다가 건강을 회복시켜주도록 하신다. 이듬해 9월 드디여 예정대로 수자조종공작기계공장이 일떠선다. 조업식준비가 끝난 공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신식설비들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신석이에게 수고했다고 거듭 치하해주시고나서 정신애와 사랑하는 사이라는것을 아시고는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온 그를 나란히 옆에 세워주신다. 작품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들을 현대과학기술의 선구자들이라고 하시며 혁신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것으로 끝난다. 소설은 과학기술적진보가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는 현시기 로동자들과 기술일군들이 부단히 높은 실력을 지녀야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자기의 구실을 할수 있으며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할수 있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이와 함께 누구나 생의 목표를 높이 세우고 살며 탐구할 때 우리 조국을 부강한 나

라로 받들어올릴수 있고 값높은 삶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높은 요구》 단편소설. 주체69(1980)년 류정옥 창작. 기술혁신을 하는데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언제나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자신앞에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일용품공장 생필직장 공정기사인 주인공 정세형은 일용품의 종수와 생산량을 훨씬 늘이기 위해 새로운 성능의 기계를 고심하여 만든다. 그러나 첫 시험에서 나온 부분품들이 아직 자기 형태를 채 갖추지 못한것으로 하여 그는 고민에 휩싸인다. 일부 사람들은 그 시험을 놓고 능률이 10배나 높고 질도 괜찮으니 당장 도입하자고 하였지만 목공직장 김석범아바이는 자기가 애써 창안하여 완성시킨 구멍가공기도면까지 세형에게 넘겨주며 새 기계에서 구멍가공까지 동시에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일깨워준다. 새 기계의 성공에 만족하고있던 그는 자신을 깊이 뉘우치며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동시구멍가공을 해결할 결심을 다진다. 소설은 세형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 과학자, 기술자들이 갖추어야 할 사상정신적면모를 깊이있게 보여주고 깊이있는 심리묘사와 의미깊은 언어형상으로써 작품의 주제사상을 설득력있게 밝혀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9(1980)년 7호〕

《높은 요구》 단편소설. 주체89(2000)년 오광철 창작. 경제관리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다. 채취공업성에서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한 ㅎ광산지배인 장현철의 사업경험을 료해하고 널리 일반화하기 위해 이 광산 실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리인학지도원을 광산에 파견한다. 인학은 지배인의 사업을 료해하는 과정에 광산의 생산원가가 엄청나게 초과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광산에서 50여리 떨어진 곳에는 국가에서 많은 자금과 현대적기술설비들을 들여 건설한 도적인 규모의 카바이드공장이 있었는데 고난의 행군시기 그 공장의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여 광산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없게 되자 장현철지배인은 자체의 힘으로 광산에 카바이드공장을 세워 생산을 보장하였다. 그런데 그 공장이 많은 전기와 자금을 소모하고있었다. 이것은 생산의 집약화, 집중화를 실현하여 경제관리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당정책적요구와 어긋나는것이였다. 더우기 주변의 여러 광산들에서도 ㅎ광산의 경험을 본받아 각기 카바이드공장을 세우려 하고있는 형편에서 도적인 카바이드공장의 페기는 미룰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ㅎ광산지배인 장현철의 사업성과에 대한 료해보고서와 함께 광산의 생산원가소비정형과 그 해결책으로 되는 광산 카바이드공장 페기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인학은 망설이게 된다. 한것은 도적인 카바이드공장건설에 장현철과 리인학자신을 비롯한 광산사람들의 성실한 로력과 귀중한 땀방울이 바쳐졌기때문이였다. 자신부터가 광산의 카바이드해결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 진심으로 도와줄 때 ㅎ광산지배인에게 카바이드공장의 페기문제를 요구할수 있다는것을 자각한 인학은 광산에 다시 내려올것을 결심하며 마침내 지배인에게 카바이드공장의 페기문건을 제출한다. 당정책관철을 위해 애쓰는 인학의 심정을 잘 알고있는 장현철지배인도 자신을 돌이켜보며 카바이드공장페기를 결심한다. 소설은 한가지 일을 해도 우리 당의 경제정책에 맞게 실리를 따져가며 할 때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수 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9(2000)년 11호〕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가사. 주체74(1985)년 최준경 창작. 당기발에 대한 숭엄한 찬양의 감정을 통하여 당의 령도를 끝까지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가

사의 1절과 2절에서는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조선로동당의 빛나는 투쟁업적을 마치와 낫, 붓이 아로새겨진 당기발을 통하여 뜨겁게 찬양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당의 령도를 끝까지 받들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굳은 신념과 의지를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에서는 상징적비유의 수법을 리용하여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간명하면서도 철학적깊이가 있게 형상하고있다. 가사는 또한 매절의 5행에서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라는 구절을 반복하여줌으로써 투쟁과 승리의 상징인 우리 당기발을 끝까지 휘날려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과 혁명적열의를 정서적으로 더욱 강조해주고있다. 〔《조선가요 20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높이 들자 붉은기》 가사. 주체84(1995)년 송찬웅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생이 어려있는 주체의 붉은기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받들어가는 혁명의 한길에서 더욱 높이 휘날려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에서 추켜드시고 력사의 준령을 헤쳐넘으시며 높이 휘날려오신 주체의 붉은 기발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빛나는 한생이 어려있고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자욱이 아로새겨져있다고 숭엄하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성스러운 주체의 붉은 기발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우리 조국을 끝없이 빛내여가려는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맹세와 신념을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다. 가사는 뜻이 깊고 호소성이 강한 시적언어와 박력있는 운률로 주제사상적내용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새 노래》 1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4(1995)년판〕

《높이 들어라 〈ㅌ. ㄷ〉의 기발》 가사. 주체70(1981)년 집체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력사적의의와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노래한 송가형식의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자주의 혁명적기치—타도제국주의동맹의 강령을 따라 조선혁명이 새롭게 개척되여왔음을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했던 청년공산주의자들처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것을 격조높이 호소하고있다. 가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조선혁명의 새 력사가 개척되던 장엄한 력사적현실을 노래한 작품의 소재에 맞게 뜻이 깊고 박력있는 시어로써 시문장을 간결하고 격조가 높게 구사하고있다. 작품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와 조선혁명이 걸어온 승리적로정을 깊이 인식하게 하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고무하고있다. 〔《조선음악전집》 2, 문예출판사, 주체72(1983)년판〕

《높이 솟은 탑》 단편소설. 주체81(1992)년 최성진 창작. 조국땅 방방곡곡에 위훈의 탑을 세워가는 건설자들의 투쟁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태풍이 몰아치는 위급한 정황속에서 탑을 세우고 실신상태에 빠진 건설기업소 지배인 옥섭은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생각한다. 지난밤 그는 정무원에서 조직한 회의에 참가하였다가 태풍예보를 듣고 회의가 끝나기 바쁘게 기업소로 내려왔다. 회의에 참가하기 전에 그는 젊은 연공반장 강웅기가 높이 90m에 중량이 180t이나 되는 대형흡수탑을 자동차기중기 2대를 맞세워놓고 일떠세울 대담한 착상을 한데 대해 그것이 모험을 동반한 위험한 일이지만 책임적으로 사고하고 대담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하

면서 지지해주었다. 옥섭이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탑을 세우기 위한 공사는 이미 진행되였으나 몰려온 태풍에 의해 탑은 넘어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 탑이 넘어지면 그밑에 설치한 가스관들과 배관들이 파괴되게 되며 폭발할수 있었다. 옥섭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탑꼭대기로 올라가며 바줄이 발브에 걸릴 위험한 시각에 몸을 날려 발브를 걷어참으로써 위급한 정황을 제거하고 탑을 그러안은채 정신을 잃는다. 드디여 연공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태풍속에서도 탑은 일떠선다. 소설은 일군들이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설데 대한 당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있으며 그 어떤 어려운 정황속에서도 대담하게 결심하고 실천하는 로동계급의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81(1992)년 6호〕

《누가 더 나으냐?》 풍자시. 주체47(1958)년 정하천 창작.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쑤 미제와 리승만역도의 비굴성과 멸망의 필연성을 풍자한 작품이다. 시는 점쟁이에 매달리는 사또네 마님, 박덩굴에 매여달리는 욕심많은 놀부, 무덤에 매여달리는 굶주린 여우에 대한 풍자적형상을 보여주면서 다리부러진 미제는 요술쟁이에 매여달리고 비루먹은 리승만은 짤룩거리는 대감—미제에게 매여달린다고 조소하고있다. 시는 강물에 밀려난 개구리의 신세를 보여주면서 미제와 리승만의 종말은 황천으로 떠내려가는 개구리와 같다는것을 조소하고있다.

> 큰비 내린 뒤
> 사품치며 흐르는 강물에 밀려나온 개구리
> 썩은 나무토막에 매여달린다
> 바다로, 황천으로 떠밀려가는줄도 모르고
> 물놀이터가 넓어졌다고 목청껏 뽐낸다

시는 쩔룩거리는 미제와 비루먹은 리승만, 바다로 떠내려가는 개구리중 누가 더 나은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그 해답을 독자들에게 맡김으로써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도 미제와 리승만이가 망망대해로 떠내려가는 개구리의 신세를 면치 못하리라는 확신을 스스로 가지게 한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누구를 위한 벅찬 우리의 젊음이냐》 서정시. 주체35(1946)년 유진오 창작. 일제가 패망한 후 남녘땅에 또다시 침략의 마수를 뻗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시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 한몸바치려는 남녘청년들의 불타는 결의를 노래한 작품이다. 남조선에서 창작되였다. 시에서는 《깨여져버린 꿈쪼각을》 긁어모으며 《무너진 옛것을 다시 쌓아보려는 림종이 가까운 늙은 추물》과 《낯빛만이 달라진 새 주인앞에 대가리를 숙이며》 구걸하고있는 무리들에게 끝없는 증오를 퍼부으면서 또다시 미제의 발밑에 짓밟힌 남조선의 현실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고있다. 시에서는 엄혹한 현실에서 청년들의 젊은 힘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바쳐져야 한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함으로써 이 성스러운 투쟁에 한결같이 일떠선 남조선청년들의 투쟁모습을 강렬하게 반영하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4(1965)년 제31호〕

《누구를 위한 장벽이냐》 서정시. 주체70(1981)년 조성관 창작. 군사분계선의 남쪽지대에 철근콩크리트장벽을 쌓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천추에 용납 못할 죄행을 예리하게 폭로규탄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처음부터 《누구를 위한 장벽이냐 무엇을 위한 장벽이냐》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콩크리트장벽은 한겨레, 부모형제들을 갈라놓은 장벽이며 온갖 죄악이 판을 치는 남조선의 현실을 가리우고 높아가는 인민들의 투쟁기운을 억누르기 위한 《유신》의 장벽임을 까밝히면서 그 어떤 장벽도 우리 인민의 통일의 지향을 막지 못하리라는 확신을 힘있게 표현하고있다.

천겹을 만겹을 겹쌓으라 하라
악취풍기는
죄행을 감추지 못하리
천척을 만척을 더 높이라 하라
하늘에 치닿은
통일의 열망을 막지 못하리

시는 민족분렬책동에 미쳐날뛰는 원쑤들의 죄행을 정론적인 격조와 풍자적조소로써 예리하게 단죄규탄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0(1981)년 3호〕

《누나와 함께》 단편소설. 주체68(1979)년 박관범 창작. 공화국북반부에 살고있는 누이의 진심어린 고무를 받으면서 보람찬 민족교육사업에 성실한 노력을 바쳐가는 한 총련교육일군을 형상한 작품이다.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사범과를 졸업하고 교원으로 사업하기 전에 주인공 하동식은 일본학교에 다니고있었다. 그는 사진업을 하던 아버지에게서 일본으로 건너오기 전에 태여난 배다른 누이가 공화국북반부에 있는 고향에서 살고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후 동식은 아버지를 비롯한 식구들이 귀국하여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되였을 때 자기만은 남아 총련의 민족교육에 이바지할 결심을 다진다. 그의 생각을 고향에 있는 누이도 찬성하고 동감하여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자고 고무하는 편지를 보내왔으며 그 편지를 받은 동식은 누이와 함께 공화국의 번영을 위해 일하는 심정으로 학생들에게 민족의 넋, 애국의 넋을 심어주는 민족교육사업에 헌신한다. ㅎ조선초중급학교 사감을 하면서 교육회일군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그는 부모없는 학생들도 끝까지 공부하도록 이끌어주고 조국을 방문하여서는 학생들에게 조국의 넋을 심어주기 위해 마음쓴다. 소설은 하동식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의 번영에 이바지할 마음으로 민족교육에 분투하는 총련교육일군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재일조선작가작품집 《조국은 언제나 마음속에》,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누리에 붙는 불》 영화문학. 백인준 창작. 작품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혁명투사 김형권동지를 비롯한 조선혁명군의 한 무장소조원들이 국내깊이 진출하여 일제놈들과 싸운 력사적사실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김형권동지께서 국내로 떠나시기 전날 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멀고도 험난한 길을 떠나시는 시동생분의 옷을 지으시며 생전에 김형직선생님께서 남기신 귀중한 말씀을 되새기시며 언제나 그 말씀을 명심하고 잘 싸울데 대하여 따뜻이 이르신다. 김형권동지와 최경운, 강문호로 조직된 무장소조는 압록강을 건너 조국땅을 밟는 첫 순간부터 일제놈들의 가혹한 수탈과 억압으로 하여 헐벗고 굶주리며 짓밟히는 인민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들은 악독한 원쑤 오빠시놈의 행패로 야학방이 페쇄되고 최경운의 애인 봉임이가 체포되여가며 류만영의 아들 영남이가 원쑤들의 칼에 맞아 숨지는 모습을 보는가 하면 고역에 시달리는 목재판로동자들이 통나무에 깔리고 사품치는 물동에 빠져죽는 광경을 보게 된다. 그후 무장소조일행은 파발리에 이르러 악독한 일제침략자인 순사부장 오빠시를 처단하고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승리의 신심과 희망을 안겨준다. 무장소조원들은 반일선전사업을 비롯한 정치공작과 적극적인 무장활동을 벌리다가 홍원에 이르러 변절자 최진팔의 밀고로 일제놈들에게 체포된다. 김형권동지께서는 비록 체포되기는 하였으나 류치장과 재판장, 감옥안을 투쟁무대로 삼고 동지들을 고무격려하면서 꿋꿋이 싸우신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21(1932)년 4월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다. 감옥안에서 이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김형권동지와 최경운, 강문호 등은 감격에 목이 메여 만세를 부르고 또 부

른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명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해방의 성전에로 질풍같이 내달리며 일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것으로 끝을 맺고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받들고 영웅적으로 싸우신 위대한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숭고한 풍모를 통하여 자주적인 인간의 삶과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혁명가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어디에 기초하고있으며 바로 그것을 지닐 때 인간은 얼마나 위대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는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을 영화화면에 모시고싶어하던 우리 인민의 념원을 실현한 첫 영화문학작품으로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작품은 주체66(1977)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눈길》 단편소설. 주체65(1976)년 최종현 창작.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제일 좋은 연필을 마련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꽃피우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한 처녀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22살의 처녀 춘희는 연필공장에 제품검사원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단순히 연필의 질을 검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필마다에 새 세대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을 담기 위하여 마음을 쓴다. 어느날 공장에서는 밤새 내린 폭설로 적목을 운반하지 못하여 피나무연필을 생산하게 된다. 지배인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거스름이 이는 피나무연필을 아이들에게 쥐여주면 어버이수령님께서 걱정하실것이라고 생각한 춘희는 눈이 허리를 치는 아득령을 넘어 적목차판이 멈춰서 있는 역으로 간다. 그는 눈보라가 멎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람들의 권고를 마다하고 혼자서 경사가 급한 길의 눈을 쳐나간다. 처녀의 뜨거운 마음에 감동된 역마을사람들이 떨쳐나서며 자기를 반성한 지배인도 사람들을 동원하여 눈길을 낸다. 마침내 적목을 실은 차판이 무사히 령을 넘어온다. 작품은 춘희의 형상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그이의 구상을 꽃피우는 길에서는 그 어떤 자그마한 드팀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밝혀주고있다. 〔단편소설집 《강물은 바다로》, 금성청년출판사, 주체65(1976)년판〕

《눈길 30리》 단편소설. 주체74(1985)년 김승도 창작. 군내인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애쓰는 한 군인민위원장의 사업기풍을 보여준 작품이다. 어느 한 산골군인민위원장 리찬수는 밤사이 내린 많은 눈으로 하여 길이 막혔지만 직물공장건설에 필요한 물동량을 무조건 운반할데 대한 지시를 한 다음 눈치기작업에 나간다. 거기서 그는 작업에 동원된 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영천물고기상점에 물고기가 떨어졌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는 계획했던 회의를 끝낸 후 물고기운반정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밤이 깊었지만 시루봉의 30리눈길을 헤쳐간다. 령을 넘어간 그는 눈때문에 길이 막혔다고 싣고온 물고기를 이웃군에 넘기려 하는 상업관리소 소장의 그릇된 사업태도를 놓고 인민을 위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티가 있으면 비록 30리 령길이지만 일생을 걸어도 다 걷지 못할수 있다고 준절히 비판하며 광석운반삭도를 리용하여 물고기를 운반할것을 결심한다. 이때 소장은 자신을 깊이 뉘우치며 위원장과 함께 물고기를 운반하기 위하여 삭도운전실로 간다. 소설은 리찬수의 형상을 통하여 인민생활을 책임진 우리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깊이 새길 때에만 인민을 위하여 한몸바쳐 일하는 참된 충복이 될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4(1985)년 2호〕

《눈내리는 밤에 온 청년》 단편소설. 주체61(1972)년 김용한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군수품공장에 새로 가설하는 송전선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하여 애쓰는 송배전소 로동계급의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372고지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어제날의 선로공 성호는 제대되여 두무봉송배전소로 배치된다. 그는 원쑤들의 폭격에 어머니와 동생을 잃고 부상으로 선로공의 일을 못하지만 전선에서 싸우는 심정으로 낡은 자재들을 걷어들여 새것처럼 재생하며 창고의 질서를 정연하게 세워 귀중한 자재를 아껴쓰게 하는 등 새로 맡은 창고원의 직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간다. 드디여 공사가 완공되여 전기를 투입하려고 할때 갑자기 덤벼든 적기의 폭격으로 가장 위험한 구간인 무봉과 두무봉사이의 송전선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다. 성호는 많은 품이 들어야 할 이 복구사업을 한사람이 몇시간에 해놓을수 있는 방도를 내놓고 자신이 직접 철탑에 올라 위험한 작업을 진행하여 공사를 완공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소설은 성호의 형상을 통하여 당과 수령,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성을 지니고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우리 인민의 높은 정신세계를 소박하고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1(1972)년 7호〕

《눈물받이》 단편소설. 주체81(1992)년 최태현 창작.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갈라졌던 쌍둥이오누이가 기구한 운명끝에 이국에서 만나는 극적인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 작품이다. 대외경제사업부(당시) 참사 박현우는 열대지방의 어느 한 나라에 출장갔다가 물에 빠져 자살하려 했던 한 녀인을 구원해주며 병원에 입원한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6살때 헤여진 쌍둥이누이동생이라는것을 알게 된다. 어머니와 함께 당골에서 살던 현우는 6살되던 해 동생 밉실이에게 범나비를 잡아주겠다고 집을 나섰다가 벼랑에서 굴러떨어져 다리가 골절된다. 그후 인민군대에 의하여 구원된 현우는 자기를 구원하고 폭격에 희생된 전사의 이름을 따서 마당쇠라고 불리우던 자기의 이름을 박현우로 고친다. 애육원과 학교과정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하였던 현우는 제대되여 대학을 졸업하고 대외경제사업부에서 일한다. 한편 동생 밉실이는 남조선에서 어머니의 품팔이로 고등학교까지 다니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봉제공장에서 일하며 같은 공장에서 수리공으로 있는 청년과 결혼한다. 그후 미국놈들의 만행으로 류산하자 그의 남편은 미국놈을 때려눕히고 동남아시아에 건너가 어느 한 건설기업소에서 고용로동을 하다가 추락사고로 죽는다. 이때 남편을 찾아 동남아시아로 왔던 밉실은 그의 유해를 받아안게 되자 절망끝에 바다에 몸을 던져 죽으려다가 오빠인 현우에 의하여 구원되였던것이다. 밉실은 오빠와 함께 공화국에 오고싶었으나 남조선괴뢰도당의 역선전으로 공화국의 영상이 흐려질것을 념려하여 피눈물을 뿌리며 현우와 리별한다. 소설은 민족분렬의 비극으로 혈육이 갈라져살아야 하는 고통을 쌍둥이오누이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통일의 절박성을 강조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1(1992)년 6호〕

《눈보라》 서사시. 주체75(1986)년 정문향 창작. 항일혁명투쟁시기 난파이쯔(남패자)로부터 베이다딩쯔(북대정자)에 이르는 간고한 고난의 행군에서 수령과 혁명전사들사이에 발현된 위대한 사랑과 높은 충실성, 고귀한 혁명적의리를 서사적화폭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8개의 장으로 구성되여있는 서사시는 앞부분에서 무모한 러하(열하)원정의 후과를 가시고 꺼져가는 혁명의 불길을 다시 조국땅우에 지펴올리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대오를 이끄시고 눈보라치는 난파이쯔(남패자)의 밀림속을 헤쳐나가시는 20대의 청년장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숭엄한 영상을 감동깊게 노래하고있다. 전투에서 전투에로 이어지는 간고한 행군길에서 7련대의 털보아바이 고승지는 나어린 대원 소문철을 비롯한 유격대원들에게 장기로 지주놈을 골탕먹이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꽃을 피운다. 항상 장기쪽을 지고

다니는 고승지의 락천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싸움에서 이기자면 이러한 배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병력으로 달려드는 놈들과 맞다들었을 때 분산행군으로 맞설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고 7련대와 8련대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활동하며 자신께서는 경위대원들만을 데리시고 행군을 다그치려고 하신다. 지휘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걱정하였지만 그이께서는 련대들이 없이 사령부만 있어 뭘하겠는가고 하시며 경위대만을 이끌고 떠나신다. 위대한 수령님을 《조국의 마지막 명맥과 혁명의 운명을 한몸으로 지켜선 최후의 수호자》로, 《이 나라 인민을 머리들게 하는 마음의 기둥》으로 높이 받들고있는 7련대장은 사령관동지께서 떠나가시자 련대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린다.

《지금 이 시각부터
　련대는 사령부가 되여
　적들을 유인하는것, 그리하여
　적의 대병력이 따라오게 하는것!》

시는 나팔을 불며 대적을 달고 유인해가는 7련대 전투원들의 투쟁모습과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련대장의 열렬한 흠모의 마음, 소문철과 고승지를 정찰보내는 사연 등을 시화하고있다. 시는 다음부분에서 련대들과 헤여져 경위중대만을 이끌고 행군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께 드린 한홉의 미시가루마저 대원들에게 나누어주시며 힘을 돋구어주시는 이야기, 식량공작 나갔던 대원들이 가지고온 격발기없는 총을 보시고 우리 동무의것이라고 하시며 다시 대원들을 보내시여 쓰러져있는 소문철을 찾아내여 구원하도록 하시는 감동깊은 사연 등을 노래하고있다. 시에서는 또한 앞뒤로 달려드는 적들이 저들끼리 싸우도록 하시고 스싼다오거우(13도구)로 빠지시여 놈들을 들이침으로써 7련대에 사령부의 행동을 알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출귀몰하는 유격전법과 사령부의 신호를 받고 통신원을 파견하는 7련대장의 높은 충실성을 보여주고있다. 사령부에서 돌아온 고승지와 죽은줄로만 알았던 소문철을 다시 보게 된 련대장은 대원들에 대한 사령관동지의 한량없는 사랑을 뜨겁게 느끼며 사령부로 몰려드는 적들을 쳐부시기 위해 방아간마을에 기여든 적《토벌》대놈들을 소탕한다. 이 전투에서 고승지는 기관총을 빼앗아가지고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다. 시는 고원을 흔들며 울려퍼진 사령부의 총소리를 신호로 엄혹한 시련의 겨울을 이겨내고 베이다딩쯔(북대정자)에 모여온 유격대원들의 기쁨과 환희의 감정을 격정에 넘쳐 토로하고있다. 이러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서사시는 하나의 신념, 믿음과 의리로 굳게 뭉친 수령과 전사의 일심단결된 힘은 백만대적의 포위속에서도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힘이며 이 힘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5(1986)년판〕

《눈보라》 단편소설. 주체88(1999)년 김명덕 창작. 해방직후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일해온 한 평범한 일군을 로년기에도 변함없이 믿고 내세워주시며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풍모를 형상한 작품이다. 박춘덕은 해방전에 목수일밖에 배운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그가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나라 사업을 지도하시는 청사에서 목수로 일하게 된다. 그 영광의 나날에 춘덕은 가장 좋은 의자를 만들어 어버이수령님께서 집무를 보실 때 앉으시도록 하시려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자신의 재능과 정성을 다 바쳐 의자를 제작하여 수령님께 올린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지난 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춘덕을 만나주시고 그가 해방전 일본놈들에게 매를 맞아 뼈가 부서졌던것으로 하여 지금도 다리를 절고있는데 대하여 걱정하시고 로년기에 이른 그의 건강에 대하여 깊이 관심해주신다. 그리고

해방직후 그가 어버이수령님께 만들어올렸던 의자를 그에게 기념으로 안겨주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사적부문 일군들이 그 의자를 박물관에 소장하려고 하였으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박춘덕동무에게 기념으로 주시려고 따로 보관하고계시였다고, 며칠이 있으면 춘덕동무의 생일 75돐이 되는데 그때 주면 더 좋을것 같아 오늘 준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사랑의 기념으로 두고두고 앉으라고 말씀하신다. 춘덕은 해방직후의 일을 잊지 않으시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에 눈시울을 적신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당중앙위원회 부장의 중임을 맡겨주신다. 나이가 많고 목수일밖에 아는것이 없는 자신에게 그토록 큰 중임을 안겨주시는데 대해 놀라와하는 그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목수가 당중앙위원회 부장으로 되는것이 로동당세월이라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도 오늘의 그를 보셨더라면 기뻐하시였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가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께서 주시는 중요한 과업으로서 온천에서 휴식하도록 하시고 눈보라를 헤치시며 전선시찰의 길에 오르신다. 소설은 경애하는 장군님은 진정 혁명동지 한사람한사람을 귀중히 여기시며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이시라는것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88(1999)년 제29호〕

《눈보라만리》 서사시. 주체50(1961)년 박팔양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여 조국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한 녀성항일혁명투사의 생활과 투쟁을 노래한 작품이다. 16개의 장으로 구성되여있다. 시는 앞부분에서 조국과 전우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시련에 찬 혁명의 눈보라만리길을 헤쳐온 항일투사 김정아어머니의 투쟁을 노래하려는 정서적지향을 제시하고있다. 시는 다음부분에서 두만강기슭에서 나서 자란 어머니가 살길을 찾아 베이지엔다오 옌지(북간도 연길)현에 간 후 점차 사회적불합리에 대하여 인식하고 남편 용덕의 영향밑에 조직의 성원으로, 당원으로까지 자라게 되는 성장과정을 노래하고있다. 어머니는 놈들의 《토벌》로부터 남편과 당원들을 보호하며 그자신이 체포되였을 때에는 아이를 업은채로 용감하게 탈출한다. 혁명을 위하여 시어머니와 아들 현일을 적구에 남기고 젖먹이 어린 딸 금순을 안고 유격근거지로 들어간 그는 그 딸마저 학송이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군복을 입는다. 시는 유격대원으로서 근거지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에 한몸바쳐 나서는 어머니의 투쟁모습을 시화하면서 그가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어려운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때문이라는것을 밝혀내고있다.

어머니는 그분으로 하여 힘을 얻었고
어머니는 그분으로 하여 용감했어라
어머니는 그분으로 하여 고난 이기고
어머니는 그분으로 하여 승리했어라

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고 무산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용맹을 떨치는 어머니의 모습과 자신의 몫으로 남긴 식사까지 대원들에게 다 돌려주고도 무한한 행복을 느끼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적동지애에서 큰 충격을 받는 어머니의 체험세계, 해방후 옌지(연길)현에서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만나는 상봉의 기쁨 등을 풍만한 생활정서로 노래하고있다. 시는 어머니의 형상을 통하여 이 땅우에 마련된 혁명의 전취물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로 이루어진것인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50(1961)년판〕

《눈보라속에서》 단편소설. 주체48(1959)년 천청송 창작. 사납게 휘몰아치는

눈보라속에서 동지를 위해 자기의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샤오하얼바(소할바)령회의결정을 훈춘유격대에 알려줄데 대한 임무를 받고 길을 떠난 유격대원 황영희와 유경호는 간난신고하여 목적지에 이르렀으나 위치를 옮긴 그 부대의 행처를 찾지 못하고 설날의 맵짠 추위와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는 산속에서 밤을 보내게 된다. 이미 전날 밤에 어느 한 산전막에서 중국인벌목부로 가장한 일제밀정놈의 마수에 걸려들번 한 그들은 적들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해 눈속에 움을 만들어놓고 그안에 들어가 조심스레 불을 피우고 휴식한다. 승냥이 울부짖는 소리에 먼저 잠에서 깨여난 경호는 눈이 녹아내려 불이 꺼져버린지 오래고 몸이 사정없이 얼어드는것을 느낀다. 이러한 속에서 경호는 잠에 취해 빈사상태에 들어간 영희부터 살려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의 다리를 열심히 주무르던 끝에 자기 체온으로 언 두발을 녹인다. 영희의 발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나 경호의 가슴은 얼음덩어리를 안은것처럼 삽시에 마비된다. 날이 밝을무렵에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알게 된 영희는 경호의 뜨거운 동지애에 솟구치는 눈물을 금치 못하면서 불을 다시 피우고 그를 정성껏 간호한다. 마침내 숨결이 꺼져가던 경호는 소생되고 영희와 함께 끝끝내 련락임무를 수행한다. 소설은 이들의 형상을 통하여 동지를 위해서라면 죽음앞에 자기 한목숨도 서슴없이 내대는 항일혁명투사들의 불보다 뜨거운 혁명적동지애를 감동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천청송소설집 《유격대》,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8(1959)년판〕

《눈부시다》 단편소설. 주체77(1988)년 최학수 창작. 우리의 가극음악을 새로운 경지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현명성을 감명깊게 형상한 작품이다.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창작성원들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3 000여편의 곡들가운데서 기본음악으로 선택한 40여편의 곡을 지도해주신다. 노래의 결함과 원인, 그 시정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던 그이께서는 1년전 시연회때 가극의 한 대목에서 얼핏 나왔던 한편의 노래를 잊지 않으시고 그 노래를 잘 살려 형상할데 대하여 일깨워주신다. 그 이듬해 초봄 창작가들이 그 노래를 다시 형상하여 세상에 내놓았을 때 그들을 또다시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래를 다시 들어주시며 수정가필까지 하여 완성시켜주신다. 그리하여 이 노래는 명곡으로 머나먼 열대의 섬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다. 소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태양이 있어 우리 나라는 세상에 빛을 뿌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7(1988)년 10호〕

《눈서리》 장편소설. 주체78(1989)년 전흥식 창작. 항일무장투쟁시기 억울하게 《민생단》루명을 쓰고 대오에서 밀려날번 했던 한 녀성혁명가가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구원되여 다시 혁명대오에 들어서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전, 후편으로 되여있다. 함박골의 순진한 농촌처녀였던 봄순은 유격구에서 파견된 공작원이며 야학선생인 리현수의 영향을 받아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공청원으로 자라난다. 그는 지하조직이 주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후날 《금강의원》을 차려놓고 현수와 함께 가짜부부행세를 하면서 그의 활동을 적극 방조한다. 그 나날에 봄순은 혁명적으로 성장하며 그와 현수사이에는 사랑이 움튼다. 이무렵 현당순시원 강철권이 이 지대 혁명조직의 사업을 검열하러 내려온다. 당시 유격구에 틀고앉은 몇몇 기회주의자들은 자파세력확장에 미쳐날뛰면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반《민생단》투쟁의 공간을 리용하여 모해하고있었다. 이들은 사령부의

로선을 견결히 받들면서 저들의 지시에 잘 굽어들지 않는 리현수를 제거하기 위해 강철권을 파견한것이다. 강철권은 검열을 해본 후 현수가 한 모든 사업을 의도적으로 뒤집기 시작한다. 강철권은 현수가 일제를 미워하고 조선독립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묶어세울데 대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로선에 따라 조직에 받아들인 각계층의 사람들을 불순분자라고 하면서 대오에서 내쫓는다. 한편 현수와 봄순의 가까운 관계를 눈치채고 봄순의 아버지가 독립군출신이라는것을 문제삼아 부녀간의 결별을 강요한다. 그리고 유격구원호물자를 운반하다가 적의 습격을 받았을 때는 봄순의 아버지를 밀고자로 몰아 함부로 처형하며 봄순이마저 대오에서 배척해버린다. 그때 현수는 유격구에 들어가 사령부의 로선을 지켜 견결히 싸우고있었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이만(북만)원정을 마치고 돌아오시여 이 사태를 바로잡아주신다. 하여 현수와 봄순은 다시 만나게 되며 결혼후 옌지(연길)현에서 새로운 지하공작을 시작한다. 그런데 좌경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이 폭로단죄될 때 겨우 용서를 받은 강철권은 자기의 지난날의 죄악을 가리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선진분자로 나서는 한편 자기의 정체를 꿰뚫어보고있는 현수를 비밀리에 암살한다. 봄순은 남편을 잃은 슬픔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그가 맡았던 임무를 계속 수행해나간다. 그러던 그는 유격구에 원호물자를 가지고 왔다가 그곳 지휘부에 틀고앉은 강철권과 또다시 맞서게 된다. 봄순은 강철권의 죄행을 폭로하려다가 그의 모함에 의해 《민생단》련루자로 갇히우게 된다. 강철권은 그에게서 《민생단》이라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악독한 고문을 들이대며 나중에는 군중심판장에 그를 끌어내다 총살하려고 한다. 이때 봄순은 굴함없이 싸워 혁명가의 견결한 의지와 결백성을 과시한다. 그러나 《민생단》의 혐의를 다 벗지 못한 그는 그 련루자로 몰리운 동지들과 함께 어느 한 밀영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날 봄순은 뜻밖에도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와 그의 동지들의 경력과 투쟁에 대하여 료해하시고나서 그들이 혁명을 배반할수 없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악착한 모해속에서도 혁명적절개와 신념을 굴함없이 지켜낸데 대해 치하하시고 《민생단》보따리를 모조리 불살라버리신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속에 봄순을 비롯하여 억울하게 모해당했던 수많은 동지들이 억울한 루명을 벗고 혁명대오에 다시 들어선다. 소설은 태양의 따사로운 봄빛아래 눈서리가 녹고 만물이 소생하듯이 혁명가의 운명은 오직 위대한 수령의 뜨거운 믿음과 사랑속에서 지켜지고 빛나는것임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8(1989)년판〕

《눈석이》 단편소설. 주체57(1968)년 석윤기 창작.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백두산근거지창설방침과 조국진군방침에 의하여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를 해방할 새로운 진군로가 열려졌으며 이 휘황한 길을 따라 혁명의 대하가 도도히 굽이쳐흘렀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난후터우(남호두)를 떠나신 직후인 주체25(1936)년 3월 눈석이가 시작될무렵부터 그해 8월 푸쑹(무송)현성전투시기까지를 포괄하고있다. 사령부통신원 조달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과 몇명 안되는 호위성원들만 거느리고 머나먼 국경지대로 떠나시는것을 알고 커다란 의문에 사로잡힌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먼곳에 흩어져 활동하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집결하시려 대부대로 출발하실것을 믿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왕칭(왕청)련대에 닝안(녕안)현방향으로 진출할데 대한 명령을 전달하라는 임무를 주신다. 근심걱정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선혁명의 심장이신 사령관동지의 신변호위를 책임진 박수현에게 있어서 더하였다. 그들의 의문과 근심을 풀어주시면서 창바이(장

백), 린쟝(림강), 푸쑹(무송)일대와 국내의 혁명군중속에 들어가시여 혁명의 대오를 편성하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경지대로 진출하신다. 소설의 다음부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시기 위해 국경지대로 진출하시던 도중 푸얼하(푸르허)근방 어느 마을에 들리시여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시고 초학훈장 정태봉, 머슴군 리천석을 혁명대오에 받아 당당한 유격대원으로 키워주시고 돌봐주신 이야기, 민족배타주의자들의 박해를 받고있던 마안상(마안산)밀영 아동단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강반석어머님께서 주신 돈 20원으로 옷을 해입히시고 혁명대오에 세워주신 이야기, 《민생단》혐의를 받고 위축되였던 100여명의 유격대원들을 어버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민생단》문서보따리를 불태워버리신 이야기들로 엮어지고있다. 소설은 혁명의 난국을 헤쳐나가시는 과정에 벌써 강력한 대군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푸쑹(무송)현성전투를 조직지휘하시고 다시 창바이(장백)로, 국경지대로 진출하시는데서 끝난다. 소설은 항일무장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건들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57(1968)년 4호〕

《눈석이꽃》 단편소설. 주체53(1964)년 백철수 창작. 언제건설을 위한 새로운 발기를 내놓고 강의한 의지로 끝까지 실현해나가는 새 세대 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전기기술학교를 졸업하고 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와 연공기술을 배우고 담을 키우던 병호는 언제건설에서 중심을 이루는 가물막이 2선공사를 흙버럭으로가 아니라 블로크로 할수 있다는 새로운 발기를 내놓는다. 이것을 기술부와 공사지도부에서 지지하며 그 시험작업이 병호의 작업반에 떨어진다. 이때 설비직장장 김홍식은 블로크를 들어올리는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병호의 제의를 반대해나선다. 그러던 홍식은 이런 일에서 경험이 있는 직장장이 잘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당위원장의 충고와 고열로 신음하면서도 방도를 찾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는 병호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반대해나섰던 자신을 돌이켜본다. 새로운 결심을 안고 노력하던 홍식은 블로크를 들어올릴수 있는 기발한 안을 내놓으며 블로크의 이음틀사이로 뿜어나오는 물때문에 세워놓은 블로크가 넘어질 위험이 조성되였을 때 서슴없이 뛰여들어 자기 한몸을 내댄다. 병호와 홍식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작업은 성과적으로 진행된다. 작품은 눈속에서 피여나는 눈석이꽃처럼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서로 돕고 이끌어주면서 위훈을 수놓아가는 로동계급의 고상한 풍모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53(1964)년 6호〕

《눈속의 동백꽃》 장편소설. 주체94(2005)년 한정아 창작.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청춘을 다 바친 한 통일애국투사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주인공 류세진은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류호의 셋째아들로 태여났다. 그의 할아버지 류진백은 일제의 강도적인 《을사5조약》에 불응하여 상소문을 내기도 하고 마지막기력이 진할 때까지 나라를 찾아줄 인걸을 애타게 찾다가 운명한다. 또한 세진의 아버지 류호도 부친의 한을 풀려는 일념으로 화승대를 들고 의병대에 들어가 싸우나 반일투쟁을 이끌어줄 위인이 없어 조락되여가는 의병대의 운명을 두고 통탄하다 세상을 떠난다. 세진은 나라찾을 변함없는 뜻을 안고 절개의 상징인 송죽과 나란히 동백나무를 심고 동백꽃집안의 혈통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며 애국의 마음을 키워간다. 그는 둘째형 범진과 함께 애국지사들이 민족의 정신을 배양하려는 목적으로 세운 고창고보에서 축구

로 조선사람의 기개를 떨칠 마음으로 일본인 학생들과의 경기에 나서 승리를 이룩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고 일제의 손에 존경하고 따르던 축구감독 리병섭을 잃게 되며 배움의 길마저 빼앗긴다. 조선을 강도적인 수법으로 타고앉은 일제와 맨손으로 싸워서는 승리를 얻을수 없다는 교훈을 새긴 세진은 **김일성**장군님의 빨찌산이야기를 전해들은 다음부터는 흥분을 억제 못하고 곧 유격대를 찾아 떠나려 하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해방후 세진은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반대하여 투쟁의 길에 나서며 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대에 입대한다. 병사시절에 세진은 항일혁명투사 강현대대장의 영향밑에 어엿한 혁명전사로 성장하며 그 과정에 **김일성**장군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참된 삶과 행복이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한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부대의 엄호를 보장하고 적후에 떨어지게 되자 세진은 지리산유격대에서 싸운다. 적들이 뿌려놓은 세균탄으로 유격대에 전염병이 돌게 되자 그는 맏형 동진에게서 약을 구하려고 산을 내려갔다가 체포되게 된다. 그때부터 세진은 남조선의 감옥이라는 감옥은 다 돌며 20여년간 옥중생활을 하게 된다. 적들은 어떻게 하나 그의 신념을 꺾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교형리들은 그를 전향시키기 위하여 악착한 고문도 들이대고 가짜사형극도 조직하며 고보동창생과 혈육들을 내세워 회유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 세진은 동창생 신경학, 맏형 동진과 의절을 하며 조카 신혜로부터 랭대를 받을뿐아니라 자기를 리해해주고 힘을 주던 어머니의 운명도 지켜주지 못하는 가슴아픈 슬픔도 겪게 된다. 그러나 그는 모진 회유와 고문, 자기 일신에 닥치는 슬픔에 비관하지 않으며 비전향장기수의 한사람이였던 해룡의 영향밑에 자기의 신념을 꿋꿋이 지켜나간다. 세진의 고결하고 굳센 의지앞에 적들은 끝내 항복하게 되며 동창생, 형, 조카 그리고 강도청년 소지뿐아니라 교회사 오한수까지도 그가 걷는 길이 진리라는것을 깨닫고 통일을 위한 길에 나서게 된다. 그후 세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동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의리에 의하여 그리운 어머니의 품,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게 된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굳센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눈서리에도 푸르른 송백과 같이 억세게 싸워나가는 길에 인간의 참된 삶과 값높은 행복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4(2005)년판〕

《눈이 내린다》 가사. 주체54(1965)년 김재화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 그것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반영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눈이 내리는 고요한 밤에 창가에 앉아 빨찌산이야기를 듣는 서정적주인공의 심리세계에 대한 시적묘사를 통하여 이 땅우에 행복이 넘쳐흐를수록 오늘과 같은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해 피어린 항일의 눈보라길을 헤쳐오신 어버이수령님과 혁명선렬들의 불멸의 업적을 잊지 못해하는 우리 인민들의 숭엄한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념원이 꽃핀 이 땅의 모든것을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더욱 빛내여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불타는 결의를 노래하고 있다. 가사는 사람들의 깊은 정서를 불러내는 생동한 시적계기를 설정하고 서정적주인공의 심리정서세계를 자연현상과 형상적으로 잘 결부시켜 깊이 파고듦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해나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펼쳐보이고있다. 가사는 특히 매 절의 첫 부분과 마지막에 시련에 찬 항일의 눈보라만리길을 정서적으로 련상케 하는 《눈이 내린다》의 구절을 반복하여줌으로써 잊지 못할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가지가지의 추억을 끝없이 불

러일으키며 깊은 여운에 잠기게 한다. 가사는 그가 거둔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1960년대 서정가사의 대표작의 하나로 되였으며 가요로 형상된 후에 무용, 조각 등 여러가지 예술형식으로 다시 형상되여 근로자들의 사상정서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조선음악전집》 1,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눈이 내린다》 단편소설. 주체76(1987)년 김영길 창작.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준 한 일군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30만정보의 간석지건설이 힘차게 벌어지던 어느날 ㄷ간석지건설자들은 맨먼저 1만정보를 막고 총화수훈식에 참가하러 간다. 이때 작업반장 최중선과 그의 장인인 직장장은 사람들을 뻐스에 태워 먼저 보내고 자신들은 완공된 언제우로 걸어서 떠난다. 그들은 다같이 응당 수훈식에 참가해야 할 림기사장을 생각한다. 기술행정일군이지만 언제나 사람들의 심장속을 들여다볼줄 아는 일군이던 그는 최중선반장과 직장장의 딸 안선녀가 가까운 사이라는것을 알게 되자 우정 전마선을 내여 회의에 가는것처럼 하면서 반장이 뭍에 있는 애인을 만날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판매원인 선녀로 하여금 이동봉사선을 타고 섬에 올라 최중선작업반의 돌격대에 이름을 등록하게 하고 함께 일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사랑이 혁명임무에 충실한 동지적사랑으로 되게 한다. 배수문공사를 위한 가제방건설이 끝났을 때 무더기비와 해일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최중선이 이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한탓에 법적추궁을 받게 되였을 때도 림기사장은 맥을 놓고있는 그를 꾸짖어 과오를 씻도록 도와주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나선다. 그러던 그가 공사의 마감대목에 이르러 갑자기 들이닥친 태풍속에서 희생적으로 기계들과 언제를 보호하느라 무리한탓에 불치의 병이 도져 완공의 날을 며칠 앞두고 운명한것이였다. 최중선과 직장장이 림기사장에 대해 생각하며 어느새 마을길에 접어들게 되였을 때 당비서도 역시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질줄 알았던 림기사장을 생각하며 동구길을 걷고있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받들어 일생을 하루와 같이 살며 사람들이 영원히 잊지 않고 추억하는 사람으로 사는것이 참다운 인생이라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6(1987)년 2호〕

《눈이 내린다》 송년시. 주체86(1997)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창작. 주체86년을 보내면서 이 한해를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해로 이끌어올리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는 시인들의 노래가 가닿지 못하는 그곳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찍혀져있다고 하면서 온 한해동안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과 처녀병사들 그리고 수많은 인민들을 만나주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을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시는 《수령님의 축복을 받으시며 금수산기념궁전의 계단을 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요일도 명절날도 없이 우리 인민을 이끄시고 《총포성없는 전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여오신 지난해를

수령님서거 3년상을
반만년 민족사에서
최대의 추모의 날로 맞은 해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그 감격이
10월의 광장에 꽃보라로 터져오른 해
회령의 고향집마당에
온 나라가 찾아와
어머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 해

로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또한 일본인녀성들이 자본주의땅을 대원정하고 친정아버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비롯하여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더욱 높아진 력사적사변들을 구체적인 생활정서로 노래하고 있다. 시는 이해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승리한다는 진리를 더욱 굳게 확신하고 장군님을 결사옹위할 총폭탄의 맹세를 철석같이 다지였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이러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시는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언제나 승리한다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로동신문》, 주체86(1997)년 12월 31일〕

《늦은봄》 단편소설. 주체62(1973)년 성혜랑 창작.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의 형상을 통하여 진정한 과학탐구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다. 물리학계의 이름난 교수 윤주탁은 량심적인 과학자로서 학장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진보적인 교수들과 학생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그러나 학장이 된 후 정치와는 담을 쌓고 《량심적》으로 살면 된다고 하면서 학생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이러한 《량심》과 자기보신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 학생이 경찰의 야만적인 고문으로 살해당하고 중무장한 군대가 대학을 봉쇄하고 시신을 강당에 안치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고민속에 모대기던 교수는 어느날 경찰의 추격을 받는 한 녀학생을 자기 방에 숨겨 구원해준다. 그때 그가 주고간 도서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을 며칠밤 열심히 탐독한 교수는 값없이 흘러간 자기의 일생을 뼈아프게 자책하면서 결연히 학생들의 투쟁대오에 나선다. 작품은 윤주탁교수의 형상을 통하여 진정한 과학탐구의 길, 진리의 길은 바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따르는데 있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단편소설집 《간고한 나날》, 문예출판사, 주체62(1973)년판〕

《님을 위한 교향시》(1, 2부) 영화문학. 리춘구 창작.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지반을 밑뿌리채 뒤흔들어놓고 반미자주화투쟁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주체69(1980)년 5월 광주인민봉기의 력사적인 사건을 취급한 작품이다. 주인공 현중은 총학생회 회장으로서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나가려는 열망을 가진 대학생청년이다. 그러나 그의 꿈과 포부는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하며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의 가혹한 정치적탄압과 폭행에 분노한 광주인민들은 드디여 전인민적항쟁에 일떠선다. 그러나 미제의 사촉을 받은 전두환괴뢰도당의 살인마들은 괴뢰군을 내몰아 광주시내를 포위하고 온 도시를 피바다로 만든다. 환각제를 먹은 공수특전대놈들은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고 찌르고 불사르는 등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살륙작전을 감행하면서 봉기에 떨쳐나선 인민들을 탄압한다. 이러한 때에 현중의 애인 혜라는 자기 애인의 안전만을 먼저 생각하면서 광주를 뜨지 말라는 조직의 지시를 외곡전달하여 현중을 교외로 피신시킨다. 광주인민봉기에 참가하지 못한 현중은 제 한몸은 위기를 모면했으나 정신적고통은 더할나위 없었다. 수배자명단에 오른 그는 얼마 못 가서 체포된다. 선배들과 학우들앞에 지은 죄로 고민하던 그는 혜라에게 결별을 선포한다. 감옥에서 현중은 한고향친구였던 공수병 고황을 만난다. 괴뢰군에 징집되였던 그는 광주인민봉기를 탄압하는 공수병으로서 자기의 동생을 죽이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까지 이르며 마침내 자기의 치욕스러운 삶에 도전하여 다른 공수병들에게 총부리를 돌리고 그후 교수형을 당하게 된다. 본의아니게 광주인민봉기에 참가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끊임없는 자책과 번민속에 자신을 반성해나가던 현중은 선배들의 뜻을 뒤늦게나마 잇기 위해 단식롱성투쟁을 벌리다가 숨을 거두며 혜라는 현중으로부터 그처럼 바라던 용서를 끝내 받지 못한다. 작품은 반미자주화를 위해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투

쟁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광주시내를 피바다로 만든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작품은 주체80(1991)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내가 만난 사람들》(제1부 《먼길을 가는 사람들》) 영화문학. 리희찬 창작. 당과 조국에 무한히 충직한 수력발전소건설자들의 위훈과 자랑을 담은 작품이다. 작품은 주인공 광호를 비롯한 수력발전소건설자들이 태천발전소를 완공한데 이어 새로운 남강발전소건설장으로 작업장을 옮기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30여년전 수풍발전소 보수공사로부터 시작하여 강계, 운봉, 덕천, 태천 등 여러 지역에 기념비적인 발전소언제들을 건설하면서 먼길을 걸어온 주인공인 직장장 광호와 지배인 정태앞에는 종착점일수 있는 이 지점에서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광호는 남강발전소 보조언제막이공사에 날려쌓기발파를 도입하여 기일을 앞당기려고 한다. 그러나 지배인 정태는 광호를 적당한 일자리에 옮겨놓을 생각만 하면서 도입안을 반대한다. 광호의 요구에 의해 진행된 날려쌓기발파는 계산상착오로 하여 실패하며 사고심의로 하여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러한 때 30여년전 수풍에서 걸음을 같이 뗐다가 병을 핑계로 도망쳤던 기태가 수력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자기 아들을 빼내려고 사업용물자를 한차 싣고 찾아온다. 어느 항의 부항장인 기태는 자기의 리력서에 수풍발전소건설에 참가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으려고 노력하며 지원나온 아들 성봉이도 데려가려 한다. 세 사람의 상봉은 반가운것이였으나 오기태의 아들 성봉과 광호의 딸 혜련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것으로 하여 극적인 이야기들이 생겨나고 사업용물자는 지원물자로 취급되여 기태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러나 광호의 성실한 노력에 의해 방향성대발파의 성공이 담보되며 자기보신에 빠져있던 정태와 리기주의에 물젖어있던 기태도 마음을 바로잡고 방향성대발파에 참가한다. 발파의 성공과 먼길을 이어갈 후대들의 사랑문제의 해결로써 이야기는 끝난다. 작품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당과 조국을 위하여 변함없는 길을 걷는 사람만이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79(1990)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내가 만난 소조원》 단편소설. 주체72(1983)년 양의선 창작.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지펴 그들을 혁신에로 이끈 한 3대혁명소조원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ㄷ광산에 찾아온 도예술단소편대 책임자 나의 시점에서 씌여졌다.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 ㄷ광산에서는 다음해 새해벽두부터 생산적앙양을 일으킬 목표를 세우고 년말준비를 다그친다. 동발목을 마련하려 산으로 이동작업을 나간 로동자들은 일요일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일한다. 이곳에 온 도예술단소편대는 광산측의 청탁에 따라 길안내자로 나선 한 처녀와 함께 그곳으로 이동공연을 떠난다. 눈사태에 길이 막혀 뻐스가 멈춰섰을 때 그 처녀는 도구를 얻어다 앞장에서 눈을 치면서 길을 열어나간다. 그 모습에 이끌린 배우들이 모두 떨쳐나 눈을 밀어내고 소편대는 현장에 도착한다. 그 길에서 나는 이 처녀가 소편대의 이동공연을 조직하기 위해 지난밤에 홀로 눈길을 헤치며 왔다는것과 그가 바로 이 현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이라는것을 알게 된다. 공연을 해야 하겠으나 장소가 바람에 눈발이 날리는 야외이고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조명을 보장할수 없는 조건에서 나와 배우들은 주저한다. 로동자들도 힘이 나게 나팔이나 꽝꽝 울려달라고 한다. 그러나 소조원처녀는 얼음등피를 만들어 조명을 해결하며 어려운 조건에서도 공연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애쓴다. 그의 이러한 모습에 이끌린 소편대는 마침내 공연을 시작하며 그들의 힘있는 경제선동은 로동자들을 혁신에로 고무추동한다. 소설

은 당이 파견한 3대혁명소조원은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펴 그들을 투쟁과 혁신에로 이끄는 혁명의 전위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작품집 《시대의 전위들》, 문예출판사, 주체72(1983)년판〕

《내가 만난 청년》 단편소설. 주체74(1985)년 오광호 창작.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자기의 깨끗한 량심과 성실한 땀을 바쳐가는 한 청년돌격대원의 뜨거운 마음을 그린 작품이다. 1인칭설화형식으로 되여있다. 설화자인 기자 김수현은 취재길에서 알게 된 속도전청년돌격대 중대장 강영준이 광복의 천리길 60돐기념 전국청년학생들의 홰불행진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든 려관을 찾아간다. 수현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준 영준은 기계공장에서 일하다가 속도전청년돌격대에 탄원한 청년이였는데 6년만에 중대장으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함께 탄원한 그의 친구 경민은 목전의 안일과 향락을 추구하면서 직업을 이리저리 옮기며 허송세월을 보내고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더듬으며 려관을 찾았던 기자는 영준을 만나 이번 홰불행진때 항일투사와 나란히 팔을 끼고 행진하면서 투사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자기가 일생토록 걸어야 할 혁명의 길임을 깊이 느꼈다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듣는다. 또한 시대의 거세찬 흐름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있는 경민이를 걱정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준이와 같은 새 세대 청년들을 알게 된것을 큰 기쁨으로 느낀다. 소설은 강영준의 형상을 통하여 항일혁명선렬들의 뜻을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해나갈 우리 시대 청년들의 투철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4(1985)년 12호〕

《내가 본 나라》(제1부) 영화문학. 최일심 창작. 일본 《요미우리신붕》편집국 론설위원회 고문이였던 다까끼 다께오의 우리 나라 방문과정에 있었던 실재한 사실을 형상한 작품이다. 탐방기자로서 언론계에서 부리가 사나운 존재로 알려져있는 주인공 다까하시 미노루는 어느날 대학초빙강의에서 학생들로부터 주체사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체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지 못한 그 어떤것에 대해서도 소홀히 진실여부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자신의 생활신조에 따라 주체사상이 현실로 구현되고있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방문의 길에 오르게 된다. 조선에 대한 다까하시의 인상은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특파원으로 활동할 때 본 락후하고 보잘것 없는 식민지사회의 가냘픈 모습뿐이였다. 그러나 웅장화려한 수도 평양의 모습은 그의 생각을 여지없이 뒤집어놓는다. 주인공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자기 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놀라운 사실들에 접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름없는 한 평민의 가정에 들리신 감격적인 사실, 외진 섬마을의 세 학생을 위해 2명의 선생이 있는 사실, 이러한것은 다까하시 미노루가 상상할수 없었던 일이였다. 또한 그는 딸의 부탁대로 조선의 이름난 도자기공예사 김선희를 만났을 때 그가 바로 일제시기 만저우로 가던 길에 회령도자기공장에서 만났던 처녀, 《조선－회령》이라는 글자를 도자기에 새겨넣은것으로 하여 일제헌병놈에게 민족적멸시와 학대를 받던 조선의 한 도자기공의 딸이라는것을 알고 더욱 놀라게 된다. 일제시기 그토록 천대받던 그 처녀가 해방후에 공장을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수령님의 배려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인민예술가로까지 자랐다는 엄연한 사실앞에서 다까하시는 많은것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더우기 그에게 큰 충격을 준것은 일본에서 살다가 귀국한 5남매의 행복한 모습이였다. 니이가다항에서 그가 직접 바래우며 념려하였던 고아 5남매는 그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속에서 모두 대학을 나오고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있었던것

이다. 이 놀라운 현실을 직접 목격한 다까하시는 조선에 대하여 새로운 인상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10일로 잡았던 체류기일을 한달이나 더 연장한다. 이 기간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답사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접견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다까하시는 그이의 높으신 덕망과 위대성에 대하여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며 오랜 세월 인류가 한갖 리상으로만 꿈꾸어오던 새 세계가 바로 위대한 주체사상이 구현된 결과에 이룩된것임을 심장깊이 체득하게 된다. 작품은 주인공 다까하시 미노루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야말로 인간중심의 위대한 학설이며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말로 주체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 있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작품은 주체77(1988)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내가 사는 땅》 시초. 주체74(1985)년 김정철 창작.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뜻깊은 영광의 땅에서 살며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는 농민—서정적주인공의 고향마을에 대한 무한한 애착심, 충정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초는 《내가 사는 땅》, 《벼꽃》, 《달빛도 만리 사랑도 만리》, 《이삭아 내 사랑아》의 4편의 시로 되여있다. 시초는 벼 한포기, 강냉이 한포기마다에 정성을 기울여 알찬 열매를 마련해가는데서 참된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높은 책임성을 보여주고있다. 시초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물걱정을 모르고 마음껏 농사짓는 서정적주인공의 행복에 겨운 감정을 독특한 시형상으로 노래하고있으며 수령님께 기쁨만을 드릴 충정의 결의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시초의 시들은 하나같이 짧으면서도 뜻깊은 생활의 진리를 담고있으며 심오한 사상감정을 짙은 향토적정서속에 구현하고있다. 〔시집 《래일의 기슭으로》, 문예출판사, 주체74(1985)년판〕

《내가 사랑하는 처녀》 영화문학. 김국성 창작. 청년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조직생활문제를 취급하고있는 작품이다. 군당학교를 갓 졸업한 가공직장 사로청초급단체위원장 인순이와 공장적으로 소문난 말썽군인 창남이와의 관계는 첫 장면에서부터 인상깊게 펼쳐진다. 주인공 인순은 아침출근길에서 직장처녀들속으로 오토바이를 몰아가다가 동뚝아래로 미끄러져 물참봉이 되는 두 청년을 보게 된다. 이런 일로 하여 작업장에 늦게 나와가지고도 직장장의 추궁에 제편에서 큰소리치며 마구 행동하는 창남에게 인순은 직장장의 비판이 옳지 않는가고 조용히 일깨워준다. 그러나 창남은 그의 충고를 마뜩지 않게 여기면서 엇서나간다. 창남은 자기 집을 찾아온 인순을 장난감을 가지고 조롱하며 그가 공구창고에 들어간 줄 알면서도 쇠를 잠그어놓고 밤새 맥주를 마시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조직의 분공을 외면하고 장기판을 찾아다니면서 비판을 하는 인순에게 시집이나 가라고 불손한 언행을 마구 내던지며 나중에는 술을 마시고 싸움판을 벌려 안전부에 구류되기도 한다. 작품에서는 창남이를 교양해나가는 과정에 인순이가 겪게 되는 고충과 난관을 보여주는 이러한 장면들로 이야기를 특색있게 엮어나가면서 창남이를 옳게 이끌어주기 위하여 장기까지 배우면서 원칙적이고도 진정어린 노력을 기울이는 주인공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펼쳐보이는데 형상을 집중시키고있다. 작품은 인순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창남이가 인순이를 조직의 책임자로서만이 아니라 처녀로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것으로 끝난다. 이처럼 작품은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청년들이 사상정신적으로 교양개조될수 있고 청춘시절을 값있게 보낼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심각한 교훈속에서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81(1992)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내가 서야 할 위치》(1막) 희곡. 주체71(1982)년 오충근 창작. 병사시절의 자세로 자기에게 맡겨진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는 제대군인들의 투쟁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새로 온 제대군인 철민은 삭도시운전에서 연공으로서 한몫 단단히 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기사장 광현은 철민을 비롯한 제대군인연공들의 능력을 믿지 않고 다른 건설사업소에서 기능이 높은 연공을 초청해온다. 또한 전쟁시기에 희생된 철민이 아버지와 막역한 사이였던 그는 홀로 있는 철민이 어머니를 위하여 철민을 어머니가 있는 주변의 공장으로 보내려고 한다. 그러나 철민은 병사시절에 기준포의 조준수로 자기 위치를 믿음직하게 지켜온것처럼 연공으로서의 높은 기능을 가지고 자기 초소를 지켜나갈것을 결심한다. 철민은 시운전하던 삭도바가지가 탈선되자 기사장에게 자기가 올라가 수리할것을 제기하며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나서는 기사장에게 자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불필요한 존재가 되여 밀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믿지 않고 기술만능주의에 포로된 그의 낡은 관점을 비판한다. 철민이와 함께 올라가 수리를 끝낸 기사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초소에서 자기 위치를 든든히 고수해나가려는 그의 믿음직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낡은 관점을 버리게 된다. 작품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이 맡겨준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는데 우리 인민의 값높은 삶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1(1982)년 10호〕

《내가 설 자리》 영화문학. 리종현 창작. 의학대학에 다니던 주인공 홍철이가 나라의 정세가 긴장해지자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는 과정에 있은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작품의 주인공 홍철은 의학대학에 다니던중 정세가 긴장해지자 인민군대에 입대한다. 홍철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있던 같은 학급의 윤희는 대학시절 동종이식수술에 관한 론문을 발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가 학계에서 이름을 날리기를 바라면서 대학에 남아서 론문을 완성했으면 하는 의향을 표시한다. 그러나 홍철은 조국앞에 지닌 공민적의무를 먼저 생각하고 손에 총을 잡는다. 그는 군사복무의 나날 갑판장 세훈에게서 참된 군인의 자세와 조국앞에 충실한 혁명적량심을 배우게 되며 군사복무는 공민적의무인것만이 아니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 청년들의 가장 아름다운 리상이며 포부이라는것을 인식하게 된다. 불의에 조성된 전투정황속에서 한 전사가 다리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릎아래이면 슬관절까지 다 달아났으니 너무도 귀중한것을 잃었다고 하는 홍철에게 세훈은 잃은것이 아니라 바쳤다고, 자기를 잃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 전사들이 목숨까지 서슴없이 바칠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그가 조국앞에 지닌 병사의 임무를 자각하도록 일깨워준다. 그리고 홍철이가 해상훈련중 위치를 리탈함으로써 규률을 위반하였을 때에도 병사의 자각을 가지도록 깨우쳐준다. 세훈은 또한 물에 빠진 어린이들을 희생적으로 구원함으로써 조국과 인민을 목숨으로 보위할 각오가 체질화된 군인의 자세를 실천으로 보여주며 그후 해상전투에서 적함을 까부시고 장렬하게 전사한다. 세훈의 영웅적희생은 홍철이로 하여금 의학대학으로가 아니라 해군대학으로 갈 결심을 가지도록 한다. 대학생출신 병사들이 모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공부하던 대학으로 다시 돌아갈수 있게 되였다고 가슴들먹이던 홍철은 희생된 갑판장이 지녔던 그 높은 정신세계앞에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세대 청년으로서 시대적의무를 옳게 자각하고 미국놈들이 이 땅에 있는 한 일생 군복을 벗지 않을것을 결심하면서 해군대학으로 간다. 작품은 주인공 홍철의 형상을 통하여 시대의 요구가 바로 청춘의 리상이고 희망이며 포부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작품은 주체78(1989)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내 고향》 영화문학. 김승구 창작. 우리 인민이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보람차고 행복한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설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여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을 해방하여주신 결과이라는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3.1운동때 일제놈들에게 아버지를 빼앗기고 어머니, 동생과 함께 지주 최경천의 소작살이를 하던 주인공 관필은 지주의 아들을 구타한 《죄》로 일제경찰에 잡혀가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그는 감옥에서 유격대공작원 학준을 만나 점차 계급적으로 각성된다. 감옥에서 학준과 함께 탈옥한 관필은 유격대에 찾아가 입대한다. 간고한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관필은 평범한 대원으로부터 그 어떤 어려운 혁명임무도 독자적으로 능숙하게 수행할수 있는 혁명가로 자라난다. 그후 국내공작임무를 맡고 조국땅에 나온 그는 인민들을 교양하여 조직에 묶어세우고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 조직과의 련계밑에 삐라를 뿌리고 적들의 군용도로와 철교를 폭파하는 등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일제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이 승리하고 조국이 해방되자 끝없는 기쁨과 환희에 넘친 인민들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개선을 열광적으로 환영한다. 해방된 조국에 새봄이 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땅을 분여받은 농민들의 기쁨과 감격이 온 강산에 차넘치는 가운데 관필의 집에서도 행복한 새생활이 시작된다. 새로운 혁명과업을 받고 고향에 돌아온 관필은 오매에도 그리던 어머니와 사랑하는 옥단 그리고 친근한 고향사람들과 감격적으로 상봉한다. 작품은 비교적 오랜 력사적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면서도 관필일가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여 해방전, 후시기의 우리 인민의 생활을 다양한 형상수법으로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38(1949)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내 고향》 가사. 주체43(1954)년 류지환 창작. 자유롭고 행복한 새생활이 활짝 꽃펴나고있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그 품에 안겨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들의 끝없는 행복과 긍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는 매 절의 전렴에서 보람찬 로동으로 새생활을 창조하며 마음껏 행복을 꽃피우는 우리 인민들의 벅찬 생활모습을 아름다운 고향산천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결부하여 긍지높이 노래하고있으며 후렴에서는 전렴에서 노래한 서정을 일반화하여 사람마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고향마을, 바로 여기가 정든 어머니조국의 품이라는것을 끝없는 랑만속에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사랑하는 내 고향》, 《언제나 좋은 곳》 등과 같이 평범하면서도 정서적여운이 강한 표현들을 활용하고 매 절의 첫행에서 봄이면 뻐꾹새가 노래하고 가을이면 풍년새가 날아드는 고향산천에 대한 자연묘사를 준 다음 그에 기초하여 서정을 펼쳐나감으로써 작품전반에 풍만한 정서와 짙은 향토적색채가 넘쳐나도록 하고있다. 가사는 행복한 새생활을 창조해가던 우리 인민들의 보람찬 생활모습과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에 창작된 가사작품들가운데서 성과작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조선음악전집》 1,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내 고향의 작은 다리》 단편소설. 주체76(1987)년 로정법 창작. 한 청년의 시점으로 본 돌다리에서 어기군 하는 처녀의 해방전과 해방후의 운명적전환을 통해 인간의 가치는 조국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해방전 성호는 오노라는 일본놈이 운영하는 운송회사에서 자동차운전사로 일했다. 매일 아침마다 성호는 내가의 작

은 돌다리에서 어김없이 같은 시각에 제사공장에 다니는 처녀와 어기군 한다. 처녀는 항상 눈 한번 쳐들지 못하고 가난의 자취가 력력한 헌 치마저고리를 입고 종종걸음으로 달음박질하군 한다. 그러던 어느날 오노의 아들놈이 불쑥 나타나 처녀의 손목을 잡으며 희롱한다. 성호는 두주먹이 불끈 쥐여졌지만 나라없고 주권없던 세월인지라 어쩌지 못하고 개울가에 앉아 서럽게 우는 처녀를 바라보기만 했었다. 해방후 또 같은 시각에 그들은 돌다리에서 어기군 한다. 이름도 모르는 그 처녀는 옷차림도 행동거지도 완전히 달라졌을뿐아니라 처음으로 성호와 말도 주고받았고 계획을 넘쳐수행하여 제가끔 금강산휴양도 갔다온다. 새생활속에 약동하는 청춘의 사랑과 열정은 두사람을 은연중 가까운 사이로 되게 한다. 그러나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그들은 가슴속의 사랑도 나누지 못한채 전선으로 떠나간다. 소설은 고향의 작은 돌다리로 하여 맺어지는 성호와 처녀의 운명적전환의 계기들을 통하여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의 품속에서만 마련될수 있다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76(1987)년 제37호〕

《내 고향의 정든 집》 가사. 주체41(1952)년 집체 창작. 포연이 서린 전호가에서 정든 고향을 그리는 병사의 심리세계를 통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전사들이 지녔던 열렬한 애국심을 노래한 작품이다. 한개의 절로 되여있는 가사는 서정구조상 3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첫 부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땅에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오곡백과를 거두어들이던 살기 좋고 정든 고향에 대한 병사의 아름다운 추억을 노래하고있다. 다음부분에서는 그처럼 아름답고 정든 고향이 미제가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재더미로 변해버린 가슴아픈 사연과 고향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메고 전선으로 떠나오던 때를 돌이켜보는 병사의 심정을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마지막부분에서는 원쑤 미제를 쳐부시고 돌아가 다시 고향을 일떠세우고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길이길이 행복하게 살려는 병사의 확고한 결의와 승리한 래일에 대한 랑만의 감정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절구분이 따로 없는 자유시형식으로 되여있는 가사는 고향에서의 병사의 행복한 옛생활과 조국보위성전에 떨쳐나선 현실, 행복한 미래에 대한 랑만 등 생활반영의 폭을 시공간적으로 넓히면서도 간결하고 함축된 시적형상으로 고향과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인민군전사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진실하면서도 깊이있게 펼쳐보여주고있다. 가사는 소박하면서도 정서적색채가 짙은 시어들을 잘 살려씀으로써 평범한 인민군전사들의 가슴속에 불타고있는 열렬한 조국애의 감정을 깊은 정서적여운을 가지고 안겨오게 형상하고있다. 〔《조선음악전집》 1,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내 고향의 처녀들》(전, 후편) 영화문학. 리춘구 창작. 우리 시대 청년들속에서 꽃펴나고있는 아름답고 고상한 애정륜리관계를 형상한 작품이다. 어느날 물길공사에 동원되였던 성철분대장은 뜻밖의 사고로 두눈을 잃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애인 은하는 피로움과 번민속에 모대긴다. 이러한 때 출가한 언니가 집에 와서 성철이와의 관계를 단념하라고 그를 부추긴다. 언니의 충동에 마음이 흔들린 은하는 성철이가 입원하고있는 병원에 끝내 찾아가지 않는다. 은하의 동무인 주인공 시내가 그에게 병원에 갈것을 권고하나 그는 오히려 시내에게 너라면 불구자한테 시집가겠는가고 따지고든다. 시내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저 혼자만 잘살려는 은하를 원망하며 동지를 위해 두눈을 잃은 성철분대장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는 드디여 성철분대장의 영원한 길동무가 될것을 결심하고 중대정치지도원의 집으로 찾아가며 여기에서 10여년간이나 두

다리가 없는 영예군인인 안해를 위하여 온갖 지성을 다하고있는 정치지도원과 그의 안해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간세계를 보며 커다란 고무를 받게 된다. 한편 성철은 은하로부터 배반당한 감정과 또한 남의 동정을 바라지 않는다는 자존심으로 하여 시내의 고마운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시내는 한번 먹은 마음을 굽히지 않는다. 성철은 두번다시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 그의 제의를 거절하였으나 시내는 동생과 함께 그가 입원해있는 군의소를 찾아간다. 그는 여기에서 성철분대장이 치료를 끝내고 고향땅 룡천으로 떠났다는것을 알고 그의 고향마을을 찾아갈것을 결심한다. 시내는 감나무골처녀들의 뜨거운 바래움을 받으며 성철의 고향마을을 찾아가며 성철이는 시내의 진심에 감동되여 그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성철이와 함께 마을로 다시 돌아온 시내는 군당책임비서와 어머니 그리고 군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축복속에 결혼식상을 받는다. 영예군인총각과 꽃같이 아름다운 처녀의 결혼식,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하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새로운 결심을 다진다. 작품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높은 희생성을 발휘한 영예군인인 성철이를 위해 자기 한생을 바칠것을 결심하고 그와 가정을 이루는 주인공 박시내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된 사랑과 행복에 대한 주체의 미학관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80(1991)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내 나라》 가사. 주체45(1956)년 집체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행복한 삶이 꽃펴나는 살기 좋은 우리 조국에 대한 인민들의 끝없는 긍지와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2개의 절로 되여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산좋고 물맑은 아름다운 내 나라,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날마다 행복이 꽃피여나는 은혜로운 조국에 대한 끝없는 긍지와 자랑의 감정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2절에서는 통일되고 번영하는 조국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천만년 길이 살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념원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평이하면서도 아름다운 시적표현으로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인민들의 뜨거운 사랑과 끝없는 자부심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조선음악전집》 1,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내 나라》 영화문학. 리종순 창작. 해방후 내외원쑤들의 준동으로 조성된 복잡한 정세하에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조선인민의 진정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의 일단을 담고있는 작품이다. 조국이 해방되자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침략자들은 인민위원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군정을 실시하며 공화국북반부에 인민정권이 수립되는것을 막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한다. 하여 북반부의 곳곳에서는 원쑤들의 테로와 파괴암해책동이 감행되게 된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놈들의 책동이 가장 우심한 신의주에 몸소 나가시여 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연설을 하시고 각계층 대표들을 만나주신다. 서울에서 고학으로 전문학교에 다니다가 려운형의 영향을 받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동경의 마음을 금할수 없어 38도선을 넘어온 신철균은 신의주에 도착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오려는 열망을 호소하다가 신의주학생사건주모자로 체포되여 고초를 겪게 된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균을 만나주시고 진정한 내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싶다고 소청을 드리는 그에게 내 나라는 바로 조상의 백골이 묻힌 이 땅, 겨레들이 살고있는 이 강토라고 하시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느 놈이 때리고 짓밟는다 해도 동요와 변덕이 없이 이 땅우에 인민이 바라는 나라, 착취와 압박이 없

고 천대받던 로동자, 농민들이 주인이 되여 행복하게 사는 인민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신다.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온 철균은 우리 인민이 갈망하여온 참다운 내 나라는 어디에 있으며 해방된 우리 인민은 어느 길로 나가야 하는지 몰라 모대기던 자기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건국사업에로 이끌어주신다. 그이의 한없이 인자하고 너그러우신 품에 안겨 철균은 경위대의 어엿한 일군으로 자라나게 되며 봉건의 구속에서 뛰쳐나온 정실이도, 탄광에서 일하던 윤수도 건국사업에 헌신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민주개혁을 실시하고 로동자, 농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킨데 기초하여 민주선거를 통해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몸소 강동군 삼등면에 나가시여 첫 민주선거에 참가하신다. 첫 민주선거의 결과로 북반부에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가 남조선에 괴뢰《정부》를 조작함으로써 민족의 영구분렬의 위기가 한층 심각화되자 우리 민족사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이 난국을 타개하시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더는 미룰수 없는 과제로 내놓으시고 북남총선거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하신다. 그리고 력사적인 북남총선거의 승리에 기초하여 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하시고 주체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을 선포하신다. 작품은 은혜로운 어머니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에 깃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생동한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인민은 참다운 자기의 조국을 가지게 되였으며 이 은혜로운 사랑의 품이야말로 진정한 내 조국, 내 나라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작품은 주체77(1988)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내 나라》 단편소설. 주체91(2002)년 로정법 창작. 일본에서 귀국한 한 녀성이 누리는 행복한 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인민적시책을 보여준 작품이다. 겨울이 다가오는 마가을의 어느날 일본에서 살던 장녀인은 맏아들 하나만을 겨우 피아노공부를 시키던 자본주의일본땅을 떠나 여섯자식모두의 장래를 내다볼수 있는 희망을 품고 남편과 함께 조국에 귀국한다. 남편의 요구에 따라 농촌에 오게 된 그들에게는 조국의 따뜻한 사랑과 이웃들의 후더운 인정이 기다리고있었다. 이사짐도 풀기전에 그들은 생각지 않던 김장배추와 무우를 공급받게 되며 이웃들은 그들을 친형제처럼 위해준다. 그리고 입학수속하러 갔던 아이들은 4월의 명절에 받게 될 선물교복치수부터 재고 오며 탁아소원장과 유치원교양원처녀는 집에 찾아와 김장배추를 다듬어주면서 아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 어서 보내라고 한다. 아이들을 모두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에 보낸 장녀인은 이웃들이 준 검정암닭과 강아지를 기르며 그들과 친숙해지고 남편과 함께 나무심기에도 나가며 이웃들과 일하러 다니면서 농촌생활의 즐거움을 맛본다. 그후 그에게는 학교음악교원의 관심속에 피아노연주재능을 더욱 꽃피우고 설맞이공연에 참가하러 평양에 갔던 맏아들이 음악대학에 입학하게 된다는 기쁜 소식이 온다. 아들의 등교를 앞둔 어느날 남편까지 당학교에 추천되는 경사가 겹친다. 남편과 맏아들이 집을 떠나는 날 그들을 축하해주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면서 장녀인은 남의 기쁨을 제일처럼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조국인민들의 뜨거운 인정을 폐부로 느낀다. 그후 맏아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시는 훌륭한 피아노연주가로 자라며 장녀인자신도 조선로동당원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다섯자식도 다 대학공부를 하며 손자손녀들까지 마음껏 배움의 나래를 펼친다. 소설은 사회주의조국에서 여섯남매모두를 소망대로 대학공부를 시키고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속

에 걱정없이 사는 장녀인의 복받은 인생을 보여주면서 내 나라는 진정 우리 인민모두의 오늘과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 삶의 요람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91(2002)년 9호〕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가사. 주체80(1991)년 최준경 창작.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여주시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한 작품이다. 4개의 절로 되여있다. 가사에서는 온 세상을 다 돌아보아도 내 나라의 꽃보다 아름다운 꽃이 없고 내 조국의 물보다 맑은 물이 없으며 우리의 노래보다 더 좋은 곡조가 없다는 서정적주인공의 주정토로를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 우리 나라, 우리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사상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내 나라 꽃보다 곱지 못했소》, 《내 고향 샘처럼 달지 못했소》 등과 같이 뜻이 깊고 알기 쉬우면서도 민족적정서가 넘치는 시적표현들과 어휘들을 찾아씀으로써 내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작품의 사상적핵이 명백히 안겨오도록 하고있다. 가사는 또한 비교적 잘 째인 운률과 재치있는 비유적수법을 능숙하게 활용함으로써 누구나 다 쉽게 입에 올려 부를수 있게 음악성과 통속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가사는 오늘 사회정치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종자로 잡고 그것을 생활적으로 훌륭히 형상해냄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조선가요 20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내 나라의 명산－칠보산》 산수련시. 주체88(1999)년 집체 창작. 선군시대에 인민의 명산으로 이 땅에 다시 태여난 칠보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작품이다. 산수련시는 《서둘러 붓을 들면》, 《오를수록 아름다워》, 《칠보산의 단풍》, 《흐린 날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 《조약대 정각에 올라》, 《해칠보》, 《탐승길에서》, 《칠보산 새 전설》, 《정이월 눈칠보》, 《아름다워지고 또 아름다워지라》의 11편의 서정시로 구성되여있다. 시 《서둘러 붓을 들면》(정동찬)에서는 칠보산탐승의 첫걸음에 서둘러 붓을 들었다가 천하절승 황홀경을 못 볼가 걱정하는 서정적주인공의 마음을 펼쳐보이고있으며 시 《오를수록 아름다워》(전승일)에서는 오를수록 걸음마다 새 절경이 펼쳐지는 칠보산을 노래하고있다. 시 《칠보산의 단풍》(주광남)에서는 오랜 세월 홀로 타던 단풍이 오늘은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며 온 나라에 불탄다고 토로하고있으며 시 《흐린 날에도》(주광일)에서는 칠보산은 맑은 날뿐아니라 흐린 날에도 아름다운 제 모습을 세상에 자랑하고있다고 노래하고있다. 시 《가까이 가지 말아》(최충웅)에서는 멀리 전장으로 떠나갔던 정든 님과 감격적으로 상봉하는 부부바위를 생동하게 묘사하고있으며 시 《조약대 정각에 올라》(정동찬)에서는 황홀한 칠보산의 경치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조약대 정각에 올라 터치는 서정적주인공의 격동되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고있다. 시 《해칠보》(문기창)에서는 동해에 또 하나의 칠보명산으로 솟은 해칠보를 노래하였고 시 《탐승길에서》(최영화)는 옛적에는 길조차 변변히 없었던 칠보산에 사랑의 탐승길이 생겨 그 아름다움을 더해준다고 노래하고있다. 시 《칠보산 새 전설》(정동찬)과 시 《정이월 눈칠보》(최영화)에서는 칠보산이 생겨 태여난 새 전설과 꽃칠보, 단풍칠보도 좋지만 설경으로 단장한 정이월의 눈칠보가 제일경이라고 노래하고있다. 시 《아름다워지고 또 아름다워지라》(백호범)에서는 칠보산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은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적감정을 토로하고있다.

먼먼 세월부터 아름다움을
지니고있었어도
세월의 비바람에 묻히여 부대끼며
칠보칠색의 빛이 없던 너
좋은 세월 만나 빛을 뿌리며 솟았구나

산수련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 인민의 문화유원지로 태여난 칠보산의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생동하고 섬세한 시적화폭으로 묘사하고있으며 강렬한 정서적느낌을 드러내보이고있다. 〔《로동신문》, 주체88(1999)년 2월 21일〕

《내 동생 물음에 대답했지요》 가사. 주체74(1985)년 김승길 창작.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여있는 당에 대한 맑고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인 언니가 당이란 무슨 말인가고 묻는 어린 동생에게 당이란 이 나라 어린이들모두를 자애로운 사랑의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아버지대원수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라고 말해주는 생활적인 형상을 통하여 우리 학생소년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고있는 당에 대한 숭고한 사상감정을 소박하게 펼쳐보이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어머니 우리 당을 천만년 대를 이어 받들며 끝까지 따르려는 학생소년들의 불타는 지향과 결의를 토로하고있다. 가사는 시적계기가 참신하고 학생소년들의 생활을 아무런 꾸밈도 없이 소박하면서도 생동하게 보여주었을뿐아니라 아담한 시적형상속에 깊이있는 사상을 설득력있게 구현하고있다. 〔《조선음악년감》 주체75(1986)년, 문예출판사, 주체76(1987)년판〕

《내려설수 없다》 장편소설. 주체93(2004)년 리준길 창작. 소설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혁명적신념을 지켜 끝까지 싸운 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의 모습을 그리고있다. 소설의 주인공 원익보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서 서울로 들어온 후 해방전부터 친숙하였던 홍진국의 개인병원에 자리를 잡는다. 진국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그의 딸 홍채련의 도움을 받으며 활동하던 그는 어느날 채련의 4촌오빠 홍만식의 밀고로 체포되며 20년의 징역형을 언도받고 마포형무소에 갇힌다. 거기서 그는 뜻밖에 소학교시절의 담임선생이며 해방전에 혁명투쟁의 길로 이끌어준 잊지 못할 은사인 림성호를 만난다. 해방전에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후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흠모심을 안고 혁명투쟁에 몸바쳐오고있는 성호는 옥중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제자를 잘 이끌어주며 수령님의 참된 전사,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답게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그후 익보는 담당간수가 되여 나타난 채련의 4촌오빠 만식을 비롯한 놈들의 악랄한 전향공세를 꿋꿋이 이겨내면서 혁명적신념과 의리를 지켜간다. 한편 채련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4촌오빠로 인한 치욕감을 다소나마 씻겠다는 생각으로 익보의 어머니편을 통해 그의 옥바라지를 시작한다. 그러나 채련은 익보의 어머니마저 미국놈들에 의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것마저 할수 없게 된다.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면 면회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채련은 그와 결혼까지 하면서 원익보의 감옥살이를 도와준다. 이 과정에 채련은 익보의 고결한 성품을 더 깊이 알게 되며 진정한 사랑의 감정까지 품게 된다. 익보에게는 전향만 하면 채련의 도움으로 단란한 가정생활을 할수도 있는 길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혁명적신념을 지켜 가중되는 놈들의 전향책동에 맞서싸우며 홍채련이 통일애국의 길에서 참되게 살도록 이끌어준다. 수십년후 그들은 통일애국의 길에서 뜻을 같이하는 진정한 혁명동지로 반갑게 상봉한다. 소설은 놈들의 모진 고문과 회유에도 굴함없이 혁명적신념을 지켜내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순간도 물러서지 않는 주인공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내 로동의 첫시절》 중편소설. 주체91(2002)년 조승찬 창작. 첫 로동생활속에서 집단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는 새 세대 로동계급의 성장과정을 그려낸 작품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소에 배치받은 주인공 철영은 자기가 하는 일에 긍지를 가지지 못하고 제멋대로 직종을 옮기려 한다. 그러나 그는 조선소의 오랜 로동계급인 김석흥아바이의 영향밑에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며 점차 기술기능수준도 높여나간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당원들이 모두 회의에 간 기회에 제딴에는 적은 힘이나마 작업반계획을 앞당겨수행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단독으로 탕크조립을 하였다가 오작사고를 내게 된다. 그는 오작사고를 계기로 하여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결함에 대하여 뼈아프게 돌이켜보게 되며 그것이 집단에 얼마나 커다란 손실을 주게 되는가를 통절히 느끼게 된다. 그 이후 주인공 철영의 로동생활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는 석달후에는 마침내 단독조립도 능히 할수 있는 기능공으로 자라나며 하루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밤늦도록 책상에 마주앉아 《선박공업》이며 《설계학》, 《기계제작》 등 제관작업과 관련되는 잡지와 도서들을 열심히 탐독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하나하나 습득해나간다. 이러한 노력으로 철영은 이동식대패기를 만들어 지배인실을 탁아소로 꾸리는데서 로력과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을 순간에 해제끼도록 하여 재간둥이로, 혁신자로 온 공장에 소문이 난다. 그는 또한 작업반의 기능공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아르곤용접을 받아들임으로써 탕크조립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게 한다. 이 나날에 철영은 진짜배기로동계급이 지닌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숭고한 집단주의정신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되며 이러한 로동계급의 집단속에서 한생을 살아갈 결의를 굳게 간직하게 된다. 소설은 로동생활과정에 점차 로동계급의 고상한 집단주의정신과 함께 높은 기술기능을 소유한 참다운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하여 참된 인간의 성장과 사회적실천에서 로동생활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소설은 주인공의 성격형상과 감정조직, 섬세한 심리묘사로 작품의 견인력을 보장하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1(2002)년판〕

《내 마음》 서정시. 주체74(1985)년 리종섭 창작.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당을 받들어 충정을 다하려는 전사의 숭고한 자각과 맹세를 노래한 작품이다. 서정적주인공은 동트는 새날의 첫 기슭에서 싱싱한 아침노을을 바라볼 때마다 티없이 깨끗한 마음이 없이는 당을 받들어 설 자리가 없다는 깊은 생각에 잠기군 한다. 그것은 사리와 공명, 안일과 해이 그 어느것 하나에라도 물젖는다면 그리고 당앞에 진심이 아닌 만세로 자신을 감춘다면 치욕스러운 삶, 배신자의 한생으로 락인되기때문이다. 시에서는 그런 인생이 되면 백년을 살아도 필요없음을 강조하면서 순결한 량심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받들어갈 굳은 결의를 토로하고있다.

아, 나는 살리라
누구도 한번 손대본적 없고
세월의 때 한번 낀적 없는
아침노을처럼 아침노을처럼
덞지 않은 마음으로 한생을 살리라
수령님을 받들어!
당중앙을 따라서!

시는 당에 대한 깨끗한 충정의 일념으로 충만되여있는 서정적주인공의 깊은 내면세계를 풍만한 서정적화폭으로, 생활적인 시어로 진실하게 드러내보이고있다. 〔《1980년대시선》, 문예출판사, 주체79(1990)년판〕

《내 목숨 묻고사는 정》 시초. 주체85(1996)년 홍현양 창작. 이국에서 살다가 조

국에 온 서정적주인공이 정다운 고향 백두고원에서 느끼는 후더운 인정미와 향토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5편의 서정시로 되여있다. 서정시 《그리움》은 이국의 바다가에서 《빨래방치소리 들려》오던 고향의 방천길과 《어머니가 비벼주던 조밥에 된장》을 생각하며 그리움으로 가득찼던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버릴수 없고 잊을수 없는것이 고향이라는것을 시적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서정시 《들쭉따는 처녀들》에서는 백두고원 천리에 풍년이 든 들쭉을 따는 처녀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들쭉밭을 지나다가 《타향살이 시름마저 잊》고 취해버린 서정적주인공의 사상감정을 흥취나는 정서로 노래하고있다. 또한 서정시 《들국화 한송이》에서는 가을날에 아름답게 피여난 들국화에 비유하여 《눈비를 맞으며 황금의 이삭을 익힌》 농장원처녀의 기특한 모습을 생활적으로 시화하고있다. 서정시 《대홍단의 감자구이》에서는 돌가마를 걸고 감자를 구워주는 대홍단사람들의 후한 인심, 조선사람의 후더운 인정미를 일반화하고있다.

돈 주고도 못 사는것
사람의 정일진대
감자구이 손님으로 나를 맞은 이 땅
소박한 그 정속에 이내 목숨 묻고
한생을 천년을 살련다

서정시 《단풍의 붉은 의미》에서는 가을날 《푸른빛을 태우며 열정에 끓는》 단풍이 떨어지는 순간을 시적계기로 하여 단풍이 붉은것은 《백두의 산발에 물드는 그 선혈의 빛》이며 《백두산의 노을로 물드는》 그 의미라는것을 노래하고있다. 시초는 다양한 생활화폭에 대한 시적일반화를 통하여 내 고향, 내 조국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구현하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85(1996)년 5호〕

《내물은 바다로 간다》 단편소설. 주체88(1999)년 주종선 창작. 평양－남포고속도로(오늘의 청년영웅도로)건설장에 달려나와 청춘시절을 투쟁과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모습을 그리고있는 작품이다. 청년돌격대에는 미옥이라는 처녀리발사가 있다. 그는 훌륭한 리발솜씨로 중대원들을 멋쟁이로 내세우고 아름다운 얼굴에 언제나 웃음을 담고 능숙한 기타연주로 그윽한 정서를 불러일으켜 중대에 활기를 준다. 하여 중대의 사랑을 받던 그는 점차 로동에 손이 거칠어지면서 기타수로 성공하려던 자신의 꿈이 깨여질가 두려워하며 중대가 제일 어려운 전투를 벌릴 때 병치료를 구실로 전투장을 떠나간다. 그후 중대에는 처녀리발사가 새로 배치되여온다. 그러나 그의 리발솜씨가 너무 서툴러서 큰 기대를 가졌던 중대원들은 실망한다. 그는 장진에서 이곳 전투장으로 자원해온 처녀로서 너무 어리고 체소하여 어느 중대에서도 받자고 하지 않자 리발사를 요구하는 중대에 자기가 리발을 할줄 안다고 거짓말을 하고 왔던것이다. 그의 첫 리발상대가 되여 머리를 망친 중대장은 그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한다. 그러자 처녀는 강성대국건설의 대통로를 여는 이곳 전투장에서 청춘시절을 빛내이고싶은 자신의 심정을 절절하게 토로한다. 그후 돌격대적인 들놀이가 조직되고 중대별로 료리경연이 진행된다. 이때 그 처녀는 감자로 10여가지의 음식을 만들수 있다는것을 제기하고 중대장의 지지와 방조밑에 료리솜씨를 보인다. 중대가 료리경연에서 특등을 쟁취한 날 대오앞에서 중대장으로부터 대렬감사를 받은 그 처녀는 자신도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적으나마 이바지했다는 긍지와 기쁨을 안고 눈물짓는다. 소설은 이 이야기를 미옥이를 남몰래 사랑하던 사관장청년이 그가 떠나간 후 중대에서 있은 일을 그에게 편지를 써서 알려주는 형식으로 펼치고있다. 편지에서 청년은 건설장을 떠난 자책감에 싸여있는 미옥이에게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장은 온

나라 청년들이 달려와 청춘시절을 빛내이는 시대의 전초선이라고 하면서 그도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오리라는 믿음을 표시한다. 소설은 이러한 화폭속에서 무수한 내물이 하나같이 바다로 흘러들듯이 당이 부르는 시대의 전초선으로 달려와 청춘시절을 투쟁과 위훈으로 빛내이는것이 우리 시대 청춘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것을 특색있게 밝혀내고있다. 〔《문학신문》, 주체88(1999)년 제35호〕

《내 삶이 꽃펴난 곳》 가사. 주체70(1981)년 박윤 창작. 우리모두에게 참된 삶의 권리와 행복을 안겨주는 위대한 품, 우리 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우리의 보람찬 삶이 시작되고 꽃펴난 곳도, 영광의 대오속에 세워주고 인생의 참된 권리를 값높이 안겨준것도 따사로운 당의 품이라는것을 뜻깊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우리들의 삶이 시작되고 꽃펴난 당의 품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도 영원한 삶으로 빛을 뿌린다고 노래하면서 위대한 어머니당에 모든것을 고스란히 맡기고 영원히 충정다해 갈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당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충정의 한마음을 부드럽고 사색적인 시적정서로 뜻깊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사랑속에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조선음악전집》 2, 문예출판사, 주체72(1983)년판〕

《내 삶의 보금자리》 가사. 주체87(1998)년 김은숙 창작.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켜주시는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인민들의 진정한 삶과 행복, 미래를 꽃피워주는 참다운 어머니품이라는것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에서는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인민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백두의 혁명정신을 키워준 삶의 보금자리, 어머니품이라는것을 긍지높이 구가하고있다. 가사의 2절에서는 사회주의 내 조국은 온갖 원쑤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물리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준 삶의 보금자리, 은혜로운 품이라는것을 소리높이 자랑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사회주의조국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켜주고 보살펴주시는 **김일성**민족이 안겨사는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라는것을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조선노래대전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내 자라난 사랑의 품이여》 서정시. 주체66(1977)년 홍현양 창작. 조국땅우에 행복의 락원을 가꾸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충정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서정적주인공은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자나깨나 못 잊을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은 어린시절에 부모없이 맨발로 자라던 자기에게 꽃신을 신겨주시던 그때로부터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졌음을 보여주고나서 조국을 빛내이시려 어버이수령님께서 눈바람을 헤쳐가실 때 자신은 해빛밝은 교실에서 눈비의 차거움을 모르고 살았다고 토로하고있다.

들길을 걸어도
산천을 보아도
나를 안아키워주신 사랑의 자욱
수령님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고
농장의 주인이 된 이 손을 잡아주시며
맨발벗은 그날을 추억하여주실 때
어찌하여 목이 메여 할말을 몰랐던가

시에서는 준엄한 폭풍속을 헤쳐오시면서도 언제나 기쁨과 웃음만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위대한 사랑, 하늘같은 은정에 안겨 내가 자라고 인민이 자라고 조국이 자라 이 땅은 락원으로 솟아났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만을 드릴 간절한 소원으로 《산은 산마다 향기로 넘쳐나고 들은 들마다 황금물결 설레》인다고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시는 개성적인 체험을 시대정신이 비낀 폭넓고 깊이있는 서정적형상으로 펼치

고있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내 조국》 단편소설. 주체82(1993)년 김준언 창작.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을 넓고 따사로운 품에 안아키워주는 어머니 내 조국의 고마움을 불구인 학생을 위하여 바친 한 녀교원의 아름다운 마음을 통하여 보여준 작품이다. 일본에서 살다가 조국에 귀국한 도준은 어렸을 때 술취한 놈이 모는 자동차에 치워 불구가 된 후 13살이 되도록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한다. 귀국한지 한달도 못된 어느날 도준을 찾아온 고성옥교원은 그를 책임지고 배워주겠다고 3학년에 입학시켜 1학년과정안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교원은 아침마다 집에 들려 그를 업고 학교에 가며 저녁에는 집에 찾아와 배워주는것을 하루도 건느지 않는다. 교원은 다른 지방에 배치받은 세대주가 집을 받아놓고 빨리 와주기를 바라지만 도준이의 실력을 최우등으로 올려놓고 다리까지 고쳐준 다음에 떠나겠다고 한다. 도준이와 그의 어머니는 미안하여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나 교원은 도준이에게 고마운 내 조국을 알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학생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것이 교육자의 행복으로 된다고 절절히 말한다. 교원은 도인민병원과 련계를 가지고 도준이에게 자기의 뼈를 이식하여 대지를 활보하게 한다. 소설은 불구인 학생을 위하여 자기의 뼈까지 바쳐 어머니 내 조국의 고마움을 알게 해주고 대지를 활보할수 있게 한 한 녀교원의 형상을 통하여 교육자가 서야 할 위치를 밝히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82(1993)년 3호〕

《내 조국 한없이 좋아라》 가사. 주체58(1969)년 전병구 창작.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온 나라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고 사람마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펼쳐보이면서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을 따라 부강해지는 사회주의조국의 위용과 우리 인민들의 끝없는 행복을 풍만한 정서로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온 세상에 주체의 조국으로 찬란한 빛을 뿌리는 우리 조국에 대한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전인민적찬양의 감정을 평범하면서도 알기 쉬운 시적언어와 부드러운 운률 그리고 풍만한 서정으로 깊이있게 일반화한것으로 하여 가요로 형상된 후 인민들의 사랑속에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조선음악전집》 1,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내, 조국을 찾아가게 되면》 서정시. 주체64(1975)년 허남기 창작. 해외동포들의 시점에서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칭송하여 노래한 작품이다. 서정적주인공—시인은 지난날 이국에서 조국을 그릴 때 《내, 조국을 찾아가게 되면 맨먼저 만경대를 찾으리라고》 읊은적이 있다고 토로하고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3돐을 맞으며 평양에 와서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서정적주인공이 수령님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는 계기를 펼쳐보이고있다. 시에서는 만경대를 찾으니 《내 고향 남녘땅에》 위대한 수령님의 해발을 밝게 비치게 하리라고, 그를 위해 총련사업을 더 잘하리라고 굳게 마음다지게 된다고 하면서 언제나 봄향기가 넘쳐나는 만경대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고향이라고 터치고있다. 시는 만경대를 그리는 간절한 소망의 감정세계를 진실하게 펼쳐보이고있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내 땅》 장편소설. 주체93(2004)년 김대성 창작. 한 비전향장기수의 수기형식으로 씌여진 작품은 고향땅의 흙을 넣은 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오랜 기간의 옥중고초를 치른 주인공의 혁명적신념과 의지, 불굴의 투쟁을 형상하고있다. 작품의 주인공 전지동은 조국해방전쟁시기 남녘땅이 해방되자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땅을 분여받은 감격과 기쁨을 안고 오재춘의 지도밑에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혁명투쟁에 적극 참가한다. 이 과정에 당원의 영예를 지니고 면당위원장으로 사업한 그는 인민군대가 후퇴하고 미국놈들이 고향땅에 다시 쳐들어오자 분여받은 땅의 흙을 넣은 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산에 들어가 빨찌산중대장으로 활동하다가 변절자의 밀고로 적들에게 체포된다. 작품에는 적들에게 체포된 지동이 도경찰국과 포로수용소, 그후에는 대전교도소에서 놈들의 악착한 고문과 박해를 받으며 전향을 강요당하는 과정이 다양한 인간관계속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있다. 포로수용소에서 지동은 군당위원장으로 사업하던 오재춘을 만나게 되며 그의 혁명적영향에 의하여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며 적들의 전향공세를 짓부시기 위한 과감한 투쟁을 벌려나간다. 놈들이 벌려놓은 재판에서 20년형을 언도받은 지동은 대전교도소에 갇히게 된다. 본가집에 거처하던 지동의 안해는 대전에 와서 간수에게 돈을 찔러주고 남편을 면회한다. 지동은 안해의 가긍한 처지가 걱정되여 리혼할것을 권고하지만 그는 20년이 아니라 200년이라도 기다리겠다고 말하며 대전에 거처하면서 남편의 뒤바라지를 하기 위하여 무진애를 쓴다. 감방에서 지동은 적들이 강요하는 전향공세를 물리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는 한편 량심적인 간수인 송기우를 감화시켜 그로 하여금 비전향장기수들을 동정하게 하며 그들사이의 련계를 보장해주도록 한다. 놈들로부터 의심을 받은 기우는 간수노릇을 포기하고 절간에 들어가 중이 된다.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투쟁하던 오재춘이가 사형당한 후 지동은 그의 뒤를 이어 감옥안의 당원들과의 사업을 맡아하게 되며 적들의 만행과 전향공작을 반대하는 집단적인 투쟁을 벌려나간다. 전쟁시기에 지동의 고향인 옥구마을에 파견되여 그의 활동을 지도하다 북반부로 들어갔던 김규오가 통일의 일념을 안고 다시 남조선에서 활동하던중 적들에게 체포되여 대전교도소에 들어온다. 규오는 지동과 함께 놈들과 맞서 과감한 투쟁을 벌리며 그에게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비약적인 발전과 눈부신 전변에 대하여 이야기하여준다. 지동이 오랜 세월 소중히 간직하고 있으면서 향토애와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가슴을 불태우던 사연깊은 흙주머니를 놈들이 강제로 빼앗고 돌려주지 않자 김규오를 비롯한 수인들이 그것을 돌려줄것을 요구하여 집단적인 단식투쟁을 벌린다. 놈들의 악착한 강제급식행패로 인하여 규오가 절명하며 지동은 그 흙주머니를 다시 찾는다. 주체59(1970)년에 만기출옥한 지동은 사법보호소에 거처하다가 공화국북반부로 갈 통로를 찾기 위하여 어로공으로 일한다.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공화국북반부로 넘어갈 기회를 찾던 그는 배안에서 공화국북반부를 찬양하는 말을 한 죄아닌 죄로 하여 형사들에게 련행되여가며 또다시 징역 10년형을 받고 감금된다. 감옥에서 놈들의 악착하고 집요한 전향공세가 계속되였지만 지동은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꿋꿋이 싸워 마침내 만기출옥을 하게 된다. 출옥후 안해와 함께 근근히 생활을 유지해오던 그는 력사적인 6.15공동성명이 채택된 이후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된다. 사랑하는 안해와 헤여져 공화국북반부에 홀로 들어온 지동은 오랜 세월 가슴에 품고 살아온 흙주머니를 북남인민의 마음을 합치는 심정을 담아 김규오의 고향인 대홍단벌에 뿌린다. 소설은 비전향장기수인 지동의 한생을 이야기줄거리로 한 형상적화폭을 통하여 그가 지닌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과 열렬한 조국애,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1인칭형식으로 씌여진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

의 실생활과 체험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인간관계와 갈등을 첨예하게 설정하고 전개하고있으며 개성적인 인물성격들을 창조해내고있다. 작품에서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의하여 분여받은 땅의 흙을 넣은 주머니를 언제나 가슴에 품고 거기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주인공의 성격과 생활을 특색있게 묘사하고있으며 인물성격을 살리고 남조선사회의 반동성과 부패성을 보여주는 사건들과 생활세부들을 생동하게 그리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내 아들》 영화문학. 김무국 창작. 작품은 전처의 아이들을 어떻게 자기가 낳은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훌륭하게 키워야 하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시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주인공 정애는 아들딸을 데리고 사는 차량공장 책임기사 덕준에게 재가한다. 정애에게도 소학교에 다니는 분이라는 친딸이 있었지만 그는 덕준의 아들딸들에게 빨리 정을 붙일 생각으로 분이를 언니의 집에 맡기고 혼자 덕준의 집에 들어온다. 정애는 처음부터 덕준의 아들딸들의 생활에 세심한 주의를 돌리면서 그들을 극진히 돌봐준다. 그러나 중학교에 다니는 영철은 정애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며 좀처럼 곁을 주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날 영철은 뽈차기를 하다가 책가방이 찢어진것으로 하여 학교에 가지 않는다. 정애는 그에게 학교에 가기전에 꼭 책가방을 사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구급환자를 치료하느라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이것을 계기로 영철은 이붓어머니를 거짓말쟁이라고 고깝게 생각하고 학교에도 가지 않는다. 이 일을 두고 이웃농장에 사는 영철이의 외할머니와 인민반의 일부 녀성들이 정애가 이붓자식을 천대한다는 여론을 돌린다. 그러나 정애는 자신에 대한 모욕을 참아가며 영철을 옳바른 길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온갖 성의를 다한다. 한편 처형의 집에 있는 분이를 두고 정애를 측은하게 생각해오던 덕준은 그와 의논도 없이 분이를 집에 데려온다. 뜻밖에 분이가 온것으로 하여 더욱 심사가 틀어진 영철은 한밤중에 정애의 곁에서 자는 영옥이를 안아다가 자기의 잠자리에 눕히는가 하면 몰래 외할머니의 집으로 달아나기도 하고 집에서 뛰쳐나가 역기다림칸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 등 계속 정애의 속을 태운다. 그러나 정애는 영철의 이런 행동이 아직은 자기에게 친어머니사랑이 부족한데로부터 빚어진것이라고 생각하며 분이를 다시 언니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영철이의 마음을 돌려세우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는다. 덕준은 아들을 학원에 보내면 집안이 편안할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데리고 떠난다. 뒤늦게야 이것을 알게 된 정애는 덕준의 뒤를 따라가 영철이는 자기가 꼭 키워야 한다고 뜨겁게 말하며 그들을 돌려세운다.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정애의 참된 사랑과 진정에 감화된 영철은 마침내 자기가 직접 분이를 찾아가 데려오며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품에 안긴다. 작품은 비록 제가 낳은 친자식이 아니라도 제 자식처럼 사랑하고 정성을 기울이면 그들이 친어머니처럼 따르게 되며 어머니자신이 높은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닐 때 어린이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울수 있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69(1980)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냉이》 단편소설. 주체93(2004)년 김영희 창작. 한생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참된 혁명전사로 삶을 빛내여가고있는 한 전쟁로병을 찾아내시여 영웅으로 내세워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전선시찰의 길에서 어느 한 구분대식당을 찾으시여 인민군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돌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일창고에 쌓여있는 남새들을 보아주시다가 때아닌 겨울철에 냉이가 있는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 사연을 물으신다. 구분대지휘관이 할매령의 옛 려단장아바

이가 길러 가져온것이라고 보고올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추억하신다. 30여년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인민군구분대들을 찾으시여 부대들의 시범전술훈련을 보시였는데 그때 포지휘를 당시 려단장이였던 백승제가 하였던것이다. 그때 그는 현위치에서 포들의 일제사격만 가지고서는 《적》화점을 소멸할수 없다는것을 간파하고 포들을 이동시키고 사격을 지휘한다. 그러다나니 예정훈련시간보다 지체되여 치차처럼 맞물려있는 수령님의 현지지도일정에서 20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간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위로하시며 구두로 보고하면 될수 있는 문제를 그는 실전으로 하였다고, 훈련도 전투로 여기는 그가 마음에 든다고, 역시 락동강의 불비속을 넘어온 로병이 다르다고 말씀하신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식사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식사를 하시게 되였는데 훈련장에서 찬바람을 맞으시여서인지 늦은 점심식사도 수저를 들다 놓으신다. 자책감에 휩싸여있는 승제를 데리고 산길을 내려오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길옆에 난 냉이를 보시고 우리 어머님께서는 산에서 싸우실 때 수령님께서 입맛이 없어하시면 그때마다 토장에 냉이를 넣어 국을 끓여 대접하였다고 하시며 손수 냉이를 뜯어 어버이수령님께 국을 끓여올리신다. 그날 그는 어버이수령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장군님의 그 모습을 일생 간직하고 수령옹위의 제1선에서 인민군전사들을 영원히 변심을 모르는 혁명전사들로 키우는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갈 결의를 다진다. 그러한 그였기에 뜻밖에 중대병영에 불이 났을 때 한 앓는 전사를 구원하기 위해 불속에 뛰여들었고 화상을 당해 말을 못하게 되여 제대는 되였지만 마음속의 군복만은 일생 벗지 않고 군인들의 후방사업을 개선하는데 한몸바친다. 그는 자체로 부업장을 꾸리고 20여년간 30t의 고기를 생산하고 그날의 사연 전하는 냉이도 30여년간 키워오고있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소행을 대견히 여기시며 그를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으로 내세워주신다. 소설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평범한 인간들이 시대의 영웅으로 자라고있는 선군으로 빛나는 내 조국의 현실을 감명깊게 일반화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93(2004)년 9호〕

《네번째 편지》 단편소설. 주체61(1972)년 원봉찬 창작.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한생을 변함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당을 받들어온 한 로당원의 참된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입당청원한 기술부 현장지도원인 셋째아들 현석을 대견하게 여기며 그에게 아침식사를 가져가던 농기계공장 직장장 박호범은 사도공 정옥이에게서 한통의 편지를 받는다. 그 편지는 산간지방에서 쓰기 좋은 보습날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ㄱ군농기계수리공장 김영렬청년이 현대적인 련결농기계인 만능보습날을 완성하고있는 아들에게 보습날과 정지기장치문제에 대한 방조를 청하여 한달전에 첫 편지를 보낸데 이어 또다시 쓴것이였다. 이 편지가 세번째 편지이며 개인의 명예와 공명을 생각한 아들이 회답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호범은 그를 호되게 질책한다. 아버지의 이러한 태도를 몰인정한 처사로 여긴 현석은 어떻게 하나 만능보습날을 반드시 완성할 결심을 품고 ㅎ시의 전문연구기관을 찾아가 파부하감속조절기도면을 완성해가지고 내려온다. 그러나 현석은 ㄱ군농기계수리공장에서 보내온 네번째 편지, 아들을 대신하여 시제품을 하나하나 분해해가며 닷새밤을 밝혀 련결농기계의 도면을 완성하고 직접 ㄱ군에 내려가 회답이 필요치 않음을 선포한 아버지의 편지를 전해주며 들려준 정옥이의 이야기를 통하여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하고 참된 당원이 되기를 바란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을 알게 되며 리기주의에 빠진 자신을 깊이 뉘우친다. 소설은 그 어느곳에서 일하든 깨끗한 량심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사람만이 자각적인 혁명투사, 참된 당원으로 될수 있다

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61(1972)년 8—9호〕

《네송이의 꽃》 중편실화소설. 주체84(1995)년 현승남 창작. 우리 당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난 네쌍둥이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8월의 어느 일요일 밤 지방도시에 특색있게 지은 네쌍둥이네 집에서 평양산원 의료일군들까지 참가하여 진행되는 보육일군들의 진지한 협의회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갓 태여난 네쌍둥이가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까무러치군 한다는것을 아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애들을 살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9명으로 구성된 보육집단까지 무어주시였다. 하지만 태여날 때부터 너무 병약했던 네쌍둥이를 건강하게 키운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루밤에 수십리길을 걸어야 하는 의사와 밤새워 심리학공부까지 해가며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원들, 그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고무해주는 구역과 시의 일군들, 인민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네쌍둥이는 드디여 건강한 몸으로 탁아소를 마치고 유치원으로 갈수 있게 자라난다. 제 나이보다 한해 앞당겨 유치원교육을 받을수 있게 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담당의사를 유치원으로 함께 가도록 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해주시는 한편 그들에게 또다시 은정넘친 사랑을 돌려주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과 축복속에 유치원생이 된 네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란다. 의사와 교양원들은 장난이 세차 때로는 애도 태우지만 네쌍둥이를 위대한 장군님께 충직한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기 위해 모든 힘을 아끼지 않고 이끌어준다. 그리하여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난 네쌍둥이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을 환영하는 예술공연에 출연하여 절찬을 받게 되며 한해후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예술공연을 진행하며 수령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린다. 작품은 어느덧 학생이 되여 글을 쓰게 된 네쌍둥이가 자기들의 손으로 위대한 장군님께 감사편지를 올리고 그 편지를 받아보신 장군님께서 또다시 대를 두고 전해갈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이야기로 끝난다. 소설은 네쌍둥이의 모습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나날이 홍해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4(1995)년판〕

ㄷ

《다리》 단편소설. 주체76(1987)년 최성진 창작. 한 연구사의 고심어린 과학탐구과정을 통해 누구나 자기 한몸을 바쳐서라도 전진하는 조국의 지름길을 열어주는 다리가 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련합기업소지배인 류봉민은 창평광산에 내려가있던 한 연구사가 《선택부선》이라는 새로운 선광법을 실험하다가 상했다는 소식을 받고 이 광산에 내려온다. 《선택부선》이라는 선광법은 류봉민이 이 광산 지배인으로 있을 때 시도하다가 쓴맛을 보고 물러난것이였다. 그후 대학을 졸업한 봉민의 아들인 태영이가 이곳에 내려와 그 연구를 계속하고있었다. 광산에 도착한 봉민은 일군들이 모두 병원에 가고 없을 때 혼자 남아있던 서은금이라는 처녀에게서 아버지앞으로 쓴 태영기사의 편지를 받아본다. 아들의 편지에서 서학진연구사의 이름을 본 봉민은 지난날에 있은 일들을 추억한다. 학진연구사는 광석의 선광이 완전하지 못하여 많은 금속이 류

실되는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금속들을 완전히 잡아내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었다. 그때 봉민은 처음에는 그를 도와주었으나 연구가 실패를 겪자 물러서고말았었다. 아들 태영이가 그 연구에 달라붙을 때에도 봉민은 성공의 앞길이 바라보이지 않는 연구라고 하면서 찬성하지 않았었다. 그는 아들의 편지를 통하여 학진연구사가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였으며 독성분이 들어있는 화학공장의 페산물에서 거품제를 얻어내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실험했다는것을 알게 된다. 또한 아들 태영이가 그와 손을 맞잡고 연구를 성공시켰다는것도 알게 된다. 이때 연구사가 위급하니 딸을 빨리 보내라는 전화가 온다. 전화를 받은 봉민은 실험분석결과를 기다리고있던 학진의 딸 서은금과 함께 병원으로 간다. 학진연구사의 침상에서 봉민은 끝까지 밀어주었더라면 이미전에 성공했을 그 연구가 자기로 하여 20년이란 귀중한 세월을 잃게 된데 대해 깊이 자책한다. 딸에게서 성공을 알리는 분석표를 받아든 학진연구사는 조국의 지름길을 열어주는 다리로 살고싶었던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다. 소설은 류봉민과 서학진의 대조적인 형상을 통하여 사람은 백날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조국을 위해 참답게 살아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6(1987)년 7호〕

《다래나무지팽이》 단편소설. 주체90(2001)년 신용선 창작. 80고령의 년로하신 몸으로 조국의 최북단에 자리잡은 어느 한 도를 현지지도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도일보를 통해 혁명사적지에서 30여년세월 당을 받들어 묵묵히 일해오고있는 한 로당원과 그의 딸의 소행을 아시고 은정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혁명사적지 가까이에 이르러 차에서 내리신 수령님께서는 허리에 두손을 얹으시고 산발들과 골짜기 그리고 이끼오른 바위들을 타고넘으며 흐르는 실개천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이곳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당조직을 결성한 잊을수 없는 고장이라고, 그때 항일투사들이 해방된 조국땅을 눈앞에 그려보며 여기 나무들에 구호들을 써놓았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신다. 그리고 리준호가 드리는 다래나무지팽이를 짚으시며 산중턱에 자리잡고있는 어느 한 귀틀집에 이르신다. 뜻밖에 찾아오신 수령님을 만나뵙고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는 봄순이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신 그이께서는 봄순이가 보고싶어 왔다고 하시며 그들이 쏙새골밀영주변을 가꾸면서 많은 염소와 양들을 치고있는데 대해 높이 치하해주신다. 깊은 산속에서 방목생활을 하는 외로움보다도 자기들이 짜낸 염소젖을 불리한 수송조건때문에 탁아소, 유치원들에 제때에 실어보내지 못해 안타까와하는 봄순의 심정을 기특히 여겨 해당한 대책도 세워주시고 그와 함께 새끼밴 양까지 치료해주신 수령님께서는 조국땅 북변 두만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혁명사적지주변의 깊은 산속에서 항일투사들의 념원을 꽃피우기 위해 그리고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한생을 바쳐 일하여온 봄순이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주고싶다고, 오늘 만나지 못하고 가는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그러시면서 촬영가들과 기자들을 보내줄테니 TV와 신문을 통해 꼭 만나보겠다고 하시며 저녁노을이 지는 귀틀집을 떠나신다. 그만 지팽이를 잊고 방목지의 오솔길을 내려오시던 수령님께서는 준호에게 지팽이를 짚고 방목지에 찾아온것을 알게 되면 봄순이와 그의 아버지가 그 지팽이를 붙안고 눈물을 흘릴것이라고 못내 걱정하시며 지팽이를 빨리 찾아오라고 이르신다. 소설은 인민들의 자그마한 애국적소행도 무심히 보지 않으시고 로고를 바쳐 찾아주고 적극 내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90(2001)년 4호〕

《다섯번째 임무》 단편소설. 주체60

(1971)년 리상식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한 한 통신병의 성실한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고지의 전방감시소에서 박격포중대장 문경찬은 새로 배치되여온 전사 박광진에 대하여 미타하게 생각한다. 두달전까지만 하여도 군체신소의 선로공이던 그가 4차례의 전투임무를 수행하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모두 소소한 것으로서 직접 전투와 관련된것이 아니였던것이다. 경찬은 최전선전투가 처음인 광진에게 이번이 진짜 첫 전투라고 하면서 그 의의를 강조한다.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춘 광진은 적들의 집중포사격에 전화지휘선이 끊어져나가자 불비속을 누비며 달려나가 전화선을 이어놓을뿐아니라 가고오는 길에 한선씩 더 늘임으로써 그 어떤 포화력에도 끄떡없이 아군의 포사격지휘가 진행되도록 한다. 광진의 높은 책임성앞에서 경찬은 그를 어리게만 여겼던 자신을 뉘우치고 다섯번째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그를 믿음에 넘쳐 바라본다. 소설은 주인공의 모습을 통하여 비록 작은 임무라 해도 높은 자각성을 가지고 성실히 집행해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0(1971)년 4호〕

《다시 걷는 길》 단편소설. 주체71(1982)년 류정옥 창작. 지난날 안일하게 살아온 한 녀성이 보다 보람있게 살기 위해 새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화학공장 기술준비실에서 일하는 예경은 실장인 수옥이와 화학전문학교 동창이다. 예경이가 전문학교를 졸업한데 만족하여 공장예술소조에서 노래만 불렀고 시집을 간 후에도 현상유지나 하며 살아온 녀성이라면 수옥은 졸업후에 공장대학에 입학하여 지식을 더 쌓았으며 지금은 사회앞에 자기의 연구성과를 내놓으면서 보람있게 사는 녀성이다. 수옥은 예경이가 화학준기사자격증을 일생을 살아갈 길량식처럼 생각하면서 탐구와 노력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있는데 대해 진심으로 충고한다. 예경은 그에 대한 반발로 자기가 맡은 《ㄱ》폐설물에 의한 《ㅇ》화학풀연구를 기어이 성공시키리라고 결심한다. 처음에 그는 귀한 물자인 《ㅂ》약재를 리용하여 연구를 손쉽게 진행하려고 한다. 이때 수옥은 더 탐구하고 노력하여 원가가 적게 드는 화학풀을 만들어낼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예경은 자기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면서 시제품생산을 서두른다. 그러던 그는 수옥이가 출장길에서 화학풀연구를 성공시킬수 있는 특수촉매제를 구해왔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는 한생을 덧없이 보낼것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그를 성취하려는 열망속에 자신을 불태워야 한다는 수옥의 충고를 가슴에 새긴다. 수옥이가 구해온 촉매제에 의하여 《ㅇ》화학풀은 성공적으로 제조되며 그후 예경은 더 배우기 위해 공장대학에 입학한다. 소설은 매 인간은 사회앞에 자기의 땀과 노력이 깃든 창조물을 내놓으면서 보람있게 살아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1(1982)년 11호〕

《다시 고향에서》 단편소설. 주체67(1978)년 리광호 창작. 작품은 남조선에서 토질병에 대한 연구조사과정에 괴뢰정부의 반인민적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폭로단죄하는 한 의학부문 연구사의 생활을 그리고있다. 남조선 국립의료원의 이름있는 연구사인 정해진은 자기 고향에 새로운 토질병이 생겼다는것을 알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에 내려간다. 여러날에 걸치는 조사과정에 그는 토질병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병임을 알아내고 곧 부근에 있는 경산화학회사의 산업위생실태를 료해한다. 결과 회사에서 유독성페기물을 마구 내버리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있는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던 그는 자기 동생의 애인인 회사로동자 김준을 통하여 괴뢰당국이 외국에서 배척받은 공해산업을 끌어들이고 한푼의 리윤을 위해 사람들의 생명을 서슴없이 해치는 자본가들의 비인간적행위를 묵인해두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괴뢰도당의 반인민적처사에 격분

해한다. 며칠후 회사의 한 로동자가 사망하였을 때 회사측이 그의 병명을 알콜중독증이라고 하면서 화장하려고 한다는것을 알게 된 해진은 김준을 비롯한 로동자들과 함께 완강한 요구를 들이대여 시체를 찾아 부검하며 로동자의 사망원인이 회사에서 내버리는 유독성물질에 있다는것을 밝혀낸다. 그리고 로동자들과 함께 항의시위에 참가하여 괴뢰당국과 회사의 반인민적죄행을 규탄한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남조선은 자본가들의 리윤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생명도 아랑곳하지 않는 썩어빠진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 사회이며 이러한 사회를 반대하여 남조선의 로동자들뿐아니라 량심적인 지식인들도 투쟁에 나서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67(1978)년 6호〕

《다시 넘는 고개》 단편소설. 주체42(1953)년 엄홍섭 창작. 전쟁의 불길속에서 성장한 고향사람들의 모습을 모범군인이 되여 휴가차로 온 한 인민군전사의 시점을 통하여 그려낸 작품이다. 자동차운전사인 윤수는 군수물자수송에서 세운 공로로 하여 훈장을 받고 고향으로 오게 된다. 전쟁이 일어나자 입대하여 고향마을을 떠날 때 넘었던 고개를 넘어온 윤수는 그날 밤 찾아온 마을사람들로부터 친구들이 모두 인민군대에 나가 잘 싸우고있으며 집에서는 지난해 현물세와 전선원호미를 많이 바쳐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편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또한 윤수는 그새 마을녀맹위원장이 된 어머니가 사람들을 이끌고 적기의 폭격에 마사진 도로를 수리하는 모습도 보게 된다. 마을은 상처를 입었으나 활기에 넘친 사람들을 보며 무슨 일이든 하리라고 결심하던 윤수는 시한탄때문에 밭갈이에 지장을 받고있다는것을 알고 이튿날 아침 위험을 무릅쓰고 해제해버린다. 그리고 마을을 보위하며 보잡이를 하는 처녀들과 같이 밭갈이도 한다. 그는 고향을 떠나기에 앞서 마을사람들이 차린 환송연회에 참가하여 전선에 나가서 잘 싸워 영웅이 되여 다시 돌아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부대로 떠난다. 작품은 고향을 사랑할줄 아는 사람만이 조국을 위해 용감하게 싸울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문학예술》 잡지, 주체42(1953)년 4호〕

《다시는 그렇게 살수 없다》(5막) 희곡. 리종순 창작. 작품은 신해방지구 인민들이 지난 기간 학대와 천대속에서 생활하다가 공화국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살고있는 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1막에서는 전쟁전 리승만괴뢰통치하에서의 황남칠일가와 풍덕벌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여준다. 주인공 황남칠은 보잘것없는 뙈기논마저 빚값으로 빼앗아가려는 지주놈에게 반항하다가 경찰에 잡혀가며 오래전부터 앓고있던 그의 안해는 놈들의 구두발에 채워 숨을 거둔다. 2막에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풍덕마을농민들의 행복한 새생활을 보여준다. 지하투쟁에 참가했던 남칠의 아들 황용은 마을에 돌아와 박진의 지도밑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인민들을 토지개혁실시를 위한 투쟁과 전선원호사업에 동원한다. 3막과 4막에서는 인민군대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황용을 비롯한 마을인민들의 조직적인 후퇴, 강화도에서 마지막으로 후퇴하는 인민군대를 건늬여주다가 체포된 황남칠이 놈들의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는 강의한 모습, 인민군대의 재진격에 의한 마을의 해방, 남칠을 비롯한 감금된 인민들이 구원되는 장면 등 여러가지 사건들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5막에서는 승리의 첫봄을 맞는 남진리농민들의 보람찬 새생활을 보여준다. 농민들은 개간공사에 떨쳐나섰으며 마을은 창조적로동과 행복의 환희로 들끓는다. 지난날 머슴살이를 하다가 의용군으로 전선에 나갔던 만복은 훈장을 달고 제대되여 돌아오고 박진은 군당위원장으로 배치되여온다. 로동당원이 된 황남칠은 행복한 생활을 되찾은 기쁨과 감격속에서 고난에 찬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다시는 그렇게 살수 없다.》고 마음속깊이 다짐한다. 작품은 황남칠의 형상을 통하여 지난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인간의 참된 권리와 삶의 보람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음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남조선사회의 반동성과 공화국북반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다시는 그렇게 살수 없다.》는 신해방지구 인민들의 확고한 신념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기 위하여 긍정인물들의 해방전, 후생활에 대한 대조적형상탐구, 매 막의 형상초점에 대한 명백한 설정과 감정조직의 심화 등 우수한 극작법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43(1954)년에 연극으로 창조되였다.

《다시 만난 그들》 단편소설. 주체50(1961)년 홍원덕 창작. 보람찬 사회주의건설에서 깨끗한 로동계급적의리심을 간직해나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질안비료공장건설에 참가하여 세멘트를 랑비한것때문에 미장공청년인 명철이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작업반별 생산경쟁총화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지 못하게 된 김두진아바이는 급수높은 미장공인 자기한테서 미장기능을 도움받지 못한 분풀이를 하는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고깝게 여긴다. 그러나 그는 공장건설이 끝난 다음 새로 배치받은 제약공장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벌리는 과정에 자기가 얼마나 편협하고 옹졸한 마음을 가졌댔는가를 깊이 뉘우치게 되며 그후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일떠서는 비날론공장건설에 새로운 결심을 안고 참가한다. 한편 비날론공장의 빙초산직장건물을 담당한 4건축직장에서 로천부재반장으로 일하게 된 명철은 뜻밖에도 두진아바이가 부재직장을 책임지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전에 어성버성한 상태에서 헤여져 오래간만에 만나는 자기를 어떻게 대해줄것인가를 생각하며 망설인다. 그러나 명철을 만난 두진아바이는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해하면서 질안비료공장건설때에 생산경쟁에서 이겨야 하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나라의 귀중한 세멘트를 랑비한 자기의 깨끗치 못한 량심을 두고 제때에 일깨워준데 대하여 고맙다고 이야기하며 며칠후에는 억수로 쏟아지는 비에 명철이네가 갓 찍어놓은 부재들이 못쓰게 될가 걱정되여 깊은 밤중에 직장사람들을 동원시켜 가마니들을 덮어놓는다. 뒤늦게 달려나온 명철은 로천부재장일도 자기네가 응당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아바이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속깊은 의리심과 달라진 모습에 다시한번 깊은 감동을 받으며 서로 힘을 합쳐 부재생산을 다그치려는 결심을 안고 반원들과 함께 부재직장일을 힘껏 도와나선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서로 돕고 이끌며 사회주의건설의 주인공들로 성장해가는 천리마시대 로동계급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상정신적특질을 감명깊게 일반화하고있다. 〔단편소설집 《새날의 창조자들》,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50(1961)년판〕

《다시 만난 로인》 단편소설. 주체62(1973)년 강학태 창작. 소설은 한 남녀로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인민군대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습격조를 거느리고 미군기갑부대를 순식간에 녹여낸 박인호분대장은 적들과의 조우전에서 헤여진 김성도전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제2집결장소에 도착한다. 거기서 그는 부상당한 성도와 그를 구원해준 로인을 만나게 되며 로인의 권고로 그의 집에 가게 된다. 로인의 집에 도착한 인호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것은 바로 그 집이 1차남진때 잠시 들렸다가 푸대접을 받았던 집이였기때문이다. 얼마후 인호네가 바로 자기 집에 들렸던 사람들임을 알게 된 로인은 기쁨을 금치 못하면서 놈들의 악선전에 넘어갔던 자기가 인민군전사들의 모습에서 어떤 감동을 받았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미국놈들에게 큰아들을 잃고나서야 비로소 누가 인민을 위한 군대인가를 깨닫게 된데 대하여 이

야기한다. 그러면서 로인은 부상자를 위하여 감추어두었던 소를 내놓으며 둘째아들 석재를 인민군대로 키워달라고 떠밀어보낸다. 작품은 남녘의 한 이름없는 로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간의 이러한 혈연의 관계야말로 필승의 힘의 원천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간고한 나날》, 문예출판사, 주체62(1973)년판〕

《다시 만난 전우》 영화문학. 설주용 창작.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한전호속에서 싸운 전우들이 20년만에 어느 한 신발공장의 지배인, 당비서로 다시 만나 일해나가는 과정에 있은 이야기를 통하여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계속 빛내이며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하고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린 작품이다. 지배인 인호가 전쟁시기 용감하게 잘 싸운 인민군중대장이며 전후복구건설에서도 빛나는 위훈을 세운 공로자이라는것을 잘 아는 경준은 이 공장 당비서로 배치되여오면서 전쟁시기 정치부중대장으로서 그와 함께 힘을 합쳐 잘 싸운것처럼 신발생산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갈 결심을 한다. 그러나 로쇠병에 걸린 인호는 50만켤레의 신발을 더 생산할데 대한 과제가 제기되자 여러가지 조건타발을 앞세우면서 주저한다. 한편 전쟁시기 간호장이였고 제대되여 인호와 가정을 이룬 다음 이 공장 진료소 소장으로 일하는 금순은 남편의 침체한 사업태도가 육체적로쇠에서 오는 불가피한것이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경준은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로쇠할수 있지만 사상적으로는 절대로 로쇠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경제선동도 힘있게 벌리고 새 세대 청년들인 성국기사와 작업반장 영심의 기술혁신도 적극 떠밀어준다. 금순은 나이는 들었어도 청춘의 기백과 열정을 잃지 않고 패기있게 일하는 경준이의 일본새를 보면서 지난 시기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였다는것을 깨닫고 남편에게 경준이처럼 살아나갈것을 충고한다. 경준이의 비판과 금순의 충고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인호는 청년들이 벌리는 흐름선제작사업을 도와주며 고심하던 끝에 자리에 누운 경준이로부터 혁명가들은 언제나 청춘의 열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고 자신을 심각히 뉘우치며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갈 결의를 굳게 다진다. 작품은 경준과 인호간의 극적관계를 잘 맺어주고 그들의 대조적인 성격과 생활을 잘 그려내여 보여줌으로써 사상주제적과제를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작품은 주체64(1975)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다시 본 모습》 단편소설. 주체69(1980)년 설진기 창작. 과학과 기술로써 당을 받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자세와 립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작품이다. 기계공장 설계실장으로 새로 임명되여온 나는 첫 주사업총화에서 자신의 총화내용에 대해 설계실성원들이 매우 무관심한것을 보고 의혹에 잠긴다. 그후 나는 월사업계획수행과 창의고안현상모집에 대한 김찬식기사와 리영달기사의 판이한 태도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된다. 찬식은 과제를 스스로 맡아 짧은 기간에 해낼 월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생산과 나라살림살이에 실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애쓰며 훌륭한 설계를 내놓고서도 계획수행날자를 어긴데 대해 자책한다. 그러나 영달은 자기에게 맡겨진 과제를 아무런 탐구도 없이 이전의 설계를 치수만 확대하는 식으로 쉽게 해서 내놓았으며 퇴근후에는 오래 남아있는것처럼 보이려고 애쓴다. 창의고안현상모집에서도 이 문제를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보다 높이는 계기로 보는 찬식과 달리 영달은 자기의 겸손을 보이기 위한 기회로 여기며 외면한다. 두 기사의 대조되는 모습에서 나는 참으로 나라의 기술발전을 위하여 애쓸 대신 눈가림식으로 일하는 영달을 내세우고 평가했던 자기의 첫 총화를 돌이켜보며

깊이 뉘우치게 된다. 소설은 말과 걸치레가 아니라 실속있는 행동으로 당을 받들고 량심적으로 일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기술자야말로 당에 충실한 참다운 인간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69(1980)년 6호〕

《다시 전선에서》 중편소설. 주체78(1989)년 강복례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인 주체40(1951)년 여름과 가을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우는 인민군용사들의 귀중한 생명을 피로써 지키기 위한 어느 한 련대군의소 일군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은 적후투쟁을 마치고 후방에 들어왔다가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적방침에 따라 배비변경된 부대와 함께 전선동부로 진출한 어느 한 련대군의소 일군들이 전투준비를 다그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평양의학대학 3학년에서 공부하다가 인민군대에 입대한 련대군의소 군의 서은숙은 싸움의 첫날부터 전사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린다. 사단군의소에 후송된 원창호분대장이 팔을 잘랐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깊은 자책에 잠긴 서은숙군의는 련대군의소에서도 수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싸우는 여가에 《외과학총론》을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나 군의소장 문기범은 될수록 빨리 중상자들을 사단군의소에 올려보내여 수술을 받게 하는것이 련대군의소앞에 부과된 전투임무라고 하면서 부상병들을 후송하는데만 급급해한다. 서은숙군의가 한 중상자를 수술하자 그는 만일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고 따지고들며 환자후송도중 한 전사가 숨을 거두었을 때에는 전쟁이니 무슨 피해가 없겠는가고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한다. 기범의 이러한 행동에 격분을 느끼고 군의소를 떠나려고 하던 은숙은 입당보증인인 간호장 김기옥의 준렬한 충고를 듣고 자신을 뉘우치며 적후에 들어가 부상병을 후송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아 책임적으로 수행한다. 생활을 통하여 성실하고 다감한 그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매혹된 신창선중위는 은숙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그러나 은숙은 적후투쟁때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적진에 들어갔다가 희생된 정찰소대장 김재경에 대한 아픈 추억을 가슴속에 고스란히 간직하고있었으므로 그의 사랑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가 지닌 전사들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높은 책임성은 적들의 폭격이 심하고 자신이 부상을 당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수술칼을 놓지 않는 작품의 마감장면에서 더욱 감동적으로 안겨온다. 군의소장 문기범은 녀군의의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와 자기희생성, 성실하고 참된 인간애에 크게 감동되여 마침내 《책임성》이라는 허울속에 감춰진 자신의 보신주의를 심각히 뉘우친다. 작품은 중상당한 군의 서은숙상위가 전우들의 배웅을 받으며 사단군의소로 떠나는것으로 끝난다. 소설은 인민군전사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며 헌신하는 주인공 서은숙의 형상을 통하여 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여기에 군의일군으로서의 삶의 보람과 기쁨이 있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8(1989)년판〕

《다시 찾은 고향》 단편소설. 주체53(1964)년 조진용 창작. 생활체험을 통하여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고향을 찾기 위한 투쟁에 나선 한 남조선농민을 형상한 작품이다. 오누이의 자살사건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모대기던 신문사기자인 최동팔은 광산로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나고있는 ㅁ군으로 현지취재를 나가게 된다. 려인숙에 들었던 최동팔은 주인을 통하여 10년전에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봉석령감에 대하여 알게 된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이 고향마을에서 산 봉석령감은 전쟁시기에는 인민군대를 돕기 위하여 아들과 함께 락석감시원으로 일하

였다. 미국놈들이 다시 들어오자 아들은 북으로 가고 며느리와 손자는 놈들에 의하여 희생되였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봉석은 미국놈들에 대한 원한을 잊을수 없어 이를 악물고 살아오다가 고향으로 돌아온것이다. 봉석은 동팔이를 통하여 광산로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는것과 경영주인 미국놈이 광석을 실은 화차를 빼가려고 한다는것을 알게 된다. 원쑤에 대한 증오심을 품은 봉석은 스스로 락석감시원이 되며 레루못을 뽑아 광석을 싣고 달아나려는 미국놈의 화차를 전복시킨다. 동팔은 봉석령감의 투쟁을 통하여 남조선사회에서 참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투쟁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것을 깨닫게 된다. 작품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길만이 남조선인민들이 참답게 사는 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3(1964)년 제29호〕

《다시 찾은 주인공》 단편소설. 주체77(1988)년 윤민종 창작. 광복거리건설장에서 기적과 위훈을 떨쳐가는 한 청년건설자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기자로서 청춘거리 어느 한 경기관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련대에 취재를 나간 나는 련대장으로부터 한 청년건설자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경기관천정구조물공사를 앞둔 어느날 서해갑문건설장에서 위훈을 세운 한 군인에 대하여 쓴 신문기사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현장으로 나가던 련대장은 군인과 같은 이름을 가진 강순달이라는 청년을 알게 된다. 련대장은 현존설비인 기중기와 권양기의 협동작전으로 어려운 구조물공사를 진행할수 있는 대담한 방안을 제기하고 공사과정에 조성된 위험을 한몸으로 막아나서는 그의 소행을 두고 서해갑문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군인이 틀림없다고 단정한다. 그리하여 련대장은 군인에 대한 신문기사를 쓴 나에게 강순달을 소개한다. 나는 그 청년이 내가 쓴 신문기사의 주인공이 아니였지만 구면의 친구를 만난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낀다. 소설은 나의 시점을 통하여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터마다에서 영웅적위훈과 기적을 창조해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투쟁모습을 보여주고있다. 〔광복거리건설문예작품집 2 《200일》,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7(1988)년판〕

《다시 찾은 해빛》 단편소설. 주체66(1977)년 소영호 창작. 조국과 민족의 존엄보다도 돈을 벌 생각만 했던 한 재일동포상공인이 총련일군에 의하여 개조되는 과정을 형상한 작품이다. 일본의 지방소도시에서 국수집을 운영하는 리영기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숨기고 일본인처럼 행세하다가 치마저고리를 입고 찍은 자기 할머니의 사진으로 해서 자기가 조선사람이라는것이 밝혀지자 일본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지 않을가 고민하게 되며 총련분회장이 동포 한사람이라도 더 찾아내여 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해 찾아오는것을 영업에 방해를 준다고 하면서 꺼려한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분회장이 가지고온 《조선화보》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공부한 조선학교가 새롭게 변모된것을 보고 그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게 된다. 이날 그는 학교를 돌아보고 깊은 감동을 받으며 특히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일떠세우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대한 해설을 듣고 조국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절감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돈이 제일이고 자기가 잘살아야 조국과 민족도 있다고 생각한 자신을 뉘우치고 조선사람으로 떳떳이 살면서 총련의 애국성업에 헌신하여 조국을 더욱 빛내여가리라 마음다진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우시고 빛내여주시는 주체의 조국은 해외동포들을 비롯한 조선민족모두가 안겨살 영원한 삶의 품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 전국문학예술작품축전당선작품집 2 《문학작품집》, 문예출판사, 주체66(1977)년판〕

《다시 찾은 열쇠》 단편소설. 주체97(2008)년 김경일 창작.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오늘의 벅찬 현실에서 삶의 보람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한 작품이다. 어느 한 목재품공장에서 설계실 기술검사원으로 일하고있는 옥주는 자기한테서 몇달째 기술전습을 받고있는 제대군인청년에게 붙들려 저녁늦게야 집으로 돌아오군 한다. 그러던 어느날 집에 뜻밖에도 금속재료연구사로 1년째 현장에 나가 연구사업을 하고있는 언니가 온다. 다음날은 휴식일인 동시에 언니의 생일이기도 해서 기차로 한시간나마 가야 하는 연구지로 찾아가려 했던 옥주는 몹시 반가와한다. 그러나 급작스레 찾아온 언니의 모습에 이전과 달리 그늘이 비낀것을 보며 의아해한다. 그날 밤 대학시절부터 사랑을 언약하고 졸업후 3년나마 기다려온 동창생으로부터 언니가 배반당했다는것을 알게 된 옥주는 무섭게 분개해하며 며칠후 언니의 배반자를 찾아 떠난다. 인물과 성격은 판판 다르지만 어릴 때부터 남부러울만치 깊은 정을 나누어온 옥주에게 있어서 언니가 하는 일은 다 옳고 언니를 부정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처럼 여겨졌던것이다. 그러나 렬차칸에서 만나게 된 연구사청년(그가 바로 대학시절 언니와 사랑을 약속했던 서광명이다.)과의 이야기를 통해 옥주는 잘못은 이미 낡아버린 3년전의 연구과제를 고집하는 언니에게 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의 언니는 비약하는 오늘의 시대에 따라서려 하지 않고 자기 연구과제의 무의미성을 주장하는 광명의 립장을 사랑이 식어버린 결과인듯이 오해하였던것이다. 그후 탐구와 고심의 흔적이 력력한 자료철과 계산지들을 안고온 서광명의 모습을 보며 옥주는 언니와 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게 되며 삶의 보람을 찾는 인생의 열쇠를 가슴깊이 간직하리라 마음다진다. 소설은 주요인물들에 대한 옥주의 리해과정 즉 선입견과 오해가 깨여져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과학자에게는 최신과학지식만이 유일한 무기이며 오늘의 시대에서는 지식과 실력은 충실성과 애국심을 잴수 있는 척도라는것을 밝혀내고있다. 소설은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명쾌하게 밝히고있으며 형상의 몫이 뚜렷한 인물들의 설정과 개성화, 오해와 급전, 주인공을 감추어놓는 수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상수법들을 특색있게 활용하여 작품의 흥미를 한껏 돋구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97(2008)년 6호〕

《다시 찾은 이름》 영화문학. 라중흥 창작. 작품은 한 농촌녀성이 걸어온 피눈물나는 과거와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대조하여 보여주면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주인공인 어린 순비는 죽은 아버지의 빚값으로 어느 산골지주놈에게 끌려가 모진 천대속에서 힘에 겨운 종살이를 강요당한다. 어머니는 생지옥에서 순비를 건져내려고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로동판에 뛰여들어 어린 아들 관철과 함께 품팔이를 한다. 겨우 빚돈을 마련하여가지고 지주놈을 찾아갔으나 그들은 끝내 딸을 보지도 못하고 되돌아간다. 산골지주놈으로부터 벌방의 황지주놈에게 다시 팔려간 순비는 식모살이를 하는 장손 어머니와 종살이를 하는 영쇠로인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인 칠성이와 함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온갖 고역과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어느날 병에 걸린 장손 어머니는 약 한첩 못 써보고 험악한 세상을 저주하며 숨을 거둔다. 계급적으로 각성한 칠성이가 순비와 함께 지주집을 뛰쳐나가려 할 때 황지주놈은 칠성에게 도적의 루명을 씌워 감옥에 걷어넣게 한다. 이에 격분한 순비는 드디여 황지주놈에게 정면으로 반항하여나선다. 이로 하여 순비는 모진 매를 맞으며 더 혹심한 고역을 강요당한다. 해방이 되자 순비는 칠성이와 함께 황가네 악당들을 처단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새 조국에서 나라의 주인, 땅의 주인이 되여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린다. 작품

은 그후 협동농장관리위원장으로 성장한 순비가 기사장이 된 남편 칠성이와 함께 어머니, 오빠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은 순비와 그의 어머니, 칠성이, 장손 어머니 등의 형상을 통하여 고난에 찬 우리 인민의 지나간 력사를 폭넓게 일반화함으로써 계급적 및 민족적모순으로 가득찬 지난날의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예리하게 까밝히고 거기에 행복과 랑만에 찬 오늘의 우리 인민의 생활을 대조시켜 보여줌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하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52(1963)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단군출정기》 단편소설. 주체84(1995)년 김세택 창작. 조선민족의 시조 단군이 북방원정을 통하여 박달족을 중심으로 령토를 넓히고 나라를 세운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는 작품이다. 지금으로부터 근 5 000년전 단군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북방원정을 떠났다가 돌아오던중 박달촌과 지경인 오골이라는 곳에 머무른다. 그는 골짜기마다 씨족을 이루고 화목하게 살던 오골에 바우골족장 호기란 놈이 소요를 일으킴으로써 협악한 사태가 일어났다는것을 알자 이곳을 평정하여 화목을 도모하게 하리라고 결심한다. 단군은 사슴골족장 달녀가 목욕하는 곳에 나타나 치욕을 보이려고 하는 호기놈에게 된매를 안겨 쫓아버리며 사슴골사람들은 달녀의 치욕을 면하게 해준 그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골을 건져달라고 청원한다. 단군은 하늘에서 내려온 장수가 숱한 군사를 이끌고 곧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바우골안에 퍼뜨리게 하는 한편 사람들을 각성시켜 그들이 스스로 호기를 몰아내도록 하며 악행을 범했던자들에게는 개심의 길을 열어준다. 단군은 사슴골사람들과 바우골사람들에게 자기와 그대들은 한피줄로 이어진 한겨레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나간다. 소설은 조선민족의 원시조 단군이 박달족을 중심으로 여러 족들을 어떻게 통합하여 나라를 세웠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4(1995)년 1호〕

《단발머리》 중편소설. 주체80(1991)년 김은옥 창작.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새 세대 청년들이 사회생활의 첫 발자국을 어떻게 내짚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한 작품이다. 주인공 혜정은 어려서부터 꿈이 많았으나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제철소로 갈것을 결심한다. 이때 기사인 언니는 대학에 가지 않는 동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의사인 어머니는 처녀의 몸으로 견디여내겠는가 걱정한다. 하지만 혜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제철소에서 용해공들의 충실성을 따라배우고 그들의 숭고한 넋을 이어가려는 결심밑에 용광로직장 콘베아운전공으로 자원하며 소꿉시절 친구인 설심이와 쾌활하고 남성적인 송미와 함께 첫 로동생활을 시작한다. 하루빨리 어엿한 로동계급으로 자라나기 위해 그들은 부지런히 일하며 배워나간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의지가 나약한 설심이는 로동생활에 싫증을 느끼고 실험실로 돌아앉으며 나이든 처녀 금숙이는 혜정에게 너무 잘난체 하지 말라고 훈시하면서 곁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혜정은 조국해방전쟁시기 간호원이였던 어머니와 사로청초급단체위원장인 한순옥, 작업반장인 로학준의 고무와 교양을 받으며 마음의 동요를 물리치고 꿋꿋이 일해나간다. 뿐만아니라 그는 설심을 깨우쳐주기 위해 몇번이나 찾아가 설복하며 금숙이에게 단발머리시절의 열정을 되찾아주려고 무진 애를 쓴다. 그리하여 혜정이, 설심이, 송미를 비롯한 단발머리처녀들은 어엿한 로동계급으로 성장하며 모두가 대학생이 될 희망을 속삭인다. 소설은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 청년들은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청춘의 리상과 희망을 꽃피울 때에만 가장 보람차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80(1991)년판〕

《단조공의 앞치마》 단편소설. 주체64(1975)년 박학주 창작. 어렵고 힘든 고열로동인 단조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애쓰는 한 단조공청년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주인공 창길이는 고등기계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여덟달만에 고무앞치마를 영원히 벗어던지기 위한 기술혁신과제를 설정하고 그 해결에 달라붙는다. 오랜 고심끝에 단조작업에서 가장 힘든 작업인 집게잡이를 기계로 대신할수 있는 자동집게차를 만들었으나 시운전에서 집게가 부러져나가는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나 창길이는 기술혁신을 위한 투쟁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오랜 단조공인 최아바이는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자동집게차를 완성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그를 적극 도와준다. 한편 창길이와 함께 일하고있는 단조공 대석이는 기술신비주의에 빠져 단조공정을 자동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현재의 로동조건에 만족해한다. 그러나 그는 창길이의 혁신적인 투쟁성과에서 충격을 받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기술혁신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 작품은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고열로동에서 로동자들을 영원히 해방시켜주시려고 마음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 기술혁신의 봉화를 세차게 지펴나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4(1975)년 11호〕

《달과 딸과 어머니와》 서정시. 주체36(1947)년 리찬 창작. 지난날 천대받고 억압받던 근로인민의 자녀들에게 배움의 길이 활짝 열린 해방후의 새로운 현실을 감격적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행랑살이로 10여년을 살아온 어머니가 해방을 맞이하여 딸을 학교에 입학시키게 되는 기쁜 날 달밝은 밤에 설음많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이 행복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할 굳은 결의를 다지는 화폭을 정서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울긴 왜
울긴 왜… 하면서도
속으로 더 운것은 더 운것은

…

아, 지금 제땅에 제집 짓고
딸자식 공부까지 보내는
꿈같은 오늘을 울었습니다

시는 배움의 길을 마음껏 걸어가게 된 우리 인민의 크나큰 감격과 기쁨, 새로운 민주주의적교육제도의 우월성을 형상적으로 확증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정서속에서 사상주제적내용을 밝히고있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달라진 선택》 장편소설. 주체97(2008)년 강선규 창작. 깨끗한 량심과 높은 실력으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되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한 교육일군을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은 고등교육도서출판사 기자인 내가 취재과정에 의학대학 고려의학부 침구학강좌 교원인 주인공 고원초와 주변의 여러 사람들사이에 있은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는 내용으로 되여있다. 고원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열렬히 사랑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일 아끼시는 우리 인민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한가지라도 더 하는데서 인생의 보람을 찾는다. 그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욕망만 앞세우거나 일을 하는척하며 거짓흉내를 내는것과 같은 독선적이고 비량심적인 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실력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는 관점밑에 조선사람의 체질적특성을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풍부한 고려의학지식을 쌓고 특히 침구학기술련마에 모든 정열을 쏟아부음으로써 훌륭한 과학적안목과 림상경험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남들이 치료하기 힘들어하는 박성덕학장의

목병과 구정중학교 교장의 딸 수옥의 부인병, 출장길에 올랐던 나의 위경련과 예술단녀배우의 급병, 해외교포녀성 송리혜의 난치병 등을 유능한 치료솜씨로 완치시켜준다. 부모들로부터 당이 바라는 일을 량심적으로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것이 헛살지 않는 인생이라는 귀중한 조언을 받았고 어버이수령님을 힘껏 받들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당부도 들었으며 약초와 같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고원초였던것만큼 그에게 있어서는 치료가 기술이기 전에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였다. 그러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고원초는 사람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몸과 마음을 깡그리 바쳐가는 과정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값진 은비녀마저 탄광병원에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장만하는데 쓰라고 서슴없이 내놓기도 하고 자기 제자들이 침을 놓는 방법을 숙련하도록 직접 제 몸을 내대면서 주저하지 말고 침대를 꽂으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데 대하여서도 묵과함이 없이 타이르고 깨우쳐주며 때로는 혹독한 추궁도 한다. 고원초는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분야의 직업인 의사가 되지 않고 먹을알이 있는 딴 직업을 택하려 하는 신신명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 그가 그릇된 생각을 고치게 한다. 또한 현실적인 가치가 별로 없는 학위론문을 쉽게 써서 다른 사람의 후원으로 겨우 통과시킨 김석춘에게는 인생길을 눈가림식으로 걷지 말아야 한다고 따끔히 일러주어 그로 하여금 량심상가책을 받고 새 출발을 하게 한다. 또한 제자인 홍수갑학생이 학과토론을 실속있게 못하고 형식만 차리였을 때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때문에 하는것인가를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해주어 그가 후날 훌륭한 당일군으로 자라나서도 늘 고맙게 추억할수 있게 한다. 그런가하면 직무가 높아지면서 탐구적인 열의가 식어져 체면이나 차리고 현상유지만 하는 의학대학병원 부원장 부경산의 결함에 대하여서도 동지적인 충고와 비판을 준다. 이러한 고원초에 대하여 점차 알게 된 나는 그가 확실히 자기가 가진 별명처럼 자기의 능력과 자질로 좋지 못한 균을 부단히 죽여버리면서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활기증진시키기 위해 사는 것을 자기의 본능으로, 성격으로 만든 항생초가 틀림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소설은 고원초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은 누구나 다 깨끗한 공민적량심과 높은 자질을 겸비하여야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생을 값있고 보람있게 살수 있다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7(2008)년판〕

《달밤의 피리소리》 단편소설. 주체68(1979)년 전홍식 창작.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임무보다 자기 가정을 먼저 생각하던 한 녀인이 견결한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주인공 오정심이 밤에 피리소리가 들리면 2지점으로 문건을 가져갈데 대한 혁명조직의 지시를 받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피리소리가 나기를 기다리며 그는 2년전 광산조직이 위험하다는 급한 련락을 가지고가다가 자기 집이 불타는것을 보고 되돌아가 딸애를 구원하던 일을 회상한다. 그때 련락임무를 수행 못한 그에게 남편 경호는 혁명동지들과 임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엄하게 꾸짖고 자기가 직접 왜놈들이 삼엄한 경계를 편 광산으로 달려갔었다. 그후 정심은 남편이 희생되였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다. 2년전 자기 행동을 돌이켜보며 정심은 이번에 조직에서 받은 임무를 어김없이 수행할 결심을 굳게 다지며 그날 밤 피리소리가 날 때 2지점으로 간다. 그는 거기서 뜻밖에도 죽은줄 알았던 남편 경호와 감격적으로 상봉한다. 소설은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혁명승리를 위해 싸운 항일혁명투사부부의 견결한 투쟁정신과 세계관발전과정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잡지, 주체68(1979)년 4호〕

《달뜨는 강변에서》(1막) 희곡. 주체81(1992)년 전상식 창작. 당이 부르는 대흥땅으로 자진하여 달려가는 청춘남녀들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 시대 청년들의 투철한 혁명적인생관과 참다운 애정륜리세계를 형상한 작품이다.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한 학교에 생물교원으로 배치받은 주인공 현옥은 첫 교단에 서면서 학생들에게 성천강의 송어를 실물로 보여주려는 생각으로 함께 배치받은 희경과 같이 성천강으로 온다. 배사공아바이를 기다리면서 현옥은 희경에게 여기가 바로 지난 청년웅변모임때 함께 1등의 영예를 지닌 인민군사관장 영수의 고향마을이며 그가 인차 제대되여 대학으로 오게 된다는것을 이야기한다. 한편 제대되여 당이 부르는 대흥땅으로 가던 영수는 자기 고향의 자랑인 성천강의 송어를 대흥땅의 북대천에 번식시키려는 꿈을 안고 제대군인인 경호와 함께 고향에 들린다. 뜻밖에 고향에서 사랑하는 현옥을 만난 영수는 반가와하면서도 그가 자기를 따라가겠다고 하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자기가 대흥으로 간다는것을 말하지 않는다. 경호를 통하여 영수가 대학추천도 마다하고 대흥으로 자진하여 간다는것을 알게 된 현옥은 그에게 조국이 부른다면 자기의 리상과 포부를 다 바치는것이 우리 시대 청춘들의 지향이며 어렵고 힘든 곳에서도 변함없이 손잡고 이끌어주며 열정의 힘을 보태여주는 고상한 감정이 90년대 청춘들의 사랑이라고 절절하게 말한다. 현옥은 자기도 대흥땅에 진출하여 생물학을 전공한 교원으로서 북대천에 송어떼가 욱실거리게 할것을 결의다지며 희경이도 경호를 따라 대흥으로 갈것을 다짐한다. 작품은 당과 조국의 부름이라면 청춘의 리상과 포부를 서슴없이 바치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열정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81(1992)년에 연극으로 창조되였다.

《담가소대장》 영화문학. 리상욱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무비의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전우들을 구원한 한 담가소대장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전쟁의 준엄한 나날 담가소대장 춘희를 비롯한 녀성담가대원들은 부상병들의 생명이 자기들에게 달려있다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손과 발에 물집이 생겨 피가 나고 신발이 터져나가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총포탄이 튀는 싸우는 고지에서 그들을 담가에 싣고 군의소로 달리고 또 달린다. 그러던 어느날 춘희는 전투장에서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박격포중대장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친동생가운데서 자기 동생보다도 먼저 중대장을 후송한다. 혈연적관계를 초월한 그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혁명적동지애에 의하여 중대장의 생명은 구원된다. 춘희는 그후 적기의 맹렬한 폭격으로 한발자국도 전진할수 없는 위험한 정황속에서 마차를 몰아 생명이 경각에 이른 의용군출신의 전사를 군의소로 후송함으로써 그의 생명을 구원한다. 그러나 자신은 후송도중 심한 부상을 당하여 전승의 기쁜 소식을 병원침대에서 접하게 된다. 정전이 된지 2년만에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춘희는 렬차안에서 동림군당위원장으로 일하고있는 전쟁시기의 련대장을 만나게 되며 그로부터 공병중대장이였던 근학이가 두눈을 잃고 동림영예군인보양소에 와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춘희는 그길로 근학이를 찾아갔으나 근학은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춘희는 끝내 그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여 뜨거운 사랑을 바쳐간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인민군대에서의 혁명적동지애는 동지를 위해서는 혈육뿐아니라 자기의 몸과 마음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자기희생적인 숭고한 사랑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어머니가 섰던 초소에 대를 이어서있는 오늘의 담가소대장 리지향의 형상을 통하여 혁명의 1세, 2세들속에서 발휘된 혁명적동지애의 미풍이 혁명의 3세, 4세

들에 의하여 더욱 활짝 꽃펴날것이라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작품은 서로 직접적련관성이 없는 일화적인 이야기들을 회상을 통한 묶음형식으로, 비순차적방법으로 전개한 구성상특성을 가지고있다. 작품은 주체84(1995)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담력》 단편소설. 주체79(1990)년 림재성 창작. 당의 사상과 의도를 가장 옳은것으로 받아들이고 혁명과 건설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에 의거하여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릴줄 아는 사람만이 무서움을 모르는 담력을 가지고 일해나갈수 있다는 사상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북부철길완공보고를 올리기 위하여 평양으로 가던 북부철길건설총국장 신정균이 렬차안에서 작가에게 공사의 나날에 있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여있다. 방대한 공사량과 투자에 선뜻 가늠이 가지 않아 철길설계를 완성하지 못하고있는 일군들을 부르신 그이께서는 그들에게 담력이 부족하다는것을 헤아리시고 그것부터 키워줄것을 결심하신다. 그리하여 다시 현지답사의 길에 오른 일군들은 그 과정에 국가적인 견지가 아니라 인민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시며 10여개의 정거장을 새로 내오도록 하시는 그이의 높은 의도를 받아안게 되며 인민을 믿고 그들에 의거하여 싸우면 백번 이긴다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좌우명을 깊이 체득하게 된다. 그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사와 관련한 협의회를 지도하시면서 기존공법이나 엄혹한 자연환경에 주눅이 들지 않는 청년들의 배짱—담력을 믿으시고 500여리 구간을 여러 토막으로 나누어 동시에 전격전의 방법으로 철길공사를 내밀데 대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신다. 또한 설비를 구원하고 중태에 빠진 한 청년돌격대원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는 중요한 회의를 뒤로 미루시며 그의 소생을 위하여 직승기를 보내주시는 비상대책을 취해주신다. 소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된 담력—이것이 엄혹한 대자연을 정복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힘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79(1990)년 제7호〕

《담징》 중편소설. 주체85(1996)년 리성덕 창작. 고구려의 유명한 화가이고 불교승려인 담징의 활동을 형상한 력사소설이다. 610년 3월 야마또국(고대일본)의 초빙을 받은 담징은 제자 법정과 함께 일본으로 향한다. 당시 아직 문명에서 뒤떨어졌던 야마또국에서는 백제건축가들의 힘을 빌어 지은 큰 절간인 법륭사금당에 벽화를 그리기 위하여 담징을 초빙하였던것이다. 유능한 화가일뿐아니라 5경에 대한 지식이 깊고 먹과 채색, 붓과 종이를 만드는 기술에도 능통한 담징은 낯설고 물설은 일본땅에서 고국—고구려의 명예를 떨치기 위하여 노력한다. 여러가지 채색을 정제해내는 일도 어려웠으나 벽화를 그리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였다. 채색정제를 해가는 과정에 그는 야마또주민들과 친숙해지고 물방아를 만들어 살길을 잃은 도미에부녀를 구원해주며 재능과 기술을 시기질투하는 무리들의 간사한 모략도 짓부셔나간다. 그러나 수나라 통치배들의 침공으로 전란을 겪게 된 고국에 대한 걱정과 고향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을 진정할수 없게 된 담징은 야마또에서 만난 옛 스승인 혜자스님을 찾아가 벽화를 그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불교의 계률도 무겁지만 고국앞에 지닌 책임이 더 무겁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그가 고민속에서 모대기고있을 때 고구려에서 을지문덕장군으로부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소식과 함께 어린시절 같은 마을에서 자란 처녀인 달미가 남복을 입고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다는 슬픈 소식이 온다. 기다리고기다리던 전승의 소식과 함께 달미의 희생에 대한 슬픈 소식에 접한 담징의 가슴속에서는 큰 충격의 파도가 일어났으며 그는 드디여 뜨거운 창작적열정을 가지고 300만대군을 일격에 쳐물리친 고국 고구려에 대한 끝없는 자랑과 사랑

을 붓끝에 담아 금당벽화를 그리기 시작한다. 금당벽화 한폭이 완성되자 야마또왕정의 실권자인 성덕태자와 녀왕은 물론이고 수많은 승려들과 화공들, 주변마을사람들까지 앞을 다투어 모여와 벽화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성덕태자의 스승으로 20년동안 일본땅에서 활동하던 혜자스님은 이 모든것에서 사람은 조국을 잊고서는 한시도 살수 없으며 그 무엇도 할수 없다는것을 가슴속깊이 느끼면서 고령의 몸으로 고국에로의 귀국의 길에 나선다. 소설은 담징과 법정이 포구에서 옛 스승인 혜자스님을 바래우는 장면으로 끝난다. 이러한 형상을 통해 작품은 담징이 력사에 이름난 화가로 남게 된것은 결코 그가 뛰여난 천품이나 훌륭한 재능을 지닌 사람이여서만이 아니라 고구려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긍지와 배짱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이라는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얼마나 슬기롭고 재능높은 민족이였으며 주변나라들에 얼마나 찬란한 문화적영향을 주었는가를 형상적으로 확증하였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5(1996)년판〕

《담임선생》 단편소설. 주체75(1986)년 강귀미 창작. 일본의 고베시에 있는 소학교에 다니던 나—진석에게 민족적자존심을 잃지 말고 살도록 이끌어준 담임선생에 대하여 이야기한 작품이다. 나는 비오는 어느 날에 우산을 같이 쓰게 해준 일본아이에게 신세갚음을 하려고 그의 장화에 묻은 흙을 닦아준다. 길가에서 이것을 본 담임선생 김영채는 격분하여 평시에는 침착하던 성미에 어울리지 않게 백묵까지 몇번이나 부러뜨리면서 하루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이 끝난 후 교원실로 나를 부른 선생은 오늘 잘못한 일이 없는가고 묻는다. 선생이 묻는 까닭을 전혀 리해하지 못하는 나에게 영채는 목격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민족적자존심이 없이 행동한데 대하여 가슴아프게 말해주며 분을 삭이지 못하여 종아리에 매까지 안긴다. 학생에게 손을 댄것으로 하여 선생은 스스로 교단을 떠나며 잘못을 뉘우친 진석은 그후에 선생의 하숙방으로 여러번 다니면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것을 다짐한다. 그후 조국에 귀국하여 지금도 고베시교외의 소학교 교원으로 일하고있는 담임선생을 생각하는 나의 이러한 회상을 통하여 소설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민족적자존심을 간직하고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문학통보》, 주체75(1986)년 제10호〕

《답》 단편소설. 주체96(2007)년 김혜영 창작. 학생들을 나라의 참된 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원의 교육자적안목과 교수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다. 대학을 한날한시에 졸업하고 배치되여 다정히 지내던 두 처녀교원들인 경미와 옥희는 경미가 맡은 학급의 학생인 영성의 생일을 계기로 그의 집에 초청되여간다. 그때 영성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4살때 남다른 기억력을 나타낸 이야기를 해주면서 경미에게 그가 특별히 선발하여 공부시키는 앞선 학생들속에 자기 아들 영성이도 포함시켜줄것을 간절히 부탁한다. 부모의 열성에 못이겨 영성이를 얼마간 공부시켜보던 경미는 학급에서 10～20등계선에 머무르기만 하는 그의 성적, 단순한 계산문제를 놓고도 《심오한 사색》에 잠기면서 답을 굼뜨게 내는것, 심한 그림장난 등 갈피를 잡을수 없는 영성의 행동에서 좋은 점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에 대한 학습지도를 포기해버린다. 그후 영성이를 자기 학급에 데려온 옥희는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과 호소를 단순히 부모의 주관적인 열성이나 편견으로 대하지 않고 영성의 남다른 재능을 찾아내기 위해 애쓴다. 옥희는 영성이가 남보다 속도가 굼뜨지만 그대신 엉뚱하게 사고하는 측면을 발견하고 그의 학령전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료해하기 위해 그가 다닌 탁아소와 유치원을 찾아간다. 그리고 영성이가 한번 스쳐지나간 뜨락또르를 보고 세부적인 요소까지 정확히 그렸을 때는 그의 놀라운 관찰력과 기억력을 재삼 확인하기 위해

이웃리의 기계화작업반까지 땀을 흘리며 찾아간다. 이 과정에 그는 영성이가 조형적인 환상에 기초한 뛰여난 형태감각과 예민한 관찰력, 기억력을 지닌 자연과학계통의 수재형이라는것을 알게 되며 그에 맞는 교수방법을 적극 따라세운다. 그래서 그는 영성에게 문제풀이를 시켜도 그림을 리용하게 하고 리론공부를 시켜도 도해를 통해 하도록 한다. 결과 영성이는 군적인 학과경연에서 단연 1등을 한다. 소설은 한 학생을 대하는 두 교원의 서로 다른 관점과 립장을 통하여 교육자는 눈앞에서 나타나는 성적만 보고 학생의 재능을 판별할것이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좋은 싹을 적극 찾아내고 꽃피워주는 높은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96(2007)년 4호〕

《당》 서정시. 주체54(1965)년 김순석 창작. 영광스러운 당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참다운 삶과 진정한 조국이 있으며 당은 우리 인민과 조국의 영원한 생명이라는것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는 해방전 우리 인민의 무권리하고 비참했던 처지를 눈내리는 추위속에 얼음판에 넘어져 어머니를 부르며 우는 어린이의 처참한 모습에 비유하여 노래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갖 난관을 헤치시며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길을 개척하여오시였다는것을 절절하게 노래하였다. 서정적주인공은 우리모두를 자주적인간으로 키워주고 부강한 새 조국을 일떠세운 우리 당의 빛나는 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당이 없이는 나도 없고 조국도 없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시는 시적표현이 간결하고 서정이 풍부하며 시적일반화의 폭이 넓은 특징을 가지고있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당과 조국을 위하여》 장시. 주체42(1953)년 김영철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아 진격로를 개척한 신기철, 박원진영웅들의 위훈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돌격하는 인민군용사들앞에서 2문의 적기관총이 불을 뿜을 때 《전우들아, 나를 따르라! 당원이 점령 못할 요새는 없다!》라고 웨치면서 나서는 신기철과 《당원들의 뒤를 따라 민청원들이여, 앞으로!》라고 웨치면서 나서는 박원진의 영웅적위훈을 통하여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삶, 가장 값높은 희생은 당과 조국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밝혀내고있다. 시에서는 고지를 점령하고 백배, 천배의 복수를 다짐하며 원쑤놈들을 소탕하는 인민군용사들의 대중적영웅주의와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보여주었으며 그들의 위훈은 영원히 남아있으리라는것을 강조하였다. 시는 묘사된 사건자체에서뿐아니라 시적구성에서 강한 극성을 보여주고있으며 서사적묘사와 주정토로를 적절히 배합하고있다. 〔시집 《위대한 승리》, 문예총출판사, 주체42(1953)년판〕

《당부》 단편소설. 주체84(1995)년 류정옥 창작. 우리 제도를 굳건히 지키라는 할아버지의 당부를 생각하며 은혜로운 조국을 지켜 한생을 총잡고 살려는 한 청년의 굳은 결심을 보여준 작품이다. 군복을 입고 초소로 떠나기에 앞서 주인공 나는 할아버지가 즐겨찾던 논벌로 나온다. 나는 얼마전에 할아버지를 노엽혔는데 할아버지는 그 노여움을 풀지 못한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었다. 할아버지는 중학교를 졸업한 나가 어렵고 힘든 부문을 마다하고 좋은 자리를 찾아 선손을 쓰려고 하는것을 알고 몹시 노여워하였다. 나를 데리고 논판의 허수아비가 있는 곳에 이른 할아버지는 사람이 허수아비를 부러워할수도 있는 세상이 있다는걸 생각해본적이 있는가고 하면서 착취받고 압박받던 머슴살이 과거를 이야기해준다. 할아버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져다주신 해방에 의하여 자기의 생명이 구원될수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의 과거는 결코 지나간 옛말이 아니며 지금 시대가 청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

는지 똑똑히 알고 처신하라고 한다. 할아버지의 당부와 함께 전연초소에서 복무하던 맏형이 원쑤놈들과의 싸움에서 중상을 입은 소식은 나로 하여금 피맺힌 부모들의 과거가 다시 되풀이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깨닫게 한다. 그리하여 나는 멋없이 들떴던 리기적인 전망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입대를 탄원한다. 소설은 착취받고 압박받던 부모들의 지난날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계급의 무기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것을 깊이있게 강조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4(1995)년 11호〕

《당비서》 단편소설. 주체64(1975)년 강철 창작. 운전사들을 당의 믿음직한 수송전사로 키워나가는 한 당일군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이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밤 차사업소에 배관 한차분을 평성광산으로 수송해야 할 긴급지령이 떨어진다. 그런데 당장 내보낼만 한 운전사가 없었다. 당비서 최남호는 사령 김인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은지 1년밖에 안되는 나어린 영철에게 이 과업을 준다. 평성으로 가는 길은 웬만한 운전사들도 저어하는 험하고 가파로운 고개길이여서 당비서가 영철이와 함께 떠난다. 그의 고무를 받은 영철은 악전고투끝에 무사히 령길을 극복한다. 마음이 놓이지 않아 유능한 운전사를 데리고 뒤따르던 김인정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다. 작품은 최남호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당일군들이 동지들을 믿어주고 내세워줄 때 그들을 당에 충직한 혁명가로 키워나갈수 있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64(1975)년 9호〕

《당비서의 밤길》 단편소설. 주체74(1985)년 리신현 창작.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자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견인불발의 의지로 사업하는 한 당일군의 참된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어느 한 자동차공장 당비서 송태호는 전쟁시기 입은 상처로 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당일군의 본분을 지키기 위하여 애쓴다. 그는 지배인 박상규가 대형자동차설계를 잘못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보이라수리공으로 강직된 설계실 부실장 윤찬이때문에 속을 썩이고있을 때 그와 밤길도 함께 걸으면서 위로해주기도 하고 윤찬을 만나서는 자기만 제일인듯이 소총명을 부리는 그의 결함을 준절히 비판해주기도 한다. 송태호는 과오를 범한 윤찬을 대신하여 공장의 젊은 청년 장덕길의 창의고안에 다른 기술자를 붙여 도와주게 하겠다는 지배인에게 윤찬이가 그것을 마지막까지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고 설복한다. 몸상태가 악화되여 병원에 실려갔을 때에도 그는 윤찬이가 걱정되여 깊은 밤 담가에 실려 다시 공장으로 나와 그를 타일러주며 당비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무때나 문을 열수 있도록 자기 방문을 걸지 말것을 지배인에게 절절히 부탁한다. 그의 뜨거운 마음에 의하여 윤찬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며 지배인 박상규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늘이 질세라 수없이 밤길을 걸었으며 운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일군의 본분을 지켜가는 당비서를 보며 오열을 삼킨다. 소설은 송태호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당의 인덕정치를 꽃펴나가기 위해서는 당일군들이 사람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며 그들모두를 다심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어야 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4(1985)년 11호〕

《당신은 나를 잘못 봤소》 영화문학. 민병선 창작. 작품은 공화국북반부에 기여든 적간첩일당을 적발소탕하기 위한 사회안전원들의 투쟁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인공인 사회안전원 정식이가 운전사로 가장하고 방금 렬차에서 내린 적간첩 박중락놈을 태우고 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주인공 정식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이 도시에 잠입한 적간첩망인 《노랑꽃잎》일당을 소멸하기 위하

여 아놀드의 특사로 가장하고 이 망에 침투하나 망책인 《노랑꽃잎》을 잡아내지 못한다. 그것은 아놀드로부터 일체 망원들과의 선을 끊고 깊숙이 잠복하라는 지시를 받은 망책놈이 자기의 첩자 월미를 《노랑꽃잎》으로 가장시켜 살해하고는 종적을 감추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정식은 《노랑꽃잎》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하여 자진하여 간첩망의 배후조종자인 아놀드의 소굴에 들어간다. 놈들은 그를 검토하기 위하여 야수적인 고문과 온갖 술책을 다 쓰나 그때마다 정식은 완강한 의지와 예리한 판단력으로 그것을 물리치며 나중에는 아놀드의 신임까지 얻게 된다. 그후 그는 자동차운전기술을 배우는 과정에 망책놈이 여전히 우리 내부에 박혀있다는것을 알게 되며 아놀드의 지시를 받고 공화국북반부에 다시 돌아와 《노랑꽃잎》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하여 인내성있게 노력한다. 바로 이러한 때 놈들은 박중락을 일용품공장 부지배인으로 가장시켜 들여보낸다. 정식은 동지들의 극진한 방조와 고무를 받으면서 능숙한 방법으로 박중락을 움직이며 놈들의 정체를 하나하나 밝혀낸다. 정식은 수많은 위험의 고비를 넘으며 끝내 일제시기의 흑룡회 첩자였으며 일제가 패망한 후에는 미제의 고용간첩으로 된 《노랑꽃잎》과 그의 딸년 그리고 박중락과 코수염쟁이 등 적 간첩들을 모조리 잡아낸다. 작품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싸우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사회안전원들이야말로 높은 책임성과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맡은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혁명의 수호자, 인민의 보위자라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64(1975)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가사. 주체82(1993)년 리종오, 황진영 창작.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를 조국과 민족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철석같은 신념을 격조높이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사회주의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였을뿐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펼쳐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끓어오르는 격찬의 감정을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오직 영명하신 그이만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불타는 맹세를 진실하게 노래하였다. 가사는 매 절의 후렴에서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라는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곧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시라는 심오한 사상을 뚜렷이 천명하고있다. 가사는 간결하고 째인 서정구조와 누구나 쉽게 부를수 있는 통속적인 언어표현으로 사상주제적내용을 명백하게 표현하고있다. 가사는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받들어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전인민적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가요로 형상되자마자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심장의 메아리로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조선가요 20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가사. 주체48(1959)년 한찬보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려는 우리 인민군대의 철석같은 의지와 확고한 신념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나라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될수 있었으며 조국은 억세고 인민들은 행복을 누리고있다는것을 긍지에 넘쳐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을 무장으로 보위해가는 인민군군인들의 끝없는 긍지와 승리에 대한 신심을 격조높이 노래하면서 우리 혁명의 심장인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할것을 힘있게 호소하고있다. 가사는 이러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신념의 구호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사상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구현하고있다. 가사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한 혁명적인 내용과 전투적이며 기백있는 시적형상으로 하여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조선음악전집》 1,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당중앙의 창가를 우러러》 서정시. 주체71(1982)년 김정호 창작. 당중앙의 창가를 우러러보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뜨겁게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먼저 당중앙의 창가를 우러러보면 경애하는 장군님의 봄날같이 밝으신 미소가 가슴가득 안겨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정답게 들려오던 고향집 들창인듯 한없이 친근하다고 노래하고나서 혁명의 미래를 밝혀주는 그 창가에서 찬란한 빛발이 흘러 3대혁명의 전투장마다에 전진의 함성이 울리고 남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앞길이 휘황히 밝혀진다고 노래하고있다.

세계는
그이 계신 창가에서
밝아오는 새날을 맞는다
인류는 보았다
그이 계신 창가에서
무궁한 태양의 빛발을!

시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당중앙의 창문은 《인류가 들어설 공산주의 그 찬란한 해돋이가 빛발쳐오르는 새 세기의 창창한 하늘》이라고 격조높이 웨치고있다. 시는 폭넓은 시적환상을 펼치고있으며 섬세하고 부드러운 색갈을 띤 언어와 탄력있는 운률로써 서정적화폭을 펼치고있다. 〔시집 《향도의 해발을 우러러》 4,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당지부가 살아있는 한》 단편소설. 주체55(1966)년 박경빈 창작. 항일혁명투쟁시기 모진 시련과 간고한 투쟁속에서도 줄기차게 진행된 유격대 당지부의 활동을 보여준 작품이다. 고난과 승승장구의 행로를 따라 전진하던 원정부대는 목적지인 보원을 앞두고 적들과 맞다들어 뜻하지 않은 손실을 입는다. 중대동지들이 거의다 희생되고 부상당한 세사람은 당지부회의를 열고 조직이 살아있는 한 그 어떤 곤난이 앞을 가로막아도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고 혁명적영향을 주며 부대의 월동용물자를 해결해야 할 원정대의 임무를 기어이 수행해나갈 결의를 다진다. 회의결정으로 당소조장 강창송은 인민들과 련계를 맺으려 류수촌에 있는 한칠성로인을 찾아가며 그의 손자인 한태호가 전장에서 가져다놓은 여러정의 무기와 탄약이 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한태호를 비롯한 마을의 핵심청년들은 류치장에 갇혀있었다. 강창송은 주동적으로 적의 소굴로 찾아들어가 조직과의 련계를 회복하고 류치장안의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깨우치고 결속하며 그들을 탈옥시킨 후 그들의 힘으로 적의 아성인 보원을 습격한다. 소설은 모진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원정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고 그 나날에 강력해진 유격대의 한 당지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성장한 당원들의 혁명정신은 꺾을수 없으며 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은 언제나 변함없이 발휘된다는것을 예술적형상으로 확인하였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5(1966)년 1호〕

《당은 어머니모습》 가사. 주체73(1984)년

배헌평 창작. 당을 어머니처럼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세상에 태여나 제일먼저 어머니의 자애에 넘친 얼굴을 익히고 그의 살뜰한 보살핌속에서 자라게 되는 어린 아기처럼 영광스러운 우리 당을 어머니의 품으로 믿고 따르는 인민들의 끝없는 행복과 뜨거운 충정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정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는 어머니당에 자기들의 온 마음과 운명을 다 맡기고 살아나가려는 인민들의 불타는 결의를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당을 어머니라고 정답게 부르며 따르는 우리 인민들의 진실한 생활감정을 풍만한 정서와 깊이있는 시적형상으로 훌륭하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하여주고있다. 〔《조선가요 20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당을 따라》 서정시. 주체74(1985)년 김기호 창작. 영원히 당을 따라 혁명의 길을 억세게 가고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우리가 당을 따라 혁명의 먼길을 왔다는것을 강조하면서 그 길에 나루배가 없으면 도끼로 뗴목을 무어 불타는 강을 건넜고 군화가 닳으면 나무껍질을 동여매고 눈내리는 태백산도 넘었다고, 오직 한마음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준엄한 언덕을 넘어왔다고 힘있게 표현하고있다.

자기의 걸음으로
시련의 폭풍을 맞받아
전진하고 비약하는것은
불길속에서 벼려지고
빈터에서 나래친 우리의 정신

시에서는 날이 가고 세대가 바뀐다고 어찌 그 정신이 흐려질것인가고 하면서 우리의 행군길은 한번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지만 용기백배하여 나아가면 천만산악도 물러서는 길임을 강조하였으며 백두설령을 넘어온 그 정신으로 영원히 당을 따라갈 굳은 결의를 토로하고있다. 시는 장중하면서도 숭엄한 정서적색채를 살리고 비유적수법들을 잘 리용하고있다. 〔《1980년대시선》, 문예출판사, 주체79(1990)년판〕

《당을 따라 우리는 가리라》 서정시. 주체70(1981)년 정서촌 창작.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의 연단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정을 토로하면서 영원히 수령님과 당을 따라 나아갈 우리 인민의 확고한 신념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의 첫 부분에서는 감격의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는 대회장에 환하게 웃으시며 나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엄한 모습을 경건히 우러르면서 《위대한 사랑의 절정》, 《뜨거운 충성의 평마루》에서 당 제6차대회가 개막되였음을 노래하고있다.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 인민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이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찬연히 빛나고 있다는것을 노래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힘있게 전진하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맹세를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다.

가리라
우리는 또다시
더 밝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다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당중앙의 해빛같은 령도를 받들어
감격의 파도, 환희의 파도 출렁이며
바다처럼 설레이는 대회장
여기 희망의 등대 높이 솟아
휘황찬란한 우리의 길을 밝혀주나니

시는 과거와 오늘, 미래와의 련관속에서 시인의 체험세계를 폭넓게 개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우리 인민의 영광과 굳은 신념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일반화하고 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0(1981)년 1호〕

《당이여》 서정시. 주체50(1961)년 김북원 창작. 당의 고마움, 당의 높은 권위와 존엄을 칭송하면서 영원히 당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우리 인민의 충정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이 땅의 한송이 꽃도, 한포기의 풀도 당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고 어린 손자도 당의 광망속에 춤추며 머리 흰 사람들도 당앞에서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면서 한없이 따사로운 어머니당의 고마움을 노래하고있다. 시는 당의 뜻은 높고 깊고 거대하며 그 이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이라고 하면서 락동강을 건느던 그때처럼 영원히 당의 기치따라 나아가리라는 결의를 토로하고있다. 시에는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이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반영되여있으며 당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모든것이 있다는 사상을 천명하고있다. 시는 서정이 진실하고 소박하고 절절하며 당을 두고 느끼는 체험세계를 개성적으로 특색있게 밝혀낸 형상적특성을 보여주고있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당이여 내 그대를 따르는것은》 서정시. 주체77(1988)년 김정곤 창작. 어머니당앞에 충정을 맹세한 전사의 신념과 자각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행복과 안일을 위하여 당을 따르는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당의 부름에 파도높은 날바다, 허리치는 진펄길을 헤쳐온것은 무엇때문인가를 보여주고있다. 시에서 서정적주인공—시인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억척같이 걸어온 당의 자욱자욱, 이 땅의 아들딸들을 세계의 창조자로 내세워주고 주체탑의 영원한 봉화를 지펴올려 조선을 세계의 중심에 안아올리며 걸어온 우리 당의 로정을 격조높이 노래하고나서 《그대가 지새는 밤과 밤을 단 한순간이라도, 그대가 헤쳐가는 그 길을 단 한치라도 나를 바쳐 대신》하고싶어 당을 따르는것임을 절절하게 토로하고있다.

오! 당이여
이 뛰는 심장도 순간에 바쳐
그대 붉은 기폭에 내 물들고싶어
나는 그대를 따르는것이다
나는 그대의 아들이 된것이다

시는 앙양된 정서적체험을 절절하고 격조높은 서정적형상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1980년대시선》, 문예출판사, 주체79(1990)년판〕

《당이여 언제나 그대 위해》 서정시. 주체68(1979)년 석광희 창작. 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어머니의 젖가슴에 안겨 만시름을 잊고 자는 아이처럼 당의 품에 모든것을 맡기고 사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당은 공기나 해빛과도 같이 더없이 소중한 존재라고 노래하고있다.

하고싶은 말과 간절한 생각을
고르고 고르고 또 골라도
달리는 더 말할수 없는 마음
오직 한마디 진정을 담아 부르노라
영광스러운 당이여
그대는 우리 삶의 모든것!

시에서는 오직 당이 있기에 천만의 심장도 있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하고 그 어느 초소에 가있어도 《그대를 지켜 가장 가까이 서있는 정문보초의 충직한 마음이 되여 내 작은 심장도 언제나 불타오르리》라고 충정의 맹세를 토로하고있다. 시는 비유의 수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시적화폭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펼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8(1979)년 10호〕

《당이여, 우리는 그대가 준 심장을 지녔다》 서정시. 주체47(1958)년 김학연 창작. 사람들의 가슴마다 크나큰 담력과 무한한 청춘의 열정을 안겨주고 창조와 혁신에로 고무해주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신뢰와 칭송의 감정을 감동깊이 노래한 작품이다.

내 어느 깊은 밀림에서
키를 넘는 덤불을 헤친다 하자,
내 그 깊은 밀림에서
한쪼각의 하늘마저 잃었다 하자,
달도 별도 한쪼각의 하늘도
나에게는 정녕 없다 하자,
그러나 나는 두렵지도 외롭지도 않으려니
그대가 준 심장이 나에게 있는 한…

시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터치고있는 서정적주인공은 구체적인 생활과 결부시켜 정서깊은 세계를 펼치면서 우리 인민의 모든 힘의 원천은 바로 당의 현명한 령도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시에서는 우리의 모든 영예도 당이 준 《심장이 있어 높은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심장에 생명을 주고 우리 청춘에 날개를 돋게 한 당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다. 그러면서 제1차 5개년계획의 《위대한 생활의 도표》를 펼친 당의 부름따라 이 땅에 인민의 리상이 꽃핀 사회주의조국을 아름답게 건설하며 당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굳은 의지를 강렬하게 토로하고있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당에 드리는 노래》 서정시. 주체67(1978)년 김상오 창작. 우리 당의 위대성과 당에 대한 인민의 뜨거운 충정의 맹세를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에 대하여 느끼는 서정적주인공의 숭엄한 사상감정을 노래하면서 식민지노예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미제를 때려부시였으며 재더미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조선혁명의 뇌수이며 심장이라고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자랑하노라!
오직 자기의 뇌수로 사고하고
자기의 심장으로 느끼고
자기의 의지로 행동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슬기롭고 강력한
불패의 주체의 당임을

시에서는 당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없고》 《우리의 존재는 무의미한것》이라고 하면서 당의 두리에 더 굳게 뭉쳐 영원히 당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를 터치고있다. 시는 높은 격조로써 서정적일반화를 실현하였으며 힘있고 박력있는 시어들을 구사하였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당의 기치따라》 가사. 주체45(1956)년 집체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과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사회주의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신념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고있으며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조선로동당은 불패의 힘을 지닌 강철의 당이라는것을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2절과 3절에서는 이 땅우에 천리마의 새시대를 펼쳐놓고 세기를 앞당기며 조국의 번영과 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을뿐아니라 온 세상에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을 뿌리여 세계 혁명적당들의 영광의 기치로 자랑떨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빛나는 업적과 위대성을 격조높이 찬양하고있다. 가사의 후렴에서는 우리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의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고 격동적인 시적표현과 깊이있는 예술적일반화로 노래한것으로 하여 당을 노래한 송가의 대표작의 하나로 되고있다. 〔《조선음악전집》 1,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당의 숨결》 서정시. 주체47(1958)년 최영화 창작. 모든 사람들을 창조와 위훈에로 불러주고 떠밀어주는 당의 현명한 령도와 당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우리 인민의 무한한 신뢰와 충정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서정적주인공은 구내의 어느 일터, 어느 구석에서 작은 나사못 하나를 조여도 어머니처럼 일러주는 당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서 모든것이 하나로 숨쉬는 당의 숨결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나는 행복하구나 언제나 나의 심장엔
온 땅우의 힘—당의 숨결이 고동치기에!
나는 살수 없구나, 언제나 그것없이는
나의 삶의 영원한 봄—당이 없이는!

시는 집약되고 함축된 시적구성속에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뚜렷이 구현하였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당의 품은 우리 사는 집》 가사. 주체72(1983)년 리정술 창작. 온 나라 인민이 운명을 맡기고 사는 우리 당의 품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3개의 절과 결속구로 되여있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누구나 세상에 태여나 정답게 안기는 요람, 인생의 첫걸음을 떼여주고 한생을 혁명가로 값있게 살도록 손잡아 이끌어주는 위대한 우리 당의 은정과 사랑을 뜨거운 칭송의 감정으로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이 나라 수천만 아들딸들이 한마음으로 우러러따르며 운명을 맡기고 사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충정을 다해 받들려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우리 당의 품에 모든 운명을 맡기고 하나의 대가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활감정을 정답고 부드러우면서도 절절한 시적정서로 깊이있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가요로 형상된 후 사람들의 사랑속에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조선가요 20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당원》 단편소설. 주체46(1957)년 박훈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생명을 바쳐 자신이 맡은 당적분공을 훌륭히 수행한 어느 광산의 한 당원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후퇴명령을 받고 광산설비를 소개하고난 주인공 장손아바이는 당위원장으로부터 굴진공 경수와 함께 2호갱마구리를 폭파하고 약속된 장소에 도착할데 대한 임무를 받는다. 하지만 그는 경수가 마지막폭약상자를 가지러 간 사이 광산에 달려든 미국놈들에게 잡히게 된다. 적들은 설비를 감추어둔 곳을 알아내려고 모진 고문을 들이대지만 그가 입을 열지 않자 그를 포탄과 휘발유를 부리우는 작업에 내몬다. 임무를 수행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장손아바이는 놈들의 요구에 응하는척 하면서 휘발유통과 포탄상자들을 쌓아놓은 2호갱앞으로 올라간다. 이럴 때 다른 동무를 데리고와서 갱을 폭파하려고 기회를 보던 경수는 장손아바이를 보자 그가 변절한줄 알고 격분한다. 이때 적들에게 금돌광석표본을 안겨주고 담배와 라이타를 받아든 장손아바이는 날쌔게 도람통뚜껑이 열려져 쏟아져나오는 휘발유에 몸을 적신 다음 포탄상자로 달려가 몸에 불을 단다. 갱앞은 삽시에 불바다로 변하며 모여들었던 적들은 터지는 포탄에 무리로 쓰러진다. 그때에야 경수는 장손아바이의 희생성에 머리를 숙이며 일시나마 그를 오해했던 자신을 뉘우친다. 작품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어떤 어려운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자기가 맡은 임무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수행하는것이 우리 당원들의 품성이

라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작가학원 제3기생창작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6(1957)년판〕

《당원》 단편소설. 주체50(1961)년 김북향 창작. 입당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애쓰는 한 일군의 풍모를 그린 작품이다. ㅊ세멘트공장에서 일하는 강문수가 과오를 범했다는 소식을 들은 주인공 김기순은 입당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800리길을 걸어 그를 찾아온다. 당위원장을 만나 사연을 들은 기순은 직장에 내려와 문수가 속해있는 제조당단체의 위원장과 함께 그가 사고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제조송입기를 돌아본다. 그리고나서 기순은 문수를 만나지만 로동시간이라고 하면서 말없이 일을 도와준다. 그때에야 문수는 입당보증인이 자기때문에 먼 길을 왔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날 작업이 끝난 후 기순은 문수에게 3년전 철탑건설장에서 입당보증을 설 때의 이야기를 해주며 그가 아직도 공명주의를 고치지 못한데 대하여 비판해준다. 그리고 문수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사상적병집을 뿌리뽑아주려는듯 그의 고집으로 하여 조립되였다가 해체된 송입기를 파철더미로 가져간다. 그때야 문수는 입당보증인의 진정어린 마음에 머리를 숙이고 당생활을 량심적으로 해나가리라 결심한다. 이튿날 기순은 문수가 앞으로 훌륭한 당원이 될것을 바라며 공장을 떠난다. 작품은 김기순의 형상을 통하여 입당보증인이란 자신이 보증한 당원의 당생활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가장 가까운 혁명동지라는것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당원들로 뭉친 우리 당은 언제나 전진하며 백전백승한다는것을 확증하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0(1961)년 제46호〕

《당원》 서정시. 주체68(1979)년 리금녀 창작. 조선로동당원의 긍지와 영예를 노래한 작품이다. 전사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낮에는 밭김을 매고 밤에는 폭탄구뎅이를 메우던 어머니가 당원이 되였을 때 아직 철없던 서정적주인공은 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다는 알수 없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서정적주인공도 땅의 주인이 되여 당의 고마운 사랑을 가슴뿌듯이 느끼며 당원이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심장으로 깨닫고 대지에 입당청원을 새겨간다. 시에서는 그처럼 소원하던 당원이 된 긍지를 높이 자랑하면서 투쟁의 한길에서 혁명선렬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당원의 영예를 빛내여나갈 불타는 결의를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다. 작품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서정적주인공 나의 관계로 맺어지는 비교적 긴 시기의 이야기를 함축하여 시화하고 정서적화폭을 흥미있게 펼쳐나간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8(1979)년 10호〕

《당원》 서정시. 주체76(1987)년 박호범 창작.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받들어 충정다하려는 조선로동당원의 높은 자각과 뜨거운 맹세를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 서정적주인공은 세월이 흘러 머리는 희여져도 자기의 당원증번호는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당원은 백에서 하나를 떼면 백이 무너지는 성새의 성돌과도 같고 산병선의 병사와도 같다고 토로하고있다. 시에서는 사람의 나이에는 끝이 있어도 당원의 나이는 당을 지키는 그 구간과 함께 끝이 없다고, 단결의 중심인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받들자고 당원인 내가 있고 우리가 있다고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시는 당원이라는 고귀한 칭호에 담겨진 의미를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고있으며 높은 격조와 정론적기백을 보여주고있다. 〔《1980년대시선》, 문예출판사, 주체79(1990)년판〕

《당원들 앞으로!》 서정시. 주체77(1988)년 변홍영 창작. 사회주의건설의 진군로를 열어나가는 돌격전의 제1선에 당원들이 설것을 호소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탄우가 울부짖는 결전장에서 높이 울렸던 《당원들 앞으로!》라는 말이 200일전투가 벌어

지는 이 시각 다시 울린다고 하면서 조국의 앞날을 펼치며 당중앙창가에 불빛이 꺼질줄 모르는 이때 《누가 불을 끄고 잠들수 있느냐》고 힘있게 토로하고있다.

오, 당과 생사를 같이할
숭고한 자각이
우리의 가슴에서
웨친다
—당원들 앞으로!

시에서는 《당원들 앞으로!》가 우리 혁명투쟁의 력사적행정에서 자랑높이 울려퍼진 구호라고 강조하고나서 《당중앙을 지켜나선 전사는 비바람을 더 맞아도 행복, 험한 길 더 걸어도 영광》이라는 신념을 안고 사회주의건설의 진군로를 열어나가는 돌격의 1선에 당원들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고있다. 시는 《당원들 앞으로!》라는 구호에 의탁하여 시상을 폭넓게 펼치고있으며 높은 정론적 격조와 호소적인 언어형상을 보여주고있다.
〔《1980년대시선》, 문예출판사, 주체79(1990)년판〕

《당원증》 영화문학. 리철호 창작. 희생된 분대장을 대신하여 한생토록 당원의 고결한 넋과 깨끗한 량심으로 살아온 한 탄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삿갓봉 탄광지구의 갱장이며 로력영웅인 배석인(본명 김정식)은 아들이 입당심의를 빨리 받기 위해 다른 곳에서 하던 채탄기연구를 도중에서 그만두고 돌아왔다는것을 알게 되자 그가 아직 당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하여 주인공은 당위원회에 그의 입당심의를 연기해달라고 제기하며 아들에게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희생된 자기의 분대장과 당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받은 명령만 수행하고 돌아오면 살수 있었지만 고지가 위험에 처하자 한목숨 바쳐 그곳을 지켜낸 당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배석인은 당원이란 조국이 바라는 곳에 자기의 생명을 씨앗처럼 묻을줄 아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당원증을 지닐수 있다고 준절히 타이른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자기의 발전을 막는다고 아버지를 고깝게 생각하며 그가 자기의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이름으로 지금껏 30년동안 살아왔다는것을 알게 되자 오해의 감정까지 품는다. 그러던 그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싸운 전우들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하여 모든 사연을 알게 된다. 배석인은 희생된 분대장의 이름이였다. 고지에서 분대장이 넘겨준 당원증을 안고 군의소로 후송된 그는 당원 배석인으로 등록되였었다. 원쑤들이 떨군 세균탄을 해제하는 전투에 당원들이 나설 때 당원이며 공병인 배석인을 부르자 그는 비당원인 자신이 분대장을 대신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저한다. 그러나 분대장의 안해이며 당원인 라현심군의가 희생되면서 남긴 말, 배석인이 살아있었으면 주저없이 나섰을것이라고 한 그 말에서 충격을 받고 분대장의 이름을 심장에 새기고 전투에 참가한다. 이 나날에 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게 된 그는 한생토록 당원의 고결한 넋을 안고 살 결심밑에 입당한 후에도 당원 배석인으로 살아온다. 이러한 그였기에 전후 석탄전선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받들고 남먼저 이 삿갓봉지구로 달려온것이며 개발이 끝난 후에도 이곳에 영원히 남아 석탄증산으로 당을 받들어온것이였다. 주인공의 아들은 그와 그의 애인이였던 순복이가 말아키운 배석인과 라현심의 아들이였다. 모든 사연을 알게 된 그의 아들은 당원의 자격을 갖추기 전에 서둘러 당원이 되려 했던 자신을 뼈아프게 질책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세대처럼 참된 당원이 될 결심을 다진다. 당원증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새 당원증으로 교부해주던 시기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소행과 지난 기간 그의 공적에 대해 뜻깊은 말씀을 하시면서 새 당원증에 김정식이라는 그의 본명을 올리고 입당날자는 분대장이 희생된 날로 하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다. 작품은

당원의 참모습은 조국을 위해 서슴없이 자신을 바칠줄 아는 고결하고 깨끗한 신념과 량심, 숭고한 당성에 기초한 값높고 영예로운 증표라는것을 감동깊게 밝혀내고있다. 작품은 심각한 극적환경을 조성하고 그속에서 성장발전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진실하게 그려내고있다. 작품은 주체87(1998)년 영화로 제작되였다.

《당원의 눈》 단편소설. 주체47(1958)년 변희근 창작. 한 제대군인청년당원이 모든 문제를 당의 정책적의도와 결부시켜 고찰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하루빨리 기술을 배워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꿈을 안고 흥남비료공장으로 달려온 제대군인 송병수는 기계화가 되여있지 않아 모든 작업을 육체로동으로 감당해야 하는 하조직장에 배치받는다. 이에 불만을 품은 그는 최신식기계로 장비된 다른 직장으로 옮겨갈 생각을 하며 그냥 있을것을 권고하는 애인인 선반공 김봉순을 신경질적으로 대한다. 그러던 어느날 병수는 공장당위원장으로부터 당원은 어느때 어느곳에서나 당적안목을 가지고 할 일을 스스로 찾아내야 하며 그렇지 못하고 개인의 리상과 포부만을 앞세울 때에는 당적인 눈이 흐려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각한 가책을 받는다. 그후 병수는 최대한 절약하고 최대한 증산할데 대한 당의 의도와 정책을 앞장에서 관철하는 당원이 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가다듬고 하조직장에서 진행하는 일들에 관심을 돌려 살펴보는 과정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는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지금껏 하찮게 여겨왔던 문제의 하나인 비료마대를 묶을 때 쓰는 새끼를 절약하는것을 두고 고심하던 끝에 1년에 35t이상의 새끼를 절약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낸다. 그리고 하조작업시 작업반 호상련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하루에 3 000t이상의 비료를 더 실어낼수 있는 시간적예비를 찾아낸다. 병수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직장 한구석에 녹이 쓴채로 있는 비료하조자동화장치를 기어이 완성할 결의를 다진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높은 당적안목을 가지고 당이 요구하는 문제들을 관철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할 때에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날수 있고 당원으로서의 선봉적역할도 할수 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47(1958)년 9호〕

《당원의 심정》 단편소설. 주체67(1978)년 최용작 창작. 작품은 눈앞의 생산성과에 만족하여 새 기술 도입에 무관심한 자기동생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성실히 일하도록 이끌어주는 한 녀성로당원의 모습을 그리고있다. 해방된 해부터 공장에서 건조로관리공으로 일해온 오랜 당원이며 전시공로자인 서분녀는 제관직장의 반장으로 일하는 자기 동생인 창구가 지금 쓰는 800t프레스의 작업능력에 만족하여 로동자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한 1500t프레스의 설계가 완성되였는데도 그 제작에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괴로운 마음으로 동생을 만난다. 분녀는 동생에게 프레스화의 비중을 높여 로동자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실현하는 중요한 일이며 여기에 당원으로서의 참된 삶의 보람이 있다는것을 일깨워주며 프레스제작을 위한 목형을 만드는 주형공들의 일손을 밤새워 도와준다. 현장에서 이것을 목격한 창구는 당원의 깨끗한 충정의 마음은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는것을 깨닫게 되며 프레스의 부분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투신한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당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며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67(1978)년 10호〕

《당원의 영예》 단편소설. 주체57(1968)년 한고갑 창작.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나 전후시기에나 당과 수령을 위하여 남모르게 빛나는 위훈을 세워가는 한 당원을 형상한 작품이다. 작품은 수로굴설 청년근위대 분대장인 선희가 동창생인 무혁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으로 되여있다. 편지에서 선희는 돌바위고지 수로건설공사장에서 전쟁때 큰 위훈을 세우고도 내색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가는 한 로병을 만나 당원의 참된 영예에 대하여 알게 된 사연을 이야기한다. 마감고비에 이른 공사장에 암반이 나타나 힘겨운 전투를 벌리고있을 때 지질탐사대 조사원들이 찾아와 청년근위대원들의 일손을 성의껏 도와준다. 이때 청년근위대고문인 장아바이가 작업장에 올라왔다가 탐사대원들중 전쟁때 자기가 치료해준 《차돌》이라는 애칭만으로 알려져있던 조영구와 감격적으로 상봉한다. 전쟁때 돌바위고지를 끝까지 지켜싸운 영구에 대해 마을사람들은 이름도 모르고있었는데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자기가 세운 위훈을 가슴깊이 간직해두고 조국의 재부를 찾아내는 지질탐사에 묵묵히 성실한 노력을 바쳐왔던것이다. 영구의 모습을 보며 선희는 당원으로서 참답게 살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며 입당청원서를 쓰면서 그 사연을 편지에 적는다. 작품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개인의 명예보다 당과 수령을 위한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자신의 모든것을 거기에 다 바쳐가는데 당원의 참된 영예가 있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7(1968)년 10호〕

《닻은 올랐다》 장편소설. 주체71(1982)년 김정 창작.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한권이다. 주체14(1925)년초부터 주체15(1926)년말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민족수난의 시기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활동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전, 후편으로 구성되여있는 소설은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여 바다오거우(팔도구)에 이르신 김성주동지께서 그리운 어머님과 회포를 나누실 사이도 없이 그날 밤으로 어린 두 동생과 함께 린쟝(림강)으로 떠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말파리를 타고 린쟝(림강)으로 가시는 도중에 김성주동지께서는 압록강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조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짓는 류랑민들을 보시면서 나라찾을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신다. 그후 푸쑹(무송)에 오신 김성주동지께서는 아버님의 발기로 설립되는 백산학교건설을 도우시고 애국주의사상을 부단히 체득하시는 한편 패권싸움으로 허송세월하는 민족주의운동자들과 당시 독립운동의 실태를 보시면서 조선혁명의 참다운 길을 모색하신다. 이러한 때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김형직선생님께서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나신다. 김성주동지께서는 새로운 투쟁의 길을 개척할 굳은 결심을 안으시고 화디엔(화전)으로 가시여 의숙에 입학하신다. 그러나 의숙에서 진행되는 군사학을 비롯한 여러 과목들의 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여 새로운 과목,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스승들을 안타까이 그리시던 김성주동지께서는 자체의 힘으로 새것을 찾으실것을 결심하시고 그 첫걸음으로 공산주의서적들을 정열적으로 탐독하신다. 김성주동지께서는 날로 기울어져가는 독립운동의 실태를 두고 고민하는 림소영을 고무해주기도 하시고 리광수의 《민족개조론》에 귀를 기울이는 의숙생 리효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도 하시며 일부 모험주의적행동에 대하여 비판도 하신다. 이무렵 김성주동지께서는 군사교관 박인석의 무모한 모험주의영향하에 국내원정을 떠났던 의숙생 조기영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하여 산만하고 자연발생적인 독립군의 투쟁방법으로써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으며 새로운 로선과 전략이 없이는 독립운동이 단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으신다. 그날 밤 김성주동지께서는 쑹화(송화)강가에서 최창걸, 리무성, 리효, 박두학, 리제우, 조학봉, 계영춘 등 새 사조를 신봉

하는 학생들의 모임을 소집하시고 그것을 연구보급하여 조선혁명의 진로를 탐색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독서회를 조직하신다. 그런데 군사교관 박인석과 일부 의숙생들은 국내원정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또다시 원정을 준비한다. 림소영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새 사조를 질시하는 박인석의 사상이 새것에 저항하는 장애물이라는것을 알게 된 후 그를 사랑하면서도 단호하게 결별한다. 김성주동지께서 지도하시는 비밀독서회의 영향밑에 많은 학생들이 새 사조에 공감을 표시하자 학교안의 교원들은 이를 저지시키려 한다. 바로 이러한 때 의숙과 민가네 패와의 싸움에서 리무성이 희생되는 참극이 벌어지며 여기에서 동족상쟁의 비극을 목격하신 김성주동지께서는 파쟁을 일삼는자들과 영원히 결별하시고 자신의 신념으로 선택한 새 길, 조선혁명의 참다운 길을 개척해나갈 불같은 결심을 다지시고 공산주의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다. 소설은 활동무대를 더욱더 넓혀나가시기 위하여 김성주동지께서 의숙을 중퇴하시고 각이한 시대사조들이 모여드는 지린(길림)으로 떠나시는 장면으로 끝난다. 작품은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을 전후한 시기의 사회력사적현실과 각이한 인물들의 성격을 서사시적화폭속에 재현하면서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약점을 심각히 분석총화하시고 새로운 시대사상을 신념으로 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심으로써 자주위업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대한 풍모를 빛나게 형상하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더 높은 곳으로》 단편소설. 주체64(1975)년 조명기 창작.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안고 새로운 혁신을 이룩해가는 나어린 기중기운전공처녀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곡산공장건설전투장으로 달려나온 옥심은 이제 겨우 기중기운전공견습을 마친 신입공이였지만 자기에게 견습을 준 손꼽히는 기능공 경애처럼 혁신자가 될 목표를 세우고 아글타글 노력한다. 그러나 경애는 조립속도는 운전공의 기능과 함께 중요하게는 조립공의 능력에 달렸다고 하면서 계획의 200%수준을 유지하는데 만족한다. 하기에 그는 침지마쇄직장건설을 7일동안에 끝내기 위한 협의회에서 유능한 조립공인 근석을 자기에게 붙여달라고 제기한다. 옥심은 이미 이룩해놓은 명예나 자랑을 손색없이 지키는것으로 만족하는 경애의 그릇된 사고방식을 비판하면서 기능이 그리 높지 못한 철은과 함께 조립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도를 찾고 이악하게 노력하여 마침내 경애네 조보다 조립량을 초과수행한다. 작품은 옥심의 형상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 시대 청춘들의 보람찬 투쟁의 길에는 그 어떤 답보나 침체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속도전〉의 불길》, 문예출판사, 주체64(1975)년판〕

《더 높이 더 빨리》 가사. 주체90(2001)년 황진영 창작. 강성부흥의 리상을 안고 거창한 창조와 변혁, 영웅적위훈과 기적으로 들끓는 우리 조국의 벅찬 현실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에서는 붉은기 휘날리며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혁명의 노래 부르며 부강조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높은 정치사상적각오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과학기술의 최첨단을 우리 식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통이 큰 작전으로 대담한 변혁을 이룩해가는 조국땅우에 세차게 휘몰아치는 혁명의 열풍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또한 선군의 총대우에 천만이 굳게 뭉친 위력한 힘으로 비약의 나래를 솟구쳐 더 좋은 락원을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의 원대한 포부와 지향을 보여주고있다. 가사에서는 후렴구에서 올라도 더 높이, 달려도 더 빨리 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펼침으로써 사회주의 내 나라를 세상에 우뚝 일떠세

울 우리 인민의 철석의 의지와 확고한 신념을 기백있고 랑만적인 서정으로 잘 펼쳐보이고있다. 〔《조선노래대전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덕지강의 아들》 중편소설. 주체71(1982)년 전기영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고향땅을 지켜 용감히 싸운 소년들의 영웅적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주인공 서강성은 북대봉수림속에서 인민유격대를 뭇고 싸우는 아버지를 찾아 산속으로 들어가며 그곳에서 유격대에 편입되여 싸우게 된다. 고향마을에 기여든 미제침략군놈들은 일제때 이곳 대지주였던 임덕구의 아들 임왈초놈을 《치안대》대장으로 내세우고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는 한편 개교음모를 꾸며 어린 아이들을 학교로 내몬다. 이러한 때 강성은 마을사람들을 각성시키고 동무들을 묶어세울데 대한 임무를 받고 고향마을로 내려온다. 소설에는 마을에 도착한 그가 친한 동무인 창수와 함께 놈들의 개교음모를 역리용하여 동무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그려져있다. 강성은 창수, 진항, 웅삼, 근우 등 소년단원들과 함께 모임을 열고 놈들과 싸울 결의를 다진다. 강성을 비롯한 19명의 어린이들은 학교에 등교하는 기회를 리용하여 동무들을 단합시키고 삐라공작을 통하여 고향사람들과 아이들을 각성시킨다. 또한 적정에 대하여 수시로 유격대에 알리며 《치안대》대장 임왈초와 그에 붙어먹는 차승패놈에게 협박장을 보내는 등 대담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간다. 특히 강성은 미제침략군놈들이 공화국북반부의 전지역을 완전히 점령하였다고 하는 거짓선전을 발가놓기 위해 삐라를 붙이며 녀학급의 학급장인 솔메가 만들어온 공화국기를 학교현관앞의 게양대에 띄워 놈들을 전률케 한다. 강성은 소년단원들을 굳게 묶어세워 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벌리는 한편 놈들의 행패가 무서워 투쟁에 나서지 못하는 소년들을 교양하여 투쟁대오에 망라시킨다. 읍해방전투를 앞두고 기관구폭파임무를 수행하던중 불행하게도 놈들에게 체포된 강성은 놈들의 야수적인 고문에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소설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슬기롭고 용감하게 자라난 조선소년단원들의 성격적특질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였다. 작품은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게 이야기줄거리를 5개의 편으로 나누어 알기쉽고 명백하게 주고있으며 어린이들의 생활을 다양하고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덕흥나그네》 단편소설. 주체70(1981)년 정창윤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파묻었던 전동기들을 전후에 끝까지 찾아내여 복구되는 공장에 보내는 한 로동자의 헌신적인 투쟁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그때 그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나의 시점에서 회상수법으로 씌여졌다. 전후 한 객주집에 세사람의 나그네가 든다. 사리원에서 온 장사군과 탄광에서 동발목을 가지러 온 인수원 나 그리고 공장복구를 위하여 후퇴시기 파묻었던 전동기를 찾으러 온 덕흥기계공장의 로동자이다. 덕흥나그네라고 불리우는 그 로동자는 전동기들이 장부책에 등록되지도, 그 누가 따지지도 않는것이였지만 마지막 한대까지 찾기 위하여 산판을 다니며 고생한다. 한편 사리원장사군은 돈푼이나 쓰면서 풍청대며 나도 동발감 몇대를 주인집에 주고 후한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덕흥나그네는 사리원장사군이 유혹하는대로 전동기 한대만 팔아도 객주집에서 환대를 받으며 편히 지낼수 있었지만 온갖 수모와 고생을 참아가며 전동기를 찾아 고스란히 복구되는 공장에 보낸다. 그러던 어느날 작업도중에 다친 손에 파상풍이 들어 그는 운명한다.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에 그는 나에게 국가물자를 가지고 더는 선심쓰지 말라고

당부한다. 소설은 이러한 덕흥나그네의 형상을 통하여 자기자신의 리익보다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그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것이 바로 로동계급의 깨끗한 량심이라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의의있는 문제를 각이한 세 인물의 대조적인 성격속에서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0(1981)년 5호〕

《도라지꽃》 영화문학. 리춘구 창작. 나서자란 고향을 귀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며 살기좋은 락원으로 꽃피우기 위하여 청춘도 사랑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 한 처녀를 형상한 작품이다. 작품은 고향을 버리고 떠났던 박원봉이가 아들 세룡이를 데리고 27년만에 고향을 찾아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휴식참에 원봉은 아들이 캐여온 도라지꽃을 받아들고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꾸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고향처녀 진송림을 생각하게 된다. 송림의 고향인 벽계리는 1950년대까지만 하여도 초가집들이 아직 남아있고 전기불도 없는 심심산골이였다. 그러나 송림은 뜨거운 향토애를 지니고 고향을 행복의 락원으로 꾸려가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한다. 그는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나가자는 애인인 원봉의 요구를 물리치고 험한 산발에 전주대를 세워 전기를 끌어들이고 한겨울에 채석장을 만들어놓고 돌기와를 생산하여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개조하며 버들숲을 옥답으로 풀고 뚝을 막아 양어장도 꾸려나간다. 이러한 때 고향을 떠났던 원봉이가 5년만에 다시 돌아와 도시로 나가 벽계리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멋들어지게 살아보자고 한다. 그러나 송림은 《강냉이밥에 토장국을 먹어도 나서자란 고향에서 살겠》다고, 《남의 집에 가서 이밥에 고기국을 얻어먹느니 제 고장에서 제 손으로 가꾼 강냉이밥으로 보람을 느끼고싶다》고 말한다. 심산속에 피여나는 도라지꽃처럼 고향땅에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헌신적으로 일하던 송림은 태풍이 몰아치는 어느날 고향의 재부인 한마리의 어미양을 구원하려다가 희생된다. 고향에 대한 쓰라린 추억을 안고 단 하루도 마음편한 날이 없던 원봉은 뒤늦게나마 자신을 뉘우치고 아들을 고향땅에 영원히 뿌리내리게 하기 위하여 찾아오는것이였다. 세룡은 마을사람들앞에서 아버지의 속죄편지를 실토하며 제 둥지를 버리고 날아가버리는 계절조처럼 살지 않을 굳은 결의를 다진다. 작품은 진송림과 박원봉의 대조적인 형상을 통하여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며 잘 가꾸는 사람만이 진정한 애국자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76(1987)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도성소대장과 그의 전우들》 중편소설. 주체44(1955)년 윤세중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인민군주력부대와 합세하여 새로운 반공격으로 넘어가는 어느 한 인민군소대전투원들의 영웅적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은 락동강을 넘어섰던 도성소대장과 그의 대원들이 후퇴의 길에 올라 이천지방에 도착하는데로부터 시작된다. 도성소대장은 적후의 준엄한 환경에서도 소대에 강한 혁명적규률을 세우고 전투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대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한다. 지하리전투에서 전투력을 시위한 소대는 신계지구에서 또다시 미국놈들의 땅크를 모조리 파괴한다. 인민군부대들의 재진공과 적후부대들의 맹렬한 군사활동에 질겁한 적들은 패주하기 시작한다. 전투마다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둔 소대전투원들은 재진공해온 부대들과 합동하여 38도선을 지나 또다시 락동강을 건늘 기세로 진격한다. 가렬한 전투의 나날 도성소대장은 대원들의 리상과 꿈을 더욱더 키워주며 그들을 강철같이 단합된 하나의 전투대오에 굳게 묶어세운다. 소설은 도성소대원들이 적들의 전략적요충지인 490고지를 탈환한데 이어 주력부대와 련합하여 반공격에 넘어가기 위해 적

들이 도사리고있는 950고지탈환전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것으로 끝난다. 소설은 엄격한 인민군지휘관으로서의 도성소대장과 전투적기백으로 충만된 소대원들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의 배후에 제2전선을 형성하고 적후투쟁을 벌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미제와의 싸움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성, 불굴의 투지를 발휘한 인민군전사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깊이있게 밝히고있으며 그들이 발휘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한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되고있다.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4(1955)년판〕

《도솔봉》 단편소설. 주체42(1953)년 리갑기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투에서 중상을 당한 후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오른 한 의용군병사의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남정우는 중상을 당한 자신이 후퇴하는 동무들에게 짐이 될가봐 처음부터 분대장에게 떨구고 가줄것을 요구하지만 분대장은 담가에 누워가는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극진히 보살펴준다. 행군이 계속되던 어느날 정우는 휴식하게 된 집이 자기의 집이라는것을 알게 된다. 그는 분대원들에게 밥을 해주고 시중을 들어주는 어머니와 형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가봐 붕대를 감은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 이때 집에 왔던 반동분자인 삼촌이 인민군대를 보고 경찰서로 뛰여가자 정우는 어머니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일제놈들과 싸우다가 희생된 아버지와 형님처럼 살것을 당부한 후 분대원들과 함께 집을 떠난다. 이튿날 아침 자기의 삼촌을 처단하고 온 분대장으로부터 어머니를 만났던 이야기를 들은 그는 하루빨리 일어나 남녘땅을 해방하기 위한 싸움에 앞장설것을 맹세하며 북으로 향한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싸움에 나선 병사는 자기의 신념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리갑기단편집 《도솔봉》,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6(1957)년판〕

《도시처녀 시집와요》 영화문학. 장유선 창작. 보천보전자악단에서 창조한 가요 《도시처녀 시집와요》를 상으로 하여 날로 변모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문화농촌의 모습을 랑만적으로 형상한 작품이다. 작품은 모내기철에 도시처녀 리향이 농촌지원을 나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인물 잘나고 깐진 일솜씨로 하여 공장에서 사랑받던 그는 농사일도 잘한다. 성식의 어머니는 처녀의 일솜씨와 외모를 보고 그를 며느리로 삼았으면 하고 욕심내며 부직장장 광호는 리향과 성식을 결합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리향은 소고를 치며 100여마리가 넘는 오리떼를 몰고다니는 성식의 진정을 리해하지 못한데로부터 그를 멀리한다. 하지만 당의 뜻을 꽃피워나가려는 성식과 리향의 깨끗한 마음은 어쩔수없이 서로 진심을 리해하고 공감하며 뜻을 합쳐가는 길에 들어선다. 성식은 사회주의농촌테제를 관철하여 농장을 살기좋은 리상촌으로 만들려고 아글타글 노력하는 청년이며 리향은 이렇게 앞날에 대한 리상과 포부를 가진 청년이라면 그가 누구든 일생을 같이할 아름다운 사랑관을 가진 처녀이다. 리향은 메탄가스시험의 실패원인을 찾아내고 오리들을 계속 키우면서 자체의 힘으로 고향을 꾸려나가는 성식이의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고 그를 존경하게 되며 자신도 이 농장에 절실히 필요하다는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리향은 성식을 진심으로 도와나서며 이들은 사회주의농촌테제를 관철해나가는 길에서 서로 동지적으로 굳게 결합된다. 작품은 우리 당의 뜻을 꽃피우는 길에 청춘을 참답게 꽃피워나가는 길이 있다는 공통된 리상으로 하여 도시처녀 리향과 농촌청년 성식의 사랑이 맺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다운 리상과 행복은 어디에 있으며 청춘남녀들의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

는가 하는 물음에 심오한 해답을 주고있다. 작품은 주체82(1993)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도중역에서》 단편소설. 주체73(1984)년 김영길 창작. 한생을 후회가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한 기관사를 형상한 작품이다. 《붉은기501》호 기관사인 나는 수백t의 짐을 더 끌것을 발기하고 기관조사 박철과 함께 시발역인 ㅅ역을 떠나 위험한 구간을 무사히 통과하여 도중역인 ㅈ역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나는 다음교대 승무원들에게 기관차를 인계해주려다가 문득 어제 저녁에 있은 일을 생각한다. 한장의 그림도 완성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되는대로 그리다만 아들을 책망하던 안해의 말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난 시기 무슨 일에서나 시작만 해놓고 끝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보게 된다. 이런 일본새가 자식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 나는 도중역에서 내릴것이 아니라 다음교대 승무원들과 함께 종착역까지 가기로 마음다진다. 이런 결심을 한 나를 따라 자기 애인이 기다릴것을 생각하며 우물쭈물하던 기관조사도 차가 떠날무렵에 선뜻 기관차에 오른다. 종착역까지 무사히 짐을 싣고갔던 나는 돌아올때 박철에게 ㅈ역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기차에 오르게 되였는가고 묻는다. 그러자 그는 량심이 도중역에서 혼자 떨어질수 없게 하였다고 한다. 소설은 나와 박철의 형상을 통하여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깨끗한 량심을 지녀야 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무조건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위훈》,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3(1984)년판〕

《도하장부근》 단편소설. 주체72(1983)년 석윤기 창작. 인민군련합부대의 도하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인민군대의 동기기동훈련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는 속에 한 련합부대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훈련강령을 최종적으로 결속할 도하작전과 포위섬멸전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석권대장과 함께 도하장부근에 나오시여 지형을 료해하신다. 강가에서 한 정찰병을 만나신 그이께서는 그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전에서와 같이 용감하고 인내성있게 행동한데 대하여 못내 만족해하신다. 밤 12시에 최종정황이 제시되고 각 군종, 병종 부대들에 명령이 하달된다. 주공을 담당한 한주렬소속부대에서는 정찰자료에 근거하여 강우의 얼음을 리용하여 도하를 신속히 결속할 작전을 세운다. 이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경험을 지휘관들에게 상기시켜주시면서 실전과 같은 정황에서 훈련을 진행하도록 깨우쳐주신다. 그리하여 도하훈련은 적이 얼음을 파괴할수 있는 정황을 예상하여 얼음이 깨여진 강우에서 진행된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 정황속에서 인민군부대들은 도하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훈련을 보아주시고 실전과 같이 훈련을 진행한데 대해 만족해하신다. 이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모든 성과를 전사들의 공로로 높이 평가하고 내세워주신다. 작품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인민군대를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령장이시며 그이의 손길아래서 인민군대가 일당백의 강군으로 자라났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조선의 행복》, 문예출판사, 주체72(1983)년판〕

《도끼장군》 동화. 주체44(1955)년 리원우 창작. 임진조국전쟁시기 우리 인민이 발휘한 애국주의정신을 보여준 작품이다. 평양에서 30리 서북쪽에 있는 대동군 룡흥리땅인 도끼메부산땅 밋모루개언덕에 서있는 키가 9자나 되는 돌로 쪼은 장군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씌여졌다. 옛날 도끼메부산땅에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한 총각이 살고있었는데 그에게는 어머니와 진

달녀라는 사랑하는 처녀가 있었다. 그들은 쨰지는듯 한 가난으로 하여 함께 살지 못하고 서로 헤여져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느날 우리 나라에 쳐들어온 왜놈들이 도끼메부산땅에까지 기여들자 분노한 총각은 어머니와 진달녀 그리고 마을사람들과 고향땅을 지키기 위해 도끼를 무기로 삼고 원쑤와의 싸움에 나선다. 총각이 도끼를 둘러치며 적들의 한복판으로 뛰여들자 사방에서 번개가 일고 뢰성벽력이 치기 시작하였으며 참나무몽둥이를 든 젊은이들이 용사들로 변하여 뛰여나오기 시작한다. 적과의 격전에서 총각이 적의 화살에 맞아 쓰러지자 분노한 인민들이 무서운 힘으로 들고일어났으며 이에 떠받들려 쓰러졌던 총각은 하나가 둘로, 둘이 넷, 넷이 여덟, 여덟이 열여섯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여 한명의 도끼장수가 2 000여명으로 불어나 적들을 삽시에 물리친다. 싸움이 끝나자 2 000여명의 도끼장수들이 한명의 총각으로 변하였고 그는 그리운 어머니와 사랑하는 진달녀를 만나 행복의 다락집에서 오래오래 살았다. 작품은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는 동화적환상을 통하여 원쑤와의 싸움에서 하나로 뭉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애국주의정신을 흥미있게 보여주고있다. 〔민주청년사, 주체44(1955)년판〕

《돈지갑》 단편소설. 주체90(2001)년 강귀미 창작. 한 재일조선인귀국동포가정의 수난많던 어제와 행복한 오늘을 그린 작품이다. 시집온 첫날 집안정돈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한 나는 옷장에서 명주천으로 싸놓은 낡은 돈지갑 하나를 발견한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그 돈지갑은 시할아버지가 사용하던 것이라 한다. 살길을 찾아 일본으로 건너간 시할아버지는 돈을 벌어야 아들을 공부시킬수 있다고 결심하고 무명천으로 돈지갑을 만들어 허리춤에 달고는 돈을 벌어 그 돈지갑에 넣는다. 1년동안 돈을 벌었으나 아들을 학교에 보내기는 고사하고 돈지갑은 소매치기당하며 시할아버지는 자동차에 깔려 한많은 세상을 떠난다. 홀로 남게 된 시아버지는 시할아버지가 남긴 돈지갑을 안고 가요 《집없는 천사》를 부르며 여기저기 헤맨다. 겨우 토굴 하나를 발견했으나 그안에는 이미 세찬이라는 조선사람이 자리를 잡고있어 그와 동거살이를 한다. 두사람은 돈을 벌어 집을 사자고 약속한다. 그러던 어느날 간또대지진이 일어나 일본《천황》의 칙령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여 조선사람들에 대한 대학살만행이 진행된다. 놈들은 각 검문소들에서 15원 15전을 일본말로 발음하게 하고는 잘못하면 조선사람이라고 하면서 즉시 죽여버린다. 세찬이라는 시아버지 친구도 이 발음을 못해 일제놈들의 칼에 맞아 쓰러진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시아버지는 너무 배가 고파 어느 한 집에 들려 먹을것을 청하였으나 5원발음을 잘못해 조선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 거절당한다. 나라가 해방되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무어주신 총련이 결성된 후에야 시아버지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게 된다. 시아버지는 총련의 일이자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총련에 자금이 요구되자 평생 고생끝에 마련한 자기 집을 서슴없이 팔며 그 돈을 시할아버지의 유물인 돈지갑에 불룩 채워서 총련본부에 바친다. 나의 남편과 시형님들이 귀국한 후 어머니조국은 돈 한푼 받지 않고 대학공부를 시켜주며 그 사랑, 그 은정이 고마와 시아버지는 90살이 넘어서까지 파철을 모아 강철전선에 보내준다. 소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빛내여가시는 내 조국이야말로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존엄과 권리를 지켜주며 그들을 따뜻이 품어주고 보살펴주는 행복의 보금자리라는것을 확증하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90(2001)년 12호〕

《돌격대원들의 하루》 단편소설. 주체79(1990)년 림길명 창작.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창발성을 가지고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북부철길전기화공사장 건설자들의 생활을 보여준 작품이다. 돌격대중대장 영복은 3일동안에 운반해야 할 골재작업량이 중대앞에 떨어지자 우에서 받은 임무를 대원들에게 되받아넘기고 무조건 돌격구령만 주는 시중중대장과는 달리 전투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면밀한 작전을 세운다. 그는 마침내 돌격대원들의 등짐으로가 아니라 류벌사업소의 떼목을 리용하여 골재를 나르게 함으로써 려단에서 정해준 3일간의 아름찬 과제를 단 하루에 끝내게 한다. 작품은 두 중대장의 대조적인 형상을 통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깊이 연구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 집행하는것이 우리 시대 일군들의 혁명적사업기풍이라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돌격대원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의의있는 문제점들을 포착하여 그들의 하루생활에 대한 간명한 이야기로 펼쳐보임으로써 심각한 사건이 없이도 기본문제를 순탄하게 밝혀내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79(1990)년 2호〕

《돌격침로》 중편소설. 주체82(1993)년 박춘섭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바다의 요새라고 위세를 뽐내던 미제의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단 4척의 어뢰정으로 격침시킨 조선인민군해병들의 영웅적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은 전쟁이 일어난 직후 강진철정장이 책임진 어뢰정 31호가 적들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기지로 돌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또 배까지 파손되게 된것은 해병 홍대호가 어부선을 방패로 내세우고 그 배에 통채로 불을 다는 놈들의 만행에 격분하여 자동총사격을 가함으로써 적들에게 로출되였기때문이다. 심하게 파손되여 수리대에 올랐던 어뢰정은 진철과 기관수 영남아바이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고장이 인차 퇴치되며 그들은 다시 전투에 참가한다. ㅁ항 습격임무를 받은 어뢰정 31호는 적함으로 가장하고 놈들의 경계선을 뚫고들어가 적수송선을 까부심으로써 항구를 마비상태에 빠뜨린다. 이 전투에서 대호는 항구의 탐조등을 까부시고 희생된다. 첫 전투에서 범한 과오를 목숨으로 씻은 대호의 장렬한 희생앞에서 해병들은 천백배의 복수를 다짐한다. 며칠후 아군의 후방을 위협하는 적기동분함대를 기습할 명령을 받은 진철은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을 기지에 모셨던 때를 생각하면서 해병들의 마음을 담아 최고사령관동지께 충정의 맹세문을 올린다. 다음날 아침 주문진앞바다에서 적과 맞다든 어뢰정대의 해병들은 련속적인 공격을 들이대며 적구축함과 경순양함을 격침시키고 두발의 어뢰를 맞고도 가라앉지 않는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불붙는 어뢰정으로 들이받아 바다에 수장시킨다. 그후 강진철과 31호해병들은 날바다를 헤염쳐 끝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인민군대는 언제나 항일의 혁명정신, 용감하고 대담한 공격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안고 직선침로, 돌격침로로 내달려야 한다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2(1993)년판〕

《돌바위고지》 서사시. 주체46(1957)년 위호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작전적구상을 높이 받들고 돌바위고지를 목숨으로 지켜낸 인민군전사들의 투쟁을 노래한 작품이다. 머리시와 7개의 장, 맺음시로 되여있다. 머리시에서는 1211고지와 351고지사이에 끼여있는 돌바위고지에 대한 지역적소개와 여기에서 주체40(1951)년 가을에 원쑤를 쳐물리친 최룡중대를 노래하려는 정서적지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 《명령이 내렸다》에서는 진격만을 생각하는 중대전투원들에게 돌바위고지에 참호와 교통호를 깊이 파라는 명령을 내리는 중대장과 진지방어에로 넘어갈데 대한 당의 의도를 해설해주는 정치부중대장 리석화의 활동을 보여주고있다. 제2장과 3장, 4장에서는 돌바위고지 전초에 나가있는 전사들의 용감한 투쟁과 포연을 헤치고 탄약과 주

먹밥을 가지고 전초에로 나가는 중대장의 모습, 고지로 달려드는 원쑤들을 함께 족쳐버리고 전호에서 그가 전우들과 뜨겁게 상봉하는 장면을 시화하고있다. 제5장과 6장, 7장에서는 취사장에서 연기를 내여 폭격을 당하게 한 규률위반을 두고 엄격히 꾸짖으며 자그마한 틈도 없도록 하는 중대장의 높은 요구성, 잠잠해진 적들의 기도를 알아내려고 습격과 정찰에 나갔던 창석과 명순의 장렬한 최후, 놈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의 만세를 부르며 새벽을 맞이하는 전사들의 기쁨과 환희의 감정 등 다양한 생활을 풍만하게 노래하고있다. 시는 돌바위고지를 지켜싸운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투쟁에 대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진지방어전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서사적화폭으로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46(1957)년 2호〕

《돌파》 중편소설. 주체74(1985)년 안동춘 창작.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자기앞에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가는 한 청년군관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이다. 전투에서 눈을 부상당하고 입원했던 포중대 화력부관 현무는 퇴원직후 병기창고에 가서 일하라는 명령을 받자 이름난 땅크잡이명수인 자기가 뒤전에 물러서게 된다는 생각으로 괴로움을 감추지 못한다. 더우기 병기부과장으로부터 창고장으로 강직된 유선형은 언젠가 현무의 중대에 포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여 그로부터 《승리의 장애물》이라는 모욕까지 받은 사람이였다. 그러나 현무는 병기창고에서 일하는 과정에 선형의 높은 책임성과 성실성에 머리를 숙이게 된다. 특히 불이 당긴 휘발유탕크를 몸으로 막고 희생된데서 큰 충격을 받고 자기도 그처럼 살것을 맹세다진다. 선형이 희생된 후 병기창고장으로 임명된 현무는 사단 정찰중대에 로획한 무기들을 운반해갈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한 차가 폭격에 파괴되게 되자 적의 보급차를 탈취해오는 모험을 단행한다. 이로 하여 호된 비판을 받고 포중대로 돌아가라는 권고까지 받지만 그는 선형의 넋이 스민 창고를 떠나지 않는다. 사단에서는 현무의 이러한 성실성을 믿고 그에게 작전개시전까지 8차분의 탄약을 이화리에 운반해갈 임무를 준다. 그런데 도중에 다리가 끊어져 수송로가 막힌다. 현무는 대담하게 적들이 도사리고있는 고지밑의 도로로 수송대를 이끌어갈 결심을 한다. 그와 결사대원들은 희생적인 투쟁을 벌려 적진을 돌파하고 맡겨진 임무를 수행한다. 작품은 현무의 형상을 통하여 군인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밝혀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4(1985)년판〕

《돌파구》 장편소설. 주체63(1974)년 리종렬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쟁 제4계단의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갱도전으로 미제침략자들을 격파하고 빛나는 전투승리를 이룩한 조선인민군 한 보병중대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은 군관학교를 졸업한 곽병식이 항일투사이며 아버지의 옛 전우인 강태욱이 지휘하는 련대의 한 보병중대에 소대장으로 배치되여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병식은 오랜 전투생활에서 단련된 3소대 병사들을 만나본 후 진짜보병들의 생활속으로 왔다는 환희와 함께 이들에게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그후 그는 폭우를 무릅쓰고 최전선으로 이동하는 장마행군의 시련속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전사들의 사랑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 소대는 화목한 한가정과도 같이 단합된다. 그후 소대는 갱도전을 벌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칼릉선에 도착하여 갱도를 꾸리면서 싸움준비를 갖춘다. 이러한 때 병식은 련대의 작전계획에 따라 적후에 들어가 오봉령에서 12문의 적대구경포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리며 이 전투에서 중상을 당하여 어머니 김봉순이 정치부원장으로 일하는 야전병원에 후송된다. 병원에서

적들의 《신공세》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에 접한 병식은 지체없이 부대로 돌아와 적들의 《신공세》를 파탄시키기 위한 1035고지 습격전투안을 내놓는다. 그것은 적의 영구화점인 삼층감시소쪽으로 비밀갱도를 뚫고나가 단숨에 고지를 점령할 대담한 안이였다. 강태욱련대장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긴장한 갱도굴설전투가 벌어지며 돌파구갱도가 완성되자 그 비밀갱도를 통한 련대의 총공격이 시작된다. 중대는 비밀갱도를 통하여 불의에 적의 배후에 나타나 뒤통수를 치고 《난공불락》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적진을 단숨에 점령하여 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린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갱도전의 전략적방침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를 통하여 갱도전에 관한 사상의 독창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는것을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63(1974)년판〕

《돌아오다》 장편소설. 주체93(2004)년 리동구 창작.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지켜싸운 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를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라남도인민유격대에서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뜨거운 축복속에 주인공 김성규와 경상남도인민유격대의 대원인 현보숙이 결혼식을 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음날 김성규는 도당위원장으로부터 당중앙위원회와 련락을 취할데 대한 특별임무를 받고 안해와 헤여져 공화국북반부로 떠난다. 행군도중에 그의 일행은 변절자들로 무어진 적들의 부대와 조우하던 끝에 성규는 부상을 입고 체포된다. 그때부터 그는 34년간의 옥중생활을 강요당한다. 이 나날 김성규는 해방후 공화국북반부로 들어가 중앙기관 일군으로 성장하던 나날에 간직했던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적풍모를 되새기며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놈들과 맞서 견결히 싸운다. 한편 그의 안해 현보숙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여 같은 교도소에서 옥중생활을 한다. 뒤늦게 이것을 알게 된 적들은 전향강요를 목적으로 그들부부가 만나게 한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상봉으로 되며 현보숙은 놈들과의 대결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그러나 성규는 안해의 희생이라는 가슴아픔도, 놈들의 회유기만과 악착한 고문도 꿋꿋이 이겨내고 마침내는 적들과의 사상정신적대결에서 승리한다. 출옥후 그는 수십년간의 옥중생활기간 한시도 잊지 못하던 사랑하는 딸 김반야와 감격적으로 만나며 6.15북남공동선언 발표후 딸의 가족과 남녘동포들의 뜨거운 바래움을 받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으로 돌아온다. 소설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적신념을 변함없이 지켜싸운 전사만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 조국의 품으로 떳떳이 돌아와 빛나는 삶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감명깊이 보여주고있다. 이밖에도 주인공의 아버지 김진수와 친구인 리수성, 변절자 림주상 등 여러 인물형상을 통하여 참된 정의와 진리의 길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 있으며 시세에 따라 변하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개죽음뿐이라는것을 깊이있게 새겨주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돌아온 반지》 단편소설. 주체96(2007)년 리성식 창작.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일제의 천인공노할 죄악을 폭로한 작품이다. 소설은 나가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일군으로부터 남조선의 한 민간단체의 《꽃엄마》로 불리우는 한 녀인이 보내온 은가락지를 받는데서부터 시작된다. 그 은가락지인즉 나의 아버지 림성찬이 해방전 앞뒤집에서 함께 살던 17살 난 처녀가 끌려가게 되자 그 녀자를 위해 가짜결혼을 하면서 끼워준 반지이다. 그 반지를 놓고 아버지 림성찬과 그 녀

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성찬과 처녀는 결혼을 하였으나 성찬은 징병에, 정희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다. 징병에 끌려간 성찬은 남방전선에 파송되여 해상륙전대인 가우찌중대의 예비소대에 배속되여 노예생활을 강요당한다. 식량이 떨어지자 중대장놈은 조선사람들중 허약자, 환자들을 골라내여 한줄로 세워놓고 기관총으로 쏘아죽이고는 식량사정이 부득이하여 취한 조치라고 떠벌인다. 조선사람들을 파리목숨처럼 여기는 일본놈들의 만행에 격분한 성찬은 총을 빼아들고 원통하게 죽은 조선사람들의 이름으로 지휘부놈들을 처단하고 탈출하여 고향으로 돌아온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처녀 정희는 《하야꼬》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위안부가 되여 일본놈들에게 성봉사를 강요당한다. 위안소에 끌려간 정희를 비롯한 60여명의 처녀들은 하모니카식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자그마한 방들에 들어가 한 녀성이 하루에도 수십명의 왜놈들에게 시달린다. 어느날 정희가 든 방에 다나까라는 일본군 소좌놈이 옷을 벗고 들어와 짐승처럼 달려든다. 그가 반항하자 그놈은 그 녀자의 머리태를 거머잡고 밖으로 끌고나간다. 그리고는 앞마당에서 다음순서를 기다리는 장교놈들을 추동하여 그 녀자의 옷을 벗기고 돌배나무가지에 비끄러매더니 《그네뛰기》를 시키고 륜간한다. 이에 격분한 정희는 복수를 다짐하고 술을 잔뜩 먹고 너부러져있는 다나까놈에게 병세례를 안기고 도망친다. 강물에 몸을 던지였다가 밤고기사냥을 나왔던 고마운 로인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정희는 치욕의 수치를 안고 고향으로 갈수 없어 함께 고생하다가 치욕속에 숨진 친우의 소식을 그의 어머니에게 전해주고 세상을 등지려 한다. 허나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지 않고서는 죽을수가 없어 일생 사랑의 상징인 꽃을 가꾸는 꽃엄마가 되여 살아오던 그는 사랑을 무참히 짓밟은 인간추물들을 고발하는 력사의 증견자로 나선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해 일제야말로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쑤, 가장 잔인하고 추악한 패륜패덕의 족속, 불량배들이며 이놈들과는 반드시 최후의 결산을 해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96(2007)년 5호〕

《동구길》 단편소설. 주체74(1985)년 신용선 창작. 한 학생에게 영웅의 참된 넋을 심어주기 위하여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고매한 풍모를 형상한 작품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중학교를 다니시던 때에 있은 일이다. 며칠전에 심은 나무를 돌아보려 학급동무들을 데리시고 모란봉에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유독 준범이가 심은 나무만 죽어가고있는것을 보시고 리정식영웅과 한고향인것으로 하여 자기도 영웅이 되겠다고 맹세다지며 영웅이 쓴 시를 즐겨 읊군 하던 그가 이런 결함을 범한데 대하여 피로와하신다. 나무를 다시 심고 총화모임에서 비판이 있었으나 그는 잘 접수하지 않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학급동무들을 다 데리시고 영웅을 낳은 준범의 고향을 찾으시며 무한한 향토애의 마음을 간직한 영웅의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시고 영웅성의 근본바탕에 대하여 깨우쳐주신다. 영웅의 넋이 깃들어있는 고향에서 그이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된 준범은 자기를 자책하면서 앞으로 영웅처럼 살 결의를 다진다. 소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풍모를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께 목숨바쳐 충정다한 영웅들처럼 살며 투쟁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향, 자기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무심히 대하지 말고 정성다해 가꾸고 사랑하는 깨끗한 향토애, 조국애를 키워나가야 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남산의 노을》,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4(1985)년판〕

《동구길》 장편소설. 주체84(1995)년 윤원삼 창작. 결혼과 더불어 이루어지게 될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고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뜻대로 고향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꾸리기

위하여 애쓰는 한 처녀관리위원장을 형상한 작품이다. 관리위원장인 주인공 김수옥은 전연초소에서 군관으로 복무하고있는 한철이가 결혼식을 하려고 두번째로 고향에 왔지만 그냥 돌려보낸다. 3년전 마을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일 못사는 고장이라고 근심하시며 나라에서 선참으로 현물세까지 면제해주도록 하신 후 작업반장으로부터 관리위원장이 된 그는 갓 시작한 삼죽재개답공사라도 완공하고 결혼식을 하려던것이였는데 끝내지 못하였던것이다. 한철이가 떠난 후 아버지의 친구이며 기사장인 박한규는 어버이수령님의 농촌테제를 받들고 개답공사와 함께 저수지공사도 진행하려고 하는 그에게 자기들이 할테니 결혼식을 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수옥은 자기의 결심을 변경시키지 않으며 농기계수리기지를 꾸리기 위해 군농기계작업소에서 기술자로 일하는 오영걸이 고향에 돌아와 일하면서 리상을 꽃피우도록 한다. 뿐만아니라 그는 공사가 진척되면서 불도젤을 비롯한 기계설비들이 부족한데다가 수리능력까지 걸리게 되자 오영걸과 함께 페기된 선반을 얻어다가 수리해 쓴다. 이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의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어주시고 공사도 빨리 끝낼수 있도록 불도젤을 보내주신다. 이듬해 저수지건설을 끝낸 수옥은 리창섭을 비롯한 작업반장들과 함께 모내기전으로 개답공사를 완공할 목표를 세우며 농장의 관리일군들과 비생산로력들로 도로수리와 주변정리도 알뜰히 해나간다. 이때 또다시 찾아온 한철이가 결혼을 바라면서도 말없이 휴가기간을 바쳐 농장을 도와주자 수옥은 고향을 위해 자기를 잊어달라고 하려던 말조차 꺼내지 못한채 떠나보낸다. 그때 그는 자기를 나무라는 기사장에게 오히려 앞으로 농장을 꾸려갈 전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농장앞에 제기된 일을 자체로 하지 않고 우에다 손을 내미는데 대하여 비판한다. 그로부터 얼마후 개답공사와 모내기도 성과적으로 끝나며 그해 가을 결혼식을 한 수옥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청산리에 오셨을 때 보시고 만족해하신 벼와 강냉이이삭을 보고 한철에게 우리 농장도 그런 수준에 오를 때까지 헤여져살자고 한다. 한철이도 그의 결심을 지지해주며 협동벌과 초소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받들어 일을 더 잘해가자고 한다. 새해에 접어들자 수옥은 더 많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니탄캐기전투를 벌리면서 계획에 없었던 여우재개답공사도 동시에 진행하여 기계화포전으로 만들며 살림집건설도 해나간다. 한규는 모내기에 이어 가을이 되여오지만 남편을 따라갈 생각을 하지 않는 수옥을 보며 친구의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것만 같아 리당비서더러 그를 남편이 있는 곳에 보내여 관리위원장을 하도록 우에 제기하자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농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옥을 만나주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6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를 잊지 않고계신다고 하시면서 농장을 남부럽지 않게 꾸리고 좋은 작황을 이룩해놓은 그와 기념사진을 찍으신다. 이어 수옥의 생활을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한철이를 제대시켜 고향에 돌아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신다. 소설은 사람못살 고장이라고 떠났던 로인, 도시에 나갔던 처녀와 함께 보안원이 된 한철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개인의 행복보다 그것을 고향과 조국을 위해 바치는것이 참다운 삶이고 행복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하루빨리 우리 농민들을 더 잘살게 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풍모를 감명깊게 그려내고있다. 작품은 몰라보게 변모되는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을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시대적특징을 잘 살리고있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4(1995)년판〕

《동구의 은행나무》 단편소설. 주체77(1988)년 장기성 창작. 동구의 은행나무를 가꾸며 고향땅을 위해 한생을 바쳐가는 농촌의 한 평범한 로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있는 작품이다. 와우마을에서 한생을 살아왔으

나 도시에 있는 아들을 따라가지 않을수 없게 된 손봉익로인은 마을어구에 자라는 은행나무를 돌아보며 이 나무와 더불어 흘러온 자기의 한생을 돌이켜본다. 해방전 어느해 이른봄 빚값에 팔려가게 된 약혼녀가 이 나무에 목을 매고 죽는 참변이 일어나자 모진 세상을 저주하며 나무에 도끼질을 해댄 손봉익, 그후 징역에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은행나무를 고향의 모습으로 그리며 기어이 살아서 돌아온 그였다. 그리하여 나라가 해방되고 그 나무밑에서 토지를 분여받은 때부터 그는 스스로 이 나무의 관리자, 보호자가 되여 37년동안 가꾸어왔다. 고향을 떠나기에 앞서 마을의 청년학생들에게 착취받고 억압당하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줄데 대한 당적분공을 받은 손봉익은 대비교양에 쓰기 위해 아들에게 부탁하여 해방전 《동아일보》에 실렸던 와우마을의 옛 전경사진을 복사해오게 한다. 사진에 찍힌 초라한 와우마을의 과거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된 오늘을 대비해보면서 손봉익은 70평생 피와 땀을 바쳐 꾸려온 정든 고향을 떠나서는 자기가 결코 살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느낀다. 한편 아버지의 모습에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된 아들 형준은 마침내 고향에 내려와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땅을 가꿔갈 결심을 다진다. 소설은 고향에 대한 사랑을 어길수 없는 의무로 간주하고 생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자신을 바칠것을 소원하는 주인공의 높은 정신세계를 예술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7(1988)년 9호〕

《동무와 함께》 단편소설. 주체44(1955)년 김상오 창작. 전후 평양시복구건설에서 위훈을 떨친 한 제대군인출신 대학생의 정신도덕적풍모를 그린 작품이다. 소설은 기자가 주인공 김현곤을 취재하는 형식으로 씌여져있다. 평양시복구건설에 동원된 공업대학 광산지질학부 김현곤학생의 모범을 따라 온 대학이 하루계획을 200%씩 한다는 소식을 들은 기자는 그를 취재하려 건설장에 찾아온다. 대학민청위원장을 만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난 기자는 현장으로 나와 발파구멍을 확인하고있는 대학생의 앞가슴에 빛나는 전사영예훈장을 보고 그가 주인공이라는것을 인차 알아낸다. 기자는 전쟁전에 광산에서 발파를 해본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새로운 발파법을 창안하여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던 대학민청위원장의 말을 되새기며 그를 만난다. 어떻게 되여 하루계획을 200%씩 해제끼게 되였는가고 묻는 기자에게 현곤은 전쟁때 부대에 고향이 평양인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림그리기를 좋아하는 그는 늘 승리한 평양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될 꿈을 꾸었다는것, 어느 한 전투에서 부상당한 자기를 구원해준 그가 그후 전투에서 전사했다는것, 그래서 그때 그와 함께 탄 전사영예훈장을 달고 그의 념원과 몫까지 합쳐 하루빨리 영웅도시 평양을 세상에 보란듯이 일떠세우고싶었다고 말한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참다운 의리는 동지를 위해 자신을 바치며 그의 념원을 꽃피우는데서 발현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44(1955)년 4호〕

《동지》 서정시. 주체64(1975)년 리광제 창작. 우리 당이 지어준 동지라는 이름에 담겨져있는 깊고 숭고한 뜻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바다를 건느고 불타는 화선을 넘으며 조국과 혁명을 알게 되고 동지라는 뜨거운 이름으로 새롭게 태여났던가고 토로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뜻, 주체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것이 바로 동지임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시에서는 혁명의 북소리가 울리는 초소마다에 우리의 동지들이 서로 심장을 덥혀주며 살고있다고 강조하고나서 함께 피흘렸고 함께 싸워갈 동지—그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라고, 또다시 준엄한 날이 닥쳐온다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충정을 다함으로써 동지라는 이름을 빛내이자고 격조높

이 터치고있다. 시는 동지라는 이름에 담겨진 깊은 뜻을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정서적으로 감명깊게 밝혀내고있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동지》 서사시. 주체81(1992)년 김희종 창작. 열병에 걸린 녀대원을 밀림속에서 한달동안 치료하여 구원해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를 깊이있게 노래한 작품이다.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여있다. 시는 부대와 떨어져 초막에서 열병에 걸린 철옥을 치료해줄데 대한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29송이의 버섯을 초막에 매여달고 날자를 세여가며 환자를 돌보시는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풍모를 정서짙은 시적감정으로 노래하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산발을 타고넘으시며 약초를 캐여오시고 산꿀을 털어다가 먹이시며 온갖 정성을 다하신다. 그리하여 얼마간 회복되였던 철옥은 갑자기 들이닥친 비바람을 맞고 다시 고열속에 헤매인다. 무너진 초막을 다시 일으켜세우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흘러내리는 피를 철옥의 입에 넣어주시고 초막으로 은밀히 기여든 적 《토벌》대순찰병놈들을 명중탄으로 제껴버리신다. 총소리를 듣고 달려들 적의 기도를 예견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초막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환자를 치료하신다. 한편 사령관동지께서 보내신 두 전령병은 초막이 불탄것을 보고 주위에서 찾다가 부대로 그냥 돌아간다. 시는 건강회복에 신심을 가지지 못하고 나약한 생각을 하는 철옥을 위하여 멀리 적후에까지 들어가시여 의원을 데려다 진찰도 받게 하시고 주사까지 놓게 하시는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풍모앞에 깊이 머리를 숙이며 가슴속 이야기까지 터놓는 철옥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그이이시야말로 참된 인간이며 혁명동지이시라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동지! 이 말의 참뜻을
가장 고귀한 혁명가의 이름으로
가장 충직한 충신의 이름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이름으로
가장 값높은 시대의 호칭으로
빛내여주신 김정숙동지!

시는 드디여 사령부와 약속한 한달이 되여 병을 털고일어난 철옥과 함께 본래의 초막으로 돌아오신 김정숙동지께서 사령부에서 다시 파견한 전령병들을 만나 부대로 돌아가시는 감격적인 이야기와 환희의 감정을 시화하고있다. 서사시는 동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일관된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희생적인 투쟁과정을 혁명적인생관의 견지에서 시적으로 파고들어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함으로써 그이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이시며 혁명적동지애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위대한 혁명가이시라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1(1992)년판〕

《동지》 희곡. 박호일 창작. 작품은 관병일치를 더욱 꽃피울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중대에 내려가 병사생활을 체험하는 한 사단장의 모습을 보여준것이다. 젊은 나이에 최전연부대의 사단장으로 임명된 주인공 정광철은 먼저 설봉중대에 내려가 병사생활을 시작한다. 병사복을 입고 중대로 가는 길에서 그는 그 중대에 배치되여가는 신입병사들을 만나게 되며 그들은 정광철이 신입병사인줄 알고 허물없이 대한다. 순간에 병사들과 딱친구가 된 광철은 자기 직무를 밝히지 않으며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에게만 자기가 사단장이라는것을 밝히고 병사들에게는 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한다. 이렇게 되여 광철은 나이먹고 군대에 입대한 신입병사로 병사생활을 하게 된다. 허물없이 병사들과 어울려 돌아가며 궂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하는 과정에 그는 우에 있을 때는 미처 몰랐던 문제들을 알게 될뿐아니라 병사들의 마음속 사연까지도 다 알게 된다. 분대의 구대원들인 손기

택과 장대식 그리고 분대장 석종팔은 중대의 맨 마지막병사로 된 광철을 자기의 부하로 여기고 교양도 하고 욕도 하며 이끌어주느라 애를 쓴다. 그 과정에 정광철은 관병일치는 군관, 사관문제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가르치심의 정당성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된다. 그는 늘 병사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따뜻이 대하고 사랑해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준다. 이 나날속에 요구성만 높이면서 병사들을 사랑하지 못한탓에 물우에 뜬 기름방울처럼 병사들의 마음속문을 열지 못했던 소대장과 분대장은 자신들을 심각히 뉘우치게 된다. 불리한 날씨를 리용하여 적들이 도발을 걸어온 긴급한 정황속에서 병사들은 그 《신입병사》가 자기네 사단장이라는것을 알게 되며 또한 소대장에 대한 고까운 생각으로 고민하다가 징후판단을 잘못한 일로 전투근무에서까지 제명당했던 지일섭은 그후 전투근무에 나가 위급한 순간에 소대장을 몸으로 막아 구원하고 중태에 빠진다. 소대장은 안타깝게 물을 찾는 지일섭에게 자기 손을 베고 피를 내여 먹인다. 적들의 도발을 금방 물리친 최전연고지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오신다. 여기는 최전연이라고 병사들이 막아서건만 굽이굽이 멀고 험한 령길을 넘고넘으시며 병사들을 찾아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의 이 위대한 동지애의 세계를 통하여 경희극은 동지애의 최고화신이신 장군님의 고매한 풍모를 잘 보여주고있을뿐아니라 최고사령관과 전군이 하나의 동지로 굳게 뭉쳤기에 조선인민군은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위용떨칠수 있다는것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경희극은 작품의 사상을 더욱 승화시켜 전당, 전군, 전민이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하나로 굳게 뭉친 혼연일체가 있어 우리 혁명은 영원히 승리하리라는것을 힘있게 구가하고있다. 경희극은 동지애로 시작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온 조선혁명의 심원한 진리를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는 진실하고 깊이있는 형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은 주체88(1999)년 경희극으로 창조되였다.

《동지애의 노래》 가사. 주체69(1980)년 리종순 창작. 예술영화 《조선의 별》의 주제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청년공산주의자들사이에 맺어졌던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를 노래한 작품이다. 2개의 절로 되여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주체혁명의 초행길을 헤쳐가던 험난하고 시련에 찬 투쟁에서 생사를 같이하자고 위대한 수령님께 굳게 다진 그 맹세를 가장 고귀한것으로 간직하고 싸운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뜨거운 혁명적의리의 세계를 숭엄한 화폭으로 웅심깊게 펼쳐보여주고있다. 가사의 2절에서는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죽어서도 잃지 않는 생을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는 동지적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수령님을 혁명의 향도성으로 높이 우러르며 끝까지 따르려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철의 신념과 불같은 충정의 마음을 감동깊게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맺어진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동지적관계는 혁명적신념과 의리에 기초한 숭고한 동지애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그토록 열정적이면서도 확고부동하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하면서 혁명투쟁에서 수령에 의하여 마련되고 맺어지는 동지적사랑과 의리는 그 무엇으로도 살수 없다는 귀중한 진리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가사는 그가 거둔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영화음악으로 창작된 다음에도 여러가지 형식으로 재형상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도록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영화노래 11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2(1993)년판〕

《동지에 대한 추억》 단편소설. 주체89(2000)년 권정웅 창작.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신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를 높은 사

상예술적경지에서 그린 작품이다. 소설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집필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자신의 금고안에 소중히 보관하시였던 김책동지와 함께 찍으신 사연깊은 한장의 사진을 꺼내보시는데로부터 시작된다. 이 사진을 계기로 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그에 따르는 대일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체29(1940)년 겨울에 소집된 하바롭쓰크회의에서 처음으로 만난 김책이 절대로 수령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죽어도 백두산을 베고 숨지겠다고 맹세를 다지던 일이며 수수한 방한화이기는 하지만 그의 뜨거운 정이 깃든 기념물을 받으시던 일, 뜻을 같이할 동지를 만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고향을 그리는 《사향가》를 부르시며 어머님을 회상하시던 일들을 하나하나 추억하신다. 그리고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부에 찾아온 김책에게 새 양말을 신겨보낸지 얼마 안되여 그가 희생되였다는 뜻밖의 소식을 전해듣고 절통해하던 때를 되새겨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의 기쁨은 동지를 얻는것이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신다. 그날 밤 회고록의 총적주제는 동지로 되여야 한다시며 혁명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함께 한 전우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려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신다. 소설은 어버이수령님의 서거후 수령님의 금고속에 간직되여있던 한장의 사진, 수령님께서 김책동지와 함께 찍으신 사진을 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적동지애는 수령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이라는것을 강조하시는것으로 끝난다. 소설은 40년세월의 흐름속에서도 변할줄 모르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지에 대한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세계에 대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혁명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지를 얻는것으로 끝나는 사회적운동이라는 철학적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수령님의 내면심리세계, 체험세계속에서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또한 수령님의 고매한 인간적풍모를 환상과 련상, 회상의 수법으로 이채롭게 펼쳐보이고 현재와 과거를 정서적으로 잘 이어준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9(2000)년 4호〕

《동지의 사랑속에 영원히》 서사시. 주체85(1996)년 전동우 창작.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꾸어주시고 꽃피워주신 혁명적동지애의 화원과 그 빛나는 발전력사를 노래한 작품이다. 1장에서는 먼저 당창건기념탑을 찾아온 시인의 가슴속에 동지애로 수천만의 생명을 력사의 주체로 묶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과 동지애로 일심동체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려는 열망이 세차게 솟구쳐오른다고 노래하면서 당창건기념탑은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혁명대오의 단결과 불패의 힘을 상징하고있다고 강조하고있다. 2장에서는 우리 당의 력사는 동지애의 력사이며 우리 혁명이 동지애로 시작되였다는것을 보여주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설동지사를 조직하시던 이야기와 회고록의 첫장부터 마지막장까지 동지들에 대하여 쓰신 내용 그리고 애용하시던 금고에 김책동지와 함께 찍으신 한장의 사진을 넣어두신 이야기들을 시화하고있다. 시의 3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비바람속에 가꾸신 동지애의 그 나무를 한겨울 눈바람이 몰아와도 푸르청청한 상록의 밀림으로 키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업적을 칭송하고있다.

아, 첫째는 동지, 둘째는 나…
설사 세걸음앞에 죽음이 있다 해도
김정일은 동지를 위해 갈것이다!
나의 온 심장
온넋
온삶을
순간에 그러잡은 위인상에 매혹되여
나는 오래동안 넋을 잃고말았어라…
동서고금 수많은 위인전 내 다 보았건만
그 어디에, 그 어느 갈피, 그 어느 위인

전에
이런 사랑, 이런 심장, 이런 넋이
있었던가!

시에서는 이 세상 그 어떤 위인도 따를수 없는 위대하고 숭고한 동지관으로 전사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매한 풍모를 시화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군사일군이 남들의 오해로 하여 시름에 잠겨있을 때에도 크나큰 믿음의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녀성해안포병들의 손과 얼굴이 트는것이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사랑의 약크림도 보내주신다. 시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그 사랑이 우리 병사들을 무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키우고 이 땅에 인간자주, 인간단합, 인간영생의 새 세계를 펼치신다고 힘있게 구가하고있다. 시의 마지막장에서는 동지란 경애하는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빛내이자고 굳게 약속하고 믿음을 나눈 《또 하나의 나!》임을 밝히면서 장군님의 그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할 굳은 결의를 토로하고있다. 시는 강한 정서적열정과 높은 기백으로 여러가지 사건과 사실들을 유기적으로 튼튼히 맞물리면서 동지애의 력사를 깊이있게 시화하고있다. 〔서사시집 《우리 태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5(1996)년판〕

《동트는 강산》 장편소설. 주체75(1986)년 백보흠 창작.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이 각계층 군중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워 참된 투쟁의 길로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주체25(1936)년 여름 어느날 주인공 박철심의 애인 강향숙이 5년전에 헤여진 그의 행처를 찾아 동해지구 어촌마을에 갔다가 창바이(장백)현소재지로 돌아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5년전인 녀학교시절의 향숙은 본의아닌 실수로 당시 중학교에 다니며 반일독서회에 참가하고있던 박철심이 경찰에 체포되게 하였으며 그후 철심은 동무들로부터 변절자의 억울한 루명까지 쓰고 그 사건을 계기로 두사람은 비극적인 리별을 하게 되였다. 그때부터 향숙은 철심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의 행처를 알기 위해 무진 애를 써온다. 향숙이 어촌마을에 다녀온 그무렵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활동하고있던 철심은 사령부로부터 정치공작임무를 받고 압록강연안 창바이(장백)현 스치다오거우(17도구)로 떠난다. 철심이 도착한 곳은 마을주민의 대다수가 반일감정이 강한 조선화전민들이였지만 천도교인들이 많이 집중되여있고 제노라 하는 유지들도 있어 매우 복잡하고 소란한 마을이였다. 이런 조건에서 정치공작을 하게 된 철심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사상경향이 좋은 핵심청년들을 장악하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마을사람들과 천도교인들을 왜놈들의 간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끌어준다. 그리하여 이곳에는 마침내 조국광복회조직이 꾸려지게 된다. 이 과정에 철심은 야학선생 리주영의 분별없는 행동으로 적들에게 체포된다. 그가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된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지에거우(반절구)전투를 조직하시여 그를 구원해주시고 그가 적들의 《신임》을 받아 정치공작을 계속해나갈수 있도록 대책까지 세워주신다. 하여 철심은 리주영, 리전화를 비롯한 많은 군중을 더 적극적으로 일깨워 그들스스로가 반일통일전선에 나서게 한다. 그 과정에 철심은 향숙과 극적으로 상봉하며 그를 옳은 길로 이끌어주고 또한 국내인 풍산에 자주 드나들며 그곳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오는데도 크게 기여한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난후터우(남호두)회의에서 내놓으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주인공을 비롯한 다양한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을 통하여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특히 소설은 박철심과 강향숙의 곡절많은 운명을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속에서 보여주면서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김으로써만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혁명에 나설수 있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5(1986)년판〕

《동트는 거리》 단편소설. 주체68(1979)년 서상각 창작. 남편의 뒤를 이어 정의로운 투쟁의 길에 나서는 남조선의 한 녀인을 형상한 작품이다. 주인공 홍정녀는 남조선괴뢰도당이 조작한 민주구국혁명당사건으로 체포되였다가 폐농양에 걸려 나온 남편 최인호에게 각별한 정성을 기울인다. 그때까지 정녀는 남조선괴뢰도당의 고문만행에 격분만 할뿐 남편과 같이 투쟁에 나설 생각은 전혀 못하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집에서 치료받던 남편이 다시 체포되여가자 정녀는 남편소식을 알려고 형무소에도 찾아가고 항의투쟁도 벌린다. 그후 민주구국학생총련맹사건으로 기소된 남편이 재판끝에 사형언도를 받고서도 괴뢰도당의 파쑈독재를 규탄하며 굴함없이 투쟁하는것을 보고서야 정녀는 남편의 정의로운 모습에서 강한 충격을 받는다. 그리하여 정녀는 여의도광장에서 진행된 시위투쟁에 솔선 참가하여 재판정에서 남긴 남편의 마지막목소리까지 합쳐 선동연설을 한다. 소설은 정녀의 형상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떨쳐나선 애국적인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재일조선작가작품집 《조국은 언제나 마음속에》,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동트는 바다》 서사시. 주체38(1949)년 동승태 창작. 해방후 나라의 주인으로 된 어로공들의 창조적로동생활과 새로운 사상정신적면모를 폭넓게 노래한 작품이다. 서막과 6개의 장, 맺음시로 구성되여있다. 제1장 《출항》에서는 년간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래잡이를 떠나는 포경선에 대한 시적형상을 보여주고있으며 제2장 《해솟는 바다》에서는 아침을 맞이하여 독보회도 하고 손풍금도 타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선장과 해월, 만수, 보승 등 배사람들의 보람차고 즐거운 생활을 시화하고있다. 제3장 《탐색》에서는 고래를 만났으나 새끼고래라고 잡지 못하게 하고 더 큰 고래를 찾게 하는 선장의 주인다운 일본새와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만수 등 어로공들의 열정과 기백을 구체적인 생활정서로 노래하고있다. 제4장 《산마루같은 고래》에서는 큰 고래를 만나 악전고투끝에 고래를 잡아 끌어올리는 어로공들의 힘찬 투쟁과 여기에서 발휘된 해월의 대담무쌍한 행동, 보승의 혁명적동지애를 형상하고있으며 제5장 《격랑을 헤치고》에서는 고래는 잡았으나 파도가 밀려와 온밤 파도와 싸우는 선장과 해월, 보승의 강의한 의지와 영찬의 비겁한 행동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제6장 《등대》에서는 격랑을 헤치고 부두로 돌아오는 어로공들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있다. 시의 서막과 맺음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자랑찬 모습을 긍지높이 노래하면서 빛나는 조국의 미래를 락관적으로 구가하고있다. 시는 풍랑세찬 파도를 헤치며 고기를 잡는 어로공들을 노래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고마운 제도에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숭고한 애국심과 무한한 헌신성, 강의한 의지를 훌륭히 노래하고있다. 시는 해방후 창조적로동을 주제로 한 큰 형식의 시작품인것으로 하여 문학사적의의를 가진다. 〔문화전선사, 주체38(1949)년판〕

《동트는 압록강》 장편소설. 주체64(1975)년 문희준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버님을 따라 만경대를 떠나신 후 중강진과 린쟝(림강), 바다오거우(팔도구)에서 보내신 어린시절을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님의 투쟁로정을 따라 중강진과 린쟝(림강), 바다오거우(팔도구)에서 어린시절을 보내시면서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에 대한 증오심과 조국에 대한 사랑, 착취받고 압박받는 인민들을 구원하고 이 땅우에 해방의 새봄을 앞당겨올 원대한 뜻을 키워나가시는 과정이 폭넓게 형상

되여있다. 소설은 중강진에 도착하신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압록강을 건너가는 류랑민들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장면으로부터 소학교를 졸업하시고 아버님의 뜻을 받드시여 조선의 현실을 더 깊이 아시기 위하여 배움의 천리길을 떠나시는 때까지를 포괄하고있다. 모두 5편으로 되여있다. 아버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어머님과 함께 중강진에 오신 대원수님께서는 앞날에 대한 아무런 기약도 없이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으로 건너가는 류랑민들의 비참한 모습, 충청도에서 한해전에 돈벌이를 떠난 아버지를 찾아 이곳까지 왔다는 금돌이네 어머니와 세 오누이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며 제 나라, 제땅을 두고 그리운 조국을 떠나야 하는 겨레에 대한 끝없는 동정과 련민의 정을 느끼시며 우리 나라를 빼앗은 일제놈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금치 못하신다. 더구나 그이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아버님을 따라 린쟝으로 가시면서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에 대한 적개심과 원쑤를 때려부실 굳은 결의를 다지시며 그후 린쟝과 바다오거우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일제놈들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더욱 키워나가신다. 소설에서는 대원수님께서 동무들과 함께 눈사람을 왜놈처럼 만드시고 새끼줄로 꽁꽁 매신 이야기, 낚시줄로 고기잡이를 하실 때 메기를 잡으시고는 순사놈을 잡았다고 말씀하시는 장면 등을 통하여 그이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왜놈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린쟝에서 소학교에 입학하시고 이후 바다오거우소학교에 전학하신 대원수님께서 부모님의 가르치심대로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고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는 길을 닦는 중대한 일로 여기시고 꾸준히 학습하시는 생활을 구체적으로 형상함으로써 그것이 단순한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확고한 계급의식, 강의한 의지를 키워나가신 보람차고 위대한 로정이였음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소설은 대원수님께서 시련에 찬 현실을 직접 체험하시면서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시고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애국자로서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추어나가시는 과정 그리고 어린시절 그이께서 지니신 한없이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고매한 풍모를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 주체64(1975)년판〕

《동틀무렵》(1, 2부) 장편소설. 주체49(1960)년 엄흥섭 창작. 전후 남조선에서 미제와 괴뢰도당의 반인민적통치에 굴하지 않고 싸우는 과정에 점차 계급적으로 각성되여가는 선진적인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의 제1부에서 홍찬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여나 독학으로 미술공부를 마친 뒤 마리아녀학교 미술교원으로 취직하여 손영옥을 비롯한 녀학생들의 교육에 힘쓴다. 그러나 신성한 학원을 미국놈들의 더러운 유흥장으로 전락시키고 순진한 녀학생들을 놈들의 롱락물로 만들려는 교장 김치선을 비롯한 미제앞잡이들의 굴욕적인 처사에 항거하였다는 죄로 찬수는 파직당하며 영옥은 선생의 복직을 요구하여 동맹휴학을 선동하였다 하여 감금당한다. 이 사건으로 하여 련루자의 루명을 쓰고 감방에 갇히게 된 찬수는 로동자 만국의 영향을 받아 점차 각성하게 되며 출옥한 뒤 남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술창작사에 취직한다. 경영주의 권유에 못이겨 매판자본가이며 《국회의원》인 박춘식의 별장벽화를 그리러 갔던 찬수는 라체화를 그릴데 대한 스틸맨대좌놈과 박춘식의 요구를 거절하고 놈들과 맞섰다가 스틸맨놈의 권총에 맞아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고향 남해가로 내려간다. 고향마을에서 듣게 된 절량농민들의 봉기와 부두로동자들의 투쟁소식은 찬수에게 커다란 사상적충격을 준다. 서울에 다시 올라온 찬수는 지난날의 애상세계에서 벗어나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에서 새로운 미적감정을 체험하고 그들의 투쟁을 형상한 화폭을 창조하여 학생운동의 선두에 서서 투쟁하는 영옥을 비롯한 제자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그 대오에

합류해나선다. 소설의 제2부는 그후 투쟁의 길에 나선 찬수와 영옥 등 주인공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고있다. 놈들이 다시 체포하려고 날뛰는 조건에서 변장을 하고 경찰의 검색을 피해 숨어다니면서도 찬수는 놈들이 민의원선거놀음을 벌려놓았을 때 혼자서 독자적으로 반선거선전화를 그려 내다붙이며 그후 만국이와 손을 잡고 강철공장로동자들과 철도공장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을 도와 선전화도 그리고 선전물도 찍는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손영옥, 조선희들의 무죄석방을 위한 투쟁에 적극 협력한다. 한편 감옥에서 더욱 억세여진 영옥과 선희도 재판장에서 중형을 들씌우려고 날뛰는 괴뢰놈들과 당당히 맞서싸운다. 남조선에 구호물자를 보내주기로 한 공화국정부의 성명이 발표된것과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 전지역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더욱 강화된다. 로동자, 농민, 학생들뿐아니라 미국놈들에게 속아 파산을 당하게 된 상인들도 항의시위에 나서며 미제의 앞잡이노릇을 하던 김치선은 강도질을 나온 미국놈의 총에 개죽음을 당한다. 부산에 내려온 홍찬수는 부두로동자들의 파업에 직접 참가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며 병보석으로 나온 손영옥, 조선희들도 투쟁을 계속하여 미군장교놈들의 유흥장으로 만들려던 마리아녀학교설립기념식을 완전히 파탄시킨다. 투쟁과정에 찬수는 체포되지만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기운은 더욱더 높아진다. 소설은 자기의 쓰라린 생활체험과 남조선인민들의 눈물겨운 처지를 목격하는 과정에 각성되여 반미투쟁에 떨쳐나서는 주인공 홍찬수와 손영옥 등 남조선의 선진적인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의 전형적인 형상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이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또한 미제의 충실한 주구이며 인간쓰레기인 매판자본가 박춘식과 마리아녀학교 교장 김치선, 그들의 실제적인 조종자인 웰톤과 스틸맨 등 부정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략탈성과 야수성, 포악성과 저렬성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형상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소설은 전후시기에 창작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9(1960)년판〕

《동포》 단편소설. 주체68(1979)년 박종상 창작. 엄혹한 생활세파에 고생하며 일본인화되여가는 조선동포가족을 민족의 얼을 지니고 참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한 총련일군을 형상한 작품이다. 총련분회장 권석구는 자기가 사는 근처에 다다미점을 운영하는 동포일가가 살고있다는것을 알고 찾아가나 그 집의 젊은 주인에게서 괭대를 받는다. 그러나 석구는 동포 한사람이라도 찾아내여 옳바로 살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시 그 집을 찾아간다. 그때 젊은 주인의 아버지인 윤로인을 만난 석구는 그 집 사정을 자세히 알게 된다. 다리를 못쓰는 불구인데다가 천식까지 심하여 누워만 있는 로인과 일본놈들이 로인의 집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불행을 자기 집일처럼 여긴 석구는 그들이 총련지부 상공회의 도움도 받게 하고 로인에게 조선꿀도 구해준다. 한편 로인의 피눈물나는 과거도 이야기해주어 그가 조선사람임을 증오하던 자신을 뉘우치고 참다운 생활을 하도록 일깨워준다. 소설은 석구의 형상을 통하여 동포 한사람이라도 더 찾아내여 그들이 조선사람의 긍지와 보람을 안고 참된 삶을 누리도록 애쓰는 총련일군의 헌신적인 노력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재일조선작가작품집 《조국은 언제나 마음속에》,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동해천리》 장편소설. 주체84(1995)년 백남룡 창작. 총서 《불멸의 향도》중의 한권이다. 당사업과 행정경제사업에서의 성과도 우리 당의 대중령도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있다는것을 동해지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과정을 통하여 심오하게 밝혀낸 작품이다. 소설은 평안북도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실험에 쓸 원료를 얻어가지고 흥남으로 간다는 한 녀인을 만나 그를 정거장까지 태워다주시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밤 1시가 지나서야 집무실에 들어서신 그이앞에는 크고작은 수많은 일감들이 놓여있었다. 밤을 새워 수많은 자료와 문건들을 보시다가 농사문제때문에 머나먼 북부아프리카땅에서 걸어오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전화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동해지구에 나가있는 농업위원장 리장천을 찾아가시던 길에 그의 고향에 들리신다. 10여년전에 알고계시던 소녀로부터 지금은 처녀로 자라 작업반장을 하고있는 백리향을 만나시여 농장의 실태를 료해하시면서 그와 리장천의 조카와의 관계도 알게 되신 그이께서는 일가친척들을 도시로 빼내가는 농업부문의 일부 지도일군들의 그릇된 행동에서 그들이 땅과 멀어지고있다는것을 포착하신다. 이때 급히 달려온 리장천을 만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모내기를 제철에 끝내고 유기질비료도 많이 생산하며 고향에도 자주 들려보라고 이르시고 검덕, 흥남지구, 무산—청진정광수송관부설공사장을 돌아보시기 위해 떠나신다. 그이께서는 렬차에서 정광수송관부설공사를 책임진 당중앙위원회 리인결부부장에게 당권을 리용하여 독단을 부렸다고 제기된 송암군당책임비서 리중결에 대한 신소자료를 다시 확인해보라고 하신 다음 공사에서 난문제인 진펄극복방도를 중기계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중속에 들어가 찾아보라고 말씀하신다. 그길로 검덕에 가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광산에 나와있는 도당책임비서 한만규와 광산일군들을 만나신다. 한만규로부터 자신이 관심하시던 한 로동자가 입당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며 사람의 평가는 과거경력이 아니라 본인의 현재생활이라고 다시금 일깨워주신다. 그러시고나서 광차를 늘이고 대형화하는 방법으로 운광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보고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것만으로는 안된다고 하시며 광부들을 찾아 막장에 들어가신다.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을 만나 실태를 료해하시고 벨트콘베아를 놓아 운광문제를 풀데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 현장에서 침식하는 로동자들을 가리키시며 일군들은 기업관리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검덕을 떠나시여 새로 만든 발동기를 올려놓은 함선의 시험항행을 보시고 흥남비료련합기업소로 오신 그이께서는 협의회를 여시고 공장실태를 료해하신 다음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가서 보수용자재를 해결해온 화학공업부장 허상민과 현장지원으로 정치사업을 굼때는 한만규에게 생산을 높일 방도는 사람들의 창발성과 재능을 발양시키고 떠밀어주는데 있는것만큼 그들속에서 기술적방안을 찾아보자고 하신다. 이튿날 그이께서는 한만규를 데리고 화학비료생산을 높이는데 필요한 첨가제연구를 진행하고있는 한 녀성을 도와주다가 생산계획을 미달한것으로 하여 해임되였다는 지배인을 찾아 북천화학공장으로 가신다. 공장에 가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가 밤을 새웠다고 하는 보이라보수현장을 거쳐 집에까지 찾아가시여 실험실을 방불케 하는 방안을 돌아보시면서 지배인과 불손한 관계가 있다고 하던 녀기사가 바로 자신께서 평안북도에서 돌아오실 때 태워다주신 녀인이라는것을 알게 되신다. 그이께서는 이들의 진정을 느끼시며 한만규에게 지배인을 복직시키고 첨가제생산공정을 꾸려주는 한편 홀로 사는 그와 로처녀인 녀기사가 가정을 이루게 한 후 살림을 잘 보살펴주라고 당부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어 지난날처럼 과오를 범할가봐 비료생산을 높일수 있는 기술개조안을 설계해온 옛 친구의 아들을 랭대해보낸 허상민에게 전쟁시기 그를 살려준 장인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며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것을 준절히 타일러

주시는 한편 압축기개조안을 실현하도록 해주신다. 흥남지구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신 그이께서는 또다시 무산－청진정광수송관부설공사장을 찾으시여 리인걸이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 진펄극복방도를 가르쳐주시고나서 그곳 송암군당책임비서에 대하여 물어보신다. 리인걸로부터 사촌형인 그곳 군당책임비서의 자료를 보고받으신 그이께서는 직권을 람용한 한 관리위원장에게 처벌을 준것은 당적원칙이라고 하시면서 파오를 범한 사람일수록 인정미를 가지고 대하여주라고 말씀하신다. 겹쌓이는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그이께서는 돌아오시는 길로 함경남도에서 그곳 도당일군들, 각 도당책임비서들,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일부 정무원책임일군들과 동해안의 주요 공장, 기업소 당비서와 지배인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신다. 그이께서는 당의 요구대로 일하지 못하는 일군들을 비판하신 다음 6개년계획은 물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려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대중령도방법을 당사업과 행정경제사업에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소설은 동해지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리장천을 만나 모자라는 화학비료를 유기질비료로 대신할수 있도록 생산해놓았다는것과 평양에 데려오려던 조카를 처녀작업반장과 함께 고향에서 농사를 짓게 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기뻐하시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은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대로 일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풍모를 빛나는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또한 소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뜨거운 인간애와 혁명적전개력을 여러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진실하게 그려내고있다. 작품은 중심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혁명의 수령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형상생리에 맞게 그려낸것으로 하여 중요한 문학사적의의를 가진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4(1995)년판〕

《두 검사공》 단편소설. 주체49(1960)년 고동온 창작. 제품검사공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기대공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라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요구성이 높기로 소문난 가공직장 3작업반의 검사공 혜경은 기능이 어린 서분녀가 제품의 질을 보장하는데는 관심이 적고 지나치게 일욕심만 앞세운다고 생각하면서 그가 깎은 제품들이 도면과 조금이라도 어긋날 때에는 사정없이 불합격딱지를 붙여 수정하도록 한다. 혜경이의 이러한 태도를 두고 애인인 1작업반 검사공 천호는 검사공들이 규정대로 일하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칙 하나만 일면적으로 내세울 때에는 기대공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하며 그후 그가 평양에 등교를 갔을 때에는 분녀의 기대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일하면서 오작제품을 내고있는 원인과 퇴치방도에 대하여 차근차근 가르쳐준다. 그런데 평양에서 돌아온 혜경은 천호의 방조가 분녀의 잘난체하는 버릇을 더 길러주었다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무턱대고 수정작업을 진행할것을 요구하며 이로 하여 작업총화에서 군중관점이 바로서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때에야 혜경은 지금까지 분녀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그가 보다 높은 생산성과를 거두도록 검사를 지향시키지 못한 원인이 기대공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들의 열의를 귀중히 여기는 뜨거운 마음이 없는데 있었다는것을 심각하게 느끼게 된다. 소설은 혜경이의 교훈적인 생활체험을 통하여 동지들에 대한 사심없는 뜨거운 사랑이야말로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49(1960)년 6호〕

《두 교원》 단편소설. 주체50(1961)년

김성춘 창작. 당의 교육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학교의 물질적토대를 꾸리는 사업에 모든 정열을 바쳐가는 한 처녀교원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강도에 신설된 기술학교로 자진해온 명희는 축산과를 맡아 물질적토대를 시급히 갖추기 위해 애쓴다. 그는 토끼우리도 짓고 꿀벌통도 가져다놓으며 교수에 리용할 직관물들도 밤을 새워 만드는 한편 학생들에게 산토끼와 집토끼의 차이점을 정확히 가르쳐주기 위하여 직접 산토끼를 잡아다 기르기도 한다. 그런데 농산과 교원 허경학은 명희의 행동을 철없는 처녀교원의 부질없는 소행으로 여기며 자기가 맡은 농산학소조책임자 영호학생이 축산과로 옮기겠다고 하였을 때에는 명희에 대하여 오해한다. 그러던 그는 오랜 교육자인 자기도 물러선 연구발표회에 출연하여 산토끼와 집토끼를 길러본 경험을 대비적으로 고찰하면서 토끼사육관리에 대하여 흥미있게 설명하는 명희의 모습을 보면서 직관교수의 우월성을 리해하게 된다. 그는 산골학교를 떠나지 않고 교육사업에 종사해온 만족감에 사로잡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려 하지 않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명희와의 경쟁속에 축산학연구실을 꾸리는 사업에 적극 나선다. 소설은 경학이가 명희의 스승인 자기의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주인공의 높은 정신세계를 펼쳐보임으로써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속에서 힘차게 전진하는 천리마시대 교원들의 전형을 창조하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50(1961)년 9호〕

《두개의 화살》 중편소설. 주체78(1989)년 박종렬 창작. 과학발전에서 중요한것은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는것과 함께 그를 방해하는 적을 소멸하는것—즉 2개의 화살을 정확히 겨누고 쏘아야 한다는것을 강조한 작품이다. 기술고문으로 파견된 아버지를 따라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에 간 주인공 진성은 자기가 만든 요술거울로 바다밑을 비쳐보다가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상한 《문어》를 보게 된다. 한편 로보트전문가인 진성이 아버지의 지휘밑에 성과적으로 진행되던 바다밑공사는 그곳에서 일하던 로보트들의 파괴행위로 일시 중단된다. 그 누군가가 로보트들에 란동을 부리도록 지령을 주어 파괴행위를 하게 한것이다. 사고원인을 해명하는 과정에 진성이 그리고 진성이 아버지를 비롯한 조선기술집단은 《과학기술쎈터》라는 명목밑에 이 나라에 들어온 미국인들이 생물소자로 인공뇌수를 만들어 동물에 주입하여 특수한 문어를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처럼 행동하면서 바다밑공사를 파괴하도록 하였다는것을 알게 된다. 또한 그들이 사람들에게서 본래의 뇌수를 죽여버리고 그대신 인공뇌수를 바꾸어넣음으로써 저들의 지령대로만 움직이는 노예로 만들어 현대의 리상적인 제2노예사회를 만들려는 음흉한 목적을 품고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놈들의 이 범죄적목적에 의해 바다밑공장의 지배인으로 될 부스만의 아들 미라타가 그 실험대상으로 되여 죽어가다가 조선기술자들에 의해 겨우 구원되여 놈들의 기도는 백일하에 폭로된다. 작품은 과학적환상을 통해 놈들의 범죄적행위를 예리하게 밝혀내고있으며 다양하고 풍부한 사건조직과 인간관계 설정,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과학적환상세계의 창조 등으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8(1989)년판〕

《두 귀돌이》 단편소설. 주체56(1967)년 백현우 창작. 이 땅에 태여난 두 귀돌이의 운명을 놓고 분렬된 조국의 아픔을 가셔야 한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지창호작업반장이 함께 싸우다 희생된 전우인 필성의 아들 명호에게서 태여난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것인가 생각하다가 전쟁시기 남녘땅에 두고온 귀돌이를 회상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창호가 속한 부대가 샘골마을을 해방하던 날 낳은지 한달이 되나마나한 귀돌이가 풍을 만났다. 인민군전사들이

저저마다 피를 수혈해주어 귀돌이가 피여나기 시작하였다. 그 고마움을 언제나 간직했던 샘골로인과 그 집 며느리는 그후 필성을 비롯한 창호의 분대원들이 적들의 추격을 받게 되였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조짚더미에 숨겨준다. 로인이 자기 가정의 생명을 내걸고 전사들을 도와주고 전사들은 로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적들과 치렬한 격전을 벌리던중 필성이가 적탄에 맞아 희생된다. 귀중한 전우의 시체를 묻고 어린애와 로인을 남긴채 그들은 샘골을 지나 북으로 떠나온다. 남녘의 귀돌이를 잊지 못하고있던 창호는 아이의 이름을 귀돌이라 지어부르면서 저 남녘의 귀돌이도 찾고 눈물지으며 바래주던 샘골로인도 모셔올뿐아니라 명호를 아버지인 필성의 묘소에 데리고가서 분향도 시켜야 할 통일의 그날을 그려본다. 이것을 통하여 소설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분렬된 조국의 아픔이 얼마나 뼈저리고 고통스러운것인가를 보여주면서 먼저 간 전우들의 귀중한 념원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태여날 후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어이 조국통일의 숙원을 성취해야 한다는 사상을 밝혀주고 있다.〔《조선문학》 잡지, 주체56(1967)년 2호〕

《두 녀인》 단편소설. 주체80(1991)년 남상혁 창작. 총련과 《민단》은 다같은 조선민족임을 자각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떨쳐나서야 한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에서 정순은 아들 진태와 딸 순애를 거느린 어머니로서 남편 준호와 함께 리무진다방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총련조직성원이다. 한때 녀맹사업에도 관여한바 있는데다 인정이 깊은 정순은 앞집의 나가시마의사로부터 남조선계의 한 녀인이 자살미수로 병원에 들어왔음을 알게 된다. 이미 생을 포기한 그 녀인은 구급치료도 거절할뿐아니라 식사도 안하고 점적바늘도 뽑아버리군 한다는것이다. 정순은 한피줄을 나눈 동포로서 깊은 동정과 련민의 정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는 과정에 민옥이라고 부르는 그 녀인이 기구한 운명으로 남편과 헤여져 일본에 와서 외눈의 일본청년과 살면서 갖은 구박과 박해를 견디기 어려워 자살을 기도했었다는것을 알게 된다. 정순과 준호는 혼자 살기로 결심한 민옥을 도와 창녕간이매점을 차려주고 영업이 잘되도록 도와준다. 한편 그의 외삼촌은 민옥에게 정부의 지침이 있으니 정순이네가 총련계이므로 주의하고 멀리하도록 강요하며 민옥 역시 남조선에서 살 때부터 반공의 영향을 받았던것으로 하여 자연 경계심을 가지고 멀리하려 한다. 민옥의 마음을 돌려세우려 애쓰던 정순은 남조선에 있을 때 그에게도 순애와 같은 날에 태여난 선아라는 딸이 있었다는것을 알게 되며 남편과 토론하여 창녕개점 1돐과 순애, 선아의 생일을 계기로 민옥을 불러 함께 생일을 축복해준다. 민옥은 진심으로 그들이 다 같은 친형제이며 한동포, 한민족임을 뼈저리게 체험하며 선아를 찾았다는 친구의 기별을 받고 서울로 떠난다. 그를 바래우는 정순은 민족분렬로 하여 지금껏 겪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더 깊이 절감한다. 소설은 비교적 큰 분량의 단편으로서 두 녀인의 형상을 통하여 모든 불행은 외세에 의한 민족분렬에 있으며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조선문학》 잡지, 주체80(1991)년 11호—주체81(1992)년 1호〕

《두 동무》 중편소설. 주체74(1985)년 김용길 창작. 희망은 오직 꾸준한 노력과 인내성있는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동물소조원인 주인공 영수는 중학교 2학년학생으로서 앞으로 동물박사가 될 커다란 꿈을 안고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말없이 묵묵히 극복해나간다. 동물연구사업에서 때로 실패도 하며 그것으로 하여 동무들로부터 비난도 받으나 그는 자기가 희망한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기어이 그 뜻을 성취한다. 그러나 같은 동물소조원인 성남이는 처음 무엇을 할 때에는 큰 산이라도 허물어버릴듯 법석 끓

다가도 조금만 힘이 들면 주저앉고만다. 그러던 그도 동무들의 따뜻한 충고와 도움으로 자기 결함을 극복해나간다. 소설은 두 학생의 대조적인 성격을 통하여 자기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아름다운 희망과 포부는 오직 인내성있는 노력과 동요를 모르는 완강한 투쟁으로 열매맺게 된다는것을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을 통해 잘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대조의 수법에 의한 인물들의 뚜렷한 개성화, 주인공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펼쳐진 사건조직과 인간관계의 설정 등으로 높은 형상성을 보장하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4(1985)년판〕

《두만강》(1—3부) 장편소설. 주체43(1954)—주체51(1962)년 리기영 창작. 우리 나라를 침략한 일본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폭넓은 서사시적화폭속에서 반영한 작품이다. 소설은 우리나라 민족해방투쟁의 첫 단계를 이루는 19세기말—20세기초의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시기로부터 8.15해방전까지의 약 50여년간의 력사적현실을 예술적으로 재현하고있다. 1, 2부는 19세기말부터 1920년대초까지 즉 민족해방투쟁이 아직 로동계급에 의하여 령도되지 못하였던 시기의 투쟁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고있으며 제3부는 공산주의자들의 령도밑에 진행되는 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력사적단계를 반영하고있다. 제1부는 19세기말부터 191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1905년에 날조된 《을사5조약》, 일제의 침략적인 경부선철도부설 그리고 그에 항거하여 일떠선 농민폭동, 의병투쟁, 애국문화계몽운동 등 중요한 력사적사건들과 사변들을 폭넓게 반영하고있다. 작품의 주인공 박곰손을 비롯한 송월동농민들은 지주 한길주의 가혹한 착취로 말미암아 비참한 생활을 한다. 치부욕에 환장이 된 한길주는 박곰손의 온 식구가 옹근 이태동안 피땀흘려 푼 서너마지기의 논을 강제로 빼앗은데 뒤이어 송월동의 가난한 농민들의 명줄이 걸려있는 따비밭들을 하나하나 다 빼앗아낸다. 더는 그대로 살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송월동농민들은 점차 계급적으로 각성하며 일제의 략탈과 지주의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선다. 주인공 곰손은 그처럼 공을 들여 일군 논을 한길주에게 빼앗기고 왜놈들의 철도공사장에 끌려나가 힘겨운 일에 시달리며 민족적모욕을 받는 과정에 계급적으로 눈뜨게 되며 투쟁에 나설뿐아니라 농민들이 각성하도록 일깨워준다. 그의 성격발전에서 전환점으로 된것은 애국지사인 리진경의 영향 특히 최도욱의병부대와의 련계이다. 그는 의병을 도와 왜놈들과 봉건지주계급을 반대하여 투쟁하다가 놈들에게 체포되여 야만적인 고문을 받으면서까지도 애국적지조를 굽히지 않는다. 제2부에서는 무산칠소에서의 곰손의 생활과 그곳 화전민들의 비참한 처지, 인민대중과 련계를 맺고 적극 활약하는 의병들의 투쟁을 그리고있다. 반일투쟁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벌릴 결심밑에 두만강을 건느려고 무산칠소에 도착한 곰손은 다시 헌병대에 체포되여 무서운 매를 맞고 나와 칠소에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 한편 국외의 의병들의 활동과 국내운동을 련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담당한다. 아들 씨동이를 의병부대에 보내고 의병들과 조직적인 련계를 가진 이후 수차의 습격전투를 보장한 그는 또다시 체포되며 왜놈들의 모진 고문끝에 숨을 거둔다. 작품에서는 또한 인민들과 밀접한 련계를 맺고 왜놈들과 싸우는 의병들인 안무, 씨동, 장덕만의 투쟁모습을 그리고있다. 제3부에서는 공산주의자로 성장한 박곰손의 아들 박씨동의 운명과 생활을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진행된 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력사적단계를 반영하고있다. 소설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보여주는 력사적사실들과 허구들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각이한 계급의 력사적운명을 천명하였다. 작품의 주인공 박곰손은 근면하고 소박할뿐아니라 정

의감이 강한 사람이다. 그의 형상은 당시 우리 인민의 열렬한 애국정신과 강의한 투쟁정신,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태도를 보여주며 우리 나라 농민들의 계급적성장과정을 체현하고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설은 새것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락천적인 기백을 지닌 씨동이, 분이, 옥이, 쌍둥이형제, 덕성이, 상금이 등 새 세대들의 형상을 통하여 일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전망을 보여주고있다. 량반가정출신의 애국적지식인으로 형상된 리진경은 반일투쟁에 나선 당시 우국지사들의 성격을 전형화한 인물로 되고있다. 소설은 19세기말부터 8.15해방전까지의 방대한 력사적시기를 포괄하고있다. 실재한 력사적사실들과 사변들, 시대를 대표하는 각계층 인물들의 성격을 다양하고 생동하게 창조함으로써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훌륭히 구현하고있으며 째인 구성과 생동한 자연묘사, 민족적색채가 짙은 언어형상 등으로 높은 예술성을 보장하고있다. 소설은 해방후 우리 나라 력사소설이 이룩한 성과작의 하나이다.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3(1954)년－주체51(1962)년판〕

《두만강지구》 장편소설. 주체69(1980)년 석윤기 창작.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한권이다. 고난의 행군이 끝난 주체28(1939)년 5월부터 이해 초가을 대부대선회작전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3개의 편으로 구성되여있다. 1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또다시 조국땅에 진군하시여 무산지구전투를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을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이 부분에서 사령관동지께서 주체28(1939)년 5월 18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압록강을 건느시여 청봉에 도착하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한데 이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청봉숙영지에서 대원들과 함께 조국땅을 밟은 기쁨을 안으시고 나무들에 원쑤격멸의 힘있는 구호들을 쓰시는 감동적인 장면을 생동하게 그리고있다. 또한 적들이 산악지대와 압록강연안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종적을 찾고있을 때 일행천리전술로 대낮에 갑무경비도로를 보무당당히 행군한 사실과 조선인민혁명군이 벌린 신사동과 신개척일대에서의 정치군사활동, 대홍단전투에 대하여 실감있게 그리고있다. 소설의 제2편에서는 사령관동지께서 백두산동북부의 올기강기슭 휘풍동과 회양동에서 군사정치활동을 적극 벌리시면서 인민들속에 혁명의 씨앗을 뿌려가시는데 대하여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무산지구전투를 끝마치시고 두만강을 건느신 사령관동지께서는 24일 큰골에서 주력부대의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여 무산지구작전의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시고 백두산동북부일대에서 적들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눌러놓고 혁명조직들을 복구확대하며 인민들에 대한 정치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다. 소설에서는 무산지구전투이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벌리신 휘풍동, 회양동일대에서의 군중정치사업과 다마로거우(대마록구)전투, 올기강전투를 력사적자료에 의거하여 생동하게 그리고있다. 소설의 제3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금천동일대의 광산지구에서 조국광복회조직을 복구하시고 새로운 정세에 맞게 적들에게 보다 큰 타격을 가하기 위한 령활한 작전을 벌리시며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확대강화해나가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려나가시는 숭엄한 모습을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무산지구전투와 두만강연안 및 백두산동북부에서 벌린 조선인민혁명군의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기본줄거리로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인민에 대한 그이의 한없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 한 조선혁명은 그 어떠한 난국도 뚫고 승승장구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철학적으로 밝혀내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69(1980)년판〕

《두만강의 봄》 장편소설. 주체76(1987)

년 리명균 창작. 해방전 일제식민지통치시기 갈길 몰라 방황하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조국광복의 참된 길을 걷게 되는 한 청년지식인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두만강가의 류주시에서 고학으로 중학교를 다니는 최준영은 아버지가 독립군에서 전사했고 형이 그뒤를 이어 독립군에 나간 자기네 집안래력을 알게 된 후부터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에 한몸바쳐나설 열망으로 가슴을 불태운다. 그렇지만 그는 두만강연안 가까운 곳에 반일인민유격대와 유격구가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동무들이 그리로 가자고 할 때 응하지 않는다. 한때 그는 공산주의사조에 호감을 가졌다가 민족주의자들의 애국운동을 무시하고 무모한 폭동으로 대중을 희생시키는 파쟁분자들을 보고는 공산주의운동 그 자체에 혐오를 느꼈던것이다. 자기 형의 소식을 기다리던 준영은 독립군이 몰락해가는 속에 형이 싸움길에서 물러나 정미업자로 되였다는 소식을 받고 절망에 빠진다. 그러던중 그는 전에 자기를 공산주의길로 이끌려 했던 김지춘이 일제경찰의 추격을 받는것을 보게 된다. 그를 도와나섰던 준영은 그에게서 유격구에 가면 민족해방의 길을 찾을수 있다는 귀중한 조언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경찰의 포위에 걸려 그들은 체포된다. 지춘은 감옥에서 희생되고 준영은 호송도중 렬차에서 뛰여내려 탈출한다. 그후 지춘이 일러준대로 천동광산으로 간 준영은 그곳에서 일하면서 폭약을 빼내여 유격구에 보내고있는 로동자들의 투쟁을 직접 목격한다. 아직 조직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굴이 무너져 부상당한 준영은 잠시 류주시에 있는 의사이며 아버지의 친우인 고하윤의 집에서 치료를 받는다. 몸이 회복되자 그는 공산주의를 외면하고있는 고하윤과 그의 딸이며 자기의 애인인 윤희가 만류하는것을 물리치고 다시 광산에 찾아온다. 여기서 지하조직의 믿음을 받아 유격구에 들어간 그는 유격대에 입대한다. 유격구방위전에 참가하여 준영은 유격대와 인민이 하나로 뭉쳐 일제의 《토벌》을 짓부시는 모습을 보게 되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 그이로부터 전체 조선인민이 떨쳐나 하나로 뭉쳐 싸울 때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해방할수 있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게 된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전체 인민이 뭉쳐싸우는 길이 곧 조국해방의 길이라는것을 확신하고 그 길에서 용감히 싸운다. 그는 류주시에 대한 지하공작임무가 자기에게 맡겨졌을 때 그곳에 내려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광범한 애국력량을 묶어세우며 확대된 조직의 힘으로 사령부에 대한 적들의 《토벌》계획도 사전에 알아내여 파탄시킨다. 그리고 독립의 길에서 주저앉은 형과 공산주의자들이 진정한 애국자들이라는것을 알고 도와나서기 시작한 고하윤과 윤희를 혁명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만든다. 이러한 속에 암흑만이 서렸던 두만강가에는 해방의 봄빛이 비쳐들기 시작한다. 소설은 나라잃은 그 세월 민족해방의 열망은 있어도 갈길 몰라 헤매이던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에 이끌려 조국해방의 참된 길, 전민항쟁의 길에 나서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6(1987)년판〕

《두번째 배치장》 단편소설. 주체72(1983)년 백남룡 창작. 행복한 시절에 조국이 준 위치를 쉽게 바꾼다면 준엄한 시절에는 당도 조국도 쉽게 저버리게 된다는 생활의 진리를 인상깊게 형상한 작품이다. 후방과 출납원의 배치장을 받은 가공직장 선반공 주혜옥은 16년전 처녀시절부터 바이트날에 불꽃이 질 사이없이 일해온 오랜 기능공이였다. 그래서 그는 두번째 배치장을 받았을 때 그것이 자기의 보람찬 청춘시절과 꾸준하고 힘겨운 로동의 응당한 대가라고 여겼으며 긍지감까지 갖게 된다. 그러나 혜옥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피흘리며 손으로 선반피대바퀴를 돌리고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나날과 사회주의대건설의 벅찬 나날에는 전쟁때 다친 다리를 절며 30년간이나

선반을 돌린 지배인의 안해가 자기의 기대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심한 가책을 받는다. 그래서 혜옥은 조국을 위해 피 한방울 흘리지 못하고도 뻐젓이 편안한 곳에 가려 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다시 가공직장으로 간다. 작품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은 행복한 시절이나 준엄한 시절이나 변함없이 당과 조국을 받드는 한길에서 삶을 빛내야 한다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72(1983)년 8호〕

《두번째 토론》 단편소설. 주체47(1958)년 변희근 창작.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하는 한 목공아바이의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평시에 말이 없어 《벙어리아바이》로 불리우는 목제품공장 조립직장의 나이많은 목수인 강성순은 어느날 직장모임에 참가한 지배인에게 아무 고려없이 큰 못들을 공급해주는 거치른 일본새에 대하여 따끔하게 비판한다. 또한 얼마전까지 개인목공업을 하다가 공장에 들어온 한성백이 말로는 못들을 아껴써야 한다고 곧잘 외우면서도 일할 때에는 구부러진것들을 펴서 쓰지 않고 톱밥과 대패밥속에 내버리는 현상을 두고 그에게 충고를 준다. 그러나 그가 이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것을 알게 된 강성순아바이는 작업복혁띠에 주머니를 만들어달고 거기에 내버려져있는 못들을 매일 주어넣는다. 어느날 직장월말총화회의연단에 나선 아바이는 못이 가득차있는 주머니를 펼쳐보이면서 못을 절약하여 쓰지 않고 망탕 랑비하는것은 되는대로 일해도 도급제에 의한 상금만 많이 타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낡은 리기주의적관점에 바탕을 두고있다고 한성백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계속하여 성순은 구부러진 못을 펴야 다시 쓸수 있는것처럼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부터 고쳐야 진짜배기로동계급이 될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아바이의 토론에서 심각한 가책을 받은 한성백은 머리속에 박혀있는 낡은 사상을 털어버리고 나라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로동계급이 될것을 마음다진다. 소설은 주인공 강성순의 형상을 통하여 천리마시대 로동계급의 성격적특질을 밝히고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는 사상개조, 인간개조과정을 실감있게 반영하고있다. 〔《문학신문》, 주체47(1958)년 제12호〕

《두번째 파업》 단편소설. 주체54(1965)년 리수선 창작. 남조선의 한 로동자의 계급적각성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괴뢰《륙군》피복공장의 로동자 춘선은 빈궁과 무권리를 숙명적인것으로 생각하고 가정에 꾹 박혀있으면서 석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여 들고일어난 로동자들의 파업투쟁에 선뜻 참가하지 못한다. 첫번째 파업이 일어난 후 그는 투쟁에 참가한 로동자들을 위협해보려는 놈들의 모략에 의하여 공장에서 해고되였을뿐아니라 파업을 선동하고 자취를 감춘 핵심로동자 영호와 친하다는 리유로 감옥에 갇히게 된다. 감옥에서 그는 인철을 비롯한 로동자들의 굴할줄 모르는 투쟁정신에 접하면서 점차 각성하게 된다. 그후 춘선은 자기가 갇혀있는 기간 가정을 돌보아준 로동자들의 의리, 자기를 구출하기 위한 로동자들의 단합된 투쟁에서 큰 감동을 받아안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놈들과 견결히 싸울 각오를 다진 춘선은 두번째 파업에 결연히 떨쳐나서며 주저없이, 굴함없이 뭉쳐서 싸우는 길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웨친다. 소설은 주인공의 계급적성장과정을 통하여 남조선의 로동계급이 자신들의 사회적처지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굳게 단결하여 계급적원쑤들과 판가리싸움을 벌려야 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4(1965)년 제66, 67호〕

《두 병사》 단편소설. 주체43(1954)년 리종렬 창작. 원쑤들과의 싸움에서 무쇠같은 체력을 갖추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것을 두 인민군전사의 대조적인 생활을 통하여 밝혀낸 작품이다. 주인공 규식과 갈

은 또래의 용수는 전쟁시기부터 둘도 없는 친구로서 적들과의 싸움에서 총만 잘 쏘면 되는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전후에 규식은 전쟁시기 적 군수기재집결처를 습격하고 돌아오다가 담장도 넘지 못해 분대장을 부상당하게 하였던 일을 잊지 않고 신체단련에 힘쓴다. 그는 중대의 집체훈련을 앞두고 꾸준히 노력하여 기어이 평행봉 3종까지 완성하지만 용수는 여전히 신체단련에 낯을 돌리지 않는다. 소설은 규식이가 중대집체훈련때 용수의 배낭까지 메고 벼랑을 톺아오름으로써 그로 하여금 싸움에서 체력을 잘 준비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것으로 끝을 맺고있다. 작품은 정치사상적준비와 함께 체력을 튼튼히 다지는것은 군인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것이라는 것을 전쟁시기와 결부시켜 보여줌으로써 군인들이 무쇠같은 체력을 다지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신인단편소설집 《희망의 언덕》,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3(1954)년판〕

《두 병사》 영화문학. 오혜영 창작. 군사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나운 풍랑으로 적구에 억류되였던 인민군전사들이 적들의 온갖 위협과 강박, 회유책동을 물리치고 용감히 싸워 조국의 품에 안기는 감동적인 사실을 형상한 작품이다. 전마선을 타고 군사임무를 수행하던 석진과 용철은 풍랑을 만나 혼수상태에 빠져 적들에게 랍치되여간다. 적들은 그들을 귀순시켜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한다. 그러나 석진과 용철은 놈들의 가소로운 연극에 침을 뱉으며 빨리 돌려보내줄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선다. 교활한 놈들은 가짜 석진이를 만들어서 모략을 꾸미는가 하면 서로의 불신을 조성하고 꼬여내려고 한다. 그러나 그 어떤 회유와 기만술책도 병사들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적구에 홀로 떨어져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장군님곁에 있는 석진과 용철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만을 믿고 싸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표현한 가요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를 힘차게 불러 원쑤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다. 그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존함을 존칭을 담아 부를것을 적들에게 강력히 요구하며 최후의 사형장에서도 혁명전사의 불굴의 의지를 시위한다. 한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적진속에서 싸우는 두 병사를 무조건 데려와야 한다고 하시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신다. 두 병사는 마침내 오매에도 그립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된다. 작품은 보통병사들이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으로, 조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모두가 영웅이며 불굴의 전사들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밝혀주고있다. 작품은 주체84(1995)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두 선장》 영화문학. 김영균 창작. 물고기잡이전투에서 경쟁을 벌리는 두 선장의 형상을 통하여 당의 수산정책관철을 방해하는 투기적경향, 큰 고기떼만 기다리며 세소어업을 홀시하는 낡은 사상관점을 비판하고있는 작품이다. 영화의 중심에는 《전진》호 선장 경윤과 《혁신》호 선장 락환이 서있다. 이들은 해방전 소년어로공으로 칠성판을 등지고 파도사나운 바다를 떠돌아다닐 때부터 고락을 같이하면서 우정을 나누어온 막역한 사이였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정신상태와 사업태도, 일본새는 매우 대조적이다. 《전진》호 선장 경윤은 당의 방침대로 먼바다어업과 중소어업을 배합하며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사철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만능고기잡이배로 개조하고 성실하게 일한다. 이와는 달리 《혁신》호 선장 락환은 투기병에 물젖어 중소어업을 쬐쬐한것으로 여기며 큰 고기떼만 기다린다. 어느날 큰 고기떼가 나타났다는 급보를 받은 락환은 안개속도 아랑곳없이 배를 몰아대다가 작업중에 있는 《전진》호를 들이받는다. 친구의 투기병에 대해 늘 걱정하던 경윤은 이 사건을 기회로 락환의 투기병을 고쳐주기

로 결심하고 그에게 고급어족을 잡아 배를 파손시킨 손해배상을 할것을 강경히 요구한다. 이렇게 되니 싫건좋건 락환은 세소어업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이과정에 그는 점차 세소어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며 손해배상으로 잡아바친 고급어족을 모두 《혁신》호의 생산고에 올려주는 경윤의 동지적우의앞에서 세소어업을 홀시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심각하게 돌이켜본다. 작품은 두 선장의 대조적인 형상을 통하여 언제나 당의 방침과 의도대로 생활하고 일해나가야 자기가 맡은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작품은 주체71(1982)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두 생명》 단편소설. 주체47(1958)년 변희근 창작. 인민의 충복이 되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온갖 심혈을 기울여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를 기적적으로 구원해낸 어느 한 병원 외과의사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해방전 앓는 아버지에게 돈이 없어 약 한첩 써주지 못한 주인공 최동선은 해방후 의학대학을 나오고 의사가 된 사람이다. 하기에 그는 불치의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환갑이 넘은 한 로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며 의사협의회에서 대담하게 수술할것을 제기한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기존방식에 사로잡혀 최동선의 주장을 반대한다. 그는 자기를 찾아와 행복한 세월에 오래오래 살면서 일을 많이 하여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여야 하겠으니 수술해달라고 하는 로인의 간청을 받게 된다. 최동선은 마침내 결심을 내리고 대담하게 수술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원한다. 작품은 대조적인 두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 마련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집 《영광의 기록》,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7(1958)년판〕

《두 장군에 대한 이야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힘센 장군과 꾀많은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싸움에서 이기려면 힘과 함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옛날 어느 바다가의 도래마을과 나루마을에서 용맹과 슬기를 키워가는 무쇠장군과 새별장군이 내기를 하게 되였는데 첫번째 내기는 날아가는 화살을 앞서달려가 막아내는것이며 두번째 내기는 날아가는 독수리를 맞히는것이였다. 두가지 내기에서 두 장군은 똑같이 자기 기술을 발휘하여 비기게 된다. 세번째 내기인 닭털을 담장너머로 넘기는 내기에서 무쇠장군은 힘으로 하려다가 못 넘기고 새별장군은 닭털을 손에 들고 바람새를 살펴가며 입으로 불어넘김으로써 이기게 된다. 이야기는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사람은 힘과 함께 반드시 지혜를 가지고있어야 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야기는 사건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흥미있게 꾸며지고있으며 특히 대조와 과장의 수법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감으로써 어린이들의 심리정서에 맞는 재미있는 작품으로 되고있다. 이 이야기는 그후 동화와 아동영화로 옮겨졌다. 〔동화집 《나비와 수탉》,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2(1983)년판〕

《두 조합원》 단편소설. 주체47(1958)년 천세봉 창작. 락후한 조합원과 휩쓸려다니던 한 조합원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물고기잡이에 취미를 가지고있는 조합원 치근은 가물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야간작업이 진행되고있는 때에 옆에서 일하던 김대구로부터 함께 몰래 빠져 강으로 나가자는 말을 듣는다. 그는 선뜻 따라서지는 않았으나 은근히 후회한다. 한편 혼자서 강에 나간 대구는 황어를 한짐 되게 잡아 짊어지고 오다가 민청원들의 눈에 띄자 짐을 벗어던지고 달아났다가 얼마후에 되돌아와 그 물고기짐이 치근의것이라고 꾸며대며 작업이 끝난 후에 그를 찾아가서는 조합원들이 그렇게 말하였다고 속여넘긴다. 그의 진속을 꿰뚫어보지 못한채 아침에 조합사

무실로 불리워간 치근은 조합을 속이는것은 곧 자기자신을 속이는것이고 나아가서 조합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된다고 하는 관리위원장의 말을 들으며 비로소 대구가 자기를 속였다는것을 알게 된다. 지금껏 사사일에 눈이 어두워 대구의 리기적인 행위를 바로잡아줄 대신 오히려 맞장구를 쳐온 자신을 심각히 돌이켜본 치근은 조합일에 투신하며 비량심적이고 리기주의적인 현상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해나갈 결심을 굳게 다진다. 소설은 치근의 교훈적인 생활체험을 통하여 사회주의적농업협동화가 완성된 다음 농민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던 낡은 사상잔재의 극복과정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47(1958)년 9호〕

《두 어로장》 단편소설. 주체47(1958)년 정창수 창작. 물고기잡이전투에서 공명심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물고기떼를 찾아 배를 몰고가던 건착선 1호 어로장 원준은 고등어떼를 발견하고 그 주위에 재빨리 그물을 친다. 그물안에 든 고기떼들은 출구를 찾아 날치다가 그물 한끝을 째고 달아나기 시작한다. 이것을 목격한 2호어로장 덕수는 덧그물로 포위망을 형성하여 고기떼가 도망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원준은 자기네가 잡은 고기떼를 가로채려 한다고 덕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당장 그물을 걷으라고 고함친다. 덕수네와의 물고기잡이경쟁에서 어떻게 하나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있던 원준은 잡은 물고기를 1호선에 모두 싣겠다는 그의 말을 듣고서야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치려 하지 않은 자신의 그릇된 태도를 뉘우친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쟁의 본질은 집단주의에 있으며 집단주의에 기초할 때 그 우월성이 높이 발현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47(1958)년 제25호〕

《두 운전사》 단편소설. 주체44(1955)년 김영희 창작. 전후 인민경제계획수행에 떨쳐나선 공장, 기업소들에 더 많은 자재와 설비를 실어나르기 위해 무사고운행의 불길을 높여가는 한 운전사의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자동차운전사양성소를 마치고 차사업소에 배치받은 최성준은 오랜 운전사인 유태식과 함께 다니며 배우라는 지시를 받게 된다. 어느날 성준은 그에게 어떻게 하면 차를 새것으로 유지하면서 무사고로 10만㎞를 달릴수 있겠는가고 물어본다. 그러나 유태식은 그에게 책임량이나 완수하고 낡은 차로서 지명받지 않으면 된다고 말한다. 그 소리에 반감을 느낀 성준은 이튿날 험한 산길을 택하여 태식이와 함께 나갔다가 차고장으로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라고 생각한 태식은 기술도 부족한데 옹고집을 쓰지 말라고 빈정댄다. 그러나 성준은 무사고운행을 위해 점검보수를 깐깐히 하면서 이악하게 노력한다. 그러던 어느날 태식은 성준이와 함께 산길로 목재를 운반하러 가게 되였으나 구실을 붙여 딴데로 가다가 사고를 내여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성준은 자기를 풋내기로 여기는 그가 고까왔지만 그를 도와줄 생각으로 병원에 면회도 가고 못쓰게 된 차도 수리해준다. 태식이가 퇴원하는 날 10만㎞ 무사고운행을 끝낸 성준이가 수리한 그의 차를 몰고 온다. 소설은 서로 손을 굳게 잡은 두 운전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험은 10년을 앞섰으나 이 젊은이보다 10만㎞나 떨어지고있다.》는 태식의 속대사로써 마감짓고있다. 작품은 두 운전사의 대조적인 생활을 통하여 충실성의 높이는 나이나 년한에 있는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을 받드는 마음속에 있다는것을 밝혀내고있다. 〔《작가학원제1기생창작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4(1955)년판〕

《두 유가족에 대한 이야기》 영화문학. 한복규 창작. 작품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한몸바친 혁명전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사랑과 은정을 돌

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덕성과 수령님의 품속에서 당의 핵심으로 자라나는 유가족들의 생활을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어느 한 기계공장의 부지배인으로 사업하는 옥금이와 직장장으로 일하는 기숙이가 렬사증을 수여받는 날에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서 끝없는 행복을 꽃피워온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회상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농촌의 순박한 가정부인이였던 옥금은 남편이 전사하자 그가 일하던 공장에 나가서 일한다. 옥금이와 한작업반에서 일하는 유가족인 기숙은 혁명하는 사람의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지 못한데로부터 맡은 일을 잘하지 못하며 사상정신적으로 뒤떨어진다. 기숙은 조직과 옥금의 원칙적인 비판과 방조를 받고 점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작업반일에 앞장서나간다. 작품은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공장부지배인으로 자라난 옥금이와 직장장이 된 기숙이가 혁명학원에서 공부하고있는 아들, 딸들과 함께 렬사증을 수여받고 어버이수령님께 충정다할 결의를 다지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은 두 유가족인 옥금이와 기숙이가 평범한 로동자로부터 공장의 부지배인, 직장장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하여 유가족들의 사업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며 그들을 우리 당의 핵심으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덕성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특히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학교운동회에 참석하시여 기숙의 아들인 창근에게 육친적인 사랑을 돌려주시는 이야기를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하고 은혜로운 사랑과 은덕이 있기에 유가족들이 나라의 역군으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오늘의 보람찬 삶과 행복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작품은 주체63(1974)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듣고싶은 목소리》 단편소설. 주체95(2006)년 변창률 창작. 선군시대 농촌초급일군의 사업작풍상문제를 한 제대군인출신분조장의 사업을 통하여 제기한 작품이다. 3분조장 천일은 분조원들에 대한 요구성이 매우 높은 초급일군이다. 그는 모판의 빈포기를 발견하고 일을 찾아서 하던중에 방금 싹틀 콩몇포기를 짓밟은 분조원 김삼실의 행동을 보고는 즉시에 추궁한다. 그리고 소고삐 한기장만큼 늦어 남들도 무심히 보는 분조원 신창옥의 지각을 놓고도 따끔히 지적하여 총화지으며 또 그날 저녁 그의 집에 초청되여갔다가도 손님들을 치르느라 피곤에 몰린 그에게 래일은 늦지 말아야 한다고 재삼 강조하고 돌아선다. 한편 천일은 분조원들이 자신들이 바친 땀방울의 진가를 느낄수 있게 그들이 맡아 작업한 이랑마다 분조원들의 이름이 찍힌 표쪽들을 묻게 하여 그들스스로가 량심의 총화를 짓게 한다. 이 과정에 분조에는 매 사람의 금새가 평가되는 기풍이 서며 그에 기초한 참다운 단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3분조원모두는 언제나 천일의 작업총화를 듣고싶어하였고 비내리는 한밤중에도 탈곡장에 스스로 달려나온다. 그리고 불만을 품고 분조를 떠나갔던 오춘순이도 다시 3분조로 돌아온다. 소설은 이처럼 분조원들에게 분조농사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성실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분조장 천일의 모습을 통하여 선군시대 초급일군이라면 오로지 사회와 집단을 위해 바친 노력과 헌신의 값높은 무게로 매개 인간들의 진가를 공정하게 평가할줄 아는 참된 목소리를 가져야 하며 그 목소리야말로 대중이 듣고싶어하는 목소리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95(2006)년 7호〕

《들국화》 단편소설. 주체55(1966)년 최태현 창작. 나서자란 고향땅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기 좋은 락원으로 가꾸어가는 청년들의 성실성과 향토애를 형상한 작품이다.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던 록주는 소꿉시절동무인 준철을 만나려 휴가를 받고 고향

마을로 간다. 록주는 몇년어간에 벌방 부럽지 않게 된 고향마을 옥천리를 보면서 제힘으로 고향마을을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리기 위해 애쓴 준철이를 비롯한 고향마을사람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도 농촌의 문화수준이 아직 도시에 비해 뒤떨어져있는것만큼 자기의 예술적재능을 도시에서만 꽃피울수 있다고 생각하며 고향사람들의 보람차고 흥겨운 생활에 선뜻 몸을 잠그려 하지 않는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는 날 준철은 록주에게 그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농촌홀시의 낡은 사상과 함께 나서자란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데 대하여 가슴아프게 이야기해준다. 준철의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정이 어린 충고를 들은 록주는 로동속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향토애가 부족했던 자신을 돌이켜보며 깊이 뉘우친다. 소설은 록주의 형상을 통하여 자기 고향, 자기 향토를 위하는 마음을 안고 성실하게 일하고 살아야 하며 로동속에서 창조되고 인민들과 함께 즐기는 예술이 진실로 아름답고 고상한 예술이라는 사상을 밝히고 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5(1966)년 3호〕

《들국화》 단편소설. 주체63(1974)년 심길순 창작.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미래에 대한 소중한 꿈과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간호장 귀순은 부상당한 분대장과 철수라는 전사를 인솔하고 후송의 길에 오른다. 분대장과 철수는 우리 나라 지질탐사의 유망한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지니고있었던 소대장 형석의 복수를 하지 못하고 후송된다는 생각에 진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귀순이가 꺾어온 들국화송이를 보고 한가한 행동이라고 분격하면서도 귀순이와 형석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들국화에 어떤 뜻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 일행은 후송도중 철수의 치료를 위해 형석의 고향집에 들린다. 치료를 끝낸 귀순은 전쟁전 형석이와 함께 이 지방에 류달리 무성한 들국화를 보며 이 꽃이 망간이 매장되여있음을 암시하는 지시식물로 될수 있다고 기쁨에 넘쳤던 일을 생각하며 피에 얼룩진 형석의 지질도에 들국화를 그려넣는다. 그때에야 귀순이가 형석이와 남다른 사이의 대학동창생임을 알게 된 두사람은 지도에 그려진 한송이의 들국화를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본다. 이를 통하여 작품은 우리 병사들의 심장속에 조국의 미래에 대한 소중한 꿈이 있었기에 그들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울수 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63(1974)년 6호〕

《들메나무잎이 설레인다》 단편소설. 주체66(1977)년 심길순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에서 간호원으로 용감히 싸운 한 녀대학생의 영웅적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대학시절에 모든 기계들을 다 자동화하여 무엇이든 마음먹은대로 척척 만들어낼 꿈을 안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 은심은 전쟁이 일어나자 군복을 입고 전선으로 나와 간호원으로서 부상당한 전사들을 정성껏 치료한다. 어느날 최전선에 있는 고사포부대에 예방주사를 놓으러 갔던 그는 고지우에서 갑자기 달려든 적비행기들의 폭격을 받게 된다. 이때 그는 적들의 폭격을 피하여 고지밑으로 내려가라는 전사들의 권고도 마다하고 전호에 남아 포탄들을 날라주며 부상당한 대원을 대신하여 용감히 싸워 적비행기를 격추시키고 전사한다. 전사한 그의 군복웃주머니에는 해방후 대학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대학생들의 앞날이 푸르러 설레이는 나무와 같이 창창하라는 의미에서 심어주신 들메나무의 잎사귀와 함께 대학동창생에게 보내는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거기에는 전선으로 떠나던 날 들메나무앞에서 다진 맹세대로 원쑤들을 쳐부시고 승리자의 영예를 안고 대학으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이 씌여져있었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인민군전사들

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은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륭성번영할 조국의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을 밝히고 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66(1977)년 7호〕

《들바람》 단편소설. 주체78(1989)년 박원초 창작. 한 평범한 농장원청년의 결혼과 대학입학문제를 두고 벌어진 이야기를 통하여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청년들의 역할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다.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작업반 기술지도원으로 일하는 처녀 황정금이 홍경진과 좋아한다는 소식은 그의 부모들을 기절초풍할 지경으로 놀라게 만든것은 물론 온 농장의 화제거리로 된다. 작업반장 엄재원도 그를 청맹과니라고 욕설한다. 그러나 정금이가 어제날의 불량청년이였던 홍경진에게 련정을 느낀것은 바로 그의 남다른 향학열때문이라는것을 알게 된 3대혁명소조원 허민은 그에 비추어 일도 잘하고 락천적으로 생활하지만 배우려는 열의가 없고 공부를 전혀 외면하고있는 농장청년들의 실태를 심각히 돌이켜보며 여기서 자기 사업의 중심고리를 포착한다. 허민은 경진을 본보기로 마을청년들의 학습의욕을 높이고 그들을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키우기 위해 애쓴다. 이와 동시에 허민은 경진의 결혼이 성사되도록 정금의 부모들을 설득시키며 작업반의 힘으로 새집까지 짓도록 한다. 그의 도움과 방조속에 몰라보게 성장한 경진은 마침내 대학입학시험을 위해 떠나게 된다. 소설은 농촌마을 한 처녀의 이야기를 통하여 향학열이 부족한 농촌의 젊은 세대, 생활의 보통생들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면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관철에서 청년들이 앞장서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78(1989)년 11호〕

《들장미》 중편소설. 주체78(1989)년 박태수 창작. 조국과 인민에게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영예군인들과 그 안해들의 인생관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가를 깊이있게 그려낸 작품이다. 정전직후 제대되여 고향에 돌아온 진숙임은 시병원 소아과 간호원을 마다하고 자진하여 보다 어려운 초소인 시방역소에 배치된다. 이러한 때 림근석이 다리를 하나 잃은 영예군인의 몸으로 숙임을 찾아온다. 림근석으로 말하면 바로 전쟁시기 숙임을 짝사랑하며 편지를 써보냈을 때 그의 편지가 온 사단의 면전에서 공개되여 망신당하였을뿐아니라 그후 적후에서 중상을 입고 군단병원에 파송된 정찰분대장 《들장미》였다. 그날 그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돌려보냈던 숙임은 점차 근석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매혹되여 사랑을 품게 된다. 그는 미남자이고 시상업관리소 상품배정지도원으로서 권세나 재산을 생활의 리상으로 간주하는 윤경재와의 약혼을 거절하고 근석과 결혼한다. 단란한 가정을 이룬 그들의 생활은 행복하였으나 남편 림근석이 전후 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만 있을수 없어 신발수리공이 되려고 하여 일시 곡절을 겪는다. 그러나 근석은 끝내 안해를 설복하고 신발수리공이 되며 몇해 지나서는 영예군인들로 구두공장을 건설할것을 발기한다. 근석은 공장이 건설된 후 기술과 과장으로 일하면서 공장의 생산을 착실히 뒤받침하는 한편 늘 생각해오던 새로운 표준신발문수와 구두모형을 얻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채 사망한다. 남편의 뜻을 꽃피우기 위해 영예군인구두공장으로 일터를 옮긴 숙임은 20여년세월이 지난 오늘에는 그 공장 초급당비서로 성장하게 되며 이 공장 제품은 전국품평회에서 련속 세번이나 1등을 한다. 소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데서 인생의 참된 가치와 보람을 찾는 주체의 인생관을 지닌 근석이와 그를 따라 성장해가는 숙임의 사상정신세계를 경재의 뒤떨어진 사상관점과의 대비속에서 실감있게 보여주면서 우리 청년들속에 새롭게 형성된 주체의 미관, 혁명적미관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소설은 영

예군인의 안해인 숙임의 시점에서 남편인 주인공을 그리면서 그의 체험과 사색을 분석적으로, 정서적으로 깊이 파고듦으로써 1인칭소설로서의 특성을 잘 살려내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8(1989)년판〕

《들쭉령의 세집》 중편소설. 주체81(1992)년 신용선 창작. 온 나라의 TV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은정을 감동적으로 형상한 작품이다. 주인공 정주혁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나라의 TV화를 실현할데 대하여 주신 말씀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한다. 그는 자기가 담당한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세대수의 80%이상이 TV를 보게 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 완성의 보고를 올린다.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어떤 외진 산골에 널려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한집까지 다 TV를 보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정주혁은 외진 산골에 널려있는 세채의 집을 주민지대로 이주시키려고 생각한다. 이 사실을 아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시면서 TV중계탑을 세워야 한다고 일깨워주신다. 정주혁은 인민을 위하고 아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이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지 못한 자책감을 안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린다. 마침내 높고 험한 들쭉령에 TV중계탑이 세워지고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 산골마을의 세집 사람들도 수도시민들과 똑같은 시간에 TV를 볼수 있게 된다. 소설은 온 나라의 TV화는 우리 당이 인민에게 약속한것이므로 그 리행에서는 추호의 에누리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형상을 통하여 진정한 인민의 충복이 되여 인민들에게 복무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나가시는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그이의 고매한 풍모를 감동적으로 형상하고있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절절한 가르치심속에서 자신의 결함을 심각히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정주혁의 형상을 통하여 일군들은 인민을 설복시켜 만족하다는 대답을 받아내는 식으로가 아니라 자신이 한몸바쳐 그들의 실질적수요를 충족시키는 참다운 일본새를 지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중편소설의 용적에 어울리게 인간관계를 집약적으로 설정하고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어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형상의 폭을 넓히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 주체81(1992)년판〕

《등대》 장편소설. 주체64(1975)년 리북명 창작. 항일무장투쟁의 영향밑에 계급적으로 각성되여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는 사하공장 로동자들의 성장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주체19(1930)년대초로부터 중엽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소설은 힘겨운 로동속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봉급날이 되였지만 몇푼 안되는 격정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하공장 로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여주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3직장 분리기공인 박봉태는 외상으로 먹은 쌀값을 비롯하여 이것저것 떼고 얼마 남지 않은 돈이지만 래일이 어머니생일이라는것을 알고 소내포 한근을 사가지고 집으로 간다. 그때 마침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봉태네 집에서 자라다가 빚값으로 대흥상회 주인인 백기찬놈에게 끌려가 부엌데기노릇을 하고있는 곱단이가 찾아와 그들은 함께 저녁식사를 한다. 백기찬은 사하공장 제조부장인 사까구찌에게 곱단을 섬겨바치고 비료판매권을 얻으려고 아들 동일과 함께 흉계를 꾸민다. 이것을 알게 된 곱단은 야밤에 몰래 놈들의 소굴을 빠져나와 바다에 몸을 던지며 봉태는 이에 격분하여 백기찬놈의 집에 달려들어 곱단을 내놓으라고 을러멘다. 가택침입이라는 죄로 류치장에 갇히게 된 봉태는 사하공장 운수계로동자인 권필의 영향밑에 점차 혁명의 진리를 깨닫게 되며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

의 마음을 간직한다. 소설은 다음부분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하공작원 김석호의 지도밑에 계급적으로 각성하며 투쟁의 길에 나서는 봉태의 성격장성과정을 생활적으로 그리고있다. 바다에 몸을 던졌던 곱단은 형제계좌상아바이에 의하여 구원되며 이 공장의 유일한 조선사람기사인 강정구의 도움으로 사하공장 분공장인 화학공장에 들어간다. 류치장에서 나온 봉태는 권필의 권고로 다시 3직장에 나간다. 소설은 다음부분에서 강정구가 설계한 개량분리기를 도입하고 로동자들을 집단해고하려는 사까구찌의 흉계와 저들의 패망을 유지하려고 군수생산을 늘이기 위해 광분하는 놈들의 만행을 보여주고있다. 어느날 3직장에서는 액체암모니아가 흘러나와 로동자들이 밖으로 뛰쳐나온다. 놈들은 50원의 상금을 내걸고 로동자들을 유혹하여 발브를 막으려고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다. 앓고있는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할 생각으로 나섰던 나어린 로동자 조태윤은 놈들이 구멍뚫린 잠수복을 입힌것으로 하여 발브가 있는 곳까지 채 가지도 못하고 쓰러져 죽고만다. 이에 격분한 3직장로동자들은 그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이것이 거절당하자 파업을 일으킨다. 봉태와 용근아바이 등 로동자들은 구호를 써붙이고 파업투쟁을 한다. 사까구찌는 3직장을 봉쇄하도록 하고 백기찬은 그들의 가족에게 일체 외상을 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로동자들이 주저앉게 하려고 하며 이 기회에 파업주동인물들을 기본으로 123명을 해고하려고 한다. 김석호는 지하조직을 발동하여 3직장에 식량과 물을 들여보내도록 하며 투쟁구호도 집단해고를 반대한다는 새로운 요구를 내걸게 한다. 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예상외로 완강한데 당황한 놈들은 조태윤의 위자료를 지불한다는 공시문을 내붙이게 된다. 그리하여 3직장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승리한다. 소설의 다음부분에서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기치밑에 로동자들의 투쟁이 심화되여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있다. 지하공작원의 지도밑에 봉태와 용근아바이, 삼득과 곱단, 강정구 등 많은 사람들이 혁명조직성원으로 되며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창립선언문을 받아안는다. 봉태는 어느날 바다가동굴에서 열린 지하조직소조책임자회의에 참가한다. 김석호는 회의에서 강정구가 알려주는 전환직장(군수품생산을 위한 직장)조업식날에 공장을 폭파해버리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짠다. 소설은 봉태와 권필, 삼득과 용근 등 로동자들에 의하여 전환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이 통쾌하게 폭파되는것으로 끝난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에게 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그이께서 발표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전체 인민을 반일항전에로 부르는 투쟁의 기치, 희망의 등대였음을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64(1975)년판〕

《등불》 서정시. 주체43(1954)년 정서촌 창작. 사회주의적협동화의 력사적인 전변을 두고 느끼는 농민들의 감격과 환희, 협동화의 밝은 래일에 대한 락관적인 지향을 노래한 작품이다.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날 《밖에서는 펑펑 눈이 내리》는데 이밤 마을의 풍경은 《협동의 새봄을 마련》하려는 농민들의 가슴을 더더욱 감격과 흥분으로 들먹이게 해준다.

> 이제는 뜨락또르 왕왕 휘몰아나가며
> 어제날 논두렁을 허물 때가 왔다!
> 이렇게 서로 무릎을 맞대이고
> 농민들은 이밤 힘을 합치고있다

랑만에 넘친 이밤 조합을 뭇고 명판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는 농민들의 마음은 벌써 휘황찬란한 협동화의 래일에 대한 꿈과 새생활에 대한 희망으로 설레인다. 시는 전후시기 농업협동화과정을 시화한 성과작의 하나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업

협동화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정서촌시집 《날이 밝는다》, 문예출판사, 주체65(1976)년판〕

《등산》 단편소설. 주체82(1993)년 김성관 창작. 인민을 하늘같이 믿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비로봉등산길을 열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준 작품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금평지대에 대한 그이의 현지지도를 보좌해드린 오일민장령은 묘향산유원지에 도착하여 휴식일정을 짠다. 그이께서는 오일민을 비롯한 수행원들이 그동안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느라 수고했다고 하시며 묘향산에 가서 푹 쉬자고 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일민에게 우리의 휴식은 등산이 기본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그 로정을 이미 정해진 길로가 아니라 초행길로 바꾸도록 하신다. 그이께서 묘향산의 주봉인 비로봉으로 등산로정을 잡자고 말씀하시자 오일민은 그이의 신변이 걱정되여 파악이 없다고 말씀올린다. 그이께서는 등산은 호기심과 모험을 동반해야 제격이라고 하시며 통이 크게 한번 파악해보자고 하신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앞장에 서시여 등산길을 개척해나가시며 수행한 일군들에게 우리는 모든 답사자들이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수 있게 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그이께서는 오일민에게 우리가 여기로 들어온것은 휴식도 휴식이지만 금평에 나왔던 걸음에 이곳에 들려 알아볼것이 있어서였다고 하시며 모든 답사자들이 묘향산의 주봉인 비로봉에도 응당 오를수 있게 답사날자를 넉넉히 잡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소설은 인민을 위해 휴식도 미루시고 묘향산등산길을 열어나가시며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에서 무한한 기쁨을 찾으시고 최상의 행복을 느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2(1993)년 7호〕

《대담성》 단편소설. 주체63(1974)년 리순화 창작. 기중기운전공처녀와 선반공청년의 일본새를 대조적으로 그려보이면서 우리 로동계급의 대담성이란 어떤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다. 기중기운전공 방실은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운전대를 잡은지 겨우 1년이 되나마나한 애어린 처녀이지만 책임성이 높아 소문이 난다. 같은 학교 3년선배인 선반공 혁기는 자기가 선배이고 혁신자라고 방실을 얕잡아본다. 설비가공을 위한 고속도절삭경기에 참가한 혁기는 기중기의 공칭능력보다 훨씬 초과되는 육중한 설비본체를 대담성이 없는 방실이가 들어내겠는지 걱정한다. 그에게 사상사업을 해야겠다고 기중기운전실에 올라간 혁기는 모든것을 각오하고 빈틈없이 준비를 갖추어놓은 방실이가 대담성도 높은 책임성에서 나온다고 말하자 말문이 막힌다. 방실이의 대담한 운전으로 하여 설비본체를 물림대에 들어올리는 작업은 성과적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하여 소설은 우리 로동계급의 대담성은 무모한 대담성이 아니라 높은 책임성으로 담보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단편소설집 《젊은 세대》, 문예출판사, 주체63(1974)년판〕

《대답》 단편소설. 주체70(1981)년 허여극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의 손에 들어간 연유저장고를 폭파해버린 한 소년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였을 때 미처 처리하지 못한 연유저장고가 적들의 손에 들어간다. 연유저장고를 관리하는 솔골집의 손자이며 소학교 4학년생인 혁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잠을 이루지 못한다. 밤이 깊어가자 할아버지는 불방망이를 만든다. 이때 혁이는 미리 준비했던 석유병을 가지고 할아버지보다 먼저 집을 나선다. 얼마후 거대한 폭음과 함께 연유저장고는 하늘로 날아난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와 혁이는 체포되여 적들의 총구앞에 나서게 된다. 원쑤들은 혁이에게 누가 시켜서 불을 질렀는가를 대라고 한

다. 이때 혁이는 가슴에 소중히 품고있던 붉은넥타이를 꺼내여 적들앞에 쳐든다. 소년의 대답은 원쑤들을 전률케 한다. 소설은 붉은넥타이를 매고 자라난 조선소년단원들은 항일선렬들의 넋을 이어받아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울 각오로 항상준비되여있는 나어린 투사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0(1981)년 3호〕

《대답》 단편소설. 주체78(1989)년 송병준 창작.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자면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후대교육사업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작품이다. 군안의 교육문제를 가지고 열린 군당집행위원회에 참가한 포구중학교 교원 차순옥은 열흘전 자연수업시간에 있은 일을 회상한다. 그날 군당책임비서가 교수참관한 수업시간에 순옥은 우리 나라에 흰꿩이 있는가 라는 학생들의 물음에 대답을 주지 못했던것이다. 그후 여러 참고서를 보고서도 그 문제를 확인 못하고있던 순옥은 군당집행위원회에서 책임비서가 과학원 동물연구소에까지 편지를 보내여 알아보고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깊은 가책을 느낀다. 그러면서 순옥은 후대교육에 그처럼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군당책임비서처럼 학생들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더 잘 키워갈것을 굳게 결심한다. 소설에서는 학생들의 물음은 곧 조국의 물음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후대교육사업을 실무적으로가 아니라 조국의 미래와 결부시켜 책임적으로 대해야 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히고있다. 〔《문학신문》, 주체78(1989)년 제36호〕

《대답》 단편소설. 주체81(1992)년 로정법 창작. 인민군대에 입대할것을 열렬히 희망하는 청년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신념을 보여준 작품이다. 중학교졸업을 앞둔 시기 90년대의 첫 영웅인 김광철영웅에 대한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은 진수는 대학이 아니라 군대로 갈 결심을 한다. 사촌동생 정호와 함께 도에 가서 최종신체검사를 했으나 뽈을 차다가 무릎마디를 약간 다친것으로 하여 진수는 불합격된다. 또한 왜 입대하려는가 하는 질문에도 만족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 진수는 신체검사에서 합격된 정호의 군복을 입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영화구경도 한다. 군복을 입은김에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에 나가려고 결심한 진수는 정호대신 자기가 입대하자고 그를 설복하기도 한다. 이때 지나가던 해군장령과 신체검사를 담당했던 녀의사 정애선생이 이 광경을 목격한다. 진수는 그들앞에서 당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새 세대로서 혁명의 군복을 입고 조국을 보위하겠다고 절절히 대답한다. 그 대답에 감동된 해군장령의 도움으로 진수는 한달후 군대에 입대하게 된다. 소설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여서 일상생활에서는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는것—왜 인민군대에 입대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가 후에야 만족한 대답을 하는 진수의 형상을 통하여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보위하기 위하여 피끓는 청년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신념의 대오》, 문예출판사, 주체81(1992)년판〕

《대덕산》 영화문학. 박국태 창작. 전연지대의 대덕산초소를 맡은 어느 한 중대군인들이 자기 초소를 금성철벽으로 지키고 중대를 일당백의 대오로 준비시키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형상한 작품이다. 주체51(1962)년 가을 어느날 대덕산중대에는 오래동안 군사복무를 해온 군인들을 제대시켜 사회주의건설장에 보낼데 대한 민족보위성 명령이 하달된다. 그리하여 경섭을 비롯한 전쟁참가자들이 사회주의건설장으로 떠나가게 되고 그대신 책상물림의 애어린 신입대원들이 중대에 배치되여온다. 중대장 동철은 초소근무와 방어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봉남이를 비롯한 신입대원들을 하루빨리 구대원의 수준으로 준비

시키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중대는 민족보위성훈련판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이무렵 강선제강소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덕산초소에서 제대되여온 어제날의 병사들을 만나주시고 대덕산초병들이 물때문에 고생한다고 하시면서 양수기를 놓아주도록 그들을 중대로 보내주시는 크나큰 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려는 불같은 열정을 안고 대덕산초병들은 한등급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도록 전투정치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려간다. 마침내 초소의 병사들은 모두가 다 펄펄나는 싸움군으로 자라나게 되며 그것은 전체 인민군대내에 일반화된다. 주체52(1963)년 2월 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덕산초소에 찾아오시여 중대를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일당백의 강철의 대오로 준비시킬데 대하여 교시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일당백》**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동철을 비롯한 대덕산초병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악하게 극복하면서 훈련을 더 적극적으로 벌려나간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과 인민군전사들사이에 맺어지는 뜨거운 사랑과 충정의 세계를 감동적으로 보여주면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속에 우리 인민군대는 일당백의 무적의 대오로 자라날수 있었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혀주고있다. 작품은 주체77(1988)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대동강》 장편소설. 주체40(1951)－주체43(1954)년 한설야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영웅적으로 싸운 인쇄공장로동자들의 애국적인 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대동강》, 《해방탑》, 《룡악산》의 3부로 구성되여있다. 작품은 주체39(1950)년 10월부터 주체40(1951)년 2월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작품의 제1부는 주인공 점순이를 비롯한 인쇄공장로동계급이 놈들의 신문 첫호발간을 완전히 파탄시키는 투쟁과정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제2부는 원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간직한 점순이네가 놈들의 허위선전을 폭로하는 삐라공작을 과감하게 진행하면서 애국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그리고있다. 제3부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서 돌아온 이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발악적인 책동을 물리치면서 인쇄공장을 복구건설하는 로동계급의 투쟁을 기본줄거리로 하고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평양인쇄공장에서 로동자로 일하던 점순이는 미국놈들의 포격에 중상당한 어머니때문에 미처 후퇴하지 못하고 거리에 남게 되자 아버지의 친구였으며 사동탄광의 탄부로 일하던 덕준이를 만나 그의 지도밑에 투쟁에 나선다. 남복을 하고 무연탄운반부노릇을 하면서 놈들의 전화선을 끊고 삐라를 뿌리고 벽보를 붙이던 점순은 덕준의 지지밑에 인쇄공장에 들어가 문일이와 상락이를 비롯한 로동자들을 투쟁에 적극 인입시킨다. 그들은 이미 조립한 기계설비들을 파괴하고 수많은 기계부속품들과 활자들을 무연탄재더미속과 쓰레기통에 집어던져 놈들의 신문발간에 일대 혼란을 조성하기도 한다. 그러자 놈들은 상락, 천식, 태선과 함께 점순을 협의자로 체포하여 경찰서로 압송한다. 그들은 압송도중 지하조직원들인 동수, 문일 등에 의하여 구출된다. 점순이의 어머니가 놈들에게 체포되여 수용소에 가게 되는것을 계기로 원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더욱 깊이 간직한 점순이네는 놈들의 허위선전을 폭로하는 삐라공작을 맹렬하게 진행한다. 그들은 삐라를 통하여 인민군대의 재진격소식도 알려준다. 점순은 놈들의 연회장폭파사건을 계기로 자기의 투쟁을 돌이켜보면서 더 힘껏 싸워가리라 결심한다. 급변하는 정세속에 삐라공작을 나갔던 상락이 체포되고 점순은 련락지점을 옮긴다. 점순은 덕준의 지시로 놈들의 연회장을 폭파시킨 최용범, 백화점 2층에서 쇠고랑을 차고 뛰여내린 박시현 등과 직접적인

련계를 맺는다. 최용범은 점순이네에게 남으로 패주하면서 애국자들을 대량학살하려는 놈들의 음모를 파탄시키고 애국자들을 구출할데 대한 전투임무를 준다. 한편 원쑤놈들에게 체포되였던 정상락은 《치안대》원으로 가장한 리종민에 의하여 구원된다. 상락으로부터 수용소의 구체적내용을 들은 점순은 상수리소비조합창고에 갇혀있는 애국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꾸민다. 그들은 상수리의 정전을 계기로 애국자들을 구원하는 전투를 벌려 승리한다. 점순이는 갇혀있는 어머니와 감격적인 상봉을 한다. 그후 점순이네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서 돌아온 로동자들과 함께 인쇄공장을 복구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선다. 작품은 놈들의 신문발간반대투쟁을 중심에 놓고 원쑤놈들의 일시적강점과 인민학살만행의 폭로, 인민들의 간고하고도 영웅적인 투쟁,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당의 령도 등 이 시기 생활을 다양하게 반영하면서 전진하는 새로운것과 멸망하는 낡은것과의 투쟁의 합법칙성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또한 주인공 점순이와 긍정인물들의 개성적인 성격을 통해 미제침략자들이 일시적으로 평양을 강점하였지만 우리 조국의 심장인 평양을 가슴속에 안고사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들에 의해 침략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고야만다는것 즉 미제침략자들은 절대로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문예총출판사, 주체40(1951)—주체43(1954)년판〕

《대동강》 장편서사시. 주체74(1985)년 오영재 창작. 랑림산정의 샘줄기로부터 시작하여 서해갑문에 이르는 대동강의 줄기찬 흐름우에 일떠선 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들과 그 기슭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아름답고 풍요한 자연을 긍지높이 노래하면서 그속에서 누리는 우리 인민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이 바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에 의하여 마련된것임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 기행체서사시이다. 서사시는 4개의 편과 머리시, 맺음시로 되여있다. 머리시에서는 인민의 행복을 안고 끝없이 흐르는 대동강에 시를 바치고싶은 시인의 절절한 마음을 토로하고있다. 1편에서는 대동강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면서 랑림산정에 올라 대동강의 첫 샘줄기를 찾은 시인의 격정과 언제건설로 산중호수—금성호가 생겨남으로써 이곳 사람들의 생활에서 세기적변혁이 일어난데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호수가의 밤낚시터에서 만난 윤로인을 통하여 시인은 그 옛날 봉건의 압제속에 무덤산의 구슬픈 전설이 생겨나고 대란리를 겪어야 했던 이 고장 사람들이 오늘은 물란리를 모르고 밤낚시질을 즐기며 《은정—216》호를 타고 호수를 오가는데 대하여서와 언제준공식때를 회상하면서 언제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과 이들에게 돌려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을 노래하고있다. 2편에서는 대동강을 5차례나 편답하는 지리학자 최교수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긍지높이 자랑하고있으며 승리산과 연풍호에 깃든 불멸의 사적에 대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노래하고있다. 3편에서는 대동강처녀 수옥의 높은 정신세계와 명훈의 낡은 생활관을 대조속에서 보여주고있으며 순천에 있는 리수복영웅의 집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을 칭송하고있다. 또한 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화의 나날에 대자연개조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력사의 땅 백송리에 깃든 혁명사적을 노래하면서 그날로부터 30년이 되는 바로 그날에 봉화갑문이 일떠서게 된 감격적인 사실을 시화하고있다. 4편에서는 드디여 평양에 이른 시인이 주체사상탑의 봉화가 타오르는 수도의 전경을 보면서 느끼는 새로운 감회와 격정, 마음의 고향 만경대가 있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의 력사가 깃든 평양에 대한 긍지, 천리마의 고향 강선땅에 새겨진 불멸의 사적과 우

리 인민의 충정의 마음을 노래하고있다. 4편의 마지막부분에서는 서해갑문건설을 진두지휘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를 칭송하고 건설자들의 창조력은 신념과 의지로 뭉쳐진 거대한 힘이라는것을 강조하고있다. 또한 광란하는 자연의 횡포속에서 넘어지는 기중기를 한목숨 내걸고 바로잡아놓은 수옥의 영웅적행동과 그 광경을 목격한 명훈의 심각한 뉘우침, 새로운 결의를 이야기하면서 일시 흐려졌던 이들의 사랑이 다시 이어진데 대하여, 우리 시대 생활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맺음시에서는 서해갑문이야말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떠선 시대의 기념비로서 후손만대에 길이 빛나리라는 격정을 토로하고있다. 시는 여러가지 형상수단과 수법을 다양하게 리용하여 기행체서사시의 특성을 잘 살리고있으며 과거와 현재를 대조시켜 주제사상을 뚜렷이 하고 구성의 립체성과 조형미를 보장하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4(1985)년판〕

《대동강풍경》 단편소설. 주체74(1985)년 박사영 창작. 대동강을 인민의 유원지, 풍치수려한 문화휴식터로 꾸리기 위하여 로고를 바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형상한 작품이다. 어느날 아침 대동강유보도에서 아침산책을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건설부문을 책임진 일군인 리무경을 만나시여 이전에 대동강의 어느 한 공원을 건설할 때 그와 함께 일하던 벽돌축조공 마동수로인에 대하여 물으신다. 리무경으로부터 그가 이제는 년로보장을 받고 낚시질로 여생을 보내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럼 함께 그 낚시장소에 가보자고 하신다. 그런데 그이께서 그곳에 가시였을 때 마동수로인은 없고 그의 짝패로인들만이 낚시질을 하고있었다. 로인들을 만나시여 그들의 이전 직업과 지금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마동수로인이 며칠째 앓아누워서 나오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아시고 꼭 완치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신다. 그러시고는 리무경에게 우리는 혁명의 로세대들과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대동강에 유원지와 놀이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소설은 인민을 위하여 베푸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음으로 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의 대동강풍경은 더욱 아름다와지고 조국강토는 날을 따라 살기 좋은 락원으로 변모되여가고있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74(1985)년 10호〕

《대동강에서 만난 사람들》 (1, 2부) 영화문학. 김세륜, 장광남, 리희찬, 박창수 창작. 우리 인민모두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진심으로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며 일하는 참모습을 웃음이 넘치는 밝고 명랑하며 락천적인 형상으로 재미있게 보여주고있는 경희극적양상의 작품이다. 작품의 중심에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려객선의 고문선장 강선달아바이와 유치원원장 조복금이 서있다. 어느날 대동강건설사업소의 지배인을 하는 선달의 맏아들은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식없이 홀로 사는 복금원장을 자기네 집에 데려다가 같이 살자고 제기한다. 복금의 아들은 서해갑문을 건설할 때 동지들을 위해 귀중한 목숨을 바쳤던것이다. 모두가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런데 난처한것은 복금원장을 어머니없이 홀로 사는 늙은 아버지와 함께 모시는것이였다. 여러가지로 론의하던 끝에 형제들은 복금원장을 후어머니로 모시자고 의견일치를 보고 두 늙은이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공작을 활발히 벌린다. 그러나 처음에 두 늙은이들은 젊은이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달과 복금은 통일거리건설을 지원하는 보람찬 나날에 함께 일도 하고 교예구경도 같이하면서 서로 가까와지게 된다. 그러던 이들사이에 새로운 정황이 조성된다. 대동강준첩선 선장인 동찬과

혜영의 결합문제를 놓고 강선달이 가짜 큰아버지의 역을 놀다보니 결국 혜영의 이모인 조복금과의 관계는 사돈관계로 되여버렸던것이다. 하지만 선달은 자기 문제에는 아랑곳없이 동찬과 혜영의 결합을 위해 조복금을 찾아 떠난다. 자기보다 먼저 남을 위해주는데 습관되여있는 주위사람들도 가만있지 않는다. 두 늙은이의 사랑을 맺어주기 위해 춘삼과 그의 로친, 맏아들과 혜영, 동찬 등 여러 사람들이 조복금을 찾아 은정리로 모여온다. 이러저러한 오해와 착각, 곡절은 있었지만 드디여 두 로인사이에 사랑이 맺어지게 되며 이 과정에 동찬과 혜영의 문제도 성사된다. 작품은 이러한 희극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작품은 주체82(1993)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대동강에 흐르는 이야기》 담시. 주체51(1962)년 백인준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동강언덕우에 자리잡았던 한 화학공장의 터전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시는 감동적인 사실을 소재로 하여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이의 크나큰 사랑을 노래한 작품이다. 기사장과 지배인이 공장부지를 돌아보고 만족해할 때 공장의 자리를 물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다가 이 공장을 여기에 세우면 장차 대동강에 물고기가 없어질것이라고 하시면서 자리를 옮기라고 말씀하신다. 시에서는 《이 땅의 한그루 나무, 한대의 풀잎에도 인민에 대한 그이의 배려》가 스며있다고 하면서 대동강에 깃든 감동적인 이야기는 100년, 200년이 흘러도 대동강의 흐름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라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시는 감동적인 사실을 간결한 서사적 화폭속에서 함축성있게 노래함으로써 이야기시의 특성을 잘 살리고있다. 〔종합시집 《수령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주체57(1968)년판〕

《대동강의 아침노을》 장편서사시. 주체76(1987)년 김응하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으로 정식화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현명하게 령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서사적화폭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6개의 장과 머리시, 맺음시로 구성되여있다. 머리시에서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크나큰 행복과 기쁨을 안고 춤추며 흐르는 대동강의 물결과 함께 주체의 붉은 노을이 누리를 물들이며 타오르던 력사의 그 새벽을 노래하려는 시인의 사상정서적지향을 노래하고있다. 제1장에서는 《지구의 거대한 자석인양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못 견디게 끌어당기》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집무실에 시점을 집중하여 순간의 빈틈도 없이 정력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시는 장군님의 분망한 하루를 보여주고있다. 아침일찍 중앙의 선전일군들을 부르시여 당사상사업실태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가셔야 할 휴양소에 ㅅ제철소자동화에 동원된 연구성원들을 보내도록 하시는 은정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신다. 제2장에서는 영화촬영소의 연출가 명수가 과오를 범하고 책벌을 받게 되였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촬영소에 나가시여 본인을 만나보시고 당비서와도 담화를 하시여 그를 다시한번 용서해주도록 하시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전하고있다. 제3장에서는 ㅅ제철소자동화정형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는 사람중심의 자동화를 해야 한다시며 마지막 소결로까지 깨끗이 자동화하도록 하시는 그이의 숭고한 인민적풍모와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이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걸어오신 전화를 받으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숭엄한 정서속에 펼쳐보인다. 제4장과 5장에서는 깊은 밤, 대동강에 나오시여 산책을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시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

히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원한 사색의 세계를 펼쳐보이고있다. 제6장에서는 온 나라의 사상부문 일군들을 부르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을 보여주고있다. 맺음시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사상화를 온 세상에 선포하실 결심을 내리신 력사의 강, 대동강의 아침노을은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의지이라는 격조높은 시형상을 통하여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힘있게 투쟁해나갈 우리 인민의 굳은 결의를 강렬한 주정으로 터뜨리고있다. 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원한 사색의 세계와 숭고한 풍모를 열정적인 시형상으로 부각하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6(1987)년판〕

《대대장과 전사》 단편소설. 주체50(1961)년 박효준 창작.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남조선의 량심적인 한 교수의 형상을 통하여 보여준 작품이다. 원주를 해방한 후 계속 적들을 족치며 남진의 길을 다그쳐가던 어느날 박기호대대장은 화선에 내보내달라고 찾아온 나이많은 정희창전사가 해방전 일본순사부장의 아들을 때린 자기를 비호하다가 교원자리에서 쫓겨났던 스승이라는것을 알아본다. 정희창도 그를 알아보고 반가와하며 제자에게 서울이 해방되자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는데 대하여 말해준다. 대대장은 그가 또다시 화선에 내보내달라고 제기하지만 승낙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며칠후 대대장과 중대장은 삼형제산 주봉을 견제하기 위한 방어성원들로 그가 속한 분대가 지목되자 하는수없이 화선에 나가도록 한다. 대대의 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48시간 고지를 지켜야 하는 전투에서 정희창은 용감하게 싸워 하루에도 몇차례씩 달려드는 적들을 족치는 싸움에서 자기의 몫을 훌륭히 담당한다. 이렇게 되자 처음에 걱정하던 분대장도 그를 더없이 귀중한 존재로 여긴다. 그후 대대장은 그가 부상당하여 후송되였을 때 군의소에 찾아와 후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교단에 설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는 전쟁이 승리할 때까지 전사로 싸우겠다고 대답한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이 없이는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교단도 학자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인민군창건 13주년 기념소설집 《조국을 위하여》,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50(1961)년판〕

《대령강》 장편소설. 주체83(1994)년 김성관 창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그토록 관심하시는 발전소공사를 기한전에 끝내기 위하여 온갖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줄기찬 투쟁을 벌리는 수력건설련합기업소 기사장을 비롯한 로동계급의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전력부문 책임일군들의 협의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기사장 김병익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진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건설공사를 앞당겨끝내려면 가물막이공사를 명년 홍수기전으로 끝내야 하는데 그러자면 언제타입의 미끄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바로 이때 수리공학연구소 선우하준연구사가 내려와 자기가 오래전부터 연구해오던 함형미끄럼에 의한 시험타입을 진행하여 성공함으로써 공사를 1년 앞당길수 있게 한다. 그러자 직장장들은 빨리 공사에 도입하자고 제기하지만 시험과정에서 미끄럼을 대형화할수 있다는것을 발견한 기사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자 하준은 기사장에 대한 불만을 품고 연구소로 돌아가버린다. 그러나 기사장은 물러서지 않고 기술자들로 미끄럼의 대형화설계를 위한 완성조를 꾸려 연구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하지만 시운전에서 실패하게 된다. 바로 이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간석지개간을 2년이상 앞당겨 수행할수 있는 기술공법을 찾아낸 석도간석지건설자들에게 감사문을 보내주신다. 감사문을 받아안은 기사장은 자기들도 응당 그들과 보조를 맞추리라는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생각한다. 책임비서는 미끄럼의 대

형화를 당위원회의 결정으로 채택하며 집행계획서에 기사장과 자기 이름을 써넣은 다음 그를 하준에게 보낸다. 그러나 기사장은 론문발표를 준비하는 그를 보고 미끄럼의 대형화문제를 꺼내지도 못한채 돌아온다. 한편 기사장이 돌아간 후 자기의 량심이 돌이켜진 하준은 스스로 다시 건설장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되여 미끄럼의 대형화가 다그쳐지는 가운데 이것을 위해 한 기사가 연구하던 세멘트수화열을 떨구기 위한 첨가제도 성공한다. 기사장은 대형화의 설계가 완성되여 건설공사를 훨씬 앞당겨끝낼수 있게 되자 그것을 빨리 실천에 옮기고 가물막이를 앞당겨 눈석이물까지 잡아둘 전투계획을 세운다. 바로 이때 례년에 없이 일찍 내리기 시작한 무더기비로 하여 건설장에 커다란 위험이 조성된다. 기사장의 지휘밑에 아직 건설중에 있는 언제와 조립중에 있는 대형휘틀을 구원하기 위한 전투가 책임비서를 선두로 한 돌격대원들에 의하여 진행된다. 계속되는 무더기비속에서 얼마나 전투를 벌려야 피해를 면할수 있는지 가늠할수 없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직승기가 날아와 그들을 도와주어 위험은 가셔진다. 소설은 주인공과 건설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언제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에 건설공사를 2년이상 앞당겨끝내는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맹세를 다지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정의 일념으로 가슴불태울 때 그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또한 발전소건설과정에 있었던 사실들을 주인공의 생활과 결부시켜 생동하게 그려냄으로써 시대의 특징을 진실하게 살려내고있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 중편소설. 주체63(1974)년 권장석 창작. 대를 이어 로동계급의 본분을 다해가는 어느 한 기계공장 소재준비직장의 한 로동가정을 형상한 작품이다. 5개 장으로 구성되여있는 소설은 당 제4차대회를 앞둔 1960년대초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소설은 쇠밥을 프레스로 눌러 만드는 ㅇ강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다가 소재준비직장 직장장으로 배치받은 주인공 혁철이가 이 방법의 도입을 반대하는 로세대들의 완고한 고집에 맞다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부직장장이며 사돈벌이 되는 석재길과 삼촌인 자재부장 장중손은 혁철의 안을 반대한다. 혁철의 아버지 장대손이 직장장으로 있을 때에 석재길과 함께 해놓은 ㅅ철생산기지에서 쇠밥으로 뽑은 ㅅ철은 다시 제강소에 가서 녹여와야만 소재로 쓸수 있었다. 그러나 혁철이가 연구하는 ㅇ강은 제강소에 가지 않고 프레스로 눌러 소재로 쓸수 있는 강재였다. 혁철은 오래동안 고심하여 연구해오던 ㅇ강실험이 성공한 조건에서 충분한 예비토의를 거쳐 직장생산설비를 뜯어고치기 위한 안을 공장기술협의회에 제출하려고 한다. 소설은 자기들이 이미 만들어놓은것을 뜯어고치려는 혁철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료양소에 가있는 장대손이까지 불러다가 종전방법을 고집하는 석재길, 장중손 등의 보수주의, 소극성을 보여주는가 하면 새 세대이지만 자기 근본을 잊고 들떠다니는 혁철의 조카 영춘을 부모의 원쑤를 갚는 심정으로 이악하게 일하는 련실과의 대조속에서 형상하고있다. 료양기일도 채우지 못하고 공장으로 돌아온 장대손은 자기네들이 해놓은것이 아무리 귀중하여도 혁명에 리익을 덜 주는것이라면 대담하게 뜯어고쳐야 한다고 하면서 석재길과 장중손을 비판하고 혁철을 지지하며 영춘이도 전쟁시기 쇠밥을 처리하다가 놈들의 폭격에 희생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착실히 일하도록 교양한다. 당위원장 김석이와 아버지의 방조밑에 혁철은 직장을 새롭게 꾸린다. ㅇ강생산기지가 완성되여 생산품이 나오던 어느 봄날 직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쇠밥을 꾹꾹 눌러 덩어리로 만들어내는 랭간압착프레스앞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치하하시면서 로동자들에게 감사를 주

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영춘이가 장대손의 손자라는것을 아시고 이렇게 한공장에서 대를 이어 혁명을 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만족해하신다. 소설은 장대손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차를 타고 료양소로 떠나가는것으로 끝난다. 소설은 우리 로동계급은 대를 이어가며 혁명에 무한히 충실해야 하며 그러자면 전세대가 이룩한 경험과 업적을 시대의 요구와 혁명의 리익에 맞게 부단히 발전시키고 끊임없이 혁신해나가야 한다는것을 천명하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63(1974)년판〕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가사. 주체60(1971)년 집체 창작.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며 그이께 대를 이어 충정을 다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고결한 사상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5개의 절로 되여있다. 가사의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모두에게 참된 삶을 안겨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그리는 인민들의 절절한 사상감정과 그이께서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불면불휴의 로고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4절과 5절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언제나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사나운 비바람과 눈보라가 휘몰아쳐와도 오직 한마음 그이께 충정을 다하려는 드팀없는 신념과 굳은 결의를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대를 이어 변함없이 받들어가는것을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로 여기는 우리 인민들의 깨끗한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조선가요 20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대민족》 단편소설. 주체84(1995)년 리성덕 창작. 우리 민족이 대민족이 되자면 민족의 두뇌가 되고 사상이 되고 천리앞길을 꿰뚫어볼 혜안을 지닌 위대한 령수를 모셔야 한다는것을 피의 교훈을 통하여 찾게 된 한 지식인의 마음의 고백을 보여준 작품이다. 1919년 9월 2일 제3대 총독으로 오는 해군대장 사이또 마꼬도의 도착을 취재하러 남대문역에 나갔던 기자 서창민은 폭탄투척사건을 목격한다. 사이또가 탄 4륜마차를 향해 누군가가 던진 폭탄에 륙군소장 무라다 등 29명의 왜놈들이 중경상을 입고 사이또놈은 요행 살아남는다. 놈들은 범인을 잡는다고 호통을 치며 싸다녔으나 그해가 다 가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결혼을 위하여 삼촌집에 도착한 창민은 약혼녀 강중옥이 3일전에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고민속에 지내던중 집에 찾아온 중옥을 만난다. 그는 일생을 함께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수 없게 되였다고 하면서 다르게 생각지 말아달라고 한다. 실련당한 아픈 마음을 안고 서울로 올라온 창민은 광고를 통해 사이또놈에게 폭탄을 던진 사람이 강우규이며 그에 대한 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참가한다. 공판정에서 창민은 자기의 약혼녀 중옥의 아버지가 강우규라는것을 알게 되며 중옥과 함께 강우규를 면회하러 간다. 강우규는 그들에게 우리 민족은 기상이 높고 뜻이 떳떳할뿐아니라 력사가 유구하고 도덕이 아름다우며 인총이 넉넉하여 대민족이지만 이끌어줄 령도자가 없어 머리없는 거인과 같다고 하면서 민족이 세기를 두고 고대해온것이니 지금쯤 틀림없이 어디에선가 우리 민족을 이끌어줄 위인이 나섰을것이라고, 그분을 맞이하고 높이 받들어모시라고 절절히 말한다. 강우규가 왜놈들에게 사형된 후 그의 아들과 딸, 서창민은 우리 민족을 이끌어줄 령도자를 찾아 투쟁의 길에 나선다. 소설은 강우규로인이 왜놈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령도자의 출현을 애타게 기다린 우리 민족의 절절한 념원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4(1995)년 1호〕

《대장부》 단편소설. 주체78(1989)년 남대현 창작.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싸우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을 형상한 작품이다. 수정의 집에 하숙하고있는 대학생 순호는 투쟁에서는 매 단계의 목표가 명백하고 성과가 뚜렷할 때 새로운 목표가 제시된다는 리론만 앞세우면서 실지 투쟁에 나서지 못하고있는 기태를 북남학생회담성취를 위한 투쟁에로 이끌기 위해 애쓴다. 기태를 사랑하고있던 수정은 그의 말과 행동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말이 거칠고 멋모르고 덤비는것만 같은 순호를 좋지 않게 대한다. 그러던 어느날 경찰에 체포되였던 기태가 고문에 못이겨 판문점회담을 위한 투쟁의 주모자가 순호라는것을 실토하며 그로 하여 순호는 수배대상이 된다. 이를 알게 된 수정은 나약한 기태를 경멸하며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싸우는것이 량심적인 행동이라고 한 순호의 말이 옳았다는것을 느낀다. 통일선봉대의 발대식이 거행되는 대학광장에 달려나간 수정은 군중앞에서 연설하고 내려오는 순호의 앞에서 그를 오해하였던 자신에 대하여 용서를 빈다. 순호는 그에게 기태 그자신이 나쁜것이 아니라 모든것을 짓밟아버리는 이러한 사회가 나쁘다고 하면서 자신을 뉘우치고 투쟁에 나선 기태에게로 수정을 떠민다. 소설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행동으로 투쟁에 나서는 사람이 진짜 대장부라는것을 자신의 모든것을 통일성업을 위한 길에 바치는 순호의 형상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78(1989)년 6호〕

《대지는 푸르다》 장편소설. 주체70(1981)년 석윤기 창작.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한권이다. 주체19(1930)년 여름부터 주체20(1931)년 2월 중순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일으킨 5.30폭동과 8.1폭동의 후과로 우리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였던 엄중한 난국을 타개해나가시면서 항일무장투쟁준비사업과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빛나는 서사시적화폭으로 보여준 혁명적대작이다. 작품은 3편으로 구성되여있다. 카룬(카륜)회의직후 김성주동지께서는 5.30폭동에 이어 계속되고있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좌경모험주의적책동과 날로 강화되는 일제의 간악한 반공모략책동으로 초래되는 엄중한 사태를 바로잡고 카룬(카륜)회의로선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유선아를 하얼빈(할빈)지구에 나가 공작하고있는 김혁의 사업을 도와주도록 떠나보내시고 이어 자신께서는 일제의 악질특무놈들이 날뛰고있는 하이룽(해룡)으로 가신다. 여기에서 국내로 나갈 임무를 지니고 활동하고있던 공영의 무장소조가 일제가 조작해낸 《신진혁명군》과 왜놈《토벌》대와 맞다들어 격전끝에 모두 희생되였다는 비보에 접하신 김성주동지께서는 비분에 찢기는 마음을 다잡으시고 그밤으로 하이룽(해룡)일대의 조직을 튼튼히 꾸릴 대책을 세우시고 새벽에는 지린(길림)으로 향하신다. 지린(길림)에서 허재률을 만나시여 둔화(돈화)의 엄중한 사태와 하얼빈(할빈)에서 공작하던 김혁이 조직을 구원하고 놈들에게 체포된 사실을 보고받으신 김성주동지께서는 구위수(고유수)로 되돌아오시여 폭동지구들에서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하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대책들을 토의하신 후 둔화(돈화)와 쟈오허(교하)방면으로 나가신다. 그러나 쟈오허(교하)에서는 무모한 8.1폭동의 후과로 많은 조직원들이 희생되고 조직선도 찾을수 없으시였다. 김성주동지께서는 독립군중대장이였던 장철하를 찾아가시였으나 그가 일신의 위험만을 생각하고있는데 분개하시여 되돌아나오시다가 동북군들의 추격을 받게 되신다. 이 위급한 순간에 김성주동지께서는 이름도 모르는 한 가난한 조선녀인의 방조를 받아 위험한 고비를 넘기신다. 우리 인민들에 대한 굳은 믿음을 다시금 확신하시면서 김성주동지께서는 일제의 류혈적탄압을 피하

여 흩어진 쟈오허(교하)인민들을 찾아 밤새워 산길을 걸으시며 끝내 한영희를 통하여 골짜기에 모인 인민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단합된 힘으로 놈들과 맞서싸워 살길을 열어나가도록 일깨워주신 후 그길로 하얼빈(할빈)으로 가신다. 하얼빈(할빈)에서 김성주동지께서는 나하로브까련락소를 복구하시고 농촌지역들에 나가시여 혁명조직도 꾸리시며 국제당련락소의 성원을 만나시여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해설해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로선의 정당성에 감복하도록 하시고 그후 퉁화(통화)와 왕칭(왕청)을 거쳐 온성지구에 나오시여 오중화형제들과 하연성의 안해 고만녀 등을 만나시여 혁명의식을 심어주시며 반일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신다. 이어 김성주동지께서는 우쟈쯔(오가자)마을에 오시여 한때 민족독립단의 부총재였으며 《리상촌》건설의 제창자인 변태익로인의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바로잡아주시는 한편 이름만 가진 마을의 여러 조직들을 반제청년동맹, 농민동맹, 부녀회 등의 혁명조직으로 꾸리시고 조직들의 역할을 높여나가도록 하시면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공연하도록 하심으로써 농민들에게 혁명의식을 심어주신다. 또한 마을의 완고한 박창우로인의 집과 림계산의원의 집에 친히 류숙하시면서 그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지주와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다. 하여 우쟈쯔(오가자)는 불과 몇달사이에 혁명촌으로 전변되게 된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룬(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튼튼히 틀어쥐시고 우리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였던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시면서 인민대중을 각성시켜 혁명적력량을 청신하고 활력있는 대지의 푸른 숲처럼 키우시는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력과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형상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주선으로 끌고나가면서 여기에 혁명전사들과 각이한 인물들의 생활선을 결합시켜 형상의 폭과 깊이를 보장하고있으며 대작으로서의 품격을 훌륭하게 살리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0(1981)년판〕

《대지에 대한 이야기》 단편소설. 주체89(2000)년 강귀미 창작. 지난날 일본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억눌려 살아오던 조선의 동포학생들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여 청춘의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우며 혁명의 역군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주체50(1961)년 일본의 니이가다항을 떠나 조국으로 귀국하는 동포들속에는 김승대라는 남학생도 있다. 그로 말하면 소학교시절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공부를 잘하여 일본인학생인 야마오까 아끼라와 1, 2등을 다투던 수재급의 학생이였다. 그의 소원은 장차 렬차를 끄는 기관사가 되는것이였다. 하지만 그의 꿈은 어느날 작문시간에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할 때 기관사가 되여 일본땅의 끝에서 끝까지 렬차를 몰고 달리고싶다는 희망을 썼다가 《죠센징기관사라니, 일본렬도가 가라앉기 전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수 없다.》는 일본인교원의 욕설을 듣고 물거품마냥 사라지고말았다. 그후 아끼라와 함께 고베시고등학교에 입학한 그는 미국류학생선발시험에 응시하게 되나 그때 역시 조선사람이라는 리유로 락선된다. 그후 그는 정신적고민속에 방황하다가 타락된 길을 걷게 되였다.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온 김승대는 귀국후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추천받았으나 그것을 마다하고 자기의 희망대로 기관차대의 기관조사로 배치받는다. 조국의 품에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세금걱정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 승대는 우리 나라의 첫 세대 기관사였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전시수송에서 위훈을 세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았지만 수수한 검차원이 되여 조국을 위해 묵묵히 성실한 땀을 바쳐

가는 김석범아바이의 훌륭한 모습을 따라 배우며 자기 맡은 일에 열성을 내여 일한다. 그후 재일동포들의 조국에로의 귀국실현 40돐을 맞으며 가진 방송야회에서는 로력영웅이 되여 나선 승대와 공훈예술가로 자라난 미혜, 박사로 자라난 건일사이에 감격적인 상봉이 이루어진다. 작품은 승대와 미혜, 건일 등과 함께 귀국하여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기자가 된 나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펼쳐보이면서 어머니조국의 품이야말로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의 운명을 보살펴주고 소박한 소원도 모두다 꽃피워주는 사랑의 대지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9(2000)년 12호〕

《대지에 뿌리내린다》 영화문학. 최창학 창작. 작품은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과학원에 배치된 한 청년이 농장일을 도우러 갔다가 사회주의농촌건설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칠것을 결심하고 자진하여 농촌에 남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과학원연구사로 배치된 주인공 인국은 대학시절에 주체농법선전대로 나갔던 상리협동농장의 농사일을 1년동안 도와주고 오라는 과업을 받고 농장으로 내려온다. 농장으로 내려온 인국은 영순반장을 다시 만나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 짓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토의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이 제기된다. 작업반기술지도원인 춘실은 남편을 따라 읍으로 갔고 1년전에 꾸려놓은 종자처리장은 못쓰게 되였으며 관리위원장과 일부 농장원들은 경험주의와 보수주의에 사로잡혀 현대과학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형편에서 인국은 농장의 핵심들인 작업반장 영순과 제대군인인 뜨락또르운전수 병삼 등과 함께 일을 짜고들어 애로와 난관을 극복해나가며 농장원들속에 주체농법을 보급하는 한편 못쓰게 된 종자처리장도 고쳐놓으며 딸을 도시로 시집보내려는 옥선 어머니와 어머니의 부추김에 귀가 솔깃하여 들떠있던 옥선이도 교양해나간다. 한편 관리위원장은 인국이는 농사일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지 농장의 일군은 아닌것만큼 일을 벌려놓고 하다가 안되면 가버릴것이라고 하면서 그의 제기와는 달리 한랭전선의 영향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 한편 인국은 영순반장이 지난해에 기록하여놓은 영농일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는 과정에 농사가 잘 안된 원인이 질좋은 부식토를 내지 않은데 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후 과학원에 갔다가 집에 들린 인국이가 갑자기 눈비가 내리고 날씨가 사나와진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농장으로 달려와 랭상모판에 나래를 덮는 모습을 보고 관리위원장과 농장원들은 깊은 감동을 받는다. 이날 영순의 할아버지로부터 영순이가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던 이야기를 들은 인국은 농장의 진정한 주인이 되여야겠다는 결의를 마음속으로 다지며 더욱 적극적으로 일해나간다. 그리하여 알곡을 정보당 10t이상씩 내는 성과를 거둔다. 또한 이 과정에 인국은 영순의 도움을 받으며 주체농법을 관철하는데서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연구해명한 가치있는 과학론문을 써서 출판물에 발표한다. 작품은 인국이가 과학원에서 돌아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농장에 뿌리내릴 결심을 다지고 영순과 결혼하는 장면에서 끝난다. 작품은 주인공 인국의 형상을 통하여 사회주의농촌이야말로 청년들이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가꾸고 꽃피워야 할 청춘의 활무대이며 가장 희망차고 보람찬 혁명초소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작품은 주체65(1976)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대지의 전설》 장편소설. 주체87(1998)년 김삼복 창작. 총서 《불멸의 력사》 해방후편에 속하는 작품이다. 장편소설은 조국해방전쟁이 갓 끝난 주체42(1953)년 7월부터 주체47(1958)년말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우리 나라 농촌에 사회주의협동화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은 예술적화폭으로 펼치고있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후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고 령락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전에 무르익혀오신 농업협동화를 전후에 본격화하기 위하여 중화군의 한 농촌마을을 찾으신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성장한 이 마을 농민들의 참모습을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동화가 농민들의 생활적요구로 나서고있으며 그들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의거하면 비록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해도 얼마든지 협동화를 완성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신다. 그러나 이전 쏘련에서 꼴호즈의 기사로 있다가 해방후 조국에 나온 농업성 부상 강봉석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큰 나라의 기존경험을 절대시하면서 우리 나라 농촌은 모든것이 파괴되여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기때문에 협동화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해나선다. 내각 부수상의 자리에 앉아있던 최창익을 비롯한 반당반혁명분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의 선차성을 운운하면서 어떻게 해서나 농업협동화에 제동을 걸고 우리 당의 권위를 훼손시켜보려고 획책한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시기 품앗이반을 잘 운영하여 전시식량생산을 보장한 현촌마을의 나어린 처녀 최옥금에게 협동조합을 시험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과업을 주신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에 농업협동화를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부서를 새로 내오도록 하시고 협동화운동을 적극 추진시키도록 하신다. 새해에 들어서면서 시험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들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합확대에서 자원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조합의 형태와 규모를 바로 정하도록 하시며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 조합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는 문제 등에 명철한 해명을 주신다. 뿐만아니라 새해영농준비사업과 식량구입, 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나라에서 맡아 대부해주도록 조치를 취하시며 강봉석에게는 협동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하나하나 일깨워주시고 협동화에 대한 성의 실무적지도를 맡겨주신다. 협동화운동이 적극 추진됨에 따라 계급적원쑤들과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책동도 우심해진다. 현촌마을에 기여든 반동놈들은 조합간판을 박살내고 반동여론을 내돌리며 소들을 독살한다. 최창익은 평남도 농산국장 안대식을 내세워 협동화를 극좌적으로 벌리도록 함으로써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시키며 조합에 우선적으로 주어야 할 대부금을 개인농들에게 주도록 지시함으로써 조합원들속에서 동요가 일어나게 한다. 이때 현촌마을을 현지지도하시다가 이러한 사태를 알게 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부금문제에서 나타난 경향을 바로잡도록 하시고 정부청사를 건설하기로 한 예산자금을 고스란히 돌리시여 농민들에게 줄 대부금문제를 해결하신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던 김일을 내각 부수상 겸 농업상으로 임명하시고 협동화운동을 책임지고 추진해나가도록 하시며 내각결정으로 협동화를 완성하기 위한 실무적인 조치까지 취해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탄생일에도 쉬지 않으시고 중화군 세창마을에 나가시여 기계로 파종한 보리가 싹터나온것을 보시고 환하게 웃으신다. 그해 가을 조합의 첫해농사를 잘 지어 많은 분배를 받게 된 현촌마을의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기쁨에 넘쳐 조합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 결의를 다지며 조합의 우월성을 깨달은 개인농들은 앞을 다투어 조합에 가입한다. 그로부터 얼마후 협동화는 대중적단계에 들어서며 전국적범위에서 급속하게 추진된다. 아직 큰 나라의 기존경험에 대한 의존을 버리지 못하고있던 강봉석은 이 빠른 속도를 두고 몹시 우려하며 최창익일당은 이것을 구실로 삼아 그를 당의 농업협동화방침을 반대하는 반당분자로 몰아 출당철직시키려 한다. 절망에 빠진 강봉석은 모든것을 포기하고 이전 쏘련에 다시 들어갈것을 결심한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농업발전을 위해 한몫 하겠다던 그의 진심을 변함없이 믿으시고 그가 집중지도

소조에 망라되여 현실속에 들어가 실지체험으로 협동화의 추동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도록 하신다. 한편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원화리에 나가시여 자신도 조합의 한 성원이라고 하시면서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조합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를 토의하신다. 현촌마을의 관리위원장 최옥금이가 전선에서 돌아온 애인과의 사랑문제(그의 아버지는 부농이였다.)로 하여 곡절을 겪고있는것을 아셨을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부농을 교양개조하여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만들도록 가르쳐주심으로써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드디여 사회주의농업협동화가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이 땅우에는 인민이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게 된다. 작품은 전후 짧은 기간에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예술적으로 형상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 농촌은 세기적빈궁과 락후를 영원히 털어버리고 풍요하고 행복한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되게 되였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작품은 언제나 인민대중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힘을 옳게 조직동원하시며 협동화의 매 단계마다 구체적인 수행방도를 명철하게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과정을 통하여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리념과 비범한 예지, 탁월한 령도력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또한 험한 농촌길을 쉬임없이 걸으시며 협동화를 앞장에서 이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모습에서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감명깊게 그려내고있다. 작품은 농업협동화의 거창한 사변을 폭넓게 그려내고있으며 산 인물들의 생동한 성격을 창조하고 전후시기 우리 나라 농촌의 환경과 생활을 진실하게 펼쳐보이고있다.〔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7(1998)년판〕

《대지의 표정》 단편소설. 주체74(1985)년 안동춘 창작.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조국의 촌토를 지켜 용감히 싸운 한 인민군전사의 영웅적투쟁을 보여준 작품이다. 부대의 후퇴를 보장할 임무를 받은 정시화의 소대에 새로 배치되여온 13명의 신대원들중에는 장능보라는 42살난 나이많은 전사도 있었다. 훈련이라고는 하루밖에 받지 못한 그는 보고도 없이 적들의 포격속에서 위험에 처한 소를 구원하는가 하면 군인선서도 외우지 못하여 애를 먹기도 한다. 시화는 이런 전사들때문에 소대의 전투력이 떨어질가봐 걱정한다. 그런데 적들과 2차접전때 바로 그 장능보전사가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적땅크를 까부시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전투가 끝난 후 소대장은 그가 해방후에는 땅의 주인이 되여 국가로부터 상장까지 받은 소문난 다수확농민이였음을 알게 된다. 능보전사의 영웅적최후를 목격한 소임자는 그의 몫까지 합쳐 싸울것을 결심하고 부대에 입대한다. 이러한 사실에서 소대장은 전쟁의 승패는 무기가 아니라 싸우는 전사들의 높은 정신세계에 있다는것을 깨달으며 규정만을 중시해온 자신의 잘못을 느낀다. 소설은 능보전사의 영웅적최후와 소대장의 심각한 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가슴깊이 간직한 전사들이 지키고있는 한 그 어떤 침략자도 신성한 조국땅을 건드릴수 없고 조국의 대지는 영원히 푸르러있을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조선문학》 잡지, 주체74(1985)년 6호〕

《대지의 아들》(1—3부) 영화문학. 주동인 창작. 작품은 해방전부터 전후 사회주의협동화가 끝난 이후시기까지의 긴 력사적시기를 포괄하면서 우리 나라 농촌에서의 치렬한 계급투쟁을 서사시적화폭으로 폭넓게 그리고있다. 작품의 제1부에서는 해방전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받으며 살아온 우리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최영민일가와 룡산마을농민들

의 생활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정든 고향을 등지고 살길을 찾아 북간도로 가다가 아버지와 함께 룡산마을에 눌러앉게 된 주인공 영민은 이곳에서 아버지를 잃고 지주 민두식의 머슴으로 끌려가며 나중에는 지주의 아들 종기를 대신하여 감옥살이까지 하게 된다. 한편 그의 약혼녀인 금녀도 지주의 머슴으로 끌려갔다가 제사공장에 팔려가며 이로 하여 금녀의 아버지 박인범은 미쳐버린다. 영민은 감옥에서 탄광로동자 조식의 혁명적 영향을 받아 점차 계급적으로 각성되며 일제의 비밀시설공사장에서 도망친다. 해방의 감격을 안고 영민은 룡산마을로 돌아왔으나 제사공장에 팔리워간 금녀에게서는 소식이 없고 박인범은 영민을 알아보지도 못한다. 제1부는 영민이 지주집기둥에 원한의 도끼날을 박고 복수를 다지는데서 끝난다. 작품의 제2부에서는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와 력사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치렬한 계급투쟁을 반영하고있다. 영민은 지주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과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계급적으로 더욱 각성된다. 탄광로동자였던 조식이 군당비서로 오자 영민은 그의 지도를 받으며 농조를 조직하고 청년들로 적위대를 무어 계급적원쑤들의 반혁명적준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간다. 해방전 제사공장에 팔려갔던 금녀가 고향으로 돌아오자 영민은 그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한편 서울로 도망쳤던 민종기놈은 미국놈들의 지시를 받고 다시 마을에 기여든다. 농민대회를 앞둔 날 밤 영민은 민종기놈의 총에 맞아 부상을 입는다. 영민을 대신하여 금녀는 대회연단에 나서서 지난날 우리 농민들은 땅에 씨앗을 뿌린것이 아니라 피눈물을 뿌려왔다고 하면서 땅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절절하게 호소한다. 드디여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고 지주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진다. 농민들은 뼈에 사무친 낡은 빚문서 보따리를 불태워버린다. 이 감격적인 날에 실성했던 박인범도 제정신이 든다. 땅의 주인이 된 농민들이 끝없는 감격과 기쁨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감사를 드리며 춤을 추는 장면에서 제2부는 끝난다. 작품의 제3부에서는 토지개혁후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시기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 사회주의적개조시기 우리 나라 농민들의 투쟁을 그리면서 주인공의 성장과정을 보여주고있다. 해방된 농촌의 주인으로서 새 조국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던 영민은 전쟁이 일어나자 인민정권과 땅을 지키기 위하여,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용감히 싸운다. 전후 제대되여 돌아온 영민은 민종기놈을 비롯한 계급적원쑤들의 온갖 파괴암해책동을 짓부시고 농업협동조합을 뭇고 그것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작품의 제3부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한 주인공 영민이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하는 장면에서 끝난다. 작품은 주인공 영민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행복하면 할수록 수난에 찬 지난날의 력사를 잊지 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지키며 사회주의농촌을 더 잘 꾸려나가야 한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작품의 1, 2부는 주체52(1963)년에, 3부는 주체53(1964)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대지의 아침》(제1부) 장편소설. 주체72(1983)년 고병삼 창작. 지난날 천대와 굴욕속에서 헤매이던 자기들을 나라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농민들의 투쟁을 실감있게 형상한 작품이다. 주인공 강대우는 나라가 해방되였다는 소식을 듣자 머슴살이멍에를 벗어던지고 지주 채만석의 집에서 뛰쳐나온다. 농촌위원으로 선거된 대우는 토지개혁을 위한 사업에 발벗고나선다. 한편 지주 채만석의 조카 채일만은 문종화를 비롯한 반동들을 사촉하

여 간부들과 열성농민들에게서 토지개혁과 관련한 문건을 빼앗아내려고 갖은 발악을 하며 돌아치다가 제놈들의 죄행을 목격한 강대우의 누이동생 초록을 살해한다. 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에도 불구하고 토지개혁은 당의 령도와 농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진행된다. 대우는 세포위원장 리홍수와 리인민위원회 위원장 조환희의 방조밑에 첫해농사를 잘 짓기 위한 소겨리반을 뭇고 마을농민들을 봄씨붙임과 모내기에로 조직동원한다. 반동들은 마을의 핵심인 대우를 없애치우기 위하여 있지도 않은 사건까지 날조하여 그를 살인범으로 만들려고 하나 각성된 농민들에 의하여 놈들의 책동은 제때에 분쇄된다. 한편 전권위원 서학만과 세포위원장의 꾸준한 방조밑에 입당준비를 하여온 대우는 군당에 입당하러 갔다가 반당분자인 허봉만에게 걸려들어 부결당한다. 채만석의 집에서 같이 머슴을 살던 달비와 가정을 이룬 그는 신혼생활의 나날 행복이 커갈수록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당에 꼭 들어야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안고 꾸준히 학습하며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그는 나쁜 땅을 가지고도 취안벌일대에서 제일 높은 소출을 거두며 정성껏 거둔 옥백미를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고 학교건설에도 수많은 쌀을 바친다. 소설의 1부는 대우가 그렇게도 열렬히 희망하던 당에 입당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나가는 길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갈것을 결의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서 끝난다. 소설은 강대우를 비롯한 농민들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나라 농민들이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농촌의 참된 주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2(1983)년판〕

《대하는 흐른다》(제1부) 장편소설. 주체51(1962)년 천세봉 창작. 주체34(1945)년 8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해방후 우리 나라 농촌에서의 토지개혁 실시를 위한 날카로운 계급투쟁을 서사시적화폭으로 폭넓게 보여준 작품이다. 비룡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신안동과 구안동사람들은 일제의 식민지기반으로부터 조국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왜놈의 감옥과 징용, 징병에 끌려간 남편과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기다린다. 그러던 어느날 징병으로 왜놈군대에 끌려가다가 도망쳤던 마영기가 고향에 돌아온다. 읍에서는 해방의 기쁨속에 군자치대, 자치회 등이 조직되며 마을마다에서는 농조, 녀맹, 공청을 내오기 위한 사업으로 사람들이 들끓는다. 처음에 무슨 일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던 마영기는 자기의 매부 강형진의 영향을 받아 마을청년들의 앞장에 서서 공청을 조직하는 사업과 야학을 꾸리는 일을 적극 밀고나간다. 이때 군당에 기여든 반당반혁명분자 최일벽은 좌경기회주의로선을 들고나오면서 활기있게 움직이던 공청조직과 녀맹조직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떼버린다. 최일벽의 좌경적인 망동으로 서리바람이 휘몰아치고있을 때 평양에 가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정치로선을 전달받고 돌아온 군당비서 강형진이 각계층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우며 토지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도록 이끈다. 그리하여 3.7제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뿌리깊은 씨족문벌관념을 깨뜨려버리기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 한편 탐욕스러운 지주 배덕수는 해방이 된 후에도 농민들로부터 소작료를 받아내려고 하며 자기의 계급적지반을 유지하려고 첩의 딸 명희를 미끼로 하여 마영기를 사위로 삼으려고 음흉한 계교를 꾸민다. 그러나 배덕수의 흉계는 강형진과 마봉서에 의하여 파탄된다. 농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3.7제가 실현되고 공청이 민청으로 개편된 후 토지개혁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을 때 군농맹에서는 농민궐기대회를 열고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는 편지를 채택한다. 주체35(1946)년 3월 5일 력사적인 토지개혁

법령이 발포되고 로동자대표 장길봉을 비롯한 많은 로동자들과 강습생들이 토지개혁사업을 도우려 농촌으로 떠난다. 마영기도 토지개혁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한다. 그는 농민들과 같이 배덕수의 토지문서를 빼앗아내고 그놈의 창고에 있는 벼를 몰수하여 소작료를 계약대로 바친 농민들에게 되돌려준다. 농민들의 커다란 감격과 기쁨속에 토지분여사업이 진행된다. 배덕수의 종들인 황서방, 식모, 꽃니에게도 토지가 분여되며 지주 배덕수는 서울로 달아난다. 소설은 일제의 패망과 8.15해방, 당을 창건하고 인민정권을 세우며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투쟁 등 격동적이고 장엄한 력사적사변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새 조국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거세찬 전진을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해방후 첨예한 계급투쟁 특히 토지개혁실시를 위한 투쟁과정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한 성과작이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주체53(1964)년판〕

《대학가는 날》 단편소설. 주체51(1962)년 윤시철 창작. 작품은 한 오랜 로동자가 집단의 방조를 받아 새 기술을 배워나가는 내용을 담고있다. 청년직장의 오랜 기계공인 김영삼반장은 자기와 가정에 행복을 안겨준 당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기계생산에서 늘 앞장서군 한다. 그런데 공장에서 새 자동화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일을 맡게 되였을 때 그는 기술이 부족하여 일자리를 내지 못하는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영삼은 공장에 새로 세워진 대학에서 기술을 배우고 싶었지만 반장이며 나이가 많은 자기가 학교에 가겠다는것이 체면이 없는것 같아 말을 못하고 망설인다. 하지만 그는 기술을 알아야 혁명에 더 잘 이바지할수 있다는 공장당위원장의 고무와 지지를 받아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새 자동화기계제작조립을 도와주게 된다는 기술지도원의 말을 듣고 대중의 지혜가 발동되고 집단의 방조가 있는 한 못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술을 배워 당의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리라 마음다진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생산과 기술발전에서 집단적혁신이 일어나던 천리마대고조시기 새 기술을 배워 발전하는 현실에 자신을 따라세우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1(1962)년 제16호〕

《대학시절》 단편소설. 주체65(1976)년 한희만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운 한 대학생의 영웅적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미제의 《하기공세》를 분쇄하기 위한 치렬한 전투를 벌리고있던 어느날 정치부중대장인 나는 분대장후임으로 새로 배치되여온 대학동창생인 김정호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된다. 해방전에 머슴군의 아들로 태여나 천대와 멸시를 받던 정호는 해방이 되자 대학생이 되여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편 방학기간에는 고향에 가서 농사일을 힘껏 도우며 자신을 꾸준히 단련한다. 이처럼 대학시절을 값있게 보냈기에 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전선으로 달려나와 전투마다에서 용감히 싸울뿐만아니라 의용군으로 입대한 동무들에게 글을 배워주는 선생이 되여 전사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가렬한 전투장에서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면서 자기 고향의 간석지를 개간할 설계도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설계도를 완성 못한채 그는 돌바위고지전투에서 적땅크를 용감하게 까부시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대학시절을 값높게 보낸 사람이라야 륭성번영하는 조국의 미래와 인민을 위해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강물은 바다로》, 금성청년출판사, 주체65(1976)년판〕

《대학시절》 장편소설. 주체79(1990)년 허문길 창작.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구상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후방의 대학에서 긴장한 학습전투를 벌려 나라의 인재로 자라나는 청년들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전쟁이 한창이던 때 백송리에 자리잡은 **김일성**종합대학은 전선에서 돌아온 대학생들로 붐빈다. 전쟁전 력사학부에서 공부하다가 전쟁이 일어나자 전선에 나가 정찰병으로 싸우던 설명기도 대학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들은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인재육성사업을 계속하시려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의도에 따라 전쟁이 가렬한 환경속에서 소환명령을 받고 제대되여 모교로 돌아온것이다. 그들은 모두 전에 공부하던 학부, 학과에서 중단되였던 학습을 계속한다. 그러나 설명기는 전선에서 희생된 간석지건설자였던 중대장의 뜻을 이을것을 결심하고 지리학부로 옮긴다. 사회과학을 하던 그에게 있어서 자연과학은 참으로 힘든것이였다. 그리하여 이 길에서 물러설 생각까지 하였던 그는 가렬한 전투마당에서 대학생출신군인들을 대학으로 불러주신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뜻과 몸소 대학에 찾아오시여 대학생들은 조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전선에 파견된 전투원이라고 하신 그이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다시 일어선다. 그는 학부장 한림오와 전우이며 벗인 한철애 등 스승들과 동무들의 방조속에서 간석지학문의 세계에로 한걸음한걸음 들어선다. 설명기뿐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이 실력이 준비되여야 앞으로 조국을 건설하는데 한몫할수 있다는 자각을 안고 시간을 쪼개가며 긴장한 학습전투를 벌린다. 그들이 졸업학년에 들어섰을 때 전쟁은 우리 인민의 승리로 끝나고 전후복구건설이 시작된다. 이미 간석지학문에 정통한 우수한 대학생으로 자라난 설명기는 동무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치신 대자연개조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할 척후병으로 서해안간석지조사현장에 달려나간다. 현장에서 그는 감탕을 잡아 간석지제방도 헐하게 쌓고 땅의 비옥도도 높일 대담하고 기발한 착상을 하며 그것을 졸업론문으로 정한다. 그후 그는 한림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속에 그것을 연구하며 간석지건설에 크게 기여한다. 소설에서는 청년들의 대학시절은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조국건설구상을 받들어나갈 실력있는 인재로 자신을 준비해나가는 보람찬 시절로 되여야 하며 그러한 나날속에서 자라난 대학생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큰일을 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9(1990)년판〕

《대형블로크》 단편소설. 주체50(1961)년 리택수 창작. 블로크의 대형화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천리마시대인간들의 사상적지향을 보여준 작품이다. 블로크를 대형화하기 위한 기술협의회에 참가한 작업조장 병섭은 뜻하지 않은 일로 리광진의 오해를 사게 된다. 광진은 병섭이가 자기의 새 창안품인 자동타입기의 능률을 50%나 더 높일수 있는 후면로라를 장치할것을 발기하고 그 완성을 위한 실천조의 조장이 되자 남의 불에 게 굽는것으로 여기며 좋지 않게 여긴것이다. 기계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종합기계공장에서 일하다가 얼마전에 이 직장에 온 광진은 총명하고 엉뚱한 궁리를 잘하군 하였지만 자기를 내세우고 우쭐대면서 남을 깔보고 동무들의 방조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 병섭은 첫 시운전에서 실패하였지만 주저앉지 않고 실패원인을 찾기 위해 기술자들도 만나고 실천조성원들과 집체적토의를 벌리며 한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그리고 평양에서 진행되는 건재부문 경험교환회에 자기대신 광진이를 보내여 경험을 배워오도록 한다. 병섭의 높은 정신세계에 자기를 비쳐본 광진은 평양에 와있는 기간 자동타입기를 완성하기 위해 평양블로크공장까지 찾아가 기계도면을 그려 보내주며 집단의 집체적지혜로 완성한 자동타입기도면의 창안

자란에 제 이름이 새겨진것을 보고 공명주의에 빠졌던 자신을 뉘우친다. 소설은 여러개의 소형블로크가 합쳐져서 하나의 대형블로크를 이루듯이 모든 성원들이 떼여낼수 없는 하나의 붉은 심장으로 굳게 단합되여가는 우리 사회의 면모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50(1961)년 3호〕

《대홍단삼천리》 가사. 주체86(1997)년 박정애 창작. 백두산3대장군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진 영광의 땅, 그 이름도 정다운 대홍단에 넘치는 따사로운 사랑과 끝없는 자랑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에서는 오랜 세월 사람 못살 불모의 땅으로 버림받던 대홍단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에 의하여 오늘은 온 세상에 소문난 백두삼천리로 전변되고 여기서 인민의 행복한 생활이 꽃펴난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노래하고있다. 이러한 기쁨과 자랑의 정서적바탕에 뜨겁게 흐르는것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다. 가사는 바로 인민의 무릉도원을 펼치여주시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가꾸어주시고 오늘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고를 바치시며 빛내여주시는 대홍단의 아름다운 모습을 시적화폭에 담아 펼치면서 이 거대한 변혁을 안아온 위대한 개척자, 행복의 창조자가 과연 누구이시였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가사는 사상주제적내용의 심오성과 풍부성, 민족적특성과 현대성을 옳게 구현한 우리 식 가사의 본보기작품으로 되고있다. 〔《조선노래대전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대홍단책임비서》(1—3부) 영화문학. 리춘구, 리덕윤, 오현락 창작.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 군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시킨 한 군당책임비서의 실재한 투쟁이야기를 형상한 작품이다. 작품의 제1부 《이깔나무》는 작풍상과오로 다른 고장으로 해임되여간 주인공 김충진과 그의 딸 류경이가 대홍단에서의 생활을 회상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충진은 대홍단에 오시였던 어버이수령님께서 당에서는 대홍단에 줄수 있는것은 다 주었다고 하시면서 전기문제만 풀면 리상촌이 될것이라고 하신 교시를 되새겨보며 군을 자력갱생의 모범군으로 꾸리기 위하여 어느날 청년들의 발전소돌격대탄원모임을 조직한다. 그런데 이 탄원모임의 첫 토론자로 지명되였던 류경의 애인 장명우는 기사장의 보신주의적태도에 동조하면서 토론연단에 나서지 않는다. 이러한 자리에서 류경은 그를 대신하여 토론에 참가하며 청년돌격대 대장으로 임명된다. 돌격대원들은 북방의 사나운 겨울과 싸우며 10리 물길굴을 뚫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한다. 침실조건도 불리하고 생활이 점차 어려워지자 일부 나약한 처녀들은 자기들을 이런 곳으로 떠밀어보낸 책임비서를 원망하면서 동요하기 시작한다. 충진은 처녀들이 잡관목이 아니라 대홍단의 철쭉꽃처럼 언제나 아름답게 피여있기를 바라며 작업장을 리탈한 그들을 한사람한사람 찾아 떠난다. 그는 청년돌격대원들모두를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꺾이면 꺾일지언정 휘여들지 않는 백두산의 이깔나무와 같은 거목들로 키우기 위하여 노력한다. 작품의 제2부 《사나운 겨울》에서는 김충진책임비서의 해임리유가 밝혀진다. 대홍단으로 이사짐을 싣고 다시 찾아오는 김충진내외를 알아보는 순간 농장자재과장 오승관은 몇해전 그의 해임을 조장시켰던 자기의 파오가 가슴아프게 되새겨져 중앙에서 료해하러 내려온 녀성일군을 찾아가 진실을 터놓는다. 몇해전 오승관은 자재과장으로서 씨리카트벽돌생산에서 긴급하게 요구되는 자갈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 자력갱생하라고 호령하면서 건달을 부리다가 책임비서에게서 엄한 추궁을 받고 발전소건설장에 나가 로동단련을 하게 되였었다. 이에 반발심을 품은 오승관은 책임비서가 되지도 않을

일에 사람들을 혹사시킨다고 하면서 그의 사업작풍을 걸고드는 신소편지를 쓴다. 이러한 때에 건설장에서는 붕락사고와 함께 인명사고까지 나게 되며 그 모든 책임이 책임비서에게 씌워진다. 일이 이렇게 되자 김충진은 이깔갱 청년돌격대 대장사업을 맡은 장명우를 찾아가 일단 발전소갱건설을 중지하였다가 조건이 성숙된 후에 다시 해보자고 그들을 설복한다. 하지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대홍단에 행복의 락원을 건설하자고 열렬히 호소하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충진은 열백번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끝까지 받들어갈 결심을 다시금 깊이 간직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검열성원들이 책임비서를 비호한다는 두번째 신소를 한것으로 하여 김충진은 사업정지를 받게 된다. 한편 작품에서는 갱건설장에서 뜻밖의 사고로 불구가 된 세복이를 일생의 영원한 길동무로 삼으려는 창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시대 청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제3부《겨울에 내리는 비》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군내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는 김충진의 혁명적사업기풍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김충진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안고 비록 사업정지를 받았지만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사상관점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면서 한몸을 투신하며 발전소건설을 다그친다. 더우기 그는 발전소건설의 마지막공정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공사인 락차수관 용접작업때에는 몸에 바줄을 매고 청년들과 함께 일도 하면서 그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다. 이러한 고심어린 투쟁으로 그는 발전소건설을 끝내고 씨리카트벽돌과 종이생산기지를 훌륭히 갖추어놓는다. 대홍단사람들은 그가 해임된 후에도 그를 못 잊어하며 다시 책임비서로 올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홍단군종합농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러한 심정을 담아 삼가 올린 편지를 받아보시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그가 20여년간 책임비서로서 한 일은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대홍단사람들의 소망대로 김충진을 다시 그곳 책임비서로 임명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다. 작품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인민의 신뢰와 지지속에서 누가 뭐라든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살며 투쟁하는 우리 시대 참된 당일군의 형상을 통하여 현시기 당이 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투쟁정신과 기풍을 보여주고있으며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면서 억세고 완강하게 투쟁해나갈수 있는 사상정신적힘의 원천에 관한 문제를 밝히고있다. 작품은 주체86(1997)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대휴》 단편소설. 주체49(1960)년 김리돈 창작. 대휴를 마다하고 일손이 딸리는 기중기작업을 자진하여 맡아하는 두 청춘남녀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분괴직장 로동자인 영조와 평양에 가서 약혼사진을 찍기로 약속하고 대휴를 받은 기중기운전공 숙희는 역으로 나가던 길에 애인과 같은 직장 기중기운전공이 앓아누워 교대작업에 나갈수 없는 상태임을 알게 된다. 비록 다른 직장의 일이고 대휴를 받은 몸이지만 외면할수 없다고 생각한 숙희는 자기의 결심을 영조에게 터놓기 위해 역전에서 그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잠시 망설이던 끝에 분괴직장으로 달려간다. 그는 아무리 교대운전공이 없어도 대휴받은 다른 직장처녀에게 일을 시킬수 없다고 하는 분괴직장장의 말에도 결심을 굽히지 않고 조회에 참가한 다음 뜨거운 열풍이 확확 밀려드는 기중기운전칸으로 올라가 운전대를 잡는다. 한편 역전에서 숙희를 만나지 못하고 직장으로 되돌아온 영조는 기중기운전공이 출근하지 못했다는것을 알고 기중기에 올라 운전을 시작하려는 숙희를 보게 된다. 소설은 서로 약속이나 한듯이 대휴를 마다하고 공장으로 되돌아온 숙희

와 영조의 형상을 통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해 서로 돕고 이끌며 혁신을 일으키는데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천리마시대 청년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상정신적특질을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문학신문》, 주체49(1960)년 제104호〕

《대안체계의 노래》 가사. 주체57(1968)년 주민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의 혁명적내용과 그 우월성을 정책풀이가요형식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6개의 절로 되여있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첫째가는 우월성은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인 지도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창조적열의를 남김없이 발양시키는것이라는데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3절과 4절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고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하며 단결과 협력의 방법으로 생산을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생산지도체계라는것을 자랑차게 노래하고있다. 5절과 6절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는 계획화에서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운영하며 생산보장부서들과 후방부서들의 역할을 높일수 있게 하는 우월한 기업관리체계이라는것을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후렴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체계를 빛나게 관철해나갈것을 격조높이 호소하고있다. 가사는 정책풀이가요형식의 특성에 맞게 알기 쉽고 통속적인 시적표현으로 위대한 대안체계의 본질적우월성을 집약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조선음악전집》 1,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대양만리》 중편소설. 주체80(1991)년 김정남 창작. 우리 나라의 첫 국제무역항로를 열어나가는 무역짐배선원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만들어낸 무역짐배 《창광산》호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 선박에 의존하여 대외무역을 하던 전례를 깨고 공화국의 단독무역짐배로서 첫 출항을 한다. 《창광산》호가 가는 길은 곧 우리 나라의 첫 국제무역항로를 개척하는 길이다. 강승훈선장을 비롯한 전체 선원들은 대양우에 공화국기발을 높이 날리는 이 길에서 조국의 존엄을 시위하고 빛내일 기세높이 배를 몰아나간다. 대만해협에 이르러 배는 일시 정지하게 된다. 미제가 대만해협을 봉쇄하고 앞길을 가로막은것이다. 그대로 가다가 다른 나라 배처럼 나포되는가, 아니면 되돌아서는가 하는 갈림길에서 선장과 선원들은 물러설수 없다는 견결한 의지를 표명한다. 그들은 해협에 태풍이 들이닥친 기회를 리용하여 그속을 뚫고 해협을 통과한다. 그러자 악에 받친 미제는 배가 들려야 할 항구들에 압력을 가하고 표류된 조선사람으로 위장한 간첩까지 들이밀면서 배의 앞길을 막아보려고 날뛴다. 이러한 속에 선원들은 싱가포르항에서 도발을 걸어오는 미국배를 물리치고 간첩놈의 파괴행위를 적발분쇄하며 배가 놈들의 모략에 의해 모래우에 올라앉게 되였을 때에는 결사전을 벌려 배를 구원한다. 배는 이렇게 인디아양을 지나고 홍해기슭을 거쳐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그후 희망봉을 돌고 대서양을 지나 지중해를 통과하면서 목적도 훌륭히 달성하고 항로도 성과적으로 개척하며 돌아오던 그들은 다시 대만해협에 들어선다. 이때 대만해협에는 세찬 태풍이 휩쓸고있는데다가 미제가 전번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하여 동원한 군함과 잠수함들이 뒤덮여있었다. 그들은 여기서도 결사전을 벌려 태풍을 이겨내며 미제와 싸워이긴 조선인민의 기상을 안고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끝까지 지킬 결사의 각오로 포사격을 받는 속에서도 조국에로의 직선침로를 유지한다. 하여 《창광산》호는 대양만리길에 공화국기발을 높이 날리며 첫 국제항로를 성과적으로 열어놓고 돌아온다. 소설은 무역짐배선원들은 멀리 조국을 떠나있어도 언제나 조국과 심장을 하나로 잇

고있으며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빛내이는 길에서 값높고 긍지높은 삶을 누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80(1991)년판〕

《대연강기슭에서》 단편소설. 주체59(1970)년 전영진 창작. 대연강기슭에서 강하나를 사이에 두고 련락을 주고받으며 항일유격대의 전투승리를 보장한 모녀의 투쟁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조직의 지시를 받고 성시에 들어온 순녀는 삯빨래를 하면서 대연강기슭에 나와 빨래방치소리로 왜놈 《토벌》대의 움직임을 알리는 련락임무를 수행하였다. 그가 보낸 정보에 의해 주먹령에서 유격대의 된벼락을 맞은 왜놈들은 성시안에 비밀지하조직망이 있다는 낌새를 알아차리고 대연강에 나드는 제방뚝에까지 토성을 쌓고 외부와의 련계를 일체 차단해버린다. 이런 정황하에서 순녀는 밤마다 다듬이질하는 방치소리로 강건너 조직과 련락을 취한다. 그의 행동을 감시하던 수비대장놈은 다듬이질소리가 외부와 련락하는 신호라는것을 알고 순녀를 체포한다. 놈들은 조직의 비밀을 대라고 순녀에게 악착한 고문을 가하나 그를 굴복시키지 못한다. 그후 성시진공작전을 벌린 유격대에 의해 순녀는 구원되고 6년전에 왜놈치러 간다고 헤여졌던 어머니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된다. 순녀는 그때에야 비로소 대연강 건너편 기슭에서 빨래방치로 련락신호를 주고받던 녀인이 자기 어머니라는것을 알게 된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성전에 모든것을 다 바친 조선녀성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강의한 기개를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59(1970)년 9호〕

《대오를 따라》 단편소설. 주체70(1981)년 박효준 창작. 아들의 뒤를 이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는 남조선의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4.19인민봉기때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온 렴현희는 그 아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섰을 때 그마저 잃을가봐 걱정한다. 그러한 속에 그 아들은 공화국북반부의 모습을 소개하는 선전물을 배포하다가 끝내 군사파쑈도당에게 체포되여 재판에서 중형을 받는다. 이때 어머니는 아들과 사랑하는 사이였던 한 처녀의 영향속에서 분렬된 조국의 현실을 두고 가슴아파하며 그 비극을 가시기 위해 한몸바쳐 나선 젊은 세대들의 지향을 알게 되고 동감하게 된다. 그 과정에 어머니는 남편의 뒤를 잇고 아들의 장한 뜻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도 한몸바쳐 나설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되며 마침내 아들이 불러일으킨 운송부사람들의 투쟁에 참가한다. 소설은 조국통일의 선구자로 나선 남조선의 열혈청년들의 뒤를 따라 전체 인민이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서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0(1981)년 2호〕

《대의원이 나서는 구내》 서정시. 주체37(1948)년 정문향 창작.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립후보자로 로동자를 추천하는 로동계급의 긍지와 자랑, 투쟁결의를 노래한 작품이다. 우리 공화국의 국기가 휘날리는 가운데 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의 첫 대의원을 추천하는 로동자들의 가슴마다에 감회깊은 추억과 헤아릴수 없는 격정이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로동자들은 내려쪼이는 불볕아래에서 《보이라의 잔해를 모으며 터져나간 류산탕크를 찾으며》 일제가 불태운 이 공장을 일떠세우던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자기들과 함께 일해온 로동당원 리진근을 립후보자로 추천한다.

원쑤에게 천백배의 복수를 위하여!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기 위하여!
로동자 농민의 혁명주권을 위하여!
우리는 두손을 추켜들며
그를 내세운다

시는 새 조국건설에 일떠선 로동계급의 앙양된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사색적이면서도 격동적인 시적언어와 힘있는 운률에 담아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시집《승리의 길에서》,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4(1955)년판〕

ㄹ

《라남의 열풍》 장편소설. 주체93(2004)년 백보흠 창작.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이 작품은 1990년대초부터 주체90(2001)년말까지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사상기술적으로 준비된 시대의 전위로 키워주시고 그들이 새 세기 봉화를 추켜들고 강성대국건설의 앞장에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감동깊게 그리고있다. 1990년대초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세계의 최첨단기술이 도입된 능률높은 특수정밀기계로서 우리나라 인민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HM》기를 우리의 힘으로 개발할데 대한 구상을 펼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구상을 받드시고 5월10일공장(오늘의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 《HM》기를 개발할데 대한 과업을 맡기도록 하신다. 이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에서 지배인과 당비서의 호흡이 잘 맞지 않아 생산계획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아신다. 라남의 로동계급을 변함없이 믿으시며 《HM》기개발과업을 이 공장에 그대로 맡기고 다른 4개의 기계공장들에서도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사업경험이 풍부하고 열정적이고 패기있으며 기술에도 밝은 회령탄광기계공장 당비서 주혁민을 5월10일공장의 당비서로 보내주신다. 그리고 지배인, 기사장 등 책임일군들과 마음을 맞추어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해나가도록 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HM》기개발사업에서 다른 나라의 설계를 그대로 모방하여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공장실정에 맞게 설계를 개조하여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라남의 일군들을 문제시하면서 눌러버리려고 할 때 다른 나라의것을 리용하든 개조하든 우리 혁명에 이바지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심을 주신다. 라남에서는 지배인과 주혁민 등 일군들이 《HM》기설계개조를 힘있게 내미는것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년말까지 공장이 맡고있는 아름찬 년간생산과제를 기어이 수행하기 위해 앞장에서 뛰여다닌다. 이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주혁민에게 전화를 거시여 어버이수령님께 충직한 라남의 로동계급의 심장에 불을 지펴야 한다고 깨우쳐주신다.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린 결과 라남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분발하여 떨쳐일어나 그해 12월 25일까지 년간계획을 110%로 넘쳐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한다. 주체83(1994)년 7월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고 온 나라가 눈물의 바다에 잠겼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체 인민을 수령님의 유훈관철에로 불러일으키시고 《HM》기개발도 계속 밀고나가도록 하신다. 그리고 라남의 로동계급이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첫 《HM》기시운전을 하기로 되여있던 그해의 11월 9일을 잊지 않으시고 일군들을 라남으로 내려보내신다. 이날에 라남의 로동계급은 공장의 실정에 맞게 설계를 개조하여 만든 《HM》기시운전을 진행하였으나 실패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신심을 잃지 않고 계속 개발사업을 밀고나가도록 힘을 주시고 지배인과 당비서, 기사장의 3위1체를 잘 보장하여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해나가도록 하

신다. 1990년대 후반기 우리 혁명이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을 헤쳐나가야 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선길을 걸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길가에서 생산에 필요한 형석광을 실어오기 위해 수천리의 먼길을 떠난 라남사람들을 만나주신다. 그이께서는 《HM》기개발이 실패하였지만 락심하지 말고 계속 내밀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자력갱생하고 형석광과 주물용모래원천을 공장주변에서 찾도록 가르치심을 주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전달받은 라남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실정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나간다. 그들은 수십년간 바다물에 사장되여있던 페타르를 채취하여 연료문제를 해결하고 《HM》기개발에 필요한 40㎜강판을 3t이나 되는 공기함마를 수동으로 움직여 찍어내며 형석광과 주물용모래원천도 라남근처에서 찾아낸다. 그 과정에 뜻하지 않게 한 청년로동자가 희생되였을 때 전선시찰의 길에서 주혁민을 불러 만나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화선입당시키도록 하시며 라남사람들의 어려운 식량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주신다. 라남에서 《HM》기제작시험이 69번째로 실패했을 때 우에서 내려온 료해소조는 설계를 개조한것이 잘못이라고 하면서 기존설계대로 할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라남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그것을 접수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계속 밀고나간다. 이에 대하여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라남에서 만들고있는 《HM》기가 다른 공장에서 만들고있는것보다 더 희망이 보인다고 믿음을 주시고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사대주의, 관료주의에 경종을 울리신다. 주체86(1997)년 7월 드디여 라남에서 93번의 시험끝에 《HM》기개발이 성공한다. 라남사람들은 이 기계를 《93》기로 부르면서 1990년대초에 어버이수령님께 맹세다졌던대로 21세기까지 여러대의 《HM》기를 만들어내놓기 위해 투쟁한다. 이들의 성과를 두고 누구보다도 기뻐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 8월 라남땅을 찾으시고 《93》기의 제품가공시간 5분을 3분으로 단축하도록 하신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주체90(2001)년 8월 력사적인 로씨야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그길로 또다시 라남땅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를 돌아보시고 혁신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안겨주시며 로력이 긴장한 공장의 실정을 헤아리시고 500명의 제대군인들을 보내줄것을 약속하신다. 그로부터 석달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기업소를 또다시 찾으시고 가공시간을 3분으로 단축한 《93》기를 보아주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라남의 로동계급은 높은 과학기술과 불굴의 투지를 지닌 21세기 선군시대, 정보시대의 전위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이 새 세기 투쟁의 봉화를 추켜들고 온 나라에 혁명적열풍을 일으키며 강성대국건설의 앞장에서 달려나가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다. 소설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높은 과학기술로 이 땅우에 부강조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현명한 령도가 있어 라남의 로동계급이 시대의 전위로 자라날수 있었고 라남땅에서 새 세기 혁명적대고조의 봉화가 타오를수 있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소설은 라남의 봉화가 타오르게 된 력사적과정을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진실하게 재현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선을 뚜렷이 살리고 당과 수령께 충직한 실력가형의 일군들의 성격을 개성있게 그려내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락동강》 서정시. 주체39(1950)년 김북원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한 인민군부대의 락동강도하작전의 빛나는 승리를 생동하게 노래한 작품이다. 《산발도 수풀도 진지도 대안에 득실거리는 원쑤도 가려 무거운 어둠이 드리운》락동강반의 깊어가는 밤을 시

적전제로 제시한 작품에서는 《작전도 무르익어》마침내 공격을 개시한 인민군대의 위용에 대한 형상을 락동강에 깃든 원한의 력사, 피의 력사에 대한 묘사 그리고 시인의 주정토로와 밀접히 결부시켜 노래하고있다. 시는 원쑤들의 반항을 짓부시면서 아군포의 엄호사격밑에 《포신을 휘두르며 나아가는 땅크부대》와 《옷입은채 물에 들어선》락동강도하작전의 격렬성을 생동하게 보여준 부분에서 절정을 이룬다. 시는 마감부분에서 도하작전을 승리로 끝낸 인민군대의 불패성을 격동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시는 락동강도하전투의 한 순간을 시적계기로 하여 거기에 피눈물나는 락동강의 과거와 오늘의 도하전투의 방대한 규모와 치렬성을 집약시켜 노래하면서도 그것을 철저하게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위훈과 대담성, 불굴의 기상과 전투적기백을 부각하는데 복종시키고있다. 〔시집 《운로봉》, 문예총출판사, 주체40(1951)년판〕

《락동강》 중편소설. 주체61(1972)년 엄단웅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와 그들이 전쟁의 시련속에서 정치사상적으로, 군사실무적으로 더욱더 성장하여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소설은 부상당하여 병원에 후송되였던 련대작전참모 최경민이 대대장으로 임명받고 구분대를 찾아 떠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새 련대에 도착한 그는 뜻밖에도 인민군대에 입대할 때 만났던 일이 있는 항일투사인 련대장 오현무를 만나게 되며 그로부터 새로운 임무를 받고 대대로 간다. 이룩한 성과에 도취하여 전투원들속에서 규률이 해이되였음을 느낀 경민은 부대내에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면서 규률을 세워나간다. 이 나날에 새로운 임무를 받은 경민은 강행군으로 부대를 제때에 목적지에 도착시키고 휴식없이 진지굴설과 허위진지굴설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한개 련대의 적을 완전히 포위섬멸하는 전과를 거둔다. 한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자기 고향마을을 해방하는 락동강도하전투에 참가하려고 병원을 뛰쳐나온 강호범분대장은 전투를 앞두고 적진을 정찰할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중 아버지의 학살소식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해 놈들에게 불벼락을 안기며 이런 기분주의적행동으로 하여 락동강도하전투에 참가 못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련대장은 경민에게 락동강반에서 보낸 호범의 피맺힌 과거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도록 일깨워준다. 경민은 군사규정일면만을 강조한 자기를 돌이켜보며 점차 규률을 강화하는 사업과 정치사업을 결합시켜나간다. 락동강도하를 앞두고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오현무련대장에게 전화를 거시여 전투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다. 경민은 김성태문화부대대장의 방조밑에 앙양된 전투원들의 열의를 옳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적들이 발악적으로 막아나서는 락동강방어선을 돌파하고 대안을 점령하며 피맺힌 원쑤인 미제야수 핸드손놈과 그놈의 졸개인 괴뢰군련대장 민병일을 처단하고 고지우에 공화국기발을 꽂는다. 소설은 주인공 경민이 세련되고 원숙한 지휘관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및 도덕적우월성, 불패의 위력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67(1978)년판〕

《락수물소리》 단시. 주체82(1993)년 안정기 창작. 락수물소리에 비추어 인간의 정신적수양에 대한 교훈을 주는 작품이다. 시는 지칠줄 모르는 의지로 자기를 채찍질하며 새 세계를 창조해가는 시인－서정적주인공이 남 다 자는 한밤중에도 쉬지 않고 굳은 돌을 뚫고있는 락수물소리를 감수하며 받아안는 느낌을 펼치고있다.

시의 우물은 깊고깊어
파고 또 파다 기가 진한 밤
사색의 정대를 놓고
에－라 그만 쉬려는데

똑 똑 똑 누가 날 불러
문열고 로대에 나서니
오, 지칠줄 모르는 락수물소리
란간아래 굳은 돌 뚫고있네

시는 자기를 수양하는데서 만족을 모르는 서정적주인공의 정신과 의지를 표현하면서 시대적사명감을 자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의지로 혁신하고 전진해야 한다는것을 호소하고있다. 작품은 두련밖에 안되는 짧은 시이지만 생활의 깊은 뜻을 교훈적각도에서 생동하게 밝혀내고 있다.〔《조선문학》 잡지, 주체82(1993)년 6호〕

《락원산수도》 서정시. 주체52(1963)년 안룡만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난날 사람 못살 고장으로 알려졌던 창성땅이 행복의 락원으로 꽃펴난 력사적전변에 대하여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머루, 다래, 돌배랑 산열매 무르익어 그윽한 향기 떠도는 골짜기마다엔 젖소 울고 토끼 무리져 뛰노》는 창성의 전변된 모습을 두고 《락원동산 산수도》라고 하면서 이 전변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이룩되였음을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

즐거움 넘치는 새살림속에
기쁨으로 꽃피는 노래의 동산
아, 수령님께서 창조하셨네
이 궁벽한 산촌에 락원산수도
굽이굽이 높은
벼랑길 감돌아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날 색갈과 선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생활로
여기 찬란한 락원을 펼치시였구나

시는 생동한 언어형상으로 아름답고 풍만한 창성땅의 전경을 한폭의 그림처럼 선명하게 펼쳐보이면서 이 락원산수도에 깃든 위대한 사랑을 웅심깊게 노래하고있다.〔《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랑림처녀》 단편소설. 주체52(1963)년 윤시철 창작. 청년발전소건설에 청춘의 열정을 다 바쳐가는 랑림처녀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유복은 고향에 발전소를 건설하는것으로 하여 벌방으로 이사가면서 같이 떠날것을 요구하는 부모들과 애인인 상훈의 권고를 마다하고 발전소건설장에 남아 일할것을 결심한다. 녀성작업반의 선동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던 그는 당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건설장에 있는 도서실주임으로 가게 된다. 새로운 일터에로 자리를 옮긴 그는 들끓는 현장과 정다운 작업반을 떠나게 된 허전한 감정에 사로잡혀 자기가 하는 일에 긍지를 가지지 못하며 더구나 떠나간 상훈의 생각으로 풀이 죽어 생활한다. 어느날 현장에 나갔던 유복은 도서실에 갈 시간이 없으니 책을 현장에 가져다주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부탁과 그전과는 달리 열정이 없이 살아간다는 한 호실에 있는 정임의 비판을 받으면서 자기를 새롭게 반성해본다. 새로운 결심을 다진 그는 도서열람시간을 종전보다 더 늘이고 독자모임, 도서해설모임을 한주일에 한번씩 조직하는 한편 독자들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부문의 책들을 구해들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자기 사업의 중요성과 보람을 느낀 유복은 언제공사가 끝남에 따라 새로운 건설장인 서두수로 갈것을 결심하며 책을 가지러 갔다가 군에서 만난 상훈에게 변모된 랑림땅에서 다시 만날것을 약속한다. 언제공사가 끝나자 유복은 커다란 열정을 안고 서두수로 떠난다. 작품은 주인공 유복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의 륭성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 자기의 성실한 노력과 땀을 바치려는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조선문학》 잡지, 주체52(1963)년 2호〕

《량심과 운명》 장편소설. 주체78(1989)년 리동구 창작.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참된 삶의 길을 찾게 된 남조선지식인들의 세계관성장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박태식교수가 정치공작대로 갓 해방된 합천에 파견되여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합천은 전선과 가까운 관계로 아직 질서도 잡히지 않았고 안정되지 못하여 태식교수의 사업에는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제기되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남녘인민들에게 하루빨리 공화국정치의 혜택이 차례지도록 하고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그릇된 편견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강연에도 출연하고 교육문화사업에도 각별한 주의를 돌린다. 그 과정에 태식교수는 배정로의 그릇된 처사로 군교육문화부장을 그만둔 민족주의자 문경환을 꾸준히 타일러 다시 본래의 사업을 맡아하게 한다. 한편 박태식교수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제자였던 조경철을 만나며 그가 공부하러 서울로 나간 후 미국류학까지 다니며 반동적인 실용주의철학과 《미국식자유민주주의》에 푹 물젖어있는것을 알고 그를 일깨워주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그는 경철의 누이동생이며 리화녀대학교 대학생이였던 혜순을 자주 만나 그에게 공화국북반부에 펼쳐진 인민의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해준다. 그러던중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였을 때 태식교수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아 개변되여가던 경철이가 배정로의 편협한 처사에 격분하여 전선수송대에서 탈주하는 사건이 생긴다. 이 사건으로 경철을 보증했던 교수는 심각한 비판도 받고 자기비판도 하며 그후 인차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오른다. 그는 인민군부대와 후퇴하던 도중 배정로를 만나 그의 그릇된 처사로 후퇴대렬에서 떨어졌던 혜순을 끝까지 북반부로 가도록 일깨워주고 이끌어준다. 간난신고를 겪으며 평양에 도착한 태식교수는 대학도서관에 후퇴때 미처 빼내지 못한 귀중한 책들이 남아있는것을 알고 그것들을 건사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된다. 적들의 교활한 회유를 물리치며 견결히 맞서싸우던 그는 감옥에서 뜻밖에 체포되여 들어온 배정로를 만난다. 그는 후퇴차비를 하다가 체포되여 끝까지 놈들과 싸우다가 희생된 문경환의 마지막편지를 배정로에게 보여주며 모든 사람들을 차별없이 안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덕정치에 대해 알려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의 좌경적처사들을 심각히 반성한 배정로는 그후 혁명적지조를 꿋꿋이 지켜 사형당하는 마지막순간까지 견결히 놈들과 투쟁한다. 한편 부산으로 가 서울신문사 특파원으로 취직한 경철은 미군이 곳곳에서 저지르는 만행을 직접 목격하고 특히 자기의 원고를 가로챈 문하연의 파렴치한 정체를 알면서 비로소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여난다. 그후 평양에 온 그는 태식교수의 집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과 공화국의 출판물들을 탐독하고서야 참다운 정의와 진리의 길을 찾으며 인민군정찰병들과 함께 사형당하게 된 교수를 구원하고 인민군대에 입대한다. 소설은 가렬한 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대학교수, 대학생들이였던 태식, 경철, 혜순 등이 다시 대학에 돌아와 감격적으로 상봉하는데서 끝난다. 소설은 각이한 인생행로를 가진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참다운 민족적량심과 정의를 지키는 길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에 안기는데 있으며 그 길만이 참된 애국애족의 길임을 깊이있게 밝혀내고 있다.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8(1989)년판〕

《량심선언》 단편소설. 주체76(1987)년 남대현 창작. 사람에게 있어서 량심은 귀중하며 사람은 량심에 따라 행동할 때 정의로운 길을 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작품은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갇힌 상범이가 독감방에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씌여졌다. 상범은 자기를 공부시키려고 애쓰는 어머니와 두 누이를 위해 정치투쟁과 관계없이 학업에만 전심하여 법

률가가 되려고 하였다. 그러나 동숙생인 태호와 함께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과정에 사회현실의 모순에 등한히 했던 자신을 뉘우치고 투쟁에 나서게 된다. 그 과정에 《광주백서》에 대한 거짓자백을 한것으로 하여 량심을 괴롭히게 된다. 상범은 총학생회 회장이였던 태호의 분신자살을 목격하고 그의 념원대로 미국문화원을 점거하는 투쟁의 앞장에 선다. 상범은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에서 모순으로 가득찬 이 부정한 사회에서 모든 행위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법이 아니라 량심이라고 선언한다. 소설은 상범과 태호 등의 형상을 통하여 깨끗한 량심을 지닌 사람일지라도 남조선과 같이 부정한 사회에서는 그 량심을 지켜갈수 없으며 오직 불의와 맞서 투쟁하는데 참된 량심의 길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6(1987)년 7호〕

《량심에 대한 추억》 단편소설. 주체78(1989)년 김정민 창작.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당과 수령을 위해 영웅적으로 싸운 인민군전사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1인칭형식으로 되여있는 작품은 려행길에 오른 내가 영예군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한 처녀의 아름다운 소행을 보며 전쟁때의 일을 회상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독립봉우리에서 원쑤들과 치렬한 결사전을 벌리고있던 나는 부상당한 곽여준분대장을 후송할데 대한 명령을 받는다. 소대에 남은 전사가 9명밖에 안되는 긴박한 형편에서 전투장을 떠나게 된 나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한다. 불편한 몸이지만 혼자서도 갈수 있다며 고지로 떠미는 여준을 마주 올라오는 간호원들에게 맡기고 다시 전투에 참가했던 나는 전투가 끝난 후 뜻밖에도 후송된줄 알았던 여준이 전투장에 올라와 싸웠다는것을 알게 된다. 다시 심한 중상을 입고 후송되여가는 여준을 보며 나는 당과 조국을 위해 바치는 그의 영웅적투쟁과 깨끗한 량심에서 깊은 감동을 받는다. 작품은 기차칸에서 나의 옆자리에 앉은 영예군인—곽여준과 감격적으로 상봉하는데서 끝난다. 작품은 이러한 감동깊은 이야기들을 통하여 참된 인간도 영웅도 당과 수령에 대한 깨끗한 량심을 지닌 사람들속에서 나온다는것을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문학신문》, 주체78(1989)년 제48호〕

《량심의 길》 단편소설. 주체77(1988)년 리명호 창작. 사회의 모순과 불의를 체험한 남조선의 한 지식인청년이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소설은 교도소에 수감된 나—창수가 자기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준 대학동년배인 철훈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으로 씌여졌다. 학문탐구를 학생의 본분으로, 장차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길로 여기고있는 나는 현실과 담을 쌓고 학문탐구에만 열중하며 그것을 리념으로 간주한다. 그리하여 현실에 낯을 돌릴것을 주장하는 철훈의 견해를 반박하고 나의 리념을 지지해주고 고학생의 고충에 동정과 호의를 베푸는 아메리칸—커리어회사 사장의 아들이며 대학상급생인 우배덕을 의리가 있는 사람으로 대한다. 그후 대학을 졸업하고 아메리칸—커리어회사에 취직한 나는 설비실태료해를 위해 산하공장에 나갔다가 기계의 노예가 되여 고역에 시달리는 나어린 녀성로동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나는 그들을 위해 새 기술을 도입하지만 그것은 녀성로동자들을 해고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배덕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동정과 의리에 속아왔으며 철훈의 주장이 정당했음을 깨달은 나는 마침내 복직과 로동의 권리를 요구하는 녀성로동자들의 시위대렬에 합류하게 된다. 소설은 나의 형상을 통하여 모순과 불의가 지배하는 남조선에서 지식인들이 량심을 지키고 민중에게 복무하는 길은 투쟁의 길뿐이라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7(1988)년 7호〕

《려단장》 단편소설. 주체78(1989)년 윤민종 창작. 자기 딸의 잔치도 뒤로 미루고 광복거리 봉사망건설에 필요한 외부미장재를 자체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수도건설돌격대한 려단장의 운전사인 나의 시점에서 씌여졌다. 안해로부터 딸잔치에 꼭 참가해달라는 편지를 받은 려단장은 곁사람들의 권고에 못이겨 집으로 떠난다. 갱생차를 타고 가던 도중 려단장은 길가에서 외부미장재로 쓸수 있는 돌들이 널려있는것을 보고 차를 돌려 그 돌들의 원천지를 알아내며 직접 확인하기 위해 깊은 밤 80리나 되는 그곳까지 간다. 봉사망의 완공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외부미장재를 지방의 흔한 원료로 해결하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는 려단장을 보며 나는 가정일보다 먼저 수도건설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에 깊이 감동된다. 소설은 려단장의 형상을 통하여 한 가정의 기쁨보다 수도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겨 당에 드리는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수도건설자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생동하게 밝혀내고있다. 〔광복거리건설문예작품집(4), 《다시 200일》,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8(1989)년판〕

《려단장의 옛 상관》 영화문학. 리성일 창작. 작품은 조국의 전연초소에서 그 어떤 명예나 직위도 바라지 않고 한생을 고스란히 군사복무에 바쳐가는 한 초기복무사관의 생활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어제날 백설령초소에서 주현철과 함께 군사복무를 하던 정민이 려단장으로 임명되여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조국의 전연초소에서 다시 만나게 된 옛 전우들의 기쁨은 컸다. 그러나 정민은 30년전 자기의 분대장이였던 주현철이 어찌하여 그처럼 오랜 세월 특무상사의 옛 모습그대로 초소에 서있는가에 대하여 다는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정민은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고 멀지 않아 며느리까지 맞게 된 현철을 이제 자기가 도와주는 길은 그를 제대시키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제대명령을 받은 현철의 마음은 아팠다. 그는 자기를 찾아온 정민에게 군복을 벗으라니 자기는 대오에서 버림받은 사람같아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백설령초소를 지키게 해달라고 절절하게 이야기한다. 현철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된 정민은 그의 제대문제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다시 운전대를 틀어잡은 현철은 위훈으로 빛나는 군사복무의 나날을 이어간다. 그는 맏아들인 동수의 결혼식을 눈앞에 두고서도 부대의 전투훈련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험한 길을 앞장에 서서 헤쳐간다. 또한 제대를 앞둔 사관 만복이가 마음의 탕개를 늦추고있는것을 보고는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그를 이끌어준다. 아들의 잔치날 주현철은 오늘만이라도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으라고 권고하는 딸 수옥에게 이 백설령에는 별을 많이 단 아버지가 아니라 특무상사의 견장을 단 운전사 주현철이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군복을 입고 나선다. 한가슴 가득히 훈장을 달고 나선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 수옥은 일찌기 느껴보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자랑스러움이 가슴가득 차올라 그의 넓은 품에 얼굴을 묻는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안고 변함없는 자세로 조국의 초소를 지켜가는 옛 상관을 바라보는 정민의 얼굴에도 한없는 미더움과 존경심이 어린다. 작품은 주인공 주현철의 형상을 통하여 사람의 인품이나 삶의 가치는 높은 직위나 군사칭호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시대와 혁명앞에 충실한가 하는데 따라 평가된다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73(1984)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려명》(전, 후편) 영화문학. 백인준 창작. 지원의 원대한 뜻을 신념으로 삼으시고 혁명활동무대를 압록강연안으로 옮기신 후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견결히 싸우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반영한 작품이다. 혁명활동의 무

대를 바다오거우(팔도구)로 옮기시고 《광제의원》의 간판을 내거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선독립운동의 새로운 방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국민회의 조직을 무산대중속에 부단히 확대하시면서 무산혁명에 나설 강력한 무장력을 키우시는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가신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벌목로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친 로동자인 대식을 극진히 치료해주시고 독립군의 기둥으로 키워주시며 민족해방의 위업보다도 자파의 리익을 앞세우면서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분렬파쟁에 몰두하고있는 독립군부대들을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광복단 사령인 오동진과 기원단 두령인 정석훈을 찾아가시여 조선독립을 위하여서는 단결하여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주신다. 선생님께서는 또한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으로 파괴된 조선국민회조직들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일제의 삼엄한 감시와 집요한 추격속에서도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평양을 비롯한 국내각지로 다니시며 동지들의 활동을 지도하시고 투쟁방법들을 밝혀주시면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앙양에로 이끌어가신다. 민족개량주의자들이 개량주의선전으로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어느날 포평에서 열리는 민족개량주의자들의 강연회에 참가하신다. 선생님께서는 조선독립을 위해서는 실력부터 배양하고 외교를 잘해서 세계렬강들의 동정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설교하는 민족개량주의의 반동적본질을 폭로하시고 군중들에게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로농무산대중의 힘을 믿고 무력으로 항쟁해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주신다. 연설을 마치고 나오시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셨던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도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조직의 성원인 남사목재소 황서사의 도움으로 탈출하신 후 장대를 리용하여 살얼음이 진 압록강을 건느신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동상을 입으신 몸으로 개량주의바람이 독립운동을 말아먹고있는 푸쑹(무송)으로 떠나신다. 선생님께서는 주체14(1925)년 8월에 조선국민회 대표들과 독립단체대표들의 력사적인 푸쑹(무송)회의를 소집하시고 민족단체련합촉진회를 결성하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의 방향전환,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과 후대교육사업을 위하여 일신의 고초를 무릅쓰시고 싸워나가신다. 이 과정에 중첩되는 로고와 특히 일제에게서 받은 고문의 후과 그리고 심한 동상으로 하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자제분들에게 두자루의 권총과 지원의 뜻, 3대각오와 동지획득을 유산으로 남기신채 주체15(1926)년 6월 5일 세상을 떠나신다. 작품은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오신 김형직선생님이시야말로 조선혁명의 려명을 앞당겨오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라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76(1987)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력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단편소설. 주체76(1987)년 김봉철 창작. 언제나 자신보다 먼저 인민을 생각하시며 온갖 사랑을 다 돌려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인간애와 고결한 성품을 보여준 작품이다. 문영은 서울에서 대학교수로 있는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평양에 올라와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품에 안긴다. 아버지는 문영이 떠날 때 서가의 책을 골라주며 그것을 팔아 녀사의 옷을 해드리라고 신신당부하였다. 이미 옷은 다 되였으나 어머님께서는 그 옷을 입지 않으신다. 문영은 이제 며칠후면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외국류학을 가게 된다. 그동안 문영은 어머님과 녀투사 선희와 함께 제사공장에도 나가보고 장에도 다녀보면서 어머님의 겸허하고 인자하신 성품과 고결한 풍모를 깊이 체험하게 된다. 어머님께서는 문영이 해올린 외투를 부모없는 고아인 영실에게 주시고 문영이 외국류학을 떠나는 날 자신의 단벌나들이옷을 그의

트렁크에 넣어주신다. 소설은 문영의 시점을 통하여 자신보다 먼저 동지들을 생각하시고 인민과 고락을 같이하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소박한 성품과 뜨거운 인간애를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그리는 마음》, 문예출판사, 주체76(1987)년판〕

《력사에 묻다》 (1—5부) 장편소설. 주체89(2000)—주체95(2006)년 김진성 창작. 일제통치 말기로부터 전후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운동이 벌어진 시기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개성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을 폭넓게 형상하면서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를 배격하고 조선민족끼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며 모든 조선사람들이 떨쳐나서야 실현될수 있는 문제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혀낸 작품이다. 작품은 주인공 송남호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생활과 성격발전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근 500년간 고려의 도읍지였던 고장에서 민족적존엄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개성인민들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투쟁을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장편소설의 제1부는 미제에 의한 남조선강점과 38도선에 의한 강토의 분렬, 남조선각지에 조직되였던 인민위원회들의 강제해산, 10월인민항쟁 등 력사적사건들을 반영하면서 외세를 배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개성인민들의 투쟁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민족분렬의 장본인이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조선의 분렬에 책임이 있는 미제와 유관국가들의 죄행을 고발하고있다. 제2부는 10월인민항쟁이 있은 이후시기 제주도인민들의 4. 3인민봉기와 개성에서 세차게 타번진 《5. 10단선》반대투쟁, 개성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있다. 작품에서는 조선은 하나인가, 둘인가라는 엄숙한 물음을 제기하면서 개성은 언제까지나 졸고있는 도시로 남아있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개성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 대한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분렬된 강토는 이내 몸이다》라는 사상적지향을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소설의 제3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개성지구에서 인민들의 복잡다단한 생활과 영웅적투쟁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조선전쟁의 방아쇠는 누가 먼저 당겼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조선사람들끼리 피흘리며 싸우게 만든 미제침략자들의 죄행을 단죄하고있다. 소설의 제4부에서는 전후 갓 해방된 지역에서의 농업협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치렬한 투쟁이 벌어진 력사적시기를 반영하고있다. 작품에서는 개성시를 비롯한 갓 해방된 지역에서의 각계층 사람들의 생활처지와 지향을 진실하게 보여주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계급적원쑤들과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농업협동화운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폭넓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의 제5부에서는 전후 도시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개성지구인민들의 투쟁과 새생활을 다면적으로 묘사하고있다. 소설의 기본주인공인 송남호는 자산계급출신으로서 반일감정과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다. 그는 해방전 일제놈들이 강요하는 징병을 피하여 강원도의 두메산골에 피신하여 있다가 해방이 되자 기쁨과 감격에 넘쳐 개성으로 돌아와 새생활을 창조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건국사업에 분투한다. 복잡한 환경속에서 자기가 갈길을 찾지 못하여 모대기던 송남호는 개성시에 온 려운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은 투철한 민족자주정신과 고매한 인품, 높은 식견과 넓은 포옹력을 지니신 민족의 태양이시라는것을 알게 되며 로동자인 석봉이와 애인 설희 등 동료들과 함께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린다. 작품에서는 자기가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고 혁명적으로 단련되지 못한 남호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뜻을 인식하고 건국사업에 헌신적으로 참가하며 이 과정에 개성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형상되여있다. 남북련석회의에 개성시대표로 참

가한 송남호와 그의 안해 설희는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게 되며 전후에는 개성시에 오신 수령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영광을 지니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신임에 의하여 다년간 개성시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사업한 남호는 조국해방전쟁시기는 물론 전후시기에도 치렬한 계급투쟁의 선두에 서서 반동분자들의 준동과 책동을 짓부시며 갓 해방된 지역의 사업을 수령님의 의도에 맞게 진행해나간다. 작품은 송남호의 곡절많은 생활과 운명, 간고하고 시련많은 투쟁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민족분렬로 인한 조선인민의 고통과 불행,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과 념원을 뚜렷이 형상하고있다. 장편소설에는 석봉이를 비롯한 로동자들, 덕배를 비롯한 농민들, 남호의 안해 설희, 도시수공업자들, 개성시 군정장관 플레스톤, 송인호와 같은 적대분자들, 반당분자인 허철손 등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며 다양한 인간관계와 갈등이 깊이있게 형상되고있다. 작품은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 사회력사적사변들을 극적으로 첨예하게 묘사하고있으며 력사적사건들과 사실들을 생동하게 재현해내고 개성지방의 고유한 여러가지 세태풍속들을 인상깊게 그려낸 특성을 가지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 제1부 주체89(2000)년판, 제2부 주체89(2000)년판, 제3부 주체91(2002)년판, 제4부 주체93(2004)년판, 제5부 주체95(2006)년판〕

《력사의 대결》(1—4부) 장편소설. 주체89(2000)—주체94(2005)년 허문길 창작. 해방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투사들의 투쟁을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폭넓게 형상한 4부작으로 된 작품이다. 작품은 중국에서 판사처 처장으로 지하활동을 벌리던 주인공 정시명(정향)이 조국이 해방된지 1년이 지나서 남조선으로 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해방전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반일투쟁을 진행한 정시명은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나라가 분렬되고 남녘땅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간다. 그곳에서 정시명은 남조선의 복잡한 현실을 깊이 연구하는 한편 해방전부터 반일운동에 참가하였던 마동열, 김승원, 길철, 권영호 등 여러 동지들과 함께 《홍국상회》라는 조직을 뭇고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려나간다. 남조선사회의 반동화를 저지시키며 나라의 영구분렬을 막기 위한 방도를 찾지 못하여 모대기던 정시명은 평양에 가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명확한 투쟁방도를 받아안게 된다. 서울에 돌아온 정시명은 《국방경비대》사령관인 송호정과 미군정청의 통위부장인 류동명을 민족의 편으로 돌려세우기 위하여 능란하고도 인내성있는 활동을 벌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 리승만일당을 반대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위업에 떨쳐나서도록 한다. 정시명은 애국애민의 뜻을 가지고있는 사람이라면 지난날을 묻지 않고 손을 잡고 함께 나간다는것을 조직의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남조선의 정계, 사회계의 이름있는 인사들을 민족의 편에 돌려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린다. 여기에서 정시명이 진행한 려운형, 김구와의 사업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정시명은 려운형과 김구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의지를 알려주며 그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들어서도록 도움을 준다. 정시명은 려운형에 대한 암살사건을 미리 막아내며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김구를 진지하게 설복하고 자신의 의로운 실천행동으로 감화시켜 그로 하여금 리승만을 반대하고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도록 한다. 작품은 남북련석회의소집, 《단독선거》반대투쟁, 미군철거를 위한 투쟁 등 거창한 력사적사변들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김구의 성격발전, 인생전환과정을 뜻깊게 형상하고있다.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김구가 적들의 탄압과 모략책동이 혹심해지자 정계에서 은

퇴하고 산에 들어가 절간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 정시명은 그로 하여금 민족애와 통일의지를 버리지 않고 꿋꿋이 싸워나가도록 각방으로 도와나선다. 작품의 후반부에는 정시명과 그의 전우들이 벌린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과 미제와 괴뢰도당의 북침전쟁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여있다. 정시명의 지도밑에 김승원과 권영호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수우계를 뭇고 《국회》연단에서 《미군철거안》을 통과시키려고 적극 노력한다. 한편 정시명은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전쟁의 불구름을 막기 위하여 괴뢰《국무총리》 리범석을 진지하게 설복하여 리승만과 대결하게 하며 전쟁도발을 저지시키는 운동을 벌리도록 한다. 또한 정시명은 해방전에 일본군장교로 복무하면서 나라와 민족앞에 대죄를 저지른 괴뢰군사단장 방대광이 북침전쟁을 반대한다는것을 알고 그를 돌려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한다. 방대광은 정시명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의 어지러운 지난날을 묻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할것을 기대하시는 크나큰 믿음을 베푸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자 전쟁을 반대하고 리승만역적과 정면대결하는 길에 들어선다. 동족상쟁을 막기 위하여 정시명은 리승만을 찾아가 그의 매국배족행위를 규탄하고 침략전쟁을 그만둘데 대하여 절규하고 나오다가 놈들에게 체포된다. 작품은 감옥에 갇힌 그가 가혹한 고문과 악랄한 회유책동을 짓부시면서 용감히 싸우다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에서 주인공 정시명은 장기간의 간고한 혁명활동과정에 단련된 의지가 강하고 로숙하며 높은 지성과 풍부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그려져있다. 작품에는 주인공과 함께 싸운 마동열, 김승원, 권영호, 길철, 김례영, 김아성 등 여러 혁명가들의 간고한 투쟁과 활동이 진실하게 그려져있으며 그들사이에 맺어진 동지적관계와 아름다운 륜리도덕이 감명깊게 묘사되여있다. 작품에는 미군정장관 하지,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무쵸, 리승만 등 부정인물들이 등장하며 긍정인물들과 부정인물들사이의 갈등이 예리하게 그려져있다. 그리고 해방후 남조선의 복잡하고 어지러운 정세와 애국과 매국이 첨예하게 대립되여있는 환경이 실재한 력사적사건들에 의거하여 생동하게 재현되여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빚어내고 남조선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죄행을 예리하게 폭로단죄하고있다. 작품은 실재한 력사적사건들과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각계층을 대표하는 여러 인물들의 생활과 운명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 제1부 주체89(2000)년판, 제2부 주체90(2001)년판, 제3부 주체91(2002)년판, 제4부 주체93(2004)년판〕

《력사의 대하》 장편소설. 주체86(1997)년 정기종 창작. 주체82(1993)년 봄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와 제국주의반동들의 고립압살책동과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취해진 준전시상태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시고 우리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의 운명을 지켜내신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형상하고있다. 주체82(1993)년 정초부터 미제는 광란적인 핵소동을 벌리면서 사상최대규모의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여 우리 나라의 정세를 또다시 전쟁접경에로 몰아간다.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심각한 정세속에서 온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조선에서의 전쟁을 더는 피할수 없는것으로 여기고 이목을 집중하고있던 때에 북방의 어느 한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수도에로의 먼길을 떠나오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깊은 밤 포전에 거름을 실어나르는 로병분조원들을 만나신다. 더 많은 기계와 쌀로써 당을 받들겠다는 인민의 맹세에서 크나큰 힘을 얻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도에 도착하시는 길

로 농번기를 앞둔 농촌에 기름을 넉넉히 대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신다. 뿐만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리사회 회의를 앞두고 우리 핵활동의 결백성을 립증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들과 방안에 몰두하고있는 문선규를 비롯한 외교일군들에게 핵문제를 법률실무적으로가 아니라 정치군사화하며 그것을 조미사이의 관계문제로 얽어매놓고 미국을 회담장에 끌어낼데 대한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신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진우, 최광을 비롯한 최고사령부지휘성원들과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작전적구상을 무르익히시고 우리 조국과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내기 위한 백전백승의 방략을 세워주신다. 그이께서는 타격군단의 한 기계화보병려단을 찾으시여 젊은 려단장 오영범의 작전전술적안목을 틔워주시며 모든 군사활동과 작전이 병사들에 대한 사랑에 기초할 때 더 큰 승리를 거둘수 있다는 철리를 깨우쳐주신다. 한편 놈들은 국제원자력기구 2월 관리리사회에서 끝내 우리 나라에 대한 특별사찰을 리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을 실동단계에 몰아넣으면서 더욱 광란적인 전쟁열을 고취하였고 지어 머나먼 인디아양에서 정상항행중이던 우리 나라 무역짐배 《무포》호가 미싸일을 적재하였다는 억지구실밑에 강제적인 검열설을 들고나오면서 위협공갈하는 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한다. 이러한 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부부장 문선규를 비롯한 외교일군들에게 배심이자 곧 승리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주도권을 틀어쥐고 대처하면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지혜전, 전술전, 공격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끌어주시며 총참모장 최광이 사회주의건설에 동원된 인민군군인들을 즉시 소환할것을 제기해오자 온 나라 전체 인민을 일떠세워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침략자와 맞서싸우도록 하실 결심을 피력하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적들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실동단계에 들어서는 3월 8일에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전국, 전군, 전민이 준전시상태로 넘어가 적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안기도록 단호한 용단을 내리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받들고 전군, 전민이 한결같이 일떠서 조국을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과 사회주의제도를 철옹성같이 지켜갈것을 결의한다. 발광적인 핵소동에 대처한 우리의 단호한 조치에 놀란 적들은 군사적압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킬수 있으리라고 어리석게 타산하고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에 처음으로 핵적재전략폭격기 《B－1B》를 투입하는가 하면 특대형항공모함전단 등을 끌어다놓고 우리의 핵시설에 대한 기습공격을 떠들면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고 발광한다. 바로 이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최고리익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조치로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할데 대한 대결단을 내리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사령관의 그 결심이야말로 경천동지격인 대결단이라고 치하하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 맡은 초소에서 마력을 내도록 뜨겁게 고무해주신다. 우리의 조약탈퇴성명의 발표로 온 세계가 놀라움과 경탄으로 또다시 들끓고있는 때에 미국대통령 클린톤은 새벽 3시 잠자리에서 뛰쳐일어나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미국의 세계전략이 무너지는데 대처한 사태수습에 바빠난다. 적들이 아우성치며 강경파와 협상파간에 전쟁이냐 협상이냐 하는 치렬한 론쟁을 거듭하고있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적들에게 안기는 또 한차례의 드센 타격으로서 타격군단의 대응훈련을 조직지휘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속에 군단장으로 성장한 오영범이 이 작전을 담당수행하며 대담무쌍하고 무자비한 타격솜씨를 발휘한다. 적들은 이 훈련에 참가한 무력만으로도 남조선전역은 물론 일본까지도 불바다로 만들것이라고 아우성친다. 드디여 위대한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철의 의지, 뛰여난 지략과 령군술 그리고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앞에 미국이 무릎을 꿇고 우리

에게 정부간협상을 제기해온다. 바로 그 시각에 장군님께서는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의 총포성이 요란하게 울리고있지만 주동적으로 준전시상태를 해제할것을 결심하시며 그길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신다. 이렇듯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는 강인담대한 지략과 뛰여난 천리혜안으로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던 미제를 굴복시키고 전쟁의 불구름을 쳐몰아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사회주의승리의 기치이시며 사랑의 화신이심을 다시금 절감하게 하고있다. 소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여러 계기와 세부들을 통하여 감명깊게 형상되고 그이께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을 위해 남달리 마음쓰시는 장면들이 인상깊게 묘사됨으로써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서의 고매한 풍모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또한 려단장 오영범, 정찰병 림정상과 그의 아버지 림희문, 외교일군 문선규 등의 개성적인물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의 실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품을 가슴깊이 느끼게 함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뚜렷이 부각시키고 장군님의 령도를 받들어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와 신념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6(1997)년판〕

《력사의 선언》 서정시. 주체80(1991)년 김일규 창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력사적인 순간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환희의 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는 력사의 선언을 받아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을 순간에 거인이 된듯 환희의 두손을 높이 쳐들고 하늘을 날고싶었다는 시적형상으로 생동하게 표현하고있다. 시는 또한 일찌기 항일대전의 포성을 들으시며 백두산정에서 령장의 슬기를 익히시고 백전백승의 담력을 키워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는 이 선언앞에서 우리를 노리던 침략의 무리들이 아우성치고 제국주의핵대포들이 순간에 무너진다고 하면서 선언이 가지는 력사적의의를 토로하고있다.

어제와 다름없이
배짱이 든든해지고
용솟는 힘을 나는 느끼노라
위대한 조선의 영웅
우리 혁명의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는 두려울것 없어라

시는 력사적인 순간에 느끼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대한 시적일반화를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그 어떤 대적도 두렵지 않으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80(1991)년 제52호〕

《력사의 새벽길》(상, 하) 장편소설. 주체61(1972)—주체66(1977)년 리기영, 김정민 창작. 소설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빛나는 생애와 불멸의 혁명활동을 서사시적화폭으로 형상하고있다. 소설의 상권은 조선국민회결성을 전후한 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민족의 자주정신으로 쓰러져가는 민족의 운명에 재생의 활력을 부어주시고 신음하는 인민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자주독립의 새벽길, 새로운 민족해방투쟁의 위대한 성전에 내세워주신 선생님의 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으며 하권은 주체10(1921)년 여름부터 주체15(1926)년 6월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민족해방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온

민족의 통일단합을 이룩하기 위해 애쓰신 선생님의 빛나는 업적을 형상하고있다. 국내외의 독립운동을 지도하시고 만경대로 돌아오시던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황량한 벌판에서 비바람에 나딩구는 척화비를 바로 세우시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으로 맡아나설 확고한 결의를 다지신다. 북부조선과 지엔다오(간도)일대를 돌아보시면서 독립운동의 실태와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료해하시고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진로를 탐구하시던 선생님께서는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구원할 독창적인 자주독립사상과 지원의 사상을 내놓으신다. 선생님께서는 나라의 독립을 외세에 의거하여 실현하려는 사대주의자들의 망상을 준렬히 폭로규탄하시고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독립하기 위해 전국적인 혁명조직을 내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다. 선생님께서는 강동군 내동부락으로 활동무대를 옮기시고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결성을 위해 그 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는 한편 후대들을 교육교양하시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여 마을농민들을 반일애국사상과 민족자주의식으로 교양하신다. 선생님께서는 또한 각지에 나가 투쟁하고있는 파견원들의 활동정형을 료해하시고 편향을 바로잡아주시며 전국각지의 독립운동자들과 우국지사들을 투쟁의 한길로 이끄신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주체6(1917)년 3월 23일 조선국민회의 결성을 선포하시고 그 성격과 목적, 당면과업과 행동준칙, 조직규범 등을 명확히 밝혀주신다. 조직을 결성하신 후 선생님께서는 그를 확대하기 위한 눈부신 투쟁을 벌리신다. 선생님께서는 지엔다오(간도)의 독립군부대들을 찾으시여 무장력을 튼튼히 꾸려나갈 방도를 밝혀주시고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간첩암해분자들의 책동으로 파멸의 위기에 처한 한 독립군부대를 구원해주기도 하신다. 이와 함께 조선국민회 조직들이 격문살포, 웅변대회, 시위, 무장투쟁 등 합법적투쟁과 비합법적투쟁을 능숙하게 배합하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신다. 이처럼 줄기찬 투쟁을 벌리시던 선생님께서는 조선국민회사건으로 일제경찰에 체포되신다. 옥중에서 끊임없는 투쟁을 벌리시는 한편 앞으로의 투쟁을 위해 의학공부도 하시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 방향을 전환시켜나갈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선생님께서는 주체7(1918)년 가을에 출옥하시자 쇠약해진 몸도 돌보지 않으시고 북부국경지대에로 새로운 투쟁의 길을 떠나신다. 소설의 하권은 창바이(장백)현 바다오거우(팔도구)에로 활동중심지를 옮기신 선생님께서 무산대중의 단합을 반일투쟁의 근본방략으로 내세우시고 그 첫걸음으로 광복군총영을 결성하시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선생님께서는 반일민족해방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무장부대들을 국내에 파견하시는 한편 왕정복귀의 방법으로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완고한 왕정독립단 사령 허근과 인력으로는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고 하면서 무저항주의를 설교하는 포평례배당의 심목사를 옳은 길로 이끄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며 각계층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신다. 선생님께서는 또한 상하이(상해)에 가시여 림시정부의 거두들과 독립운동의 방략을 의논하시고 그들에게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진로도 가르쳐주시며 국내의 구월산지구에 나오시여 조선국민회 지역책임자들과 반일단체지도자들의 회합을 여시고 무산민중속에 조직을 확대하며 무산혁명에 나설 독립군후비들을 많이 키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다. 선생님의 위대한 포옹력과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심목사는 마침내 일제의 간교한 책동을 박차고 6 000평의 밭을 팔아 독립의 연금을 마련해 보낸다. 또한 선생님의 지도밑에 로동재해를 입은 부상자들의 치료비를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벌려 승리를 쟁취한 장산목재소의 인부들은 남도계와 처서계를 합쳐 형제계를 내온다. 그러나 허

근은 여전히 국민회에서 하는 일을 한사코 반대하며 나중에는 선생님께서 간고한 투쟁으로 마련하여준 군자금으로 광복군총영이 상하이(상해)에까지 가서 사온 무기들을 가로채기까지 한다. 이 사건으로 광복군총영과 왕정독립단의 대립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 선생님께서는 수년세월 공들여쌓은 통일운동의 탑을 일조에 무너뜨리겠는가고 오동진을 준렬히 타이르시며 불편한 몸으로 허근을 찾아가 무기들도 그대로 쓰게 하시고 그가 통합에 대한 옳은 견해를 가지도록 하신다. 조선독립은 오직 민족의 힘을 믿고 그들을 각성시켜 하나의 반일력량으로 묶어세워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시고 민족의 단합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가시던 선생님께서는 일제주구놈의 밀고로 또다시 일제경찰놈들에게 체포되신다. 선생님께서는 호송도중 이미전부터 련계를 맺고 사업하던 지하조직원 황서사의 도움으로 주막집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하신다. 악에 받친 일본외무성정보부 요원이며 고등계형사인 야나가는 허근의 독립군에 침투한 밀정과 비적단을 사촉하여 오동진과 허근의 독립군부대사이에 리간을 조성함으로써 류혈적인 참극이 벌어지게 한다. 선생님께서는 적들에게서 받은 모진 고문과 심한 동상으로 운신조차 하기 어려운 몸이였지만 박달평까지 찾아가시여 무분별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허근을 엄하게 질책하신다. 그때에야 비로소 일제의 속임수에 놀아나 꼭두각시노릇을 해온 허근은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밀정놈을 제 손으로 처단해버린다. 그해 8월 완리하(말리허)에서는 내외각지의 독립운동자들이 모여 나라의 독립문제를 토의하는 력사적인 푸쑹(무송)회합이 진행된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선생님께서는 끝내 독립의 그날을 보지 못하신채 주체15(1926)년 6월 5일 너무도 일찌기 세상을 떠나신다. 선생님께서 심장의 고동을 멈추셨을 때 이 땅의 모든것은 아직 려명전의 어둠에 묻혀있었지만 선생님께서 높이 받들어올리신 위대한 태양이 찬란한 빛을 뿌려 조선의 새벽은 밝아오고있었다. 소설은 조선혁명의 새벽길을 개척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의 민족자주정신과 지원의 애국사상, 혁명운동에 대한 옳바른 령도와 뛰여난 조직력, 강의한 혁명정신과 불타는 혁명적열정, 고매한 덕성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조선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은 무산대중을 비롯한 모든 반일력량의 단합에 의해서만 이룩할수 있다는 투쟁의 근본방략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시련을 헤쳐가시는 선생님의 불멸의 업적을 력사적사실에 맞게 주체의 인간학의 견지에서 진실하고 심오하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선생님의 혁명활동과의 련관속에서 만경대혁명일가의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가풍에 대해서도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특히 아버님의 혁명활동을 직접 목격하시고 도와드리시며 아버님의 유언을 받들어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안아오실 굳은 결심을 다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과 선생님의 혁명활동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받들어주시는 강반석녀사의 숭고하고 강직한 풍모, 아드님의 혁명활동을 도우시는 김보현선생님과 리보익녀사, 선생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강진석선생님의 활달하신 성품을 진실하게 그려내고있다. 소설은 또한 가난한 농민출신의 애국청년인 홍준걸, 온순하고 사려깊은 농민 허기천, 독립성전에 목숨을 바친 옛 의병대장의 딸 변옥림, 광복군총영장 오동진과 리관린, 왕정독립단 사령 허근과 심목사 등 각계층을 대표하는 여러 인물들의 성격을 사실주의적으로 훌륭히 전형화하고 일제와 친일주구들의 성격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김형직선생님의 활동을 축으로 하고 조선인민과 일제와의 적대적갈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당대의 각이한 계급과 계층을 대변하는 여러 인물들을 유기적으로 맞물림으로써 이야기줄거리의 흐름에서 전일성을 보장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세태풍속과 아

름다운 자연풍경에 대한 인상깊은 묘사, 생활의 극적계기에 대한 예리한 포착과 선명한 극적대조수법,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어 진지하게 묘사한 심리분석적인 묘사, 치밀한 감정조직과 정서적굴곡 등 형상수법을 다양하면서도 폭넓게 리용하여 주제사상적과제를 뚜렷이 밝혀내고있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력사의 자취》 단편소설. 주체56(1967)년 권정웅 창작.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솔하신 부대가 간고한 행군을 계속하는 과정에 있은 간단한 이야기를 통하여 일제의 폭압밑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을 한품에 안아주시고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감명깊게 보여준 작품이다. 대원들을 이끌고 눈보라속을 행군하시던 사령관동지께서는 바람결에 실려오는 그을음냄새와 신음소리에서 일제놈들의 《토벌》만행을 직감하시고 대원들에게 숙영명령을 내리신 후 기관총소대장 오태수를 마을에 내려보내신다. 그가 불타버린 마을에서 업고온 옥이남매를 한품에 안으신 사령관동지께서는 《토벌》대놈들에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그들의 얼어든 가슴을 녹여주시려고 적들이 욱실거리는 정황속에서도 우등불을 피울것을 명령하시며 비상용미시가루로 죽을 쑤어 먹이도록 하신다. 그리고 조선의 모든 어린이들, 억압받고 천대받는 모든 겨레의 운명에 대하여 가슴아파하시며 일제침략자들을 조국강토에서 내몰고 어린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안겨줄 그날을 앞당길 구상을 하신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대원들에게 민족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기 위하여 조국으로 진군할것을 명령하시며 몸소 두 아이를 외투자락에 감싸안으시고 대오의 앞장에서 숫눈길을 헤쳐나가신다. 그이께서 걸어나가시는 력사의 발자취를 따라 힘있게 전진하는 대오의 앞길에 혁명의 려명이 비껴오고 조국해방의 새아침이 밝아온다. 소설은 어린이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조선인민의 운명은 수령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것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조선단편집》 1, 문예출판사, 주체67(1978)년판〕

《력사와 순간》 단편소설. 주체76(1987)년 배민옥 창작. 어버이수령님의 가슴속에 간직된 전사들의 모습은 영원하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조선인지린(길림)소년회 회원이였던 권기련은 딸 옥이와 함께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국에 도착한다. 권기련은 물론 딸 옥이는 한장의 사진을 놓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 사진에는 곽아저씨, 설화이모, 장일환이며 어머니 등 소년회회원들의 모습이 있다. 옥이는 어머니로부터 그때 김성주선생님께서 몸소 회원들의 자리며 자세를 바로잡아주셨다는 이야기를 이미 몇번이고 들었으나 존귀하신 그 영상이 모셔지지 못한데 대해 의혹을 갖는다. 이튿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온갖 육친적사랑을 다 돌려주시며 그 사진을 보시고는 깊은 감회에 잠기신다. 《…그때 나는 그리운 동지들의 모습을 가슴에 새겨둘수밖에 없었다.》는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옥이는 혁명활동의 준엄한 나날 동지들에게 해가 끼칠세라 뜻깊은 자리에서조차 자신의 모습을 묻어두신 수령님의 뜨거운 동지애와 의리를 깊이 깨닫게 되는것이다. 소설은 옥이의 시점에서 사진에 대한 의문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가슴속에 새겨진 혁명전사들의 모습은 늙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청춘의 모습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어버이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업적을 웅건하고 폭넓은 감동의 세계로 두드러지게 형상하고있다. 〔《문학신문》, 주체76(1987)년 제16호〕

《련대의 기수》 장편서사시. 주체45(1956)년 신상호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락동강으로부터 들어오

던 인민군전사들이 제2전선을 형성하고 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적후투쟁을 벌려나가는 이야기를 노래한 작품이다. 락동강이남까지 진격했던 주인공 철주가 속한 련대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서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 내리신 적후투쟁의 명령을 받는다. 승리의 신심에 넘친 인민군전사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할 불같은 결의를 안고 미제침략자들을 족치는 적후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다. 시는 매복전투에서 적사령부의 미군참모장교놈을 총탁으로 때려잡는 철주의 용감성과 땅에 대한 한량없는 사랑의 감정을 대조적인 시적정서로 감명깊게 노래하고있으며 통쾌한 기습전투와 마을해방의 기쁨, 인민들의 재산을 귀중히 여기는 숭고한 정신세계 등을 다양한 생활감정으로 일반화하고있다. 적의 포위속에 든 련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습격전투에 나갔던 철주는 호걸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다가 부상을 당하며 한 어머니의 도움으로 상처를 치료받는다. 간고한 행군끝에 부대를 만나게 된 철주는 영광스럽게도 조선로동당에 입당한다. 당세포총회에서 그는 당의 아들답게, 투사답게 혁명위업에 자기의 생명과 청춘을 다 바칠것을 결의다진다. 시는 전화의 불길속을 헤치며 분대장으로 자란 철주가 원쑤들의 총탄에 쓰러진 전우의 시체를 묻으며 천백배의 복수를 다짐하는 불타는 증오심, 원쑤격멸의 투지를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전쟁의 제3계단이 시작되였을 때 철주가 련대의 기수가 되여 부대의 선두에 서서 기발을 휘날리며 힘차게 전진하는데서 끝난다. 철주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며 로동을 무한히 사랑하는 순박한 청년으로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싸운 인민군용사들의 전형으로 형상되였다. 서사시는 철주를 비롯한 인민군전사들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발휘된 우리 인민군대의 대중적영웅주의와 고상한 혁명적동지애,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서사적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5(1956)년판〕

《렬차안에서》 단편소설. 주체50(1961)년 유항림 창작. 려행길에서 생긴 환자를 치료해주기 위해 앞을 다투어 나서는 의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나라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준 작품이다. 출장길에서 돌아오던 용준이는 렬차안에서 앓고있는 로인을 보게 된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차장을 통하여 렬차방송으로 려객들속에 의사가 있으면 불러줄것을 요구한다. 잠시후 한 녀의사가 오고 뒤따라 나이지긋한 남자의사가 나타난다. 환자를 진찰하고난 두 의사는 주사를 놓고나서 그를 간호해주기 위해 자리를 옮겨온다. 령감의 병이 수그러지자 로친은 의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그러자 남자의사는 환자들이 좋은 세상을 만났다고 하지만 의사들에게는 또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고 하면서 량심을 버리고 돈을 받으며 사람들을 치료해주던 자신의 해방전 생활을 이야기한다. 용준이는 그를 보며 지난날 량심을 잃고 살게 된것은 사람들을 황금의 노예로 치부하던 그 저주로운 제도때문이였다고 생각한다. 작품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무상치료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0(1961)년 제45호〕

《령마루》 장편소설. 주체69(1980)년 엄단웅 창작. 나라의 광물생산을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어느 한 광산기사장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작품은 첫 부분에서 새로운 중화제연구를 위하여 광산에 내려온 과학원연구사 윤혜영의 시점을 통하여 주인공 현우림기사장의 사람됨과 광산실정을 보여주고있다. 광산에 도착한 혜영은 광산참모회의에서 기사장이 지표별계획은 수행하지 못하였지만 액상계획을 했으니 상금을 주어야 한다는 신석갱 갱장 박상만의 의견을 일축하고 론의된 문제들을 간단명료하게 결

속하는것을 보게 된다. 한편 기사장은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고있는 신석갱의 실태를 료해하고 당분간 자신이 그 갱을 맡아 지도할것을 초급당비서에게 제기하고 갱에 들어간다. 전쟁시기에 입은 상처로 하여 고통을 겪고있는 우림은 신석갱에 들어가 갱장과 일과생활을 같이하면서 갱사업을 정규화하도록 하는 한편 당면한 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애쓴다. 그러나 상만은 어려서부터 탄광마구리에서 고락을 같이한 막역한 친구인 기사장이 자기를 믿지 못하는데 대해 불쾌하게 생각한다. 이무렵 신석갱에 연구기지를 잡고있던 혜영은 연구과제를 빨리 끝마치고 돌아갈 조바심에 사로잡혀 우림에게 수입원료를 보장해줄것을 요구한다. 우림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우리 나라의 원료에 의거하여 연구사업을 진행하도록 조언을 주며 신석갱에 심혈을 기울여 생산을 정상화한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현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이 소식을 들은 초급당비서 김성재는 우림을 도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한다. 자기의 병이 불치의 병이라는것을 알게 된 우림은 광부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자신을 민망스럽게 생각하며 안타까이 모대기다가 더이상 참을수 없어 병원에서 뛰쳐나온다. 광산에 돌아온 그는 모험주의적인 잔주채굴을 중지시키며 혜영이 또다시 제출한 수입원료청구서를 보고 자기 나라의 원료에 철저히 의거하지 않는 그의 그릇된 태도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한다. 이무렵 도당회의에 올라갔다가 병원에 들렸던 성재는 우림이 불치의 병으로 진단을 받고도 퇴원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곧 광산에 돌아와 그에 대한 치료대책을 세우고 상급당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우림이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광산의 종합적기계화를 완성시킨데 대하여서와 그의 병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강을 돌보지 않고 무리하게 일한 우림을 두고 마음쓰시며 치료대책을 세워주신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림이 비행기를 타러 비행장으로 떠나는것으로 끝난다. 소설은 현우림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정다하는 여기에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의 참된 보람이 있다는것을 확증하여주고있다. 또한 소설에서는 녀성과학자 윤혜영의 형상과 광산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애쓰는 로동자들의 투쟁을 통하여 생활의 령마루로 치달아오르려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높은 사상적지향과 고상한 정신세계를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69(1980)년판〕

《령북땅》 단편소설. 주체52(1963)년 리병수 창작. 령북땅에 진출하여 고산지대의 기후풍토에 맞는 밀종자를 얻어내기 위하여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투쟁하는 청년과학자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준 작품이다. 3년전에 령북땅에 자원하여온 남명윤기사는 자기보다 한해 늦게 왔지만 대학에서 함께 공부하였고 고산지대에 와서 연구사업을 같이하던 서현숙이 떠나간 후 고산지대에서는 밀이 되지 않는다고 고집하는 경험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쳐 일시 동요한다. 그러나 명윤은 채순을 비롯한 마을농민들의 지지와 리당위원장 동호의 방조밑에 해발 1 100m높이에 있는 동령으로 시험포전을 옮기고 채순의 아버지가 20년전에 심었던 밀의 야생종자를 얻어내며 그것을 교잡하는 방법으로 내한성이 강한 조숙종밀을 얻을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된다. 작품은 북방의 변덕스러운 날씨와 마음속고충을 이겨내고 야생밀의 씨붙임시험에 성공한 명윤이와 채순이가 자기들이 연구한 밀로 온 령북땅을 덮을 래일을 그려보는데서 끝난다. 작품은 령북땅 사람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보수주의와 소극성, 경험주의와 투쟁하면

서 고산지대의 기후풍토에 맞는 새로운 밀종자를 얻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청년과학자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하고있다. 소설은 령북땅의 변화무쌍한 자연환경, 북방의 특유한 기후풍토와 자연풍경을 진한 향토적색채속에 선명하게 그려내고 주인공의 심리세계를 깊이있게 묘사하고있다. 〔《조선단편집》 3, 문예출판사, 주체67(1978)년판〕

《령장과 다섯해》 장시. 주체85(1996)년 차영도, 장혜명 창작.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5돐을 맞는 우리 인민의 감격과 환희,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을 안으시고 사회주의를 안으시고》 민족과 력사앞에 거연히 나서신 지난 다섯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혁명의 시련을 헤치시며 비상한 의지와 열정, 특출한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신 장군님의 위인상에 대하여 뜨거운 격정을 터치고있다. 타고나신 기상도 빨찌산 김대장의 기상이시고 지니신 천품도 정신도 만난을 뚫고나가는 빨찌산공격정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은 그대로 빨찌산 김대장의 모습이라는것을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는 시는 이처럼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신 우리 조국, 장군님두리에 철의 성벽을 쌓고 총폭탄의 철갑을 두른 우리 인민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이런 나라를 당할자 어데 있으랴
이런 인민을 굴복시킬자 어데 있으랴
보라, 내 나라는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백두의 총대가
최고사령관을 옹위하여
대하를 이룬 나라

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 담력으로 승리를 떨치며 흘러온 다섯해가 그러하듯이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하늘아래 최고사령관기 높이 날리며 사회주의의 영원한 승리의 력사를 안아오리라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숭엄하고 장중한 정서로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문학신문》, 주체85(1996)년 제51호〕

《령장없는 병사》 영화문학. 배연록 창작. 딸자식들을 모두 군관들에게 시집보내고 북산령을 지켜가며 전사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는 작품이다. 복희는 이 령을 넘는 병사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떠다준다. 시집간 딸들도 훈련가는 도중에 집에 들릴 때마다 어머니를 서로 자기들이 모시려고 한다. 특히 막내딸 후남은 어머니가 전쟁때 다친 상처로 건강이 더 나빠지는것을 알고는 자기도 대대장인 정혁이를 따라 시집가면 홀로 계실 어머니가 걱정되여 정혁이와 헤여지려고 한다. 선렬들의 피가 스민 이 령을 떠날수 없는 복희는 후남이에게 전연초소에 선 사람에게 마음속 그늘을 주면 총대가 흔들릴수 있다고 그를 교양한다. 한편 셋째딸 정실은 섬초소로 가기에 앞서 어머니에게 와서 해산하려고 친정집으로 온다. 그 사연을 들은 복희는 초소를 지키는 남편에게 부담을 더해준다고 일깨워주며 딸을 기지군의소에 입원시키고 자기는 셋째사위인 해철이를 만나려고 섬으로 온다. 그러나 뜻밖에도 해철은 우리 령해에 침입한 적들과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희생된다. 이 소식을 들은 정실은 남편의 뒤를 이어 섬초소에서 총을 잡고 싸울것을 결심한다. 한편 이동강의를 온 정혁의 아버지는 전쟁시기에 메마른 북산령에서 샘물곬을 찾던 그 처녀, 폭우속을 뚫고 탄약을 보장하던 그 처녀가 바로 자기 아들과 일생을 같이할 처녀의 어머니라는것을 알고 감격적인 상봉을 한다. 한편 그의 딸들은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어머니와 함께 가자고 찾아온다. 영문을 모르는 복희에게 한 장령이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던 장군님께서 알뜰히 꾸려놓은 이 북산령의 샘물터에 들리시

여 손수 물맛을 보시며 우리 전사들을 생각하는 인민들의 마음은 끝이 없다고 하시면서 병사들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가는 한 녀성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어머니야말로 어깨에 령장은 없어도 군복입은 병사와 같다고 치하하시면서 그를 딸들과 함께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시키라고 하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작품은 주인공 복희의 형상을 통하여 전사들을 위해 온갖 성의를 바쳐가는 수천수만의 어머니들이 있기에 조국의 방선은 금성철벽이라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작품은 매 인물들의 성격을 다양하게 개성적으로 형상하면서 그것이 주인공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데 복종되게 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작품의 문제해명을 명백하게 하고있다. 작품은 주체89(2000)년 영화로 제작되였다.

《로동가정》(전, 후편) 영화문학. 박봉학, 최용수 창작. 작품은 한 로동가정의 혁명화과정을 통하여 로동계급출신이라고 하여 저절로 로동계급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꾸준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하여서만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참다운 로동계급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전편에서는 200만산대발파설계론문현상모집에서 1등을 한 광록의 둘째아들 두석이가 아버지의 착상대로 광맥과 침전못을 함께 얻기 위한 새로운 설계작성에 달라붙었으나 잘되지 않아 동요하는 과정과 광구장인 아버지와 부문당비서인 맏형을 등대고 자유주의를 부리던 셋째아들 삼석이의 개변과정을 펼쳐보여준다. 이름있는 축구선수가 될 꿈을 꾸며 들떠다니는 삼석은 로동규률도 지키지 않고 착암기를 견습공에게 넘겨주고 축구경기의 중계방송을 듣는가 하면 조직에도 알리지 않고 도선수선발경기에 참가하려다가 사로청회의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받게 된다. 삼석은 로동자의 가정에서 태여났다고 해서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다 무장했다고 말할수 없다는 견습공의 비판과 이 광산이 우리 나라의 보배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명심하고 일하라는 녀동생 순녀의 절절한 충고, 사람이란 조직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다는 아버지의 따뜻한 타이름을 들으며 자기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친다. 작품에서는 또한 처녀때에는 권양기운전공으로서 일을 잘하였으나 결혼후에는 안일해져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맏딸 순옥, 모든것을 좋게만 대하면서 시동생들을 원칙적으로 교양하지 않는 맏며느리 성숙 등 여러 인물들이 할아버지 춘보와 아버지 광록에 의하여 개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후편에서는 낡은 사상에 물젖어있던 두석의 개변과정을 보여주고있다. 로동계급의 완강한 투쟁정신을 가지고 일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시험발파의 실패앞에서 동요하던 두석은 광산마을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들떠있는 자기 안해 정희를 교양할 대신 그의 추동에 귀를 기울이며 발파나 끝내고는 도시로 떠날 생각까지 하게 되며 로동자들의 힘을 믿지 않을뿐아니라 그들을 깔보기까지 한다. 그리하여 그는 한 로동자가 애써 만든 설계도면을 보아주려고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 광록은 두석이의 이러한 그릇된 행동을 랭혹하게 꾸짖으며 당위원회를 찾아가 아들을 잘 교양하지 못한 자신을 심각하게 비판한다. 가족회의에서 맏형 한석은 두석에게 로동자들과 같이 있고 그들과 함께 출퇴근을 한다고 해서 로동계급이 되는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할아버지 춘보로인은 피눈물나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로동자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가슴아프게 타이른다. 이 과정에 두석과 정희는 자기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새로운 결의를 다진다. 두석은 높은 계급적자각을 가지고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로동계급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며 정희도 새로운 결의를 안고 후대교육사업에 자신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나간다. 작품은 두석이가 로동자들과 힘을 합쳐 만든 새 발파설계를 도입하여 200만산을 날려 새로운 광맥과 침전못

을 얻고 환희에 넘쳐 만세를 부르는 장면에서 끝난다. 작품은 삼석, 두석, 순옥, 정희 등 여러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비록 로동가정에서 태여났다고 하더라도 실천속에서 자신을 일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낡은 사상에 물젖게 되며 계급적각성과 혁명성이 무디여지기때문에 누구나 다 끊임없이 혁명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작품은 또한 로동일가의 가정혁명화과정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혁명화와 함께 지식인들의 혁명화, 새세대혁명화, 녀성혁명화 등 각계층의 혁명화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심오한 사상예술적 해답을 주고있다. 작품은 주체60(1971)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로동당은 우리의 향도자》 가사. 주체46(1957)년 정서촌 창작.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향도적역할에 대한 칭송과 당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다함없는 신뢰의 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면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인민들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혁명의 기치를 높이 날리며 인민의 행복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있을뿐아니라 세계혁명을 앞장서 인도해나가고 있는 조선로동당의 높은 권위와 존엄, 위대한 향도적역할에 대하여 높이 찬양하고있다. 가사는 전투적이며 박력있는 시어와 운률로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과 업적을 힘있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당을 노래한 송가의 대표작의 하나로 되고있다. 〔《조선음악전집》 1,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로동당원》 단편소설. 주체51(1962)년 엄단웅 창작. 한생을 변함없이 당과 수령, 혁명동지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온 한 로동당원의 참된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당 제4차대회를 맞으며 ㄱ종합목장을 취재하러 가던 춘경은 뜻밖에도 전쟁시기 희생된줄로만 알았던 영수아바이를 만나 그의 등에 업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오르던 일을 회상한다. 당시 련대통신병이던 춘경은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중대위생병인 영수아바이가 책임진 부상병들의 대오에 속하여 후퇴하게 된다. 영수아바이는 폭격에 자동차가 못쓰게 되고 인천에 상륙한 놈들에 의하여 후퇴길이 차단되였지만 락심하지 않고 부상병들을 무사히 후송하기 위해 애쓴다. 그는 비겁하다고 말하는 정찰병출신 부상병의 오해도 무릅쓰고 춘경을 업은채 대오를 험한 산길로 이끌어가며 림진강철교우에서 적군용렬차와 맞다든 긴박한 정황에서 혼자 맞받아나가 늘 허리에 차고다니던 반땅크수류탄으로 렬차를 전복시킨다. 소설은 의족을 한 영예군인의 몸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목장지배인 영수아바이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로동당원의 강의한 의지와 뜨거운 동지애, 숭고한 애국주의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51(1962)년 2호〕

《로동법령송》 서정시. 주체35(1946)년 리정구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력사적인 로동법령에 접한 근로자들의 끝없는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로동법령을 《세기의 법령》, 《로동대중의 영원한 희망》으로 높이 찬양하면서 이것은 력사상 가장 민주주의적인 법령이라는것을 노래하고있다. 시에서는 이 법령이야말로 근로자들을 고된 노예적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람찬 새생활의 길을 열어준 《민주건설의 거대한 초석》이며 근로자들에게는 《황홀한 등불》로 되고 반동들에게는 섬멸적인 타격을 안기는 강력한 무기로 된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하

고있다. 시는 로동법령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참다운 삶의 권리와 자유를 찾은 근로자들의 기쁨과 감격을 구체적인 생활감정에 기초하여 랑만적색채가 진하게 노래하고있다. 〔《조선문학작품선집》 23, 교육도서출판사, 주체72(1983)년판〕

《로동수첩》 단편소설. 주체50(1961)년 박완근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부상을 당한 몸이지만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려는 한 영예군인의 정신도덕적풍모를 그린 작품이다. 영예군인으로 제대된 주인공 리정구는 꽃은 계속 피여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살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어느날 안해와 토론한 그는 군영예군인공장 당위원회에 자기의 심정을 적은 편지를 보낸다. 며칠후 회답편지를 받고 안해와 함께 공장에 찾아가 당위원장을 만나고 현장을 돌아본 그는 자기도 일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된다. 공장에서는 그의 소원대로 일하도록 해주며 집도 알뜰히 꾸려준다. 다음날부터 정구는 초물제품을 만드는 토끌풀을 집에 가져다가 일을 시작하지만 솜씨가 서툰데다가 육체적인 고통까지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일을 배워나간다. 당위원장은 전선에서 싸우던 심정으로 일을 배우며 자기가 세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애쓰는 그에게 육체적인 피로를 모르고 일할수 있도록 깔개를 해다주며 기능전습도 시켜준다. 이 나날에 정구는 희망대로 로동수첩을 받게 된다. 정구는 자신이 만든 초물모자를 쓰고 가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전쟁시기 화선에 서있던 때처럼 당과 수령을 위해 한생을 살아갈수 있다는 긍지감에 눈시울을 적신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어려운 시련의 날에나 평화로운 시기에나 변함없이 어버이수령님과 당을 받들어 일해가려는 우리 영예군인들의 고상한 풍모를 일반화하고 있다. 〔《문학신문》, 주체50(1961)년 제33호〕

《로동일가》 단편소설. 주체36(1947)년 리북명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36(1947)년도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새로운 사상정신적풍모를 형상한 작품이다. 흥남비료공장 선반직장에서 일하는 주인공 김진구는 같은 직장에 있는 리달호와의 개인경쟁보다도 직장호상간 증산경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로동자들의 앞장에서 모범을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달호는 진구와의 개인경쟁에서 이겨 자기의 이름을 낼 공명심에 사로잡혀 직장의 전반사업에는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 어느날 달호가 기계를 혹사하여 바이트를 마사먹었을 때 진구는 자기의 새 바이트를 서슴없이 내주면서 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서로 도우면서 일하자고 말한다. 진구는 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앞장에서 일할뿐아니라 가정에서도 경쟁을 걸고 자기는 직장에서, 안해는 인민반에서, 아들은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일하도록 한다. 소설은 증산경쟁총화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기비판을 한 달호와 인사를 나누고 집에 돌아온 진구가 안해, 아들과 함께 로동에 대한 벅찬 희열과 크나큰 행복감에 넘쳐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은 해방후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새로운 사상정신적풍모를 일반화함으로써 해방후 민주건설시기 우리 소설문학이 거둔 성과작의 하나로 되고있다. 〔《조선단편집》 2, 문예출판사, 주체67(1978)년판〕

《로동일가》 단편소설. 주체58(1969)년 주유훈 창작. 위대한 수령님께 대를 이어 충정다해가는 로동계급의 한 가정을 형상한 작품이다. 대형기계직장 청년작업반장 강완호는 6000t프레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린다부분품가공을 맡아하기 위해 휴양도중 공장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직장장은 이 일을 수년간의 기대경험을 가진 고급기능공만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작업반에 맡

기려 한다. 직장장의 결심을 알게 된 완호는 해방직후 공장을 왜놈들의 책동으로부터 지켜냈고 2개년계획수행에서 전국에 이름까지 날렸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시계선물을 받고 그 믿음에 보답하려고 헌신분투하다가 전쟁때 희생된 아버지, 전후 모든 정력을 다 바쳐 3000t프레스를 만들어낸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어려운 시린다부분품가공을 자기가 해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리하여 완호는 시린다부분품을 높은 정밀도와 10배의 속도로 가공할수 있는 단능선삭반을 새로 창안하여 완성하고야만다. 소설은 완호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로동계급의 충실성은 대를 이어 변함없이 이어져야 하며 그러자면 새 세대들이 자기앞에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더 빨리 전진해나가야 한다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8(1969)년 7호〕

《로동의 나날에》 시초. 주체49(1960)년 백인준 창작. 로동과 생활이 그대로 기쁨으로, 노래로 되는 천리마시대,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현실을 소리높이 구가한 작품이다. 시초는 《나의 주인공들을 찾아》, 《새로운 지역》, 《이른아침에》, 《려명》, 《사랑에 대하여》의 5편의 서정시로 구성되여있다. 시초에서는 다양한 시적대상, 시적정황속에서 서정을 줄기차게 펴나가고있다. 《나의 주인공들을 찾아》, 《새로운 지역》에서는 새로 일떠서는 공업기지는 물론 그 어데를 가도 우리 로동계급이 있는 곳은 풍만한 서정의 지대, 서정의 기지이며 시의 주인공들도 그 어느곳에서나 찾을수 있다고 자랑높이 노래하고있다. 《이른아침에》, 《려명》에서는 로동의 새날을 맞는 기쁨과 랑만에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시에서는 한살잡이 아이를 애무하며 나란히 걷는 부부의 출근길에도 공장, 일터의 창가에서 아침을 맞는 기대공들에게도 창조와 삶의 보람이 그대로 차넘치고있음을 토로하고있다. 또한 《사랑에 대하여》에서는 로동속에서 맺어지고 꽃피워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깨끗하고 참된 사랑에 대하여 밝은 색조로 노래하고있다. 시초는 다양한 형식과 정서적색갈을 가진 시편들을 엮어 시형상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형상을 돋구어내고있다. 〔《문학신문》, 주체49(1960)년 제98호〕

《로반에서 만난 녀선생》 단편소설. 주체80(1991)년 김창옥 창작. 입당의 영예는 값높은 삶의 시작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새 세대 청년지식인의 형상을 통하여 보여준 작품이다. 학교사로청지도원이였던 당원 영란은 속도전청년돌격대에 입대하여 어제날 제자였던 사로청원인 분대장 광준의 분대에서 생활을 시작한다. 영란은 참된 삶에 대한 지향을 안고 그 어떤 공명이나 명예를 바람이 없이 궂은일, 마른일을 가리지 않고 성실히 일해나가지만 광준은 말끝마다 위훈을 외우고 하루빨리 당원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생활은 진실하게 하지 못한다. 소설은 광준과의 대비속에서 청춘시절의 종착점을 값있게 장식할 목표를 설정하고 시대적흐름의 한복판에 뛰여들어 당의 의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새 세대 지식인의 형상을 그려내고있다. 또한 소설은 구체적이고 섬세한 세부적인 생활계기들에서 영란과 광준을 예리하게 대조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의 내면심리세계를 개방하면서 성격을 개성화하고 있다. 〔《문학신문》, 주체80(1991)년 제19호〕

《로병들의 노래》 서정시. 주체82(1993)년 리광근 창작.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대회장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는 로병들의 격정에 넘치는 사상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는 가슴에 훈장을 번쩍이며 대회장에 들어선 로병들이 뜨겁게 상봉하는 환희로운 장면을 《붐비는 시장의 진렬대우에서》 훈장을 팔고 군모를 파는 《국경 넘어 먼 나라》 로병들의 모습과의 대조속에서 생동하게 노래하고있다. 락동강을 넘어온 전사와 1211고지의 전

우들, 수안보 최전선의 전사와 밤나무아래서 신념의 노래를 부르던 모범전투원을 비롯하여 대회장에 모여온 로병 한사람한사람은 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키우시고 내세워주신 전사들이다. 시는 그 로병들을 혁명의 원로, 혁명의 골간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넓고 따사로운 품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그 품에 안겨
로병들이 걸어온 길은 빛을 뿌리고
대회장마다 금빛훈장 차고넘치니
진정 그 품은
땅우에 빛나는 삶의 은하계를 펼친 하늘

이렇듯 시는 로병들의 감격적인 상봉이 벌어지는 대회장에 대한 시적일반화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이 있어 로병들의 어제날의 위훈과 오늘의 영광이 있음을 형상적으로 노래하고있다.〔《문학신문》, 주체82(1993)년 제30호〕

《로정에서》 단편소설. 주체49(1960)년 리서영 창작. 나라의 귀중한 자재를 절약하기 위해 기성건설관례를 깨뜨리고 대담하게 착상하고 실천해나가는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창조적인 투쟁기풍을 보여준 작품이다. 1호용광로개조공사에서 중요한 대상인 비무를 교체하기 위해 그우에 놓여있는 네개의 브리다를 헐어버리는 문제가 제기되자 젊은 연공인 동수는 그것을 3대의 권양기로 하나씩 들어올린 다음 비무를 바꿔채우자는 안을 내놓으며 이것은 당분조장 운섭과 그의 딸 보연을 비롯한 민청원들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용광로에서 오랜 기간 일해오는 한태일반장은 아직 한번도 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200t이 넘는 브리다를 들어올리다가 실패하는 날에는 큰 사고를 내게 되고 반장인 자기가 책임을 지고 추궁받을수 있다는 우려밑에 2호용광로를 복구할때처럼 안전하게 헐어버리는것이 상책이라고 하면서 동수의 발기를 무작정 반대해나서며 여기에 설비부직장장과 강령감까지 합세해나선다. 그럴수록 브리다를 헐어 수백t의 아까운 내화벽돌과 수십t의 귀중한 특수강재가 못쓰게 되는것을 허용할수 없다고 생각한 동수는 깊은 밤중에 조기사네 집으로 찾아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민청원들과 함께 로꼭대기에 올라가 준비를 갖춘다. 그는 첫 시운전이 실패하였으나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깨버려야 한다고 한 부문당위원장의 말에서 고무를 받고 용접공 보연이와 함께 용접으로 브리다밑에 레루를 붙여 고정시키고 권양기와 동시에 쟈끼로 떠올릴 방법을 새로 창안한다. 다시 시운전이 진행되고 마침내 권양기와 쟈끼의 힘에 떠받들려 브리다가 순조롭게 올라간다. 그것을 바라보며 작업반장 태일은 낡은 경험에 매달려 청년들의 대담한 일본새를 믿지 못하던 자신에 대하여 뉘우친다. 소설은 주인공 동수를 비롯한 청년들의 형상을 통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주인이라는 본분을 자각하고 전진하는 시대의 앞장에 서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천리마시대 청년들의 고상한 성격적특질과 로동속에서 맺어지는 참다운 애정륜리관계를 진실하게 일반화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49(1960)년 3호〕

《론죄하노라 력사의 무대우에서》 풍자시. 주체49(1960)년 백인준 창작. 세계반동의 원흉 미제를 력사의 심판대우에 올려놓고 놈들의 죄행을 낱낱이 폭로단죄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오랜 력사의 흐름을 걸쳐 《오늘 지구우에 해빛 눈부신》 락원이 앞에까지 이르렀는데 《금화와 지폐속에서 생겨나 그것을 먹고 사는 이 기생충부대는》 화약통을 쌓아놓으며 인류가 걸어온 모든 행로와 문화와 도덕, 장래운명에 마지막결투를 걸고 나섰다고 하면서 침략전쟁을 일삼는 미제의 죄행을 단죄하고있다. 또한 시에서는 미제를 세상의 모든 악덕과 파렴치와 간악함을 집대성하고 《완성》한 인류최대의 원쑤로 락인하

면서 놈들이 대포를 몰고 우리 땅에 덤벼들었을 때 조선인민은 결사전을 벌려 미제의 마지막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았다고 선언함으로써 제국주의멸망과 사회주의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시집 《단죄한다 아메리카》,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주체52(1963)년판〕

《롱구감독》 장편소설. 주체95(2006)년 김덕철 창작. 나라의 롱구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는 한 체육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체육성과로 나라와 민족의 영예를 온 세상에 빛내일 꿈을 안고 롱구를 시작한 리기건은 자신뿐아니라 자식들모두가 롱구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주추돌이 되도록 하기 위해 딸 광옥이를 우수한 롱구선수로, 아들 광명이를 롱구연구사로 키우며 녀자롱구선수인 전춘선을 며느리로 삼는다. 그후 롱구감독이 된 그는 선수들을 잘 지도하자면 자기부터 더 많이 알고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50이 넘은 나이에 체육대학 과정안을 새로 마치며 키가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 선수들이 키큰 다른 나라 선수들을 이길수 있는 전법을 찾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이러한 때인 1990년대 중엽 우리 나라 녀자롱구선수들의 훈련경기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사람의 체질과 특성에 맞는 전술로 경기를 운영해야 한다는 독창적인 전법을 밝혀주신다. 리기건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먼거리 공넣기와 속도경기를 할수 있도록 새로운 세부계획들을 만들어 훈련요강에 반영하고 선수들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여나간다. 이와 함께 한 선수의 병치료에 효과가 큰 곰열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등 선수들의 생활과 건강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돌린다. 그후 전승컵쟁취를 위한 대동강팀과의 경기에서 선봉팀을 이끈 리기건은 국내경기에서 이기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제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선수들의 경기담을 키워주는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면서 경기마감까지 선수교체를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선봉팀은 이 경기에서 지게 된다. 그러나 선수들은 그 과정에 새로운 경험과 경기묘리를 터득하게 되며 자신만만한 투지를 안고 이후에 진행된 다른 나라팀과의 경기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전법대로 싸워 승리를 거둔다. 한편 롱구에서는 키가 제일이라는 기존관념으로부터 패배주의에 빠져 적당히 자리지킴이나 하며 딸이 롱구를 하고 연구사인 아들이 녀자롱구선수를 사랑하는것을 못마땅히 여기던 롱구협회서기장 강철구는 선봉팀의 승리와 리기건 등의 동지적인 비판앞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 소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대로 조선사람의 체질과 특성에 맞는 전법과 전술대로만 경기를 운영하면 롱구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모든 체육종목들을 능히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5(2006)년판〕

《룡양광산시초》 시초. 주체51(1962)년 리호일 창작.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광석을 캐내는 룡양광산 로동계급의 창조적로동생활과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노래한 작품이다. 3편의 서정시로 되여있다. 시 《금산의 등불》에서는 금산절정에서 반짝이는 작업등빛에 대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서 광석을 캐내는 청년들의 로력적위훈을 례찬하고있다. 시 《착암기를 틀어잡으면…》에서는 착암기를 돌리는 서정적주인공의 사상감정과 아들이 《기적의 소식과 혁신자의 대오속에》 있기를 바라며 두툼한 장갑과 솜옷을 만들어준 어머니의 아름다운 소행을 서정적으로 일반화하고있다. 시 《광석폭포》에서는 폭포처럼 광석이 쏟아지는 락광정의 장쾌한 모습을 통하여 당에 바치는 광부들의 충실성을 노래하고있다. 시는 착암기를 잡았던 일손을 잠시 놓고 《구룡폭포 가까이 보는듯》 광석폭포를 바라보는 광부의 섬세한 사상감정을 통하여 로동의 보람과 그것이 가지는 사

회적의의를 예술적으로 천명하고있다. 시초는 룡양광산 광부들의 생활에 대한 다양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로동계급의 높은 충실성, 헌신적인 투쟁정신을 보여주고있다.〔《조선문학》잡지, 주체51(1962)년 12호〕

《류다른 사냥》 단편소설. 주체76(1987)년 리철모 창작. 혁명적신념과 의리를 제일생명으로 간직한다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힘있고 굳센 인간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민생단》혐의를 받고 중대와 떨어져서 풍막에서 생활하는 중대장 최현과 대원 정진수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반일통일전선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한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전선로선을 방해하면서 우사령부대와 친분관계가 있는 어느 한 촌의 자위단을 칠것을 강박하는 주임놈의 흉계를 짓부신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대의 겨울 식량을 위한 사냥을 하고 비호산의 호랑이를 잡아 수령님께 올릴 호피도 한장 마련한다. 주임이 최후통첩을 들이댈 때에도 최현은 놈의 해독행위를 폭로하고 《민생단》이 아니라 별의별 혐의를 다 씌워도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마음을 흔들어놓지 못한다고 하면서 견결히 맞서싸운다. 놈과 그 일당은 최현의 기상에 눌리여 도망가고 최현은 정진수와 다시 우사령부대를 찾아간다. 소설은 정진수의 시점을 통하여 최현의 투쟁을 보여주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가 지녀야 할 혁명적신념과 의리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조선문학》잡지, 주체76(1987)년 9호〕

《류랑아들》 장편소설. 주체91(2002)년 현승남 창작. 일제식민지통치의 암흑속에서 망국노의 운명을 지니고 고통과 불행만을 당하며 류랑의 길을 헤매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랑림산줄기의 산골인 덩두골마을에 사는 영무는 고모 곽씨와 살면서 마을의 관길이와 친하게 지낸다. 원래 그의 고향은 황해도 봉산인데 아버지는 왜놈군대의 추격을 받고 집을 떠난 뒤로 소식이 없고 어머니는 산후탈로 시름시름 앓다 죽은 후 의지가지할데 없는 그를 고모 곽씨가 데려다 살게 된것이다. 부모들은 없으나 고모의 사랑속에 남부럽지 않게 살던 그는 하루아침에 딱친구인 관길이와 헤여지게 된다. 빚값으로 땅을 떼우고 더는 이곳에서 살수 없게 된 관길이네가 고향을 떠나게 되자 울적한 기분으로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아버지가 살아있으며 며칠후 동생도 함께 집에 온다는 기별이 온다. 영무에게는 동생과 관련한 말 못할 눈물겨운 사연이 있다. 이야기는 덩두골에서 멀리 떨어진 벽촌마을로 이어진다. 벽촌에서 아버지없이 봉빈이와 봉순이, 봉옥이 3형제를 데리고 살던 한 녀인이 너무도 살길이 막막하여 여기저기 헤매다가 뚜쟁이의 꾀임으로 8살난 봉빈이와 4살난 봉옥이를 떨구어놓게 된다. 그러나 그는 후에 자기가 속았다는것을 알고 봉옥이를 데리고 곡마단에 간 아이들을 찾으러 갔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로상에서 마차를 몰고가던 영무 아버지를 만나 헤여진 봉옥이네 형제들을 찾아줄것을 부탁하고 운명한다. 그리하여 그 녀인의 부탁대로 봉옥이의 이름을 영옥이로 고치고 영무와 함께 키우기로 결심하며 집에 소식을 전하게 된것이다. 집에 돌아온 영무의 아버지는 영무와 영옥이, 누이 곽씨와 함께 단란한 생활을 꾸려나간다. 그러나 일본놈들이 살판치는 그 어디에서도 그들의 생활은 편할수 없었다. 곡식밭에 뽕나무모를 심으라는 놈들의 말을 듣지 않은것으로 하여 곽씨는 지주집식모로 끌려가며 영무 아버지는 영옥이의 형제들을 찾으러 평양으로 갔다가 허리병이 도져 길가에서 영무와 영옥이를 남긴채 그만 한많은 세상을 떠난다. 졸지에 고아가 된 영무와 영옥이는 여기저기 헤매는 류랑아가 되여 떠돌아다니다가 베이지엔다오(북간도)의 어느 한 촌에 이르게 된다. 산설

고 물설은 이역땅 곳곳에 피눈물을 뿌리는 류랑살이속에서도 영무와 영옥형제의 애틋한 정은 더욱 깊어간다. 세월은 흘러 영무가 16살이 되자 그들형제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양주공장에서 일하게 되며 여기서 헤여졌던 관길이도 만난다. 관길이 역시 부전강발전소 공사장에서 왜놈들의 악착한 행위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여 류랑하다가 소년공들로 운영하는 이 공장에 오게 된것이다. 이 공장주인인 일본인 이찌가와 노리아끼는 어른들에게 주는 몇푼 안되는 임금마저 아까와 그들모두를 해고하고 값싼 로동력인 소년공들을 채용하고있었다. 이 공장이 소년공들을 채용하게 된데는 또한 순진한 어린이들을 어릴 때부터 잘 다스리면 《황국신민화》를 다그칠수 있다는 교활한 일본놈들의 계책과도 관련되였다. 그리하여 이찌가와 노리아끼를 대신하여 후에 공장주인으로 된 동생 이찌가와 마끄도는 일본 도꾜대학연구원을 졸업한 심리학자로서의 솜씨를 발휘하여 영무를 숙감으로 승급시켜 직공들을 다루게 하며 영옥은 공장병원의 인체실험대상으로 끌어간다. 한편 곡마단에 팔려갔던 봉빈과 봉순은 악착한 주인놈의 등쌀에 견디다못해 그곳을 뛰쳐나와 유격근거지로 가게 되며 봉빈은 소년선봉대 소대장으로, 봉순은 아동단 분단장이 된다. 그후 봉빈은 양주공장에 들어가 조직을 뭇고 소년공들을 묶어세울 임무를 받고 오게 되며 봉순이도 봉빈이를 도와줄데 대한 임무를 받고 공장에 들어온다. 그들의 활동으로 하여 양주공장에 첫 조직으로서 소년선봉대의 한개 분대가 조직되며 그들의 영향을 받아 한때 주인놈에게 환상을 가졌던 영무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소년선봉대에 들어온다. 한편 인체실험대상에 걸렸던 영옥이는 알지 못할 병에 걸려 죽는다. 봉빈이, 봉순이, 봉옥이가 한형제라는 진상이 밝혀지자 놈들은 영무까지 죽이려 하며 이 위급한 때 봉빈은 그를 구원한다. 분노한 소년공들은 파업을 일으키며 120여명의 무장한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소년공들의 전례없는 파업으로 양주공장은 불바다속에 잠기고 자기의 심리전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한 이찌가와 마끄도는 군사재판에 걸려 제놈의 칼로 배를 가르고 자살한다. 한편 영무와 봉빈, 봉순, 관길이는 유격근거지로 들어가 유격대원이 된다. 작품의 마감에서는 해방후 이 지방에 처음으로 파견되여온 봉빈이의 사업을 도와줄데 대한 과업을 받은 영무가 고모 곽씨와 함께 덩두골을 찾으며 지나온 일을 회상하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은 나라를 잃고 권리를 빼앗긴 우리 민족모두가 류랑민이 되여 수십년세월을 비참한 노예의 질곡속에서 헤매지 않으면 안되였던 피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인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들씌운 악행을 천추만대를 두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깊이있게 확증하고있다. 소설은 류랑아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불행을 그를 강요하는 일제 침략자들과의 심각한 대립을 통하여 보여줄수 있게 인간관계와 극적갈등을 날카롭고 첨예하게 설정하고있으며 그속에서도 따뜻하게 오가는 어린이들의 애틋한 인정선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 주체91(2002)년판〕

《류배지에서의 탐구》 단편소설. 주체79(1990)년 리평 창작. 리조시기 백성들의 병치료를 위하여 의학서적인 《동의보감》을 집필한 한 의학자의 생활을 보여준 력사소설이다. 병마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손쉬운 치료법을 알려줄 목적으로 《동의보감》을 쓰던 궁중의원 허준은 약을 잘못 써서 선왕의 명을 단축시켰다는 루명을 쓰고 심심산골에서 류배살이를 한다. 그곳에서 인심좋은 이웃들의 도움으로 그런대로 살아갈만 하였으나 어수선한 산골에서 책을 계속 쓸수 없다고 생각한 허준은 상감에게 아뢰여 귀양살이가 속히 풀리게 해달라는 소청의 편지를 임진란때 낯을 익힌 사헌부 감찰사 권윤원에게 보낸다. 그러나 백성들의 운명은 안중에 없고 자기 하나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권

윤원을 비롯한 량반관료배들은 그의 청이 무엄한노릇이라고 하면서 단마디로 잘라버린다. 이에 울분을 느낀 허준은 자기의 힘으로 책을 완성할 결심을 안고 탐구를 계속해나간다. 한약초에 들어있는 독성분을 알아내기 위해 허준은 그 약초달인물을 마시고 효과를 기다리던중 어느새 벌써 약초를 먹고 중태에 빠진 심부름군 억이를 보게 되며 그를 통하여 약초의 성질을 알게 된다. 이렇게 허준은 량반관료배들의 도움이 아니라 억이를 비롯한 평범한 백성들의 따뜻한 인정과 방조속에서 류배지에서도 자기의 탐구를 멈추지 않는다. 소설은 류배지에서의 허준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백성들을 위해, 후세를 위해 자기의 재능을 바치려 할 때 그 뿌리를 아름답고 고상한 마음을 지닌 백성들속에 두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79(1990)년 6호〕

《651호항로》 과학환상소설. 주체89(2000)년 리금철 창작. 적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청춘의 사랑도 다 바쳐가며 우주자원을 개발해가는 청년과학자들의 희생적인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녀주인공 현아는 우주개발을 위하여 진명과의 사랑도 희생시키고 제58우주탐험대 대장으로 지구를 떠난다. 새로 발견된 소행성 《은하—26》에 지구에서는 보기 힘든 희유금속광물이 무진장하다는것을 탐측한 그는 이 소행성의 궤도를 인공적으로 수정하여 지구로 끌고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651호항로》라고 한다. 이 궤도변경의 안전성보장을 위하여 새로 두 연구사가 지구에서 현아에게로 파견되여온다. 이 연구사들은 현아가 우주에 있는 동안 장가를 가서 딸까지 보았다는 옛 애인 진명과 그의 친구이다. 한편 우리 나라의 소행성자원개발소식에 놀란 미국의 사촉으로 타락한 망명과학자 밀레르가 현아를 찾아온다. 한때 현아와 함께 공부한적이 있는 그는 미국의 화성우주중간정류소를 리용하여 소행성 《은하—26》의 자원을 개발하려고 현아를 설복한다. 하지만 소행성을 지구로 끌고가겠다는 그의 결심을 들은 밀레르일당은 《651호항로》를 가로막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며 지어는 운석과 《은하—26》소행성과의 충돌을 조작하기까지 한다. 《은하—26》으로 날아오는 운석을 없애기 위하여 진명이 떠난다. 진명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 《651호항로》를 지켜내고야만다. 진명이 희생된 다음 현아는 그의 친구에게서 진명의 딸이 우주연구실험도중 사고로 희생된 어느 한 연구사부부의 딸이며 진명은 그때까지도 현아를 기다리고있었다는것을 알게 된다. 현아는 진명의 마음까지 합쳐 《은하—26》소행성을 무사히 지구로 끌어오는데 성공한다. 여기서 충격을 받은 밀레르가 량심선언을 발표하여 《651호항로》에 대한 신비로운 뜻풀이로 조선과학자들의 변함없는 인생행로를 격찬하는데서 소설은 끝나고있다. 작품은 조국의 륭성발전과 풍부한 자원개발을 위하여 청춘의 사랑도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청년과학자들의 형상을 통하여 과학에는 국경이 없어도 우리 과학자들의 심장에는 사회주의조국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9(2000)년 8호〕

《60년후》 중편소설. 주체74(1985)년 백남룡 창작. 후대들의 마음속에 어버이수령님을 받드는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애쓰는 한 일군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이다. 환갑이 훨씬 지난 나이까지 사업을 해오던 곡산공장 지배인 최현필은 년로한 관계로 해임담화를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공장에 돌아온다. 그런데 공장에서는 저열탄보이라 사고로 현필의 아들이며 담당기사인 정민이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현필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공장로동자들이 지방에 흔한 저열탄으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진행해오던 보이라개조가 또 실패한것이다. 현필의 친우의 아들이며 부기사장인 마진호는 보이라개조를 늙은 지

배인의 쓸데없는 고집으로, 공명심으로 생각하면서 고열탄을 더 많이 끌어오는데만 신경을 쓴다. 게다가 정민이까지 아버지의 말년의 생활에 흠집이 남을가봐 동요를 일으킨다. 현필은 후대들의 마음속에 당을 받드는 깨끗한 마음을 심어주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면서 진호가 계획분을 초과하여 고열탄을 들여왔을 때 엄격히 비판하면서 그것을 돌려보낸다. 그리고 진호의 아버지가 돌아간 날을 잊지 않고 찾아가 부기사장이 아버지처럼 당에 충실하도록 교양한다. 현필의 깨끗한 충정심에 머리를 숙인 진호는 정민과 기관장 주성칠 등과 함께 돌격대를 뭇고 보이라개조를 다그친다. 마침내 보이라개조가 성공하며 현필은 당의 배려로 명예지배인으로 사업하게 된다. 작품은 혁명승리의 관건적문제의 하나인 세대의 계승성문제를 제기하고 후대들이 당에 바치는 로세대의 깨끗한 충실성을 이어받을 때 참된 계승으로 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4(1985)년판〕

《6월은 푸르다》 서정시. 주체83(1994)년 리종덕 창작. 주체위업계승의 빛나는 태양이시며 우리 인민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0년전 6월은 《그날에 누구나 다는 알지 못했어도 오늘은 인민이 다 아는》날로 되였다고 하면서 6월의 그날로부터 《인민을 안으시고 혁명을 이끄시며》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례찬하고있다. 시에서 우리의 6월은 《주체의 씨앗을 자래우고 가꾸신 무성한 숲으로 푸르》며 《존엄높이 받들어올린 내 조국의 하늘로 푸르고 만년대계의 창조물 저 서해갑문의 물결로 푸르다》라고 한 이 격정의 웨침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령도자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 행복과 영광이 한껏 넘쳐있다.

내 조국에 영원한 젊음을 준
그 푸르름
혁명의 억센 날개 미래로 나래치는
그 푸르름

시는 우리의 6월은 조국의 모습과 더불어 영원히 푸르리라는 의미깊은 시적주장으로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주의위업의 불패성, 그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의 감정을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의 사상감정과 밀착시켜 일반화하고있다. 〔《문학신문》, 주체83(1994)년 제26호〕

《6월의 푸른 하늘아래서》 장시. 주체88(1999)년 백의선 창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35성상의 혁명활동력사를 높이 칭송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먼저 이 땅의 수천만인민이 어이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어버이라고 부르는가를 두고 생각하는 시인의 깊은 사색을 펼쳐보이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어오신 35성상의 혁명력사를 돌이켜보면 《아득한 그 성업의 높이우에는 인민이 하늘처럼 받들려 웃고있》다고 토로하면서 인민을 위함이라면 고생도 락으로 여기시며 끝없는 로고의 길을 이어오신 장군님의 숭고한 풍모를 높이 칭송하고있다.

아, 35성상
인민은 그 품에 살며
그분이 세상 제일이여서
그분을 떠나서는 살수 없어
인민은 스스로 받들어모시였어라
어버이, 어버이라 부르며

시에서는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어오신 선군혁명령도의 빛나는 자욱자욱을 노래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211고지에 오르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을 되새겨보기도 하시고 산세 험하고 풍랑세찬 전선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병사들

을 만나주기도 하신다. 시에서는 《그이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최고의 인민사랑의 정치》이고 《그이 이끄시는 선군령도는 최고의 인민사랑의 령도》임을 힘있게 강조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은 진정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는 어버이이시라고 격조높이 터치고있다. 시의 다음부분에서는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지켜드리시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어오신 35성상의 숭고한 길우에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주체의 최고성지－금수산기념궁전이 숭엄히 솟아있다.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우리 인민들과 함께 계시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어느 공장과 마을, 그 어느 고지를 찾으시여도 수령님의 혁명사적비부터 먼저 찾으시면서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신다. 시에서는 주체의 최고성지－금수산기념궁전에서 《인민은 한생의 운명을 다 받아안고 만약 준엄한 날이 온다면 손에손에 총을 비껴들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지나 전선으로 나아》갈것이며 통일의 열병식도, 통일의 대축전도 이 궁전광장에서 펼치리라는 굳은 확신을 토로하고있다. 끝으로 시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35성상은 우리 당과 조국, 인민을 《이 세상 가장 높은 존엄의 봉우리에 올려세운》 불멸의 35성상이며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35성상이라고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다. 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보살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는 사상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시는 구성을 폭넓게 조직하고 함축되고 뜻깊은 시어들을 구사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풍모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폭넓고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문학신문》, 주체88(1999)년 제25호〕

《륜리》 단편소설. 주체88(1999)년 리준호 창작. 집단주의와 혁명적동지애로 굳게 결합된 우리 인민들속에서 새롭게 꽃펴나고있는 아름다운 사회주의적륜리관에 대하여 해명한 작품이다. 한몸을 내대여 굴러내리는 탄차를 멈춰세우고 탄부들을 구원한 나어린 권양기운전공처녀 오춘심을 위해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리던 탄광병원 외과의사 최남윤은 협의회도중 안해의 전화를 받게 된다. 10여일전 위급한 상태에서 도병원에 후송된 막내딸의 소생을 알리는 전화였다. 남윤은 응당 기쁨을 느껴야 할것이건만 불만을 느낀다. 그것은 당장 다리를 자르느냐 마느냐 하는 상태에 놓인 환자를 앞에 놓고 자기 딸의 소생에만 기뻐 돌아가는 안해에 대한 불만이였고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자신에 대한 자책이였다. 더우기 그를 놀라게 한것은 운전공처녀를 위해 피를 바치고 살점을 바치는 앞 못 보는 영예군인과 그 안해를 비롯한 탄광사람들과 병원사람들의 모습이였다. 남윤은 딸애에게 용서를 빌며 그에게 주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과 정성을 춘심에게 쏟아붓는다. 그 사랑과 정성에 받들려 춘심은 마침내 마지막 피부이식수술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회복된다. 남윤의 막내딸도 춘심의 아버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완쾌되여 아버지와 반갑게 상봉한다. 소설은 자신보다 남을 위하는것을 응당한 도덕으로 여기는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심리세계에 대한 깊이있는 묘사를 통하여 온 나라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결합된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하여 자신을 바칠줄 아는것이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사회주의도덕으로 된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또한 새롭고 의의있는 인간문제의 제기와 인물형상, 분석적인 내면심리묘사와 독특한 세부형상으로 작품의 지성도를 높이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8(1999)년 6호〕

《릉라다리》 단편소설. 주체78(1989)년 김정민 창작. 현명한 령도력과 고매한 덕성을 지니시고 릉라다리건설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는 작품이다. 릉라다리가 한창 건설중에 있던 어느해 가을 릉라도일대 건설장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릉라다리건설을 책임지고있는 한영섭대좌를 부르시여 다리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다. 그리하여 4년으로 예견하였던 다리건설을 2년을 앞당겨 공화국창건 40돐전으로 끝낼수 있는 전망이 열린다. 그러나 다리상판 강철구조물을 들어올릴 강철보의 강질이 해결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건설은 반년이나 지연된다. 영섭은 자기에게 군복을 다시 입혀주시고 방대한 다리건설까지 통채로 맡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어떻게 하나 보답하려고 현장에서 지새면서 강질을 보장할수 있는 새 합금강의 9번째 시험소식을 애타게 기다린다. 이러한 때 다리건설이 걱정되시여 한밤을 새우시며 시험생산결과를 수시로 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이른새벽에 시험이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제일먼저 영섭을 전화로 찾으시여 소식을 알려주신다. 전화를 받은 영섭은 그이의 크나큰 로고와 사랑을 생각하며 끝내 오열을 터뜨리고야만다. 소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형상을 통하여 릉라다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행복의 다리, 사랑의 다리라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8(1989)년 6호〕

《리길복비행사》 단편소설. 주체43(1954)년 김선걸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투마당에서 자기 임무에 충실한 전사로 자라는 한 비행사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어머니로부터 동생이 미국놈들의 폭격에 잘못되였다는 편지를 받은 주인공 리길복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 공을 세우고 회답편지를 쓰리라 마음다진다. 어느날 청천강하늘에 기여든 적기를 소멸하러 나간 그는 주도기를 엄호할데 대한 임무를 받고 적기를 따르다가 포위속에 들게 된다. 겨우 포위속에서 빠져나와 부대로 돌아온 그는 비판과 함께 며칠간 비행기를 타지 말데 대한 처벌을 받는다. 그때 리길복은 공명주의가 얼마나 유해로운가를 새롭게 깨닫고 규정학습을 진행한다. 이튿날 피현상공에 침입한 적기를 소멸하기 위한 전투에 참가한 그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전투의 승리를 보장하고나서 비행기가 못쓰게 되자 락하산으로 내리다가 부상을 입는다. 며칠후 대대장은 군의소에 입원한 길복이를 찾아와 신문에서 전투기사를 보고 써보낸 어머니의 편지를 준다. 편지를 읽고난 그는 앞으로의 싸움에서도 자기의 위치를 철저히 지키리라 결심한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때 전투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군무자단편집 《전호속에서》,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3(1954)년판〕

《리별과 상봉》 단편소설. 주체85(1996)년 백보흠 창작. 수령님께서 헤여진지 60년만에 한 혁명가유자녀를 끝내 찾아내시여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신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김혜정은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집무실로 가면서 그이께서 주체25(1936)년 봄 베이만(북만)에서 헤여지셨던 전우의 딸 량귀동녀와의 눈물겨운 사연을 회고하신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한 장면을 되새겨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1960년대초 중앙아시아나라들에 혜정을 비롯한 답사단성원들을 보내실 때 생사여부를 모르는 혁명가유자녀들을 찾아올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으나 그들은 량귀동녀만은 찾지 못했던것이다. 김혜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1970년대에도 2차례나 그 나라들을 답사하였지만 그의 행적을 찾지 못한채로 돌아왔었다. 이번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혜정에게 량귀동녀의 운명을 두고 다시금 말씀하

신다. 그러던 주체83(1994)년초 까자흐스딴 주재 우리 나라 령사관에서 알마아띠시에 그가 살고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진과 전보가 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0살을 앞둔 그의 사진에서 량귀동녀의 어릴적모색도 찾아보시며 그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망한 후 누구도 돌봐주지 않아 몸이 몹시 허약하다는것과 그가 세상물정도 모르고 글도 제대로 쓸줄 모른다는데 대하여 아시고 못내 가슴아파하신다. 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를 조국으로 부르신다. 헤여진지 60여년만에 량귀동녀와 그와 함께 온 셋째아들을 접견하신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항상 조국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귀중한 말씀을 하시며 금시계를 선물로 안겨주신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시기 불과 한달전의 일이였다. 소설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자료이지만 어버이수령님과 인민들의 혈연적련계는 끊을수 없다는 뜻깊은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5(1996)년 1호〕

《리서기장》 단편소설. 주체72(1983)년 김진성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놈들에게 체포된 마을의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희생적으로 구원해낸 한 평범한 서기장의 영웅적최후를 형상한 작품이다. 리인민위원회 서기장 정욱진은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낸다. 바로 이때 미제침략군과 괴뢰군놈들이 마을에 기여들어 갖은 략탈만행을 저지른다. 예상치 않게 적들이 빨리 쳐들어와 혼란이 일어나자 욱진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일시 피신하기로 한다. 산으로 오르던중 욱진은 뜻밖에 놈들에게 끌려가는 영삼로인을 발견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적들을 유인하다가 허벅다리에 총상을 입고 체포된다. 그는 놈들에게 사형당하기 전에 적들이 마을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인차 학살하려 한다는것을 알고 인민유격대에 련락쪽지를 띄워 알림으로써 무고한 인민들을 구원하도록 한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세워주신 인민정권이 너무도 귀중했기에 자기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쳤던것이다. 작품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쳐진 삶이야말로 가장 값높고 보람찬 삶이며 영생하는 삶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2(1983)년 7호〕

《리수복영웅》(8장) 희곡. 박태영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바친 리수복영웅의 생활과 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희곡은 첫 부분에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리수복의 생활을 보여주고있다. 남달리 향학열이 높고 새것에 민감한 순천고중학생인 리수복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짬짬이 앓는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한다. 먼산에 가서 꼴도 베오며 나라에서 하라는대로 포기가 성글게 조밭김도 매준다. 그러던 어느날 같은 반 학생인 강민춘이 제힘을 믿고 우쭐렁대면서 약한 아이들을 업수이 여기는것을 보고 그의 잘못을 일깨워준다. 학교를 꾸리는 일에서도 그는 남다른 열성을 보인다. 그는 학교를 알뜰히 꾸리는 마음으로 송개산의 나무를 떠다 학교앞에 보란듯이 심어놓기도 한다. 모형기경기가 있은 날 그만 민춘에게 지게 된 그는 물리학을 모르면 군사학에 정통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깨닫고 밤새껏 모형기를 다시 만든다. 그리하여 끝내 민춘을 이기고야만다. 그는 또한 아름다운 고향땅과 동무들, 학교를 무척 사랑했고 그 심정을 시로 써서 읊음으로써 동무들의 사랑을 받는다. 작품은 다음 부분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시작과 주인공 리수복이 군대에 입대하여 영웅적위훈을 떨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전쟁이 일어나자 수복은 어린 나이에 맨 선참으로 전선에 탄원해나선다. 그후 그는 분대장으로서 땅크습격전투에 참가하여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한다. 수복이 속한 중대에

1211고지사수를 위한 무명고지습격전투를 진행할데 대한 새로운 전투임무가 하달되자 공격전투를 앞두고 진행된 공개당총회에서 리수복은 중대의 돌격로를 개척하기 위해 돌격조를 무을것을 제기하며 자신은 돌격조 조장으로서 대원들을 이끌고 좌측화점을 까부시기 위해 달려나간다. 적화점때문에 돌격조의 전진이 난관에 부닥치자 리수복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적화구를 가슴으로 막고 장렬하게 희생된다. 희곡은 그때부터 몇년후 리수복의 학창동무들이였던 강민춘, 탄실, 상진 등과 리수복고중의 남녀학생들이 그의 집을 찾아 리수복영웅처럼 자기들도 빛나게 살것을 굳게 결의다지는것으로 끝난다. 이처럼 작품에서 리수복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고향마을과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운 조선청년의 전형으로 형상되였다. 희곡은 리수복의 생활을 랑만적이면서도 기백있게 펼쳐보여주면서 그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생활세부들을 잘 그려내고있으며 5～6년간의 생활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재치있게 꾸미고 주인공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주체45(1956)년에 연극으로 창조되였다.

《리순신장군》(9장) 희곡. 조령출 창작. 임진조국전쟁시기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바다에서 왜적의 침입을 물리친 애국명장 리순신을 형상한 작품이다. 작품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여있다. 첫부분에서는 리순신이 왜적의 불의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하여 인민들과 함께 지혜를 합쳐 거북선을 만들고 수군부대들의 전투를 지휘하여 당포해전에서 승전고를 울리는 이야기를 형상하고있다. 둘째 부분에서는 리순신의 지략과 수군의 용감무쌍한 활동에 의하여 패전한 적장 소서행장이 요시다와 함께 리순신을 모해할 음흉한 계책을 꾸미는 사건과 놈들의 흉계에 넘어간 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이 리순신에게 왕명을 거역했다는 반역죄를 씌워 옥에 가두는 사건을 보여주고있다. 셋째 부분에서는 옥중에서도 왜적의 침략에 짓밟힌 나라의 운명을 통탄하며 왜적을 물리칠 지략을 모색하는 리순신의 모습과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의하여 감옥에서 나온 리순신이 다시 인민들과 수군장병들을 지휘하여 명량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패주하는 왜적들을 로량에서 섬멸한 사건들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애국명장 리순신의 애국적투쟁을 생동한 극적화폭으로 형상하고있으며 왜적의 침입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조선인민이 발휘한 헌신성과 애국심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리순신의 투쟁을 인민들의 투쟁과 수군, 륙군, 의병들의 투쟁과의 긴밀한 련계속에서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임진조국전쟁시기 사회력사적현실을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주체43(1954)년에 연극으로 창조되였으며 주체49(1960)년에 재창조되였다.

《리순신장군》 장편력사소설. 주체79(1990)년 김현구 창작. 임진조국전쟁시기 나라를 지켜싸운 애국명장 리순신과 우리 선조들의 반침략애국투쟁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전라좌수영 수군절도사 리순신이 병조판서의 부름을 받고 서울에 갔다가 본영으로 돌아오는데서부터 시작된다. 리순신이 자리를 비운 동안 전라도앞바다에 침입한 왜적선은 고기잡이하던 우리 어민들을 략탈하고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한다. 리순신의 대리임무를 수행하던 우희 리봉구는 왜적의 침입을 막아줄데 대한 어민들의 상소를 란동으로 몰아 그들의 출어를 금지시키고 바른 말을 한 박천세로인을 비롯한 인민들을 마구 가두어넣는다. 좌수영으로 돌아온 리순신은 즉시 무고하게 잡힌 어민들을 석방시키고 출어금지령을 해제한 다음 바다경비대책을 강구한다. 리순신은 국방에 무관심한 조정의 대신들과 경상도 우수영 수군절도사 원균

을 비롯한 간신들의 모해를 받으면서도 수군무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인다. 그러자 원균은 거북선무이에 정력을 쏟아붓고있는 리순신을 보고 충의가 부족하다느니, 남해에 자기의 해상국을 세우려 한다느니 하면서 터무니없이 헐뜯는다. 그러나 리순신은 나라에 충실한 리완, 송희립을 비롯한 부하군사들과 인민들의 고무와 방조를 받아가며 끝내 세계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어내고야만다. 1592년(임진년) 4월에 일본침략자들은 수백척의 함선과 수십만의 대군으로 조선에 쳐들어온다. 무방비상태에 있던 부산포가 함락되고 뒤이어 동래성을 비롯한 여러 성들이 무너지며 온 나라가 재난에 휩싸인다. 경상 우수영인 원균은 왜적과의 싸움에서 수백척의 군함이 수장되자 급기야 리순신에게 원병을 청원한다. 리순신은 군사들을 불러일으키고 인민들과 합세하여 한산포해전을 비롯한 여러 싸움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둔다. 리순신과 인민들이 이룩한 여러 해전에서의 큰 전과로 하여 서울과 평양성을 점령하고 바다로 올라오는 수군과 합세하여 의주까지 쳐들어가려던 왜놈들의 《수륙병진계획》은 파탄되고만다. 그러나 리순신은 일본간첩의 책략에 놀아난 조정의 대신들과 원균, 리봉구와 같은 간신들의 모해로 적장 가등청정을 잡으라는 어명을 어겼다는 《죄》로 관직을 빼앗기고 서울에 불려가 극형틀에 효수당할 직전에 놓인다. 그동안 리순신을 모해하고 3도수군통제사로 된 원균은 리순신이 꾸려놓았던 함대며 군사들을 칠천도해전에서 다 녹여내고 자신마저도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다. 이런때 리순신은 리완, 송희립을 비롯한 애국적군인들과 인민들의 거듭되는 상소로 하여 감옥에서 나온 후 한개 병졸로서 백의종군하다가 임금의 령을 받아 다시 3도수군통제사로 된다. 그는 원균이 다 말아먹어 몇척 안되는 배와 군사들을 다시 모으고 어민들과 합세하여 명량해전에서 바다지형과 해류를 잘 리용하여 비할바없이 우세한 왜적함대를 쳐부신다. 하여 리순신은 인민들과 함께 임진조국전쟁승리의 결정적인 전환을 마련하며 왜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운 우리 선조들의 견결한 반침략애국정신과 슬기로운 지혜, 봉건통치배들의 취약성을 생동하게 밝혀내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9(1990)년판〕

《리정표》 단편소설. 주체66(1977)년 박찬은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재진격하는 인민군대를 도와 수많은 적들을 포위소멸하는데 크게 기여한 한 농민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해방후 모범농민이였던 권혁삼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인민군대의 길안내를 맡아 수행한다. 그는 군인들이 폭격에 다리가 끊어진 령대강을 무사히 건너가도록 도왔으며 고향땅에 기여든 원쑤놈들에게 체포되였을 때에는 적들의 악착한 고문에도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 어느날 검박산인민유격대에 의하여 구원된 그는 총공격에로 넘어간 인민군대를 맞이할 준비를 정성들여 하고 그들이 도착하길 기다리고있었다. 이때 형편을 알아보려고 이웃동네에 갔던 안해를 통하여 그는 인민군대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은 적들이 남으로 도망치기 위해 마을 앞길로 지나간다는것을 알게 된다. 원쑤놈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안겨야 하겠다고 생각한 그는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갈림목에 세워놓은 리정표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바꾸어세워 수많은 전투기술장비들을 가지고 패주하는 적들을 함정안에 몰아넣음으로써 추격전을 벌리는 인민군대에 의해 몽땅 소멸되게 한다. 전쟁이 끝난 후 나라에서는 그를 영웅으로 내세워주고 그곳 농장에 그의 이름을 달아 부르게 한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조국을 위해 바친 삶은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으며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단편소설집 《전투의 불길속에서》, 문예출판사,

주체66(1977)년판〕

《림산마을의 아침》 단편소설. 주체50(1961)년 김수범 창작.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새롭게 성장해가는 한 림산로동자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원섭이는 소를 잘 먹여야 통나무를 많이 끌어내릴수 있다고 하면서도 영양가높은 먹이에 대해서는 머리를 쓰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날 자기네 소가 함께 일하는 덕찬이네 소와 싸우는것을 보게 된 원섭이는 자기네 소가 견디지 못하자 화가 나서 싸움을 말리려고 뛰여들었지만 어쩌지 못하고 안절부절한다. 이때 짚단에 불을 달아가지고 온 덕찬이가 소싸움에 뛰여든다. 원섭이는 소의 싸움을 말린 덕찬이가 량해를 구하자 속이 좋지 않아 가버린다. 잠시후 안해와 함께 시래기를 섞은 여물을 들고나오던 원섭이는 덕찬이가 자기네 소에게 짐승뼈를 먹이는것을 보게 된다. 덕찬이는 다가오지 못한채 서있는 원섭이를 보고 두집 소가 다같이 살이 져서 한대의 통나무라도 더 끌어낸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한다. 순간 원섭이는 량심의 가책이 되여 머리를 숙인다. 작품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천리마시대의 현실은 인간을 새롭게 개조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0(1961)년 제4호〕

《래일을 안고산 사람》 단편소설. 주체85(1996)년 손광영 창작.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우리 시대 인간들을 보여준 작품이다. 다년간 조국보위초소에서 군사복무를 하고 제대되여 고향땅으로 가던 도중 주인공 리정훈은 렬차방송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진눈까비 내리는 험한 령길을 걸으시며 탄광위치까지 잡아주신 천동땅으로 전국의 수많은 청장년들이 련일 탄원해가고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 순간 제대군인인 자기가 서야 할 위치는 석탄전선이라고 생각한 그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는 고향이 아니라 낯설은 천동땅으로 서슴없이 간다. 탄광개발자의 한사람으로 자기의 보람찬 청춘시절의 흔적을 남겨가던 나날에 그는 뜻하지 않은 갱사고로 위험이 조성된 순간 자기의 한목숨을 내대여 전우들을 구원하고 그만 로동능력을 상실한 영예탄부로 된다. 이리하여 주인공은 국가의 혜택과 동지들의 방조속에 응당 여생을 편히 살수도 있었으나 스스로 제령산산림감독원이 되여 조국의 푸른 숲을 가꾸는데 한생을 묵묵히 바쳐간다. 장마로 하여 천동탄광에 동발목이 잘 보장되지 못하여 석탄생산이 지장을 받고있을 때 그는 자기 한생의 숨은 노력을 다 바쳐 애지중지 키워온 울창한 숲을 갱목채벌지로 내여주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청춘시절 자기가 섰던 탄광의 탄부로 내세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평범한 나날에 그가 바쳐온 숨은 노력을 높이 평가하시여 감사까지 보내주신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해 평범한 나날에 삶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이런 인간들이 바로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들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5(1996)년 8호〕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가사. 주체85(1996)년 집체 창작. 조국의 빛나는 래일을 위해 오늘을 값있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백두의 선렬들이 피로써 찾아준 성스러운 이 땅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하여 미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하루하루를 값있게 살아가려는 인민들의 숭고한 투쟁정신을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번영할 조국의 래일에 대한 락관을 가지고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용감히 헤치며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을 호소하고있다. 가사는 간결하면서도 뜻이 깊은 시적언어로 조국이 안겨준 시대적임무를 다하는데서 참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을줄 아는 우리 인민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조선노

래대전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래일에 사는 청년》 단편소설. 주체69(1980)년 리광식 창작. 고향마을을 보다 더 살기 좋은 리상촌으로 꾸려나갈 높은 리상을 안고 성실한 노력을 바쳐가는 제대군인청년을 형상한 작품이다. 제대되여 고향으로 돌아온 주인공 김중석은 고향사람들에게 염소젖을 풍족하게 공급할 남다른 결심을 품고 자진하여 축산반에서 일한다. 그가 축산반에서 염소를 몰고다니는것을 보고 유치원교양원인 철순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제대군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한다고 은근히 실망한다. 그러나 중석은 자기의 결심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해 짬시간을 아껴 더 많은 염소를 방목하려고 꾸준하게 일해나간다. 그는 염소를 기르는데서 결정적으로 걸려있는 먹이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메마른 야산에 구뎅이를 파고 부식토를 옮겨다 칡을 번식시켜 칡산으로 만들어나간다. 그리고 마음에 걸려있던 초라한 마을유치원을 유원지처럼 번듯하게 꾸리기 위해 놀이터설계도안도 새로 만들고 수리반에 나가 필요한 기재들도 갖추어놓는다. 중석의 그런 모습을 보며 철순은 자기의 오해를 풀고 그의 높은 지향과 성실한 노력에 크게 감동된다. 소설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새 세대 청년들의 아름다운 리상과 랑만, 뜨거운 향토애를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9(1980)년 1호〕

《랭골에 핀 꽃》 단편소설. 주체72(1983)년 김영선 창작. 랭습지의 찬물피해를 극복할수 있는 새 벼종자에 대한 연구를 성공시키기 위해 심장을 불태우는 청년지식인들의 꺼질줄 모르는 정열을 형상한 작품이다. 농업과학원 연구사 박정민은 어느 한 군에 내려와 찬물피해를 극복할수 있는 새 벼종자를 연구하느라 밤낮이 없이 시험포전에서 산다. 그러나 쓰디쓴 실패만 거듭되는것으로 하여 고민에 싸여있던 정민은 랭습지를 잊어버리기로 결심하고 떠날 준비를 서두른다. 이때 농장기술원처녀가 그를 찾아와 이 고장 사람들의 믿음을 송두리채 저버린 처사에 대해 분격해하며 자기들은 꼭 새 벼종자를 만들어내겠다고 준절히 말한다. 정민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기술원처녀도 실패에 락심했을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실패를 디디고 일어나 새로운 출로를 찾고있었던것이다. 자기 고장의 랭습지를 부여안고 그처럼 깨끗한 진정을 쏟아붓는 처녀의 뜨겁고도 아름다운 지향앞에서 정민은 개인의 체면만을 생각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벼종자연구에 온 심혈을 다하리라 결심하게 된다. 작품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불타는 탐구와 정열을 다 바쳐나가는것은 청년지식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삶의 보람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2(1983)년 2호〕

《례사로운 계절》 중편소설. 주체76(1987)년 윤원삼 창작. 깨끗한 량심을 바쳐 당이 요구하는 새 광석을 찾아내는 한 과학자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과학원 지질연구사 차문수는 학위론문공개회의를 앞두고 심각한 사건에 부딪친다. 그의 스승이며 연구소 부소장인 유창규는 나라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ㅌ자원이 석동지구에 많이 묻혀있다는 과학적주장밑에 박사론문까지 쓰고 그 개발을 제기한다. 그런데 그곳 탐사대 기사장 영만은 석동지구는 3년전에 조사해본 곳이라고 하면서 ㅌ자원이 없다고 주장하며 없는것을 찾아 막대한 자금이 드는 시추기를 돌리면 나라에 손해를 준다고 시험시추를 거부한다. 문수의 학위론문은 창규의 박사론문에 근거하여 전개된것으로서 그 주장에 대한 거부는 곧 그 학위론문에 대한 거부와도 같은것이다. 이러한 속에서 문수는 진실을 밝히려는 공정한 자세를 가지고 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한다. 결과 영만의 주장이 옳다는것을 확인한다. 그는 스승의 성과는 물

론 자기의 론문도 부정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마음이 괴롭지만 나라의 리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깨끗한 량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영만을 지지해나선다. 그런데 이곳 탐사련합기업소 부기사장 리도일은 창규의 박사론문이 성공하면 그에 끼워 자기도 학위를 받아보려는 속심을 품은 사람으로서 창규를 적극 지지한다. 그는 그 론거에 그늘을 던지는 조사자료를 무시하거나 유리하게 보고하여 창규가 자기 주장을 내밀도록 한다. 하여 끝내 시험시추가 진행되며 예상되였던 지점에서 ㄷ자원이 전혀 나오지 않거나 불순물이 많이 섞인 시료가 나오는 결과가 빚어진다. 그런데 유창규와 리도일은 제일 좋은 시추결과를 놓고 ㄷ자원이 수억t이나 매장되여있다고 떠든다. 하여 막대한 국가투자를 위한 정무원급의 회의가 소집된다. 이때 차문수와 영만은 완강히 자기들의 주장을 내대며 투자결정을 막아나선다. 서로 양보하지 않는 두 주장속에서 시험시추가 계속된다. 차문수는 ㄷ자원이 없다고만 할것이 아니라 찾아내야 한다는 립장으로부터 ㄷ자원이 묻혀있다고 예정되는 마장지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그는 자기 론문의 운명이 결정되는 심의회에서도 주장을 굽히지 않고 론문을 철회하며 생명의 위험을 겪으면서 마장지구에 ㄷ자원이 있다는것을 확정한다. 한편 시험시추의 결과가 계속 부정적으로 나오는 속에 리도일은 나라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ㄷ자원인것만큼 그 량이 적어도 자금을 투자하여 캐내야 한다고 고집한다. 그러나 현지에 나와 다시 조사해보고나서 자기가 리도일에게 기만당했으며 그가 학위를 받기 위하여 그렇게 행동했다는것을 알게 된 유창규는 자기 리속을 위해 나라를 속일번 한 자신을 뼈아프게 뉘우치면서 박사론문을 취소하고 차문수와 함께 마장지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소설은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깨끗한 량심과 성실성으로 당이 바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자가 진정으로 당과 조국에 충실한 인간이라는것을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6(1987)년판〕

《레사로운 밤길》 단편소설. 주체78(1989)년 리수명 창작. 사람들의 편의를 성의껏 보장해주려고 밤길도 례사롭게 다니는 한 우편통신원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체신분소 무계리담당 통신원인 딸 복희가 고열로 심하게 앓게 되여 그 대신에 30리 되는 무계리까지 전보를 전하러 떠난 그의 어머니 금녀는 깊은 밤중에 10리나 되는 울창한 수림속을 혼자 지나며 자기 딸에 대해 생각한다. 중학교시절에 갈매기표본을 보고서도 무서워 어쩔줄 모르던 딸 복희가 중학교졸업후 벌써 6년째나 그런 밤길을 걸었음을 놀랍게 여기며 금녀는 어느해인가 본의아닌 실수로 결혼전보를 제때에 전해주지 못하여 안타까와하던 딸을 회상한다. 무계리가까이에 이르러 복희를 마중나온 사로청위원장 명철을 만난 금녀는 그에게서 사망전보를 가지고 갔던 복희가 너무나 슬픈 소식이여서 전해주어야 할 집앞에서 오래도록 망설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30리 밤길도 례사롭게 다니는 자기 딸의 뜨거운 마음을 깊이 리해한다. 소설은 금녀의 시점에서 우편통신원 복희의 생활을 진실하게 펼쳐보임으로써 남의 기쁨과 슬픔을 자기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서슴없이 바쳐나가는 참된 인간의 고상한 성격적면모를 감동적으로 밝혀내고있다. 〔《문학신문》, 주체78(1989)년 제14호〕

《례성강반에서 부르는 노래》 시초. 주체79(1990)년 김영근 창작. 례성강물길공사장에서 새 세대 청년들이 발휘한 로력적위훈과 그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긍지높이 노래한 작품이다. 시초는 《나에게 다오》, 《청년결사대》, 《훈장을 번쩍이자》의 3편의 시로 이루어졌다. 시초는 시를 쓰려고 례성강물길공사장에 찾아간 시인이 불같은 심장을 지닌 청년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신념으로 간

직하고 투쟁하는 청년들의 생활과 위훈에 감동되여 200리 물길우에 붓이 아니라 뜨겁게 단 정대와 무거운 함마로 시를 새기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시초는 어머니에게 우리 당이 키워준 이 딸을 사람들앞에 자랑하라고 떳떳하게 말하고싶어하는 한 처녀결사대원의 마음을 펼쳐보이면서 건설자의 긍지높은 삶과 투쟁을 례찬하고있으며 어서빨리 완공의 그날을 앞당겨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려는 뜨거운 충정의 열정으로 공사의 나날을 빛내여나가는 한 병사의 마음속 맹세와 결의를 노래하면서 례성강물길공사에 떨쳐나선 청년건설자들의 한결같은 심정과 보람찬 투쟁, 생활의 랑만을 구체적인 계기를 통하여 폭넓게 일반화하고있다. 시초는 막아서는 난관과 어려움을 맞받아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건설자들의 위훈에 찬 투쟁과 생활을 무한한 자랑의 감정으로 기백있게 형상하고있다. 〔《문학신문》, 주체79(1990)년 제4호〕

《리성》(3막 5장) 희곡. 주체35(1946)년 김사량 창작. 보천보전투과정을 기본줄거리로 하면서 일제가 국경요새라고 호언장담하던 보천보에 대한 공격전투를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군술과 그앞에 갈팡질팡하는 일제의 패망상을 보여준 작품이다. 작품의 1막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의 신출귀몰하는 축지법앞에 만신창이 된 일제의 《토벌》대군경들의 추악한 몰골을 폭로하고있다. 《토벌》대장 고바야시대좌놈은 련전련승하는 항일유격대의 승리적인 공격을 막아보기 위하여 수많은 부대들을 유격대의 《토벌》에 내모는 한편 혁명의 변절자들을 유격대내부에 잠입시켜 《귀순공작》을 진행하려고 한다. 작품의 2막에서는 보천보전투의 서막을 알리는 국경진출시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발휘된 항일유격대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무한한 희생성,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 대오안에서 높이 발휘된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으며 《토벌》과 《귀순》공작에서 실패한 적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의 령활무쌍한 전술앞에 혼비백산하여 갈팡질팡하는 몰골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최련장의 형상을 통하여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풍모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계속하여 작품은 항일유격대의 공격을 막고 저들의 명줄과 체면을 유지해보려고 숱한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동원시켜 《토벌》대본부주변에 요란한 방어진을 구축하려고 미쳐날뛰는 고바야시놈을 비롯한 일제놈들의 발악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3막에서는 언제나 유격대원들속에 계시면서 대원들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와 보천보전투를 승리에로 이끌어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전법들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군술과 항일유격대원들의 대담한 전투행동에 의하여 적들이 국경요새라고 호언장담하던 보천보가 순식간에 녹아나는것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도일제의 압제속에 억눌려 살아오던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해방의 그날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는것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령수로, 천출명장으로 높이 모심으로 하여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위업은 반드시 이룩되며 해방된 이 땅우에 인민의 지상락원을 자기의 힘으로 건설하고야말리라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한 첫 장막희곡으로 문학사적의의를 가진다.

ㅁ

《마감사람들》 단편소설. 주체78(1989)년 김창옥 창작.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한 생활을 누려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에 대하여 형상한 작품이다. 새로 개발된 광산의 책임기사인 박정혁은 가족을 데려가기 위해 이미 살던 금사동으로 간다. 그가 금사동에 도착하니 다른 집들은 다 이사를 하고 자기의 집과 이웃집만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금사동분교의 최영준교원은 이 두세대의 4명의 어린이를 위해 예비등교를 진행하고있었고 처녀준의 복희는 두 집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고있었다. 그리고 TV중계소에 있는 찬길은 이 두 집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초소를 마지막까지 지키고있었다. 이밖에도 마음씨 좋은 상점판매원과 산림감독원 등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두 세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인민을 위한 충실한 복무자들의 대오에 끝까지 서있는것이였다. 이를 보면서 박정혁은 우리 나라야말로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라는것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 소설은 매 인물의 개성적인 성격과 인상깊은 세부들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현실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과 긍정의 열정이 차넘치게 한 특징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78(1989)년 제13호〕

《마중가는 길》 단편소설. 주체65(1976)년 로정법 창작.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속에 애기들을 키울 근심걱정을 모르고 로동의 희열과 랑만을 활짝 꽃피워나가는 농촌녀성들의 행복상을 보여준 작품이다. 애기전용뻐스 한대가 쉴참에 포전에서 일하는 애기어머니들을 찾아온다. 애기차는 훌륭한 설비와 함께 아이들의 지적발달과 정서교양에 알맞게 잘 꾸려져있어 탁아소의 아늑한 방을 련상시켰다. 이곳에 비료를 싣고온 화물차운전사인 나는 이곳 농장에 애기차가 6대나 되며 농장의 특혜를 받고있다는 애기차운전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절감한다. 농장에서 총화때면 의례히 애기차에 대한 문제부터 상정된다. 칭찬을 받아도 애기차운전사가 제일먼저 받고 비판을 받아도 애기차운전사가 제일먼저 받는다. 지난날에는 먼길을 갔다오거나 논두렁길을 돌아오는 어머니들이 어린것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집으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오늘은 뻐스를 타고 어린애들이 어머니들을 마중가는것이다. 작품은 농장탁아소의 애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아이들을 태우고 어머니들을 마중가는 길은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을 싣고가는 영광의 길이며 그 길우에서 이 나라 어머니들과 아이들의 삶은 끝없이 빛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65(1976)년 4호〕

《마중가는 계절》 단편소설. 주체81(1992)년 양남수 창작. 세월을 앞당겨 풍작을 안아오려는 결의를 안고 농장일을 하는 과정에 사랑을 맺게 되는 청춘남녀의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퇴근길에 불쑥 순아앞에 나타난 춘섭은 할말이 있다면서 밤나무덕으로 나오라고 한다. 올해 26살인 순아는 외모도 깨끗하고 마음도 아름다운 처녀이다. 여러곳에서 대상자가 제기되였지만 나서자란 고향을 떠나서는 어데 가서도 삶의 행복을 누릴수 없다고 생각하며 고향땅과 함께 한생을 살아갈 자기의 길동무를 상상속에 그려보군 했는데 그가 바로 춘섭이였다. 제대되여 고향에 돌아온 춘섭은 순아를 도와주는 과

정에 그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순아가 지나온 나날을 생각하며 밤나무덕에 올랐을 때 춘섭은 언젠가 순아가 모아놓고 태워버리지 못한 풀더미를 불태운다. 순아는 주인답지 못한 자기의 일본새를 돌이켜보며 언제면 춘섭의 높이에 올라설수 있을가 자책한다. 순아를 만난 춘섭은 올해에도 좋은 작황을 마련하자고 약속한다. 소설은 순아와 춘섭이의 사랑의 감정을 아기자기하게 엮어나가면서 알곡생산으로 당을 받들려는 청춘들의 깨끗한 마음을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81(1992)년 5호〕

《마지막겨울》 단편소설. 주체59(1970)년 리철모 창작. 로동계급의 벅찬 생산투쟁속에서 자신을 혁명화하는 지식인을 형상한 작품이다. 큰 화학공장의 전기로담당기사인 주인공 안창민은 소성로를 새롭게 맡아달라는 종합직장장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긴다. 소성로가 자기 전공이 아닐뿐아니라 지금껏 애써온 전기로의 새로운 조작법에 대한 연구를 중도반단하자니 아쉬움을 금할수 없었기때문이다. 더우기 마음한구석에 켕기는 생각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처신을 잘하지 못한탓으로 취해지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였다. 이러한 위구심에 포로되다나니 소성로의 박치근반장을 비롯한 로동자들이 그처럼 창민기사를 반겨맞아주며 기술적으로 걸린 문제를 한시바삐 풀어줄것을 바랐으나 그는 그들의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다. 창민은 후퇴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기를 각근히 품어주는 당조직의 크나큰 믿음, 하나의 생석회라도 더 구워 5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려는 로동계급의 뜨거운 열정과 더없이 깨끗한 량심앞에서 비로소 자기의 생각이 그릇된것임을 알고 소성로의 걸린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한다. 그뿐아니라 로벽에 생긴 융착때문에 소성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서슴없이 쇠장대를 들고 로속에 뛰여든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로동계급의 뜨거운 방조속에서 지식인들이 혁명의 믿음직한 주력군으로 자란다는것을 감명깊이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9(1970)년 8호〕

《마지막렬차》 단편소설. 주체50(1961)년 김승권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자신이 맡은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한 인민군전사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인민군부대의 어느 한 중대는 아군부대들의 후퇴를 보장하며 적의 공격을 현계선에서 저지시킬데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어느날 창섭이가 속한 분대는 군수기재와 부상병들을 실은 차량을 달고가다가 멎어선 기관차의 급수를 보장할데 대한 긴급명령을 받는다. 분대장을 따라 기관차가 서있는 지점에 이른 창섭을 비롯한 분대원들은 어둠속에서 겨우 물원천을 찾아냈지만 그릇이 부족하여 빠른 시간내에 물을 퍼담을수 없게 된다. 그러자 창섭은 적들의 예광탄이 날아오는 속을 뚫고 마을에 가서 물통을 얻어온다. 날이 밝아올무렵에야 급수를 끝낸 기관차가 대피선에서 나오려고 할 때 창섭이는 레루가 기본선과 잇닿아있지 못한것을 보게 된다. 그는 지체없이 차에서 뛰여내려 전철기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다가 적탄에 맞아 몸을 움직일수 없게 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기여가 전철기를 제끼고 렬차가 기본선으로 들어서도록 한다. 전우들은 중상당한 창섭을 기차에 싣고 달려드는 적들에게 불벼락을 안기면서 북으로 달린다. 작품은 명령을 무조건 수행하려는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질 때 그 어떤 어려운 임무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조선인민군창건 13주년기념소설집 《조국을 위하여》,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50(1961)년판〕

《마지막밤》 중편소설. 주체72(1983)년 정덕철 창작. 왜놈과 지주놈의 등쌀에 부모를 잃고 살길을 찾아 거리를 헤매던 불쌍

한 어린이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에 안기기까지의 수난에 찬 생활로정을 눈물겹게 보여준 작품이다. 한평생 윤지주놈의 머슴살이로 골병에 든 아버지를 일찌기 여의고 또 몇해후에 어머니마저 잃자 어린 승삼, 승보형제는 의지가지할데 없는 불쌍한 고아로 되고만다. 그러자 윤지주놈은 그들마저 머슴으로 끌어가려고 획책한다. 윤지주놈의 기미를 알아차린 승삼은 어린 동생 승보를 데리고 황동광산으로 돈벌이를 떠난 형 승철을 찾아 집을 뛰쳐나온다. 승삼이형제를 잡으려는 윤지주놈의 검질긴 책동과 모진 추위와 굶주림속에서 승삼은 어린 동생 승보마저 길가에서 잃게 되며 형 승철이가 광산에서 광주놈과 싸우다가 체포되여 감옥살이를 한다는것을 알게 된다. 가슴아픈 슬픔과 굶주림속에서 병까지 만나 생사기로에서 헤매던 승삼은 고향동무인 마당쇠와 《왁새》등 거리아이들의 도움과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공작원 순녀 아버지에 의해 구원되며 승철형도 살아서 장군님께서 계시는 부대에 가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는다. 이 순간 승삼은 윤지주놈의 행패속에서 아직도 신음하고있는 곱단이도 위대한 장군님품에 안기도록 하기 위해 그를 찾아 떠난다. 소설은 승삼이형제가 겪는 생활고초를 통하여 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는 착취사회의 반동성과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힘있게 확인하고있으며 우리 어린이들이 나갈길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혁명투쟁의 길이라는것을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소설은 불쌍한 고아들의 모습이 그들 호상간에 벌어지는 인정선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펼쳐짐으로써 사람들의 심금을 강하게 울려주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2(1983)년판〕

《마지막버럭》 단편소설. 주체67(1978)년 한웅빈 창작. 작품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여 작업을 더 헐하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새 기술도입에 낯을 돌리지 않던 한 일군이 당일군의 방조를 받아 자기 잘못을 깨닫고 고쳐나가는 과정을 그리고있다. 광산당비서 장승한은 승리갱에서 새롭게 개조한 버럭적재기를 시운전한다는 덕철갱장의 보고를 받고 현장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승한은 적재기가 남기고 가는 버럭을 처리하기 위해 로동자들이 땀흘리며 일하는것을 보고 그 리유를 알아보는 과정에 덕철갱장이 적재기의 버럭처리능력에 만족하여 버럭을 남김없이 말끔히 담을수 있는 장치를 완성하지 않은채로 시운전을 하게 했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승한은 덕철에게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신임에 의하여 광부들의 생활을 책임진 일군들이 일을 잘하지 못하여 로동자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시키지 못한다면 수령님께서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는가고 뜨겁게 말한다. 덕철은 승한의 말을 듣고서야 버럭처리량에 만족하여 남겨놓은 버럭에 무관심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집행하지 못한 자신의 사업태도를 심각하게 뉘우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로동자, 기술자들과 진지하게 협의하여 기계화의 완성방도를 찾아내고 승한에게 새 적재기의 시운전날자를 다시 알려준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일군들은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의도를 자그마한 드팀도 없이 정확히 집행해나가야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67(1978)년 10호〕

《마지막 40일》 중편소설. 주체77(1988)년 김철진 창작. 한 인간의 운명을 지켜 자기의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우리 시대의 미더운 사회안전원(당시)을 형상한 작품이다. 위절개수술을 하고 입원해있던 안전원 리학민소좌는 어느날 자기가 담당하고있던 22금속건설사업소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알게 된다. 이 사업소가 맡아 진행하는 특수금속공장건설에서 기단추락사고가 일어나 현장시공지도원 한병호가 죽고 용접공 김철수가 부상을 입었던것이다. 이 사건을 담

당한 강윤성대위에게서 학민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이 전적으로 리설희기사에게 있다는 주장을 듣게 된다. 학민은 사고로 입원한 철수에게서 사고당시 설희가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듣고 자기가 입원하기 전에 제기되였던 전쟁때 설희의 경력에 대한 신고내용과 결부시켜보고 이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료해하기 위해 서둘러 퇴원한다. 그는 이 사건을 나타난 일부 사실들과 본인의 말만 듣고 설희의 범죄행위로 결속지으려는 강윤성에게 한 공민과 사건에 대한 법집행은 진정으로 그 공민과 사회발전을 위한것으로 되도록 심중하게 해야 한다고 일깨워준다. 설희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을 스스로 느끼고 사건해명에 나선 학민은 병이 채 낫지 않은 불편한 몸으로 설희의 고향과 연고자들을 찾아 떠나며 그 과정에 적들의 반동단체인 《멸공단》에 붙잡혀갔던 설희가 놈들과 굴함없이 싸웠고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실을 확인한다. 억울한 사고혐의를 쓰고 고민에 빠져있다가 자기 운명을 진정으로 념려해주는 학민에게 크게 감동된 설희는 자기를 찾아온 그에게 사고가 있기 전에 있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설희의 이야기와 여러가지 조사자료를 통해 학민은 이번 사고를 일으킨 진범인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쥐게 된다. 그리하여 새 설계에 대한 기술토론회를 계기로 설희에 대한 자살극을 꾸미고 공사장을 폭파시켜 특수금속공장건설과 인간의 운명을 파탄시키려던 교활한 적간첩 렴태근과 안응세를 제때에 잡아낸다. 작품은 병원에서 퇴원한 때로부터 40일째 되는 날 체포한 렴태근을 심문하던 학민이가 악화되는 병세로 희생되는데서 끝난다. 소설은 학민의 형상을 통하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과 귀중한 혁명의 전취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헌신적으로 투쟁한 사회안전원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감동깊게 펼쳐보이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7(1988)년판〕

《마지막출장길》 단편소설. 주체63(1974)년 림재성 창작. 작품은 남새가 안된다는 부전땅에 남새풍작을 마련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한 처녀농산기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있다. 채과도매소 부장 문히수는 부전령 주민들에게 남새를 공급하기 위하여 반생을 출장지에서 보낸 일군이다. 그는 오늘도 이해의 남새계약을 끝내고 상점점장들과의 사업을 짜고드느라고 리소재지를 찾아떠난다. 도중에 가래골관리위원장을 만난 그는 자기네 농장처녀 농산기수 옥돌이가 남새재배시험을 한다는 자랑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히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걸음을 다그치던 그는 도움을 청하는 한 처녀를 만나 함께 등성이를 올라갔다가 놀랍게도 남새시험포전이 있는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메돼지때문에 피해를 입어 당장 수정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한해를 더 넘겨야 할 사태가 빚어졌다. 히수는 도구를 가지러 처녀를 급히 내려보내고 혼자서 비를 맞으며 포전을 지킨다. 얼마후 처녀가 돌아오고 뒤따라 한 청년이 올라와 함께 수정작업을 끝낸다. 알고보니 그 처녀는 농산기수 옥돌이였고 그 청년은 자기네 부서의 제대군인지도원이였던것이다. 히수는 자기의 반생의 출장길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하였다. 소설은 자기의 창조적지혜와 정력을 깡그리 바쳐 남새가 안된다는 부전땅에 남새풍작을 마련하여 어버이수령님께 충정다하려는 옥돌이와 같은 새 세대를 긍정적주인공으로 내세우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63(1974)년 7호〕

《마을을 지켜싸운 인민무장대》 영화문학. 류기홍 창작. 작품은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미제침략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인민들의 적후투쟁을 보여주고있다. 적들이 들어오기 직전에 군당에서는 동림산유격대를 조직하며 동림의 세포위원장 리운일을 3중대장

으로 임명한다. 운일부부를 비롯한 유격대원들은 적들이 마을에 기여들어 온갖 만행을 다하고있을 때 적들속에 들어가 일하는 전공 용석이와 련계를 가지고 놈들을 족치며 무기를 획득하는 싸움을 벌림으로써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준다. 한편 적들에게 환상을 가지고 마을에 눌러앉았던 샘골로인도 놈들의 만행에 격분하여 자기 집 소를 끌어가려는 미국놈을 까눕히고 유격대를 찾아온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적들을 배후에서 호되게 족치기 위하여 제2전선부대들을 조직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운일중대장은 그이의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에 무한히 고무되여 감금된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습격전투를 조직한다. 그는 이 어려운 전투임무를 소대장인 자기 안해 홍녀에게 주어 마을로 내려보낸다. 홍녀의 대담무쌍한 전투지휘로 습격전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애국자들과 인민들이 해방되게 되였으나 적들의 집요한 추격으로 다시금 그들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 위험한 정황에서 운일중대장은 대원들과 함께 적들을 유인하는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다. 군당에서는 운일이 맡았던 중대장의 직책을 그의 안해 홍녀에게 맡긴다. 홍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며 중대를 강철의 대오로 꾸려 적들과의 최후결전을 벌릴 준비를 갖춘다. 인민군대의 총반격이 시작된 어느날 그는 최고사령부에서 파견되여온 련락군관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분에 넘치는 치하의 교시를 전달받는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정으로 보답할 결의를 마음속깊이 다진 홍녀는 인민군대와의 협동밑에 대담한 기습작전을 벌려 다리를 차단하고 퇴각하는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하며 마을을 해방한다. 작품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유격대에서 영용하게 싸운 주인공 리운일부부를 비롯한 유격대원들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무한한 충실성과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59(1970)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마을의 녀선생》 단편소설. 주체45(1956)년 석인해 창작. 정전직후 교육사업을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한 산골마을 녀교원의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영애는 전쟁시기 군대에 나가 싸우던 남편이 전사한 후 아들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녀성이다. 그는 언제나 남편의 부탁대로 가정을 알뜰히 꾸려나가는 한편 교육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쟁이 끝난 직후여서 학교앞에는 겨울전으로 땔나무를 해오고 교사 한동을 지어야 하는 등 할일이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교무주임을 비롯한 일부 교원들은 가을걷이에 바쁜 학부형들과 학교후원회의 힘만 바라고있었다. 영애는 자체의 힘으로 학교일을 해갈 결심을 품고 교장선생과 리당위원회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자신이 앞장에서 땔나무를 해오고 건설용목재도 마련한다. 그리고 운반문제가 제기되자 뜨락또르임경소를 찾아가 차를 해결해온다. 그의 적극적인 노력과 투쟁은 일부 교원들의 그릇된 사상관점을 고쳐줄뿐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새 교사도 일떠세우게 한다. 작품은 전쟁의 상처를 하루빨리 가시고 아이들이 밝은 교실에서 공부하게 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투쟁하는 영애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교원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창조적적극성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45(1956)년 9호〕

《마음에 드는 청년》 영화문학. 김세륜 창작. 당의 부름을 받들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배치되여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한 제대군인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준 작품이다. 군대에서 제대되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하게 된 주인공 영배는 어느날 새옷을 지어입으려고 누이와 함께 양복점에 갔다가 뜻밖에도 오래전부터 잘 알고있는 재단사처녀 순애를 만나게 된다. 어디에 배치

되였는지 알고싶어하는 순애에게 동생이 상하수도관리공으로 일하고있는것을 부끄럽게 여기고있는 영배의 누이는 거짓말을 한다. 그러던 어느날 순애는 우연하게 거리에서 상하수도를 수리하는 영배를 보고 그가 상하수도관리공이라는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순애는 새 군복을 산뜻하게 입고 휴가길에 올랐던 영배가 억수로 퍼붓는 폭우속에서 농장의 비료가 못쓰게 되는것을 방지하고 바쁜 모내기까지 성심성의로 도와주던 잊을수 없는 지난날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며 그처럼 성실한 그에 대하여 일시나마 달리 생각하고 직업을 놓고 마음의 동요를 일으킨 자신을 모질게 질책한다. 그후부터 순애는 남들이 저어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인민을 위해 일하는 영배를 진정한 동지로 뜨겁게 대해준다. 한편 영배는 어머니가 30여년을 하루같이 지켜온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인답게 일하여 인민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다. 이 길에서 상하수도일을 천하게 여기던 영배의 누이와 순애 오빠는 자기들의 그릇된 생각을 깨닫는다. 작품은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끝없이 사랑하고 꿋꿋이 지켜가며 거기에서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주인공 영배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된 삶의 보람과 진정한 사랑은 직업의 귀천에 있는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쳐가는 성스러운 투쟁속에 있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작품은 주체77(1988)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마음의 계절》 단편소설. 주체75(1986)년 박태수 창작. 공장의 생산정상화를 위해 자재출고질서를 엄격히 세워가는 주인공의 원칙적인 사업기풍을 보여준 작품이다. 주영표는 자재창고장으로 있을 때 규정된것외에는 단 한가지의 자재도 출고하지 않으며 그런 질서는 같은 공장에 다니는 자기의 딸 현옥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6년기간에 창고의 출고질서를 바로잡은 영표는 이제는 정문경비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문경비원의 일을 자진하여 맡아한다. 그는 정문차단봉옆에 사다리를 설치해놓고 자동차들이 드나들 때마다 사다리우에 올라가 적재함에 실은 자재의 출고상태를 면밀하게 검열한다. 어느날 현옥은 지배인의 승인을 받고 린접군의 탄광에서 돌려쓰자고 하는 강판을 실은 차를 공장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 이때 영표는 지배인이 협동생산자재를 가지고 선심을 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러다가 지배인이 와서 그 강판은 자재과와 토론해서 여유분에서 떼준것이라고 알려주어서야 차단봉을 올린다. 그러는 영표를 바라보며 지배인은 이제야 생산을 걱정하는 진짜 경비원이 있다고 기뻐한다. 소설은 주영표의 형상을 통해 국가의 자재를 다루는 일에서는 사소한 인정이나 융화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혁명적인 질서와 규률을 세워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5(1986)년 5호〕

《막내아들》 단편소설. 주체84(1995)년 림병순 창작. 어려서부터 막내로 부모의 사랑속에서 자라면서 걱정을 끼치던 아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자기의 청춘시절을 빛내일 결심을 안고 초소로 떠나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최두삼아바이네 가정에서는 이미 자식 셋을 시집장가보내여 세간을 냈고 막내아들은 도소재지에 나가 선반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의용군으로 입대한 최두삼에게 한가지 소원이 있다면 생전에 고향에 돌아가 혈육들을 만나 통일의 기쁨을 나누는것이였다. 최두삼내외는 어려서부터 몸집이 가냘프고 성격이 온순한 막내 성학이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돌렸다. 처음 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배치되여 일하던 성학은 한주일이 멀다하게 집에 이것저것 요구했으나 점차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지 얼마후 집으로는 군대에 입대한다는 그의 전보가 온다. 이틀간 부모들과 함께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집에 온 성학은 동무들과

함께 탄광을 지원한 동창생들을 찾아가 고무해준다. 초소로 떠나는 날 성학은 역전에 나온 부모에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바라시는 일당백병사가 되겠다고 결의다지며 아버지의 고향을 묻는다. 통일의 그날 아버지의 고향에 나가 친척들을 만나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도 찾아보겠다는 아들의 말에 최두삼과 그의 안해는 격정의 눈물을 쏟으며 연약하던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준 조직과 집단에 대하여 생각한다. 소설은 조직과 집단의 사랑과 믿음은 자식들을 나라를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들로 키우는 학교라는 것을 등장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4(1995)년 3호〕

《막내아들의 아버지》 단편소설. 주체80(1991)년 김교섭 창작. 어렵고 힘든 단조장에 자기의 막내아들을 보내고 뒤에서 적극 떠밀어주는 한 당일군을 형상한 작품이다. 오랜 단조공 박근수는 자기가 일터를 떠나게 되면 비게 될 그 자리를 메꾸어줄 사람이 없어 안타까와하다가 하는수없이 자기의 막내아들을 데려오려 한다. 이것을 알게 된 책임비서는 공부잘하는 근수의 막내아들이 상급학교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곳에 자기의 막내아들을 보낸다. 단조장에 새로 온 청년이 책임비서의 아들이라는것을 모르는 박근수는 한달전 이곳에 실습와서 일하기 힘든 단조장을 기계화, 자동화한다면서 돌아가던 기능공학교졸업생인 기도가 나타난데 대해 시답지 않게 생각한다. 그가 착실한 단조공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의 아버지가 바로 책임비서라는것을 뒤늦게야 알게 된 근수는 우리 시대 당일군의 고상한 풍모앞에서 뜨거운 감동을 받아안게 된다. 소설은 책임비서의 형상을 통하여 자신뿐아니라 자식들도 대중의 앞장에서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뜻을 충정으로 받들도록 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당일군들의 고결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80(1991)년 제4호〕

《만경대》 장편소설. 주체62(1973)년 황민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경대와 봉화리에서 보내신 어린시절을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은 제1편 《만경봉》, 제2편 《무지개》, 제3편 《봉화산의 나팔소리》, 제4편 《조선독립 만세》로 구성되여있다. 1편에서는 대원수님께서 만경대에서 어린시절을 보내실 때 아버님으로부터 열렬한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혁명투쟁의 바쁘신 나날에도 아드님을 열렬한 애국자로, 미래의 혁명가로 키우시기 위하여 어리신 대원수님을 데리고 만경봉에 오르시여 오곡백과 무르익는 고향산천을 바라보시며 애국의 큰뜻을 심어주신다. 이와 함께 1편에서는 혁명의 먼길을 떠나신 아버님을 그리며 그 뜻을 이어갈 굳은 결의를 다지는 장면을 통하여 어린시절부터 대원수님께서 위대한 풍모를 갖추어나가시였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제2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향 만경대에서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남달리 일찌기 계급적으로 성장하시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형상하고있다. 이 부분에서는 째지게 가난한 만경대고향집의 증조할머님께서 동전 두잎을 주고 사오신 쭈그렁독에 대한 이야기, 지주놈에게서 얻어온 윤두소를 다 키우고 빼앗긴 이야기, 다정한 동무인 셋째네 일가의 처참한 모습을 보시며 원쑤에 대한 증오와 항거의 정신을 키우신데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잘 익은 과일들을 할아버님과 할머님께 선참 드리시고 어머님의 수고를 헤아리시여 썰매타기를 그만두고 군함바위에 오르시여 군사놀이를 하시는 이야기, **《조선독립》**이라는 우리 글을 부지런히 써나가시며 애국의 큰뜻을 키우시는 모습과 무지개잡이를 하시는 장면들을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제3편에서는 아버님을 따라 만경대를 떠나신 어리신 대원수님께서 봉화리에서 보내신 생활을 반영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어리신 대원수님께서

남편을 잃고 지주집종살이를 하다가 어린 자식을 남겨놓고 제사공장으로 팔려가는 오석이 어머니의 기구한 운명과 좋은 제 이름을 두고 《마당쇠》라고 불리우는 수동이 아버지의 비참한 생활을 보시면서 일제와 그 앞잡이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이 세상이야말로 불공평하다는것을 깨달으시며 특히는 아버님께서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여가시는 가슴아픈 일을 당하시면서 아버님의 높은 뜻을 이을것을 굳게 결의다지시는 장면들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제4편에서는 대원수님께서 다시 만경대로 돌아오시여 3.1인민봉기를 겪으시던 시기의 생활을 반영하고있다. 이 부분에서는 아버님께서 체포되신 후 어머님의 뜨거운 사랑과 교양속에서 아버님의 혁명위업을 이으실 크나큰 뜻을 안으시고 억세고 슬기롭게 자라나시는 대원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소설은 만경대와 봉화리에서의 생활과정을 통하여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대원수님의 어린시절의 숭고한 영상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또한 소설은 어리신 대원수님께서 부모님들의 교양을 받으시면서 위대한 혁명가의 풍모를 갖추어나가시는 과정과 함께 아버님의 혁명활동의 일단과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모든 힘을 다하여 도우시면서 어리신 대원수님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시는 강반석어머님 그리고 할아버님, 할머님의 풍모를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대원수님의 교양밑에 대바르고 굳세게 자라나는 바우, 셋째, 이쁜이 등 마을어린이들의 형상도 훌륭하게 창조하고있으며 알기 쉽고 표현력이 풍부한 언어로 생활을 섬세하고 동심적으로 재현하고있다. 소설은 《배움의 천리길》, 《동트는 압록강》과 함께 대원수님의 어린시절을 서사시적화폭으로 폭넓게 반영한 작품의 하나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있게 보여주는데서 훌륭한 교과서로 되고있다. 〔사로청출판사, 주체62(1973)년판〕

《만경대》 서정시. 주체64(1975)년 리광제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노래한 작품이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그대의 기슭에서 울린다
가장 부드러운 바람결이
그대의 산허리를 감돌고있다

시에서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경건한 자욱자욱들이 만경대의 언덕에서 꽃으로 피고 밤이면 다정한 별들이 만경대의 초가지붕으로 고요히 내린다고 노래하고있다. 계속하여 시에서는 가장 깨끗한 심정들이 만경대 그대의 사립문을 쓰다듬으며 목메여한다고, 가장 시련에 찬 민족들이 그대의 목소리를 들으며 동트는 새날을 맞는다고 하면서 가장 간고한 혁명의 길이 시작되였고 가장 영광스러운 력사가 빛나는 만경대는 만리대공에 붉은 노을을 펼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높이 모시고 혁명의 집으로 찬란히 솟아있다고 터치고있다. 시는 앙양된 정서적체험을 폭넓고 생동하게 드러내보이고 있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만경대고향집이여》 서정시. 주체66(1977)년 리금녀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잔디 푸른 학습터, 푸른 솔, 그네터가 여기에 있다고, 이 나라의 설음을 다 담은 물동이도 있고 가난의 보습이 뜨락에 있다고 노래하고있다. 또한 시에서는 등불아래 짚신을 삼으신 할아버님의 일손이 언제한번 빈 날이 있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기다리신 할머님의 마음담아 사립문도 언제한번 닫긴적이 없었다고, 양춘을 찾으신 아버님의 노래가 금시 울려퍼질듯 하고 어머님께서 솥을 여실듯 하다고, 《타

향의 등불밑에서도》 해방의 봄을 가슴마다에 안겨주신 위대한분들이 여기에 다 계신다고 하면서 이 초가집을 고향집이라고 부르는 무한한 궁지와 영광을 터치고있다.

내 이 땅에 태여나 행복은 끝없고
이 땅에 살아 긍지높은 세대여라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
아, 만경대의 초가집이여!
인류의 태양이 솟은 고향집이여!

시는 만경대고향집에 의탁하여 시상을 폭넓고 깊이있게 펼치고있으며 서정구조적으로 순탄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장하고있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만경대여 길이 전하라》 서정서사시. 주체71(1982)년 리종섭 창작.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준엄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고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맞이한 만경대일가분들과 전체 인민의 크나큰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는 6개의 소제목을 달고 씌여져있다. 《기다리던 소식》에서는 조국의 해방과 함께 사립문을 열어놓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던 만경대의 할머님이 강선으로 가시던 수령님께서 갈림길에서 먼저 들어가보라고 하시며 보내신 부관을 만나시여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헤아리시는 가슴뜨거운 장면을 시화하고있다. 《해빛같은 웃음으로》와 《고향길에서》에서는 개선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환호성을 터치는 인민들의 모습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은어머님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고 만경대로 함께 가시는 모습을 숭엄하게 노래하고있다. 《스무해만에!》, 《삼천만을 잠재우시고》에서는 스무해만에 그립던 고향집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할아버님과 할머님 그리고 고향사람들과 뜨겁게 만나시여 회포를 나누시며 하루밤을 보내시는 이야기를 격동적으로 토로하고있다. 《찬란한 아침에》에서는 고향집에서 하루밤을 보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을에서 준비하는 환영의 연회상도 마다하시고 인민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만경대를 떠나시는 이야기를 시화하고있다. 시는 뜨거운 격정과 환희의 감정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우러르며 흠모하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뚜렷이 표현하고있으며 스무해만에 고향에 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뜻깊은 감회와 소탈하고 인민적인 풍모를 감동깊이 노래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1(1982)년 10호〕

《만경대의 노래》 가사. 주체51(1962)년 조령출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조선혁명의 요람 만경대에 대한 우리 인민의 깊은 동경과 사랑,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유서깊은 만경대의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그곳에 깃든 불멸의 혁명사적을 간결한 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린 혁명의 요람이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정서적으로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이 이 땅우에 행복의 락원으로 펼쳐졌음을 감동적으로 노래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영원히 충정을 다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반영하고있다. 가사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감정을 만경대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과 결부하여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가요로 형상된 후 인민들의 사랑속에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조선음악전집》 1,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만경대의 밤》 서정시. 주체38(1949)년

김영철 창작. 유자녀들의 포근한 잠자리를 지켜선 서정적주인공의 풍부한 사상감정을 통하여 유자녀들에게 돌려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이 넓고 깊은 사랑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총칼에 쓰러진 어머니》와 철창속에 있는 어머니를 찾으며 헤매이던 유자녀들이 총소리 없고 《손발을 얼구지 않아도 좋은》 따뜻하고 포근한 《만경대의 품》에 안기여 《만경대의 자장가속에》 깊이 잠든 정경을 노래하면서 유자녀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깊고 넓은 사랑을 숭엄한 감정으로 시화하고있다. 시에서는 《우리의 선렬들이 피로써 지킨 조국을 두 어깨에 떠메고가자》고 하면서 혁명선렬들의 뜻을 이어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새 조선의 당당한 일군으로 자라날 유자녀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심오하게 일반화하고있다.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교원—서정적주인공의 내면세계를 토로하는 형식으로 씌여진 시는 참신한 시적계기속에서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사상을 일반화한것으로 하여 이 시기 혁명전통주제의 시작품들가운데서 성과작으로 되였다. 〔김영철시집 《마음의 고향》,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50(1961)년판〕

《만경봉은 제일봉》 가사. 주체63(1974)년 김두일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유서깊은 만경봉에 대한 우리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다함없는 동경과 칭송의 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우리 인민들과 세계의 수많은 인민들이 끝없는 동경과 축원의 마음을 안고 만경봉으로 끝없이 찾아오는 생활적화폭들을 펼쳐보이면서 주체의 붉은 태양이 솟아오른 만경봉을 세계의 제일봉으로, 인민들의 희망봉으로 높이 찬양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적과 더불어 이름높은 만경봉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높이 솟아 찬란한 앞길을 밝혀준다고 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도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희망봉으로 남아있을 만경봉에 대한 뜨거운 찬양의 감정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위대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만경봉을 우러르는 만민의 절절한 사상감정을 민족적인 정서와 충만된 밝고 랑만적인 시적화폭에 담아 아름답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사랑속에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조선음악전집》 1,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만경봉에 올라》 서정시. 주체61(1972)년 한상호 창작. 조선의 위대한 어머님이신 강반석어머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심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깊은 밤에 만경봉에 올라 생각에 잠기니 강반석어머님께서 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 불러주시던 그 자장가는 《이 땅에 밝아올 새벽을 불렀》고 《그 새벽을 안아오실 장군님의 앞길에 빛을 뿌렸다》고 노래하고있다. 시에서는 어머님의 그 사랑을 한몸에 안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가시는 준엄한 싸움길에서는 눈보라도 험산준령도 비켜섰다고, 그처럼 어머님께서 바라시던 념원대로 어버이수령님께서 민족의 영웅으로, 조선의 찬란한 태양으로 오셨다고 토로하고나서 어머님께서 이밤도 만경대기슭에서부터 조국땅 끝까지 찾아가시며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잠자는 아이들의 요람을 지켜보신다고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어머님께서 부르시던 그 자장가를
오늘은 수천수만의 이 나라 녀인들이
행복한 요람속에 잠자는 아이들에게
　불러줍니다
조선의 아들딸들은 그 자장가를 들으며
수령님의 충직한 전사로, 나라의 영웅동
　으로 자라납니다

시는 강반석어머님에 대한 뜨거운 칭송과 흠모심을 구체적인 생활정황속에서 뜻깊고 진실하게 일반화하고있다. 〔《해방후서정

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만경화》 서정시. 주체66(1977)년 구희철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흠모하며 따르는 남녘의 투사들과 인민들의 마음이 담겨진 충정의 꽃 만경화를 노래한 작품이다.

구름덮인 땅은 설음에 차고
바다는 원한 안고 울부짖어도
남해가 오막살이 울밑에선
만경화꽃송이가 반겨줍니다

시에서는 만경화는 만경대고향집의 뜨락에서 옮겨 남해가에 피우고 만경대와 더불어 피라고 만경화라고 이름지은 꽃이라고 노래하고있다. 시에서는 만경화를 바라볼 때면 그리운 공화국북반부의 새 세상이 눈앞에 어려오고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가슴속에 새겨진다고 하면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굴함없이 싸우려는, 조국통일의 광장에 수령님을 높이 모시려는 그 마음이 만경화로 피여난다고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다. 시는 소박하고 통속적인 언어로써 만경화를 진실하고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만년성벽》 서사시. 주체95(2006)년 최윤철 창작. 광포호수가에 수십리제방을 쌓고 감탕밭을 개간하여 옥토로 전변시킨 청년돌격대원들의 위훈과 영웅적투쟁을 노래한 작품이다. 서사시는 머리시와 마감시, 7개의 장으로 구성되여있다. 시에서는 먼저 광포호수가에 제방건설의 첫삽을 박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8월의 장마비가 들이닥쳐 애써 쌓은 제방을 무너뜨린 사실과 주저앉지 않고 투쟁의 노래, 랑만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청년돌격대원들이 다시 제방건설에 달라붙은데 대하여 보여준다. 서사시는 제방건설의 나날에 청년돌격대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다진 신념의 맹세를 지키는 과정에 새겨진 가지가지의 뜻깊은 사연들을 펼쳐보이고있다. 그 가운데는 돌격대원 창호가 추위와 배고픔에 견디지 못하여 대오를 떠나갔다가 량심의 가책을 받아 되돌아온 이야기도 있고 감탕판에서 축구경기를 하며 청춘의 랑만과 패기를 가다듬던 사실도 있으며 힘겨울 때마다 돌격대원전체가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목메여 부르는 이야기도 있다. 작품에서는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말씀을 받아안은 돌격대원들이 용기백배하여 불굴의 투지와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면서 끝끝내 거창한 공사를 완공하는 장면들을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돌격대원들이 태풍피해막이 준비를 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인민군병사들을 보내줄테니 군민이 힘을 합쳐 태풍을 이겨내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다.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군인들과 힘을 합쳐 제방에 천막을 대고 마대를 쌓아올리며 불뿜는 화구를 맞받아나가듯이 결사전을 벌려 태풍으로부터 제방을 구원한다. 돌격대원들이 마침내 감탕판에 제방을 든든히 뿌리박게 하자 그 지방 토배기 마을사람들은 해방전 일제놈들도 끝내 손털고 나앉아 누구든 여기에 제방을 쌓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희떠운 소리를 쾌쳤는데 우리 청년들이 해냈다고 감탄하며 그들이 집과 부모곁을 떠나 여기에 와서 흘린 땀은 아마 저 호수보다 더 많을것이라고 한다. 제방을 완공한 다음 돌격대원들은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지니고 높은 국가수훈도 받아안으며 정치지도원에게 아들이 태여나는 경사도 있고 항상 돌격전의 선두에 서군 하던 돌격대원 심철과 명주의 사랑도 한껏 무르익는다. 시에서는 그후 어느날 돌격대원들이 깊이 잠든 밤에 조용히 광포제방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큰일을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며 그들에게 크나큰 영광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사실을 감동깊

게 형상하고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광포제방은 다름아닌 우리의 일심단결의 성벽이라고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다. 서사시는 돌격대원전체를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들의 영웅적투쟁에 대한 생동하고 박력있는 시적묘사를 통하여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충만된 우리 청년들의 정신력이 얼마나 큰 위력을 나타내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95(2006)년 1호, 2호〕

《만민의 별》 (1막) 희곡. 주체75(1986)년 림희문 창작. 북유럽의 한 평범한 작가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은정깊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형상한 작품이다. 조선을 방문하여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고 인생의 참된 길을 찾은 시인 모켈로는 심장병으로 림종에 처한 순간에조차 침상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칭송하는 서사시 《만민의 별》창작을 끝낸다. 그는 자기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대학을 그만둔 딸 마리나와 입원비때문에 집까지 팔려고 작정한 아들 핸니스에게 그것으로는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이 자본주의사회에서 내 병을 치료할수 없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선생님께 대를 이어 충정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림종에 이른 모켈로의 말을 듣는 핸니스와 마리나는 목놓아운다. 이때 조선대표단 단장이 들어와 모켈로의 병세가 위급하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특별비행기까지 띄워 귀중한 약과 유능한 의사를 보내주시였다고 알린다. 크나큰 사랑에 접한 모켈로와 그의 아들딸 그리고 주체사상신봉자들은 만민을 자주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한품에 따뜻이 품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덕망에 눈시울을 적시며 그이를 영원한 스승으로, 은혜로운 별로 우러러모셔갈 한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운다. 희곡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인류의 가슴가슴에 영원한 생을 주시고 참된 삶을 안겨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만민이 우러러따르며 높이 칭송하는 위대한 향도의 별이시라는것을 구가하고있다. 〔《조선예술》 잡지, 주체75(1986)년 2호〕

《만민의 태양》 서정시. 주체66(1977)년 오영재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칭송한 작품이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 그이는
> 세월이 기다렸던분
> 기다림에 기다림에 가슴이 타던
> 그 숙망의 언덕에
> 솟아오르신분

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은 흘러간 력사와 다가오는 력사가 《20세기 하늘높이 받들어올린분》이시라고 노래하면서 철쇄와 멍에에 짓눌려 울던 인민에게 자유와 해방의 나래를 달아주시였으며 인민에 대한 무한대의 사랑을 지니시고 주체의 해발로 자주의 새세계를 밝혀주시여 력사의 대진군우에 불멸의 기치를 세워주신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시는 폭넓은 사색과 깊은 서정세계, 절절한 시어와 힘있는 비유적수법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령도풍모,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심을 깊이있게 반영하고있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만민의 하늘》 단편소설. 주체85(1996)년 김명희 창작.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의 의사를 존중하시고 인민을 으뜸가는 선생으로 내세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형상한 작품이다. 1960년대에 량강도내 농촌경리부문의 일부 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깊이 연구하지 않고 북부고산지대의 특성을 고려

함이 없이 강냉이를 주작물로 배치하도록 내리먹이면서 농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대대로 이 땅에 태를 묻고 살아온 채창활로인을 비롯한 농민들은 예로부터 이 고장엔 감자가 잘된다고 하면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을 부르시여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농사를 의논하시며 그들의 요구대로 감자농사를 짓도록 해주신다. 그곳 일군들로부터 량강도가 식량을 자급자족하자면 감자면적을 늘여야 한다는 론의가 벌어진 사실을 보고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후시기와는 달리 감자고장인민들도 쌀위주의 식생활을 하게 해야 한다시며 다시 채창활로인과 농민들을 부르시여 감자면적을 줄이고 대신 고산지대에 맞는 밀, 보리를 많이 심어 알곡작물면적을 늘이도록 조치를 취해주신다. 소설은 어버이수령님이시야말로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고 친근한 스승이시며 만민의 하늘이시라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5(1996)년 4호〕

《만병초》 영화문학. 설주용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 한 녀성혁명가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 은정에 충정으로 보답한 그의 생활을 보여준 작품이다. 주인공 장철구는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길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종파분자들에 의해 억울한 루명까지 쓰게 되였으며 그 과정에 갖은 박해와 천대를 다 받는다. 그러던 그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가슴아픈 루명도 벗고 사령부 작식대원으로서 떳떳하게 살며 싸우게 된다. 그러던중 그는 사령관동지께서 원정을 떠나신 후 군수관의 편협한 처사로 하여 을미와 함께 사령부를 떠나 후방밀영으로 가게 된다. 후방밀영에 온 장철구는 자나깨나 수령님의 안녕을 바라며 환자간호에 온갖 정성을 다한다. 그는 을미를 통하여 자기가 후방밀영에 아주 남게 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나 환자들의 식량을 해결받으러 갔다가 군수관에게서 다시 불신을 느끼게 되였을 때나 조금도 마음의 동요없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 한분만을 믿고 꿋꿋이 살아간다. 그리고 군수관의 모욕을 더는 참을수 없었던 을미가 유격대에 입대하겠다던 결심마저 버리고 밀영을 뛰쳐나갔을 때에는 노여움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를 사정없이 꾸짖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만 믿어주시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절절히 타이른다. 후방밀영에 식량이 떨어지자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서 식량공작을 나간 장철구는 돌아오는 길에 피맺힌 원쑤인 조칠백놈과 맞다들자 동지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들을 유인하여 밀영을 지켜낸다. 어느덧 날은 흘러 을미는 회복된 환자들과 함께 사령부로 소환되고 그에게만은 2호밀영으로 옮겨가라는 지시가 전달된다. 그는 헤여지기 아쉬워 눈물을 흘리는 동무들을 웃는 얼굴로 떠나보내고 자기는 환자들을 데리고 2호밀영으로 떠나간다. 이무렵 언제나 그의 신상을 걱정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려운 전투속에서도 그에게 줄 옷감까지 마련해가지고 돌아오신다. 그런데 군수관의 편협한 처사로 하여 그가 사령부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밀영으로 갔다는것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수관을 엄하게 비판하신다. 그리고 사령부의 부름을 받고 먼길을 단숨에 달려온 철구어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잘 싸웠다고 높이 치하해주신다. 일편단심 그처럼 바라던 위대한 수령님을 다시 뵈옵고 은정어린 옷감까지 받아안은 장철구는 감격의 눈물을 지으며 충정의 결의를 다진다. 작품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은 언제나 수령의 믿음속에 있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 믿음을 귀중히 간직하고 의리로 보답할 때 인간의 생은 아름답게 빛난다는것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작품은 주체72(1983)

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만수대》 서정시. 주체69(1980)년 김철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이 모셔져있는 만수대를 통하여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무한한 긍지와 영광을 노래한 작품이다.

밟으신것은 백두의 용암대지
손들어 가리키심은 우주의 한끝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숭엄함과 아름다움의 절정에
위대한 수령님 서계시는 만수대

시에서는 만수대가 사람들의 인생이 총화되고 혁명가들의 맹세가 다져지는 숭엄한 언덕이라고 하면서 참다운 행복과 영광은 바로 만수대에서 위대한 수령님 앞에 깨끗한 량심을 헤쳐놓고 《새 투쟁의 전구로 영생하는 진리를 안고가는》데 있다고 노래하고있다. 또한 작품에서는 쳐다보며 오를 때에는 모래알처럼 작게만 느껴지던 자신의 존재도 돌아서서 내릴 때에는 산악같은 거창함을 깨닫게 하여주는 만수대는 《인간만세의 무궁한 령마루》라고 격조높이 터치고있다. 시는 정론적인 기백과 폭발적인 음조, 함축과 비약이 강한 시어구사로 무게있는 서정적형상을 창조하고있다. 〔《1980년대시선》, 문예출판사, 주체79(1990)년판〕

《만수대언덕》 서정시. 주체64(1975)년 방금숙 창작. 만민이 높이 우러러모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모신 만수대언덕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만수대언덕을 《태양을 모신 영광의 언덕》으로, 《인류의 봄 꽃피워주시는 주체의 해발이 우주에 비쳐가는… 지구의 중심》으로 노래하고있다. 삼가 옷깃 여미고 만수대언덕에 오른 서정적주인공은 여기에서 인류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려오고 어둠이 가셔진 세기의 새벽도 밝게 내다보인다고 토로하고있다. 시는 4련밖에 안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여 만수대언덕은 온 세계에 빛을 뿌리고있다는것을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시집 《다함없는 충성의 노래》, 문예출판사, 주체64(1975)년판〕

《맏형》 단편소설. 주체82(1993)년 김용길 창작. 부모없는 아이들의 맏형이 되여 형구실을 잘하도록 이끌어주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매한 풍모를 형상한 작품이다. 중학교 2학년생인 고일남은 동생이 하나도 없었는데 부모들이 부모잃은 아이들을 일곱명이나 집에 데려오는 바람에 단번에 일곱동생의 맏형이 된다. 이른봄의 어느날 그는 옹고집쟁이인 첫째동생 편길이가 어항의 금붕어를 죽여놓고 투정을 부리는통에 물고기를 잡아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반장아이와 함께 찬개울속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옷만 적셔 물참봉이 되고 하나도 잡지 못한다. 이때 현지지도차로 이곳을 지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추위에 떨면서도 물고기잡이를 하고있는 아이들을 보시자 차를 멈춰세우시고 사연을 알아보신다. 그이께서는 동생을 기쁘게 해주려고 물고기를 잡는 일남이의 소행을 기특히 여기시고 손수 물고기를 잡아주시며 일남이와 같은 소년들이 동생들의 놀이감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현대적인 놀이감을 만드는 훌륭한 완구공장을 하나 지어주자고 말씀하신다. 그러시면서 그의 동생들이 일남이의 본을 따서 유치원의 맏형으로, 분단의 맏형으로 자라며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훌륭한 맏형으로 자라는것보다 더 큰 일은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하신다. 소설은 남남이 서로 친형제로,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시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통하여 그이이시야말로 온 나라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아키워주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위대한 스승이시라는것을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아동문학》잡지, 주체

82(1993)년 10호〕

《말로는 다 못해》 서정시. 주체78(1989)년 한원희 창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존함으로 빛나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활짝 웃으며 피여난 **김정일**화를 소중히 쓸어보며 꽃잎에 얼굴을 묻으니 마음은 저절로 감격에 목메이고 가슴은 행복에 젖어들게 된다고 노래하고있다.

봄날처럼 따스한 그이의 사랑
세기를 밝히시는 그이의 빛발
말로는 다 못해 다는 못 전해
한떨기 꽃으로 곱게 피였나

시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인민의 기쁨과 영광을 안고 피여난듯싶은 **김정일**화는 수천년의 세월이 기다렸던, 세상에서 처음으로 피여난 꽃이라고 힘있게 강조하면서 위인이 계시여 위인의 꽃이 피고 《만민이 우러르는 령도자 계시니 만민이 드리는 축원의 꽃이 피》여난다고 환희롭게 토로하고있다. 시는 **김정일**화를 숭엄하고 아름다운 서정적형상속에서 노래하고있다. 〔《1980년대시선》, 문예출판사, 주체79(1990)년판〕

《말해주리 병사의 사랑을》 가사. 주체75(1986)년 안호근 창작. 우리 인민군병사들이 지닌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생활적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에서는 총을 메고 초소로 떠나오기 전에 병사가 고향마을의 길가에 백살구나무를 정성들여 심은 생활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는 고향에 대한 사랑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2절에서는 병사가 농장의 곡식을 땀흘려 가꾼 이야기와 유치원아이들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네준 이야기를 통하여 인민에 대한 병사의 열렬한 사랑을 감동적으로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조국의 안녕을 지켜 수많은 산발들과 초소에 구슬땀을 뿌린 병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이 지닌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매 절의 첫 부분에서 병사가 고향과 인민, 조국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라는 수사학적물음을 제기하고 병사가 남긴 가지가지의 감동적인 사실가운데서 전형적인 생활세부들에 력점을 찍어 형상하는 방법으로 주제사상을 해명하고있다. 가사는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지닌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생동한 생활적화폭으로 설득력있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인민군전사들의 사랑속에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조선가요 20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말없는 바다》 단편소설. 주체95(2006)년 김삼열 창작. 어느 한 수산대학의 졸업생들이 주체조국의 과학자로서의 순결한 량심과 도덕의리를 지켜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소설은 신문사 기자가 간석지건설장에서 일하는 돌격대 려단장 송승철을 취재하러 찾아갔다가 그를 기다리면서 그의 방에 있는 누군가의 일기장을 보게 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일기장의 주인은 김철웅이라는 려단장의 수산대학동창생이다. 그는 대학시절을 마치면서 당이 맡겨준 초소에 달려나가 조국에 바친 자기의 땀과 열정이 스민 창조물들을 안고 10년후 모교에 모이자고 한 맹세를 지켜 서해의 작은 수산협동조합에 배치되여 일하면서 큰 새우인공증식기술을 연구한다. 그는 연구사업이 시련에 부닥치고 중병에 의해 고통을 당하면서도 연구를 끝내 성공시켜 나라의 바다자원을 지키고 풍부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그는 더 큰 과학성과를 안고 떳떳이 모교로 돌아가려고 보다 높은 연구목표를 세우고 일하다가 병으로 생을 마친다. 이러한 그의 모습이 비낀 일기장은 졸업때 큰 성과를 안고 모교에서 다시 만나자고 누구보다도 열렬히 토론했던 승철에게 큰 충격을 주며 과학연구사업을 떠나 돌

격대사업을 해온 그에게 자신이 조국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자라난 과학자라는 자각을 새롭게 새겨준다. 그는 기자에게 철웅의 안해가 놓고간 일기장을 대학에 보내줄것을 부탁하고 자기는 곧 돌격대에서 제대되여 고향으로 내려가 처음에 해보다가 실패하여 그만둔 대합조개인공증식을 위한 연구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소설은 조국앞에 바치는 자신의 고귀한 창조물을 마련하기 위해 한생을 불태운 김철웅, 늦게나마 과학자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송승철의 모습을 통하여 내 조국의 부강과 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해가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참된 인생관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95(2006)년 9호〕

《맑은 눈》 단편소설. 주체62(1973)년 조태봉 창작. 기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자동화의 본보기공장을 꾸리기 위한 투쟁에 앞장선 청년들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함마로 힘겹게 우구구멍을 뚫는 용해공들의 일손을 도와주고 돌아오던 동력직장 실험실 전기기수 박광철은 함께 오던 김도명기사에게 우구뚫는 작업을 기계화할수 없는가고 묻는다. 도명기사를 통하여 그가 몇년전에 창안제작한 《전기식우구관통기》가 있지만 용해공들의 랭대를 받고있음을 알게 된 광철은 그 원인이 기계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려는 기술자의 깨끗한 량심이 결여된데 있다는것을 간파하고 그것을 끝까지 완성할 결심을 다진다. 그리하여 용광로직장으로 탄원한 광철은 로동자들의 따뜻한 방조와 고무를 받으며 부단히 실험하여 끝내 치차식조절법을 착상하고 우구기를 완성한다. 광철의 정열적인 탐구심에 감동된 도명기사는 창의고안수자에만 매달려있던 자신을 뉘우치고 온 공장을 자동화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다. 소설은 언제나 흐릴줄 모르는 맑은 눈을 가지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주인공 광철의 형상을 통하여 새 세대 청년기술자의 전형적성격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62(1973)년 1호〕

《맑은 물》 단편소설. 주체64(1975)년 백보흠 창작. 우리 인민들의 건강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오직 기쁨만을 드리기 위하여 깨끗한 마음을 바쳐가는 지질탐사대원들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대장 범준과 기사 철진을 비롯한 탐사대원들은 외지고도 험한 산지인 천수골에서 동광산후보지를 발견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건강에 좋은 맑고 깨끗한 음료수가 없는것이 마음에 걸려 떠나지 못한다. 천수골의 물속에는 비소성분이 섞여있어 인체에 해로운 작용을 하기때문이였다. 광산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마련해주는것을 스스로의 과제로 내세우고 탐사대전체가 떨쳐나섰으나 종시 물을 찾지 못한다. 범준과 철진은 락심하지 않고 이제는 샘물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압력수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밑에 아슬한 벼랑을 오르내리며 물시료를 채취하고 장골지구에 대한 시추작업을 진행하여 마침내 맑은 물줄기를 찾아낸다. 이를 통하여 작품은 누가 보건말건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성실한 땀을 바쳐가는 이런 미더운 개척자들이 있기에 보다 휘황할 조국의 래일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4(1975)년 1호〕

《맑은 물소리》 단편소설. 주체71(1982)년 석윤기 창작. 광부들을 위하여 산천의 아름다움을 지켜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을 앞당겨끝내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고있는 한 광산에서는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따라 버럭처리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그 버럭은 광산마을의 강을 점점 메워버리면서 금강산 못지 않는 이 지대의 절경에 손상을 준다. 이때 광산을 찾

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산천이 아름다움을 잃어가는데 따라 광부들의 생활에도 그늘이 지고있다는것을 포착하시고 버럭처리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세우신다. 그이께서는 이곳 로동자들이 내놓은 초보적인 버럭처리안을 지지해주시면서 그에 벨트콘베아와 회전로건설을 포함시키도록 하신다. 그이께서는 건설량이 방대하지만 사람들을 위하여 산천을 지키는 일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고 하시면서 로력과 설비, 자재를 해결해주신다. 하여 산천은 맑은 물소리를 울리며 변함없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빛내이게 되고 로동자들은 당을 위해 혁명초소를 지켜 한생을 바쳐갈 심장의 맹세를 다진다. 소설에서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산천의 아름다움까지지도 지켜주시는것이 바로 인민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풍모라는것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거룩한 자욱》,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맑은 하늘》 단편소설. 주체73(1984)년 권강일 창작. 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을 더없이 사랑하는 한 인민군전사의 열렬한 조국애를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은 나가 전쟁시기에 알게 된 한 전사에 대하여 회상하는 형식으로 씌여졌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나어린 꼬마였던 나는 행군도중 잠간 휴식하는 한 인민군전사의 총을 보고 그가 저격수라는것을 알게 된다. 백발백중한다는 저격수의 사격솜씨를 보고싶어 나는 그에게 총을 한번 쏘아보라고 조르며 마을의 호수가에 함께 나간다. 때마침 호수에서 떠올라 이쪽으로 날아오는 물오리를 발견한 나는 그 전사에게 총을 쏘라고 졸랐지만 그는 겨누기만 할뿐 총을 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물오리는 자취를 감추고 이번에는 뜸부기가 나타난다. 나는 다시 그놈을 쏘라고 졸랐으나 그는 역시 겨냥만 하고 쏘지는 않는다. 이러한 그를 보면서 나는 진짜 저격수가 옳은가 하는 의심과 함께 불만을 품고 언덕우에 있는 큰 바위를 쏴보라고 하였으나 전사는 바위대신에 하늘에 대고 공포를 한방 놓는다. 그리고는 나에게 이 고장의 자연은 모두 아름다운것들뿐이여서 쏠수 없었다고 하면서 이 총으로는 미국놈들만 쏘아야 한다고 절절히 말한다. 소설은 잊을수 없는 인민군전사의 내면세계와 이야기를 통하여 조국의 풀 한포기, 새 한마리도 귀중히 여기는 숭고한 정신세계와 뜨거운 조국애를 지닌 인민군전사들이 있는 한 원쑤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내나라의 하늘은 영원히 맑고 푸르러있을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3(1984)년 10호〕

《맑은 아침》 단편소설. 주체56(1967)년 고병삼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승리한 조국의 찬란한 래일을 내다보시며 도시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풍모를 형상한 작품이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밖에 다른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던 전시의 어느 깊은 밤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 도시설계일군들을 친히 부르신다. 설계일군들은 자기들이 작성한 평양시복구건설전망설계도가 전쟁의 준엄한 현실에 비해볼 때 너무 아름찬것이라고 생각한다. 설계도를 보아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설계의 부족점을 지적해주시면서 전쟁에서 우리는 벌써 이겼다는 립장에 서서 인민을 위한 좋은 설계를 할데 대하여 교시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을 조선맛이 나게, 조선의 기상이 뚜렷이 나타나게, 우리의 모든 귀중한것이 상징되게 건설해야 한다고 하나하나 밝혀주신다. 설계가들이 돌아간 후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모든 전선에 총공세를 취할 명령을 내리시면서 인민군장병들에게 새로운 평양을 설계한다는것을 알리신다. 이 감격적인 소식은 전파를 타고 군단과 사단, 련대와 대대, 중대로 날아가며 이에 고무된 전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평양시를 일떠세우기 위하

여 돌격전에로 나아간다. 소설은 군단장들의 승리의 전투보고를 받으신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 류달리 맑은 아침 승용차에 오르시여 포연을 헤치시며 전선시찰을 떠나시는것으로 끝난다. 소설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풍모를 설계가들과 부관의 시점을 통하여 감명깊게 펼쳐보이면서 모든 형상요소들을 어버이수령님께서 평양시복구건설전망설계도를 보아주시는 하나의 사실에 집중시켜 그것을 정중하면서도 시적이고 정론적인 문체로 그려냄으로써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고 나아가는 조선인민은 필승불패이고 우리 조국은 길이 번영할것이라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조선단편집》 1, 문예출판사, 주체67(1978)년판〕

《맑은 아침》 단편소설. 주체55(1966)년 한경 창작. 새 세대들이 농장의 참된 주인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작업반장 형국은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농장에 배치되여온 남수와 보금을 미래의 농장의 기둥감으로 정하여놓고 남수는 소판리공으로, 보금은 작업반 기술부반장으로 일하게 한다. 보금은 오랜 세월 광포기슭에서 속절없이 퇴화되여가는 니탄을 비료로 만들려고 실험을 계속한다. 그러나 남수는 부림소 엉치나 두들겨가지구 어느 세월에 고향마을을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꾸리겠는가고 하면서 맡겨진 일을 걸써 대하면서 열성을 내지 않는다. 그러던 그는 니탄실험에서 기어이 성공하여 알곡 500㎏증수에 큰 기여를 한 동창생 보금이가 밤새워 자기가 대강 해놓은 다락논의 써레질을 말끔히 해놓은것을 보고 지난날을 뼈저리게 뉘우치면서 농장의 참된 주인으로 새 출발을 시작한다. 소설은 형국반장의 시점으로 그려진 남수와 보금의 형상을 통하여 농장의 참된 주인으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비교적 실감있게 묘사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5(1966)년 9호〕

《망부암》 단편소설. 주체83(1994)년 리명 창작. 경치좋은 바다가 해안이 바람때문에 버림받고있는것을 보시고 마음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기쁨을 드릴 결심을 안고 망부암에 방풍림을 완성해나가는 한 과학자의 신념과 투지를 보여준 작품이다. 중앙독창경연무대에서 특색있는 기교를 남김없이 보여주어 우승자로 높이 평가된 신예림은 앞으로 자기앞에 펼쳐질 넓은 무대에 대한 기대로 흥분을 금치 못해하며 청진에 있는 집으로 내려온다. 자신의 성공에 대한 기쁨에 잠겨있던 예림은 남편을 생각하자 찌르는듯 한 괴로움을 느낀다. 예림의 남편 리우진은 애젊은 청춘시절부터 중년나이에 이른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망부암에 나가 해안방풍림육종연구에 전심하지만 실패를 거듭한다. 예림은 연구소에서도 할수 있는 연구를 구태여 망부암에 나가 할것없이 남편은 연구소로 올라가고 자기는 중앙극장무대에서 인민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될것을 꿈꾼다. 안해의 들뜬 마음을 알게 된 우진은 자기 걱정은 말고 떠나라고 하며 자기는 망부암으로 떠난다. 떠나가버린 남편에 대한 원망을 금치 못하던 예림은 식물학연구소 당위원회에 찾아갔던 동창생 최일의 편지를 받고서야 여러가지 악조건과 불리한 기준을 정하고 수년동안 여러 품종을 만들어낸 우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잡고있는지 리해하게 되며 망부암으로 남편을 찾아 떠난다. 소설은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편안히 일하면서 과학자로서 성공할수 있지만 경애하는 장군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려운 길을 택하고 그 길에서 기쁨을 찾는 우리 시대 참된 과학자의 모습을 진실하게 그려내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3(1994)년 1호〕

《망할 놈들》 단편소설. 주체52(1963)년

량우직 창작.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괴뢰역적들의 추한 몰골을 보여준 작품이다. 괴뢰 무소속의원인 박건달은 자기의 시중군들과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호령을 치지만 미군에게는 굽신거리며 영원히 남조선을 강점하고 자기를 보호해줄것을 간청하는 천하매국노이다. 그는 인민들의 등살을 벗겨 자기의 돈주머니를 채우고 미국놈의 별장을 지으려 한다. 이를 위해 그는 한창 바쁜 농번기에 농민들의 달구지를 동원하여 별장을 짓는데 필요한 자재를 나르도록 강요한다. 농민들의 달구지대렬이 미군자동차들과 마주치고 그 혼잡통에 미군자동차가 도랑에 빠지자 미군병졸들이 길을 내라고 호통친다. 박건달은 농민들에게 어서 달구지를 치우라고 소리치나 들은체도 하지 않으니 제 손으로 달구지를 치운다. 놈은 흩어진 기와장들을 옮기며 돌아치다가 그만에야 맥이 진하여 길가운데 뻐드러진다. 소설은 풍자적수법으로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에 아부굴종하는 괴뢰역적들이야말로 다같이 망할놈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52(1963)년 7호〕

《망울터친 꽃》 단편소설. 주체81(1992)년 로영남 창작. 꽃은 망울을 터쳐야 향기를 풍기듯이 로동계급은 참되게 일해야 자신의 가치를 빛내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어느 광산의 한 소대장은 소대에 배치되여온 3대혁명소조원이 너무도 애어린데 아연해진다. 그는 소조원에게 지금 소조에 나가있는 아들소리를 하면서 여기저기 삐치지 않기를 바란다. 어느날 생산실적총화에서 단연 1등을 하여 우승기를 타게 되였으나 소조원은 설비를 혹사하고 일터를 되는대로 꾸린 소대장을 비판하면서 갱장에게 우승기를 다른 소대에 넘겨달라고 제기한다. 소조원의 비판을 아니꼽게 생각하고 집에 돌아온 소대장이 안해에게 화를 내고있을 때 소조원이 찾아온다. 소조원은 소대장의 생일이 오늘인줄 알았다고 하면서 아들대신 술을 부으며 차근차근 이야기한다. 소조원의 말에 감동된 소대장은 다음달엔 이런 결함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소조원이 출장간 사이 다시 설비를 혹사시킨다. 소조원은 다른 갱에서 일하면서 갱장, 기사장들을 키워낸 양아바이소대에 대한 견학을 조직한다. 드디여 소대장은 큰 충격을 받고 거친 일본새를 고치게 되며 생산에서 계속 우승하게 된다. 소설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나라의 맏아들로 내세워주시는 우리 광부들은 망울을 터친 꽃만이 향기를 풍기듯이 깨끗하고 참되게 살아야 한다는것을 소대장과 소조원의 형상을 통하여 밝히고 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81(1992)년 6호〕

《망이》(제1부) 장편력사소설. 주체79(1990)년 김정민 창작.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공주의 명학소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공노릇을 하며 살아가던 망이는 어느날 관군의 추격을 받는 을님이네 일가를 구원해준다. 이것이 인연이 되여 망이는 을님이를 알게 되며 점차 사랑의 감정을 품게 된다. 한편 개경에서 무관벼슬을 하던 백가신의 아들 백태도 나루가에서 을님이를 본 후 그에게 눈독을 들인다. 이무렵 공주의 악착한 토호인 백가신은 무광대사와 짜고 명학소농민들이 피땀으로 가꾼 신답을 빼앗아내려고 한다. 망이와 망쇠의 항거에 부딪쳐 뜻을 이룰수 없게 되자 백가신은 지팽이로 망쇠의 머리를 후려치고 일단 물러간다. 이때 화적두령인 달령성이 찾아와 몇해전 큰물때 자기의 어머니를 구원해준 망이에게 베천 100필과 맞먹는 은병 2개를 주고 간다. 성품이 대바른 망이는 즉시 그것을 돌려주려고 달령성을 찾아갔다가 그에게 잡혀 사경에 처한 백태를 놓아준다. 하지만 의리도 없는 백태는 그후 망이의 동생 고비에게 생트집을 걸면서 때려 피투성이로 만들며 망이를 죽이고 을님이를 손

에 넣기 위해 별의별 흉계를 다 꾸민다. 그것이 실패하자 백태는 상소문을 들고온 망이를 가혹하게 매질하며 관가의 군사들을 내몰아 명학소농민들이 피땀으로 가꾼 신답을 불지르고 을님이를 강제로 끌어간다. 드디여 인간답게 살려면 백성들을 억압하는 량반통치배들과 결판을 내야 한다는것을 뼈에 사무치게 느낀 망이는 망쇠와 함께 달령성을 찾아가 봉기를 일으킬것을 맹약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한편 을님이는 백가신과 백태의 유혹을 물리치고 절간에 들어가며 무광대사의 유혹에 항거하여 인두로 얼굴을 지진다. 공주성을 점령한 후 이 소식을 들은 망이는 괴로운 마음을 안고 피빛으로 물든 먼 하늘을 바라보며 모진 세상을 끝없이 저주한다. 소설은 째지게 가난한 속에서도 근면한 로동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려던 망이가 압제자들에게 항거하여 의로운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무신통치하의 암담한 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일반화하면서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며 인민들의 투쟁이 일어나는것은 불가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백가신, 백태 등의 형상을 통하여 고려봉건통치배들의 착취적본성을 예리하게 까밝히고있는 동시에 망이와 같은 최하층인민들이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려면 착취자들을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당대의 시대상이 명백히 안겨오도록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을 전형화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생활과 세태풍속을 생동하게 그린 특성도 보여주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9(1990)년판〕

《머나먼 나라》 중편소설. 주체75(1986)년 윤경수 창작. 머나먼 이국땅에 팔려가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고있는 남조선 어린이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일찌기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풍랑에 행방불명이 되여 고아가 된 선희와 그의 동생 남호는 선주 엄달수의 꾀임에 넘어가 양자로 이국땅에 팔려간다. 11살난 선희는 프랑스 빠리의 은행가 모리앙 드 말레의 집에 양녀로, 동생 남호는 단마르크의 코뻰하븐에서 사는 필릭스 하벤의 양자로 들어간다. 이름까지 프랑스식으로 로즈라고 고친 선희는 양모 엘리제의 변태스러운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치장거리로, 인형으로 별의별 심부름을 다하며 천대와 멸시를 받는다. 한편 조난당하였다가 조선인민군경비정에 의하여 구원된 선희의 아버지 류정도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빨갱이물을 먹었다는 죄아닌 죄로 2년 6개월동안 감옥살이를 한다. 감옥에서 나온 후 그는 아들딸을 찾기 위해 서부도이췰란드탄광로동자로 고용되여 모은 려비를 가지고 선희가 있는 집에 갔으나 엘리제의 작간에 의하여 딸을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간다. 그후 선희는 가정교사인 줄리선생의 도움으로 어린 남호를 만나게 되나 다시 헤여지지 않으면 안되는 비극을 겪게 되며 코뻰하븐에 공연을 온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을 만나 아버지의 소식도 듣게 된다. 그리하여 선희는 아버지와 동생 남호를 만날 그날을 그리며 모진 고통을 참아간다. 소설은 선희의 가정이 겪는 눈물겨운 생활을 통하여 고통과 불행의 화근인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반인민적정책, 특히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며 인신매매를 장려하는 놈들의 비인간적죄행을 신랄하게 폭로비판하고있다. 소설은 머나먼 이국에 가서도 나서자란 고향과 부모형제를 잊지 않고 애타게 그리는 선희의 모습을 통하여 어린 가슴에 간직된 애국주의적감정과 조국통일의 념원을 절절하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인물들의 내면심리세계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와 사건과 세부들에 대한 흥미있는 형상으로 비교적 동심을 잘 살리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5(1986)년판〕

《먼 고장》 단편소설. 주체61(1972)년 최홍식 창작. 자기 사업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을 안고 삶의 순간순간을 충정으로 빛내가는 한 지식인청년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주인공 명훈이가 전국보건일군열성자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안해를 만나 지나온 생활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씌여졌다. 10년전 수의축산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명훈은 연구소로 가는 배치장을 받아안고 기뻐하던중 뜻밖에도 우리 나라 북방에서도 손꼽히는 산간벽지인 별하리에서 온 축산반장을 만난다. 명훈은 바로 그곳으로 가서 우리 나라 산간지대의 집짐승에서 발생하는 토질병의 예방대책에 대한 졸업론문을 완성하여 대학을 떠들썩하게 하고 연구소로 가게 되였던것이다. 축산반장으로부터 송아지들이 앓는다는 말을 듣고 별하리에 내려온 명훈은 처음 치료대책이나 세워주고 돌아서려 하였으나 산간벽지인탓에 그 누구도 오려 하지 않아 가축을 기르는데 애를 먹고있는 실태를 목격하고 거기에 남을것을 결심한다. 그는 2년나마 기다리다가 찾아온 혜경(지금의 안해)이 낯설고 외진 이 고장에 정을 붙이고 보람찬 새생활을 창조하도록 깨우쳐주는 한편 농장의 축산업발전을 위한 일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친다. 소설은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초소에 달려가 청춘의 희망을 꽃피워가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충정의 한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할 때 멀고 가까운 고장이 따로없이 삶의 행복과 보람을 느낄수 있다는 의의있는 문제를 해명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1(1972)년 5호〕

《먼길》 장편소설. 주체72(1983)년 정창윤 창작. 청춘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새로운 철개량제를 연구해내는 한 청년과학자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공업대학 연구원생인 최중열은 어느 한 공장에서 철개량제 《ㅌ—13》을 연구하고있는 양빈을 도우러 내려온다. 그 개량제는 우리 나라 주물품들의 면모와 질을 일신시킬수 있는것으로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재로 만들것을 바라고계시는 중요연구대상이다. 이러한 개량제를 금속공학부문의 권위있는 로교수 박시봉이 이미전부터 연구해왔으며 그후에 그의 제자들로 무어진 연구집단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연구가 어려워지자 하나둘 떨어져나가고 양빈이 혼자 남았다. 이러한 양빈을 도우려 박시봉교수가 자기가 믿는 제자인 최중열을 보낸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최중열은 양빈마저 연구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떠나가버린것을 알게 된다. 하여 최중열은 처녀기자 류보은이 양빈의 실험일지를 보관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자 그에게서 일지를 넘겨받아 양빈이 진행해온 연구과정을 료해한다. 그 과정에 중열은 양빈이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었는가 하는것과 먼 탐구의 길에서 끝내 리상과 의지를 꺾이웠다는것을 알게 된다. 중열은 이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이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각오를 안고 양빈이 이룩한 일정한 성과에 토대하여 연구를 계속 심화시킨다. 그는 시료를 채취하려 먼 산골에 갔다가 벼랑에서 굴러 생명의 위험까지 겪으면서도 일부 기술자들이 수입물질을 섞어 《ㅌ—13》을 만들자고 제기할 때는 단호히 거부한다. 이러한 때 병환에 있던 박시봉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ㅌ—13》에 관한 연구자료가 중열에게 전해진다. 그것을 통해 중열은 연구성공의 열쇠를 교수가 이미 잡고있었으나 거기에 쓰이는 시료가 유독성물질인것으로 하여 사회적비난을 받아 연구를 더 진척시키지 못했고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해독작용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것을 알게 된다. 중열은 자기 한몸을 바쳐 연구를 기어이 성공시키리라 마음먹고 그 유독성물질의 매장지에 찾아가 원료를 배낭에 담아메고 수백리길을 걸어서 돌아온다. 실험끝

에 그는 독성물질에 의한 중독으로 쓰러지지만 끝내 《ㅌ—13》을 만들어내여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의 보고를 올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중열을 친히 만나주시고 연구가 성공한것도 기쁘지만 당이 요구하는것이라면 희생성을 발휘하여 실현해내는 억센 새 세대 지식인들이 자라난데 대하여 기뻐하신다. 그리고 앞으로 실험을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훌륭한 실험실을 마련해주신다. 그 사랑에 감격한 최중열은 연구를 전진시켜 새로운 품종을 더 많이 만들어내며 연구과정에 서로 리해하고 뜻을 같이한 류보은과 사랑을 맺고 탐구의 먼길을 억세게 걸어간다. 소설은 과학탐구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그 길에 한몸 바쳐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과학자들이 진정으로 당의 과학자로서의 참다운 삶과 영예를 누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2(1983)년판〕

《먼 남쪽바다에서》 영화문학. 유정혁 창작. 해방전 일제에게 복무하던 기술자를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보여준 작품이다. 주인공 정민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고학을 한 애국심이 강한 선박기술자이다. 일제시기 공부를 했다는것으로 하여 친일파로 락인되여 갖은 박해를 받던 그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다. 그리고 그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해주시며 그에게 우리 나라 첫 해상보안간부학교 부교장의 직책까지 맡겨주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사랑속에서 정민은 그때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학생들을 유능한 해병으로 키워낸다. 그는 자체의 힘으로 함선건조를 해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깊이 새기고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물리치고 끝끝내 성공하고야만다. 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해군기지 기지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습격전투에 자기 아들을 서슴없이 떠나보내며 전투에서는 조국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준다. 그후 습격전투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들에 대하여 정민은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고귀한 생을 바친 장한 아들로 여기며 자기 역시 40호구역을 기뢰로 봉쇄하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는 전투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자라난 전사는 그 사랑과 믿음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충정으로 보답해야 한다는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76(1987)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먼 대양》 단편소설. 주체84(1995)년 김정남 창작. 대양을 항행하는 무역짐배의 길잡이를 하는 수로안내원의 보람찬 생활을 보여준 작품이다. 수로안내선 갑판원 순필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에 대양을 항행하는 무역짐배에서 청춘시절을 보람있게 보내리라 생각하고 항해전문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무역짐배들의 길잡이를 하는 수로안내선의 갑판원이 되자 무역짐배 선원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도 맡은 일에서 혁신을 일으키리라 마음다진다. 순필의 배에 오르군 하는 수로안내원 명훈은 해운대학 항해과를 졸업하고 안내원으로 배치되나 직업에 대한 영예감을 가지고 충실히 일한다. 그러나 순필은 항해과까지 나온 명훈이가 수로안내원이 된데 대하여 의문을 가진다. 명훈과 함께 《장자산청년》호를 안내하러 나가면서 순필은 예상했던것보다 험악해진 바다를 보며 주저한다. 명훈은 순필을 도와 갑판에 얼어붙은 얼음을 까내면서 무역짐배를 타야만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필에게 대양은 멀리에 있지만 그 먼 대양이 무역짐배의 길잡이를 하는 우리들의 가슴에 안겨있다고 생각하면 이 생활이 보람찬것으로 느껴질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험한 파도와의 싸움에서 명훈은 끝내 안내선에서 무역짐배에 오르며 승선기발을 띄운다. 순필은 비로소 가슴에 대양을 안고사는 자기의 생활이 얼마나 보람찬가를 느끼게 된다. 소설은 무역짐배의 길잡이를 하는 생활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이라는것을 보여주면서 직업에 따라 영예가 따로 없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84(1995)년 2호〕

《먼바다》 단편소설. 주체76(1987)년 현희균 창작. 위대한 수령님께서 먼바다에 나가서도 고기잡이를 할수 있는 대형선박을 새로 제작하는 한 기계공장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신 이야기를 담고있는 작품이다. 박민우지배인은 자기네 공장에서 만든 기관에 결함이 있어 그 기관을 설치한 배가 시험항해에서 실패한 일을 두고 고민한다. 그리고 부상인 선우영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대형고기배생산이 우리 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적어도 특수부분품의 생산체계만이라도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정길을 비롯한 로동자들과 어로공들속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자는 목소리가 울려나온다. 이러한 때에 공장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구체적인 형편을 료해하신 다음 여기서 론의되는 문제는 물고기문제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민족장래의 사활적인 문제의 하나로 된다고 하시면서 힘들다고 물러서면 후대들까지 우리를 원망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실지로 배를 타는 어로공들의 작업과정을 통해 열구기관의 성능을 검사하고 결함을 퇴치할데 대한 명철한 방도까지 제시하신다. 이렇게 되여 대형선박제작은 성공하며 우리 인민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보다 큰 전망이 열리게 된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해 인민생활향상에 바쳐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탁월한 령도에 대하여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일반화하고있다. 〔단편소설집 《우러르는 마음》, 문예출판사, 주체76(1987)년판〕

《먼산의 노을》 영화문학. 박호일 창작.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깊은 산중에서 안전한 통신보장을 위해 자기의 청춘을 묵묵히 바쳐가고있는 한 초기복무사관과 그의 안해의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제대명령에 대학추천까지 받은 리석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복무를 계속할것을 결심한다. 이것을 알게 된 성금은 그와 일생을 같이할 지향을 안고 찾아온다. 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구원해준 성금을 이전부터 잘 알고있던 리석은 약학연구소에서 일하는 도시처녀를 자기때문에 희생시킬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성금은 가지고온 례장감으로 병사들을 위한 염소를 마련하고 공민증에 결혼등록까지 한다. 이렇게 되여 그들은 결혼식상도 받지 못한채 살림을 펴게 된다. 세월은 흘러 아들이 유치원에 가게 되였을 때 리석은 부대의 통신보장을 위해 제일 어려운 구간인 무두봉으로 옮겨갈 결심을 한다. 염소기르기에만 열중하면서 일시적이나마 약초연구사업도 단념했던 성금은 현재생활에 만족을 느끼면서 남편의 결심을 선뜻 지지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성금은 아들 용남이와 함께 본가집에 가있게 된다. 외진 무두봉초소를 혼자서 지켜가던 리석은 어느날 독감에 걸린 몸으로 쏟아지는 비발속을 헤치며 통신선로를 순찰하던중 벼락을 맞은 나무가 넘어지며 통신선로를 끊어버린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전주에 올라 끊어진 통신선을 이었으나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정치위원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성금은 자신을 깊이 뉘우치게 되며 리석과 함께 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간다. 그후 부대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부대의 전투력과 군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남모르는 수고를 바쳐온 주인공부부의 소행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이들이야말로 누릴수 있는 모든것을 다 바쳐 심산초소에서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선군에 이바지해온 우리 시대의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며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신다. 작품은 외진 산중초소에서 선군의 노을을 피워올리는 리석과 성금의 형상을 통하여 선군시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군의 덕을 누리기만 할것이 아니라 선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여야 한다는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93(2004)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먼저 찾아요》 가사. 주체90(2001)년 류동호 창작.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시대의 지향과 념원을 노래한 작품이다. 3개 절과 후렴구로 되여있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다정하고 화목한 친형제처럼 인민은 군대를 먼저 찾고 군대는 인민을 먼저 찾는 정서적화폭을 통하여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서로 먼저 찾으며 군민의 뜨거운 정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받들어나가는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현실을 잘 보여주고있다. 가사의 3절과 후렴구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군대와 인민은 눈보라도 불비도 함께 헤치며 내 조국을 지키는 한길에서 언제나 한마음으로 군민일치를 아름답게 꽃펴가고있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가사는 누구나 목격하고 체험하는 친숙한 생활감정을 평이하고 통속적인 언어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으며 《먼저 찾아요》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우리 시대의 참모습, 선군시대에서만 느낄수 있는 생활정서가 짙게 풍기게 하고있다. 〔《조선노래대전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먼 후날》 중편소설. 주체78(1989)년 김정길 창작. 헌신적인 노력과 깨끗한 량심을 바쳐 폐갱직전에 이른 탄밭을 다시 살려내는 청년탄부들의 투쟁을 보여준 작품이다. 혁신자로 소문난 청년채탄소대장 강대억과 탐측기사 윤심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다. 윤심은 전망이 좋은 새 탄밭을 찾아내며 강대억은 그곳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런데 채탄이 한창 진행되던 그 탄밭에서 갑자기 물이 새여나온다. 윤심은 사고를 우려하면서 폐갱시킬것을 요구하며 갱장도 사고가 생기면 지금껏 쌓아올린 성과가 무너지는것이 두려워 대억에게 다른 탄밭으로 옮길것을 지시한다. 그러나 대억은 그 탄을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면 후대들앞에 얼굴을 들수 없고 한생토록 량심에 가책될것이라고 하면서 채탄을 그냥 내밀다가 사고를 낸다. 사고심의회에서 대억은 자기가 사고책임을 맡아나서면서도 그 탄밭을 그냥 버릴수 없다는 립장을 취한다. 그의 이러한 태도에서 가책을 받은 윤심은 새 탄밭을 찾은 기쁨에 도취되여 탄벽에 비친 물기를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결과를 발표했던 자신의 비량심적인 행동을 전체 탄부들앞에서 솔직히 털어놓고 반성한다. 그후 그들은 물이 나오는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애쓰다가 그 물기가 바로 강줄기가 지하로 흘러들어 생긴것임을 확인하며 서로 힘을 합쳐 물줄기를 돌리고 탄밭을 다시 살려낼 방도를 찾아낸다. 이러한 투쟁속에서 강대억과 윤심의 사랑은 더욱 참되고 아름다운것으로 꽃펴난다. 소설에서는 사람은 먼 후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떳떳이 말할수 있도록 량심적으로 살아야 하며 그렇게 사는것이 우리 시대 청년들의 모습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8(1989)년판〕

《먼 후날의 나의 모습》 영화문학. 위웅용 창작. 평양의 대외봉사기관에서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한 청년이 대홍단군종합농장

으로 자원진출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인생의 먼길우에 금별을 수놓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영화의 주인공 신준은 새 세대 청년으로서의 참다운 자각을 안고 대홍단군종합농장으로 떠나면서 자기에게 청춘의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우쳐준 한 처녀에 대하여 생각한다. 그 처녀의 이름은 수양, 신준이가 그를 알게 된것은 비오는 날 밤 어느 한 도로에서였다. 그후 수양이가 속도전청년돌격대의 미장소대 소대장이라는것을 알게 된 신준은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국제관계대학입학을 지망하는 자기와 미장소대장은 너무도 아득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 그는 어머니의 힘을 빌어 수양이를 상업대학에 보낼 결심을 가지고 그를 찾아간다. 수양이가 고향인 대홍단군을 꽃피울 일념안고 집으로 떠나자 신준은 휴가를 받아 대홍단군으로 간다. 그는 수양에게 온갖 조건이 다 갖추어진 평양에 가 행복을 누릴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수양은 신준의 사랑의 고백을 단호히 거절해버린다. 자기의 뜻을 실현하지 못한 신준은 수양이와 그의 동무들이 평양견학을 왔을 때 자기 집에 초청하여 수양이가 행복한 생활조건을 직접 보고 마음을 돌리도록 하려고 애쓴다. 우리 집에는 수양이를 행복하게 해줄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있다고, 이 집의 외아들인 자기와 가정을 이루면 이 모든것들이 우리의것이 된다고 하는 신준에게 수양은 이 집은 속도전청년돌격대시절에 자기들이 지었다고, 이 집에 있는 모든것은 부모의 공적으로 이루어진것이지 동무의것이 무엇인가고, 부모의 공적과 자기의 공적을 갈라볼줄 알아야 한다고 준절하게 이야기한다. 수양의 모습을 통해 자기를 깨달은 신준은 애국렬사인 외할아버지의 붉은 피가 스며있는 대홍단군종합농장으로 자원진출할 결심을 다진다. 생소한 북방에서의 생활은 신준에게 있어서 힘에 겨웠지만 그는 농장의 종합적기계화에 절실히 필요한 연료를 만들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 과정에 모험으로 사고까지 내지만 그는 남에게 의지하여 얻은 행복은 고생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며 계속 노력한다. 마침내 신준은 수양을 비롯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밑에 연료를 연구하고 첫 시험에서 성공한다. 그날 신준은 언제인가 이 땅우에 너의것이 무엇이 있는가고 물었던 수양에게 기름진 이 땅, 풍요한 이 가을, 내 조국의 먼 미래가 바로 나의것이라고 긍지에 넘쳐 말한다. 작품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새 세대 청년들에게 이 땅우에 이루어진 값높은 재부중에서 너의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고있다. 작품은 주체86(1997)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멀리 있는 섬》 영화문학. 김창수, 한상대 창작. 외진 등대섬에서 몇명 안되는 학생들을 위해 성실한 노력으로 한생을 바쳐가는 한 녀교원의 생활을 보여준 작품이다. 해안인민학교 교원인 혜영은 등대섬분교에 나가있던 대학동창생 미숙을 대신하여 한달동안만 등대섬아이들을 가르칠 과업을 받고 등대섬으로 찾아온다. 배멀미를 심하게 하면서 고생스럽게 찾아왔지만 한적한 섬생활과 2명밖에 안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은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는 세상밖으로 저혼자 던져진것 같은 고독감까지 느낀다. 뭍으로 나가면 부모님들에게 함께 인사하러 가기로 하고 기다리는 명수에 대한 생각도 못 견디게 마음을 들추어놓는다. 이때 갈매기알을 대접하겠다고 학생 정남이가 절벽에 오르던중 그만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다. 혜영이 떠나갈 날이 되여오자 섬사람들은 섭섭해하면서도 그를 성의껏 돌보아준다. 드디여 한달기간의 섬생활을 마치고 본교로 돌아온 혜영은 다시 교대하여 섬으로 나가게 되여있던 미숙이가 결혼을 하고 평양으로 남편을 따라 가게 되였다는 소식에 접하게 된다. 혜영은 평양에 가서

교편을 잡는것이 꿈이고 리상이였지만 교원을 안타까이 기다릴 등대섬아이들을 위해 다시 섬으로 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등대섬으로 다시 온 다음 인정많은 섬사람들과 아이들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관심하고계시는 등대섬이 조국땅 한끝에 있는것이 아니라 장군님의 제일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섬생활에 정을 붙여나간다. 그가 뭍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다못해 애인인 명수가 찾아온다. 이젠 확답을 달라고 하는 명수에게 혜영은 자신은 등대섬을 뜰수 없다면서 단념해달라고 한다. 그러나 명수는 왜 혜영이가 이 머나먼 등대섬에 한생을 묻을 생각을 했는지 안다고 하면서 해운부로 소환되여가게 되였던 자기의 발걸음을 그가 있는 등대섬으로 옮길것을 결심한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혜영은 20명에 가까운 제자들을 키워낸 오랜 교원,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였다. 어느날 교구비품을 가지려 평양에 갔던 그는 미숙으로부터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최전연분교로 가서 교편을 잡고있는줄로 알고있던 제자인 옥주가 유희장에서 판매원을 한다는 뜻밖의 말을 듣게 된다. 그 말이 사실임을 확인한 그는 려관으로 손맥이 풀려 돌아온다. 그런데 한 녀성군관이 찾아와 옥주를 만나게 하여주고 그가 최전연 섬분교 학생들의 자연관찰수업을 섬에 나가 하다가 적함선에서 불의에 날아온 포탄에 다리를 상하여 불구로 되였다는것과 최전연을 시찰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옥주를 만나주시고 그의 소행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는것을 이야기해준다. 옥주에게서 섬학교 교원인 혜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역시 훌륭한 제자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는 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는 소식에 접하였을 때 혜영은 그리도 장군님곁에서 살고싶어하던 자신의 소원과 희망이 다 풀리였음을 가슴뿌듯이 느낀다. 작품은 깨끗한 량심과 의리를 지닌 사람이라면 아무리 멀고 외진 곳에 있어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까이에서 빛나는 삶의 위치를 정하게 된다는 심오한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인공의 심리변화과정을 섬세하게 파고들어 생활을 흥미있게 보여준 특성을 가지고있다. 작품은 주체87(1998)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명령》 단편소설. 주체42(1953)년 리종렬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적후정찰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고 돌아오는 습격조원들의 영웅적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정전을 앞두고 공격준비에 미쳐날뛰는 원쑤들의 음모를 사전에 분쇄할데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방침에 따라 련대는 뻬꾹산을 하루속히 점령하라는 명령을 상급참모부로부터 받는다. 이 작전을 위하여 련대는 8명의 습격조원들에게 적 포병장교놈을 사로잡아올데 대한 임무를 준다. 습격조원들은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 잠복초소를 까부시고 작전지도가 들어있는 야전가방을 탈취하였으나 적의 추격을 받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순간 습격조장은 나어린 영수와 박동무에게 적들을 유인하는 동시에 련대에 야전가방을 전달할데 대한 임무를 준다. 긴박한 정황속에서도 영수는 기민하고 대담한 행동으로 적들을 유인하고 야전가방을 련락지점에 전달한 다음 심한 치명상을 입게 되나 돌아오는 습격조를 적들의 지뢰원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 또다시 적진으로 들어간다. 영수의 희생적인 행동에 의하여 습격조는 적장교놈을 앞세우고 부대로 돌아온다. 작품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하는 인민군전사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단편집》 2, 문예출판사, 주체67(1978)년판〕

《명령》 단편소설. 주체50(1961)년 전주설 창작. 치욕스러운 《국군》살이에 환멸을 느낀 한 괴뢰군장교가 민족의 량심을 지켜 옳은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미군사고문의 중대검열을 앞두고 예비검열에 나온 련대장놈의 명령으로 중대장 박종서 대위는 사병들을 정렬시켰으나 동원된 인원과 도주자가 많아 정원수의 절반도 차지 않을뿐아니라 옷주제도 말이 아니였다. 미군사고문의 검열평정서가 곧 전급 아니면 강직이라는것을 잘 아는 련대장놈은 당장 모든 인원을 찾아놓으며 무더위를 참을수 없어 대렬에서 땀을 씻는 최형초에게 기합을 넣도록 명령한다. 그로 말하면 고등학교시절 제 피를 팔아 모자라는 종서의 등록금을 보태준 옛친구로서 몇해동안 징병을 기피해다니다가 한달전에 체포되여 끌려온 사병이였다. 이러한 때 사단의 미군사고문단성원중 제일 나어린 해리슨중위가 내려온다. 종서는 자기보다 직급이 훨씬 낮은 해리슨에게 코가 땅에 닿도록 굽신거리는 련대장놈의 몰골과 사병들의 배낭속에 들어있는 비상식량인 닭은 통강냉이를 미국에서는 소나 말에게만 먹인다고 하면서 형초에게 강제로 먹이려드는 해리슨의 오만한 행동을 보면서 민족적수치와 모멸감을 느낀다. 그리하여 그는 량심을 지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문관에게 맞서는 형초를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중대집합명령을 내린다. 소설은 굴욕적인 괴뢰군살이와 단호히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하는 주인공의 성장과정을 진실하게 그려보이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0(1961)년 제79호〕

《명령》 단편소설. 주체77(1988)년 한웅빈 창작. 광복거리건설에 동원된 건설자들의 생활을 통하여 명령이란 말의 참뜻을 형상적으로 밝힌 작품이다. 광복거리건설장의 거창한 주택설계와 봉사망설계를 담당하고있는 설계실에서 일하는 나－리학민설계가는 설계실장을 매우 소심하고 어리무던한 사람으로 여긴다. 사업을 포치할 때나 개별적으로 일을 맡길 때나 언제한번 명령조로 말한적 없고 미안한 부탁을 하듯 말하는 설계실장은 자기가 주는 지시에 대하여 리유와 구실을 내댈 때에는 강한 요구성이 아니라 과제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하여 지루할 정도로 길게 설명하며 못한 일을 두고서도 리유를 따지거나 충고하지 않고 또다시 그 대상의 중요성과 절박성에 대한 설명을 길게 늘어놓기만 할뿐이였던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도중에 제기된 시급한 문제들로 하여 저녁중으로 끝내야 할 가열장설계를 완성하지 못하였지만 동무들과 한 약속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음날로 미루려고 한다. 이때 설계도면을 인수하러 온 애어린 인민군전사는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서는 돌아갈수 없다고 하면서 나가 설계를 끝낼 때까지 오래도록 기다린다. 명령수행에서는 그 어떤 사소한 리유나 구실도 있을수 없다고 여기는 인민군전사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정신세계앞에서 나는 명령이란 말의 의미를 새삼스레 깨닫게 되며 설계실장의 부드러운 말속에도 엄격한 요구가 담겨져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소설은 간명한 인간관계와 째인 구성조직, 개성적인 인물형상을 통하여 할수 있는것을 하는것이 명령이 아니라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것이 명령이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새겨가고있는 광복거리건설의 영웅적인 력사는 날마다 제기되는 모든 과업을 드틸수 없는 당과 수령의 명령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관철하고야마는 건설자들의 명령집행에 대한 무조건성의 산물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77(1988)년 6호〕

《명령－027호》 영화문학. 리상욱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적후에 들어가 대담하고 령활한 전투행동으로 맡은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조선인민군 한 정찰조의 투쟁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전선에서 아군의 드센 타격을 받은 적들은 우리의 후방을 교란할 목적으로 새로운 특수부대를 만든다. 후방에서 훈련을 하며 새 전투임무를 기다리던 철우를 조장으로 하는 정찰조는 적특공대본부에 침

투하여 《석류꽃》이라는 대호를 가진 아군정찰병과 접선한 다음 놈들의 특수부대를 타격하며 전투력을 마비시키는 한편 특수부대 참모부를 습격하여 아군지역에 투하된 놈들의 위치를 알아낼데 대한 전투임무를 받고 적후로 파견된다. 려객렬차를 리용하여 적후로 들어가던 정찰조는 뜻하지 않은 정황으로 로출되게 된다. 《석류꽃》과의 첫 접선에서 실패한 정찰조는 산발을 타고 시간당 30리의 속도로 달려 두번째 접선장소인 영천역으로 간다. 힘겨운 강행군을 하던 정찰조는 산속에서 적특공대놈들과 맞다들리게 된다. 펄펄나는 싸움군으로 준비된 봉남이와 영근, 창현이들은 수십명의 적특공대놈들을 드센 주먹으로 쓸어눕힌다. 한편 인민군정찰병들이 침투했다는 통보를 입수한 적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을 생포하려고 발악한다. 역전다방에서 적특공대놈들과 맞다든 정찰조원들은 평시에 련마한 드센 주먹과 민첩한 행동, 백발백중의 사격술로 놈들을 통쾌하게 족치고 적의 특수부대에서 군의로 있는 《석류꽃》—은하와 접선한다. 은하는 인민군정찰조의 출현과 함께 역전다방에 나타났던것으로 하여 놈들의 의심을 받게 되였지만 적들이 참모부를 옮기고 있다는것을 알고 또다시 적의 소굴로 들어간다. 적들의 특수부대 훈련장교인 장영달은 모든 사태로 미루어보아 은하에게 의심이 가자 그를 체포하려고 한다. 참모부의 이동위치를 알아낸 은하는 달려드는 적들을 쳐갈기고 빠져나온다. 은하를 통하여 적들의 행동계획을 알게 된 철우와 그의 조원들은 대담한 행동으로 적비행장을 습격하며 적들의 문건을 탈취한다. 전우들을 엄호하다 중상을 입은 철우는 참모부놈들이 탄 직승기에 매달리여 반전차수류탄으로 비행기를 폭파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작품은 인민군정찰병들의 훌륭한 타격술과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보여주면서 전사가 받은 명령은 곧 조국의 믿음이고 당의 명령이며 그것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데 전사의 빛나는 영예와 값높은 삶이 있다는것을 밝혀내고있다. 작품은 주체75(1986)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명령만 내리시라》 영화문학. 조순철 창작.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주문진앞바다에서 세계해전사상 특기할 영웅적위훈을 세운 용감한 인민군해병들의 투쟁을 보여준 작품이다. 이른새벽 해군사령부에서 명령을 받은 정대장 근혁은 정대의 어뢰정 4척을 은폐시킬것을 지시한다. 전사들은 전전선에 걸쳐 인민군부대들이 노도와 같이 진격하고있는 때 자기들만이 은폐지에 갇혀 전투마당에 뛰여들지 못하고있는것을 해군의 수치로 생각하면서 정대장에게 적군함을 까부실 명령을 달라고 안타깝게 호소한다. 이 시기 미제는 제놈들의 처지를 수습하여보려고 잔꾀를 부리면서 바다의 《떠다니는 섬》으로 불리우는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기함으로 하는 방대한 분함대를 들이밀어 진격하는 인민군대를 뒤로부터 포위하려고 한다. 력량상 비할바없이 우세한 적들과의 싸움을 앞에 놓고 근혁을 비롯한 해병들은 모두가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적을 치겠다는 공격정신으로 가슴 불태우며 명령이 내리기만을 기다린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친히 전화로 근혁을 부르시여 그에게 적들과의 싸움에서 병사는 살아도 죽어도 승리자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놈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사상과 전략전술적우세로 짓뭉개버릴데 대하여 교시하신다. 근혁을 비롯한 해병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교시대로 여러가지 전술을 써가며 적들을 공격한다. 그들은 어뢰가 떨어지자 화약을 어뢰정앞에 싣고 육탄으로 돌격하여 적들의 군함을 까부시고야만다. 또한 무전수는 무전기가 파괴되자 불에 타는 다른 어뢰정에 헤염쳐가 기어이 전투보고를 하고 장렬하게 희생된다. 드디여 해병들은 적들의 분함대를 격

침, 격파하는 영웅적위훈을 세운다. 그들의 영웅적투쟁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세계해전사에 없는 기적적인 위훈을 우리 조선사람들이, 우리 해병들이 세웠다고 하시며 그들을 영웅으로 높이 내세워주신다. 작품은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불패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그 어떤 적들도 일격에 소멸할수 있게 준비되여있다는 힘있는 설화로써 끝맺고있다. 작품은 위대한 령장을 받들어모시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돌격침로를 따라 육탄정신으로 나아갈 때 평범한 전사도 기적을 낳는 영웅으로 된다는 심오한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작품은 주체85(1996)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명령은 하나밖에 받지 않았다》(1막 2장) 희곡. 한태천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부대의 전투임무수행에 무한히 충실하였던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락동강류역의 어느 강안에서 교두보를 차지하고 아군의 도하를 보장할데 대한 전투명령을 받은 전기선소대장이 지휘하는 소대는 한주일째나 적의 포위속에서 어려운 나날을 보낸다. 이때 적들의 대부대가 이동한다는 정보가 들어오자 일부 대원들은 교두보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으니 빨리 포위망을 뚫고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인민군군관으로 가장한 적간첩놈이 기여들어와 소대가 교두보에서 철수하라는 상급의 명령이 있었다고 꾸며내여 대원들에게 사상적동요를 일으키려고 책동한다. 그러나 기선소대장은 나는 상부로부터 교두보를 점령하고 아군의 도하를 엄호보장하라는 명령밖에 받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대원들을 명령집행에 대한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한편 높은 경각성과 예리한 판단으로 적간첩놈의 정체를 발가내고 그놈을 처단한다. 간고한 정황속에서 소대와 부대와의 련락이 이어지고 소대는 아군의 도하를 보장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한다. 작품은 인민군 한개 소대가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간단한 이야기를 통하여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인민군용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무비의 용감성, 대중적영웅주의를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또한 주인공인 전기선소대장의 형상을 통하여 모든 일에 심중하고 침착하며 결단성이 있고 전투임무수행에 끝없이 충직한 인민군지휘관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하고있다. 작품은 째인 극구성, 함축된 대사조직, 짧은 극형식에 여러가지 극적인 생활을 반영한것 등으로 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투적인 극문학발전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되였다. 작품은 주체41(1952)년에 연극으로 창조되였다.

《명줄》 영화문학. 오혜영 창작. 작품은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국내의 한 무장부대를 지도하던 유격대공작원이 엄중한 과오를 범하고 사령부로 호송되던 도중 호송인원들까지 희생되는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참된 의리와 량심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있다. 1940년대초 국내의 한 비밀근거지에서는 조국해방의 대사변시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에 합세하여 전민항쟁의 불길을 지펴올릴 사명을 지닌 무장대의 한 부대가 일제의 《토벌》에 막대한 손실을 입는 가슴아픈 사태가 벌어진다. 유격대공작원인 주인공 박진석의 주관과 무경각한 행동이 적밀정에게 역리용당하는 수치와 무장대의 전멸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였던것이다. 목숨으로도 보상할수 없는 과오를 범한 박진석의 앞에는 혁명의 준엄한 판결이 기다리고있었다. 꿈결에도 그리며 달려가고싶던 사령부로 무장해제당한채 죄인이 되여 호송되여가던 그는 심한 정신적번민에 휩싸인다. 그는 어

린시절의 스승이였던 지하조직책임자 림시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 포로되여 그가 내세운 조직원을 료해도 없이 폭약구입에 인입시킨 자신의 무경각한 처사와 그로 하여 로출된 비밀근거지의 커다란 손실을 뼈아프게 되새겨본다. 용서받을수 없는 그를 두고 적들까지도 그가 명줄을 잇는 길은 귀순하는 길뿐이라고 지껄인다. 걸음걸음이 괴로움으로 이어지던 행군도중 박진석은 적들과의 조우전에서 자기를 호송하던 두 전우를 잃게 된다. 그는 홀로 사령부를 찾아 눈보라 휘몰아치는 산길을 헤쳐나간다. 그러던 도중에 의식을 잃고 강로인의 집으로 업혀온 그는 거기에서 비밀근거지에서 헤여졌던 애인인 초야를 만나 사령부로 가는것을 삼가하라는 림시원의 편지를 받게 된다. 초야도 기약할 길 없는 그 길로 진석을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처형을 받아도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기어이 찾아가겠다고, 그것이 혁명가로서의 명줄을 잇는 길이라고 하며 길을 떠난다. 화전골에서 앞길을 막아나서며 혁명의 도피를 설교하는 림가의 궤변을 단호히 짓부시고 어려운 길을 헤쳐 진석은 끝끝내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다. 작품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혁명가의 고귀한 생명은 수령에게 운명과 미래를 맡기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충정의 의리와 량심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때 이어지고 영생하게 된다는 사상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작품은 주체88(1999)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명예》 단편소설. 주체81(1992)년 림병순 창작. 로동계급의 명예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믿어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을 감동깊게 형상한 작품이다. 정무원회의에 참가했던 기계공장 지배인 송두진은 광산에서 쇠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원인이 자기 공장에서 만들어보낸 회전식착정기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광산으로 찾아간다. 광산지배인 리근태는 두진을 만나자 회전식착정기때문에 애를 먹는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성능높은 회전식착정기를 사오려고 문건을 냈다고 말한다. 이때 광산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착정기상태를 료해하시고 일군들부터 우리 착정기에 대한 립장을 바로가져야 한다고 하시며 착정기를 가지고 생산경기를 조직하도록 해주신다. 그후 그 결과를 보고받으신 그이께서는 기대공들이 운전하면 가동률이 올라간다는것은 그 요인이 사람에게 있다는것을 말해준다고 하시면서 우리 식의 착정기를 완성하여야 한다고 고무해주신다. 그러시면서 전쟁시기나 전후시기에 당이 아파하는 문제를 스스로 풀어준 동무들을 당에서는 잊지 않고있다고 크나큰 믿음을 주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의 로동계급은 간고한 투쟁으로 우리 당을 받들고있다고 하시며 신심을 가지고 착정기생산을 밀고나갈데 대한 과업을 주신다. 소설은 착정기를 믿기 전에 먼저 로동계급을 믿으시고 락천의 영예를 지키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뜨거운 인간애를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81(1992)년 2호〕

《명예는 대지에 새기라》 단편소설. 주체80(1991)년 변우순 창작. 새 세대 농업근로자로서의 시대적사명감과 본분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며 명예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한 작품이다. 분조장 원길은 농업근로자의 본분과 명예는 대지에 성실한 노력과 깨끗한 량심을 바쳐 풍작을 안아오는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진심을 바쳐 아글타글 일할뿐아니라 손김매기실적은 물론 분조의 영농사업을 사실그대로 보고한다. 그러나 옥화분조장은 원길분조장과는 달리 상부에 잘 보이고 칭찬을 받으면 된다는데로부터 길가의 논밭은 잘 다루지만 구석진 곳들은 그대로 묵여두어 결국 남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만 실

적평가에서는 원길의 분조보다 옥화네 분조가 늘 앞선다. 원길의 애인인 통계원 진심은 실지는 일을 실속있게 하고 더 많이 하면서도 원길의 분조가 옥화네 분조보다 뒤떨어지는것으로 평가되는것이 안타까와 왼심을 쓴다. 가을철이 오자 원길의 분조는 정당 최고수확을 내며 좋은 작황을 마련한다. 높이 쌓아올린 원길이네 분조의 곡식낟가리를 바라보면서 옥화분조장과 작업반의 명예를 귀중히 여긴다며 그를 두둔한 작업반장 고달성은 땅에 진심을 바쳐가며 주인답게 일하지 못한 자신들을 깊이 뉘우친다. 소설은 주인공 원길의 형상을 통하여 농촌의 새 세대들의 참다운 삶과 명예는 대지우에 깨끗한 량심을 묻고 주인다운 립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알곡수확고를 끊임없이 높여가는데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80(1991)년 제34호〕

《모국어》 단편소설. 주체85(1996)년 김종석 창작. 한 해외교포의 수기를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보여준 작품이다. 광주인민봉기진압상을 목격한 뒤 저주로운 남조선사회와 결별하고 해외로 이주하여 외국어로 상품소개문이나 개족보를 쓰는 일을 하고있던 주인공은 어느날 식당에서 일하는 딸로부터 인디아의 한 철학교수가 자기를 만나고싶어한다는 말을 듣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의아해진다. 그날 저녁 딸애와 함께 집에 온 네일스라는 인디아학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20세기의 공산당선언이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을 연구하고있는 자기네 학회성원들이 널리 학습할수 있도록 로작원문(조선말)을 번역해줄것과 자기들에게 조선말강의를 해줄것을 부탁한다. 이제껏 극심한 민족적모멸감속에서 살아오던 주인공은 자기가 다름아닌 조선사람이기때문에 외국인이 찾아오고 조선말을 알고싶어하는 이 현실앞에 큰 충격을 느낀다. 주인공은 모국어, 조선말을 세상에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무한한 흠모의 정에 휩싸인다. 소설은 해외교포의 시점에서 세상에 존엄높은 조선민족의 긍지와 영광은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데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85(1996)년 2호〕

《모닥불》 단편소설. 주체71(1982)년 로정법 창작.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앞장에서 이끄는 한 리당비서의 모습을 통하여 일군들이 지녀야 할 사업방법과 작풍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한 농장의 관리부위원장인 김윤상이가 취재나온 작가에게 자기네 리당비서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자신과 대비하여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씌여졌다. 모내기철에 리당비서는 자신이 먼저 아침밥을 싸가지고 신새벽에 포전에 나가 모내기를 앞당기기 위한 새벽전투에로 사람들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는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강연에 출연한 뒤에는 자신이 담배를 끊는데서 모범을 보인다. 김매기철에 윤상은 온종일 뛰여다니면서 사람들을 들볶아대지만 리당비서는 휴식시간에 이야기식경제선동으로 사람들이 김매기를 질적으로 하도록 이끈다. 새땅찾기운동때 비오는 속에서 윤상은 계획을 빨리 끝내고 들어가자고 호소하기만 하고 비에 성냥과 나무를 다 적시고 불을 못 피워 일한 사람들이 휴식시간에조차 떨게 만든다. 그러나 리당비서는 불피울 준비와 후방조직사업을 미리 하고 나와 자기가 맡은 작업반사람들이 모닥불에 몸을 녹이고 더운 우유로 몸을 덥히면서 사기를 높이도록 한다. 윤상은 그때 리당비서가 준 성냥을 품고오면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전에 자기의 가슴속에서부터 먼저 불을 지피리라고 속다짐한다. 소설은 지도일군들의 심장이 먼저 불타 불씨로 되여야 대중속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의 불길을 지필수 있다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71(1982)년 7호〕

《모닥불》 단편소설. 주체85(1996)년 전창철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한 의용군병사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우리 인민군대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보여준 작품이다. 남조선사회에서 약방가게를 운영하다가 처자를 잃고 원쑤를 갚기 위하여 의용군에 입대한 나—박형근이 행군중에 있는 중대에 도착했을 때 분대장은 나어린 전사 조이철에게 나를 잘 도와주라는 지시를 준다. 행군도중 이것저것 묻는 나에게 조이철은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된다고 주의를 주기도 하고 어려울 때 동무들의 방조를 받을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나의 배낭까지 메고 걷기도 한다. 행군을 시작한지 사흘째 되는 날 어느 시내가근처에서 나와 조이철은 분대식사준비로 떨어졌는데 나는 인차 불을 살리지 못한다. 그러나 조이철은 모닥불도 동무가 많아야 잘 핀다는 의미깊은 말을 하면서 쉽게 불을 피워낸다. 나는 나이는 어려도 뜨거운 인정미와 남을 먼저 위해주는 정신세계를 지닌 조이철을 새롭게 보게 된다. 그날 밤 그들이 속한 중대는 적배후로 진출하여 치렬한 전투를 벌린다. 1소대방향으로 련락임무를 받고 탄우속을 헤쳐가던 나와 조이철은 불의의 정황에서 적화염방사수들과 조우한다. 여기서 조이철은 자기 한몸을 바쳐 나를 구원하고 희생된다. 소설은 한 의용군전사가 인민군대 입대후 짧은 생활기간에 개인주의적생명관에 비한 집단주의적생명관의 우월성을 체득하게 되는 과정을 진실하게 그려내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5(1996)년 6호〕

《모란봉》 서정시. 주체35(1946)년 김조규 창작. 모란봉을 통하여 새 조선의 굽힐줄 모르는 기상과 광활한 미래를 랑만적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모란봉이 우리 인민의 슬기와 힘을 간직하고있다는것을 강조하면서 력사의 모진 시련속에서 불굴의 기상을 빛내인 우리 인민의 자랑찬 력사를 시적으로 일반화하고있다. 시에서는 모란봉을 포악한 왜장이 네 성밑에서 무릎을 꿇었고 대양을 건너온 《셔먼》호가 네 기슭에서 불타버렸으며 왜적이 조국의 력사를 더럽힐 때에는 원쑤의 눈을 피해 모이던 젊은이들의 집회장이였다고 노래하면서 새 민주조선의 창창한 미래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을 담아 토로하고있다. 시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새 조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따라 넓은 력사의 큰길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우리 인민들의 용솟음치는 창조적열정과 투지, 휘황한 조국의 미래에 대한 랑만적열정이 흘러넘치고있다. 시는 시인의 깊은 사색에 기초한 사상의 웅건성과 폭넓고 깊이있는 시적 일반화를 보여주고있으며 시형상에서 랑만적 색채가 진한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김조규시선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9(1960)년판〕

《모란봉》 장편소설. 주체72(1983)년 김원종 창작.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평양인쇄공장 로동자들이 지하당조직의 지도밑에 근위대를 조직하고 과감한 지하투쟁을 벌려 적들을 공포와 혼란에 몰아넣고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줌으로써 전쟁승리에 이바지한 영웅적투쟁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인쇄공장 문선공이였던 주인공 서경림은 평양에서 신문의 마지막호를 찍어내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부상당한 기계공 김영세와 함께 적후에 떨어지게 된다. 원쑤들의 강점으로 인하여 후퇴의 길이 막혀 부득이 적후에 떨어지게 된 그들은 덕흥인쇄소에 은신하여있으면서 지하당조직과의 련계를 맺는다. 그들은 적후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력사적인 방송연설을 접하고 새로운 신심과 투쟁의욕에 불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적후투쟁을 벌릴데 대한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서경림과 김영세는 인쇄부문 로동자들로 모란봉근위대를 뭇고 지하인쇄소를 꾸려 삐라를 찍어 살포함으로

써 적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준다. 이 투쟁속에서 주인공 서경림은 소박하고 평범한 문선공으로부터 강의한 의지와 대담성을 지닌 영웅전사로 자라난다. 그는 지난날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던 가난한 로동자의 딸이였던 자기를 우리 당 기관지의 어엿한 문선공으로 키워주시고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을 가슴깊이 새기고 온갖 고통과 시련을 묵묵히 이겨내면서 굴함없이 싸워나간다. 근위대의 조직자이며 당원인 김영세가 적과의 싸움에서 조직을 위험으로부터 구원하고 희생되자 원쑤들에 대한 천백배의 적개심과 복수심을 가다듬은 서경림은 지하인쇄소의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부닥치는 엄혹한 시련을 맞받아헤쳐나가며 파괴된 인쇄소를 다시 꾸려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찍어내는데 성공한다. 한편 서경림은 근위대원들인 전홍지, 황정근 등과 함께 미제의 어용출판물에 대한 파괴공작임무를 수행하며 삐라살포투쟁도 적극 벌려나간다. 이로 하여 원쑤들은 평양에 일시적으로 기여들었으나 인민들의 영웅적항전에 부딪쳐 단 하루도 발편잠을 자지 못하고 도처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 지하당조직의 지도밑에 시내곳곳에서 수많은 근위대원들이 적의 지휘부와 군사대상물들을 습격파괴하면서 과감한 도시유격전을 활발히 전개한다. 영용한 우리 인민군부대들과 근위대원들의 련합작전에 의하여 원쑤들은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수도 평양은 드디여 해방된다. 작품은 유격전을 벌리는 근위대원들의 투쟁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생활이 꽃펴난 혁명의 수도 평양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승화시켜 밝혀냄으로써 우리 인민은 평양과 함께 영웅적기개를 자랑하며 영생하는 삶을 빛내여왔음을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72(1983)년판〕

《모략을 짓부시고》 영화문학. 민병선 창작. 인민생활과 국방건설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과학연구사업을 파탄시키려는 원쑤놈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짓부셔버리는 사회안전원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조창진박사의 과학연구사업이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섰을 때 시험관이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시약을 실은 차를 타고왔던 구역병원 의사 미숙에게 혐의가 쏠린다. 그러나 이때까지 당을 따라 성실하게 일해온 미숙을 믿은 안전부에서는 사건의 배후에 적들의 모략이 있음을 간파하고 사건해명을 안전원 철진에게 맡긴다. 어느날 집에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들에게 체포되였던 남편이 살아있다는 편지와 괴뢰장교복을 입고 찍은 그의 사진을 보고 고민하던 미숙은 남편의 친구인 조박사에게서 고무의 말을 듣고 안전부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신고한다. 시험관폭발의 혐의가 미숙에게 들씌워졌다고 생각한 적들은 조박사의 연구결과를 알아내려고 책동한다. 그러나 이미 뻐스운전사로 잠입한 치만놈의 정체와 놈이 은밀히 드나드는 집을 알아낸 철진을 비롯한 안전원들은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헌신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깊숙이 숨어있던 망책까지 일망타진한다. 작품은 원쑤놈들의 모략이 짓부셔지고 과학연구사업도 성과적으로 완성되여 조박사와 미숙의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조선인민군에 입대하는 미숙의 딸을 바래우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은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목숨으로 보위하여나가는 사회안전원들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그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의한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61(1972)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모래불》 단편소설. 주체81(1992)년 김창현 창작. 간석지의 개간과 함께 조국의 대지가 넓어짐에 따라 바다의 재부도 늘여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무남로동자

구 상업관리소 소장 오철흡은 군대에서 후방부문 군관으로 복무하다 제대되여 이곳 상업관리소 소장으로 온 후 고향사람들을 위하여 극성스럽게 일하여 모두의 존경을 받는다. 유명한 조개산지였던 서촌의 넓은 앞바다가 간석지로 둘러막히자 젓갈품을 구하기 어렵게 된다. 김장철에 젓갈품을 공급하지 못하자 주민들속에서 의견이 제기된다. 이때 년로하여 수산협동조합에서 바다자원을 보호하고있는 라희만아바이가 많은 젓갈품을 실어오며 철흡은 조개값을 치르려 한다. 희만은 몹시 노여워하며 서촌앞바다에 조개를 기르기 위해 애쓴 철흡의 아버지 오성훈에 대하여 이야기해준다. 해방후 어느날 배를 가지고 광량쪽에 나가 조개를 싣고오던 도중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히며 조개를 바다속에 처넣게 된다. 그러나 성훈은 조합재산을 제 바다에 처넣었으니 다행이라면서 웃기까지 한다. 그후 전쟁이 일어나고 전후에 다시 고향마을로 돌아온 성훈은 상업관리소 부소장이 되고 희만은 대학을 졸업하고 간석지건설사업소 부기사장이 된다. 부기사장이 된 희만은 간석지를 막을 생각만 했지 조개밭을 잃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성훈은 간석지너머 모래불에 다시 조개밭을 마련한다. 소설은 깨끗한 량심과 애국적헌신성을 지니고 조국의 재부를 늘여나가는 성실하고 참된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1(1992)년 5호〕

《모성의 권리》 단편소설. 주체88(1999)년 김혜영 창작. 한 녀성작곡가의 운명을 통하여 조국의 귀중함에 대하여 감명깊게 보여준 작품이다. 작곡가 송예향은 미술대학 졸업반인 아들 영철의 그림이 전국미술전람회에 입선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과 함께 전람회장에 간다. 거기에서 그는 어머니와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형상한 자기 아들의 그림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조선화 《엄마품은 어디에》라는 그림을 보게 된다. 비내리는 나무밑둥에서 젖먹이어린애가 고개를 젖히고 울고있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예향은 그와 꼭 같았던 일본에서의 자기의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그는 다음날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찾아가 그림을 그리게 된 사연을 알아본다. 화가는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에 기초하여 이 그림을 그리게 되였다고 한다. 순간 그는 화가의 어머니가 바로 자기를 버리고간 친어머니라는것을 알게 되며 다시금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살아나게 된다. 그는 일본인 양부모의 손에서 자라다가 다리를 다치며 그 집에서 쫓겨나 류랑걸식하던 일, 《봉선화다방》 주인을 만나 그의 양딸이 되던 일, 그후 조국의 품에서 다리를 고치고 행복했던 나날들을 회상한다. 이튿날 예향에게 화가가 찾아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예향은 어머니 조순정이 먹고 살기 위하여 예향을 나무에 비끄러매여놓고 제사공장으로 가서 일하다가 비오는 날 아이를 잃어버렸으며 그후 자식에 대한 죄의식때문에 일생 홀몸으로 살면서 전쟁때 부모잃은 고아들을 여섯명씩이나 데려다 키웠다는것, 운명하는 순간까지도 딸의 이름을 불렀다는것을 알고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며 몸부림친다. 그날 저녁 예향은 전시장에 있던 상반되는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 수천만 어머니들의 모성애를 꽃피워주는 위대한 품, 조국이라는 위대한 어머니가 없이 매 어머니들의 모성애가 있을수 없다는것을 가슴깊이 느끼며 모성찬가 《어머니사랑》에 대한 새로운 곡을 창작한다. 소설은 인간이 지닐수 있는 모든 권리중에서도 가장 초보적인 권리인 모성의 권리도 조국이 없이는 지킬수도 없고 꽃피울수도 없다는것을 한 녀성작곡가의 운명을 통하여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8(1999)년 7호〕

《목란꽃 피여나다》 단편소설. 주체72(1983)년 백현우 창작. 어버이수령님께서 못

잊어하시는 한 꽃나무를 찾아내여 그이께 기쁨을 드리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제철소의 휴양소구내에는 갖가지 꽃들이 아름답게 피여난다. 어느날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을 찾으신다. 이 제철소를 현지지도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창덕학교시절에 이곳에서 보셨던 한 꽃나무에 대하여 추억하시였는데 수령님을 보좌해드리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꽃나무를 찾으시려 여기에 오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휴양소소장과 이 지방에서 오래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버이수령님께서 말씀하신 꽃송이가 크고 희면서 향기가 그윽한 꽃나무가 이곳에 있다는것을 아신다. 그이께서는 곧 그 꽃나무를 산에서 떠옮겨다 휴양소정원에 심으시고 다음날 어버이수령님을 이 휴양소에 모시도록 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벽에 정원을 산책하시다가 흰 꽃들이 활짝 피여난 꽃나무를 보시고 자신께서 말씀하시던 그 꽃나무를 찾아냈다고 못내 기뻐하신다. 그러시면서 창덕학교시절에 이곳에 왔다가 목격하셨던 해방전 우리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신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 일나가고 텅빈 집안에 어린아이 하나가 기둥에 매달려 울고있는데 부모들이 애를 달래느라고 꺾어준 꽃송이 하나가 그곁에서 시들어가고있었다는 눈물겨운 이야기였다. 이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휴양소소장인 조선화가 바로 그때의 그 아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꽃밭속에서 웃으며 살고있는 그 녀성을 어버이수령님앞에 내세워주신다. 하여 한떨기 꽃에 비낀 수난에 찼던 조국의 모습을 못 잊어하시던 수령님께서 그의 모습을 통해 더욱 활짝 피여난 그 꽃과 함께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된 조국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도록 하신다. 그후 이 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지어주신 새 이름을 받아 《목란꽃》이라고 불리우게 된다. 소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작은 일에도 마음쓰시고 로고를 바치시는 위대한 충정의 귀감이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72(1983)년 11호〕

《목란꽃향기》 단편소설. 주체85(1996)년 리혜경 창작.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따르는 한 외국인의 운명전환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에꽈도르에 살고있는 마르끄는 사회주의사상에 동경하여 이전 쏘련에 가서 대학에서 력사학을 전공한다. 하지만 그는 자본주의생활방식에 물젖어있는 그 나라 청년들의 현실태를 목격하면서 실망을 느낀다. 그 나날에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조선류학생 정인경을 알게 된 마르끄는 그를 통해 점차 조선의 사회주의를 동경하게 된다. 졸업을 앞둔 시기 아버지의 림종비보를 받고 귀국한 마르끄는 그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진다. 대학 신학교수로 생활하는 과정에 그는 세상을 놀래운 조미대결에서 조선이 승리한 소식을 듣고 친구가 보내준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들을 읽으면서 조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며 주체사상을 인류의 최고리념이라고 찬양한다. 드디여 조선을 방문한 그는 옛 대학동창인 정인경을 만나게 되며 민족의 대국상을 겪은 속에서도 결코 비관하지 않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조선의 밝은 미래를 확신한다. 소설은 한 외국인의 체험과정을 통하여 주체사상에 의하여 향도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야말로 진보적인류의 희망의 등대이며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라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5(1996)년 1호〕

《못 잊을 삼일포의 메아리》 가사. 주체71(1982)년 전병구 창작. 삼일포에 깃든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뜻깊은 혁명사적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

과 2절에서는 해방된 삼일포에 단풍이 타던 어느날 항일의 명사수로 그 이름 빛내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이곳에 오시여 뜻깊은 총소리를 울리시던 력사의 그날을 뜨겁게 추억하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마음을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통일의 그날 어버이수령님을 동백꽃 피여나는 남해기슭에 모시려는 어머님의 숭고한 념원을 웅심깊게 노래하면서 어머님의 숭고한 념원을 받들어 기어이 조국을 통일할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힘있게 노래하고 있다. 가사는 삼일포에 남기신 어머님의 혁명사적을 아름답고 사색적인 시적형상에 담아 뜻깊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어머님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어머님의 그 숭고한 념원을 기어이 꽃피우려는 확고한 결의로 심장을 불태우게 하고있다. 〔《조선가요 20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묘향산기행시초》 시초. 주체71(1982)년 김석주 창작. 세상에 그 이름을 자랑하는 묘향산의 아름다운 절경에 어려있는 당의 은덕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뜨거운 경모의 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묘향산아》, 《상원동을 오르며》, 《법왕봉 가는 길은》, 《서로 고이고 받들어》, 《길을 잃고서》, 《맑고 깨끗함》, 《만폭동을 오르며》, 《헐하게 얻는것 아니》, 《선녀들은 하늘로 올랐다지만》, 《묘향산을 내리며》의 10편의 시로 구성되여있다. 시초에서는 금강산의 기묘함도, 지리산의 웅장함도 한몸에 다 지닌 묘향산의 아름다움을 례찬하면서 당의 뜨거운 손길이 어려 그것이 진실로 아름답게 되였음을 노래하고있다. 또한 시초에서는 묘향산을 돌아보고 내려오는 서정적주인공이 가슴에 차넘치는 당의 은덕을 더 많이 노래할 심정을 향산처녀들의 부탁을 통하여 특색있게 노래하고있다. 시초는 밝고 랑만적인 정서로 충만되여있으며 서정이 풍부하고 선률이 류창하며 시어들이 소박하면서도 강한 정서적여운을 안겨주고있다. 시초는 기묘한 묘향산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에 대한 황홀한 감정을 당의 은덕에 대한 감사와 례찬의 감정으로 승화시켜 잘 노래하고있다. 〔김석주 시집 《들꽃》, 문예출판사, 주체74(1985)년판〕

《〈묘향산〉호 바다로 간다》 서정시. 주체60(1971)년 오필천 창작. 새로 무어 진수하는 대형뜨랄선에 《묘향산》호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풍모를 높이 칭송한 작품이다. 날이 새면 진수식을 해야 할 대형뜨랄선이 있는 포구로 깊은 밤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감격에 목메여하는 어로공들에게 배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으면 좋겠는가고 물으신다. 이때 누구는 《혁신》호, 또 누구는 《충성》호라고 짓는것이 좋겠다고 하며 저저마다 더 좋은 이름들을 고르려고 하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먼바다에 나가있는 어로공들이 조국의 푸른 산천이 얼마나 그립겠는가고 하시며 배이름을 《묘향산》호라고 짓는것이 좋겠다고 다정히 말씀하신다. 순간 어로공들의 가슴속에서는 《조국땅 한부분을 그대로 배전에 옮겨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뜨거운 감격이 솟구쳐오른다.

배머리가 움씰댄다 바다가 설레인다
대양이 설레인다 산이 움씰댄다
그 옛날엔 뭍과 떨어져 조국땅이 그리워
포구를 찾아 배들이 돌아왔건만

오늘은 네 가는 곳 그 어디
격랑속이건 안개덮인 대양우에건
그 언제나 조국의 푸른 산이 찾아간다!
바다를 찾아서 《묘향산》이 간다!

시는 어로공들의 깊은 심중까지 속속들이 헤아려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극적인 정황과 열정적인 주정토로

로써 생동하고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무궁한 숲》 단편소설. 주체75(1986)년 박찬은 창작.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서 버림받은 산이나 다름없던 국수봉이 숲이 무성한 산으로 가꾸어진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정전직후 페허가 된 국수봉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산을 관리할 주인이 없으면 자신께서 몸소 오시여 나무를 심고 가꾸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다. 그러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리순보는 자기가 국수봉을 가꾸겠다고 말씀드린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순보의 일을 도와 나무모들도 보내주시고 기술자들도 파견하신다. 그 과정에 순보는 경험이 없어 많은 나무모들을 죽이고는 스스로 산림보호원의 일을 그만두려고 생각했다가 국수봉의 주인은 리순보라고 믿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다시 힘을 얻고 일해나간다. 그의 피타는 노력에 의하여 국수봉에는 나날이 숲이 무성해간다. 리순보가 세상을 떠난 뒤 국수봉에 또다시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애국적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온 나라가 리순보를 알도록 그의 이름을 새긴 표식주를 자신의 사적비곁에 나란히 세우게 하신다. 소설은 순보의 생활과정에 대한 형상을 통해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로고에 의하여 이름없던 산골사람도 온 세상이 다 아는 훌륭한 애국자로 자라나게 되였고 벌거숭이였던 국수봉도 무성한 숲으로 전변될수 있었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문학통보》, 주체75(1986)년 제7호〕

《무리등》 단편소설. 주체69(1980)년 황영도 창작. 집단적혁신으로 천생산을 늘여나가는 방직공처녀들의 생활을 보여준 작품이다. 한날한시에 정방공이 되여 다기대공으로, 정방기고속도화명수로 자라난 박창희와 오명실은 공장에 새로 들어온 양성공들의 기능을 높이는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르게 생각한다. 창희는 양성공들의 기능을 빨리 높여 기능공들의 수준에 올려세우기로 결심했다면 명실은 자기 개인의 새 기록을 먼저 생각한다. 그리하여 창희는 양성공들을 키우는 옥양공으로, 작업반장으로 되며 자기 작업반의 양성공들은 물론 명실의 양성공들까지 맡아키워준다. 그는 옥양작업은 작업대로 하면서 짬시간이 나는대로 양성공들에게 자기의 경험도 알려주고 그들속에서 자라는 혁신의 싹도 제때에 찾아내여 키워준다. 그리고 실잇기경기도 조직하고 수예도 익혀 빨리 기능공으로 성장하도록 애쓴다. 이 과정에 창희네 작업반생산실적이 일시 낮아진것을 못마땅하게 대하던 명실은 창희가 맡은 양성공들의 기능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자기가 몇년동안 창조한 기록도 인차 따라잡는것을 보며 집단적혁신으로 새 기록을 창조할 대신 리기적인 명예욕에 들떠있던 자신을 깊이 뉘우친다. 소설은 창희와 명실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의 전등보다 무리등이 더 밝은 빛을 뿌리듯이 새 기록창조투쟁에서 집단적혁신이 일어나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혁신자로 자라나고 생산에서도 눈부신 혁신이 일어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69(1980)년 10호〕

《무산이라 철산은》 서정시. 주체74(1985)년 오재신 창작. 우리 나라 굴지의 쇠돌생산기지인 무산광산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깊은 사랑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무산은 《차유령너머 그리운 고장》, 《걸어서 사흘길 수송관따라 하루길》되는 고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저녁별이 뜨면 철산(무산)의 쇠돌이 제철소뜨락에 산처럼 솟아난다고 노래하고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당의 해빛이 따사롭게 넘쳐 무산땅은 정깊은 고장으로,

마음속에 언제나 가까운 고장으로 되고있다고 밝히고있다. 이처럼 시에서는 무산광산은 김책제철소와 떨어져선 못사는 고장이라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시는 간명한 형식으로 시인의 정서적체험을 명백하게 드러내보이고있다. 〔《1980년대시선》, 문예출판사, 주체79(1990)년판〕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 장편소설. 주체59(1970)년 석윤기 창작.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참된 혁명의 길을 찾아 모대기던 조선청년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고한 시련속에서 혁명가로 자라는 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주인공 유철은 청년시절부터 일제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혁명에 대한 열망을 안고 반일투쟁에 참가하였다가 놈들에게 체포되여 3년동안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게 된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다시 지엔다오(간도)에 들어가 김익보를 비롯한 좌경모험주의자들이 일으킨 무모한 폭동으로 하여 위기에 처한 조직을 구원하고 다시 적들에게 체포된다. 지린(길림)감옥에서 유철은 시련많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정확한 투쟁로선과 방침을 밝혀줄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갈망과 동경으로 가슴불태운다. 감방에서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서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유철이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의 안해 주삼녀는 혁명조직에 망라되여 투쟁하다가 놈들에게 체포되여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출옥한 유철은 희생된 안해의 무덤앞에서 복수를 다짐하며 어린 딸 현아를 치삼의 집에 맡기고 또다시 혁명의 길에 나선다. 그후 그는 공작원의 도움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게 되며 그이로부터 조선혁명의 성격과 과업, 항일유격대창건방침과 반일민족통일전선방침, 당창건방침 등에 대한 가르치심을 받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철의 안해 주삼녀의 투쟁과 영웅적최후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안해가 유철에게 해주려고 했던 닭곰을 친히 자신께서 해주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유철은 새로운 곳에서 혁명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힘든 문제로 제기된 마을의 혁명화를 위하여 현칠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재소의 마부로 들어간다. 유철은 지주 정희겸이네 짐을 실어나르면서 그의 집 머슴들인 삼덕이와 쌍가매, 《보위단》원인 효범이를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그들을 혁명의 길로 이끌어준다. 또한 그는 갈길 몰라 번민하는 지식인청년 박두현과 지난날 독립군소대장으로 일제와 싸웠던 그의 아버지 박병섭로인을 비롯한 마을의 각계층인민들을 모두 혁명화하여 혁명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며 대중투쟁을 무장투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간다. 그리하여 마침내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투(안도)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신 때로부터 1돐이 되는 날에 지구유격대가 조직된다. 작품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온갖 착취와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 일제침략자들과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반항정신을 가지고있으나 투쟁의 바른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던 사람들이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에 대한 진실한 묘사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혁명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혁명은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을 가지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할수 있었으며 조선의 혁명가들은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들처럼 참다운 혁명투사로 억세게 자라날수 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59(1970)년판〕

《무성한 산림》 단편소설. 주체59(1970)년 김수범 창작. 순환식채벌을 하도록 하시여 림업의 밝은 전망을 펼쳐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이다. 량강도안의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림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의회를 조직하신다. 수령님께서는 림산자원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것만큼 나무를 베지만 말고 많이 심어 조국의 산야를 풍요하게 가꾸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신다. 그러시고는 회의에 참가한 최성국에게 벌목공들의 생활형편도 알아보시면서 작업장이 멀어 로동자들이 합숙생활을 한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통근뻐스를 내오도록 은정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신다. 회의를 마치신 수령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몸소 벌목현장에 나가시여 실정을 료해하시고 림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자면 순환식채벌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힘있게 말씀하시면서 그 방도까지 밝혀주신다. 작품은 3대에 결쳐 성국의 가정에 베풀어지는 어버이수령님의 육친적사랑을 회상의 수법으로 보여주면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순환식채벌방법이야말로 림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정당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9(1970)년 4호〕

《무성한 숲속에 샘물이 흘렀다》 단편소설. 주체62(1973)년 김창옥 창작.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대원들에게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무한한 애착심을 심어주시여 그들을 견결한 혁명가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대홍단전투후 중대를 점검하던 철산중대장은 나어린 녀대원 순옥이가 아직 마을에 오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왜놈들을 족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두만강기슭의 외진 숲속에서 살다가 달려온 한 로인부부를 데려다주기 위해 떠났던것이다. 철산은 사령관동지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며 만약을 생각하여 한개 소대를 그쪽에 보내자고 제기한다. 그러자 사령관동지께서는 순옥이가 유격대에 입대하기 전에 살던 두만강기슭의 집자리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서있을것이라고 하시며 부대를 두만강기슭으로 이동시키신다. 그날 저녁 두만강을 건너 깊은 수림에서 숙영할 때 사령관동지께서는 돌아온 순옥을 만나시여 규률을 지키지 못한 그의 잘못을 일깨워주시면서 그의 어머니가 다마루거우(대마록구)에서 훌륭히 싸우고있다는 소식을 알려주신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곳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실 때 순옥이 어머니의 행처를 알아보게 하시였던것이다. 소설은 언제나 대원들에게 조국애를 심어주시며 투사로 키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를 통하여 거창한 나무숲이 뿌리내린 숲속에 샘물이 흐르고있듯이 무성하게 자라는 혁명대오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어주신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무한한 애착으로 불타오르는 열정의 샘이 거세차게 흐르고있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생활의 길》, 문예출판사, 주체62(1973)년판〕

《무쇠들보》 단편소설. 주체72(1983)년 백보흠 창작. 건설자들에게 믿음과 신심을 안겨주시여 경기장지붕의 높이를 통채로 낮추는 세계건축사상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김일성**경기장의 채양지붕공사가 끝났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배경대지붕쪽이 더 높아진것을 지적하신다.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내놓을 건축물에 자그마한 티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수정공사를 벌리도록 하신다. 수정공사량이 방대한데 비하여 날자가 얼마 없는 조건에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며칠동안 머리를 맞대고 최단기간내에 공사를 끝낼 방도를 탐구한다. 그러나 신통한 방도가 나서지 않아 안타까와만 한다. 이때 그이께서는 건설자들과 대중토의를 하도록 일군들을 일깨워주신다. 대중토의에서 기술자들과 건설자들은 서로 지혜를 합쳐 경기장지붕을 통채로 낮추는 새로

운 공법을 착상한다. 그것은 26명의 노력으로 단 14시간동안에 수정공사를 해제낄수 있는 대담하고 통이 큰 방법이지만 잘못하면 경기장지붕을 통채로 무너뜨릴수 있는 모험적인것이기도 하였다. 이를 두고 일군들은 누구도 선뜻 지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건설자들은 할수 있다는 배심을 안고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이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건설자들이 공사를 성과적으로 해내리라고 굳게 믿으시고 그 방안을 적극 지지해주신다. 드디여 며칠후 수정공사전투가 벌어진다. 공사는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경기장지붕을 단 12시간동안에 통채로 낮추는 기적이 창조된다. 공사과정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건설자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로동계급은 조국을 떠받드는 무쇠들보이며 이런 로동계급이 있어 우리 당은 앞으로도 승리할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어 우리의 로동계급이 조국의 기둥으로 억세게 자라나게 되였으며 그 믿음과 사랑에 의해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이 창조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조선의 행복》, 문예출판사, 주체72(1983)년판〕

《무쇠마치》 가사. 주체86(1997)년 황진영 창작. 혁명의 무쇠마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갈 로동계급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제국주의반동들의 발악적공세를 무쇠마치로 쳐부시고 수령님께서 추켜드신 혁명의 붉은기를 계속 높이 휘날려갈 우리 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을 노래하고있으며 2절에서는 해방된 조국을 일떠세우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는데서 선봉적역할을 한 로동계급의 자랑찬 위훈을 높이 칭송하면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가려는 그들의 불갈은 맹세를 토로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비록 우리곁을 떠나시였으나 수령님께서 추켜드신 혁명의 붉은기를 하늘땅이 열백번 뒤집힌다 해도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끝까지 지켜가며 이 땅에 기어이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는 로동계급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가사는 기백이 넘치는 정론적인 격조로 우리 로동계급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불굴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있다. 〔《조선노래대전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3(2004)년판〕

《무쇠발걸음》 단편소설. 주체81(1992)년 김석범 창작.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첫 땅크부대가 태여나게 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부대장 류경주는 3년을 기한으로 땅크운전기술을 완전히 소유할데 대한 목표를 내걸고 훈련의 시작으로 2달만에 첫 단거리시운전을 준비한다. 이때 부대를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첫 시운전을 보시고 갓 시작한 운전치고는 대단하다고, 기성리론에 매달려 기준을 3년으로 정한것은 아무래도 우리 실정과 맞지 않는다고 하시며 남들이 열걸음, 백걸음을 걸어서 해낸것을 단 한걸음에 해내는것이 혁명이라고 말씀하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땅크병 장오복을 만나시여 그의 피눈물나는 과거도 들어주시고 오래전에 헤여진 애인을 찾아주도록 하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긴 땅크병들이 훈련에 열중하던중 장오복은 자체결심으로 땅크를 몰고 나무다리우에 들어섰다가 물속에 처박히우는 사고를 저지르고 취사병으로 강직된다. 그후 또다시 부대를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오복을 만나시여 사고의 원인을 알아보시고 긴장한 순간에 애인의 모습이 떠올라 실수했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합쳐가며 땅크를 몰아가는 그 정신이 애국이고 혁명이라고 하시며 다시금 크나큰 믿

음을 안겨주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떠나신 후 부대는 불꽃튀는 훈련의 나날을 거쳐 종합적인 산악훈련에 들어가며 장오복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훈련을 성과적으로 보장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땅크부대를 조직해도 되겠다고 하시며 땅크부대결성식과 열병식을 조직해주신다. 소설은 지난날 이름 석자도 쓸줄 몰랐던 이 나라의 아들들을 나라의 주인, 인민무력건설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혁명가로 키우시여 세계에 그 위용을 떨치는 철의 대오를 꾸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1(1992)년 9호〕

《무쇠발자국》 단편소설. 주체65(1976)년 김수범 창작.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하며 성실하게 일하지 않던 젊은 뜨락또르운전수가 동무의 도움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20살전에 로력영웅이 될것을 꿈꾸면서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 뜨락또르운전수양성반을 나오고 림산마을에서 뜨락또르운전수로 일하게 된 창률이는 한동안은 열성을 내여 일하였지만 추운 겨울이 닥쳐오고 일이 힘들어지자 자주 짜증을 내며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다. 그는 합숙으로 부식물을 싣고가라는 과업을 받았을 때에도 량미간을 찌프리고 잘 응하지 않으며 자기의 부주의로 일어난 하찮은 일을 가지고도 동무들과 다툼질을 한다. 그러던 어느날 눈덮인 산판에 혼자 떨어져서 고장난 뜨락또르를 수리하고있던 그는 밤늦게까지 뜨락또르수리를 도와준 모래치기공처녀의 기특한 소행과 진정어린 비판에서 충격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게 된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은 허영에 들떠서 생활할것이 아니라 로동속에서 끊임없이 단련하고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동지들의 사랑을 받는 참다운 일군이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5(1976)년 10호〕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가사. 주체81(1992)년 신운호 창작.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끝없는 감격과 자부심을 안고 그이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받들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에서는 일찍부터 군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해오심으로써 인민군군인들의 다함없는 존경을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게 된 전사들의 끝없는 감격과 그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려는 충정의 열정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언제나 전사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빛나는 예지로 우리 군대가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혁명무력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문무를 겸비하신 위대한 선군령장의 령도를 받는 한 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다는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그이의 명령을 끝까지 관철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해나갈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신념을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후렴에서는 전렴에서 노래된 사상감정을 더욱 승화시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결음결음 따르며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무장으로 받들어나갈것을 힘있게 호소하고있다. 가사는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의의있는 종자를 선택하고 그것을 소박하면서도 격조높은 시적형상으로 꽃피움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활과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조선가요 2000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3(1994)년판〕

《무지개》 서정시. 주체52(1963)년 리맥 창작. 수천년 바라고바라던 인민의 리상과 념원을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꽃피워 이 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어버이사랑과 은덕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시절 비온 뒤에 비낀 7색무지개를 잡으시려 키높은 소나무에 오르셨던 사실을 시화하면서 무지개는 어버이수령님의 꿈이였고 날개였다는 의미깊은 서정을 토로하고있다.

무지개여
너는 그이의 첫 노래였어라
너는 그이의 첫 리상이였어라
자유의 봄을 조국땅우에 꽃피우려고
그 얼마이던가 그이께서 달려가신
먼먼 싸움의 행군길

계속하여 시는 조국해방을 위해 3천만의 운명을 걸머지시고 준엄한 혈전만리를 헤쳐오시고 오늘도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로동자, 농민들과 나라일을 의논하시며 《언제나 위대한 꿈을 펼쳐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와 은덕을 가슴뜨겁게 구가하고있다. 그러면서 시는 인민에게 보람찬 삶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이 땅우에 자주시대 새아침이 남먼저 밝아오리라는 확신의 감정을 밝고 부드러운 정서속에 형상하고있다. 〔리맥시집 《푸른 하늘아래서》, 문예출판사, 주체72(1983)년판〕

《무지개》 단편소설. 주체65(1976)년 리무진 창작. 어버이수령님께서 걱정하시는 알곡생산문제를 풀어드리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는 새 세대 처녀분조장을 형상한 작품이다. 21살난 분조장 복임은 자기 분조의 비옥한 논을 척박한 4분조의 논과 바꾸려고 결심하나 이전 분조장이였던 윤아바이는 이를 섭섭하게 생각하며 반대한다. 하지만 복임은 이것을 분조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결의조항에 박아넣고 서덕장포전(이전 4분조의 논)을 정리하여 규격포전으로 만들것을 계획한다. 복임은 토지정리를 하자면 불도젤이 필요하다는것을 타산하고 토지건설사업소 지배인을 나흘동안이나 설복하여 불도젤 4대를 동원시킨다. 또한 량심의 가책을 받은 4분조장 현기와 함께 부식토원천을 찾아내고 그것을 운반하기 위하여 버려진지 30년이 넘는 철탑에 삭도를 설치할것을 창안하며 그 방법을 찾기 위해 15리나 떨어진 광산으로 찾아간다. 복임의 소행에 감동된 4분조원들도 토지정리에 적극 달라붙으며 마침내 돌밭이던 서덕장포전이 기름진 땅으로 전변된다. 소설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 자라는 복임이와 같은 새 세대들이 이 땅을 가꾸고있음으로 하여 사회주의농촌은 날이 갈수록 아름다와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혁명전위》, 문예출판사, 주체65(1976)년판〕

《무지개》 장편소설. 주체94(2005)년 림종상, 신용선 창작. 소설은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여 감옥에서 수십년동안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지켜 굴함없이 싸운 한 비전향장기수의 투쟁을 형상하고있다. 작품의 주인공 손정무는 남조선의 어느 한 바다가 농촌마을에서 태여났다. 해방전 그의 아버지는 정무를 공부시키기 위해 품을 팔아가며 애를 썼건만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굴러떨어져 아들을 간이학교도 졸업시키지 못한채 한많은 세상을 떠난다. 정무는 나라가 해방되자 고학을 하면서라도 공부를 해볼 결심을 안고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갔지만 머슴살이, 신문팔이를 하면서 겨우 야간학교밖에 다니지 못한다. 이러한 그가 조국해방전쟁시기 의용군에 입대하여 성스러운 조국수호전에서 위훈을 세워 당원이 되고 전쟁이 끝나 제대되여서는 그처럼 바라던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게 된다. 대학시절 그는 중앙동물원건설장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고 대학구내와 룡성도로확장공사장에서는 젊음이 넘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옵게 되는 영광을 지니

게 되며 그 나날에 절세의 위인들의 조국통일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긴다. 그후 그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조선에서 투쟁하다가 불행하게도 적들에게 체포된다. 적들은 그에게 사형판결을 내렸다가 다시 무기징역을 언도하고 정무가 감옥살이를 하는 기간 그를 전향시켜보려고 책동한다. 정무와 한마을태생인 지주아들이며 교도소장인 황창남은 비전향장기수들을 굴복시켜야 반인민적인 통치체제를 지탱하고 자신의 출세와 부귀도 이룰수 있다고 타산하면서 어릴 때는 고향에서 정무를 친오빠처럼 따르던 순진한 처녀였으나 지금은 황금만능의 사회인 남조선에서 돈벌이에 미쳐버린 술집녀주인 백정화에게 거액의 돈을 쥐여주며 전향공작에 끌어들인다. 정무에게는 그가 떠난 다음부터 수십년세월 아들이 무지개를 타고 큰사람이 되여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90이 다된 늙은 어머니가 있었다. 황창남은 정무의 가족들을 전향공작의 수단으로 리용하고 무서운 고문과 함께 종교도 설교한다. 인연이 깊었던 사람들이 정무에게 전향을 설교할 때, 조카들이 자기로 하여 일자리를 잃고 생활난을 겪고있다는것을 알았을 때 정무는 참으로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존엄높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시켜주고 참된 삶과 행복을 꽃피워준 고마운 우리 조국을 결코 배반할수 없다는 량심과 의리를 지니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따르고 받드는 길에서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억세게 지켜간다. 그는 놈들의 악착한 고문에도 꺾이지 않고 우리 민족을 모욕하며 종교를 설교하는 목사에게 된 타격을 안긴다. 또한 한감방에 들어온 청년들에게 정의와 진리를 위해 굴함없이 투쟁하도록 영향을 준다. 특히 어버이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소식에 접하자 수령님의 전사된 도리를 지켜 옥중에서 추모회를 조직하며 원쑤들의 탄압속에서도 그 실현을 위해 완강한 투쟁을 벌린다. 마침내 그는 근 스무해나 되는 감옥생활에서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끝까지 지킨 승리자가 되여 감옥문을 나서며 나라와 민족의 장한 아들의 모습으로 고향의 어머님묘소를 찾고 조국의 품으로 떳떳이 돌아온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혁명적신념과 의지는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조국을 잊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순결한 량심과 의리에 기초할 때 더욱 공고해지고 억세게 발휘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작품은 서로 간절히 기다리고 그리는 어머니와 아들의 감정세계를 섬세하게 그려 화폭에 인정심리적정서가 흐르도록 하고있으며 그 정서적인 화폭속에서 어머니의 소원대로 민족의 장한 아들이 되여 돌아온 주인공의 성격을 더욱 인상깊게 부각시키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4(2005)년판〕

《무지개 비낀 산발》 중편소설. 주체59(1970)년 리병수 창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45(1956)년 12월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북부내륙지방의 한 지질탐사대원들이 새로운 동광맥을 찾아내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하여 떨쳐나선 ㄹ광산의 로동계급이 채광량을 2배로 늘여 10년분의 동광맥예비주머니를 5년분으로 줄어들게 한다. 그리하여 광산척후병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질탐사대앞에는 새로운 동광맥을 찾아내야 할 과업이 나서게 된다. 탐사대 기사장 박상규는 이 문제해결을 심부탐사에서 찾으려 하지만 윤석준기사는 기사장이 이미전에 동광맥이 없다고 단정해버린 룡천동지구에 대한 탐사를 통하여 해결하려 한다. 광산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조직된 청년탐사대는 생소한 룡천동지구에서 난관을 무릅쓰고 시추작업을 해나간다. 그러나 동광맥을 엿볼수 있게 하는 시료들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기사장은 그들이 하는 일을 무모한것으로 여기면서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석준은 동이 필요할 때마다 동

무들을 생각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후보지확보를 위한 탐사에 깨끗한 량심과 불타는 열정을 깡그리 바쳐나간다. 끊임없는 탐사과정에 석준은 룡천동지구에서 동광맥의 유망성을 뚜렷이 증명하는 위력한 조사자료를 얻게 된다. 룡천동지구에서 새로운 동광맥을 찾아낸 엄연한 현실앞에서 기사장 박상규는 청년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힘에 대하여 새롭게 느끼며 천리마를 타고 내달리는 시대의 요구에 멀리 뒤떨어진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 소설은 주인공 윤석준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일군들이 기술실무에만 매달릴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쥐고 그들의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킬 때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59(1970)년판〕

《무지개 비낀 숲》 단편소설. 주체70(1981)년 리의남 창작. 조국의 숲을 사랑하고 가꾸는 림산사업소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혁신자로 소문난 기중기운전공인 강인실은 아직 견습공이지만 제대군인이며 숲에 류다른 애착을 가지고있는 차경식을 남다른 마음으로 대한다. 어느날 사회주의경쟁총화모임에서 경식은 인실이가 속한 1작업반에서 심은 나무들이 죽어가고있는것을 지적하면서 그 작업반이 생산실적은 제일 높아도 1등의 자격이 없다고 한다. 그러자 나무심기작업조를 책임지고 일했던 인실은 속으로 고까운 마음을 품는다. 후에 산림감독원으로 된 경식은 나무아지를 제대로 따지 않고 통나무를 끌고가면 어린 나무들이 상한다고 하면서 아지따기작업에 참견한다. 이때도 인실은 사내가 쩨쩨하게 작은것을 가지고 신경을 쓴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그는 자기들이 심은 나무가 실지로 모두 죽어가고있으며 그것을 경식이가 밤낮없이 땀흘려 보식하고있는것을 알게 된다. 인실은 무성한 숲이라고 하여 어린 나무들을 홀시한 자신을 뉘우친다. 그리고 조국의 숲을 사랑하고 가꾸는 경식에게 자기의 마음이 더 이끌려가는것을 느낀다. 인실은 그처럼 숲을 사랑하리라는 새로운 결심을 다지고 경식을 도와 보식에 나선다. 소설에서는 조국을 가꾸는것이 그 주인인 새 세대가 응당 해야 할 의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0(1981)년 6호〕

《무포의 물소리》 단편소설. 주체73(1984)년 림왕성 창작.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의 사적이 어리여있고 어머님의 숭고한 넋이 깃든 력사의 땅 무포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무르익혀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을 벌려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이 념려되여 휴식할것을 권고하는 수행원들의 간절한 부탁으로 그이께서는 오래간만에 무포의 낚시터로 오신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이곳에서도 휴식이 따로 없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어떻게 하면 최상의 수준에서 정식화할것인가를 모색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랜 사회과학자인 오현우박사를 부르시여 그가 집필하고있는 주체철학교재의 부족점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면서 주체사상은 선행한 모든 철학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신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해야 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되여야 한다고 명철하게 말씀하신다. 작품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학적사색과 사상리론활동의 폭넓은 세계에 대한 감명깊은 묘사를 통하여 그이께서 지니신 사상리론적위대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영광의 시대》,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3(1984)년판〕

《무포의 밤》 서정시. 주체62(1973)년 리정술 창작. 력사적인 조국진군을 앞두고 항일혁명투사들이 조국산천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 못이루는 무포숙영지의 밤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그날만은, 무포의 그날만은 온밤 투사들 천막도 아니치고 누워서도 잠 못들었》다고 하면서 그것은 밤하늘의 총총한 별들도 날이 새면 반겨맞을 동포들의 눈빛같기때문이였다고 노래하고있다. 별많은 저 하늘은 이역의 눈바람속에 싸우며 못잊을 정을 담아 그리던 조국의 하늘이였고 쓰러지는 투사들의 눈빛에 마지막으로 비끼였던 하늘이였으며 고난의 눈보라가 앞을 막을 때에도 투사들의 가슴에 힘을 키워준 잊지 못할 하늘이였다. 그래서 시에서는 《저 하늘아래 동포들의 애틋한 소망을 보고싶어》 그리고 그 총총한 별들이 해방의 새 아침을 어서 안고오라고 삼천만이 속삭이는 그 열망같아서 대원들은 천막도 치지 않고 잠들었다고 노래하고있다. 시는 풍부한 환상을 펼쳐 조국진군의 력사적인 나날에 있은 사실들을 생동한 정서적화폭으로 재현하고있다. 〔《해방후서정시선집》, 문예출판사, 주체68(1979)년판〕

《무한궤도》 중편소설. 주체78(1989)년 오락천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우람한 무쇠철마를 떠받들고 나가는 무한궤도마냥 신성한 조국을 받들어 억세게 전진하여간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영웅적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된 주체39(1950)년 가을 북으로 향한 길로 세사람이 한대의 뜨락또르에 고장난 자동차를 련결차처럼 끌고 달리고있었다. 이들은 책임운전수인 충일과 운전수들인 서진오와 혜진이들이였다. 마음속에 굳센 신념이 없이는 한자욱도 내디딜수 없는 이 길에서 그들은 황해도 어느 한 군의 은행지점 출납원인 조태섭아바이와 의용군병사들인 대식이와 옥동이, 폭격에 엄마를 잃은 애기를 만나 7명이 일행이 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북을 향하여 가고 또 간다. 이 나날에 혜진의 애인인 서진오는 한때나마 신념이 없이 동요했던 자신을 심각히 뉘우치게 되며 불의에 달려든 적들을 향해 수류탄을 안고 나가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조태섭아바이도 적기들의 맹폭격으로부터 뜨락또르를 지켜 용감하게 싸우다 희생된다. 눈부신 백설이 대지를 덮은 겨울날 혜진과 충일은 사선을 헤치며 귀중한 동지들이 생명까지 바쳐 지켜낸 뜨락또르를 몰고 자랑찬 새봄을 마중해나간다. 소설은 뜨락또르운전수들인 충일, 서진오, 혜진을 비롯한 인물들의 진실한 형상을 통해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신성한 조국을 받들어나가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8(1989)년판〕

《무호섬》 단편소설. 주체54(1965)년 김수경 창작. 주체35(1946)년 가을부터 주체38(1949)년까지를 배경으로 하여 남해의 무호섬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의 주인공 강신옥은 10월인민항쟁을 준비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여 장렬한 최후를 마친 투사의 딸로서 원쑤에 대한 불같은 증오심을 안고 무호산에 들어간 20살의 나어린 처녀이다. 그는 무호섬 천연밀림에 의거하여 항쟁지휘부와 마을의 혁명조직과의 련계를 맡아 수행한다. 적들의 탄압이 우심해져서 항쟁지휘부가 더는 섬에 있을수 없게 되였을 때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그들을 뭍으로 피신시키며 자신은 섬에 그냥 남아서 투쟁의 홰불을 올릴 불씨가 될것을 결심하고 사랑하는 명섭이와 헤여진다. 소설에서는 무호섬의 호랑이로 불리우는 강신옥의 영웅적인 투쟁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반미구국투쟁에 일떠선 남녘땅 녀성투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애국애족의 뜨거운 마음을 감명깊이 보여주고있다. 〔《조선단편집》 3, 문예출판사, 주체67(1978)년판〕

《묵은 미지수》 단편소설. 주체76(1987)년 한익훈 창작.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과학원 실장 승진구는 새로운 유기물질을 탐구하는 연구의 마지막결속을 앞에 두고 기뻐한다. 그러나 동방혁아바이의 출현은 15년전 자기가 연구하던 ㅌ—2절연물의 실패와 더불어 량심의 가책을 받게 한다. 전기기구공장에 다시 내려간 진구는 당에서 바라는 일이라면 일생을 바쳐서라도 그 어떤 사심이나 공명이 없이 깨끗한 량심을 바쳐 실현해야 한다는 동방혁직장장의 고무를 받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이 연구에 달라붙은 영웅반장의 아들 차현철을 도와 7개월만에 성공시킨다. 진구는 15년전에 조금만 더 노력하였더라면 성공을 했을 연구를 미지수로 남겼다가 오늘에야 끝장을 본것을 놓고 자신을 깊이 반성한다. 15년동안 량심을 속여 묵여온 연구과제를 끝낸 진구는 발명권신청문건에서 자기 이름을 그어버리고 공장을 떠난다. 소설은 진구와 방혁, 현철의 형상을 통하여 사람은 일생 나라앞에 묵은 미지수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76(1987)년 1호〕

《문경고개》 가사. 주체39(1950)년 조기천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과 열렬한 애국주의정신을 노래한 작품이다. 2개의 절로 되여있다. 가사는 먼저 1절에서 저녁부터 오르던 가벼운 안개마저 힘에 겨워 산중턱에서 머무르고마는 높고 험한 문경고개에 대한 시적묘사를 주고있다. 그리고 2절에서 조국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그처럼 높고 험한 문경고개를 피흘리고 쓰러지면서도 단숨에 넘어 원쑤들을 쳐부신 이 나라 아들딸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숭엄한 감정으로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에서는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생동한 자연묘사와 밀접히 결부시켜 노래함으로써 정서성을 높이고 주제사상을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조선음악전집》1,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물관리원》 단편소설. 주체52(1963)년 고동온 창작. 모든 일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깐지게 해나가는 한 물관리원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평소에 마음이 너그럽고 인심이 좋기로 소문이 났던 원칠로인은 물관리원을 하면서부터 몹시 깐깐해졌다기보다 아주 린색하다고 소문이 난다. 그는 물을 달라고 청할 때면 수로를 돌아보면서 소발자국이나 우묵하게 패인 곳을 제손으로 메우고서야 수문을 열어준다. 그는 또한 흔한것이 물이라고 하면서 물을 망탕 흘려보내는 젊은 사람들을 꾸중하면서 물이 없어 고생하던 지난날의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준다. 그는 새로 일쿤 밀밭의 관수를 위해 수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용수에게 지난 겨울에 물을 잡아두지 않은데 대하여 질책하면서 물을 아끼는 마음을 간직하게 하고서야 물을 보내준다. 그는 사람들에게 저수지물은 다름아닌 우리 쌀독의 쌀이라고 하면서 물을 함부로 랑비하지 말고 아껴쓰도록 한다. 소설은 책임성높은 물관리원의 형상을 통하여 자그마한것이라도 나라의 재부로 여기고 아껴온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2(1963)년 제34호〕

《물소리》 단편소설. 주체54(1965)년 최창학 창작.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해나가는 어느 한 군산림경영소 소장의 생활을 형상한 작품이다. 주인공 박운철은 오랜 기간 손에 총을 잡고 조국방선을 지켜오다가 제대되여 고향인 두메산골로 돌아와 군산림경영소장으로 배치된다. 화전민의 아들로 태여나 천대와 가난속에 성장하였고 군사복무의 나날에 조국의 귀중함을 체험한 그는 경영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다음 결원된 보호원을 대신해서 ㄷ구역으로 내려가 그곳 산림을 맡아 관리한다. 그는 홍수에 뚝이 패여나갈가봐 굽이진 곳을 보강하고 버들을 심기도 하며 메돼지가 굴린 돌에 상한 어린 이깔나무를 제 몸에 입은 상처를 다루듯 손수건을 꺼내여 처매주기도 한다. 이처럼 주인다운 립장에서 험한 산발을 타고 오르내리며 담당구역을 일일이 답사하여 나무들과 섬유원료들을 빠짐없이 조사장악한 그는 그에 기초하여 ㄷ구역 산림자원전망도를 만든다. 소설은 심산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샘물과도 같은 티없이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성실하게 일해가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숭고한 충정심과 애국심을 지닌 일군들이 있어 조국의 모든 산들은 더욱 무성해지고 살기 좋은 내 조국은 끝없이 륭성번영하리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4(1965)년 4호〕

《물줄기는 제 곬으로》 단편소설. 주체70(1981)년 백은팔 창작. 페갱되였던 막장을 다시 살려내는 과정에 일군들이 당에 대한 충정심으로 심장을 불태우도록 이끌어주는 한 탄광지배인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상급단위일군으로 있다가 탄광지배인으로 온 조병조는 자기가 키운 일군인 기사장 민창식과 함께 일하게 되여 기뻐한다. 그러던 그는 탄광사업을 료해해보는 과정에 몇해동안 품을 들여 깊이 들어갔던 한 갱이 큰 물줄기를 만나 페갱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으며 창식은 그 갱을 살려낼수 없는것으로 여기고 전혀 낯을 돌리지 않고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는 물이 들어찬 갱에 들어가보고 물의 원천을 찾아 산판을 헤매이면서 갱을 살려내려고 애쓴다. 이와 함께 창식이가 땅속에 흘린 탄부들의 땀을 귀중히 여기고 막장을 구원하기 위해 적극 나서도록 이끌어준다. 드디여 병조는 갱에 나타난 물이 구봉천의 물줄기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생겨난것임을 밝혀낸다. 그는 창식에게 실험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며 창식은 갱을 쉽게 버리려 했던 자기의 과오를 깨닫는다. 그들은 함께 구봉천의 물줄기를 원래의 제 곬으로 돌려 갱을 살려낼 방도를 찾아낸다. 소설에서는 일군들의 심장속에는 티없이 깨끗한 충정의 물줄기가 굽이쳐야 하며 그러한 심장을 안고 일할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0(1981)년 6호〕

《물은 흐른다》 단편소설. 주체63(1974)년 리재훈 창작.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강점지역에서 미제침략자들에게 한방울의 물도 주지 않기 위하여 용감히 싸운 한 수도공아바이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항구도시인 ×시를 강점한 적들은 벌써 열흘째 수도물이 나오지 않아 아우성을 친다. 물은 도시주민지구에만 나올뿐 항구와 바다기슭에 자리잡은 군용지들에는 한방울도 나오지 않는다. 사람들을 끌어내여 급수변들을 찾는다 땅을 파헤친다 하면서 날뛰던 적들은 지하배관을 막은 사람이 왜정때부터 수도공으로 일하는 억쇠로인밖에 없다는것을 알자 수사망을 펴놓고 그를 찾았으나 헛물만 켠다. 급해맞은 적들은 일본땅을 뒤져 왜정때 이 시의 수도국장을 했던 오까모도까지 찾아낸다. 지하깊이 숨어있던 억쇠로인은 조직의 통보를 받자 위험을 무릅쓰고 배관을 세군데나 더 막다가 그만 매복에 걸려 체포된다. 악에 받친 놈들이 무섭게 고문을 들이댔으나 로인을 굴복시키지 못한다. 이번에는 오까모도가 그를 회유하려 한다. 이 기회에 억쇠로인은 오까모도의 책상우에 놓여있던 수도배관도면을 와락 잡아당겨 불이 활활 이는 난로속에 집어넣는다. 억쇠로인은 희생되였으나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그후에도 원쑤들이 있는 곳으로는 물이 한방울도 흐르지 않는다. 소설은 억쇠로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강점지역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모

습을 일반화하면서 이러한 인민을 굴복시킬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신인문학작품집 《희망찬 앞날》, 문예출판사, 주체63(1974)년판〕

《물이 일하러 간다》 서정시. 주체76(1987)년 황승명 창작.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이루어진 자랑찬 전변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오랜 세월을 흘러오면서 놀고먹던 충만강이 오늘은 물머리를 돌려 일하러 간다고 노래하고나서 아호비령을 백리굴로 꿰지르고 진달래꽃향기며 명문의 양몰이처녀의 고운 꿈도 싣고서 달맞이봉을 돌아선 충만강이 덧없이 흐르던 대령강과 합수되여 발전소도 돌리고 층층다락밭과 넓은 간석지 새땅을 적시는 생명수로 된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노래하고있다.

아, 방울방울 빛이 되고
알알이 열매가 되여
충만강 대령강 놀고먹던 강물이
사회주의 이 강산의 생명수로
어허, 일하러 간다

시는 당의 대자연개조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열렬한 긍정과 찬양의 감정을 정서적바탕으로 하여 자랑찬 현실을 생동하고 감명깊게 반영하고있으며 《물이 일하러 간다》를 비롯한 랑만적인 색갈의 시어들을 활용하고있다. 〔《1980년대시선》, 문예출판사, 주체79(1990)년판〕

《뭇별들》 단편소설. 주체71(1982)년 김명익 창작. 누가 알아주건말건 인민의 행복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바쳐가는 전공들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시송배전소에는 돌발적인 전기고장이 생기면 즉시에 달려가 퇴치하는 작업반이 있다. 여기서 일하는 오랜 전공인 서일만은 그 일이 높이 평가되는 것도, 눈에 크게 뜨이는것도 아니지만 인민들이 전기고장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데서 기쁨을 찾으면서 자기의 성실한 노력을 바쳐간다. 이러한 그는 자기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없는것을 섭섭하게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날 강무영이라는 애젊은 청년이 작업반에 배치되여온다. 그는 처음에 전기수리나 해가지고서는 고생만 하고 위훈을 세워볼수 없다고 하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서일만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 인민의 행복을 위해 성실한 땀을 바치는 그의 일본새를 따라배우게 된다. 그는 학교때 배운 지식에 의거하여 고장난 곳을 신속히 찾아내여 제때에 수리하게 하는 자동측정계기를 창안하며 그 계기로 작업에서 성과를 올린다. 깊은 밤 비내리는 속에서 그들은 고장난 급수장의 선로를 수리하여 도시의 수도물 공급이 제대로 보장되게 한다. 돌아올 때 무영은 앞으로 원격자동감시기를 만들어 깊은 산중의 선로에 생긴 고장도 제때에 알아내여 퇴치할 꿈을 펼친다. 소설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뭇별들처럼 인민을 위해 소문없이 성실한 땀을 바쳐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에 인민의 행복이 더 아름답게 꽃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1(1982)년 10호〕

《미더운 세대》 단편소설. 주체67(1978)년 김길환 창작. 한개의 나사못에 생긴 미세한 수치의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자신을 뉘우치고 깨끗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는 한 나어린 처녀선반공의 생활을 형상한 작품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선반공으로 일하는 정애는 나이는 어리지만 기능이 높은 처녀이다. 어느날 그는 자기가 복희와 함께 쓰는 공동제품대에서 기준수치를 조금 어긴 나사못 하나가 나온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별로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무렵 직장에서 대형시추기생산을 제기일에 보장하기 위한 돌격대를 무을 때 정애는 나사못 하나 때문에 자기와 같은 기능공을 돌격대에 넣지

않았다고 매우 못마땅해한다. 그러다가 직장장인 아버지로부터 선반공의 마음은 그가 깎은 제품에 비낀다는 말을 듣고서야 정애는 자신을 뉘우치고 지배인을 찾아와 오작의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한다. 한편 오작의 장본인인 복희도 지배인을 찾아와 자기 잘못을 말하고 정애를 꼭 돌격대에 넣어달라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소설은 높은 기술을 가지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티없이 순결한 마음과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살며 일하는것이 우리 새세대들의 사상정신적풍모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7(1978)년 4호〕

《미더운 전우》 영화문학. 리성일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느 한 보병중대 정치부중대장이 전사들의 힘을 믿고 그들의 심장에 발동을 걸어 전투임무수행을 위한 중대장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주인공 성민이가 정치부중대장으로 배치되여왔을 때 중대는 어려운 전투임무를 앞에 두고 긴장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중대장 태진은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있었고 전사들의 기세도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성민은 중대의 습격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하여 대원들을 일당백의 전사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간다. 그는 습격전투때에 신대원들을 데리고 배후를 맡았지만 정치사업을 앞세워 탄약운반을 비롯한 여러가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달려드는 여러대의 적땅크들을 까부신다. 이 싸움에서 부상을 당한 성민은 후송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에도 늘 중대를 생각하며 소식없는 중대장의 안해를 찾아내려고 애쓴다. 그러던중 간호장으로부터 중대장의 안해가 살아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는 중대가 적후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러한 때 중대장의 곁에는 정치부중대장인 자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험한 령을 넘어 적후에 있는 중대를 찾아간다. 거듭되는 전투로 지칠대로 지친 전사들앞에 나타난 성민은 대원들의 심장속에 불타는 충정심과 백절불굴의 강의한 의지를 심어주며 그들을 새로운 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다. 식량을 해결하여야 할 어려운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 그는 대원들을 파견하여 식량을 해결해오도록 하며 그처럼 애써 찾던 중대장의 안해도 데려오도록 한다. 성민은 중대장이 적들에게 포위되여 또다시 어려운 싸움을 하고있다는것을 알고는 즉시에 배후에서 적들을 기습소탕하는 전투를 벌려 위험에 처했던 중대장을 구원하며 사랑하는 안해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한다. 중대장은 성민이의 이러한 숭고한 풍모에 감동을 금치 못한다. 맡겨진 전투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한 중대는 부대를 찾아 전선을 넘어온다. 작품은 주인공 성민의 형상을 통하여 인민군대의 정치일군들이 어떤 정치사상적풍모를 가지고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75(1986)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미련한 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을 조소한 이야기이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서 어미곰을 잃고 헤매다 개울에 빠진 새끼곰은 마음착한 할아버지에 의해 구원되여 그의 집에서 멍멍이와 같이 살게 된다. 멍멍이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할아버지를 도와 부지런히 일하고 집을 지키나 곰은 아무 하는 일없이 그저 먹고 놀기만 한다. 그러던 어느날 감자밭에 기여든 오소리를 잡고 칭찬을 받는 멍멍이를 본 새끼곰은 자기도 무슨 일을 하여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독채로 물을 길어오고 장작도 무드기 패놓으며 절구질을 하다 절구통을 깨버리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날 새끼곰은 피곤에 몰려 잠이 든 할아버지의 이마우에 파리가 날아와 앉

는것을 보고 파리를 잡는다는것이 그만 파리채로 할아버지의 머리를 쳐서 숨지게 한다. 곰이 안타깝게 울고 또 울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이야기는 무슨 일이든지 앞뒤를 잘 가려 따져본 다음에 하지 않고 눈앞의 일만 생각하면서 미련하게 행동하면 큰 일을 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동화집 《나비와 수닭》, 금성청년출판사, 주체72(1983)년판〕

《미루벌전설》 단편소설. 주체68(1979)년 김삼복 창작. 작품은 전후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한 농장을 찾으시여 저수지자리까지 잡아주시고 농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에 대한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형상하고있다. 관리위원장인 방옥실은 척박한 미루등개간을 위하여 왔던 조사단이 자금이 많이 들기때문에 개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돌아갔을 때 국가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고 서운한 마음을 애써 누른다. 그런데 조사단의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물이 없어 겪는 미루벌사람들의 고생을 헤아리시고 친히 조사단을 데리고 현지로 나오시여 관리위원장과 조합원들을 만나시고 지금껏 물때문에 수고가 많았겠다고 하시며 그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신다. 이날 뜨거운 뙤약볕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미루벌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저수지를 만들고 례성강물을 끌어올려 미루벌을 적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험한 길을 헤치시고 저수지자리까지 잡아주신다. 옥실은 조합원들에게 땅을 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제는 또 좋은 작황을 안아올 생명수를 주시였다고 감격에 겨워 말하며 수령님께서 떠나신 길을 오래도록 바라본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68(1979)년 4호〕

《미루벌의 승리자》 단편소설. 주체53(1964)년 김소엽 창작. 대자연개조의 거창한 투쟁속에서 혁명의 주인으로 믿음직하게 자라나는 새 세대 로동계급의 자랑찬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황무지인 미루벌을 옥토벌로 전환시키기 위한 례성강흙언제축성공사장으로 달려나온 경배는 1년만에 휴가를 받고 집으로가 아니라 대안전기공장으로 간다. 처음 사업소에 배치되여 연공작업반같은데 가지 못하고 설비직장 목공반에서 일하게 된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던 경배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생각하다가 함께 일하는 승옥의 방조와 인정미있는 석호반장의 꾸준한 교양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배는 친구가 일하는 대안전기공장으로 가서 설비직장에 절실히 필요한 자동전기송곳을 구해가지고 돌아온다. 경배는 또한 종업원궐기모임에서 모두가 1건이상의 창안을 내놓을것을 호소하고 흙운반차의 자동전복기설계도면작성에 열정을 다 바친다. 그는 승옥의 주선으로 이 부분에 조예가 깊은 승옥의 큰오빠의 방조를 받아가면서 끝내 설계도면을 완성하며 그 지대가 날카로운 벼랑인것으로 하여 좌측 림시다리신설문제가 제기되자 위험을 무릅쓰고 림시다리를 건설할수 있는 터를 마련한다. 작품은 집단의 방조속에서 미루벌의 용맹한 매로 자라나는 경배의 형상을 통하여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 위훈의 창조자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3(1964)년 10호〕

《미래》 단편소설. 주체51(1962)년 박성호 창작.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하며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천리마시대 청년들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강철직장 축로반장으로 임명된 최태종아바이는 로바닥의 축로를 스담

프방법으로 할것을 발기하여 로의 수명을 훨씬 늘일수 있게 한다. 그런데 육중한 함마로 힘들게 작업을 하고있는 축로공들을 보며 용해공 장기주가 스담프축로를 기계화할수 없는가고 하자 태종은 그를 헐한 일을 찾으려드는 건달뱅이로 오해한다. 태종은 전에도 용접이요, 기계요 하며 여기저기 참견하군하는 그를 보았던것이다. 그러나 기주가 자체로 도면을 그리고 제작한 소형프레스로 기중기운전공인 딸 미옥이와 함께 스담프축로작업을 기계화하자 태종은 청년들의 불타는 지향과 열정을 리해하지 못했던 자신을 뉘우치고 그들의 희망찬 미래를 굳게 확신한다. 소설은 나라의 훌륭한 역군이 되자면 다방면적인 기술을 소유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51(1962)년 2호〕

《미래》 단편소설. 주체53(1964)년 김북향 창작. 항일무장투쟁시기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싸운 항일유격대원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형상한 작품이다. 창바이(장백)의 어느 도시에서 지하공작임무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오다가 적의 추격에서 겨우 벗어난 박재순은 산속의 어느 집에서 칠성이라는 한 소년을 만나게 된다. 재순을 샘물터로 안내하던 칠성은 적들의 발자국소리를 듣고 재순이에게 유격대원인가고 묻고는 마당으로 나가 놈들에게 허튼 길을 대준다. 칠성이의 도움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길을 떠난 재순은 그처럼 유격대를 만나고싶어하는 칠성이에게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지 못하고 떠나온 자책감을 느끼게 된다. 재순은 언제인가 《토벌》대에 의하여 폐허가 된 마을에서 울고있는 한 소녀애를 안으시고 이 원한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며 어린이들은 조국의 꽃봉오리이며 미래라고 하시던 사령관동지의 말씀을 생각하고 힘이 들어도 칠성이에게 다시 갔다올 결심을 한다. 련락장소에 도착한 재순은 김동무에게 활동정형을 보고하고 칠성이의 집으로 다시 간다. 작품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그처럼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으며 항일유격대원들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싸울수 있었던것은 조국의 미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때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3(1964)년 제70호〕

《미래》 단편소설. 주체76(1987)년 탁숙본 창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여 우리의 미래는 행복하며 그 어떤 원쑤도 우리의 미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정무원 책임일군 강문성은 긴장한 정세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기계공업부문에서 첫 봉화를 올릴 영평지구기계공장들에 나가게 된다. 문성은 이제 그이께서 군사와 관련한 중요한 대상설비생산을 맡기시려는가부다 하고 단정한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평지구로 나가시는 길에 수도교외의 자그마한 유치원에 들리시여 완구에 대한 아동들의 심리와 지능정도를 료해하시고 영평지구에서 열린 련합회의를 결속하시고는 완구문제를 토의하신다. 그이께서는 최신과학기술을 대담하게 완구생산에 도입하여 우리의 미래가 담보되게 해야 한다고, 조국과 인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심은 매우 작고 구체적인것에서 싹트고 자라난다고 말씀하신다. 또한 완구의 다량생산을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고 새로 일떠서는 문수거리에 률동완구상점도 내오고 지능교육에 쓰일 책도 많이 찍을데 대하여 강조하신다. 소설은 혁명과 건설도 오직 미래를 위하여 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투철한 인생관을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단편소설집 《력사의 순간》, 문예출판사, 주체76(1987)년판〕

《미래》 단편소설. 주체76(1987)년 문명학 창작. 작품은 새 세대들을 깨끗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조국을 받드는 역군으로 키워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탄광경리부장 학천은 늦게 본 막내아들 재남의 전망문제에 각별한 왼심을 쓴다. 아들이 4촌누이동생인 선영이 지도하는 다과목소조에서 공부하는데다가 중학교 교장이 자기의 스승인 고세림선생이니만치 틀림없이 재남이가 1중학교에 들어갈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입학예비시험에서 재남이는 1점이 모자라 떨어지고 대신 홍대술이란 학생이 뽑혔을 때 학천은 선영과 고세림선생을 찾아가 억울한 하소를 한다. 고세림선생은 지금 1점이 모자라는것을 크게 생각지 않는 그에게 앞으로 재남이가 과학자가 되여도 1점이 모자라면 발명에서 실패할수도 있고 조국의 과학이 그만큼 부진하게 된다고 준절히 타이른다. 학천은 명민한 두뇌로 미래를 앞당기는 과학자로가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체면이나 세우고 얼굴값을 하려던 자기의 욕심에 대해 깊이 뉘우치게 된다. 소설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뜨거운 애국심과 건전한 사고를 가지게 될 때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가 확고히 담보된다는것을 생활적으로 간결하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6(1987)년 7호〕

《미래가 걱정되는 때 있거든》 서정시. 주체74(1985)년 홍문수 창작. 주체사상탑의 숭고한 사상적의미와 거대한 의의를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한가로운 유람으로 주체사상탑을 찾는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수많은 기념비가 세상에 있지만 모두가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하나의 같은 점을 가지고있다고, 그러나 한번 찾아오면 쉽게 떠날수 없어 《해지우는 마음들 만조의 바다처럼 항시 차넘치는 여기》 — 주체사상탑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를 이어 완성하시는 새 세계의 모양을 가장 가까이 볼수 있고 가장 깊이 새겨안을수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주체사상탑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희망을 주는 기념비라고 토로하고있다.

사람들이여
조국과 자신과
아들딸들의 미래가 걱정되는 때 있거든
이 주체사상탑을 우러르라!

시는 대조의 수법으로 주체사상탑의 의의를 심오하게 형상하고있으며 간결하고 정화된 시어들을 구사하고있다. 〔《1980년대 시선》, 문예출판사, 주체79(1990)년판〕

《미래를 두고》 단편소설. 주체52(1963)년 정창윤 창작.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제자들을 훌륭한 과학자로 키워나가는 한 로교수를 형상한 작품이다. 김선광교수는 간장질환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약을 제조하려다가 실패하고 찾아와 방조를 청하는 제자이며 약학연구소 연구사인 강영수와 만나면서 그가 언제인가 항결핵제를 합성할 때에도 실패하고 찾아와 방조를 청하던것을 생각한다. 김교수는 영수가 전도는 있으나 제힘으로 난관을 극복해나가려는 투지가 부족하다는것을 느끼고 자기는 이제는 늙었고 남을 도와줄 힘이 없다고 말한다. 교수의 너무도 뜻밖의 태도에 허전한 마음으로 그의 집을 나선 영수는 길가에서 같은 연구사인 손우천을 만나게 된다. 그는 김교수와 동년배이며 경쟁자인 윤교수의 제자이다. 학자연하기를 좋아하는것으로 하여 김교수로부터 좋지 못한 평을 받고있는 우천은 영수의 이야기를 듣고는 김교수의 그러한 태도는 질투심과 명예때문이라고 말한다. 며칠후 김교수는 윤교수로부터 영수에 대한 태도로 하여 좋지 못한 소문이 돌고있다는 말을 듣게 되며 막역한 친구로부터는 질투쟁이, 명예탐욕자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된 김교수는 자기의 피와 땀, 노력으로 험산을 점령해보려는 투지가 있는 학자들이 없는 조국의 미

래는 죽음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제자들을 자립적인 훌륭한 과학자로 키워낼 결심을 다진다. 한편 강영수는 제힘으로 연구사업을 해나갈 결심을 안고 원료기지인 자강도로 떠나간다. 작품은 학자의 영예는 자기의 성실한 노력으로 과학의 봉우리를 점령해나가는데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2(1963)년 제96호〕

《미래를 키우는 마음》 단편소설. 주체57(1968)년 리화 창작. 자라나는 조국의 미래를 키워나가는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한 교원을 형상한 작품이다. 바다가마을인 돌곶포중학교 교원인 김운성은 여름방학에 학생들을 바다에 잘 익숙되도록 단련시키리라 결심한다. 방학 첫날 늪가에 나갔던 자기 자식이 물에 빠질가봐 마음 못 놓는 학부형 최승진을 만나본 그는 바다가에 사는 학생들이 공부만이 아니라 헤염도 잘 치도록 이끌어준다. 하여 그는 학습시간이 끝나면 나머지시간에 학생들이 수영련습도 부지런히 하도록 한다. 또한 운성은 전쟁시기 영웅적으로 싸운 전우들의 고귀한 혁명정신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견학도 조직한다. 견학때 학생들이 발동선을 타고가게 하자는 승진에게 운성은 아이들을 호강만 하는 귀동자로 키울수 없다고 일깨워주며 그들이 바다를 헤염쳐 나가게 하고 진펄길도 걸어 알섬까지 가게 한다. 알섬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전쟁시기 용감히 싸운 해병들의 전투이야기와 그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생동하게 들려주어 학생들이 수령님께 끝없이 충정다할 마음을 깊이 간직하도록 한다. 소설은 운성의 형상을 통하여 조국의 미래를 위해 바치는 교원들의 깨끗한 마음과 성실한 노력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7(1968)년 12호〕

《미래를 꽃피운 사랑》 영화문학. 백인준 창작. 작품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일제놈들에게 부모를 잃고 의지가지할데 없는 고아로 된 어린이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온갖 시련을 이겨내시면서 그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신 불멸의 업적을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주체24(1935)년 처창쯔유격구에서 특위파견원과 현순시원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원정에 나가계시는 때를 기회로 하여 구정부식량부장 김길환을《민생단》협의자로 체포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유격대가 유격구에서 떠나게 되였을 때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은 유격대를 따라가려는 인민들은 물론 아동단합숙에 있는 부모없는 아이들까지도 떼버리려고 책동하며 이러저러한 구실과 억측으로 김정숙동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고 경계한다. 이러한 정황속에서 아동단원들을 잘 돌보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옹호관철하는 투쟁이라는것을 확신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이들을 친누나, 친언니의 심정으로 극진히 돌보아주신다. 그이께서는 김길환의 어린 아들 송만이가 아버지가 갇혀있는 창고에 잡혀들어갔다는것과 김길환이 현으로 호송되여 총살된다는것을 아시고는 희생을 각오하시고 그의 아들을 구원해내신다. 한편 아이들을 버리지 말고 백두산까지만이라도 데리고 가자고 중대장에게 제기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온갖 위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체24(1935)년 겨울 아동단원들을 데리시고 처창쯔(처창즈)를 떠나 마안상(마안산)으로 향하신다. 행군도중 적들의 추격으로 중대와 헤여지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단신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간고한 행군을 계속하시여 마안상밀영에 도착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도 종파분자들인 부대장 조범과 특위파견원의 랭대를 받게 되며 송만의 녀동생 송희는 이곳에서 앓다가 죽게 된다. 주체25(1936)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동단원들이《민생단》협의로 박해를 받

고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아동단원들이 있는 마안상밀영에 들리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앓고있는 아이들도 만나보시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모포를 덮어주기도 하시며 그들을 위로해주신다. 그러시고는 강반석어머님께서 주신 돈 20원을 내놓으시여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새옷을 해입히도록 하시며 그후 아이들을 데리시고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신다. 작품은 력사적인 난후터우(남호두)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나갈 새로운 혁명적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령솔하시고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해나가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지략, 령도의 현명성과 새 세대들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또한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의 높은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끝없는 충실성과 위대한 어머니사랑으로 혁명의 후비대, 조국의 미래를 키워나가시는 한없이 숭고한 풍모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71(1982)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미래를 위한 초소》 단편소설. 주체67(1978)년 정성훈 창작. 후대교육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한 교육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시대 참된 교육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밝힌 작품이다. 하루는 구역상업과장과 이름난 권투선수 그리고 도일보사 기자인 내가 입원하고있는 병원호실에 대학을 졸업하고 소학교 교원으로 일한지 얼마 안되는 철호가 구급으로 들어오게 된다. 도시아이들의 실물교육을 위해 수업후면 교외에 나가 산속을 다니며 식물채집을 하군하던 그는 찬날씨에 비를 맞고 온몸이 불덩이가 되여 병원에 실려온것이였다. 입원한 날 밤에도 철호는 불편한 몸이지만 여러장의 종이에 글을 써넣기도 하고 조용히 시를 읊기도 하면서 밤늦도록 자지 않고 일하다가 내과과장에게 들키워 추궁을 받는다. 그러나 철호는 과장에게 아이들과 한 약속때문에 다음날에 자기를 꼭 퇴원시켜달라고 간절히 말한다. 이튿날 아이들이 자기 선생님을 찾아왔을 때에야 나와 호실사람들과 내과과장은 퇴원시켜달라고 한 리유가 아이들과 숲속을 연구관찰하고 시랑송모임을 가지기로 한 약속때문이라는것을 알게 되며 아이들과 한 약속은 조국의 미래와 나눈 약속이라고 하는 철호의 말에 큰 감동을 받는다. 병이 채 낫지 않았지만 철호는 사람들의 바래움속에 아이들과 함께 숲으로 떠난다. 소설은 철호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참된 교육자는 자기가 하는 일을 조국의 래일과 결부시켜 생각할줄 알아야 하며 그 일에 자기의 모든것을 성실하게 바쳐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67(1978)년 1호〕

《미래에 사는 처녀》 단편소설. 주체66(1977)년 조동서 창작. 유치원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육성하여 나라의 훌륭한 꽃봉오리로 키우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한 처녀교양원을 형상한 작품이다. 어느날 유치원교양원 정희는 출근길에서 자기가 맡은 반아이들인 영철이와 영란이가 유치원가까이에 있는 주택건설장에서 집짓기놀이를 하면서 벽돌들을 깨서 쓴것때문에 창고장아바이한테서 꾸지람을 듣는것을 보게 된다. 정희는 집짓기놀이를 하면서 남보다 더 높은 집을 짓겠다고 하는 아이들의 생각을 기특하게 여기면서도 그들이 나라의 귀중한 건설자재를 아끼도록 교양하지 못한 자신을 뉘우치며 그와 같은 결함을 제때에 고쳐주리라 마음먹는다. 그리하여 그는 밤을 새워가면서 걸그림을 만들어가지고 다음날 수업시간에 벽돌 한장을 만드는데 로동자아저씨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는가를 차근차근 일

깨워준다. 교양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친 영철이와 영란이는 수업이 끝난 다음 건설장에 나가 마구 널어놓은 벽돌들을 제자리에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소설은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귀여운 어린이들을 사회주의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양원들이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끌어주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66(1977)년 11호〕

《미래와 과거》 단편소설. 주체50(1961)년 김선걸 창작. 항일유격대원들이 무엇을 위하여 싸웠는가를 항일투사인 한 장령의 지나온 생활을 통하여 보여준 작품이다. 어느 한 휴양소에 가서 생활하면서 친숙해진 로작가로부터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전진환소장은 지도를 얻어다놓고 흘러간 20년전의 일들을 되새긴다. 행군과 전투, 식량난을 겪으며 왜놈들과 싸우던 일들을 회상하던 그는 작가와의 담화준비가 미숙하다는것을 느끼고 유격대에서 처음 선동공작을 맡아 준비하던 때처럼 지도앞에서 밤을 새운다. 마침내 그는 주체26(1937)년 여름 어느 한 숙영지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낸다. 깊은 밤 등잔불이 가물거리는 천막안에서 새 작전을 구상하고계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르며 잠 못들던 경위중대원들이 전투에서 로획한 려행용지도를 펴놓고 조국에 대하여 나누던 이야기이다. 그때 경위중대원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자주 말씀해주신 평양의 모란봉과 대동강, 금강산, 묘향산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놈들을 족치고 하루빨리 조국땅을 해방할 결심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그때는 지도에서 해방된 조국땅을 그려보며 피흘려 싸웠고 오늘은 그것이 현실로 꽃펴난것이다. 전진환은 이것이면 어느때 제일 기뻤는가 하던 작가의 물음에 대답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더욱 아름답고 부강해질 조국의 래일을 그려본다.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작품은 항일유격대원들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피흘려 싸운것은 조국의 해방과 행복한 오늘,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였다는것을 밝혀내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0(1961)년 제68호〕

《미소》 단편소설. 주체53(1964)년 권정웅 창작. 항일혁명투쟁시기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여 끝까지 혁명적지조를 지켜싸운 항일유격대 녀대원을 형상한 작품이다. 조직이 드러나 놈들에게 체포된 유격대 공작원인 금옥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보다도 막달찬 임신부의 몸으로 감방에서 고초를 겪고있는 련순에 대하여 더 걱정한다. 련순은 금옥이가 한해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마을에 조국광복회조직을 꾸리고 많은 녀성들을 묶어세워 유격대원호와 반일선전 등의 사업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며 유격대에 보낼 축기를 만드는 사업도 자기가 맡아수행하였다. 금옥은 이러한 련순이를 위하여, 더구나 그의 몸에서 태여날 새 생명을 위하여 그를 구원할것을 결심한다. 금옥은 유격대의 위치를 알려고, 련순이가 축기를 만들었다는것을 인정하라고 미쳐날뛰는 놈들에게 유격대는 백두산에 있으며 축기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말한다. 이때 감방안에서 련순이가 낳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리며 이에 북받쳐오르는 기쁨을 금치 못한 금옥은 놈들에게 네놈들은 저 아이를 다치지 못할것이라고 웨친다. 금옥은 서대문형무소로 가는 차에 오르면서 아이를 안고 압록강언덕에서 손을 흔드는 련순이에게 미소로 대답한다. 작품은 동지를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서슴없이 바친 항일유격대원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8(1969)년 제33호〕

《미풍》 단편소설. 주체51(1962)년 류근순 창작. 뜨거운 향토애, 조국애를 지니고 결

혼후에도 처녀시절의 열정과 기백으로 사회주의농촌을 꽃피워나가려는 천리마시대 청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작업반통계원에게서 소토분조 조장 채송란이가 누에작업반에 옮기려 한다는 말을 들은 중흥리협동조합 7반에서 선전사업을 맡은 영혜는 그것을 약혼하자마자 안일한 일터로 도피하려는것으로 여기고 단단히 충고하리라 마음먹는다. 송란이가 누에작업반에 가려고 한것은 약혼한 총각과의 약속을 지켜 시집을 가서도 그 마을의 견실한 일군들의 대렬에 떳떳이 들어서자면 초보적인 잠업기술은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약혼을 하자마자 헛된 꿈을 꾼다는 영혜의 말에도 실망하지 않고 송란은 서로의 고장을 아름답게 꾸려가자던 애인과의 약속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면한 자급비료생산에 열중한다. 그러던 어느날 영혜는 200%나 능률을 높인 새 강냉이파종기의 설계도면을 중흥리에 도입하도록 보내준 송란이의 애인 형만의 소행에서 큰 충격을 받고 참다운 사랑의 의미를 깨우쳐준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더욱 훌륭히 꽃펴주기 위하여 송란이를 그가 희망하던 잠업반으로 가도록 한다. 소설은 자기가 사는 고장뿐아니라 다른 고장들도 더욱 훌륭하게 꾸려가도록 서로 도와주고 힘을 합쳐가는 천리마시대 청년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고상한 미풍을 통하여 참다운 사랑은 위대한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끄는데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51(1962)년 9호〕

《미역》 단편소설. 주체47(1958)년 김재원 창작.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애쓰는 한 처녀판매원의 고상한 풍모를 보여준 작품이다. 어느날 저녁 하루판매실적을 종합하고있던 판매원 숙희는 밤늦게 급히 찾아온 탄부로부터 안해의 해산날자가 예정일보다 앞당겨져 미역을 사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상점에 쌓여있던 미역은 이미 다 팔리고 없었다. 숙희는 서운한 마음을 안고 돌아가는 탄부에게 꼭 해결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곧 읍관리소에 가보려고 한다. 이때 점장은 상점에 있는 물건을 팔지 않았으면 책임져야 하겠지만 다 팔리고 없는 물건이야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면서 가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숙희는 주민들의 생활상 요구를 해결해주는것이 상업일군들의 본분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하는것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가고 하면서 눈속에 빠져 뒹굴기도 하고 방향을 헛갈리기도 하며 20리 밤길을 걸어 끝내 미역을 얻어 탄부네 집에까지 가져다준다. 그로부터 며칠후 상점을 다시 찾은 탄부는 숙희의 소행에 감동된 탄광로동자들이 과외로동으로 상점건물신축을 맡아할것을 결의해나섰다고 말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점장은 지금껏 매상고만 올리는데 급급하고 인민의 참된 봉사자로 살지 못한 자신을 뉘우친다. 소설은 주인공 숙희의 형상을 통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상업의 참다운 우월성과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시대 상업일군이 지녀야 할 풍모를 밝히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47(1958)년 5호〕

《미완성력사화》 단편소설. 주체46(1957)년 석윤기 창작.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력사적화폭에 모시는 과정에 수령님의 위대성과 그이에 대한 인민들의 흠모의 감정을 더욱 깊이 체득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어린시절 산판의 우등불결에서, 혹은 광솔불그을음이 너울거리는 산막안에서 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전해듣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의 존귀하신 모습을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당시에 뵈온 종우는 해방후 중학교를 거쳐 미술대학을 졸업한 다음 보천보전투장면을 화폭에 담을 결심밑에 고향으로 내려온다. 여기에서 그는 2년간의 창작적 고심끝에 보천보의 밤하늘에 활활 타오르는 거세찬 불길을 배경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앞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형상한 미술작품을 완성하였으나 마을사람들로부터 작품이 어딘가 모르게 왜소해진듯 한감을 준다는 의견을 받는다. 그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작업에 착수한 종우는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는 산에 올라 밤을 지새우고 불덩어리처럼 이글거리며 솟아오르는 아침해를 보면서 고르고고르던 보천보불길의 색갈을 찾아내여 다시 작품을 완성하나 이번에도 마을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리하여 종우는 수정작업을 진행하여 세번째로 그림을 완성했으나 작품의 세계에 사람들이 끌려들어가지 않는것을 두고 고민하던 끝에 미술계에서 권위자로 알려진 정운호의 방조를 받기 위해 평양으로 올라온다. 정운호로부터 그림은 성공하였으나 인민들이 불만을 표시하는것은 보천보의 밤하늘에 태양의 숭엄한 모습으로 빛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그들의 가슴속에 새겨졌고 수령님을 흠모하고 우러러모시는 마음들이 그만큼 열렬하기때문이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종우는 전설적영웅으로서의 수령님의 위대성과 그이에 대한 인민들의 뜨거운 흠모의 감정을 보다 진실하게 반영할 새로운 결의를 안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간다. 소설은 종우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에게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려는 인민들의 불타는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일반화하고있다. 〔단편소설집 《폭풍속에서》,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6(1957)년판〕

《미완성론문》 단편소설. 주체62(1973)년 최용규 창작. 시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성실한 탐구정신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충정을 다 바쳐가는 어느 한 수산사업소 선장의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어로학과목을 맡은 교원 김병주는 통신졸업반학생인 ㅈ수산사업소 07호 뜨랄선장 김명호로부터 중층뜨랄어로방법과 어구구조에 대한 졸업론문을 사정에 의해 약속한 날자에 보내지 못한다는 전보를 받고 놀란다. 그것은 론문제출날자도 얼마 남지 않은데다가 그자신이 직접 현지에 내려가 여러차례 시험작업을 함께 하면서 론문의 내용도 명확히 확정해주고 그 기초자료들도 충분히 마련하여 집필을 위한 일정계획까지 세워주고 왔기때문이였다. 병주는 20년간의 교원생활에 오점을 남길것 같은 위구심을 안고 명호를 찾아 수산사업소로 떠난다. 그는 사업소지배인으로부터 명호가 실적이 적은탓에 생산참모회의에서 중층뜨랄어로의 우월성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게 되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먼바다로 나갔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랭장운반선을 타고 먼바다어장으로 나간 병주는 명호를 만나 《미완성초고》라고 휘갈겨 쓴 그의 론문이 졸업론문으로는 훌륭한것이니 그대로 제출하자고 말한다. 그러나 인민들에게 한마리의 물고기라도 더 먹이시려 밤잠도 잊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로고를 생각하며 론문을 위한 론문이 아니라 중층뜨랄어로의 확답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명호의 참된 모습앞에서 자신을 뉘우치고 그와 함께 먼바다어장에서의 중층뜨랄어로법을 완성하기로 결심한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조국과 인민앞에 내놓는 창조물은 언제나 자신의 불타는 충정심과 깨끗한 량심이 담겨진 성실한것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생활의 길》, 문예출판사, 주체62(1973)년판〕

《미완성전투화》 단편소설. 주체54(1965)년 리만길 창작. 이 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인민군전사들의 불타는 조국애와 신념을 보여준 작품이다. 전쟁이 가렬하던 주체41(1952)년 여름 어느날 박무갑소대장이 지휘하는 소대에 배치되여온 전사 송민은 가렬한 싸움이 거듭되는 속에서도 쉴참마다 혈전의 장면들을 화폭에 담아 그린다. 그는 갓 태

여난 고향의 아들에게 그림을 통하여 조국을 지켜 인민군전사들이 어떻게 싸웠는가를 보여주고싶었던것이다. 오봉산전투를 앞둔 어느날 소대장은 전쟁의 포화속에 태여난 전사의 아들이름을 오봉이라고 짓자고 제기한다. 그에 기꺼이 찬동한 송민은 오봉산전투에서 아군의 진격을 저애하는 적화점을 영용하게 까부시고 장렬하게 전사한다. 송민은 희생되는 순간에 자기가 미처 다 그리지 못한 《오봉산공격》이란 제목을 단 그림을 오봉이가 완성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남긴다.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어느날 소좌로 승급된 박무갑은 송민의 아들 오봉을 찾아가 아버지의 미완성그림 《오봉산공격》을 넘겨주면서 네가 완성해야 할 이 그림은 오봉산이 아니라 남해의 어느 기슭으로 되여야 할것이라고 말해준다. 소설은 한폭의 미완성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통하여 지난 전쟁시기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위훈과 함께 아직 이룩되지 못한 조국통일위업은 그의 자식들에 의하여 반드시 실현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고 있다. 〔《문학신문》, 주체54(1965)년 제68호〕

《미완성조각》 단편소설. 주체72(1983)년 고병삼 창작. 자유와 민주를 위한 성전에 청춘의 희망도 사랑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 5월의 광주렬사들의 영용한 투쟁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광주시에서는 자유를 위해 일떠선 시민들과 발톱까지 무장한 괴뢰군과의 전대미문의 대결이 며칠째 계속된다. 길가에 딩구는 돌멩이와 부서진 기와장들, 부러진 가로수들이며 만신창이 된 뻐스와 바리케트들, 어디 가나 거리는 피로 물들어있다. 이러한 때 애인을 만나러 고향에 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서혜경은 애인이 전해준 미완성조각을 받게 된다. 자신의 모습을 련상시키는 애인의 조각은 젊고 아름다운 녀성이 첫 아기를 안고 어머니가 된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굳세게 서있는 모습을 새긴것이였다. 혜경은 미완성조각에서 파쑈폭압의 총칼이 란무하는 남조선땅에서는 자기들의 순결한 사랑도 이루어질수 없음을 절규하는 애인의 피타는 심정을 감수하게 된다. 피로 물든 거리 그리고 애인의 미완성조각에서 큰 충격을 받은 혜경은 드디여 항쟁의 거리에 나설 용단을 내린다. 항쟁의 거리에서 혜경은 그처럼 그리던 애인을 만나며 그와 함께 최후의 마지막순간까지 용감하게 싸운다. 작품은 미제와 괴뢰도당의 반인민적통치밑에서는 인간의 참된 삶도, 아름다운 리상도 꽃피울수 없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72(1983)년 8호〕

《민들레》 장편소설. 주체94(2005)년 김문향 창작. 소설은 조국통일성전의 길에 나섰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여 차디찬 철창속에 갇히게 되지만 들가에 핀 민들레처럼 수십년세월을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혁명적지조를 지키고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로 조국의 품에 안기는 한 비전향장기수의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작품은 주인공 양성우가 통일애국투쟁의 길에 나섰다가 친구인 최국현의 안해의 밀고로 적들에게 체포되여 무기수로 대전교도소에 감금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린시절 조국이 없는 식민지민족의 설음을 뼈아프게 절감하며 자라난 양성우는 일본군대에 끌려가다가 도망쳐 까치봉무장소조원으로도 활동하고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제반민주개혁실시에도 참가하였던 소학교시절의 담임교원이였던 최국산선생으로부터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에 한몸 바칠것을 굳게 결심한다. 그리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 《국군》에 징집되여 성천계선에 나간 기회에 부대를 탈출하여 인민군대에 입대한다. 그는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참가하며 전후에는 북방의 공업도시에 있는 제강소에서 일하면서 대학공부를 마치고 기사로까지 자라난다. 이 과정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야말로

우리 민족모두가 안겨살 진정한 조국의 품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게 되며 이 신념은 옥중투쟁의 나날에 더욱 굳게 자리잡게 된다. 적들에게 체포되여 서울로 호송될 때 급행렬차에서 몸을 날려 자살을 시도한 주인공을 놓고 놈들은 세뇌작전만이 그를 전향시킬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독감방에 가두어 고독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얼마 살지 못할 중환자와 결핵환자, 깡패두목을 한감방에 몰아넣어 심리적압박을 가하는 등 온갖 책동을 다한다. 그러나 성우는 왼쪽팔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불편한 몸이지만 결핵환자인 최송림을 성심성의껏 돌봐주며 깡패두목인 강대석을 친동생처럼 대해주면서 공화국북반부에서의 행복한 생활들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어 그로 하여금 자신뿐아니라 그의 의형제모두를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나서도록 이끌어준다. 한사람이라도 더 통일애국투쟁의 씨앗으로 키우려는 그의 헌신적인 투쟁은 감옥안의 사람들뿐아니라 감옥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준다. 성우는 국현의 안해때문에 적들에게 체포되기는 하였지만 친구를 멀리하지 않고 그의 4촌형인 최국산선생의 령전앞에서 다진 맹세대로 나라와 인민을 위해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준다. 이렇게 되자 담당교회사인 윤동길을 비롯한 놈들은 주인공의 어릴적 동무인 최국현의 4촌동생 최국화(최송림의 고모)를 내세워 전향을 강요하기도 하고 혹독한 고문을 들이대기도 한다. 나중에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죽은줄 알았던 성우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행처를 찾아내여 그들을 리용한 전향공작에 매달린다. 성우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적들의 모략과 간계에 의하여 모진 생활고에 시달리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진정한 삶을 안겨준 어머니조국을 위해 신념과 지조를 더욱 굳게 다져나간다. 그의 불굴의 정신력앞에서 최국화와 동생 양귀련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한길을 걸어나갈것을 맹세한다. 소설은 출옥후 어느한 인쇄소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을 담은 로작들과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영생》을 비롯한 공화국북반부의 도서들을 인쇄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선전하는 등 통일애국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던 주인공 성우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에 의하여 조국의 품에 안기기 위해 친척친우들과 작별하는 장면에서 끝난다. 소설은 모진 바람이 불어와도 굽히지 않고 억세게 맺은 씨를 거치른 산과 들에 하얗게 퍼뜨리는 민들레처럼 수많은 통일애국의 씨앗을 키워낸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삶을 빛내인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와 그 근본바탕을 잘 보여주고있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4(2005)년판〕

《민들레꽃 피는 곳》 단편소설. 주체85(1996)년 홍철령 창작. 청년들이 부모들의 뒤를 이어 나서자란 고향땅을 대를 이어 지키고 꽃피워나갈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다. 주인공 나는 민들레꽃 피는 고향마을에서 즐겁게 뛰놀며 자라나 어느덧 농업대학 학생이 된다. 대학 상급반에 올라가자 나는 어머니의 부탁대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연구하던 실험일지들에 기초하여 벼종자연구사업에 착수한다. 그런데 결과는 시원치 못했다. 론문지도교원인 차교수는 나가 연구하는 《평양15》호에 대한 연구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매우 어렵기때문에 방향을 돌릴것을 권고한다. 하여 새 론문을 선택한 나의 행동은 뜻밖에도 어머니의 실망과 소꿉동무 정향의 원망과 질책에 부딪친다. 나는 정향의 편지를 통하여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고향땅을 가꾸기 위해 모든것을 다한 영예군인 아버지에 대한 사연을 더 깊이 알게 되며 자신을 심각히 뉘우친다. 나는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민들레처럼 고향과 조국을 아름답게 가꾸는 꽃이 될것을 결심한다. 소설은 부모들이 고향땅을 사랑한

것처럼 새 세대들이 향토애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85(1996)년 7호〕

《민족과 운명》 영화문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밑에 창작된 자주시대 문학예술의 본보기작품이다. 노래《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상으로 하여 창작된 작품은 민족과 운명에 관한 문제, 다시말하여 민족의 운명이자 곧 개인의 운명이라는 종자를 제기하고있다. 작품의 종자에는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고 온 겨레가 단결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주체의 진리가 빛나게 구현되여있다. 현시기 우리 민족뿐아니라 인류의 자주위업을 수행하는데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이 심오하게 체현되여있는 철학성있는 내용에 기초하여 작품은 우리 시대의 조선사람으로서 참되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있으며 각이한 운명의 길을 걸어온 인간들, 주인공들의 곡절많은 인생행로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인민,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사상을 반영하고있다. 작품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는 절실하고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그에 기초하여 인간성격과 생활을 깊이있게 그려내고있으며 독특하고 기발한 구성수법을 탐구하여 완벽한 영화적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작품은 다부작으로서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발전과정을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진실하게 그려내고있으며 각계층 인물들의 생활을 다양하게 펼쳐놓으면서도 모든 형상들이 한결같이 종자실현에 합류되도록 하면서 양상과 정서를 조화롭게 통일시키고있다. 작품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있는 주제의 형상적인 의의와 그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해명으로 하여 단연 시대의 걸작으로 되고있으며 포괄하고있는 내용과 규모의 방대성, 주제해명의 깊이에 있어서도 손색이 없는 걸작으로 되고있다. 작품의 1—4부 (최상근, 신상호, 리춘구, 박청룡, 김영준, 현상무, 김세륜, 오진흥, 김희봉 창작)에서는 한생을 반공일선에서 복잡한 운명의 길을 걸어오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품, 공화국의 품에 안겨 새삶을 찾는 주인공 최현덕의 인생전환과정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최현덕은 해방직후부터 민족을 위한 군대를 건설하는 길에서 한몫하려 하였으나 오히려《국군》사단장으로서 반공일선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수많이 살해하는 용납할수 없는 매국배족행위를 저지른다. 또한 서부도이췰란드주재 《한국》대사로 있으면서 민족을 위한 대외활동을 해보려 하였으나 민족의 명예를 더럽히는 결과만이 빚어지게 하였으며 천도교 교령직을 말아보면서 민족의 넋을 구원하는 성직자가 되려 하였으나 성금횡령의 오명을 쓰고 민족의 버림을 받는 고아의 신세가 되고만다. 주인공은 자신의 우여곡절에 찬 한생의 체험을 통하여 남조선사회의 부패상을 똑똑히 깨닫게 되며 해외망명의 길에 오르게 된다. 주인공은 미국에 망명하여 새로운 눈으로 남조선에서의 생활을 총화해보면서 자기가 걸어온 반공의 길이 애국애족의 길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고 죄악적인 민족반역의 길이였다는것을 통절히 느끼게 된다. 인생 말년에나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배달민족회를 조직하고 《배달신보》도 발행하며 활동하는 과정에 그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며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공화국북반부에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불타오르게 된다. 더우기 전쟁시기 공화국북반부로 간 자기 아버지가 애국렬사릉에 안치되여있다는 소식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평양으로 달려가고싶은 열망이 가슴에 차오르게 한다. 그러나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죄의식으로 하여 공화국북

반부에로의 방문의 길에 선뜻 오르지 못하고 번민에 모대기던 그는 안기부놈들의 악랄하고 집요한 위협공갈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평양을 방문할 용단을 내리게 된다. 평양에 온 현덕은 몰라보게 전변된 조국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어하면서 민족앞에 저지른 자기의 지난날의 죄악을 과연 용서받을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고민한다. 주인공의 불신과 의혹은 항일혁명투사 강훈과 소꿉시절동무 곽대식과의 관계에서 더욱 커지게 된다. 자신의 죄과를 두고 모대기며 속죄의 길을 찾던 현덕은 고향을 방문하는 과정에 새로운 인생전환의 길에 들어서게 되며 강훈, 곽대식과의 불미스러운 관계도 완전히 풀게 된다. 작품은 한생을 반공의 길에서 기구하고 곡절많은 운명의 길을 걸어오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새삶을 찾는 주인공 최현덕의 형상을 통하여 반공의 길은 애국애족의 길이 아니라 매국배족의 길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는 길만이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자신을 구원하는 참된 삶의 길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밝히고있다. 작품은 주체81(1992)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작품의 6—10부(최상근, 신상호, 리춘구, 장례순, 김세륜, 황정남, 오진홍, 설주용 창작)에서는 민족앞에 죄를 짓고 반역의 길을 걸던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차홍기가 인생말년에 민족을 위한 참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과정과 남조선 괴뢰우두머리들의 첩자로, 권력의 시녀로 굴러떨어졌던 홍영자가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과정을 폭넓게 형상하고있다.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서 면공청사업을 하다가 월남한 차홍기는 괴뢰군에 들어가며 사단장이 된다. 차홍기는 5.16군사쿠테타직후 박정희의 신임으로 일약 군단장으로까지 승진하게 된다. 청년시절부터 민족의 얼이 깃든 태권도로 민족대단합을 이룩할 생각을 품어온 차홍기는 전연부대의 군단장으로 가서도 태권도사범들을 키워낸다. 박정희와 정보부장은 저들의 개인밀정인 홍영자와 전두환에게 차홍기의 사상동향을 내탐하게 한다. 박정희는 차홍기군단에 대한 전선시찰을 단행하며 이 과정에 태권도수련생들의 시범동작을 보면서 불안을 느낀다. 그는 단결을 부르짖는 8만명의 태권도수련생들이 차홍기의 영향하에 있다는 사실에 위구를 느끼고 이북출신장성들을 완전숙청하기 위한 알라스카작전의 서곡으로서 전두환련대의 3대대를 인민군대로 가장시켜 차홍기군단의 전방감시소를 습격하는 비렬한《작전》을 감행하고 그 책임을 차홍기에게 뒤집어씌우며 직무태만죄로 몰아 그를 철직시키려고 꾀한다. 미국의 충실한 개 박정희는 알라스카작전을 실현하여 남녘땅에 통일신라의 전통을 확고하게 세우고 장차 군사분계선을 두 나라의 국경선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미국대사놈의 지시를 받아문다. 박정희에 의하여 통일의 념원을 안은 차홍기를 제거하기 위한 피비린 살륙전인 알라스카작전이 꺼리낌없이 감행된다. 그러나 전두환놈을 짓조겨 이 사건의 진상을 알아낸 차홍기는 박정희놈과 결별을 선언하고 남조선땅을 떠나간다. 그후 카나다에서 살고있는 차홍기앞에 그에 의하여 조직된 국제태권도련맹을 분렬와해시킬데 대한 전두환의 비밀지령을 받은 홍영자가 나타난다. 차홍기는 홍영자를 만난 자리에서 남조선통치배들의 꼭두각시가 되여 국제태권도련맹을 분렬시키려는 그를 호되게 단죄하고 그에게 박정희에 의하여 처단된 괴뢰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 쓴 회상록인《권력과 음모》를 준다. 민족을 등진자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보여주는 회상록을 읽어가는 홍영자는 김형욱과 같은 심복졸개들까지 자기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가차없이 차버리는 박정희의 정체에 대하여 되새겨본다. 김형욱은 심복졸개로서《3선개헌》이 강압통과되도록 하는데 앞장섰으나《선거》직후 상전의 버림을 받은채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며 박정희에 대한 격분을 안고 회상록을 쓰게 된다. 박정희는 그를 없애

버려 자기의 죄행을 흑막속에 묻어버리려고 홍영자와 김재규를 내세워 그를 해외에서 남조선으로 랍치해오도록 모략을 꾸미며 청와대에 끌려온 김형욱을 가차없이 총살해버린다. 형욱의 처참한 죽음을 통해 박정희의 음흉하고도 야수적인 속심을 알게 된 홍영자와 김재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자기들의 뒤일을 우려한다. 《3선》을 강행하여 다시 대통령의 감투를 뒤집어쓴 박정희는 경호실장 차지철을 자기의 심복졸개로 내세운다. 이에 불안을 느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언젠가는 자기도 형욱이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리라는것을 예감하고 홍영자와 함께 박정희에 대한 암살계획을 세운다. 이리하여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의 비밀료정에서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살된다. 박정희가 죽은 후 홍영자는 일시 고향에 내려가 조용히 살려고 했으나 권력의 감투를 쓴 전두환에 의하여 다시 권력의 싸움판에 끼여들게 되며 국제태권도련맹의 분렬을 꾀하여 카나다에까지 오게 되였던것이다. 죄많은 과거와 앞날에 대한 불안에 모대기던 홍영자는 량심의 가책과 인생의 새로운 길에로 떠밀어주는 차홍기와 신달래의 진정어린 마음에 이끌려 드디여 새 출발을 결심한다. 작품은 권력과 음모, 사살의 악순환으로 일관된 남조선사회의 부패상과 당국자들의 분렬주의적야망을 폭로하면서 민족분렬의 위기를 막고 민족대단합을 실현하는 참된 길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품, 진정한 조국의 품에 안기는데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밝히고있다. 작품은 주체81(1992)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작품의 11—13부(최상근, 신상호, 리춘구, 리덕윤, 리희찬 창작)에서는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비전향장기수 리인모를 원형으로 하여 그의 생활과 투쟁을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주인공 리정모가 34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석방되여 나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감옥문을 나선 주인공은 향수에 젖어 북녘하늘을 우러른다. 공화국북반부에 있는 그의 안해와 딸은 리정모가 쓴 수기를 통하여 그의 옥중투쟁에 대하여 알게 된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기자로 활동하던 리정모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지리산빨찌산에 들어가 용감히 싸우다가 적들에게 체포된다. 남조선괴뢰들은 리정모를 전향시켜보려고 온갖 비렬한짓을 다한다. 전향서를 쓰면 출옥시켜주겠다고 유혹하는 교도관에게 리정모는 지리산빨찌산투쟁시기에 적들의 회유를 단호히 뿌리치고 자기의 당원증번호를 긍지높이 웨치며 솟구치는 불속에 뛰여들어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정치위원을 생각하며 전향을 거절한다. 리정모는 25년간이나 함께 옥중생활을 하여온 용세의 전향을 계기로 놈들이 조작한 비렬한 전향축하연에서 해방전후의 자기의 생활에 대하여 돌이켜보면서 참기 어려운 괴로움을 이겨내고 용세를 준렬히 단죄한다. 원쑤들의 온갖 비인간적인 학대와 고문속에서도 굴함없이 옥중투쟁을 벌려나가던 리정모는 감옥에 갇혀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처하고있는 처참한 환경을 만천하에 고발할 목적으로 세계인권기구에 편지를 보낸다. 피의 지장이 찍힌 그들의 편지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세계인권기구에 도착하게 되며 마침내 칠튼부인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남조선에 도착한다. 비렬한 놈들은 온갖 허위와 날조로 사실을 외곡하여 대표단의 눈을 속이며 지어 가짜리정모까지 내세워 저들의 비인간적죄행을 감춘다. 그러나 리정모는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리정모는 모진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참기 어려운 중세기적고문과 지어 생매장까지 당할번 하는 속에서도 끝까지 신념과 의지를 지켜싸운다. 그후 감옥에서 나온 리정모는 상준농민의 집에서 수기《파발리의 총성》의 원고집필을 끝낸다. 리정모는 수기를 통하여 지리산에 묻힌 전우들, 옥중에서 자결한 동지들의 념원과 위훈을 후세에 전하게 된것으로 하여 기쁨을 금치 못해한다. 《말》잡지사 기자 주신영은 이미 전

재한 리정모의 수기에 이어 새로 완성한 수기를 출판하려 하지만 당국의 방해책동으로 실현하지 못하게 되자 그것을 카나다에 있는 황설란기자에게 주어 출판하게 하려고 한다. 황설란은 공화국북반부로 찾아가 리정모의 안해 례성과 강훈을 만나는 과정에 리정모가 해방후 첫 당일군이였다는것을 알게 되며 그가 지닌 신념은 정의, 량심, 조국, 사랑으로 결합된 가장 고상하고 견결한것이라는것을 절감하게 된다. 한편 공화국정부에서는 리정모의 귀환을 반대해나서는 남조선당국의 민족분렬주의적책동의 정체를 신랄히 까밝히면서 그의 귀환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방문단을 보낼것을 제의한다. 안기부놈들은 방문단을 만나기 위하여 서울로 오는 리정모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서며 저들의 모략이 파탄되자 그를 무인도로 강제압송한다. 작품에서는 안기부놈들의 집요한 책동을 박차고 수기《파발리의 총성》을 출판하는 주신영의 노력에 대하여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남조선통치배들의 책동으로 하여 방문단파견이 실현되지 못하게 되자 리정모가 방송을 통하여 자기에게 보내는 안해의 편지를 청취하면서 안타까이 몸부림치는 장면으로 끝난다. 작품은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리정모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사가 지닌 신념과 의지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으며 혁명적신념과 의리를 지킬 때만이 자신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일수 있고 당과 수령의 충직한 전사, 민족의 장한 아들로 영생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신념이 그 전사들의 불굴의 신념을 낳는다는 진리를 확증하고있다. 작품은 주체81(1992)－주체82(1993)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작품의 5, 14－16부(최상근, 신상호, 리춘구, 오진홍, 김희봉, 박청룡 창작)에서는 남조선사회를 등지고 해외에서 살면서 정의로운 음악창작활동으로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이바지한 재능있는 음악가 윤상민의 운명선을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의 주인공 윤상민은 남조선군사깡패들의 폭압으로 도이췰란드에 망명하게 된다. 윤상민은 그후 세계적인 음악가로 되였으나 이국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인권을 유린당하고있는 광부들과 간호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였다는 리유로 랍치되여 남조선으로 끌려간다. 박정희군사깡패들은 윤상민을 감옥에 넣고 사형판결까지 내리지만 세계각국의 항의에 못이겨 석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최후를 각오한 윤상민은 감방에서 교향곡을 작곡했으나 파쑈도당은 그것마저 세상에 발표되지 못하게 찢어버린다. 그후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 작품을 더 훌륭히 되살리여 무대에 내놓아 인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게 되자 윤상민은 사회주의조국이야말로 민족의 넋이 살아있는 내 나라, 내 땅이며 그 품은 사람들에게 참된 삶을 안겨주는 사랑의 품이라는것을 절감하게 된다. 윤상민의 애국애족의 리념이 반영된 음악작품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절찬을 받는다. 윤상민이 세계적인 작곡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자 전두환괴뢰역도는 그를 저들의 정치적리용물로 만들려고 꾀하면서 남조선으로 끌어가려고 한다. 윤상민은 전두환이 보낸 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남조선에 민주화가 실현되여야 돌아가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자 안기부놈들은 윤상민이 프랑스에서 고학을 할 때 남조선에서 실종된 아들을 찾아내여 그것을 미끼로 그를 끌어당기려 하며 윤상민의 친지들과 제자들이 남조선에서 윤상민음악회와 윤상민생일기념음악회를 열려고 하자 그것을 저들의 모략을 실현하는데 리용하려고 한다. 윤상민은 분렬된 조국땅의 콩크리트장벽우에서 범민족통일음악회를 열것을 선언하고 거기에 내놓을 통일교성곡을 완성하기 위하여 평양에 다녀올것을 결심한다. 주인공은 그 실현을 위한 길에서 첫걸음부터 뼈아픈 운명의 곡절을 겪게 된다. 청와대의 각본에 따

라 윤상민에게 《서울올림픽개막곡》작곡을 의뢰하기 위하여 베를린으로 온 곽정수는 범민족통일음악회의 큰일을 부탁하는 상민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며 조카별되는 유석은 민족분렬의 설음이 우리 3세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고 상민에게 대들기까지 한다. 이러한 때 남조선 중앙정보부의 지시를 받은 이전 교도관 리숙자는 상민의 아들 문철의 사진을 내보이면서 그를 꾀이려 한다. 또한 수임에게서 문철의 소식을 부탁받고 서울로 돌아온 정수는 바로 자기가 윤상민의 친아들이며 상민이 외국에 갈 때 어린 자기를 팔아치웠다는 리숙자의 거짓말을 곧이듣고 친부모에게서 버림받은 괴로움과 원망, 울분에 몸부림치면서 베를린에서 전화를 걸어온 수임에게 아들을 만나려거든 서울로 오라고 한다. 주인공 윤상민은 이러한 뼈아픈 운명의 곡절을 겪으면서도 통일음악회의 실현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며 드디여 강서고분벽화에서 교향곡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를 착상한다. 드디여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예비회담이 열린다. 남측대표인 정수는 회담에서 윤상민의 제의에 반대해나서며 나중에는 일방적으로 퇴장한다. 정수는 그후 뒤늦게야 모든 진내막을 알게 되며 통일음악회의 성사를 위해 곧 도이췰란드로 떠날것을 결심한다. 이렇게 되자 놈들은 정수의 출국을 막는 한편 해외에서 자동차충돌사고를 일으켜 윤상민을 사경에 빠뜨린다. 아버지 윤상민이 어째서 남조선을 조국이 아니라고 했는지 뼈저리게 절감한 정수는 기자인터뷰를 열고 남조선의 반민주, 반통일세력의 죄행을 세계앞에 신랄히 폭로단죄한다. 또한 윤상민은 남조선에 올것을 요구하여 또다시 자기를 찾아온《대통령》특사일행에게 국민을 원쑤로 치부하는 《보안법》을 철폐할데 대한 요구조건을 내놓으면서 범민족통일음악회는 반드시 열리고야말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한다. 작품은 분렬된 강토에서 사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다운 조국이란 무엇이고 그 품은 어디에 있으며 민족의 한 성원을 이루는 각자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어떻게 이바지해야 하는가 하는 절박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심오한 철학적해명을 주었으며 민족최대의 숙원은 조국통일이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만이 살길이라는 진리를 확증하고있다. 작품은 주체81(1992)—주체82(1993)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작품의 17—19부(리춘구, 오진흥, 현상무, 류부연 창작)에서는 처녀의 몸으로 일찍부터 혁명의 길에 나섰지만 옳바른 령도자를 만나지 못하여 곡절많은 운명의 길을 걸어오다가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겨 참된 삶의 길을 걷게 되는 허정순의 생활과 투쟁을 형상하고있다. 작품의 기본사건은 엠엘파의 주요인물인 최승헌이 주인공 허정순에게 자기의 파를 대표하여 국제당특파원으로 갈것을 권고하는데로부터 시작된다. 아직 정치적각성이 부족했던 정순은 그것이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2천만겨레의 운명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선뜻 응해나선다. 그러나 그는 이번 걸음이 종당에는 당내에 존재하는 각파의 분렬을 더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것이라는 애인 송윤석의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되돌아선다. 그때로부터 각파의 화해와 단합의 방도에 대하여 줄곧 모색하던 정순은 어느날 김책동지에 대한 공판에 참가하여 우리 혁명에도 단합의 중심, 령도의 중심은 조만간에 탄생할것이라고 격조높이 웨치는 그의 모습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게 된다. 정순은 자기의 결혼식을 통해 파벌들의 단합을 이루어보려고 하지만 결혼식장은 파쟁군들의 치렬한 싸움마당으로 변해버리며 그의 의도는 무참히 깨여지고만다. 초기공산주의운동에 대하여 커다란 실망과 환멸을 느낀 정순은 민족주의운동을 한다고 하는 해외독립운동자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걸고 찾아간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남의 나라 땅에 와서까지 서로 물고 뜯으

며 권력다툼을 하고 더우기는 외세의존의 독립방략아래 대국에 아부해서 독립을 꿈꾸고있는 민족주의자들의 추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정순은 이국에서 돌아오는 길로 일제에게 체포되여 서대문형무소로 끌려간다. 정순은 감옥안에서 철도부설반대투쟁이 승리한 소식에 접하여 새 희망을 가지게 된다. 감옥에서 나온 후 정순은 새로운 투쟁의 길을 찾아 떠난다. 간난신고하여 김책동지가 있다는 곳에 가보았으나 련락지점이 파괴되여 만나지 못한 정순은 여기저기 헤매며 방황하던중 최승헌을 만나게 되며 일제주구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벌리는 그들의 파벌테로행위에 휘말려들게 된다. 후에야 진상을 알게 된 정순은 격분하여 최승헌에게 침을 뱉고 돌아서며 그길로 중국부대를 찾아가 반일항전에 참가한다. 정순은 조국해방과 함께 **김일성**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며 마침내 그리운 조국의 품, 민족의 어버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새로운 혁명의 길, 참된 삶과 보람찬 투쟁의 길을 걸을수 있게 된다. 작품은 수령은 민족을 이루는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이고 민족적단합의 구심점이며 민족의 운명, 개인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결정적요인은 탁월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있다는 진리를 천명하고있다. 작품은 주체83(1994)년－주체84(1995)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작품의 20－25부(리춘구, 오진홍, 류부연, 오현락 창작)에서는 귀화한 일본인녀성의 생활과 운명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어느 한 병원의 기술부원장으로 사업하고 있는 귀화한 일본인녀성인 림은정(이즈미 기요시)이 일본에 두고온 딸의 행처를 찾던중 그가 죽었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받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불행한 운명을 안고 태여난 유끼꼬는 어린시절 어머니와 강제로 헤여져 이름까지도 다쯔꼬로 고치고 외삼촌의 양육을 받는다. 외삼촌은 그에게 너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죽이고 조선인남자와 눈이 맞아 너까지 버리였다고 한다. 그 말을 진실로 믿은 유끼꼬는 차츰 성장하면서 어머니를 증오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 와있는 일본인녀성들의 생활문제를 제나름으로 외곡하여 인권문제를 들고나오려고 꾀하는 일본정부로부터 어머니가 죽었다는 꾸며진 소식을 받은 유끼꼬는 어머니의 유골을 찾을 결심밑에 평양으로 온다. 그는 분명 죽었다던 어머니가 살아있으며 행복을 누리고있는 모습에서 갈피를 잡을수 없어한다. 어머니 림은정도 유끼꼬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으나 어머니의 사랑을 외면하는 딸을 두고 괴로움을 금할수 없어한다. 유끼꼬는 원산에 있는 귀화한 일본인녀성의 아들인 영예군인부부의 결혼식에 참가하여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속에 행복에 넘쳐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며 안내원처녀 수영이가 자기의 녀동생이라는 뜻밖의 사실에 접하게 된다. 그들의 인척관계는 광민의 어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련행하여 저들의 성노리개로 만든 일제의 야수적만행자료가 폭로되면서 더욱 깊어지게 된다. 림은정의 생활을 외곡선전해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노다를 위시로 한 일본대표단은 이번에는 량강도에 있는 김성숙녀성을 저희들의 목적에 리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백두산혁명전적지 강사로서의 높은 긍지를 안고살며 일하고 있는 그에 의하여 놈들은 면박을 당하고 쫓겨나게 된다. 어머니에 대한 야속한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있던 유끼꼬는 혜산에서 돌아오는 렬차안에서 수영이가 잠결에 떨군 어머니의 일기장을 통하여 비로소 어머니와 자기가 갈라진것도, 자기가 어머니를 질시하게 된것도 모두 삼촌탓이였다는것을 알게 된다. 다쯔꼬의 삼촌 노보루는 림종을 앞두고 그에게 림은정을 어머니라 부르라고 하며 가문의 재산을 녀동생인 이즈미 기요시에게 상속시킨다. 간교한 후꾸다와 노다는 이것을 기회로 림은정을 다시 일본인으로 환생시킬 계책을 꾸미며 이들의 간계에 넘어간 다쯔꼬는

림은정에게 불행한 자기를 위해 다시 일본으로 갈것을 절절하게 애원한다. 림은정은 고마운 조국에서 무상으로 새 집을 받던 일이며 일본인녀성이 구역인민회의 대의원립후보자로 추천되던 일 그리고 자신이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되던 일이며 병원당원들의 일치한 보증속에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던 일들에 대하여, 더우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신과 아이들의 운명을 두고 커다란 심리적고충에 모대길 때 자기와 가정에 돌려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고 한없는 고마움에 눈물을 쏟던 일들에 대하여 결코 잊을수 없었다. 이 나라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경애하는 장군님의 보살피심밖에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음을 생활을 통하여 절절히 체험하였기에 림은정은 그이께 삼가 올린 편지에서 그 어떤 민족성도 초월하여 오직 인간을 자주적인 존재로 대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세기의 위인이시며 언제나 뜨거운 혈육의 정으로 일본인녀성들을 따뜻이 품어주시는 친정아버님이시라고 진정을 토로한다. 한편 재산상속권의 법적효력문제를 놓고 어머니를 질시하는 유끼꼬는 공화국정부의 노력에 의해 그것이 해결되자 비로소 어머니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만경봉》호에 몸을 실은 유끼꼬는 어머니가 사는 이 땅을 정녕 내나라라고 부르고싶다고 심장으로 절절히 웨친다. 작품은 일본당국의 민족배타주의적 립장과 졸렬성, 조선인민에게 들씌운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인 만행과 공화국정부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적대시정책을 예리하게 까밝히면서 민족적차별이 없이 인간의 삶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조국,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안겨살 진정한 조국이며 운명개척의 참다운 품이라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작품은 주체83(1994)—주체84(1995)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작품의 26—34부, 44—45부(로동계급편)(리춘구, 리덕윤, 박청룡, 홍순복 창작)에서는 천리마운동선구자의 한사람인 진응원로력영웅을 원형으로 하여 오랜 용해공일가의 생활을 취급하면서 쇠물철학을 형상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쇠물과 함께 3대를 살아오는 주인공 강태관일가의 쇠물집으로는 전후 전쟁판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식구들을 대신하여 각이한 인생행로를 거친 인물들이 모여들게 된다. 전쟁으로 인하여 페허로 된 제강소로 고향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있는 가운데 남조선에 고향을 둔 귀환병인 진응산은 전선에서 두눈을 잃은 처남인 공승렬을 통해 폭격에 안해 공지순이가 잘못되였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안은채 쇠물집에 려장을 풀게 된다.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된 강태관의 둘째 아들 강석이가 야금기사 한송옥을 데리고 집에 나타난다. 강태관의 동생 강태섭로장은 전쟁때 처자를 다 잃고 혼자 살아가는 과정에 직장창고장 사옥비에게 마음을 둔다. 태섭은 강석의 혼사를 정하는 자리에서 송옥이가 부르죠아계급출신이라고 이를 단호히 부정한다. 진응산은 귀환병의 수치를 씻을수만 있다면 땀이 아니라 피를 바칠 결심밑에 용해공이 되려 하나 로장인 태섭이가 그의 마음을 리해해주려 하지 않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관계는 악화된다. 강선을 뜨려 하다가 강태관직장장에 의해 다시 눌러앉은 응산은 40t전기로축조에 쓸 내화벽돌을 기관차에 싣고오던중 반동놈들의 책동으로 하여 차가 전복되고 여러가지 오해를 받게 되자 불신의 눈길앞에서 기를 잃고 모지름을 쓴다. 한편 귀환병이라는 허물로 허기춘의 결혼식이 파탄되자 귀환병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두고 여러가지 억측을 하며 실망한다. 이러한 그들을 보고 강태관은 자기의 딸 강옥과 진응산을 결혼시킬 결심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강태관의 맏아들 강준은 집안의 새로운 가풍인 쇠물철학의 심오한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데로부터 순수한 로

동계급의 집안인 자기 가문이 밑지는것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반대해나선다. 제강소로동계급은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드디여 40t전기로에 불을 지피게 되며 이것을 계기로 강옥과 진응산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만사람의 축복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빈터우에서 40t전기로를 일떠세운 강선의 로동계급은 가열로건설을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린다. 가열로건설문제를 놓고 오참사를 비롯한 반당반혁명분자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억지로 내려먹이려고 하지만 강선의 로동계급은 제강소의 주인은 바로 자기들이라고 하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한편 태섭로장과 사옥비창고장사이의 사랑은 어느덧 제강소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된다. 하지만 해방전 제강소의 리권을 상속받았던 사람이고 간첩임무를 받고 들어와 후에 해당기관에 자수한 남모르는 사연을 안고있었던 사옥비는 강태섭과 정을 나누면서도 그와 결혼하여 쇠물집사람으로는 될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당위원장으로부터 자기의 어지러운 과거가 새생활을 창조하는데 절대로 방해되지 않는다는것을 확언받으면서도 자기가 쇠물집에 들어간다는것은 작은 구멍때문에 큰배가 가라앉듯이 쇠물집기둥에 좀이 쓸게 할것이라고 간주하며 죽어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고집한다. 강태관은 이러한 사옥비에게 전기로에 들어가서 녹지 않는 파철이 없다고 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파철이든지 전기로에 들어가면 쇠물색갈외에 다른 빛을 낼수 없는것처럼 용해공집안에 들어온 사람도 그 모양외에 달리될수 없다고 하며 그를 극진히 념려해주고 위로해준다. 사옥비는 인민의 재산, 나라의 재산이 된 제강소를 지켜 원쑤놈들과 끝까지 싸워 자기의 과거를 씻고 생을 깨끗이 마무리할것을 결심한다. 그후 태섭로장의 희생적인 투쟁에 의하여 원쑤들의 악랄한 책동은 미연에 분쇄된다. 1950년대중엽 나라의 정세가 매우 어려웠던 때에 강태관직장장을 비롯한 강선의 로동계급은 계획보다 1만t의 강재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하고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다. 반당반혁명분자들은 이들의 충천한 혁명적열의를 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지만 강태관, 진응산을 비롯한 로동계급은 추호의 동요없이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한다. 바로 이러한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배인을 부르시여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또다시 안겨주시며 강철생산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게 하신다. 이무렵 전쟁시기 헤여진 남편을 찾아 공화국의 품에 안긴 공지순은 신문에 난 남편의 사진을 보고 진응산에게 편지를 보내오게 된다. 이로 인한 정신적고통속에서도 강옥은 시대의 천리마가 날기 시작한 강선땅에서 진응산이 만사람의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윈심을 쓰며 도영락을 비롯한 부모없는 아이들을 살뜰히 보살펴준다. 그리고 양덕에 있는 공지순을 찾아가서 응산이가 장차 나라를 떠받들 강철기둥이 되게 집사람이 뒤에서 바람막이를 잘해야 한다면서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끝까지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깨우쳐준다. 한편 전쟁에서 입은 부상으로 하여 불편한 몸으로 설계를 하던 강석은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1만t의 강재를 더 생산하기 위한 기술문제해결에서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하며 그의 애인 송옥은 쇠물집사람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참된 인생의 길로 이끌어준 강태관일가와 한식솔을 이루게 된다. 그후 강선에서는 우리 당의 국방건설로선관철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특수강인 《천리마》강 생산을 위한 전투가 벌어진다. 진응산은 이 나날에 조선로동당원이 되려는 불타는 열정과 지향을 안고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며 마침내 당조직과 지배인

의 보증으로 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된다. 주관적생각에 사로잡힌 지배인은 《천리마》강 시험을 다른 작업반에 넘기려 하며 도당에서 천리마작업반추천사업 실태료해를 내려온 기회에 강준작업반을 추천하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고심하던 강태관은 위대한 수령님께 정중히 편지를 올린다. 한편 남포에서 살던 사옥비는 내화벽돌제조에 성공한 기쁨을 안고 자기도 쇠물집식솔로 될 결심밑에 강태섭의 아들을 앞세우고 강선으로 온다. 사옥비가 내려오던 날 밤 우연히 그에 대하여 알게 된 직맹부위원장은 사옥비에게 간첩훈련을 준 교관으로서의 자기의 정체가 탄로될것이 두려워 그를 살해하려고 한다. 그러나 강옥의 희생적인 투쟁으로 사옥비는 구원되고 간첩놈은 적발체포된다. 강철로 어버이수령님을 결사옹위할 불같은 일념을 안은 강선의 로동계급은 기어이 《천리마》강을 뽑아내는데 성공한다. 바로 이러한 때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나라의 첫 천리마작업반으로 내세워주신 진응산작업반에 대한 천리마작업반칭호수여식이 진행된다. 작품은 쇠물철학을 형상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이 땅에 태를 묻고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한식솔이라는것을 보여주었으며 로동계급이야말로 민족의 모든 성원들을 자기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어버이로 모신 대가정의 한식솔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계급이며 민족문제해결의 기본계급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확증하고있다. 작품은 주체83(1994)—주체87(1998)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작품의 35—43부(카프작가편)(리춘구, 김용식, 오현락, 리덕윤 , 오진홍, 한정희 창작)에서는 일제통치하의 암담한 세월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던 카프작가들이 위대한 태양의 품에서 인생전환을 하고 광명을 받아안게 되는 과정을 형상하고있다. 일본의 도꾜 와세다대학에 류학하고있던 리찬은 리광수의 《민족개조론》의 반동적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무턱대고 숭상하며 련정시나 쓰면서 허송세월한다. 그러나 김경란, 조명희를 비롯한 카프작가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리찬은 자기가 그토록 숭상했던 리광수의 진면모를 알고 그와 결별을 결심한다. 리찬은 나라잃은 식민지지식인으로서의 비참한 생활처지에서도 조선을 위한 참다운 시문학의 길을 걸어보려고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간다. 이 과정에 김경란과의 사랑은 더욱 무르익어간다. 한편 위대한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무장소조가 국내에 진출한 소식에 힘을 얻은 카프작가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질겁한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에 의하여 지부는 해산되며 그들이 운영하던 기관지《예술운동》이 페간되고 일본땅에서 조선문예인들은 추방당하게 된다. 서울에 온 리찬은 수술비를 내지 못해 아들을 살려내지 못한 리기영과 가난때문에 약혼녀를 빼앗기고 독립령수를 피타게 갈망하는 최서해 등 갈길 몰라 몸부림치고 생활난에 허덕이는 진보적문인들의 비참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이 나날 리찬은 경란을 찾기 위해 애썼으나 일제의 《민족개조론》의 희생물이였던 경란은 리찬의 깨끗한 사랑을 받을수 없는 자신을 저주하며 피해다닌다. 일제는 제놈들의 주구로 전락된 김경석의 정체를 은페하기 위하여 량심있는 문예인이였던 손영빈을 밀고자로 날조하여 그가 억울한 루명때문에 음독자살하게 만들며 민족의 령수를 애타게 기다리다 병으로 숨진 최서해와 영결하기 위하여 모여온 카프성원들을 일시에 체포한다. 리찬을 비롯한 카프성원들은 엠엘파에 기대를 걸고 그들의 권고에 따라 방직공들과 함께 반일시위에도 참가하나 녀성로동자들의 무참한 희생만을 목격하게 되며 드디여 카프는 조락의 길에 떨어지고만다. 감옥에서 출옥한 주인공 리찬은 프로레타리아문학의 뜻을 굽히지 않고 김소월, 조명희 등을 찾아 길을 떠나며 이 과정에 수난많은 식민지문예인들의 비참한 운명을 다

시금 절감하게 된다. 문학의 참다운 스승을 찾아 만주광야를 헤매이던 리찬은 강경애에게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받아안고 열심히 탐독한다. 오랜 방황끝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과업을 받고 창바이(장백)지구에 파견되였던 권영벽동지를 만나게 되며 조선문단이 나아갈 길은 바로 항일혁명문학이 밝힌 사실주의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항일성전을 열렬히 칭송하는 혁명적인 시들을 창작출판한것으로 하여 일제에게 체포되여 사형을 언도받았던 리찬은 조국의 해방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간다. 이 나날에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송영, 박세영 등과 함께 앓는 경란을 대신하여 공화국북반부로 넘어왔던 김경석은 문예잡지에 우리 당의 문예정책을 비방하는 글을 써내며 그의 출맹을 제기하는 문예총서기장인 리찬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겨 그가 사촌누이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을 훔쳐가지고 월남도주한다. 오빠에게서 그 사진을 받아본 경란은 경악과 분노속에 리찬을 사랑의 배반자로 락인하게 되며 극악한 민족반역자인 괴뢰군장교와 결혼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첫 시기에 착잡한 사연으로 얽힌 북과 남의 문예인들사이의 좋지 못한 관계를 해소하고 일시나마 매국배족의 길을 걷던 문예인들까지 모두 포섭하여 문예총 서울지부를 결성하도록 이끌어주신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주인공 리찬을 비롯한 문예인들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보살피심과 지도밑에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영원한 태양의 노래,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완성한데 대하여서와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뚫고 남조선의 문예인들이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을 찾아오는 력사적사실을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야말로 온 겨레, 온 민족이 안겨살 위대한 태양의 품이며 그 품에서만 진정한 문학도,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도 꽃피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면서 민족의 운명과 민족문학의 참다운 길은 수령의 옳바른 령도가 있어야만 담보된다는 진리를 밝히고있다. 작품은 주체85(1996)－주체86(1997)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작품의 46－51부(리춘구, 리덕윤, 리주민, 오현락 창작)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군단장으로 활동한 항일혁명투사 최현동지의 생활과 투쟁의 일단에 대한 폭넓은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우리 당의 총대철학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형상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영화는 우리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던 주체39(1950)년 10월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 경애하는 수령님을 총대로 옹위하리라 굳게 마음다진 최현은 수령님의 작전적구상을 받들고 전선중부의 산악지대들에서 적들에 대한 배후타격을 위하여 강력한 토대를 축성해간다. 이 나날에 최현은 전쟁전에 진정한 어머니조국을 찾아 사랑하는 애인과도 리별하고 부대를 이끌고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한 련대장 강철무로 하여금 민족의 운명은 인민군대의 총대에 있으며 사상이 없는 총대는 막대기와 같다는것을 깊이 자각하도록 이끌어준다. 그러던중 청천강이남으로 쫓겨간 미제에게 결정적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평강, 철원을 타격할데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하달되자 최현은 림기응변의 전술로 작전을 진척시켜나간다. 바로 이때 최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적후에서 고생하는 전사들이 보고싶다시며 군인들의 장한 모습을 그대로 찍어오라고 종군촬영가와 영화촬영기를 보내주시였다는 가슴뜨거운 소식에 접하게 된다. 한편 서울에서부터 애인인 인민군련대장 강철무를 찾아온 설란은 이모부의 말대로 그를 서울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나 설란은 강철무의 애국적신념을 꺾을수 없었다. 강철무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차츰 리해하게 된 설란은 최고사령부에서 파견한 종군촬영가가 전사하자 그를 대신하여 최고사령부에 보낼 기록영화촬영을 솔선 맡아나선다. 한편 최현은 철원해방전투를 앞두고 부대의 모든 지휘관, 전사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 전법대로만 살며 투쟁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어 제1차 철원해방전투를 성과적으로 진행한다. 그후 최현은 김책동지로부터 최고사령부를 폭격하려는 적비행대의 움직임에 대해 통보받고 적들의 악랄한 음모를 파탄시키기 위한 작전을 펼친다. 그는 《들국화》라는 대호를 가지고 미군부대의 장교로 활동하는 녀성정찰병의 정찰자료에 기초하여 적들의 음모로부터 최고사령부를 결사옹위할 투철한 각오밑에 자신이 직접 정찰조를 이끌고 눈보라를 헤치며 적정을 확인하고 적비행대를 완전히 소탕해버린다. 최현이 이끄는 적후전선부대는 그후 법동을 해방하고 그곳에 머무르고 있던 리승엽도당의 너절한 음모책동도 사전에 짓부셔버린다. 한편 최고사령부에 보낼 영화필림현상을 위해 적구에 들어간 금석의 정찰조는 설란의 아버지의 본의아닌 실수로 뜻밖에 적과 맞다들게 된다. 피어린 격전끝에 금석을 비롯한 정찰조성원들은 희생을 무릅쓰고 끝내 필림을 부대에까지 가져온다. 정찰조의 피가 스민 필림배낭을 받은 최현은 전사들과 함께 잊을수 없는 추억이 수록된 영화화면들을 보면서 그들이 혁명적신념과 락관주의를 깊이 간직하도록 이끌어준다. 그후 최고사령관동지의 끝없는 사랑과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적후전선부대장병들은 적들의 《공세》를 짓부시고 전선동부로 진출하여 38도선이북에 침입한 적들을 완전히 격멸소탕하기 위한 작전에 참가한다. 최현은 투철한 신념과 배짱을 가지고 주도세밀하게 작전을 조직하여 군단과 련계가 끊어진 강철무련대를 적포위속에서 구원하며 전체 장병들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에 힘있게 불러일으켜 마침내 미영련합군의 최후의 아성인 련천을 해방하고 수령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린다. 영화는 총대로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한 항일혁명투사 최현동지의 형상을 통하여 총대로 수령을 받드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된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영화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총대와 결부시킨 거대한 폭과 깊이를 가진 작품이지만 사건과 이야기를 복잡하게 벌려놓지 않고 실재한 몇개의 전형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형상을 집약화, 집중화하여 인상깊게 펼치고있으며 영웅서사시적인 화폭속에 뜨거운 인정미가 풍기는 아기자기한 생활을 조화롭게 융합시킴으로써 우리 식 전쟁물영화의 새로운 면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52—60부(리춘구, 설주용, 박정주, 리철만, 리광호, 홍원철, 현상무 창작)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김일성**종합대학 동창생들이며 친우들인 차경심, 송숙, 분이와 그들부부의 인생행로를 보여주면서 혁명적신념문제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참된 삶을 꽃피우는데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제1부에서는 애국과 반역은 곧 혁명적신념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하는데 있다는 첨예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신념이 강하고 대바르며 락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경심은 검찰일군으로 사업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수도를 떠나 산중에서 수년세월 연구사업에 고심하고있는 송숙의 남편 강준하의 연구사업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현상들을 목격한다. 그는 농업부문에 당정책을 좀먹는 배신행위가 잠재하고있다는것을 포착하고 이 사건을 맡아나서는데 이것은 후날 그가 도일보사 기자로 내려가게 된 곡절과 남편과 갈라져살지 않으면 안되는 가정적불행의 직접적동기로 된다. 영화는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녀야 할 신념과 의지는 바로 조국과 민족, 개인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위대한 당,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가장 순결한 량심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제2부에서는 분희의 가정에서의 사상적변질과정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애국자와 반역자가 나오게 된 경위를 펼쳐보이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신념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강조하고있다. 지난 시기 사회적의무에 충실했던 분희의 가정에도 고난의 행군의 시련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지 못한데로부터 사상적공백이 생기게 되고 부르죠아생활양식이 침습해들어오게 된다. 또한 일신의 안락과 리익만을 추구하는 염우태(차경심을 키워준 염정섭의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계급적원쑤들에게 굴복하여 《치안대》에 가담함으로써 반역의 길로 굴러떨어진다. 군복을 입고 조국을 지켜싸운 정섭은 자기 가정의 이 치욕을 씻을 속죄의 마음을 안고 한생을 류벌공으로 성실히 일하며 원쑤들에게 희생된 옛 면당위원장의 당비도 마련하여 당조직에 바친다. 영화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량심으로 간직하지 못할 때 자그마한 시련앞에서도 쉽게 사상적동요를 일으키며 결국 반역의 길, 사회주의배신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것을 심각한 교훈으로 새겨주고있다. 제3부는 사상적으로 변질되는 분희의 남편과 시어머니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은 곧 한가정의 운명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분희는 자기 시집의 불건전한 생활과 시련속에서도 억세게 살아가는 한 녀성영예군인가정의 참모습을 대비해보면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참된 삶은 그 어떤 재부나 명예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지닌 값높은 사상정신세계에 의하여 빛을 뿌리게 된다는것을 절감한다. 한편 딸을 만나기 위해 몇십년만에 평양으로 온 차금석(염정섭)은 정심의 시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염우태의 역적행위에 의해 희생된 면당위원장의 누이동생이며 옛 애인이였던 주정심이라는것을 알고 심한 자책과 죄의식속에 발걸음을 돌리게 된다. 영화는 준엄한 날에나 평화로운 날에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만을 위한 너절한 삶을 사는 사람은 기필코 사회적처지와 계급적근본마저 잊게 되며 나아가서 당과 수령의 고마운 은덕까지 줴버리고 반역의 길에 굴러떨어지게 된다는것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제4부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자기의 과학적신념을 꿋꿋이 지켜 생물성비료연구에 청춘도 행복도 묵묵히 바쳐가는 송숙부부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된 행복관은 오늘이 아니라 부강할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데 있다는것을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또한 계급적원쑤들의 반혁명적행위를 비롯한 불건전한 사상요소와 추호의 타협도 없이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며 맡은 임무수행에서 혁명적원칙을 견지해나가는 차경심과 박철의 형상을 통하여 혁명적신념과 량심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날로 변질되여가는 분희가정의 부패한 생활과정을 통하여 설사 애국적인 가정출신이라 할지라도 부르죠아사상독소의 영향을 받고 돈에 환장하게 되면 정치적신념이 흔들려 혁명성이 마비되며 나아가서 조국도 민족도 모르는 너절한 인간이 되고만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제5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참된 삶을 빛내여주는 당과 수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념과 의리를 간직하고 언제나 혁명적원칙을 지키며 청렴결백하게 살아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차금석은 적들에게 강점된 고향에서 《치안대》에 든 자기 아버지를 용서해준것으로 하여 고향사람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으며 오늘에 와

서는 행복하던 경심의 가정에 불행의 씨앗을 던지게 된다. 영화는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은 피를 나눈 혈육들사이에도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혁명가의 신념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한편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원쑤들의 개가 되여 면당위원장까지 밀고하는 염우태의 더러운 몰골을 통하여 인간이 혁명적신념과 의지가 없고 물욕에 빠지면 부모처자도 나라와 민족도 모르는 반역자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제6부에서는 차경심과 송숙, 분희의 각이한 운명선을 통하여 피로써 쟁취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기 위한 계급투쟁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것을 감명깊은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아버지문제로 하여 스스로 가정에서 나온 도일보사 기자 차경심은 한 군민발전소건설장을 취재하는 과정에 우리 병사들의 영웅적위훈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고귀한 사상감정을 신념으로 굳히게 되며 위대한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신하게 된다. 한편 송숙의 남편 강준하는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에 농업기술대표단으로 가게 되였지만 지금까지 하여오던 《27호원균》 연구를 중단할수 없어 그 제의를 거절한다. 한편 분희의 남편 승규는 숱한 외화빚을 지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서마저 인간적인 버림을 받는다. 영화는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매 가정의 참다운 행복은 혁명적신념에 의하여 담보되며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삶은 당과 수령을 위해 바쳐갈 때 빛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7부에서는 혁명하는 사람은 일신의 안락과 행복보다도 사회와 집단,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더 귀중히 여기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온넋을 바치는 참된 인간이 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차금석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미제침략자들과 용감히 싸웠지만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치안대》에 가담하여 악질적인 만행을 감행한 아버지의 용납 못할 죄행때문에 고민하면서 전후 제대되여 고향으로가 아니라 머나먼 북변의 림산마을로 간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 가정이 지은 죄를 씻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간다. 영화에서는 이와 함께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없이 오직 우리 식의 생물비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강준하, 송숙부부의 연구사업을 악랄하게 방해해나서는 계급적원쑤들의 책동과 론문분실사건을 해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심의 형상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영화는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계급적원칙을 지키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은 어제만이 아니라 평화로운 오늘에도 끊임없이 계속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다. 제8부에서는 주인공들의 헌신적인 투쟁모습을 보여주고있다. 경심은 아버지의 과거경력문제로 검사직에서 해임되고 가정적인 불행까지 겪었지만 론문분실사건을 해명하는것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지켜가는 계급투쟁으로 된다는것을 자각하고 기어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 강준하부부도 계급적원쑤들의 악랄한 방해책동과 온갖 시련속에서도 굴함없이 당에서 걱정하는 농사문제를 풀기 위하여 《27호원균》 연구사업을 중단없이 해나간다. 영화는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드팀없는 신조로 간직하고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순결한 량심을 바쳐 공민적의무를 다해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9부는 사회주의에 대한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어려운 날에나 좋은 날에나 변함없이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고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강준하는 외진 산골에서 안해와 함께 마침내 우리 식의 생물성비료연구에 성공하며 차경심은 계급적원쑤들의 죄행을 밝혀

내여 한때 포기하려고 했던 《27호원균》론문분실사건을 해명한다. 한편 차금석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치안대》에 가담하여 악질적인 만행을 감행한 아버지 염우태를 반역자, 공화국의 원쑤로 락인하고 처형한데 대해서와 그후 자신의 사연많은 인생을 담은 편지를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올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전투공로로 받은 공화국영웅칭호를 전우에게 양보하고 조국과 민족앞에 자기 가정이 지은 죄를 씻기 위해 묵묵히 일해온데 대한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그가 지닌 숭고한 조국애와 굳은 신념을 높이 평가해주시며 그와 차경심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다. 이처럼 영화는 각이한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는 길에 우리의 행복도 있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찬란한 미래도 있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작품은 주체88(1999)—주체92(2003)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민족의 태양》(1—5부) 영화문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10부에 걸쳐 형상한 영화문학 《조선의 별》의 련속편으로 창작된 총서형식의 작품이다.

제1부《준엄한 시련》(전, 후편)백인준 창작. 작품은 주체23(1934)년 봄부터 1년간을 시대적배경으로 하면서 일제침략자들의 《위공작전》과 반《민생단》책동으로 하여 조선혁명이 위기에 처하게 된 시련의 시기에 일신의 위험도 돌보지 않으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선을 헤치시며 난국을 타개하심으로써 조선혁명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풍모와 인간애를 보여주고있다. 당시 일제는 군사적 《토벌》만으로는 유격근거지를 《소멸》할수 없다는것을 간파하고 우리 혁명대렬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킬 목적으로 《민생단》을 조작하며 간첩놈들을 근거지에 밀어넣는다. 한편 김상도와 송결을 비롯한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수많은 혁명군중들과 견결한 혁명가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검거투옥하고 무참히 살해하는 망동을 부린다. 이자들은 아동단학교 선생인 최정희와 구정부회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감옥에 넣고 악착한 고문을 들이댄다. 지어 이자들은 일제의 간첩놈이 일으킨 식량창고화재사건의 혐의를 혁명에 충실한 식량창고장이였던 최철수에게 넘겨씌운다. 조선혁명이 좌절되느냐 마느냐 하는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원정부대를 친솔하시고 베이만(북만)으로 진출하시여 군사정치활동을 벌려나가신다. 베이만의 혹한과 적들의 2중, 3중의 포위속을 뚫고 부대를 이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혹한을 만나 혼수상태에 이르시였으나 조선혁명을 구원하기 전에는 쓰러질수 없다고 하시며 손수 지으신 **《반일전가》**를 부르신다. 원정을 끝마치고 둥만(동만)유격근거지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정희를 비롯하여 《민생단》혐의를 받고 총살당하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일제의 모략에 넘어간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야오잉거우(요영구)회의에서 혁명대렬의 통일을 수호하고 광범한 군중을 단결시키며 조선혁명을 급속히 추진시켜나갈수 있는 주체적혁명로선을 제시하신다. 작품은 이처럼 강철의 의지와 불굴의 신념을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와 불멸의 업적을 훌륭히 형상하고있다.

제2부《대하와 거품》(전, 후편) 주체77(1988)년 리춘구 창작. 작품은 야오잉거우(요영구)회의이후로부터 주체25(1936)년 2월에 있은 난후터우(남호두)회의에 이르는 1년간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작품에는 야오잉거우(요영구)회의이후 유격

구를 주동적으로 해산하고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을 보다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시켜 대규모적인 유격전을 벌리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2차베이만(북만)원정의 길에 오르시여 일제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가하고 주체25(1936)년 2월 난후터우(남호두)회의를 계기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끄신 력사적사건과 사실들이 반영되여있다. 주체24(1935)년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급격히 장성강화된 조선인민의 반일기세를 말살하기 위해 대병력을 동원하여 유격구를 봉쇄하고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한다. 이에 대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야오잉거우(요영구)회의에서 유격근거지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로 나가 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릴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앞장에서 이끄신다. 그러나 숙반공작위원회에 틀고앉은 김상도와 같은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저들만이 근거지인민들을 위하는척하면서 처창쯔(처창즈)근거지 인민들속에 유격대가 인민을 버리고 떠난것처럼 헛소문을 퍼뜨리고 스리핑(십리평)인민들이 유격구를 뜨지 못하게 사촉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자들의 근거지사수론의 부당성을 폭로비판하시는 한편 인민들에게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일떠세워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자고 호소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베이만(북만)과 난만(남만)은 물론 국경연안과 국내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린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칭거우쯔(청구자)에 둥지를 틀고있는 일제의 악질수비대와 경찰놈들을 림기응변의 지략으로 총 한방 쏘지 않고 제압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베이만(북만)부대들과의 공동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몸소 부대를 인솔하고 험한 라오예령(로야령)을 넘으시며 간고한 투쟁을 벌리시는 속에서도 국제당 제7차대회에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박경호를 파견하시여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도록 하신다. 작품은 이러한 감동적인 형상을 통하여 한없이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위대한 인간애, 높은 덕망을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님이시야말로 위대한 혁명가의 빛나는 귀감이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길만이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지키고 혁명승리를 담보하는 길이라는 진리를 확증하고있다.

제3부 《광복의 봄》(전, 후편) 주체78(1989)년 김희봉 창작. 작품은 유격근거지해산이후 난후터우(남호두)회의로부터 둥강(동강)회의에 이르는 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는것을 혁명승리의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조국광복회창건을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민족대단합을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제파시즘의 대두에 발맞추어 일제가 대륙침략에 광분하던 당시의 정세를 통찰하시고 난후터우(남호두)회의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내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며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난후터우(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국경지대에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치던 지하공작책임자들과 핵심들을 사령부로 부르시는 한편 수많은 공작원들을 원산, 서울, 흥남 등지로 떠나보내시며 조국광복회창건준비위원회를 조직하시고 그 운영을 세심히 보살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피어린 전투와 간고한 행군으로 이어지는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조국광복회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완성해나가신다. 또한 농민들속에 들어가시여 온 민족이 하나로 뭉쳐 투쟁할수 있는 큰 조직을 내올데 대하여 해설도 하시고 천도교마을 청년들을 유격대에 입대시켜주시며 독립운동지사 김현무로인

을 손잡아 이끌어주신다. 조국광복회창립과정에 있었던 력사적사실들에 기초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통하여 작품은 전체 조선인민을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 일떠세운 투쟁의 기치, 단결의 기치를 마련하시여 민족대단합의 력사적숙원을 이룩하시고 국제반파쑈투쟁전선을 확대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훈천(미혼진)밀영에 가시여 전염병으로 앓고있는 대원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마안상(마안산)밀영에서 《민생단》혐의를 받고있는 100여명의 대원들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건과 민족주의자들과 여러 당파에 속해있던 사람들을 조국광복회기치아래 묶어세우시는 화폭들을 통하여 수령님이시야말로 위대한 동지이시고 스승이시며 어버이이심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충정의 한마음을 간직해나가는 국현부부와 최현, 박록금, 리동근 등 참다운 혁명가들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전편들과는 달리 총서형식의 작품에서 처음으로 회상수법으로 작품의 특색을 살리고있다. 작품은 우여곡절에 찬 길을 걸어온 리동백의 회상에 의거하여 그의 시점에서 생활을 전개하고있다.

제4부《백두밀영》(전, 후편) 주체80(1991)년 김희봉 창작. 작품은 난후터우(남호두)회의이후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시고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의 일부를 반영하고있다. 둥강(동강)회의가 있은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임무를 받고 백두산지구에 먼저 나온 김주현, 리동학은 일제의 밀정들이 수시로 싸다니고 주민구성이 복잡한 이곳 형편을 고려하여 국내에 사령부가 자리잡을 밀영을 두는것을 단념하자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험을 무릅쓰시고 국내에 나오시여 김주현과 함께 백두산기슭의 소백수골에 백두산밀영의 위치를 확정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박달을 비롯한 국내에서 활동하는 혁명가들에게 친서를 보내여 그들의 투쟁을 고무격려하시고 몸소 그들을 만나시여 가르치심도 주신다. 그리하여 권영벽은 국경일대와 국내에서, 리제순은 신흥지구에서, 박달은 갑산지구에서, 박철산은 신흥탄광에서 혁명조직을 내오고 군중을 조국광복회의 기치아래 묶어세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밀영주변을 혁명화하는 사업도 지도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교인들과의 사업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시고 령북지구도정 박인진을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신다. 또한 독립군출신이며 천도교 교인인 김정보로인을 만나시여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해설해주시며 그의 양딸의 혼사까지 주관하여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때 독립군을 따라다녔고 일제에게 아홉식구를 빼앗긴 후 부모없는 두 아이를 맡아키우면서 백두산밀영에서 살아가는 김세현로인을 찾으시여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돌려주신다. 작품은 혁명동지들의 아들딸들을 끝까지 찾아내시여 그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안겨주시는 장면을 통하여 한없이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풍모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제5부《붉은기아래》 주체80(1991)년 백인준 창작.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백두산밀영을 꾸리신 후 정치공작원들을 국내각지에 파견하시여 당조직을 확대해나가신 내용을 반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형운을 비롯한 정치공작원들을 국내에 파견하시여 그들이 광산로동계급들속에 들어가 로동자들을 각성시켜 조국광복회조직에 망라시킨 다음 당조직을 꾸리도록 하여 장차 창건하게 될 우리당의 기층조직과 대중적지반을 축성해나가도

록 령도하신다. 작품은 주체19(1930)년 온성지구 당조직을 결성할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여하시였던 붉은기에 깃든 뜻을 높이 받들고 박달, 권영벽을 비롯한 혁명가들이 당세포를 조직하는 장면을 통하여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창건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이처럼 영화문학《민족의 태양》(1—5부)은 조국땅에 드리운 검은구름을 밀어내고 광휘로운 주체의 빛발로 조국과 인민의 앞길을 밝히시여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시라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76(1987)년—주체80(1991)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민족의 어버이》 단편소설. 주체83(1994)년 강학태 창작.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릉을 찾아주시고 개건확장하도록 하심으로써 오늘의 우리 인민뿐아니라 대대로 이 땅에 살며 력사를 빛내여온 옛 조상들까지 한품에 안고계시는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를 형상한 작품이다. 력사학박사 오성국으로부터 동명왕릉에 대한 력사학자들의 상반되는 견해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명왕릉문제는 무덤의 주인공을 찾는 문제만이 아니라 사대주의자들과 민족허무주의자들에 의하여 심히 외곡되고 무시당해온 민족의 력사를 바로잡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성국에게 주체적립장에서 발굴사업을 할때라야 진실을 밝혀낼수 있다고 하시며 강력한 발굴력량을 무어주신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에 받아안은 발굴집단은 인민들의 도움을 받으며 동명왕의 무덤을 밝혀낸다. 벽화만은 찾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벽화를 꼭 찾을데 대하여 교시하신다. 그후 연구집단은 발굴을 거듭하여 끝내 벽화를 찾아낸다. 동명왕릉발굴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발굴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왕릉을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하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신다. 소설은 잃었던 민족의 력사를 되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야말로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며 온 겨레의 칭송을 받으셔야 할 위인이시라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83(1994)년 9, 10호〕

《민요가수》 단편소설. 주체54(1965)년 박은희 창작. 매국배족적인《남조선일본회담》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R악단의 민요가수 위진국은 일제의 재침책동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주임이 경찰에 잡혀가고 악단이 문을 닫게 된 후부터 쪼들리는 살림살이와 대학에 다니는 딸 영희의 수업료때문에 기가 죽어 다닌다. 이러한 그는 어느날 악단의 새 주임으로 온 강성모가 딸 영희의 수업료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나서자 희색이 만면하여 집으로 돌아온다. 다음날 강성모의 초청으로 그의 집에 간 진국은 강성모가 중국에서 일본군복을 입고 피뢰역도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는 격분하여 나오려고 한다. 그러나 미국정보원으로부터 반정부기운이 농후하고 민요가수로 명성높은 진국을 비롯한 인기있는 예술인들이 많은 R악단에서 《남조선일본회담》재개와 관련하여 공연하도록 하게 할데 대한 지령을 받은 강성모는 진국에게 공연에서 일본노래를 부를것을 요구한다. 진국은 강성모의 말을 들으며 자기가 지난날 민족의 기개를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오지 못했기때문에 이런 요구를 제기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괴로와한다. 다음날 신문에는 진국이가 일본노래를 부른다는 기사가 실리며 그것을 본 영희는 더러운 돈으로 공부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강성모와 함께 극장에 도착하여 무대에 나선 진국은 돈 몇푼때문에 민족의 선률을 버리라는 강성모의 행위를 폭로하며《남

조선일본회담》을 반대하는 군중들의 시위대렬에 들어선다. 작품은 일제놈들의 재침책동과 미제의 식민지주구로서의 남조선괴뢰들의 매국행위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4(1965)년 제21호〕

《믿음》 단편소설. 주체53(1964)년 류근순 창작.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미풍을 보여준 작품이다. 군수매소에 갔다오던 룡산리 수매원 옥순은 산에서 허겁지겁 내려오는 한 녀인을 보게 된다. 옥순은 녀인으로부터 돼지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게 되였는데 수의사는 군에 회의때문에 가고 축산기수로 일하는 딸이 창평리에 갔기때문에 거기에 갔다오려고 한다는것을 알게 된다. 녀인을 도와주려고 생각한 옥순은 길에 나서서 사람들을 찾으나 보이지 않자 종이장에다 쌍곡농장의 목장돼지가 급병으로 앓는데 기술자들이 출장가고 없으니 병에 대해서 아는분이 있으면 도와달라는 글을 써서 길가의 나무에 붙여놓는다. 이때 한 로인이 나타나자 옥순의 곁에 있던 녀인이 그에게 사정을 이야기한다. 녀인의 말을 들은 로인은 자기가 침을 놓을줄 안다고 하면서 선뜻 녀인을 따라나선다. 로인은 찰겨를 많이 먹였다는 녀인의 말을 들으며 돼지에게 침을 놓아준다. 그무렵에 자전거를 타고온 한 청년이 구유통을 들여다보며 식중독이라고 하면서 약을 먹인다. 이러한 때 새로 온 손님이 심장이 약하니 캄파를 놓는것이 좋겠다고 한다. 돼지가 살아나자 로인과 출장길에 종이의 글을 보고 들렸다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축산기사인 청년은 돌아간다. 마지막에 온 농업위원회에서 일하는 손님은 옥순의 기특한 소행에 감동되여 그를 차로 마을까지 태워다준다. 작품은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진정으로 도와주고 위해주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3(1964)년 제42호〕

《믿음》 단편소설. 주체64(1975)년 주동선 창작. 지혜와 열정을 합쳐 용광로대보수공사를 훨씬 앞당겨끝내는 기술자들과 강철로동계급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책임기사 최영호의 동생인 제대군인청년 만호는 용광로안에 철피들을 묶음식으로 조립할수 있는 만능조립기를 세워 대보수기일을 단축할것을 영호와 담당기사 죽순에게 제기한다. 영호는 야금력사에 아직 그런 실례가 없다고 하면서 동생의 제의를 단호히 잘라버린다. 그러나 죽순은 그것을 기술자들에 대한 로동자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영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추진시킨다. 죽순과 만호를 비롯한 로동자들은 지혜를 합쳐 만능조립기모형을 만들어놓고 그 부족점을 하나하나 고쳐나간다. 한편 죽순을 통하여 로동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린 수많은 도면들을 받아보고 큰 충격을 받은 영호도 조립기완성에 발벗고나선다. 작품은 세계야금계가 알지 못하는 25일이라는 짧은 기일내에 용광로대보수공사를 끝낸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기술자들이 로동계급의 충정심과 열정, 그 믿음을 심장에 안을 때 시대앞에 맡겨진 임무를 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64(1975)년 1호〕

《믿음》 단편소설. 주체66(1977)년 김홍무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엄혹한 시기 금과 은 등 많은 귀금속을 가지고 어버이수령님의 품을 찾아가는 제련소로동계급을 형상한 작품이다. 어느날 공장당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아직 국가에 바치지 못한 금과 은 등 귀금속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토의한다. 회의에서 제련소로동자인 최인필은 해방직후 처음으로 수령님을 만나뵈온 자리에서 자금을 달라고 청을 드렸던 일이 생각나 나라의 재부를 감출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

지고 최고사령부를 찾아가자고 주장한다. 그의 발기를 지지한 공장당위원회에서는 그에게 귀금속 후송책임을 맡기며 후퇴대렬을 편성한 후 길을 떠난다. 발이 아파 보채는 어린 아들을 달래며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 북으로 행군하던 그들은 어느날 불의에 적들과 조우하며 이 위급한 순간에 인민군정찰병들에 의해 구원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련소로동자들이 금을 가지고 최고사령부로 찾아온다는 전보를 받으시고 그들이 류숙할 방과 솜옷, 신발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시며 금을 가지고왔을 때에는 그것을 폐허로 된 제련소를 현대적인 공장으로 건설할 때 쓰자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소설은 로동계급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이 있기에 그들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조국의 품, 수령님의 품을 찾아올수 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태양을 따라》, 문예출판사, 주체66(1977)년판〕

《믿음》 단편소설. 주체70(1981)년 박호섭 창작. 자기 당원에게 끝까지 믿음을 주어 이끄는 한 리당비서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리당비서 정인범은 작업반장 유종림이 관리위원장의 지시를 듣지 않고 가을배추수확을 늦잡다가 100t의 배추를 얼구어놓았을 때 지난 시기 그에게 믿음을 주고 내세워준것이 지나치지 않았는가고 생각한다. 전쟁시기 인민유격대에서 중대장으로 싸웠던 정인범은 전사였던 종림이 규률을 위반하는 과오를 범했을 때 엄한 책벌을 주면서도 그가 개심할것이라고 믿었었다. 전후시기 종림이 후치기일을 앞당기려는 욕망으로 소를 혹사하여 죽였을 때에도 그를 믿고 계속 내세워주었었다. 그는 지나친 칭찬이 사람을 못쓰게 만든다는 관리위원장의 말을 새겨보면서 그밤중으로 종림의 집에 가본다. 거기서 그는 종림이 공명심에서가 아니라 새 배추종자의 최고수확을 바라다가 잘못을 저질렀으며 자기집 터밭을 시험포전으로 만들어 언배추를 소생시킬수 있는 방도를 찾아낸것을 알게 된다. 그는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는 동시에 일시적으로나마 그 믿음을 두고 저울질한 자신에 대하여 가책을 느낀다. 그는 종림을 끝까지 믿고 떠밀어줄 결심을 다지며 그의 집을 나선다. 소설에서는 당일군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풍모의 하나가 바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며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70(1981)년 7호〕

《믿음》 단편소설. 주체78(1989)년 김성원 창작. 사람들을 믿고 사랑하는데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있고 일군들이 설 자리가 있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세멘트공장건설장에 나간 ㅎ건설사업소 초급당부원 한광일은 직장장 오형빈이 로동자들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있으며 직장사람들속에서 그에 대한 의견이 많다는것을 알게 된다. 오형빈은 수리공 림민택이 권양기를 운전하다가 활차를 박산내고 또 언젠가는 뽐프를 수리하러 갔던 그가 자라잡이를 하고있는것을 보고 좋지 않게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선입견으로 하여 민택이 2배의 능률을 낼수 있는 시공방법을 창안했을 때에도 시답지 않게 여기며 그가 요구하는 쇠바줄을 해결해줄 대신 다른 곳에서 기중기차를 가져오려고 한다. 그러나 광일은 로동자들과 일하는 과정에 민택이 물길에 들어박힌 자라를 꺼내다가 직장장과 만나 오해를 산것이며 권양기운전을 하면서 자기의 창안에 대하여 생각하다가 사고를 쳤다는것을 알게 된다. 광일은 그가 새 기술안을 성공하도록 제기되는 쇠바줄도 같이 해결해주고 믿음을 안겨주며 직장장 오형빈에게 로동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일깨워준다. 작품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일군들이 로동자들에게 뜨겁고 진실한 믿음

과 사랑을 안겨주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78(1989)년 2호〕

《믿음》 장편소설. 주체85(1996)년 김정길 창작. 전후 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에서 첫 1000t급배를 무어낸 조선소 청년기사장과 그곳 로동계급의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소설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10000t급의 배를 뭇기 위해 투쟁하는 선박공업부문에 취재를 나갔던 작가가 한 일군으로부터 1000t급의 배를 무어내던 때의 이야기를 듣는 형식으로 씌워져있다. 주인공 최주식은 전쟁시기 정찰소대장을 하다가 외국류학을 마치고 돌아와 ㅎ조선소 부기사장을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때부터 최주식을 잘 알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53(1964)년 어느날 그에게 또다시 다른 한 조선소의 기사장사업을 맡겨주신다. 최주식은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기업소에 도착한 첫날부터 계절병과 월초, 월말병을 없애기 위해 투쟁하며 비좁은 구내길을 넓히기 위한 공사도 진행한다. 그러던 어느날 조선소에서 전국선박공업부문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최주식에게 1000t급의 운반선을 무을데 대한 과업을 주신다. 당위원장 리종윤과 최주식은 1년만에 배를 무어 어버이수령님께 충정의 보고를 드리기 위한 종업원궐기모임을 가지고 돌격대를 조직한다. 또한 최주식은 기능공문제를 풀기 위하여 당위원회와 합의하고 사회생활경위가 복잡한데다가 파오를 저질러 탄광에 가서 일하는 류경훈을 데려오며 지상확대식배무이방법을 연구하여 배무이를 앞당기기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는다. 한편 리종윤은 아래에 내려와 홍학주와 같은 사람들한테 대접이나 받다가 돌아가는 강준호국장이 전쟁시기부터 사랑하던 류선화를 위해 기사장이 탄광에서 그의 아버지를 데려왔다고 하지만 개의치 않고 그들의 결혼식을 차려준다. 어느날 현도장지붕이 바람에 날아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강준호는 현장에 내려와 사고심의를 조직하고 독단적으로 최주식에게 행정적제재를 가하며 류경훈을 다시 탄광으로 보낸다. 사업을 중지당하고 현장에 내려온 최주식은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밤낮없이 일을 내밀어 피해를 복구해놓는다. 이 시기 해당 일군들을 통하여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래전에 조선소에서 내보냈다고 하는 기능공들을 대담하게 데려오도록 하시는 한편 불치의 병에 걸린 최주식이 외국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해주신다. 그이의 따뜻한 사랑에 의하여 생명을 되찾고 지배인으로까지 임명된 최주식이가 배무이전투를 힘있게 밀고나가던 어느날 뜻하지 않게 저지른 파오로 하여 국장직위에서 해임되여온 강준호와 류경훈이가 제작한 제품이 오작나는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자 홍학주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강준호와 류경훈이를 공격해나섰지만 최주식은 그들을 믿고 힘을 합쳐 오작난 부분을 되살리며 기관을 통채로 들여놓아 배무이날자를 앞당길 방도도 찾아낸다. 배무이가 완성단계에 들어서자 이미전부터 사람들사이에 리간을 조성하고 배무이를 파탄시키기 위해 쏠라닥거리던 홍학주와 그의 처 오매월은 상전의 지시에 따라 배를 폭파시키려고 하다가 체포된다. 이것을 계기로 뼈저린 교훈을 찾은 강준호와 설계실장은 당위원회와 최주식을 찾아가 자신을 반성하며 강준호는 제일 난문제이던 추진기가공안을 내놓아 성공시킨다. 배가 건조되여 수산사업소에 넘겨지는 날 인도식장에 나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새형의 배를 훌륭히 만들어낸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을 축하해주시면서 최주식을 더 잘 알게 된것이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신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우리의 힘으로 10000t급 배도 만들수 있을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신다. 소설은 일군의 이야기를 듣고난 작가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세련된 령

도를 받는 조선소로동계급에 의하여 빛나게 관철되리라는것을 확신하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우리 나라 선박공업분야에서의 위대한 전환은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룩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5(1996)년판〕

《믿음의 세계》 단편소설. 주체97(2008)년 김룡연 창작.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돌려주신 크나큰 신임과 뜨거운 사랑을 형상한 작품이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무력부장인 오진우동지에게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직무를 겸임하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이야기를 통하여 장군님의 한없이 숭고한 혁명적풍모와 동지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제기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62살이 된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에게 총정치국장의 직무를 겸임하여 맡아수행할데 대하여 지시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오진우동지는 한없는 감격에 잠겨있었지만 장군님을 잘 받들어나가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지력이 모자란다고 생각되였기에 겸직문제를 두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며 수령님께 그 직무를 맡겠다는 대답을 드리지 못한다. 오진우동지의 이러한 심정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그로 하여금 새로운 용기와 기백을 가지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진우동지와 함께 사격장에 나가시여 함께 권총사격을 하시면서 그의 사격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시며 오진우동지가 인민군부대들에 나가서 전사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무릎싸움도 하였다는것을 아시고 못내 만족해하신다. 오진우동지로 하여금 패기와 열정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그와 함께 경마경기를 하신다. 작품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진우와 함께 경마경기를 하시는 장면이 박력있고 인상깊게 묘사되여있으며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장군님의 천출명장으로서의 위인상과 크나큰 믿음의 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경마경기에 참가한 오진우동지는 자기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되며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뜻을 받들어 총정치국장의 직무를 맡아할 결의를 굳게 다진다. 작품에는 오진우동지를 혁명선배로 존대하시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의 세계, 숭고한 위인적풍모가 위대한 수령님의 시점에서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묘사되고있으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풍모와 내면심리세계를 뜻이 깊은 대사와 행동묘사를 통하여 품위있게 형상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97(2008)년 2호〕

《밀림속에서 만난 로인》 단편소설. 주체49(1960)년 김근오 창작. 부상당한 항일유격대원을 목숨바쳐 구원한 한 로인의 투쟁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토비놈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였던 자기를 구원해준 항일유격대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있는 장로인은 사령부군수관 박기남이 다리에 부상당한채로 통신원 장준을 업고 나타나자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따뜻이 맞아들인다. 그는 다음날 아침에 통신원을 맡기고 떠나면서 미안해하는 기남이에게 오히려 섭섭해하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상자를 완치시키고 지켜내리라 결심한다. 그는 낮에는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고약을 만들어 붙여주고 입맛을 돋구어주기 위해 애쓰며 밤이면 환자의 고열을 근심하면서 뜬눈으로 지새운다. 그러던 어느날 왜놈들이 불의에 달려들자 로인은 부상자를 재빨리 감자움속에 숨긴 다음 유격대원을 내놓으라고 강박하며 악착한 고문

을 가하는 놈들과 굴함없이 맞서싸운다. 그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낼수 없게 된 놈들은 악에 받쳐 로인을 무참히 살해한다. 잠시후에 감자움에서 나온 장준과 급히 달려온 기남은 숨진 로인의 얼굴에 유격대원을 끝까지 지켜내였다는 긍지와 자부심의 미소가 어려있다는것을 느끼게 된다. 소설은 장로인의 빛나는 최후를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눈부신 활동에서 조국해방을 확신하며 유격대를 피로써 원호한 인민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와 위훈을 감명깊게 일반화하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49(1960)년 11호〕

《밀림속의 메아리》 영화문학. 설주용 창작.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항일혁명투사 김주현동지를 원형으로 하여 그의 투쟁과 생활에서 실재하였던 사실을 보여준 작품이다. 별동대를 이끌고 국내에 나가 활동하던 김주현은 자의대로 습격전투를 벌려 혁명에 엄중한 장애를 준것으로 하여 사령부의 호출을 받고 부대에 돌아와 책벌을 받게 된다. 련대장직위에서 해임되여 작식대일을 하게 되지만 그는 과오를 범한 자기를 따뜻이 이끌어주시며 잘못을 빨리 고치도록 깨우쳐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애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더 열성껏 하는 한편 대원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진정어린 비판을 스스로 받기도 하고 대원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에 의하여 다시 련대장으로 임명되여 혁명전사의 참된 삶과 고귀한 영예를 빛내여나가게 된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혁명전사의 기쁨과 보람은 그 어떤 직위나 명예에 있는것이 아니라 어느 초소에 있건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길에 있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작품은 주체78(1989)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밀림이 설레인다》 가사. 주체58(1969)년 리범수 창작.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설레이는 백두밀림의 숭엄한 모습을 통하여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길이 전하듯 끝없이 파도쳐 설레이는 백두밀림의 장엄한 모습을 생동한 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거기에 깃든 피어린 항일대전의 가지가지의 이야기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뜨겁게 돌이켜보는 우리 인민들의 숭엄한 사상감정을 감동깊이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백두대지에 아득히 펼쳐져 폭풍치며 설레이는 밀림의 정경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억세게 자라난 우리 혁명대오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형상하고있다. 가사는 백두밀림과 더불어 길이 전해갈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한 뜨거운 칭송의 감정을 끝없는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풍만한 서정과 웅심깊은 시적화폭으로 형상하고있다.
〔《조선음악전집》 1,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밀림의 력사》 장편서사시. 주체51(1962)년 박세영 창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에서 승리한 후 간삼봉전투에서 일제놈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긴 력사적사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고매한 덕성을 서사적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서시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여있다. 서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이 작품을 쓰게 된 시인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한 마을사람들은 정성껏 지원물자와 음식을 마련한다. 그러나 항상 인민들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마을사람들의 살림살이형편을 헤아리시고 그들에게 페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부대를 거느리시고 마을을 떠

나신다. 제2장에서부터 4장까지에서는 부대를 이끄시고 밀영에 오시여 숙영명령을 내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석철중대장과 영춘에게 정찰임무를 주시여 파견하시는 이야기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영춘이가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여 갖은 악형을 다 받다가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유격대원들에 의하여 구원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있다. 제5장과 6장에서는 적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로운 작전적방침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부대를 거느리시고 새로운 싸움터로 떠나시여 또다시 간삼봉에서 놈들의 《토벌》대를 족쳐버리시는 통쾌한 장면들을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은 이야기줄거리가 명백하면서도 서정성이 풍부하고 사건의 극성이 강하며 서사적묘사와 주정토로를 잘 결합시켜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을 뚜렷이 살려내고있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주체51(1962)년판〕

《밀림의 봄》 단편소설. 주체67(1978)년 김보행 창작. 항일무장투쟁시기 나어린 소년을 훌륭한 유격대원으로 키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어버이사랑을 형상한 작품이다. 일제놈들에게 부모를 잃은 갑수는 15살 어린 나이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에 의해 사령부 기관총반 부사수가 된다. 그런데 첫 전투에서 그는 부모들의 원쑤를 갚겠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규정에 어긋나게 탄알을 마구 소비하여 더 잡을수 있는 적도 놓쳐버린다. 이 일로 하여 갑수가 심각한 자책에 잠겨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가는 그 어떤 실패앞에서도 주저앉지 말고 혁명을 위해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잠시나마 맥을 놓고있던 그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다. 그후 갑수에게 사수와 함께 류성촌에 묻혀있는 기관총과 탄알을 가져올데 대한 임무를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량이 떨어지고 사수가 부상당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갑수를 몸소 마중나가시여 따뜻이 맞아주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3년이 지나는 동안 갑수는 명사수로, 어엿한 기관총수로 자라난다. 소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은 나어린 소년도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는 훌륭한 혁명가로 키우는 위대한 힘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집 《혁명의 첫 세대들》, 금성청년출판사, 주체67(1978)년판〕

《밀림의 서사시》 서정시. 주체78(1989)년 리광근 창작. 불멸의 구호나무들마다에 숭엄하게 새겨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노래한 작품이다.

> 어느 나라
> 그 어느 력사도
> 이렇게는 전해지지 않았더라
> 그 어떤 위인도
> 이렇게는 칭송받지 못했더라

시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대성이 구호나무들마다에 새겨진 사실은 《하늘이 다 알》고 《산천초목도 다 말하》는 력사상 전무후무한 경이적인 사실이라고 하면서 밀림의 설한풍을 헤치시며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천만가지 노래로 엮어도, 천만권의 책으로 적는대도 다 옮길수 없기에 천고의 밀림속 나무들에 새겨놓았다고 토로하고있다. 시에서는 계속하여 구호나무들이 설레이는 이 나라 강토는 가장 빛나는 혁명의 성지이며 가장 존엄높고 위대한 조국이라는것을 힘있게 강조하고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새겨안고 이 나라의 천만산발은 영원히 푸르러 설레일것이라고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시는 강렬한 충동과 깊은 정서적체험에 기초하여 힘있고 뜻깊은 시어들로써 시적일반화를 폭넓고 심오하게 실현하고있다. 〔《1980년대시선》, 문예출판사, 주체79(1990)년판〕

《매》 단편소설. 주체47(1958)년 전세진 창작. 리기주의에 물젖어있던 한 조합원이 자기의 낡은 사상관점을 고쳐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조합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꿩사냥으로 돈벌이를 하려고 호철은 안해의 눈을 피해가며 쌀 한가마니를 주고 도선이네 집에 있는 매를 바꿔온다. 탈곡이 한창 진행되는 때에 아프다는 핑게를 대고 며칠째 꿩을 사냥하던 호철은 학교에 다니는 아들 만수까지 데리고 산에 올라 꿩이 날고있는쪽으로 매를 날리며 잠시후에 매가 내려앉는 곳으로 허둥지둥 달려간다. 그런데 매는 이미 장끼 한마리를 다 뜯어먹고 어디론가 날아가버린다. 그때에야 호철은 배부르면 주인도 모르고 달아나버리는 매의 고약한 성질에 비추어 고마운 당의 은덕을 잊고 리기주의에 빠져 성실히 일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게 된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들은 생활이 유족해질수록 고생속에 살아온 과거를 잊지 말고 오늘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준 당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성실히 일해야 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히고있다. 〔《청년문학》 잡지, 주체47(1958)년 3호〕

《매력》 단편소설. 주체80(1991)년 류정옥 창작. 사회적본분을 다하고 의리와 도덕을 지키는것은 자기 인격을 높이는 고결한 품성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 나는 작업반에 새로 받아들인 양성공들에게 첫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 지예는 나의 중학교 동창생이며 졸업후에는 한 작업반에서 일을 한 첫 로동의 벗이다. 중학교시절에 내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아글타글할 때도 지예는 언제나 자기보다 동무들을 먼저 생각했고 자기 학습과제를 미루면서까지 동무들을 도와주군 하였다. 방직공장에 자원해와서도 자기가 계획을 넘쳐수행하는것은 물론 뒤떨어진 춘실이네를 이끌어 혁신자로 내세운다. 그리고 자신은 분공장이 생겼을 때 자그마한 변두리 분공장으로 자원해간다. 이때에야 나는 자신과 다른 지예의 감출수 없는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 지예는 분공장에서 혁신자로, 3대혁명붉은기작업반 반장이 되였고 나도 반장이 되여 양성공들에게 참다운 로동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해준다. 소설은 나와 지예의 대비적형상을 통하여 서로 위하고 도우면서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것이 우리 사회의 륜리이고 도덕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0(1991)년 9호〕

《매봉산의 노래》 가사. 주체42(1953)년 박원철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의 고지—매봉산을 지켜 용감하게 싸운 인민군용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노래한 작품이다. 가사의 1절과 2절에서는 까칠봉과 상심령을 눌러딛고 하늘에 나래펼친듯 높이 솟아있는 매봉산의 날카로운 모습을 노래하면서 인민군용사들이 이 고지를 지켜 원쑤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겼기에 그 모습이 그처럼 위용있고 자랑스러운것임을 긍지에 넘쳐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원쑤놈들이 백번천번 우리 나라를 엿보아도 뭇새마저 날아오르기를 주저하는 매봉처럼 철옹성같이 다져진 조국의 방선을 절대로 허물수 없다는 멸적의 기개와 승리의 신심을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매봉의 날카로운 위용을 통하여 인민군용사들의 슬기와 용맹을 형상적으로 강조하고 《얼씨구나 절씨구나》와 같은 조흥구와 《아하아》, 《어허어》 등 감탄사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매봉산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 그들의 불멸의 위훈을 민족적색채가 진하게 형상하고있다. 〔《조선음악전집》 1, 문예출판사, 주체71(1982)년판〕

《매혹》 단편소설. 주체87(1998)년 김준학 창작. 만민을 매혹시키시는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은 적대국의 최고위급인물이라고 말할수 있는 전 미국대통령의 부인 로잘린 카터가 고향에 도착하여 꿈같은 평양방문의 나날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씌여지고있다. 전쟁이냐 완화냐 하는 운명의 기로에서 미행정부의 《특별임무》를 받고 조선에 오는 남편을 따라 평양방문의 길에 오른 로잘린은 위대한 수령님과의 첫 상봉을 앞두고 불안과 흥분에 휩싸인다. 이미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도 읽어보고 조선을 두번씩이나 다녀온 빌리 그라함목사의 조언도 듣고온 그였지만 좀처럼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채 금수산의사당(당시)에 들어선다. 그러나 첫 상봉에서부터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따뜻이 맞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결한 인품에 이끌려 지미 카터와 로잘린은 대국의 외교사절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만다. 구면지기에게조차 롱담을 모르던 남편이 위대한 수령님과의 상봉에서 허물없이 롱담도 주고받게 되자 로잘린은 야릇한 반발심과 허전한 감정을 느끼며 첫 회담후 본국의 지시를 기다려 다음날 회담을 미루어야 하는 처지에서 뜻밖에 숙소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을 뵙게 되였을 때에는 그것이 회담상대를 수세에 몰아넣기 위한것으로 오해한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소탈하신 인품에 이끌리면서도 수령님께서 숙소를 급히 떠나가시자 다시금 새로운 의혹을 가지고 다음날 회담에 대해 우려한다. 그러나 남편의 취미를 헤아려 대동강의 유람선우에서 진행된 회담이 위대한 수령님의 너그러운 도량으로 성과적으로 끝나고 수령님께서 그들의 숙소를 급히 떠나시게 된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국에서 찾아온 옛 전우의 딸때문이라는것을 알게 되자 로잘린은 형언할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힌다. 특히 조미관계개선후 알라스카에 가서 낚시질을 하자는 카터의 청을 쾌히 받아들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께서 잡으신 물고기는 한마리도 팔지 않고 모두 인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며 낚시군들의 기쁨을 위해 배머리를 돌리게 하시는것을 보며 로잘린은 수령님이시야말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태양과 같은분이심을 절감한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 완전히 매혹된 전 미국대통령의 부인 로잘린 카터의 체험세계를 풍부하고 구체적인 사상감정과 섬세한 내면심리묘사, 인상적인 생활세부와 자유분방하고 기발한 언어표현으로 훌륭히 그려냄으로써 수령님의 사랑은 은혜로운 태양의 사랑이며 수령님의 풍격은 위대한 태양의 풍격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확증하고있다. 또한 독특한 묘사시점과 이야기줄거리의 극적전개방식, 예리한 대조와 대비의 수법, 격이 있는 인물형상으로 작품의 지성도와 예술적품위를 한층 높이고있다. 〔《조선문학》 잡지, 주체87(1998)년 9호〕

《매화꽃은 떨어졌다》 영화문학. 민병선 창작. 작품은 공화국북반부에 깊이 잠입하여 암해책동을 감행하던 적간첩일당을 일망타진하는 사회안전원들의 투쟁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어느 일요일 오래간만에 어머니와 애인 은심이와 함께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회안전원 석주의 단란한 가정생활을 보여주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때 갑자기 부장이 찾아와 석주를 데리고 어느 전람관으로 간다. 매화꽃병이 진렬되여있는 전람관을 찾은 석주는 동해수출품도자기공장상표가 붙은 매화꽃병에서 한개의 꽃잎이 없는 꽃송이를 발견한다. 부장은 이 사실을 단순한 도안미술가의 실수로 보지 않고 전쟁시기 이와 비슷한 대호를 가진 간첩일당을 체포하였으나 최가라는 첩보대장놈을 잡지 못한 사실과 결부시켜본다. 그들은 한개의 꽃잎이 없는 꽃송이가 첩자를 보내라는 신호이며 매화작전을 다시 개시하려는 시도라는것을 간파한다. 적들의 교활하고 음흉한 책동을 날날이 꿰뚫어본 사회안전원들은 놈들이 《매화》에게 들여보낸 《꽃잎》간첩을 체포하고 안전원 석주를 《꽃잎》으로 가장시켜 적소굴로 들여보낸다. 석주는 적들의 검토를

여러번 당하나 대담한 행동과 림기응변의 기지로 그것을 이겨내며 놈들의 준동을 앞질러 나가면서 《매화》의 졸개놈들을 다 들추어낸다. 그러나 《매화》의 정체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다. 깊숙이 숨은 《매화》를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석주는 매화꽃잎을 물고 날아든 꾀꼴새가 아직 매화나무에 앉지 못한 그림과 《꽃잎》이 《매화》와 접선하였음을 가상하여 그린 두개의 도안을 적소굴에 보낸다. 한편 교활한 원쑤놈들은 석주가 사회안전원이라는것을 확인하고 졸개를 시켜 살해하려고 하나 그것을 제때에 간파한 석주는 동지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계속 적에게 육박하여 망책을 체포하기 위한 활동을 과감히 벌린다. 마침내 석주를 비롯한 사회안전원들은 인민반의 위생반장으로 가장하고 오래동안 깊이 숨어 음흉하고 교활한 책동을 벌리던 망책 《매화》년을 체포하고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른바 매화작전을 짓부셔버린다. 작품은 적간첩암해분자들의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석주를 비롯한 사회안전원들의 형상을 통하여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그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예술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체59(1970)년에 영화로 제작되였다.

《맹세》 단편소설. 주체45(1956)년 리북명 창작. 전후복구건설시기 당앞에 다진 결의대로 기술혁신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자를 형상한 작품이다. 용선로복구를 위한 자재인수차로 출장을 갔다가 온 주인공 박만준은 수리작업반장 홍동무가 자신이 실패한 창의고안을 거의 완성하게 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 순간 당회의에서 다진 결의를 실천하지 못한 자책감을 느끼고 홍동무를 도와주기 위해 찾아갔던 만준은 그가 혼자서 할수 있다고 말하자 그냥 돌아온다. 그날 밤 만준은 생각끝에 출장길에서 익혀온 새 방법대로 주형틀의 심금뽑는 기계를 창안하는 일에 다시 달라붙는다. 당위원장과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침식을 현장에 옮긴 그에게 창안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을 다 보장해준다. 만준이가 시험에 열중하던 어느날 홍동무가 찾아온다. 그는 공장의 실정에서는 창안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한참 불평을 늘어놓더니 만준이더러 될것 같으면 함께 하자고 한다. 공명심과 명예욕이 가득찬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만준은 동의하지 않고 조수인 현수와 애인인 진옥이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해나간다. 실패를 거듭하던 만준이는 끝내 결의한 날자에 창의고안을 완성하여 힘든 손로동을 없애고 생산능률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한다. 작품은 당앞에 다진 맹세는 실천으로 지켜야 한다는것을 실패와 주저를 모르고 사심없는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강조하고있다. 〔소설집 《맹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주체45(1956)년판〕

《맹세》 중편소설. 주체67(1978)년 최재석 창작.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돌파구로 될 공작기계 1만대 생산을 위해 힘차게 일떠선 공작기계공장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의 투쟁모습을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공작기계 1만대 생산의 봉화를 높이 들고 ㅂ공작기계공장 설계기사로 일하고있는 주인공 신태현은 공작기계생산에서 결린 고리를 풀기 위하여 베트가공자동흐름선을 창안하고 설계초안까지 완성한다. 그러나 설계가 가지고있는 약점으로 하여 설계일군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뿐더러 애인인 임경혜로부터도 아픈 지적을 받게 된다. 이것으로 해서 태현과 경혜와의 사이도 벌어진다. 이러한 때에 조국해방전쟁시기 한전호속에서 싸운 전우인 황용하가 공장설계실 실장으로 배치되여온다. 신태현은 그에게 큰 기대를 건다. 그러나 그것도 헛된것으로 된다. 용하는 전쟁시기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 외국에 류학까지 가서 공부하고 왔지만 베트가공자동흐름선도입은 우리 나라의 기술조건에서 아직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주인공의 발기를 반대한다. 그러나 태현은 실망하지 않고 오랜 로동자인 강석훈의 고무와 기술집단의 도움을 받으면서 설계를 완성하고 기계제작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 그는 애인인 경혜의 지적이 옳았다는것을 느끼게 되며 현장으로 달려나온 애인과 다시 사랑을 두터이한다. 기계제작과정에는 여러가지 난관이 중첩되지만 신태현은 완강한 투쟁으로 이 모든것을 이겨내고 베트가공자동흐름선을 완성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린다. 소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 충정다해 싸운 그때의 혁명적기백과 열정으로 변함없이 살아가려는 주인공들의 지향과 높은 정신세계를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문예출판사, 주체67(1978)년판〕

《메밀밭》 단편소설. 주체52(1963)년 김규엽 창작. 메밀밭 한뙈기때문에 피눈물을 뿌려야 했던 지난날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여준 작품이다. 어느 한 군에 취재를 나갔던 나는 자식이 없는 한 로인의 환갑을 온 마을이 달라붙어 차려주도록 한 친구인 강석구 관리위원장을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 지난날 아버지의 환갑을 계기로 그가 겪은 가슴아픈 사연을 알게 된다. 일찌기 어머니를 잃은 강석구는 자기 하나를 키우기 위하여 고생해온 아버지의 환갑에 구차한대로 닭이나 잡고 메밀로 국수를 눌러 대접하려는 간절한 소망을 안고 근 보름째나 산비탈밭에서 돌들을 끌어내려 100여평정도의 밭을 만들게 된다. 이때 그의 6촌인 지주 강석현놈이 그 돌무지땅을 탐내여 왜놈산림간수와 짜고 음모를 꾸민다. 다음날 왜놈산림간수놈이 달려와 행패질을 부리며 군청으로 오라고 한다. 그러나 강석현놈의 속심을 모르는 석구는 일을 무사하게 해달라고 환갑에 쓰려던 닭 2마리를 그놈에게 바친다. 며칠후 군청산림계에서는 또다시 30원의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감옥으로 끌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자기가 잡혀가면 아버지의 환갑을 누가 차려주랴 생각한 석구는 하는수없이 강석현놈에게 집과 메밀밭까지 다 빼앗기고 돈 30원을 마련해가지고 군청으로 간다. 한편 석구의 아버지는 그 메밀밭때문에 닭과 집, 땅마저 빼앗아간 지주놈에 대한 증오가 타올라 그놈의 집마당에 있는 나무에 목매여 죽는다. 아버지의 죽음에서 참을수 없는 분노를 느낀 석구는 지주 강석현의 집에 불을 지른다. 작품은 계급적원쑤들의 착취적본성을 신랄하게 폭로하면서 놈들과는 그 어떤 기대와 환상도 가지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신문》, 주체52(1963)년 제79, 80호〕

《메아리》 중편소설. 주체65(1976)년 정성훈 창작. 조국해방전쟁시기 대학생출신의 인민군정찰병이 적후에서 발휘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은 전후복구건설로 들끓던 주체42(1953)년 가을 내가 평원선을 달리던 기차칸에서 만난 한 녀성군관에게서 이야기를 듣는 형식으로 씌여졌다. 철교복구로 기차에서 내려 산기슭의 어느 한 초가집에서 녀군관과 함께 하루밤을 보내게 된 나는 그에게서 잊을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조선인민군 중위 신은주는 기계공학자 신우교수의 외동딸이였다. 아들이 없는 교수의 집에서는 은주가 큰 기쁨이였고 희망이였다. 그런데 신우교수에게는 자기 딸 은주보다 더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탄광기계를 연구하겠다는 강철이라는 청년이였다. 강철은 학구적이며 열정적인데가 있었지만 은주 어머니나 은주앞에서도 낯을 붉히는 어진 청년이였다. 그와는 반대로 박승학은 깍듯이 인사치레를 할줄 아는 외교성있는 청년이였다. 은주는 처음에 강철의 모습을 보면서 웃기도 하

였으나 고아로 떠돌아다니다가 탄광에서 일하는 자기를 우리 나라의 첫 공업대학으로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은덕에 보답하려고 하루하루를 보람찬 탐구의 나날로 보낸다는 그의 진정을 듣고 점차 리해하며 사랑하게 된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강철과 은주, 승학은 전선으로 나간다. 소설은 이전부터 신우교수와 련계가 깊은 탁진사단장의 사단에서 정찰소대장으로 싸우는 강철, 병기수리소에서 병기기사로 복무하는 은주, 참모로 일하는 박승학 등 대학생출신 군인들의 생활과 투쟁을 다양하게 펼치고있다. 사단이 큰 싸움을 준비하고있을 때 이들은 대학생출신의 군인들을 대학에로 불러주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강철은 준비하고있던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떠날것을 제기하며 은주는 정찰소대에 통역이 필요하다는것을 알고 함께 적후로 들어갈것을 사단장에게 제기하고 부대에 남는다. 그리하여 승학만이 대학으로 가게 된다. 며칠동안의 훈련을 마친 후 강철은 소대원들과 은주를 인솔하고 적후로 들어간다. 은주는 긴장한 전투의 나날을 보내면서 적포로의 발언내용을 통역하여 정찰조의 임무수행에 도움을 준다. 여러번 정찰병들을 파견하여 적정을 살피도록 한 강철은 자신이 직접 적포탄창고를 알아보려고 황지연을 데리고 떠난다. 얼마동안 지나서 강철에게서 다음행동으로 넘어가라는 무전이 날아온 후 전혀 소식이 없다. 은주는 무전수와 함께 강철이네를 찾으며 초조히 기다리나 다시는 무전이 날아오지 않는다. 한편 동굴속에 적포탄이 적재되여있다는것을 알아낸 강철은 황지연과 함께 적들의 포탄차를 잡아타고 굴입구까지 가서 보초를 제껴버리고 굴속으로 들어간다. 폭파준비를 하고 황지연을 먼저 내보낸 강철은 희생을 무릅쓰고 그 굴을 폭파시킨다. 그후 은주는 강철의 소식을 전혀 알수 없었다. 소설은 평양역에서 신은주와 내가 헤여지는것으로 끝난다. 강철의 그후 이야기는 주체76(1987)년에 나온 《메아리》의 속편 《영원한 메아리》에서 다시 펼쳐지고있다. 부상당한 강철은 그후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세발자전거를 타고 청곡기계수리공장이 있는 청림에 와서 자신을 숨기고 산다. 신은주는 연구소에 배치받아 일하면서 강철의 소식을 알려고 수소문하지만 알길이 없었다. 청곡기계수리공장에서 사슬콘베아를 만들도록 도와준 강철의 투쟁과 이곳 로동계급의 혁신적성과가 출판물에 보도되고 이곳에 출장갔던 연구소 부소장 선우심에 의하여 신은주는 강철을 찾아낸다. 그러나 강철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은주를 멀리한다. 청곡기계수리공장에 내려가 로동자들의 일을 도와주면서 강철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은주의 진정에 의해 이들의 사랑은 다시 꽃피게 된다. 기계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슬콘베아를 만들어낸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을 치하해주시고 강철을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해주신다. 강철은 그후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으며 다리를 치료하고 대지를 활보하게 된다. 소설은 강철과 은주의 이러한 이야기를 반당반혁명분자인 염부수상에게 붙어서 외국에 다니며 화려한 생활을 추구하는 승학과 대조시켜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소설은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인간의 참된 삶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정의 한마음을 안고 그이의 혁명전사로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데 있으며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는 영원한 삶의 메아리로 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금성청년출판사, 주체65(1976)년판〕

《메아리》 단편소설. 주체77(1988)년 조명기 창작.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인민정권의 존엄을 지켜 싸운 한 농민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손수만은 리인민위원회간판을 떼가지고 후퇴대렬을 따라설데 대한 지시를 받는다. 하지만 인간의 권리와 행

복만을 안겨주던 인민정권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하여 간판에 선뜻 손을 대지 못하고있던 그는 그만 갑자기 달려든 적들에게 붙잡히게 된다. 해방과 함께 남으로 쫓겨갔다가 들어온 지주 지병선은 자기의 머슴이였던 수만을 허술히 보고 그의 손으로 간판을 떼낼것을 강요한다. 지병선은 수만이 제놈들의 강요에 응하지 않게 되자 졸개를 시켜 리인민위원회간판을 대패로 밀어버리도록 한다. 그리고는 또다시 손수만에게 그 간판에다가 《자치위원회》라는 저들의 명판을 쓸것을 강요한다. 하지만 붓을 억세게 틀어쥔 손수만은 거기에다 해방후 5년동안 손에 익혀온 《청계리인민위원회》라는 글을 써넣은 다음 그 명판을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문기둥에 대고 힘있게 못질한다. 소설은 손수만의 형상을 통하여 인민들의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잡고있는 우리 인민정권에 대한 지지와 신뢰의 감정은 그 무엇으로써도 지워버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문학》잡지, 주체77(1988)년 11호—12호〕